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의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6. 8.(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참석위원 : 박은경(위원장), 김규호, 김태영, 박은순  
이완우, 이종민, 이한상, 임영애, 최영호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b>【심의사항】 6건</b>		<b>비 고</b>
	<b>&lt;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gt;</b>	
1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공 개
2	근목	공 개
3	아미타여래구존도	공 개
4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공 개
	<b>&lt;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정보 정정&gt;</b>	
5	보물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지정정보 정정	공 개
6	보물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 지정정보 정정	공 개
<b>【검토사항】 7건</b>		
	<b>&lt;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gt;</b>	
7	이순신 유물 일괄	공 개
8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공 개
	<b>&lt;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gt;</b>	
9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	공 개
10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공 개
11	파주 보광사 동종	공 개
12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71	공 개
13	불조삼경	공 개



심 의 사 항





#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등산 2023-03-001

## 1.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朝鮮王朝 御寶·御冊·敎命)

### 가. 심의사항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2.15./’16.6.13./’17.2.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1.31./’2.2./’2.20./’2.23.) 및 과학조사(’23.2.17./’2.2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5.3.~’23.6.2.)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보는 ’18.1월~’20.10월 과학조사 완료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朝鮮王朝 御寶·御冊·敎命)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국유(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박물관
- 수 량 : 총 637점(어보 318과, 어책 290첩, 교명 29축)
- 조성연대 : 1420년~1910년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 전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 전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 (종합의견)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왕비, 왕세자(王世子), 왕세자빈(王世子嬪) 등을 책봉(冊封)하거나 왕과 왕비, 상왕(上王), 왕대비(王大妃), 대왕대비(大王大妃) 등에게 존호(尊號), 시호(諡號), 묘호(廟號), 휘호(徽號) 등을 올릴 때 그 호칭을 새겨 수여하는 의례용 인장과 의례용 책문, 그리고 책봉할 때 함께 내리는 훈유문서를 말한다.

어보(御寶)란 왕·왕세자·왕세제·왕세손과 그 배우자를 책봉(冊封)하거나 존호(尊號)·시호(諡號)·휘호(徽號) 등을 수여하며 만든 의례용의 인장(印章)이다. 어보는 어보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여러 구성품들이 함께 구성되었다. 각종 『의궤(儀軌)』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어보(御寶), 보통(寶筒), 보록(寶盞), 주통(朱筒), 주록(朱盞), 보자기[褰袂袱, 褰單袱], 열쇠 및 자물쇠[鎖鑰匙具], 묶는 끈[結纓子], 호갑(護匣), 의향(衣香) 등이 있다.

어책(御冊)은 의례용 인장인 어보와 함께 수여되는 것으로서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신분과 재질에 따라 옥책(玉冊)·죽책(竹冊)·금책(金冊) 등으로 구별하였다. 옥책은 왕비를 책봉(冊封)하거나, 왕과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 덕을 높이 기리는 뜻으로 올리는 칭호), 시호(諡號; 죽은 뒤에 행적에 따라 올리는 칭호), 휘호(徽號; 왕비에게 시호와 함께 올리는

칭호) 등을 올릴 때 옥간(玉簡)에 그 내용을 새겨 첩(貼)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죽책은 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을 책봉할 때와 존호 및 시호를 수여할 때 사용되었다. 그리고 후궁의 시호를 수여할 때에도 죽책을 사용하였고,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을 수여하였다. 죽책문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나 문장은 사육변려문(四六駢儷文)을 쓴 것이 다르다. 죽책의 내용은 대개 착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포미권계(褒美勸戒)’의 내용이다. 한편, 금책은 대한제국 선포 후인 1897년 황제를 칭하면서 승하한 왕비를 황후로 추봉하고, 왕세자 척(척, 순종)을 황태자로, 왕세자비 민씨를 황태자비로 책봉하면서 수여하였다. 황실에서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 등을 책봉할 때 금편(金片)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를 금책이라 한다.

교명(敎命)은 왕의 전선(傳禪)<sup>1)</sup>이나 왕세자 관례(冠禮),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王世弟)·왕세제빈·왕세손(王世孫)·왕세손빈·후궁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이다.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보(冊寶; 玉冊과 金寶)를 수여하고,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冊印; 竹冊과 玉印)을 수여한다. 교명은 옥축(玉軸)에 비단으로 감싸서 만든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홍색, 황색, 남색, 백색, 흑색 등 오색 비단에 먹으로 필사한 것이다. 교명의 시작 부분에는 용 두 마리가 오르내리는 승강룡(昇降龍) 사이에 교명(敎命)이라는 전서체 글자를 직조하여 넣었다. 교명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나, 교명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국새를 날인하는데, ‘조선왕보(朝鮮王寶)’를 날인한 것도 있다.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은 왕실의 사당인 종묘의 신실(神室)에 봉안되어 전승되었다. 조선왕실의 종묘는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으로 구성되는데 정전에는 19개 신실(神室)에 19위(位)의 왕과 30위의 왕비 신주를 모셔 놓았다. 정전 서쪽에 있는 영녕전에는 16개 신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15위의 왕과 17위의 왕비 그리고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의민황태자(懿愍皇太子)의 신주를 모셔 놓았다. 종묘 각 신실의 중앙에는 신주장(神主櫨)을 두어 신주를 봉안하고, 좌측 즉 동쪽에는 보장(寶櫨)을, 우측 즉 서쪽에는 책장(冊櫨)을 둔다. 보장에는 어보를, 책장에는 교명(敎命)·옥책(玉冊)·죽책(竹冊)·금책(金冊) 등을 봉안하였다.

1) 임금이 살아계실 때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는 것. 내선, 선양, 전수, 전위라고도 한다. 태조, 태종, 세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 교명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표> 종묘 정전(正殿)

묘실(廟室)	왕	왕후	비고
제1실	태조(太祖)	신의왕후(神懿王后)	
		신덕왕후(神德王后)	
제2실	태종(太宗)	원경왕후(元敬王后)	
제3실	세종(世宗)	소헌왕후(昭憲王后)	
제4실	세조(世祖)	정희왕후(貞熹王后)	
제5실	성종(成宗)	공혜왕후(恭惠王后)	
		정현왕후(貞顯王后)	
제6실	중종(中宗)	단경왕후(端敬王后)	
		장경왕후(章敬王后)	
		문정왕후(文定王后)	
제7실	선조(宣祖)	의인왕후(懿仁王后)	
		인목왕후(仁穆王后)	
제8실	인조(仁祖)	인렬왕후(仁烈王后)	
		장렬왕후(莊烈王后)	
제9실	효종(孝宗)	인선왕후(仁宣王后)	
제10실	현종(顯宗)	명성왕후(明聖王后)	
제11실	숙종(肅宗)	인경왕후(仁敬王后)	
		인현왕후(仁顯王后)	
		인원왕후(仁元王后)	
제12실	영조(英祖)	정성왕후(貞聖王后)	
		정순왕후(貞純王后)	
제13실	정조(正祖)	효의왕후(孝懿王后)	
제14실	순조(純祖)	순원왕후(純元王后)	
제15실	문조(文祖)	신정왕후(神貞王后)	
제16실	헌종(憲宗)	효현왕후(孝顯王后)	
		효정왕후(孝定王后)	
제17실	철종(哲宗)	철인왕후(哲仁王后)	
제18실	고종(高宗)	명성황후(明成皇后)	
제19실	순종(純宗)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표> 종묘 영녕전(永寧殿)

묘실(廟室)	제왕	왕후	비고
제1실	목조(穆祖)	효공왕후(孝恭王后)	
제2실	익조(翼祖)	정숙왕후(貞淑王后)	
제3실	도조(度祖)	경순왕후(敬順王后)	
제4실	환조(桓祖)	의혜왕후(懿惠王后)	
제5실	정종(定宗)	정안왕후(定安王后)	
제6실	문종(文宗)	현덕왕후(顯德王后)	
제7실	단종(端宗)	정순왕후(定順王后)	
제8실	덕종(德宗)	소혜왕후(昭惠王后)	
제9실	예종(睿宗)	장순왕후(章順王后)	
		안순왕후(安順王后)	
제10실	인종(仁宗)	인성왕후(仁聖王后)	
제11실	명종(明宗)	인순왕후(仁順王后)	
제12실	원종(元宗)	인헌왕후(仁獻王后)	
제13실	경종(景宗)	단의왕후(端懿王后)	
		선의왕후(宣懿王后)	
제14실	진종(眞宗)	효순왕후(孝順王后)	
제15실	장조(莊祖)	헌경왕후(獻敬王后)	
제16실	영왕(永王)	영왕비(永王妃)	

의물(儀物)의 관리는 주로 종묘서(宗廟署)에서 담당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기록을 보면 종묘서에서 “종묘의 옥책, 죽책과 고명(告命)은 종묘서(宗廟署)의 제조(提調)가 매년 한 번씩 만들어 살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가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의원(尙衣院)에서 관리한 예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 이때 정리된 기록물이 『종묘의궤(宗廟儀軌)』, 『종묘등록(宗廟謄錄)』, 『책보록(冊寶錄)』 등이다.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은 다음과 같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독특한 왕실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로서 500여 년간 거행된 조선 왕실 의례의 통시성(通時性)과 역사성(歷史性)을 보여준다.

둘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및 『조선왕실의궤』 등 왕실 의례와 관련된 문헌 기록이 온전히 남아 있어 왕실 의례의 내용과 성격, 의례의 절차와 형식, 의례에 사용된 의물(儀物)의 제작자 및 재료와 도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셋째, 왕이나 왕비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의물(儀物)로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 제술관(製述官)이 문장을 짓고, 명망 높은 서예가인 서사관(書寫官)이 쓰고, 각 분야에서 20~30년간 장기간 활동하면서 그 솜씨를 인정받은 관영이나 군문 소속 최고 장인들이 제작한 조형예술품의 백미로서 예술적 가치가 높다.

넷째,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의물(儀物)은 왕실의 사당인 종묘의 신실에 봉안되어 전승되어온 유물로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인 유교의 여러 덕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유물이다.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유물로 현대 한국 사회의 정서적인 면과 공동체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다섯째, 조선왕조의 어보·어책·교명은 지난 2017년 유물의 진정성과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조선왕실 어보어책’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어보·어책·교명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기준)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지정 명칭은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으로 한다. 관련 유물인 보통(寶筒), 보록(寶鬘), 주통(朱筒), 주록(朱鬘), 보자기[褰袂袱, 褰單袱], 열쇠 및 자물쇠[鎖鑰匙具], 묶는 끈[結纒子], 호갑(護匣), 의향(衣香) 등은 제외한다.
- 2) 1)항에 의거 제작 시기의 하한은 1910년까지로 한다. 제작의 주체는 조선왕실 및 대한제국의 황실이며, 일제강점기 제작된 유물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공간의 범위는 종묘 정전 19실과 영녕전 16실에 봉안된 왕과 왕비의 어보, 어책, 교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의 어보, 어책, 교명을 봉안하고 있던 장소는 종묘(宗廟)를 비롯한 외규장각(外奎章閣), 봉모당(奉謨堂), 행궁(行宮) 등이다. 그밖에도 의소세손이나 문효세자 등 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와 왕을 낳은 후궁들의 어보를 보관했던 의소묘(懿昭廟)<sup>2)</sup>, 문희묘(文禧廟)<sup>3)</sup>, 선희궁(宣禧宮)<sup>4)</sup>, 경우궁(景祐宮)<sup>5)</sup> 등 왕실 개인 사묘(祠廟) 공간은 제외한다.
- 4) 어보, 어책, 교명의 수여 대상자는 왕실 및 황실의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왕과 왕비,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 등과 왕세자빈, 왕세제빈, 왕세손빈 그리고 상왕, 태상왕, 왕대비, 대왕대비, 황제,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 태후 등과 추존왕과 왕비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단 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와 왕을 낳은 후궁 등은 제외한다.

2) 영조의 세손(世孫) 의소(懿昭)의 사당.

3) 정조의 아들인 문효세자(文孝世子)의 사당.

4)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思悼世子: 장헌세자)의 생모인 영빈이씨(暎嬪李氏)의 사당.

5)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씨(綏嬪朴氏)의 사당.

5)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의 지정명칭은 의례의 주인공, 의례 명칭, 재질, 유물 유형의 순으로 한다.

예시1) 穆祖 上諡號 金寶

예시2) 太宗妃 元敬王后 上諡號 金印

예시3) 太祖 追上諡號 玉冊

예시4) 顯宗 王世孫冊封 竹冊

예시5) 高宗妃 明成皇后 皇后冊封 金冊

예시6) 仁祖繼妃 壯烈王后 王妃冊封 敎命

### (지정 대상-목록 별첨)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은 조선시대에는 종묘서에서 관리하였으나, 일제강점기(1910~1945년)에는 일본 궁내성 소속인 이왕직(李王職)이 관리하였으며 광복 이후로는 구황실사무청(1945년 11월~1955년 6월), 구황실사무총국(1955~1961년 10월)이 주관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에는 문화재관리국(1962년 설립), 궁중유물전시관(1992년 설립, 문화재관리국 소속 기관), 국립고궁박물관(2005년 개관)이 승계하여 관리하였다. 현재 유물은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 등의 3개처에서 보존 관리되고 있다.

현재 확인되는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은 모두 963점에 해당한다. 그 중 지정기준에 근거한 조사 대상은 어보(御寶) 318과, 옥책(玉冊) 253첩, 죽책(竹冊) 34첩, 금책(金冊) 3첩, 교명(敎命) 29축으로 모두 637점이 해당된다. 종묘에 부묘되지 않은 대상과 1910년 이후 제작된 유물에 해당하는 자료는 ①어보 15과 ②옥책 5첩 ③죽책 9첩 ④금책 4첩 ⑤교명 3축 등이 있다.

소장처별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소장처	어보	어책	교명	비고
국립고궁박물관	312과	288첩	28축	
국립중앙박물관	4과	2첩	1축	
고려대학교박물관	2과	-	-	
<b>합계</b>	<b>318과</b>	<b>290첩</b>	<b>29축</b>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 I. 개괄

조선시대의 국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 왕세제와 왕세제빈 등 왕실 가족에게는 그들의 지위에 상응하는 어보·어책·교명이 주어졌다. 국왕은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등을 책봉할 때 주인공의 지위를 표시한 어보·어책과 오늘날의 임명장에 해당하는 교명을 내렸다. 또한 국왕이 선대 국왕과 왕비의 공덕을 드러내는 존호(尊號)를 올릴 때는 새 존호를 새긴 어보와 어책을 제작하여 올렸다. 그리고 국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등이 사망하면 그들의 생애를 평가한 시호(諡號)를 새긴 시보(諡寶)와 시책(諡冊)이 제작되었다. 왕비가 사망하면 시호와 함께 특별히 휘호(徽號)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휘호는 존호의 일종이었다.

국왕과 왕비 등 왕실 가족에게 올린 어보·어책·교명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생활 공간에, 본인이 사망하여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혼전(魂殿)에 보관되었고,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신 이후에는 종묘의 각 신실에 비치된 보장(寶槩)과 책장(冊槩)에 보관되었다.



<종묘 신실의 보장과 책장>



왕실 가족의 존호는 주인공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올릴 수 있었다. 존호를 처음 올릴 때는 ‘상존호(上尊號)’라 하고, 살아있을 때 추가로 올리는 존호는 ‘가상존호(加上尊號)’, 사망한 이후에 올리는 존호는 ‘추상존호(追上尊號)’라고 하였다. 또한 휘호를 올릴 때는 ‘상휘호(上徽號)’, 시호를 올릴 때는 ‘상시호(上諡號)’라 하였다. 왕실 가족에게 올리는 존호의 글자 수는 지위에 따라 달랐다. 국왕에게는 8글자, 왕세자에게는 4글자, 왕비와 왕세자빈에게는 2글자의 존호를 올렸다. 왕비에게 올리는 휘호는 4글자였다.

왕실 가족의 시호는 주인공이 사망했을 때 한 번 올리는 것이 원칙이나 후대에 새로운 시호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영조의 경우 1776년에 사망했을 때 시호(翼文宣武 熙敬顯孝)를 올렸지만, 1890년에 묘호(廟號)를 ‘영종(英宗)’에서 ‘영조(英祖)’를 바꾸면서 새로운 시호(正文宣武 熙敬顯孝)를 올렸다. 왕실 가족에게 올리는 시호의 글자 수도 지위에 따라 달랐다. 국왕에게는 8글자, 왕세자, 왕비, 왕세자빈에게는 2글자의 시호를 올렸다.

어보는 왕실 가족을 책봉하거나 존호 또는 시호를 올릴 때 사용하는 도장으로, 등급에 따라 보(寶)와 인(印)으로 구분되었다. 보(寶)는 국왕과 왕비에게 올리는 도장으로 재료에 따라 금보(金寶)와 옥보(玉寶)가 있었다. 인(印)은 왕세자와 왕세자빈, 왕세손에게 올리는 도장으로 재료에 따라 은인(銀印)과 옥인(玉印)이 있었다. 별도로 금인(金印)이 있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왕비에게 존호를 올릴 때, 후기에는 장헌세자(사도세자)와 국왕의 후궁에게 존호를 올릴 때 금인(金印)을 제작한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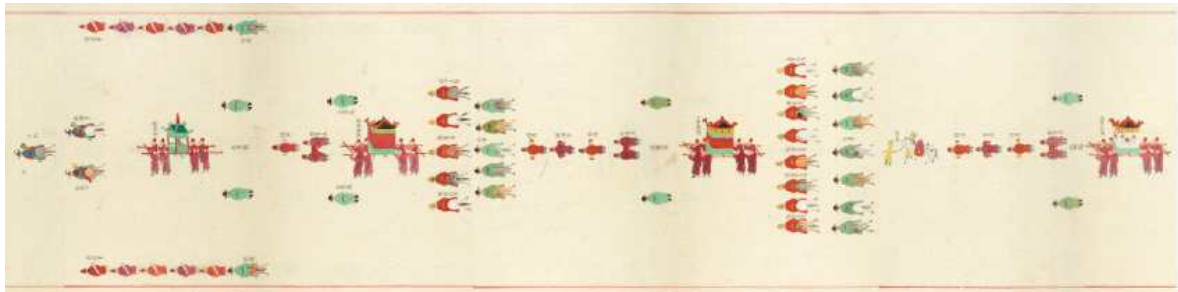
어책은 왕실 가족을 책봉하거나 존호 또는 시호를 올릴 때 사용하는 문서로, 재료에 따라 옥책(玉冊), 죽책(竹冊), 금책(金冊)으로 구분되었다. 옥책은 국왕, 왕비, 대비, 왕대비, 대왕대비 등에게 존호와 시호를 올릴 때와 왕비를 책봉할 때 제작되었다. 죽책은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제, 왕세제빈, 왕세손, 후궁 등에게 존호와 시호를 올릴 때와 그들을 책봉할 때 제작되었다. 금책은 대한제국기에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 친왕, 친왕비 등을 책봉할 때 제작되었다.

교명은 국왕이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제, 왕세제빈, 왕세손 등을 책봉할 때 주는 문서로 주인공에게 교훈과 경계를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교명은 아름다운 오색비단으로 장식되어 화려하며, 시작 부분에 전문(篆文)으로 ‘敎命’이라는 두 글자의 수가 있고, 끝부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교명은 조선 초에는 종이로 만들었다가 세종 대에 양원(良媛) 권씨를 왕세자빈으로 책봉할 때부터 비단에 장식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 1. 국왕 가례 때의 어보·어책·교명

국왕의 가례는 제일 먼저 왕비를 간택하는 절차가 있었다. 전국에 금혼령을 내리고, 왕비 후보자들의 처자단자(妻子單子)를 접수하며,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을 통해 왕비를 결정하였다. 새 왕비는 별궁에 거처하면서 왕실의 법도와 가례 의식을 익혔다. 왕비의 간택이 진행되는 동안 가례도감에서는 새 왕비에게 줄 금보·옥책·교명의 글을 지을 제술관(製述官)과 글씨를 쓸 서사관(書寫官)을 결정하였다.

국왕의 가례는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납채는 국왕의 명을 받은 사신이 별궁의 주인(국왕의 장인)에게 왕비로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국왕의 교서와 기러기를 전달하는 의례이고, 납징은 사신이 별궁의 주인에게 국왕이 보내는 폐백과 말을 전달하는 의례였다. 고기는 사신이 별궁의 주인에게 가례 기일을 알리는 국왕의 교서를 전달하는 의례이고, 책비는 사신이 별궁의 왕비에게 금보·옥책·교명을 전달하면서 왕비로 책봉하는 의례였다. 친영은 국왕이 별궁으로 가서 기러기를 전달한 후 왕비를 맞이하여 궁궐로 돌아오는 의례이고, 동뢰연은 국왕이 왕비를 맞아 궁궐로 돌아온 후 어전에서 함께 술 3잔을 마시는 의례였다. 친영 때 새 왕비는 책비 때 받았던 금보·옥책·교명을 가지고 궁궐로 들어왔다.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친영 반차도에 나타나는 교명·옥책·금보>

## 2. 국왕 장례 때의 어보·어책·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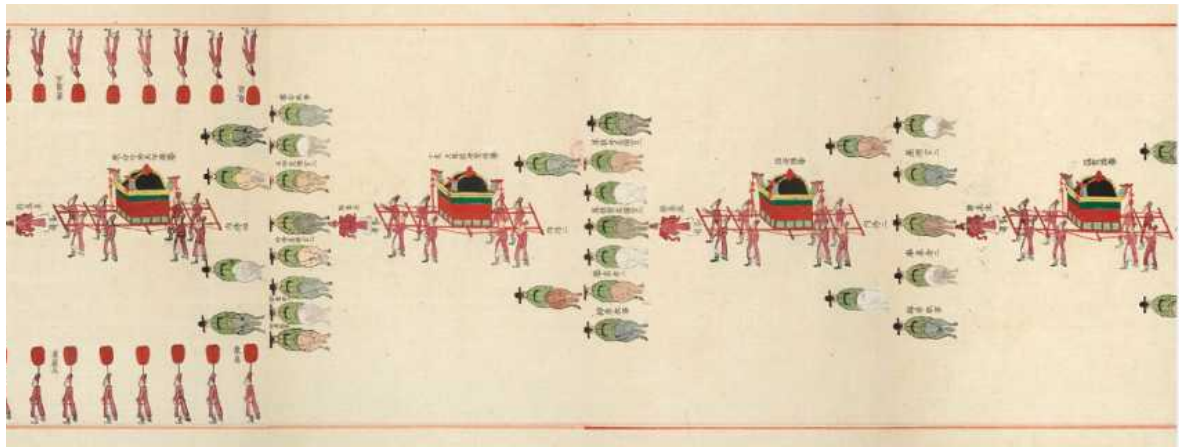
국왕이 승하하면 국장도감을 설치하여 국장을 진행하였다. 국장은 빈전(殯殿)의 마련, 성복(成服), 발인(發靱), 하현궁(下玄宮), 반우(返虞)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왕이 승하하면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습(襲), 옷과 이불로 시체를 감싸는 소렴(小斂)과 대렴(大斂)이 진행되며, 이후 시신을 재궁(梓宮)에 넣어 빈전에 모신다. 대렴 다음날 새 국왕은 성복을 하고 즉위식을 거행한다. 국왕이 사망한 다음 달에 승하한 국왕의 묘호(廟號), 능호(陵號), 시호(諡號)를 정하고, 이를 새긴 시보(諡寶)와 시책(諡冊)을 제작하였다. 시보와 시책은 종묘로 가서 시호를 청하는 의례를 거행한 후 빈전으로 돌아와 보관되었다.

발인이 시작되면 국왕의 재궁이 궁궐을 떠나 노제(路祭)를 거행하고 장지에 이

르렀다. 발인 행렬이 산릉도감이 만들어 놓은 장지에 도착하면 재궁을 정자각에 모시고, 녹로 등의 기계를 이용하며 하현궁을 한다. 길유궁(吉帷宮)에서 우주(虞主, 가신주)에 이름을 쓴 후 궁궐에 돌아오는 반우를 하고, 우주를 혼전에 모시고 우제(虞祭)를 지냈다. 혼전에서 1년이 지나면 연주(練主)라는 새 신주를 만들어 연제(練祭)를 지내고, 3년이 지나면 담제(禫祭)를 지내고 연주를 종묘에 모시는 부모(祔廟)를 하였다.

발인이 시작되면 국왕이 왕세자로 책봉될 때 받은 교명·죽책·옥인, 존호를 올릴 때 받은 어보와 어책, 시보와 시책이 재궁과 함께 장지로 이동하였고, 반우 때에는 행렬과 함께 혼전으로 돌아와 보관되었다. 삼년상이 끝나고 부모할 때 혼전에 있던 어보·어책·교명은 종묘로 이동하여 신실에 보관되었다. 그런데 효종이 왕세자 책봉 때 받았던 죽책과 옥인, 인선왕후가 왕세자빈 책봉 때 받았던 죽책과 옥인은 장지로 이동했다가 왕릉(영릉)에 매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순조국장도감의궤』 발인 반차도에 나타나는 교명·죽책·옥인, 상존호책·보, 시책, 시보>

### 3. 문조(효명세자, 익종)와 신정황후의 어보·어책·교명

국왕과 왕비에게 올리는 존호는 주인공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새 존호를 올릴 때마다 이를 새긴 어보와 어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왕과 왕비가 받는 어보와 어책의 숫자도 점점 늘어났다.

문조와 신정황후는 가장 많은 어보와 어책을 받은 국왕(황제)과 왕비(황후)라 할 수 있다. 문조는 세자의 지위에서 사망했으나 아들 헌종에 의해 국왕으로 추송되었고, 양자인 고종에 의해 황제로 추존되었다. 문조의 부인인 신정황후는 남편의 지위에 따라 왕비, 황후가 되었다. 고종은 신정황후의 발탁으로 문조와 신정황후의 후사가 되어 국왕이 되었으므로, 고종은 여러 차례 존호를 올렸다.

다음의 <표>는 문조와 신정황후가 받은 존호와 제작된 어보·어책·교명을 정리한 것이다.

<표> 문조·신정황후의 존호와 어보·어책·교명

시기	문조 존호	신정황후 존호	어보 어책 교명	비고
1812. 07. 06.	王世子		옥인 죽책 교명	세자 책봉
1819. 10. 11.		王世子嬪	죽책	세자빈 책봉
1830. 07. 15.	孝明(시호)		옥인 죽책	문조 사망
1835. 05. 19.	翼宗(묘호) 敦文顯武 仁懿孝明(시호)		금보 옥책	문조 국왕 추승
1836. 10. 11.		孝裕		순조 부모 후
1848. 03. 15. 1848. 03. 16.	體元贊化 錫極定命	獻聖	금보	신정황후 망오
1852. 08. 10.		宣敬		헌종 부모 후
1853. 10. 08. 1853. 10. 09.	聖憲英哲 睿誠淵敬	正仁	금보 옥책 옥보	철종 즉위 4년
1859. 10. 11.		慈惠	옥보 옥책	순원황후 부모 후
1863. 12. 21.		弘德	옥보 옥책	은언군 종계 변무
1866. 02. 10.		純化	옥보 옥책	철종 부모 후
1866. 04. 03. 1866. 04. 04.	隆德純功 篤休弘慶	文光	금보 옥책 옥보 옥책	신정황후 철립
1867. 01. 03. 1867. 01. 04.	洪運盛烈 宣光潛祥	元成	금보 옥책 옥보 옥책	신정황후 60세
1868. 12. 06.		肅烈	옥보 옥책	신정황후 회갑
1869. 01. 03. 1869. 01. 06.	堯欽舜恭 禹勤湯正	明粹	금보 옥책 옥보 옥책	문조 60세
1873. 04. 17.		協天	옥보 옥책	고종 즉위 10년
1875. 12. 20. 1875. 12. 21.	啓天建統 神勳肅謨	隆穆	금보 옥책 옥보 옥책	문조 세실 지정
1877. 01. 03. 1877. 01. 07.	乾大坤厚 廣業永祚	壽寧	금보 옥책 옥보 옥책	신정황후 70세
1878. 01. 09.		禧康	옥보 옥책	신정황후 망팔
1879. 01. 03. 1879. 01. 04.	莊義彰倫 行健配寧	顯定	금보 옥책 옥보 옥책	가례 60주년
1883. 01. 06. 1883. 01. 10.	基泰垂裕 熙範昌禧	徽安	금보 옥책 옥보 옥책	왕대비 50주년
1886. 01. 08.		欽倫	옥보 옥책	신정황후 79세
1887. 01. 02. 1887. 01. 13.	立經亨道 成獻昭章	洪慶	금보 옥책 옥보 옥책	신정황후 80세 대리칭정 60주년
1888. 01. 24.		泰運	옥보 옥책	신정황후 81세
1888. 03. 13.		昌福	옥보 옥책	고종 즉위 25주년
1890. 02. 11.		熙祥	옥보 옥책	명성황후 40세

시기	문조 존호	신정황후 존호	어보 어책 교명	비고
1890. 07. 13.		景勳哲範(휘호) 神貞(시호)	금보 옥책	신정황후 사망
1890. 12. 02. 1890. 12. 06.	致中達和 繼曆協紀	翼謨	금보 옥책 옥책	황후 사후 탄일
1892. 07. 23.	剛粹景穆 峻惠衍祉	睿憲敦章	금보 옥책	고종 즉위 30주년
1899. 11. 17.	文祖(묘호) 翼皇帝(제호)	翼皇后	옥보 옥책	황제 추존
1899. 11. 17.		翼謨→懿謨	옥책	존호 수정
1902. 01. 06.	宏猷愼徽 綏緒佑福	啓祉	옥보 옥책	고종 즉위 40주년

이상의 <표>를 보면 문조(호명세자, 익종)는 존호(尊號) 14회, 시호(諡號) 2회, 제호(帝號) 1회를 받았고, 최종 이름은 “體元贊化錫極定命 聖憲英哲睿誠淵敬 隆德純功篤休弘慶 洪運盛烈宣光濬祥 堯欽舜恭禹勤湯正 啓天建統神勳肅謨 乾大坤厚廣業永祚 莊義彰倫行健配寧 基泰垂裕熙範昌禧 立經亨道成獻昭章 致中達和繼曆協紀 剛粹景穆峻惠衍祉 宏猷愼徽綏緒佑福 敦文顯武仁懿孝明 文祖 翼皇帝”가 되었다.

신정황후(신정왕후)는 존호 27회, 휘호 1회를 받았고, 최종 이름은 “孝裕 獻聖 宣敬 正仁 慈惠 弘德 純化 文光 元成 肅烈 明粹 協天 隆穆 壽寧 禧康 顯定 徽安 欽倫 洪慶 泰運 昌福 熙祥 懿謨 睿憲敦章 啓祉 景勳哲範 神貞 翼皇后”가 되었다.

## □ 참고문헌

- 김문식·신병주,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 김문식, 「조선시대 御冊의 현황과 특징」, 『고궁문화』 9, 2016.
- 김윤정, 「仁宣王后 국상과 水路發引의 실제」, 『의궤에만 있는 이야기: 외규장각 의궤를 중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 2023.
- 서준, 「교명과 축책의 형식과 내용」, 『조선 왕조 어책 - 교명·축책·금책』, 국립고궁박물관, 2017.
- 서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책의 내용과 현황」, 『조선 왕조 어책 - 옥책 5』, 국립고궁박물관, 2017.
- 손계영, 「敎命의 형태 연구」, 『장서각』11, 2004.
- 임민혁, 『왕의 이름, 묘호』, 문학동네, 2010.
- 장을연, 「藏書閣 소장 책문탁인본의 현황과 특징」, 『장서각』22, 2009.
- 장을연, 「대한제국기 金冊의 현황과 양식적 특징」, 『고문서연구』46, 2015.

## Ⅱ. 어보·어책·교명의 내용과 성격

### 1. 어보

어보는 크게 형태와 내용별로 나눌 수 있다. 형태적으로는 어보의 재질과 손잡이 [紐]의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재질은 금·은·백철·옥 등으로 분류되고, 손잡이 형태는 거북[龜紐], 용[龍紐], 막대(直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어보에 새겨진 보문과 의례 내용별로 나누어진다. 보문은 어보에 새겨진 마지막 글자가 ‘~寶’인지, ‘~印’인지 여부에 따라 신분을 파악할 수 있고, 의례의 내용은 왕실에서 행해진 유교적 통과 의례 등으로 생전에 이루어진 책봉(冊封) 및 존호(尊號), 사후에 이루어진 묘호(廟號), 시호(諡號), 전호(殿號), 능호(陵號) 등의 의례가 있다.

#### 1) 어보의 형태

##### (1) 재질

어보에 주로 사용된 재료는 금·옥·은·백철 등으로 보문 내용과 더불어 금보·금인·옥보·옥인·은인·백철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보와 옥보는 왕과 왕비에게 사용되지만 금인·옥인·은인·백철인 등은 왕세자와 왕세자빈 등에 사용된다.

재질별 어보의 제작 내용을 보면 금동에 도금한 것은 148과(46.5%), 옥 164과(51.6%), 은 5과(1.6%), 백철 1과(0.3%) 등 모두 318과이다.

<표> 어보 재질별 누별 현황

구분	직紐(直紐)	귀紐(龜紐)	용紐(龍紐)	소계(과)	비율(%)
금보(金寶)		138	2	140	44
금인(金印)	1	7		8	2.5
옥보(玉寶)		107	24	131	41.2
옥인(玉印)		33		33	10.4
은인(銀印)	1	4		5	1.6
백철인(白鐵印)	1			1	0.3
계	3	289	26	318	100

#### 가. 금

금보를 수여하는 대상은 왕과 왕비, 상왕·태상왕, 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이다.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금보로 제작한다. 존호를 올릴 때에나 존숭하는 경우 대상이 살아있을 때에는 옥보를 수여하고, 사후에는 금보를 수여한다. 시호보인 경우에는 금보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추상존호 및 시호를 올릴 때 금보를

올린다.

의궤의 기록을 통해 금보 제작 방법을 살펴보면 황동(黃銅)을 주조하여 만든다고 되어 있다. 순금은 재질이 물러서 글자면이 쉽게 손상될뿐더러 재용(財用)적인 면에서 왕실의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동(銅)이나 천은(天銀)으로 제작한 뒤 표면을 금으로 도금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sup>6)</sup>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도 금인을 수여한 예외가 있다. 1795년(정조 19) 1월 17일 정조가 정순왕후 육순과 혜빈 육순을 기념하기 위해 아버지 사도세자에게도 ‘장륜융범 기명창휴(章倫隆範 基命彰休)’라는 존호를 올렸는데 이때 옥으로 된 어보를 올리지 않고 금으로 된 어보를 올렸다.

1855년(철종 6) 1월 21일에는 장헌세자 탄생 2주갑 즉 120년 기념으로 ‘찬원헌성 계상헌희(贊元憲誠 啓祥顯熙)’라는 존호를 올리고 역시 금으로 어보를 제작하였다. 이와 함께 혜경궁 홍씨에게도 금인을 올렸는데 1816년(순조 16) 2월 27일 ‘헌경(獻敬)’이라는 시호를 올린 경우와 1855년(철종 6) 1월 21일 장헌세자 탄생 2주갑 즉 120년 기념으로 ‘유정(裕靖)’이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금으로 어보를 제작했다.

## 나. 옥

옥보를 수여하는 대상은 왕과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 등이고 옥인을 수여하는 대상은 세자와 세자빈 또는 후궁이다. 왕이나 왕비에게 존호를 올릴 때, 생시(生時)에 올리는 상존호나 가상존호인 경우에는 옥보를 수여한다. 세자나 세자빈, 후궁인 경우에는 책봉 및 시호를 올릴 때 옥인을 수여한다.

『종묘의궤속록(宗廟儀軌續錄)』, 『춘관통고(春官通考)』 등의 기록을 보면 옥보의 재질을 청옥이나 백옥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수여 대상에 따라 옥의 색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수급되는 내용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묘등록(宗廟謄錄)』의 내용을 보면 옥책을 제작할 때 옥의 재질은 백옥, 청옥, 흑옥 3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어보에서 흑옥의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각종 『의궤(儀軌)』 등에 주로 경기도 남양(南陽) 옥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양옥은 어보뿐만 아니라 옥책을 비롯하여 석경(石磬)<sup>7)</sup>·규(圭)<sup>8)</sup>·옥대(玉帶)<sup>9)</sup> 등에도 사용한다.

6) 종묘등록이나, 종묘의궤에서 ‘동황동도금’, ‘천은도금’ 등으로 다양하게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다.

7)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1425) 8월 26일(임진) …今京畿南陽所產石有聲 請遣玉人採來 依古體制造作試之 …

8)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1450) 3월 3일(정미)…佩用藥玉 圭用南陽玉 安於外梓宮…

9) 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1761) 10월 25일(경인)…正帶今冬至使當得來 而嘉禮帶 欲用南陽玉…

## 다. 은

은으로 만든 어보를 수여하는 대상은 왕세자나 왕세자빈, 후궁 등이다. 의례별 내용으로 보았을 경우 왕세자나 왕세자빈인 경우 책봉 시 은으로 어보를 제작하고 후궁인 경우 시호를 내릴 때 은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은은 품질이 가장 뛰어난 천은(天銀)을 사용한다. 한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기록을 통하여 고려 시대에도 은으로 만든 인장을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 수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왕의 정배(正配)는 비(妃)로 일컬어 책봉하여 금인(金印)을 주고, 세자의 정배는 빈(嬪)으로 일컬어 책봉하여 은인(銀印)을 주며 여러 왕자의 정배는 옹주로 일컫고 왕녀는 궁주(宮主)로 일컬어 모두 은인을 주도록 하배하소서.”<sup>10)</sup>

은인은 기록에 의하면 모두 12과가 제작되었다. 대상별로 보면 왕세자 4과 왕세자빈 5과, 후궁 3과 등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국초(國初)에 ‘빈궁효부인(嬪宮孝婦印)’은 곧 은인(銀印)이었으니<sup>11)</sup>”라는 내용은 태종이 세종비 소헌왕후에게 내린 것이다. 그리고 정조실록 1권, 정조 대왕 행장(行狀)에 “내 나이 21세 때 유서(諭書)와 도상(圖像)을 받았었는데, 《내훈(內訓)》을 보았더니 태종께서 효부은인(孝婦銀印)을 소헌왕후(昭憲王后)에게 내린 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조실록과 정조실록에 수록된 내용으로 보아 1418년(태종 18) 소헌왕후를 ‘경빈(敬嬪)’으로 봉할 때 내린 어보가 은인임을 알 수 있다.

1735년(영조 11) 3월 16일 “소혜왕후의 수빈(粹嬪)이라는 은인(銀印)은 아직도 태실(太室)에 있습니다만<sup>12)</sup>”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본래 정빈(貞嬪)이었던 소혜왕후의 작호를 수빈(粹嬪)으로 고치면서 내린 ‘효부수빈인(孝婦粹嬪印)’ 또한 은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520년(중종 15) 인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은으로 제작한 귀뉴의 어보를 수여하였으며<sup>13)</sup> 1524년(중종 19) 인종비 인성왕후가 세자빈으로 책봉되면서 받은 어보도 은인이다. 그러나 『명종실록』 9년(1554) 기록을 보면 “전년도 경복궁 화재로 문정왕후와 인성왕후의 보(寶)·옥책(玉冊)·교명(敎命)·인(印)이 모두 불타 다시 만들었다.”<sup>14)</sup>는 기록이 있어 이 때 재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폐위된 광해군의 왕세자 책봉 어보 또한 은인으로 제작한 기록이 있다.<sup>15)</sup>

10) 『증보문헌비고』 권 225권, 직관고 12, 외명부.

11) 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1761) 10월 22일(정해) “宜有差等, 而國初嬪宮孝婦印, 卽銀印也, 今番世孫嬪印, 龜頭銀印, 竹冊只內匣, 粧飾勿爲起花, 用(袖) 袱。”

12)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1735) 3월 16일(병술) ○ 昭惠王后 粹嬪銀印.

13) 宗廟謄錄 上,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79쪽,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1520) 4월 22일(기묘) ○ 己卯/冊封王世子.

14) 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1554) 6월 7일(병자) ○ 聖烈仁明大王大妃, 恭懿王大妃寶, 玉冊, 敎命, 印成, 進之. 前年秋景福宮災, 寶及玉冊, 敎命, 印, 皆火, 故命改之, 至是成.

15)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1592) 9월 9일(병인) ○ 禮曹啓曰: “王世子銀印’敎(王).



영조는 생모 숙빈최씨를 추송하면서 감히 옥인은 바랄 수는 없더라도 은인이라도 올리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결국 은인으로 제작하였다.<sup>16)</sup> 이후 정조비 효의왕후 세손빈 책봉 시에도 은인을 제작하였다.<sup>17)</sup>

효장세자의 이복동생인 사도세자가 폐서인되면서 정조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入籍)되었는데 이때 효장세자와 효순왕후에게 ‘승통(承統)’이라는 가호를 올리면서 은인을 제작하였다.

현존하는 은인은 6과로 이 중 5과가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 수여한 것이고 1과만 후궁에게 수여한 것이다. 이 중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이 5과이다.

<표> 은인 어보 현황

연번	왕, 왕비	보문	제작 연도	유물번호	비고
1	인종비 인성왕후	王世子嬪之印	1524년(중종 19, 甲申) 1554년(명종 9, 甲寅) 재제작	148	은인직뉴
2	정조비 효의왕후	王世孫嬪之印	1762년(영조 38, 壬午)	230	은인귀뉴
3	진종	孝章 承統世子之印	1776년(영조 52, 丙申)	42	은인귀뉴
4	진종비 효순왕후	孝純 承統賢嬪之印	1776년(영조 52, 丙申)	215	은인귀뉴
5	정조	孝孫八十三書	1776년(영조 52, 丙申)	39	은인귀뉴

이러한 하교 이후부터 세자나 세자빈의 책봉인은 옥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은(銀)은 금속으로 옥보다 귀한 재료였으나, 세자·세자빈이 옥인을 사용하게 되면서 옥의 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영조 대의 기록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잘 드러난다.

## 라. 백철

백철로 제작된 어보는 단 1과로 예종비 장순왕후 상시호 백철인 1과이다. 장순왕후는 한명회(韓明澮)의 딸로 1460년(세조 6)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나 이듬해 인성대군을 낳고 사망했다. 이때 ‘장순(章順)’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제작한 인(印)으로 직뉴로 제작되었다. 인면(印面)는 전각(篆刻)의 훼손이 심각하여 훼손되어 네 모서리 부분의 글자 일부만 파악될 뿐 가운데 부분은 완전히 망실되어 있다.

숙종 23년(1697) 작성된 『종묘의궤(宗廟儀軌)』의 기록에는

第九室 睿宗室 章順嬪韓氏之印 白鐵鍍銀 天順四年 世祖朝庚辰四月丁巳 印篆缺破<sup>18)</sup>

종묘 영녕전 제9실 예종실 보장에 소장된 장순빈 한씨의 인이 백철에 은도금한 것으로 천순 4년 1460년(세조 6) 경진년 4월 정사일에 만들어 올린 것인데 각을

16) 영조실록 80권 영조 29년(1753) 7월 27일(경진) "予將告于慈聖矣。 予爲私親， 雖不敢望玉印， 豈不可爲銀印乎?"

17) 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1761) 10월 22일(정해) "宜有差等， 而國初嬪宮孝婦印， 卽銀印也， 今番世孫嬪印， 龜頭銀印， 竹冊只內匣， 粧飾勿爲起花， 用(袖) 袱。

18) 서울대학교 규장각 『宗廟儀軌』 下, 1997, 416쪽.

한 인면이 떨어져 나가고 파손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숙종 31년(1705) 기사에

“9실(室) 장순빈(章順嬪)의 백철인(白鐵印)은 겨우 형체만 남아 있으며, (중략) 장순빈(章順嬪)의 백철인(白鐵印)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손상된 바가 없고 다만 윗면의 주정(柱頂)이 떨어져 나가 나무껍질의 형상과 같으나, 그다지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sup>19)</sup>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영조 10년(1734) 기사에도 관련 사실이 확인된다.

“임금이 태묘(太廟)에 거둥하였으니, 하향(夏享)을 행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망묘례(望廟禮)를 행하고 각실(各室)의 책보(冊寶)를 봉심(奉審)하였으며, 이를 마치고 이어서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망묘례를 행하고 책보를 봉심하였다. 예종묘(睿宗廟)에는 세자(世子) 때의 금보(金寶)가 있었는데 손을 대자 곧 부서졌으니, 대개 백철(白鐵)인 때문이었다.”<sup>20)</sup>

앞의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장순왕후의 백철인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손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철로 제작된 단 1개의 어보로 조선 초기 세자와 세자빈 책봉에는 은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은을 대체하여 백철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 (2) 손잡이[鈕]

어보의 손잡이 즉 뉴(鈕)의 모양으로 어보를 분류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뉴의 모양이 여러 가지 동물을 형상화하여 여러 종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 크게 용 모양[龍鈕]·거북 모양[龜鈕]·막대 모양[直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의 <표>의 뉴별 현황을 보면 직뉴가 3과(0.9%), 귀뉴가 289과(90.9%), 용뉴가 26과(8.2%)를 차지하고 있어서 귀뉴로 제작된 어보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가. 직뉴

직뉴는 손잡이가 막대처럼 생긴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현존하는 것은 모두 3과이며,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다. 남아있는 3과는 문종비 현덕왕후 상시호 금인, 예종비 장순왕후 상시호 백철인, 인종비 인성왕후 왕세자빈 책봉 은인이다.

문종비 현덕왕후 상시호 금인은 1441년(세종 23) 당시 왕세자빈이었던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사망하자, 이때 ‘현덕(顯德)’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19) 숙종실록 41권, 숙종 31년(1705) 윤4월 12일(을사) 九室章順嬪白鐵印, 僅存形體, … 至於章順嬪白鐵印, 他無所傷, 惟上面柱頂剝落, 如木皮狀, 不至深慮。 仍舊封藏, 則不至於改造。 設或改造, 與十一室事體無異, 事宜一體舉行。

20) 영조실록 38권, 영조 10년(1734) 4월 7일(임자) 壬子/上幸太廟, 爲行夏享也。 是日, 行望廟禮, 奉審各室冊寶訖, 仍詣永寧殿, 行望廟禮, 奉審冊寶。 睿宗廟有世子時寶, 觸手輒碎, 蓋白鐵也。

제작한 것이다. 인면(印面)에는 ‘현덕빈인(顯德嬪印)’이라고 새겨져 있고 인판은 3단의 계단 형태로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이다. 막대형의 손잡이는 직육면체의 모습으로 윗부분은 약간 볼록하게 만들었으며, 막대 아랫부분에 동그란 구멍을 뚫어 인끈[綬]을 연결하였다.

예종비 장순왕후 상시호 백철인은 1461년(세조 7) 왕세자빈이었던 장순왕후가 인성대군을 낳고 사망하자 ‘장순(章順)’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제작한 것이다. 인면(印面)에는 ‘장순빈한씨지인(章順嬪韓氏之印)’이라고 새겼으나 지금은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심하다. 인판은 3층 계단식 형태를 하고 있으며, 막대 손잡이 아래에는 구멍을 뚫어 인끈을 연결하였다.

인종비 인성왕후 왕세자빈 책봉 은인은 중종 19년(1524) 인성왕후를 왕세자빈으로 책봉하면서 제작한 것으로 인면에는 ‘왕세자빈지인(王世子嬪之印)’이라고 새겨져 있다. 2단의 인판에 막대형의 손잡이 형태이며, 손잡이 윗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였고, 아랫부분에는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 인끈을 연결하였다.

위의 세 인(印)은 조선전기에 제작되었다는 점과 왕세자빈에게 수여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를 통해 조선 전기 세자빈의 인장 형태를 추측해 볼 수 있다.

## 나. 귀뉴

예로부터 거북의 솟아오른 등은 하늘을, 평평한 아래 부분은 땅을 상징하였으며 특히 등껍질의 연속되는 무늬는 장구(長久)와 연면(連綿)을 상징하며,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기운을 가진 신성한 동물로 여겼다. 선사시대 암각화, 탐비의 귀부(龜趺) 등 다양한 곳에서 거북을 형상화 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권위와 품위를 나타내는 어보의 손잡이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귀뉴의 전통은 명(明)·청(淸)으로부터 받았던 6과의 국새 또한 귀뉴였음은 한대(漢代)로부터 전해진 전통이 후대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sup>21)</sup> 그리고 왕실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어보에 거북 모양의 뉴를 사용한 것은 왕실의 신성성과 장수를 염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에는 사실적으로 표현하다가 후대로 갈수록 장식성을 첨가하였다. 처음 거북에서 나중에는 용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귀두(龜頭) 부분은 초기에는 입은 굳게 다물고 있고, 점차 앞니와 송곳니를 드러내었다. 코는 콧구멍 두 개만을 표현하다가 튀어나오게 강조하였으며 눈은 선으로 표현하다가 동그랗게 튀어나오도록 표현하였다. 꼬리는 초기에는 세 가닥으로 곧게 뻗었다가 차츰 세 가닥의 꼬리를 좌측으로 몸에 붙였다가 후대로 갈수록 한 가닥으로 표현하였다. 귀갑문은 2~3개의 구획선에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가 후대로 갈수록 선각으로만 표현되기도 하고 물고기의 비늘처럼 표현되기도 하였다.

21) 성인근, 국새와 어보, 현암사, 2018, 235쪽.

## 다. 용뉴

전설상의 동물인 용은 전통적으로 왕이나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황제를 용의 신하로 비유하기도 하였으며, 원(元)대에는 용을 황실의 전용물로 명문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용은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황제만이 용뉴의 어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록을 통해 조선 초기에도 용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sup>22)</sup>

종묘(宗廟)·경모궁(景慕宮)에 전알(展謁)하였다. 임금이 종묘에 나아가 전배하고 전내(殿內)와 제1실의 책보(冊寶)를 봉심(奉審)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난을 겪은 뒤 숙묘(肅廟) 계사년<sup>23)</sup>에 추상(追上)한 옥책(玉冊)인가?”

하니, 도제조 정홍순(鄭弘淳)이 말하기를,

“신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등록(騰錄)을 조사하여 보라고 명하였는데, 용두금보(龍頭金寶)는 곧 숙묘 계사년에 추상한 것이었고, 귀두금보(龜頭金寶)는 곧 태종 무자년<sup>24)</sup>에 올린 것이었다. 이어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배하고 봉심하였으며, 경모궁에 나아가 전배하고 봉심한 다음 환궁하였다.<sup>25)</sup>

위의 기록 중 용두금보(龍頭金寶)는 숙묘 계사년이 아니라 태종 무자년에 ‘태조(太祖)’라는 묘호와 ‘지인계운 성문신무(至仁啓運 聖文神武)’라는 시호를 올리면서 만든 어보이고, 숙묘 계사에 만들었다는 것은 숙묘 계해<sup>26)</sup>에 ‘정의광덕(正義光德)’이란 시호를 더 올리면서 만든 귀두금보(龜頭金寶)이다. 이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 실록의 기사 내용이 서로 바뀌었고 제작 연도 또한 오기(誤記)로 보인다.

『종묘의궤(宗廟儀軌)』 책보 항에 종묘 제1실 태조실에 봉안된 태조의 어보 중 “지인계운 성문신무 대왕지보(至仁啓運 聖文神武 大王之寶)는 금보(金寶)이고 용모양 인꼭지(龍鈕)이다. 영락(永樂) 6년 태종조 무자년(1408, 태종8) 9월에 올린 시호이다”<sup>27)</sup>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종묘등록(宗廟騰錄)』의 기록에 1408년(태종 8) 9월에 제작된 태조 시호 금보와 1419년(세종 1) 12월에 만든 정종 시호금보, 1422년(세종 4) 9월에 제작된 태종 시호금보 등 3과가 용뉴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22) 1408년(태종 8, 무자)에 제작한 태조 금보(至仁啓運 聖文神武 大王之寶).

1419년(세종 1, 기해)에 제작한 정종 금보(溫仁恭勇順孝 大王之寶).

1422년(세종 4, 임인)에 제작한 태종 금보(聖德神功 文武光孝 大王之寶).

23) 숙종 39년(1713) 계사.

24) 태종 8년(1408) 무자.

25) 정조실록 6권, 2년(1778) 7월 16일(계묘) ○癸卯/展謁宗廟、景慕宮。上詣宗廟展拜。奉審殿內及第一室冊寶。上曰：“此是經亂後肅廟癸巳年追上王冊乎？”都提調鄭弘淳曰：“臣未之詳矣。”命考騰錄。龍頭金寶，卽肅廟癸巳年追上者也。龜頭金寶，卽太宗戊子年所上者也。仍詣永寧殿，展拜奉審，謁景慕宮，展拜奉審，還宮。

26) 숙종 9년(1683) 계해.

27) 奎章閣資料叢書 儀軌篇 『宗廟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7, 397쪽.

용뉴의 어보가 제작되었으나, 세종 때부터 명(明)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귀뉴의 어보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하는 용뉴 어보는 금보 2과, 옥보 24과로 모두 대한제국(1897~1908)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즉 황제국으로서 높아진 위상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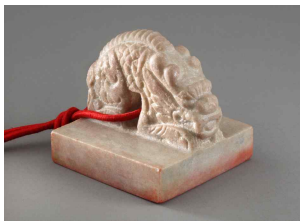
<표> 용뉴 어보 현황

연번	왕, 왕비	보문	수여 연도	재질	뉴	유물번호
1	太祖	至仁啓運 聖文神武 大王之寶	1408(太宗 8, 戊子) 9월 4일	금보	용뉴	
2	太祖	太祖 高皇帝寶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옥보	용뉴	
3	신의왕후 한씨	高皇后寶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옥보	용뉴	107
4	신덕왕후 강씨	高皇后寶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옥보	용뉴	108
5	定宗	溫仁恭勇順孝 大王之寶	1419(世宗 1, 己亥) 12월 24일	금보	용뉴	
6	太宗	聖德神功 文武光孝 大王之寶	1422(世宗 4, 壬寅) 9월 2일	금보	용뉴	
7	眞宗	眞宗 昭皇帝寶	1908(융희 2, 戊申) 7월 3일(양7.30)	옥보	용뉴	44
8	효순왕후 조씨	昭皇后寶	1908(융희 2, 戊申) 7월 3일(양7.30)	옥보	용뉴	210
9	莊祖	莊祖 懿皇帝寶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옥보	용뉴	45
10	현경왕후 홍씨	懿皇后寶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옥보	용뉴	216
11	正祖	正祖 宣皇帝寶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옥보	용뉴	54
12	효의왕후 김씨	宣皇后寶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옥보	용뉴	226
13	純祖	純祖 肅皇帝寶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옥보	용뉴	58
14	순원왕후 김씨	肅皇后寶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옥보	용뉴	232
15	文祖 (翼宗)	文祖 翼皇帝寶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옥보	용뉴	70
16	文祖 (翼宗)	體元贊化 錫極定命 聖憲英哲 睿誠淵敬 隆德純功 篤休弘慶 洪運盛烈 宣光濬祥 堯欽舜恭 禹勤湯正 啓天建統 神勳肅謨 乾大坤厚 廣業永祚 莊義彰倫 行健配寧 基泰垂裕 熙範昌禮 立經亨道 成獻昭章 致中達和 繼曆協紀 剛粹景穆 峻惠衍祉 宏猷慎徽 綏緒佑福 敦文顯武 仁懿孝明 翼皇帝寶	1902(광무 6, 壬寅) 1월 6일(양2.13)	옥보	용뉴	84
17	신정왕후 조씨	翼皇后寶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옥보	용뉴	247

연번	왕, 왕비	보문	수여 연도	재질	뉴	유물번호
18	신정왕후 조씨	孝裕 獻聖 宣敬 正仁 慈惠 弘德 純化 文光 元成 肅烈 明粹 協天 隆穆 壽寧 禧康 顯定 徽安 欽倫 洪慶 泰運 昌福 熙祥 懿謨 睿憲 敦章 啓祉 景勳 哲範 神貞 翼皇后寶	1902(광무 6, 壬寅) 1월 6일(양2.13)	옥보	용뉴	270
19	憲宗	憲宗 成皇帝寶	1908(융희 2, 戊申) 7월 3일(양7.30)	옥보	용뉴	87
20	효현왕후 김씨	成皇后寶	1908(융희 2, 戊申) 7월 3일(양7.30)	옥보	용뉴	271
21	효정왕후 홍씨	成皇后寶	1908(융희 2, 戊申) 7월 3일(양7.30)	옥보	용뉴	272
22	哲宗	哲宗 章皇帝寶	1908(융희 2, 戊申) 7월 3일(양7.30)	옥보	용뉴	92
23	철인왕후 김씨	章皇后寶	1908(융희 2, 戊申) 7월 3일(양7.30)	옥보	용뉴	292
24	高宗	統天隆運 肇極敦倫 正聖光義 明功大德 堯峻舜徽 禹謀湯敬 應命立紀 至化神烈 巍勳洪業 啓基宣曆 皇帝之寶	1900(광무 4, 庚子) 1월 18일(양2.17)	옥보	용뉴	중박
25	高宗	統天隆運 肇極敦倫 正聖光義 明功大德 堯峻舜徽 禹謀湯敬 應命立紀 至化神烈 巍勳洪業 啓基宣曆 乾行坤定 英毅弘休 皇帝之寶	1902(광무 6, 壬寅) 1월 18일(양2.25)	옥보	용뉴	중박
26	高宗	壽康 太皇帝寶	1907(융희 1, 丁未) 8월 2일(양2.25)	옥보	용뉴	환수
27	명성황후 민씨	皇后之寶	1897(광무 1, 정유) 9월 17일	금보	용뉴	299
28	명성황후 민씨	孝慈 元聖 正化 合天 洪功 明成 皇后之寶	1900(광무 4, 庚子) 1월 18일(양2.17)	옥보	용뉴	305
29	명성황후 민씨	孝慈 元聖 正化 合天 洪功 誠德 明成 皇后之寶	1902(광무 6, 壬寅) 1월 25일(양3.4)	옥보	용뉴	306
30	純宗	皇太子寶	1897(광무 1, 정유) 9월 17일	금보	용뉴	
31	순명황후 민씨	純明 皇后之寶	1907(융희 1, 정미) 7월 19일(양8.27)	금보	용뉴	
32	순정황후 윤씨	皇后之寶	1907(융희 1, 丁未) 7월 23일	금보	용뉴	
33	영친왕	皇太子寶	1907(융희 1, 丁未) 9월 7일	금보	용뉴	310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을 선포함과 동시에 명성왕후를 황후로 책봉하면서 제작한 어보는 금보 용뉴로 보문은 ‘황후지보(皇后之寶)’이다. 몸체는 물고기 비늘로 덮었고 등에 지느러미와 화염 형태의 털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뿔은 사슴의 뿔[鹿茸] 형태이고, 얼굴에는 갈기와 충수를 달았고, 꼬리는 말 꼬리처럼 세 가닥으로 나뉘어져 몸체를 덮고 있다. 귀는 소의 귀를 닮았고,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전형적인 용의 특징들은 갖추고 있다. 한편 이때 함께 제작된 순종 황태자보 또한 금보로 제작되었는데 현재 전하지 않는다.

1899년(광무 3) 태조를 비롯한 고종의 직계(直系)인 장조, 정조, 순조, 문조와 그들의 비를 황제(皇帝)와 황후(皇后)로 추존하면서 용뉴의 옥보를 제작하였다. 또한 1900년(광무 4)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옥보 용뉴의 어보를 제작하였고, 1902년(광무 6) 문조와 신정왕후, 고종, 명성황후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옥보 용뉴의 어보를 제작하였다. 이 중 고종 옥보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1907년(융희 1) 순종이 퇴위한 고종에게 ‘수강태황제(壽康太皇帝)’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옥보 용뉴의 어보를 제작하였는데, 모든 어보의 보신이 방형(方形)인데 이 어보만 유일하게 보신의 형태가 팔각형이다.



<사진> 1899년(광무 3) 제작 용뉴 옥보



<사진> 1908년(융희 2) 제작 용뉴 옥보

『존봉도감의궤(尊奉都監儀軌)』(奎 13163)의 도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8면의 측면에는 팔괘가 새겨져 있다. 1924년 이후 분실한 것을 2014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반환하여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같은 해 순명효황후와 순정효황후의 책봉 금보 2과가 제작되었는데 현재 분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한편 영친왕 황태자 금보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08년(융희 2), 1899년(광무 3)에 있었던 태조를 비롯한 고종의 직계 4대조 왕들에 대한 황제 추존 작업에서 미처 추존하지 못했던 진종·헌종·철종과 왕비들을 황제(皇帝)와 황후(皇后)로 추존하면서 용뉴의 옥보를 제작하였다. 이 때 추존된 임금들은 모두 순종의 방계(傍系)이다.

대한제국은 약 13년 동안 존속했으나 고종 때 제작된 용뉴 옥보와 순종 때 제작된 용뉴 옥보의 형태가 한눈에 봐도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고종 때 제작된 것은 같은 시기에 제작된 용뉴의 금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조각 자체가 힘이 있고 위엄이 느껴지지만 순종 때 제작된 것들은 대체로 세부적 표현이 많이 생략되고 얼굴이 해학적인 것이 특징이다.

## 2) 어보의 내용

### (1) 보(寶)와 인(印)

왕의 경우 왕세자 책봉 때는 옥인, 등극 이후의 존호는 옥보, 사후의 존호와 시호·묘호를 올릴 때는 금보를 수여한다. 왕비의 경우 왕세자빈 책봉 때는 옥인, 왕비 책봉 때는 금보, 생전에 존호를 올릴 때는 옥보, 사후의 존호·시호·휘호를 올릴 때는 금보를 수여한다. 즉 세자와 세자빈 등의 신분일 경우에는 인(印)이라 하고 왕이나 왕비 등의 신분일 경우에는 보(寶)라 한다.

<표> 신분별 보와 인

	왕세자	왕세자빈	왕		왕비		비고
			생전	사후	생전	사후	
책봉(冊封)	玉印	玉印	-	-	金寶	-	
존호(尊號)	玉印	玉印	玉寶	金寶	玉寶	金寶	
시호(諡號)	玉印	玉印	-	金寶	-	金寶	
묘호(廟號)	-	-	-	金寶	-	-	
휘호(徽號)	-	-	-	-	-	金寶	

#### 가. 보

‘~보(寶)’의 어보를 수여하는 대상은 왕과 왕비, 상왕·태상왕·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이다. 내용별로는 왕과 왕비 등에게 책봉·존호·시호·묘호·휘호를 수여할 경우에 ‘~보(寶)’의 어보를 사용한다. 왕의 경우 상존호·가상존호·추상존호를 올릴 경우, 시호와 묘호를 올릴 경우 ‘~보(寶)’를 사용하며 왕비의 경우에도 책봉 때와 상존호·가상존호·추상존호를 올릴 경우, 시호와 휘호를 올릴 경우 보문에 ‘~보(寶)’를 사용한다.

#### 나. 인

일반적으로 ‘~인(印)’의 어보를 수여하는 대상은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비롯한 후궁이다. 내용별로는 왕세자와 왕세자빈, 후궁에게 책봉·존호·시호를 수여할 경우에 ‘~인(印)’의 어보를 사용한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왕비나 왕대비의 어보임에도 불구하고 인(印)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있었다.

<표> ‘~보(보)’라고 새겨야 하나 ‘~인(印)’으로 잘못 새겨진 어보

연번	대상	제작연도	수여 내용	새겨진 보문	비고
1	정종비 정안왕후	1400년 (정종 2)	존호 순덕(順德)	순덕왕대비지인 (順德王大妃之印)	
2	태종비 원경왕후	1418년 (세종 즉위년)	존호 후덕(厚德)	후덕왕대비지인 (厚德王大妃之印)	



연번	대상	제작연도	수여 내용	새겨진 보문	비고
3	태종비 원경왕후	1420년 (세종 2)	시호 원경(元敬)	원경왕후지인 (元敬王后之印)	고대
4	덕종비 소혜왕후	1471년 (성종 2)	존호 인수(仁粹)	인수왕비지인 (仁粹王妃之印)	
5	덕종비 소혜왕후	1475년 (성종 6)	왕대비로 진봉	인수왕대비지인 (仁粹王大妃之印)	
6	덕종비 소혜왕후	1494년 (성종 25)	존호 자숙(慈淑)	인수자숙대왕대비지인 (仁粹慈淑大王大妃之印)	
7	예종비 안순왕후	1471년 (성종 2)	존호 인혜(仁惠)	인혜왕대비지인 (仁惠王大妃之印)	118
8	성종비 공혜왕후	1497년 (연산군 3)	휘호 휘의신숙(徽懿愼肅)	휘의신숙공혜왕후지인 (徽懿愼肅恭惠王后之印)	고궁 1558

사례로 든 어보들은 일반적으로 ‘~지보(~之寶)’라고 해야 하나 ‘~지인(~之印)’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선 초기에는 보문에 관해 명확한 개념과 규칙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의례별

어보의 내용 분류를 보면 왕실 인사의 명칭 및 호칭과 가장 큰 관련을 지닌다. 이는 각종 의례에 따른 분류라 볼 수 있다. 가례(嘉禮)·길례(吉禮)·흉례(凶禮) 의식에 따른 상존호(上尊號)·상시호(上諡號)·상휘호(上徽號) 등을 올리면서 어책(御冊)·교명(敎命)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책봉(冊封)·존호(尊號)·시호(諡號)·묘호(廟號)·휘호(徽號) 등을 올릴 때 어보를 제작한다.

왕의 경우 왕세자로 책봉 될 시, 등극 이후의 존호, 사후의 존호·시호·묘호를 올릴 때 어보가 만들어진다. 왕비는 세자빈으로 책봉 될 시, 왕비 책봉 시, 생전의 존호, 사후의 존호·시호·휘호를 올릴 때 마다 어보를 만들었다.

의례별 어보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의례별 어보 현황

연번	내용	구분	수량	비고
1	책봉	왕세자 책봉	8	
2		왕세자빈 책봉	7	
3		왕세제 책봉	1	
4		왕세제빈 책봉	1	
5		왕세손 책봉	2	
6		왕세손빈 책봉	1	
7		왕비 책봉	16	
8		태후 책봉	1	

연번	내용	구분	수량	비고
9		황후 책봉	1	
10		황태자 책봉	1	
11		황태자비 책봉	1	
12	존호	상존호	24	
13		가상존호	85	
14		추상존호	88	
15	시호	상시호	58	
16		추상시호	8	
17	휘호	상휘호	11	
18	기타	기타	4	
소계			318	

### 가. 책봉 어보

책봉(冊封)이란 ‘책명(冊命)’과 ‘봉작(封爵)’의 합성어로서, 책명은 ‘책(冊)으로 명(命)한다’는 뜻이고, 봉작은 ‘봉토(封土)하고 수작(授爵)한다’는 뜻이다. 봉작에서의 ‘봉토’는 고대 중국에서 시행된 봉건제도에서 제후에게 토지를 분봉(分封)한다는 의미이고, ‘수작’은 제후의 등급에 맞는 작위를 수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책봉이란 분봉을 통해 제후를 봉건하고 제후의 등급에 맞는 작위를 책(冊)으로 명(命)하는 과정에서 시행되었던 의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음으로써 중국적 책봉체제 속에 포섭되면서 국내적으로도 책봉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결과 삼국시대부터 어보와 어책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남아있는 유물은 없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에 고려 인종 24년(1146)에 인종의 시호를 올리며 지은 글을 새긴 시책(諡冊)<sup>28)</sup>이 소장되어 있고, 『증보문헌비고』에 고려의 인신(印信)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고려 시대에도 어보와 어책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책봉의 대상은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제, 왕세제빈, 왕세손, 왕세손빈, 후궁이며 대한제국 때에는 황태자·황태자비·황제·황후 등이다. 책봉 어보의 보문 형식은 왕비나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는 명칭 뒤에 ‘~지보(之寶)’를 붙이고 왕세자·왕세제·왕세손, 왕세자빈·왕세제빈·왕세손빈은 명칭 뒤에 ‘인(印)’이나 ‘~지인(之印)’을 붙인다.<sup>29)</sup> 즉 ‘妃+之寶, 皇后+之寶, 嬪+之印’이다.

재질은 왕비나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는 금보이고, 왕세자·왕세제·왕세손과 빈은

2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 인종 시책. 유물번호 본관 4250.

29) 현종의 경우는 왕세자지인이다.

옥인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선 초기 세자나 왕세자빈의 책봉 어보는 은인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 ① 왕세자 및 왕세자빈 책봉

세자 책봉은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를 정하는 중요한 의례 중 하나이다.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왕과 황제 중에 적장자의 원칙에 따라 세자 책봉을 받고 왕위에 오른 왕은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순종 등 7명이다. 적장자는 아니지만 그 덕을 인정받거나 중전에게 아들이 없어 후궁의 아들이나 왕족으로서 왕위에 오른 왕은 19명에 이른다. 한편 의경세자(덕종), 소현세자, 효장세자(진종), 장헌세자(장조), 문효세자, 효명세자(문조) 등은 세자의 신분으로 세상을 일찍 잘하였고, 양녕대군, 연산군의 아들, 광해군의 아들 등은 폐세자가 되어 왕위에 오르지 못한 왕세자들도 있었다.

왕세자 책봉 중 가장 이른 나이에 책봉된 세자는 사도세자(장조)와 순종으로, 책봉 당시 2세였다. 영조의 장남이었던 효장세자(진종)가 10세 때인 1728년(영조 4)에 잘하였다. 그로부터 7년 뒤인 영조의 나이 42세에 사도세자가 태어났으므로 서둘러 세자를 책봉한 것으로 보인다. 경종과 문효세자 또한 3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이밖에도 효명세자(문조)는 4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숙종과 효장세자(진종)는 7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가장 늦게 책봉된 세자는 정종으로 43세 때 책봉되었으며, 태종은 34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표> 왕세자 책봉 어보

연번	세자	인문	수여 연도	어보	죽책	교명	비고
1	현종	王世子之印	1651(효종 2, 辛卯) 8월 28일	환수	259	294	옥인귀뉴
2	숙종	王世子印	1667(현종 8, 丁未) 1월 22일	27	260	○	옥인귀뉴
3	경종	王世子印	1690(숙종 16, 庚午) 6월 16일	29	261	295	옥인귀뉴
4	진종	王世子印	1725(영조 1, 乙巳) 3월 20일	41	263	297	옥인귀뉴
5	장조	王世子印	1736(영조 12, 丙辰) 3월 15일	48	266	298	옥인귀뉴
6	순조	王世子印	1800(정조 24, 庚申) 2월 2일	69	271	300	옥인귀뉴
7	문조	王世子印	1812(순조 12, 壬申) 7월 6일	85	272	301	옥인귀뉴
8	순종	王世子印	1875(고종 12, 乙亥) 2월 18일	102	275	중박	옥인귀뉴

※ 어보, 죽책, 교명 칸에 기록된 숫자는 유물번호이다. 그리고 중박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나타낸 것이며, ○표는 제작하였으나 현재 없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문헌의 기록 및 현존 어보를 토대로 살펴보면 왕세자 책봉 어보는 옥인 귀뉴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문헌에 은인으로 제작된 왕세자 책봉어보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종묘등록(宗廟謄錄)』 영녕전 제십(十) 인종실에 ‘세자은보(世子銀寶)<sup>30)</sup> 일(一), 귀뉴(龜鈕)’로 기록되어 있으며 ‘정덕십오년 중종조경진사월 일 상(正德十五年 中宗朝庚辰四月 日 上)’으로 중종 15년(1520) 4월에 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25년 9월 9일 기사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왕세자의 은인(銀印) 교서(敎書)를 지금 성천(成川)에 보내게 되면 응당 지수(祗受)하는 예(禮)가 있어야 합니다.<sup>31)</sup>” 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선조 25년 9월 9일 성천에 머물고 있는 왕세자에게 책봉 은인과 교서 등을 보낸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두 문헌의 기록을 고찰한 결과 인종과 광해군의 책봉어보는 은인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존하는 인종비 인선왕후의 왕세자빈 책봉인이 은인이라는 점에서 인종의 책봉어보 또한 은인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왕세자 책봉인의 보문은 ‘왕세자인’을 사용하였으나, 현종 책봉 어보는 ‘왕세자지인’임을 볼 수 있다.<sup>32)</sup> 이와 관련한 『현종개수실록』 현종 7년 3월 25일 기사에,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길 “왕세자의 인문(印文)은 지난 신묘년의 규례대로 ‘왕세자지인’이라고 써야 하겠습니까마는, 좌우의 글자 수가 같지 않습니다. 만약 지(之)자를 빼다면 적합할 것입니다.” 하니, “전후의 인보(印寶)를 고찰해 보면 글자의 수가 짝수나 홀수로 되어 있어 일정한 규칙이 없었다.” 하자 이관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대체로 인보의 전문(篆文)은 글자 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만 지(之)자를 써서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인문에 쓸 글자는 왕세자인(王世子印) 녀자로 파면 실로 적합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sup>33)</sup>

위 기사를 살펴보면 전문(篆文)에 관한 일정한 규례는 없으나, 대체로 좌우의 글자 수를 맞춰 전문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왕세자빈(王世子嬪)은 왕세자의 정배(正配, 嫡室)에게 내린 작위로 흔히 빈궁(嬪宮)이라고 한다. 왕세자빈은 장차 왕비가 될 몸이었기 때문에 간택을 할 때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 신중하고 엄중하게 진행하였다.

왕세자빈 책봉어보는 일반적으로 옥인 귀뉴로 제작되었으며 보문은 ‘왕세자빈지인(王世子嬪之印)’이라고 새겼다.

30) 세자은인(世子銀印)이라고 기록하여야 맞다.

31)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1592) 9월 9일(병인) ○禮曹啓曰: “王世子銀印’敎(王), 今當送于成川, 應有祗受之禮.”

32) 1651년(효종 2)에 편찬한 『현종]세자책례도감의궤』에 보면 「왕세자지인(王世子之印)」 다섯 글자를 새긴다고 기록되어 있다.

33) 『현종개수실록』 현종7년 3월 25일 을사, 太和曰: “王世子印文, 當依辛卯年前規, 書以王世子之印, 而左右字數, 多[寡]不均. 若去之字, 則均適矣.” 上曰: “考見前後印寶, 則字數奇偶, 無一定之規矣.” 吏判金壽恒曰: “凡印寶篆文, 字數不均然後, 用之字以足之. 今此印文, 則所用之字, 以王世子印四字爲文, 實爲均適矣.” 上曰: “依此爲之.”

<표> 왕세자빈 책봉 어보

연번	왕세자빈	인문	수여 연도	어보	죽책	교명	비고
1	인종비 인성왕후 박씨	王世子嬪之印	1524(중종 19, 甲申) 3월 5일 재제작	148	○	×	은인직뉴
2	숙종비 인경왕후 김씨	王世子嬪之印	1671(현종 12, 辛亥) 3월 22일	158	277	306	옥인귀뉴
3	경종비 단의왕후 심씨	王世子嬪之印	1696(숙종 22, 丙子) 5월 15일	182	278	309	옥인귀뉴
4	경종계비 선의왕후 어씨	王世子嬪之印	1718(숙종 44, 戊戌) 9월 13일	185	280	311	옥인귀뉴
5	진종비 효순왕후 조씨	王世子嬪之印	1727(영조 3, 丁未) 9 월 27일	213	282	315	옥인귀뉴
6	장조비 헌경왕후 홍씨	王世子嬪之印	1744(영조 20, 甲子) 1월 9일	219	285	316	옥인귀뉴
7	순종비 순명황후 민씨	王世子嬪之印	1882(고종 19, 壬午) 2월 19일	311	292	○	옥인귀뉴

인종비 인성왕후 박씨는 1524년(중종 19) 11살의 나이에 세자빈에 책봉되었다. 이 때 받은 책봉 어보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가장 오래 된 왕세자빈 책봉 어보이다.

숙종비 인경왕후 김씨는 1671년(현종 12)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경종비 단의왕후 심씨는 1696년(숙종 22)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경종이 즉위하기 전 사망하였다. 경종계비 선의왕후 어씨는 1718년(숙종 44) 첫 번째 왕세자빈인 심씨(단의왕후)가 사망하자 그 해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어 가례를 올렸다.

추존왕 진종비 효순왕후 조씨는 1727년(영조 3)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어 효장세자와 가례를 올렸다.

추존왕 장조비 헌경왕후 홍씨는 1744년(영조 20) 왕세자빈에 책봉되었다.

순종비 순명황후 민씨는 1882년(고종 19)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 ② 왕세제 및 왕세제빈 책봉

왕세제 책봉은 영조만 해당된다. 경종이 영조의 이복형이기 때문에 세자가 아닌 세제로 책봉되었다. 비슷한 사례로 정종과 태종도 형제지간이지만 종법 상 정종이 세자로서 왕위에 올랐고 부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태종은 왕세제가 아닌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순종과 영친왕의 경우도 이와 같다.

왕세제 책봉 어보는 왕세자나 왕세손 책봉 어보와 마찬가지로 옥인 귀뉴로 제작되었다. 인문(印文)은 ‘왕세제인(王世弟印)’, 왕세제빈은 ‘왕세제빈지인(王世弟嬪之印)’이라 새겼다.

<표> 왕세제 및 왕세제빈 책봉 어보

연번	왕세제 및 세제빈	인문	수여 연도	어보	죽책	교명	비고
1	영조	王世弟印	1721(경종 1, 辛丑) 9월 26일	38	262	296	옥인귀뉴
2	영조비 정성왕후 서씨	王世弟嬪之印	1721(경종 1, 辛丑) 9월 26일	196	281	○	옥인귀뉴

### ③ 왕세손 및 왕세손빈 책봉

왕세손 책봉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을 통틀어 단 5차례만 이루어졌다.

단종은 8세 때인 세종 30년(1448) 왕세손으로 책봉되었고,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문종이 왕으로 즉위하자 바로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현종은 8세 때인 인조 27년(1649)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으나 그해 효종이 왕위에 올랐고, 인조 상(喪)이 끝난 효종 2년(1651)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의소세손은 2세 때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으나 3세 때 사망하였고, 정조는 8세 때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다가 25세에 즉위하였다. 헌종은 4세 때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다가 8세에 즉위하였다.

왕세손 책봉 어보는 모두 옥인 귀뉴로 제작되었으며, 인문(印文)은 ‘왕세손인(王世孫印)’이다. 대체로 어린 나이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왕세손빈은 책봉되지 않았다. 왕세손빈으로 책봉된 경우는 정조비 효의왕후가 유일하는데 이때의 어보는 옥인이 아니라 은인으로 제작되었다. 보문 내용은 ‘왕세손빈지인(王世孫嬪之印)’이다.

<표> 왕세손 및 왕세손빈 책봉 어보

연번	왕세손 및 왕세손빈	인문	수여 연도	어보	죽책	교명	비고
1	정조	王世孫印	1759(영조 35, 己卯) 윤6월 22일	57	270	299	옥인귀뉴
2	정조비 효의왕후 김씨	王世孫嬪之印	1762(영조 38, 壬午) 1월 8일	230	290	317	은인귀뉴
3	헌종	王世孫印	1830(순조 30, 庚寅) 9월 15일	91	274	302	옥인귀뉴

### ④ 왕비 책봉

조선시대 왕은 보통 8세 전후에 왕세자에 책봉되면서 혼인을 한다. 따라서 왕비는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입궁한 다음 왕세자가 왕위에 즉위한 후 정식 왕비에 책봉된다.

선왕이 승하하면 임금의 자리는 오래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대개 닷새 만에 성복(成服)하고 빈전(殯殿)이 있는 침전(寢殿) 정문에서 즉위식을 거행한다. 왕세자빈은 바로 왕비로 책봉되지 않고 선왕의 상기(喪期)를 마친 뒤에 행한다.

<표> 왕비 책봉 어보

연번	왕비	보문	수여 연도	어보	옥책	교명	비고
1	문종비 현덕왕후 권씨	顯德 王后之寶	1450(문종 즉위, 庚午) 7월 8일	111	○	-	금보귀뉴
2	선조계비 인목왕후 김씨	王妃之寶	1602(선조 35, 壬寅) 7월 13일	134	○	○	금보귀뉴
3	인조비 인렬왕후 한씨	王妃之寶	1623(인조 1, 癸亥) 8월 16일	141	94	○	금보귀뉴
4	인조계비 장렬왕후 조씨	王妃之寶	1638(인조 16, 戊寅) 12월 2일	144	99	303	금보귀뉴
5	숙종비 인경왕후 김씨	王妃之寶	1676(숙종 2, 丙辰) 10월 21일	152	113	○	금보귀뉴
6	숙종계비 인현왕후 민씨	王妃之寶	1694(숙종 20, 甲戌) 6월 1일	159	120	307	복위 금보귀뉴
7	숙종계비 인원왕후 김씨	王妃之寶	1702(숙종 28, 壬午) 10월 3일	165	122	308	금보귀뉴
8	경종비 단의왕후 심씨	端懿 王后之寶	1722(경종 2, 壬寅) 9월 3일	178	141	310	금보귀뉴
9	경종계비 선의왕후 어씨	王妃之寶	1722(경종 2, 壬寅) 5월 15일	179	143	312	금보귀뉴
10	영조비 정성왕후 서씨	王妃之寶	1726(영조 2, 丙午) 10월 29일	187	147	313	금보귀뉴
11	영조계비 정순왕후 김씨	王妃之寶	1759(영조 35, 己卯) 6월 20일	198	157	314	금보귀뉴
12	정조비 효의왕후 김씨	王妃之寶	1778(정조 2, 戊戌) 5월 6일	227	176	318	금보귀뉴
13	순조비 순원왕후 김씨	王妃之寶	1802(순조 2, 壬戌) 10월 13일	233	181 182	319	금보귀뉴
14	헌종비 효현왕후 김씨	王妃之寶	1837(헌종 3, 丁酉) 3월 27일	273	221	320	금보귀뉴
15	철종비 철인왕후 김씨	王妃之寶	1851(철종 2, 辛亥) 9월 25일	294	○	○	금보귀뉴
16	고종비 명성왕후 민씨	王妃之寶	1866(고종 3, 丙寅) 3월 20일	300	245	321	금보귀뉴

왕비 책봉과 관련하여 어보 현재 남아있는 어보는 16과이다. 왕비 책봉 어보는 모두 금보 귀뉴로 제작되었으며, 보문은 ‘왕비지보(王妃之寶)’이다.

조선 초기에 공비(恭妃)와 같은 왕비의 명칭은 목조비 효공왕후 이씨를 효비(孝妃)라 하고, 익조비 정숙왕후 최씨는 정비(貞妃), 도조비 경순왕후 박씨는 경비(敬妃), 환조비 의혜왕후 최씨는 의비(懿妃)라고 하였다.<sup>34)</sup> 이어서 태조비 신의왕후 한씨는 절비(節妃)<sup>35)</sup>, 태조비 신덕왕후 강씨는 현비(顯妃)<sup>36)</sup>, 정종비 정안왕후 김씨는 덕비(德妃)<sup>37)</sup>, 태종비 원경왕후 민씨는 정비(靜妃)<sup>38)</sup>, 세종비 소헌왕후 심씨는 공비(恭妃)<sup>39)</sup>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고려시대 여러 명의 정실부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미칭을 붙인 것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1432년(세종 14) 미칭을 붙이던

34)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1392) 11월 6일(계미) 皇高祖妣諡曰孝妃。皇曾祖妣諡曰貞妃。皇祖妣諡曰敬妃。皇妣諡曰懿妃。

35)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1393) 9월 18일(경신) 贈節妃。

36)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1392) 8월 7일(병진) 立康氏爲顯妃。

37)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1398) 11월 18일(경인) 授德妃冊寶。

38)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1401) 1월 10일(경오) 封貞嬪 閔氏爲靜妃。

39)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1418) 8월 14일(신묘) 上定中宮號曰儉妃

제도를 폐지하였으며<sup>40</sup>), 이후부터는 왕비, 왕세자빈으로 불리었으며 1897년 대한 제국을 선포한 이후에는 황후, 황태자비라 불렀다.

문종비 현덕왕후 권씨(顯德王后 權氏, 1418년~1441년)는 문종이 왕세자로 있을 때 후궁인 승휘(承徽)로 궁에 들어갔으며, 왕세자의 두 부인인 휘빈 김씨와 순빈 봉씨가 갖가지 비행으로 왕실을 문란케 하여 폐위되자 이미 두 딸을 낳아 품계가 양원(良媛)으로 올라가 있던 권씨가 세 번째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1441년(세종 23)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사망하니 향년 24세였다. 이때 시호를 ‘현덕빈(顯德嬪)’으로 칭하였다. 1450년 문종이 왕위에 오른 뒤 현덕왕후(顯德王后)로 추봉되었다.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가 사망하자 선조계비 인목왕후 김씨가 1602년(선조 35) 왕비에 책봉되었다.

인조비 인렬왕후 한씨는 1610년(광해군 2) 17세의 나이에 능양군(인조)과 혼인하여 청성현부인(淸城縣夫人)으로 봉해졌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능양군이 왕이 됨에 따라 왕비로 책봉되었다.

인조계비 장렬왕후 조씨는 1635년(인조 13) 사망한 인렬왕후의 뒤를 이어 1638년(인조 16) 왕비로 책봉되었다.

숙종비 인경왕후 김씨는 1671년(현종 12) 왕세자빈에 책봉되었고, 1674년(숙종 즉위년) 왕비에 책봉되었다. 숙종계비 인현왕후 민씨는 1681년(숙종 7) 숙종의 계비(繼妃)로 책봉되었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의 여파로 폐위되었다가 5년 후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복위되어, 같은 해 6월 1일 정식으로 왕비 책봉을 받았다.

숙종계비 인원왕후 김씨는 인현왕후가 승하하자 1702년(숙종 28) 숙종의 세 번째 왕비로 책봉되었다.

단의왕후 심씨(端懿王后 沈氏, 1686년~1718년)는 1696년(숙종 22)에 11살의 나이로 왕세자빈에 간택되어 경종과 가례를 올렸다. 경종 즉위 2년 전인 1718년(숙종 44) 2월 7일 갑자기 혼절하여 돌연사 하였다. 왕세자가 손수 지문을 지었고, 숙종은 1718년(숙종 44) 4월 10일 죽음을 비통해하며 ‘단의(端懿)’라는 시호(諡號)를 추서하고 단의빈(端懿嬪)으로 삼았다. 1720년(경종 즉위년) 경종이 즉위하자, ‘단의왕후(端懿王后)’로 추봉되었다.

경종계비 선의왕후 어씨는 1718년(숙종 44) 첫 번째 세자빈인 심씨(단의왕후)가

40)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1월 18일(무인)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고전(古典)을 상고하여 보오니, 천자의 배필을 황후라고 하고, 왕의 배필을 왕비라고 하였을 뿐이며, 역대의 제도에 일찍이 아름다운 칭호를 여기에 덧붙인 일이 없었습니다. 궁인에 이르러서도 각기 칭호(稱號)하여 명분과 지위를 구별하였사오나, 본조의 제도는 왕비는 모비(某妃)라고 일컫고, 왕세자빈은 모빈(某嬪)이라고 일컫고는 다 휘호(徽號)를 더 붙이는데, 이것은 예에 어긋나는 바 있사오니, 이제 옛 제도에 좃자 다만 왕비·왕세자빈이라고만 일컫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戊寅禮曹啓: “謹稽古典, 天子之配曰皇后, 王之配曰王妃, 歷代之制, 未嘗以美號加之, 至於宮人, 則各稱號以別名位。本朝之制, 王妃稱某妃, 王世子嬪稱某嬪, 皆加徽號, 有違於禮, 今遵古制, 只稱王妃、王世子嬪。”從之



죽자 그 해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어 가례를 올렸고, 1720년 경종이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영조비 정성왕후 서씨는 1721년(경종 1) 연잉군이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됨에 따라 왕세제빈(王世弟嬪)이 되었다. 1724년 연잉군이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영조계비 정순왕후 김씨는 정성왕후(貞聖王后)가 사망하자 1759년(영조 35) 15세로 나이로 51세 연상인 영조와 혼인하여 왕비로 책봉되었다.

정조비 효의왕후 김씨는 1762년(영조 38) 왕세손빈(王世孫嬪)에 책봉되고,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순조비 순원왕후 김씨는 1800년(정조 24) 왕세자빈 간택 중 정조의 사망으로 왕세자빈에 책봉되지 않고 1802년(순조 2) 10월 왕비로 책봉되었다.

헌종비 효현왕후 김씨는 1837년(헌종 3) 10세에 왕비에 책봉되었다. 1843년(헌종 8)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에서 16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순종 때 효현성황후(孝顯成皇后)에 추존되었다.

철종비 철인왕후 김씨는 당시 대왕대비 순원왕후(순조의 비)의 근친으로 1851년(철종 2) 왕비에 책봉되어 어의동(於義洞) 본궁에서 가례를 올렸다.

고종비 명성왕후 민씨는 1866년(고종 3) 간택령에 따라 금혼령을 내리고 2월 25일 창덕궁 중희당에서 초간택을 하였다. 재간택, 삼간택을 거쳐 왕비로 책봉되었다.

### ⑤ 황후, 황태자 및 황태자빈 책봉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왕실의 격 또한 제국에 맞게 격상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또한 제국의 위상에 맞게 황후, 황태자, 황태자빈으로 바꾸어 책봉하였다.

<표> 황태자 및 황태자빈, 황후 책봉 어보

연번	명칭	보문	수여 연도	어보	금액	교명	비고
1	의민황태자	皇太子寶	1907(융희 1) 9월 7일	310	금액		금보용뉴
2	순명황태자빈 민씨	皇太子妃之寶	1897(고종 34) 9월	309	금액		금보귀뉴
3	고종비 명성황후 민씨	皇后之寶	1897(고종 34) 10월 12일(양)	299	291		금보용뉴

처음 황후로 책봉된 인물은 명성황후로, 1895년(고종 32) 을미사변으로 사망한 왕비를 황후로 추존하여 책봉한 것이다.

1907년(융희 1) 7월에 일본이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순명효황후 민씨를 황후로 추봉하고, 계비인 순정효황후 윤씨를 황후로 책봉하였다.

황후 책봉 어보는 금보 용뉴로 제작되었으며 보문은 ‘황후지보(皇后之寶)’이다.

명성황후와 순명효황후의 책봉 어보는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으나, 순정효황후의 어보는 분실되었다.

황태자 책봉은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순종과 의민황태자가 이에 해당한다.

순종은 1875년(고종 12) 2월 18일 2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대한제국 수립 이후 황태자로 격상되었다. 의민황태자 이은(李垕)은 고종의 일곱째 아들로, 1900년(광무 4) 8월 17일에 경운궁 중화전에서 이은을 영친왕(英親王)으로 책봉하면서 금책과 금인, 칠장복을 하사하였다. 이후 1907년(융희 1) 3월 11일에 경운궁 중화전에서 관례가 행해졌고 같은 해 8월 7일에 태황제 고종의 조서에 따라 순종의 황태자로 이은이 결정되었고, 9월 7일에 황태자에 책봉되었다.

황태자 책봉 어보는 금보 용뉴로, 보문은 ‘황태자보(皇太子寶)’이다. 순종의 황태자보는 현재 분실되어 없고 의민황태자보 만이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황태자비 책봉은 순종의 빈인 순명효황후와 순정효황후 두 차례 이루어졌다. 순명효황후 민씨는 1882년(고종 19) 2월 19일에 창덕궁 인정전에서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2월 21일에 순종과 가례를 올렸다. 1897년(광무 1) 10월 14일 황태자비로 책봉되었다.

순정효황후 윤씨는 1904년(광무 7) 당시 황태자비였던 순명효황후 민씨가 사망하자, 1906년(광무 10) 황태자비로 책봉되었다.

황태자비 책봉 어보는 금보 귀뉴이고 보문은 ‘황태자비지보(皇太子妃之寶)’이다. 1906년(광무 10) 1월 24일에 수여한 순정효황후 황태자비 어보는 현재 분실되어 없고, 1897년(광무 1) 10월 14일에 수여한 순명효황후 황태자비 어보만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⑥ 태후 책봉

고려 시대 말기 원나라의 지배 영향으로 모든 관제가 격하되기 이전까지는 대대로 고려 왕의 어머니를 왕태후(王太后)라 부르다가, 조선 왕실에서는王大妃(王大妃)로 격하되어 불리었다. 이후 1897년 대한제국 선포 후 조선 왕실의 호칭을 격상하면서王大妃를 왕태후로 새로 고쳐 불렀다.

태후로 책봉된 인물은 헌종비 효정왕후이다. 1844년(헌종 10) 헌종의 계비로 책봉되었으며, 1849년(철종 즉위년) 대비가 되어 명헌(明憲)이라는 존호를 받았다. 이후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왕태후로 칭호가 격상되었고,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자 황태후로 격상되었다.

<표> 태후 책봉 어보

연번	명칭	보문	수여 연도	어보	옥책	비고
1	효정왕후 홍씨	明憲 太后之寶	1897(光武 1, 丁酉) 10월 14일	278		옥보귀뉴

## 나. 존호 어보

존호(尊號)는 왕과 왕비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올리는 칭호이다. 조선의 왕으로서 생전에 존호를 받은 최초의 왕은 태조 이성계(李成桂)였다. 1399년(정종 1) 10월 권근(權近, 1352~1409)은 상소문을 통해 “근심하며 부지런히 덕을 쌓아 왕업을 창건하고 대통을 전하여 억만년 무궁한 기업(基業)을 열어 전하게 하였으니, 높은 공과 성한 덕이 하늘과 더불어 다함이 없다.”는 내용으로 태조에게 존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400년(정종 2) 6월 태조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한 봉숭도감(封崇都監)을 설치하고 ‘계운신무(啓運神武)’라는 네 글자의 존호를 올렸다. 태조 이성계가 신무(神武)로써 조선을 창업한 공덕을 드러내는 호칭이었다. 이후로 조선시대에는 생전에 왕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한 존호가 무수히 올려졌다. 조선 초기에는 존호가 없는 왕과 왕비도 있으나, 중기 이후에는 여러 차례 가상(加上)하는 경우가 많다.

존호는 크게 생전에 올리는 것과 사후에 올리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전에 처음 올리는 것을 상존호(上尊號)라고 하고, 두번째 이후부터는 가상존호(加上尊號), 사후에 올리는 것은 추상존호(追上尊號)라고 한다.<sup>41)</sup> 지정대상 어보 중 상존호는 24과, 가상존호는 85과, 추상존호는 88과 모두 197과이다.

존호를 받는 대상은 왕과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이며 상존호인 경우 왕은 존호(8字)+왕보(王寶), 왕비는 존호(2字)+왕비지보(王妃之寶), 왕대비는 존호(2字)+왕대비지보(王大妃之寶), 대왕대비는 존호(2字)+대왕대비지보(大王大妃之寶)이다. 이후 올려지는 가상존호는 그 순서에 따라 붙인다.

사후에 올리는 추상존호인 경우 왕은 존호(8字)+시호(8字)+대왕지보(大王之寶)이고, 왕비인 경우 부묘(祔廟)<sup>42)</sup>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묘 전은 존호(2字)+시호(2字)+왕후지보(王后之寶)이며, 부묘 후에는 휘호 4글자를 덧붙여서 존호(2字)+휘호(4字)+시호(2字)+왕후지보(王后之寶)이다.

대체적으로 생시(生時)에 올리는 상존호와 가상존호 어보는 옥보로, 사후에 올리는 추상존호 어보는 금보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인조·효종·현종·경종 등은 생전에는 존호를 받지 못했다.<sup>43)</sup> 반면 숙종 39년(1713)에 숙종과 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에게 숙종 즉위 40년을 축하하기 위해 존호를 올린 일이 있었다.<sup>44)</sup> 이에 대해 숙종은 “여러 날 동안 조정의 뜰에 모여서 극력 청함이 이에 이르니, 겸양을 지키려던 당초의 마음을 끝내 스스로 이루기 어려워져 힘써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지만 사신(史臣)들은 임금의 겸덕(謙德)이 지극한데, 조신(朝臣)들이 이를 받들어 따르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41) 김종수, 「존호·존승·상호도감의케 명칭에 대한 소고」, 『온지논총』 제12집, 166쪽.

42) 3년 상(喪)을 끝낸 뒤에 왕이나 왕비의 신주(神主)를 종묘에 모시는 일.

43) 김종수,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궤해설집』 「규장각 소장 존호·존승·상호도감의케 해설」, 40쪽.

44)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1713) 3월 9일(병술).

마침내 강박(強迫)하여 청을 준허하고야 말았다. 따라서 10여 년 동안 간직해 온 겸손한 덕이 시커멓게 어두워 발양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특히 백세(百世)의 비난이 두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존호(尊號)가 만일 옳지 않다면 임금 스스로 이회(理會)할 것이니,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금상(今上)의 청허(聽許)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혹자는 당초에 성상의 뜻이 굳건히 결정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기도 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라며 비난했다.<sup>45)</sup>

숙종 때부터 선왕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작업으로 존호를 올리는 일은 영조대로 이어졌다. 존호를 올리는 대상을 살아계시는 대비, 대왕대비에 한정하지 않고, 선왕과 왕비를 비롯하여 효종·현종·숙종까지도 존호를 올렸다. 이와 같이 선왕에게 존호를 올리는 일은 단순히 이름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다. 종묘의 신위는 3대가 지나면 조천(祧遷)하여 영녕전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신위에 존호를 올리는 의식을 거행한 후에 종묘의 세실(世室)에 영원히 모셔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왕의 신위를 세대가 지나도 옮기지 않는 불천위(不遷位)로 높이고 이 불천위의 수를 늘려가는 것은 왕실의 위상을 높이고 강화하려는 국왕의 의지가 담겨진 조치라고 할 수 있다.<sup>46)</sup>

영조께서는 재위 중에 여러 차례 존호를 받았다. 이와 같이 재위 중일 때 존호를 받은 왕은 선조·광해군·숙종 등이다. 영조는 즉위 초기에는 존호를 받는 것을 극구 거절했지만 자신이 주도하는 정국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후에는 존호를 받았다. 영조는 재위 기간 중에 12차례에 걸쳐 존숭의식을 거행했고 자신은 5차례에 걸쳐 40글자의 존호를 받았다. 이러한 배경은 왕과 왕실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데 영조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절정은 고종 때이다. 100여 차례 이상이다.

영조 때에는 영조 자신이 5차례의 존호를 받았으며 선왕인 효종·숙종·현종과 그들의 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모인 육상궁에게도 존호를 올렸다. 영조는 재위 2년부터 52년까지 11차례에 걸쳐 31가지의 존호를 올렸다. 물론 자신이 존호를 주고받을 수 없기에 김재로 등 신하들이 올리는 형식으로 존호를 받았다. 영조 이후부터 이 선례를 따라 존호를 자주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영조를 자신의 표상으로 삼았던 고종이 특히 더했다.

정조는 5차례에 걸쳐 9가지의 존호를 올렸다. 이때 존호를 올린 배경은 영조의 부묘례, 문효세자의 탄생, 세자책봉, 영조 즉위 60주년, 정순왕후 오순(五旬) 등의 사유였다.

순조 때에는 4차례에 6가지의 존호를 올렸다. 정순왕후와 효의왕후의 존숭, 수렴청정 철수, 정순왕후 육순 및 보감, 왕세손 탄생 등이다. 순조의 대를 이은 현종은

45)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1713) 1월 17일(을미) 【史臣曰: " 上之謙德至矣, 朝臣等不思將順之義, 終至強迫準請而後已。使十餘年謙抑之德, 黷昧不揚, 獨不畏百世之譏議乎? 然, 朱子曰: '尊號若不是, 人君自理會得, 如何說今?' 上之聽許太遽, 或疑當初聖志, 未出於堅定, 惜哉!"]

46) 김지영, 「조선시대 존숭의식의 의미와 상호도감의례」, 『영조사존호상호도감의례』, 서울대학교 규장각, 7쪽.

불과 8살에 즉위하였다. 순원왕후가 7년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 공을 기념하고 순원왕후가 왕비로 책봉된 지 40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 순원왕후의 육순(六旬) 등을 빌미로 존호를 4차례에 걸쳐 7가지의 존호를 올렸다.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순원왕후는 왕실의 방계 인물인 철종을 찾아내어 헌종의 뒤를 잇게 하였다. 철종을 왕으로 추대한 후 재임 14년간 12차례에 걸쳐 27가지의 존호를 올렸다. 27가지의 존호 중 장조 1가지, 헌경왕후 1가지, 순조 5가지, 순원왕후 7가지, 문조 1가지, 신정왕후 4가지, 헌종 1가지, 효현왕후 1가지, 효정왕후 4가지, 철종 1가지, 철인왕후 1가지이다.

고종은 26차례에 걸쳐 90가지의 존호를 올렸다. 물론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태조를 비롯한 직계 존속에 대한 황제 추존 등의 사례도 있지만 존호를 올리는데 너무 남발한 것처럼 여겨진다. 존호를 올리는 배경은 다 이유가 있지만 왕권이 약해지고 정치적인 돌파구 마련이 필요할 때 대부분 존호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고종의 대를 이은 순종은 2회에 걸쳐 존호를 올리는데 한번은 고종을 대상왕으로 올리고 ‘수강(壽康)’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또 한 번은 1908년 고종이 직계 존속들을 황제로 추존한데 미진함을 느낀 순종이 역시 직계의 왕과 왕비들을 황제와 황후로 추존한 것이다.

### ① 왕 존호

태조, 정종, 태종 등 조선 초기의 존호 글자 수를 살펴보면 주로 4자인 것을 알 수 있다.<sup>47)</sup> 그러나 세조 3년(1457) 이후부터<sup>48)</sup> 8글자의 존호가 정형화 되었다. 왕이 승하한 이후에 올리는 추상존호도 8글자로 정형화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존호는 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변란을 진압하였거나, 종계변무(宗系辨誣), 회갑(回甲), 등과 같이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나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올리게 된다.

다음 <표>는 조선왕조 초기부터 대한제국 말까지 존호를 올린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왕 존호 현황

연번	왕	존호	수여 연도	내용	어보	옥책	비고
1	태조	啓運神武	1400(定宗 2, 庚辰) 7월	상왕→대상왕		○	
		應天肇統 廣勳永命	1872(高宗 9, 壬申) 1월	태조 창업과 태종 즉위 신년(辛年)	6	2	
2	정종	仁文恭睿	1400(定宗 2, 庚辰) 12월	왕→상왕		○	

47)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1400) 7월 2일(을축) 태조에게 ‘啓運神武’, ○上率世子及百官, 朝于德壽宮, 奉玉冊金寶, 上尊號曰啓運神武太上王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1400) 12월 1일(신묘) 정종에게 ‘仁文恭睿’, 謹上尊號曰仁文恭睿上王.

48)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1457) 3월 7일(경오) 세조에게 ‘승천체도 열문영무(承天體道 烈文英武)’ 8글자의 존호를 올렸다. 上尊號曰, 承天體道烈文英武.

연번	왕	존호	수여 연도	내용	어보	옥책	비고
3	태종	聖德神功	1418(世宗 1, 戊戌) 11월	왕→상왕		○	
		建天體極 大正啓佑	1872(高宗 9, 壬申) 1월	태조 창업과 태종 즉위 신년(辛年)		6	
4	단종	恭懿溫文	1455(세조 1, 乙亥) 7월 11일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 노산군(魯山君)으로 봉(封)하며			
5	세조	承天體道 烈文英武	1457(世祖 3, 丁丑) 3월	단종복위 무산, 환구에 제사		○	
6	덕종	溫文	1471(성종 2, 辛卯) 1월 24일		기증	○	
		宣肅恭顯 溫文懿敬	1475(성종 6, 乙未) 2월 26일			○	
7	선조	正倫立極 盛德洪烈	1590(宣祖 23, 庚寅) 2월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			
		至誠大義 格天熙運	1604(宣祖 37, 甲辰) 10월	왜적을 물리친 공	16	○	
		景命神曆 弘功隆業	1892(高宗 29, 壬辰) 4월	임진왜란 5갑주	18	93	
8	인조	開天肇運 正紀宣德	1900(高宗 37, 庚子) 1월	효정왕후 칠순(七旬)	21	11	
9	효종	明義正德	1740(英祖 16, 庚申) 6월	영조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해		14	
		欽天達道 光毅弘烈	1900(高宗 37, 庚子) 1월	효정왕후 칠순(七旬)	22	15	
10	현종	昭休衍慶 敦德綏成	1772(英祖 48, 壬辰) 11월	영조 79세, 즉위 49년, 정순왕후 책봉 15주년		17	
11	숙종	顯義光倫 睿聖英烈	1713(肅宗 39, 癸巳) 3월	숙종 즉위 40년	23	18	
		裕謨永運 洪仁峻德	1753(英祖 29, 癸酉) 12월	영조 육순(六旬)	25	20	
		配天合道 啓休篤慶	1776(英祖 52, 丙申) 1월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짐		21	
		正中協極 神毅大勳	1890(高宗 27, 庚寅) 3월	역대 선왕의 추숭	26	22	
12	영조	至行純德 英謨毅烈	1740(英祖 16, 庚申) 7월	김재로 등 신하의 청	30	24	
		章義弘倫 光仁敦禧	1752(英祖 28, 壬申) 5월	명 삼황제 대보단 배향	33	25	
		體天建極 聖功神化	1756(英祖 32, 丙子) 1월	인원왕후 칠순(七旬)	34	26	
		大成廣運 開泰基永	1772(英祖 48, 壬辰) 11월	영조 79세, 즉위 49년, 정순왕후 책봉 15주년	35	27	
		堯明舜哲 乾健坤寧	1776(英祖 52, 丙申) 1월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짐을 칭찬	36	29	

연번	왕	존호	수여 연도	내용	어보	옥책	비고
		配命垂統 景曆洪休	1784(正朝 8, 甲辰) 9월	세자책봉, 영조 즉위 60주년		30	
		中和隆道 肅莊彰勳	1890(高宗 27, 庚寅) 1월	영조 묘호 개묘	37	32	
13	정조	敬天明道 洪德顯謨	1899(高宗 36, 己亥) 10월	정조 추숭	56	40	
14	순조	淵德顯道 景仁純禧	1827(純祖 27, 丁亥) 9월	왕세손 탄생	59	42	
		體聖凝命 欽光錫慶	1848(憲宗 14, 戊申) 3월	순원왕후 육순(六旬)	62	45	
		繼天配極 隆元敦休	1853(哲宗 4, 癸丑) 1월	철종이 종법상의 부인 순조를 현양	63	46	
		懿行昭倫 熙化峻烈	1857(哲宗 8, 丁巳) 10월	순종의 묘호를 순조로 개묘	64	47	
		大中至正 洪勳哲謨	1858(哲宗 9, 戊午) 1월	순원왕후 칠순(七旬)	65	48	
		乾始泰亨 昌運弘基	1861(哲宗 12, 辛酉) 1월	순조 원년의 회갑 순원왕후 혼인 60년	66	49	
		高明博厚 剛健粹精	1862(哲宗 13, 壬戌) 1월	순원왕후 책봉 60년	67	50	
		啓統垂曆 建功裕範	1879(高宗 16, 己卯) 1월	익종 혼인 회갑 (신정왕후 가례 60주년)	68	51	
15	문조	體元贊化 錫極定命	1848(憲宗 14, 戊申) 3월	순원왕후 육순(六旬)	72	54	
		聖憲英哲 睿誠淵敬	1853(哲宗 4, 癸丑) 10월	선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73	55	
		隆德純功 篤休弘慶	1866(高宗 3, 丙寅) 4월	신정왕후 수렴청정 철거, 고종 친정	74	56	
		洪運盛烈 宣光濬祥	1867(高宗 4, 丁卯) 1월	신정왕후 60세	75	57	
		堯欽舜恭 禹勤湯正	1869(高宗 6, 己巳) 1월	효명세자 회갑	76	58	
		啓天建統 神勳肅謨	1875(高宗 12, 乙亥) 12월	신정왕후 68세, 익종 세실 지정	77	59	
		乾大坤厚 廣業永祚	1877(高宗 14, 丁丑) 1월	신정왕후 70세	79	60	
		莊義彰倫 行健配寧	1879(高宗 16, 己卯) 1월	익종 혼인 회갑 (60주년)	80	61	
		基泰垂裕 熙範昌禧	1883(高宗 20, 癸未) 1월	신정왕후 국모 0주년	81	62	
		立經享道 成戲昭章	1887(高宗 24, 丁亥) 1월	문조 대리청정 60주년, 신정왕후 80세	78	63	
		致中達和 繼曆協紀	1890(高宗 27, 庚寅) 12월	신정왕후 탄일 추모	82	64	
		剛粹景綿 峻惠衍祉	1892(高宗 29, 壬辰) 7월	고종 즉위 30년	83	66	
		宏猷愼徽	1902(高宗 39, 壬寅)	고종 즉위 40년,	84	67	

연번	왕	존호	수여 연도	내용	어보	옥책	비고
		綏緒佑福	1월	고종의 망육(望六)			
16	헌종	體健繼極 中正光大	1853(哲宗 4, 癸丑) 10월	선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89	69	
		至聖廣德 弘運章化	1866(高宗 3, 丙寅) 4월	신정왕후 수렴청정 철폐, 고종 친정	90	70	
17	철종	熙倫正極 粹德純聖	1863(哲宗 14, 癸亥) 6월	이십일사약편 왕실 중계 수정	93	72	
		欽命光道 敦元彰化	1866(高宗 3, 丙寅) 4월	신정왕후 수렴청정 철폐, 고종 친정	95	74	
18	고종	統天隆運 肇極敦倫	1873(高宗 10, 癸酉) 4월	신정왕후 왕비 40주년, 고종 즉위 10년	98	76	
		正聖光義 明功大德	1888(高宗 25, 戊子) 3월	고종 즉위 25주년, 세자 순종의 요청	97	77	
		堯峻舜徽 禹謨湯敬	1890(高宗 27, 庚寅) 2월	명성왕후 40세	99	78	
		應命立紀 至化神烈	1892(高宗 29, 壬辰) 7월	고종 즉위 30년	100	79	
		巍勳洪業 啓基宣曆	1900(高宗 37, 庚子) 1월	효정왕후 칠순(七旬)	중박	80	
		乾行坤定 英毅弘休	1902(高宗 39, 壬寅) 1월	고종 즉위 40년, 고종의 망육(望六)	중박	81	
		壽康	1907(純宗 원년, 丁未) 8월	고종 태상왕 기념	환수	82	

## ② 왕비 존호

왕비에게 존호를 올리는 경우는 보통 회갑(回甲), 임금이 즉위로 상왕이나 왕대비, 대왕대비로 존숭될 때 올린다. 즉 존숭이란 새 임금이 즉위하면서 왕비를 새로 책봉하면 그 윗대의 왕비는 왕대비로, 왕대비는 대왕대비로 존숭하게 되는데 이때 존호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표> 왕비 존호 현황

연번	왕비	왕비 존호	수여 연도	내용	어보	옥책	비고
1	정종비 정안왕후	順德	1400(定宗 2, 庚辰) 12월	왕비→왕대비		○	
2	태종비 원경왕후	厚德	1418(世宗 1, 戊戌) 11월	왕비→왕대비		○	
3	단종비 정순왕후	懿德	1455(世祖 1, 乙亥) 7월	왕비→왕대비			
4	세조비 정희왕후	慈聖	1457(世祖 3, 丁丑) 3월	단종복위 무산 환구에 제사	114	○	
5		欽仁景德 宣烈明淑 元淑	1469(睿宗 1, 己丑) 2월	왕비→왕대비		○	
6		徽慎惠懿	1469(睿宗 1,	궁중 책봉		○	



연번	왕비	왕비 존호	수여 연도	내용	어보	옥책	비고
			己丑) 9월				
7		神憲	1471(成宗 2, 辛卯) 1월	왕대비→대왕대비	115	○	
8	덕종비 소혜왕후	仁粹	1476(成宗 6, 乙未) 1월	왕비→왕대비		○	
9		慈淑	1497(燕山 3, 丁巳) 3월	왕대비→대왕대비			
10	예종비 안순왕후	仁惠	1471(成宗 2, 辛卯) 1월	왕비→왕대비	118	○	
11		明懿	1497(燕山 3, 丁巳) 3월	왕대비→대왕대비			
12	성종비 정현왕후	慈順	1497(燕山 3, 丁巳) 5월	왕비→왕대비	121		
13		和惠	1505(燕山 11, 乙丑) 8월			○	
14	중종비 문정왕후	聖烈	1547(明宗 2, 丁未) 1월	왕대비→대왕대비	환수		
15		仁明	1547(明宗 2, 丁未) 9월		125	○	
16	인종비 인성왕후	恭懿	1547(明宗 2, 丁未) 9월	왕비→왕대비	126		
17	명종비 인순왕후	懿聖	1569(宣祖 2, 己巳) 윤6월	왕비→왕대비	127		
18		章聖	1590(宣祖 23, 庚寅) 2월	종계번무(宗系辨誣)의 공	129		
19	선조비 의인왕후	徽烈	1604(宣祖 37, 甲辰) 10월	왜적을 물리친 공	130	○	
20		敬穆	1892(高宗 29, 壬辰) 4월	임진왜란 5갑주	132	92	
21		昭聖	1604(宣祖 37, 甲辰) 10월	왜적을 물리친 공	133	○	
22		貞懿	1610(光海 2, 庚戌) 4월	왕비→왕대비	135	○	
23	선조비 인목왕후	明烈	1624(仁祖 2, 甲子) 8월	왕대비→대왕대비	137	○	
24		正肅	1892(高宗 29, 壬辰) 4월	임진왜란 5갑주	138	9	
25	인조비 인렬왕후	正裕	1900(高宗 37, 庚子) 1월	효정왕후 칠순(七旬)	142	98	
26		慈懿	1651(孝宗 2, 辛卯) 8월	왕비→왕대비		100	
27		恭愼	1661(顯宗 2, 辛丑) 7월	왕대비→대왕대비	146	101	
28	인조비 장렬왕후	徽獻	1676(肅宗 2, 丙辰) 10월	왕대비-대왕대비	구입	12	
29		康仁	1686(肅宗 12, 丙寅) 5월	회갑	147	102	

연번	왕비	왕비 존호	수여 연도	내용	어보	옥책	비고
30		淑穆	1900(高宗 37, 庚子) 1월	효정왕후 칠순(七旬)	145	104	
31	효종비 인선왕후	孝肅	1661(顯宗 2, 辛丑) 7월	왕비→왕대비		106	
32		貞範	1900(高宗 37, 庚子) 1월	효정왕후 칠순(七旬)	149	108	
33	현종비 명성왕후	顯烈	1676(肅宗 2, 丙辰) 10월	왕비→왕대비	고대	110	
34		禧仁	1772(英祖 48, 壬辰) 11월	영조 79세, 즉위 49년, 정순왕후 책봉 15주년		112	
35	숙종비 인경왕후	光烈	1713(肅宗 39, 癸巳) 3월	숙종 즉위 40년	153	115	
36		宣穆	1753(英祖 29, 癸酉) 12월	영조 육순(六旬)	155	117	
37		惠聖	1776(英祖 52, 丙申) 1월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짚을 칭찬	156	118	
38		純懿	1890(高宗 27, 庚寅) 3월	역대 선왕의 추숭	157	119	
39	숙종비 인현왕후	孝敬	1713(肅宗 39, 癸巳) 3월	숙종 즉위 40년	160	124	
40		淑聖	1753(英祖 29, 癸酉) 12월	영조 육순(六旬)		135	
41		莊純	1776(英祖 52, 丙申) 1월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짚	162	138	
42		元化	1890(高宗 27, 庚寅) 3월	역대 선왕의 추숭	163	139	
43	숙종비 인원왕후	惠順	1713(肅宗 39, 癸巳) 3월	숙종 즉위 40년	164	123	
44		慈敬	1722(景宗 2, 壬寅) 9월	왕비→왕대비	166	126	
45		獻烈	1726(英祖 2, 丙午) 10월	왕대비→대왕대비	168	127	
46		光宣	1740(英祖 16, 庚申) 2월	모임(母臨) 39년	169	128	
47		顯翼	1740(英祖 16, 庚申) 7월	김재로 등 신하의 청	170	129	
48		康聖	1747(英祖 23, 丁卯) 2월	인원왕후 회갑	171	130	
49		貞德	1751(英祖 27, 辛未) 2월	모임(母臨) 50년	172	131	
50		壽昌	1752(英祖 28, 壬申) 5월	명 삼황제 대보단 배향	173	132	
51		永福	1753(英祖 29, 癸酉) 12월	영조 육순(六旬)	176	133	
52		隆化	1756(英祖 32, 乙丑) 12월	인원왕후 칠순(七旬)	174	134	

연번	왕비	왕비 존호	수여 연도	내용	어보	옥책	비고
			丙子) 1월				
53		徽靖	1776(英祖 52, 丙申) 1월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짊	177	137	
54		正運	1890(高宗 27, 庚寅) 3월	역대 선왕의 추숭	175	140	
55	경종비 선의왕후	敬純	1726(英祖 2, 丙午) 10월	왕비→왕대비	183	144	
56		惠敬	1740(英祖 16, 庚申) 7월	김재로 등 신하의 청	188	146	
57		莊愼	1752(英祖 28, 壬申) 5월	명 삼황제 대보단 배향	189	151	
58		康宣	1756(英祖 32, 丙子) 1월	인원왕후 칠순(七旬)	190	148	
59	영조비 정성왕후	恭翼	1772(英祖 48, 壬辰) 11월	영조 79세, 즉위 49년, 정순왕후 책봉 15주년	191	150	
60		仁徽	1776(英祖 52, 丙申) 1월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짊	192	152	
61		昭獻	1784(正朝 8, 甲辰) 9월	세자책봉, 영조 즉위 60주년	194	154	
62		元烈	1890(高宗 27, 庚寅) 1월	영조 묘호 개묘	195	156	
63		睿順	1772(英祖 48, 壬辰) 11월	영조 79세, 즉위 49년, 정순왕후 책봉 15주년	197	158	
64		聖哲	1776(英祖 52, 丙申) 1월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짊	199	159	
65		莊僖	1778(正朝 2, 戊戌) 5월	영조 부모	201	160	
66		惠徽	1783(正朝 7, 癸卯) 3월	문호세자의 탄생	202	161	
67		翼烈	1784(正朝 8, 甲辰) 9월	세자책봉, 영조 즉위 60주년	203	162	
68	영조비 정순왕후	明宣	1787(正朝 11, 丁未) 1월	세손을 보호한 공로	204	155	
69		綏敬	1795(正朝 19, 乙卯) 1월	정순왕후 오순(五旬), 혜빈 육순(六旬)	205	163	
70		대왕대비	1802(純祖 2, 壬戌) 8월	왕대비→대왕대비	206	164	
71		光獻	1804(純祖 4, 甲子) 2월	수렴청정 철수, 정순왕후 육순(六旬)	208	165	
72		隆仁	1805(純祖 5, 乙丑) 3월	정순왕후의 보감을 기념	207	167	
73		正顯	1890(高宗 27, 庚寅) 1월	영조 묘호 개묘	209	168	
76	정조비 효의왕후	왕대비	1802(純祖 2, 壬戌) 8월	왕비→왕대비	231	177	

연번	왕비	왕비 존호	수여 연도	내용	어보	옥책	비고	
77		莊徽	1899(高宗 36, 己亥) 10월	정조 추숭	229	179		
78	순조비 순원왕후	明敬	1827(純祖 27, 丁亥) 9월	왕세손 탄생	234	183		
79		文仁	1837(憲宗 3, 丁酉) 1월	왕대비→대왕대비	235	184		
80		光聖	1841(憲宗 7, 辛丑) 2월	수렴청정한 공과 왕비책봉 40년	237	185		
81		隆禧	1848(憲宗 14, 戊申) 3월	순원왕후 육순(六旬)	238	186		
82		正烈	1851(哲宗 2, 辛亥) 8월	헌종과 효현왕후 부묘	239	187		
84		宣徽	1852(哲宗 3, 壬子) 2월	수렴청정한 공	240	188		
84		英德	1853(哲宗 4, 癸丑) 1월	철종이 종법상의 부인 순조를 현양	241	189		
85		慈獻	1857(哲宗 8, 丁巳) 10월	순종의 묘호를 순조로 개묘	243	191		
86		顯倫	1858(哲宗 9, 戊午) 1월	순원왕후 칠순(七旬)	244	192		
87		洪化	1861(哲宗 12, 辛酉) 1월	순조 원년의 회갑 순원왕후 혼인 60년	245	193		
88		神運	1862(哲宗 13, 壬戌) 1월	순원왕후 책봉 60년	242	194		
89		粹穆	1879(高宗 16, 己卯) 1월	신정왕후 가례 60주년	246	195		
90		문조비 신정왕후	孝裕	1837(憲宗 3, 丁酉) 1월	왕비→왕대비			
91			獻聖	1848(憲宗 14, 戊申) 3월	순원왕후 육순(六旬)		○	
92			宣敬	1851(哲宗 2, 辛亥) 8월	헌종과 효현왕후 부묘		○	
93	正仁		1853(哲宗 4, 癸丑) 10월	선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249			
94	慈惠		1859(哲宗 10, 己未) 10월	순원왕후 부묘례	250	197		
95	弘德		1863(哲宗 14, 癸亥) 12월	은언군의 사실 수정	251	206		
96	純化		1866(高宗 3, 丙寅) 2월	철종 종묘에 부묘	252	198		
97	文光		1866(高宗 3, 丙寅) 4월	신정왕후 수렴청정 철폐, 고종 친정	253	199		
98	元成		1867(高宗 4, 丁卯) 1월	신정왕후 60세	254	201		
99	肅烈		1868(高宗 5, 戊辰) 12월	신정왕후 회갑	255	202		

연번	왕비	왕비 존호	수여 연도	내용	어보	옥책	비고
100		明粹	1869(高宗 6, 己巳) 1월	효명세자 회갑	256	203	
101		協天	1873(高宗 10, 癸酉) 4월	신정왕후 왕비 40주년, 고종 즉위 10년	257	204	
102		隆穆	1875(高宗 12, 乙亥) 12월	신정왕후 68세, 익종 세실 지정	258	205	
103		壽寧	1877(高宗 14, 丁丑) 1월	신정왕후 70세	260	207	
104		禧康	1878(高宗 15, 戊寅) 1월	신정왕후 71세(망팔)	259	208	
105		顯定	1879(高宗 16, 己卯) 1월	신정왕후 가례 60주년	261	209	
106		徽安	1883(高宗 20, 癸未) 1월	신정왕후 국모 50주년	262	210	
107		欽倫	1886(高宗 23, 丙戌) 1월	신정왕후 79세	263	211	
108		洪慶	1887(高宗 24, 丁亥) 1월	신정왕후 80세	264	212	
109		泰運	1888(高宗 25, 戊子) 1월	신정왕후 81세	265	213	
110		昌福	1888(高宗 25, 戊子) 3월	고종 즉위 25주년, 세자 순종의 요청	266	214	
111		熙祥	1890(高宗 27, 庚寅) 2월	명성왕후 40세	267	216	
112		翼謨	1890(高宗 27, 庚寅) 12월	신정왕후 탄일 추모	268	217	
113		睿憲敦章	1892(高宗 29, 壬辰) 7월	고종 즉위 30년	269	218	
114		懿謨	1899(高宗 36, 己亥) 11월	翼謨를懿謨로 수정		200	
115	啓社	1902(高宗 39, 壬寅) 1월	고종 즉위 40년, 고종의 망육(望六)	270	220		
116	헌종비 효현왕후	端聖	1853(哲宗 4, 癸丑) 10월	선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276	224	
117		粹元	1866(高宗 3, 丙寅) 4월	신정왕후 수렴청정 철폐, 고종 친정	277	225	
118	헌종비 효정왕후	明憲	1851(哲宗 2, 辛亥) 8월	헌종과 효현왕후 부묘		○	
119		淑敬	1853(哲宗 4, 癸丑) 10월	선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279		
120		睿仁	1859(哲宗 10, 己未) 10월	순원왕후 부묘례	281	227	
121		正穆	1863(哲宗 14, 癸亥) 12월	은언군의 사실 수정	282	228	
122		弘聖	1866(高宗 3, 丙寅) 2월	철종 종묘에 부묘	283	230	

연번	왕비	왕비 존호	수여 연도	내용	어보	옥책	비고	
123		章純	1866(高宗 3, 丙寅) 4월	신정왕후 수렴청정 철거, 고종 친정	284	229		
124		貞徽	1873(高宗 10, 癸酉) 4월	신정왕후 왕비 40주년, 고종 즉위 10년	285	231		
125		莊昭	1888(高宗 25, 戊子) 3월	고종 즉위 25주년, 세자 순종의 요청	286	232		
126		端禧	1890(高宗 27, 庚寅) 1월	영조 묘호 개묘	287	234		
127		粹顯	1890(高宗 27, 庚寅) 2월	명성왕후 40세	288			
128		懿獻	1892(高宗 29, 壬辰) 7월	고종 즉위 30년	289	235		
129		康綏	1900(高宗 37, 庚子) 1월	효정왕후 칠순(七旬)	290	236		
130		裕寧	1902(高宗 39, 壬寅) 1월	고종 즉위 40년, 고종의 망육(望六)	291	237		
131		철종비 철인왕후	明純	1863(哲宗 14, 癸亥) 6월	이십일사약편 왕실 중계 수정	293	240	
132			徽聖	1866(高宗 3, 丙寅) 2월	철종 종묘에 부묘	295	241	
133	正元		1866(高宗 3, 丙寅) 4월	신정왕후 수렴청정 철거, 고종 친정	296	234		
134	粹寧		1873(高宗 10, 癸酉) 4월	신정왕후 왕비 40주년, 고종 즉위 10년	297	243		
135	고종비 명성왕후	孝慈	1873(高宗 10, 癸酉) 4월	신정왕후 왕비 40주년, 고종 즉위 10년	301	246		
136		元聖	1888(高宗 25, 戊子) 3월	고종 즉위 25주년, 세자 순종의 요청	302	247		
137		正化	1890(高宗 27, 庚寅) 2월	명성왕후 40세	303	248		
138		合天	1892(高宗 29, 壬辰) 7월	고종 즉위 30년	304	249		
139		洪功	1900(高宗 37, 庚子) 1월	효정왕후 칠순(七旬)	305	251		
140		誠德	1902(高宗 39, 壬寅) 1월	고종 즉위 40년, 고종의 망육(望六)	306	252		

<표>를 통해 왕비 존호를 살펴보면 대체로 존호의 글자 수는 2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조비 정희왕후, 문조비 신정왕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sup>49)</sup>

1469년(예종 1) 2월에 세조비 정희왕후에게 올린 존호를 보면 ‘흙인 경덕 선렬

49) 실제로는 1505년(연산군 11) 연산군 폐비신씨에게 올린 존호가 ‘齊仁元德’이란 4글자의 존호가 있다. 그러나 연산군과 광해군은 폐위되었기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명순 원숙(欽仁 景德 宣烈 明順 元淑)’이라는 10글자를 올렸다. 그리고 그해 9월 ‘휘신혜의(徽愼惠懿)’라는 4글자의 존호를<sup>50)</sup> 더 올렸다. 이미 세조 3년(1457)에 올린 ‘자성(慈聖)’, 성종 1년(1470)에 ‘신헌(新憲)’이란 존호를 올려 모두 18자의 존호가 올려졌다. 또한 1892년(고종 29) 문조비 신정왕후 조씨에게 ‘예헌돈장(睿憲敦章)’이라는 4글자의 존호를 올린 사례가 있다.

문조비 신정왕후에게 ‘예헌돈장(睿憲敦章)’을 올리던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예조 당상(禮曹堂上), 관각(館閣)의 당상(堂上), 삼사(三司)의 장관(長官)을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종묘(宗廟)에 존호(尊號)를 추상하여 선양하려는 의식을 거행하려고 하니, 슬프고 사모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요즈음 우리 왕조에서 존호를 올린 전례를 상고하여 보니, 대왕(大王)에게는 여덟 글자, 왕후(王后)에게는 두 글자로 하여 원래 일정한 규례가 없었다. 옛날 정희왕후(貞熹王后)에게 존호를 더하여 올릴 때에는 혹은 열 자, 혹은 네 자인 때도 있었으며 명(明) 나라 옛 관례에도 인용할 만한 전례가 있었다. 생각건대, 우리 돌아가신 왕후의 공덕을 어떻게 그 만분의 일인이라도 그려낼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나의 심정은 비록 날마다 존호를 올리더라도 날이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나타내는 때를 만났고 또한 인용할 만한 훌륭한 전거가 있으니, 이번에 신정왕후(神貞王后)에게 올리는 존호는 네 글자를 의논하여 결정하려고 한다.”<sup>51)</sup>

(중략)

김홍집(金弘集)이 아뢰기를, “정희 왕후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할 때를 상고할 것 같으면 네 글자의 존호를 올리는 것은 실로 우리 왕조에서 한 번 있는 예식입니다. 명나라 영종(英宗)이 태후(太后)에게 처음으로 네 글자의 존호를 올렸으나 이것도 정상적으로 거행하는 규례는 아니고, 무종(武宗) 때 태황태후(太皇太后)의 호(號)를 네 글자로 올린 것도 평소 거행하던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끝없는 효성으로 선대 임금의 법을 본받아 존호를 올리는 의식을 거행하고자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오직 우러러 경모할 뿐입니다.”<sup>52)</sup>

(중략)

하교하기를, “정희 왕후에게 네 글자의 존호를 올린 것은 수렴(垂簾)한 후에 있는 일이고, 명나라의 의식 절차는 대궐 안에서도 이미 상고하여 보았다.”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이것은 진실로 비상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정희왕후 이후에는 다시 더 시행한 적이 없었고 명나라 300년 동안에도 단지 두 번 있었을 뿐입니다. 송(宋) 나라 제도에서 황후에게는 모두 두 글자의 시호(諡號)를 올렸는데 오직 장헌 명숙황후(章獻 明肅皇后)만은 황제의 일을 대행하였기 때문에 네 글자의 시호를 올렸다고 하였으니, 마침내 이를 규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sup>53)</sup>

(『조선왕조실록』 고종 29년 6월 24일)

50) 예종실록 7권, 1년(1469) 9월 16일(병신) 上尊號曰, ‘太妃慈聖欽仁景行宣烈明順元淑徽愼惠懿殿下.’

51) 二十四日。 召見時原任大臣、禮堂、館閣堂上、三司長官。 教曰: “太室將行追闡之禮, 采切愴慕之忱。 近考國朝尊號, 大王八字, 王后二字, 原無一定之規。 在昔貞熹王后加上尊號, 或以十字, 或以四字, 而皇明故事, 亦有可援之例矣。 惟我先聖母之功之德, 何能摹畫萬一? 而在予情事, 雖日日進號, 惟日不足。 當此顯揚徽烈之會, 亦可以援據懿典, 今番神貞王后追上尊號, 欲以四字議定矣。”

52) 弘集曰: “若稽貞熹王后垂簾時, 加上四字號, 此實國朝一有之禮也。 皇明 英宗, 始上四字尊號於太后, 武宗時, 上太皇太后號四字, 亦非常行之典也。 今我聖上, 以無窮之孝思, 乃欲監先憲而舉隆典, 承聆之下, 惟有欽仰而已。”

53) 教曰: “貞熹王后四字尊號, 果在垂簾後, 而皇明典禮, 自內亦已考覽矣。” 弘集曰: “此, 誠非常之禮。 故貞熹王后以後, 更未行之。 明朝三百年, 亦只再見而已。 至若宋朝之制, 皇后皆二字諡, 惟章獻明肅皇后, 以稱制加爲四字云。 其非遂以爲例, 可知也。” 教曰: “誠然矣。 貞熹王后晚年加上, 還爲二字矣。”

고종과 대신들의 논의 내용으로 보아 존호를 올리는데 일정한 규칙은 없으나, 대체로 2글자를 올렸고 4글자를 올리는 사례가 거의 없으나, 정해진 규칙은 없기 때문에 4글자 존호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사왕(嗣王)이 국왕의 자리에 오르면 선왕대(先王代)의 왕대비와 왕비를 대왕대비와 왕대비로 진봉(進封)하는 존숭의례를 거행하게 된다. 존숭의례는 선왕의 상기(喪期)를 마치고 혼전(魂殿)에 모셔져 있던 선왕의 신위를 옮겨 종묘에 부묘(祔廟)한 후에 존호를 올리면서 거행하였다.

### ③ 황제 및 황후 추존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태조를 비롯한 직계와 방계의 추존이 이루어졌다. 1899년(광무 3)과 1908년(융희 2) 총 2회 이루어졌다.

<표> 1899년(고종 36) 12월 7일에 올린 추존 사례

연번	구분	묘호망단자(廟號望單子)	제호망단자(帝號望單子)	어보	옥책	비고
1	태조	‘태조(太祖)’ 【천대(千代)에 빛을 뿌린 것을 태(太)라 한다.】	‘고황제(高皇帝)’ 【기강을 만들고 표준을 세운 것을 고(高)라 한다.】	○	3	
2	신의왕후		‘고황후(高皇后)’	105	85	
3	신덕왕후		‘고황후(高皇后)’	108	87	
4	장조	‘장조(莊祖)’ 【덕이 훌륭하고 예절이 공손한 것을 장(莊)이라 한다.】	‘의황제(懿皇帝)’ 【성스럽고 신성하며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의(懿)라고 한다.】	45	38	
5	헌경왕후		‘의황후(懿皇后)’	216	175	
6	정조	‘정조(正祖)’ 【안팎이 복종하는 것을 정(正)이라고 한다.】	‘선황제(宣皇帝)’ 【정사와 교화를 널리 편 것을 선(宣)이라고 한다.】	54	41	
7	효의왕후		‘선황후(宣皇后)’	226	180	
8	순조	‘순조(純祖)’ 【덕과 업적이 순수하게 갖추어진 것을 순(純)이라고 한다.】	‘숙황제(肅皇帝)’	58	52	
9	순원왕후		‘숙황후(肅皇后)’	232	196	
10	문조	‘문조(文祖)’ 【친지를 경륜하고 다스린 것을 문(文)이라고 한다.】	‘익황제(翼皇帝)’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사를 잘한 것을 익(翼)이라고 한다.】	70	65	
11	신정왕후		‘익황후(翼皇后)’	247	219	



<표> 1908년(융희 2) 5월 11일(양력)에 올린 추존 사례

연번	구분	제호망단자(帝號望單子)	어보	옥책	비고
1	진종	‘소황제(昭皇帝) : 아름다운 명망이 차 넘침을 ‘소(昭)’라고 한다.	44	34	
2	효순황후	‘소황후(昭皇后)’	210	170	
3	헌종	‘성황제(成皇帝) : 예법과 음악을 밝게 겸비함을 뜻해서 ‘성(成)’이라고 한다.	87	71	
4	효현황후	‘성황후(成皇后)’	271	226	
5	효정황후	‘성황후(成皇后)’	272	239	
6	철종	‘장황제(章皇帝) : 법도에 크게 밝음을 ‘장(章)’이라고 한다.	92	75	
7	철인황후	‘장황후(章皇后)’	292	중박	

고종 때 추존한 왕과 왕비는 조선을 세운 태조와 고종의 직계(直系)인 장조, 정조, 순조, 문조이고, 순종 때 추존한 왕과 왕비는 진종, 헌종, 철종으로 순종의 방계(傍系)이다. 이때 황제(皇帝)와 황후(皇后)로 추존하면서 만든 어보는 모두 옥보이고 누는 용뉴이다.

#### ④ 왕세자 및 왕세자빈 존호

존호를 받는 대상은 주로 왕과 왕실의 어른들이었다. 일반적으로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는 존호를 올리지 않았으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

진종비 효순황후 조씨는 1727년(영조 3) 효장세자의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으나, 효장세자 사망 후 1735년(영조 11) 현빈(賢嬪)이라는 빈호(嬪號)와 ‘현빈지인(賢嬪之印)’이 새겨진 옥인 귀뉴의 어보를 받았다.

장조(莊祖)는 1736년(영조 12)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1762년(영조 38) 왕세자가 사망하자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렸다.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20일 사도세자의 시호를 추숭하여 ‘장헌(莊獻)’이라 하였다. 정조는 이어 1783년(정조 7) 4월 1일 맏아들(문효세자)의 탄생으로 인해 후계자가 정해졌으므로 조상을 추모하는 존호를 올리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장조에게 ‘수덕돈경(綏德敦慶)’이라는 존호를 올리고, 1784년(정조 8) 9월 17일 영조가 즉위한 지 6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홍인경지(弘仁景祉)’라는 존호를 추상하였다. 1795년(정조 19) 정순황후 오순과 혜빈의 옥순을 기념하기 위하여 ‘장륜릉범 기명창휴(章倫隆範 基命彰休)’라는 존호를 추상하였고, 1855년(철종 6)에는 장조와 헌경황후 탄생 2주갑(120년)을 기념하기 위해 ‘찬원헌성 계상현희(贊元憲誠 啓祥顯熙)’라는 존호를 추상하였다.

헌경황후 홍씨는 1744년(영조 20년) 왕세자빈에 책봉되었다. 1762년(영조 38) 왕세자가 사망하자 ‘혜빈(惠嬪)’이라는 빈호(嬪號)를 내린다.

관련 기록으로 『조선왕조실록』 영조 38년 사도세자께서 홍서하고 “이제 이미 처분하였은즉 빈궁(嬪宮)은 효순(孝純)과 같으니, 구인(舊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혜빈(惠嬪)이란 호를 내려 일체로 옥인(玉印)을 내리고, 조정은 정후(庭候)하라.”<sup>54)</sup>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1776년(정조 즉위년) 사도세자에게 '장헌(莊獻)'이라는 시호를 올리며, 혜빈(惠嬪) 홍씨 역시 '혜경궁(惠慶宮)'으로 궁호가 높아졌다. 1778년(정조 2)에 정순왕후가 병을 앓다가 건강을 회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혜경궁에게도 '효강(孝康)'이라는 존호를 올렸고, 1783년(정조 7) 정조는 문효세자의 탄생으로 인해 후계자가 정해졌으므로 조상을 추모하는 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희(慈禧)'라는 존호를 올렸다. 1784년(정조 8) 영조가 즉위한 지 6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선(貞宣)'이란 존호를 올렸고, 1795년(정조 19)에는 혜빈의 육순을 기념하여 '휘목(徽穆)'이란 존호를 올렸다. 1855년(철종 6) 11월 6일 장조와 혜빈(惠嬪)의 탄생 2주갑(120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정(裕靖)'이라는 존호가 추상하였다.

<표> 왕세자 및 왕세자빈 존호 어보

연번	세자 및 세자빈	존호	수여 연도	내용	어보	어책	비고
1	효순왕후 조씨	賢嬪	1735(영조 11, 乙卯) 3월 16일	빈호	212	× <sup>55)</sup>	옥인귀뉴
2	장헌세자	綏德敦慶	1783(정조 7, 癸卯) 4월 1일	문효세자 탄생	51	죽책268	옥인귀뉴
3	장헌세자	弘仁景祉	1784(정조 8, 甲辰) 9월 18일	영조 즉위 60주년	52	죽책269	옥인귀뉴
4	장헌세자	章倫隆範 基命彰休	1795(정조 19, 乙卯) 1월 17일	정순왕후 오순, 혜빈 육순	47	옥책35	금인귀뉴
5	장헌세자	贊元憲誠 啓祥顯熙	1855(철종 6, 乙卯) 1월 21일	장조와 혜빈 탄생 2주갑(120년)	53	옥책36	금인귀뉴
6	혜빈홍씨	惠嬪	1762(英祖 38, 壬午) 윤5월 21일	왕세자에게 '사도(思悼)' 시호 내리면서	218	죽책 ×	옥인귀뉴
7	혜빈홍씨	孝康	1778(정조 2, 戊戌) 5월 6일	정순왕후 건강을 회복 축하	220	죽책287	옥인귀뉴
8	혜빈홍씨	慈禧	1783(정조 7, 癸卯) 4월 1일	문효세자 탄생	222	죽책288	옥인귀뉴
9	혜빈홍씨	貞宣	1784(정조 8, 甲辰) 9월 18일	영조 즉위 60주년	223	죽책289	옥인귀뉴
10	혜빈홍씨	徽穆	1795년(정조 19, 乙卯) 1월	혜빈 육순(六旬)	224	죽책○ 옥책171	
11	혜빈홍씨	裕靖	1855년(철종 6, 乙卯) 11월 6일	장조와 혜빈 탄생 2주갑(120년)	225	옥책173	

54) 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1762) 윤5월 21일(계미) "今既處分, 嬪宮與孝純一也, 不可用舊印. 賜其號曰惠嬪, 一體賜玉印, 朝廷庭候."

55)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1735) 3월 16일(병술) 造進玉印, 自內宣賜, 無敎命竹冊文.

#### 다. 시호 어보

시호(諡號)는 인물의 사후에 올리는 특별한 존칭으로 시호를 받는 대상은 황제, 제후, 왕 등의 군주와 그 조상 및 부인, 왕세자 및 왕세자빈, 공신, 고급 관료, 기타 국가적으로 명망을 쌓은 저명한 인물이다. 이번 항목에서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① 왕 시호

왕 시호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본조(本朝)에서 묘호와 함께 올리는 8글자의 시호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 황제로부터 받는 2글자의 사시(賜諡)가 있다.

<표> 왕 시호 어보

연번	왕	시호	수여 연도	어보	육책	비고
1	목조	人文聖穆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1		
2	도조	康惠聖翼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2		
3	익조	恭毅聖度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3		
4	환조	淵武聖桓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4		
5	태조	至仁啓運 聖文神武	1408(태종 8, 戊子) 9월 4일	-	○	금보용뉴
6	태조	正義光德	1683(숙종 9, 癸亥) 6월 12일	5	1	
7	정종	溫仁恭勇順孝	1419(세종 1, 己亥) 12월 24일	-	○	
8	정종	懿文莊武	1681(숙종 7, 辛酉) 12월 7일	7	4	懿文莊武 溫仁順孝
9	태종	聖德神功 文武光孝	1422(세종 4, 壬寅) 9월 2일	-	○	금보용뉴
10	태종	睿哲成烈	1683(숙종 9, 癸亥) 6월 12일	-	5	금보귀뉴
11	세종	英文睿武 仁聖明孝	1450(문종 즉위, 庚午) 5월 21일	8	○	
12	문종	欽明仁肅 光文聖孝	1452(단종 즉위, 壬申) 8월 21일	9	○	
13	단종	純定安莊 景順敦孝	1698(숙종 24, 戊寅) 12월 25일	중박	7	
14	세조	至德隆功 聖神明睿 欽肅仁孝	1468(예종 즉위, 戊子) 11월 21일	-	○	금보귀뉴
15	덕종	懷簡宣肅 恭賢溫文	1476(성종 7, 丙申) 1월 18일	-	○	금보귀뉴
16	예종	欽文聖武 懿仁昭孝	1470(성종 1, 庚寅) 1월 26일	10	○	
17	성종	仁文憲武 欽聖恭孝	1495(연산 1, 乙卯) 3월 26일	12	○	
18	중종	徽文昭武 欽仁誠孝	1545(인종 1, 乙巳) 윤1월 19일	13	○	

연번	왕	시호	수여 연도	어보	옥책	비고
19	인종	獻文懿武 章肅欽孝	1545(명종 즉위, 乙巳) 9월 12일	14	8	
20	명종	獻毅昭文 光肅敬孝	1567(선조 즉위, 丁卯) 11월	15		
21	선조	顯文毅武 聖睿達孝	1608(광해 즉위, 戊申) 6월 4일	17	○	
22	원종	敬德仁憲 靖穆章孝	1632(인조 10, 壬申) 5월 2일	19	○	
23	인조	憲文烈武 明肅純孝	1649(효종 즉위, 己丑) 9월 4일	20	10	
24	효종	宣文章武 神聖顯仁	1659(현종 즉위, 己亥) 10월 26일	-	13	금보귀뉴
25	현종	純文肅武 敬仁彰孝	1674(숙종 즉위, 甲寅) 12월 9일	-	16	금보귀뉴
26	숙종	章文憲武 敬明元孝	1720(경종 즉위, 庚子) 10월 16일	24	19	
27	경종	德文翼武 純仁宣孝	1724(영조 즉위, 甲辰) 12월 13일	28	23	
28	영조	翼文宣武 熙敬顯孝	1776(정조 즉위, 丙申) 7월 20일	31	28	
29	영조	正文宣武 熙敬顯孝	1890(고종 27, 庚寅) 1월 4일	32	31	翼文→正文
30	진종	濫良睿明 哲文孝章	1776(정조 즉위, 丙申) 8월 12일	43	33	
31	장조	新文桓武 莊獻廣孝	1899(광무 3, 己亥) 10월 10일	46	37	
32	정조	文成武烈 聖仁莊孝	1800(순조 즉위, 庚申) 10월 18일	55	39	
33	순조	文安武靖 憲敬成孝	1835(헌종 1, 乙未) 3월 13일	60	44	
34	순조	文安武靖 英敬成孝	1857(철종 8, 丁巳) 10월 26일	61	43	憲敬→英敬
35	문조	敦文顯武 仁懿孝明	1835(헌종 1, 乙未) 5월 19일	71	53	
36	헌종	經文緯武 明仁哲孝	1849(철종 즉위, 己酉) 10월 3일	88	68	
37	철종	文顯武成 獻仁英孝	1864(고종 1, 甲子) 3월 13일	94	73	
38	고종	文憲武章 仁翼貞孝	1919년 己未 1월 27일(양2.27)	96	83	옥보귀뉴
39	순종	文濫武寧 敦仁誠敬	1926년 丙寅 4월 20일(양5.31)	101	84	옥보귀뉴

<표>에서 보듯 시호는 묘호와 함께 8글자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묘호와 같이 표기되지 않고 시호만 올려진 것은 대개 추상시호이다. 상시호는 처음 올리는 것이고 추상시호는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역대 왕들에게 시호를 올리고 제작된 어보는 모두 39과인데 지정대상 어보는 31과이다. 모두 금보이다. 그러나 고종과 순종에게 시호를 올리고 만든 어보는 옥보이다. 대한제국이후에 만든 것이다.<sup>56)</sup> 시호보의 형식은 왕의 경우는 묘호(2字)+

56) 고종의 시호를 새긴 어보(유물번호 96번)는 1919년, 순종의 시호를 새긴 어보(유물번호 101번)는 1926년에 만들

시호(8字)+대왕지보이다.

시호는 사후에 받는 것이다. 태조가 상왕으로 계실 때 정종 2년(1400)에 ‘계운신무(啓運神武)’<sup>57)</sup>라는 존호를 받았고, 승하하고 나서 태종 8년(1408)에는 ‘지인계운성문신무(至仁啓運 聖文神武)’라는 시호를 받았다. 정종 2년에 받은 ‘계운신무’는 존호이고, 이번에 올리는 ‘성문신무’라는 시호를 합하여 ‘지인계운성문신무’라는 존시(尊諡)를 받았다.<sup>58)</sup>

태조에게는 태종 8년(1408)에 올린 ‘성문신무(聖文神武)’라는 시호가 있음에도 ‘정의광덕(正義光德)’이라는 시호를 올렸다. 그리고 태종에게는 ‘예철성열(睿哲成烈)’이라는 시호를 함께 올렸다.<sup>59)</sup>

그런데 태조의 시호를 사후 200여 년이 지난 숙종 대에 추가로 올린 데에는 두 가지 명분이 있었다. 첫째, 시호의 글자 수가 후대 왕들보다 적다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선왕의 시호는 일반적으로 8자였는데, 태조는 생시에 받은 존호 ‘계운신무(啓運神武)’를 제외하면 4자의 시호를 받았고, 시호와 존호를 합쳐 8자인 ‘지인계운성문신무(至仁啓運 聖文神武)’인데 비해 후손인 세조와 선조의 경우 각각 20자와 24자나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후손이 선조보다 더 존귀함을 받는 형국이었다. 둘째, 태조의 위화도 회군의 공적을 담은 시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세채(朴世采) 등은 반대하였는데, 송시열(宋時烈)은 위화도 회군은 『춘추(春秋)』 대의(大義)에 부합한 의거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숙종은 송시열의 건의를 받아들여 태조의 기존 시호에 ‘정의광덕(正義光德)’이란 시호를 추가로 올렸는데, 이때 태조뿐 아니라 태종에게도 ‘예철성열(睿哲成烈)’이라는 시호를 더하였다.

태종에 대해서는 한(漢)나라 문제(文帝)와 당(唐)나라 태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민심이 태종에게 기울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종으로부터 선양 받은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호를 더하여 올린 것이다.

정종에게는 세종 1년(1419)에 ‘온인공용순효(溫仁恭勇順孝)’라는 6글자의 시호를 올린 예가 있는데, 숙종 9년(1683)에 ‘의문장무(懿文莊武)’라는 시호를 올렸다.<sup>60)</sup>

시호는 8글자를 쓴다는 것이 원칙이나, 정종의 시호만이 4글자로 올려 잘못된 전례라 하여 4자를 더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 하여 숙종 7년(1681)에 ‘의문장무(懿文莊武)’라는 시호 4자를 더 올렸다.

57)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1400) 7월 2일(음축) 奉玉冊金寶, 上尊號曰啓運神武太上王

58) 숙종 14권, 9년(1683) 3월 25일(정묘)에 “역대(歷代)의 고사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휘호(徽號)의 글자수가 많고 적은 것은 공덕(功德)의 높고 낮은 것이나 할아버지와 손자의 높고 낮은 것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태조(太祖)께서는 상황(上皇)이 되셨던 날에 이미 계운신무(啓運神武)라는 존호(尊號)를 받으셨으며, 승하(昇遐)함에 이르러서는 또 지인성문(至仁聖文)이란 시호(諡號)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비록 다시 추가하여 올린다 하더라도 그의 성열(盛烈)을 유양(揄揚)하는 것에는 더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以歷代故事觀之, 徽號字數之多少, 似無關於功德之高下、祖孫之尊屈。況太祖爲上皇之日, 已受啓運神武之尊號, 及至昇遐, 又上至仁聖文之諡, 則到今雖復追上, 其所以揄揚盛烈, 蔑以加矣。

59) 숙종 14권, 9년(1683) 6월 12일(계미) 太宗曰恭定聖德神功文武睿哲成烈光孝大王。

60) 숙종 12권, 7년(1681) 신유) 12월 7일(병술) 加上諡號曰懿文莊武。

“공정 대왕의 묘호(廟號)를 신들이 2품(品) 이상의 관각당상(館閣堂上)과 일제히 모여 삼가 이렇게 협의 결정하여 들여보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열성(列聖)의 시호(諡號)는 모두 8자(字)를 썼는데 유독 공정 대왕에게만 ‘온인순효(溫仁順孝)’ 4자(字)만을 올려 잘못된 전례가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묘호를 추가하여 올리는 때를 당하여 시호(諡號)를 더 올리는 것이 진실로 전례(典禮)에 합당합니다.”하니, 임금이 답(答)하기를, “4자(字)를 더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하므로, 마침내 4자(字)를 의논하여 올렸다.<sup>61)</sup>

한편 공정대왕(恭靖大王)은 묘호(廟號)도 없었다. 숙종 때 비로소 ‘정종(定宗)’이라는 묘호와 ‘의문장무(懿文莊武)’라는 시호를 추가로 올린 것이다. 그리고 열성(列聖)의 시호는 모두 8자(字)를 썼는데 유독 공정대왕에게만 ‘온인순효(溫仁順孝)’ 4자만을 올려 잘못된 전례가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의문장무’라는 시호를 추가로 올렸다.

선조의 처음 시호는 ‘소문의무 성경달효(昭文毅武 聖敬達孝)’라고 받았다.<sup>62)</sup> 그런데 같은 해 6월 4일 앞의 ‘소문(昭文)’ 두 글자가 명종의 시호 ‘현의소문 광숙경효(獻毅昭文 光肅敬孝)’와 같다고 하여 소문은 ‘현문(顯文)’으로 고치고, 또한 중국으로부터 사시(賜諡)한 호가 ‘소경(昭敬)’으로 ‘성경(聖敬)’의 ‘경(敬)’자가 중첩되기 때문에 이 자(字)를 ‘예(睿)’자로 고쳐 시보의 보문을 ‘현문의무 성예달효 대왕(顯文毅武 聖睿達孝 大王)’이라고 바꾸었다.<sup>63)</sup>

영조의 묘호는 애초 ‘영종(英宗)’이었는데 고종 때 ‘영조(英祖)’로 개묘하였다. 아울러 정조 때 올린 ‘익문선무 희경현효(翼文宣武 熙敬顯孝)’의 시호를 ‘정문선무 희경현효(正文宣武 熙敬顯孝)’로 고쳐 올렸다.

진종은 1729년(영조 5)에 사망하자 ‘효장(孝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후 영조의 유지(遺旨)에 따라 효장세자(孝章世子)를 진종(眞宗)으로 추숭하고, 진종의 시호를 ‘온량예명 철문효장(溫良睿明 哲文孝章)’이라 하였다.

장조(莊祖)는 영조의 둘째 서자로 효장세자의 이복동생이며 정조의 생부이다. 흔히 사도세자(思悼世子) 또는 장헌세자(莊獻世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영조 38년(1762) 뒤주에서 아사한 후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1776년(정조 1) 정조로부터 ‘장헌(莊獻)’이라는 시호를 또 받았다. 이후 1899년(광무 3)에 고종이 ‘장종(莊宗)’이란 묘호와 함께 ‘신문환무 장헌광효(神文桓武 莊獻廣孝)’라는 시호를 추가로 올렸다. 이는 고종 황제가 장조를 왕으로 추숭하려 했던 정조의 소망을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

순조(純祖)의 시호는 묘호를 순종(純宗)에서 순조(純祖)으로 개묘할 때 ‘문안무정

61) 숙종 12권, 숙종 7년(1681) 9월 18일(정묘) “恭靖大王廟號, 臣等與二品以上、館閣堂上齊會, 謹此議定以入。而第念, 列聖諡號, 皆用八字, 而獨於恭靖大王只上溫仁順孝四字, 未免爲欠闕之典。今當追上廟號之日, 加上諡號, 允合典禮。” 上答曰: “加上四字宜矣。” 遂議進四字。

62) 광해군일기[중초본] 1권, 광해 즉위년(1608) 2월 25일(임오) 上大行大王徽號曰“昭文毅武聖敬達孝大王”

63) 宣宗大王上諡初以聖敬達孝及皇朝賜諡而昭敬則以諡號中敬字重疊爲未安而改敬爲睿故諡寶玉冊皆改造而寶則全改鑄。

헌경성호(文安武靖 憲敬成孝)에서 ‘문안무정 영경성호(文安武靖 英敬成孝)’로 바꾸었다. 시호 중 헌경(憲敬)을 영경(英敬)으로 바꾼 것이다.

문조는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서 태어나 1812년(순조 12)에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불행히도 1830년(순조 30)에 사망하여 ‘효명(孝明)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후 아들인 헌종이 순조의 왕위를 계승하면서 왕으로 추승되었다. 추승묘호(追崇廟號)는 ‘익종(翼宗)’, 시호(諡號)는 ‘돈문현무 인의효명(敦文顯武 仁懿孝明)’으로 정하였다. 익종이라는 묘호는 1899년(광무 3) 문조로 바뀌었다.

한편 왕이 승하하면 중국으로부터 2글자의 시호를 받는다. 왕이 승하한 후에 신하들이 의논하여 세 가지 안을 올려 중국 황제로부터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정해 내려받는 것이다. 27대 왕 중 단종과 고종과 순종, 그리고 폐위된 광해군과 연산군, 추존왕 중 장조를 제외하고 모두 26명이 중국으로부터 시호를 받았다. 이 중 중국으로부터 받은 시호를 새긴 어보는 7과(顆)인데, 전해지는 어보는 태조·정종·선조 어보 등 4과이다.

<중국으로부터 받은 시호를 새긴 어보>

연번	왕	보문	수여 연도	어보	옥책	비고
1	太祖	康獻 至仁啓運 聖文神武 正義光德 大王之寶	1683(숙종 9)	5		금보귀뉴
2	太祖	康獻 至仁啓運 應天肇統 廣勳永命 聖文神武 正義光德 大王之寶	1872(고종 9)	6		금보귀뉴
3	定宗	恭靖 懿文莊武 溫仁順孝 大王之寶	1681(숙종 7)	7		금보귀뉴
4	太宗	恭定 聖德神功 文武睿哲 成烈光孝 大王之寶	1683(숙종 9)	-		금보귀뉴
5	太宗	恭定 聖德神功 建天體極 大正啓佑 文武睿哲 成烈光孝 大王之寶	1872(고종 9)	-		금보귀뉴
6	德宗	懷簡 宣肅恭顯 溫文懿敬 文王之寶	1476(성종 7)	-		금보귀뉴
7	宣祖	昭敬 正倫立極 盛德洪烈 至誠大義 格天熙運 景命神曆 弘功隆業 顯文毅武 聖睿達孝 大王之寶	1892(고종 29)	18		금보귀뉴

태조는 중국으로부터 1408년(태종 8)에 ‘강헌(康獻)’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1683년(숙종 9)에 만든 금보에 시호를 새겼다. 정종은 1401년(태종 1) ‘공정(恭靖)’이라는 시호를 받아 1681년(숙종 7)에 새겼다. 태종은 1423년(세종 5) ‘공정(恭定)’이라는 시호를 받아 1683년(숙종 9)과 1872년(고종 9) 어보에 새겼다. 그러나 2과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덕종은 1475년(성종 6) ‘회간(懷簡)’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1476년(성종 7)에 만든 금보에 새겨졌는데 전해지지 않는다. 선조는 1608년(선조 41)에 ‘소경(昭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 시호를 넣어 새긴 어보는 1892년(고종 29)이었다. 추상존호인 ‘경명신력 홍공용업(景命神曆 弘功隆業)’을 올리면서 제작한 것이다.

조선 말기에 제작된 어보에 중국으로부터 받은 ‘소경(昭敬)’이라는 시호를 새겼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태조부터 추존왕인 원종까지는 명나라로부터 시호를 받았고 인조부터 철종까지는 청나라로부터 시호를 받았으나, 대체로 병자호란 뒤 정으로부터 받은 시호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조선 후기 이후에도 숭명(崇明)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묘비명을 들 수 있으나 어보와 같은 다른 기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② 왕비 시호

왕비의 시호는 왕의 묘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묘호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불리는 명칭으로 세종이나 영조·정조 등의 명칭이다. 왕비 역시 가장 많이 불리는 것이 시호인 것이다.

왕비에게 시호를 올리는 경우 부묘 전과 부묘 시로 구분할 수 있다. 부묘 전에는 시호(2字)+왕후지보(王后之寶)이고, 부묘 시에는 휘호(4字)+시호(2字)+왕후지보(王后之寶)라고 하면 된다. 부묘시에는 휘호 4자를 더 올리면 된다.

왕비의 시호를 새긴 어보는 모두 31과이다. 30과가 금보이고, 3과가 옥보이다. 추존왕인 원종비 인현왕후 구씨의 시호를 새긴 것이 옥보(유물번호 139번)이다. 그리고 명성황후(유물번호 298번)와 순명효황후(유물번호 307번)의 것이 옥보인데, 이것은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시대의 격식과는 다르다. 손잡이 형식은 모두 귀뉴이다. 대표적인 왕비 시호를 새긴 어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왕비 시호 어보

연번	왕후	보문	수여 연도	어보	옥책	비고
1	효공왕후 이씨	孝恭 王后之寶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103		금보귀뉴
2	정숙왕후 최씨	貞淑 王后之寶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104		금보귀뉴
3	경순왕후 박씨	敬順 王后之寶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105		금보귀뉴
4	의혜왕후 최씨	懿惠 王后之寶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106		금보귀뉴
5	원경왕후 민씨	元敬 王后之印	1420(세종 2, 庚子) 9월 14일	고대	○	금보귀뉴
6	소헌왕후 심씨	昭憲 王后之寶	1446(세종 28, 丙寅) 6월 23일	110	○	금보귀뉴
7	정순왕후 송씨	端良齊敬 定順 王后之寶	1698(숙종 24, 戊寅) 12월 25일	중박	89	금보귀뉴
8	안순왕후 한씨	安順 王后之寶	1499(연산 5, 己未) 1월	117		금보귀뉴
9	공혜왕후 한씨	恭惠 王后之寶	1474(성종 5, 甲午) 5월 22일	119	○	금보귀뉴
10	정현왕후 윤씨	貞顯 王后之寶	1530(중종 25, 庚寅) 10월 23일	120	○	금보귀뉴



연번	왕후	보문	수여 연도	어보	옥책	비고
11	단경왕후 신씨	恭昭順烈 端敬 王后之寶	1739(영조 15, 己未) 5월 1일	122	90	금보귀뉴
12	문정왕후 윤씨	文定 王后之寶	1565(명종 20, 乙丑) 6월 21일	123		금보귀뉴
13	의인왕후 박씨	懿仁 王后之寶	1600(선조 33, 庚子) 10월 17일	128	○	금보귀뉴
14	인목왕후 김씨	光淑莊定 仁穆 王后之寶	1632(인조 10, 壬申) 9월 5일	136	○	금보귀뉴
15	인현왕후 구씨	敬懿貞靖 仁獻 王后之寶	1632(인조 10, 壬申)	139	○	옥보귀뉴
16	인렬왕후 한씨	仁烈 王后之寶	1636(인조 14, 丙子) 3월 16일	140	95 96	금보귀뉴
17	장렬왕후 조씨	貞肅溫惠 莊烈 王后之寶	1688(숙종 14, 戊辰) 12월 7일	143	103	금보귀뉴
18	명성왕후 김씨	貞獻文德 明聖 王后之寶	1684(숙종 10, 甲子) 3월 28일	150	111	금보귀뉴
19	인경왕후 김씨	仁敬 王后之寶	1681(숙종 7, 辛酉) 2월 16일	151	114	금보귀뉴
20	인원왕후 김씨	定懿章穆 仁元 王后之寶	1757(영조 33, 丁丑) 6월 13일	167	136	금보귀뉴
21	선의왕후 어씨	孝仁惠穆 宣懿 王后之寶	1730(영조 6, 庚戌) 10월 8일	184	145	금보귀뉴
22	정성왕후 서씨	貞聖 王后之寶	1757(영조 33, 丁丑) 5월 27일	186	149	금보귀뉴
23	정순왕후 김씨	昭肅靖憲 貞純 王后之寶	1805(순조 5, 乙丑) 5월 26일	200	166	금보귀뉴
24	헌경왕후 홍씨	獻敬 惠嬪之印	1816(순조 16, 丙子) 2월 27일	221	172	금보귀뉴
25	효의왕후 김씨	睿敬慈粹 孝懿 王后之寶	1821(순조 21, 辛巳) 8월 8일	228	178	금보귀뉴
26	순원왕후 김씨	睿成弘定 純元 王后之寶	1857(철종 8, 丁巳) 10월 19일	236	190	금보귀뉴
27	신정왕후 조씨	景勳哲範 新貞 王后之寶	1890(고종 27, 庚寅) 7월 13일	248	215	금보귀뉴
28	효현왕후 김씨	孝顯 王后之寶	1843(헌종 9, 癸卯) 11월 21일	274	222	금보귀뉴
29	효정왕후 홍씨	慈溫恭安 孝定 王后之寶	1904(광무 8, 甲辰) 1월 6일 (양2.21)	280	238	금보귀뉴
30	명성왕후 민씨	明成 皇后之寶	1897(광무 1, 丁酉) 10월 11일 (양11.5)	298	250	옥보귀뉴
31	순명황후 민씨	純明 妃寶	1904(광무 8, 甲辰) 11월 9일 (양12.15)	307	254	옥보귀뉴

왕비 시호를 정하는 데에는 먼저 3가지 안을 올려서 그 중 한 가지 안을 정한다. 세종비 소헌왕후와 관련된 기록이 전하고 있어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행왕비(大行王妃)의 시호(諡號)를 봉상시(奉常寺)에서 상고하고 의논하여 첩정(牒呈)하였기에, 삼가 갖추어 아뢰입니다. 소헌(昭憲)은 성문(聖聞)이 주달(周達)한 것이 소(昭)이고, 선(善)을 행하여 기록할 것이 헌(憲)입니다. 효순(孝順)은 덕(德)을 지켜 사곡(邪曲)하지 않은 것이 효(孝)이고, 유현(柔賢) 자혜(慈惠)한 것이 순(順)입니다. 효선(孝宣)은 덕(德)을 지켜 사곡(邪曲)하지 않은 것이 효(孝)이요, 성선(聖善)이 주문(周聞)하는 것이 선(宣)입니다.”하니, 임금이 소헌(昭憲)으로 정하였다.<sup>64)</sup>

즉 시호로 수망(首望) 즉 1안으로 소헌(昭憲), 차망(次望) 즉 2안으로 효순(孝順), 삼망(三望) 즉 3안으로 효선(孝宣)을 올린 것인데 수망 즉 제1안인 소헌(昭憲)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다음은 명종비 인순왕후의 시호를 정한 내력이다.

예조 좌랑(禮曹佐郎)이 의의한 것들을 가져다가 삼공 앞에 올리니, 삼공이 의서 단자(議書單子)를 정하여 시호의 수망(首望)에 인순(仁順), 【인(仁)은 현자와 친족을 귀히 여김이요 순(順)은 유순하고 어질며 인자하고 은혜로우이다.】 차망(次望)에 정혜(貞惠), 【큰 사려를 능히 성취하고 너그럽고 인자함이다.】 삼망(三望)에 정숙(貞肅) 【큰 사려를 능히 성취하고 마음가짐이 바르고 결단성이 있음이다.】 으로 정하고, 휘호(徽號)의 삼망(三望)에는 일망(一望)에 선열의성(宣烈懿聖), 이망에 소효현의(昭孝顯懿), 삼망에 소덕의열(昭德懿烈)로 정하고, 혼전(魂殿)의 삼망에는 경모(敬慕), 효의(孝義), 영사(永思)로 정하였다.<sup>65)</sup>

즉 시호로 수망(首望) 즉 1안으로 인순(仁順), 차망(次望) 즉 2안으로 정혜(貞惠), 삼망(三望) 즉 3안으로 정숙(貞肅)을 올린 것인데 수망인 제1안인 인순(仁順)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왕비가 사망했을 때 왕이 살아 있다면 세종비 소헌왕후처럼 시호만 올린다. 그러나 이미 왕이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명종비 안순왕후처럼 시호와 휘호를 함께 올린다. 즉, 소헌왕후는 아직 세종이 살아있기 때문에 종묘 신실에 부묘되지 못하는 경우고, 안순왕후는 이미 명종이 사망하여 안순왕후의 상기가 끝나면 바로 신실에 부묘되기 때문에 시호와 휘호를 함께 올리는 것이다.

시호는 그 글자에 의미를 부여하여 왕비의 품성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예시사례로 몇몇 왕비의 시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종비 소헌왕후의 시호 ‘소헌(昭憲)’은 “성문(聖聞)이 주달(周達)한 것이 소(昭)이고, 선(善)을 행하여 기록할 것이 헌(憲)이다”<sup>66)</sup>

64) 세종 112권, 세종 28년(1446) 4월 20일(정사) 議政府據禮曹呈啓: “大行王妃諡號, 奉常寺擬議牒呈, 謹具啓聞。 昭憲, 聖聞周達昭, 行善有記憲。 孝順, 秉德不回孝, 柔賢慈惠順。 孝宣, 秉德不回孝, 聖善周聞宣。” 上以昭憲爲定。

65) 선조 9권, 선조 8년(1575) 1월 10일(경술) 禮曹佐郎持呈于三公前, 三公定議書單子, 諡號首望仁順。 【仁貴賢親, 順柔(賢)慈惠。】 次貞惠 【大慮克就, 寬裕慈仁。】 三貞肅 【大慮克就, 執心正斷。】 徽號三望, 一宣烈懿聖, 二昭孝顯懿, 三昭德懿烈。 魂殿號, 敬慕、孝義、永思。

66) 세종 112권, 28년(1446 병인) 4월 20일(정사) 聖聞周達昭, 行善有記憲。

5대 문종비 현덕왕후의 시호 ‘현덕(顯德)’은 “행실이 안팎에 보인 것을 현(顯)이라 하고, 충화(忠和)하고 순수(純淑)한 것을 덕(德)이라 하였다.”<sup>67)</sup>

9대 성종비 공혜왕후의 ‘공혜(恭惠)’는 “공경하고 유순하게 윗사람을 섬김을 공(恭)이라 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인자함을 혜(惠)라 한다.”<sup>68)</sup>

11대 중종비 단경왕의 ‘단경(端敬)’은 “예(禮)를 지키고 의(義)를 지키는 것을 단(端)이라 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공경하고 조심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sup>69)</sup>

14대 선조비 인목왕후의 ‘인목(仁穆)’은 “인을 베풀고 의를 행하는 것[施仁服義]을 ‘인(仁)’이라 하고, 덕을 펴고 의를 지키는 것[布德執義]을 ‘목(穆)’이라고 하였다.”<sup>70)</sup>

16대 인조비 인렬왕후의 ‘인렬(仁烈)’은 “인을 베풀고 의를 따르는 것[施仁服義]을 인(仁)이라 하고, 공로가 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有功安民]을 열(烈)’이라 하였다.”<sup>71)</sup>

19대 숙종비 인경왕후의 ‘인경(仁敬)’은 “인덕(仁德)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였으며 지나거나 항상 조심하고 가다듬는다.”<sup>72)</sup>

19대 숙종계비 인원왕후의 ‘인원(仁元)’은 “인(仁)을 베풀고 의(義)를 지녔다는 인(仁)이며, 의(義)를 세워 덕(德)을 행하였다는 인(仁)이다.”<sup>73)</sup>

20대 경종비 선의왕후의 ‘선의(宣懿)’는 “선문주달(善聞周達)을 선(宣)이라 하고, 온유성선(溫柔聖善)을 의(懿)라 한다”<sup>74)</sup>

21대 영조비 정성왕후의 ‘정성(貞聖)’은 “너그럽고도 사사로움이 없다는 정(貞)과 여러 사람이 훌륭하다고 드날린다는 성(聖)이다.”<sup>75)</sup>

추존왕인 진종의 효순왕후의 ‘효순(孝純)’은 “자충(慈忠)·애친(愛親)을 ‘효(孝)’라 하고 중정(中正)·화수(和粹)를 ‘순(純)’이라 한 것이다.”<sup>76)</sup>

22대 정조비 효의왕후의 ‘효의(孝懿)’는 “자혜(慈惠)하고 아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효(孝)라 하고, 온유(溫柔)하고 성선(聖善)한 것을 의(懿)라고 한다.”<sup>77)</sup>

23대 순조비 순원왕후의 ‘순원(純元)’은 “중정정수(中正精粹)를 순(純)이라 하고 체인장민(體仁長民)을 원(元)이라 한다.”<sup>78)</sup>

추존왕인 문조비 신정왕후의 ‘신정(神貞)’은 “백성들이 이름할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하고, 원대한 계책을 성취한 것을 정(貞)이라 한다.”<sup>79)</sup>

67) 세종 93권, 23년(1441 신유) 9월 7일(경자) 行見中外顯, 忠和純淑德.

68) 성종 41권, 5년(1474 갑오) 4월 19일(계유) 敬順事上曰恭, 寬裕慈仁曰惠.

69) 영조 49권, 15년(1739 기미) 3월 28일(갑술) 守禮執義曰端, 夙夜儆戒曰敬.

70) 인조 27권, 10년(1632 임신) 7월 7일(계묘) 施仁服義曰仁, 布德執義曰穆.

71) 인조 31권, 13년(1635 을해) 12월 17일(계사) 施仁服義曰仁, 有功安民曰烈.

72) 숙종 10권, 6년(1680 경신) 11월 2일(정사) 施仁服義, 夙夜儆戒之義.

73) 영조 89권, 33년(1757 정축) 4월 2일(계해) 施仁服義曰仁, 立義行德曰元.

74) 영조 27권, 6년(1730 경술) 7월 6일(계유) 善聞周達曰宣, 溫柔聖善曰懿.

75) 영조 89권, 33년(1757 정축) 2월 21일(계미) 坦然無私曰貞, 衆善播揚曰聖.

76) 영조 74권, 27년(1751 신미) 11월 19일(신사) 慈愛親曰孝, 中正和粹曰純.

77) 순조 23권, 21년(1821 신사) 3월 17일(정묘) 慈惠愛親曰孝, 溫柔聖善曰懿.

78) 철종 9권, 8년(1857 정사) 8월 10일(무오) 中正精粹曰純, 體仁長民曰元.

24대 헌종비 효현왕후의 ‘효현(孝顯)’은 “인자하고 은혜로우며 아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효(孝)라 하고, 착한 행실이 안팎에 나타나는 것을 현(顯)이라 한다.”<sup>80)</sup>

24대 헌종계비 효정왕후의 ‘효정(孝定)’은 “5대의 종실(宗室)을 편안하게 하였다는 뜻에서 ‘효(孝)’라고 하고, 순결한 덕행을 잃지 않았다는 뜻에서 ‘정(定)’이라고 하였다.”<sup>81)</sup>

25대 철종비 철인왕후의 ‘철인(哲仁)’은 “인(仁)을 베풀고 의(義)를 실행함을 ‘인(仁)’이라 한다.”<sup>82)</sup>

26대 고종비 명성황후의 ‘명성(明成)’은 “사망을 밝게 내리 비치는 것을 ‘명(明)’이라고 하며 예법과 음악을 밝게 갖추는 것을 ‘성(成)’이라고 한다.”<sup>83)</sup>

### ③ 왕세자 및 왕세자빈 시호

왕세자에게 시호를 수여하는 것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옥인 귀뉴로 제작한 어보와 죽책을 수여한다. 보문의 형식은 ‘시호+세자지인’이다.

<표> 왕세자 시호 어보

연번	왕세자	인문	수여 연도	어보	죽책	뉴
1	孝章世子	孝章世子之印	1729(영조 5년, 己酉)	40	264	옥인귀뉴
2	莊獻世子	思悼世子之印	1762(영조 38년, 壬午)	49		옥인귀뉴
3	莊獻世子	思悼莊獻世子之印	1776(정조 즉위, 丙申)	50	267	옥인귀뉴
4	孝明世子	孝明世子之印	1830(순조 30년, 庚寅)	86	273	옥인귀뉴

왕세자빈 또한 왕비로 책봉하지 못하고 세자빈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시호를 내리며 어보와 죽책을 수여한다.

79) 고종 27권, 27년(1890 경인) 4월 22일(신유) 民無能名曰‘神’, 大慮克就曰‘貞’

80) 헌종 10권, 9년(1843 계묘) 9월 2일(신미) 慈惠愛親曰孝, 行見中外曰顯。

81) 고종 44권, 41년(1904 갑진) 1월 7일(양력) 五宗安之曰孝, 純行不爽曰定。

82) 고종 15권, 15년(1878 무인) 5월 17일(병인) 施仁服義曰‘仁’

83) 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3월 2일(양력). 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1월 6일(양력)에 정한 명성(明成)은 【은 천하를 굽어 살피는 것을 ‘명(明)’이라고 하며 예악을 밝게 갖추고 있는 것을 ‘성(成)’이라고 한다.】는 것이었으나 개명한 것이다. ‘明成’ 【臨照四方曰‘明’, 禮樂明具曰‘成’。】

<표> 왕세자빈 시호 어보

연번	왕세자빈	인문	수여 연도	어보	죽책	뉴
1	문종비 현덕왕후 권씨	顯德嬪印	1441(世宗 23, 辛酉)	113	○	금인직뉴
2	예종비 장순왕후 한씨	章順嬪韓氏之印	1462(世祖 8, 壬午)	1138	○	백철직뉴
3	경종비 단의왕후심씨	端懿嬪印	1718(肅宗 44, 戊戌)	181	279	옥인귀뉴
4	진종비 효순왕후 조씨	孝純賢嬪之印	1752(英祖 28, 壬申)	214	283	옥인귀뉴
5	장조비 헌경왕후 홍씨	獻敬惠嬪之印	1816(純祖 16, 丙子)	221	○	금인귀뉴

문종비 현덕왕후 권씨는 1441년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사망하니 향년 24세였다. 이때 시호를 ‘현덕빈(顯德嬪)’으로 칭하였다.

예종비 장순왕후 한씨는 1460년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었다. 책봉 이듬해인 1461년 11월 30일 인성대군을 낳았으나 같은 해 12월 5일 산후병으로 요절하였다. 1462년(세조 8) 세조는 ‘장순(章順)’의 시호를 내렸다. 이때에는 왕세자빈 신분이었기에 죽책과 백철로 된 어보를 수여한 것이다. 훗날 성종이 즉위하자 왕후로 추존했다. 시호 ‘장순(章順)’은 “온순하고 너그럽고 의용(儀容)이 아름다운 것을 장(章)이라 하고 유순(柔順)하고 어질고 자혜(慈惠)로운 것을 순(順)이라고 한다.”<sup>84)</sup>

경종비 단의왕후 심씨는 1696년(숙종 22) 11살에 왕세자빈에 간택되었으나 경종 즉위 2년 전인 1718년(숙종 44) 2월 7일 갑자기 돌연사 하였다. 숙종은 1718년(숙종 44) 4월 10일 ‘단의(端懿)’라는 시호(諡號)를 추서하고 단의빈(端懿嬪)으로 삼았다.

진종비 효순왕후 조씨는 1751년(영조 27) 11월 14일 창덕궁에서 소생 없이 37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 1752년(영조 28) 1월 11일 현빈(賢嬪)에게 ‘효순(孝純)’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장조비 헌경왕후 홍씨는 1815년(순조 15) 사망하였고 1816년(순조 16) 1월 19일 ‘헌경(獻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후 1899년(고종 36) 10월 10일에 헌경왕후(獻敬王后)로 추존되었고, 1899년(광무 3) 11월 17일(양력 12월 19일) ‘헌경 의황후(獻敬 懿皇后)’로 추존되었다.

## 라. 묘호 어보

왕이 사망한 뒤 종묘 신실에 신위를 모실 때 신실의 명칭을 묘호(廟號)라 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불리어지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명칭이다. 묘호의 글자 수는 2자(字)이다.

조선왕조 왕들은 모두 27명이다. 여기에 폐위된 연산군, 광해군을 제외하고 태조의 4대조, 추존왕을 포함하면 모두 34명이다. 그 중 조(祖)의 묘호를 갖은 왕은

84) 세조 27권, 8년(1462 임오) 2월 4일(기사) 賜王世子嬪諡章順, 溫克令儀, ‘章’, (案) 賢慈惠, ‘順’.

13명, 종(宗)의 묘호를 갖은 왕은 21명이다.<sup>85)</sup>

묘호에 주로 쓰는 사례는 종(宗)과 조(祖)의 두 가지가 있다. 『예기(禮記)』에 조공종덕(祖功宗德)의 명분에 따라 공이 있는 자는 조로 칭하고, 덕이 있는 자는 종으로 칭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조와 종을 구분하는 내용이 전하는데,

「창업지군칭조(創業之君稱祖), 계체지군칭종(繼體之君稱宗)」

새롭게 나라를 연 왕을 조라 하고, 부자간 즉 직계로 왕이 계승되었을 때는 종이라 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태종은 정종의 아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의 묘호가 붙여졌고, 중종 역시 연산군의 아들이 아니었다.

「입승왈조(入承曰祖) 계승왈종(繼承曰宗)」

세자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되면 조라하고, 세자가 왕위를 계승하면 종이라 한다.

「조공종덕(祖功宗德) 유공왈조(有功曰祖), 유덕왈종(有德曰宗)」

공이 있는 왕은 조라하고, 덕이 있는 왕은 종이라 한다.

이와 같은 원칙들이 여럿 있지만 조나 종을 쓰는 데에는 꼭 일정한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체로 조는 나라를 처음 세운 왕이나 국통(國統), 즉 나라의 정통이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일으킨 왕에게 쓰고, 종은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에게 붙였다. 이러한 연유로 종보다 조가 격이 더 높다는 관념을 낳게 되어 종을 조로 바꾸기도 하였다. 반대로 조를 종으로 바꾼 예는 거의 없다.

이미 정해진 선왕의 묘호를 후일 개묘(改廟)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의 정치 상황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 묘호 개묘를 추진하는 주체는 대부분 왕으로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할 때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신하들은 선왕의 묘호를 조로 삼으려는 왕에게 왕통을 이어받았으면 종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대한다. 조나 종의 의미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들어 묘호 개정을 비판하였다. 묘호를 새로 받거나 개묘된 임금의 정종, 단종, 선조, 영조, 장조, 정조, 문조이다.

광해군은 선조를 임진왜란으로 위기에 처한 조선을 극복한 새 시대의 개조(開祖)로 만들었다. 광해군 8년(1616)에 선종에서 선조로 개묘하였는데<sup>86)</sup> 실제로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숙종 때에는 왕실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고 자신이 그 직통을 잇는 주인임을 내세우고자 하여 공정대왕의 묘호를 정종<sup>87)</sup>으로 짓고 강등되어 있던 노산군을 단종<sup>88)</sup>으로 묘호를 추상하였다.

85) 조의 묘호를 갖은 왕은 태조·세조·선조·인조·영조·정조·순조 등 7명과 태조의 4대조인 목조·익조·도조·환조 4명과 장조와 문조 2명의 추존왕을 포함하면 모두 13명이다. 종의 묘호를 갖은 왕은 정종·태종·세종·문종·단종·예종·성종·중종·인종·명종·효종·현종·숙종·경종·헌종·철종·고종·순종 등 18명과 덕종·원종·진종 등 3명의 추존왕을 포함하여 모두 21명이다.

86) 광해군일기[중초본] 106권, 광해 8년(1616) 8월 4일(임인) 廟號宣祖.

87) 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1681) 12월 7일(병술) 子時以玉冊金寶, 追上恭靖大王, 廟號曰定宗.

88) 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1698) 11월 6일(정축) 廟號曰端宗.

철종 때에는 신유사옥으로 서교를 폐하고 정학을 바로 세운 공로를 기려야 하고, 흥경래의 난을 평정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순종을 순조로 개묘하였다.<sup>89)</sup> 실제로는 순원왕후가 철종으로 왕위를 이어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고종 27년(1890)에 영종에서 영조로 개묘하였다.<sup>90)</sup> 고종은 제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 롤 모델이 바로 영조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조의 묘호를 개묘하고자 하였다.

장조와 정조, 그리고 문조의 개묘 배경은 고종이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자신의 직계 선조를 황제로 추존하고 태조를 천제(天帝)에 배향할 것을 결심했으며, 1899년(광무 3) 동지에 올리는 환구단(圜丘壇) 대제(大祭)에서 이를 실행했다. 고종은 종묘로 가서 태조와 자신의 직계 4대조 즉 장조·정조·순조·문조의 존호를 올리는 행사를 거행했고, 동지에는 환구단으로 가서 태조를 천제에 배향하는 행사를 거행했다. 이어 장종의 묘호를 장조로, 정종의 묘호를 정조로, 익종의 묘호를 문조로 개묘하였다.<sup>91)</sup>

묘호는 보통 시호와 함께 올려 진다. 묘호 및 시호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묘호 현황>

대수	묘호	내용	수여 연도	어보	어책	비고
1대	太祖	至仁啓運 聖文神武/ 太祖	太宗 8년(1408) 戊子 9월			
		高皇帝/ 太祖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3	
2대	定宗	懿文莊武/ 定宗	肅宗 7년(1681) 辛酉 12월		4	
3대	太宗	聖德神功 文武光孝/ 太宗	世宗 4년(1422) 壬寅 9월			
4대	世宗	英文睿武 仁聖明孝/ 世宗	文宗 원년(1450) 庚午 3월			
5대	文宗	欽明仁肅 光文聖孝/ 文宗	端宗 원년(1452) 壬申 8월			
6대	端宗	純定安莊 景順敦孝/ 端宗	肅宗 24년(1698) 戊寅 12월		7	
7대	世祖	至德隆功 聖神明睿 欽肅仁孝/ 世祖	睿宗 원년(1468) 戊子 11월			
추존1	德宗	懷簡宣肅 恭賢溫文/ 德宗	成宗 7년(1476) 丙申 1월			
8대	睿宗	欽文聖武 懿仁昭孝/ 睿宗	成宗 1년(1470) 庚寅 2월	10		
9대	成宗	仁文憲武 欽聖恭孝/ 成宗	燕山 1년(1495) 乙卯 3월	12		
11대	中宗	徽文昭武 欽仁誠孝/ 中宗	仁宗 1년(1545) 乙巳 1월	13		
12대	仁宗	獻文懿武 章肅欽孝/ 仁宗	明宗 원년(1545) 乙巳 9월	14	8	
13대	明宗	獻毅昭文 光肅敬孝/ 明宗	宣祖 원년(1567) 丁卯 7월			

89) 철종실록 9권, 철종 8년(1857) 10월 26일(계유) 尊謚冊寶尊號冊寶于純祖室, 行改題主酌獻禮.

90)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1889) 12월 5일(병자) 賓廳議啓: "英宗大王廟號望'英祖'"

91)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1899) 12월 7일(양력).

대수	묘호	내용	수여 연도	어보	어책	비고
14대	宣宗	顯文毅武 聖睿達孝/ 宣宗	光海 원년(1608) 戊申 2월			
	宣組	啓統光憲 凝道隆祚/ 宣祖	光海 8년(1616) 丙辰 8월			
추존2	元宗	元宗	仁祖 12년(1634) 甲戌 7월			
16대	仁祖	憲文烈武 明肅純孝/ 仁祖	孝宗 원년(1649) 己丑 9월		10	
17대	孝宗	宣文章武 神聖顯仁/ 孝宗	顯宗 원년(1659) 己亥 10월		13	
18대	顯宗	純文肅武 敬仁彰孝/ 顯宗	肅宗 원년(1674) 甲寅 12월		16	
19대	肅宗	章文憲武 敬明元孝/ 肅宗	景宗 원년(1720) 庚子 10월		19	
20대	景宗	德文翼武 純仁宣孝/ 景宗	英祖 원년(1724) 甲辰 12월		23	
21대	英宗	翼文宣武 熙敬顯孝/ 英宗	正朝 원년(1776) 丙申 7월		28	
	英祖	正文宣武 熙敬顯孝/ 英祖	高宗 27년(1890) 庚寅 1월		31	
추존3	眞宗	溫良睿明 哲文孝章/ 眞宗	正朝 원년(1776) 丙申 8월		33	
추존4	莊宗	神文桓武 莊獻廣孝/ 莊宗	高宗 36년(1899) 己亥 10월		37	
	莊祖	懿皇帝/ 莊祖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45	38	
22대	正宗	文成武烈 聖仁莊孝/ 正宗	純祖 원년(1800) 庚申 10월		39	
	正祖	宣皇帝/ 正祖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54	41	
23대	純宗	文安武靖 憲敬成孝/ 純宗	憲宗 1년(1835) 乙未 3월		44	
	純祖	文安武靖 英敬成孝/ 純祖	哲宗 8년(1857) 丁巳 10월		43	
		肅皇帝/ 純祖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58	52	
추존5	翼宗	敦文顯武 仁懿孝明/ 翼宗	憲宗 1년(1835) 乙未 5월		53	
	文祖	翼皇帝/ 文祖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70	65	
24대	憲宗	經文緯武 明仁哲孝/ 憲宗	哲宗 원년(1849) 己酉 10월		68	
		成皇帝/ 憲宗	純宗 1년(1908) 戊申 7월		71	
25대	哲宗	文顯武成 獻仁英孝/ 哲宗	高宗 1년(1864) 甲子 3월		73	
		章皇帝/ 哲宗	純宗 1년(1908) 戊申 7월		75	
26대	高宗	太皇帝/文獻武章仁翼貞孝/高宗	純宗 13년(1919) 己未 1월		83	
27대	純宗	孝皇帝/文溫武寧敦仁誠敬/純宗	純宗 19년(1926) 丙寅 4월		84	

묘호는 시호와 함께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대체로 어보에는 묘호를 새기지 않는 경향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보면

3월 26일[己酉]에 존시(尊諡)를 인문헌무 흥성공효 대왕(仁文憲武 欽聖恭孝 大王)으로 올리고, 묘호(廟號)를 성종(成宗)이라고 하였다.<sup>92)</sup>



묘호를 ‘성종(成宗)’이라 올리고 시호를 ‘인문헌무 흠성공효(仁文憲武 欽聖恭孝)’라고 올렸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경종 때 묘호와 시호에 대해 예조에서 아뢴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시보(諡寶)·개명정(改銘旌)·우주(虞主)의 식(式)을 계하(啓下)함이 마땅한데, 태묘(太廟)의 의궤(儀軌)를 상고해 보았더니, 성종실(成宗室)·중종실(中宗室)과 정종실(定宗室)·예종실(睿宗室)·인종실(仁宗室)의 금보(金寶)에는 묘호(廟號)와 시호(諡號)를 썼고, 각실(各室)의 금보에는 모두 묘호는 없고 시호만 썼었습니다. 을유년(1705, 숙종 31년) 금보(金寶)를 수보(修補)할 때에 각실의 금보 가운데 묘호(廟號)를 쓰지 않은 곳이 많았으므로 명묘(明廟)의 금보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써 넣어 개조(改造)하였습니다. 또 본조(本曹)의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았더니, 기축년(1649 인조의 국상이 있던 해임)·기해년(1659 효종의 국상이 있던 해임)·갑인년(1674 현종의 국상이 있던 해임)에는 다만 시호만 썼었습니다. 이제 이 시호 또한 태묘(太廟)의 각실(各室)에 다만 시호만 쓰는 예와 기축년 이후 이미 시행한 예에 의하여 묘호는 쓰지 말고 시호만 쓸 것이며, 명정(銘旌)과 우주(虞主)의 식에는 존호(尊號)와 시호를 아울러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sup>93)</sup>

이 내용은 정종(定宗)·예종(睿宗)·성종(成宗)·중종(中宗)·인종(仁宗)의 금보(金寶)에는 묘호(廟號)와 시호(諡號)를 썼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소장하고 있는 어보 중 정종 것만 빼고 예종(1470)·성종(1495)·중종(1545)·인종(1545)의 어보에는 묘호가 새겨져 있다.<sup>94)</sup> 모두 금보 귀뉴로 제작되었으며 보문의 형식은 ‘묘호(2자)+시호(8자)+대왕지보(大王之寶)’이다. 모두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묘호가 새겨진 어보>

연번	왕	보문 내용	수여 연도	어보	옥책	비고
1	睿宗	睿宗 欽文聖武 懿仁昭孝 大王之寶	1470(성종 1, 경인) 1924년 재제작	10		금보귀뉴
2	成宗	成宗 仁文憲武 欽聖恭孝 大王之寶	1495(연산 1, 을묘)	12		금보귀뉴
3	中宗	中宗 徽文昭武 欽仁誠孝 大王之寶	1545(인종 1, 을사)	13		금보귀뉴
4	仁宗	仁宗 獻文懿武 章肅欽孝 大王之寶	1545(명종 즉위, 을사)	14		금보귀뉴

1632년(인조 10) 3월 11일

92) 성종실록 297권, 성종 25년(1494) 12월 24일(기묘) 三月己酉上尊諡曰: “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 廟號曰: “成宗。”

93) 경종 1권, 즉위년(1720 경자) 7월 4일(기사) 禮曹啓曰: “諡寶、改銘旌、虞主式, 當爲啓下, 而取考太廟儀軌, 則成宗·中宗室、定宗·睿宗·仁宗室金寶, 書廟號、諡號, 各室金寶, 則皆無廟號, 只書諡號。 乙酉年金寶修補時, 以各室金寶中, 廟號不書者居多, 明廟金寶, 亦依此例, 書填改造矣。 且考本曹謄錄, 則己丑、己亥、甲寅, 只書廟號。 今此諡號, 亦依太廟各室, 只書諡號例及己丑以後已行之例, 不書廟號, 只書諡號, 而銘旌、虞主式, 則並書尊號、諡號, 似爲得宜。” 上從之。

94) 실제 정종 어보는 묘호를 쓰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받은 시호를 새겼다. 실록에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및 2품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 대원군(大院君)의 시호를 ‘경덕인헌 정목장효(敬德仁憲 靖穆章孝)’라 하였다. 이때 인조가 “묘호(廟號)는 왜 의논해 올리지 않는가?” 하니, “성종 때는 주청한 후 8자 호를 가하고 비로소 묘호를 올렸습니다. 예조가 품한 바는 단지 시호뿐이었으며 전에 우선은 입묘(入廟)하지 말라고 하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의논해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2년 뒤인 1634년(인조 12) 7월 14일 대제학 최명길(崔鳴吉)이 원종의 묘호를 지어 옥책을 제작하여 올렸다. 이때 어보는 별도로 제작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옥책도 현재 전하지 않는다.

대체로 시호를 올릴 때 묘호도 함께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종만 시호와 묘호를 별도로 올린 경우는 드물다.

#### 마. 휘호 어보

왕과 왕비가 사망한 후 혼전에서 3년의 상기를 마치고 난뒤 신주를 종묘 신실에 모시는 것을 부묘(祔廟)라 한다. 왕의 경우는 3년의 상기가 끝나는 대로 부묘되었으나 왕후의 경우 왕이 살아 있을 때에는 3년의 상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혼전(魂殿)에 모시다가 왕의 3년 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부묘한다. 즉 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 왕비가 사망하면 시호(諡號)만 주어진다. 왕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왕후의 상기가 끝나면 시호와 휘호(徽號)를 함께 부여한다.

휘호는 왕비가 승하한 후에 시호와 함께 올리는 존칭이다. 이 휘호는 왕비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4글자가 정형화 되어 있다.

<휘호 어보>

연번	왕후	휘호	수여 연도	어보	옥책	비고
1	정안왕후 김씨	濫明莊懿	1681(숙종 7, 신유) 12월 7일	109	88	
2	현덕왕후 권씨	仁孝順惠	1454(단종 2, 갑술) 7월 1일	112	○	
3	공혜왕후 한씨	徽懿愼肅	1497(연산 3, 정사) 2월 7일	구입		금인귀뉴
4	장경왕후 윤씨	宣昭懿淑	1546(명종 1, 병오) 4월 23일	124		
5	의인왕후 박씨	貞憲	1610(광해 2, 경술) 4월 17일	131		
6	인현왕후 민씨	懿烈貞穆	1722(경종 2, 임인) 8월 1일	161	125	
7	단의왕후 심씨	恭孝定穆	1726(영조 2, 병오) 9월 28일	180	142	
8	정성왕후 서씨	端穆章和	1778(정조 2, 무술) 5월 6일	193	153	
9	효순왕후 조씨	徽貞賢淑	1776(정조 즉위, 병신) 8월 12일	211	169	
10	헌경왕후 홍씨	仁哲啓聖	1899(광무 3, 기해) 10월 10일	217	174	
11	효현왕후 김씨	敬惠靖順	1851(철종 2, 신해) 7월 27일	275	223	

왕비에게 올린 휘호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4글자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2글자를 올린 사례도 보인다. 인종비 인성왕후 박씨에게 선조 10년(1577)에 올린 ‘효순(孝順)’이라는 휘호와 선조비 의인왕후에게 광해 2년(1610)에 올린 ‘정헌(貞憲)’이라는 휘호이다.

중종계비 장경왕후와 같이 두 차례 휘호를 올린 경우도 있다. 1515년(중종 10)에 졸하셨을 때 ‘숙신명혜(淑愼明惠)’라는 휘호를 올렸고, 1546년(명종 1) 부묘할 때 ‘선소의숙(宣昭懿淑)’이란 휘호를 다시 올렸다. 앞서 언급했듯 내상(內喪)이 왕의 상(喪)보다 먼저 있는 경우 시호만 올리고 부묘할 때 휘호를 올리는 것인데, 중종 대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내상이 먼저 있는 경우인데도 휘호를 올렸다가 후일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부묘할 때 또 휘호를 올린 것이다.<sup>95)</sup> 이 내용이 실록에 소상히 나온다.

“신들이 삼가 어제 정원에 내리신 하교를 보고 억측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워 종묘의 열성등록(列聖謚錄)을 고찰해보니, 내상(內喪)이 앞에 있으면 모두 초상 때에는 시호만 올렸다가 태묘(太廟)에 승부(陞祔)할 때에 이르러 비로소 시호를 더 올렸습니다.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일로 예를 든다면 ‘원정’은 초상 때에 올린 것이고 ‘창덕소열(彰德昭烈)’은 부묘(祔廟) 때에 올린 것입니다. 장경왕후(章敬王后) 때에도 초상에는 ‘장경’만 올리고 정미년 정월 부묘할 때에 이르러 ‘선소의숙(宣昭懿淑)’이라는 시호를 더 올렸습니다.

이로 헤아려 본다면 대체로 휘호(徽號)는 아마도 사왕(嗣王)이 선후(先后)를 위하여 올리는 것인 듯합니다. 그리고 내상이 먼저 있게 되면 반드시 부묘 때를 기다려서 올리는 것으로 아마 장경 왕후 때에는 초상 때에 휘호를 미리 올렸다가 곧 이어 전례가 아님을 깨닫고 정미년 정월에 비로소 ‘선소의숙’이라는 휘호를 올린 것으로 그 일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다만 오늘은 영상과 좌상이 모두 질병으로 오지 못하였으니 신들만으로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다음날까지 기다렸다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sup>96)</sup>

휘호를 받지 못한 왕비도 있다. 세조비 정희왕후와 중종계비 문정왕후이다. 정희왕후의 예는 조선 초기에는 생전에 올린 존호와 사후에 올리는 휘호를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여 휘호를 올리지 못한 경우이다. 세조비 정희왕후에게 생전에 ‘자성흠인 경덕 선렬 명순 원숙 휘신 혜의 신헌(慈聖 欽仁 景德 宣烈 明順 元淑 徽愼 惠懿 神憲)’이라는 18글자의 존호를 올렸다. 그리고 성종 14년(1483)에 돌아가 시자 시호만 올리고 휘호는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중종계비 문정왕후는 명종 20년(1565)에 졸하였는데 세조비 정희왕후의 예를 따라 휘호를 올리지 않았다. 즉

95) 김종수, 「규장각 소장 존호 존승 상호도감 의궤 해설」, 39쪽.

96) 선조 128권, 선조 33년(1600 경자) 8월 21일(신묘) “臣等伏見昨天下政院之教，難於臆定，取考宗廟列聖謚錄，內喪在先，則皆於初喪，只上謚號，至於祔大廟時，始加上謚號。試以元敬王后一例爲證，則其曰元敬，卽初喪時所上，其曰彰德昭烈，卽祔廟時加上者也。章敬王后時，亦初喪，只上章敬之謚，至丁未正月祔廟之時，加上宣昭懿淑之號。以比度之，則凡徽號，似是嗣王爲先后而上者也。內喪在先，則必待祔廟時上之，豈章敬王后時初喪，徑上徽號，而旋覺非例而改之，至於丁未正月，始上宣昭懿淑之號耶？此事似無可疑，而但今日。領左相，皆以病不來。臣獨議爲難，姑待後日齊坐，議定何如？” 答曰：“允。”

1547년(명종 2)에 ‘성열(聖熱)’이라는 존호를 받았고 그해 9월 ‘인명(仁明)’이라는 존호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 바. 기타

어보의 개념 및 범위에서 기술하고 있듯 어보는 책봉이나 존호·시호·휘호 등의 위호(位號)를 옥이나 금동에 새긴 인장이다. 그러나 가례나 길례, 흉례 등 의례의 소산물이 아닌 것들이 있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기타 어보 내용>

연번	왕·왕비	보문	년도	어보	어책	비고
1	예종	武勝安民之寶	1469(예종 1, 己丑)	11		금보귀뉴
2	진종	孝章承統世子之印	1776(영조 52, 丙申)	42	265	은인귀뉴
3	효순왕후 조씨	孝純承統賢嬪之印	1776(영조 52, 丙申)	215	284	은인귀뉴
4	정조	孝孫八十三書	1776(영조 52, 丙申)	39		은인귀뉴

1469년(예종 1)에 ‘무승안민지보(武勝安民之寶)’를 만들었다.<sup>97)</sup>고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종묘등록에는 1457년(세조 3, 정축) 12월에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예종이 세자로 책봉되어 죽책과 함께 책봉인을 받은 때이다. 세자 책봉인은 대체로 옥으로 제작되며 보문은 ‘왕세자인’으로 새긴다. 그런데 이것은 금동으로 제작되었으며 보문에는 ‘무승안민지보(武勝安民之寶)’라고 새겨져 있다. 예종의 왕세자인은 역시 월정사 소장 국보 제292호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에 날인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영조 52년(1776)에 진종과 그의 빈인 효순왕후에게 올려진 어보가 있다. 진종(1719~1728)은 영조의 아들로 어머니는 정빈(靖嬪)이씨이며, 비는 좌의정 조문명(趙文命)의 딸인 효순왕후(孝純王后)이다. 영조 즉위년(1724)에 경의군(敬義君)으로 봉해지고, 이듬해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즉위하기 전에 졸하였다. 양자인 정조가 즉위하면서 진종(眞宗)으로 추존되었다. 이에 대해 승통을 이었다는 정통성을 인정하는 의미로 어보를 만든 것이다. 그의 비에게도 올려 졌는데, 둘 다 옥으로 만들었으며 귀뉴이다. 이에 관한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전한다. 효장궁에 호를 올리고 옥인과 죽책을 만들어 주게 하라는 것이다. 하교하기를,

“이번 예(禮)가 끝난 뒤에는 효장궁(孝章宮)에도 호(號)가 있고서야 종통(宗統)이 바르게 되고 사면(事面)이 곧바르게 될 것이다. 지금 효장(孝章)·효순(孝純) 두 자로 종통이 바르게 되겠는가?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것이 아니다. 효장은 효장승통세자(孝章承統世子)라 하고 효순은 효순승통세자빈(孝純承統世子嬪)이라 하여 옥인

97)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1469) 9월 20일(경자) 作武勝安民之寶.

(玉印)과 죽책(竹冊)을 만들어 주라. 그 또한 경사를 이어받아 후세에 전하는 도리이니, 종통을 바른 일을 위에 고하되 삭제(朔祭) 때에 아울러 고유(告由)하고 팔방에 선포하라. 책인도감(冊印都監)은 호조(戶曹)·예조(禮曹)·공조(工曹)의 당상(堂上)·낭청(郎廳)이 거행하라.”<sup>98)</sup>

또 다른 어보는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호심에 감동하여 영조가 왕세손이던 정조에게 내린 것이다. 83세의 영조 친필을 새긴 것이다. 유물명칭은 ‘정조은인(正祖銀印)’이고, 보문 내용은 ‘孝孫八十三書’라고 새겨져 있는데, 영조가 승하하기 한 달 전인 83세 때인 영조 52년(1776) 2월에 영조가 왕세손이던 정조에게 친히 글자를 써서 내린 은인이다.<sup>99)</sup> 인면에는 큰 글씨로 ‘孝孫’, 작은 글씨로 ‘八十三書’라고 새겨져 있다. 조선왕조 역대 어보 중 왕의 친필을 새긴 것으로 유일하며, 해서체(楷書體) 글씨로도 유일하다.

## 2. 어책

### 1) 옥책의 개념

옥책(玉冊)은 왕비를 책봉(冊封)하거나, 왕과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 덕을 높이 기리는 뜻으로 올리는 칭호), 시호(諡號, 죽은 뒤에 행적에 따라 올리는 칭호), 휘호(徽號, 왕비에게 시호와 함께 올리는 칭호) 등을 올릴 때 옥간(玉簡)에 그 내용을 새겨 첩(貼)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옥책의 내용은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제왕의 다스림이 부부 관계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법이기 때문에 왕비로 책봉한다고 하고, 왕비의 타고난 천성이 어질고 자질이 뛰어난을 칭송하고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면서 효성과 우애, 심중과 공경, 예의와 법도, 자손의 번창 등을 훈계하는 내용이다. 존호는 국가와 왕실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시호·휘호는 통과의례(rite of passage)의 일환으로 책보가 수여되는데, 수여하는 배경과 의미와 문자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즉 왕과 왕비의 책봉 명칭, 추봉 명칭, 존호·시호·휘호 등을 인장에 새긴 것이 어보이고, 이러한 내용의 사연과 의미 등을 주석(annotation)한 것이 어책이다. 어책은 신분과 재질에 따라 옥책·죽책·금책으로 구분한다.

옥책은 옥간 5~7쪽을 엮어 만든 것을 1첩(貼)이라 한다. 옥책의 첩수는 시대와 내용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지지만 모두 짝수 첩으로 만들어진다. 접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홀수 첩으로 만들지 않는다. 현재 전하는 옥책의 첩수는 1간 1점, 2첩 1점, 4첩 19점, 6첩 20점, 8첩 46점, 10첩 90점, 12첩 42점, 14첩 29점, 16첩 4점, 18첩 1점이다. 10첩이 35.2%를 차지하고 있다.

98) 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1776) 1월 27일(기해) 孝章稱孝章承統世子, 孝純稱孝純承統世子嬪.

99) 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1776) 2월 7일(기유) 上曰: "予親書孝孫二字, 鑄寶錫世孫, 欲以表其誠孝矣.

<표> 옥책의 첩수 현황

구분	수량	비고(%)
1간(簡)	1	0.4
2첩	1	0.4
4첩	19	7.5
6첩	20	7.9
8첩	46	18.2
10첩	90	35.6
12첩	42	16.6
14첩	29	11.5
16첩	4	1.6
18첩	1	0.4
	253	100

2첩인 경우 문조비 신정왕후 옥책으로 존호 중 의모(懿謨)를 익모(翼謨)로 고쳐 올린 것으로 간단하게 수정 이유를 적어 많은 내용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첩의 옥책은 19점이다. 인종 16년(1638)에 인조비 장열왕후를 책봉하면서 제작한 것이 1책이 있고, 나머지는 고종과 순종이 직계 왕과 왕비를 추존하여 존송하기 위한 경우이다. 고종 36년(1899) 12월 7일(양력)에 고종이 태조와 신의왕후, 신덕왕후, 장조와 헌경왕후, 정조와 효의왕후, 순조와 순원왕후, 문조와 신정왕후를 각각 태조 고향제, 장조 의향제, 정조 선향제, 순조 숙향제, 문조 익향제 등을 추존하여 올린 옥책이 11책이다. 그리고 융희(隆熙) 2년(1908) 5월 11일(양력)에 순종이 진종과 효순왕후, 헌종과 효현왕후, 효정왕후, 철종과 철인왕후를 각각 진종 소향제, 헌종 성향제, 철종 장향제 등으로 추존하여 올린 옥책문이 7책이다. 이들 모두 4첩의 옥책으로 고종과 순종 즉 대한제국 때 왕과 왕후를 황제와 황후로 추존하면서 제작한 것이다.

6첩의 옥책은 모두 20책으로 전체적으로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왕비 책봉 9책, 상존호 2책, 가상존호 3책, 추상존호 3책, 상시호 1책, 상휘호 2책이다. 6첩의 경우 시기별, 종류별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후기에 추상존호와 상시호 등이 나타나는 것은 이때부터 추상존호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고, 상시호와 추상시호인 경우에는 인조 대부터 정조 대에는 8첩~14첩의 경우가 많다.

8첩의 옥책은 모두 46책으로 1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곤전책봉 6책, 상존호 3책, 가상존호 12책, 추상존호 9책, 상시호 9책, 추상시호 1책, 상휘호 6책이다. 8첩의 옥책 내용은 시기별로나 내용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첩의 옥책은 모두 90책으로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왕비책봉은 없고, 상존호 5책, 가상존호 35책, 추상존호 30책, 상시호 13책, 추상시호

5책, 상휘호 2책이다. 역시 존호를 올린 예가 가장 많다.

12첩의 옥책은 모두 42책으로 16.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왕비책봉은 없고, 상존호 1책, 가상존호 16책, 추상존호 15책, 상시호 7점, 추상시호 2점, 상휘호 1점이다. 12첩의 옥책은 영조 대와 고종 대에 많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첩의 옥책은 모두 29책으로 1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상존호 4책, 가상존호 8책, 추상존호 13책, 상시호 4책이다. 시기별로 보았을 때에도 효종과 현종, 순조와 현종, 순종 대의 옥책 제작은 없고 철종대와 고종대가 많다. 내용별로도 왕비책봉, 추상시호, 상휘호 옥책은 없다. 철종 대의 추상존호 옥책이 9책인데 이중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올린 옥책이 6책이다.

16첩의 옥책은 모두 4책으로 1.6%의 비율을 차지한다. 가상존호 2책, 추상존호 1책, 상시호 1책이다. 영조 28년(1752)에 영조에게 가상존호를 올린 것과, 철종 9년(1858)에 순조비 순원왕후에게 추상존호를 올린 것, 고종 3년(1866)에 철종에게 추상존호를 올린 것 등 3책 모두 존호를 올린 것이다. 나머지 1점은 순조 원년(1800)에 정조에게 묘호와 시호를 함께 올린 것이다.

18첩의 옥책은 1책이다. 문조비 신정왕후에게 고종 27년(1890)에 ‘신정(神貞)’이란 시호와 ‘경훈철범(景勳哲範)’이라는 휘호를 올리면서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옥책 중 가장 첩수가 많은 것 중 하나이다. 고종을 왕으로 등극하게 한 것은 신정왕후이다.

이상의 시기별 종류별 내용을 살펴본 결과 책봉 옥책은 6첩과 8첩으로 제작하였다. 인조부터 정조까지는 6첩으로 주로 제작하고 그 이후는 8첩으로 제작하는 경향이다. 물론 숙종과 경종 때에도 8첩의 책봉옥책을 제작한 예도 있다. 상존호와 가상존호는 10첩으로 제작한 예가 가장 많다. 추상존호는 8첩, 10첩, 12첩, 14첩 등 다양한 첩수로 제작하였으며, 상휘호 옥책은 8첩이 가장 많다. 한편 시기별 특징은 후대로 갈수록 첩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옥책의 1첩을 구성하는 옥간(玉簡)의 매수는 5쪽, 6쪽, 7쪽 등 3종류가 있다. 5쪽 136점(53.8%), 6쪽 39점(15.4%), 7쪽 77점(30.4%)이다. 그런데 이러한 쪽수를 사용하는데 일정한 규칙은 없다.

<표> 옥책의 옥간 매수 현황

구분	수량	비고(%)
1간(簡)	1	0.4
5간(簡)	136	53.8
6간(簡)	39	15.4
7간(簡)	77	30.4
	253	100

우선 시기별 특징은 5쪽과 6쪽의 사용 예는 인조 때부터 순종 때까지 골고루 사용하고 있다. 7쪽의 옥간은 고종 12년(1875)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문조와 그의 비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된 것인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7쪽의 옥간을 사용한다. 고종 12년(1875)부터 고종 29년(1892)까지는 40점의 옥책에 사용되었고, 고종 36년(1889)부터 순종 1년(1907)까지는 37점의 옥책에 사용되었다. 이때의 시기는 조선말기와 대한제국 때인 것이다. 그러나 1910년 일제강점기 때에 제작된 옥책의 옥간은 7쪽을 사용하지 않고 5개와 6개의 옥간을 사용하였다.

종류별 특징은 책봉 옥책은 주로 5쪽을 사용하는데 76%이다. 6쪽을 사용한 예는 4책으로 24%이다. 상존호·가상존호·추상존호를 올릴 때에는 모두 5쪽의 옥간을 사용한다. 고종 대에 와서 가상존호를 올릴 때 7쪽의 옥간을 사용했는데, 이는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것이다. 상시호는 6쪽을 사용한 예가 86%이다. 추상시호는 5쪽과 6쪽은 사용하지만 86%가 7쪽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종 대에 추상시호를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휘호 역시 5쪽을 사용한 예가 77%이고 6쪽을 사용한 예가 23%이다.

옥간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쪽과 6쪽의 옥책은 전시기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5쪽을 사용한 예는 책봉·상존호·가상존호·추상존호·상시호·추상시호·상휘호 등 모든 부분에 골고루 사용되고 있다. 6쪽인 경우에는 책봉과 상시호 및 추상시호·상휘호에 사용된다. 존호를 올릴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7쪽의 옥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상존호·추상존호·상시호이다. 고종과 순종 대에 많이 사용했고 전체 옥책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

옥책의 첩과 첩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은 원환(圓環) 연첩방식(連疊方式)과 돌적이(玆迪耳) 연첩방식이 있다. 원환 연첩방식은 둥근 고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이고 돌적이 연첩방식은 양쪽 첩과 첩 사이의 배목에 못 형태의 둥근 쇠를 넣어 고정시킨 것이다. 옥책 253책 중 원환 연첩방식이 67책, 돌적이 연첩방식이 185책, 기타 1책이다. 초창기부터 영조 33년(1757)까지의 옥책은 모두 원환 연첩방식이고, 그 이후부터는 돌적이 연첩방식이다.

이렇게 연첩방식이 변경된 계기는 인종대왕 옥책을 새로 만들면서 돌적이 연첩방식으로 바뀌었다. 명종 즉위년(1545) 7월 인종 승하 이후 즉위한 명종이 같은 해 9월 인종의 묘호와 시호를 올리면서 제작된 옥책을 인조 14년(1636) 12월 병자호란의 발발로 종묘(宗廟)에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조 33년(1757) 종묘에 영조의 원비(元妃)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우주(虞主)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이때 다시 인종의 옥책을 제작하였다. 이때 지금까지의 원환 연첩방식에서 돌적이 연첩방식으로 바뀌어 제작하였는데 이후 모든 옥책의 연첩방식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바뀐 이유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변철(邊鐵)은 편철(編綴), 변자금(邊子金)이라고도 부른다. 변철은 옥간 양쪽 가



장자리에 대는 꾸미개를 말하는데, 옥간 5, 6개를 나란히 놓고 양쪽 아래 위 가장 자리에 구멍을 뚫고 철로 만든 판으로 감싸듯이 꾸민 다음 두정(頭頂)을 박아 고정시킨다. 이 변철의 기능은 하나의 첩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틀을 형성하는 것이며 옥간을 보호하는 기능을 지닌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양을 시문하여 단조롭지 않고 장엄함을 표현하기 위해 장식하였다. 주로 나타나는 문양들은 만초문(蔓草紋), 만초화문(蔓草花紋), 쌍용문(雙龍紋), 추상적(抽象的)인 쌍용문, 무문(無紋), 수파문(水波紋) 등이다.

옥책의 첫 번째와 마지막 첩의 표지는 직물로 장황을 하는데 이것을 회장급의(回粧及衣)라고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종류를 살펴보면 홍공단(紅貢緞), 홍운문단(紅雲紋緞), 다홍금선(多紅錦線), 진홍운문단(眞紅雲紋緞), 홍광직(紅廣織), 진홍공단(眞紅貢緞), 다홍운문단(多紅雲紋緞), 홍금선단(紅錦線段) 등이 있다.

## 2) 옥책의 종류

### (1) 내용 분류

왕과 왕비는 여러 호칭과 명칭을 지닌다. 살아있을 때와 승하했을 때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왕의 경우 아명(兒名), 명(名), 자(字), 호(號) 등과 세습 국왕으로서의 얻어지는 봉작명(封爵名) 등은 살아계실 때 붙여지는 호칭과 명칭이며, 묘호(廟號)·시호(諡號)·전호(殿號)·능호(陵號) 등은 승하한 후의 호칭과 명칭이다.<sup>100)</sup> 이러한 호칭과 명칭 중 승하한 후의 호칭과 명칭이 종묘에 봉안된 어책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칭송의 호칭인 존호, 종묘 신실의 이름인 묘호, 행적을 기리는 호칭인 시호, 왕비에게 따로 올리는 휘호 등은 주로 존숭의 의미이다.

이러한 것이 어책의 내용별 종류인데, 이 또한 어책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어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여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어책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왕실 인사의 호칭 및 명칭과 가장 큰 관련을 지닌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각종 의례에 따른 명칭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즉, 책봉·국혼(國婚) 등의 가례(嘉禮)에는 책봉 및 존호옥책이, 국상(國喪)이나 국장(國葬)에 관한 흉례(凶禮)에는 묘호·시호·휘호옥책이 제작되는 것이다.

왕의 경우 왕세자 책봉 시에는 죽책과 교명을 수여하고, 등극 이후에는 존호, 승하 후에는 존호·시호·묘호 등을 올릴 때 옥책을 수여한다. 왕비의 경우 세자빈 책봉 시에는 죽책과 교명을 수여하고, 왕비 책봉 시와 살아있을 때의 존호, 승하 후에는 존호·시호·휘호 등을 올릴 때 마다 옥책을 수여한다.

조선시대의 왕은 출생하면 차례로 원자, 왕세자, 왕의 순으로 책봉되었는데, 이 봉작명(封爵名)에 따르는 경칭이 그대로 호칭이 되기도 하였다. 이때 어보와 죽책,

100) 成仁根,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13쪽.

교명이 함께 만들어 올린다.

존호는 대개 생전에 올리는 것이지만 18세기 중반 이후로는 승하 후에도 많이 올렸다. 시호<sup>101)</sup>는 초상 때 왕과 왕후에게 올리는 것이므로 시호를 생전에 올리는 경우는 없다. 휘호는 왕비에게만 올리는 아름다운 존칭이다.

존호나 시호를 올리는 의식을 기록한 것이 의궤(儀軌)인데 현존하는 의궤의 명칭을 보면 존숭(尊崇)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존숭이란 왕과 왕비 등에게 공덕을 기리기 위해 올리는 아름다운 명칭인데, 이러한 명칭을 올릴 때 마다 책례도감(冊禮都監)을 설치하여 어책과 어보를 함께 제작하여 올렸다. 생전에 처음으로 존호를 올릴 때에는 상존호(上尊號)라고 하고, 두 번째 이후 존호를 올릴 때에는 가상존호(加上尊號), 사후에 존호를 올릴 때에는 추상존호(追上尊號)라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상(加上) 내지 추상(追上)이 더해주는 의식은 조선시대와 같이 명분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예(禮)는 분위(分位)보다 큰 것이 없고 분위는 명호(名號)보다 큰 것이 없으니 명칭이 분명하면 반드시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으면 반드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조선시대인들의 이름(名)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이다. 집권하고 있는 국왕의 입장에서는 후대의 평가를 기다리지 않고도 자신의 공덕을 공인받을 수 있는 존호의식을 꺼릴 이유가 없었다.<sup>102)</sup>는 것이다.

<표> 옥책 내용별 수량

연번	구분	수량(책)	비율(%)
1	곤전책봉	16	6.3
2	존호	183	72.3
	(상존호)	(16)	
	(가상존호)	(76)	
	(추상존호)	(91)	
3	시호	42	16.6
	(상시호)	(35)	
	(추상시호)	(7)	
4	휘호	12	4.7
	소계	253	100

위의 표에서 인조비 인렬왕후 상시호 옥책은 내용이 같은 것이 2점이고, 순조비 순원왕후 책봉옥책 또한 내용이 같다. 그리고 인종 옥책편은 인종옥책의 1개의 편이다. 따라서 이들 셋은 내용이 중복된 것임을 밝혀둔다.

101) 장서각 소장 『諡法總記』(장서각 K2-3076)에서는 조선시대 시호에 사용된 의미와 내력을 정리한 것으로 시와 호에 대해서 「大戴禮」를 인용하여 ‘諡는 行의蹟이며, 號는 功의表’라 정의하였다.

102) 김지영, 「조선시대 존숭의식의 의미와 상호도감의궤」, 『영조사존호상호도감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3쪽.

## 가. 책봉

조선시대 왕은 보통 8세 전후에 세자에 책봉되면서 혼인을 한다. 따라서 왕비는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입궁한 다음 세자가 왕위에 즉위한 후 정식 왕비에 책봉된다.

조선시대 왕실 혼례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속오례의서례(國朝續五禮儀序例)』,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등 국가의 중요 전례서에 의해 거행된다.

특히 왕비 책봉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sup>103)</sup>의 납비의(納妃儀)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납비의는 택일(擇日),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봉(冊封), 책명(冊命), 봉영(奉迎), 동뢰(同牢), 왕비 백관 하례(王妃 百官 賀禮), 전하 백관 회례(殿下 百官 會禮), 왕비 수 내외명부 조회(王妃 受 內外命婦 朝會)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왕비 책봉을 위한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처음 절차는 왕비 간택이다. 국왕의 나이에 관계없이 15세 전후 처녀들의 혼인을 금하는 금혼령(禁婚令)을 공포하면 전국 사대부 가문에서는 사주단자와 함께 부·조·증조·외조의 이력을 기록한 처녀단자를 올린다. 이는 예조에서 모아 왕에게 올린다. 왕비의 간택은 대체로 왕실의 어른인 대비가 주관한다. 대비는 처녀단자를 보고 가문과 사주가 좋은 처녀를 고른다. 이를 마친 후에는 금혼령을 해제한다. 다음 절차는 간택인데, 간택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초간(初揀)·재간(再揀)·삼간(三揀)이다. 보통 초간에서 선발된 대여섯 명의 처녀들 중에서 두세 명을 재간하고, 최종적으로 삼간에서 마지막 한 명을 뽑는다. 삼간에서 뽑힌 처녀는 별궁(別宮)에서 약 6개월 정도 왕비 수업을 받는다. 왕비 간택이 결정된 후에는 혼례를 주관하는 임시 관청인 가례도감(嘉禮都監)을 설치한다.

택일은 좋은 날을 골라 종묘와 사직에 왕비를 선택하였음을 고하는 의식이다. 납채는 장차 국구(國舅)가 될 가문에 왕비로 결정된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다. 납징은 교명과 함께 비단 예물을 보내는 의식으로 전체적인 절차는 납채와 같다. 고기는 왕이 혼인 날짜를 알리는 것인데, 방법이나 절차 역시 납채나 납징과 같다. 책비는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으로 별궁에서 거행된다. 왕은 왕비 책봉을 위해 교명·옥책·어보·명복(命服) 등을 보내고, 왕비는 별궁에서 적의(翟衣)를 입고 왕의 책봉문을 받는다. 봉영은 왕이 사신을 보내 별궁에서 대궐로 왕비를 맞이하여 오는 절차이다. 동뢰는 대궐로 들어온 왕비가 그날 저녁에 왕과 함께 술과 음식을 들고 침전에서 첫날밤을 치르는 절차이다.

이후 왕비는 대비나 왕대비·대왕대비 등 왕실 어른들을 뵈고 인사한 뒤 조정백관과 내외명부의 인원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끝이 난다.

103) 『國朝五禮儀』, 法制處, 1981. pp.114~155.

한편 왕비에 책봉되는 시기는 대체로 왕이 등극한지 2년 후에 이루어진다. 선왕이 승하하면 임금의 자리는 오래 비워둘 수 없다. 따라서 대개 닷새만에 성복(成服)하고 빈전(殯殿)이 있는 침전(寢殿) 정문에서 즉위식을 거행한다. 세자가 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자빈은 이때 바로 왕비로 책봉하지는 않는다. 선왕의 상기(喪期)를 마친 뒤에 행한다. 대략 2년 뒤이다. 효종비 인선왕후, 현종비 명성왕후, 숙종비 인경왕후, 경종비 선의왕후, 영조비 정성왕후, 정조비 효의왕후, 순조비 순원왕후, 철종비 철인왕후까지 모두 선왕의 상기를 마친 2년 뒤에 책봉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문원보물(文苑繡黻)』, 『종묘등록(宗廟謄錄)』 등의 문헌에 수록된 왕비 책봉을 위해 제작된 옥책은 모두 30책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옥책은 15책(1책은 중복)이다. 15책을 분실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왕비 책봉과 관련하여 보물 지정 대상 옥책은 다음과 같다.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옥책과 어보, 교명을 함께 수여한다. 참고로 이때 올려진 어보·어책·교명을 유물번호와 함께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왕비 책봉 옥책 내용

연번	왕후	연도	옥책	어보	교명	비고
1	인조비 인렬왕후	仁祖 1년(1623) 癸亥	94	141	-	등록
2	인조계비 장렬왕후	仁祖 16년(1638) 戊寅	99	144	303	등록
3	효종비 인선왕후	孝宗 2년(1651) 辛卯	105	-	304	등록
4	현종비 명성왕후	顯宗 2년(1661) 辛丑	109	-	-	등록
5	숙종비 인경왕후	肅宗 2년(1676) 丙辰	113	152	-	등록
6	숙종계비 인현왕후	肅宗 20년(1694) 甲戌	120	159	307	등록
7	숙종계비 인원왕후	肅宗 28년(1702) 壬午	122	165	308	등록
8	경종비 단의왕후	景宗 2년(1722) 壬寅	141	178	310	등록
9	경종계비 선의왕후	景宗 2년(1722) 壬寅	143	179	312	등록
10	영조비 정성왕후	英祖 2년(1726) 丙午	147	187	313	등록
11	영조계비 정순왕후	英祖 35년(1759) 己卯	157	198	314	등록
12	정조비 효의왕후	正朝 2년(1778) 戊戌	176	227	318	등록
13	순조비 순원왕후	純祖 2년(1802) 壬戌 1824 재제작	181	233	319	등록
14	순조비 순원왕후	純祖 2년(1802) 壬戌	182	233	319	등록
15	헌종비 효현왕후	憲宗 3년(1837) 丁酉	221	273	320	등록
16	고종비 명성왕후	高宗 3년(1866) 丙寅	245	300	321	등록

## 나. 존호

존호(尊號)는 왕과 왕비의 훌륭한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올리는 호칭이다. 그렇다고 모든 왕과 왕후에게 올리는 것은 아니다. 존호가 없는 왕과 왕비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초기의 왕과 왕비에게는 존호가 없는 사례가 많다. 반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가상(加上)된 경우도 있다. 또 살아 있을 때 올리기도 하고 승하한 뒤에 올리기도 한다. 대개 살아 있을 때 존호를 올리는 것을 상존호(上尊號), 두 번째 이후부터는 가상존호(加上尊號)라고 한다. 반면 승하 후에 올리는 것을 추상존호(追上尊號)라고 한다.<sup>104)</sup>

존호의 글자 수는 왕의 경우 조선 초기에는 4글자였다.<sup>105)</sup> 그러나 세조이후부터<sup>106)</sup> 8글자의 존호가 정형화 되었다.

왕비에게 올리는 존호는 대개 2글자이다.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왕비에게 올리는 존호는 2글자이다. 조선초기의 예를 보면 정종비 정안왕후에게 ‘순덕(順德)’, 태종비 원경왕후에게 ‘후덕(厚德)’, 세조비 정희왕후에게 ‘자성(慈聖)’, 예종비 안순왕후에게 ‘인혜(仁惠)’라는 존호를 올렸다.

그러나 1469년(예종 1) 2월에 세조비 정희왕후에게 올린 존호를 보면 ‘흠인 경덕 선렬 명순 원숙(欽仁 景德 宣烈 明順 元淑)’이라는 10글자를 올렸다. 그리고 그해 9월 ‘휘신혜의(徽愼惠懿)’라는 4글자의 존호를<sup>107)</sup> 더 올렸다. 그리고 1892년(高宗 29, 壬辰) 6월 문조비 신정왕후 조씨에게 ‘예헌돈장(睿憲敦章)’이라는 4글자의 존호를 올렸다. 정희왕후와 신정왕후 만 예외로 4글자의 존호를 올렸고 이 경우를 제외하면 왕비에게는 모두 2글자의 존호를 올렸다.<sup>108)</sup>

존호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왕인 경우는 국가의 변란을 진압하여 큰 공을 세웠다든지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즉위한지 오래되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신하들의 주청을 받아들여 존호를 올리게 된다. 선조·광해군·숙종·영조 등이 이런 경우로 존호를 받았다. 선조는 임란을 극복하고 종묘사직을 보존했다는 공으로 존호를 받았고, 광해군은 재위 중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존호를 받았다. 그러나 폐위로 삭제되었다.

왕비인 경우는 조선 초기부터 숙종 2년까지는 대부분 회갑이나 선왕의 즉위 등을 축하하기 위하여 올리는 경우이다. 즉 상왕이나 왕대비, 대왕대비로 존숭할 때 존호를 올리는 것이다. 왕비를 새로 책봉하면 그 윗대의 왕비는 왕대비로, 왕대비는 대왕대비로 존숭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존호를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인조 계비 장열왕후는 5번의 존호를 받았고, 숙종 계비 인원왕후는 12번의 존호를

104) 김종수, 「존호·존숭·상호도감의궤 명칭에 대한 소고」, 『은지논총』 제12집, 166쪽.

105) 1400(정종 2) 태조에게 ‘啓運神武’, 정종에게 ‘仁文恭睿’라는 존호에서 알 수 있음.

106) 세조 3년(1457)에 세조에게 ‘승천체도 열문영무(承天體道 烈文英武)’ 8글자의 존호를 올렸다.

107) 예종실록 7권, 1년(1469 기축) 9월 16일(병신)

108) 실제로는 1505년(연산군 11) 연산군 폐비신씨에게 올린 존호가 ‘齊仁元德’이란 4글자의 존호가 있다. 그러나 연산군과 광해군은 폐위되었기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받았다. 이들은 모두 오랫동안 살아계셨기 때문이다.

한편 인조·효종·현종·경종 등은 생전에는 존호를 받지 않았다.<sup>109)</sup> 반면 숙종 39년(1713)에 숙종과 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에게 숙종 즉위 40년을 축하하기 위해 존호를 올린 일이 있었다.<sup>110)</sup> 이에 대해 숙종은 "여러 날 동안 조정의 뜰에 모여서 극력 청함이 이에 이르니, 겸양을 지키려던 당초의 마음을 끝내 스스로 이루기 어려워 힘써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지만 사신(史臣)들은 임금의 겸덕(謙德)이 지극한데, 조신(朝臣)들이 이를 받들어 따르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마침내 강박(強迫)하여 청을 준허하고야 말았다. 따라서 10여 년 동안 간직해 온 겸손한 덕이 시커멓게 어두워 발양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특히 백세(百世)의 비난이 두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존호(尊號)가 만일 옳지 않다면 임금이 스스로 이회(理會)할 것이니,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금상(今上)의 청허(聽許)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혹자는 당초에 성상의 뜻이 굳건히 결정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기도 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라며 비난했다.<sup>111)</sup>

영조 때에는 영조 자신이 4차례의 존호를 받았으며 선왕인 효종·숙종·현종과 그들의 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모인 육상궁에게도 존호를 올렸다. 영조는 재위 2년부터 52년까지 11차례에 걸쳐 31책의 존호를 올렸다. 물론 자신이 존호를 주고 받을 수 없기에 김재로 등 신하들이 올리는 형식으로 존호를 받았다. 영조 이후부터 이 선례를 따라 존호를 자주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영조를 자신의 표상으로 삼았던 고종이 특히 더했다.

정조는 5차례에 걸쳐 9책의 존호를 올렸다. 이때 존호를 올린 배경은 영조의 부묘례, 문효세자의 탄생, 세자책봉, 영조 즉위 60주년, 정순왕후 오순(五旬) 등의 사유였다.

순조 때에는 4차례에 6책의 존호를 올렸다. 정순왕후와 효의왕후의 존숭, 수렴청정 철수, 정순왕후 육순 및 보감, 왕세손 탄생 등이다. 순조의 대를 이은 현종은 불과 8살에 즉위하였다. 순원왕후가 7년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 공을 기념하고 순원왕후가 왕비로 책봉된 지 40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 순원왕후의 육순(六旬) 등을 빌미로 존호를 4차례에 걸쳐 7책의 올렸다. 현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순원왕후는 왕실의 방계 인물인 철종을 찾아내어 현종의 뒤를 잇게 하였다. 철종을 왕으로 추대한 후 재임 14년간 12차례에 걸쳐 27책의 존호를 올렸다. 27책의의 존호 중 장조 1책, 현경왕후 1책, 순조 5책, 순원왕후 7책, 문조 1책, 신정왕후 4책, 현종 1책, 효현왕후 1책, 효정왕후 4책, 철종 1책, 철인왕후 1책이다.

109) 김종수,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례해설집』, 「규장각 소장 존호·존숭·상호도감의례 해설」, 40쪽.

110)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계사 3월 병술.

111)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1월 17일 을미.

고종은 26차례에 걸쳐 90책의 존호를 올렸다. 물론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태조를 비롯한 직계 존속에 대한 황제 추존 등의 사례도 있지만 존호를 올리는데 너무 남발한 것처럼 여겨진다. 존호를 올리는 배경은 다 이유가 있지만 왕권이 약해지고 정치적인 돌파구 마련이 필요할 때 대부분 존호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고종의 대를 이은 순종은 2회에 걸쳐 존호를 올리는데 한번은 고종을 태상왕으로 올리고 ‘수강(壽康)’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또 한번은 1908년 고종이 직계 존속들을 황제로 추존한데 미진함을 느낀 순종이 역시 직계의 왕과 왕비들을 황제와 황후로 추존한 것이다.

지금까지 존호를 가장 많이 받은 왕은 문조로 14차례에 걸쳐 107자를 받았고 왕비 중에는 문조비 신정왕후로 27차례에 걸쳐 57글자를 받았다.

다음 <표>는 조선왕조 초기부터 대한제국 말까지 존호를 올린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존호 현황

연번	연도	왕·왕비	내용	비고
1	定宗 2년(1400) 庚辰 7월	태조(啓運神武)	상왕→태상왕	
2	定宗 2년(1400) 庚辰 12월	정종(仁文恭睿) 정종비 정안왕후(順德)	왕→상왕 왕비→왕대비	
3	世宗 1년(1418) 戊戌 11월	태종(聖德神功) 태종비 원경왕후(厚德)	왕→상왕 왕비→왕대비	
4	世祖 1년(1455) 乙亥 7월	단종비 정순왕후(懿德)	왕비→왕대비	
5	世祖 3년(1457) 丁丑 3월	세조(承天體道 烈文英武) 세조비 정희왕후(慈聖)	단종복위 무산 환구에 제사	
6	睿宗 1년(1469) 己丑 2월	세조비 정희왕후 (欽仁景德 宣烈明淑) 세조비 정희왕후(元淑)	왕비→왕대비	
7	睿宗 1년(1469) 己丑 9월	세조비 정희왕후(徽慎惠懿)		
8	成宗 2년(1471) 辛卯 1월	세조비 정희왕후(神憲) 예종비 안순왕후(仁惠)	왕대비→대왕대비 왕비→왕대비	
9	成宗 6년(1475) 乙未 1월	덕종비 소혜왕후(仁粹)	왕비→왕대비	
10	燕山 3년(1497) 丁巳 3월	덕종비 소혜왕후(慈淑) 예종비 안순왕후(明懿)	왕대비→대왕대비 왕대비→대왕대비	
11	燕山 3년(1497) 丁巳 5월	성종비 정현왕후(慈順)	왕비→왕대비	
12	燕山 11년(1505) 乙丑 8월	성종비 정현왕후(和惠)		
13	明宗 2년(1547) 丁未 1월	중종비 문정왕후(聖烈)	왕대비→대왕대비	
14	明宗 2년(1547) 丁未 9월	중종비 문정왕후(仁明) 인종비 인성왕후(恭懿)	왕비→왕대비	
15	宣祖 2년(1569) 己巳 윤6월	명종비 인순왕후(懿聖)	왕비→왕대비	
16	宣祖 23년(1590) 庚寅 2월	선조(正倫立極盛德洪烈) 선조비 의인왕후(章聖)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	
17	宣祖 37년(1604) 甲辰 10월	선조(至誠大義 格天熙運)	왜적을 물리친 공	

연번	연도	왕·왕비	내용	비고
		선조비 의인왕후(徽烈) 선조비 인목왕후(昭聖)		
18	光海 2년(1610) 庚戌 4월	선조비 인목왕후(貞懿)	왕비→왕대비	
19	仁祖 2년(1624) 甲子 8월	선조비 인목왕후(明烈)	왕대비→대왕대비	
20	孝宗 2년(1651) 辛卯 8월	인조비 장열왕후(慈懿)	왕비→왕대비	100
21	顯宗 2년(1661) 辛丑 7월	인조비 장열왕후(恭愼) 효종비 인선왕후(孝肅)	왕대비→대왕대비 왕비→왕대비	101 106
22	肅宗 2년(1676) 丙辰 10월	인조비 장열왕후(徽獻) 현종비 명성왕후(顯烈)	왕대비-대왕대비 왕비→왕대비	12 110
23	肅宗 12년(1686) 丙寅 5월	인조비 장열왕후(康仁)	회갑	102
24	肅宗 39년(1713) 癸巳 3월	숙종(顯義光倫 睿聖英烈) 숙종비 인경왕후(光烈) 숙종비 인현왕후(孝敬) 숙종비 인원왕후(惠順)	숙종 즉위 40년	18 115 124 123
25	景宗 2년(1722) 壬寅 9월	숙종비 인원왕후(慈敬)	태묘? 왕비→왕대비	126
26	英祖 2년(1726) 丙午 10월	숙종비 인원왕후(獻烈) 경종비 선의왕후(敬純)	왕대비→대왕대비 왕비→왕대비	127 144
27	英祖 16년(1740) 庚申 2월	숙종비 인원왕후(光宣)	모임(母臨) 39년	128
28	英祖 16년(1740) 庚申 6월	효종(明義正德)	영조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해	14
29	英祖 16년(1740) 庚申 7월	숙종비 인원왕후(顯翼) 영조(至行純德 英謨毅烈) 영조비 정성왕후(惠敬)	김재로 등 신하의 청	129 24 146
30	英祖 23년(1747) 丁卯 2월	숙종비 인원왕후(康聖)	인원왕후 회갑	130
31	英祖 27년(1751) 辛未 2월	숙종비 인원왕후(貞德)	모임(母臨) 50년	131
32	英祖 28년(1752) 壬申 5월	숙종비 인원왕후(壽昌) 영조(章義弘倫 光仁敦禧) 영조비 정성왕후(莊愼)	명 삼황제 대보단 배향	132 25 151
33	英祖 29년(1753) 癸酉 12월	숙종(裕謨永運 洪仁峻德) 숙종비 인경왕후(宣穆) 숙종비 인현왕후(淑聖) 숙종비 인원왕후(永福)	영조 육순(六旬)	20 117 135 133
34	英祖 32년(1756) 丙子 1월	숙종비 인원왕후(隆化) 영조(體天建極 聖功神化) 영조비 정성왕후(康宣)	인원왕후 칠순(七旬)	134 26 148
35	英祖 48년(1772) 壬辰 11월	현종(昭休衍慶 敦德綏成) 현종비 명성왕후(禧仁) 영조(大成廣運 開泰基永) 영조비 정성왕후(恭翼) 영조비 정순왕후(睿順)	영조 79세, 즉위 49년, 정순왕후 책봉 15주년	17 112 27 150 158
36	英祖 52년(1776) 丙申 1월	숙종(配天合道 啓休篤慶) 숙종비 인경왕후(惠聖) 숙종비 인현왕후(莊純)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짚을 칭찬	21 118 138



연번	연도	왕·왕비	내용	비고
		숙종비 인원왕후(徽靖) 영조(堯明舜哲 乾健坤寧) 영조비 정성왕후(仁徽) 영조비 정순왕후(聖哲)		137 29 152 159
37	正朝 2년(1778) 戊戌 5월	영조비 정순왕후(莊僖)	영조 부모	160
38	正朝 7년(1783) 癸卯 3월	영조비 정순왕후(惠徽)	문효세자의 탄생	161
39	正朝 8년(1784) 甲辰 9월	영조(配命垂統 景曆洪休) 영조비 정성왕후(昭獻) 영조비 정순왕후(翼烈)	세자책봉, 영조 즉위 60주년	30 154 162
40	正朝 11년(1787) 丁未 1월	영조비 정순왕후(明宣)	세손을 보호한 공로	155
41	正朝 19년(1795) 乙卯 1월	영조비 정순왕후(綏敬) 장조(章倫隆範 基命彰休) 장조비 헌경왕후(徽穆)	정순왕후 오순(五旬), 혜빈 육순(六旬)	163 35 171
42	純祖 2년(1802) 壬戌 8월	영조비 정순왕후(대왕대비) 정조비 효의왕후(왕대비)	왕대비→대왕대비 왕비→왕대비	164 170
43	純祖 4년(1804) 甲子 2월	영조비 정순왕후(光獻)	수렴정정 칠수, 정순왕후 육순(六旬)	165
44	純祖 5년(1805) 乙丑 3월	영조비 정순왕후(隆仁)	정순왕후의 보감을 기념	167
45	純祖 27년(1827) 丁亥 9월	순조(淵德顯道 景仁純禧) 순조비 순원왕후(明敬)	왕세손 탄생	42 183
46	憲宗 3년(1837) 丁酉 1월	순조비 순원왕후(文仁) 문조비 신정왕후(孝裕)	왕대비→대왕대비 왕비→왕대비	184 -
47	憲宗 7년(1841) 辛丑 2월	순조비 순원왕후(光聖)	수렴정정한 공과 왕비책봉 40년	185
48	憲宗 14년(1848) 戊申 3월	순조(體聖凝命 欽光錫慶) 순조비 순원왕후(隆禧) 문조(體元贊化 錫極定命) 문조비 신정왕후(獻聖)	순원왕후 육순(六旬)	45 186 54 -
49	哲宗 2년(1851) 辛亥 8월	순조비 순원왕후(正烈) 문조비 신정왕후(宣敬) 헌종비 효정왕후(明憲)	헌종과 효현왕후 부모	187 - -
50	哲宗 3년(1852) 壬子 2월	순조비 순원왕후(宣徽)	수렴정정한 공	188
51	哲宗 4년(1853) 癸丑 1월	순조(繼天配極 隆元敦休) 순조비 순원왕후(英德)	철종이 종법상의 부인 순조를 현양	46 189
52	哲宗 4년(1853) 癸丑 10월	문조(聖憲英哲 睿誠淵敬) 문조비 신정왕후(正仁) 헌종(體健繼極 中正光大) 헌종비 효현왕후(端聖) 헌종비 효정왕후(淑敬)	선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55 - 69 224 -
53	哲宗 6년(1855) 乙卯 1월	장조(贊元憲誠 啓祥顯熙)	장조와 헌경왕후	36

연번	연도	왕·왕비	내용	비고
		장조비 헌경왕후(裕靖)	탄생 2주갑 120년 기념	173
54	哲宗 8년(1857) 丁巳 10월	순조(懿行昭倫 熙化峻烈) 순조비 순원왕후(慈獻)	순종의 묘호를 순조로 개묘	47 191
55	哲宗 9년(1858) 戊午 1월	순조(大中至正 洪勳哲謨) 순조비 순원왕후(顯倫)	순원왕후 칠순(七旬)	48 192
56	哲宗 10년(1859) 己未 10월	문조비 신정왕후(慈惠) 헌종비 효정황후(睿仁)	순원왕후 부모례	197 227
57	哲宗 12년(1861) 辛酉 1월	순조(乾始泰亨 昌運弘基) 순조비 순원왕후(洪化)	순조 원년의 회갑 순원왕후 혼인 60년	49 193
58	哲宗 13년(1862) 壬戌 1월	순조(高明博厚 剛健粹精) 순조비 순원왕후(神運)	순원왕후 책봉 60년	50 194
59	哲宗 14년(1863) 癸亥 6월	철종(熙倫正極 粹德純聖) 철종비 철인황후(明純)	이십일사약편 왕실 중계 수정	72 240
60	哲宗 14년(1863) 癸亥 12월	문조비 신정왕후(弘德) 헌종비 효정황후(正穆)	은언군의 사실 수정	206 228
61	高宗 3년(1866) 丙寅 2월	문조비 신정왕후(純化) 헌종비 효정황후(弘聖) 철종비 철인황후(徽聖)	철종 종묘에 부모	198 230 241
62	高宗 3년(1866) 丙寅 4월	문조(隆德純功 篤休弘慶) 문조비 신정왕후(文光) 헌종(至聖廣德 弘運章化) 헌종비 효현황후(粹元) 헌종비 효정황후(章純) 철종(欽命光道 敦元彰化) 철종비 철인황후(正元)	신정왕후 수렴청정 철거, 고종 친정	56 199 70 225 229 74 242
63	高宗 4년(1867) 丁卯 1월	문조(洪運盛烈 宣光濬祥) 문조비 신정왕후(元成)	신정왕후 60세	57 201
64	高宗 5년(1868) 戊辰 12월	문조비 신정왕후(肅烈)	신정왕후 회갑	202
65	高宗 6년(1869) 己巳 1월	문조(堯欽舜恭 禹勤湯正) 문조비 신정왕후(明粹)	효명세자 회갑	58 203
66	高宗 9년(1872) 壬申 1월	태조(應天肇統 廣勳永命) 태종(建天體極 大正啓佑)	태조 창업과 태종 즉위 신년(辛年)	2 6
67	高宗 10년(1873) 癸酉 4월	문조비 신정왕후(協天) 헌종비 효정황후(貞徽) 철종비 철인황후(粹寧) 고종(統天隆運 肇極敦倫) 고종비 명성황후(孝慈)	신정왕후 왕비 40주년, 고종 즉위 10년	204 231 243 76 246
68	高宗 12년(1875) 乙亥 12월	문조(啓天建統 神勳肅謨) 문조비 신정왕후(隆穆)	신정왕후 68세, 익종 세실 지정	59 205
69	高宗 14년(1877) 丁丑 1월	문조(乾大坤厚 廣業永祚) 문조비 신정왕후(壽寧)	신정왕후 70세	60 207

연번	연도	왕·왕비	내용	비고
70	高宗 15년(1878) 戊寅 1월	문조비 신정왕후(禧康)	신정왕후 71세(망팔)	208
71	高宗 16년(1879) 己卯 1월	순조(啓統垂曆 建功裕範) 순조비 순원왕후(粹穆) 문조(莊義彰倫 行健配寧) 문조비 신정왕후(顯定)	익종 혼인 회갑 (신정왕후 가례 60주년)	51 195 61 209
72	高宗 20년(1883) 癸未 1월	문조(基泰垂裕 熙範昌禧) 문조비 신정왕후(徽安)	신정왕후 국모 50주년	62 210
73	高宗 23년(1886) 丙戌 1월	문조비 신정왕후(欽倫)	신정왕후 79세	211
74	高宗 24년(1887) 丁亥 1월	문조(立經享道 成戲昭章) 문조비 신정왕후(洪慶)	문조 대리칭정 60주년, 신정왕후 80세	63 212
75	高宗 25년(1888) 戊子 1월	문조비 신정왕후(泰運)	신정왕후 81세	213
76	高宗 25년(1888) 戊子 3월	문조비 신정왕후(昌福) 헌종비 효정황후(莊昭) 고종(正聖光義 明功大德) 고종비 명성황후(元聖)	고종 즉위 25주년, 세자 순종의 요청	214 232 77 247
77	高宗 27년(1890) 庚寅 1월	영조(中和隆道 肅莊彰勳) 영조비 정성왕후(元烈) 영조비 정순왕후(正顯) 헌종비 효정황후(端禧)	영조 묘호 개묘	32 156 168 234
78	高宗 27년(1890) 庚寅 2월	문조비 신정왕후(熙祥) 헌종비 효정황후(粹顯) 고종(堯峻舜徽 禹謨湯敬) 고종비 명성황후(正化)	명성황후 40세	216 233 78 248
79	高宗 27년(1890) 庚寅 3월	숙종(正中協極 神毅大勳) 숙종비 인경왕후(純懿) 숙종비 인현왕후(元化) 숙종비 인원왕후(正運)	역대 선왕의 추승	22 119 139 140
80	高宗 27년(1890) 庚寅 12월	문조(致中達和 繼曆協紀) 문조비 신정왕후(翼謨)	신정왕후 탄일 추모	64 217
81	高宗 29년(1892) 壬辰 4월	선조(景命神曆 弘功隆業) 선조비 의인왕후(敬穆) 선조비 인목왕후(正肅)	임진왜란 5갑주	93 92 9
82	高宗 29년(1892) 壬辰 7월	문조(剛粹景綿 峻惠衍祉) 문조비 신정왕후(睿憲敦章) 헌종비 효정황후(懿獻) 고종(應命立紀 至化神烈) 고종비 명성황후(合天)	고종 즉위 30년	66 218 265 79 249
83	高宗 36년(1899) 己亥 10월	정조(敬天明道 洪德顯謨) 정조비 효의왕후(莊徽)	정조 추승	40 178
84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태조(高皇帝/太祖) 태조비 신의왕후(高皇后) 태조비 신덕왕후(高皇后) 장조(懿皇帝/莊祖)	고종의 4대조 추승	3 85 87 38

연번	연도	왕·왕비	내용	비고
		장조비 헌경왕후(懿皇后) 정조(宣皇帝/正祖) 정조비 효의왕후(宣皇后) 순조(肅皇帝/純祖) 순조비 순원왕후(肅皇后) 문조(翼皇帝/文祖) 문조비 신정왕후(翼皇后)		175 41 180 52 196 65 219
85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문조비신정왕후(翼謨→懿謨)	익모를 의모로 수정	200
86	高宗 37년(1900) 庚子 1월	인조(開天肇運 正紀宣德) 인조비 인열왕후(正裕) 인조비 장열왕후(淑穆) 효종(欽天達道 光毅弘烈) 효종비 인선왕후(貞範) 헌종비 효정황후(康綏) 고종(巍勳洪業 啓基宣曆) 고종비 명성황후(洪功)	효정왕후 칠순 (七旬)	11 98 104 15 108 236 80 251
87	高宗 39년(1902) 壬寅 1월	문조(宏猷愼徽 綏緒佑福) 문조비 신정왕후(啓社) 헌종비 효정황후(裕寧) 고종(乾行坤定 英毅弘休) 고종비 명성황후(誠德)	고종 즉위 40년, 고종의 망육 (望六)	67 220 237 81 252
88	純宗 원년(1907) 丁未 8월	고종(壽康)	고종 태상왕 기념	82
89	純宗 1년(1908) 戊申 7월	진종(昭皇帝) 진종비 효순왕후(昭皇后) 헌종(成皇帝) 헌종비 효현황후(成皇后) 헌종비 효정황후(成皇后) 철종(章皇帝) 철종비 철인황후(章皇后)	순종의 직계 추승	34 170 71 226 239 75 중박

#### 다. 묘호

국왕이 승하한 뒤 종묘(宗廟)에 신위(神位)를 모실 때 붙이는 호(號)를 묘호(廟號)라 한다. 즉 종묘 신실의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불리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명칭이다. 묘호의 글자 수는 2자(字)이다.

중국에서는 세상을 떠난 황제를 태묘(太廟)에서 제사지낼 때 사용되는 칭호로 추증되었다. 한대(漢代)에는 묘호를 가진 황제가 적었으나, 당대(唐代) 이후에는 거의 모든 황제의 묘호를 받아 불리고 있다. 이 묘호는 베트남에서도 사용하였다.

신라 때에는 태종 무열왕만이 태종(太宗)이라는 묘호를 가졌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祖)·종(宗)의 묘호를 추증하였다. 특히 고려 때에는 태조만이 조(祖)의 묘호를 썼으며, 그 밖의 왕들은 종(宗)의 묘호를 썼다.

조선왕조 왕들은 모두 27분이다. 태조의 4대조 4분과 5분의 추존왕을 포함하면 모두 36분이 된다. 광해군과 연산군을 제외하면 34분이다. 그중 조(祖)의 묘호를 갖은 분은 13분, 종(宗)의 묘호를 가진 분은 21분이다.

조의 묘호를 갖은 분은 태조·세조·선조·인조·영조·정조·순조 등 7분과 태조의 4대조인 목조·익조·도조·환조 4분과 장조와 문조 2분의 추존왕을 포함하면 모두 13분이다. 종의 묘호를 갖은 분은 정종·태종·세종·문종·단종·예종·성종·중종·인종·명종·효종·현종·숙종·경종·헌종·철종·고종·순종 등 18분과 덕종·원종·진종 등 3분의 추존왕을 포함하여 모두 21분이다.

조의 묘호를 받은 왕들 중 태조·세조·인조는 사후 바로 조의 묘호를 받았다. 태조의 4대조는 추존왕이기에 태종 11년에 조의 묘호를 받았다.<sup>112)</sup> 그리고 태종을 비롯한 16분의 왕 또한 사후 바로 종의 묘호를 받았다.

이와 같이 묘호는 왕의 사후에 대를 이은 다음 왕이 결정하여 즉시 올리는 것이 상례이다. 공정대왕이나 노산군처럼 묘호가 없는 왕의 경우 숙종 대에 정종과 단종으로 묘호를 추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선왕의 묘호를 후일 개묘(改廟)하는 수도 있다. 대체로 조종의 묘호를 둘러싸고 개묘하는 것인데, 사례를 보면 당시의 정치 상황과 크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묘호 추진의 주체는 대부분 왕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할 때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신하들은 선왕의 묘호를 조로 삼으려는 왕에게 왕통을 이어받았으면 종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대한다. 조나 종의 의미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들어 묘호 개정을 비판하였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묘호를 올릴 때에는 시호와 함께 수록한다. 고종 때의 묘호를 개묘할 때에는 추상존호와 함께 묘호가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묘호 현황

代數	廟號	내용	年度	玉冊	御寶	비고
1대	太祖	至仁啓運 聖文神武/ 太祖	太宗 8년(1408) 戊子 9월			
		高皇帝/ 太祖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03		
2대	定宗	懿文莊武/ 定宗	肅宗 7년(1681) 辛酉 12월	04		
3대	太宗	聖德神功 文武光孝/ 太宗	世宗 4년(1422) 壬寅 9월			
4대	世宗	英文睿武 仁聖明孝/ 世宗	文宗 원년(1450) 庚午 3월			
5대	文宗	欽明仁肅 光文聖孝/ 文宗	端宗 원년(1452) 壬申 8월			
6대	端宗	純定安莊 景順敦孝/ 端宗	肅宗 24년(1698) 戊寅 12월	07		

112)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4월 22일 임자일에 종묘(宗廟)의 4실(四室)에 존호(尊號)를 가상(加上)하였으니, 목왕(穆王)의 시호(諡號)를 인문성목대왕(仁文聖穆大王), 묘호(廟號)를 목조(穆祖)라 하고, 효비(孝妃)의 시호(諡號)를 효공왕후(孝恭王后)라 하였으며, 익왕(翼王)의 시호는 강혜성익대왕(康惠聖翼大王), 묘호는 익조(翼祖)라 하고, 정비(貞妃)의 시호는 정숙왕후(貞淑王后)라 하였으며, 도왕(度王)의 시호는 공의성도대왕(恭毅聖度大王), 묘호는 도조(度祖)라 하고, 경비(敬妃)의 시호는 경순왕후(敬順王后)라 하였으며, 환왕(桓王)의 시호는 연무성환대왕(淵武聖桓大王), 묘호는 환조(桓祖)라 하고, 의비(懿妃)의 시호는 의혜왕후(懿惠王后)라 하였다.

代數	廟號	내용	年度	玉冊	御寶	비고
7대	世祖	至德隆功 聖神明睿 欽肅仁孝/ 世祖	睿宗 원년(1468) 戊子 11월			
추존1	德宗	懷簡宣肅 恭賢溫文/ 德宗	成宗 7년(1476) 丙申 1월			
8대	睿宗	欽文聖武 懿仁昭孝/ 睿宗	成宗 1년(1470) 庚寅 2월		10	
9대	成宗	仁文憲武 欽聖恭孝/ 成宗	燕山 1년(1495) 乙卯 3월		12	
11대	中宗	徽文昭武 欽仁誠孝/ 中宗	仁宗 1년(1545) 乙巳 1월		13	
12대	仁宗	獻文懿武 章肅欽孝/ 仁宗	明宗 원년(1545) 乙巳 9월	08, 257	14	
13대	明宗	獻毅昭文 光肅敬孝/ 明宗	宣祖 원년(1567) 丁卯 7월			
14대	宣宗	顯文毅武 聖睿達孝/ 宣宗	光海 원년(1608) 戊申 2월			
	宣祖	啓統光憲 凝道隆祚/ 宣祖	光海 8년(1616) 丙辰 8월			
추존2	元宗	元宗	仁祖 12년(1634) 甲戌 7월			
16대	仁祖	憲文烈武 明肅純孝/ 仁祖	孝宗 원년(1649) 己丑 9월	10		
17대	孝宗	宣文章武 神聖顯仁/ 孝宗	顯宗 원년(1659) 己亥 10월	13		
18대	顯宗	純文肅武 敬仁彰孝/ 顯宗	肅宗 원년(1674) 甲寅 12월	16		
19대	肅宗	章文憲武 敬明元孝/ 肅宗	景宗 원년(1720) 庚子 10월	19		
20대	景宗	德文翼武 純仁宣孝/ 景宗	英祖 원년(1724) 甲辰 12월	23		
21대	英宗	翼文宣武 熙敬顯孝/ 英宗	正朝 원년(1776) 丙申 7월	28		
	英祖	正文宣武 熙敬顯孝/ 英祖	高宗 27년(1890) 庚寅 1월	31		
추존3	眞宗	溫良睿明 哲文孝章/ 眞宗	正朝 원년(1776) 丙申 8월	33		
추존4	莊宗	神文桓武 莊獻廣孝/ 莊宗	高宗 36년(1899) 己亥 10월	37		
	莊祖	懿皇帝/ 莊祖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38	45	
22대	正宗	文成武烈 聖仁莊孝/ 正宗	純祖 원년(1800) 庚申 10월	39		
	正祖	宣皇帝/ 正祖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41	54	
23대	純宗	文安武靖 憲敬成孝/ 純宗	憲宗 1년(1835) 乙未 3월	44		
	純祖	文安武靖 英敬成孝/ 純祖	哲宗 8년(1857) 丁巳 10월	43		
		肅皇帝/ 純祖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52	58	
추존5	翼宗	敦文顯武 仁懿孝明/ 翼宗	憲宗 1년(1835) 乙未 5월	53		
	文祖	翼皇帝/ 文祖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65	70	
24대	憲宗	經文緯武 明仁哲孝/ 憲宗	哲宗 원년(1849) 己酉 10월	68		
		成皇帝/ 憲宗	純宗 1년(1908) 戊申 7월	71		
25대	哲宗	文顯武成 獻仁英孝/ 哲宗	高宗 1년(1864) 甲子 3월	73		
		章皇帝/ 哲宗	純宗 1년(1908) 戊申 7월	75		
26대	高宗	太皇帝/文獻武章仁翼貞孝/高宗	純宗 13년(1919) 己未 1월	83		
27대	純宗	孝皇帝/文溫武寧敦仁誠敬/純宗	純宗 19년(1926) 丙寅 4월	84		

## 라. 왕 시호

시호를 올리는 의식에 대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 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sup>113)</sup> 그리고 예조에서 책보를 올리는 의식인 「상시책시보의(上諡冊諡寶儀)」와 「청시종묘의(請諡宗廟儀)」 의례가 있는데, 이는 세종실록 오례/ 흥례/ 청시종묘의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왕의 시호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받는 2글자의 시호와 본조에서 묘호와 함께 올리는 8글자의 시호가 있다.

중국으로부터 받는 2글자의 시호는 왕이 승하한 후에 신하들이 의논하여 세 가지 안을 올리고 중국황제는 이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정해 내려준다. 중국으로부터 받은 시호는 옥책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존호는 생전과 사후에도 받을 수 있지만 시호는 사후에만 받는 호이다. 시호를 올리는 경우는 왕이 승하하여 종묘 신실에 모셔 질 때 묘호와 함께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왕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더해지기도 한다. 특히 개묘할 때 고쳐진 묘호와 시호 또한 새롭게 올린다. 그리고 종묘에서 조천하지 않고 세실에 모시는 경우에도 시호를 올린다. 특히 숙종이 태조와 정종·태종에게<sup>114)</sup>,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시호<sup>115)</sup>를 올린 예가 있다.

시호는 8글자를 쓴다는 것이 원칙이나, 조선초기에는 4글자로 올린 예가 있다. 정종의 시호가 ‘온인순효(溫仁順孝)’ 4글자로 올려 잘못된 전례라 하여 4자를 더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 하여 숙종 7년(1681)에 ‘의문장무(懿文莊武)’라는 시호 4자를 더 올렸다.

“공정대왕의 묘호(廟號)를 신들이 2품(品) 이상의 관각당상(館閣堂上)과 일제히 모여 삼가 이렇게 협의 결정하여 들여보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열성(列聖)의 시호(諡號)는 모두 8자(字)를 썼는데 유독 공정대왕에게만 ‘온인순효(溫仁順孝)’ 4자(字)만을 올려 잘못된 전례가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묘호를 추가하여 올리는 때를 당하여 시호(諡號)를 더 올리는 것이 진실로 전례(典禮)에 합당합니다.”하니, 임금이 답(答)하기를, “4자(字)를 더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하므로, 마침내 4자(字)를 의논하여 올렸다.<sup>116)</sup>

다음 표에서 보듯 시호는 묘호와 함께 8글자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묘호와 같이 표기되지 않고 시호만 올려진 것은 대개 추상시호이다. 상시호는 처음 올리는 것이고 추상시호는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시호는 사후에 바로 정하여 금보에 새기고 그 뜻을 옥책에 새겨 올린다. 그런데

113) 세종실록 6권, 1년(1419 기해 17년) 12월 12일(임오).

114) 1683년(숙종 9, 癸亥) 태조에게는 ‘正義光德’, 정종에게는 1681년(숙종 7, 辛酉)년에 ‘懿文莊武’ 태종에게는 1683년(숙종 9, 癸亥) ‘睿哲成烈’이라는 시호를 올림.

115) 1776년(정조 원년, 丙申)에 ‘莊獻’이라는 시호를 올림.

116) 숙종실록 12권, 7년(1681 신유 9월 18일(정묘).

태조의 시호를 사후 200여 년이 지난 숙종 대에 추가로 올린 데에는 두 가지 명분이 있었다. 첫째, 시호의 글자 수가 후대 왕들보다 적다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선왕의 시호는 일반적으로 8자였는데, 태조는 생시에 받은 존호 ‘계운신무(啓運神武)’를 제외하면 4자의 시호를 받았고, 시호와 존호를 합쳐 8자 ‘지인계운 성문신무(至仁啓運 聖文神武)’인데 비해 후손인 세조와 선조의 경우 각각 20자와 24자나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후손이 선조보다 더 존귀함을 받는 형국이었다. 둘째, 태조의 위화도 회군의 공적을 담은 시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세채(朴世采) 등은 반대하였는데, 송시열(宋時烈)은 위화도 회군은 『춘추(春秋)』 대의(大義)에 부합한 의거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숙종은 송시열의 건의를 받아들여 태조의 기존 시호에 ‘정의광덕(正義光德)’이란 시호를 추가로 올렸는데, 이때 태조뿐 아니라 태종에게도 ‘예철성렬(睿哲成烈)’이라는 시호를 더하였다.

태종에 대해서는 한(漢)나라 문제와 당(唐)나라 태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민심이 태종에게 기울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종으로부터 선양 받은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호를 더하여 올린 것이다.

한편 공정대왕(恭靖大王)은 묘호(廟號)도 없었다. 숙종 때 비로소 ‘정종(定宗)’이라는 묘호와 ‘의문장무(懿文莊武)’라는 시호를 추가로 올린 것이다. 그리고 열성(列聖)의 시호는 모두 8자(字)를 썼는데 유독 공정대왕에게만 ‘온인순효(溫仁順孝)’ 4자만을 올려 잘못된 전례가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의문장무’라는 시호를 추가로 올렸다.

영조의 묘호는 애초 ‘영종(英宗)’이었는데 고종 때 ‘영조(英祖)’로 개묘하였다. 아울러 정조 때 올린 ‘익문선무 희경현효(翼文宣武 熙敬顯孝)’의 시호를 ‘정문선무 희경현효(正文宣武 熙敬顯孝)’로 고쳐 올렸다.

진종은 영조 5년(1729)에 사망하자 ‘효장(孝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후 영조의 유지(遺旨)에 따라 효장세자(孝章世子)를 진종(眞宗)으로 추숭하고, 진종의 시호를 ‘온량예명 철문효장(溫良睿明 哲文孝章)’이라 하였다.

장조(莊祖)는 영조의 둘째 서자로 효장세자의 이복동생이며 정조의 생부이다. 흔히 사도세자(思悼世子) 또는 장헌세자(莊獻世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영조 38년(1762) 뒤주에서 아사한 후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정조 원년(1776) 정조로부터 ‘장헌(莊獻)’이라는 시호를 또 받았다. 이후 광무 3년(1899)에 고종이 ‘장종(莊宗)’이란 묘호와 함께 ‘신문환무 장헌광효(神文桓武 莊獻廣孝)’라는 시호를 추가로 올렸다. 이는 고종 황제가 장조를 왕으로 추숭하려 했던 정조의 소망을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

순조(純祖)의 시호는 묘호를 순종(純宗)에서 순조(純祖)으로 개묘할 때 ‘문안무정 헌경성효(文安武靖 憲敬成孝)’에서 ‘문안무정 영경성효(文安武靖 英敬成孝)’로 바꾸었다. 시호 중 헌경을 영경으로 바꾼 것이다.



문조는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서 태어나 순조 12년(1812)에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불행히도 1830년에 사망하여 ‘효명(孝明)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후 아들인 헌종이 순조의 왕위를 계승하면서 왕으로 추송되었다. 추송묘호(追崇廟號)는 ‘익종(翼宗)’, 시호(諡號)는 ‘돈문현무 인의효명(敦文顯武 仁懿孝明)’으로 정하였다. 익종이라는 묘호는 고종 36년에 문조로 바뀌었다.

<표> 왕 시호 현황

연번	명칭	내용	연도	옥책	어보	비고
1	목조	仁文聖穆	太宗 11년(1411) 辛卯		1	
2	익조	康惠聖翼	太宗 11년(1411) 辛卯		2	
3	도조	恭毅聖度	太宗 11년(1411) 辛卯		3	
4	환조	淵武聖桓	太宗 11년(1411) 辛卯		4	
5	태조	至仁啓運 聖文神武	太宗 8년(1408) 戊子			
6		正義光德	肅宗 9년(1683) 癸亥	1	5	
7	정종	溫仁順孝	世宗 1년(1419) 己亥			
8		懿文莊武/ 定宗	肅宗 7년(1681) 辛酉	4	7	
9	태종	文武光孝/ 太宗	世宗 4년(1422) 壬寅			
10		睿哲成烈	肅宗 9년(1683) 癸亥	5		
11	세종	英文睿武 仁聖明孝/ 世宗	文宗 원년(1450) 庚午		8	
12	문종	欽明仁肅 光文聖孝/ 文宗	端宗 원년(1452) 壬申		9	
13	단종	純定安莊 景順敦孝/ 端宗	肅宗 24년(1698) 戊寅	7		
14	세조	至德隆功 聖神明睿 欽肅仁孝/ 世祖	睿宗 원년(1468) 戊子			
15	덕종	懷簡宣肅 恭賢溫文/ 德宗	成宗 7년(1476) 丙申			
16	예종	欽文聖武 懿仁昭孝/ 睿宗	成宗 1년(1470) 庚寅		10	
17	성종	人文憲武 欽聖恭孝/ 成宗	燕山 1년(1495) 乙卯		12	
18	중종	徽文昭武 欽仁誠孝/ 中宗	仁宗 1년(1545) 乙巳		13	
19	인종	獻文懿武 章肅欽孝/ 仁宗	明宗 원년(1545) 乙巳	8	14	
20	명종	獻毅昭文 光肅敬孝/ 明宗	宣祖 1년(1568) 戊辰		15	
20	선조	顯文毅武 聖睿達孝/ 宣宗	光海 원년(1608) 戊申		17	
22	원종	敬德仁憲 靖穆章孝	仁祖 10년(1632) 壬申		19	
23	인조	憲文烈武 明肅純孝/ 仁祖	孝宗 원년(1649) 己丑	10	20	
24	효종	宣文章武 神聖顯仁/ 孝宗	顯宗 원년(1659) 己亥	13		
25	현종	純文肅武 敬仁彰孝/ 顯宗	肅宗 원년(1674) 甲寅	16		
26	숙종	章文憲武 敬明元孝/ 肅宗	景宗 원년(1720) 庚子	19	24	
27	경종	德文翼武 純仁宣孝/ 景宗	英祖 원년(1724) 甲辰	23	28	

연번	명칭	내용	연도	옥책	어보	비고
28	영조	翼文宣武 熙敬顯孝/ 英宗	正朝 원년(1776) 丙申	28	31	
29		正文宣武 熙敬顯孝/ 英祖	高宗 27년(1890) 庚寅	31	32	
30	진종	溫良睿明 哲文孝章/ 眞宗	正祖 원년(1776) 丙申	33	43	
31	장조	莊獻	正祖 원년(1776) 丙申			
32		神文桓武 莊獻廣孝/ 莊宗	高宗 36년(1899) 己亥	37	46	
33		文成武烈 聖仁莊孝/ 正宗	純祖 원년(1800) 庚申	39	55	
34	순조	文安武靖 憲敬成孝/ 純宗	憲宗 1년(1835) 乙未	44	60	
35		文安武靖 英敬成孝/ 純祖	哲宗 8년(1857) 丁巳	43	61	
36	문조	敦文顯武 仁懿孝明/ 翼宗	憲宗 1년(1835) 乙未	53	71	
37	헌종	經文緯武 明仁哲孝/ 憲宗	哲宗 원년(1849) 己酉	68	88	
38	철종	文顯武成 獻仁英孝/ 哲宗	高宗 1년(1864) 甲子	73	94	
39	고종	文獻武章 仁翼貞孝/ 高宗	純宗 13년(1919) 己未	83	96	
40	순종	文溫武寧 敦仁誠敬/ 純宗	純宗 19년(1926) 丙寅	84	101	

#### 마. 왕후 시호

왕후 시호는 사후에 바로 정하여 금보에 새기고 그 뜻을 옥책에 새겨 올린다. 왕후의 시호는 2글자이며, 왕의 묘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묘호란 왕이 승하한 뒤 종묘 신실에 신위를 모실 때 올리는 명칭을 묘호라 하는데 즉 종묘 신실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불리는 명칭이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이나 영조·정조 등의 명칭인 것이다. 왕비의 시호 또한 가장 많이 불리는 것이 시호인 것이다.

왕후의 시호는 3가지 안을 정하여 올려 그 중 한 가지 안을 정한다. 세종비 소헌왕후의 시호를 정한 내력을 실록에서 찾아본 것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행왕비(大行王妃)의 시호(諡號)를 봉상시(奉常寺)에서 상고하고 의논하여 첩정(牒呈)하였기에, 삼가 갖추어 아뢰옵니다. 소헌(昭憲)은 성문(聖聞)이 주달(周達)한 것이 소(昭)이고, 선(善)을 행하여 기록할 것이 헌(憲)입니다. 효순(孝順)은 덕(德)을 지켜 사곡(邪曲)하지 않은 것이 효(孝)이고, 유연(柔賢) 자혜(慈惠)한 것이 순(順)입니다. 효선(孝宣)은 덕(德)을 지켜 사곡(邪曲)하지 않은 것이 효(孝)이요, 성선(聖善)이 주문(周聞)하는 것이 선(宣)입니다.”하니, 임금이 소헌(昭憲)으로 정하였다.<sup>117)</sup>

3가지 안을 올려 소헌으로 정한 것이다. 다음은 명종비 인순왕후의 시호를 정한 내력이다.

117) 세종실록 112권, 28년(1446 병인) 4월 20일(정사).

예조좌랑(禮曹佐郎)이 의의한 것들을 가져다가 삼공 앞에 올리니, 삼공이 의서단자(議書單子)를 정하여 시호의 수망(首望)에 인순(仁順), 인(仁)은 현자와 친족을 귀히 여김이요 순(順)은 유순하고 어질며 인자하고 은혜로우이다. 차망(次望)에 정혜(貞惠), 큰 사려를 능히 성취하고 너그럽고 인자함이다. 삼망(三望)에 정숙(貞肅) 큰 사려를 능히 성취하고 마음가짐이 바르고 결단성이 있음이다. 으로 정하고, 휘호(徽號)의 삼망(三望)에는 일망(一望)에 선열의성(宣烈懿聖), 이망에 소효현의(昭孝顯懿), 삼망에 소덕의열(昭德懿烈)로 정하고, 혼전(魂殿)의 삼망에는 경모(敬慕), 효의(孝義), 영사(永思)로 정하였다.<sup>118)</sup>

즉 시호를 3망 중 수망(首望)인 인순(仁順)으로, 휘호(徽號) 또한 일망(一望)인 선열의성(宣烈懿聖)으로 결정하였다.

왕비께서 승하할 경우 왕이 살아 계신다면 세종비 소헌왕후처럼 시호만 올린다. 그러나 이미 왕이 승하한 후인 경우에는 명종비 안순왕후처럼 시호와 휘호를 함께 올린다. 앞의 경우는 왕께서 종묘 신실에 부묘하지 않는 경우이고, 안순왕후의 경우는 이미 명종께서 승하하여 종묘 신실에 부묘한 경우이기 때문에 시호와 휘호를 함께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중종비 단경왕후의 경우 3월 28일에 빈청에서는 시호와 휘호를 함께 정하여 올렸다. 그러나 옥책의 제작에 있어서는 시호옥책과 휘호옥책을 각각 따로 제작한 것이 주목된다. 시호는 1일 병오일에 올리고, 휘호는 6일 신해일에 올렸다. 일반적으로는 시호와 휘호를 함께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 상례이다.

아래 표는 시호를 올린 것을 정리한 표이다. 내용에 있어서 시호만 올린 것이 있고 휘호와 시호를 함께 올린 것 두가지 유형으로 표기되었다. 시호만 있는 것은 왕비가 승하하였을 때 왕이 살아계신 경우이고, 휘호와 시호를 함께 표기된 것은 이미 왕이 승하하여 종묘 신실에 부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표> 황후 시호 현황

연번	왕비	휘호/ 시호	연도	옥책	어보	비고
1	목조비 효공왕후	孝恭	太宗 11년(1411) 辛卯		103	
2	익조비 정숙왕후	貞淑	太宗 11년(1411) 辛卯		104	
3	도조비 경순왕후	敬順	太宗 11년(1411) 辛卯		105	
4	환조비 의혜왕후	懿惠	太宗 11년(1411) 辛卯		106	
5	태조비 신의왕후	神懿	太祖 7년(1398) 戊寅			
6	태조계비 신덕왕후	神德	太祖 5년(1396) 丙辰			
7	정종비 정안왕후	定安	太宗 12년(1412) 壬辰			
8	태종비 원경왕후	元敬	世宗 2년(1420) 庚子			
9	세종비 소헌왕후	昭憲	世宗 28년(1446) 丙寅		110	
10	문종비 현덕왕후	顯德	文宗 卽位(1450) 庚午		111	

118) 선조실록 9권, 8년(1575 을해) 1월 10일(경술).

연번	왕비	휘호/ 시호	연도	옥책	어보	비고
11	단종비 정순왕후	端良齊敬/ 定順	肅宗 24년(1698) 戊寅	89		
12	세조비 정희왕후	貞熹	成宗 14년(1483) 癸卯			
13	덕종비 소혜왕후	徽肅明懿/ 昭惠	燕山 10년(1504) 甲子			
14	예종비 장순왕후	章順	世祖 8년(1462) 壬午		116	
15	예종계비 안순왕후	昭徽齊淑/ 安順	燕山 5년(1499) 己未		117	
16	성종비 공혜왕후	恭惠	成宗 5년(1474) 甲午		119	
17	성종계비 정현왕후	昭懿欽淑/ 貞顯	中宗 25년(1530) 庚寅		120	
18	중종비 단경왕후	端敬	英祖 15년(1739) 己未	90		
19	중종계비 장경왕후	章敬	中宗 10년(1515) 乙亥		124	
20	중종계비 문정왕후	文定	明宗 20년(1565) 乙丑		123	
21	인종비 인성왕후	孝順/ 仁聖	宣祖 10년(1577) 丁丑			
22	명종비 인순왕후	宣烈懿聖/ 仁順	宣祖 8년(1575) 乙亥			
23	선조비 의인왕후	懿仁	宣祖 33년(1600) 庚子		128	
24	선조계비 인목왕후	光淑莊定/ 仁穆	仁祖 10년(1632) 壬申		136	
25	원종비 인헌왕후	敬懿貞靖/ 仁獻	仁祖 10년(1632) 壬申		139	
26	인조비 인열왕후	仁烈	仁祖 14년(1636) 丙子	95	140	
27	인조계비 장열왕후	貞肅溫惠/ 莊烈	肅宗 14년(1688) 戊辰	103	143	
28	효종비 인선왕후	敬烈明獻/ 仁宣	顯宗 15년(1674) 甲寅	107		
29	현종비 명성왕후	貞獻文德/ 明聖	肅宗 10년(1684) 甲子	111	150	
30	숙종비 인경왕후	仁敬	肅宗 7년(1681) 辛酉	114	151	
31	숙종계비 인현왕후	仁顯	肅宗 27년(1701) 辛巳	121		
32	숙종계비 인원왕후	定懿章穆/ 仁元	英祖 33년(1757) 丁丑	136	167	
33	경종비 단의왕후	端懿	景宗 2년(1722) 壬寅		178	
34	경종계비 선의왕후	孝仁惠穆/ 宣懿	英祖 6년(1730) 庚戌	145	184	
35	영조비 정성왕후	貞聖	英祖 33년(1757) 丁丑	149	186	
36	영조계비 정순왕후	昭肅靖憲/ 貞純	純祖 5년(1805) 乙丑	166	200	
37	진종비 효순왕후	孝純	英祖 27년(1751) 辛未		214	
38	장조비 헌경왕후	獻敬	純祖 16년(1816) 丙子	172	221	
39	장조비 헌경왕후	仁哲啓聖/ 獻敬	高宗 36년(1899) 己亥	174	217	
40	정조비 효의왕후	睿敬慈粹/ 孝懿	純祖 21년(1821) 辛巳	178	228	
41	순조비 순원왕후	睿成弘定/ 純元	哲宗 8년(1857) 丁巳	190	236	
42	문조비 신정왕후	景勳哲範/ 神貞	高宗 27년(1890) 庚寅	215	248	
43	헌종비 효현왕후	孝顯	憲宗 9년(1843) 癸卯	222	274	
44	헌종계비 효정왕후	慈溫恭安/ 孝定	高宗 41년(1904) 甲辰	238	280	

연번	왕비	휘호/ 시호	연도	옥책	어보	비고
45	철종비 철인황후	敬獻莊穆/ 哲仁	高宗 15년(1878) 戊寅	244		
46	고종비 명성황후	明成	高宗 34년(1897) 丁酉	250	298	
47	순종비 순명황후	純明	高宗 41년(1904) 甲辰	254	307	

## 바. 왕후 휘호

왕과 왕비가 승하한 후 상장례(喪葬禮) 의례과정을 혼전에서 3년의 상기를 마치고 난 뒤 신주를 종묘 신실에 모시는 것을 부묘(祔廟)라 한다. 왕의 경우는 3년의 상기가 끝나는 대로 부묘되었으나 왕후의 경우는 왕이 살아계실 때에는 3년의 상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혼전(魂殿)에 모시다가 왕의 3년 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부묘한다. 즉 왕이 아직 살아계실 때 왕후께서 승하하면 시호(諡號)만 주어진다. 반면 왕께서 이미 승하한 경우에는 왕후의 상기가 3년이 끝나면 시호와 휘호(徽號)를 함께 부여한다.

즉 휘호는 왕비가 승하한 후에 시호와 함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존칭이다. 이 휘호는 왕비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4글자가 정형화 되어 있다. 그리고 휘호는 존호와 달리 한차례만 올린다.

그러나 휘호가 4글자를 기본으로 하는데 2글자를 올린 사례도 있다. 인종비 인성왕후 박씨에게 선조 10년(1577)에 올린 ‘효순(孝順)’이라는 휘호와 선조비 의인왕후에게 광해 2년(1610)에 올린 ‘정헌(貞憲)’이라는 휘호이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휘호를 올린 예는 중종계비 장경왕후로 중종 10년(1515)에 승하하였을 때 ‘숙신명혜(淑愼明惠)’라는 휘호를 올리고, 명종 1년(1546) 부묘할 때 ‘선소의숙(宣昭懿淑)’이란 휘호를 다시 올렸다. 이것은 장경왕후가 상을 당하였을 때 중종이 살아계신다면 초상에 시호만 올리고 부묘할 때에 휘호를 올리는 것인데, 중종 대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장경왕후가 먼저 승하한 경우인데도 초상에 휘호를 올렸다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부묘할 즈음에 또 휘호를 올린 것이다.<sup>119)</sup> 실록에 내력이 적혀 있다.

“대체로 휘호(徽號)는 아마도 사왕(嗣王)이 선후(先后)를 위하여 올리는 것인 듯합니다. 그리고 내상이 먼저 있게 되면 반드시 부묘 때를 기다려서 올리는 것으로 아마 장경왕후 때에는 초상 때에 휘호를 미리 올렸다가 곧 이어 전례가 아님을 깨닫고 정미년 정월에 비로소 ‘선소의숙’이라는 휘호를 올린 것으로 그 일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다만 오늘은 영상과 좌상이 모두 질병으로 오지 못하였으니 신들만으로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sup>120)</sup>

또한 조선 초기에 살아계실 때 올린 존호와 돌아가신 후에 올리는 휘호를 엄격히

119) 김종수, 「규장각 소장 존호 존승 상호도감 의례 해설」, 39쪽.

120) 선조실록 128권, 33년(1600 경자) 8월 21일(신묘).

구분하지 못하여 휘호를 올리지 않은 경우가 있다. 세조비 정희왕후에게 생전에 ‘자성 흙인경덕 선렬명순 원숙 휘신혜의 신헌(慈聖 欽仁景德 宣烈明順 元淑 徽愼 惠懿 神憲)’이라는 18글자의 존호를 올렸다. 그리고 성종 14년(1483)에 승하하자 ‘정희(貞熹)’라는 시호만 올리고 휘호는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중종 2계비 문정왕후 또한 생전에 ‘성렬 인명(聖烈 仁明)’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그리고 명종 20년(1565)에 승하 하였는데 세조비 정희왕후의 예를 따라 ‘문정(文定)’이라는 시호만 올리고 휘호는 올리지 않았다.

다음의 표는 휘호를 올린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휘호와 시호가 함께 표기된 것은 왕비가 승하 할 때 이미 왕께서는 승하하여 3년상을 마치고 종묘에 부묘한 뒤이다. 그래서 휘호와 시호가 함께 수여된 것이다. 반면 시호는 없고 휘호만 있는 것은 아직 왕께서는 승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비만 승하하여 그때 당시 이미 시호를 받았고 왕이 승하한 후 3년상을 마치고 종묘에 부묘할 무렵 왕후의 신주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휘호를 수여한 것이다.

<표> 황후 휘호 현황

연번	왕비	휘호/ 시호	연도	옥책	어보	비고
1	태조계비 신덕왕후	順元顯敬	顯宗 10년(1669) 己酉	86		
2	정종비 정안왕후	溫明莊懿	肅宗 7년(1681) 辛酉	88	109	
3	중종비 단경왕후	恭昭順烈	英祖 15년(1739) 己未	91	122	
4	인조비 인렬왕후	明德貞順	孝宗 2년(1651) 辛卯	97		
5	숙종비 인경왕후	孝莊明顯	景宗 2년(1722) 壬寅	116	154	
6	숙종계비 인현왕후	懿烈貞穆	景宗 2년(1722) 壬寅	125	161	
7	경종비 단의왕후	恭孝定穆	英祖 2년(1726) 丙午	142	180	
8	영조비 정성왕후	端穆章和	正朝 2년(1778) 戊戌	153	193	
9	진종비 효순왕후	徽貞賢淑	正朝 원년(1776) 丙申	169	211	
10	장조비 헌경왕후	仁哲啓聖/ 獻敬	高宗 36년(1899) 己亥	174	217	
11	헌종비 효현황후	敬惠靖順	哲宗 2년(1851) 辛亥	223	275	
12	철종비 철인황후	敬獻莊穆/ 哲仁	高宗 15년(1878) 戊寅	244		

## (2) 재질별 종류

옥책은 옥을 조각내어 5~7개의 옥간을 1폭으로 하여 짝수 폭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이에 사용되는 재질에 대한 내용은 각종 『의궤(儀軌)』 나 『실록(實錄)』에서는 대부분 “남양옥(南陽玉)을 사용한다”라고 산지를 기록하고 있다.

“지문·애책은 남양산(南陽産) 옥에다 써서 광중(壙中)에 들이고, 시책·시보(諡寶)도 남양옥에 써서 종묘에 간직하게 하소서.”<sup>121)</sup>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에 수록된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남양이 어디인지는 필자가 수십 년 조사하여 보았으나 찾지를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기도 화성의 남양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는 지질상 옥이 분포되어 있지 않다. 국립지리원에서 발표한 지질도 등에서도 이곳에는 옥의 분포지역이 아니다. 향후 남양이 어디인지는 좀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옥의 종류에 대해 기록한 것은 『종묘등록(宗廟謄錄)』<sup>122)</sup>이다. 흑옥, 백옥, 청옥 3종의 재질을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곳에 수록된 옥책의 재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흑옥 3책(0.9%), 백옥 52책(15.4%), 청옥 282책(83.7%) 등 모두 337점이다.

흑옥은 태종 11년(1411) 태조의 4대조 왕후들에게 시호를 올린 옥책으로 3책만 기록하고 있다. 목조비 효공왕후 가상시호 옥책, 익조비 정숙왕후 가상시호 옥책, 도조비 경순왕후 가상시호 옥책 등 3책인데 환조비 의혜왕후 가상시호 옥책 또한 같은 날 제작되어 같이 봉안되었는데 왜 흑옥이 아닌 청옥인지는 알 수 없다.

백옥은 대체로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52책이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전하는 유물은 1책도 없다. 제작된 시기를 살펴보면 세종 14년(1432)부터 인조 12년(1634) 사이이다. 이 시기 중 세조 때 만든 세조 옥책 1책(1457)과 정희왕후 옥책 2책(1455, 1457) 등 3책은 청옥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명종 원년에 만든 인종 시책(1545)이 있는데 이 또한 청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영조 대에 새로 제작된 것이다. 그리고 선조 1년에 만든 명종 시책(1568)도 청옥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남아있지 않다. 인조 1년(1623)에 만든 인렬왕후 책봉 옥책 또한 청옥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조선 초기에는 대체로 백옥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것들 중 6책이 청옥으로 만들어졌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때 제작된 6책의 옥책은 책봉 2책, 존호 2책, 시호 2책으로 옥책 내용에 따른 종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52책의 백옥 옥책의 내용별 수량을 보면 책봉 6책, 존호 18책, 묘호 2책, 시호 21책, 휘호 5책이다. 옥책 내용에 따른 종류 구분은 역시 별 의미가 없다.

한편 청옥은 337책 중 282책(67.6%)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소장하고 있는 옥책 모두가 해당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해지는 옥책을 모두 청옥이라고 하나 고종과 순종 대에 제작된 옥책을 재질로 보았을 때는 옥의 일종이라기보다는 대리석에 가까운 재질로 보인다.

121) 연산군일기 2권, 연산 1년 1월 17일 신축.

122) 종묘등록은 조선 및 대한제국기 종묘 및 영녕전의 각실에 봉안된 역대 왕·왕비의 옥책, 금보 교명축 시책 시보 축책, 인 국조보감 등의 연대, 수량, 물품내역 등을 종묘서에서 정리한 기록이다. 이 책은 모두 4책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등록된 번호와 연도를 살펴보면 K2-2212(1783~1908년), K2-2172(1555~1651년), K2-2173(1698년경), K2-2174(1705~1783년)이다.

### 3) 죽책의 개념

죽책은 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을 책봉할 때와 존호 및 시호를 수여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후궁의 시호를 수여할 때에도 죽책을 사용한다.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을 수여한다. 죽책의 형태는 죽간(竹簡) 5~6조각을 책자 형태로 엮어서 해서체(楷書體) 글자를 새기고 니금(泥金)을 하고 변철로 고정하여 둥근 고리와 돌쩌귀로 연결한다. 죽책의 앞뒷면에는 비단으로 회장하여 장식한다. 죽책문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나 문장은 사육변려문(四六駢儷文)을 쓴 것이 다르다. 죽책의 내용은 대개 착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포미권계(褒美勸戒)’ 내용이다.

죽책은 죽간 5~6쪽을 한 폭으로 변철로 엮어 4첩·6첩·8첩·10첩으로 연결한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 첩은 비단으로 장식하였다.

죽책의 첩과 첩을 연결하는 방식은 원환(圓環) 연첩방식과 돌쩌귀[玃迪耳] 연첩방식이 있다. 원환 연첩방식은 둥근 고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이고 돌쩌귀 연첩방식은 양쪽 첩과 첩 사이의 배묵에 못 형태의 둥근 쇠를 넣어 고정시킨 것이다. 현재 전하고 있는 죽책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효종 원년(1649)부터 영조 12년(1736)까지는 원환 연첩방식이다. 영조 20년(1744)에 제작된 장조비 헌경왕후 봉왕세자빈 죽책이 돌쩌귀 연첩방식이었다가 영조 28년(1752)에 제작된 진종비 효순왕후 상시호 죽책에 다시 원환 연첩방식이 나타났다가 이후에는 모두 돌쩌귀 연첩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죽책의 종류

죽책의 제작 형태는 모두 같다. 따라서 죽책을 분류하고자 한다면 내용별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즉 죽책을 수여하는 대상과 의례별로 구분할 수 있다.

죽책을 수여하는 대상은 왕세자·왕세제·왕세손·왕세자빈·왕세제빈·왕세손빈·후궁 등이다. 의례별로는 저위 책봉(儲位 冊封), 빈궁 책봉(嬪宮 冊封), 존호(尊號), 시호(諡號) 등이다. 특히 왕세자와 왕세자빈 등을 책봉할 때에는 인(印)과 교명과 죽책을 함께 수여한다.

『문원보불(文苑繡黻)』이나, 『종묘등록(宗廟謄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문헌을 종합한 결과 76건의 죽책이 제작되고 수여되었다. 이 중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병인양요 등으로 일부 손실되고 현재 전하는 죽책은 43책이다.



<표> 죽책 내용별 수량

연번	내용	수량	비율(%)	비고
1	저위 책봉	12	35.3	
	왕세자 책봉	(8)		현종, 숙종, 경종, 진종, 장조, 순조, 문조, 순종
	왕세제 책봉	(1)		영조
	왕세손 책봉	(3)		현종, 정조, 헌종
2	빈궁 책봉	10	29.4	
	왕세자빈 책봉	(8)		명성왕후, 인경왕후, 단의왕후, 선의왕후, 효순왕후, 헌경왕후, 신정왕후, 순명왕후
	왕세제빈 책봉	(1)		정성왕후
	왕세손빈 책봉	(1)		효의왕후
3	존호	5	14.7	
	왕세자 존호	(2)		장조
	왕세자빈 존호	(3)		헌경왕후
4	시호	5	14.7	
	왕세자 시호	(3)		효장세자(진종), 장헌세자(장조), 효명세자(문조)
	왕세자빈 시호	(2)		단의왕후, 효순왕후
5	기타	2	5.9	
	가호	(2)		진종(가호), 효순왕후(가호),
소계		34	100	

저위 책봉 죽책은 왕세손 책봉 죽책이 3책, 왕세제 책봉 죽책이 1책, 왕세자 책봉 죽책은 8책 등 모두 12책이 전한다. 『문원보불(文苑繡黻)』이나 『종묘등록(宗廟謄錄)』 등의 문헌에는 모두 25책의 죽책이 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1645년 이전 죽책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표> 저위 책봉 죽책

연번	발급	명칭	제술관	간지	서기	유물번호	비고
1	인조	현종왕세손책봉죽책	조정	인조 기축	1649	258	왕세손
2	효종	현종왕세자책봉죽책	이일상	효종 신묘	1651	259	
3	현종	숙종왕세자책봉죽책	김수항	현종 정미	1667	260	
4	숙종	경종왕세자책봉죽책	민암	숙종 경오	1690	261	
5	경종	영조왕세제책봉죽책	이관명	경종 신축	1721	262	왕세제
6	영조	진종왕세자책봉죽책	이의현	영조 을사	1725	263	
7	영조	장조왕세자책봉죽책	윤순	영조 병진	1736	266	
8	영조	정조왕세손책봉죽책	김양택	영조 기묘	1759	270	왕세손
9	정조	순조왕세자책봉죽책	이병모	정조 경신	1800	271	
10	순조	문조왕세자책봉죽책	남공철	순조 임신	1812	272	
11	순조	헌종왕세손책봉죽책	남공철	순조 경인	1830	274	왕세손
12	고종	순종왕세자책봉죽책	이유원	고종 을미	1875	275	

빈궁 책봉 죽책 중 왕세손빈 책봉 죽책 1책, 왕세제빈 책봉 죽책 1책, 왕세자빈 책봉 죽책 8책 등 모두 10책이 전한다. 문헌에 수록된 죽책은 모두 19책이다. 인조 이전에 제작된 죽책은 모두 손실 되었고 그 이후 것만 남아 있다. 이 중 신정 왕후 죽책은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병인양요 때 약탈당했다가 2017년 프랑스 옥션에서 구입하였다.

<표> 빈궁 책봉 죽책

연번	발급	명칭	제술관	간지	서기	유물번호	비고
1	효종	명성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오준	효종 신묘	1651	276	
2	현종	인경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강백년	현종 신해	1671	277	
3	숙종	단의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최석정	숙종 병자	1696	278	
4	숙종	선의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민진후	숙종 무술	1718	280	
5	경종	정성왕후왕세제빈책봉죽책	홍계적	경종 신축	1721	281	왕세제빈
6	영조	효순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윤순	영조 정미	1727	282	
7	영조	헌경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이덕수	영조 갑자	1744	285	
8	영조	효의왕후왕세손빈책봉죽책	김양택	영조 임오	1762	290	왕세손빈
9	순조	신정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남공철	순조 기묘	1819		환수
10	고종	순명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김상현	고종 임오	1882	292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 존호를 수여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러나 장조와 그의 비인 헌경왕후의 죽책이 5책 전한다. 장조에게는 ‘수덕돈경(綏德敦慶)’과 ‘홍인경지(弘仁景祉)’라는 존호를 올렸고, 헌경왕후에게는 ‘효강(孝康)’, ‘자희(慈禧)’, ‘정선(貞宣)’ 등 3차례에 걸쳐 존호를 올리고 죽책을 제작하였다.

<표> 왕세자 존호 죽책

연번	발급	명칭	내용	제술관	간지	서기	유물번호	비고
1	정조	장조추상존호죽책	수덕돈경	황경원	정조 계묘	1783	268	
2	정조	장조추상존호죽책	홍인경지	이복원	정조 갑진	1784	269	

<표> 왕세자빈 존호 죽책

연번	발급	명칭	내용	제술관	간지	서기	유물번호	비고
1	정조	헌경왕후상존호죽책	효강	이휘지	정조 무술	1778	287	
2	정조	헌경왕후가상존호죽책	자희	이복원	정조 계묘	1783	288	
3	정조	헌경왕후가상존호죽책	정선	황경원	정조 갑진	1784	289	

왕세자에게 시호를 내리는 경우는 왕세자의 신분으로 죽었을 때이며, 그 시호를 죽책에 기록하였다. 모두 7차례에 걸쳐 죽책이 수여되었는데 전하는 것은 5책이며 지정대상은 3책 뿐이다.

<표> 왕세자 시호 죽책

연번	발급	명칭	내용	재술관	간지	서기	유물번호	비고
1	영조	효장세자상시호죽책	효장		영조 을유	1729	264	진중
2	정조	장헌세자상시호죽책	장헌	황경원	정조 병신	1776	267	장조
3	순조	효명세자상시호죽책	효명	김리교	순조 경인	1830	273	문조

왕세자빈 시호 죽책은 11책이 제작되었으나 전하는 것은 2책 뿐이다. 숙종 이전의 것은 전란 중에 소실되었다.

경종비 단의왕후는 경종 즉위 2년 전인 1718년에 돌연사 하였다. 왕세자인 경종이 손수 지문(誌文)을 지었고, 숙종이 죽음을 비통해하며 단의(端懿)라는 시호를 추서하고 단의빈으로 삼았다. 1720년 경종이 즉위하자 단의왕후로 추봉하였다. 이 죽책은 왕세자빈의 신분으로 시호를 받았기에 죽책에 기록한 것이다.

효순왕후(1715~1751)는 1727년(영조 3) 세자빈에 책봉되고, 1735년 현빈(賢嬪) 칭호를 받았다. 1751년(영조 27) 37세의 나이로 창경궁 의춘헌(宜春軒)에서 세상을 떠났고, 1752년 효순(孝純)으로 추증되고, 1776년(정조 즉위) 왕후로 추존되었다

<표> 왕세자빈 시호 죽책

연번	발급	명칭	내용	재술관	간지	서기	유물번호	비고
1	숙종	단의왕후상시호죽책	단의	송상기	숙종 무술	1718	279	
2	영조	효순왕후상시호죽책	효순		영조 임신	1752	283	

1776년(영조 52) 진중에게 ‘승통(承統)’이라는 호칭을 가호(加號)하면서 제작한 죽책이다.

‘승통(承統)’이라는 가호 내용은 그에게 양자로 입적된 정조가 세손으로서 대리 청정을 하여 종묘사직을 부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아비에게 ‘승통’이라는 칭호를 추가한다고 하였다.

이때 진중비 효순왕후에게도 ‘승통(承統)’이라는 호칭을 가호(加號)하면서 죽책을 제작하였다.

<표> 기타 죽책

연번	발급	명칭	재술관	간지	서기	유물번호	비고
1	영조	진중추가승통세자죽책	이휘지	영조 병신	1776	265	
2	영조	효순왕후추가승통세자빈죽책	서명응	영조 병신	1776	284	

## 5) 금책의 개념

황실에서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 등을 책봉할 때 금편(金片)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를 금책이라 한다.

조선시대에는 왕비 책봉 시에는 옥책을 수여하고, 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 책봉 시에는 죽책을 수여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대한제국 선포 후인 1897년 황제를 칭하면서 승하한 왕비를 황후로 추봉하고, 왕세자 책(척, 순종)을 황태자로, 왕세자빈 민씨를 황태자비로 책봉하면서 금책(金冊)을 수여하였다. 이때 제작된 것이 3점이다.

금책은 두 개의 금편에 글을 새기고, 붉은색 끈으로 두 곳을 엮어 책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형태이다. 금책의 폭수는 문장 내용에 관계 없이 2개 금편으로만 제작된다. 1개 금편의 행수는 5~7행, 1개 행의 글자 수는 15~25자이다.

금책문의 내용은 책봉의 배경, 인물의 인적 사항과 평가인데 주로 칭송하는 내용, 책봉 선언한 뒤 당부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 6) 금책의 종류

금책은 책봉에만 사용되었다.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금책은 모두 16건이다. 그리고 현재 남아 전하는 것은 7건이며 보물 지정 대상은 3건이다.

고종비 명성왕후추봉황후 금책(1897), 순종비 순정효황후책봉 금책(1907) 등 2건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순종 황태자책봉 금책(1897)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표> 금책 현황

연번	명칭	보문	연도	재질,紐	어보	금책	항, 행, 글자수
1	고종비 명성왕후 추봉황후 금책	皇后之寶	1897(광무 1) 9월 17일	금보 용紐	299	291	19항, 7행, 185자
2	순종 황태자책봉 금책	皇太子寶	1897(광무 1) 9월 17일	금보 용紐	○	9237	17항, 5행, 139자
3	순종비 순정효황후 황후책봉 금책	皇后之寶	1907(융희 1) 7월 23일	금보 용紐	○	369	25항, 7행, 257자

## 3. 교명

### 1) 교명의 개념

교명(敎命)은 왕의 전선(傳禪)<sup>123</sup>이나 왕세자 관례(冠禮),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王世弟)·왕세제빈·왕세손(王世孫)·왕세손빈·후궁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이다.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보(冊寶: 玉冊과 金寶)를 수여하고,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冊印: 竹冊과 玉印)을 수여한다.

교명은 옥축(玉軸)에 비단으로 감싸서 만든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홍색, 황색, 남색, 백색, 흑색 등 오색 비단에 먹으로 해서체(楷書體) 글자를 필사한 것

123) 임금이 살아계실 때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는 것. 내선, 선양, 전수, 전위라고도 한다. 태조, 태종, 세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 교명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이다. 교명의 시작 부분에는 용 두 마리가 오르내리는 승강룡(昇降龍) 사이에 교명(敎命)이라는 전서체 글자를 직조하여 넣는다. 교명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나, 교명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국새를 날인하는데, ‘조선왕보(朝鮮王寶)’를 날인한 것도 있다.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명에 글을 쓸 때에는 대두법(擡頭法)이라 하여 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 등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를 높여 경의를 표하기 위해 줄을 바꾸어 다른 줄 맨 위로 올려 적거나 글의 중간을 띄어 쓰는 형식을 사용한다. 글자를 배정할 때에는 극항(極行)이라 하여 글줄의 최상단부터 글을 적어 10글자<sup>124)</sup>, 중항(中行)은 글줄의 중간 형태로 한 줄에 9글자, 그리고 평항(平行)은 글줄이 같은 높이를 말하는데, 한 줄에 8글자가 들어간다.

이와 같은 구분을 두어 뜻과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형식은 유교 국가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정통성과 위계를 표현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체는 교명과 옥책, 죽책 등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며 오늘날의 글에서는 이를 표현하기는 어렵다.

교명문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고 문장은 사륙변려문(四六駢儷文)의 형식이다. 교서는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훈유서(訓諭書)·선포문(宣布文)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교서의 서식은 기두(起頭)가 “왕약왈(王若曰)”로 시작하고, 마지막 결사(結辭)는 “고자교시(故茲敎示) 상의지실(想宜知悉)”<sup>125)</sup>로 마무리된다.

교명에는 의례를 행하면서 수여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 교명의 경우 날짜를 본문의 맨 마지막 폭인 검은 바탕의 승강룡 사이에 쓴다. 날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간지(년)+모월+모일’이고 또 하나는 ‘칭 연호(순치, 강희)+모년+모월+모일’이다.

일반적으로 교명문에는 연호를 쓰지 않고 연월일만 쓰게 한 것인데, 숙종 때의 기록을 참고해 볼 만하다.

“무릇 국가의 길흉(吉凶) 문서에 병자년(인조 14년, 1638) 이전에는 반드시 명(明)나라 연호(年號)를 썼으니, 여기에는 뜻을 둔 바 있었다. 그리고 옥책문(玉冊文)은 단지 연월(年月)만 쓰고 교명문(敎命文)에는 연호를 갖추어 썼다. 옥책과 교명이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혹은 연호를 쓰고 혹은 연호를 쓰지 않았으니,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모르겠다. 도감(都監)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니, 도감에서 아뢰기를, “등록(謄錄)을 취하여 상고해 보건대, 신묘년 왕비를 책봉(冊封)할 때에 죽책문(竹冊文)을 써서 드렸더니, 머리말에 온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하교(下敎)가 있었으므로, 도감에서 복계(覆啓)하여 ‘유세차 신묘(維歲次 辛卯)’로 쓰라는 뜻으로 정탈(定奪)하였으나, 교명문에는 연호를 갖추어 썼는지의 여부는 품정(稟定)한 일이

124) 효종비 인선왕후 봉왕세자빈 교명의 극항은 9자, 순조비 순원왕후 봉왕비 교명과 현종비 효현왕후 봉왕비 교명은 11자, 고종비 명성왕후 봉왕비 교명은 12자이다.

125) 그래서 교시(敎示)하노니, 자세히 알 것이라 생각하노라.

없었습니다. 이로써 살펴본다면, 책문에 연호를 쓰지 않은 것이 신묘년으로부터 시작되어, 교명문에 쓴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이 여기에서 연유된 듯하고, 이외에는 달리 상고할 문헌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교명문은 다만 연월일(年月日)만 쓰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sup>126)</sup>

이때부터 교명에는 연월일(年月日)만 쓰도록 하였다.

교명의 다섯 번째 폭 본문이 끝나면 국새인 ‘시명지보(施命之寶)’를 날인한다.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왕의 문서에 사용하는 국새인데, ‘시명(施命)’은 『주역(周易)』의 구괘(姤卦)에서 따온 말로, “바람이 하늘 아래 두루 다니는 것과 같이 군주(君主)가 상(象)을 두루 관찰하여 명령을 베풀어서 사방을 교화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교명 또한 국왕의 문서이므로 일반적으로 ‘시명지보’를 날인하였다. 숙종실록의 내용을 보면

“세자빈(世子嬪)을 책봉(冊封)할 때의 교명(敎命)은 마땅히 병자년(1696년, 숙종 22)의 전례에 의거하여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사용하도록 하소서.”<sup>127)</sup> 하였다.

그런데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아닌 ‘조선왕보(朝鮮王寶)가 날인 된 교명이 3점 있다. 의소세손 왕세손책봉 교명(영조 신미년, 1751)과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책봉 교명(영조 기묘년, 1759),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고종 을해년, 1875)이다. 1744년(영조 20년) 12월 24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사에 고 한다.

“태조 때의 인물인 강순룡(康舜龍)의 후손 강치경(康致卿)이 태조의 어필로 쓰인 교지(敎旨)를 영조에게 올리니 왕께서는 지금은 교지에 모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사용하는데, 태조 때의 교지에 날인된 조선왕보를 보았으니 앞으로는 교명(敎命)과 왕후·왕세자의 책례(冊禮) 때에는 조선왕보를 사용하여야 하겠다고 상방(尙方)에 명하여 이를 주조해서 바치게 하였다”<sup>128)</sup>

교명은 두루마리인 권자본(卷子本) 형태이다. 두루마리 가운데는 옥축(玉軸)을 놓고 전체적으로는 가로로 된 비단으로 꾸며져 있다. 이 비단에는 교명이라는 전서체의 글씨와 용과 봉황문을 직조하였고 교명문을 먹으로 썼다. 이 교명은 중국 황제가 제후국의 국왕을 인준(認准)하는 문서인 고명(誥命)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우선 교명의 핵심이라고 할 비단은 다섯 가지 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 바탕은 홍색, 둘째 바탕은 황색, 셋째 바탕은 남색, 넷째 바탕은 백색, 다섯째 바탕은 흑색이다. 첫 번째 홍색 바탕에는 전서체로 ‘교명(敎命)’이라는 글자와 승강룡을 직조하였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 흑색바탕에도 승강룡을 직조하였다.

126) 숙종실록 37권, 숙종 28년 9월 15일 계해.

127) 숙종실록 62권, 숙종 44년 윤8월 2일 정미.

128)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12월 24일 정묘.

맨 앞면과 뒷면은 침향운문단(沈香雲紋緞)<sup>129)</sup>이고, 위아래 가장자리의 회장은 남운문단(藍雲紋緞)이다. 그리고 맨 앞면 뒤에 배접한 것은 오색후수단(五色後垂緞)<sup>130)</sup>이고 전체적으로 뒷면을 배접한 것은 모변지(毛邊紙)<sup>131)</sup> 및 박백지(薄白紙)<sup>132)</sup>이다.

## 2) 교명의 세부 명칭

### (1) 옥축(玉軸)

횡축(橫軸) 또는 횡목(橫木)이라고도 한다. 교명을 만들 때 맨 왼쪽편 끝에 비단을 감싸 두루마리 형태로 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안쪽 가운데는 나무<sup>133)</sup>로 둥글게 만들고 아래 위 끝부분은 옥으로 만든다.

### (2) 변죽(邊竹)

교명을 펼쳤을 때 맨 왼쪽 끝에는 옥축이 자리하고 맨 오른쪽에는 변죽이 자리한다. 변죽에는 명칭과 달리 대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산유자(山柚子), 오동(梧桐) 나무, 추목(楸木) 등의 나무가 사용된다.<sup>134)</sup> 변죽은 옥축과 달리 반원 모양의 형태이다. 반원의 평평한 면은 교명의 안쪽이고 반원 형태는 밖이다. 이곳에 거물정으로 영자를 부착한다.

### (3) 거물정(巨勿釘)

거물못이라고도 하며, 변죽과 영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변죽에 ㄷ자 모양의 거물정을 박고 영자를 거물정에 걸어 연결한다.

### (4) 영자(纓子), 대자(帶子)

두루마리 형태의 교명을 감아서 고정시키는 띠이다. 영자의 한쪽 끝은 변죽에 연결되고 한쪽 끝은 운두첨자를 단다.

### (5) 운두첨자(雲頭簪子)

메뚜기라고도 한다. 연황동으로 만들며 도금을 한다. 형태는 비녀와 비슷하며 한쪽 끝은 뾰족하고 다른 한쪽 끝은 구름모양이다. 영자의 끝에 달려 두루마리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129) 검푸른 빛깔에 구름 무늬를 놓은 비단.

130) 오색으로 된 비단. 영조비 정순왕후부터 오색후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31) 종이의 한 종류.

132) 얇은 백지.

133) 의궤에는 산유자(山柚子)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134) 손계영, 「교명의 형태 연구」, 114쪽 주21) 참조.

### 3) 교명의 종류

교명의 제작 형태는 모두 같다. 따라서 교명을 분류하고자 한다면 내용별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즉 교명은 수여하는 대상과 의례별로 구분할 수 있다.

교명을 수여하는 대상은 왕비·왕세자·왕세제·왕세손·왕세자빈·왕세제빈·왕세손빈·후궁 등이다. 의례별로는 전선(傳禫), 저위 관례(儲位 冠禮)<sup>135)</sup>, 곤전 책봉(壺殿 冊封)<sup>136)</sup>, 저위 책봉(儲位 冊封)<sup>137)</sup>, 빈궁 책봉(嬪宮 冊封)<sup>138)</sup>, 후궁 봉빈(後宮 封嬪)<sup>139)</sup> 등이다.

『문원보불(文苑繡黻)』이나, 『종묘등록(宗廟謄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문헌을 종합한 결과 77건의 교명이 제작되고 수여되었다. 이 중에는 폐위로 인하여 과기된 교명도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병인양요 등으로 일부 손실되고 지정 대상 교명은 29점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 28점, 국립중앙박물관에 1점 등이 소장되어 있다.

<표> 교명 내용별 수량

연번	내용	수량	비율(%)	비고
1	곤전 책봉	11	37.9	장렬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단의왕후, 선의왕후, 정성왕후, 정순왕후, 효의왕후, 순원왕후, 효현왕후, 명성왕후
2	저위 책봉	10	34.5	
	왕세손 책봉	(2)		정조, 헌종
	왕세제 책봉	(1)		영조
	왕세자 책봉	(7)		현종, 경종, 진종, 장조, 순조, 문조, 순종
3	빈궁 책봉	8	27.6	
	왕세손빈 책봉	(1)		효의왕후
	왕세자빈 책봉	(7)		헌경왕후, 인선왕후, 명성왕후, 인경왕후, 단의왕후, 선의왕후, 효순왕후
소계		29	100	

곤전 책봉은 왕비의 책봉을 말하며, 『문원보불(文苑繡黻)』과 『종묘등록(宗廟謄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에 전하는 내용을 보면 28건인데 유물로 전하고 있는 것은 11건이다.

왕비를 책봉하면서 거행하는 의식은 ‘책비(冊妃)’라 하는데, 별궁에서 거행된다. 이 의례에서 왕은 왕비 책봉을 위해 교명·옥책·어보·명복(命服) 등을 보내고, 왕비는 별궁에서 적의(翟衣)를 입고 왕의 책봉문을 받는다.

135) 왕세자의 관례.

136) 왕비 책봉.

137)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 책봉.

138) 왕세자빈, 왕세제빈, 왕세손빈 책봉.

139) 후궁을 빈으로 책봉.



<표> 왕비 책봉 교명

연번	발급	명칭	제술관	간지	서기	유물번호	비고
1	인조	장렬왕후왕비책봉교명	이경석	인조 무인	1638	303	
2	숙종	인현왕후왕비복위교명	이여	숙종 갑술	1694	307	
3	숙종	인원왕후왕비책봉교명	이여	숙종 임오	1702	308	
4	경종	단의왕후추봉왕비교명	이사상	경종 임인	1722	310	
5	경종	선의왕후왕비책봉교명	이조	경종 임인	1722	312	
6	영조	정성왕후왕비책봉교명	이의현	영조 병오	1726	313	
7	영조	정순왕후왕비책봉교명	김양택	영조 기묘	1759	314	
8	정조	효의왕후왕비책봉교명	황경원	정조 무술	1778	318	
9	순조	순원왕후왕비책봉교명	이병모	순조 임술	1802	319	
10	헌종	효현왕후왕비책봉교명	조인영	헌종 정유	1837	320	
11	고종	명성왕후왕비책봉교명	김병학	고종 병인	1866	321	

저위 책봉은 왕세자·왕세제·왕세손 등을 책봉하는 것을 말한다. 『문원보불(文苑繡黻)』과 『종묘등록(宗廟謄錄)』 등을 보면 24건이 전하는데 유물로 전하고 있는 것은 11건이다. 이 중 왕세손 책봉은 5건 중 3점, 왕세제 책봉은 1건 중 1건, 왕세자 책봉은 18건 중 7점이 전한다.

<표> 저위 책봉 교명

연번	발급	명칭	제술관	간지	서기	유물번호	비고
1	효종	현종봉왕세자교명	김익희	효종 신묘	1651	294	
2	숙종	경종봉왕세자교명	류명천	숙종 경오	1690	295	
3	경종	영조봉왕세제교명	송상기	경종 신축	1721	296	왕세제
4	영조	진종봉왕세자교명	김재로	영조 을사	1725	297	
5	영조	장조봉왕세자교명	송인명	영조 병진	1736	298	
6	영조	정조봉왕세손교명	이천보	영조 기묘	1759	299	왕세손
7	정조	순조봉왕세자교명	홍량호	정조 경신	1800	300	
8	순조	문조봉왕세자교명	김조순	순조 임신	1812	301	
9	순조	현종봉왕세손교명	김이교	순조 경인	1830	302	왕세손
10	고종	순종봉왕세자교명		고종 을해	1875	중박	

빈궁 책봉은 왕세자빈·왕세제빈·왕세손빈 책봉을 말한다. 『문원보불(文苑繡黻)』과 『종묘등록(宗廟謄錄)』 등에 전하는 내용을 보면 14건이 전하는데 유물로 전하고 있는 것은 8건이다. 이 중 왕세손빈 책봉은 1건 중 1점, 왕세제빈 책봉은 1건 중 0건, 왕세자빈 책봉은 9건 중 7점이 전한다.

<표> 빈궁 책봉 교명

연번	발급	명칭	제술관	간지	서기	유물번호	비고
1	인조	인선왕후봉왕세자빈교명	김광옥	인조 을유	1645	304	
2	효종	명성왕후봉왕세자빈교명	조석윤	효종 신묘	1651	305	
3	현종	인경왕후봉왕세자빈교명	김수항	현종 신해	1671	306	
4	숙종	단의왕후봉왕세자빈교명	이여	숙종 병자	1696	309	
5	숙종	선의왕후봉왕세자빈교명	송상기	숙종 무술	1718	311	
6	영조	효순왕후봉왕세자빈교명	강현	영조 정미	1727	315	
7	영조	헌경왕후봉왕세자빈교명	송인명	영조 갑자	1744	316	
8	영조	효의왕후봉왕세손빈교명	정휘량	영조 임오	1762	317	왕세손빈

### Ⅲ. 공예

#### 1. 어보의 제작과 장인

어보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왕비, 왕세자(王世子), 왕세자빈(王世子嬪) 등을 책봉(冊封)하거나 왕과 왕비, 상왕(上王),王大妃(王大妃), 대왕대비(大王大妃) 등에게 존호(尊號), 시호(諡號), 묘호(廟號), 휘호(徽號) 등을 올릴 때 옥이나 금속에 그 호칭을 새겨 수여하는 의례용 인장을 말한다. 이러한 어보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및 『조선왕실의례』 등의 기록을 통해 491과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331과가 전해지고 있다. 어보는 이것을 담고 싸서 봉안하는 부속물로서 보통(寶筒)과 보록(寶盞) 및 호갑(護匣) 등과 함께 각종 보자기나 끈 등도 함께 제작된 조선왕실공예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보를 제작한 재료는 금, 은, 백철, 옥 등이 있다.

#### 1) 옥인과 옥보

##### (1) 옥인과 옥보의 종류

조선왕실에서 옥으로 만든 도장은 옥인과 옥보로 구분한다. 옥인은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책봉하거나 존호를 올리거나 사후에 시호를 올릴 때 제작한다. 옥보는 왕과 왕비에게만 올릴 수 있는데, 생전의 왕이나 왕비에게 존호를 올릴 때 제작하여 사용하는 어보이다. 어보의 보문은 왕실 인사의 명칭 및 호칭과 큰 관련이 있다.

구분	왕세자	왕세자빈	왕		왕비		후궁	비고
			생전	사후	생전	사후		
책봉	玉印	玉印	-	-	金寶	-	-	
존호	玉印	玉印	玉寶	金寶	玉寶	金寶	-	
시호	玉印	玉印	-	金寶	-	金寶	金, 銀印	
묘호	-	-	-	金寶	-	-	-	
휘호	-	-	-	-	-	金寶	-	

##### (2) 옥인의 형식과 체제

국왕이 왕세자나 왕세자빈, 왕세제나 왕세제빈, 왕세손이나 왕세손빈을 책봉할 때 교명과 죽책과 함께 제작하여 내리는 것이 옥인이다. 예컨대 왕세자[빈]를 책봉하기

위한 책례의식을 거행할 때에도 교명과 죽책 및 옥인의 순서로 들어오고, 책례도감의 도제조 이하가 궁궐의 정전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승지가 교명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책봉을 받을 때 승지가 죽책을 읽고 나서 교명과 죽책 및 옥인을 왕세자 등에게 전하여 준다. 이것은 왕세손[빈]이나 왕세제[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왕세자[빈]의 책봉 때 사용된 옥인은 생시에는 동궁에 모시며 행행시 왕세자와 함께 이동하고, 왕세자의 사후에는 魂宮에 모셨다가 別廟[경모궁]에 모시고, 국왕으로 추존되면 종묘에 모셔지게 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제작한 옥인 중 현존하는 것은 총37과인데, 그중 왕세자책봉과 관련된 옥인은 ‘현종왕세자지인’을 비롯한 9과, 왕세자빈의 옥인은 숙종비 인경왕후의 ‘왕세자빈지인’을 비롯한 6과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옥인의 글자는 왕세자의 것은 ‘왕세자(王世子印)’이라고 전문(篆文)으로 새겼으며, 왕세자빈의 경우 ‘왕세손빈지인(王世孫嬪之印), 왕세손의 경우 ‘왕세손인(王世孫印)’이라고 전문으로 써서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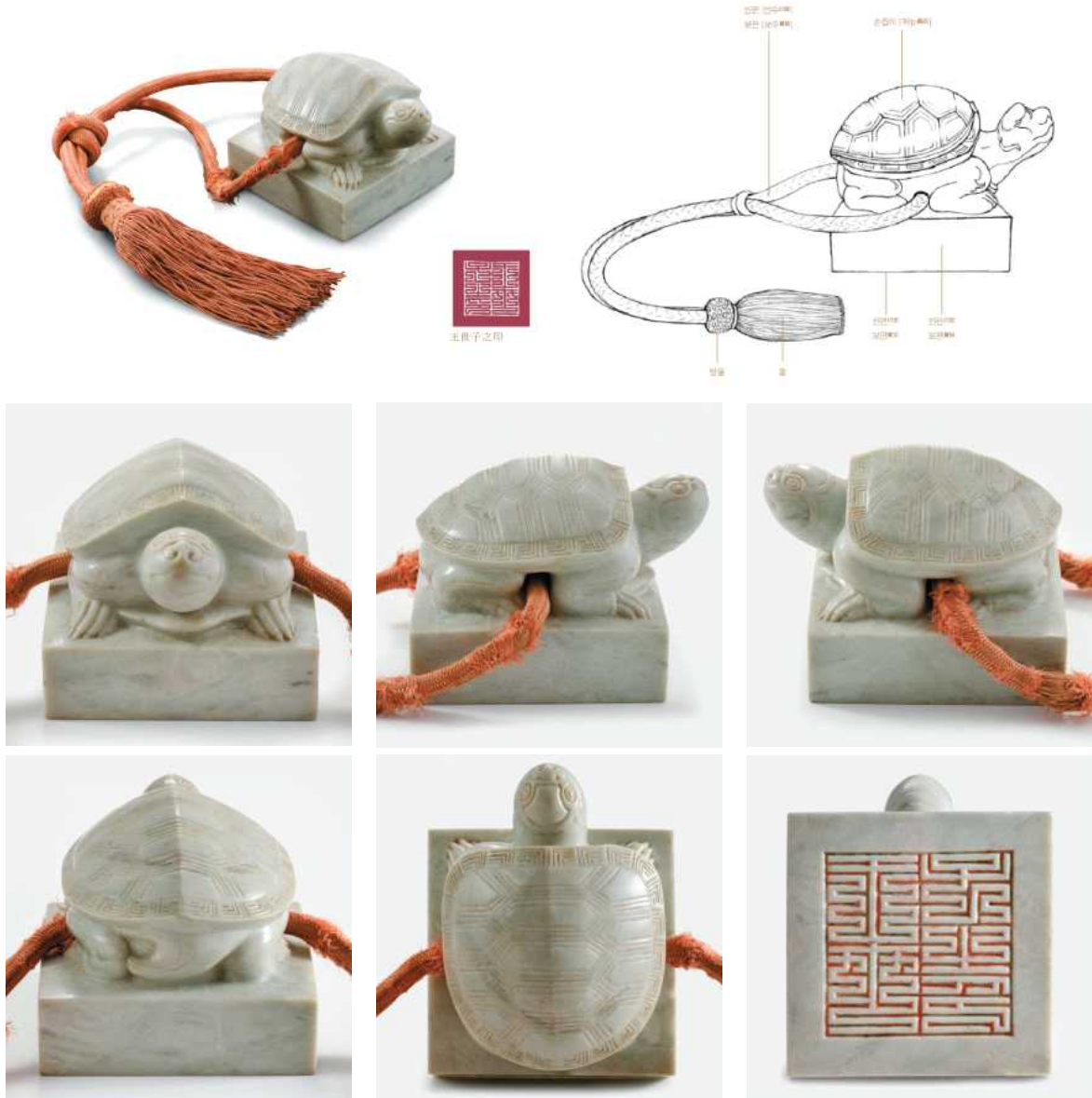
17세기에 玉印은 책례도감 2방에서 관장하였으며, 반드시 見樣에 따라 만들었다. 1621년 책례도감에 의하면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책봉 때에는 대내에 소장하고 있는 옥인을 승정원에 내렸고, 장인들로 하여금 견양에 따라 제작토록 하였다. 1645년 효종 왕세자의 옥인을 만들 때에는 기존에 있던 옥인을 견양으로서 참고 하는데, 당시에는 혼궁도감에 있는 것을 내어 책봉시의 견양으로 삼았다. 1621년 책례도감에서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옥인으로 사용할 옥 재료는 남양의 옥을 선택 하였다. 1645년에도 옥인을 만들 재료는 남양옥 1괴이고, 백납 5돈이다.

왕세자 옥인은 전례에 따라 견양대로 제작하기 때문에 크기가 정해져 있었다. 1645년 효종 왕세자나 1651년 현종 왕세자나 왕세자의 옥인은 모두 예기척을 사용해서 사방 3치 6푼, 두께는 8푼 5리, 거북이의 높이는 2치 1푼, 거북이 손잡이 길이는 1치 1푼이었다.

1648년 인조가 현종 왕세손을 책봉할 때 왕세손의 옥인은 왕세자의 옥인보다 크기를 줄여서 제작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왕세자의 옥인은 사방 3치 6푼이었는데, 왕세손의 것은 거기서 2푼을 감하여 3치 4푼으로 하였다. 왕세자 옥인의 두께는 8푼 5리였고, 왕세손의 것은 5리를 감하여 8푼으로 했다. 왕세자의 거북이의 높이는 2치 1푼이었는데, 왕세손의 것은 여기에서 1푼을 덜어내어 2치로 했다. 거북이 손잡이[龜鈕]의 길이는 1치 1푼에서 1푼을 제하여 1치로 했다. 거북이의 길이는 왕세자의 것이 4치 6푼였는데, 왕세손의 것은 거기에서 2푼을 감한 것이다. 이처럼 왕세손 옥인의 체제는 왕세자 옥인과 체제는 같으나 크기나 규모가 작고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옥인의 印綬는 홍진사로 만든 영자인데 길이 2자, 속감은 홍향사이고, 綬兒는 5치이다. 이것을 쌀 대홍대단 솜보자기는 7치이고, 소는 풀솜을 넣는다. 보자기의

자적초 끈은 길이 2자에 나비 1치이며 포백척이다. 전문을 쓸 서사관용으로 족제비붓 1자루, 진먹 1정, 초주지 1장, 황밀납 1냥 2돈, 탄 10두이다. 인수용으로는 홍진사 2냥 8돈 2푼, 소감으로 홍향사 8돈 2푼, 보자기감으로 다홍대단 2자, 풀솜 8돈, 삭감으로 금전지 2장, 남진사 1돈, 께맬 홍진사 4푼이다. 자적초 2자 4치 5푼이고 께맬 남진사를 들었다.



<현종왕세자책봉옥인, 1651, 옥, 비단, 10.3×9.0cm, 2017년 환수>

예를 들어 <현종왕세자책봉옥인>은 1651년 조선 제18대 임금 현종(1641~1674년, 재위 1659~1674년)을 왕세자에 책봉하면서 만든 어보이다. 왕세자를 책봉할 때에는 옥으로 만든 옥인과 교명 및 죽책을 함께 제작한다. 이 옥인의 인면에는 ‘왕세자인(王世子印)’의 네 글자를 새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종어보에는 ‘왕세자지인(王世子之印)’의 다섯 글자를 구첩전(九疊篆)의 서체로 새겼다. 재질은 남양옥

이고 손잡이는 거북 모양[龜鈕]이며 붉은 다회 매듭끈으로 인수(印綬)를 만들어 걸었다.

연도	대상		도감	옥인 현존	전문 서사관	옥인전문 보획화원	소장번호	도감의뢰
1645	왕세자빈	인선왕후	책례	○	金光炫	-	-	규13062
1651	왕세자	현종	책례	○	呂爾徵	-	고박2844	규13071
1667	왕세자	숙종	책례	○	洪錫龜	-	고박27	규13076
1671	왕세자빈	인경왕후	가례	○	李正英	-	고박158	규13078
1690	왕세자	경종	책례	○	李瑞雨	-	고박29	규13094
1706	왕세자빈	단의왕후	가례	○	崔錫鼎	-	고박182	규13092
1718	왕세자빈	선의왕후	책례	○	閔鎭遠	-	고박185	규13094
1721	왕세제	영조	책례	○	李徵夏	-	고박38	규13099
1721	왕세제빈	정성왕후	책례	○	金濟謙	-	고박196	규13099
1725	왕세자	추존 진종	책례	○	李徵夏	-	고박41	규13105
1800	왕세자	순조	책례	○	金翊休	崔昌祐	고박69	규13122
1805	왕세자	추존 문조	책례	○	李肇源	吳珣	고박85	규13130
1830	왕세손	헌종	책저	○	李相瓚	白俊煥, 李邦植	고박91	규14190
1875	왕세자	순종	책례	○	金炳國	李景玉, 朴俊永, 崔圭序	고박102	규13169
1885	왕세자빈	순명효황후	가례	○	洪淳穆	朴鏞夔	고박311	규13174

### (3) 옥보의 재료

옥보는 왕과 왕비의 생전에 존호를 올릴 때 제작하는 것이다. 옥보는 금보와 달리 보신과 보뉴를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 옥도장들은 조선 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지속해서 제작되었는데, 특히 조선 후기에 왕권이 약해지고 왕손이 귀해져 적장자가 아닌 방계까지 왕위를 잇게 되어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 어보를 제작하여 존호를 가상하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옥인이나 옥보 유물들을 살펴보면 연옥, 경옥, 사문석옥이 대표적인 옥의 재료들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연옥과 경옥은 주로 장신구에 많이 쓰였고 사문석옥은 옥보와 옥책, 편경, 옥동자 등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다.

			
	연옥(춘천옥)	경옥(미얀마 비취)	사문석옥(남양옥)
광물군	각섬석[角閃石]	휘석[輝石]	사문석[蛇紋石]
화학성분	(Ca, Na) <sub>2-3</sub> (Mg, Fe, Al) <sub>5</sub> (Al, Si) <sub>8O22</sub> (OH) <sub>2</sub>	(Ca, Mg, Fe) <sub>2</sub> (Si, Al) <sub>2O6</sub>	Mg <sub>3</sub> Si <sub>2</sub> O <sub>5</sub> (OH) <sub>4</sub>
모스경도	6~6.5	6.5~7	2.5~5

연옥은 각섬석군 광물의 변종으로 경옥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연옥은 경도와 인성(靱性)이 좋은 광물로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춘천의 것이 유일하다. 경옥은 휘석군 광물의 변종으로 현재는 주로 미얀마에서 채굴되고 있다. 경옥을 옥광물 중 가장 경도가 높아 조각(彫琢)하는 작업은 연옥이나 사문석옥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사문석옥은 사문석군 광물의 한 변종이며 연옥과 경옥에 비해 경도가 낮아서 조각(彫琢)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장신구보다는 예술성이 높은 공예품을 만드는데 주로 쓰인다.

조선 후기 왕실의 옥보는 남양옥으로 제작하되, 금보와 비교하여 문양이 정교하지 않고 비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옥의 무른 특성과 덩어리 크기의 제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귀뉴의 꼬리를 처리함에 있어 같은 시기에 제작한 금보가 끈게 뺀 것에 비하여 옥보의 꼬리는 몸에 붙여 만들었는데 이는 옥이 쉽게 깨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옥장들은 갈이틀을 사용한 연마방식의 작업과 정질작업을 같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갈이틀을 이용한 연마방식의 옥공작업은 임원경제지 섬용지 ‘옥과 돌 가공’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4) 옥인 서사관

##### 가. 17세기 옥인전문서사관

17세기 옥인에는 玉印 篆文 書寫官을 두었다. 1645년 효종을 왕세자로, 인선왕후를 빈궁으로 책봉할 당시 ‘왕세자인’ 4자의 전문서사관은 병조판서 金光炫(1584~1647)이었고, 예차는 행호군 呂爾徵(1588~1656)이었다. 이들이 전문을 정본과 부분 3분을 서사하여 첫 번째 본을 낙점하였다. 처음 옥인 전문 서사관의 별단을 올릴 때까지는 해도 여이징은 옥인전문 서사관의 예차면서 행호군의 위치였는데, 실제 완성된 옥인의 전문서사관은 여이징이고 병조참판으로 직급이 상승되어 있었다.

여이징은 1651년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당시에는 공조참판으로서 옥인전문서사관 실차였고, 예차는 교서관 정자 洪錫龜(1621~1679)였다. 1667년 숙종의 왕세자 옥인 전문 서사관의 예차는 단천군수 洪錫龜였다. ‘왕세자지인’ 5글자나 ‘왕세자인’의 4글자 중 후자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옥인은 실예차가 쓴 3분을 한꺼번에 들여 예람 후 실차가 쓴 정본으로 정하였다. 1671년 왕세자빈 인경왕후를 책봉할 때의 옥인 전문서사관은 李正英(1616~1686), 1690년 왕세자 경종의 책례를 위한 옥인전문서사관은 李瑞雨(1633~1709)였다.

#### 나. 18세기 옥인전문서사관

18세기에 왕세자의 옥인은 ‘王世子印’, 왕세손의 것은 ‘王世孫印’이라는 篆文을 쓰기 위해 玉印 篆文 書寫官을 두었다.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정성왕후를 왕세제빈으로 책봉할 때 1721년 8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옥인을 제작하였다. 8월 24일 옥인 전문 서사관 실차와 예차 명단이 있고, 8월 28일의 도감별단에도 명단이 올라 있다. 당시 왕세제의 옥인을 전문 서사관은 부호군 李徵夏(1643~1695)였고, 예차는 나주목사 兪命健이었다. 왕세제빈의 옥인을 전문으로 쓴 서사관은 홍문관 부응교 金濟謙(1680~1722)이었고, 예차는 장단부사 趙尙綱(1681~1746)이었다. 1725년 진종을 왕세자를 책봉하는 책례도감에서 옥인의 전문은 실차로는 행호군 李徵夏와 예차인 홍문관 부교리 洪鉉輔(1680~1740)가 각각 3분씩 쓴 것을 모두 대내에 들여 어람하였다. 그런 다음 실차인 이징하기 쓴 정본을 사용하여 옥인에 새기도록 했다. 1736년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는 2월 3일 옥인전문 서사관으로 실차는 행사직 兪拓基(1691~1767), 예차는 낙풍군 李茂(1355~1409)였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에는 ‘왕세손인’의 옥인 전문 서사관은 실차는 행호조판서 洪鳳漢(1713~1778), 예차는 행부사직 尹東暹(1710~1795)이었다. 왕세자나 왕세손 및 왕세제 등의 옥인에 사용할 篆文은 옥인 전문서사관 실차와 예차가 각각 3분씩을 쓰도록 준비하였다. 예컨대 1721년 왕세제와 왕세제빈의 옥인에 사용할 실차였던 호군 이징하나 예차인 나주목사 유명건 및 장단부사 조상경 등이 3분을 썼다. 1736년 영조가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도 옥인전문 서사관의 실차인 전 황해감사 兪拓基로 정하였고, 예차는 洛豐君 李楸가 각각 3분씩 썼고 실차에게 정본과 부분 3부를 쓰는 일을 모두 맡기도록 했다.

#### 다. 19세기 옥인 전문서사관과 화원

19세기에 왕세자의 옥인은 ‘王世子印’, 왕세손의 것은 ‘王世孫印’이라는 篆文을 쓰기 위해 玉印 篆文 書寫官을 두었다.

1800년 정조가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옥인 전문 서사관의 실차는 행대호군 金翊休(1724~1802)와 예차는 승정원 행도승지 閔台懋(1746~1806)이었다. 1805년



효명세자[후일 추존 익종]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 옥인 전문 서사관의 실차는 형조판서 李肇源(1758~1832), 예차는 한성부 판윤 李相璜(1763~1841)이었다. 1830년 헌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에 옥인 전문 서사관의 실차는 판중추부사 李相璜, 예차는 동지돈녕부사 趙寅永(1782~1850)이었으나 탈이 있어 실차에 부표를 붙여 바꾸고 예차를 실차로 승격시켰다.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의 책례도감에서 옥인전문 서사관은 우의정 金炳國(1825~1905)이고, 예차는 대호군 金輔鉉(1826~1882)이었다. 이중 실차인 우의정 김병국이 正本과 副本을 서사하여 대내에 올렸고, 어람 후 정본으로 새기게 하였다. 그로부터 옥인을 20일 동안 새겨서 길일로 정한 날짜에 옥인의 印出本을 장첩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한편 19세기 도감에는 옥인 전문 서사관이 글로 쓰고 나면 화원 중에 옥인에 전문을 보획하는 화원을 두었다. 1800년 순조 왕세자를 책봉하는 옥인전문 보획화원은 崔昌祐였고, 1812년 효명 왕세자를 책봉하는 옥인전문 보획화원은 吳珣과 李命儒였으며, 1830년 헌종 왕세손을 책봉하는 옥인전문 보획화원은 白俊煥과 李邦植이며, 1875년 순종 왕세자를 책봉하는 옥인전문 보획화원은 李景玉과 朴俊永이었다. 1800년에는 1명이었는데, 1812년과 1830년 및 1875년에는 화원 2명으로 늘었다.



<헌종 옥인>, 1651, 옥석, 전체 높이 9.0cm, 국립고궁박물관

<숙종비 인경왕후 옥인>, 1671, 옥석, 전체 높이 8.1cm, 국립고궁박물관

<경종비 단의왕후 세자빈 옥인>, 1690, 옥석, 전체 높이 9.1cm, 국립고궁박물관

### (5) 17세기 옥인의 제작 장인

17세기에 옥인을 제작하는 장인의 경우 옥을 채취하고 잘라낸 옥으로 조각을 하는 옥장을 비롯하여 옥인에 전문을 새기는 각자장, 옥장과 각수 등의 도구를 버리는 도자장, 그리고 천혈장이 옥인에 뚫린 구멍에 걸 인수를 제작하는 다회장이 중심이 된다. 그와 함께 완성된 옥인은 인통에 넣고, 인주는 같은 크기와 형태의 주통에 넣으며, 이것들은 각각 인록과 주록에 담으며, 다시 호갑에 넣게 된다. 도감 2방의 장인들은 이와 같이 옥인과 인통, 주통, 인록, 주록, 호갑을 만들 때 동원되는 장인들의 장색과 그 종별이다. 17세기 옥인을 제작하기 위한 장인들의 종별은 1648년 왕세손인 현종의 것을 제작할 때 17종인 이외에는 평균 22종의 장색이 동원되는 것이 공통되었다.

<표> 17세기 책례도감 2방의 장인 종별과 종수

연대	대상	책봉	도감	2방 장인의 종별	종수	소장번호
1645	효종 인선후	세자 세자빈	책례	옥장, 인통장, 주통장, 이지장, 마경장, 시소장, 호갑장, 입사장, 다회장, 답편장, 야장, 주장, 소목장, 침장, 두석장, 피장, 권로장, 유장, 은장, 동장, 소로장, 각자장, 도자장, 배첩장	24	규13062
1648	현종	왕세손	책례	옥장, 소로장, 인통장, 소목장, 마경장, 시장, 이지장, 호갑장, 입사장, 답편장, 야장, 주장, 안자장, 칠장, 다회장 각자장 도자장	17	규13067
1651	현종	왕세자	책례	옥장, 각자장, 도자장, 다회장, 답편장, 호갑장, 두석장, 마경장, 인통장, 이지장, 소목장, 호갑장, 칠장, 숙피장, 은장, 피장, 각자장, 소로장, 입사장, 천혈장, 야장, 주장, 다회장, 안자장, 시장, 침선비	26	규13069
1667	숙종	왕세자	책례	옥장, 인통장, 이지장, 시장, 두석장, 호갑장, 은장, 입사장, 다회장, 주장, 야장, 소목장, 안자장, 마경장, 답편장, 천혈장, 각자장, 병풍장, 소로장, 도자장, 피장, 침선비, 쇠약장	23	규13076
1690	경종	왕세자	책례	화원, 옥장, 두석장, 마경장, 도자장, 시장, 호갑장, 다회장, 이지장, 소목장, 답편장, 천혈장, 소로장, 각수, 야장, 은장, 안자장, 침선비, 입사장, 주장, 칠장, 병풍장, 판자장	23	규13091

효종비 인선왕후 장씨는 1631년(인조 9) 봉림대군(효종)과 혼인하여 풍안부부인(豊安府夫人)에 봉해졌고, 1646년(인조 24) 3월 소현세자빈이 사사(賜死)된 후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현종비 명성왕후 김씨는 1651년(효종 2)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숙종비 인경왕후 김씨는 1671년(현종 12)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경종비 단의왕후 심씨는 1696년(숙종 22)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경종이 즉위하기 전 사망하였다. 경종계비 선의왕후 어씨는 1718년(숙종 44) 첫 번째 왕세자빈인 심씨(단의왕후)가 사망하자 그 해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어 가례를 올렸다.

이렇게 왕세자나 왕세자빈을 책봉하면서 제작한 옥인은 책례도감의 2방에서 제작하였다. 17세기 옥인을 제작하는 장색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것은 1690년 경종 왕세자를 책봉할 때 화원을 처음으로 분속시킨 것이다. 이때부터 옥인을 제작할 때 화원의 기화를 토대로 제작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옥인을 만들 재료는 옥규나 패옥 등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국내산 옥을 사용하

도록 하였는데, 다만 옥대에 사용하는 眞玉의 경우 본래 국내산이 아니어서 중국으로부터 부득이 무역을 해서 사용하였다. 남양의 옥이 다른 곳보다 좋다고 하므로 여기에서 좋은 것을 골라 사용토록 하였고, 병자호란이 끝난 당시에 중국에서 옥대용 옥을 수입하기 어려워 부득이 상의원에 소재한 것을 사용토록 하였다.

<표> 17세기 도감 2방에서 옥인을 제작한 옥장, 각수, 도자장, 다회장 명단

연대	대상	유물번호	도감	玉匠	刻字匠/玉印刻手	刀子匠	다회장	소장번호
1645	효종	-	왕세자	金莫男 등 4명	李忠民 등 2명	金卜立	金太卜 등 3명	규13062
1648	현종	-	왕세손	金莫男	吳有進	崔黃男	金太福 등 2명	규13067
1651*	현종	환수	왕세자	金莫男 등 2명	李忠民 등 2명	襄業 등 2명	朴應男 등 4명	규13069
1667*	숙종	어보27	왕세자	金莫男 등 2명	李琇一 등 5명	盧信男 등 3명	朴戒男 등 2명	규13076
1671*	인경후	어보158	왕세자빈	金莫男 등 2명	崔萬元 등 2명	朴松立 등 2명	李孝賢 등 4명	규13078
1690*	경종	어보29	왕세자	李以珍 등 2명	李守命 등 4명	池硯石 등 2명	朴起善 등 2명	규13091
1696*	단의후	어보182	왕세자빈	李耑致	李五龍 등 3명	金業山	朴見善	규13092

### 가. 17세기 옥장

옥인을 제작하기 위해 옥장은 옥의 산지인 남양으로 가서 옥을 캐오거나 호조 등에 소장된 옥을 잘라서 옥인에 적합한지 살펴보았다. 이렇게 옥장이 옥을 마련하면 옥인서사관의 글씨를 토대로 각자장이 印面의 글씨를 새기고 도자장은 옥장과 각자장이 사용하는 도구를 버리는 일을 해주고, 옥인이 완성되면 거북 몸체 아래쪽에 뚫린 구멍으로 다회장이 만든 인수를 걸게 된다.

1645년을 예로 들면 당시 옥인에 사용할 옥은 마땅히 남양에 도감의 감조관 1명이 옥장과 석수 각각 1명을 보내어 채취토록 하였다. 이렇게 채취한 남양옥을 옥장이 무치거로 자르고 마정한 후 색을 보았더니 정결하지 못하고 옥에 티[瑕]가 너무 많았다. 이에 백색에 티가 적었던 과주옥을 채취하는 방안을 의논했으나 과주옥은 성질이 단단하지 못하여 다시 남양옥을 택하여 사용하기로 정하였다. 남양과 과주 두 곳의 옥 중 남양에서 옥을 20여 괴를 채취했으나 모두 적합하지 못하여 다시 감조관과 옥장 및 석수 등이 가서 정밀한 것을 골라 채취하기로 했다. 당시 책 봉시 옥인을 조성할 옥석을 채취하는 데 서울에서는 옥장과 석수가 각각 1명씩 내려갔는데 이들만으로는 작업하기 어려워 채취할 때에는 경기도 내 금천의 석수 金金伊, 안산의 석수 崔鐵水, 金破回, 수원의 석수 李巨勿里, 任生 등을 해당 지역 관리와 색리들에게 영을 내려 남양옥을 채취하는 데 부역토록 하였다.

양란 이후 1645년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 옥인을 제작해야 하는데, 옥인을 조작할 수 있는 장인이 서울에는 옥장은 金莫男 1명 뿐이었다. 더욱이 채취한 옥석은 절단하기 어려운데 명주실을 끌어당겨[引纜] 9일간 작업을 해도 쓸만한

것이 없었다. 김막남이 밤낮으로 상의원과 도감을 오가며 작업하기도 어려워 남포의 옥장을 속히 올려 보내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평안도와 공청감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성천의 옥장 黃金奉 등을 비롯한 2명, 충청도 남포의 옥장 崔倬卜, 金玄龍 등을 긴급히 보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경거옥장인 김막남이 옥인을 만들 때 옥장 중 우두머리로서 남포와 성천에 거주하는 외방옥장을 이끄는 체제였다.

김막남은 1639년 인조왕 장렬왕후의 국혼 때부터 서울에 거주하여[京居] 활동하면서 1683년까지 44년간 수많은 도감에서 국역을 졌다. 1644년 녹훈도감에서 옥역을 했다. 1645년 효종 왕세자 책례도감과 소현세자 예장도감 및 1649년 인조의 국장이나 현종 왕세손을 책봉하는 도감에도 옥장으로 참여했다. 특히 인조의 국장 때에는 3방에서는 옥책을 만들기 위해 경옥장으로서 지방에 거주하는 향옥장들을 거느리고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90년 경종의 왕세자를 책봉할 때 옥인을 만들 때 옥장 李以珍은 李眞이나 李珍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1681년 숙종과 인현왕후의 국혼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713년 숙종 존숭도감까지 32년간 옥장이었고, 특히 상의원 소속 관옥장으로서는 존호존숭도감 등에서 옥인을 제작하는데 장기를 보인 17세기 말 18세기 초의 대표적인 옥장이었다. 그는 1688년 장렬왕후의 책보를 수개하는 도감에서는 1방에서 옥인을 제작하는 제작처에서 상의원에 소속 관옥장으로 내수사 소속의 옥장 金始贊과 함께 활동하였고 도감역이 끝난 후 1등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상의원 소속의 이이진은 내수사 소속의 김시찬과 협업한 도감은 1688년 책보도감 이후 1690년 경종 왕세자 책례도감 2방, 1690년 장희빈의 중궁 책례도감 3방, 1691년 장렬왕후 부묘도감 2방에서 옥인을 제작하는데 장기를 보였다.

#### 나. 17세기 각자장

1645년 옥장 김막남이 남양의 옥석들을 가려 그나마 괜찮은 것을 가려내어 刻印匠 李忠民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충민은 막중한 옥인으로 사용하기에는 옥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파주의 옥을 시험 삼아 절단하고 품질을 본 다음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이충민을 각수가 아닌 각인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옥보나 옥인을 새기는 장인을 각수보다는 각자장이나 각인장, 옥인각수, 옥각수, 보전각장 등으로 부르는 경향의 단초를 엿볼 수 있다.

17세기 책례도감에서 활동한 각자장 중 이른 시기의 장인이 李忠民(敏)과 吳有進(璣)이다. 이중 이충민의 경우 1627년 원종의 예장 때부터 국역을 졌는데, 이후 실력을 갈고 닦았는지 국역에 징발되지 않았다가 1645년 소현세자의 예장도감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각수 중 우두머리였는데, 같은 효종 왕세자의 책례도감 때 각자장의 우두머리로 등장한다. 즉 같은 해에도 흥례 때에는 각수로, 가례 때에는 각자장으로 부르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후에도 1649년 현종 왕세손의 책례도감에

서는 각자장, 1651년 현종 왕세자의 책례도감과 인선왕후의 존숭도감에서는 옥각자장, 인선왕후의 존숭도감에는 옥각자장 및 1652년 현종과 명성왕후의 가례도감에는 각자장으로 동원되고 있었다. 반면 이충민이 국장도감에 동원될 때에는 1627년 원종의 예장, 1649년 인조의 국장, 1659년 효종의 국장 때에는 각수로 불렸다.

각자장 吳有進의 경우 1635년 인조의 실록을 편찬할 때부터 국역을 졌다. 그 또한 가례 때에는 각자장으로 1635년부터 1670년까지 35년간 책봉이나 국혼 등 가례 관련 도감에서는 각자장이나 옥각수로, 국장 등 흥례 관련 도감에서는 각수로 주로 불렸다. 예컨대 1645년 효종의 왕세자를 책봉하거나 1649년 현종의 왕세손 책봉을 위한 책례도감에서는 옥인을 제작하는 각자장이나 옥각자장 및 옥각수로, 1651년 인선왕후의 중궁전 책봉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옥책각수로 불렸다. 반면 1645년 소현세자의 예장이나 1649년 인조의 국장 등 흥례 관련 도감에서는 각수로 불렸다. 이처럼 옥인에 전문을 새기는 것과 같이 세밀한 글자를 새기는 경우 각자장이나 ‘옥’자를 넣은 옥각수 등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옥책 등을 제작할 때에는 각수로 장색을 달리 구분하여 부른 것을 알 수 있다.

1667년 숙종 왕세자 책례도감 때 활동하는 각자장 李秀(守)一과 李惟一은 형제 각수로서 1674년 인선왕후의 국장, 1675년 현종의 국장, 1681년 인경왕후의 국장 및 1684년 명성왕후의 국장 때 함께 활동하였다. 특히 각수 李秀一은 1651년부터 1677년까지 26년간 12회 동안 도감에 동원되었으며, 李惟一은 1651년부터 12번의 도감에 동시에 참여하여 1696년까지 8차례의 도감에 더 참여하여 총 20회의 도감에서 45년간 활동하였다.

1681년 숙종과 인현후의 가례 때 각수가 사용한 도구를 보면 망석 2넙, 평자 1개 들인 백목 3자, 양판 2넙, 풀숨 7돈, 감개용 노루가죽 1령, 새김칼 30개, 수건베 6자, 걸쇠 2, 숨보자기 1, 면화 3냥이다. 당시 입사장의 것은 황밀 4냥, 중술 1개, 방구리 1, 연일 솥돌 1, 중간 솥돌 1개 수건베 1자, 양판 1넙, 곡초 2속이었다.

#### 다. 17세기 도자장

남양에서 옥장과 석수들이 옥석을 채취할 때 사용한 도구는 곡쟁이 10개, 비김쇠 100개, 소뿔동이 10개, 중뿔동이 3개, 숙마 3근, 중비지네쇠 3개, 한망치 10개 등이었다. 이것을 들인 상설아문으로서 호조와 선공감에서 철물을 주었고, 말에 실어 운반하는 것은 병조였다. 도자장은 이것들을 버리는 일을 해준다. 1645년 도자장은 金卜立이고, 최황남, 배업, 김명, 문득기 등이 있다.

1651년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도자장으로 활동했던 裴業의 경우 1649년 인조의 국장 때부터 1652년 현종과 명성왕후의 국혼까지 3년간 국역을 졌다. 도자장 金命의 경우 1649년부터 1667년까지 18년간 9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배업이 하나의 도감에서 여러 각방에서 모든 도구를 버려주는 역할을 했다면, 김명의 경우

책레도감이나 존승도감 및 가레도감이나 국장도감에서 주로 2방에서 각수의 도구를 버리는 역할을 했다. 1667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도감에서 도자장 중 文得己의 경우 1659년부터 1684년까지 25년간 15곳의 도감에서 도자장으로서 국역을 졌던 17세기를 대표하는 도자장이었다.

#### 라. 17세기 印綬를 제작하는 다회장

책레도감에서 옥인의 인수를 제작하는 다회장은 金太卜(福), 朴應男, 黃竹 등이었다. 그들 다회장이 옥인의 인수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1667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는 수건베 2자와 중간 꺾작 1부, 파유둔 4장을 부친 것 1부, 그리고 무엇보다 실을 감아서 굵게 만드는 雙絲機 1좌를 들인 것이다. 1681년 숙종과 인현왕후의 국혼 때 다회장은 실을 정련하는 鍊絲機와 굵게 만드는 쌍사기를 준비하였던 점이다.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와 1691년 숙종이 인현왕후를 다시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에도 쌍사기 1좌가 기본이 되면서 그밖에 수건베나 꺾작 및 파유둔을 마련하는 것이 확인된다.

다회장 김태복의 경우 1644년 녹훈도감부터 기록에 보이기 시작하여, 1671년 숙종과 인경왕후의 왕세자 가례 때까지 활동한다. 17세기 중후반기 27년간 15곳의 도감에서 거의 대부분 다회장 중 가장 앞자리에 기록되어 다회장의 우두머리로서 옥인이나 금보 및 옥보 등 어보의 끈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였다. 1645년 효종 왕세자와 세자빈을 책봉할 때부터 다회장 김태복과 朴應男은 1652년까지 서로 같은 도감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한편 박응남과 朴戒(繼)男과 형제 다회장으로서 1651년 효종이 인선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부터 1661년까지 10년간 거의 모든 도감에서 박응남을 우두머리 삼아 형제 다회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 당시 그들 형제 이외에도 박충남까지 ‘男’자 돌림의 형제인 것이 확인된다.



<의인왕후존호옥보 보수, 1604>



<인목왕후존호옥보 보수, 1604>

## (6) 18세기 옥인의 제작 장인

18세기 책레도감 2방에는 화원을 비롯하여 옥장과 전문을 새기는 각수 및 도자장과 인수를 만드는 다회장, 인통을 만드는 인통장과 호갑을 제작하는 호갑 등이 활동하였다. 당시 도감에는 왕세제의 책봉 때 32장색과 진종 때의 34장색으로 그 종별이 많았으며, 사도세자의 책봉 때 26명으로 줄었다가 1757년 정조 왕세손을 책봉할 때 29명이었다. 대체로 30종의 장색들이 동원되어 17세기에 22종이었던 것에 비해 장색의 종별이 증가하여 보다 전문적인 제작이 가능하여 품질도 좋아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영조왕세제옥인>, 1721,  
옥석, 전체 높이 8.8cm,  
국립고궁박물관

<진종 왕세자옥인>, 1725,  
옥석, 전체 높이 8.5cm,  
국립고궁박물관

<정조 옥인>, 1759,  
옥석, 전체 높이 10.0cm,  
국립고궁박물관

18세기 옥인의 제작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1735년 효장세자빈인 현빈 조씨를 추송하여 빈궁의 작호를 내리고, 호조에 소장된 옥이 없어 은인을 만들면 어떨지 의논하다가 옥인으로 결정하게 되어 옥인조성도감을 둔 것이다. 도감의 당상은 행공조판서 尹淳과 행예조판서 金取魯 등을 책임자로 두었다. 당시 옥인을 제작할 재료는 호조에 그동안 수급한 옥 재료가 다수 있어 그 옥을 가져다가 살펴보고 품질이 좋은 재질을 골라 옥인을 제작토록 하였다. 당시 옥인전문 서사관은 형조참판 趙顯命이 정본과 부본을 모두 써서 왕세자가 예람하였고 정본으로 새기도록 하였다. 1735년 4월 20일 현빈의 옥인을 완성하였고, 도감역이 끝난 후 옥인을 제작한 첨사 최천약에게 궁시를 상으로 주었다. 그로부터 1달 뒤 현빈의 옥인을 조

성한 내용을 기록한 『옥인조성의궤』를 완성하여 의정부, 예조, 춘추관, 강호부에 나누어 보냈다.

<표> 18세기 도감 2방의 장인 종별과 종수

연대	대상	책봉	도감	2방 장인의 종별	종수	소장번호
1721	영조	왕세제	책례	화원, 옥장, 인통장, 소로장, 이지장, 시장, 두석장, 유장, 권로장, 대은장, 동장, 소목장, 다회장, 호감장, 봉조장, 칠장, 동해장, 마경장, 쇠약장, 야장, 주장, 입사장, 천혈장, 침선비, 담편장, 과록장, 옥인각수, 도자장, 관자장, 섭장, 박배장, 병풍장	32	규13099
1725	진종	왕세자	책례	화원, 옥장, 각수, 도자장, 소목장, 두석장, 대은장, 동장, 소로장, 유장, 동해장, 권로장, 칠장, 호감장, 봉조장, 다회장, 침선비, 이지장, 시장, 마경장, 야장, 주장, 쇠약장, 천혈장, 마조장, 담편장, 과록장, 섭장, 조각장, 관자장, 입사장, 병풍장, 대인거, 소인거	34	규14909
1736	사도	왕세자	책례	화원, 옥장, 두석장, 마경장, 도자장, 시장, 호감장, 다회장, 소목장, 각수, 칠장, 소로장, 이지장, 조각장, 은장, 쇠약장, 야장, 천혈장, 관자장, 과록장, 담편장, 봉조장, 입사장, 병풍장, 안자장, 침선비	26	규13108
1759	정조	왕세손	책례	화원, 각수, 소목장, 소로장, 시장, 쇠약장, 마경장, 인통장, 두석장, 천혈장, 호감장, 과록장, 담편장, 다회장, 병풍장, 칠장, 은장, 옥장, 도자장, 봉조장, 야장, 주장, 납장, 박배장, 침선비, 급수군, 마정군, 숙정군, 지거	29	규13113

### 가. 18세기 옥장

옥인을 새기는 작업은 옥인의 전문을 써서 내리면 7-8일 정도면 가능하였다. 1721년의 경우 9월 15일에 옥인의 전문을 쓴 지 9월 23일에 벌써 다 새겼다. 이에 궐내에 옥인을 들어서 ‘시명지보’를 찍는 것을 시행하였다. 한편 옥책을 제작함에 있어서 18세기 후반의 두드러진 경향 중 하나는 옥책을 만들 때 옥장과 각수 및 도자장 뿐 아니라 사자관과 화원들까지 역할이 분명해지면서 옥책의 품질이나 제작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표> 18세기 책례도감 2방에서 옥인을 제작한 옥장, 각수, 도자장, 다회장 명단

연대	대상	도감	현존	각방	玉匠	玉印刻手	刀子匠	다회장	소장번호
1721	영조*	왕세제	어보38	2방	金太徵 등 4명	金海宗 등 4명	朴廷旭 등 2명	文士立 등 3명	규13099
	정성후*	왕세제빈	어보196						
1725	효장*	왕세자	어보41	2방	金太徵 등 2명	韓業相 등 2명	朴從	吳太奉 등 2명	규14909
1736	사도*	왕세자	어보48	2방	李汝鳳 등 3명	韓業相 등 2명	朴吉同 등 2명	趙丁贊 등 2명	규13108
1759	정조*	왕세손	어보57	2방	李汝鳳 등 4명	李良弼 등 2명	金鳳翼 등 2명	劉喬江 등 3명	규13113
1784	문효*	왕세자	어보341	2방	朴枝興 등 4명	元命長	姜世興	姜世興	규13200

18세기 옥인의 제작은 책례도감의 2방이 제작처이며, 이곳에서 옥인을 제작하는 핵심 장색은 옥장, 옥인각수, 도자장 및 다회장이다. 1721년에는 옥인 2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옥장도 4명, 각수도 4명이었고, 도자장 2명과 다회장 3명이었다. 1725년



진종 왕세자의 옥인 1과를 만들 때에는 그보다 인원수가 반으로 줄어 옥장 2명, 각수 2명, 도자장 1명, 다회장 2명이었다. 그러나 1736년 사도 세자의 옥인을 제작할 때에는 옥장의 인원이 3명으로 늘어났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나 1784년 문효세자를 책봉할 때에도 옥장이 4명으로 늘어난 점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각수나 도자장 및 다회장의 숫자는 규례를 따르고 있었다.

18세기에 옥인을 조각하는 일을 감독한 간역이 도감역이 끝나고 상을 받았다. 예컨대 1719년 경종 세자와 선의후의 가례 때에 옥인을 새기는 일에는 李景夏가 간역으로서 도감역이 끝나고 3등상을 받았다. 더욱이 옥인을 제작할 때 조각에 일가견을 가졌던 崔天若이나 卞爾珍의 존재가 눈에 띈다. 1721년 당시 한량 崔天若이 옥인을 조각하였고, 그는 본래부터 조각에 뛰어난 솜씨를 지닌 것으로 이름이나 여러 도감에서 조각을 할 때 전담하였다.

옥인을 제작하려면 玉塊를 남양 등지에서 캐오거나 호조 등지에 소장한 것을 사용한다. 이것은 옥장이 옥을 갈 때에는 단단한 錠玉沙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옥인 1과를 만들려면 정옥사 3말과 小爐匠이 사용하는 白土 1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례에 따라 생산되는 지역에서 복정하여 마련하였다. 다만 1721년에는 호조에서 보관하고 있던 玉塊를 가져다 제작하였다. 당시 옥괴는 남양옥 2괴이고, 白蠟 1냥이 들어갔다. 특히 옥인에 필요한 중국사 정옥사를 수입하기도 했는데, 중국제 정옥사 1되는 4냥을 호조에서 지불하였다.

옥인의 규모를 보면 옥인은 사방 3치 7푼 5리, 끈[紘]은 6푼, 높이 1치 2푼, 귀龜의 높이 2치 2푼, 몸체의 길이 3치 1푼, 머리 길이 1치 8푼,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전체 길이 5치이다. 따라서 왕세제인과 왕세제빈의 옥인은 사방 크기가 3치 7푼 5리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도세자의 경우 여러 점의 옥인이 존재한다. 1736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옥인의 재료는 靑玉이고, 龜鈕이다. 길이와 너비 및 꼭지를 합친 높이는 3치 5푼이고, 귀두의 길이는 1치 5푼이다. 1762년 사도세자에게 시호를 올리고 제작한 옥인[贈諡玉印]은 청옥이고 귀뉴가 있다. 길이와 너비는 3치 6푼이고 꼭지를 합한 높이는 3치 3푼이며, 귀두의 길이는 1치 5푼이다. 1776년 정조의 즉위 이후 1788년 가상존호(加上尊號)를 올리면서 제작한 옥인은 길이와 너비는 3치 7푼이고, 귀뉴를 합한 높이는 4치 5푼이며, 귀두의 길이는 1치 7푼이다.

18세기 초의 옥장들은 이전 시기와 다르게 내수사에 소속된 옥장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사장들과 함께 작업한 것이 두드러진 차이이다. 예컨대 1719년 옥인을 새긴 각수는 훈련도감 소속의 한업상이 차출되었으며 사장인 金海宗, 金承昌, 文德化이 옥인의 각수였다. 도자장의 경우 사장인 朴廷旭, 朴廷彬이 참여하였고, 조각장 李命이나 섭장 또한 사장인 元道亨, 車重太, 李二疇, 朴排匠으로 훈련도감 소속의 李次江과 금위영 소속의 金世萬이 참여하였다. 상의원 소속의 관공장인 관자장 崔

碩起 또한 옥을 다루는 일을 잘 알고 있어서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1721년과 1725년에 옥장 중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金太(泰)徵은 1718년 소현세자와 강빈을 복위하면서 시호를 올릴 때 시호 옥인, 1719년 경종과 선의왕후의 국혼 때 1방에서 옥보, 1721년 책례도감에도 내수사의 관옥장이었다. 1726년 경종과 단의왕후를 부묘할 때, 1731년 선의왕후의 국장 때는 상의원 소속이었다. 옥장 김태징이 1718년부터 1740년까지 22년간 14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질 때 내수사나 상의원 소속의 관옥장으로서 18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관장이었던 옥장이었다.

1736년과 1759년의 책례 때 옥장 중 우두머리였던 李汝鳳(奉)은 1721년부터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의 도감까지 38년간 17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지면서 옥장 중 우두머리로서 1등상을 받은 17세기 중기를 대표하는 옥장이면서 사옥장을 대표한다. 1784년 문효세자를 책봉할 때에 옥장으로 활동한 옥장 朴枝興의 경우 1776년 영조의 국장 때 19명의 옥장 중 8번째에 해당되었다가 이후 1784년까지 8년간 활동하였을 뿐이다.

#### 나. 18세기 각수

18세기 국왕이나 왕후의 금보를 제작하는 장인을 보전각장이라고 부른 것과 비교하여 옥인에 전문을 새기는 장인은 옥인각수라고 불렸다. 옥장과 각수가 옥을 다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는 刻釘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 또한 전례를 참고하여 1721년에는 각정 13개를 만들었다.

18세기의 옥인각수는 1721년 왕세제와 왕세제빈의 옥인 2과의 전문을 새길 때에는 4명이었고, 일반적으로 옥인 1과를 새길 때에는 각수 2명이 필요했다. 그런데 1784년 문효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만 1명이었다. 18세기 초에는 金海宗을 비롯하여, 韓業相, 李良弼, 元命長이 우두머리였다. 그중 전해종은 1718년부터 1731년까지 각수로 활동하였는데, 사적 생산에 종사하던 사각수였다.

그와 함께 활동했던 韓業相(尙)의 경우 1702년 숙종의 국장도감 때 옥각수였다. 1719년 경종과 선의왕후의 국혼 때와 1721년 훈련도감의 玉印刻手로 불렸다. 이처럼 각수 한업상의 경우 1702년부터 1736년까지 34년간 20곳의 18세기 초 옥책이나 옥인을 제작하던 훈련도감에 소속된 군영 각수로서 옥인각수로도 불렸다.

각수 李良弼의 경우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는 도감의 2방에서 옥인을 제작하였는데 1751년부터 1787년까지 27년간 여러 곳의 도감에서 활동한 18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교서관의 관각수인데, 오랫동안 활동하면서도 중간 정도의 실력으로 평범하게 각수의 역할을 했다.

각수 元命長은 1756년부터 1787년까지 31년간 16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졌는데, 처음 입문한지 20여년이 지나 1778년부터 1783년까지 각수로 성장하여 18세기 말에 옥보나 옥인을 새기는 옥각수를 대표하며, 그의 뛰어난 그의 솜씨는 그보다 20년

정도 다음 세대 옥각수인 金德麗(禮)가 이어져 19세기 초까지 전해졌다.

#### 다. 18세기 도자장

도자장은 책레도감 2방에서 옥장과 각수의 도구를 베틀는 일을 하였다. 옥인의 印綬를 제작하는 다회장이 사용하는 도구는 18세기에도 대부분 변화가 없다. 1706년 경종과 단의왕후의 국혼 때 다회장은 실을 정련하는 연사기와 굵게 만드는 쌍사기 및 공석과 꺾을 준비하였다. 이것은 1718년 경종과 선의왕후의 국혼, 1721년 영조와 정성왕후를 왕세제와 왕세제빈으로 책봉할 때나 1744년 사도세자와 헌경혜빈이 혼인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연대	대상	도감	각방	도감 2방 옥인 제작 도자장	도감 2방 옥인 제작 다회장	소장번호
1721	영조	왕세제	2방	朴廷旭, 朴廷彬(私匠)	文士立(尙方), 吳太奉, 金命(以上 訓局)	규13099
1725	진종	왕세자	2방	朴從先(訓局)	吳太奉(訓局), 李墨巨(私匠)	규14909
1736	사도	왕세자	2방	朴吉同, 嚴成貴(以上 尙方)	趙丁贊(尙方), 姜遇泰(訓局)	규13108
1759	정조	왕세손	2방	金鳳翼, 李德起	劉恣江, 梁聖起, 林遇春	규13113
1784	문효	왕세자	2방	姜世興	姜興喆	규13200

18세기의 도자장으로는 朴廷旭, 朴廷彬 형제가 있고, 朴從先, 朴吉同, 金鳳翼, 姜世興 등이 있다. 박종선은 1702년에 처음 기록에 등장하여, 그로부터 18년 뒤에는 훈련도감의 장인이었고, 1725년 진종 왕세자를 책봉할 때 책레도감 2방에서 옥인을 제작할 때 옥장과 각수의 도구를 베틀는 일을 했다. 당시 도감 3방 전설소에 소속된 도자장들은 구성이 복잡하여 훈련도감에서 3명, 상의원에서 2명, 사장 4명이 활동하였다. 도자장 박종선은 1702년부터 1740년까지 40년간 18세기 초 도자장으로서 옥인이나 옥보 및 각종 석물을 제작하는 옥장이나 석수 및 각수 등의 도구를 베틀는 역할을 하였다.

刀子匠 朴吉同은 1732년 인조의 장릉을 천릉할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736년 사도세자를 책봉할 때 옥인을 제작하는 2방이나 1740년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옥보를 제작하는 2방에서는 상의원 소속의 도자장으로 차출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1744년 사도세자와 혜빈의 국혼 때에는 사장으로 참여하고 있어 신분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752년까지 20년간 5곳의 도감에서 징발되었으며, 처음에는 상의원의 관공장이었다가 사장으로 직역이 바뀌며 국역을 졌던 장인이었다.

도자장 金鳳翼(益)의 경우 1748년 진전을 중수할 때부터 상의원 소속의 관장으로 기록되기 시작하여 1770년까지 22년간 활동하였던 18세기 중후반기의 대표적인 도자장으로 활동 초기에는 상의원이나 공조 등 상설아문에 소속된 관공장이었음이 병기되었다.

## 라. 18세기 다회장

18세기에 옥인을 제작하던 다회장으로는 文士立를 비롯하여 吳太奉, 趙丁贊, 劉濬江, 姜興喆 등이 있다. 이중 문사립의 경우 1721년 왕세제와 왕세제빈의 옥인을 제작하는 책례도감의 2방에서 옥인에 매달 印綬를 제작한 이후 1727년 진종과 효순왕후의 가례 때까지 8년간 국역을 졌는데, 모든 도감에서 상의원 소속임을 병기하여 17세기 초에 다회장 중 관공장이었다.



<숙종존호옥보 보수, 1713> <인현왕후존호옥보 보수, 1722> <인원왕후존호옥보 보수, 1751>

다회장 吳太奉의 경우 문사립보다 앞선 1718년 단의빈의 사후 예장도감부터 국역을 지기 시작하여 1719년 경종과 선의왕후의 국혼, 1721년 숙종의 국장, 1725년 진종의 세자 책봉시 책례도감 2방에서 옥인의 인수를 제작할 때에는 훈련도감 소속 군영의 장인, 1731년 선의왕후의 국장 때, 1736년 사도세자를 책봉 때, 1739년 단경왕후의 신주를 부묘할 때까지 21년간 훈련도감 소속의 장인으로서 활동하였다.

다회장 劉濬江은 1729년 녹훈도감의 직조색 및 교서색에 차출되어 이후 1731년 국장 때 이후 1735년 어진을 모사할 때, 1739년과 1740년 존호를 올리는 존숭도감, 1744년 사도세자와 혜빈의 혼례 때,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1762년 정조와 효의왕후의 혼례 때 2방에서 인수를 제작할 때에도 상의원 소속의 관공장이었다. 이처럼 그는 1729년부터 1762년까지 33년간 국역을 졌는데, 상의원 소속의 관영공장이었다. 그는 다회장으로 장인 집안을 이루고 있기도 했는데, 1667년부터 1681년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다회장이면서 국역을 졌던 劉濬龍의 존재로 확인된다.

다회장 姜興喆은 1776년부터 1805년까지 29년간 13곳의 도감에서 다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활동한 도감의 제작처에서 다회장의 우두머리로 가장 앞에 기록되었다.



<순조왕세자 옥인>, 1800,  
옥석, 전체 높이 10.9cm,  
국립고궁박물관

<문조왕세자 옥인>, 1812,  
옥석, 전체 높이 11.4cm,  
국립고궁박물관

<헌종왕세손 옥인>, 1830,  
옥석, 전체 높이 10.2cm,  
국립고궁박물관

### (7) 19세기 옥인의 제작 장인

1800년 당시 玉印 1과를 만들기 위한 옥은 지방에서 캐서 복정하지 않고 이미 호조에 보관하고 있던 옥괴를 사용하였다.

왕세자의 玉印은 이미 18세기에 규례로 정해져 있어서 사방 4치 9푼, 높이 1치 2푼이다. 거북이 길이는 6치 4푼, 거북이 머리 길이는 1치 5푼, 거북이 높이는 2치 5푼이다. 옥인의 印綬는 紅眞絲 다회로 만드는데, 큰 끈 1개에 流蘇를 만들고 방울[方兀]를 달아서 거북이를 뚫어낸 구멍을 꿰어 묶는다. 주위의 둘레는 4푼, 길이는 6자 5치이다.

옥인 1과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표면을 반짝이게 닦아 윤을 내는데 쓰는 鍊光용 재료는 白蠟 3돈이다. 옥인의 경우에도 거북이의 형상을 본을 떴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밀납[黃蜜] 7돈을 사용하여 만든다. 인수에 해당되는 큰 끈을 만들 감은 홍진사 2냥 5돈이고, 소[栗] 감은 홍향사 1냥이며, 방울을 감싸는 紙金은 2장이다.

<표> 19세기 책레도감 2방의 장인 종별과 종수

연대	대상	책봉	도감	2방 장인의 종별	종수	소장번호
1800	순조	왕세자	책레	화원, 옥장, 옥각수, 두석장, 소로장, 칠장, 낭자장, 마경장, 인통장, 쇠약장, 도자장, 다회장, 호감장, 담편장, 과록장, 이지장, 시장, 천혈장, 침선비	19	규13119
1812	효명	왕세자	책레	화원, 옥장, 옥각수, 도자장, 인통장, 두석장, 호감장, 담편장, 이지장, 시장, 마경장, 소로장, 칠장, 소목장, 천혈장, 과록장, 쇠약장, 줄장, 조각장, 낭자장, 다회장, 소은장, 책장, 병풍장, 침선비	24	규13125
1830	헌종	왕세손	책레	화원, 옥장, 옥각수, 인통장, 두석장, 호감장, 담편장, 이지장, 시장, 마경장, 도자장, 소로장, 소목장, 천혈장, 과록장, 은장, 조각장, 마조장, 낭자장, 병풍장, 책장, 침선비,	22	규14190
1875	순종	왕세자	책레	화원, 옥장, 옥각수, 두석장, 호감장, 담편장, 도자장, 마경장, 다회장, 진칠장, 시장, 소로장, 천혈장, 마조장, 병풍장, 낭자장, 쇠약장, 줄장, 침선비	19	규13169

19세기에 왕세자나 왕세손을 책봉할 때에는 화원을 비롯하여 옥장과 옥각수, 도자장 등 장인의 장색이 적을 때는 19종, 많을 때는 24종의 장색을 동원하여 평균적으로 21종이었다. 이것은 17세기의 22종과 비슷하나 18세기의 29종보다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다.

### 가. 19세기 옥장

19세기의 책레도감 2방에 동원한 옥장과 각수와 도자장 및 다회장의 인원수는 18세기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옥장은 대체로 2명, 옥각수나 도자장 및 다회장은 대체로 1명이다.

<표> 19세기 도감 2방에서 옥인을 제작한 옥장, 각수, 도자장, 다회장 명단

연대	대상	도감	현존	도감	각방	玉匠	玉刻手	刀子匠	다회장	소장번호
1800	순조	왕세자*	어보85	책레	2방	黃慶郁	金千得	池順才	朴尙益	규13119
1812	효명	왕세자		책레	2방	李大得, 朴潤得	李東植	李東植	李再郁	규13125
1830	헌종	왕세손*	어보91	책레	2방	嚴得成, 李昌根	李東植, 李燦奎	田應春	-	규14190
1875	순종	왕세자*	어보102	책레	2방	朴英根, 李昌烈	芮光國	李同根	黃益善	규13169
1885	순종빈	왕세자빈*	어보311	가례	2방	孫錫祚 등 4명	金永植, 李孝一	李培植	李守吉	규13174

1800년 순조를 왕세자를 책봉할 당시 옥인을 제작한 옥장 黃慶郁은 1783년 정순왕후와 혜빈에게 존호를 올릴 때 옥인을 제작하여 1802년 정순왕후와 효의왕후의 존호를 올리는 존승도감 3방에서 옥보를 제작할 때까지, 19년간 옥장으로 성장하였다.

1812년 효명 왕세자를 책봉할 당시 옥인을 제작한 옥장 李大得은 1783년 정순

왕후와 혜빈에게 존호를 올릴 때 옥보나 옥책을, 1795년 정순왕후와 혜빈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호도감, 1800년 정조 국장도감의 3방에서 옥책을, 1819년 혜빈의 상례 때 도감의 3방에서 옥책이나 애책을 만들 때 옥장의 우두머리였다. 이처럼 이대득은 11783년부터 1816년까지 33년간 옥책이나 옥인을 제작하는 도감에서 옥장의 우두머리였던 18세기 말 19세기 초 대표적인 옥장이었다.

옥장 嚴得成은 1819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1830년 효명세자의 예장도감 때, 1830년 헌종을 왕세손으로 책봉 옥인을 제작할 때에는 옥장의 우두머리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엄득성은 1819년부터 1835년까지 17년간 국가의 옥업에 참여한 옥장이었다.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의 1방과 2방에서 옥인 등을 제작한 옥장은 朴英[永]根이다. 그는 1863년 신정왕후와 효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도감에 옥장으로 참여하였던 기록이 처음으로 보인다. 이후 고종 대에 존호 존숭도감에서 주로 활동하였고, 1875년 책례도감까지 1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참여하였을 뿐이다.

19세기의 옥장 집안은 19세기 초의 옥장 李昌根과 19세기 중반의 李昌烈에 의해 확인된다. 이창근은 1827년부터 1841년까지, 이창렬은 1843년부터 1875년까지 국역을 졌다. 이들도 박영근과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만 활동한 것이 확인된다.

#### 나. 19세기 옥인각수나 옥각수

19세기에는 옥인에 전문을 새기는 각수를 옥각수나 옥인각수로 불렀다.

1800년 옥각수 金千得은 1772년부터 1805년까지 33년간 활동한 18세기 말 19세기 초를 대표하는 교서관 소속 관각수였다. 그는 옥책이나 옥보나 옥인 및 표석이나 지석 등과 같이 옥석에 글자를 새기는 데 특장이 있었다. 1772년 현종과 영조의 존호도감에서 각수로 참여하여, 1784년 영조와 사도세자에게 존호도감, 1795년 존호도감 등에서 옥각수 중 우두머리로 성장하였다.

1812년과 1830년 책봉도감 2방에서 옥인에 글을 새겼던 옥각수 李東植은 1789년부터 1830년까지 41년간 14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진 19세기 초를 대표하는 옥각수이다. 그는 처음 동원된 1789년 사도세자의 영우원을 친봉하는 도감에서는 지석에 새기는 석각수였다가 1795년 존호도감 1방에서 정순왕후의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옥각수로 활동하였다. 특히 그는 ‘東’자 돌림을 쓴 각수 집안의 일원으로서 각수 李東珍, 李東植, 李東彬, 李東根, 李東運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장인 집안의 형제 여럿이 국가적인 옥업에서 옥책이나 옥보나 옥인 및 표석 등 거의 전 분야에 골고루 활발하게 참여했다.

1830년 헌종의 왕세손 책봉 때 참여하여 옥인을 제작하였던 옥각수 李燦奎는 이후 1849년 헌종의 국장 때에는 옥책을 제작하는 옥각수로 활동하였고, 더 이상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875년 순종의 왕세자 책봉 때 옥인을 새긴 옥각수 芮光國는 1859년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옥각수였으나, 1863년 철종의 예릉의 대부석소에서는 석각수로도 불렸다. 이후 그는 1904년까지 효정왕후의 국장 때까지 45년간 13곳의 도감에서 옥각수로 활동한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각수로서, 대부분의 도감에서 옥책이나 옥보 및 옥인을 제작한 옥각수였다.

#### 다. 19세기 도자장

19세기의 刀子匠으로는 1800년 智順才, 1812년 李東根, 1830년 田應春, 1875년 李同根 등이 있다.

1800년 순조를 책봉할 때의 도자장 智順才는 1778년에 처음 기록에 보이기 시작한다. 1778년 정조가 효의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1방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 10명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로서 가장 앞에 기록되어 3등상을 받았다. 같은 해 정조와 정순왕후의 존호를 올릴 때, 같은 해 영조와 정성왕후 및 진종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할 때에도 마찬가지로였다. 이처럼 智順才는 1778년부터 1804년까지 26년간 14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졌던 18세기 말 19세기 초를 대표하는 도자장이다.

이중 1812년 李同根이나 1875년 李同根은 1번의 도감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1830년 헌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 활동한 田應春은 18세기 중반의 대표적인 도자장이다. 그는 1827년 순조의 존호도감부터 기록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당시 10명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 역할을 하여 도감역이 끝난 후 3등상을 받았다. 이후 1837년까지 10년간 7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 라. 19세기 다회장

19세기 왕세자나 왕세손 책봉 시 옥인의 인수를 제작한 다회장은 1800년 朴尙益, 1812년 李再郁, 1875년 黃益善이다. 이중 박상익은 1회만 참여했을 뿐이다. 1812년 효명세자를 책봉할 때 인수를 제작한 다회장 이재욱의 경우 1809년 종부시에 속하여 선원보를 수정할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여, 1821년 효의왕후의 국장까지 활동하였다. 그는 1809년부터 1821년까지 12년간 7곳에서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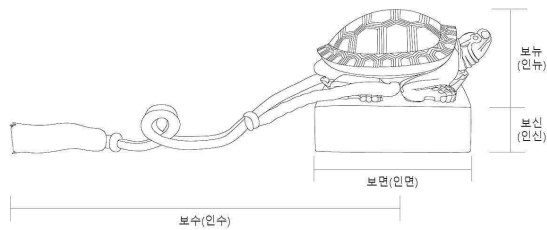


<신정왕후존호옥보 보수, 1869> <신정왕후존호옥보 보수, 1877> <신정왕후존호옥보 보수, 1890>



## 2) 금보

어보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왕비, 왕세자(王世子), 왕세자빈(王世子嬪) 등을 책봉(冊封)하거나 왕과 왕비, 상왕(上王), 왕대비(王大妃), 대왕대비(大王大妃) 등에게 존호(尊號), 시호(諡號), 묘호(廟號), 휘호(徽號) 등을 올릴 때 옥이나 금속에 그 호칭을 새겨 수여하는 의례용 인장을 말한다. 이러한 어보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및 『조선왕실의례』 등의 기록을 통해 491과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331과가 전해지고 있다. 어보는 이것을 담고 싸서 봉안하는 부속물로서 보통(寶筒)과 보록(寶奩) 및 호갑(護匣) 등과 함께 각종 보자기나 끈 등도 함께 제작된 조선왕실공예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보를 제작한 재료는 금, 은, 백철, 옥 등이 있다.



<어보의 세부 명칭>



<세종비 소헌왕후 시호금보, 1446년>

### (1) 금보의 종류

금보를 수여하는 대상은 왕과 왕비, 상왕·태상왕, 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이다. 그중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금보로 제작한다. 존호를 올리거나 존숭하는 경우 대상이 살아있을 때에는 옥보를 수여하고, 사후에는 금보를 수여한다. 왕이나 왕비의 사후에 제작하는 시호보인 경우에는 금보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사후에 시호를 올리거나 돌아가신 분에게 추상존호를 올릴 때에 금보를 제작하여 올린다.

금보는 왕과 왕비에게만 올릴 수 있는 어보이다. 어보의 보문은 왕실 인사의 명칭 및 호칭과 큰 관련이 있다. 이는 각종 의례에 따른 분류라 볼 수 있다. 수여 대상을 해당 지위에 봉하는 책봉 의례 때 제작하는 책봉보(인), 덕을 기리기 위해 제작하는 존호보, 사후 시호와 묘호를 올릴 때 제작하는 시호보 등으로 나뉜다. 국왕의 즉위 이후 생전의 존호는 옥보이지만, 사후에는 금보로 제작했다. 왕비의 경우 책봉 어보는 금보, 책봉 이후 생전에는 옥보, 사후에는 금보를 제작했다.

구분	왕세자	왕세자빈	왕		왕비		후궁	비고
			생전	사후	생전	사후		
책봉	玉印	玉印	-	-	金寶	-	-	
존호	玉印	玉印	玉寶	金寶	玉寶	金寶	-	
시호	玉印	玉印	-	金寶	-	金寶	金, 銀印	
묘호	-	-	-	金寶	-	-	-	
휘호	-	-	-	-	-	金寶	-	

책봉금보는 왕비나 황후·황태자·황태자비는 금보로 제작하였다. 존호금보는 왕과 왕비, 상왕 등 왕실 선조의 덕을 기리기 위해 존호를 올릴 때 제작한 어보를 말한다. 해당 인물에게 처음으로 존호를 올리는 것을 상존호, 그 이후 존호를 더하여 올릴 때는 가상존호, 사후에 존호를 올릴 때는 추상존호라 명하였다. 시호금보는 왕과 왕비의 사후 올리는 이름을 시호라 하고 이것을 금보로 만든 것이다. 시호는 묘호와 함께 8글자로 올린다. 처음 올리는 것을 상시호, 그 이후 추가로 더하여 올리는 것을 추상 시호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시호를 올리며 제작된 어보는 총 39과이며 대한제국 시기 이후 제작된 고종, 순종의 시호 어보는 옥보로 제작되어 왕과 황제간 시호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 가. 책봉금보

왕비의 책비례를 거행할 때 가례도감이나 책례도감을 설치하고, 도감 2방에서 금보를 제작하여 들인다. 이중 현존하는 왕비의 책봉 금보는 14과이다.

이러한 왕비 책봉어보는 모두 금보에 귀뉴로 되어 있으며 보문은 ‘왕비지보(王妃之寶)’이다. 인조비 인렬왕후 한씨는 1610년(광해군 2) 능양군(인조)과 혼인하여 청성현부인(淸城縣夫人)으로 봉해졌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능양군이 왕이 됨에 따라 왕비로 책봉되었고 금보를 제작하였다. 인조계비 장렬왕후 조씨는 1635년(인조 13) 사망한 인렬왕후의 뒤를 이어 1638년(인조 16) 왕비로 책봉되었다. 효종비 인선왕후 장씨는 1631년(인조 9) 14세에 봉림대군(효종)과 혼인하여 풍안부부인(豊安府夫人)에 봉해졌다. 1646년(인조 24)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가 효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현종비 명성왕후 김씨는 1651년(효종 2) 현종과 혼인하여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며, 1659년(현종 즉위년) 왕비로 책봉되었다. 숙종비 인경왕후 김씨는 1671년(현종 12) 왕세자빈에 책봉되었고, 1674년(숙종 즉위년) 왕비에 책봉되었다. 인현왕후 민씨는 인경왕후 사망 후 1681년(숙종 7) 숙종의 계비(繼妃)로 책봉되었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의 여파로 폐위되었다가 5년 후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복위되어, 같은 해 6월 1일

정식으로 왕비 책봉을 받았다. 현재 전하는 것은 복위 때 만든 어보이다. 숙종계비 인원왕후 김씨는 인현왕후가 승하하자 1702년(숙종 28) 숙종의 세 번째 왕비로 책봉되었다.

<표> 현존하는 왕비 금보의 체제와 현황

연대	대상			도감	현존	유물번호	도감의뢰
1638	인조 계비	중전	장렬왕후 조씨	가례	○	어보144	규13061
1651	효종	중전	인선왕후 장씨	책례	×	-	규13066
1651	현종 세자빈		명성왕후 김씨	책례	×	-	규13071
1676	숙종	중전	인경왕후 김씨	책례	○	어보152	규13078
1694	숙종 계비		인현왕후 민씨	책례	○	어보159	규13501
1696	경종 세자빈		단의왕후 심씨	책례	○	-	규13092
1702	숙종 계비	중전	인원왕후 김씨	가례	○	어보165	규13089
1718	경종 세자빈		선의왕후 어씨	책례	○	-	규13094
1722	경종 계비	중전	선의왕후 어씨	가례	○	어보179	규13097
1726	영조	중전	정성왕후 서씨	책봉	○	어보187	규13100
1727	진종 세자빈		효순왕후 조씨	책례	×	-	규13105
1744	장조 세자빈		헌경왕후 홍씨	책례	×	-	규13109
1759	영조 계비	중전	정순왕후 김씨	가례	○	어보198	규13102
1778	정조 비	중전	효의왕후 김씨	가례	○	어보227	규13114
1802	순조 비	중전	순원왕후 김씨	가례	○	어보233	규13122
1837	헌종 비	중전	효현왕후 김씨	가례	○	어보273	규13139
1751	철종 비	중전	철인왕후 김씨	가례	○	어보294	규13147
1866	고종 비	중전	명성황후 민씨	책례	○	어보300	규13153
1897	고종 비	황후	명성황후 민씨	대례	○	어보299	규13486
1897	순종 비	황태자	순명황태자빈 민씨	대례	○	어보309	규13486

18세기의 경종계비 선의왕후 어씨는 1718년(숙종 44) 첫 번째 왕세자빈인 심씨(단의왕후)가 사망하자 그 해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어 가례를 올렸고, 1720년 경종이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영조비 정성왕후 서씨는 1721년(경종 1) 연잉군이 왕세제로 책봉됨에 따라 왕세제빈(王世弟嬪)이 되었다. 1724년 연잉군이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영조계비 정순왕후 김씨는 정성왕후(貞聖王后)가 사망하자 1759년(영조 35) 15세로 나이로 51세 연상인 영조와

혼인하여 왕비로 책봉되었다. 정조비 효의왕후 김씨는 1762년(영조 38) 왕세손빈(王世孫嬪)에 책봉되고,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19세기에 들어 순조비 순원왕후 김씨는 1800년(정조 24) 왕세자빈 간택 중 정조의 사망으로 왕세자빈에 책봉되지 않고 1802년(순조 2) 10월 왕비로 책봉되었다. 헌종비 효현왕후 김씨는 1837년(헌종 3) 10세에 왕비에 책봉되었다. 1843년(헌종 8)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에서 16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순종 때 효현성황후(孝顯成皇后)에 추존되었다. 철종비 철인왕후 김씨는 당시 대왕대비 순원왕후의 근친(近親)로 1851년(철종 2) 왕비에 책봉되어 어의동(於義洞) 본궁에서 가례를 올렸다. 고종비 명성황후 민씨는 1866년(고종 3) 간택령에 따라 금혼령을 내리고 2월 25일 창덕궁 중희당에서 초간택을 하였다. 재간택, 삼간택을 거쳐 왕비로 책봉되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해 승하한 명성황후에게 ‘황후지보’를 금보에 용뉴로, 순종세자빈을 순명황태자비로 책봉하고 ‘황태자비지보’를 금보에 귀뉴로 제작하여 현존하고 있다.

## 나. 시호금보

조선의 임금의 왕이 승하하면 묘호와 시호를 올리면서 국장도감 3방에서 시보 1과를 금보의 형태로 제작한다. 어보를 재질에 따라 구분할 때 왕과 왕후의 금보는 총 144과이다. 이중 왕이 승하한 이후 제작한 시보는 현재 30과가 있으며, 이것들은 금보이고 원종과 고종 및 순종의 3과는 옥보이다. 1619년 승하할 당시에 왕이 아니어서 1632년(인조 10) 추존왕으로 추승하면서 만든 것이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종의 시보는 1919년 승하한 후 제작하였고 순종의 시보는 1926년 승하한 후 제작하였는데 둘 다 옥보이다.

### (2) 금보의 양식적 특징

직뉴형은 왕세자빈이나 공주 등에게 수여되고 제작시기는 주로 조선 전기부터 중기 사이에 제작되었다. 문종비 현덕왕후 상시호 금인은 1441년(세종 23) 당시 왕세자빈이었던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사망하자, 이때 ‘현덕(顯德)’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제작한 것이다. 인면(印面)에는 ‘현덕빈인(顯德嬪印)’이라고 새겨져 있고 인판은 3단의 계단 형태로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이다. 막대형의 손잡이는 직육면체의 모습으로 윗부분은 약간 볼록하게 만들었으며, 막대 아랫부분에 동그란 구멍을 뚫어 인끈[綬]을 연결하였다.

거북형은 왕과 왕비, 대왕대비, 왕세자, 왕세자빈 등 왕실의 모든 구성원에게 수여되었고 제작시기는 조선전반부터 대한제국기까지 가장 많이 제작된 형태이다.

용뉴는 조선 초기에는 용을 손잡이로 하는 용뉴 금보가 제작되었다. 『종묘등록』의

기록에 1408년(태종 8) 9월에 제작된 태조 시호금보와 1419년(세종 1) 12월에 제작된 정종 시호금보, 1422년(세종 4) 9월에 제작된 태종 시호금보 등 3과가 용뉴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용뉴의 어보가 제작되었으나, 세종 때부터 명(明)과 시대관계가 정립된 이후부터 거북이 손잡이의 귀뉴 어보가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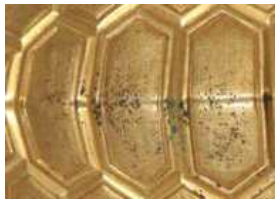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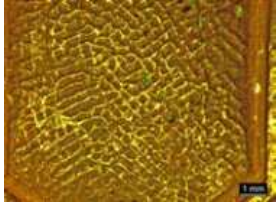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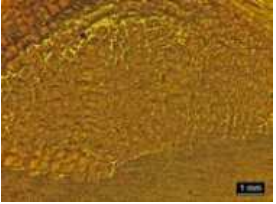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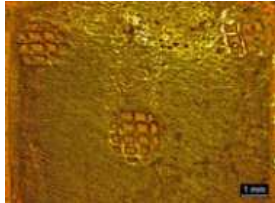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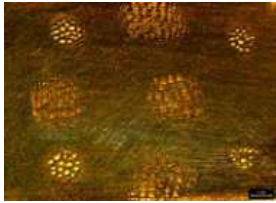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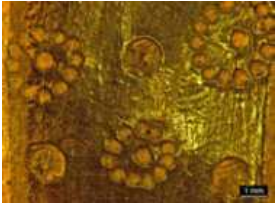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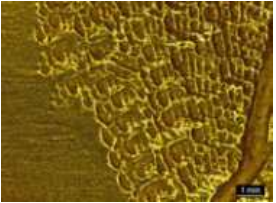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황제를 상징하는 용을 손잡이로 하는 용뉴금보로 보문은 ‘황후지보(皇后之寶)’이다. 몸체는 물고기 비늘로 덮였고 등에 지느러미와 화염 형태의 털이 묘사되어 있다. 뿔은 사슴뿔[鹿茸] 형태이고, 얼굴에는 갈기와 충수를 달았으며 꼬리는 말 꼬리처럼 세 가닥으로 나뉘어져 몸체를 덮고 있다. 귀는 소의 귀를 닮았고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전형적인 용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전통적으로 용은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황제를 용의 신하로 비유하기도 하였으며, 원(元)대에는 용을 황실의 전용물로 명문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용은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황제만이 용뉴의 어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 전하고 있는 용뉴 어보는 2과이며 모두 대한제국 시기에 황제국으로서 위상을 천명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현존하는 유물은 1897년 9월 17일에 수여한 고종비 명성황후 민씨의 ‘황후지보(皇后之寶, 어보299)와 1907년 8월 7일 고종의 양위로 순종이 황위에 오르고 영친왕을 황태자로 책봉할 때의 ‘황태자보(皇太子寶, 어보310)가 현존하고 있다. 용뉴형 어보는 보신 위에 얹드린 용을 조각했고, 등줄기 위에 양각으로 갈기를 표현했다, 또한 몸의 비늘을 굵게 나타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용의 입에는 송곳니를 드러내고 입 주변에는 수염을 표현했으며, 이마에는 뿔을 달았다.

## 가. 귀갑문

1441년부터 1651년(효종 2)까지 만들어진 26과의 귀뉴형 금보에는 귀갑만이 새겨진다. 이후 1676년(숙종 2)부터 1816년(순조 16)까지 제작된 귀뉴형 금보 51과 중 2과를 제외한 49과는 귀갑 내부에 문양을 새겨 장식하였다. 1835년(헌종 원년)부터 1924년까지 제작된 73과의 귀뉴형 금보는 귀갑 내부의 문양이 사라지고 다시 귀갑만이 새겨진다.

1676년부터 1816년까지 제작된 귀뉴형 금보에서 확인되는 귀갑 내부 문양은 크게 점각으로 장식한 문양과 조이질하여 장식한 문양으로 구분된다. 두 문양은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점각 문양은 1676년부터 1730년(영조 6)까지 제작된 금보에서, 조이질문양은 1739년(영조 15) 부터 1816년까지 제작된 금보에서 확인된다. 점각은 격자, 화형, 원형 등의 무늬를 새겨 장식하였다. 문양들은 귀갑 내부에 한 종류 또는 두 종류가 혼합되어 나타나며, 한 귀뉴의 귀갑문 내부에는 동일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점각 문양이 새겨진 금보 중 1705년(숙종 31) <금보개조도감>에서 제작된 9과의 금보는 같은 형태의 원형문과 화형문 조합이 확인된다. 조이질문양은 귀갑면 일부를 정으로 쪼아 표면에 반원형이나 삼각형 형태의 요철을 새겼다. 예외적으로 1688년(숙종 14)에 제작된 <인조계비 장렬왕후 상시호금보(G037)>에서도 조이질이 확인되는데, 1739년에서 1816년 사이 제작된 금보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다르게 귀갑면 전체를 조이질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체 쪼이질		부분 쪼이질	
귀갑	세부 현미경사진	귀갑	내부 세부 현미경사진
			
1688년		1778년	
점문			조이질
격자	격자문+화형문	원형문+화형문	
			
1681년	1702년	1705년 숙종	1776년 영조시호금보

### (3) 금보의 재료

의뢰를 통해 살펴보면 금보의 제작은 황동(黃銅)을 주재료로 삼아 주조하여 만든다. 순금은 재질이 물러서 글자면이 쉽게 손상될뿐더러 채용(財用)적인 면에서 왕실의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동(銅)이나 천은(天銀)으로 제작한 뒤 표면을 금으로 도금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시보를 제작할 때의 재료는 17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는 대체로 일치하여 鍊黃銅에 鍍金을 했다. 실제로 시호금보를 제작하기 위해 실제 도감에 들었던 재료를 보면 1649년 인조의 국장 때에는 연황동 12근, 숙동 1근, 두석 4냥씩을 섞어서 연황동을 만들고, 정련할 때 실제 들인 것은 6근, 도황금 6돈 3푼, 수은 4냥 2돈, 백은 3돈, 비상 1돈, 붕사 2푼이었고, 족제비털붓[黃毛筆] 1자루와 진묵 1정이었다. 이러한 재료는 1675년 현종의 국장 때에도 대체로 유사하여 연황동 13근, 도황금 7돈, 백은 1돈, 비상 3돈, 붕사 3돈 2푼, 황필 2자루, 진묵 1정이다. 이를 통해 연황동 위에 수은아말감 기법을 사용하여 도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황밀에 글자를 새기고 조각하여 연황동을 녹여 주물을 떠낸 다음 그 위에 백은, 비상, 붕사

등을 매제로 삼아 황금을 녹여 도금하였다. 시보를 제작하고 나면 여기에 綬兒를 짜서 印綬[寶綬]를 만든다. 이를 위해 1649년 인조 국장 때에는 홍진사 2냥 1돈, 소감으로는 홍향사 8돈, 금전지 1장, 황밀 3근, 무늬 있는 홍단 7치, 소감의 설면자 5돈, 자적초는 길이 2자, 나비 2치, 진홍사 1푼, 금전지 2장, 남진사 1돈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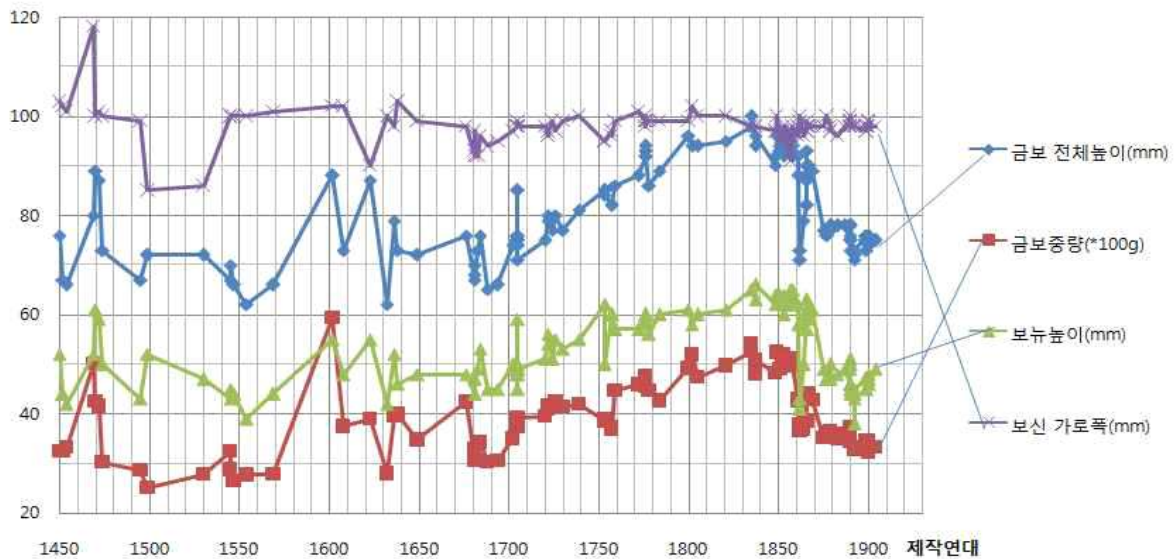
<표> 시보 금보의 재료

왕대	국왕	연황동	두석	도황금	수은	백은	비상	붕사	황밀	의뢰번호
17	효종	15근/6근반	4냥	4돈2푼	2냥5돈	2돈	3돈	3돈2푼	1근11냥	규13527
18	현종	13근/	-	7돈	4냥	1돈	3돈	3돈	1근11냥	규13539
19	숙종	13근		7돈	4냥2돈	1돈	3돈	3돈2푼	1근11냥	규13548
20	경종	13근		5돈	3냥2돈	1돈	3돈	3돈2푼	1근11냥	규13566
21	영조	銅鐵13근		7돈	4냥2돈	1돈	3돈	3돈2푼	1근11냥	규13581
22	정조	숙12근	합석 1근9냥	4돈	2냥3돈	1돈	1돈3푼	2돈3푼	1근8냥	규13634
23	순조	숙14근	6근	4돈	2냥3돈	1돈	1돈3푼	1돈	1근8냥	규13669
24	헌종	숙14근	6근	3돈	2냥	1돈	1돈	1돈		규13784
25	철종	숙14근	6근	3돈	2냥	1돈	1돈	1돈		규13844

이러한 시보에 대한 구조와 형식 또한 시책과 마찬가지로 1757년(영조 33)에 편찬한 『國朝喪禮補編』에서 확인된다. 여기에는 국왕의 사후에 올리는 諡號의 篆文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諡寶에 대한 규모나 체제 및 구성 요소를 알 수 있다. 이때 규정된 내용에 의하면 시보의 재료는 연황동에 도금을 했으며, 무게는 6근 반이었다. 금보의 허리는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는 홍진사로 綬兒를 길이 2자, 무게 2냥을 걸어 印綬를 만드는 것이다. 1800년 정조의 국장 이후 19세기에 시보의 재료는 연황동 대신 숙동합석熟銅含錫으로 기본 재료가 바뀌었고, 인수의 재료 또한 이전까지 홍진사 였는데, 홍융모사紅絨毛絲를 사용하도록 바뀌었다. 이를 통해 연황동 위에 수은아말감 기법을 사용하여 도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황밀에 글자를 새기고 조각하여 연황동을 녹여 주물을 떠낸 다음 그 위에 백은, 비상, 붕사 등을 매제로 삼아 황금을 녹여 도금한 것이다.

금보의 사방 크기는 같으나 거북이의 높이는 1치 5푼에서 2치 1푼으로 조금 키가 커졌다. 시보에 대한 구조와 형식 또한 시책과 마찬가지로 1757년(영조 33)에 편찬한 『國朝喪禮補編』에서 확인된다. 이를 통해 諡寶에 대한 규모는 예기적으로 사방 3치 5푼이고, 거북이 손잡이의 높이는 1치 5푼이다. 1800년 정조의 국장 때 부터 금보의 사방 크기는 같으나 거북이의 높이는 1치 5푼에서 2치 1푼으로 조금 키가 커졌다.

현존하는 유물에 의하면 1610년 선조상시호금보는 높이 7.3cm, 보누는 4.8cm, 보면은 10.2×10.2cm, 보신의 높이는 2.5cm이다. 1649년 인조상시호금보는 전체 높이가 7.2cm, 보누는 4.8cm, 보면은 9.9×9.8cm, 보신은 2.4cm이다. 1683년 태조추상시호금보도 높이 7.3cm, 보누 4.9cm, 보면 9.5×9.5cm, 보신은 2.4cm이다. 대체로 17세기의 것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18세기의 것으로 전체 높이가 8.5~9.5cm, 보누는 6.2cm, 보신은 9.5×9.5~10.2~10.2cm에 해당되었다. 19세기의 것은 높이가 9.0cm, 보누 6.0~6.2cm, 보면은 9.8×9.8cm, 9.9×9.9cm에 해당되었다.



<표> 조선후기 국왕 시보의 치수와 재료

	국왕	사방	龜高	재료	무게	纓子綬兒						소장번호
						재료	무게	소	무게	장	금전지	
1649	인조	3치 5푼	1치 5푼	鍊黃銅, 鍍金	6근	홍진사	2냥1푼	홍향사	8돈	2자	3냥	규13521
1659	효종	3치 5푼	1치 5푼	鍊黃銅, 鍍金	6근반	홍진사	2냥1푼	홍향사	8돈	2자	3장	규13527
1675	현종	3치 5푼	1치 5푼	鍊黃銅, 鍍金	6근반	홍진사	2냥1푼	홍향사	8돈	2자	3장	규13539
1721	숙종	3치 5푼	1치 5푼	鍊黃銅, 鍍金	6근반	홍진사	2냥1푼	홍향사	8돈	2자	3장	규13548
1724	경종	3치 5푼	1치 5푼	鍊黃銅, 鍍金	6근반	홍진사	2냥1푼	홍향사	8돈	2자	1장	규13566
1757	國朝 喪禮補編	3치 5푼	1치 5푼	黃銅, 鍍金	6근반	홍진사	2냥	홍향사	8돈		1장	규13734
1776	영조	3치 5푼	1치 5푼	銅鐵, 鍍金	6근반	홍진사	2냥	홍향사	8푼	2자	1장	규13581
1800	정조	3치 5푼	2치 1푼	熟銅含錫, 鍍金	6근반	紅絨毛絲	2냥	홍향사	8푼	2자	1장	규13634
1835	순조	3치 5푼	1치 5푼	熟銅含錫, 鍍金	6근반	紅絨毛絲	2냥	홍향사	8푼	5자	1장	규13669
1849	헌종	3치 5푼	2치 1푼	熟銅含錫, 鍍金	6근반	紅絨毛絲	2냥	홍향사	8푼	5자	1장	규13784
1864	철종	3치 5푼	2치 1푼	熟銅含錫, 鍍金	6근반	紅絨毛絲	2냥	홍향사	8푼	5자	1장	규13844 장2-022



시보를 제작하고 나면 여기에 수아를 짜서 인수를 만든다. 이를 위해 1649년 인조 국장 때에는 홍진사 2냥 1돈, 소감으로는 홍향사 8돈, 금전지 1장, 황밀 3근, 무늬 있는 홍단 7치, 소감의 설면자 5돈, 자적초는 길이 2자, 나비 2치, 진홍사 1푼, 금전지 2장, 남진사 1돈을 들었다. 정조 국장 때에 시보에 인수용 영자纒子는 홍용모사를 사용하였고, 다회의 속감으로는 홍색 향사를 쓴다. 방울[方兀]과 술[蘇兀]을 갖추며, 길이는 5자이다. 헌종대 수아의 감은 영자는 홍용모사 2냥을 사용하였고, 다회의 속감으로는 홍향사 8푼을 쓴다. 안쪽에는 금전지 1장을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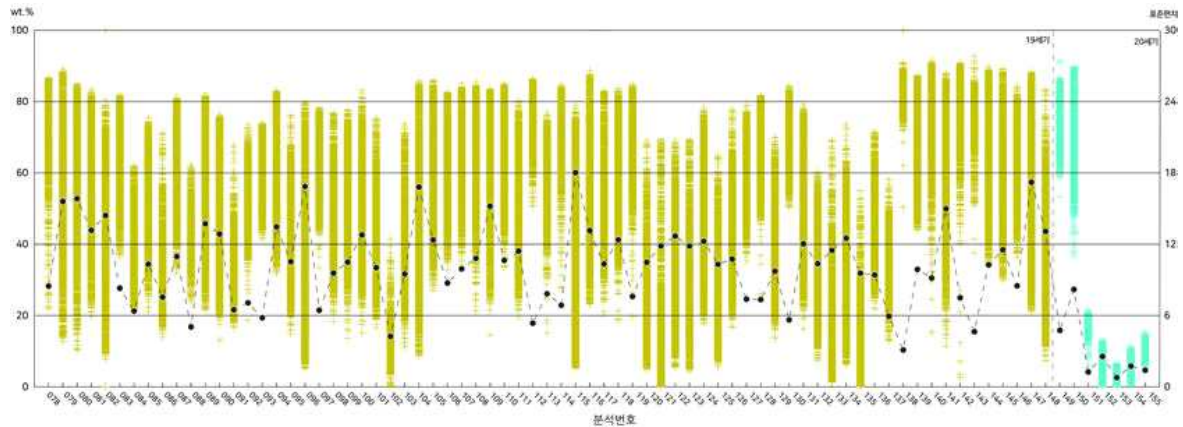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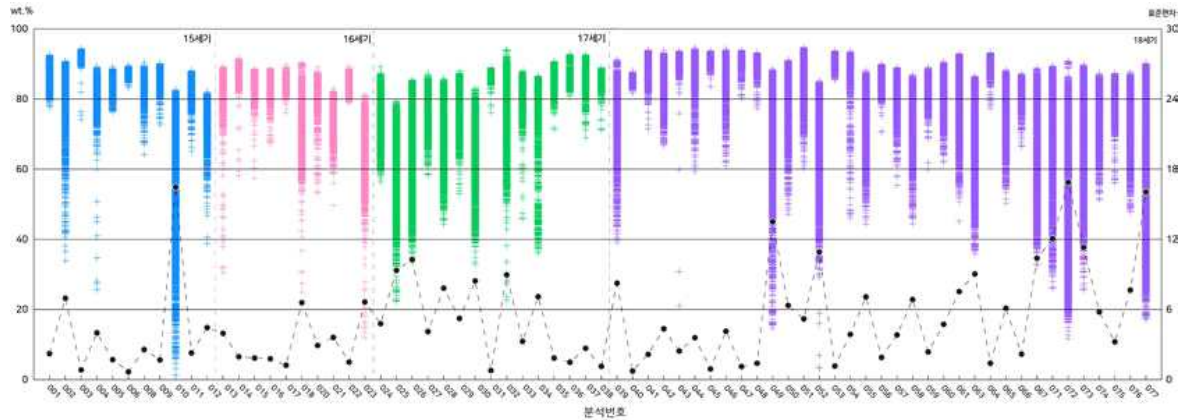
### 가. 재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

금보 155과 전체 중 93%인 145과는 구리합금이다, 설분에서는 구리와 아연이 검출되었으며, 아연의 함량은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15~17세기의 구리 합금 금보 35과 중 1681년 <정종추상시화금보> 1과만 아연 10.17%이고 이것을 제외하고 모두 아연 함량은 10% 미만이었다. 반면 18세기에는 아연 함량이 10%이상인 금보가 10%미만인 금보보다 더 많이 제작되었으며, 아연 함량이 20%를 넘어가는 금보도 소량이나마 확인된다. 특히 18세기 초반까지 제작된 금보에서는 아연 함량이 약 10% 초반을 넘지 않으나, <중종비 단경왕후 상휘호 금보> 가 제작된 1739년 이후부터 아연 함량이 10% 중반 이상인 금보가 주로 제작되었다. 19세기에는 아연 함량 10% 미만의 금보는 소량만이 확인되고, 대부분의 금보에서 10% 이상의 아연 함량이 확인된다.

금보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밀납으로 견양을 만들고, 밀납 견양의 주변으로 백토와 개흙을 사용하여 흙을 덮어 거푸집을 마련한다. 개흙은 강가나 개울가, 늪바닥에 있는 부드러운 흙으로 가는 마[삼베]와 교합하여 사용한다. 밀납 견양의 삼베는 개흙이 잘 붙도록 마찰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바탕 금속이 구리에 은합금인 금보는 4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리 은 합금의 금보는 도금층에 의해 구리합금의 금보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도금의 경우 <금보개조도감의궤>에 기록된 바 금보 1과에 소용되는 물품으로 ‘도금’, ‘수은’ 등 수은 아말감 도금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금과 함께 수은 등이 검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은 아말감 도금기법을 사용하여 금보 표면을 도금한 것을 알 수 있다.



<금보 중 보신 부분의 도금층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Line scan 방법’으로 금의 산포도를 분석한 결과 18세기 후반 1776년 <진종추상시호 금보> 이후 1990년 <효종비 인선왕후 추상존호 금보>까지 금 함량의 최소값이 20%로 작아지면서 표준편차도 6% 이상으로 분포하였다. 이로 인해 이 시기에 제작된 금보의 도금층이 이전에 제작된 금보에 비해 균일하지 못하고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에 제작된 일부 금보의 경우 금이 4~17%로 다른 금보에 비해 금 함량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수은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이에 도금층이 얇아 검출되지 않았거나 수은아말감법이 아닌 옷이나 아교에 의한 도금 등의 가능성도 비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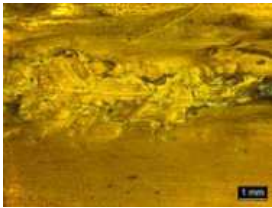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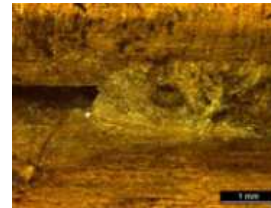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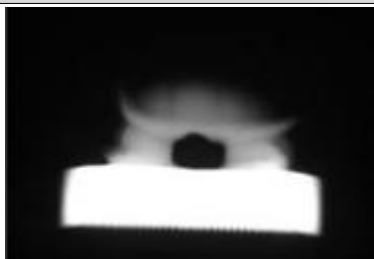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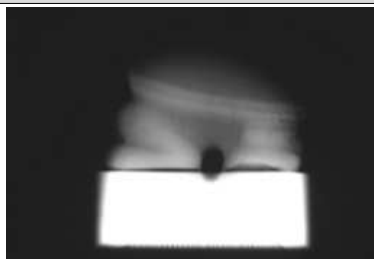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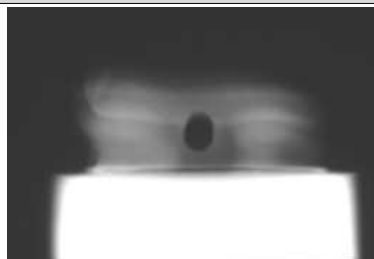
#### (4) 금보의 제작 방식: 보면과 귀뉴의 결합 방식

보면과 귀뉴의 결합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은 4가지 경우가 보인다.

보뉴·보신의 경계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1776년(영조 52)에 제작된 <정조 추존은인>의 보뉴·보신의 경계면은 중심부에 은색 원기둥이 관찰된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보뉴와 보신을 각각 별도로 제작한 다음 리벳으로 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1835년 제작된 <문조 추상 시호 금보>, 1897년 제작된 <고종비 명성황후 책봉 금보>, 1900년(광무 4) 제작된 <인조 추상존호 금보>의 보신·보뉴

경계면이 들뜬 사이에는 뿔자국이 관찰되었다. 이처럼 4과의 금보는 18세기 후기 이후에 제작되었는데, 이 같은 흔적들을 통해 보신과 보뉴를 각각 주조한 후 리벳으로 연결하였거나 뿔질하여 접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일체형으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 보신·보뉴 분리 주조 후 결합방식으로, 1924년에는 일체형으로 제작했음을 밝혔다.

리벳	뿔질 흔적		
			
정조 추존은인, 1776년	문조 추상 시호 금보, 1835년	명성황후 책봉 금보, 1897년	인조 추상존호 금보, 1900년
경계면 구분되지 않음	경계면 들뜸	경계면 사이 이물질	
			
예종금보, 1469	문조 추상 시호 금보, 1835년	1862년	

### (5) 조선 후기 금보의 전문 서사관

조선후기에 금보를 제작하는 경우 중 왕이 승하할 때 시호금보를 제작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살펴볼 수 있다. 왕이 승하하면 국장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좌의정을 총호사로 두었고, 국장도감에서 시호와 묘호와 전호 및 능호를 정하였다. 시호금보를 만드는 과정은 1) 총호사를 비롯한 도감의 책임자들이 시호를 선정, 2) 고위 관리 중 전문서사관을 결정, 3) 서사관이 보문을 서사, 4) 국장도감 3방에서 시보와 관련 공예품을 제작, 5) 완성된 시보를 궁으로 들여 봉과식을 거행, 6) 발인 때에 시보요여에 실어 산릉까지 가져갔다가, 7) 반우제 이후 다시 궁으로 들여와 혼전에서 봉안, 8) 왕의 사후 3년 상이 끝난 후 종묘에 부묘할 때 시보요여에 실려 종묘의 보장에 안치되는 방식이다.

왕이나 왕비의 사후 국상 때 시호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후기에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한 선조의 시보는 1608년 6월 4일 광해군이 묘호는 ‘宣宗’, 시호는 ‘顯文毅武聖睿達孝’의 8글자를 올렸다. 현재 선조의 시보에는 이 8글자 이외에 만력 경인년에 올린 존호인 ‘정륜립극성덕홍열正倫立極盛德洪烈’의 8글자와 이후 만력 갑진년에 추상존호로 올린 ‘지성대의격천희운至誠大義格天熙運’까지 16글자가

더 있다. 그의 사후 명나라로부터 받은 시호가 ‘소경昭敬’ 이어서 신주에는 ‘소경’ + 존호 ‘정륜입극 성덕공열’ + 추상존호 ‘지성대의 격천희운’ + 시호인 ‘현문의무 성예달효’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조의 시보에는 명에서 받은 시호는 생략된 채, 존호 + 추상존호 + 시호로 총 24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1649년 인조의 국상 때에는 ‘헌문렬무명숙순효憲文烈武明肅純孝’로 8글자를 올린 것을 필두로, 1659년 효종의 국상 때에는 ‘선문장무신성현인宣文章武神聖顯仁’의 8글자 시호를 올렸고, 1674년 현종의 국상 때에도 ‘순문숙무경인창효純文肅武敬仁彰孝’과 같이 시보에는 시호 8글자만 새겨지는 원칙으로 정해졌으며 이것이 실천되었다. 현존하는 조선후기 왕의 국상 때 제작된 시보를 보면 “시호(8글자) + 대왕지보(4글자)”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시호가 정해지면 시보에 전문 글씨를 쓰는 사람은 보전문서사관을 정하였다. 종친이나 고위 관리 중에서 전자를 잘 쓰는 사람을 선택하여 보문서사관을 임명하였는데, 혹시라도 글씨를 쓸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하여 예비명단으로 예차를 두었다.

1649년 인조의 국상 때 시보의 篆文 서사관 실차는 부제학 呂爾徵(1588~1656) 이었고, 예차는 부교리 李正英(1616-1686)이었다. 1659년 효종 시보는 우승지 金壽恒이었고, 1675년 현종 시보의 서사관은 복창군 李楨이었다. 18세기 들어 보전문서사관에 1721년 숙종 시보는 부호군 金雲澤, 1724년 경종 시보는 이조참판 李世最, 1776년 영조의 시보는 봉조하 洪鳳漢이었다. 19세기의 보전문서사관에 정조 시보는 좌의정 李時秀, 1835년 순조의 시보는 영종추부사 李相瓚, 1849년 헌종 시보는 영돈녕부사 洪在龍, 1864년 철종 시보는 영명위 洪顯周이었다.

서사관은 시호로 사용한 글씨체는 ‘大篆’이라고 불리는 篆書體의 일종으로 쓰는데, 그 형식은 ‘九疊篆’이다. 구첩전은 당나라의 官印으로 처음 사용된 글씨체인데 필획이 적은 글자를 아홉 번 구불구불 휘어 써서, 10cm 이하의 작은 면적에도 전체에 가득 차게 균형과 통일을 주는 특징이 있다.

<표> 조선후기 국왕의 시호와 보전문 서사관의 목록

승하년	국왕	시호	謚寶篆文書寫官 實差	預差	소장번호
1649	인조	憲文烈武明肅純孝	副提學 呂爾徵	副校理 李正英	규13521
1659	효종	宣文章武神聖顯仁	右承旨 金壽恒	兵曹佐郎呂聖齊	규13527
1675	현종	純文肅武敬仁彰孝	福昌君 李楨	副司直洪錫龜	규13539
1721	숙종	章文憲武敬明元孝	副護軍 金雲澤	京畿都事金濟謙	규13548
1724	경종	德文翼武純仁宣孝	吏曹參判 李世最	行副司果李徵夏	규13566
1776	영조	翼文宣武熙敬顯孝	奉朝賀洪鳳漢/ 領府事 金相福	議政府右參贊朴相德	규13581
1800	정조	文成武烈聖仁莊孝	左議政 李時秀	行議政府左參贊金文淳	규13634
1835	순조	文安武靖憲敬成孝	領中樞府事李相瓚	永明尉洪顯周	규13669
1849	헌종	經文緯武明仁哲孝	領敦寧府事洪在龍	行漢城府判尹趙冀永	규13784
1864	철종	文顯武成毅仁英孝	永明尉 洪顯周	行大護軍 成原默	규13844

## (6) 17세기 금보 제작 장인

17세기 들어 寶匠을 가장 먼저 징발하는 때는 1608년 선조의 사후 3년상이 끝나고 선조와 의인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던 1610년에 금보를 제작하면서부터이다.

### 가. 보장과 보전각장

1610년 당시 금보를 만드는 책임은 보장 변수였던 李鎰金이었고, 보장은 劉夢松이었다. 이후 1649년 인조의 사후 국장 때 시보를 만든 보장은 보이지 않는데, 銀匠은 金仁國, 徐士吉, 朴信이었고, 이것을 녹이는 注匠은 朴彦信과 安聖民이었다.

그밖에 17세기 후반에 보장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장인은 朴汗吉, 朴守英, 鄭貴龍, 朴成建, 朴尙元, 郭二山 등이다.

<표> 17세기 금보 제작에 참여한 보장, 보전각장 및 다회장 명단

연대	주체	도감	각방	寶匠, 金寶匠	篆刻匠, 寶篆刻匠	多繪匠	소장번호
1608	선조	국장	3방	李鎰金(邊首), 劉夢松	-	-	규13212
1610	선조의인후	부묘	3방	李鎰金(邊首), 劉夢松	味匠 姜命希, 金守智	申長福, 金已仁	규13512
1639	인조장렬후	가례	3방	金暹	味匠 嚴禮龍, 林成一	金景伯, 金大守(京)	규13061
1649	仁祖	국장	3방	두석장			규13521
1659	孝宗	국장	3방	豆錫匠 姜立, 金禮龍			규13527
1670	신덕후	부묘	2방	朴汗吉	安善一, 李天業, 朴成建	朴戒男 등 5명	규13496
1674	인선후	국장	3방	朴汗吉	寶篆刻匠 朴成吉	金日男 등 6명	규14865
1675	현종	국장	3방	朴汗吉	寶篆刻匠 朴成建	金日男 등 6명	규13539
1676	인선후	부묘	2방	朴汗吉	安善吉, 李天業, 朴成建	李吉伊 등 6명	규13536
1677	인경후증전	책례	2방	(金)朴汗吉	朴成建	姜吉, 崔雲起	규13082
1681	仁敬后	국장	3방	朴守英, 朴汗吉	-	金日男 등 5명	규13553
1681	숙종인현후	가례	3방	鄭貴龍	朴守英, 朴尙建, 李珍松	金一男, 朴戒男, 金得英	규13084
1684	명성후	국장	3방	朴成建, 朴守英	-	金一男 등 6명	규14869
1684	명성후	부묘	2방	朴成建, 朴守永	朴成建, 朴守永	崔雲起(尙衣院)	규13545
1691	장렬후	부묘	2방	朴成建(觀象監), 朴相云(訓局)	朴成建(觀象監), 朴相云(訓局)	金一男, 全永贊(尙衣院)	규13525
1694	인현후	책례	2방	(金)朴成建 朴尙元		李永善, 吳永善	규13086
1699	단종정순후 복위	부묘	2방	朴成建, 朴尙元, 郭二山	朴尙元	李永先, 朴起善	규13503

보장은 박한길을 비롯하여 박성건 및 박상원 등으로 이어지는 박씨 집안이 보장으로 활약하는 것이 확인된다. 박한길은 1670년부터 1676년까지 6년간 활약했던 데 비해 박성건은 1683년 이후부터 32년간 금보전각장으로 금보 제작에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박한길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던 반면, 박성건과 함께 손발을 맞췄던 장인은 1681년부터 보장이던 박수영이다. 그는 1681년부터 1686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그러면서 그를 지칭하는 장색의 명칭은 보장을 비롯하여 보각장, 보전각장 및 보록장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어 주목된다.

이처럼 보장이나 금보장이나 전각장 및 보전각장 등으로 불렸던 장인 중 한 명이 박상원이다. 그 또한 입사장이 이른 시기부터 10년 내지 20년간 여러 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쫓던 것과 달리 금보를 제작하는데 장기를 지닌 보장으로서 장기간 활동하는 장인은 비교적 늦은 1670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진다.

박한길과 박성건은 1674년에 함께 도감에서 금보를 제작한 이후 1675년 현종의 국장 때에도 박한길은 보장으로 금보를 만들었고, 박성건은 보전문장으로 금보의 글자를 새기는 역할을 분업적으로 수행하며 시호보를 제작하였다. 1676년 인선왕후를 종묘에 부묘하면서 금보를 제작할 때에도 박한길은 보장으로 금보를 만들었고, 박성건은 전각장으로 안선길이나 이천업과 함께 금보의 글자를 새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숙종 대가 되면 보장과 보전각장으로 분업화하여 입사장이 보에 전문을 새기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같은 도감 내 각방에서도 보전각장으로 동시에 활동한 것이 확인된다. 물론 보전각장으로 활동한 장인은 입사장 중 일부이며 그들 중 금보를 제작할 때 전각장으로 동원되면서 입사와 전각을 동시에 겸업한 이들은 극소수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입사장은 입사일에만 전문적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이때 박상원은 소속 관청을 훈련도감인 훈국으로 병기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숙종 때부터 상설아문의 복설 및 장인 조직의 체계적 정비 가능해졌는데 이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7세기의 寶匠이나 寶篆刻匠으로 장색을 넘나든 朴汗吉이나 朴成建, 朴守英 및 朴尙元은 당시 여러 도감의 금속공예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였다.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 보장 朴汗吉은 1652년부터 1681년까지 활동하였는데 특히 1670년부터 1681년까지 여러 곳의 도감에서 금보를 제작한 17세기 중후반의 대표적인 보장이다. 그가 보장으로서 제작한 금보는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의 국장 때 시보, 1675년 현종의 국장 때 시보, 1676년 인경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책봉금보(고박152), 1681년 인경왕후의 사후 시보(고박151)가 있다.

보장 朴成建의 경우 1661년 注匠으로 도감역을 지기 시작하여 1667년에는 금보에 전문을 새기는 篆刻匠이자 입사장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1670년 태조비 신덕왕

후를 복위시켜 종묘에 부묘할 때부터 전각장으로 금보제작에 참여하였다. 1671년 숙종 왕세자로 가례를 치를 때 등에는 입사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674년 인선왕후의 국장 때, 1675년 현종의 국장 때 諡寶를, 1684년 명성왕후의 시호금보(고박150)를, 1686년 명성왕후의 신주를 부묘할 때 휘호금보의 제작에는 보장이었고, 1688년 장렬왕후의 책보를 개수할 때 금보를 개수할 때에는 박성건과 박수영이 전각장으로 참여하였다. 1690년 장희빈을 중궁전으로 책봉하는 금보를 제작할 때에는 입사장으로, 1691년 장렬왕후의 신주를 부묘할 때 추상휘호금보를 제작할 때에는 보장이자 전각장으로, 1694년 인현왕후의 중궁전으로 책봉금보(고박 165)를 제작할 때에는 금보장, 1699년 정종과 정안왕후의 시호도감이나, 태조와 신의왕후, 태종과 원경왕후의 시보를 다시 제작하여 올릴 때도 보전각장, 1702년 숙종과 인원왕후의 국장 때는 보장이었다. 이처럼 박성건은 1661년부터 1702년까지 41년간 활동하였다. 이후로도 박성건과 박수영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국왕과 왕후의 국장에서 시보를 제작하였던 보장이었다. 이것은 박상건과 박상원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 금보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장인이 박씨 성을 가진 장인들로 장인집안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장 朴尙元은 이미 1690년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할 당시에 금보를 제작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던 장인이다. 당시 박성건과 함께 금보장으로서 활동을 하였으며, 박성건과 1691년 장렬왕후를 종묘에 부묘할 때, 1694년 숙종이 인현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1699년 단종과 정순왕후를 복위시켜 부묘할 때, 1702년 인현왕후의 국장 때, 그리고 1702년 숙종과 인원왕후의 가례 때 보전각장으로서 함께 활동하였다. 박상원이 금보장으로서 한 획을 그은 것은 1705년 바로 숙종이 명종의 금보를 개조하고자 개설했던 금보개조도감에서 1705년과 신의왕후와 4대 조부모의 금보를 제작할 때에도 보장으로 활동한 것이었다. 이처럼 박상원은 1694년부터 1705년까지 10년간 금보를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금보장, 보장, 보전각장, 전각장 및 입사장으로도 불렸다.

17세기에 보장이 제작한 금보 위에 보전문서사관이 쓴 전문을 토대로 조각하는 장인은 각수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히 寶篆匠이나 寶篆刻匠 및 篆刻匠으로 불렸고, 19세기에는 이들 금보를 새기는 각수들을 금보소이장, 보소이장 보소이장, 보소이각수 등으로 더 상세하게 불렸다.

#### 나. 다회장

시보와 끈을 합쳐 ‘寶綬[印綬]’라 부른다. 어보에 매다는 끈은 ‘綬兒’라고 하는데, 그 재료는 홍진사 2냥 1푼, 홍향사 8돈, 금전지 3장, 황밀 1근 11냥, 유문홍단 7치, 풀숨 5돈, 자적초 길이 2자, 나비 2치, 꿩털 홍진사 1푼, 금전지 2장, 남진사 1돈, 수은 4냥이다. 이러한 재료로 끈을 짜는 장인은 다회장이다. 국장도감에서는 시보

를 제작할 때마다 다회장이 인수를 제작하는 것은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 국장도감의 3방에는 다회장은 5~6명을 차출하여 함께 작업을 하였다.

17세기의 다회장의 숫자는 제작할 금보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왕비나 세자빈을 책봉할 때 책봉 금보 1과의 보수를 제작할 때에는 대체로 2명의 다회장을 동원하였고, 금보의 숫자가 많은 부묘도감이나 국장도감 때에는 5~6명을 동원하였다. 17세기의 다회장으로서는 金太福, 朴戒男 및 金日男 등이 대표적이다.

박계남의 경우 옥인의 印綬를 제작하는 데 참여한 다회장 박응남과 형제지간이다. 박계남은 박응남과 함께 형제 다회장으로서는 1651년 효종이 인선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부터 함께 활동하였다. 이들 형제는 1651년부터 1661년까지 10년간 거의 모든 도감에서 박응남을 우두머리 삼아 형제 다회장으로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 당시 그들 형제 이외에도 박충남까지 ‘男’자 돌림의 형제인 것이 확인되며, 1681년 인경왕후의 국장 때까지 30년간 여러 도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1649년 인조의 국장 때 시호금보에 수아를 제작한 다회장은 金太福 등 6명이다. 김태복의 경우 1644년 녹훈도감부터 수아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1645년 효종의 세자빈을 책봉하는 책례도감, 1651년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하거나, 인조와 장렬왕후를 존숭할 때나, 인조와 인렬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거나, 1652년 현종과 명성왕후의 국혼 및 1667년 숙종을 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 그리고 1671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까지 1644년부터 1671년까지 27년간 다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7세기 말에 가장 활발하게 국역을 지면서 어보의 受兒를 제작한 다회장은 金一(日)男이다. 그는 1671년 숙종이 왕세자로서 인경왕후와 가례를 치를 때부터 1675년 현종의 실록을 편수할 때, 1681년 숙종과 인현후의 가례 때, 1681년 태조와 정종 및 태종 등의 시호를 올릴 때, 장렬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1688년 장렬왕후의 책보를 수개하거나 같은 해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1686년 명성왕후나 1691년 장렬왕후의 신주를 부묘할 때 보인에 수아를 제작하는 다회장이었다. 이처럼 김일남은 1671년부터 1691년까지 17세기 말 20년간 책봉이나 존호 시에 제작하는 보인에 수아를 갖추는 다회장으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숙종상시호금보, 1720, 어보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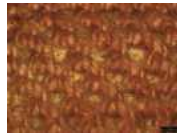
<효의왕후책봉금보, 1778, 어보227>



<순조상시호금보, 1835, 어보60>



끈목



방울



끈목



방울



끈목



방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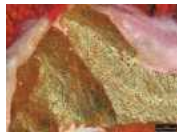
술끝



금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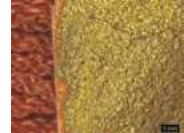
술끝



금진지



술끝



금진지

### (7) 18세기 금보 제작 장인

조선 후기 시보의 제작은 1757년(영조 33)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한 이후 황동黃銅으로 주조하고 도금하며, 크기는 사방 3치 5푼, 거북이뉴[龜鈕]의 높이는 1치 5푼, 두께는 8푼이었고, 인수는 다홍사로 만든다. 시보는 두석으로 주조한 보통에 담고, 이것을 다시 잣나무 위에 자서피紫黍皮로 싼 보룩에 넣는다. 인주印朱는 보통과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주통에 담아 주룩에 넣는다. 이렇게 만든 시보와 보통과 보룩, 주통과 주룩은 가죽으로 만든 호갑에 넣도록 한 것이다. 보통과 주통의 도금은 삼보수三浦水로 대신하였다.

<표> 18세기 금보 제작에 참여한 보장, 보전각장 및 다회장의 명단

연대	주체	도감	각방	寶匠, 金寶匠	多繪匠	소장번호
1702	인현후	국장	3방	朴成建, 朴尙元	李必祥 등 6명	규13555
1702	肅宗仁元后	가례	3방	보전각장 朴成建 朴尙元	吳永善, 閔恣致	규13089
1705	금보개조		별단	朴尙元 등 2명		규14949
1705	금보개조	추보	1방	安樂成, 田時滄, 崔承立, 羅世明	李墨開, 崔有奉, 李五壯	규14948
			2방	郭二山, 鄭武信, 鄭有成, 表正吉		
			3방	朴尙元, 林澤虎, 李以善, 安萬雄		
1721	숙종	국장	3방	表時材, 金成○		규13548
1722	端懿后중진	冊禮	2방	(金)表時才(訓局), 劉興世(御營廳)	安五奉(尙方)	규13097

연대	주체	도감	각방	寶匠, 金寶匠	多繪匠	소장번호
1725	경종	국장	3방	(金)表時才, 金成元		규13566
1726	眞聖后중전	冊禮	2방	(金)表時才, 劉興世	田二江(尙方)	규13100
1731	선의후	국장	3방	李弘成(訓局), 黃時傑(內司)	安俊萬(尙方), 吳泰奉, 鄭俊贊(訓局), 李東先(尙方), 林老味, 金世徵(以上 私匠)	규13576
1739	단경후복위	부묘	2방	李弘成, 朴泰亨(訓局)		규13506
1740	효종	시호	2방	朴太亨(訓局), 李弘成(訓局)		규13264
1754	인원후	존호	2방	朴太亨, 表成采, 鄭順興, 李守根, 李喜得(以上 訓局), 陳再起, 李啓昌, 徐正漢(以上 尙衣院)		규13294
1756	숙종	존승	2방	表成采(訓局), 朴守崑, 陳再起(以上 尙衣院)	徐太石(尙衣院), 林得春, 金龜齡, 李渭望(以上 訓局)	규13269
1756	인원후, 숙빈, 영조, 정성후	존승	2방	表成采[訓鍊都監], 朴守崑, 陳再起[以上 訓鍊都監]	徐太石[尙衣院], 林得春, 金龜齡, 李渭望[以上 訓鍊都監]	규14890
1757	인원후	국장	3방	表成采	安俊萬, 鄭俊贊, 安世達, 金彭齡	규13557
1759	영조, 정순후	가례	3방	河有福, 表成采	劉磊江, 朴得春, 梁聖起, 朴枝興	규13102
1776	장조	봉원	3방	表德運, 金卜世	姜渭賓, 鄭重珠	규13337
1777	진종	추승	2방	表德運, 金元柱/召耳匠 韓贊柱, 李聖位	金相行, 李次福, 金興世	규13327
1778	정조효의후	책례	2방	表德運	崔光運	규13116

## 가. 18세기의 보장

18세기 초에는 표시재와 표정질, 표성채 및 표덕운까지 표씨 집안이 입사장이면서 보장을 대표한다. 표시재(表時才)는 1718년부터 1719년까지는 입사장이었고, 1720년 훈련도감의 장인으로서 숙종의 국장시 시보를 만들었다. 같은 해에 경종이 영조를 왕세제로 책례할 당시 금보를 제작할 때에는 입사장이었고, 1725년 경종의 국장도감에서 시보를 만드는 보장으로서 1등상을 받았다. 그는 초기에는 입사장으로 주로 활동을 하다가, 1720년 금보를 제작하면서 보장 내지 금보장으로 불렸고, 석물을 조각하는 도감에서는 섭장으로, 존호보를 제작할 때에는 입사장으로 활약하여 보장과 입사장 및 섭장의 기술적 친연성을 엿볼 수 있다.

보장 김성원은 부금장으로서 1720년 숙종 시보의 제작, 1722년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승도감이나 1726년 영조가 정성왕후를 복위시켜 왕비로 책례하는 도감에서는 훈련도감에 소속된 두석장으로 참여하였다. 금보 위에 도금할 때 부금장이 활동한 것이 확인된다. 보장 이흥성은 1725년 경종의 국장 때 시보를 제작할 때 표시재와 함께 도감역에 참여했다. 1726년 영조비 정성왕후를 왕비를 책봉할 때, 1731년 선의왕후의 국장 때 내수사의 보장 황시걸(黃時傑)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 그는 1740년까지 보장이자 입사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표정길이나 표시와 함께 표씨 집안은 18세기 내내 입사장이었다가 금보를 만드는데 특기가 있던 장인 가문이었다. 이것은 표시재의 뒤를 이은 표성채와 표덕운이 그들이다. 표성채의 경우 1754년부터 1772년까지 활동하였다. 1754년 숙종과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1757년 숙종비 인원왕후의 국장, 같은 해에 치러진 영조비 정성왕후의 국장 때 시보를 제작한 보장이었다. 1762년 정조 왕세손이 효의왕후와 국혼을 치를 때에는 은인장이었다.

#### 나. 18세기 보전각장

표씨 집안의 표덕운은 1772년부터 1800년까지 보장을 비롯하여 은장, 인장, 인통장印筒匠 등 여러 장색에서 활동하였다. 1772년 현종을 추존하고 영조에게 존호를 올릴 때에는 훈련도감 소속의 인장, 1776년 정조가 즉위하고 영조의 국장 때 시보를 제작할 때 보장, 1777년 정조가 종법상의 부친인 진종을 추송하여 추상시보를 제작할 때 보장이었다. 그러나 1778년 이후 다양한 장색으로 불렸다. 1778년 영조와 정성왕후 및 진종을 종묘에 부묘할 당시 시보를 제작할 때에는 금보각수, 1795년 영조와 정순후 및 장조와 헌경후에게 존호보를 제작할 때에는 금각수金刻手 혹은 금인장金印匠으로 불렸다. 1800년 정조가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책봉인을 만들거나 정조의 사후 빈전에서는 두석장으로 국역을 지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보장이나 금각수 금보각수라 불린 점으로 미루어 단순히 주물을 떠서 거북뉴의 형태를 제작하는 일 뿐 아니라 글씨를 파고 새기는 데에도 일가견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鄭武信은 원래는 17세기 말 18세기 초까지 30여 년간 입사장으로 이름이 났지만 보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그가 최초로 국역을 졌던 시기는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부터인데 이때 입사장이었으며, 이후 1690년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할 때, 1702년 인현왕후의 명릉 산릉도감에서도 여전히 입사장이었다. 다만 정무신은 1705년 금보를 개조하던 도감에서 유일하게 보장으로 동원되었을 뿐, 이후에도 입사장이었다. 곧 그는 1690년부터 1720년까지 총 31년간 입사장이었다.

18세기 후반기에는 보전각장은 보이지 않고, 대신 소이장이나 보소이장 및 은인 소이장 등이 등장한다. 이들의 기능은 글씨를 새기는 역할이다. 보소이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장인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들 소이장은 훈련도감의 군문 장인으로서 나머지 사적 생산에 종사하는 私匠 1명 혹은 5명의 장인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로 활약한다.

#### 다. 다회장

왕이나 왕후의 어보에 수아를 제작하는 다회장은 17세기에는 도감마다 6명이었으나, 영조 때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한 이후 다회장의 숫자는 6명에서 4명 및 2명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당시 1개 도감에서 금보 1개를 제작하면 다회장은 2명이었고, 금보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 인원수도 늘어났고, 18세기 후기에 이르면 3~4명이었다. 당시 다회장 우두머리는 李必祥, 李東先, 安俊萬, 劉恠江, 姜渭賓, 金相行, 崔光運 등이 있다.

1702년 숙종비 인현왕후의 국장 때 시보인 금보에 다회를 한 다회장은 이필상 李必祥을 비롯한 6명이었다. 이 중 이필상 1702년부터 1719년까지 여러 도감에서 활동하였으며 상의원에 소속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다회장 이동선 李東先은 1702년부터 1731년까지 18세기 초반 29년간 다회장으로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장인이다. 1702년 인현왕후 국장, 1718년 단의빈 예장, 1721년 숙종 국장, 1725년 경종 국장, 1731년 선의왕후 국장 등 4번의 국장과 1번의 예장에서 시보에 수아를 제작하였던 18세기 초의 대표적인 다회장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1719년 경종과 선의왕후와의 국혼 때와 1731년 선의왕후의 국장 때에는 상의원 소속임을 병기하여 관공장으로서 다회 작업에 참여한 것도 확인된다.

다회장 안준만 安俊萬은 상의원 소속의 관공장으로서 18세기 중반에 가장 활발하였다. 안준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발견되는 때는 1722년 단의왕후에게 중궁전을 책봉할 때부터이고, 1757년 정성왕후의 국장 때까지 35년간 1725년 경종의 국장, 1731년 선의왕후의 국장, 1757년 정성왕후의 국장 등에서 참여하여 시보의 수아를 제작했다. 훈련도감의 다회장 정준찬 鄭俊贊은 1726년부터 1757년까지 30년간 활동하였는데, 대부분 상의원 소속의 안준만이 앞에 서서 이끌면서 시상을 받았다. 한편 다회장 임로미의 경우 1725년부터 1748년까지 23년간 안준만이나 정준찬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 기간동안 임로미는 상의원 장인이었던 적도 있었으나, 어느 순간 사장이기도 했다. 때문에 당시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상설아문인 상의원 소속의 관공장과 5군영인 훈련도감의 군공장 및 민간의 사적 생산에 종사하던 사공장까지 힘을 합쳐 제작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위빈 姜渭濱은 1772년 선원보를 수정할 때부터 1795년까지 18세기 말까지 23년간 국역을 졌다.

다회장 유말강의 경우 여러 명의 다회장 중에서 상의원 소속의 유말강이 다회장의 우두머리로서 인수를 비롯한 각종 끈을 제작할 때 다른 다회장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그가 18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다회장임을 알게 되었다. 한편 그는 다회장으로 장인 집안을 이루고 있기도 했는데, 그보다 앞서 1667년부터 1681년까지 10여 곳의 도감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다회장이면서 국역을 졌던 劉恠龍의 존재에 의해서 확인된다.

## (8) 19세기 금보 제작 장인

19세기의 가례도감이나 책례도감에서 왕비를 책봉한 책봉 금보, 국왕이나 왕비의 존호존숭도감에서 존호를 새긴 존호금보를 제작한 금보는 2~3명 내외이고, ‘왕비

지보'이나 존호를 새긴 보소이각수나 금보소이장은 1~2명이며, 寶綬를 제작한다. 회장은 3~4명 정도이다. 당시 왕이나 왕후의 사후 시보로 금보를 제작할 때 보장과 보전각장[소이장]이 주도하여 보장 2명, 보전각장 1~2명, 보통장은 1명 정도이다.

19세기에 보장은 1800년 2~3명이었고, 그중 1~2명이 1등상을 받았다. 금보 위에 전문을 새기는 각수는 보전각장이나 금보전각장, 혹은 보소이장, 보소이각수 등으로 불렸으며, 대개 2~3명이 참여하여 1명이 2등상을 받았다.

<표> 19세기 금보장, 금보소이장 및 다회장

연대	주체	도감	각방		보장, 금보장	금보소이장	다회장	유물번호
1800	정조	국장	3방		申大義, 朴秀柱, 表命得	金興喆, 金福星	姜興喆 등 6명	규13634
1802	순조순원후	가례	3방		(金)表命得		崔守昆 등 2명	장2-2595
1835	문조	추송	2방		全龍得, 辛三福	召伊匠 全三得	李春成, 李春起	규13396
1837	헌종효현후	가례	3방		全三得	林啓祿	嚴光憲	규13139
1845	헌종효정후	가례	3방		全三得	龍興喆	李成大	규13143
1848	순조문조	존호	별단	1등	全三得			규13348
1852	철종철인후	가례	3방		全興石	李東郁	李振基	규13147
1853	순조순원후	존호	별단	1등	全三得		李振基(3등)	장2-2817
1853	문조헌종	존호	별단	1등	(金)全三得			장2-2818
				2등	(金)鄭萬成(3등)	寶雕伊匠 鄭再得	李允伊 등 2명(3등)	
1857	순조	존호	2방		金命福, 龍得煥		李潤伊, 文延煥	장2-2847
1861	순조순원후	존호	2방		(金)朴興石		崔漢永	규13365
1866	문조헌종철종	존호	2방		(金)金甲芑, 朴啓昌		鄭仁宅	규13408
1875	문조신정후	존호	2방		朴有正		李永俊	규13412
1878	보인소		별단	2등	全興吉, 安順祿, 閔祥浩, 石漢鼎			규14212
1888	문조신정후	존호	별단	1등	金喜生(帖加)			규13460
1888	신정후 헌종효정후	존호	2방		金興吉			규13473
1890	숙종	존호	2방		全興吉			규13272
1898	고종	大禮	별단		全興吉, 全壽命, 全億萬, 全一萬 등 3명			규13486
1906	순종순종비	가례	3방		金景祿			규13182
1907	순명후	冊禮	별단		李元植 등 3명			규13190

### 가. 19세기 보장

보장 중 19세기 전반기에 가장 앞자리에 위치한 장인은 신대의申大義, 유광옥劉光玉, 신경철申慶喆, 신삼복辛三福, 전삼득全三得, 이완근李完根 등이고, 19세기 후반

기에는 전흥석全興石과 최도길崔道吉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보소이각수의 경우 19세기 전반에는 표명득表命得, 전삼득, 권복이權卜伊, 전흥길全興吉이 있다. 이중 표명득과 전삼득과 전흥석 및 전흥길 등은 보장과 보각수를 넘나들며 오랫동안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후반기에는 최창언崔昌彦과 이귀동李貴同 및 유치억俞致億이 오랫동안 여러 도감에서 활동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통장의 경우 19세기 초반에는 박덕득朴德得이, 그밖에 방차함方且咸, 정치영鄭致永, 이인식李仁植, 전삼득, 김재손金再孫, 박영식朴永植, 하종문河宗文 등이 있다.

19세기의 보장과 보소이각수는 모두 금속을 다루는 장인들이어서 금보를 제작할 때에는 이들 명칭으로 불리지만, 두석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롭게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19세기 보각수나 보소이장

왕이나 왕후의 국장마다 장색의 이름이 달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1805년 정순왕후의 국장 때에 시보를 제작하는 금보소이장金寶召伊匠이나 보소이장으로, 1816년 헌경 혜빈의 상례 때에는 인장이나 금인소이장金印召伊匠으로, 1821년 정조비 효의왕후의 국장 때 시보를 제작할 때에는 금보소이장이나 금보소이각수金寶召伊刻手로, 1822년 현목 수빈의 예장 때에는 인소이장印召伊匠이나 은인각수銀印刻手로 불렸다. 하나의 도감에서 같은 이름이 아닌 다 다른 장색의 이름을 불린 점이 특징이다.

19세기의 表命得, 全龍得, 全三得, 全興吉은 보장이면서 각수 역할도 함께 하였는데, 각수로만 기록된 이들로 金興喆, 林啓祿, 權卜伊, 龍興喆, 崔昌彦, 金漢吉, 李得孫, 金性得, 孫仁浩, 俞致億, 李元永, 車今成, 任壽, 金萬吉, 裴德淳 등이다.

예컨대 표명득은 1819년 문조와 신정왕후의 국혼 때와 1823년의 현목 수빈의 휘경원을 천릉할 때에는 줄장으로 차출되거나, 1821년 정조의 건릉을 천릉할 때에는 노야소의 납염장鑱染匠으로 국역을 졌다. 표명득은 보장, 금보장을 비롯하여 금보소이장, 보소이장, 인장, 금인소이장, 금보소이각수, 인소이장, 은인각수, 줄장, 납염장, 제기두석장 등 많은 장색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종류의 장색은 금속을 다루고 세밀하게 글자를 새길 수 있어 입사의 의미를 지닌 소이, 혹은 쫓이의 기법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세기 말 보장(寶匠)은 전흥길(全興吉), 전수명(全壽命), 전억만(全億萬), 전일만(全一萬)이다. 이들 전씨 가문은 보인을 제작하는 데 특장을 보이는 장인가문으로서, 특정 기술이 가업으로 세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특히 전흥길의 경우 1851년부터 1897년까지 47년간 금보를 제작하는데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였던 19세기 말의 대표적 보장이자 보소이장이다. 전수명 또한 1875년부터 두석장, 조각장, 소은장, 마조장 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한 후 1890년 문조와 신정

왕후의 추상존호보를 만들 때에는 금보장이자 소은장이었다. 1892년 문조와 신정 왕후의 상호보를 제작할 때에는 금보장이자 쪼이장(雕伊匠)이었다. 1875년부터 1897년까지 22년간 금보를 제작하였다.

보면을 새긴 소이장(召伊匠)은 김제당(金濟塘)과 전일득(田一得),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낸 마경장(磨鏡匠)은 유치혁(柳致赫)과 이구성(李九成), 도금을 위해 금을 녹인 금장(金匠)은 김희영(金喜永), 안일성(安一成), 김후복(金厚福), 은을 녹인 은장(銀匠)은 최종환(崔宗煥), 이완근(李完根), 용뉴의 형태를 주물을 만든 주장(鑄匠)은 김원여(金元汝), 한치옥(韓致玉)이다. 이들 19세기 말 장인들은 대개 1회성으로 활동할 뿐이었다.

#### 다. 19세기 다회장

19세기 가례도감이나 존호존숭도감에서 보수를 제작한 다회장의 숫자는 대체로 1~2명이었다. 당시 다회장으로서는 姜興喆, 崔守昆, 李春成, 嚴光憲, 李成大, 李振基, 李允[濶]伊, 崔漢永, 鄭仁宅, 李永俊 등이다. 당시 금보의 구멍에 수아를 만드는 다회장의 숫자는 불어난다. 다회장 중 오랜 기간 활동한 장인은 姜興喆, 李春成, 嚴光憲, 李成大, 李振基, 李允[濶]伊, 崔漢永, 鄭仁宅, 李永俊 등이 있다.

다회장 강홍철의 경우 다회장 姜興喆은 1784년 문효세자를 책봉할 때 옥인의 인수를 제작한 장인이다. 그는 1776년 영조 국장도감과 사도세자를 추송하는 도감부터 기록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18세기 말이 되면 상설아문 소속이나 훈련도감 등 오군영의 소속임을 병기하지 않아 대부분 다회장은 사장화되었다. 이후 18세기 말의 대부분 도감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1805년 정순왕후의 국장도감 3방에서는 12명의 다회장 중, 표석소에서는 6명의 다회장 중 가장 앞쪽에 기록되어 해당 제작처에서 다회장의 우두머리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그는 1776년부터 1805년까지 29년간 13곳의 도감에서 다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활동한 도감의 제작처에서 다회장의 우두머리로 가장 앞에 기록되었다.

무엇보다도 다회장 중 이씨 ‘춘’자 돌림의 장인 집안을 형성하였다. 1830년 효명세자의 사후 예장도감에서는 1방에 이춘업과 이춘성이, 2방에는 이춘업이, 3방에는 이춘업과 이춘근 및 이춘기 등이 함께 참여한 것이다. 이춘업은 당시 1방, 2방, 3방의 모든 제작소에서 다회장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4형제와 함께 한꺼번에 각방에서 옥인에 필요한 인수를 비롯하여 각종 끈을 제작하는데 간여한 것이 확인된다. ‘춘’자 돌림의 이춘성은 이후 1882년까지 52년간 국역을 지면서 다회장 장인 집안을 형성하였던 것이 확인되지만 이후 도감에 참여한 다회장들은 하나의 도감에 1명의 다회장 밖에 부르지 않아 장기간 활동한 장인들을 발견하기 어렵다.

## (9) 대한제국기 금보 제작 장인

『대례의궤』에 의하면 <칙명지보>를 비롯하여 <명성황후책봉금보> 등 7종의 금보를 제작한 장인들은 ‘보책조성시별단’에 의해 확인된다. 그중 금보를 제작한 장인들은 금장(金匠), 은장(銀匠), 주장(鑄匠), 보장(寶匠), 천혈장(穿穴匠), 소이장(召伊匠), 마경장(磨鏡匠) 등이다.

보장(寶匠)은 전흥길(全興吉), 전수명(全壽命), 전억만(全億萬), 전일만(全一萬)이다. 이들 전씨 장인들은 19세기 말 보인의 제작을 가업으로 세습한 장인 가문이었다. 전흥길의 활동시기는 1851년부터 1897년까지 47년간이며, 전수명은 1875년부터 1897년까지 22년간 금보를 제작한 보장이자 보소이장[쫓이장]이었다. 이들은 19세기 말 여러 도감에서 조선왕실의 보인이나 대한제국의 새보를 제작하였다.

한편 보면의 글씨를 새긴 소이장(召伊匠)은 김제당(金濟塘)과 전일득(田一得)이다.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낸 마경장(磨鏡匠)은 유치혁(柳致赫)과 이구성(李九成)이다. 도금을 위해 금을 녹인 금장(金匠)은 김희영(金喜永), 안일성(安一成), 김후복(金厚福)이다. 은을 녹인 은장(銀匠)은 최종환(崔宗煥), 이완근(李完根)이다. 용뉴의 형태를 주물을 만든 주장(鑄匠)은 김원여(金元汝), 한치옥(韓致玉)이다. 이들 중 금장 김희영은 1885년부터 1907년까지 22년간 활동하는 동안 여러 도감에서 대부분 부금장(付金匠)이어서 국새를 제작할 때 도금을 했을 것이다. 주장 김원여는 1897년부터 1906년까지 9년간 유기장[鑄匠]으로도 활동하였다.

금속공예 장인들이 새보를 만드는 역할은 분업적으로 협업을 한다. 은장(銀匠)은 천은을 녹이고 용뉴와 보면을 땀하고, 주장(鑄匠)은 용모양 손잡이[용뉴]를 밀납으로 형태를 만든 다음 백토로 만든 풍로 위 도가니 속에 녹여 만든다. 금장(金匠)은 황금을 수은과 붕사 및 비상으로 녹이는 수은 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하는 역할을 한다. 보장(寶匠)은 용 형태를 각도(刻刀)로 새기고 쫄정(鬚釘)과 세정(細釘)으로 쫓아서 제작한다. 천혈장(穿穴匠)은 용의 배 부분의 구멍을 뚫어내는 역할을 한다. 소이장(召伊匠)은 보면(寶面)의 전각(篆刻) 부분을 쫄정(鬚釘)과 세정(細釘)으로 새긴다. 마경장(磨鏡匠)은 거친 숫돌[中礪石]이나 세밀한 숫돌[延日礪石] 및 오미자로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 □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의 어보』1·2·3, 국립고궁박물관, 2010.
- 국립고궁박물관, 『왕의 상징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2012.
- 국립고궁박물관, 『다시 찾은 조선왕실의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2017.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2019.
- 국립고궁박물관, 『어보, 과학적 분석』, 국립고궁박물관, 2020.
- 박성호, 「환수된 제고지보와 개화기의 국새 어새 제도」, 『고궁문화』13호, 국립



- 고궁박물관, 2020.
- 성인근,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國璽의 변화상」, 『고궁문화』13호, 2008.
  - 성인근, 『국새와 어보』, 현암사, 2018.
  - 이경주, 「대한제국 국새의 제작과 활용」,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임현우, 「조선시대 어보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솔과학, 2013.
  - 장경희, 『국훈과 연향용 공예품을 제작한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2.
  - 장경희, 『국장과 부묘용 의물을 제작한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3.
  - 제지현, 「조선시대 17~18세기 왕실 어보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제지현, 「고종 연간(1863~1907) 제작 어보(御寶) 연구」, 『문화재』Vol.54 No.3, 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 제지현, 「조선 왕실 어보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 2. 어책의 제작 방식과 장인

### 1) 옥책

#### ○ 옥책의 개념과 종류

조선은 유교국가로 명분과 질서를 위한 신뢰와 예(禮)를 국가적 이념으로 여기던 시기이며, 기록문화의 전성기이다. 어책(御冊)은 이러한 조선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제작된 특색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책은 어보와 함께 과거 중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된 책봉제도(冊封制度)의 유산으로 왕비나 왕세자, 왕세자빈을 책봉하거나 왕이나 왕비에게 존호, 시호 등을 올릴 때 제작했다. 어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책은 왕이나 왕비 또는 왕대비 등에게만 올리던 책문이다. 옥책에는 수여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왕비의 책봉, 존호, 시호, 묘호, 휘호를 수여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목적 중에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보인다.

#### 가. 책봉 옥책

왕비의 책봉은 왕과 국훈을 통해 책봉되거나, 세자빈의 경우 세자가 왕위에 즉위한 후 왕비에 책봉된다. 왕비를 책봉하여 받아들이는 의식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납비의(納妃儀)에 의거하여 시행되는데, 이 의례는 다시 택일(擇日),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봉영(奉迎), 동뢰(同牢), 왕비백관하례(王妃百官賀禮), 전하백관회례(殿下百官會禮), 왕비수내외명부조회(王妃受內外命婦朝會)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 중 ‘책비’라는 절차가 왕비를 책봉하면서 옥책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이 때 왕비는 별궁에서 적의(翟衣)를 입고 교명·옥책·어보 등의

책봉문을 받게 된다. 계비의 경우에는 간택을 통해 왕비를 뽑아 국혼을 치르면서 왕비에 책봉된다.

선왕이 승하하고 세자는 닷새 만에 성복(成服)하고 빈전(殯殿)이 있는 침전(寢殿)의 정문에서 즉위식을 거행한다. 그러나 세자빈은 이때 바로 왕비로 책봉되지 않고 선왕의 삼년상을 마치고 신주를 종묘에 부묘한 뒤에 거행한다.

『문원보불文苑繡黻』, 『종묘등록宗廟謄錄』, 『외규장각형지안外奎章閣形止案』 등에 수록된 책봉 옥책은 모두 30책이 수록되어 있으나 그중 15책의 책봉옥책이 현존하고 있다.

#### 나. 존호 옥책

존호(尊號)는 왕이나 왕비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올리는 호칭이다. 대개 살아 있을 때 처음 존호를 올리면 상존호(上尊號), 두 번째 이후부터는 가상존호(加上尊號), 사후에 올리는 것은 추상존호(追上尊號)이다.

조선 전기부터 경종대까지는 상왕이나 왕대비 및 대왕대비로 존숭할 때 존호를 올렸다. 그러나 영조대에 숙종계비 인원왕후에게 여러 차례 존호를 올렸고, 고종대에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자주 올렸다. 왕에게 존호를 올린 이유는 국가의 변란을 진압, 경사스러운 일, 장기간 즉위 등이다. 왕비의 경우 회갑이나 선왕의 즉위 등을 축하 등이다.

존호의 글자 수는 왕과 왕비가 다르다. 조선 초기에 왕의 존호는 네 글자였다가 세조대부터 여덟 글자로 정형화되었다. 왕비의 존호는 조선시대 내내 두 글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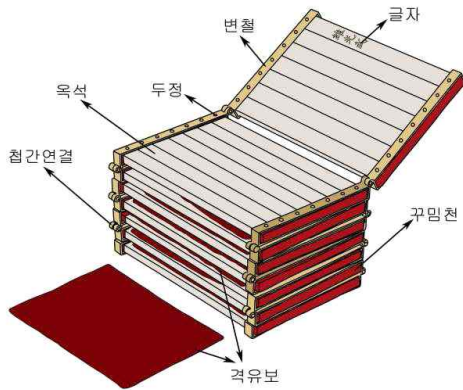
#### 다. 시호(諡號), 묘호(廟號), 휘호(徽號) 옥책

왕의 시호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중국에서 받는 두 글자의 시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묘호와 함께 올리는 여덟 글자의 시호이다. 하지만 중국에게 받은 시호는 옥책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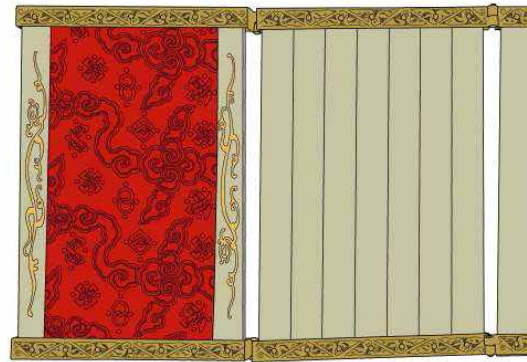
묘호는 왕의 사후 종묘의 신위를 모실 때 붙이는, 종묘 신실의 명칭이다. 묘호의 글자 수는 2자로서, 태조부터 순종까지를 일컫는다.

시호는 왕의 사후 왕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결정되고, 묘호를 바꿀 때에 시호 또한 새로 올린다. 상시호는 처음 시호를 올리는 것이고, 추상시호는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묘호와 같이 표기되지 않고 시호만 올려지면 추상시호이다. 시호는 사후에 바로 정하여 금보에 새기고 그 뜻은 옥책에 새긴다.

왕후의 시호는 두 글자이며, 왕의 묘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왕이 살아 있을 때 왕후가 승하하면 시호만 주어지고, 왕이 이미 승하한 경우 왕후의 3년 상이 끝나면 시호와 휘호가 함께 부여된다. 휘호는 단 한 차례만 올린다. 휘호는 왕비에게만 올리며 두 글자도 있으나 대개 네 글자로 정형화되어 있다.



<옥책의 각 부분 명칭>



<진중옥책의 뒷면 모식도>

## (2) 옥책의 체제와 형식

玉冊은 옥으로만 다듬어진 단일 품종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고 담아 놓는 여러 부속 공예품이 동시에 제작되었다.

조선후기 가례도감에서 옥책을 최초로 제작하였던 도감은 1638년 인조와 장렬비의 가례 때이다. 도감에서는 옥책을 제작하고자 玉冊色을 별설하였다. 당시 옥책색에서 제작한 玉冊諸具는 玉冊을 비롯하여 그것을 감싸는 보자기, 朱紅內函과 홀보자기, 黑漆外櫃와 홀보자기, 排案床과 巾 등 여덟 종류의 품목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옥책을 비롯한 조선왕실의 의물은 그것을 제작할 때마다 항시 선왕의 법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규격이나 형태에 있어 변화가 크지 않았고, 다만 재료나 문양 등에서 약간의 시대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옥책을 만들 때 반드시 禮器尺을 사용하여 전후의 시기간에 차이가 없이 길이는 9치 내외, 너비는 각 1치 2~5푼이고 두께는 6푼이었다. 이와 같이 길이나 너비의 치수를 동일하게 한 이유는 옥책이 왕실의 가장 비중 있는 儀物이었으므로 예컨대 1681년에 숙종과 인현비의 가례 때에도 옥책만은 1676년의 冊禮 때에 만든 옥책을 선례로 삼아 제작하고 있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총258책의 옥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중 조선후기 국왕의 사후 국장도감 3방에서 시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국왕의 시책[상시호옥책] 중 10권이 현존하고 있다. 국장 시 국왕의 시책은 옥간과 극항은 규정을 따랐고, 행과 글자수는 제술문의 다과에 따라 달라져 옥책의 첩수에 영향을 미쳤다. 시책의 첩수는 보관을 위해 짝수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조선후기 현존 국왕 시호옥책 유물의 첩수와 옥간 및 글자수

대수	연대	국왕	도감	제작처	첩수	옥간	극항	행	글자수	유물번호	소장번호
16	1649	인조	국장	3방	10	6	12	63	482	고박1	규13521
17	1659	효종	국장	3방	12	6	12	71	575	고박13	규13521
18	1674	현종	국장	3방	12	6	12	71	564	고박16	규13539
19	1720	숙종	국장	3방	14	6	12	75	660	고박19	규13548
20	1724	경종	국장	3방	14	6	12	84	765	고박23	규13566
21	1776	영조	국장	3방	12	6	12	72	720	고박28	규13581
22	1800	정조	국장	3방	16	6	12	95	984	고박37	규13634
23	1835	순조	국장	3방	12	6	12	68	686	고박44	규13669
24	1849	헌종	국장	3방	12	6	12	68	672	고박68	규13784
25	1864	철종	국장	3방	14	6	12	81	794	고박73	규13669

국왕의 시호옥책은 옥간 6개가 1첩인 것은 항례화 되어 있고, 극항을 12자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제술관이 지은 책문에 따라 옥책의 첩수가 달라졌는데, 17세기에는 10첩 내지 12첩이었고, 18세기에는 14첩이었다가, 19세기에는 다시 12첩이 대세를 이루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조 때에는 가장 두꺼운 16첩이었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649년 인조의 사후 시책의 책문은 글자수가 482자로 가장 짧아 이 때문에 63행이고, 시책의 첩수는 10첩로 가장 얇은 편이다. 이후 1674년 효종의 사후 시책의 책문은 글자수가 575자로 71행, 현종 때는 책문의 564자로 71행이었다. 이 때문에 효종과 현종의 시책은 각각의 첩수가 12첩이다. 인조 때 10첩보다 책문의 양이 길어져 옥책의 첩수를 12첩으로 제작한 것이다.

18세기에 들어서 1720년 숙종의 사후 시책의 책문은 669자로 75행, 1724년 경종의 사후 시책의 책문은 765자에 84행으로 둘 다 14첩의 옥책으로 만들었다. 1776년 영조의 사후 시책의 책문은 720자에 72행으로 12첩이어서 두께가 얇아졌다. 하지만 1800년 정조의 사후 제술관이 지은 책문의 내용이 많고 길어져 책문의 글자수가 984자에 95행이어서 시책의 첩수는 16첩으로 제일 두껍다.

19세기에 들어서면 다시 시책의 첩수가 줄어든다. 1835년 순조의 사후 시책의 책문은 686자에 68행이어서 시책의 첩수는 12첩이고, 1849년 헌종의 사후 시책의 책문도 672자에 68행으로 시책의 첩수는 순조대와 마찬가지로 12첩이다. 다만 1863년 철종의 사후 시책의 책문은 794자에 81행이고 시책의 첩수는 14첩으로 약간 두터워졌다.

이와 같이 국왕의 시책은 옥편 6간에 극항은 12항으로 공통되고, 시책의 첩수는 기본적인 책자 형식에 의해 짝수이지만 책문의 내용에 따라 시기에 따라 첩수가 약간씩 변화를 보였다. 시기별로 17세기 시책은 대체로 12첩, 18세기에는 14첩, 19세기에는 12첩인 것이 확인된다.

한편 조선후기의 도감에서 만들었던 옥책들은 가례와 책례, 존호·존숭 등 의전의 종류에 따라 책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가례 때의 옥책이 4~6첩인데 비하여 존호 때의 옥책은 前代의 왕이나 왕비를 기리는 글의 내용에 덕을 칭송하는 言辭를 길게 작성하였기 때문인지 가례시의 옥책에 비하면 무려 2배 이상이나 되었다. 1638년 인조와 장렬비의 가례 때에 제작한 옥책의 책수가 4첩이었고, 이것이 선례가 되어 현종대까지 가례 때마다 이것을 참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1681년 숙종과 인현비의 가례 때 옥책은 1676년의 견양에 맞추어 6첩으로 제작하였고, 1702년 숙종과 인원비의 가례 때에도 옥책의 책수는 6첩이었다.

한편 옥책은 존호를 올릴 때마다 제작하기 때문에 옥책을 만드는 회수가 가례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다. 현존하는 256권의 옥책도 대부분이 존호시의 옥책들이다. 일례로 文祖의 옥책은 그의 아들인 현종이 1835년 왕으로 즉위하던 해에 親父에게 諡號를 올리면서 만들기 시작하여 1902년 대한제국 때 고종이 翼皇帝로 尊號를 올리면서 만든 것까지 모두 15권이 현존한다. 가례 때의 옥책이 4첩이나 6첩을 만드는데 비해 존호 때의 옥책은 10첩, 또는 12첩, 14첩씩 제작되었기 때문에 가례 때 보다 옥책수가 훨씬 많았으며 시대가 내려갈수록 증가하였다.

### (3) 옥책의 재료

조선후기의 국장이나 국혼 및 존호존숭 때 옥책에 사용하기 위해 옥책용의 옥은 주로 경기도 南陽에서 채취하였다. 이때마다 반드시 監造官과 옥장을 함께 옥의 특산지에 파견하였다. 監造官은 옥산지에서 옥의 품질을 감별할 뿐 아니라 옥의 채굴을 독려하였다.

1674년 현종의 국상 때 시호옥책을 만들기 위해 남양에 감조관 洪受疇(1642~1704)를 보내고, 강화도에는 봉상시 부봉사인 李華鎭(1626~1696)을 보내어 전례에 의해 채취해 오도록 하였다. 시책을 제작하기 위해 남양에서 채취한 청옥 12괴, 태염태 1되, 백납 8돈이다. 옥 위에 넣는 니금 2돈 5푼과 명교 1돈 5푼을 섞어서 만든다. 상하를 장식하는 冊衣는 홍금선단 1자 9치인데 여기에 도련지 2장으로 배접을 한다. 상하 변철(編鐵)의 경우 백은 4돈, 수는 1냥, 도금용 황금 4돈, 비상 4돈 1푼으로 수은아말감 기법으로 도금을 했다. 책을 만들 변철은 24개인데 두정을 갖추어 만드는 동철은 3근 4냥 6돈이다.

1776년 영조의 사후 시책은 남양의 靑玉을 사용하는데, 길이 9치 7푼, 너비 1치 2푼, 두께 6푼이다. 6간을 연이어 엮어서 1貼을 만드는데, 영조 국장 당시 시책문의 문장이 많아 14첩으로 만들었다. 글을 새긴 후에 白蠟을 바르고 泥金으로 글자를 메운다. 위아래 가장자리에는 紅廣적으로 감싸고 그 위를 두를 변철은 熟銅을 두드려서 만들고 조각하고 도금하여 장식한다. 변철의 너비는 5푼이고, 玉簡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구멍을 뚫고 못을 박아서 위와 아래를 연이어 잇는데, 첩은 처음

부터 끝까지 잇는다. 첩의 바깥 면은 紅廣的으로 싸서 장식한다.

옥괴를 다듬어 가늘고 긴 옥편으로 다듬어 사용하는데, 1776년 영조의 사후 시책이나 애책에 필요한 靑玉을 1776년에는 호조에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와 사용하였다.

이렇게 옥괴를 가져오면 옥장은 이것을 細沙 혹은 定玉沙를 부으면서 잘라내고, 옥 위에 옥각수가 글을 새기고, 화원이 니금을 박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옥책은 이렇게 여러 장인들이 만든 5~6조각의 옥편을 연결한 1첩을 다시 6첩 이상의 책모양으로 만들고, 이것을 홍색 비단[金線緞]으로 가장자리를 감싼 다음, 그 위에 두석에 도금을 한 ‘ㄷ’자 형태의 변철로 감싸고 그 것을 고정시키고자 못[頭釘]을 박는다. 두정은 못의 머리가 둥근 원두정과 납작한 형태의 것으로 나뉜다. 이것들은 옥간과 변철을 가로질러 구멍을 뚫은 다음 아랫부분을 두드려서 넓은 다음 구멍에서 빠지지 않도록 끝 부분이 볼록한 머리를 갖도록 만든다.

옥책에 화원이 니금을 넣을 때 필요한 그림붓 1자루와 당주홍 1돈 및 泥金 2돈 5푼 그리고 이것의 접착제에 해당되는 明膠 1돈 5푼, 백휴지 1근이다. 옥간의 상하 가장자리를 두를 紅廣的은 실제 사용할 양에 따라 준비하되, 이것을 배접하여 사용할 도련지 2장도 준비한다. 옥간의 상하를 두를 변철의 경우 銅鐵 3근 4냥 6돈과 白蠟 8돈을 녹이고, 도금에 필요한 황금 4돈은 수은아말감 기법으로 도금해야 하기 때문에 수은 2냥 4돈과 비상 4돈, 붕사 5돈이 필요하다. 원환이나 돌쩌귀 방식의 경첩을 연결할 때에 필요한 땀질은[汗音銀] 4돈 또한 마련한다.

#### (4) 옥책의 제작 방식 및 제작 기술

옥책에는 대부분 남양옥(南陽玉)을 재료로 사용하고 옥책의 구조는 첩, 옥간, 연첩 방식, 변철, 회장 및 의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5~7개의 옥간이 1첩을 이루고 있으며 연첩 방식은 원환, 돌쩌귀 연첩방식이 있다. 변철은 옥간을 연결해주며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회장 및 의는 붉은 비단을 사용했으며 비단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옥책의 시대양식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옥책을 매는 방법의 변화이다. 17세기의 옥책에는 둥근 고리를 사용하여 매는 圓環連貼을 사용하였으나 18세기 말에는 경첩으로 연결하는 接貼으로 바뀌면서 시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곧 1638년의 옥책은 圓環連貼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1681년에는 옥책이 6책으로 늘면서 원환의 개수가 늘고 있었다. 그러나 둥근 고리로 옥책을 연결하는 수법은 1702년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옥책을 경첩으로 연결하는 수법이 18세기 말부터 확연하게 달라져 양식적으로 변화된 모습은 현존하는 256점의 옥책에서도 확인된다. 17세기에는 둥근 고리가 달린 圓環連貼이던 것이, 1772년 이후에는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곧 궁중유

물전시관에 현존하는 옥책 중 17세기의 이른 예에 해당되는 1623년 인조가 즉위 하던 해에 仁烈妃에게 올린 옥책은 둥근 고리로 연결하는 圓環連貼을 사용하고 있었고, 1638년 인조와 장렬비의 옥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현존하는 유물에서 원환연첩을 접첩으로 바꾼 시기는 1772년이였다. 실물에 의해 전체 옥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顯宗玉冊 2권을 양자의 대표적인 유물로 들 수 있다. 현종옥책의 2권 중에서 1권은 1674년(숙종원년)에 올린 시호인 “純文肅武敬仁彰孝”와 묘호인 “顯宗”을 새긴 12쪽의 옥책을 둥근 고리로 연결하는 원환연첩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1권은 1772년(영조 48)에 존호인 “昭休行慶敦德綏成”을 올리면서 만든 12쪽의 옥책인데 경첩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17세기의 連貼 대신 18세기 말에는 경첩을 사용한 接貼으로 바뀌듯이, 옥책을 꾸밀 때 사용한 비단의 종류도 시대가 내려가면서 저렴하고 무늬 없는 국산 재료로 바뀌고 있었다. 1638, 인조와 장렬비의 가례 때 제작한 옥책은 첫째 첩과 마지막 첩에 홍색 錦段을 입혔다. 1681년의 가례에는 紅錦線段 1자3치를 사용하였으며, 1702년에도 같은 비단으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1759년에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붉은 색깔은 그대로 둔 채 비단의 재질만 廣的으로 바꾸었다. 이처럼 비단의 색깔은 홍색으로 일치하지만 그 종류는 무늬 있는 錦段 대신 무늬 없는 비단으로 대체되었다. 곧 영조는 앞서 보자기를 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색깔만 선례를 지키고 비단의 재료는 값싼 국내산을 사용하여 검소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려 하였던 것이다.

## 가. 첩

옥간 5~7쪽을 엮어 만든 것을 1첩(貼)이라 한다. 옥책의 첩 수는 시대와 내용에 따라 수가 달라지지만 접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모두 짝수 첩으로 만들어진다. 현재 전하는 옥책의 첩 수는 2첩 1점, 4첩 19점, 6첩 22점, 8첩 45점, 10첩 90점, 12첩 42점, 14첩 30점, 16첩 5점, 18첩 1점이다. 10첩이 35.2%를 차지하고 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책봉 옥책은 주로 6첩과 8첩으로 제작하였다. 인조부터 정조까지는 6첩으로 주로 제작하고 그 이후는 8첩으로 제작하는 경향이 있다. 상존호와 가상존호는 10첩으로 제작한 예가 가장 많다. 추상존호는 8첩, 10첩, 12첩, 14첩 등 다양한 첩으로 제작하였으며, 상휘호 옥책은 8첩이 가장 많다. 한편 시기별로 보면 후대로 갈수록 첩 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나. 옥간

옥책의 1첩을 구성하는 옥간(玉簡)의 매수는 5쪽, 6쪽, 7쪽 등 3종류가 있다. 5쪽 136점 (53.3%), 6쪽 41점(16.1%), 7쪽 78점(30.6%)이다. 그런데 이러한 쪽수를 사용하는데 일정한 규칙은 없다. 시기별로 보면 5쪽과 6쪽의 사용 예는 인조부터 순종

까지 골고루 사용한다. 7쪽의 옥간은 고종 12년(1875)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 다. 변철

변철은 옥간 양쪽 가장자리에 대는 꾸미개를 말한다. 옥간을 나란히 놓고 양쪽 아래 위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고 옥간이 충격에 견디도록 천으로 감싼 다음 구리합금에 도금으로 만든 판으로 돌려 감싸 꾸민 다음 두정(頭頂)을 박아 고정시킨다.

옥간의 상하에는 회장과 마찬가지로 직물을 감싸 옥을 충격에서 보호하였고, 그 직물은 옥책 앞뒤면에 바른 천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천을 감싼 다음 그 상하의 양 끝에 변철을 대고 정을 박았다.



<명성왕후 상존호옥책, 1676>



<인원왕후가상존호옥책, 1751>



<문조추상존호옥책, 1866>

이 변철의 기능은 하나의 첩을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틀을 형성하는 것이며 옥간을 보호하는 기능을 지닌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양을 시문하여 단조롭지 않고 장엄함을 표현하기 위해 장식하였다. 주로 나타나는 문양들은 만초문, 만초화문, 쌍룡문, 추상적인 쌍룡문, 무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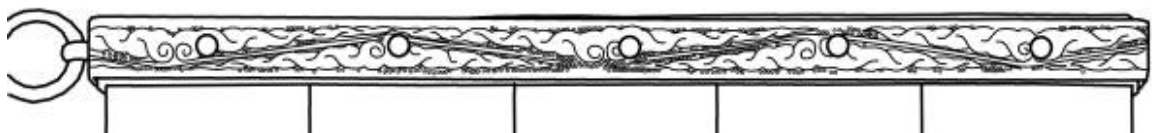
<만초문 변철>



<쌍룡문 변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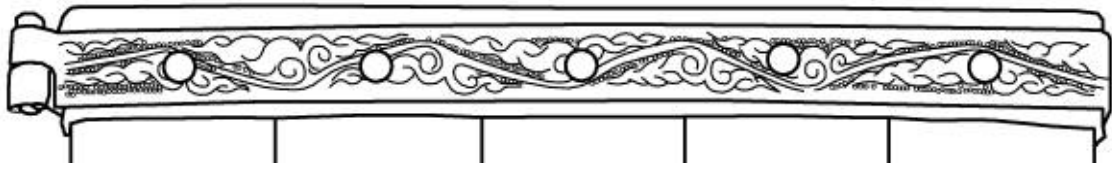


<효종상시호옥책의 변철, 1659>



<영조옥책의 변철, 1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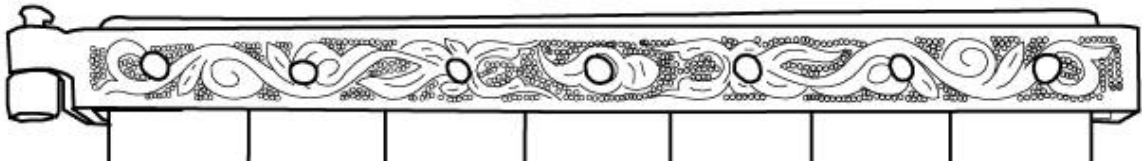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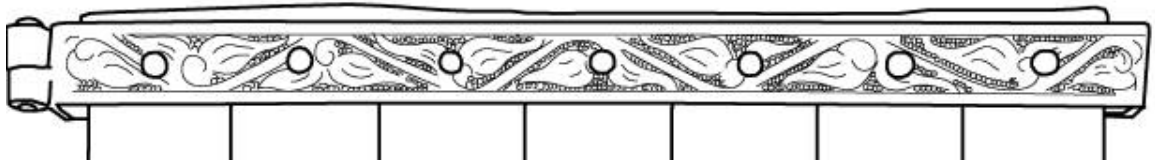
<숙종옥책의 변철, 1776>



<철종상시호옥책의 변철, 1863>



<영조옥책의 변철, 1890>



<정조옥책의 변철, 1899>



<정종추상시호옥책의 만초문, 1681>



<효현왕후상시호옥책, 1843>



<고종상준호옥책의 쌍룡문, 1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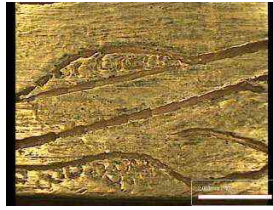


<문조추상준호옥책의 추상쌍룡문, 1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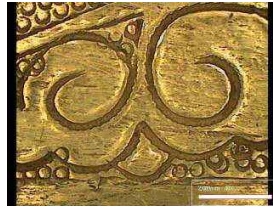
이러한 문양은 직선이나 곡선 부분의 문양을 이루고 있다. 날카로운 삼각끝을 비스듬히 사용하여 망치로 두드려 이어가며 선적인 처리를 나타내었고, 둥근 날의 끝은 선의 여백 부분을 메꾸기 위해 위에서 눌러 물고기알[魚子文]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문양 처리 기법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축조기법을 중심으로 문양을 새긴 것이며, 1926년 순종옥책에서는 끝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서 날카로운 끝로 긴 획을 밀어서 도구와 기법에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현종옥책, 1659, 국립고궁박물관>



<현종옥책, 1674,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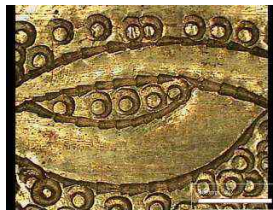
<숙종옥책, 1713,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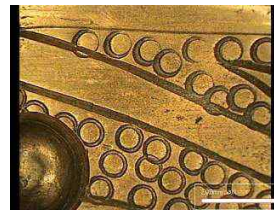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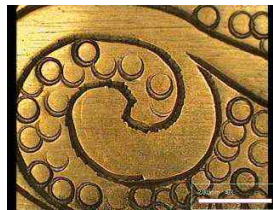
<영조옥책, 1756, 국립고궁박물관>



<헌종옥책, 1853, 국립고궁박물관>



<순종옥책, 1926, 국립고궁박물관>



<동근머리 정>



<남작머리 정>

두정(頭頂)은 변철의 상하를 고정시키기 위한 못이다. 못머리가 반원형인데, 동근머리 정과 납작한 형태의 납작머리 정으로 나눌 수 있다. 둘 다 모두 변철과 옥간을 가로지르는 구멍에 끼운 다음 아래 부분을 두드려 넓혀 구멍에서 빠지지 않게 고정되어 있다.

### 라. 연첩 방식

옥책의 첩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은 원환(圓環) 연첩 방식과 돌쩌귀(玆迪耳) 연첩 방식이 있다. 원환 연첩 방식은 동근 고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이고 돌쩌귀 연첩 방식은 양쪽 첩 사이에 못 형태의 동근 쇠를 넣어 고정시킨 것이다.



<원환 연첩 방식>



<돌쩌귀 연첩 방식>

옥책 255책 중 원환 연첩 방식이 67책, 돌쩌귀 연첩 방식이 188책이다. 초기부터 영조 33년(1757)까지의 옥책은 모두 원환 연첩 방식이고, 그 이후부터 1758년에는 돌쩌귀 연첩과 혼용되다가 1759년 이후 돌쩌귀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된다.

#### 마. 회장 및 의

옥책의 첫 번째와 마지막 첩의 표지는 직물로 장황(粧潢)을 하는데 이것을 회장 및 의라고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회장은 옥책의 위아래의 장황이며, 의는 즉 책의(冊衣)로 옥책의 첫 번째 면과 마지막 면의 표지의 기능을 하는 직물이다. 시대별로 보면 화봉문, 만초화룡봉문, 만초연화문, 연화운룡문 등의 직금단이 영조 16년(1740)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운보문단과 무문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740년까지의 직금단은 금사(金絲)로 화려한 무늬를 짠 직물로 고급 직물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고급직물의 사용 규제 등의 영향으로 소박한 직물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운보문단>



<연당초문단>



<연화운보문단>



<화조문단>



<연화운보용문단>



<무문단>

### (5) 17세기 옥책의 제작 장인

조선후기의 가례도감, 책례도감 및 존호·존숭도감은 옥책과 그 부속 공예품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중앙의 해당 관청으로부터 제작에 필요한 도구들을 조달할 뿐 아니라, 지방의 각 관아들로부터도 소요되는 재료들을 조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도감은 옥책과 부속 의물들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도구나 재료들만 중앙이나 지방의 관청에 요구하여 조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장인이나 인부들까지도 경외의 각 관청에 요청하여 징발하고 있었다. 곧 도감은 해당의 공역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는 權設衙門이지만, 그 공역을 마칠 때까지는 임의로 경외 각 관청의 물력과 인력을 총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도감에서 옥책을 조성하기 위하여 징발하는 장인들은 주로 서울의 각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공장들과 지방의 각 관아에 등록된 향공장들이었다. 옥책을 제작하는 장인은 옥을 다루는 玉匠과 옥에 글씨를 새기는 刻手가 가장 중요한 장색이지만 이들 외에도 10여 종 이상의 장색들이 동원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옥책을 제작할 때 옥을 다루는 옥장과 글씨를 새기는 각수가 반드시 협업을 하였으며, 그 밖에 옥장이나 각수 이외에도 섭장, 두석장, 소목장, 칠장, 화원 등 여러 장색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1638년에 玉冊色을 별도로

설치하였던 인조와 장렬비의 가례도감에는 畫員, 寶匠, 冶匠, 刻字匠, 玉匠, 護匣匠, 漆匠, 入絲匠, 섭匠, 磨鏡匠, 匙匠, 豆錫匠, 盖兒匠, 擔鞭匠, 注匠, 多繪匠 등 총 16종의 장색이 참여하고 있었다. 옥책을 만들기 위해 당시 동원된 장인은 화원, 보장(寶匠), 야장, 각자장, 옥장, 호갑장, 칠장, 입사장, 섭장, 마경장, 시장, 두석장, 개아장, 담편장, 주장(注匠), 다회장의 총 16장색이었다. 물론 옥책색에서는 옥책과 함께 옥책을 담을 보통(寶筒)도 함께 제작하여 완성된 옥책을 오래도록 보관하도록 보자기와 함께를 제작하는 장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옥책을 제조하는 과정은 우선 玉匠들이 옥의 산지에서 옥석을 채취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옥석이 옥책색에 반입된 뒤 옥석을 자르기 시작하는데, 이때 注匠이 모래와 물을 알맞게 부어가면서 옥을 반듯하게 잘라냈다. 잘라낸 옥석은 磨鏡匠이 표면을 거울처럼 매끈하게 갈았고, 그 위에 書寫官이 글씨를 써 주면, 비로소 刻字匠이 글씨를 음각하였다. 글씨가 음각되면 填金畫員이 음각된 글씨마다 金液으로 메웠다. 옥책을 4권 또는 6권으로 묶기 위해 穿穴匠이 옥에 구멍을 뚫으면 冶匠과 豆錫匠이 옥책의 위 아래를 마감하는 邊鐵을 만들어 붙였으며, 여기에 화원이 唐草紋 등을 起畫하면 섭장과 入絲匠이 기화한 그림에 따라 새겨 넣었다. 다회장이 끈목을 엮었다. 이처럼 옥책을 하나의 우수한 공예품으로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옥장과 각수의 숙련된 기술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불가능하였다.

17세기에 옥책을 제작한 공방은 책례도감이나 존숭도감에서는 1방, 국장도감에서는 3방이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동원한 장색은 각수, 옥장 및 도자장의 순이었다. 그만큼 옥 위에 끌과 망치만을 가지고 글자를 새긴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각수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각 장색별로 1등상을 받아 장인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며 도감역을 지휘한 인물로, 옥장 중에는 金莫男과 邊繼昌 및 張孝善이 여러 도감에서 수십년간 활동하였고, 각수 중에서는 李忠民과 李秀一 및 李惟一이 두드러졌으며, 도자장 중에는 文得己가 거의 모든 국장도감에서 뚜렷한 성취를 보인다.

<표> 17세기 각종 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한 옥장, 각수, 도자장 명단

연대	주체	도감	각방	玉匠	刻手	刀子匠	소장번호
1610	의인후	책례	1방	李龜峯, 丁春	高碩男 등 10명	金加應金 등 8명	규13196
1610	공성후	존숭	1방	李仇今 등 16명	金得男 등 6명	安獸生 등 4명	규14880
1621	광해군사친	존숭	1방	曹仁雄 등 17명(경)	金得男 등 39명	安公山 등 6명	규14891
1621	선조의인후	존호	1방	曹仁雄 등 20명(경)	金得男 등 28명	安公山 등 6명	규14895
1639	인조장렬후	가례	3방 玉冊色	金命金 등 6명	吳敬男 등 5명(京)	安儉同 등 4명	규13061
1645	효종	책례	2방	金莫男(京) 등 4명	李忠民 등 2명	金卜立	규13062

연대	주체	도감	각방	玉匠	刻手	刀子匠	소장번호
1649	인조	국장	3방	金莫男 등 22명	申得男 등 52명	金善云 등 10명	규13521
1651	효종인선후	책례	1방	金莫男(京) 등 6명	吳有進(京) 등 14명	盧應孫 등 3명	규13066
1651	현종	책례	1방	金莫男 등 8명	吳有進(京) 등 5명	盧應孫 등 3명	규13069
1651	인조장렬후	존승	1방	金莫男(京) 등 7명	吳有進 등 14명	盧應孫 등 3명	규13252
1651	인조비효종비	존승	2방	金莫男(京) 등 2명	李忠敏 등 3명	命伊 등 2명	장2-2805
1652	현종명성후	가례	3방	黃金奉 등 2명	李忠民 등 6명	盧應孫 등 2명	규13071
1659	효종	국장	3방	金莫男 등 20명	李忠民 등 54명	文得己 등 10명	규13527
1661	명성후중궁진	책례	3방	金莫男(京) 등 5명	吳有進(京) 등 29명	金萬龍 등 5명	규13073
1674	인선후	국장	3방	金必 등 18명	振惠 등 41명		규14865
1675	현종	국장	3방	金莫男 등 24명	李秀一 등 32명	文得起 등 15명	규13539
1677	인경후중궁진	책례	3방	邊戒昌(京) 등 7명	李惟一(京) 등 18명	文得己 등 8명	규13082
1677	인조장렬후 현종명성후	존호	3방	邊戒昌(京) 등 14명	李惟一(京) 등 35명	文得己 등 8명	규13258
1677	명성후	존승	3방	邊戒昌(京) 등 14명	李惟一(京) 등 35명	文得己 등 8명	규14896
1681	인경후	국장	3방	張孝善 등 8명	李秀一 등 15명	文得己 등 12명	규13553
1681	숙종인현후	가례	3방	張孝先 등 8명	李惟一 등 12명	文得己 등 6명	규13084
1684	명성후	국장	3방	張孝善 등 8명	李惟一 등 21명	朴松立 등 11명	규14869

### 가. 17세기 옥장

옥은 재료의 크기가 크고 무거워서 생산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가공을 한 다음 운반하여 도감에서 옥공예품으로 완성하기 때문에, 옥장의 기술은 재료 의존적인 성향을 보여 도감에 차출된 옥장 역시 옥재료의 특산지에서 도감에서 파견된 경공장의 지휘 아래 작업을 하였다. 옥이 생산되는 지역의 방외 장인 출신 중에서 특출한 솜씨를 지닌 자를 선발하여 경거 장인으로 삼았으며, 이들은 경공장으로서 고향에 파견되어 해당 지역의 외공장들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장인을 조직화하였다.

당시 도감에 차출된 옥장의 숫자는 시대가 내려갈수록 증가하였으며, 가례, 책례, 존호·존승 등 儀典의 종류에 따라 제작할 옥책의 책수에 따라 동원되는 옥장 인원은 많고 적음에 차이를 보였다. 동원되는 옥장의 숫자는 가례 때 가장 적어 2~3명에서 많아야 8명을, 책례 때의 옥장은 적을 때는 1명이지만 보통 4~7명에서 많을 때는 10~15명을, 존호·존승 때에는 가장 많은 옥장을 동원하여 적을 때는 9~10명이며 보통 14명 내외였고, 많을 때는 17~19명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옥장의 인원 구성은 소수 정예의 경옥장이 다수의 향옥장을 주도하면서 옥책을 제작하는 방식이었다. 즉 옥책을 제작할 때면 경옥장의 주관 아래 향옥장

들이 대부분의 작업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작업이 끝나서 상을 내릴 때면 경옥장이 주로 받고 있었는데,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경옥장이 없을 때도 있어, 이럴 경우에는 결국 향옥장이 작업을 주관하였고 또 이들은 행사가 끝난 후 시상을 할 때 수상의 대상자가 되고 있었다. 1681년 숙종과 인현후의 가례 때 시사한 장인들은 1등은 金莫男, 2등은 張孝善 등 3명, 3등은 李振 등 4명이 받고 있었는데, 이들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옥장으로서 수십년간 수십 차례의 도감에 계속하여 동원되었다.

당시 가장 활동이 많은 옥장은 金莫男은 경옥장으로 1638년부터 1683년까지 45년간 옥장으로 참여하지만 중앙의 관청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였다. 邊繼[戒]昌은 안동의 향옥장으로 1659년부터 1677년까지 활동하다가 1674년부터 경옥장으로 등재되었다. 張孝善은 성천의 향옥장으로 1649년부터 1686년까지 37년간 활동하다가 1675년부터 경옥장이 되고 1686년에 상의원의 옥장이 되었다.

#### 나. 17세기 각자장과 각수

이 시기 옥책을 제작하는 刻手의 호칭은 각수보다는 대부분 刻字匠으로 불렸다. 각자장이 새기는 옥책의 글자수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옥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었다. 17세기의 옥책들에 새겨진 글자수는 한 칸마다 11자씩이었다. 현존하는 총 7권의 인조대 옥책 중 1623년에 제작한 인렬왕후의 옥책은 6쪽이고 종서는 23행이므로 250여 자가 새겨져 있으며, 1638년에 제작한 장렬왕후의 옥책은 8쪽이고 종서를 31행이므로 340여 자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1681년 숙종과 인현비의 가례 시에는 임금의 칭호와 勳號 등을 쓸 때 줄을 바꾸어 맨 위에 쓰는 極行은 12자였으며, 平行은 10자씩 새겼다. 그러나 18세기 들어와 1759년 영조와 정순비의 가례 때에는 極行은 12자, 中行은 11자, 平行은 10자씩이었다. 이처럼 시대가 내려 갈수록 옥책 한 칸마다 새기는 글자의 간격이나 새김방식 등이 세분화되고 규격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도감에서는 옥장과 마찬가지로 京鄕 각지에 거주하는 각수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아문과 지방의 감영에 공문을 띄워서 해당 장인을 소집하였다. 옥책을 제작하는 옥장은 재료 의존적인 장색이어서 옥재료가 생산되는 지역에 분설된 제작처에서 해당 지역의 외공장을 동원하여 제작하는 시스템으로 일원화된 반면, 기술 집약적인 장색인 각자장은 의례의 종류에 따라 가례 때는 서울 지역의 각수만 동원하고 흉례 때는 각처의 대규모 각수를 불러 모아서 경공장의 통솔 아래 집중적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국혼이나 책례와 같은 가례 때에는 도성 안에서 의례행사가 진행되고 도감 내 제작처도 도성 안이었기 때문에 10여 명 내외의 경거 각수를 동원하여 옥공예품을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17세기의 국혼이나 책례, 존호존숭 등의 가례 관련 도감에서는 흉례 관련 도감 때의

제작방식을 좇아서 소수의 경각수(京刻手)와 방외각수[外刻手]는 물론 승각수(僧刻手)까지 동원하여 필요한 공예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한동안 채택하였다.

17세기의 도감에서 활동하는 각수는 전술한 옥장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해당 관청에 소속된 京刻手와 지방의 관아에 등록된 鄉刻手를 동원하는 체제였고, 鄉刻手 중에는 僧刻手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옥책을 제작하는 각수의 기술은 오랜 기간의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감에 차출될 정도의 숙련된 각수는 제한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각수는 金得男, 李忠民, 金種金, 李成民, 李守一, 李惟一, 李守命, 李時英, 李時俊 등이었다. 김득남은 1604년부터 1621년까지 17년간, 이충민은 1621년부터 1659년까지 38년간, 김종금은 1644년부터 1661년까지 17년동안, 李守一은 1651년부터 1677년까지 26년간, 李惟一은 1651년부터 1696년까지 45년간 활동하였다. 이수명은 1674년부터 1702년까지 28년 동안, 李時英은 1675년부터 1696년까지 21년간, 李時俊은 1694년부터 1726까지 32년간 활동한 후 1725년에 校書館의 官刻手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20~40년의 장기간 도감에 차출된 경각수들 중에서 몇몇은 형제가 함께 각수로 활동하면서 기술을 전수하고 각수의 계보도 형성하였다. 일례로 金得男은 1610년부터 1621년까지 3회간 동원된 金得林, 또 1630년부터 1638년까지 3회 동원된 金得善과 함께 삼형제가 모두 각수였던 듯하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李忠民과 李成民, 李時英과 李時俊 또한 형제가 각수로서 도감의 옥책역에 동원된 것 같다. 여기서 특히 주목하는 경각수는 李守一과 李惟一이다. 양자는 1651년부터 1677년까지 26년 동안 12차례의 도감에 한 차례도 빠짐 없이 동시에 참여하였는데, 이렇게 형제가 같은 도감에 참여하면서 상호간에 제작기술이나 비법도 전수하면서 비중 있는 각수로서 성장하도록 도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 다. 17세기 도자장

도자장은 옥장과 각수와 바늘과 실처럼 함께 하나의 도감에 참여하였다. 17세기 도감에 징발된 도자장의 경우 가례 때 2~6명, 책례 때 1~4명, 존호존숭 때 6~8명을 징발하여 존호존숭 때에 가장 인원수가 많았다. 다만 이들 도자장은 옥장이거나 각수보다 기술적 수준이 전문적이지 않아서인지 오랫동안 여러 도감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다. 17세기 초 도자장 安二男의 경우 1621년부터 1638년까지 17년간 활동했고, 도자장 文得已가 1661년부터 1681년까지 20년간 활동하였던 것이 확인될 뿐이다.

이처럼 17세기 가례 관련 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 활동한 장인의 구성과 조직상의 특성을 옥장과 각자장 및 도자장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 장색은 모두 소수의 경공장이 다수의 외공장과 함께 분업적인 협업체제로 공예품을 제작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옥장이 다루는 옥은 무겁고 부피가 커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재료여서 옥이 산출되는 제작처에서 해당 지역의 장인이 작업을 하는 재료 의존적인 장색이었다. 반면 각수는 기술 집약적인 장색이어서 도감 내에 설치한 제작처에 다수의 장인이 모여 공동으로 제작하도록 조직되었다. 세 장색 중 기술적 수월성이 낮았던 도자장의 경우에는 장기간 활동한 장인이 극소수였던 점도 주목되었다.

#### (6) 18세기 옥책의 제작 장인

18세기에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장색의 종류가 늘어났다. 예컨대 1721년 숙종의 국장도감 3방의 경우 사자관을 비롯하여 화원, 옥장, 야장, 소목장, 마조장, 주장, 죽망장, 목수, 조각장, 편자장, 목소장, 관자장, 다회장, 천혈장, 침선비, 칠장, 쇠약장, 호갑장, 담편장, 소로장, 두석장, 보장, 시장, 은장, 동장, 병풍장, 과륙장, 이지장, 납장, 각수, 도자장, 가칠장, 입사장, 전장, 부금장, 소인거, 대인거 등 총 37장색이었다. 옥장과 각수 및 도자장을 제외한 34종 장인의 총숫자는 98명이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장색에는 2~3명이 참여하였고 5명 이상의 장색은 소목장 5명, 다회장 6명, 침선비 6명, 대인거 5명에 불과하였다. 당시 시책을 제작하는 옥책을 만드는 옥장 21명, 각수 17명, 도자장 14명으로 3종 장색에는 총 52명의 장인을 차출되어 17세기에 3종 장색에 총 84명이던 것보다는 숫자가 줄었다.

어쨌든 이 시기에 다른 장색보다 옥장과 각수 및 도자장의 숫자가 많았다. 18세기 국장도감에서 옥장은 적을 때는 15명, 보통 19명, 많을 때는 23명이었다. 각수는 적을 때는 12명, 보통 15~17명, 많을 때는 21명이었다. 도자장은 적을 때는 9명, 보통 12~14명, 많을 때는 18~19명이었다. 일례로 1713년 숙종에게 존호를 올릴 때 옥장 15명, 각수 23명, 도자장 9명을 동원하였다. 가장 많은 장인을 동원한 1740년 영조가 숙종 계비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던 존숭도감에서는 옥장 23명, 각수 19명, 도자장 2명이었다. 의전별로는 존호존숭 도감의 경우 옥책에 새겨야 할 내용이 많고 옥책의 첩수가 많아서인지 옥장이나 각수의 숫자가 많았다. 이를 통해 17세기에는 각수, 옥장, 도자장의 순서로 숫자가 많았으나, 18세기에는 옥장, 각수, 도자장의 순서로 옥장의 숫자가 더 많아 시기에 따라 장인의 숫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영조가 인원왕후나 숙종에게 존호를 올리는 사례가 빈번해졌으며 옥책의 장수가 많고 그 제작 수량이 많아지면서 동원되는 장인의 숫자가 이전보다 많아졌다. 대체로 옥장은 42~51명, 각수는 19~27명, 도자장은 22~35명이 옥책을 제작하였다. 이전 시기까지 장인들의 장색 중 각수의 인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옥장, 그리고 도자장의 숫자가 적었는데, 이때에는 옥장의 숫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도자장이고 각수의 숫자가 가장 적었던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전까지 17세기에는 장색별로 10명 미만의 장인들이 국역을 졌던 데 비해 그 숫자가 점점 늘어 각수는 20명 내외, 도자장은 30명 내

외, 옥장은 40명 내외로 매우 많은 숫자가 동원되었다. 이들 장인들은 대부분 관공장이었다. 옥장이나 도자장은 상의원이나 내수사에 소속되었던 관옥장이나 관도자장이었고, 각수의 경우 교서관 소속의 관각수였다.

<표> 18세기 의전별 도감 각방에서 옥책을 제작한 옥장, 각수, 도자장 명단

연대	주체	도감	각방	玉匠	刻手	刀子匠	소장번호
1702	인현후	국장	三房	李以珍 등 19명	李時成 등 18명	朴宗善 등 12명	규13555
1713	숙종	존승	一房	方良悅 등 15명	金廷顯 등 23명		규13267
1719	선의후	가례	三房	金太徵 등 3명	黃自賢 등 8명	朴宗先 등 2명	규13094
1721	숙종	국장	三房	金泰徵 등 21명	黃自先 등 17명	朴從先 등 14명	규13548
1721	영조왕세제	책례	一房	安石屎(尙方)	金二萬 등 9명	金白 등 4명	규13099
1725	경종	국장	三房	金泰徵 등 21명	黃自顯 등 27명	朴春文 등 18명	규13566
1725	진종세자	책례	一房	金辰玉(私匠)	金海得 등 8명	姜有骨 등 4명	규14909
1726	숙종인원후 경종선의후	존승	三房	姜二俊 등 8명	劉以碩 등 6명	朴老味	규13280
1727	진종효순후	가례	三房	姜二俊 등 2명	劉二石 등 10명	夜斗星 등 3명	규13105
1731	선의후	국장	三房	金泰徵 등 19명	黃自顯 등 15명	朴從先 등 14명	규13576
1736	장조세자	책례	一房	李汝奉 등 2명	黃再顯 등 8명	宋世彬 등 2명	규13108
1739	인원왕후	존승	一房	姜翊濟 등 2명	姜武男 등 14명	宋厚奎 등 2명	규13283
1740	인원왕후	존승	一房	姜翊濟 등 3명	姜再望 등 19명	宋厚圭 등 8명	규13286
1744	장조헌경후	가례	三房	金德奉 등 2명	竹冊匠 李辰郁 등 2명	朴吉同 등 2명	규13109
1747	인원후	존호	1방	姜翊濟 등 2명	鄭愛男 등 11명	金振秋 등 2명	규13288
1751	의소세손	책례	1방	李先福 등 2명	尹世同 등 6명	金振秋 등 2명	규13199
1751	인원후	존호	1방	姜翊濟 등 8명	金壽海 등 13명	金振秋 등 6명	규13290
1752	숙종인원후	존승	1방	申厚寬 등 14명	鄭愛男 등 13명	金福江 등 7명	규13292
1754	숙종인원후	존호	1방	姜翊濟 등 50명	李斗伯 등 19명	金奉益 등 19명	규13294
1756	숙종	존승	1방	姜翊齋 등 43명	金壽海 등 19명	金鳳翼 등 19명	규13269
1756	인원후, 숙빈,영조, 정성후	존승	1방	姜翊齋 등 43명	金壽海 등 19명	金鳳翼 등 35명	규14890
1757	정성왕후	국장	三房	李呂奉 등 15명	李呂奉 등 12명	嚴海寬 등 9명	규13589
1772	현종, 영조	존호	1방	李善才 등 51명	金守海 등 27명	池順才 등 22명	규13296
1776	영조	국장	三房	李喜福 등 19명	韓壽大 등 14명	任順才 등 15명	규13581

이들 18세기 옥책을 제작한 장인들 중에서 각 장색별로 1등상을 받은 장인이 우두머리의 성격을 가지고 도감의 일을 진두지휘하였다. 이 중 옥장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 1등상을 받은 장인은 金泰徵, 姜益齊, 李汝奉 및 李善福이었다. 각수 중

에는 李時俊, 黃自顯, 李呂奉, 韓壽大가 두드러지고, 도자장 중에는 朴從先, 嚴海寬, 任順才 등이었다.

### 가. 18세기 옥장

18세기에는 시기가 내려가면서 도감에서 차출하는 옥장의 숫자는 의전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가례 때의 옥장은 4~5명 내외이며, 1759년에만 예외적으로 23명이었다. 책례 때의 옥장은 적을 때는 2~3명에서 많아야 4~5명을 동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존호·존숭 때의 옥장은 적으면 3~6명 내지 10명 내외였지만, 시기가 내려가면서 53~63명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한편 18세기가 되면 도감에 동원되어 옥책을 조성하는 옥장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다. 17세기 말에 이르러 점차 상설아문이 복설되어 숙종대부터 관청에 소속된 官匠이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1680년대 후반부터 상의원 또는 내수사에 玉匠이 官匠으로 전속되어 官玉匠을 차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가례도감이나 국장도감에서는 3방에서 옥책을 제작하였고, 책례도감이나 존호존숭도감에서는 1방에서 옥책을 제작하였다. 1713년부터 1772년까지 60년간 20차례의 도감이 개설되었으며 동원된 옥장은 총 357명이었다. 이중 1713년만 예외적으로 경·향공장 29명을 동원하였을 뿐이다. 이후 19차례에 동원된 官·私匠만을 합치면 총 328명이었다.

의궤에서 內需司와 工曹와 尙衣院에 소속되어 있던 官玉匠은 45명을 동원하였다. 상설 아문에 소속된 관옥장을 동원한 것은 1718년, 1721년, 1727년, 1736년, 1740년, 1744년이다. 이들 의궤의 장인질에는 관청명이 병기되어 있다. 17세기에 京·鄕에 거주하는 옥장 총 157명을 동원한 데 비해, 18세기에는 官·私玉匠 총 357명을 동원하였다.

1718년에는 내수사의 옥장 5명이 도감에 분속되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721년에는 상의원 옥장 1명과 내수사 옥장 1명을 동원하였고, 1727년과 1736년에는 각각 내수사 옥장 1명씩을 징발하였다. 1740년에는 내수사 옥장이 25명이나 동원되기도 하였고, 1740년에는 내수사의 옥장 3명과 공조의 옥장 7명이 차출되었으며, 1744년에는 상의원의 옥장 1명이 도감의 옥책 제조장에 동원되고 있었다. 이 밖에 18세기 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향옥장 대신 私玉匠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상의원이나 내수사 및 공조의 옥장들을 동원할 경우에는 사옥장을 부르지 않은 때도 있었다. 그러나 1744년에 상의원의 관옥장 1명을 동원한 것을 마지막으로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옥책을 제작할 때에도 사옥장으로 대체되었다. 아울러 동원된 사옥장의 숫자는 10명 안팎이었으나, 1753년 이후에는 50명 이상으로 대거 증가하고 있었다.

18세기를 대표하는 옥장은 李以珍, 金泰徵, 李汝奉 및 李善福이다. 옥장 金太徵은 1718년부터 1740년까지 22년간 도감에 참여하였다. 그는 당초 사장이었다가 1721년부터 내수사의 관장이 되었고, 1726년부터는 사장으로 있었으며, 다시 1730년

부터 상의원의 관장이다가, 1740년에 또 내수사의 관장이 되었다. 그리고 姜二俊도 1718년부터 1731년까지 13년간 11차례 도감에 동원되었는데, 첫해부터 내수사의 관장으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1721년부터 사장으로 일해 오다가 마지막 해에는 상의원의 관장으로 도감에 동원되고 있다. 姜益(翊)齊는 1727년부터 1755년까지 28년간 도감의 옥책역에 동원되었다. 강익제도 첫 해부터 내수사의 관장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1735년부터는 사장으로 활동하였고, 1740년에 다시 내수사의 관장이 되었다가 1751년에 또 다시 사장이 되었다. 李善福은 1755년부터 1778년까지 23년간 활동한 옥장이었다. 오랜 기간 도감의 옥책작업에 동원되었으면서도 끝까지 사장으로 있는 옥장으로는 李汝(呂)奉이 대표적인 장인이다. 이여봉은 1726년부터 1759년까지 33년간 동원되었으나 사장이면서 學洞에 거주하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서울에 사는 옥장이라 여겨진다.

18세기의 의뢰 자료에서 관장인지 사장인지를 병기하여 비교적 자세히 밝혀 놓은 옥장들을 간추려 살펴보면 17세기에는 향옥장에서 경옥장이나 관옥장으로 발탁한 것처럼, 18세기의 관옥장도 사옥장 중에서 발탁하고 있었다. 그런데 18세기의 사옥장과 관옥장의 관계는, 17세기의 향옥장에서 경옥장이나 관옥장으로 수직 상승하는 유형과 달랐다. 즉 사옥장이 관옥장이 되었다고 하여 관장으로 종신토록 봉사하였던 것이 아니라 관장이 되었으면서도 다시 사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18세기까지 도감에 동원된 玉匠들은 시기에 따라 京·鄉玉匠과 官·私匠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었고, 옥장의 신분변화를 토대로 시대적인 변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이미 상품생산이 활발하여 화폐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므로, 옥장들이 중앙 관청의 관장으로 속박되기보다는 자유롭게 사적인 생산에 종사할 때 훨씬 이익을 얻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나. 18세기 각수

각수는 1713년을 고비로 급변하여 18세기의 도감에서는 京·鄉刻手 대신 관각수와 사각수를 동원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18세기에 해당되는 1713년부터 1772년까지 59년 동안 21차례의 도감이 개설되었을 때 동원된 刻手는 京·鄉匠은 물론 官·私匠까지 전체 인원은 318명이었으며, 이중 상설아문 소속의 官刻手와 私刻手を 합친 숫자는 295명으로서 전체의 92%였다. 숙종 39년(1713)에 존숭도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17세기와 마찬가지로 경각수 14명과 향각수 9명 합 23명을 동원하였으며, 향각수 9명 중에는 승려 7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관각수가 소속되어 있던 상설아문에는 몇몇 곳이 있어서 도감에서는 선공감에서 11명, 공조에서 2명, 훈련도감에서 5명, 어영청에서 1명의 각수를 징발하였다. 이처럼 숙종 44년(1718)부터 영조 48년(1772)까지 55년간 20차례의 도감이 개설되면서 대부분 관장과 사

장을 동원하는 추세였지만, 예외적으로 1739년과 1740년에는 官刻手와 함께 서울 근처에 거주하는 鄉刻手를 차출하고 있었다. 1739년 헌렬후의 존숭도감에는 도성 근교에 위치한 금주산성이나 광주산성에서 僧刻手를 동원하였고, 1740년에는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에서 僧刻手를 차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18세기 도감의 각수 동원체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18세기 옥장의 동원체제와 마찬가지로, 官匠과 私匠 중에서 각수를 차출하는 형태였다.

18세기에는 대체로 시대가 내려갈수록 도감 내에 차출하는 각수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동원된 각수의 숫자는 가례와 책례가 비슷하고 존호·존숭은 현저하게 많았다. 가례와 책례 때에는 적을 때는 2~4명의 각수를 동원하였고, 많을 때는 15~16명을 동원하고 있었다. 존호·존숭 때에 동원하는 각수는 적을 때는 9명을, 통상적인 때는 13~16명을, 많을 때는 39명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18세기의 가장 이른 동원되기 시작하는 각수는 韓業相였다. 그는 1701년부터 1736년까지 35년간 23회의 도감에 차출되었는데, 官刻手로 등재된 시기는 1718년이었다. 한업상처럼 校書館 등의 관청에 소속되어 5회 이상 옥책역에 동원된 관각수는 총 9명이었다. 이들 중 校書館에만 소속된 官匠은 金武男, 尹世同, 朴守萬, 金壽海, 張世柱, 田得春 등 6명이었다. 김무남은 1718년부터 1740년까지 22년간 11회의 도감에 차출되었는데, 관청 소속을 병기한 세 차례 모두 교서관 소속이었다. 윤세동과 박수만은 1721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1720~30년대의 여러 도감에서 동시에 차출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관각수였다. 양자 중 윤세동은 그후 1751년까지 30년이라는 장기간 각수로 활동하지만 도감에 차출된 횟수는 단 6회에 불과하였다. 박수만의 경우 1721년부터 1732년까지 11년간 5회 동원되었으며, 활동 시기나 동원횟수로 볼 때 윤세동과 단적으로 활동하였던 것 같다. 김수해의 경우 1724년부터 1772년까지 48년간 설치된 공방에서 24회 동안 도감에 징발되어 옥책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장세주의 경우 1739년부터 1759년까지 20년간 교서관의 장인으로서 13회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18세기 관각수 중에서 전덕춘은 1772년부터 1795년까지 23년간 9회 동안 도감에서 활약하였다.

이처럼 校書館에 소속된 官刻手들은 평상시에는 서책을 인쇄하기 위하여 木板 위에 글씨를 새기는 일에 종사하지만, 왕실의 가례행사를 치르기 위해 도감을 개설하고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玉板 위의 글씨를 새기는 작업을 동원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韓業相과 韓福萬 및 劉大昌 등 3인은 校書館 이외의 관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官匠이었다. 그 밖의 官刻手들은 校書館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선공감이나 공조 및 軍門 등에도 소속되어 있기 마련인데, 도감에서는 이들 각 아문에 소속된 각수들조차 도감의 옥책역에 동원하였던 것이다.

18세기에 관·사장을 넘나드는 각수는 鄭愛男, 元命長, 李斗白, 朴元世 등은 20년 이상 30여 년간 활동하였다. 평생 순수한 사각수는 1720년부터 1740년의 기간 동

안 동원된 黃自顯, 文德化, 金海宗, 金承昌 등 4명의 사각수들이었다. 당시 사각수들이 증가하는 데에는 영·정조 연간에는 국가적인 편찬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되거나 문인들이 저술한 문집이 간행되어 인쇄문화가 활짝 핀 문예부흥기였던 데 이유가 있다. 아울러 현존하는 서책들이 대부분 이 시기의 산물이란 사실과도 연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10여 종 이상의 장색이 분업적 협업 방식으로 제작하는 옥책의 핵심기술은 옥을 다루는 옥장과 글씨를 새기는 각수가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비중은 장인의 숫자가 도감 내에서도 가장 많았던 데에서도 확인된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공예품을 제작할 장색은 상설아문의 경공장만으로 그 숫자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 외공장이나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작업하는 사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옥장과 각수도 마찬가지로였다.

옥장을 상의원과 내수사에 소속시켰던 시기가 1686년 경이었던 데 비하여 각수는 그보다 약간 늦은 1718년부터 교서관에 소속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전반에 경각수들은 교서관과 함께 훈련도감이나 어영청에도 소속되어 있었는데, 옥장의 경우 상의원, 내수사와 함께 수어청에 소속된 적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례라 할 수 있다. 도감은 상설아문 뿐 아니라 차출할 수 있는 최대의 인력을 총동원하였던 핵심 권부였듯이, 병자호란 이후 무기를 제작하고 군인들을 소집하였던 훈련도감이나 어영청, 수어청과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조선후기에 설치하였던 군사관련관청에 장인들이 소속되어 있다가 도감에 차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 다. 18세기 도자장

옥장과 각수의 도구를 제작해주는 역할은 도자장의 작업이다. 18세기 도자장의 경우 옥장이나 각수와 마찬가지로 상설아문에 소속된 관장이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즉 당시 도자장이 소속되었던 관청에는 상의원, 공조, 교서관, 내수사가 있으며, 그밖에 군문인 훈련도감도 있다. 이들 중 장기간 국역을 지면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도자장은 17세기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18세기 중반의 도자장 宋厚奎(1739~1940년 활동)는 고작 1739년과 1940년 3번의 도감에서 활동하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국역을 지기 위해 도감에 징발될 때마다 상의원이나 교서관 및 훈련도감 등으로 징발할 때마다 소속 관청이나 군문이 변화가 있었다. 18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도자장은 金奉益(1753~1770년 활동)이며, 그는 영조시대를 대표하는 장인이다. 특히 그는 1753년부터 1770년까지 17년간 14곳의 도감에서 영조가 왕릉이나 왕후릉에 능표석을 영건할 때 공조나 상의원 소속의 관장으로 각수들의 새김칼을 버리는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한편 정조대에는 도자장 智順才(1778~1804년 활동)가 1778년부터 1804년까지 13곳의 도감에서 활동하게 활동하였다. 1778년 정조와 효의왕후의 책례도감에서 국역을 진 이후 1783년에는

영조와 정순왕후의 사존호 및 장조와 헌경왕후의 재존호를 올리는 도감에서는 19명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의 위치까지 올라가 3등상을 시상했다. 이후 정조대를 대표하며 순조 초 1804년까지 활동하였다.

### (7) 19세기 전반기 옥책의 제작 장인

19세기에는 존호·존숭을 위한 도감이 많이 설치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존호와 존숭의 대상은 주로 대왕대비나 왕대비 등 왕실의 어른들이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그들에게 존호를 올리고 진찬을 베푸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신정왕후는 순조의 장자인 효명세자의 세자빈으로서 남편이 세자로 요절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으나, 아들인 헌종이 왕세손으로서 책봉되고 이후 왕위에 오르면서 대비가 되었다. 그녀는 1890년까지 90세로 장수하면서 철종과 고종을 즉위하게 하거나 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수렴청정을 하거나 고종을 즉위시키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끼쳤다. 특히 고종은 즉위 당시 종법상 문조의 뒤를 잇게 되어 신정왕후 조씨가 종법상 모후여서 고종 재위 내내 존호존숭이 빈번하게 거행되었다.

### 가. 19세기 전반 사자관과 화원

19세기에 존호존숭이 빈번해지면서 옥책의 제작도 늘어났고, 이를 제작하기 위해 18세기 후반부터 옥책에 복칠을 하고 금을 메꿔 넣는 사자관과 화원의 동원이 정례화 된 점을 알 수 있다. 옥책에 복칠한 사자관의 경우 18세기 말에는 도감 당 4명이었던 데 비하여 19세기 초 사자관은 8명이어서 50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자관이 2배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화원의 경우 이전 18세기 말에는 옥책에 금을 메꾸는 업무에 국한되었는데, 19세기에는 여기에 더하여 옥보의 전문에 복칠을 하는 일까지 업무가 확장되었다. 또한 화원의 숫자는 18세기 말에는 4명이었는데, 19세기 초에는 7명으로 거의 2배 정도 늘어났음이 확인된다.

<표> 19세기 전반 존호, 존숭도감에서 활동한 사자관과 화원 명단

연대	주체	도감	별단	옥책과 옥보의 寫字官	畫員	소장번호
1827	순조, 순원후	존호	별단	崔始鎭, 全承祖, 李東憲, 金振鏞, 李漢中, 閔壽根, 李東鉉, 趙世奎	張駿良, 金和鍾, 許宏, 金殷鍾, 李宗聃, 劉運弘, 尹命周	규13344
1835	문조	추숭	1방	洪聖老, 權載豐, 金繼述, 彭繼曾, 金應泰, 崔學遠	張駿良, 全應洙, 全在晟, 金學敬, 金聖祐, 李應模	규13396
1837	순원후/신정후	존숭	1방	全承祖, 李世煥, 李八元, 崔應夏, 劉亨基, 全榮植	張駿良, 金舜鍾, 朴基駿, 全聖祐	규13376
1851	순원후, 신정후, 효정후	존숭	1방	玉冊; 彭勉義, 金弘祖, 閔厚根, 李漢明, 崔漢奎, 金成鉉, 姜在興/玉寶; 全承祖, 李基禎, 崔應夏	玉冊; 鄭昌鉉, 李宗彬, 金舜鍾, 李宜錫, 張東赫/玉寶; 張駿良, 金和鍾, 劉淑	규13385

1835년 순조의 장남이면서 요절한 효명세자의 아들이던 헌종이 즉위하고 사친인 효명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고 ‘翼宗’으로 묘호와 시호를 올리는 ‘追崇都監’을 설치 운영하였다. 여기에서 익종의 시호보인 금보와 시호옥책 및 종묘에 모실 신주, 그리고 추존왕릉에 세울 표석 등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차출한 사자관과 화원의 업무는 세분화되었다. 먼저 사자관의 경우 이전까지 옥책에 복칠하던 일에 더하여 신주에 획을 더하거나[補畫], 왕릉 앞에 세울 표석의 전후 면에 복칠하는 일까지 업무가 세분화되었다. 당시 옥책에 복칠하는 사자관은 權載豊을 비롯하여, 金繼述과 彭繼曾 및 金應泰의 4명이, 신주에 획을 더하는 역할에는 사자관 洪聖老가, 왕릉 표석의 전후 면에 새겨놓은 글자에 복칠하기 위해 前主簿 崔學遠가 차출되어 활동하였다. 화원의 경우에도 18세기에는 옥책에 금을 메꾸는 일로 국한되었다가 1827년에는 옥보의 전문에 복칠하는 일까지 확장되었는데, 이때부터 금보의 전문에 복칠하는 일, 왕릉의 표석에 주홍을 메꾸는[填紅]까지 수행하였다. 금보 篆文에 복칠하는 일은 화원 張駿良이, 시책에 금을 메꾸는 일은 화원 全應洙과 全在晟 및 金學敬이, 표석에 주홍을 메꾸는 일은 화원 金聖祐와 李應模이 맡아 했다. 이처럼 사자관과 화원의 업무는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확장되었지만 당시 도감에 차출된 사자관의 숫자는 총 6명, 화원의 숫자는 총 6명으로서 1827년에 사자관 8명과 화원 7명이었던 것보다 14~25% 정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835년에 국역을 졌던 사자관 洪聖老의 경우 1795년부터 1835년까지 40년간 8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1795년 영조와 정순왕후 및 장조와 헌경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1802년 영조와 정순왕후 및 효의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1805년 정순왕후의 국장 때, 1812년 효명세자를 세자로 책봉할 때, 1816년 혜경궁 홍씨의 사후 상례도감과 빈궁도감에서, 1835년 익종을 추존하여 신주에 보획할 때 차출되어 국역을 졌다.

2년 뒤 1837년에는 순조의 사후 2년 뒤 순조와 순원왕후 및 문조와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숭도감이 설치되었고, 여기에서 4분의 옥보와 옥책을 제작했다. 옥보와 옥책의 수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관은 6명, 화원은 4명을 동원하여 2가지 업무를 했다. 옥책에 초도서를 쓰는 사자관은 全承祖과 崔應夏를 비롯한 6명을 차출했는데, 옥보의 복칠을 하는 사자관도 6명 중 2명이 수행한 것이다. 화원 경우에도 張駿良과 朴基駿을 비롯한 4명이 옥책에 금을 메꾸는 일도 하였고, 옥보에 복칠하는 일도 함께 했다. 이처럼 이전에는 사자관과 화원이 모두 6명씩이었는데, 그중 화원은 4명으로 약간 줄인 것을 알 수 있다.

존호존숭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 사자관과 화원의 역할은 헌종의 사후 철종 때 1851년 순조와 순원왕후, 문조와 신정왕후 및 효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까지 보인다. 당시 존숭도감에는 사자관은 옥책에 복칠하거나 옥보의 전문에 복칠하는 역할을 위해 총 10명을, 화원은 옥책에 금을 메꾸거나 옥보의 전문에 획을 긋기



위해 차출하였다. 이를 위해 복칠 사자관은 옥책에 복칠하는 서사관은 彭勉義, 金弘祖를 비롯하여 7명을, 옥보의 전문에 복칠을 하는 서사관은 全承祖를 비롯하여 3명이었다. 옥책에 금을 메꾸는 화원은 鄭昌鉉 등 5명을, 옥보의 전문에 획을 긋는 화원은 張駿良과 劉淑 등 3명이다. 이전까지 서사관과 화원은 옥보나 옥책 모두에 복칠하거나 금을 메꾸는 일을 공통적으로 수행하여 인원수가 서사관 6명, 화원 4명이었다. 그런데 1851년에는 사자관 총10명과 화원 총8명으로 이전보다 1.5배 이상 1배까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활동한 사자관 彭勉義의 경우 1835년 순조의 국장 때와 1852년 순조와 순원왕후의 존호도감 때에도 국역을 졌다.

<표> 19세기 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한 옥장, 옥각수, 도자장 명단

연대	주체	도감	각방	玉匠	玉刻手	刀子匠	소장번호
1800	정조	국장	三房	李大得 등 31명	玉刻手 李瑞興 등 18명	池順才 등 15명	규13634
1802	영조, 정순후, 정조, 효의후	존승	1방	李大得 등 6명	金千得 등 12명	智順才 등 10명	규13319
1804	영조, 정순후	존호	1방	李大得 등 13명	金千得 등 12명	智順才 등 11명	규13322
1805	정순왕후	국장	三房	李大得 등 46명	李東珍 등 14명	鄭尙禧 등 13명	규13592
1805	영조, 정순후	존승	1방	李大年 등 13명	金千得 등 12명	金昔鎭 등 6명	규13325
1821	효의왕후	국장	三房	方成昌 등 35명	朴枝春 등 13명	李祥得 등 13명	규13647
1827	순조, 순원후	존호	1방	方聖昌 등 25명	李世豊 등 10명	田應春 등 10명	규13344
1835	순조	국장	三房	鄭在寬 등 52명	李世豊 등 18명	田應昌 등 18명	규13669
1835	문조	추승	1방	鄭昌雲	李東協	田應春 등 12명	규13396
1837	순원후, 신정후	존승	1방	李昌根 등 9명	李東顯 등 8명	田應春 등 3명	규13376
1841	순원후	존호	1방	金光采 등 9명	李元 등 2명	李完石 등 2명	규13381
1843	효현왕후	국장	三房	鄭在寬 등 23명	李世豊 등 19명	崔福潤 등 19명	규13802
1848	순원후, 신정후	상호	1방	金光采 등 7명	李世永 등 3명	崔福潤 등 2명	규13348
1849	헌종	국장	三房	金光采 등 35명	朴春根 등 17명	崔卜允 등 17명	규13784
1851	순원후, 신정후, 효정후	존승	1방	申得浩 등 8명	朴春根 등 7명	李明圭 등 3명	규13385
1852	순원후	상호	1방	鄭在寬 등 5명	朴春根 등 5명	金信澤 등 3명	규13391
1853	순조, 순원후	존호	1방	金光采 등 2명	朴春根 등 2명	羅慶宗 등 2명	규13353
1853	문조, 헌종	존호	1방	金光采 등 5명	朴春根 등 5명	羅昌基 등 2명	규13403
1857	순원왕후	국장	三房	金光采 등 6명	朴春根 등 13명	崔福潤 등 8명	규13683
1863	철종, 철인후	존호	1방	金光采 등 3명	朴春根 등 5명	李明奎 등 2명	규13446
1864	철종	국장	三房	方喜文 등 2명	朴春根 등 4명	李世九	장2-3022
1878	철인왕후	국장	三房	朴相根 등 2명	玉刻手 李好榮 등 2명	李英植	규13860
1890	신정왕후	국장	三房	-	玉刻手 鄭道源 등 8명	崔福允 등 2명	규13736
1898	명성황후	국장	三房	-	玉刻手 金殷錫 등 5명	崔光哲 등 2명	규13883
1904	효정왕후	국장	三房	金德用 등 2명	玉刻手 金殷錫 등 6명	金甲得 등 3명	규13814
1904	순명비	국장	三房	-	金殷錫 등 7명	金漢玉 등 2명	규13900

19세기 후반의 경우 국왕이나 왕후의 국장에서 시호옥책을 제작할 때 필요한 옥을 산지의 옥광산에서 채취하지 않았다. 이때부터는 이미 갖추고 있거나 시장에서 무역한 옥을 구입해서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시호옥책을 제작하는 옥장이나 각수 및 도자장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1864년 철종의 국장 때 국장도감의 3방에 옥장은 3명, 각수는 옥각수라는 전문화된 장색으로 특화되어 불리며 4명, 도자장은 1명이었다. 그보다 바로 앞선 1849년 헌종의 국장 때 옥장은 35명, 각수는 17명, 도자장은 17명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헌종 국장 때 3장색의 총원은 69명으로 평균 23명이었는데, 철종 국장 때 3장색의 총원은 8명으로 평균 3명이었다. 이처럼 19세기 후반기에 국장 시책을 제작하는 장인은 전반기보다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 시책을 제작한 장인들 중에서 각 장색별로 1등상을 받은 장인들이 우두머리의 성격을 가지고 도감의 일을 진두지휘하였던 것 같다. 19세기 전반에 옥장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 1등상을 받은 장인은李大得, 方成昌, 金光采, 方喜大, 朴相根, 崔順元 및 金德龍이었다. 각수 중에는 李東珍, 李瑞興, 李世豐, 朴春根, 李好榮, 鄭道源, 金殷錫이 두드러지고, 도자장 중에는 池順才, 李祥得, 崔福潤, 李世九, 崔光哲 등이었다.

19세기 국장도감 3방에서는 이전 시기와 달리 19세기 전반기와 19세기 후반기로 확연하게 구분되고, 국왕의 국장과 왕후의 국장 또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19세기 전반 국왕의 국장은 1800년 정조의 국장, 1835년 순조의 국장, 1849년 헌종의 국장을 보면, 옥장은 각각 31명, 52명, 35명으로 총118명에 평균 49명이다. 3도감의 각수는 18명, 18명, 17명으로 총53명에 평균 17명이며, 3도감의 도자장은 15명, 18명, 17명으로 총50명에 평균 16명이다. 곧 옥장 49명의 숫자가 각수 17명이나 도자장 16명보다 약 3배 정도로 많았고, 각수나 도자장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였다.

한편 왕후의 국장은 1805년 정순왕후, 1821년 효의왕후, 1843년 효현왕후, 1857년 순원왕후의 국장을 보면 옥장은 각각 14명, 13명, 19명, 6명으로 총52명에 평균 13명이다. 4도감의 각수는 14명, 13명, 19명, 13명으로 총59명에 평균 15명이고, 4도감의 도자장은 13명, 13명, 19명, 8명으로 총53명에 평균 13명이다. 옥장 15명, 각수 15명, 도자장은 13명으로서 3장색의 장인들은 대체로 비슷한 숫자였다. 이를 통해 국왕의 시호옥책이 왕후의 것보다 양이 많고 새기는 내용이 많아 규모가 커서 옥장의 숫자가 많았으며 각수나 도자장의 숫자도 약간씩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나. 19세기 전반 옥장

19세기에 들어 왕실의 존호존숭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 동원된 옥장 중 장기간 국역을 지면서 활동하는 장인이 몇몇 두드러진다.

19세기 초에는李大得(1783~1816년 활동)이 정조대부터 순조대까지 활동한 대

표적인 옥장이었다. 그는 1783년 존호존숭도감부터 1816년 혜경궁 홍씨의 상례도감까지 33년간 13곳의 도감에서 옥을 다루어 1등상을 받았다. 19세기 말에는 鄭在寬(1816~1855년 활동)과 金光采(1835~1864년 활동)이 대표적인 옥장이다. 이들 중 정재관과 김광채는 1835년부터 1855년까지 20년간 활동시기가 겹치면서 상호 경쟁을 하면서 옥장 중 우두머리 자리를 다투었던 점이 인상적이다.

#### 다. 19세기 전반 각자장

19세기에 들어서도 왕실에서는 왕실 의례 때 옥책의 제작이 활발해서인지 동원된 각수들 또한 옥각수들이 장기간에 다수의 도감에 동원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각수들 중 18세기 말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던 각수집안에서 성장한 형제각수들이 같은 도감의 같은 제작처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어 주목된다. 1780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850년대까지 두드러진 활약을 했던 이동진 4형제 각수와 이세영 형제 각수 집안이 대표적이다.

18세기 말 정조 말부터 19세기 초 순조연간에 해당되는 1780년대부터 1850대까지 70년간 활동했던 장인 집안의 각수 형제들이 공동작업을 한 것이 주목된다. 각수 이씨 집안에 해당되는 이들로서 그들은 돌림자를 사용하는 이동진, 이동식, 이동근, 이동현 형제들과 이세영, 이세풍 형제들이다.

19세기 전반기에 ‘동’자 돌림 형제각수들과 비교되는 각수집안으로 이세영과 이세풍 형제를 들 수 있다. 그들은 1800년부터 함께 동원되기 시작하여 거의 모든 국역에 함께 참여하였는데, 그들 중 이세영은 1858년까지 58년간, 이세풍이 그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1843년까지 43년간 활동하였다. 국역에 동원된 기간 동안 형제 각수는 앞서 이동진 형제각수들과 마찬가지로 왕실의 가례나 흥례 때 옥책이나 애책 및 시책에 글자를 새기는 옥각수로 동원되었고, 국장도감에서 지식이나 표석 및 산릉도감 대부석소에서 석물을 다루는 장인으로 활동하곤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 두 형제각수들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점이 있다. 그것은 이들이 옥을 다룰 때에는 옥각수로 세분화되어 의례에 병기되어 있으나 석물을 다룰 때에는 석각수가 아닌 각수로만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다.

19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각수는 박지춘, 박춘근, 안정필, 이원석, 박중근 등이다. 이들이 국역에 참여하였을 때 의례의 기록에는 대부분 옥각수로 분류되어 있었다. 다만 석각수의 경우에는 18세기 말부터 옥각수로 활동을 시작했던 박지춘과 19세기 말의 이윤대가 대표적이다. 먼저 박지춘의 경우 1795년부터 1837년까지 42년간 14번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그 또한 국역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부터 옥각수로 주로 불렸으나, 그의 진가는 흥례 시 예장도감이나 산릉도감 등의 대부석소에서 뚜렷한 활약을 하여 옥각수보다는 석각수로서의 활동이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예컨대 1816년 헌경 혜빈의 상례도감의 거의 모든 제작처에 참여하여 3방에서는

옥각수로서 애책과 시책을 제작하였고, 표석소와 지식소에서는 석각수였지만 분류상 명칭은 각수였다. 각방과 각소에서 그는 모든 각수보다 가장 앞선 위치에 존재하였던 가장 으뜸에 해당되었다. 이미 18세기 말에 뛰어난 장인으로 인정받았던 이동식을 비롯한 형제각수와 이세영과 이세풍의 형제각수들보다 앞자리에 위치하여 당시 가장 뛰어난 석각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시상을 할 때 석각수로서 1등에 올랐다.

이후에도 박지춘은 산릉도감 대부석소의 석각수로서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1821년 정조 건릉 천봉 산릉도감의 경우 대부석소의 석수로 활동하였는데 이때 맨 앞에 기록되어 있었다. 1822년 현목 수빈의 예장도감에서도 그는 표석소와 지식소에서 석역에 활동하였는데, 이때 19세기에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형제 각수 중 이동근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할 때 함께 해서 그는 3등으로 시상하였다. 1830년 효명세자의 예장도감에서도 그는 표석소에서 또 다른 형제 각수였던 이세풍이 가장 앞장서서 석역을 주도할 때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등으로 시상하였다. 이처럼 산릉도감이나 예장도감의 표석소에서 비석에 글자를 새겼던 석각수가 박지춘이었다. 19세기에 그는 교서관에 소속되지 않고 사사로이 활동을 하다가 국역에 징발되었던 사장, 사각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도 죽각수나 목각수의 경우 왕실이나 국역에서는 옥각수나 석각수보다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아, 그들은 민간에서 개인 문집이나 서원의 책자 간행 등에서 활약을 했다고 여겨진다. 18세기 말에 활동하였던 옥각수들과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지만 개인의 특장이 달라 활동공간이 겹치지 않는 각수가 있는데, 그 중 1명이 이주옥이다. 그는 각수로만 병기되어 있지만 옥각수로 세분된 각수들과는 활동 영역이 달랐다. 즉 그가 참여한 도감은 주로 왕실의 족보를 제작하는 데여서, 그들은 선원보를 목판에 새기는 작업을 했던 목각수였다고 여겨진다.

19세기에 도감들 중 일부는 교서관에 소속된 관각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문경순과 송홍일의 경우 1848년 국조보감을 간행할 때의 도감에 참여하였는데, 그들은 예관(芸館) 소속으로 병기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18세기 말 정조 말경에 상당수의 상설아문에 소속 장인들이 거의 없다고 했던 것과 달리, 교서관은 19세기에 여전히 국가에서 사용할 인쇄물을 간행하여 국가 지식을 집결시키고 확산시키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 라. 19세기 전반 도자장

19세기의 도자장 또한 이전 18세기 도자장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장인이 그다지 많지 않다. 19세기 초중반에는 田應春이 1827년부터 1837년까지 10년간 3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가장 주목되는 도자장은 19세기 중후반에 李明圭의 경우 예외적으로 1835년부터 1863년까지 28년간의 장기간 동안 6곳의 도감

에서 활동하여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도자장의 경우 2~3년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2~3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진 정도이고 대개 1차례만 의뢰에 기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도자장의 기술이 옥장이나 각수처럼 기술적으로 숙련되고 기량이 우수해서 옥책을 제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수가 옥편 위에 새기는 칼을 베풀어주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8) 19세기 후반기 옥책의 제작장인

고종이 즉위한 이후 19세기 후반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존호존숭이 이뤄졌고, 특히 신정왕후 조씨에 대한 존호가 가장 많았던 점이 주목된다. 이렇게 도감에서 옥책의 제작이 많아지면서 그것을 제작하는 장인들이 전문화되면서 사자관과 화원 뿐 아니라 옥장과 옥각수 및 도자장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숙련된 장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 가. 19세기 후반 사자관과 화원

고종대에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제술관이 책문을 작성하고 사자관들은 이것을 쓴 후, 사자관이 옥책에 보획을 하거나 북칠을 하였고, 화원들은 옥책에 금을 메꾸는 역할이 정례화되었다. 아울러 옥책을 제작하는 각수는 옥각수로 세분화되어 관련 도감에 이 때문에 19세기 후반 존호존숭도감에 차출된 사자관과 화원은 특정 역할로 전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9세기 후반 고종대 존호, 존숭도감에서 활동한 사자관과 화원 명단

연대	주체	도감	별단	寫字官	畫員	소장번호
1866	문조, 헌종, 철종	존호	1방	玉冊補劃; 李象桓, 李仁模, 崔健植, 劉信祐, 金永集, 劉晉祐, 金載傳, 崔在禧	玉冊填金; 金學道, 李哲模, 白俊煥, 金濟懋, 金濟完, 劉淵祐, 李文炯	규13408
1867	순조, 순원후	존호	1방	玉冊北漆; 彭繼容, 劉漢翼		규13366
1875	문조, 신정후	존호	1방	玉冊補劃; 金尙鍵, 劉漢翼/ 玉冊北漆; 李斗赫, 郭元淳, 徐寅杓, 李鍾益, 金季永, 李兢鉉, 金東弼	玉冊填金; 崔圭序, 朴昌洙, 徐斗杓, 金鏞元, 白禧培, 金樂遠, 尹錫永, 金濟完, 張東赫	규13412
1877	신정후, 효정후, 철인후, 고종	존호	1방	玉冊補劃; 金成鉉, 劉晉祐, 劉漢翼, 金季永, 李觀秀, 金尙鍵/ 玉冊北漆; 李斗赫, 郭元淳	玉冊填金; 徐寅杓, 徐興源, 崔圭序, 朴昌洙, 徐斗杓	규13455
1888	신정후	존호	1방	玉冊補劃; 金季永, 李健基/ 玉冊北漆; 金薰泳, 金永錫	玉冊填金; 李哲模, 朴昌洙, 朴正鉉, 金濟完, 宋秉華	규13460
1888	신정후, 효정후	존호	1방	玉冊補劃; 李命桓, 李兢鉉, 金漢朝, 李斗嫻, 金東助, 李健基, 李英鎭 玉冊北漆; 全昌錫, 朴壽永, 李一溶, 金泰殷, 朴商說	玉冊填金; 宋秉華, 李基成, 金仁植, 朴昌洙, 李祺祥	규13473
1890	숙종	존호	1방	玉冊補劃; 李一溶, 金泰殷, 李碩奎, 李斗嫻, 李兢鉉/ 玉冊北漆; 崔仁植, 劉漢春, 金相沼, 李健基	玉冊填金; 宋秉華, 洪永祖, 李祺榮, 金濟民	규13272
1890	문조, 신정후	존호	1방		玉冊填金; 宋秉華, 卞志琬, 洪永祖	규13422
1892	문조, 신정후	존호	1방	玉冊補劃; 金重謨, 崔昶, 劉漢稷, 劉漢	玉冊填金; 宋秉華, 宋秉斗, 李基	규13425

연대	주체	도감	별단	寫字官	書員	소장번호
				肯, 洪奎鉉, 朴正善, 金載傳, 金肯洙/ 玉冊北漆; 全光默, 全宅慶, 金漢朝, 金 東勛, 李斗赫	淳, 白禧培, 劉淵祐, 劉容祐, 尹 錫永, 金世榮, 趙景健	
1900	인조, 인렬후, 장렬후, 효종, 인선후	존호	1방	玉冊補劃; 韓斗錫, 朴鳳鎮, 黃龍秀, 金 澤榮, 李貞善, 慶煌, 閔泳禧, 李應鉉/ 玉冊北漆; 朴淳亨, 林興完, 李源益, 尹晶錫	玉冊填金; 尹錫永, 白禧培, 吳正 善, 閔泳郁	ㄱ13426

고종이 즉위한 이후 19세기 후반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존호존숭이 이뤄졌고, 특히 신정왕후 조씨에 대한 존호가 가장 많았던 점이 주목된다. 이렇게 도감에서 옥책의 제작이 많아지면서 사자관과 화원의 업무가 전문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곧 도감에 차출된 사자관들은 옥책에 보획을 하거나 북칠을 하거나 옥보의 전문에 북칠을 했고, 화원들은 옥책에 금을 메꾸거나 옥보의 전문에 보획을 하거나 옥보의 전문에 북칠을 하는 역할이 정례화 되었다. 이 때문에 19세기 후반 존호존숭 도감에 차출된 사자관과 화원은 특정 역할로 전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866년 철종의 사후 고종이 문조와 헌종 및 철종에게 존호를 올릴 때에는 옥책에 보획을 위해 사자관 李象桓을 비롯한 8명과 옥책에 금을 메꾸 화원 金學道를 비롯한 7명, 옥보에 보획을 할 화원 趙在興을 비롯한 7명을 차출하였다. 사자관은 8명인데 화원은 총 15명으로 인원수가 많아진 점이 눈에 띈다. 이듬해 1867년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옥책에 북칠을 위해 사자관 彭繼容과 劉漢翼을 차출하였고, 그들에게 상으로 외직을 주거나 邊將에 제수하기도 하였다.

이후 고종대에는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일이 빈번했다. 1875년 고종이 문조와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에는 옥책에 보획을 위해 사자관 金尙鍵과 劉漢翼을, 옥책에 북칠을 위해 사자관 李斗赫을 비롯한 7명, 옥보 전문에 북칠을 할 사자관 白萬裕 등 3명을 차출했다. 화원의 경우 옥책에 금을 메꾸기 위해 화원 崔圭序를 비롯한 9명을, 보전문에 보획을 할 화원 白運培과 李景鈺을 차출하였다. 당시 사자관 총 12명과 화원 총 11명으로 이전보다 숫자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년 뒤 1877년 대왕대비인 신정왕후를 비롯하여 왕대비인 효정왕후 및 철인왕후 그리고 고종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해 상호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때 제작해야 할 옥책의 숫자가 많아 사자관과 화원도 많이 차출하였다. 옥책에 보획은 사자관 金成鉉 등 6명을, 옥책의 북칠은 사자관 李斗赫과 郭元淳이 했다. 옥책에 금을 메꾸고자 화원 徐寅杓을 비롯하여 5명을, 보전문에 보획하고자 화원 彭宅均과 白運培를 차출하였다. 즉 사자관은 총 8명, 화원은 총 7명이 활동하였다.

1888년 대왕대비인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해 가상존호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때 제작할 옥책의 숫자가 작아서인지 사자관 총 5명과 화원 총 7명을 그 숫자가 줄었다. 옥책에 보획할 사자관 金季永과 李健基을, 옥책의 북칠할 사자관 金薰泳과 金永錫을, 보전문에 북칠을 위해 사자관 高殷相을 차출했다. 옥책에 금을 메꾸

고자 화원 李哲模 등 5명을, 보전문에 보획하고자 화원 朴鏞夔와 朴鏞薰을 차출하였다. 같은 해 문조를 비롯하여 신정왕후, 효종과 효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가상존호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때에는 제작해야 할 옥책이 많아서인지 이전보다 사자관과 화원의 숫자가 증가하여 사자관은 총17명과 화원은 총10명이었다. 옥책의 보획은 사자관 李命桓 등 7명을, 옥책의 북칠은 사자관 全昌錫 등 5명을, 보전문에 북칠을 위해 사자관 劉漢承 등 5명을 차출했다. 옥책에 금을 메꾸고자 화원 宋秉華 등 5명을, 보전문에 보획하고자 화원 朴鏞夔 등 5명을 차출하였다. 옥책의 숫자에 따라 동원해야 하는 사자관과 화원의 숫자가 가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890년에는 숙정에서 존호를 올리기 위해 추상존호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때 제작할 옥책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사자관 총12명과 화원 총8명이 참여하였다. 옥책에 보획할 사자관 李一溶 등 5명을 동원하였고 그들에게 加資하고, 상당한 직책에 調用했다. 옥책에 북칠할 사자관 崔仁植 등 4명을 동원하였고 그들 중 3명에게 守습을 제수하였다. 옥보의 篆文에 북칠을 위해 사자관 金相河 등 3명이 참여하였고 그들에게 상당직을 조용하였다. 화원의 경우 옥책에 금을 메꾸고자 화원 宋秉華 등 4명을 동원하여 그들 중 4명에게 수령을 제수하였고, 보전문에 보획하고자 화원 朴鏞夔 등 4명을 차출하여 상으로 상당직을 조용하였다. 이때부터는 도감에 차출된 사자관이나 화원에게 상으로 벼슬을 내렸다.

1890년 신정왕후가 승하하자 고종은 종법상의 부모인 익종과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해 추상존호도감을 설치하였다. 당시 제작한 것은 옥책과 금보였는데, 사자관은 부르지 않고 화원 총7명만 차출한 점이 주목된다. 당시 익종대왕의 옥책에 금을 메꾼 화원은 宋秉華와 卞志琬을, 신정왕후의 옥책에 금을 메운 화원은 洪永祖이었다. 익종대왕의 금보에 보획을 한 화원은 朴鏞夔와 徐元熙였고, 신정왕후의 금보에 보획을 한 화원은 朴鏞薰과 趙錫晉이었다. 신정왕후의 사후 4년상이 지나고 종묘에 부묘해야 할 때가 되어 1892년에는 익종과 신정왕후에게는 추상존호를, 효정왕후와 고종 및 중전[명성황후]에게는 가상존호를 올리기 위해 상호도감을 설치하였다. 존호의 대상이 많고 옥책의 수량도 많았기 때문에 차출된 사자관은 총 13명, 화원은 총 20명이어서 보통 때보다 2~3배 이상 많았다. 4점의 옥책에 보획을 한 사자관은 金重謨 등 8명이고, 옥책에 북칠을 한 사자관은 全光默 등 5명이었다. 옥책에 금을 메꾼 화원은 宋秉華와 卞志琬을, 신정왕후의 옥책에 금을 메운 화원은 洪永祖이었다. 익종대왕의 금보에 보획을 한 화원은 宋秉華 등 9명이었고, 보전문에 보획을 한 화원은 趙錫晉 등 5명, 보전문에 북칠을 한 화원은 金濟懋 등 5명이었다.

화원들 중 집안 전체가 오랫동안 존호도감에 국역을 진 경우가 있는데, 白殷培와 白禧培 및 白運培 형제가 그들이다. 이들 형제 중 가장 나이가 많아 가장 먼저부터 활동한 화원이 백은배이다. 화원 白殷培는 1843년 효현왕후의 국장 때부터

참여하기 시작하여 1857년부터 참여하는 백희배보다 14년 이상 앞서고 있다. 이후 1845년 헌종과 효정왕후의 국혼 때, 1852년과 1853년 순조와 순원왕후를 비롯한 효정왕후 및 철인왕후에 대해 존호를 올릴 때, 이후 1855년 수릉의 천봉이나 휘경원의 천릉 및 1857년 순조왕후의 빈전 때, 1863년 수빈 박씨의 휘경원 천봉 때에 참여하였다. 1872년 어진을 이모할 때에 종친부에 소속되어 어진화사로 우뚝 올라섰다. 그 또한 중부시 소속의 화원으로서 여러 차례 참여한 곳이 바로 국왕의 璿源譜를 약수정할 때 선을 긋는 印札畫員으로 참여한 것이 주목된다. 1875년, 1877년, 1879년 백은배와 백희배가 함께 참여한 것이다. 1887년 정해진찬 때 화원으로 참여하였고, 1890년 문조와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보전문에 보획을 하는 화원이었다. 1899년 영정을 모사할 때 주관화사는 趙錫晉과 蔡龍臣이었고, 동참화원은 洪義煥이나 李棋榮 등이, 백은배는 방외화사로 참여하였으며 백희배는 圖畫主事로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백은배는 1843년부터 1899년까지 56년간 국역을 졌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화원 白禧培의 경우 1857년 순원왕후의 국장부터 1907년 중화전을 영건할 때까지 50년간 국역을 졌다. 1866년부터 1675년, 1892년, 1899년, 1900년, 1902년 등의 존호도감에서 옥책에 금을 매꾸는 역할을 했는데, 특히 그의 이력 중 눈에 띄는 것은 1863년과 1872년, 1875년, 1877년, 1878년, 1879년, 1883년, 1899년, 1902년, 1907년 종친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국왕의 선원보를 약수정하는 도감에서 인찰화원으로 활동한 점이다. 그밖에 백희배는 1898년 명성황후의 국장 때 빈전도감에서는 八鬣에 起畫하는데 참여하였고, 1899년과 1901년의 영정모사도감이나 1900년 경복궁과 창덕궁의 증건도감이나 永禧殿의 영건도감, 1907년 덕수궁 中和殿의 영건도감에서는 五峰屏을 기화하거나 圖畫를 했다. 1904년 효정왕후와 같은 해 승하한 순명황태자비의 빈전도감에서 棺衣에 黼紋을 그렸으며, 1906년 순종과 순종비와 국혼을 치를 때에 참여했다. 그는 1907년까지 선원보를 수정할 때 선을 긋거나 중화전의 오봉병을 그릴 때까지 국역을 졌으며, 이때는 백희배는 정3품의 지위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백희배는 1857년부터 1907년까지 50년간 화원으로서 국역을 지면서 6번의 존호도감에서 옥책에 금을 매꾸는 화원이었는데, 1863년부터 1907년까지 선원보를 수정하는 도감에서 선을 긋는 역할을 했으며, 궁궐의 영건도감에서는 오봉병풍을 기화하거나 그리는 화원으로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발하게 국역을 졌다.

화원 白禧培와 함께 화원 집안으로 여겨지는 白運培의 경우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부터 비롯하여, 1875년, 1877년 존호도감에서는 보전문의 보획을 하는 화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한편 화원 李哲模는 1853년부터 1888년까지 35년간 5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졌다. 1853년 순조에게 추상 존호를 올리고 신정왕후에게 가상존호를 올릴 때, 1866년, 1875년, 1888년의 존호도감에서는 옥책에 북칠을



하거나 금을 메꾸는 역할을 했다. 1864년 철종의 국장 때 3방에 참여하였다.

화원 宋秉華의 경우 1888년, 1890년, 1892년에 설치된 여러 차례의 존호도감에서 옥책에 금을 메꾸는 역할로 참여를 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여러 도감에서 활약을 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때는 1878년 철인왕후의 빈전혼전도감에서 棺衣에 黼紋을 그리면서 부터이다. 1885년 세자 순종이 순명세자빈과 국혼을 올릴 때 병풍에 기화하였고, 1887년 정해진찬 때에는 3등을, 1890년 영조의 묘호를 올리거나 신정왕후의 국장 때 옥책에 금을 메꾸는 일을 하고, 1892년 신정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모할 때 국역을 졌다. 그는 1878년부터 1890년까지 거의 대부분 도감에서 옥책에 금을 넣는 일에 특장이 있어 반복적으로 차출되어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마지막으로 존호를 올린 것은 대한제국기인 1900년에 인조와 인원왕후와 장렬왕후, 효종대왕과 인선왕후 그리고 고종과 효정왕후 및 명성황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였다. 당시 옥책과 옥보의 제작이 많았기 때문에 사자관이나 화원의 숫자가 이전보다 훨씬 많았다. 게다가 대한제국에서 제도와 직제의 명칭이 바뀌어 이전과 다른 품등으로 구분하였다. 제작을 주도한 사자관 韓斗錫과 朴鳳鎭은 6품이었지만, 나머지 사자관들은 대체로 9품이었다. 그들 중 소속이 있는 이들로 李貞善은 學部主事였다. 옥책에 전금을 한 화원은 尹錫永과 白禧培는 圖畫主事였다. 보 전문에 보획을 한 朴鏞夔는 掌隸院 주사, 李潢遠은 度支部 주사, 朴承源은 中學校 敎官이었다. 보 전문에 북칠을 한 화원 朴鏞薰과 金喜鎭 및 尹元燮은 6품이었고, 吳在珪는 內部 주사였다. 이처럼 당시에 도 옥책이나 옥보의 제작과정에 맞춰 사자관은 옥책에 보획을 하거나 북칠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화원은 옥책에 금을 메꾸거나 옥보의 전문에 보획을 하거나 북칠을 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조선이나 대한제국 시기에 일치하였으나 차출된 사자관이나 화원의 소속 관청은 학부나 도화부, 장예원, 탁지부, 중학교, 내부 등 새로운 편제된 관제와 직제를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행사가 끝난 사자관과 화원들은 加資하거나 관품을 올려주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초까지 1888년, 1890년, 1892년, 1900년 존호존숭도감에서 寶篆文에 보획을 하는 활동한 화원 朴鏞夔와 趙錫晉이 있다. 박용기의 경우 1857년 순원왕후나 1864년 철종의 빈전도감, 1879년 철인왕후의 빈전도감 때, 1890년 신정왕후의 빈전도감 때, 1878년 명성황후의 빈전혼전도감 때, 명정에 보획을 하거나 棺衣에 黼를 그리거나 하현궁 명정에 보획을 하였으며, 1872년, 1901년 어진을 이모하거나 모사할 때 참여했고, 1877년 선원보를 수정하는 도감에서 인찰화원이었고, 보인소에서 보인을 개주하여 다시 제작할 때, 1890년 영조에게 묘호를 올릴 때, 1898년 고종의 대례 때, 1898년 명성황후의 국장 때에는 掌隸院 주사였는데 수령으로 제수 받았다. 1900년 영왕과 의왕을 책봉할 때, 1901년 순비를 책봉할 때 참여하였다. 1900년 조경단 준경묘 영경묘를 영건할 때 조경단 비석의 보획을 하였다. 이처럼 화원 박용기는 1857년부터 1901년까지 44년간 많은 도감에서

국역을 졌던 대표적인 화원이었다.

## 나. 고종대 옥장

옥책을 만들 때 옥장이 옥편을 다듬고, 사자관이 종이 위에 옥책의 책문을 베껴 쓰고, 옥간 위에 붙이고 나면 옥각수들이 이것을 새기며, 도자장은 옥장이나 옥각수가 사용한 도구를 버리는 역할을 했다.

<표> 19세기 고종대 존호존숭 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한 옥장, 옥각수, 도자장 명단

연대	주체	도감	각방	玉匠	玉刻手	刀子匠	소장번호
1864	신정후, 효정후	존호	1방	方喜文 등 3명	朴重根 등 4명	朴永福 등 2명	규13444
1866	문조, 헌종, 철종	존호	1방	方喜文 등 2명	李俊錫 등 4명	李世弘	규13408
1867	순조, 순원후	존호	1방	金濟根 등 3명	車昌信 등 5명	李命圭 등 2명	규13366
1875	문조, 신정후	존호	1방	金景雲 등 2명	李元錫, 등 4명	李明石	규13412
1877	신정후, 효정후, 철인후, 고종	존호	1방	朴在根 등 3명	李俊錫 등 3명	李明圭 등 2명	규13455
1888	신정후	존호	1방	金景雲 등 2명	李仲呂 등 5명	金學瑞	규13460
1888	신정후, 효정후	존호	1방	金景雲 등 2명	李潤奎 등 8명	金學瑞	규13473
1890	숙종	존호	1방	金景雲 등 2명	李潤大 등 9명	金仁得	규13272
1890	문조, 신정후	존호	1방	金景雲 등 2명	趙俊煥 등 7명	李秀鶴	규13422
1892	문조, 신정후	존호	1방	朴相燁 등 3명	安孝建 등 12명	金啓孫	규13425
1900	인조, 인렬후, 장렬후, 효종, 인선후, 고종, 효정후, 명성황후	존호	1방	金德龍	金殷錫 등 11명	池永奎	규13426

고종대의 옥장은 2~3명이었고, 옥각수는 1888년까지는 4~5명이었으나 이후에는 8~9명 내지 11~12명으로 늘어났으며, 도자장은 1877년까지는 2명이었으나 이후에는 대체로 1명이었다. 그중 옥장은 方喜文, 金濟根, 金景雲, 朴在根, 朴相燁, 金德龍 등이다.

## 다. 고종대 이후 옥각수

고종대의 존호존숭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의 옥각수는 보통 4~5명이 동원되었고, 1888년에는 옥책의 숫자가 많아져 8명 이상 12명까지 동원하게 되었다. 여러 명의 옥각수 중 가장 앞쪽에 기록되어 각수 중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朴重根을 비롯하여 李俊錫, 車昌信, 李元錫, 李仲呂, 李潤奎, 李潤大, 趙俊煥, 安孝建, 金殷錫 등이었다. 18세기에는 우두머리들이 대부분 관각수여서 2~30년 이상 오랫동안 활동하였던 데 비하여 이 시기에는 사적 생산에 종사하여서인지 대체 1~2번의 도감에서만 활동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옥책이나 옥보 및 옥인 등을 제작하는 장인들은 특별히 옥각수라고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세기 중기 이후 고종대에 활동한 옥각수 중에서는 세습적인 각수 집안이 발견된다.

장기간 활동하였던 옥각수 중에서는 박씨 형제로서 박춘근과 박중근, 이씨 형제 각수인 이윤규와 이윤대가 그들이다. 전자에 해당되는 박씨 형제인 박춘근은 1827년부터 1864년까지 37년간 18번의 도감에서 옥각수로 활동하였다. 그의 동생으로 여겨지는 박중근은 1851년부터 1864년까지 13년의 짧은 기간에 9번의 도감에서 옥각수로 활동하였는데, 박춘근과 함께 활동하며 형제 각수로서 기술이 가계로 전승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짧은 기간 활동한 장인 중에서 형제 각수가 함께 동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곧 1849년부터 국역을 졌던 이원석의 경우 그가 참여한 도감에서 1659년부터 ‘석’자 돌림의 이형석, 이준석, 이완석, 이영석 등과 함께 활동하여 형제 각수였다고 추정한다.

안정필과 안창식의 경우 성씨는 같으나 전자는 1835년부터 1858년까지 23년간 7번의 도감에, 후자는 1853년부터 1890년까지 37년간 17번의 도감에 징발되어 참여했지만 양자가 함께 활동한 시기나 도감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각수집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한편 안창식은 37년간 옥각수로 활동하면서 점차 성장해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옥각수로 차출된 초기인 1853년부터 10년간은 옥각수 중에서 3등상을 시상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863년부터는 옥각수 중에서 2등상을 시상하고 있어 세월이 흐르면서 솜씨와 기술이 숙련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19세기에 3~4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도감에서 활동했던 옥각수는 안창식, 예광국, 이윤규, 이윤대, 이중려 등인데, 이들이 국역에 참여하였을 때 의뢰의 기록에는 대부분 옥각수로 분류되어 있었다.

19세기 들어서면 왕실의 의례행사용 공예품을 제작하는 옥각수의 숫자가 이전 18세기와 달리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예컨대 국혼을 치를 가례도감과 존호존숭도감 때 사용할 옥책을 제작할 때 차출된 옥각수의 숫자가 5명 내지 10명 내외였고, 흥례행사인 국장도감과 산릉도감 등에서 애책이나 시책을 제작하기 위해 동원된 옥각수들의 숫자도 10명 내지 15명이었다. 이렇게 줄어든 옥각수의 숫자 때문에 19세기 후반기에 장기간 오랫동안 도감에 차출되었던 옥각수들인 안창식이나 예광국, 이윤규, 이윤대 등은 1850년부터 1890년대에 설치되었던 대부분의 도감에서 함께 활동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도 죽각수나 목각수의 경우 왕실이나 국역에서는 옥각수나 석각수보다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아, 그들은 민간에서 개인 문집이나 서원의 책자 간행 등에서 활약을 했다고 여겨진다. 19세기 후기 죽각수는 이전 17세기나 18세기와 마찬가지로 세자와 세자빈의 가례나 책례 때 사용할 죽책의 각수로 동원되었던 공통점이 있다. 송홍일은 1848년부터 1879년까지 31년간 8곳의 도감에서

활동한 것이다. 곧 옥각수와 목각수의 공통점은 그들이 국역을 지는 기간이 20년 이상 40년 정도로 매우 길다는 점이다. 이들 옥각수는 같은 기간 15회 이상 20여 회에 가깝게 거의 매년 혹은 격년 단위로 국역에 빈번하게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한말에도 왕실의 행사에 노인국이 마지막 목각수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한말이 되면 목판 각자의 정교함이 매우 떨어지는데, 복각(覆刻)이나 지방 사간본(私刊本) 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목판 인쇄술을 대신할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목판 인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 라. 고종대 도자장

19세기 말 고종대의 도자장은 대개 1명을 동원하는 것이 확인된다. 1864년의 朴永福, 李汝成을 비롯하여 李世弘, 李命圭, 金命吉, 李明石, 李昌植, 金學瑞, 金仁得, 李秀鶴, 金啓孫, 池永奎이다.

1907년 고종황제가 순종황제에게 양위를 하고 상 황제에 오르면서 ‘수강(壽康)’이라는 존호를 가상하는 옥책을 제작하였다. 의궤에 수록된 <옥책 1건>의 도설에 의하면 옥책은 남양옥을 사용하였고, 옥간은 예기적으로 각 길이 9치, 너비 1치 2푼, 두께 6푼이었다. 이 때에는 옥간 5간을 1첩으로, 극항은 12자, 중항은 11자, 평항은 10자이고 니금으로 글자에 금을 메꿨다. 상하에는 진홍운문단으로 감쌌는데, 비단은 붉은 선자지로 배첩을 했으며, 상하의 편철과 돌쩍이 방식으로 연결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의궤에서 두드러진 것은 옥간의 맨 앞뒤 첫간에 옷을 입히는 부분에는 좌우 간에 가늘고 긴 초롱이 승강하도록 배치하고, 가운데 3간에는 옥간의 상하를 감싼 비단천과 같은 재질의 천에 선자지로 배첩한 다음 붙였다. 이러한 문헌의 기록과 실제 유물이 일치하고 있다.

## 2) 죽책

죽책(竹冊)은 조선의 국왕이 왕세자와 왕세자빈, 왕세제와 왕세제빈, 왕세손과 왕세손비 등을 책봉할 때 제작하여 내리는 문서이다.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 책문(冊文)과 책보(冊寶)를 함께 제작하였는데, 왕세자 이하의 책문은 죽책과 옥인이었다. 죽책은 왕실의 의례 행사를 준비하고 담당하는 ‘권설도감(權設都監)’이라는 임시기구에서 1방에서 제작하는데, 교명이나 옥책이나 금보 및 옥인을 제작하던 전례를 따라 매우 정교하고 엄격한 형식과 체제를 따라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죽책은 대체적인 형태가 유사하지만 시대적 변화과정을 엿볼 수 있다. 책례도감의 1방에서 제작된 죽책 중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책봉할 때에도 1방에서,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도 죽책은 1방에서 제작하였다. 조선 시대에 제작한 죽책 중 현존하는 것은 총 43책인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죽책 40책, 고려대학교박물관에 2책, 서울공예박물관에 1책이 소장되어 있다.

<표> 현존하는 왕세자(빈), 왕세손(빈), 왕세제(빈)의 죽책 목록

연대	대상		도감	죽책 현존 여부	유물 소장번호	의뢰책자 소장번호
1649	현종	왕세손	책례	○	고박258	규13062
1651	현종	왕세자	책례	○	고박2844	규13071
1667	숙종	왕세자	책례	○	고박27	규13076
1671	인경왕후	왕세자빈	가례	○	고박158	규13078
1690	경종	왕세자	책례	○	고박29	규13094
1696	단의왕후	왕세자빈	가례	○	고박182	규13092
1718	선의왕후	왕세자빈	책례	○	고박185	규13094
1721	영조	왕세제	책례	○	고박38	규13099
1721	정성왕후	왕세제빈	책례	○	고박196	규13099
1725	진종	왕세자	책례	○	고박41	규13105
1727	효순왕후	왕세자빈	책례	○	고박213	규13105
1736	장조	왕세자	책례	○	고박48	규13109
1744	헌경왕후	왕세자빈	책례	○	고박219	규13109
1759	정조	왕세손	책례	○	고박57	규13102
1762	효의왕후	왕세손빈	책례	○	고박230	규13114
1800	순조	왕세자	책례	○	고박69	규13122
1812	문조	왕세자	책례	○	고박85	규13130
1830	헌종	왕세손	책례	○	고박91	규14190
1875	순종	왕세자	책례	○	고박102	규13169
1885	순명효황후	왕세자빈	가례	○	고박311	규13174

### (1) 죽책의 형식과 체제

죽책을 여러 단계로 제작되며 각 과정의 세부마다 여러 장색의 장인들이 참여한다. 무엇보다도 죽책을 제작할 때 핵심 재료인 대나무를 수급하고 그것을 자르고 쪼개고 뒤틀리지 않게 삶고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담당하는 장색이 누구인지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잘 다듬은 대나무로 만든 죽편 위에 각수가 단정하게 글씨를 새겨야 하며, 19세기에는 각수에서 죽각수나 목각수로 세분화 전문화하였다. 글씨를 다 새긴 죽간을 문장의 순서대로 첩으로 모아 책의 형태로 장책하게 된다. 이를 위해 1첩의 5~6간의 죽간 상하에는 비단천을 상하에 끼우고, 죽간마다 구멍을 뚫고 변철을 올린 다음 못[圓頭釘]을 박으며, 5~6첩을 연결하고자 원환[돌쩌귀]을 만들어 끼운다. 이렇게 완성된 죽책은 竹冊匣으로 싸서, 보자기로 싸서 죽책내함에 넣고, 다시 보자기로 싼 다음 죽책외체에 넣는다. 이렇게 죽책을 만드는 단계별로 많은 장인이 동원되어 제작된다. 이와 같은 죽책은 그것을 책봉문으로 받는 왕세자[빈]나 왕세제[빈], 왕세손의

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죽책이 갖는 형식미와 그것을 원형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인이 발휘할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단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죽책의 제작과정은 문장을 잘 짓는 제술관이 죽책문을 짓고[製述], 글씨에 능한 서사관이 글씨를 써서[書寫], 국왕에게 올리고[稟定], 서사관이 초도서[草圖書]를 쓴 다음, 다시 정본[正本]을 쓴 다음 죽책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서사관의 글을 베껴[北漆] 쓰는 서사관의 글씨를 올린다. 그러면 대쪽[竹簡] 위에 올린 글씨대로 각수가 새기면, 여기에 화원이 아교와 니금을 섞어 금을 메꾸어 넣고[填金], 책장이 죽책의 형태로 만드는[作貼] 과정으로 진행된다. 문장을 짓는 제술관과 글씨를 쓰는 서사관, 글씨를 베껴 쓰는 북칠서사관, 니금을 메꾸는 전금화원이 동원되었다.

### 가. 죽책의 제술관과 서사관

죽책을 제작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이다. 첫째 죽책의 제술문이 결정되어야 하고, 둘째 제술된 글자수의 다소를 세어서 죽책에 따라 들어갈 編竹을 계산하여 죽편을 결정하며, 셋째 죽편을 다듬는 일은 정밀하고 세밀함을 요구하여 대단히 어려워 반드시 여러 날이 필요하다. 즉 죽편을 잘라 삶고 바짝 잘 말린 후 표면을 다듬는 단계의 일이 진행된다. 넷째 죽편을 다듬은 다음 書寫를 하고, 다섯째 서사를 한 뒤에 비로소 각수가 쪼고 새기는[鑄刻] 일을 한다. 여섯째 새기는 일이 끝난 다음에 금을 메워[填金] 넣을 수 있다. 일곱째 금을 메워 넣은 다음에는 변철을 두석장이나 은장 및 동장이 만들고 천혈장이 구멍을 뚫고 책장이 책으로 매 죽편을 책으로 장정할 수 있다.

이중 죽책문을 작성하는 製述官은 承文院에 속한 벼슬아치 중 典禮文을 전담하는 관리가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술관의 자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죽책의 문장을 짓기 위해서는 駢儷文을 짓는 문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치적 상황이나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을 고려하여 당상관 이상의 품계를 지니고 문장력이 뛰어난 관리 중에 선택하였다.

書寫官은 제술관이 지은 글을 임금이 어람할 수 있도록 정갈한 해서체로 쓰는 初圖書를 써서 올리고, 이것이 결정되면 正本 위에 글씨로 쓰는 관원이다. 서사관이 쓴 정본의 글씨는 다시 대쪽[竹片]마다 12항씩 나눠서 베껴 쓰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9세기부터는 北漆서사관을 6~7명을 두었고 도감역이 끝나면 이들에게 시상을 하는 것이 항례화되었다. 각수[죽각수]가 죽책 위에 글씨를 각자를 완성하고 나면 죽책에 글자를 새긴 곳에는 泥金과 아교를 섞어 메꾸는 작업을 화원을 불러 마감하였는데, 이것도 19세기에 들어 항례화 되었다.

<표> 책레도감에서 왕세자와 왕세손을 책봉할 당시 죽책의 제술관과 서사관 현존 여부

연대	대상		도감	죽책 제술관	죽책 서사관	北漆 서사관	填金 화원	첩	죽간	극항	행	글자수
1649	현종	왕세손	책봉	趙綱	吳竣	-	-	4	6	12	23	220
1651	현종	왕세자	책봉	李一相	吳挺緯	-	-	6	5	12	30	285
1667	숙종	왕세자	책봉	金壽恒	吳竣, 柳滄	-	-	6	5	12	26	255
1690	경종	왕세자	책봉	閔黯	吳始復	-	-	8	5	12	32	306
1721	영조	왕세제	책봉	李觀命	兪崇	-	-	6	5	12	30	281
1725	진종	왕세자	책봉	李宜顯	尹憲柱	-	-	6	5	12	29	266
1736	문조	왕세자	책봉	尹淳	金取魯	-	-	6	5	-	-	-
1759	정조	왕세손	책봉	金陽澤	洪樂性	-	-	6	6	12	29	286
1800	순조	왕세자	책봉	李秉模	金箕性	朴希聖 등 6명	金得臣 등 2명	8	6	12	42	378
1812	효명	왕세자	책봉	南公轍	曹允大	洪聖老 등 6명	許容 등 3명	6	6	12	35	330
1830	헌종	왕세손	책봉	南公轍	金履載	李東秀 등 6명	金命遠 등 3명	6	6	12	32	310
1875	순종	왕세자	책봉	李裕元	尹宜善	趙漢斌 등 10명	白萬玉 등 3명	8	6	12	41	396

조선 후기에 죽책을 처음 제작한 것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1627년 소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부터이다. 당시 죽책문의 제술관은 張維(1587~1638)이고, 죽책의 서사관은 李弘胄(1562~1638)이고, 전문 서사관은 金光炫(1584~1647)이었다. 이후 병자호란이 끝난 후 1645년 효종을 왕세자로 책봉하여 이식이 제술관으로 참여한 기록이 있다. 1649년에는 현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하면서 제술관 趙綱(1686~1669)이 죽책문의 글을 쓰고, 서사관 吳竣(1587~1666)이 죽책문의 글씨를 쓴 죽책 유물이 현존하고 있다. 이 죽책은 죽간 6간을 1첩으로 삼아 4첩으로 제작한 것이다.

1651년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 제술관 李一相(1612~1666)이 죽책문을, 서사관 吳挺緯(1616~1692)가 죽책문의 글씨를 쓴 죽책 유물이 현존하고 있다. 1667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제술관은 金壽恒(1629~1689)이, 서사관은 吳竣, 柳滄(1608~1667)이었다.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죽책문의 제술관은 李觀命(1661~1733)이, 서사관은 兪崇(1661~1734)이었고, 옥인의 전문을 보획한 화원은 李徵夏였다. 이것은 죽간 5간이 1첩이 되어 6첩으로 이뤄져 있다.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책봉하는 죽책의 제술관은 대제학 李觀命이었고, 서사관은 사간원 대사간 兪崇, 옥인의 전문 서사관은 부호군 李徵夏였다. 1736년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죽책문의 제술관은 李宜顯(1669~1745), 서사관은 金取魯(1682~1740)였다. 1721년 영조비 정성왕후를 왕세제빈을 책봉하는 죽책의 제술관은 부제학 李緯(1680~1746), 서사관은 사간원 헌납 徐命均(1680~1745), 옥인의

전문 서사관은 홍문관 부응교 金濟謙(1680~1722)이었다. 이후 왕세제빈 죽책문을 제출하는 이재가 사양하여 9월 6일 왕세제빈의 죽책문 제출관은 행 도승지 洪啓迪(1680~1722)으로 바꾸었다. 그로부터 8일 뒤인 9월 14일 국왕 경종에게 왕세제 책봉 죽책문의 제출 내용을 쓴 草圖書를 올리는데 이것은 공조참판 兪崇이 써서 올렸다.

1800년 정조가 아들인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죽책의 제출관은 영의정 李秉模(1742~1806)이었고, 서사관은 光恩副尉 金箕性(1752~1811)이었다. 특히 이때부터 서사관이 쓴 글씨를 죽책 위에 올려 새길 수 있도록 다시 베껴 쓰는 북칠서사관을 두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북칠서사관은 朴希聖, 李命藝, 趙元魯, 彭得大, 金孝達, 李東憲이었다. 이렇게 각수들이 다 새기고 나면 움푹 패인 안쪽으로 니금에 아교를 섞어 금을 메우는 填金 화원은 金得臣(1754~1822)과 許容이었다. 1800년 玉刻은 禁衛營 別武士 池瑞旭이었다.

1812년 효명세자[후일 익종, 문조 추존]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죽책문의 제출관은 南公轍(1760), 서사관은 曹允大(1748~1813)였다. 서사관이 쓴 글씨를 죽책 위에 올릴 수 있도록 베껴쓰는 북칠 서사관은 洪聖老, 李宜重, 朴在華, 李希必, 朴春根, 洪澤柱이었고, 죽책문에 금을 메꾸 넣는 전금 화원은 許容, 尹命周, 朴治倣이었으며, 옥인에 전문을 보획하는 화원은 吳珣, 李命儒이었다.

1830년 헌종 왕세손을 책봉할 때 죽책문의 제출관은 南公轍, 서사관은 金履載(1767~1847)였다. 서사관이 쓴 글씨를 죽책 위에 올릴 수 있도록 베껴쓰는 북칠 사자관은 李東秀, 李東鉉, 調命錫, 劉運五, 張國紳, 李相誼이고, 죽책문의 填金 화원은 金命遠, 張俊良(1802~1870), 金載鼎이며, 옥인에 전문을 보획하는 화원은 白俊煥, 李邦植이었다.

1875년 순종 왕세자를 책봉할 때 죽책의 죽책문의 제출관은 李裕元(1814~1888), 서사관은 尹宜善(1823~1887)였다. 서사관이 쓴 글씨를 죽책 위에 올릴 수 있도록 베껴쓰는 북칠 사자관은 趙漢斌, 金載傳, 林鴻植, 徐寅杓, 李鍾益, 劉漢謙, 金季永, 趙錫圭, 崔翼相, 金永燾이고, 죽책문의 填金 화원은 白萬玉, 金大榮, 趙景健이며, 옥인에 전문을 보획하는 화원은 李景玉, 朴俊永이었다.

## 나. 죽책의 형태와 구조

죽책에 사용되는 죽간의 한 폭의 매수는 5쪽과 6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竹簡 5~6쪽을 한 폭으로 변철로 엮어 4첩~10첩으로 연결한 것이다. 죽간 각쪽을 잇대어 1첩을 만든 다음 각첩의 상하에는 비단을 회장(回粧)으로 돌려서 대나무의 끝 부분이 깨지거나 상하는 것을 방지한다. 죽책의 첫 번째 첩과 마지막 첩은 비단으로 옷[衣]을 입히도록 장식하여 장황(裝潢)을 하였다. 이러한 책의는 수입산 문단이 주류를 이루고, 영조대 이후에는 국내산 무문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죽책의 회장, 변철, 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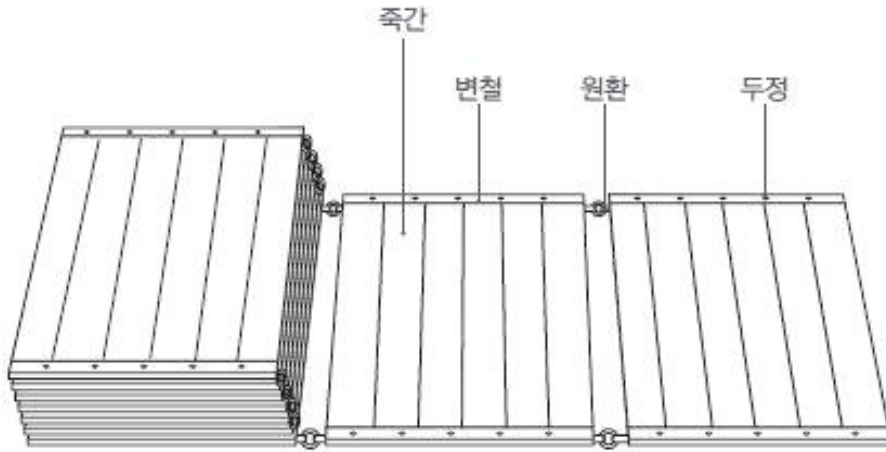
<죽책 첫 번째 첩과 마지막 첩의 책의(冊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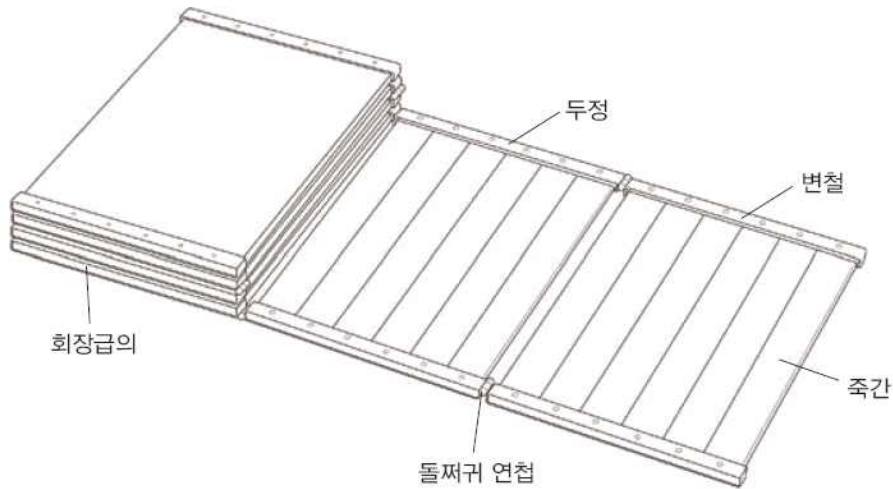
<변철의 여의두형 넝쿨문양, 두정>

현존하는 죽책 41책을 분석한 결과 대쪽을 5쪽을 연결하여 만든 책은 8책이고, 대쪽을 6쪽으로 연결하여 만든 책은 33책이다. 그런데 이렇게 5쪽의 죽간으로 만든 책은 대체로 왕세자[빈], 왕세제[빈], 왕세손[빈]을 책봉할 때 주로 사용된 대쪽의 숫자이고, 6쪽의 죽간으로 만든 책은 이들을 책봉할 때 뿐 아니라 이들에게 존호나 시호를 수여할 때 사용된 대쪽의 숫자이다. 결국 죽간 5쪽은 주로 책봉 시에, 죽간 6쪽은 존호시나 시호시의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죽간을 5쪽이나 6쪽으로 사용하여 책으로 연결하여 만든 것이 貼이다. 현존하는 죽책의 貼數를 분석한 결과 4첩, 6첩, 8첩, 10첩 등 4종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제술관이 제술한 죽책문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시기별로 보면 시기가 올라가면 첩수가 작은 4첩이고, 시기가 내려가면서 10첩으로 길어졌다. 총 41점 중 6첩이 20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8첩(14점), 4첩(5점), 10첩(4점) 순이다. 첩수에 의해 살펴볼 때 4첩은 주로 왕세손의 책봉 죽책을 제작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6첩은 책봉 때나 존호 때 및 사후 시호 때까지 제작 사례가 많다. 특히 6첩이 가장 많아진 이유는 영조가 1752년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할 때 왕세자[손]의 책봉 죽책은 죽간 5간을 1첩으로 삼아 6첩으로 제작하는 것을 규례로 삼은 때문이다. 이로 인해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부터 5간 1첩의 책봉 죽책의 형식에서 6간을 1첩으로 제작하는 것이 항례가 되었다. 죽책 8첩의 경우도 6첩과 마찬가지로 책봉, 존호, 시호에 사용되었지만, 10첩은 존호와 시호 때에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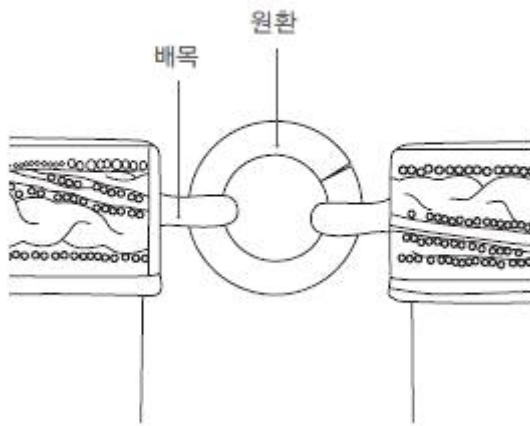
<죽책의 원환 연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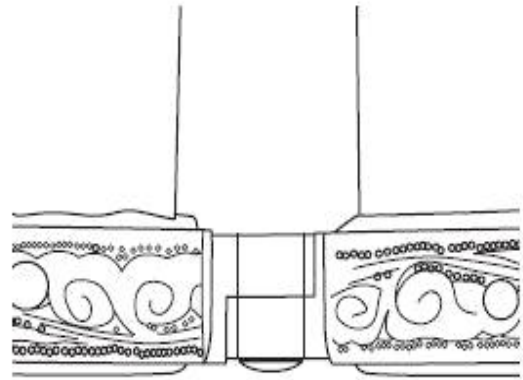
<그림 2> 죽책 각부 명칭

<죽책의 돌쩌귀 연접>

죽책의 첩과 첩을 연결하는 방식은 圓環의 연접방식과 돌쩌귀[丕迪耳] 연접방식이 있다. 원환 연접방식은 둥근 고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이고 돌쩌귀 연접방식은 양쪽 첩과 첩 사이의 배목에 못 형태의 둥근쇠를 넣어 고정시킨 것이다. 현존하는 죽책 43책 중 원환 연접방식이 19책이고, 돌쩌귀 연접방식이 24책이다. 현재 전하고 있는 죽책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효종 원년(1649) 때부터 영조 12년(1736)까지는 원환 연접방식이다. 영조 20년(1744)에 제작된 장조비 헌경왕후 봉왕세자빈 죽책이 돌쩌귀 연접방식이었다가 영조 28년(1752)에 제작된 진종비 효순왕후 상시호 죽책에 다시 원환 연접방식이 잠깐 예외적으로 나타났다가 이후에는 모두 돌쩌귀 연접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환 연첩의 세부구조>



<돌쩌귀 연첩의 세부구조>

죽책은 제작 목적에 따라 책봉 죽책, 존호 죽책, 시호 죽책으로 구분된다. 먼저 책봉 죽책은 국왕이 자신의 아들이나 손자 및 동생과 그들의 부인을 왕세자[빈], 왕세제[빈], 왕세손[빈] 등을 책봉할 때에 제작한 것으로 가장 빈도수가 높고 유존하는 유물의 사례도 많다. 다음 존호 죽책은 책봉 죽책은 국왕의 사친이 세자나 세자빈일 경우 존호를 올리더라도 죽책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일례로 정조의 재위 시에 사친인 사도세자[후일 추존 장조]와 혜빈 홍씨[후일 추존 헌경왕후]에게 올린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시호 죽책은 왕세자[손]나 왕세자[손]빈의 신분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제작한다. 한편 영조대 이후 19세기에 사친이 후궁인 경우 사망 당시나 후대에 시호를 올려 죽책을 제작하기도 한다.

현존하는 죽책을 분석해 보아도 죽책의 제작시기는 영조나 정조 때에 가장 많다. 영조 때에는 진종 세자와 세자빈[후일 추존 효순왕후]의 죽책이나 숙빈 최씨 및 인빈 김씨 등의 시호 죽책이 그것이다. 정조 때 사도[장헌]세자와 세자빈인 혜경궁 홍씨에게 올리는 존호와 시호 죽책 때문이다.

## (2) 17세기 죽책의 제작 장인

왕세자나 왕세자빈 등을 책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책례도감의 일방에서 담당하는 물품의 종류는 교명과 교명궤, 교명배안상, 죽책과 죽책갑, 죽책내외궤, 죽책배안상, 독책상을 만들었다. 이러한 의물과 관련 기물을 제작하기 위해 책례도감의 1방의 장색은 대체로 28종에 장인의 숫자는 평균 40~50명이다.

17세기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공역에 참여한 장색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 17세기에는 1645년 34종, 1648년 32종, 1651년 28종, 1668년 32종, 1690년 36종으로 총162종이고 평균 32종이다. 18세기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공역에 참여한 장색은 18세기에는 17세기와 종별의 수량이 거의 비슷하다. 1721년 42종, 1725년 36종, 1736년 27종, 1759년 30종으로 총135종이고 평균 34종

이다. 책레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공역에 참여한 장색은 19세기에는 18세기에 비해 종별의 숫자가 줄어든다. 19세기에는 1800년 14종, 1812년 22종, 1830년 21종, 1875년 18종으로 총 75종이고 평균 19종이다. 이로 미루어 17세기와 18세기에는 거의 비슷하나 19세기에는 5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장색이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1668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의 책레도감 1방에 차출되었던 장색을 보면 소목장, 야장, 주장, 두석장, 마경장, 은장, 다회장, 도자장, 각수, 관자장, 개아장, 사립장, 회장장, 배첩장, 화원, 부금장, 천혈장, 매듭장, 침선비, 대자장, 조각장, 제리장, 칠장, 동장, 소로장, 시장, 목소장, 목수, 전장, 피장, 가칠장, 쇠약장이 있다. 당시 동원된 장색은 32종이었는데, 책레도감 1방에서 교명에 회장을 두르는 회장장이나, 책레도감 2방에서 옥인을 제작하는 옥장이나 옥인장 및 옥인각수와 달리 죽책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장색이나 장인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다만 죽책의 구조와 재료적 특성상 대나무를 다루는 장색, 글씨를 새기는 장색, 칠을 하는 장색, 변철을 제작하는 장색, 구멍을 뚫는 장색 및 책을 엮는 장색이 주목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색은 도감 1방에서는 대체로 공통되어 대나무를 다루는 弓人이나 矢匠이나 箭匠 및 斜笠匠, 글씨를 새기는 각수, 주칠을 하는 칠장, 변철을 제작하는 두석장, 구멍을 뚫는 천혈장, 책을 엮는 粧冊匠 등이 그것이다.

특히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던 책레도감 때부터 죽책을 제작하는 장인들의 장색과 동원이 합리적으로 정리되어 죽책의 제작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한다. 곧 책레도감 1방에는 기존의 장색에 신규 장색이 보완된다. 곧 이전부터 죽책을 제작하던 각수, 두석장, 천혈장 및 도자장 등이 존재하지만, 여기에 더해 대나무를 삶고 틀어지지 않게 다루던 사립장, 대쪽 위에 글씨를 쓰던 서사관, 그리고 책으로 매는 장책장을 분속시킨 것이다.

죽책을 제작하는 장인들은 대나무를 다루고, 글씨를 새기고, 칠을 하고, 변철을 제작하고, 구멍을 뚫고 책을 엮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17세기 책레도감 1방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색은 18세기 이후에는 대나무를 다루는 장인은 斜笠匠[笠匠]이 주로 하는데 비해, 17세기에는 弓匠이나 矢匠 및 箭匠이 하기도 했다. 글씨를 새기는 일은 각자장[각수]의 역할이다. 주칠을 하는 장인은 칠장, 변철을 제작하는 장인은 두석장, 구멍을 뚫는 장인은 천혈장, 책을 엮는 장인은 粧冊匠이 분장하였다.

1645년 왕세자 효종과 세자빈 인선왕후의 책봉 때부터 1651년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까지는 대나무를 다루는 장인으로 사립장이 규정되지 않아 활이나 화살 등을 다루는 장인 중에 징발되어 활동하다가 1667년부터 사립장 1명이 이 기능을 수행했다. 책을 엮는 장인의 경우 1690년 이전에는 교명에 회장을 두르는 회장장

이 함께 제작했다가 이때부터 비로소 장책장을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장책의 장인 숫자는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졌지만 대개 사립장은 1명, 각자장은 4~5명, 칠장은 2명, 두석장, 2명, 도자장 3~4명, 장책장 2명이었다.

### 가. 17세기 궁장과 사립장

죽책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책으로 만들 대나무와 이것을 잘 다루는 장인이 있어야 한다. 죽책 1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넓이의 대쪽을 만들 수 있어야 해서 당연히 큰 대나무[大竹]를 준비해야 하고, 이것은 잘 마르고 흠결이 없으면서 넓고 두툼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1648년에는 죽책용 대나무를 선공감에서 진배하였다.

죽책을 알맞게 다듬는 일을 경험이 없으면 능숙하게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1648년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에서는 이 일을 해본 적이 있고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掖庭署의 하인 金德男과 金太奎를 赴役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책례도감에서 죽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오랫동안 다루어 대나무의 특성을 잘 아는 장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책례도감 전체를 보면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이후 이 분야는 대나무를 다루어 갓을 만드는 斜笠匠의 역할이었다. 다만 17세기 초에는 사립장보다는 대나무를 다뤄 활을 만드는 弓匠이나 화살을 만드는 矢匠이나 箭匠을 징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세기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의 죽편 제작 장인 명단

연대	대상	도감	弓匠	矢匠	箭匠	斜笠匠	소장번호
1645	효종, 인선후	왕세자/빈	玄守, 梁命承	李忠男	-	-	규13062
1648	현종	왕세손	玄水	-	徐夫希 등 2명	-	규13067
1651	현종	왕세자	-	-	金承龍 등 2명	-	규13069
1667	숙종	왕세자	-	-	金尙立	崔武正	규13076
1690	경종	왕세자	-	柳永達	-	李貴善	규13091

궁장 玄守(水)는 1645년과 1648년 두 차례의 책례도감에서 확인되고, 그와 더불어 矢匠 李忠男이었다. 이들이 1~2번의 도감 밖에 동원되지 않았던 것처럼 箭匠 徐夫[富]希도 1648년 책봉과 1649년 인조의 국장에서만 보인다. 金尙立의 경우 1648년부터, 1651년, 1667년까지 3번의 책례도감에서 활동을 하였을 뿐, 그밖에도 여러 도감에서 국역을 졌다. 1649년 인조국장에는 1방에서는 矢人으로, 3방에서는 箭匠이었다. 1651년 이후 1667년까지는 전장으로 활약하였다. 1690년 책례 때의 시장 柳永達은 1702년 인현왕후의 국장 때에는 전장으로 한번 더 국역을 졌다.

1667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도감에서 대나무를 다룬 장책으로 사립장 崔武正이 처음 등장하였고,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도감에서는 사립장 李貴善

이 보인다. 사립장은 대나무로 갓을 만들 때 일정한 크기로 대쪽을 낸 다음 깨지거나 틀어지지 않도록 삶는데, 이 기술이 죽책을 만들 때 핵심기술로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17세기 책례 때 죽책의 대나무를 다루던 장색은 궁장, 시장, 전장 및 사립장 등 다양하지만 이들 장인들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 장인이면서 도감역에는 1~2번 정도 징발되어 부역을 했고, 시장 김상립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16년간 5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죽책의 죽간용 대쪽을 다루는 일은 궁장, 시장, 전장 등에서 점차 사립장으로 일원화되는 경향도 엿볼 수 있었다.

#### 나. 17세기 각자장과 각수

옥책이나 죽책은 책문제술관이 글을 짓고, 이것을 책문서사관이 종이 위에 글을 써서 대내에 들이는 과정까지는 일치한다. 그런데 이것을 옥책과 죽책 위의 글씨를 새기는 방식은 다르다. 옥책 위에는 책문서사관의 글씨를 베낀 북칠서사관의 글씨를 붙인 다음 각수가 새기기 때문에, 옥책을 제작하는 도감마다 이들 북칠서사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죽책 위에는 각수가 직접 대쪽[죽간]마다 먹으로 글씨를 쓴 다음 새기게 되므로, 서사관이 장인과 함께 도감에 분속되어 있는 것이다. 즉 옥책에는 옥책서사관이 쓴 정본을 북칠서사관이 종이 위에 글씨를 써서 붙인 다음 각수가 새기지만, 죽책에는 서사관이 직접 죽간 위에 쓴 글을 쓴다.

이것은 17세기에 죽책의 제작과정이 체계가 잡히는 1690년 경종의 왕세자 책례도감 1방을 보면 죽책 위에 글을 쓰는 서사관 李泰亨이 배속되어 각수들과 함께 제작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645년 각자장은 이충민을 비롯하여 6명의 장인들이 죽책을 새기는 데 동원되었다. 이중 가장 앞자리에 기록되어 우두머리 격인 李忠民은 이미 1621년부터 1659년까지 38년간 11곳의 도감에서 각수로 활동하였다. 특히 1645년, 1648년, 1651년의 책례도감 1방에서 활동하면서 죽책을 제작하는 데 장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처음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1621년 선조와 의인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호도감의 1방에서는 28명 중 16번째에 위치하였다. 이후 1627년에도 활동하였지만 각수로서 기술이 부족했음인지 한참동안 국역에 동원되지 않아 도감에 이름이 오르지 않다가 입문한지 24년째가 되는 1645년 효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드디어 죽책을 제작하는 1방이나 옥인을 제작하는 2방에서도 모든 각수들 중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더욱이 죽책이나 옥인과 같은 의물을 제작할 때에는 각수라는 명칭보다는 각자장으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1651년 현종을 왕세자로, 1667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당시 우두머리의 위치에 있었던 吳有進의 경우 이충민보다 14년 정도 늦게 입문한다. 처음 기록된 1635년 인조대왕의 실록을 편찬하는 도감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장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로서 총15명의 각자장 중 우두머리였으며, 서울 각수 3명이 전주와 태인 등지에

거주하는 외방 각수 4명과 승각수 8명을 거느리고 작업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미 도감에 등장할 때부터 각수의 우두머리로서 존재감을 보여주며, 이충민과 함께 오랫동안 활동한 17세기 중기의 각수이다. 각자장 吳有進의 경우 1635년 인조의 실록을 편찬할 때부터 국역을 지기 시작하였는데, 1645년부터 1659년까지 14년 동안 9곳의 도감에서 이충민과 함께 활동하였고 이때는 이충민이 우두머리였다. 그 이후 1670년까지 35년간 18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던 17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각수이다. 그는 책봉이나 국혼 등 가례 관련 도감에서는 각자장이나 옥각수로 불린 것이 확인되고, 국장 등 흉례 관련 도감에서는 각수로 주로 불렸다. 예컨대 1645년 효종의 왕세자를 책봉하거나 1649년 현종의 왕세손 책봉을 위한 책례도감에서는 옥인을 제작하는 각자장이나 옥각자장 및 옥각수로, 1651년 인선왕후의 중궁전 책봉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옥책각수로 불렸다. 반면 1645년 소현세자의 예장이나 1649년 인조의 국장 등 흉례 관련 도감에서는 각수로 불렸다. 이처럼 옥인에 전문을 새기는 것과 같이 세밀한 글자를 새기는 경우 각자장이나 ‘옥’자를 넣은 옥각수 등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옥책 등을 제작할 때에는 각수로 장색을 달리 구분하여 부른 것을 알 수 있다.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의 도감 1방에서 죽책을 새기는데 각수 우두머리였던 李壽[守]命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각수이다. 그가 의궤에 처음 기록되는 것은 1674년 인선왕후의 국장도감부터이다. 당시 국역을 진 각수들은 총 29명이었는데, 그중 서울에 거주하는[京居] 각수는 앞자리에 있는 8명의 각수들이 위치하여 도감역을 이끌었다. 그중 우두머리는 李惟一과 李秀一 형제였으며, 그 뒤를 이어 오랫동안 각수로 활동하여 솜씨로 이름났던 경각수 徐俊梯, 韓振國, 韓斗相, 朴永男, 金廷賢, 李時碩가 자리매김했다. 곧이어 외방 각수와 승각수가 위치했는데, 은진 지역의 경우 외각수인 白以采와 함께 승각수 振惠, 海信가 같은 지역에서 징발되어 부역을 한 경우이다. 그밖에도 안악, 충주, 고산, 춘천, 진안, 니산, 순천, 금산, 남한산성, 남원, 문경, 청주, 보성, 함평 등지의 순서로 열거되어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바로 이수명의 경우이다. 그는 전체 29명의 각수 중 27번째에 위치하여, 서울의 경각수임을 병기하고 있지만 앞서 8명과 구별해서 뒷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그가 처음으로 도감역을 졌기 때문에 기술이 숙련되지 못하여 나머지 경각수와 구분해서 나머지 외방각수나 승각수의 위치에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듬해 1675년 현종의 국장도감 때 각수를 동원하고 기록하는 체제는 유지되어 총 32명의 각수 중 여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각수를 앞 자리에 두고, 그 뒤를 지방의 외각수와 승각수의 순서로 기록하였다. 즉 경거 각수는 13명이었고, 11명은 외방 각수이며, 8명은 승각수였다. 당시 각수의 우두머리 또한 1674년과 마찬가지로 李秀一, 李惟一 형제였는데, 그나마 이수명이 외각수나 승각수의 위치에 병기되지

않고 13명의 경각수 중 맨 뒷자리에 위치하여 그 자신의 소속이 분명하게 드러난 점이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2년 뒤인 1677년 숙종이 인경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당시에 그는 책례도감의 3방에서 총18명의 옥각수와 함께 옥책을 제작하는 일을 했다. 당시에 경거 각수 10명이 외방 각수 5명 및 승각수 3명을 이끌면서 작업하는 방식이 유지되었다. 당시 경거 옥각수 10명 중 우두머리는 여전히 李惟一과 李秀一 형제였으며, 그는 이제 10명 중 7번째로 약간 앞쪽으로 자리가 옮겨졌다. 이것은 같은 해 장렬왕후와 명성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도감에서도 옥책의 숫자가 늘어나 옥각수의 숫자가 35명으로 많아졌을 뿐 대체적인 제작체계나 각수의 동원방식은 비슷하다. 다만 경각수는 13명인데 비해, 외방각수는 9명, 승각수는 13명으로 외방각수보다 승각수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약간의 차이점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李惟一과 李秀一 형제였으며, 그는 경각수 13명 중 10번째로 조금 앞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감역에 입문한지 3년 만에 각수로서 조금씩 일을 배워 성장해가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또 같은 해 명성왕후의 존숭도감에서도 13명의 경각수와 9명의 외각수 및 승각수 13명인 점도 모두 같다.

4년 뒤 1681년 인경왕후의 국장도감에서는 애책과 시책을 제작하는 도감 3방에 소속되어 있었다. 당시 제작해야 할 옥책의 숫자가 많아서인지 서울 거주하는 옥각수는 15명을, 지방에 거주하는 외방각수 6명과 승각수 4명으로 10명씩, 총25명의 각수를 동원하고 있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장인은 옥각수라 병기하여, 지방의 외각수나 승각수를 통칭 각수라고 병기하여, 제작하는 의물의 품종과 각수의 직역이나 위상에 따라 명칭부터 차등을 둔 것이 확인된다. 한편 서울 거주 옥각수 15명 중 우두머리는 여전히 李秀一, 李惟一 형제였으며, 그는 4번째에 위치하여 많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1681년 숙종과 인현왕후의 가례도감 3방에서 12명의 각자장 중 3번째로 기록되어 옥책을, 같은 해 정종의 시호도감 2방에서는 11명의 옥각수 중에서 4번째로 기록되어 옥책을 제작하였다. 당시의 각자장 우두머리는 여전히 李惟一이었는데, 그는 이제 앞에서 3~4번째에 위치하여 입문한 지 7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국역을 거둬 지면서 玉刻을 하는 실력도 좋아졌다고 여겨진다. 1683년 태조의 시호를 올리고 금보와 옥책을 제작하는 도감을 보면 각수의 명칭이 제작 의물의 종별과 장인의 장색을 구분해서 병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도감역이 끝난 후 장색은 각수로 통칭되어 그는 2등상을 받았고, 당시 1방은 금보의 제작처여서 이곳에서 금보에 전문을 새기는 각수는 보전각장이라고 높여서 병기했으며, 옥책을 제작하는 2방에서 옥 위에 책문을 새기는 각수는 옥각수라고 병기한 것이다. 1684년에는 명성왕후의 국장도감 때에는 각수와 외방각수로 구분지어 병기하였다. 당시 경거 각수로 11명이었고, 외방각수는 10명이었다. 10명 중 6명은 외방각수이고, 4명은 승각수였다.



그러던 그가 각수의 우두머리가 되어 도감역이 끝나고 1등상까지 받게 된 것은 1688년 장렬왕후의 책보를 수개하는 도감에서였다. 당시 그는 옥보를 새기는 작업을 위해 설치된 1방에서 옥보를 새기는 옥각수였고, 이로 인해 1등상을 받은 별단에는 전각장으로 병기되었다. 이러한 성장과정을 거쳐 드디어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도감에서는 죽책을 만드는 1방에서 우두머리였고, 도감역이 끝난 후 1등상을 받았다. 이후에도 여러 도감에서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699년 단종과 정순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할 당시에 옥책을 제작하는 도감 3방에서 옥각수장 15명 중 2번째였고, 1702년 인현왕후의 국장도감 3방 때 옥책과 애책을 제작하는 옥각수로 3번째로 활동하였고, 도감역이 끝난 후 2등상을 받았다. 18세기 들어서 그는 나이가 들었는지 19년간 도감역에 징발되지 않았다가 1721년 숙종의 국장도감 3방에서 옥책과 애책을 제작하는 일에 17명의 각수 중 2번째로 참여한 것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각수 李壽[守]命은 서울에 거주하던 경거 장인으로서 1674년부터 1721년까지 47년간 20곳의 도감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17세기 말 18세기를 대표하는 각수였다. 각수로 입문할 당시에는 초보자로서 그 실력이 두드러지지 않아 경거 장인각수이면서도 외방각수나 승각수보다 못한 처지에 자리하다가 점차 성장하면서 앞자리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40여 년간 국역을 지는 동안 도감 내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왕세자를 책봉하는 도감에서는 죽책을 제작하였고 국왕이나 왕후의 국장에서는 옥책과 애책을 제작하였으며 그때마다 옥각수, 각자장, 보전각장, 전각장, 옥각수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이를 통해 왕실의 의례용 공예품 중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았던 금보를 제작하는 각수는 다른 각수들과 구분하여 보전각장으로, 옥책이나 애책을 새기는 각수는 옥각수나 각자장으로 구분하여 권위를 부여했음을 의물의 종별에 따라 각수의 수준도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 다. 17세기 칠장

죽책의 표면에는 붉은 색 주칠이 되어 있어 이러한 작업은 칠장의 역할이다. 물론 왕세자나 왕세손의 책봉도감 1방에 징발된 칠장은 옥인을 담을 보록이나 죽책을 담을 내함이나 외궤 등의 칠에도 동원되었다. 17세기의 책례도감 1방에 동원된 칠장은 초반에는 4~5명이었고, 대개 2명이었다.

<표> 17세기 책례도감 1방 칠장

연대	대상	도감	漆匠	인원수	소장번호
1645	효종, 인선후	왕세자/빈	鄭應龍, 鄭者斤男, 曹俊一, 金一男, 金難	5	규13062
1648	현종	왕세손	鄭應龍, 李恔同, 金日男, 金蘭伊	4	규13067
1651	현종	왕세자	俞順吉, 柳恔福	2	규13069
1667	숙종	왕세자	俞順吉, 柳恔福	2	규13076
1690	경종	왕세자	金宗建, 姜善元, 崔士民, 金輝, 金禮云	5	규13091

17세기 칠장 중 1645년 왕세자 효종과 왕세자빈 인선왕후를 책봉하는 때나 1648년 현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한 도감의 1방에 죽책 등의 칠을 담당한 칠장의 우두머리는 鄭應龍이고, 그를 돕는 칠장은 鄭者斤男과 李恣同이다. 17세기 중반기에 칠장 정응룡은 1630년부터 1681년까지 51년간 여러 칠장과 협력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630년 선조의 목릉을 천릉도감 별공작에서는 가칠장으로서 진칠장을 보조한 역할로 국역을 시작하였다. 그는 정응룡은 51년간 국장도감 6회, 산릉도감 4회, 부모도감 5회, 책례도감 6회, 존호도감 5회, 건물 개수도감 2회 참여하면서 진칠장이거나 가칠장이었다. 1667년 영녕전 개수도감에서는 칠장의 우두머리로서 진칠장 10명, 가칠장 27명, 칠장 42명의 우두머리였다. 1635년과 1645년까지 2곳의 도감에서 함께 작업했던 칠장 鄭者斤男, 1645년부터 1652년까지 5곳의 도감에서 함께 했던 가칠장 李恣同, 1659년부터 1681년까지 22년간 10곳의 도감에서 함께 한 진칠장 咸忠立이 정응룡과 협업을 했다.

43년의 장기간 국역을 졌던 유순길은 유말복과 협업을 하고 있어 숨씨 좋은 칠장은 장기간 활동하면서 후대 칠장과 협업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칠장 金善男을 비롯하여 張者斤男, 李永, 李男 등과 협력하여 칠일을 했다. 그와 유말산, 유말복 형제 칠장이었다. 유말복과는 1661년 현종이 명성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책례도감의 3방, 1667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1방에서도 짝궁을 이뤄 협업을 했다. 유순길은 1624년부터 1667년까지 43년간 국역을 졌는데, 그중 9곳의 제작처에서 서로 협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도감 1방에서 죽책에 칠일을 했던 칠장은 金宗建이다. 그는 1681년 숙종과 인현왕후의 국혼 때, 1690년 장희빈을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경종의 왕세자 책례도감에서 도감역이 끝난 후 1등상을 받았다. 그는 공조 소속의 관공장으로서 군영 소속의 칠장을 거느리고 칠 작업을 했다. 1691년 장렬왕후의 신주를 부묘할 때 그는 공조 소속, 1696년 경종과 단의왕후의 가례도감 2방, 1701년 인현왕후의 국장도감 1방에서는 공조 산하의 자문감 칠장이었다. 이처럼 칠장 김종건은 1681년부터 1702년까지 21년간 활동한 장인이며, 그는 공조 소속의 자문감 소속으로서 관공장이었다.

#### 라. 죽책을 책으로 만든 장인들

죽간 위에 글씨를 새기고 주칠을 한 다음 가장자리에 비단을 씌우고 천혈장은 구멍을 뚫고, 두석장은 邊鐵로 씌워 고정시키고, 장책장은 책처럼 만들게 된다.

<표> 17세기 죽책을 제작한 두석장, 천혈장, 도자장 명단

연대	대상	도감	豆錫匠	穿穴匠	刀子匠	*粧冊匠	소장번호
1645	효종, 인선후	왕세자/빈	金一男 등 2명	金成立	金善福 등 4명	-	규13062
1648	현종	왕세손	金一男 등 2명	金成立	金先允	-	규13062
1651	현종	왕세자	金明吉 등 3명	千大仁	盧應孫 등 3명	-	규13067
1667	숙종	왕세자	池仇智 등 2명	張己英 등 3명	金丑生 등 4명	-	규13069
1690	경종	왕세자	任忠達 등 2명	羅泰尙	-	朴命吉 등 2명	규13076

첫째, 두석장의 경우 1645년과 1648년에 활동한 두석장 김일남은 그 때 이후 더 이상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박응립의 경우 1645년부터 1652년까지 7년간, 김명길은 1635년부터 1652년까지 17년간 활동하였다. 泥洞에 거주한 지구지는 1651년부터 1681년까지 30년간 활동하였다. 任忠達은 1673년부터 1702년까지 29년간 13곳의 도감에서 활동한 17세기 말의 대표적인 두석장으로서 상의원 등 관청에 소속된 관공장으로 편제되었다.

둘째, 천혈장은 금속이나 옥석으로 된 기물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한다. 1648년에 천혈장으로 활동한 장인은 金成立이다. 그는 1625년 제기악기도감, 1630년 선조의 목릉을 천릉하는 도감 2방에서, 1645년 소현세자의 예장 때, 국장도감 1방 및 부모도감에도 참여하였다. 1639년 인조와 장렬왕후의 국혼 때는 가례도감의 3방 옥책색에 소속되어 옥책을 책으로 매기 위해 玉間마다 구멍을 뚫는 역할을 했다. 1645년 효종을 왕세자로 책봉하거나 1649년 현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하거나 1651년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의 1방에서는 죽책에 구멍을 뚫는 천혈장이었다. 1651년 인선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이나 1651년 장렬왕후나 인선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숭도감에서는 옥책에 구멍을 뚫는 천혈장이었다. 1652년 왕세자 현종과 세자빈 명성왕후가 국혼을 올릴 때에도 죽책에 구멍을 뚫던 장인이었다. 이후 1671년 숙종과 인경왕후의 국혼과 왕세자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에서 천혈장이었다. 이처럼 천혈장 김성립은 1625년부터 1671년까지 46년간 천혈장으로 활동하여 17세기 중반 서울에 거주하였던 대표적인 장인이었다. 국장이나 예장 및 부모 등 흥례와 관련된 3곳의 도감에서는 2~3명의 장인과 함께 부역했지만, 1639년 가례도감에서 옥책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하였다. 천혈장 천대인의 경우 1649년부터 1651년까지 3년간 5곳의 도감에서만 활동하였다.

셋째, 책례도감에 명단이 올라간 도자장은 金善福[卜], 盧應孫[祿], 金先允, 金丑生, 李難金, 裴業 등이다. 金善福[卜]의 경우 1639년부터 1645년까지 6년간 도감에서 활동했고, 도자장 李難金은 1645년부터 1651년까지, 裴業은 1649년부터 1652년까지 짧은 기간 부역을 했다.

넷째 죽책을 책으로 매는 기능은 18세기 중순 이후 19세기에는 [粧]冊匠이 배속

되어 있다. 17세기 책례도감에서는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당시 粧冊匠 朴命吉과 朴斗京이었다.

### (3) 18세기 죽책의 제작 장인

18세기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장인들의 장색은 17세기에 비해 정비되었다. 대나무를 다루는 장인은 斜笠匠[笠匠]이 맡아했고, 글씨를 새기는 일은 죽각수가, 주칠은 칠장이, 변철의 제작은 두석장이, 구멍은 천혈장이, 책을 엮는 일은 粧冊匠이 분장하였다.

<표> 18세기 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한 사립장, 각수, 칠장, 책장명단

연대	대상	도감	斜笠匠/笠匠	[竹]刻手	漆匠	豆錫匠	穿穴匠	刀子匠	繪粧匠/冊匠	소장번호
1721	영조	왕세제	尹太輝 등 2명	金二萬 등 9명	金欣立 등 7명	張重先 등 4명	-	金白 등 4명	繪; 金廷贊 등 2명	규13099
1725	진종	왕세자	柳世光 등 2명	金海得 등 8명	金欣立 등 5명	張重先 등 3명	金三益 등 2명	姜有骨 등 4명	繪; 金斗相 등 2명	규14909
1736	사도	왕세자	斜; 金世輝	黃再賢 등 8명	吳善興 등 3명	張夫業 등 3명	黃時傑	宋世彬 등 2명	冊; 李德昌	규13108
1759	정조	왕세손	斜; 金世輝	金守海 등 15명	金順萬 등 4명	張後先 등 2명	李世輝	金鳳益 등 10명	冊; 金世光	규13113
1784	문효	왕세자	斜; 高福興 등 2명	李時泰 등 9명	朴世得 등 5명	韓点山 등 4명	黃尙杓 등 2명	池順才 등 4명	冊; 徐弼良	규13200

1721년 영조의 왕세제를 책봉할 때 구멍을 뚫는 천혈장을 부르지 않았고, 1725년 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까지 장책장이 분속되지 않아 교명에 회장을 두르는 회장장이 처리하였다. 이후 1736년 사도세자를 책봉할 당시부터 대나무를 다루는 장색은 笠匠에서 斜笠匠으로, 책을 매는 장색은 책장으로 업무의 성격에 따른 장색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해당 장색의 인원수는 업무의 성격이나 비중에 따라 다르지만 사립장 1~2명, 각수 8~15명, 칠장 4~5명, 두석장 3~4명, 천혈장 1~2명, 도자장 2~4명, 책장 1명이었다.

#### 가. 18세기 사립장

죽책을 만들기 위한 대나무는 굵기가 굵고 품질이 좋은 것이어야 대쪽이 편편하여 책의 상태가 좋다. 더욱이 책봉이나 가례 등의 행사용 의물인 죽책을 만들기 위한 일정한 품질을 지닌 대나무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 대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지고 11월이 지나 물이 오르지 않는 시기에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공역을 위해 각 관청에 이러한 대나무를 미리 마련해 두고 있었다. 그중 건물의 영건 등을 위해 목재나 죽재 등을 비축한 곳이 선공감에서 가져다 썼으나, 1727년 세자였던 진종의 가례 때부터는 內局에 소장된 靑大竹 중에서 적합한 것을 가져다 썼다.

죽책에 들어가는 大竹은 두껍고 큰 것으로 정밀하게 가려 뽑아 대나무는 자르고 쪼개어 조각을 낸 다음 그것을 찌고 말리는 데에는 옹기 시루 1좌와 밥솥 1좌를 사용한 다음에 보내기로 하고 들였으며, 이것을 끓일 땀나무 4단을 전례대로 진배하도록 해당 관청에 감결하였다. 이를 통해 옹기시루와 솥 단지 및 땀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나무를 찌서 틀어지거나 뒤틀리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대나무를 찌서 뒤틀림을 없애는 기술은 선자장이나 참빗장 등 대나무를 사용해서 제작하는 장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전통기술이며 현재도 전승되고 있다.

왕세자나 왕세손을 책봉하는 도감에서는 죽책을 1개를 만들지만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함께 책봉할 때에는 죽책 2개를 만들어야 해서 재료의 양도 그만큼 늘어났다. 죽책을 제작할 때 죽책에 들어가는 編竹의 숫자는 제술문의 내용에 따라 글자수의 다소를 세어서 죽책에 따라 들어갈 죽편의 갯수를 결정하게 된다. 죽편을 잘라 삶고 바짝 잘 말린 후 표면을 다듬는 단계의 일이 여러 날 진행되어야 한다. 죽편을 삶고 말린 다음 죽편을 자르고 나서는 상어껍질로 다듬는 일을 한다. 이 일을 위해 호조에서 상어껍질을 보내주었는데 그것이 거칠고 정세하지 못하여 죽책에 사용하지 못하고 함이나 궤자 및 상탁 등의 나무로 된 물건의 표면을 다듬는데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정세한 상어껍질 1/2령을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다.

대나무를 삶고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은 립장이나 사립장이 맡아했다. 1721년 립장은 상의원 소속의 趙二萬이었다. 1718년 의장용 선개 자루를 제작하는 개아장이었고 1721년 책례도감의 1방에서는 상의원 소속의 笠匠이자 蓋兒匠., 1721년 숙종이나 1725년 경종의 국장 때에도 마찬가지로였다. 이처럼 조이만은 1718년부터 1732년까지 14년간 8곳에서 상의원 소속의 개아장이어서 대나무를 다루는 일에 장기를 지니고 있었다.

1736년 사도세자의 왕세자 책봉 시 부역한 사립장 金世輝이 이시기를 대표하는 장인이다. 그는 1736년부터 1772년까지 36년간 공조 소속의 사립장으로 국역을 져고, 도감역이 끝난 후에는 1등상 등을 받았다. 따라서 18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공조 소속의 관공장이던 사립장 김세휘는 대나무를 잘 다루어 그가 간여하여 제작한 1736년 사도세자의 왕세자 책봉 죽책 유물[고박48]이나 1759년 정조 왕세손 책봉 죽책 유물[고박57]의 죽간에 사용된 대나무들이 뒤틀림 없이 편평한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장 고복홍의 경우 1783년부터 1800년까지 17년간 활동한 사립장이다.

## 나. 18세기 죽책 각수

죽책의 글자를 새기는 데 쓰는 태인산 돌[泰仁石] 2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용한 다음에는 반납하였다. 죽책을 새기는 칼은 38개였고, 죽책을 새길 때 각수들은 종이로 대를 싸고 작업하였다. 이렇게 싸는 것은 白休紙 1근이었다.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정성왕후를 왕세제빈으로 책봉할 때의 죽책문은 원래 교서관 소속의 각수 6명 외에 새겨야 할 죽간의 숫자가 많아서인지 각수의 숫자가 부족하여 북한산에 위치한 각 사찰서 승려 각수 楚寬 등 6명을 부르곤 했다. 하지만 승려를 궁궐에 부르는 폐단이 있어 원래보다 1명만 추가하였다. 당시 교서관 소속의 각수 중 金二萬을 비롯하여 金萬石, 柳二石, 尹世東, 朴守萬, 金武男, 韓業尙, 姜太望, 李楷이었다. 이중윤세동의 경우 1719년부터 1751년까지 32년간 국역을 졌으며, 처음부터 1727년까지 교서관의 관각수였다. 1731년 효의왕후의 사후 국장 때 옥책을 제작하며 옥각수로 불렸다. 이후 1751년 의소세손을 책봉할 때 죽책을 새기는 각수로 마지막 국역을 마무리했다.

1725년 진종의 왕세자 책봉 때 죽책을 새긴 8명의 각수는 교서관 소속의 金海溥, 李時俊 등이었다. 이중 각수 李時俊은 1694년 숙종이 인현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하는 책례도감 때부터, 1726년 경종과 단경왕후의 신주를 부모할 때까지 32년간 교서관 官刻手였다. 그는 18세기 후반 ‘時’자 돌림을 각수들을 이끌어준 장인이다.

1736년에 사도 세자를 책봉할 때 각수 8명의 구성은 관공장과 사장이 함께 편제되어 관각수 1~2명이 나머지 여러 명의 사장을 거느리는 것이 방식이다. 1735년 사장인 黃再顯이 각수의 우두머리이면서 사장 3명과 교서관 4명을 거느리고 활동했다. 황재현은 1719년 민회빈의 봉묘부터 1736년 사도세자를 책봉할 때까지 17년간 활동하였다. 그의 형에 해당되는 각수 黃自顯은 1713년 숙종의 존숭도감부터 징발되어 1739년까지 21년간 활동한 형제 각수였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에는 각수 金守海를 비롯하여, 15명이었다. 이들 중 우두머리 격인 김수해의 경우 1725년 경종의 국장 때부터 교서관의 관각수로 국역을 지면서 조금씩 성장하여 1740년 효종에게 가상 시호를 올릴 때 관각수 1명, 외방 각수 14명, 승려 각수 3명 등 총 18명의 각수 중 앞자리에 위치했다. 1751년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옥책을 제작하는 존숭도감 1방에는 교서관의 각수 13명을 동원했는데, 이 때 비로소 김수해는 관각수의 맨 앞자리에 위치하였다. 이를 통해 1725년에 입문할 때부터 교서관의 관각수였던 김수해는 처음에는 가장 뒷자리에 위치하였다가 매년 조금씩 앞자리로 위치가 바뀌어 1740년에는 교서관 내 4번째 관각수로서 외방 각수와 승려각수를 총괄하기도 하였다. 이후 계속 성장하여 1751년에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여, 입문한 지 26년 만에 드디어 교서관 내에 최고 위치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각수 김수해는 1754년 厚陵, 顯陵, 光陵, 敬陵, 昌陵, 宣陵, 靖陵 7곳 왕릉의 표석을 영건하거나, 1762년 왕세손인 정조와 효의왕후의 가례도감 2방에서 죽책을 제작할 때 사각수를 총괄하였다. 1772년 영조의 사친 숙빈 최씨에게 시호를 올리는 도감 1방에서 죽책을 만들 때 총 15명의 각수는 9명의 관장과 6명의 사장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각수 김수해는 1725년부터 1772년까지 47년간 활동하는 동안

내내 교서관의 각수였으며, 1754년 왕릉의 표석을 제작할 때에는 선공감으로 잠깐 편제를 바꾸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교서관 소속이었다. 입문할 당시에는 교서관의 막내로 뒷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가 매년 조금씩 성장하면서 조금씩 앞자리로 이동하였으며, 입문한지 15년이 되면서 앞자리로 오르기 시작하여 20여 년이 지나서 드디어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가 관각수의 우두머리로서 자리매김한 다음부터는 같은 교서관의 각수들을 이끌거나, 대규모 공역에서는 외방각수나 승려 각수를 총괄하였다.

18세기 초반이나 중반까지 왕실 의례와 관련된 옥책이나 죽책은 교서관 관각수만으로 제작하거나, 시책이나 애책을 제작하는 규모가 큰 도감에서는 교서관의 관각수가 외방 각수나 승려 각수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관각수가 도감역을 주도하지만 그들이 협업을 하는 대상이 외방각수나 승려 각수가 아니라, 사각수와 함께 제작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8세기에 ‘時’자 돌림을 가진 각수들은 李時俊을 비롯하여 李時成과 李時蕃 및 李時泰, 李時恒까지 다수가 있어 장인 집안을 형성하고 있다. 이 중 1784년 문효왕세자를 책봉할 때 죽책을 새긴 죽각수였던 이시태의 경우 교서관의 관각수로서 38년간 도감에 참여한 18세기 후반기 교서관의 대표적인 각수였다. 정조대에 들어 옥책을 만들면 옥각수, 죽책을 만들면 죽각수 등으로 세분된 명칭으로 불렸는데, 이씨 ‘時’자 돌림 각수 중에서 1755년 숙종의 존숭도감에서 죽책각수로 활동한 李時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18세기 각수들은 대부분 교서관 소속의 관장이었으며, 각수로 장인집안을 형성하여 형제간에 함께 도감에 징발하여 국역을 져던 경향도 확인된다.

#### 다. 18세기 칠장

18세기에 칠장은 왕세제와 왕세제빈의 죽책을 2개 만들 때 기타 제작할 의물의 양도 2배가 되면서 칠장을 7명이나 불렀지만, 나머지 도감에서는 대개 4~5명을 불러 작업하였다. 17세기 책례도감에서 보통 2명, 많아야 3~4명의 칠장이 작업하던 것에 비해 장인의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관청이나 군영에 소속된 장인으로서 工曹와 尙衣院과 內需司 및 선공감과 그 하부기관인 자문감에 소속되었다. 군영은 훈련도감이나 수어청 및 총융청 등 군문 소속 장인이었다.

1721년 영조 왕세제 책봉 때 책례도감 1방의 칠장들을 보면 공조 소속 칠장이 군문 소속 장인을 거느리고 작업하는 방식이 구축된 것이 확인된다. 공조 소속 관공장 중 가장 앞쪽에 기록된 칠장이 해당 장색의 우두머리 격인데, 이 중 주목되는 이가 1721년과 1725년 진종 왕세자 책봉 때 거듭 활동한 칠장 金欣立이다. 칠장 김흔립은 1698년부터 1744년까지 46년간 활동하였고, 공조 소속이거나 자문감 소

속의 17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칠장이다. 그가 처음으로 기록에 보이는 것은 1698년 단종과 정순왕후를 복위하고 그들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도감에 막내로 입문하였다. 1702년 숙종과 인원왕후의 가례도감 때 중간 위치로, 1713년 숙종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숭도감에서는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여 성장하였다. 1718년 왕세자 경종과 선의왕후의 국혼 때 가례도감에 공조 소속이었다. 당시 공조 소속 칠장 김흔립은 훈련도감 칠장 4명과 총융청 칠장 2명을 거느렸다.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정성왕후를 왕세제빈으로 책봉할 때의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할 때에도 확인된다. 1725년 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공조 소속의 관장이자 칠장의 우두머리인 김흔립이 공조 소속 칠장 文俊伊과 孔貴萬, 훈련도감의 車已玄, 총융청의 尹弼漢이 함께 했다. 이처럼 칠일을 할 때 상설아문의 관장이 군영의 장인을 통솔하여 의물을 제작하는 경향은 계속 유지되어, 1727년 왕세자 진종과 효순왕후의 가례 때 죽책부터는 사장까지 함께 작업에 참여하여 8명의 칠장은 官匠과 軍門匠人과 私匠으로 분포하였다. 칠장 김흔립은 1744년 사도 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가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칠일에 칠장의 우두머리로 차출되어 총7명의 칠장 중 관장 5명과 사장 2명이 협업을 하는 제작체계여서, 이전까지 관장이 군문 장인을 동원하던 방식에서 관장이 사장을 거느리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양상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1736년 사도 세자의 책봉 때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한 칠장 오선홍은 공조에 소속된 관장으로서 공조의 칠장 崔萬才나 金夢致 등과 칠일을 했다. 그는 15년 뒤인 1751년 의소세손을 책봉하는 도감의 1방에도 참여하였다. 1759년 정조의 왕세손 책례도감 1방에서 칠장 중 우두머리였던 金順萬은 1744년부터 1772년까지 28년간 도감에서 활동한 18세기 중후반의 대표적인 칠장이다. 다른 칠장과 달리 그는 책과 관련된 칠일에 특장을 지니고 있었는데 1748년과 1751년 및 1758년, 1760년, 1771년, 1772년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를 약수정할 때 꾸준히 칠장으로 활동한 것에서 확인된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는 책봉도감의 1방이나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도감 1방이나, 1762년 왕세손 정조와 효의왕후의 가례도감 2방에서 칠장의 우두머리로서 5~7명의 칠장을 총괄하여 죽책을 비롯한 각종 의물에 칠을 하는 일을 주관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의궤에 기록된 것은 1772년 현종을 추숭하고 영조에게 존호를 올릴 때 공조 칠장 김순만은 해당 제작처의 우두머리로서 어영청의 칠장 朴世得과 상의원의 칠장 文弼成을 거느리고 작업을 했다. 이처럼 김순만은 18세기 중후반에 28년간 가례 관련 도감이나 왕실 족보 관련 도감에서 공조 소속의 관공장으로서 군문 장인이나 사장을 지휘한 칠장의 우두머리로서 꾸준히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84년 문효 왕세자를 책봉할 때 朴世得은 1762년부터 1795년까지 29년간 도감에서 칠장이나 진칠장으로 활동하였던 18세기 말의 대표적인 칠장이다. 그는 1776



년 영조와 정순후부터 1762년 왕세손 정조와 효의왕후의 가례 때 군기시의 칠장이었다. 1772년 존호도감에서 박세득은 1방에서는 어영청, 2방에서는 훈련도감, 1776년 국장도감에서는 훈련도감의 칠장이었다. 1777년 이후 1778년부터 1795년 정순왕후와 헌경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던 도감에서 도감역이 끝난 후 1등상을 받아 칠장 중 가장 우수하였다.

### 라. 18세기 두석장

죽책은 죽간에 천혈장이 구멍을 뚫고, 두석장이 변철을 만들어 씌우고, 장책장이 책으로 만든다. 죽책을 장정할 때 銅匠은 艮水 1명과 수건 4자를 사용했고, 각양의 장식에 늦쇠의 색깔을 내기 위해 두석장은 三甫 2타래를 사용하였다. 이 삼보는 구리화로 1좌에 넣고 땀나무를 때서 끓여서 사용하였다. 죽책의 장식을 도금할 때 동원한 銀匠은 礪礮 6냥을 사용하였고, 작업이 끝나면 반납하였다. 도자장은 각수들이 죽책을 새기는 칼 38개는 날날이 버려서 들었다.

18세기 책례도감 1방에 징발된 두석장과 천혈장 및 도자장을 보면 1721년, 1725년, 1736년까지 18세기 전반기 장인들은 대부분 관장이나 군영 소속의 장인이었다. 그들이 소속한 상설아문에는 공조나 내수사[內司로 병기함] 및 상의원[尙方으로 병기함]이었고, 오군영에 소속된 훈련도감[訓局이라 병기함]을 비롯하여 수어청 등이었으며, 일부는 私匠도 있었다.

<표> 18세기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한 두석장, 천혈장, 도자장 명단

연대	대상	豆錫匠	穿穴匠	刀子匠	소장번호
1721	영조 왕세제	張重先(守御廳) 등 4명	金三益(尙方)	金白 등 4명	규13099
1725	진종 왕세자	張重先(守御廳) 등 3명	金三益(尙方) 등 2명	姜有骨 등 4명	규14909
1736	사도 왕세자	張夫業(工曹) 등 3명	黃時傑(工曹)	宋世彬(尙方) 등 2명	규13108
1759	정조 왕세손	張後先 등 2명	李世輝	金鳳益 등 10명	규13113
1784	문효 왕세자	韓点山 등 3명	黃尙杓 등 2명	池順才 등 4명	규13200

두석장은 張重先을 비롯하여 張夫於非, 張後先, 韓点山이 활동하였다. 우선 두석장 장중선은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1725년 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수어청의 장인이었으며, 1748년 진전을 중수할 때에는 공조의 관공장이었다. 그는 27년간 고작 5곳의 도감에서만 활동하였지만 아문과 군문에 소속된 장인이었다.

다음 張夫於非는 張夫業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는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1722년 단의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하는 책례도감의 1방에서 공조 소속의 두석장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그는 1748년까지 27년간 20곳의 도감에서 활동한 두석장인데, 대부분의 경우 공조 소속의 관공장이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726년 종묘를 개수

하는 도감 3소에서는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어영청의 군문 장인으로 편제된 적이 있었다. 1731년과 1732년에는 사장이었지만 다시 1736년 사도세자를 책봉할 때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할 때에는 공조의 관공장으로서 내수사의 宋龍瑞[世]와 高暹伊를 통솔하였고, 도감역이 끝난 후 2등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1739년 인원왕후의 존숭도감에서는 다시 사장으로, 같은 해 단경왕후의 신주를 부모할 때에는 공조의 관장으로서 내수사의 관장인 송룡서를 거느리고 활동하였다. 이렇게 그는 송룡서와 여러 도감에서 함께 작업하였다. 이후 마지막으로 활동한 1748년까지 계속 공조의 관공장이었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는 도감의 두석장이었던 張後[厚]先은 이전부터 두석장으로 활동했던 張重先과 형제 사이로 장인집안이다. 그가 처음 기록에 오르는 때는 1739년 단경왕후의 신주를 부모하던 때부터이며, 공조 소속의 두석장으로서 관공장으로서 내수사의 장인을 거느렸다. 그로부터 1762년까지 23년간 22곳의 도감에서 대부분의 경우 공조의 두석장으로서 18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두석장이다.

하지만 1751년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도감에서는 내수사의 두석장으로 병기되기도 하였다. 또 금속을 다루던 그는 다른 장색에서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곧 1744년 선원보를 수정하는 교정청에서는 마경장, 1752년 의소세손의 사후 묘소도감의 대부석소에서는 섭장이었다. 1757년 인원왕후나 정성왕후의 사후 국장도감의 대부석소에서는 섭장으로 활동했지만, 도감역이 끝난 다음에는 2등상을 받았다. 1754년 인원왕후에게 가상존호를 올리는 도감의 2방에서는 공조 소속의 小爐匠으로 참여하였지만, 도감역이 끝난 후 별단에서는 두석장으로서 1등상을 받았다. 이로 미루어 두석장 뿐 아니라 마경장, 섭장 및 소로장 등으로도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1784년 의소세손을 책봉할 때 책례도감의 1방에서 참여한 두석장은 韓点[占]山이다. 그는 1762년 정조와 효의왕후의 가례도감 1방부터 기록되어 있다. 처음 국역을 진 이후 10년간 다른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아 한참의 기간 동안 장인으로 기술을 습득한 시기로 여겨진다. 다시 도감역에 참여하여 1772년 현종을 추존하고 영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상호도감에서 그는 두석장이 아닌 2방에서 금보를 넣는 寶筒을 제작하는 筒匠이었다. 보통의 경우 금속으로만 만드는데 두석을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이다. 다시 국역에 징발된 1778년에는 영조와 정성왕후의 부모도감을 비롯하여 책례도감 및 존호존숭도감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가 가장 두석장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기는 1784년이고, 당시 문효세자의 책례도감이나 영조와 장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호도감에서 도감역이 끝난 후 여러 두석장 중 1등상을 받았다. 그 후 1786년 문효세자의 사후 예장도감에 표석소의 두석장을 참여한 것이 마지막 기록이다. 이렇게 1762년부터 1786년까지 24년간 비교적 많지 않은 8곳의 도감에서 두석장으로 활동하였다.



<두석장의 쪼이질 모습>



<천혈장이 죽편에 구멍을 뚫은 모습, 1721>

### 마. 18세기 천혈장

구멍을 뚫는 천혈장은 金三益(尙方), 黃時傑(工曹), 李世輝, 黃尙杓이다.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책봉할 때와 1725년 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천혈장 김삼익은 상의원에서 차출되었다. 그런데 김삼익은 이미 1684년 명성왕후의 빈전도감 때부터, 1731년 선의왕후 의릉 산릉도감까지 기록에 보인다. 이렇게 1684년부터 1731년까지 47년간 13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진 17세기 말 18세기 초의 천혈장이었고, 상의원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1736년 사도 왕세자 책봉당시 천혈장 黃時傑(工曹)은 黃時乞이라고도 기록되었으며, 1713년부터 1740년까지 27년간 12곳의 도감에서 활동할 때 내수사의 장인이었다. 이중 1736년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 1방에서만 공조의 장인이었다. 그의 ‘時’자 돌림 형제들로 여겨지는 내수사의 장인으로 1719년부터 1721년까지 참여한 黃時輝(내사, 1719)과 黃時會(내사, 1721. 1722)을 비롯하여 黃時俊(1713)과 黃時贊(禁營, 1744) 및 黃時一(私匠, 1748) 등이 그들이다.

1759년 정조 왕세손 책봉 당시 천혈장 李世輝는 1번만 등장할 뿐이다.

1784년 문효왕세자 책봉 당시 책례도감 1방에는 천혈장 黃尙杓이 그의 집안이라 여겨지는 천혈장 黃尙福이, 2방에는 천혈장 黃尙福이 참여하였다. 그는 같은 해 영조와 사도세자에게 존호를 올리는 도감의 1방에도 여전히 참여하면서 그의 집안에서 천혈장 黃尙允과 함께, 2방에서는 이전처럼 黃尙福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황상표는 천혈장으로서 장인 집안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尙’자 돌림의 형제들로는 내수사의 장인이었던 黃尙一(內司, 1772)을 비롯하여, 黃尙彬(1777), 黃尙采(1778), 黃尙福(1783, 1784, 1795), 黃尙漢(1800), 黃尙彭(1804)까지 같은 시기에 같은 도감의 제작처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작업에 참여하였던 것에서 확인된다. 이중 천혈장 黃尙彦(1802, 1804, 1805, 1807, 1818, 1819, 1821, 1822)의 경우 1802년부터 1822년까지 19세기에 20년간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의 윗대의 경우 ‘世’자 돌림자를 가진 이들로써 1742년 공조의 장인이었던 천혈장 黃世泰[太]에서 비롯하는데, 그는 1752년에는 내수사의 장인, 1753년에는

공조, 1754년과 1756년 및 1757년에는 내수사의 장인이었고 1759년 및 1772년, 1776년, 1777년, 1778년까지 활동하였고, 특히 1779년에는 황세태와 황상체 등이 함께 작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바. 18세기 도자장

1721년의 도자장은 金白[伊]이었다. 그는 1718년부터 1726년까지 8년간 4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상의원 소속의 姜有骨은 1721년과 1725년 도감에서 활동하였을 뿐이다. 宋世彬의 경우 1736년 사도세자의 책봉 때 옥책을 제작하는 1방에서 상의원 장인이었는데, 그는 1713년부터 도감역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1744년까지 31년간 활동하는 내내 상의원의 장인이었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에는 10명의 도자장이 활동하는데, 당시 우두머리 격이었던 장인은 金鳳益[翼]이다. 그가 처음으로 의궤에 기록되었을 때는 1748년 진전을 중수할 때였는데, 당시 그는 상의원의 장인이었다. 그는 1753년 숙빈에게 시호를 올리고 소령원을 봉원할 때 책인조성소나 비석소에서 각각 9명씩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로도 활동하였다. 책인조성소에는 鄭得京, 崔福丕, 朴致茂, 朴東夏, 安廷敏, 李春和, 金大得, 薛昌遠가 참여했고, 비석소에는 鄭得衡, 李丕福, 趙德必, 安廷民, 李春興, 金重江, 朴東夏, 朴致茂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도자장은 총17명이었으며, 양 제작처에서 우두머리인 김봉익만 함께 참여하였고, 나머지 도자장은 각각의 제작처에 분속되어 활동하였다. 이후 도감역이 끝난 뒤 이들 중 5명은 2등상을, 나머지 9명은 3등상을 받았다.

한편 김봉익은 1754년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가상하는 도감에서는 옥책을 제작하는 1방에 총19명의 도자장이 징발되어 활동하였는데, 그는 공조 소속의 관장이었다. 그는 나머지 18명의 사장을 거느리고 옥책을 작업하였다. 도감역이 끝난 후 그를 비롯한 4명의 도자장은 3등상을 받았다. 이를 통해 공조의 관장 1명이 나머지 다수의 장인을 거느리고 옥역을 했는데 특히 18세기 중반에 사장을 거느리고 왕실의 의물을 제작하는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중순의 도감에는 동원되는 도자장의 숫자가 많아진다. 1754년 후릉이나 현릉, 광릉, 경릉, 창릉, 선릉, 정릉 등 7곳 왕릉에 표석을 새로 영건할 때에는 9곳의 왕릉에 표석을 제작해야 했기 때무 1인지 하나의 제작처에 총29명의 도자장을 징발하였다. 그들 중 도자장의 우두머리는 金鳳益이었고, 29명 중 도감역이 끝난 뒤 17명은 1등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2년 뒤인 1756년 숙종의 존숭도감에서는 도감 전체에서 활동한 도자장의 숫자가 총 40명이었다. 그들은 옥책을 제작하는 1방에는 35명의 관장인 도자장이, 2방에는 5명의 사장인 도자장이 동원되었다. 1방에서는 35명 중 당시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金鳳翼을 우두머리로 삼아 총19명이었고, 김봉익을 비롯하여

상의원 소속 도자장 5명과 내수사 소속 도자장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옥보를 제작할 때에는 金就卜을 비롯한 총16명의 내수사 소속 도자장을 동원하여 제작하였다. 이들 19명과 16명의 도자장들은 각각의 우두머리 아래에 별도로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2방에는 吳道殷을 비롯한 도자장 5명을 동원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사장이었다. 이들은 같은 해에 인원왕후와 숙빈, 영조와 정성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숭도감에서 1방에서는 金鳳翼을 비롯한 35명의 관장인 도자장이, 2방에서는 사장인 도자장 5명이 공통되었다.

이후에도 김봉익은 여러 도감에서 국역을 졌다. 1757년 영조와 정순왕후의 국혼 때 가례도감의 3방에서 옥책을 제작하는 19명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였고,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는 책례도감의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10명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였다.

이후 1770년 정릉에 표석을 영건할 때 도자장 7명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처럼 도자장 김봉익은 1748년부터 1770년까지 22년간 13곳의 도감에서 옥책이나 죽책을 제작하는 제작처에서 다수의 도자장을 이끌면서 작업을 했던 우두머리였음을 알 수 있다. 맨 처음 도감에 기록될 때부터 마지막까지 국역을 지는 내내 상의원 소속의 관장으로서 18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도자장이었다.

1784년 문효세자를 책봉할 때 4명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는 池順才였다. 1800년 정조의 국장 때 1등한 도자장 池順才의 경우, 그가 처음으로 도자장으로 기록될 때는 1778년 정조가 효의왕후를 왕비로 책봉할 때 옥책을 제작하면서 의궤의 기록에 등장한다. 그는 이후 1778년부터 1804년까지 26년간 14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지면서 도자장 중 가장 앞자리에 위치한 우두머리의 위치에 있었다. 도감에 징발되어 도자장으로 활동하는 내내 여러 명의 도자장 중 대표로 3등상을 계속 받았다. 아울러 옥장과 각수는 도감 내 옥책을 제작하거나 표석 및 지석을 제작하는 1곳의 제작처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한 데 비해, 그는 1방이나 2방 등 칼을 버리는 보조적인 역할이 필요한 곳에서 여러 번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사. 18세기 죽책을 책으로 꾸미는 책장

죽책을 책으로 만드는 장인은 책장이 있다. 1736년 장조 왕세자의 책례도감에서 죽책을 제작한 冊匠은 교서관 소속의 李德昌이었다. 이덕창은 1728년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를 약수정할 때부터 책장 중 가장 막내였고, 1736년에 책장으로 참여하였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는 교서관 소속의 책장 金世光이었다. 그는 이미 1747년과 1754년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1방에서 교서관 소속의 책장으로 참여하였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에는 1방에서 죽책을 책으로 꾸미는 역할을 한 반면, 같은 해 영조와 정순왕후의 국혼 때에도 1방의 책장이었다. 1784년 문효 왕세자를 책봉할 때의 冊匠 徐弼良은 이후 1790년 선원보를 수

정할 때에도 책장이었다. 이후 1800년 정조의 국장 때 옥책을 제작하는 3방에서도 책장으로 활동하였다.

책장이 죽책을 장황할 때 가장자리 부분에는 金線緞을 붙였는데, 이것은 부레풀 [魚膠] 1냥을 사용해서 붙인다.

죽책을 넣은 함케는 흑칠내케와 흑칠외케의 2종류이고, 행사 때에는 이것을 죽책배안상에 올린다.

1721년에는 왕세제와 왕세제빈의 흑칠내케는 2개를 만들었다. 재료는 자작나무 판을 사용하여 길이 각 1자 5치, 폭 각 1자, 높이와 덮개 각 1자로 만든다. 덮개 위에는 구름과 두 마리의 봉황을 그리고, 사면에는 매화와 대나무 및 난초를 그린다. 두석豆錫으로 장식하고, 두석으로 된 자물쇠에 紅眞絲 多繪纓子 27개를 갖춘다. 여기에 들어가는 단판 2냥, 부레풀 4냥, 세저포 14자, 숯가루 4되, 콩가루 4되, 풀가루 4되, 전칠全漆 1되 2흡, 매칠每漆 1되, 백저포 4자, 풀솜 1냥, 백지 20장, 안에 바르는 紅段 9자, 泥金 6돈, 明膠 6돈, 畫筆 2자루이다. 흑칠외케의 경우 왕세제 것과 왕세제빈의 것으로 모두 2개이며, 자작나무판을 사용하며 안쪽 내케가 들어갈 정도로 약간 크게 만든다. 납땀 장식과 납땀 자물쇠를 갖추었으며, 안에 靑綾花紙 28장을 바른다.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 자작나무판 4냥, 풀솜 2냥, 싸는 세저포 18자, 부레풀 10냥, 풀가루 4되, 숯가루 4되, 전칠 1되 4흡, 콩가루 4되, 때를 제거한 백저포 10척, 매칠 1되 1흡, 안에 바를 청룡화지는 8장이다.

흑칠 배안상도 왕세제 것과 왕세제빈의 것으로 모두 2개이며, 자작나무판을 사용한다. 단판 1냥과 가래나무 1조의 나무판재를 세저포 14자로 썬다. 골회는 부레풀 4냥에 콩가루 4되 및 숯가루 4되와 풀가루 4되를 섞어 발라주고, 검은 색을 내기 위해 참떡 4정을 섞은 전칠 2되를 칠하고, 다시 그 위에 매칠 1되 6흡 6사를 칠해주는 것이다. 가는 쇠못 4냥을 박는다. 흑칠 독책상도 2개를 만드는데 배안상보다 높이가 낮고 작는데, 목재는 배안상보다 반 정도 줄어 단판 반 냥과 가래나무 반 조이다. 이것을 세저포 4자로 썬다. 골회는 부레풀 3냥과 콩가루 3되, 숯가루 2되, 풀가루 2되를 섞어 만든다. 흑칠의 경우 전칠 6흡과 매칠 6흡이며, 여기에 참떡 2정을 섞어준다. 이렇게 칠을 할 때 백골 위에 모시포를 뒤집어 씌우고 골회 칠을 하고, 떡을 섞은 흑칠을 하되, 전칠과 매칠을 해주는 것이다. 다만 배안상이나 독책상은 다리 모양이 둥글게 휘어 있으므로 이것들의 형태를 잡기 위해 부레풀을 바르고 난 다음 줄바[條所] 2거리로 묶어 두어 둥근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4) 19세기 죽책의 제작 장인

<표> 19세기 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한 사립장, 각수, 칠장, 책장명단

연대	대상	도감	斜笠匠	刻手	漆匠	豆錫匠	穿穴匠	刀子匠	冊匠	소장번호
1800	순조	왕세자	李馨集 등 2명	劉澤龍 등 3명	崔泰崙	表德運	-	金道成 등 2명	金興昌	규13119
1812	효명	왕세자	朴雲成 등 2명	朴亨蕃 등 5명	張萬得 등 3명	冊張龍雲	朴致根	金漢玉 등 3명	金東運	규13125
1830	헌종	왕세손	金世興	李周郁 등 7명	-	金福伊 등 2명	李根郁	鄭昌永 등 2명	高義相	규14190
1875	순종	왕세자	朴萬源	宋興一 등 3명	金俊五	李元榮 등 2명	白仁周	朴快東	金壽鎭	규13169

##### 가. 19세기 죽책용 사립장

한편 이렇게 죽간으로 대나무 75편을 이용해서 일정하고 고른 죽책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은 小木匠이 작업을 하였다. 소목장은 죽책을 만들 때 사용했던 물품을 살펴보면 질그릇 항아리[陶罐] 1개와 속새풀 1냥, 익힌 삼으로 끈 중간노끈 1거리, 상어껍질 1/4장, 자물쇠를 갖춘 궤 1부, 빈 가마니 5널, 숯 5말, 토화로 1좌, 등자쇠[鏡子金]를 갖춘 죽책틀[竹冊機] 5부, 양정틀(仰呈機) 2좌를 갖춘다. 이를 통해 소목장은 먼저 물에 대나무를 죽간을 충분히 불리고 거친 상어껍질로 대나무의 표면을 다듬은 다음 속새풀로 매끈하게 갈아준다. 이렇게 표면을 다듬은 죽간을 죽책틀에 맞춰 책의 형태로 만들고 나서 등자로 짝 맞물려 책의 형태로 만든다. 이제 이것이 틀어지지 않게 노끈으로 감은 다음 토화로 위에 질그릇 항아리를 올리고, 그 속에 물을 가득 넣고 등자틀로 물린 죽책틀을 넣고 물을 팔팔 끓여 고정시키는 것이다. 물 속에서 죽책의 형태가 고정된 다음 이것을 양정틀 2좌에 걸어서 말렸다.

이렇게 물속에서 대나무를 삶으면 뒤틀리거나 휨이 없이 반듯해지면서 편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도 대나무를 다루는 무형문화재들에게 전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죽책틀 5부와 양정틀 2좌 및 등자쇠 7개는 죽책을 다 제작하고 난 뒤에는 원래의 관청으로 되돌려 주었다.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죽책의 竹簡은 大竹인데 16마디짜리로 호조에 있는 75편을 사용해서 만들고, 填金용 재료는 白蠟 3돈, 니금 2돈 5푼, 아교 1돈이다. 죽책의 가장자리를 장식할 邊鐵은 熟銅 2근 6냥 5돈이고, 도금할 금은 5돈, 수은은 3냥 4돈, 땀은은 3돈, 봉사는 1냥 3돈이고 이것을 녹일 숯은 5말이 든다. 전두감은 홍화주로 길이 4치, 나비 1치 5푼짜리 16편이다. 뒤쪽을 배첩할 저주지 1장, 옷감으로 사용할 홍화주는 길이 7치, 나비 3치짜리 2편, 뒤쪽 배첩용 분홍선 자지 1장, 풀가루 5홉이다.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의 도감에 활동한 이형집은 1곳의 도감에서만 발견되지만, 고복홍의 경우 1783년 정순왕후와 혜빈 홍씨에게 존호를 올릴 때 1방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다. 그가 죽책을 제작하는 데 장기가 있음을 이듬해 1782년 문효세자를 책봉하는 책례도감에서 국역을 지고 2등상을 받은 데서 알 수 있다. 이후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도감까지 17년간 6곳의 도감에서 활동한 18세기 말의 대표적인 사립장이었다.

1812년 효명세자를 책봉할 때의 사립장 朴雲成은 1800년 정조의 국장 때에는 립장으로서 처음 기록에 기록되기 시작하여, 1805년 효명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면서 1등상을 받게 되었다. 이후 1819년 효명세자와 세자빈 신정왕후의 가례도감 3방에서 죽책을 제작하였고, 국역이 끝난 후 2등상을 받았다. 이렇게 박운성은 1800년부터 1819년까지 19년간 5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는데, 세자의 책례도감이나 가례도감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나머지 사립장들은 해당 도감에 1번씩 참여하였고, 다른 도감에서 활동한 기록을 발견하기 어렵다. 18세기 사립장들이 상의원이나 공조에 소속된 관장으로서 국역을 진데 비해, 19세기의 사립장들은 사장이어서 국역을 질 의무가 없어 필요할 때마다 참여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나. 19세기 각자장

19세기 책례도감에는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1812년 효명세자를, 1830년 헌종을 왕세손으로,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설치하였다. 19세기 책례도감에서 왕세자나 왕세손을 책봉할 때 죽책에 冊文을 새기는 각수는 도감마다 적을 때는 3명, 많을 때는 5~7명이었다.

19세기 죽책을 제작한 각수 중 앞자리에 위치한 각수의 우두머리는 劉澤龍, 朴亨蕃, 李周郁, 宋興一이었다.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당시 죽책을 새긴 각수 劉澤龍의 경우 1776년 사도세자에게 장헌세자라는 시호를 올리고 영우원을 봉원할 때, 각수로 처음 입문하였기 때문인지 10명 각수 중 가장 뒷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그가 죽책을 제작하는 죽각수로서 조금씩 성장하여 1783년 혜경궁 홍씨의 존호를 올리던 때였다. 유택룡은 총19명의 죽각수 중에서 중간에 위치하였다. 1784년 문효세자를 책봉하는 책례도감의 1방에서 죽책을 새기는데 동원된 9명의 죽각수 중 18세기 말을 대표하는 죽각수 李時泰의 뒤를 이어 2번째의 위치였다. 같은 해 그는 장헌세자에게 존호를 올리는 도감의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11명의 죽각수 중 4번째의 위치해 있었다.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3명의 각수 중 하나였다. 1800년 정조의 국장 때에 책보를 제작하는 3방에서 5명의 죽각수 중 하나였다.



이처럼 劉澤龍은 1776년부터 1800년까지 24년간 7곳의 도감에서 주로 죽책에 책문을 새기는 죽각수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탉룡은 각수 집안이었다. 그것은 1776년 영조대왕의 실록을 편찬하는 도감에 그와 함께 참여했던 劉澤興의 존재에 의해 확인된다. 유탉룡과 유탉흥은 이후 1783년 혜경궁 홍씨의 죽책이나 1784년 장헌세자의 죽책에 존호를 새길 때에도 같은 도감의 같은 제작처에서 죽각수로 함께 활동하였다. 이후 유탉흥은 1800년 정조의 실록을 제작하거나, 1809년과 1812년 및 1817년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처럼 목재로 만든 책판 위에 새기는 목각수로 주로 활동하는 것이 확인된다.

각수 朴亨蕃 또한 유탉룡보다 후배로서 그와 함께 죽책을 새기는 데 특기가 있는 죽각수였다. 두 사람은 1784년 문효세자의 죽책, 1784년 장헌세자의 죽책, 1800년 순조 왕세자의 죽책, 1800년 정조의 국장도감 등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후 1800년 정조의 사후 빈전혼전도감에서 각수였고, 1805년 왕실의 선원보를 편찬하거나 1812년 문효세자를 책봉할 때 5명의 죽각수 중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였다. 그는 1784년부터 1812년까지 28년간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1812년 효명 왕세자의 책봉 때와 1830년 헌종을 왕세손의 책봉 때 죽책에 책문을 새긴 각수는 李周郁이다. 그는 1795년 혜경궁 홍씨에게 존호를 올리고 죽책을 새기는 목각수로 朴昌福을 보조하며 입역하기 시작하였다. 각수 이주옥은 1812년 효명세자를 책봉할 때에 이르러서이다. 1819년 효명세자와 세자빈 신정왕후의 국혼 때, 1830년 헌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에도 죽책을 새기는 각수와 옥인을 새기는 옥각수로 구분되었다. 이주옥은 대나무나 나무 위에 새기는 목각수로서 1827년과 1830년에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를 목판본으로 새기는 12113명의 각수 중 우두머리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각수 이주옥은 1795년부터 1830년까지 35년간 죽책이나 목판 위에 전문이나 글자를 새기는 데 장기를 가진 19세기 초기를 대표하는 장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당시 책례도감 1방에서 활동하였던 각수는 宋興一이다. 그는 1848년 국조보감을 새기고 인출할 때 총44명의 각수 중 관각수 10명의 교서관[芸館] 각수 중 9번째 위치에 있던 막내였다. 이후 1872년과 1875년 종부시에 소속되어 왕실의 족보를 목판 위에 판각하는 7명 각수 중 1등상을 받았다.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 1877년과 1878년, 1879년까지 왕실의 족보를 목판에 새기는 일에 14, 15, 16명 등 다수의 각수 중 우두머리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각수 宋興一은 1848년부터 1879년까지 31년간 주로 국조보감이나 선원보처럼 목판본을 인쇄하는 교서관이나 종부시에 소속되어 목판 위에 새기는 목각수였음을 알 수 있다.

1875년 송홍일과 함께 순종의 왕세자 죽책을 새긴 李萬祚는 1863년 순조의 사친 수빈 박씨의 휘경원을 천원하는 원소와 천봉할 때 수빈의 죽책에 책문을 새기

는 죽각수로 참여하였다. 1890년 신정왕후의 국장도감 때 목각수로서, 1892년 임진진찬 때에는 시강원의 각수로서 도감역을 졌다. 1898년 명성황후의 국장 때나 1904년 순명황태자비의 국장 때에도 3방의 각수로 활동하였다. 이를 통해 각수 이만조는 1863년부터 1904년까지 41년간 6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졌는데, 죽책을 제작하거나 목판을 새기는 데 장기가 있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각수였다.

#### 다. 19세기 칠장

죽책은 붉은색의 주칠을 한 다음에 각수가 새긴 부분에는 금을 넣는다. 이러한 재료는 아문이나 군문에서 옮겨다 사용했다.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죽책의 塡金용 재료는 白蠟 3돈, 니금 2돈 5푼, 아교 1돈이다. 이것들은 당시 壯勇營에 있는 것을 옮겨 왔고, 니금은 상의원의 것을 가져다 썼다. 이를 위해 책레도감의 1방에는 죽책에 칠을 한 칠장이 소속되어 있다. 19세기에 들어서는 도감별로 대체로 1명이고 많을 때에는 3명이었다.

19세기 책레도감 1장의 칠장은 崔泰崙은 이곳 이외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812년 효명세자를 책봉할 때의 칠장 張萬得은 1800년 순조 왕세자를 책봉할 때의 2방에 칠장으로 처음 기록되었다. 그는 1804년 창덕궁 인정전을 영건할 때도 8명의 진칠장 중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고 도감역이 끝난 후 2등상을 받았다. 1805년 정순왕후의 사후 빈전이나 1818년 혜빈의 사후 빈궁에서 진칠장으로 칠을 했다. 1812년 효명세자의 책레도감에서 1방에서 칠장이었고, 왕실의 선원보를 제작할 때에 칠을 하기도 했다. 1819년 문조 세자와 세자빈 신정왕후의 가례 때에는 별공작에서 칠장으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장만득은 1800년부터 1819년까지 19년간 진칠장으로서 활동하였다.

장만득과 함께 활동한 全德修의 경우 1802년 정조의 부묘도감 때 3방에서 6명의 칠장과 함께 할 때 처음 기록되었다. 1805년 정순왕후의 국장 때 3방에서, 같은 해 존호를 올릴 때 1방의 진칠장이었다. 1816년 혜빈의 상례 때에는 3방에서 칠을 하였다. 1812년 효명세자를 책봉할 때 1방에서 죽책에 칠하였고, 1819년 효명세자와 세자빈 신정왕후의 가례 때에는 3방에서 칠을 하였다. 1821년 효의왕후의 국장 때, 1822년 수빈 박씨의 예장 때에는 3방에서 칠장으로서 칠을 했다. 이처럼 전덕수는 1802년부터 1822년까지 20년간 칠장으로 활동하였다.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죽책을 만드는 책레도감 1장의 칠장으로서 참여했던 김준오의 경우 단 한차례만 그때에만 기록이 보일 뿐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라. 19세기 두석장

죽책은 대나무를 5~6쪽으로 자르고 쪼갠 후 두석장이 변철로 감싸고 천혈장이 구멍을 뚫고 여기에 천을 옷으로 감싸 입힌다. 1800년 순조의 죽책은 매쪽 9치, 너비 1치, 두께 1푼[예기척]인데, 변철의 재료는 숙둥이고, 황금으로 도금한다. 위아래는 紅禾紬로 옷을 만들어 씌운다.

19세기에도 변철은 두석장이, 구멍은 천혈장이, 그것들을 도자장이 베풀어주는데, 이전과 달리 줄질을 하는 줄장이 있다. 이것을 책장이 책으로 엮는다. 이들 장색의 인원은 어느 정도 숫자가 정해져 두석장 대체로 2명, 천혈장은 1명, 도자장은 2명, 줄장 1명, 책장 1명 등이다.

<표> 19세기 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한 두석장, 천혈장, 도자장 명단

연대	대상	豆錫匠	穿穴匠	刀子匠	裝匠	冊匠	소장번호
1800	순조 왕세자	表德運	-	金道成, 秋德麟	鄭東元	金興昌	규13119
1812	효명 왕세자	張龍雲, 金成昌	朴致根	金漢玉, 金昌文, 張得成	林快得, 李長金	金東運	규13125
1830	헌종 왕세손	金福伊, 趙哲得	李根郁	鄭昌永, 李孫	-	高義相	규14190
1875	순종 왕세자	李元榮, 張仁吉	白仁周	朴快東	-	金壽鎭	규13169

19세기 책례도감에서 활동한 두석장은 張龍雲, 金成昌, 金福伊, 趙哲得, 李元榮, 張仁吉이다. 1812년 효명세자의 책례도감 때의 두석장 張龍雲의 경우 1812년부터 1825년까지 13년간 두석장을 국역을 졌다. 혜경궁의 사후 상례도감이나, 1819년 효명세자와 세자빈 신정왕후의 가례도감 및 1821년 효의왕후의 사후 국장도감, 1823년 수빈 박씨의 사후 혼궁 조성 시 당가를 조성할 당시, 1825년 수빈의 신주를 모실 때도 활동하였다.

趙哲[喆]得의 경우 1816년 혜빈의 상례 때부터 기록에 보이기 시작하여, 1821년에는 효의왕후의 국장도감 때 표석소에서, 수빈 박씨의 예장 때, 1827년 순조에게 존호를 올릴 때 활동하였다. 1830년 효명세자의 예장 때에는 두석장 8명 중 우두머리로, 1830년 헌종의 왕세손 책봉 때, 1832년 효명세자의 신주를 모실 때, 1835년 효명세자를 추숭할 때 죽책을 제작하는 1방의 두석장이었다. 1835년 순종의 국장 때에는 두석장 8명 중 우두머리로, 1836년에는 종묘와 영녕전을 중수할 때, 1837년 헌종과 효의왕후의 국혼 때 두석장으로, 1837년에는 순원왕후와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거나, 같은 해 어진을 모사할 때에도 참여하였다. 이처럼 조철득은 1816년부터 1837년까지 21년간 활발한 활동을 했던 19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두석장이다.

연대	대상		豆錫匠	穿穴匠	刀子匠	莛匠	冊匠	소장번호
1800	순조	왕세자	表德運	-	金道成 등 2명	鄭東元	金興昌	규13119
1812	효명	왕세자	張龍雲 등 2명	朴致根	金漢玉 등 3명	林快得 등 2명	金東運	규13125
1830	헌종	왕세손	金福伊 등 2명	李根郁	鄭昌永 등 2명	-	高義相	규14190
1875	순종	왕세자	李元榮 등 2명	白仁周	朴快東	-	金壽鎭	규13169

#### 마. 19세기 천혈장

19세기의 책레도감에 동원되었던 천혈장 朴致根, 李根[瑾]郁, 白仁周이다. 천혈장 朴致根은 1800년부터 1816년까지 16년간 8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천혈장 李根郁의 경우 1830년부터 1845년까지 15년간 활동하였다. 이를 보아 구멍을 뚫는 기술은 특별하여 해당 기술을 가진 장인이 15년 이상 꾸준히 왕실에 도감역에 참여하였다고 여겨진다.

#### 바. 19세기 도자장과 줄장

19세기의 책레도감에 동원되어 활동하였던 도자장은 대체로 1차례의 도감에만 기록이 보일 뿐이고 秋德麟[仁], 金昌文, 張得成 등이다. 추덕인은 1800년의 책레도감과 1805년 인정전을 영건할 때 호조에서 장인들에게 품삯을 주고 고용하였던 5명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였다. 金昌文은 1830년 책레도감에서는 도자장, 같은 해 예장도감에서는 두석장이었다. 張得成의 경우 1830년 책레도감에서는 도자장, 1835년 인릉산릉도감에서는 야장으로서 8명의 장인을 거느리고 석수의 도구를 버리는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된다.

#### 사. 19세기 책장

19세기의 책레도감에 동원되어 활동하였던 책장은 金東運, 高義相, 金壽鎭이다. 당시의 책장도 나머지 장색의 장인들처럼 이미 사적인 생산에 종사하였기 때문인지 한 곳의 도감에서 도감역을 했을 뿐 더 이상 기록에 오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김동운의 경우 1802년부터 1837년까지 35년간 활동한 19세기 초를 대표하는 책장이다. 특히 그는 존순도감이나 국장도감 및 가례도감 등에서는 옥책을, 책레도감이나 예장도감에서는 죽책을 제작하는 책장의 역할을 했다. 1827년 이후 1837년까지는 종부시에 소속되어 왕실의 선원보를 제작하는 13명의 책장 중 우두머리로 활동하였다.

### 3) 금책

#### (1) 대한제국의 선포와 금책의 제작

고종은 1897년 9월 17일, 高宗은 大韓帝國을 宣布하면서 스스로 皇帝에 登極하였다. 이로써 王室儀禮 대신 皇室儀禮로 變化하면서 황후나 황태자 등을 책봉할 때의 冊文制度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동안 王朝國이었던 조선은 왕실의례여서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玉冊을, 왕세자를 책봉할 때에는 竹冊을 수여였으나,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하면서 明聖王后를 皇后로, 王世子와 王世子嬪을 皇太子와 皇太子妃로 冊封하면서 왕실례를 따른 옥책과 죽책 대신 처음으로 金冊을 제작하여 수여하게 된 것이다.

이후 金冊은 1910년 7월 24일 興親王과 興親王妃 冊封에 이르기까지 13년간 총 16件이 제작되었다. 물론 이 기간동안에도 玉冊은 尊號, 諡號, 廟號를 올리거나 哀冊으로 사용되었고, 竹冊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또 책문은 1926년 순종이 사망하자 그해 4월 20일 황태자 이은이 尊號 ‘孝皇帝’, 諡號 ‘文溫武寧敦仁誠敬’, 廟號 ‘純宗’을 함께 올린 옥책을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졌다.

현존하는 대한제국의 금책은 총16건인데, 그중 1910년 이전 종묘에 소장되어 있던 금책은 현재 3건으로서 이것들만이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는 대상이다.



<명성황후추봉금책, 1897>



<순종황태자책봉금책, 1897>



<순정효황후책봉금책, 1907>

#### (2) 대한제국의 금책의 현황

대한제국 대한제국 왕실이 황실로 격상됨에 따라,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에서 제후국으로써 행할 수 없었던 천자의 예를 행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상징적인 儀物 가운데 하나가 金冊이다. 조선왕조에서는 冊封이나 上號(尊號, 徽號, 諡號, 廟號) 의례와 哀冊으로 玉冊이나 竹冊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을 기점으로 마침내 금책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것이며, 바로 그 첫 번째가 1897년 고종황제 즉위와 함께 제작된 명성황후, 황태자 책, 황태자비 민씨의

금책이었다. 금책은 이 3건을 시작으로, 1900년 고종과 황귀비 사이에서 태어난 마지막 황태자 이은을 영광으로 책봉한 <李垠冊封英王金冊> 이후 1910년 7월 24일 興親王과 興親王妃 洪氏와 李氏 책봉에 이르기까지, 13년간 총 16건이 제작되었다.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로 황제국으로 격상되면서 옥책은 존호를 올리거나 애책으로만 사용되었고, 금책은 황후를 비롯하여, 황태자, 王(親王),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를 책봉하는 데 사용되었다. 죽책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 가. <明聖王后 皇后 追封金冊>(어책29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897년 9월 17일 일본 낭인에게 살해된 부인 명성왕후를 황후로 추봉할 때 제작하였다. 제술관은 홍문관 대제학사 김영수(金永壽, 1829~1899), 서사관은 홍문관 학사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이다. 금책 유물의 크기는 세로 24.9cm, 길이 20.6cm, 두께 0.5cm, 편폭 10.3cm이다. 규격은 2첩 2칸에, 극항 19자, 행 12행이다.

#### 나. <순종皇太子金冊>(신수923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순종은 1875년, 나이 2세로 왕세자에 임명되었다. 이때에는 조선왕실의 책문 제도를 따랐으므로 왕세자 책봉에 사용되는 죽책이 제작되었다. 그러나 1897년, 광무 원년에 황태자로 책봉될 때는 황실 제도에 따라 금책이 제작되었다. 제술관은 홍문관 대제학사 김영수(金永壽, 1829~1899), 서사관은 홍문관학사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이다.

금책 유물의 크기는 세로 23.3cm, 길이 20.2cm, 두께 0.6cm, 편폭 10.1cm이다. 규격은 2첩 2칸에, 극항 17자, 행 10행, 총139자이다.

#### 다. <尹氏冊封皇太子妃金冊>(어책86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906년 12월에 해풍부원군 윤택영의 딸(1894~1966)을 황태자비로 책봉하였다.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하여, 순종이 황제로 즉위한 1907년에 황태자빈이었던 순정효황후의 황후책봉 금책을 수여하였다. 이 금책의 제술관은 홍문관대학사 김학진(金鶴鎭, 1838~1917), 서사관은 홍문관학사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이다. 금동에 세로 22.9cm, 길이 20.5cm, 두께 0.6cm, 편폭 10.2cm 이고, 무게는 25.88kg이다. 2첩 2칸이고, 극항 25자, 행 14행, 글자수 257자이다.

### (3) 금책의 제술관과 서사관 및 서사식(書寫式)

대한제국기 금책의 제작과정은 ‘製述-書寫-作貼-繪粧-封裹’으로 제작되는 일련의 과정은 동일하다. 우선 본격적인 제작에 앞서 금책문을 담당할 부서와 製述官과 書寫官이 임명된다. 제술관이 문장을 지으면[製述] 서사관이 이를 서사하여[書寫] 草圖書와 正本을 만든다.

## 가. 제술관과 서사관

금번에 어책어보로 조사한 금책 3점 중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제작한 명성황후추봉금책과 순종황태자책봉금책은 『대례의궤』에 의하면 둘다 제술관인 홍문관대학사 김영수가 지었고, 서사관인 홍문관학사 민병석이 쓴 글씨를 바탕으로 새겼다.

한편 1907년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를 하면서 왕비를 황후로 책봉하면서 제작한 순정효황후책봉금책의 경우 제술관은 김학진이어서 그가 글을 지었고, 서사관은 홍문관학사 신기선이어서 그가 글씨를 쓴 것을 새겼다.

세 금책에서 공통되는 ‘유(維)’자나 ‘황제(皇帝)’의 글씨체를 보면, 1897년의 두 금책과 1907년의 금책에서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된다. 서사관 민병석과 신기선의 글씨체가 금책을 제작할 때 반영된 것이다.

## 나. 서사식

금책에 새겨지는 문장, 즉 금책문의 형식은 ‘서사식(書寫式)’이라고 한다. 서사식에는 배자(排字)와 배행(排行), 대두법(擡頭法)이 포함된다. 배자와 배행은 글자를 중형으로 배열하는 것으로, 이때 전체 문장의 글자수를 감안하여 한 행에 들어갈 글자의 수와 1개 금편(金片)에 들어갈 행의 수가 결정된다. 또 다른 글자보다 특별히 높여 써야 할 글자와 높이를 정한다. 서사식은 책문 담당 부서가 초안하는데, 출초본(초도서출초본) 입계를 통해 결정된다.

16건 금책 전체를 볼 때, 1개 첩(貼)은 4~7행, 극항(極行)은 12~19자, 평항(平行)은 11~17자로 다양하다. 배자·배행에 있어 금책이 옥책이나 죽책과 다른 점은 대두법의 차이이다. 즉 옥책이나 죽책은 평항을 기준으로 극항은 두 글자, 중항은 한 글자를 높여 쓴 반면, 금책은 중항을 없애고 극항과 평항만을 두어, 극항은 평항보다 2자를 높게 썼다. 또 옥책과 죽책은 행을 바꾸지 않고 대상을 높일 경우, 해당 글자 앞에 한 글자만큼의 간격을 비워 두는 ‘격자(隔字)’ 방식을 사용한 반면, 금책에서는 격자를 사용한 사례가 없다.

금책은 모든 책문이 동일한 크기의 금편 두 개로 제작되므로 글자의 수에 따라 글자의 크기도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또한 하나의 특징이다. 지정대상인 3건의 금책은 각각 글자의 수와 크기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명성황후 민씨 황후추봉금책 : 2첩 2칸, 극항 19자, 평항 12행, 185자이다.
- 순종 황태자책봉금책 : 2첩 2칸, 극항 17자, 10행, 총139자이다.
- 순종비 순정효황후 황후책봉 금책 : 2첩 2칸, 극항 25자, 평항 14행, 257자이다.

#### (4) 재질과 규격

금책의 주요 부분인 金片의 재질은 黃金鍍金, 天銀鍍金, 熟銅鍍金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지정대상 3점 중 2점은 황금도금이고 나머지 1점은 천은도금이다.

##### 가. 1897년 황금도금 금책 2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에 제작된 <명성왕후 민씨 황후책봉 금책>과 <순종 황태자 책봉금책>은 황금도금이다. 명성왕후의 황후 추봉과 황태자 책봉은 황실의 명맥을 잇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일이므로, 책문을 특별히 황금으로 제작한 이유도 여기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두 금책은 황금으로 片을 만들고 다시 황금을 도금한 것이다. 소요된 황금의 양은 <명성왕후 황후 책봉금책>과 <왕세자 황태자 책봉 금책>은 각각 黃金 7근 12량, 鍍黃金 4錢이었다.

##### 나. 1907년 천은도금 금책 1점

순종이 황제로 즉위한 1907년에 제작된 <순정효황후 황후 책봉 금책>은 천은도금이다. 순정효황후금책은 天銀으로 片을 만들어 황금을 도금한 것으로, 金片 1개는 禮器尺으로 길이 1척 2촌, 너비 5촌, 두께 2푼 5리이다. 의궤에는 [圖說]에 “每片 長一尺二寸 廣五寸, 厚二分五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유물을 실측한 결과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07년 당시 순종이 영왕 이은을 황태자로 책봉하면서 제작한 <英王皇太子冊封金冊>을 비롯하여 총 10건이 유존되고 있다. 대한제국기에 시행된 친왕제도와 이들에 대한 책봉 의례 또한 중국의 사례를 모방하면서, 친왕 책봉 시에 금책과 금인을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금책에 사용된 天銀과 黃金의 양은 금책마다 차이가 있지만, 금책의 규격은 16건 금책이 대체로 동일한 편이다.

한편 최초의 친왕 책봉인 1900년 고종이 왕자였던 이은과 이강을 친왕으로 책봉하면서 <李垕英王冊封金冊> 등을 제작토록 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친왕과 친왕비의 책봉 때 금책과 금인이 사용되었으며, 대한제국기 동안 총 7건이 제작되었다. 영왕 이은은 1907년 7월 순종 즉위와 함께 황태자로 책봉되면서 금책을 제작했으나, 종묘에 소장된 것이 아니어서 이번 지정에서는 제외한다.

#### (5) 금책의 제작자

금책의 형태는 직사각형으로 鍍金한 金片 두 개를 정해진 규격으로 책을 펼쳤다가 접는 모양으로 만든다.[作貼] 두 개의 금편이 제작되면 正本을 붙여[北漆] 陰刻하고[刻字], 글자의 패인 면에 붉은 색 안료인 당주홍을 채운다[填字, 填紅]. 뒷면은 종이와 비단으로 褙接하고 문양을 새긴다.

이를 위해 먼저 금책의 가장자리에 용문양은 화원과 화사를 동원하였다. 1897년



『대례의궤』에 의하면 명성황후와 황태자를 책봉할 때 금책의 보획사자관은 학부주사 白萬奭이었다. 금책의 네 변의 가장자리에 용문양[草龍]을 그리는 일은 화원 朴昌洙, 朴鏞薰, 尹錫永와 화사 李廷愚, 金載喜를 동원하였다. 당시 금책은 黃金 7근 12량, 도금을 위해 鍍黃金 4錢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동원된 장인은 金匠 金喜永 등 3명, 銀匠 崔完煥, 李完植 등 5명이었고, 주물을 하는데 鑄匠 金完汝, 韓致玉 등 6명이었다.

1907년 『隆熙兩皇后復位時冊禮都監』에 의하면 금책에 보획은 정3품 白萬玉이었다. 금책에 글씨를 쓰는 일은 사자관 李德鉉이 썼으며, 금책의 네 변의 가장자리에 용문양[草龍]을 그리는 일은 화원 金基洛, 李祺榮과 화사 金俊永, 金益煥, 韓仲寬이 했다. 순정효황후책봉금책은 천은 6근에 광도금 7전 5푼이었는데, 이것은 大銀匠 金聖老 등 3명과 小銀匠 高雲善 등 3명이 담당하였다.

위 3권의 금책에서 보듯이 1897년이나 1907년의 금책에서 황후나 황태자의 금책은 모두 네 변의 가장자리에 초룡문을 새겨 넣은 것이 공통된다. 그러나 그밖에 의왕과 영왕 및 흥왕 및 그들의 배우자의 금책에는 반리(蟠螭)문을, 엄비를 순비나 황귀비로 책봉할 때에는 雙翟문을 네 변의 가장자리에 새겨넣고 있다. 이로 미루어 대한제국 황실의 위계에 따라 문양이 달라져 황후와 황태자 및 황태자비는 초룡문을, 황귀비는 쌍적문을, 친왕과 친왕비는 반리문으로 차등을 두었다.

네 가장자리에는 동물 문양을 새기고 唐朱紅으로 패인 면을 채우는데, 문양은 草龍, 蟠螭 雙翟 등 세 종류이다. 초룡문은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를 책봉하는 금책에만 사용되었는데, <명성왕후민씨추봉황후금책>, <왕세자척책봉황태자금책> 등 7건이다. 쌍적문은 황후로 책봉되지 못한 황귀비의 금책 2건, 즉 <순빈엄씨책봉순비금책>과 <순비엄씨책봉황귀비금책>에만 사용되었다. 반리[교룡]문은 왕(친왕)과 왕(친왕)비의 금책에 사용되었는데, <의화군책봉의왕금책>, <이은책봉영왕금책>, <완화군추봉완왕금책>, <김씨책봉의왕비금책>, <완흥군책봉흥왕금책>, <완흥군부인흥씨추봉흥왕비금책>, <완흥군부인이씨책봉흥왕비금책> 등 6건이다. 이상의 구분을 통해 금책에 새겨진 문양은 피책봉자의 신분에 따라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편에 글자를 새기고 문양을 새긴 후에는 글자가 잘 보이도록 패인 면에 중국산 붉은 색 안료, 唐朱紅을 채운다. 이렇게 글씨를 채우는 것을 填字 또는 填紅이라고 한다. 당주홍은 6錢이 사용되었는데, 이 재료와 양의 기록은 모든 금책에 동일하다. 이 작업은 안료인 당주홍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글씨를 메꾸는 일이기 때문에 화원들이 수행한다.



<완화군완왕추봉금책, 1907, 어책36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완흥군흥왕책봉금책, 1910, 운1129,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완흥군책봉흥왕금책>의 가장자리 반리문, 1910, 운1129,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6) 회장(繪粧)

회장은 금책을 꾸미는 일련의 과정이다. 금책은 두 개의 금편을 엮어 책처럼 펴고 접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공통된다.



금편의 뒷면 양쪽은 들다 해당되며 네 변의 가장자리에 초룡문을 새긴 부분을 제외한 안쪽 부분에는 붉은색 비단 뒤를 먼저 붉은색 종이를 붙여서 마감하는 것이다. 이 역할은 병풍장이 하며 1897년에는 병풍장 高在鳳이 했다. 당시 비단은 중국산의 붉은색 구름문 비단[雲紋漢緞]에 접착제로 찹쌀풀[糊]을 사용하여 붉은 선자지[紅扇子紙]로 배접한 다음 금책에 붙였다. 이렇게 양쪽 뒷면의 가운데 부분에만 붉은 비단을 종지로 배접하여 붙이는 것은 모든 금책에 동일하다.

이를 위해 두 편의 안쪽 상·하에 구멍을 뚫어 붉은색 끈(紅條)을 사용하여 묶는다.

금책을 다 만들고 나면 첩과 첩 사이에 솜을 넣은 붉은비단요[紅雲紋漢緞藉褥]를 깔아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붉은 비단 보자기[紅雲紋漢緞端袱]로 금책을 감싸고, 위쪽에 오색실끈[五色眞絲結纓子]으로 묶는다.

회장까지 끝나면 책문을 보자기에 싸고 궤에 담은 봉과식에 의해 책봉식을 거행하기 위해 궤내로 들였고, 책봉 당사자의 사후 삼년상이 끝난 후 종묘에 부묘되었다.

## □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 옥책』, 국립고궁박물관, 2017.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 어책-교명, 죽책, 금책』, 국립고궁박물관, 2017.
- 김문식, 「조선시대 어책의 현황과 특징」, 『고궁문화』 9, 국립고궁박물관, 2016.
- 박윤미, 「17~20세기의 어책 상황 직물에 관한 연구」, 『고궁문화』 9, 국립고궁박물관, 2016.
- 서울공예박물관, 『경혜인빈상시호 죽책』, 서울공예박물관, 2022.
- 유지은, 「옥책의 보존과 분석을 통한 시대별 제작 기법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윤인수, 「대한제국기 금책문의 형태적 특징과 인출·반사(1897~1910)」, 『고인쇄문화』 제14집,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 장경희, 「朝鮮後期 王室의 玉工藝匠人 연구 : 17~18世紀 玉匠과 刻手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15, 미술사연구회, 2001.
-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솔과학, 2013.
- 장경희, 「朝鮮後期 여성장인의 장색(匠色)과 직역(職役) 연구」, 『여성과역사』 20, 한국여성사학회, 2014.
- 장경희, 「1755년 경혜인빈 김씨의 상시호 죽책(竹冊)과 은인(銀印) 관련 물품의 제작장인 연구」, 『역사민속학』 61, 한국역사민속학회, 2021.
- 장경희, 『국혼과 연향용 공예품을 제작한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2.
- 장경희, 『국장과 부묘용 의물을 제작한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3.
- 장을연, 「청대 조선왕실 책봉교명과 조선 교명의 형태 비교연구」, 『장서각』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장을연, 「대한제국기 금책의 현황과 양식적 특징」, 『고문서연구』 제46호, 2015, pp.183~209.
- 정다슬, 「조선 후기 옥책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3. 교명의 제작 방식과 장인

교명은 국왕이 왕비를 책봉하거나 왕세자와 왕세자빈, 왕세손과 왕세손빈을 訓諭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단으로 짜고 만든 왕실 문서의 하나이다. 책봉과 관련해서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 사료에서 확인이 된다. 그중 가례도감이나 책례도감을 기록한 의궤에는 그 내용이 되는 敎命文과 敎命式, 敎命織造形, 雲頭籤子, 敎命橫 敎命繪粧式, 敎命封裹式, 排案床, 花銀 등 교명 제작방법과 교명의 거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圖說을 첨부하여 기재하고 있다.

교명은 조선 초기에는 임명장의 성격을 가지고 종이에 작성되었다가 1437년(세종 19) 중국의 제도를 따라 오색실로 짠 비단 위에 황금축으로 꾸몄고, 이후 현존하는 교명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교명의 재질이 종이에서 비단으로 변화하였던 것은 왕실의 권위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신들에게 내리는 교서 등에는 명주류를 사용하는 등 같은 견직물이라도 문서를 받는 사람과 문서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재료에 차별을 둠으로써 왕실의 권위와 의례의 상징성을 중시한 것이다. 다만 임진왜란 이전의 교명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 조선후기의 것이 존재한다.

책봉교명을 제작하기 위해 『大明會典』의 고명과 칙명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면서 교명의 형태 및 장황의 체제를 규정하였고 도감에서는 왕비나 세자 및 세자빈을 책봉할 때마다 이것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교명은 일반 문서와 달리 오색의 비단실로 교명문의 바탕을 직조하고 앞 부분에 제목을 쓰고 陞降龍의 무늬를 글씨의 좌우에 배치하고, 뒷부분에는 연월일을 쓰는 것, 그리고 두루마리 끈을 오색으로 갖추어 화려하고 정교하게 제작하여 교명은 조선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공예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1) 교명의 형식과 체제

교명은 국왕이 왕세자나 왕세자빈, 왕세제와 왕세제빈, 왕세손과 왕세손빈 등을 책봉할 때에, 왕비로서의 자세나 교훈 및 경계의 내용을 담아 내린 문서이다. 교명은 아름다운 오색 비단으로 장식되어 화려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비단의 시작 부분에 篆文으로 ‘敎命’ 두 글자가 수놓아져 있다.

책봉과 같은 국가적인 의례가 거행될 때 임시관청인 도감이 설치되는데, 교명은 상방[상의원]에서 비단을 짜서 도감에 들이면 1방에서 문서의 형태로 장황하고 배접한 다음 교명문을 작성하였다. 현존하는 교명 유물은 총 32점이다. 그중 종묘에 소장되어 있다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된 유물은 28점인데,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것은 1638년 인조계비의 왕비 책봉 교명을 비롯하여 1866년 고종비 명성황후를 왕후로 책봉할 때의 교명이다. 왕세자를 책봉할 때에는 책례도감에서 제작한 교명 중에서 현존하는 왕세자의 책봉 교명은 총 6개가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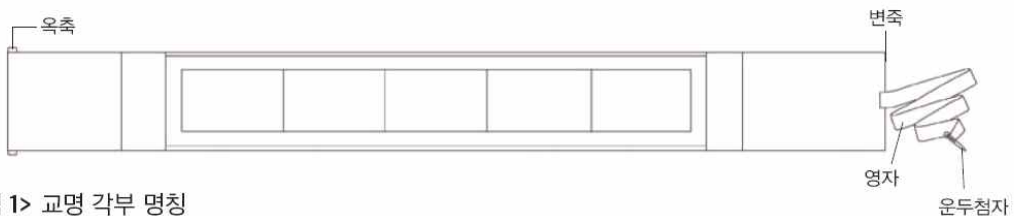
소장되어 있는 유물은 총4점으로서 1751년 의소세손을 왕세손을 책봉하는 왕세손 책봉 교명과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왕세자교명이 소장되어 있다.

<표> 책례도감에서 왕세자와 왕세손을 책봉할 당시 교명의 제술관과 서사관 및 현존 여부

연대	대상	도감	교명 제술관	篆字 서사관	크기	극향	행	글자수	날인	유물 소장번호	소장번호
1651	현종 왕세자	책봉	金益熙	吳挺緯	33.8*271	10자	29행	251	시명지보	고박294	규13069
1651	명성후 세자빈	책봉	金光煜	李景憲	31.4*291.5	9자	42행	287	시명지보	고박305	규13069
1671	인경후 세자빈	책봉	金壽恒	李正英, 吳始復	33.5*302	10자	38행	333	시명지보	고박306	규13078
1690	경종 왕세자	책봉	柳命天	俞夏益	35.4*315.8	10자	38행	302	시명지보	고박295	규13091
1696	단의후 세자빈	책봉	李奮	金鎭龜	36*317.2	10자	33행	270	시명지보	고박309	규13092
1718	선의후 세자빈	책봉	宋相琦	李夏坤	34.2*314.5	10자	40행	313	시명지보	고박311	규13094
1721	영조 왕세제	책봉	宋相琦	正申皙	37.8*311.7	10자	45행	352	시명지보	고박296	규13099
1725	진종 왕세자	책봉	金在魯	金相玉	36.9*311.2	10자	29행	233	시명지보	고박297	규14909
1727	효순후 세자빈	책봉	姜銳	李穡	36.2*303	10자	37행	295	시명지보	고박315	-
1736	장조 왕세자	책봉	宋寅明	尹淳	35.2*312.2	10자	48행	353	시명지보	고박298	규13108
1759	정조 왕세손	책봉	李天輔	金漢耆, 徐志修	34.9*304	10자	31행	243	시명지보	고박299	규13113
1800	순조 왕세자	책봉	洪良浩	李命植	34.5*292.3	10자	40행	296	시명지보	고박300	규13119
1812	문조 왕세자	책봉	金祖淳	金履度	36.6*308	10자	41행	314	시명지보	고박301	규13125
1830	헌종 왕세손	책봉	金履喬	洪義俊	37.2*283	10자	40행	313	시명지보	고박301	규14190
1875	순종 왕세자	책봉	金炳學	李敦宇, 李崔應	37.3*294	10자	44행	350	시명지보	신수9239	규13169



<현종왕세자책봉교명, 1651, 22.8×271.0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1> 교명 각부 명칭

<교명의 각부 명칭>

### (1) 교명의 제술관과 篆字 서사관

교명문은 吏曹에서 담당하여 차출한 敎命文 製述官과 書寫官, 篆文書寫官이 교명문의 내용 작성과 서사를 수행하였고, 교명문 끝에는 이들의 직책과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교명문을 작성하는 製述官은 承文院에 속한 벼슬아치 중 典禮文을 전담하는 관리가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술관의 자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축책의 문장을 짓기 위해서는 駢儷文을 짓는 문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치적 상황이나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을 고려하여 당상관 이상의 품계를 지니고 문장력이 뛰어난 관리 중에 선택하였다.

篆字 書寫官은 ‘敎命’이라는 단어의 글씨를 篆書體로 쓰는 관원이다.

조선 후기에 교명을 처음 제작한 것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1627년 소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부터이다. 당시 교명문의 서사관은 沈悅(1569~1646)이었다. 1628년 가례를 행할 때에 교명 제술관은 洪瑞鳳(1572~1645), 교명 서사관은 沈悅이었다. 1638년 인조가 장렬왕후를 책봉할 때 교명문의 제술관은 李景奭(1595~1671), 서사관은 吳竣(1587~1666)이었다. 1645년 효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교명문 제술관은 金光煜(1580~1656), 교명문 서사관은 李景憲(1585~1651)이었다. 1648년 가례를 치를 때 교명문 제술관은 趙翼(1579~1655), 교명문 서사관은 申翊全(1605~1660), 전문 서사관은 金光煜이었다. 1651년 효종이 왕비를 책봉할 때에 교명문 제술관은 趙錫胤(1606~1655), 교명문 서사관은 吳竣이었고,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의 교명문 제술관은 金益熙(1610~1656), 서사관은 李天基(1607~167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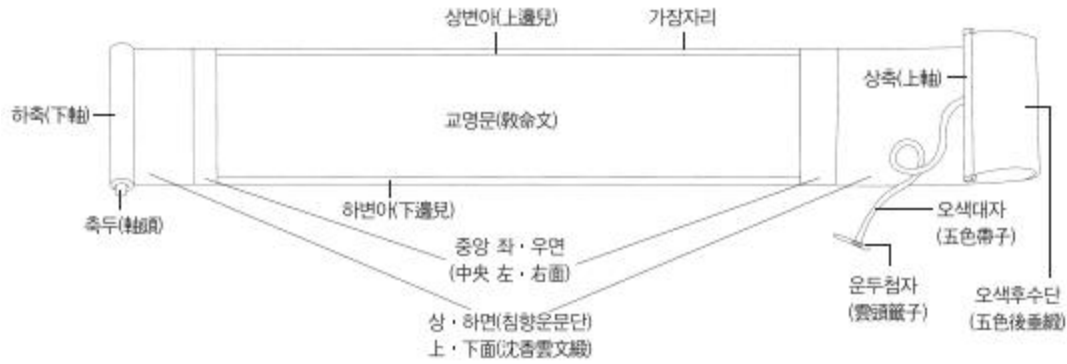
1667년 자의대비의 교명문 제술관은 李一相(1612~1666), 서사관은 宋浚吉이었다. 당시 왕세자 숙종의 교명문 제술관은 趙復陽(1609~1671), 서사관은 金壽恒(1629~1689)이었다. 1671년 왕세자 숙종과 세자빈 인경왕후의 가례 때 교명문 제술관은 이조판서 金壽恒, 교명 전문의 서사관은 호조참판 李正英(1616~1686)이고, 예차는 예조판서 金壽恒, 교명문 서사관은 개성부유수 李正英, 예차는 부사과 吳始復(1637~1716)이었다.

1681년 가례도감의 교명문 제술관은 겸호조판서 金錫胄(1634~1684), 예차는 사헌부 대사헌 李端夏(1625~1689)이며, 서사관은 청평위 沈益顯, 예차는 호조판서 趙師錫(1632~1693)이고, 교명 전문 2자 서사관은 판돈녕부사 李正英, 예차는 낭선군 李僎이다.

1725년 진종을 왕세자로 책례할 때에 교명문 제술관은 부제학 金在魯(1682~1759), 교명문 서사관은 감사 金相玉(1683~1739)이었고, ‘敎命’ 전자 서사관은 金祖澤이었다. 1762년 정조 효의왕후의 세손빈 책례 때 교명문 제술관인 판부사 鄭翬良, 교명문 서사관 洪樂性(1718~1798)이다.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례할 때에 교명문 제술관에는 영돈녕부사 金炳學(1821~1879)이고 예차에는 판중추부사 朴珪壽(1807~1877)를, 서사관에는 좌의정

李最應(1815~1882)이고 예차에는 李承輔(1814~1881)이며, ‘敎命’ 전자 서사관에는 봉조하 李敦宇(1801~1884)이고 예차에는 金世均(1812~1879)이었다.



<교명의 세부 명칭>

인조비 장렬왕후 왕비 책봉교명, 1631, 어책 303,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효종비 인선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45, 어책 30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현종 왕세자 책봉교명, 1651, 어책 29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현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51, 어책 30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71, 어책 306,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경종 왕세자 책봉교명, 1690, 어책 29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숙종비 인현왕후 복위 교명, 1694, 어책 30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96, 어책 30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p>인조비 장렬왕후 왕비 책봉교명, 1631, 어책303,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효종비 인선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45, 어책30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현종 왕세자 책봉교명, 1651, 어책29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현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51, 어책30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71, 어책306,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경종 왕세자 책봉교명, 1690, 어책29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숙종비 인현왕후 복위교명, 1694, 어책30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96, 어책30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2) 교명의 형태와 제작체제

製述官이 문장으로 지은 교명문은 출초본을 내어 내용을 품평하여 정하면, 그 문장을 書寫官이 베껴 써서 교명문 초도서를 작성하고, 국왕의 어람이 끝나면 寫字官이 서사식을 만든다. 이후 도감에서는 2단계를 거쳐 교명을 직조한다. 먼저 ‘敎命織造式’은 교명문을 쓸 바탕이 되는 비단 직물을 尙衣院에서 직조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敎命繪粧式’은 교명문이 써 있는 부분의 상하좌우를 둘러 장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식을 대부분 ‘장황’이라고 부르는 반면 왕실문서인 교명에 사용할 때에는 ‘繪粧’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 ‘敎命織造式’이다. 이것은 상의원에서 직조하여 도감으로 보낸다. 오색 비단 위에 교명문이 작성되는 부분과 그 사방 테두리를 飛鳳과 雲紋으로 장식된다. 교명문의 내용이 작성되는 오색비단은 같은 크기의 홍색·황색·남색·백색·흑색의 순서로 연결되어 있다. 교명이 시작되는 홍색 비단의 첫 부분에는 오르내리는[陞降] 두 마리 용이 옥색으로 짜여 있고, 두 용 사이에 ‘敎命’이라는 두 글자가 황색 비단실로 직조되어 있다. 교명의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의 승강하는 용이 있으며,



두 용 사이에 ‘연호·월·일’을 적고 그 위에 어보(御寶)-시명지보를 찍었다.

둘째 ‘敎命繪粧式’이다. 이 부분은 도감의 1방에서 진행한다. 교명문을 쓰는 비단의 상하좌우와 뒷면에 무늬 있는 비단을 회장하여 교명문을 보호하는 부분이다. 비단으로 장식된 교명을 두루마리 형식대로 유지하고 지지하며 고정한다.

회장을 제작하는 재료는 오색 금선비단으로 길이와 나비는 각 1자씩이고, 축초의를 만드는 심향운문대단은 길이 2자, 나비 8치이다. 배접을 위해 毛邊紙 4장, 生布 20자, 細條所 1근의, 청밀 5홉, 백급말 7돈, 황밀 1냥, 비상 2돈, 백반 1냥, 초주지 10장, 밀가루 2승이다. 籤子는 두석 2냥으로 원환을 만들고, 진떡 1정, 서사관이 쓰는 족제비붓 2조, 옥막이로 쓸 성천 玉軸 2개, 교명의 상하의 끝에 자루용 柄木 1조각은 도감에서 만들어 들인다. 기름종이 10장, 비단에 초주지로 배접한 후 팽팽하게 붙여들 쟁틀 2부는 길이 8자, 너비 2자이다. 붓자루용 대나무 4개, 의향 2봉지이다. 화문 백룡 길이 1자 6치, 나비 8치, 남대단은 길이 4자 7치, 나비 3치 5푼, 백숙초는 7자, 백지 1권이다. 교명에 배접을 하고 쟁틀에 팽팽하게 묶어둘 때 꿰매는 실은 백저사였고, 호조와 제용감에서 백저사 1돈을 들었다.

회장 부분의 형태는 두루마리인 卷子本으로 되어 있다. 그 중앙에 옥축이 있으며, 전체는 비단으로 꾸며지고, 비단 위에 교명문을 작성하는 형태이다. 교명의 세부는 횡축(橫軸)·변죽(邊竹)·거물못[巨物釘]·대자[帶子, 纓子]·침자(籤子)로 구성된다. 횡축은 교명을 두루마리처럼 말았을 때 두루마리의 중앙에 위치하며 교명을 펼치면 가장 왼쪽에 위치한다. 횡축의 상하 끝부분의 재료는 옥이고, 가운데 재질은 나무이며 원기둥의 형태이다. 변죽은 교명의 횡축 반대편에 해당되는 우측 끝에 해당된다. 변죽의 재료는 대나무가 아닌 산유자·오동·추목 등의 나무를 사용하며 반달기둥의 형태이다. 변죽의 평평한 면이 교명의 앞쪽을 향하고 반달 곡선 부분은 교명의 뒤쪽을 향한다. 거물못은 교명의 비단 오른쪽과 두루마리를 감는 띠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대자는 두루마리 형태의 교명을 감아서 고정시키는 길이 1m에 너비 3~5cm 내외의 좁은 띠이며, 다섯 가지 이상의 색상을 짜 오색대자라 불리기도 한다. 대자의 한쪽 끝에는 비녀형 운문 침자가 달려 두루마리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고정핀 역할을 한다. 침자는 두석이나 황동을 재료로 한쪽 끝은 뾰족하고 다른 한쪽은 구름무늬를 지녀 비녀의 형태와 비슷하다.

직조하고 장황이 완료된 비단 위에 사자관이 제술관이 지은 교명문을 먹으로 필사하여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직조와 회장까지 완성한 교명을 ‘敎命封裹式’이라 하여, 보자기로 싸고 내함과 외곽에 넣은 다음 책봉의례가 거행되는 공간에 올려 두고 읽을 때 사용하는 案까지 제작하였다. 이처럼 교명과 교명함과 교명케 및 교명안을 제작하는 장인들은 ‘敎命’篆文 2글자를 쓰는 사자관, 교명의 비단을 직조하는 능라장이나 綃匠, 침자를 제작하는 두석장, 오색영자를 짜는 다회장 등이 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와 직역이 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 2) 17세기 교명의 제작장인

전란을 거치면서 제작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광해군 시기에는 중국의 고명과 칙명을 참고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기로 광해군 시기 왕세자 책봉 교명을 제작하기 위해 『대명회전』의 규정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오색의 삼베실이나 명주실로 교명문의 바탕을 직조하였다. 앞부분에 제목을 쓰고 승강룡 무늬를 글씨 좌우에 배치하고 뒷부분에는 연도, 월, 일을 쓰였다. 또한 두루마리 끈 역시 오색으로 갖추는 등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존하는 조선 왕실의 교명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교명을 제작한 도감에서 만들어지는 의궤에는 사용된 재료를 빼놓지 않고 기재하며 간혹 채색도설까지 실고 있다. 일례로 『현종비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봉이나 혼례는 국왕의 전교 혹은 관원들이 올린 상소로 시작되며 거행이 결정되어 교명문 제작에 돌입한다. 결정된 행사는 차질 없이 치루기 위해 이조에서는 도감을 설치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임시관청인 도감에서는 총책임자인 도제조, 부책임자인 제조, 그리고 각 부서의 장으로 3~6품에 남청이 차출된다. 다시 남청은 도청과 각방에 2명씩 차정된다. 이 밖에도 각종 문서 장성과 회계, 주직을 담당하는 인원들로 서리, 고직, 사령, 가환군사 등도 부서에 분속되며 화원과 서사 역시도 이에 포함되었다. 또한 각 공장들을 통솔하고 각종 기물제작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관원인 감조관을 5~9품직으로 각방에 1명 또는 2명씩 배치되었다. 교명의 바탕이 되는 비단과 기타 장황에 필요한 각종 비단은 상의원에서 직조하였다. 제술관에 의해서 완성된 교명문은 출토본을 내었으며 이를 품정한 후 초도 서서사식을 만들었다. 이 초도서서사식이 결정이 되면 어람을 위해 서서관이 교명문초도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서관이 직조 비단 위에 먹으로 필사하였다. 교명문 비단 바탕은 홍색, 황색, 남색, 백색, 흑색 순으로 직조되어 교명문에 묵서한다. 마지막 흑색 부분에 묵서가 끝나면 교명문이 완성되며 본격적인 장황에 들어간다.

국혼은 왕[세자]이 사대부 가문의 여인을 왕비[세자빈]로 맞아 들어서 왕실에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통과례의 일종인 것이다. 이 때 교명은 왕실과 혼인이 맺어졌음을 대내외에 확인시키는 인증서에 해당되어 가례용 공예품 중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크다. 왕비나 세자 및 세자빈을 책봉하며 내리는 교명은 국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작하되 국혼 날짜에 맞춰 제작해야 하는 공예품이다. 조선후기 가례 때마다 교명의 직조가 가장 시급하므로 빨리 제작하여 납입하라는 전교가 수시로 내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교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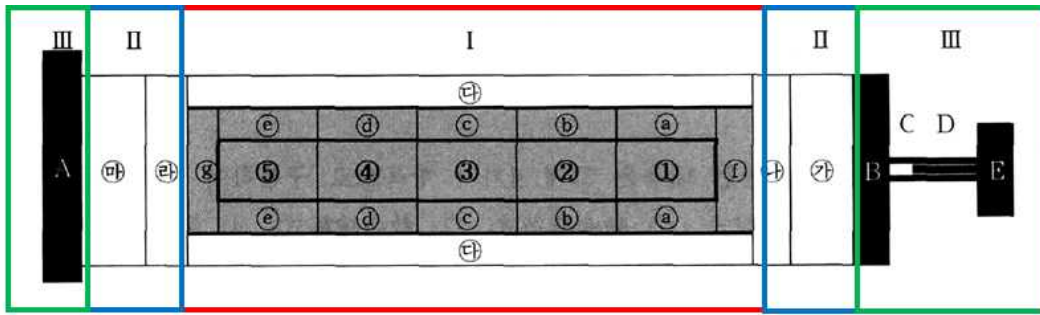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도감에 소속되어 있는 書寫官이 篆文을 써서 상의원으로 보내면 능라장이 내용대로 직조한 후 다시 가례도감으로 보내면 도감 소속의 繪粧匠이 표구를 하여 완성을 하는 분업방식으로 제작되었다.

### (1) 교명의 직조와 회장

조선왕실에서 의물이나 예기를 제작할 때에는 선례를 상고하여 그것을 토대로 화원이 기화를 한 ‘본’에 의거하여 ‘견양’을 만들어 내었으며, 왕실의 위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인하는 잣대로서도 활용되었다. 예컨대 가례나 책례 때 왕비와 세자빈을 책봉하며 내리는 敎命은 왕실 공예품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어서 견양에 의해 제작하였다.

견양은 제작해야 할 공예품의 치수와 크기를 조정하는 근거로 활동될 뿐 아니라 문양이나 색상,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례 때 왕비나 세자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던 교명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교명은 왕실의 국훈을 증명하는 인증서의 성격을 지녀서, 그 상징성 때문에 가례도감에서 제작하는 공예품 중에서도 형식미를 갖추면서도 가장 긴급하게 제작해야 했다. 교명은 앞장에서 살펴본 바처럼 분업체제로 제작되었다. 도감 내 寫字官은 전서체로 글씨를 쓴 다음 상의원으로 보내었고 綾羅匠은 ‘교명’의 내용과 글씨를 직조한 다음 또다시 도감으로 보내면 繪粧匠이 오방색실로 9축을 짜면서 행서체의 ‘책명날짜’를 짜 넣어 족자형태로 완성시키는 공예품이었다. 이렇게 가례의 상징성을 가장 극적으로 표출하는 공예품이므로 의전과 선례에 꼭 맞도록 제작하려 노력했으며, 반드시 등록을 먼저 참고한 다음에 제작에 착수하였다.

예컨대 1638년 인조와 장렬후의 가례 때에는 敎命軸과 翟衣 등은 상의원의 능라장이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 때 제작할 공예품의 선례를 임인(1602, 1542)등록에 의거하여 살피도록 하였으나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도감으로 하여금 상의원에 명하여 확인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교명축을 제작하는 제도는 견양에 의해 직조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제작할 때에는 선례에 의해 상의원으로 하여금 그 제도를 살핀 후 모방하여 완성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3일 후에는 교명축에 짜 넣을 용문양을 임인 등록에 의해 밝힐 수 있었다. 교명축에는 왕실의 紋章 격이라 할 수 있는 용문양을 본받아서, 축머리와 축말미에는 각각 승룡과 강룡을 그리도록 하였다. 또 축의 상하 양면에도 용문양을 넣도록 하는 논의를 거친 후 결국 옛 제도를 따르게 되었다.



① 교명문 작성 부분      ② 회장부분      ③ 권자본 축과 고정띠 부분

<교명의 세부형태 구분>

### 가. 교명의 견양

17세기에 제작한 교명은 회장의 각축마다 크기와 색상, 문양과 직조조직이 달라졌는데, 의례에 보이는 교명의 견양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세기 교명회장축의 견양

	초면	1축	2축	3축	교명전문	4축	5축	6축	7축	8축	9축	말면
1627	홍 질 청 화문단 7.3×6.2	심 향 색 화문단 7.3×0.9	화문백룡 7.3×3.0	담 남 색 승 강 룡 문직성	교명 2자 무문 운봉백문 5.0×18.0	담홍색운 봉백문 5.0×18.0	담황색운 봉백문 5.0×18.0	백색운봉 담황문 5.0×18.0	담자색운 봉백문 5.0×18.0	대 연 호 월일 안보	초 면 과 동일	회 장 백 룡갑
1638	심향색 8.0×10.0	심향색운 봉문 8.5×6.5	운문백룡 3.0×3.0	홍 질 승 강 룡 황 사직성	교명 2자 자적직성 /운봉문사 4.5×8.0	황질	청질	흑질 (승강룡 문직성)	백룡	연월일	백룡 2.9×2.9	심향색운 봉문 4.0×4.0
1651	심향색 운문단 10.3	심향색 운문단	화문백룡	담남색 승강룡	교명 2자 직성	담홍색 운봉문	담황색 운봉문	담남색 운봉문	백색운 봉문	신묘 11 월/21일 안보	담초록 운봉문	심향색 운문단
1696	심향색 운문단		화문백룡	담남색 승강룡	교명 2자 전문직조	담홍색 운봉문	담황색 운봉문	담남색 운봉문	백색운 봉문	병자 5월 14일안보	담초록 운봉문	심향색 운문단

교명의 견양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회장축의 크기와 비단의 색상과 문양도 달라진다. 시기별로 교명의 견양은 차이를 보여 회장축의 크기와 비단의 색상과 문양도 달라지고 있었다. 1627년 소현세자의 가례 때 제작한 교명 회장축은 길이 7치 5푼에 넓이 12자이었다. 교명의 재료로 사용한 비단은 첫머리와 말미에 심향색을 배치하였고 가운데 부분은 백색, 담남색, 담홍색, 담황색, 담자색으로 구분하여 글씨나 문양을 새겼는데 각각은 오색실을 사용하여 능직 비단으로 짰다. 문양은 화문(花紋), 승룡문(乘龍紋), 운봉문(雲鳳紋) 등이었다. 그러나 1638년 인조와 장렬후의 가례 때에는 양 끝에 심향색(沈香色)을 배치한 다음 백색, 홍색, 황색, 청색, 흑색의 오방색 비단을 순서대로 배치하였다. 이것은 앞 시기에 제작한 오방색보다 짙은 색상으로 바뀐 것이었으며, 제작처는 도감이 아니라

상의원의 ‘繪粧鋪陳色’에서 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1651년과 1696년의 가례 때에는 양끝의 심향색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나, 원색의 오방색(五方色)은 조금 열린 오색(五色)으로 바뀌고 있었다. 즉 백색, 담남색, 담홍색, 담황색, 담남색, 백색의 순서에 담초록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 때 직조조직은 금(錦)이나 능직(綾織) 및 교직(交織) 등이 활용되었으며, 문양은 雲鳳紋이나 陞降龍紋 등을 사용하였다.

1627년 소현세자의 가례 때 교명에 들어갈 각종 비단의 직조는 상의원에서 하였고 회장은 도감에서 제작을 하였다. 1638년에는 교명의 직조는 상의원 내의 직조색에서 했으며 회장은 회장포진색에서 나누어서 작업을 하였다. 이후 1651년에도 교명의 직조는 상의원에서 하였고, 회장은 도감에서 하였다. 1671년에는 도감 소속의 寫字官이 쓴 篆文을 상의원으로 보내면 직조색에 소속된 능라장이 “교명” 두 글자를 가운데에 넣으면서 五色錦 비단으로 짠 다음 다시 도감으로 보내면 繪粧匠이 교명의 외곽에 해당되는 회장을 짰다.

1627년 소현세자의 가례 때 제작한 교명 회장축은 포백척으로 길이 7치 5푼에 넓이 12자이었으며, 도감에서 직조를 했다. 교명의 재료로 사용한 비단은 첫머리와 말미에 심향색을 배치하였고 가운데 부분은 백색, 담남색, 담홍색, 담황색, 담자색으로 구분하여 글씨나 문양을 새겼는데 각각은 오색실을 사용하여 능직 비단으로 짰다. 문양은 花紋, 乘龍紋, 雲鳳紋 등이었다. 각각 비단의 길이는 초면의 홍질은 길이 1자, 나비 9치, 1면 심향색은 길이 1자 5치, 나비 8치, 2면 화문은 길이 9자 3치, 나비 2치 5푼, 백릉은 길이 1자 6치, 나비 8치이다.

#### 나. 교명의 회장

1627년 소현세자의 가례 때 제작한 교명 회장축은 포백척으로 길이 7치 5푼에 나비 12자이었으며, 도감에서 직조를 했다. 제1면은 ‘軸衣’이며, 청화문이 있는 필단으로 길이 7치 3푼, 나비 6치 2푼이다. 여기에는 두석으로 만든 길이 1치 3푼의 籤子를 다회장이 만든 오색 영자에 꿰맨다. 籤子는 원환인데, 두석 1냥으로 두석장이 만든다.

1638년 인조와 장렬후의 가례 때에는 양 끝에 沈香色을 배치한 다음 백색, 홍색, 황색, 청색, 흑색의 오방색 비단을 순서대로 배치하였다. 이것은 앞 시기에 제작한 오방색보다 짙은 색상으로 바뀐 것이었으며, 제작처는 도감이 아니라 상의원의 繪粧鋪陳色에서 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1651년과 1696년의 가례 때에는 양끝의 심향색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나, 원색의 五方色은 조금 열린 五色-백색, 담남색, 담홍색, 담황색, 담남색, 백색의 순서에 담초록을 배치하였다. 문양을 짤 직조는 錦이나 綾織 및 交織 등이 활용되었다. 교명을 짤 때 들었던 재료는 시기마다 큰 차이 없이 대체로 일치하여, 17세기에 치러진 국혼 때 제작한 교명회장의 구성체제과 크기, 색상, 문양을 순서대로 열거하였다.

한편 국혼에 사용할 교명을 짜기 위해 상의원이나 도감의 회장포진색에서 고급 직기를 갖추어 제작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1627년의 도감에서는 문양을 넣은 고급 필단을 짤 수 있는 직조기를 호조에서 구입하여 상의원에 갖추어 주었다. 1638년의 도감에서는 장인들이 머무는 처소에 ‘織綃機’라 불리던 베틀을 두었는데, 당시 넓은 폭을 짜기 위해 큰 대나무 바디를 선공감에서 만들어 들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문양이 복잡하여 까다로운 솜씨가 요구되는 교명은 상설아문인 상의원과 의례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권설도감의 분업적 협업으로 완성시켰다.

## (2) 상의원 능라장

교명에 들어갈 비단의 직조를 위해 상의원에서 능라장이 제작을 하거나 책례도감이나 가례도감의 1방에 능라장을 동원하였다. 1610년 의인왕후에게 존호를 올리고 인목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부터 능라장을 차출하였다. 1627년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의 가례 때에는 교명에 들어갈 각종 비단의 직조는 상의원에서 하였다.

도감에서는 회장을 위한 비단을 직조하기도 했다. 1610년 의인왕후에게 존호를 올리고, 중궁전을 책봉하고 왕세자를 책봉할 당시의 책례도감에는 교명의 제작을 위해 능라장을 차출하였으며, 그들은 제작일수와 업무량에 따라 그들 중 梁永과 安得男은 1등상을, 田世倫과 李禮京 및 金壽長은 2등상을 받았다. 1627년 가례도감의 1방에는 능라장 尹得仁, 李無金, 李大秀, 孫貴文, 李禮景, 金孝一, 金長命, 李孝一, 張戒男이 징발되어 제작하였다.

1638년 인조와 장렬왕후의 가례 때 도감 1방에 능라장 金德一을 비롯하여 11명을 동원하였다. 1651년 효종이 인선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하거나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당시 교명의 직조는 상의원 능라장 鄭應龍이 짰다.

## (3) 17세기 회장장

1651년 효종이 인선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와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교명의 회장장은 金以善이었고, 특히 교명회장장은 金德男, 全仲賢이었다. 이중 회장장 김이선은 같은 해 인조와 인렬왕후의 부모도감에서도 회장장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全仲賢의 경우 다른 도감에서는 병풍장으로도 불리고 있었다. 예컨대 1645년 소현세자의 예장도감 1방과 2방에서 서울 김포에 거주하는 병풍장이었다. 1649년 인조의 국장도감 2방이나 1659년 효종의 국장도감 2방에서도 병풍장이었다. 이를 통해 교명을 제작할 때는 그것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것을 제작하는 장인도 ‘회장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렸고, 그밖의 다른 공예품의 장황할 때에는 ‘병풍장’으로 불린 것을 알 수 있다.

1667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의 1방에는 회장장 朴武善이 활동하였다. 그는 1671년 인경왕후를 세자빈으로 책봉 때, 1677년 인경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1681년 인현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1688년 영정모사도감 때, 1690년 장희빈을 중궁전으로 책봉,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1694년 인현왕후를 다시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1696년 경종 왕세자와 단의왕후의 가례 때도 회장이었다. 그 밖에도 박무선은 1659년 효종의 사후 혼전 2방이나, 1667년 숙종을 세자로 책봉할 때에는 병풍장,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는 배첩장이었다. 이렇게 회장장 박무선의 경우 1659년부터 1696년까지 37년간 가례도감이나 책례도감 및 영정도감 등에서 국역을 졌던 17세기 말의 대표적인 회장장이었다.

#### (4) 17세기 축초의 끈을 짠 다회장

1627년 소현세자의 가례 때 다회장은 교명 회장의 軸初衣에 매달 오색 纓子를 짰다. 그들이 오색 영자를 짜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홍진사 2돈, 남진사 2돈, 자적진사 2돈, 유청진사 2돈, 백진사 2돈으로 오색 纓子를 짜고, 여기에는 상의원에서 만들어 들인 두석 원환으로 된 침자를 달았다.

1639년 인조와 장렬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다회장은 金景[敬]伯, 金大守이었다. 이중 김경백은 1627년 원종의 예장, 1630년 선조의 목릉을 천봉, 1645년 소현세자의 예장, 1649년 인조의 국장도감, 1659년 효종의 국장 등에서 32년간 국역을 졌던 서울 출신의 대표적인 17세기 전반의 다회장이었다. 17세기 중반의 다회장 朴元은 1651년부터 1674년까지 23년간, 다회장 李承男의 경우 1645년부터 1661년까지 16년동안 활동하였다.

1677년 숙종이 인경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다회장 朴日(一)元은 1667년부터 1699년까지 32년간 활동한 17세기 말을 대표하는 다회장이다. 특히 그는 원래부터 서울에 거주하던 장인으로서 국역에 징발되었는데, 20년이 지난 1686년부터는 상의원에 소속되었다.

			
숙종비 인원왕후 왕비 책봉교명, 1702, 어책30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718, 어책31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경종비 단의왕후 왕비 추봉교명, 1722, 어책31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경종비 선의왕후 왕비 책봉교명, 1722, 어책31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진종 왕세자 책봉교명, 1725, 어책29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 책봉교명, 1759, 어책31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진종 왕세자 책봉교명, 1725, 어책29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725, 어책29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장조 왕세자 책봉교명, 1736, 어책29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744, 어책316,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정조 왕세손 책봉교명, 1759, 어책29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 책봉교명, 1778, 어책31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p>숙종비 인원왕후 왕비 책봉교명, 1702, 어책30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718, 어책31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경종비 단의왕후 왕비 책봉교명, 1722, 어책31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경종비 선의왕후 왕비 책봉교명, 1722, 어책31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숙종비 인원왕후 왕비 책봉교명, 1702, 어책30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718, 어책31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경종비 단의왕후 왕비 책봉교명, 1722, 어책31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 책봉교명, 1722, 어책31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진종 왕세자 책봉교명, 1725, 어책29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 책봉교명, 1759, 어책31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진종 왕세자 책봉교명, 1725, 어책29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725, 어책29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장조 왕세자 책봉교명, 1736, 어책29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현경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744, 어책316,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정조 왕세손 책봉교명, 1759, 어책29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효의왕후 왕비 책봉교명, 1778, 어책31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3) 18세기 교명의 제작

교명은 국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제작해야 하는 상징물이었으며, 상의원에서는 비단을 직조하고 도감에서는 회장을 제작하여 완성시킨 염직공예품의 정수였다.

#### (1) 18세기 교명의 체양

18세기에 도전례를 참고하는 교명의 제작방식은 계속 이어져 1718년 경종과 선의 후의 가례도감에서 교명을 제작할 때 예전에 제작한 교명의 체양(體樣)을 따랐다. 즉 선례에 따라 제작할 교명은 상의원으로 하여금 길이와 넓이, 체제 및 직조와 형태, 색상 및 전서체의 글자모양과 크기 등을 그림으로 그려 모사한 것을 보고 직성하도록 한 것이다.

1727년의 교명회장은 제1면은 중간에 교명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양쪽의 홍색바탕에는 승룡과 강룡을 직조하였으며, 제2면은 황색바탕, 제3면은 남색바탕, 제4면은 백색바탕, 제5면은 국혼날짜를 쓴 양면을 흑색바탕에 승룡과 강룡을 직조하였다. 크기와 형태, 색상 및 직조기법 등은 그림으로 그려두었다가 모사하는 방식으로 교명의 견양을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제작방식은 1744년의 가례 때에도 여전히 전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 가례 때 사용하는 교명은 조선전기에 제작된 선례를 견양으로 삼아 상의원에서 직조하였는데, 선례가 된 실물의 체양은 상의원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그것에 따라 제작하였다.

교명이 가례라는 왕실행사에서 그 가치와 상징성을 지녔고 의궤라는 체제 속에서 형식미가 부가된 시기는 『국조속오례의』 이후였다. 즉 1759년 영조와 정순후의 가례 때 비로소 1방에서 제작하는 공예품 중 가장 먼저 기재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교명과 관련되는 각종 부속 공예품의 제작순서 및 해당 공예품의 도식까지 그려지기 시작하여, ‘교명직조형’, ‘운두첨자’, ‘교명식’, ‘교명궤’, ‘교명회장식’, ‘교명봉과식’ 등이 그려졌다. 도식화된 교명의 제작방식은 1762년 정조와 효의후의 가례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특히 교명과 교명회장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던 심향색 운문단은 19세기 내내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다. 1802년 순조와 순원후의 가례 때에도 도설화하는 체제는 계속 이어졌으나 교명을 회장할 때 사용하던 비단의 색상은 바뀌어, 이전까지의 심향색 운문단 대신 아청 운문단을 사용하였다.

#### (2) 교명직조식 : 상의원의 직조 장인

‘교명직조식’은 상의원에서 교명의 오색비단을 직조할 때 오색의 색상과 문양, 교명문 글자의 배치 부분 등을 지시하여 교명의 체제와 형식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영조가 정성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교명축을 직조해야 하는데, 오색실을 교차시키는 순서 및 교명문에 쓰는 글씨체와 크기 때문에 1676년[丙辰]과 1722년[壬寅]

의 도감 때를 예로 들어 대비전의 교명문을 봉심해서 체제대로 직조토록 하였다. 교명 1건의 직조는 상의원에서 하고 회장은 책례도감 3방에서 한다. ‘교명’ 전문 2자 제술관이 쓴 篆文을 내려 받은 후 상의원에 이송하여 직조한다. 특히 1744년 영조가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부터 교명은 안에서 내린 본(本)에 의해 제작되었고, 직조는 상의원에서 회장은 도감에서 수행하였다. 다만 도감의궤에서는 상의원의 능라장이 발견되지 않는다.

### (3) 교명회장식 : 회장장과 다회장

상의원 소속의 능라장이 교명을 다 짜면 가례도감으로 보냈으며 도감에서 繪粧匠은 표구를 하였으며, 회장의 부속물이며 회장축의 끈으로 사용한 纓子는 오색실로 다회장이 제작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명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각각의 부속물은 능라장이나 회장장을 비롯한 여러 장인이 분업화된 제작방식에 의해 완성하였다. 이와 같은 제작방식은 『국조속오례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19세기에 도 마찬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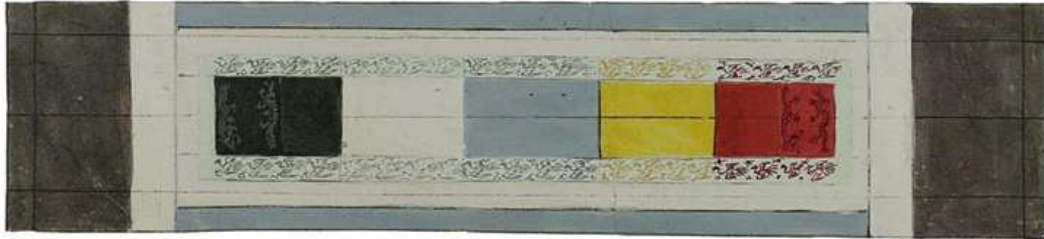
9면으로 제작하던 교명 회장축은 1727년의 가례 때부터는 달라지고 있었다. 교명회장은 총5면으로서 제1면은 중간에 교명 두 글자를 짰고, 그 양쪽은 홍색바탕에 승룡과 강룡을 직조하였으며, 제2면은 황색바탕, 제3면은 남색바탕, 제4면은 백색바탕, 제5면은 국혼날짜를 쓴 양변을 흑색바탕에 승룡과 강룡으로 직조하고 있었다. 교명회장을 5면으로 짜는 방식은 1744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교명은 안에서 내린 본(本)에 의해 제작되기 시작하였는데 제1면은 홍색바탕의 중앙에 교명 두 글자를 짜 넣고 승강룡을 새겨 짰으며, 제2면은 황색 바탕에 행서를 짰다. 제3면은 남색 바탕, 제4면은 백색 바탕, 제5면은 흑색 바탕에 승강룡을 직조하고 연월일의 글자를 짜 넣고 璽寶를 찍었다. 1759년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1762년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승강룡을 직조하였으나 3조룡을 짰고 양끝 두 줄에 구름문양과 함께 칠보문양을 배치하는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교명회장식에서 교명을 회장하는 장인은 繪粧匠이고 특별히 敎命匠이나 교명회장장 및 교명직조장이라고 불렀다. 회장장 金斗星[成]은 내수사나 상의원의 장인으로서 1694년 숙종이 인현왕후를 왕비로 책례할 때부터 1702년 숙종과 인원왕후가 가례를 올릴 때까지 30년간 교명을 비롯한 회장에 핵심역량을 지니고 활동하였다.

1744년까지 교명회장장은 내수사의 장인들을 동원하였고, 1751년 의소세손에게 교명은 장인 孫守成을 교명직조장이었는데, 그는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는 도감에서도 직조장이었다. 당시 무늬를 도와준 解紋匠 金德喆이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손수성은 직조장은 1784년 문효세자를 세자로 책봉할 때 김영휘가 활동하기도 했다.

#### 4) 19세기 교명의 제작장인

교명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솜씨가 요구되어 상의원과 도감에서 분업적 협업으로 완성시켰다.



<‘교명’도식, 1800년, 순조왕세자관례책저도감의례, 규장각>

##### (1) 교명 직조용 재료와 도구

상의원에서는 교명 1부를 짜는 데에는 여러 물품이 소용되었다. 이를 위해 상설아문에서는 필요한 재료와 제작도구를 마련했다.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경사를 잘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 바디 위에 바르는 黃蜜 1냥, 그리고 직기 위에 끼워 넣을 뱀대용으로는 海長竹 50개와 도투마리를 밑 中竹 7개를 마련하였다. 참기름[眞油] 5홉은 바디살의 표면을 매끈하게 해주기 위해 바르던 것이다. 교명을 짜는 동안 직기의 앞뒤에 끼워 넣을 것으로 백휴지 10냥, 베틀에서 신나무와 끝신을 이을 쇠꼬리나 가로대와 눌림대를 고정시킬 눌림끈 및 부테허리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줄바[條所] 2거리, ‘교명’전자나 용봉 문양을 본에 그려서 베틀의 아래쪽 바탕에 대줄 저주지(楮注紙) 1장이 준비되었다.

당시 상의원에서는 능라장을 비롯한 장인들이 사용했을 솥 2점, 직조기 아래에 깔았던 빈 가마니 5넝, 앞에 펴는 油菴 1부, 땀 나무 1단, 모시베(苧布) 수건 1건, 흰 무명 마치[白木赤尔] 1건 등도 들였다. 상의원에서는 도감 1방에 교명의 뒷부분을 회장할 금의필단 1건을 짜서 도감 1방으로 보냈다. 금의필단을 짜기 위해 바탕 직조와 무늬를 넣는 씨실을 합쳐 오색용모사 각 3냥씩, 뒤쪽에 넣을 경사 감으로 백사 8냥, 테두리를 단단하게 짤 백사 1냥, 곡결이 감으로 백사 1냥, 바디 위를 매끈하게 해줄 황밀 1냥, 저주지 1장, 송진(松脂) 1냥, 참기름 5홉, 솥 5말, 땀나무 1단, 앞에 펴는 유둔 1부, 저포 수건 1건, 흰 무명 마치 1건을 마련하였다.

한편 상의원에서는 교명의 회장이 끝난 교명족자를 짜기 위해 필요한 각종 보자기용 명주를 염색해서 짰고, 부속재료들도 마련해 주었다. 안 싸개용 3폭 겹보자기 1건 감으로 홍화주 12자 6치를 짰고, 그 보자기의 가장자리를 꾸밀 紙金 1장을 만들었으며, 지금의 안쪽에 실을 잘라 넣을 草綠絨絲 2돈을 마련한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교명궤에 보자기로 짠 다음 묶을 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적정주

끈(紫的鼎紉纓子) 길이 4자, 너비 1치짜리 2편도 상의원에서 마련해 주어 도감 1방에서 제작하였다.



<교명 제1면 ; ‘교명’전자와 승강룡 및 비봉, 운보문 직조, 180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교명 제5면 ; ‘연월일’ 및 시명지보, 180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2) 교명 전자 서사관

19세기 교명의 기본 형식은 오른쪽부터 1면 홍색, 2면 황색, 3면, 남색, 4면 백색, 5면 흑색이다. 1면과 5면에는 솟구치거나 내려가는 용[陞降龍]이 직조되어 있다. 특히 1면의 승강룡 사이에는 ‘교명(敎命)’이라는 전서체 글씨[篆字]는 전자서사관이 써서 상의원으로 보내면 이것을 짜 넣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에 거의 일치하는 교명 형식이다.

오색비단을 짜기 전에 도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명’전자를 쓸 寫字官과 교명문 製述官과 그것을 베껴 쓸 교명문 寫字官을 정하는 일이다. 1800년 책저도감에서 교명전자를 쓸 사자관은 행공조판서 洪櫨(1722~1809), 교명문 製述官 실차는 판중추부사인 洪良浩(1724~1802), 예비[預差] 製述官은 행지돈령부사 李秉鼎(1742~1804), 교명문을 글씨로 옮길 사자관은 봉조하 李命植(1720~1800)으로 결정하였다.

## (3) 교명직조식 : 상의원의 능라장

‘교명직조식’은 상의원에서 교명의 오색비단을 직조할 때 오색의 색상과 문양, 교명문 글자의 배치 부분 등을 지시하여 교명의 체제와 형식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19세기의 경우 1800년 책저도감의 도청에 소속된 서사관 홍억이 쓴 글자를 상의원으로 보내자, 상의원에서는 제1면 홍색 비단에 가장 먼저 배치할 위로 솟구치는 승룡은 옥색 바탕에 붉은 비늘 문양으로 짰고, 그 다음 교명전자의 본을 대고 ‘교명’ 두 글자는 황색 비단실로 짰으며, 그 다음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강룡은 승룡과 마찬가지로 색상으로 짰다.

‘교명’전자를 사이에 두고 승강룡을 배치하는 것은 제1면과 제5면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제2면 황색, 제3면 남색, 제4면 백색으로 짜면 된다. 오색면의 상하 테두리는 옥색 바탕이고 각 면마다 해당 색상으로 날아가는 봉황[飛鳳]이 각각 4마리씩 짜 넣은 것이 공통된다. 제1면 홍색 상하에는 홍색 봉황, 제2면 황색 바탕에 상하 테두리는 황색 봉황, 제3면 남색 바탕에 상하테두리는 남색 봉황, 제4면 백색 바탕에 상하테두리는 백색 봉황 4마리씩 짜 넣었다. 제5면의 바탕은 흑색이고, 위아래 테두리 바탕은 옥색으로 짰다. 흑색으로 날아가는 봉황을 각각 4마리를 짰다. 바탕의 비단에는 제1면과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용과 내려가는 용 1쌍을 짜되, 옥색 바탕에 검은 비늘 문양을 하고 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용 사이에는 1면과 달리 책봉 ‘연월일(年月日)’을 쓸 자리를 비워둔다.

1800년 현존하는 교명 유물은 제1면을 시작하기 전 왼쪽 바탕에는 구름과 칠보문[雲寶文]을 붉은색으로 짰고, 쌍사에는 자적색으로 가늘게 선을 굵듯이 짠 雙絲를 엮볼 수 있다.

제1면의 홍색바탕에는 왼쪽부터 옥색에 붉은 비늘의 솟구치는 승룡, 금색으로 왕역이 쓴 ‘교명’전자, 옥색에 붉은 비늘로 내려가는 강룡을 직조하였다. 승강룡은 전체적으로 두툼하고 교명전자는 작은 편이다. 교명문은 홍양호가 짓고 이명식이 쓴 “왕약왈(王若曰)”로 시작되며 검은 먹으로 제1면부터 제5면까지 글자의 숫자에 맞춰 배열하여 짰다. 1800년의 경우 極行은 10자, 平行은 8자, 모두 40항으로 짰다. 제1면은 승강룡과 교명전자 및 6항을 짰고, 제2면부터 제4면까지 각면은 황색, 남색, 백색 바탕 위에 각각 9항을 짰으며, 마지막 제5면은 6항을 짰다. 제5면의 경우 승강룡 사이에 숙종대 이래로 중국연호가 생략된 ‘연월일’을 짰고, 그 위에 짠 璽寶는 영조 때 사도세자 이후부터 ‘시명지보’를 눌러 찍었다. 1800년 교명에는 ‘경신이월일’이라고 순조왕세자 책봉일과 시명지보가 찍혀 있다.

		
<p>순조 왕세자 책봉교명, 1800, 어책 30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순조비 순원왕후 왕비 책봉교명, 1802, 어책31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효명세자 왕세자 책봉교명, 1812, 어책30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헌종 왕세손 책봉교명, 1830, 어책 30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헌종비 효현왕후 왕비 책봉교명, 1837, 어책32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p>고종비 명성황후 왕비 책봉교명, 1866, 어책32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4) 교명회장식 : 도감 1방의 교명 회장**

‘교명회장식’은 도감 1방에서 교명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제작하는 체제로서 다른 것들을 ‘장황’으로 부르는 대신, 왕실문서 중 최상위에 해당되기 때문인지, 신하들에게 반사하는 교지 등과 차별화하여 ‘回粧’이라는 왕실 고유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명을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기 위해 상하좌우를 회장하는 데 사용하는 비단과 비단 뒷면에 배접하는 물품의 종류와 색상 및 크기 등을 기록하였다. 앞서 살펴본 대로 회장에 필요한 각종 비단직물은 상의원에서 직조했으며, 그밖에 비단 뒷면을 배접할 종이나 황축이나 변죽, 마개용 옥이나 금속제 첨자나 거멸못 등은 호조·내섬시·의영고·사재감·제용감·내의원·장흥고·공조·선공감 등 여러 상설아문에서 마련하여 도감 1방으로 보냈다.



<교명후면도>, 책저도감의례, 1830, 장서각 소장(k2-2724)



<순조왕세자 책봉 교명 후수단, 180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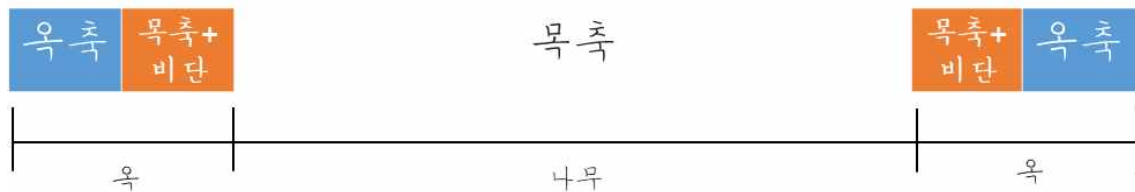
### 가. 교명의 회장 체제

‘교명회장식’에 의하면 교명은 두루마리[卷子本] 형식으로 되어 있다. 회장은 오색 비단 위에 쓴 교명문을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해 상하좌우를 배첩하고 꾸미는 일이다.

1800년 교명은 상의원에서 중앙 부분에 ‘교명’전자를 배치하고 그 좌우를 승강통으로 짚고, 가장자리 쌍사는 자적색의 얇은 선으로 구획하여 짚으며, 그 주위를 액자형으로 빙두르되 상하는 봉황 4마리를 배치하여 짚고, 그 좌우 측면은 운보문을 배치하여 짚으며 안 길이 6자 2치 3푼에 나비 1자 3치였다. 이것을 책저도감으로 들여 1방에서는 회장의 전체 길이 10자 4치 8푼으로 만들어 실제 유물은 292.3cm이고, 나비 1자 3치 5푼으로 만들어 실제 유물은 4.5cm였다. 두루마리의 가장 마지막 끝 부분을 마감하는 옥축의 위아래 마개[玉軸莫只]는 각 길이가 3치 5푼, 둘레가 3치 5푼, 위아래 출두(出頭)가 각 5푼으로 만들어 실제 유물은 길이 37.2cm이고, 지름은 3.1cm이다. 현존하는 실제 교명 유물의 경우 길이와 나비가 조금씩 달라 1736년 사도세자의 책봉교명 유물은 313.0×35.0cm여서 1800년의 것과 차이가 있다. 책봉 때마다 제작된 교명 중 현존하는 유물의 크기는 약간씩 달라 그때그때 별도의 본에 의해 유일본으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교명의 좌우에는 넉넉한 길이의 비단이 연결되어 있다. 두루마리 형태인 교명문이 횡축과 직접 닿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두루마리의 겉을 말라 교명의 표지 역할을 한다. 교명의 오른쪽과 왼쪽 끝에는 아청운문단을 사용하였다. 그 안쪽에 위치한 곳에는 백운문단으로 장식한다. 교명문의 상하에는 좁고 긴 형태의 남운문단을 사용하여 회장한다.

1800년 순조 왕세자 책봉 때 교명을 회장하기 위해 상의원에서 도감으로 보낸 바탕감은 ‘錦衣匹緞’이라고 불렀다.



<권자본 축의 형태>

먼저 바탕천의 좌우 테두리는 아청운문단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길이 1자 3치 5푼, 나비 1자 9치 5푼짜리 한 편이다. 사이에 끼울 백운문단은 길이 1자 3치 5푼, 나비짜리 1편이고, 사이에 끼울 백운문단은 길이 1자 3치 5푼, 나비 4치 5푼짜리 1편이다.

앞면 중 상하의 가장 마지막 끝 부분[邊兒]을 회장하는데 사용하는 비단은 남운



문단이다. 비교적 밝은 남색으로 되어 있으며 나비 5자 9치 3푼, 길이 5푼짜리 1편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서 붙이고 약간 여유를 두어 뒤로 들어가게 만드는 부분이 1치 5푼이므로 이것을 합하면 길이는 2치로 여유 있게 배접해야 한다.

교명의 뒷면에는 종이를 대고 그 위에 2종류의 비단으로 배접한다. 회장의 뒷면에 사용한 종이는 蟬翼紙 2권과 煙窓紙 4장이며, 나비 10자 4치 8푼, 길이 1자 3치 5푼에 해당된다. 한편 교명의 뒤쪽을 배접할 비단은 白熟絹였으며, 길이 1자 3치 5푼, 나비 7자 9치 8푼짜리 1편이다. 뒷면의 회장을 보면 두루마리의 뒷면에 대한 도식과 현존하는 1800년 <순조왕세자 책봉 교명 금의필단>을 비교할 수 있다. 교명후면도를 보면 제1면의 뒤쪽에 바를 비단과 금의필단이 그려져 있으며, 당시 금의필단은 나비 2자 5치이다. 이 부분은 조선 후기에 후수(後綬)를 짜는 것처럼 짜기 때문에 ‘後綬緞’이라고도 부르지만, 1800년에는 금의필단으로 부르고 있다. 금의필단의 제작방식은 베틀 위에 광다회를 직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실과 씨실을 평직으로 교차해서 짜는 평조직이다. 곧 날실과 씨실의 굵기에 차이를 두어 날실은 가늘고 얇은 오색실을 순차적으로 걸고 씨실을 그보다 굵은 실을 사용해서 작업하여, 오색날실이 표면에 나타나는 경조직[warp faced woven]에 해당된다. 1800년에 제작된 금의필단은 오색 날실이 황색, 녹색, 적색, 남색, 흑색이 교차하는 광다회 형식으로 직조되어 있어, 1736년 사도세자의 교명 유물이 주황 바탕에 운룡문단을 사용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렇게 금의필단을 사용한 것은 영조가 『국조속오례의』를 편찬하고 『국혼정례』를 발간한 1744년에 거행된 사도세자와 헌경왕후의 왕세자빈 책봉 교명유물부터였다. 때문에 이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무늬비단[紋緞] 대신 국내산 비단[鄉職]을 사용하여 사치를 금지하고 절검을 실천하려 했던 영조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사도세자의 책봉 교명을 비롯한 금의필단의 오색은 황색, 녹색, 적색, 남색, 흑색을 교대로 반복시켜 직조한 것이며, 이것은 이후의 교명 유물 뿐 아니라 1800년의 것에서도 일치한다.

1800년 교명을 회장할 때 교명 두루마리를 시작하는 오른쪽 시작 면은 변죽목이라 부르고, 두루마리를 마감하는 왼쪽 끝면은 횡축으로 구분하고 있다. 당시 오른쪽 변죽목과 왼쪽 횡축의 재료는 둘 다 추목을 사용하였다. 원래 이러한 목재들은 부속품이어서 상의원 등 상설아문에 소장된 것 중에서 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졌는데, 간혹 오동이나 산유자나무 등을 사용한 기록도 있다. 당시 변죽목은 길이 1자 3치, 너비 5푼, 두께 3푼짜리 1편을 사용하여 반달형의 삼각으로 축을 만들었다. 현존하는 초상화 족자의 경우 위쪽 부분을 반달형 삼각으로 처리하는데 두루마리의 시작 면을 제작하는 형식이 유사한 점이 확인된다.

두루마리를 마감하는 횡축은 사방 2치, 길이 1자짜리 1편을 들였는데, 변죽목보다 짧고 둥근 형태로 만들되 비단으로 감싸고 그 가장자리 끝을 옥으로 마감하여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나무로 축을 만들어 넣은 부분은 보이지 않게 두루마리 안으로 넣고 위아래에 짧게 옥을 낸 다음 바깥을 비단으로 감싸 보이지 않게 처리하여 끝 부분만 보이도록 꾸미는 것이다. 황축의 위아래는 ‘옥축마개(莫只玉軸)’로 막는데 상하 2개이고, 각각 길이 3치 5푼, 너비 3치 5푼이다. 이렇게 막은 다음 옥 부분이 위아래로 튀어나온 부분을 출두(出頭)하 부르며 이것은 각 5푼이다. 오색비단을 짜고 비단으로 전후좌우를 회장하고 뒷면에 금의필단을 배첩한 교명의 중요성은 그것의 위아래를 옥으로 막아 마감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옥은 전통시대에 최상위 계층이 금은보다 선호한 보석으로서, 일례로 왕실에서는 옥으로 만든 옥관자가 금관자보다 높았던 것에서 확인된다. 옥마개에 사용할 옥은 전통적으로 남양의 옥으로 지름 6푼짜리를 사용하였다.

1800년 순조의 세자교명에는 오색다회(多繪)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회는 다른 의례에서는 帶子나 纓子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현재 광다회를 짜는 기술에 해당된다. 두석침자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 나. 교명 회장 장인

19세기 이전 교명의 회장은 교명회장장이나 회장장이라는 장인들이 작업했으나, 1800년 회장을 위해 병풍장 林遇春이 동원되었다. 임우춘은 영조대에는 내수사에 소속되었다가 정조대부터는 관청에 소속되지 않고 왕실에서 필요할 때만 차출되어 활동하던 장인이었다. 그는 당시 병풍장으로 활동하던 임씨 가문의 林世萬(1705~1736)이나 林世煥(1730~1744) 등과 함께 전문적인 장인 가문을 형성했다고 여겨지는데, 그들 중에서도 그는 가장 오랜 1751년부터 1805년까지 54년간 활동하며 가장 우수한 장인이었다. 당대 최고화가였던 이명기가 그린 초상화에 장황을 했던 작품이 현존하기도 한다.

####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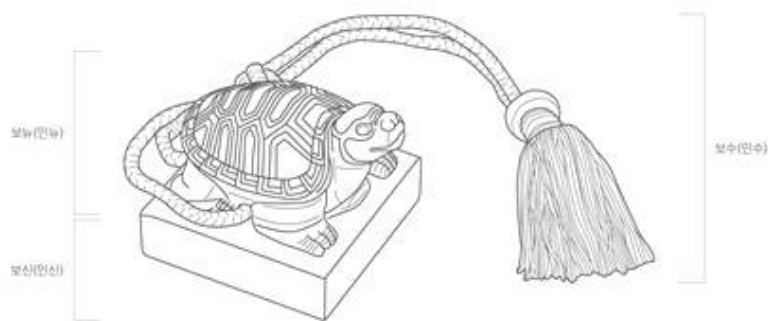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 어책-교명, 죽책, 금책』, 국립고궁박물관, 2017.
- 김경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왕실의 교명 장황」, 『고궁문화』 2, 국립고궁박물관, 2008.
- 김문식, 「조선시대 어책의 현황과 특징」, 『고궁문화』 9, 국립고궁박물관, 2016.
- 박윤미, 「17~20세기의 어책 장황 직물에 관한 연구」, 『고궁문화』 9, 국립고궁박물관, 2016.
- 손계영, 「교명의 형태연구」, 『장서각』 1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유지은, 「옥책의 보존과 분석을 통한 시대별 제작 기법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장경희, 「朝鮮後期 王室의 玉工藝匠人 연구 : 17~18世紀 玉匠과 刻手를 중심

- 으로」, 『미술사연구』 15, 미술사연구회, 2001.
-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솔과학, 2013.
  - 장경희, 『국혼과 연향용 공예품을 제작한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2.
  - 장경희, 『국장과 부묘용 의물을 제작한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3.
  - 장을연, 「청대 조선왕실 책봉교명과 조선 교명의 형태 비교연구」, 『장서각』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정다슬, 「조선 후기 옥책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20.

## IV. 직물

### 1. 어보의 직물

- 조선의 어보(御寶)는 왕권과 왕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장(印章)이다. 어보는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 등을 책봉하거나 존호를 올릴 때 사용하는 의례용과 실제로 사용하는 행정용이 있는데, 행정용은 국새(國璽)라고도 불리었다.
- 조선시대의 의례용 어보는 종묘에 모셔져 관리되어 왔으며 보물지정 대상은 총 319과이다.
- 어보는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만큼 금이나 옥 등으로 만들고 용이나 거북이 모양의 손잡이에 아름다운 영자(纓子)를 달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그림 1>



<그림 1> 어보의 구조: 『어보의 과학적 분석』 I, p.8

#### 1) 어보 장식의 명칭

- 각 의례에는 어보의 장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영자(纓子)’, ‘보영자(寶纓子)’, ‘대영자(大纓子)’, ‘방영자(方纓子)’, ‘관영자(貫纓子)’, ‘인수(印綬)’, ‘보수(寶綬)’ 등으로도 표기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영자’이다.
- ‘방영자(方纓子)’는 『희빈중궁전책례도감의궤』(1690)<sup>140)</sup>의 기록이 유일하며, ‘보영자(寶纓子)’는 총 110권의 의궤 가운데 5권, ‘대영자(大纓子)’는 『인목왕후존숭의궤』<sup>141)</sup>부터 『순종순명황후가례도감의궤』<sup>142)</sup>까지 21권에 적혀있다.
- ‘관영자(貫纓子)’는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sup>143)</sup> 등 7권에 ‘대영자’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관영자는 일반적인 품목으로 소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대영자는 품

140) 『희빈중궁전책례도감의궤』(1690), “金寶一顆 紅眞糸多繪方纓子具”.

141) 『인목왕후존숭의궤』(1624), “玉寶一顆方四寸三分二里厚一寸二分龜高二寸五分龜頭一寸四分 裏縹襖一件有紋紅緞 大纓子一件紅眞絲 紅紬纓子二件”.

142) 『순종순명황후가례도감의궤』(1882), “玉印【多會方兀蘇兀大纓子貫龜穴結之】”.

143)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1759), “金寶一顆 貫纓子一件裏縹襖一件結纓子二件 (중략) 玉印一顆所入 【方三寸五分絃五分高一寸二分龜高二寸一分龜頭一寸一分用禮器尺造 成畢刻後以眞紅絲多繪方兀流蘇大纓子一箇貫龜穴結之】”.

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때에 사용되었다.

- ‘인수(印綬)’는 의궤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는 용어인데, 『국조오례의』<sup>144)</sup>, 『조선왕조실록』<sup>145)</sup>, 『세종실록오례의』<sup>146)</sup>, 『일성록』<sup>147)</sup>, 『승정원일기』<sup>148)</sup>, 그리고 여러 의궤에는 주로 보인(寶印)과 장식용 영자를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보수(寶綬)’<sup>149)</sup>도 인수(印綬)와 같이 보인과 영자를 함께 부르는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보개조도감의궤』<sup>150)</sup>에는 寶綬의 소재로 ‘紅眞絲多繪’로 기록하여 ‘寶綬’는 보인과 영자를 통틀어서 일컫는 명칭이며 장식부분에 대해서는 ‘多繪’로 명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 이상의 용어를 정리해보면 어보에 달리는 장식은 ‘纓子’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인데 장식을 구성하는 끈목[多繪]와 장식의 주요부분인 술과 조사되었다. <그림 2>는 『보인소의궤』에서 國王之印에 관한 도설과 원문으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朝鮮國王之印 【銀鍍黃金鈕龍頭龜身】 …

纓子一件

以紅絨冒絲作圓多繪槩入紅鄉絲長三尺五寸圓圍八分 【用布帛尺】 以其一端貫龜穴兩端俱上至龜背合以每緝其末又盛方兀蘇兀 【入紙金】

홍용모사(紅絨冒絲)로 동다회를 만들고 속심으로 홍향사를 넣었다. 길이는 3자5치, 둘레는 5푼이다. 【포백척을 적용했다】. 끈의 한쪽 끝을 귀혈(龜穴)에 꿰어 넣은 다음 두 쪽 끝을 모두 위로하여 거북이 등에 이르면 합하여 매듭을 지었다. 그 맨 끝에는 방울과 술(蘇兀)을 달았다 【금전지를 넣었다】.



<그림 2> 보인소의궤(왼쪽:도설, 오른쪽:원문)

144) 『國朝五禮儀』(1474), “「嘉禮」冊王世子儀”禮曹正郎, 捧敎命·冊·函·印綬, 各置於案”.

145) 『朝鮮王朝實錄』(1432), “左中護引就勤政門外次坐, 有司奉冊·函·印綬, 各置於案上”.

146) 『世宗實錄五禮儀』「嘉禮儀式」冊王世子儀”禮曹正郎, 奉敎命·冊·函·印綬, 各置於案”.

147) 『日省錄』, 정조24년(1800) 2월 2일 “捧敎命·冊·印官, 各捧敎命·竹冊·印綬, 同置於案”.

148) 『承政院日記』정조7년(1783) 1월 11일: “印綬, 多紅紬絲多繪”, “寶綬八件【紅眞絲多繪】”.

149) 『大韓禮典』卷9「嘉禮」‘皇太子納妃儀’“掌禮院主事, 捧制命·函·冊函·印綬及冠服函, 各置於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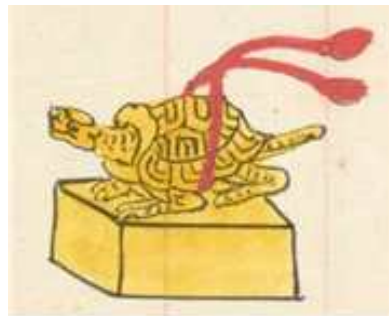
150) 『金寶改造都監儀軌』(1705), 金寶改造都監一房附錄‘本房所掌’“寶綬八件【紅眞絲多繪】”.

## 2) 영자의 구조

- 조선시대 의궤 중 보인(寶印)이 기록된 의궤에는 소재의 크기와 양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보 손잡이에 다회를 끼우고 영자를 다는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은 문종비 현덕왕후 상시호 금인에 달린 영자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의궤에 다회, ‘방울[方兀]’, 그리고 술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방울부분을 ‘방울머리’와 ‘방울기둥’으로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의궤의 도설에 묘사된 영자와 본문의 내용이나 실물과 다소 다르게 그려 있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인경왕후국장도감의궤』(1680)의 시보(諡寶) 도설<Fig. 4>에는 다회의 양끝에 방울술이 각각 한 개씩 달려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물 유물<Fig. 5>은 방울술이 한 개 달려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다.
- 의궤에 기록된 영자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조의인왕후인목왕후존숭도감의궤』에는 영자의 길이가 포백척으로 1척이라고 하였는데<sup>151)</sup> 이후의 의궤에는 주로 2척으로 명시되었다. 1690년의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에 길이가 3척5촌으로 명시되는데 이후 2척과 3척5촌이 함께 명시되다가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1747)에서부터는 대부분 3척5촌으로 기록되었다.



<그림 3> 어보 영자의 구조



<그림 4> 시보 도설



<그림 5> 숙종비 인경왕후 금보

## 3) 어보 영자의 특성과 변천

### (1) 다회(多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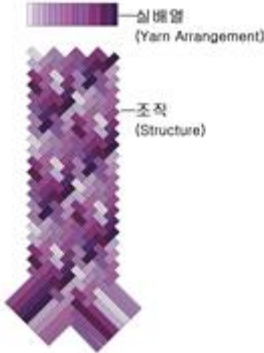


- 조선시대 의궤에는 어보제작에 필요한 각 재료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영자에 사용된 끈목은 ‘동다회(童多繪, 同多繪)’ 혹은 ‘원다회(圓多繪)’로 기록하고 있다. ‘다회는 끈목의 옛말이며, 동다회는 다회 가운데 표면이 둥근 형태의 끈목(丸組)으로 동다회(童多繪, 同多繪, 東多繪) 또는 원다회(圓多繪)라고 표기

151) 宣祖懿仁王后仁穆王后尊崇都監儀軌 (1604), “大殿玉寶一顆。【方四寸六分五厘, 厚一寸三分。龜高二寸三分, 龜頭長一寸五分, 已上用禮器尺。紅真絲纓子長一尺。甲合二尺。綬兒五寸。裏有紋紅段襦袢一尺一寸, 方紫的纓子二尺, 已上用布帛尺。】。”

하기도 한다. 同/童/東은 ‘동’의 음가자로, ‘동고리다(圈了)의 ’동‘이며, ‘둥글다’는 뜻의 동을 ‘圓’으로 한자화하여 ‘圓多繪’로도 표기하였다.<sup>152)</sup> 의궤에는 일부 童多繪, 東多繪, 同多繪로 기록되어 있으나 ‘多繪’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은 ‘圓多繪’이다. 그리고 다회 외에도 ‘수아(綬兒)’가 끈목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 우리나라에서는 둥근 동다회를 짤 때에는 안에 심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굵은 다회를 짤수록 가운데에 심을 넣어 다회가 느슨하게 되지 않도록 했다. 의궤에는 다회의 겉실로는 홍진사(紅眞絲)나 홍융모사(紅絨冒絲, 紅絨帽絲)를 사용하고 속심은 홍향사(紅鄉絲)나 홍면사(紅綿絲)를 쓴다고 하였다.
- 실물 어보 영자의 다회는 모두 심을 넣고 짠 홍색의 동다회이다. 다회의 심은 주로 홍색으로 넣었는데 이 주로 조사되었는데 1850년 이후에는 백색심의 사용이 증가했다.
- 다회는 짤 때 사용하는 실의 올수에 따라 8사, 12사, 16사 등으로 표현한다. 어보의 다회는 초기에는 주로 16사로 짠으며 후기로 갈수록 24사의 사용이 늘며 1850년 이후에는 일부 32사도 있다.<그림 6>
- 의궤에는 조선후기에 영자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진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유물의 길이는 시대별로 일정하지 않아 의궤의 내용과는 다르다.

<표 1> 다회 조직

	다회 종류		
	16사	24사	32사
다회 확대			
조직	 <p>—실배열 (Yarn Arrangement)</p> <p>—조직 (Structur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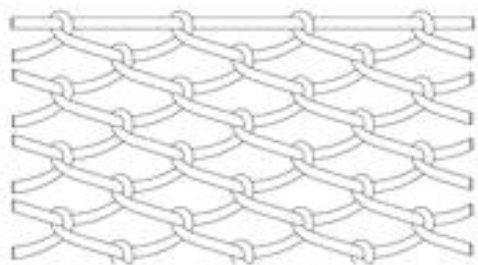
152) 오창명, 「의궤에 나타나는 借字 표기 연구(1)」, 『한국복식』 15, 1997, pp.43~44.

## (2) 방울

- 방울은 의궤에 ‘方兀’로 표기되어 있다.
- 방울은 머리와 기둥부분을 포함해서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1800년대 중기에는 기둥부분이 없어지면서 방울머리가 술과 바로 연결된다.
- 방울머리는 속틀 위에 금전지를 바르고 별도로 짠 망(網)을 위에 씌우는 방법으로 마무리한다. 망은 전 시대에 걸쳐 ◇ 형태가 되도록 엮었는데<그림 6>, 1800년대 이후에는 망 사이의 간격이 넓어 사선의 무늬가 뚜렷이 나타난다.
- 1900년대부터 방울 위에 금사와 각종 색사로 만든 가락지매듭을 끼운다.
- 방울과 술은 같은 색으로 제작하는데 1919년의 고종옥보는 방울은 홍색이며 다회와 술은 보라색으로 다른 색상으로 조합하여 만들었다. 1928년에 제작된 순종비 옥보는 다회와 술은 자주색인데 작은 방울머리가 달려있고 청록색과 황색의 가락지매듭이 끼워있다.
- 어보의 영자는 도래매듭을 1~2회 맺고 다회의 양 끝은 함께 모아 방울술을 부착하므로 각 어보마다 한 개의 방울술이 달려있다. 그런데 1830년부터 1835년에는 방울술이 다회의 양 끝에 한 개씩 달리는 영자가 등장하는데 1830년에 제작된 문조옥인과 현종옥인, 그리고 1835년의 순조금보, 문조금보의 4과가 2개의 방울술이 달리는 독특한 구조의 영자이다.

## (3) 술

- 어보 영자의 술은 다회와 방울과 동일한 홍색 견사로 제작하였다. 술의 올 수는 대략 300올 이상 많이 넣어 풍성하게 보이도록 했는데 일부는 500올 이상 넣은 것도 있다.
- 술의 꼬임방향은 전 시대에 걸쳐 오른쪽의 우연(右撚)으로 동일하나 1850년대부터 술 끝에 동그란 구멍이 있는 술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그림 7>



<그림 6> 망의 구조



(구멍 없는 술)

(구멍 있는 술)

<그림 7> 술 종류



#### (4) 속틀

- 어보에 사용된 영자는 동다회에 방울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방울술은 미리 제작해 놓은 속틀 위에 금전지를 붙이고 망을 씌운 후, 아래에 술을 달아 완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속틀은 방울머리와 방울기둥, 그리고 술받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8> 쉽게 변형되지 않도록 단단한 소재로 만들었다.



<그림 8> 속틀 구조

- 속틀 소재는 크게 한지와 나무의 2가지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는 한지틀을 사용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나무로 만든 목각틀을 사용하였다.
- 한지틀은 한지로 원하는 형태가 될 때까지 여러 겹 덧붙이면서 만드는데 한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실과 한지를 교대로 겹쳐서 만든 것도 있다. 한지틀은 1800년대 중순경까지 사용되었다.
- 실물조사한 어보 영자 가운데 술 안쪽에 한지틀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 기법<그림 8>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1유형은 별도의 술받침을 만들어 부착한 후 동다회 겉실로 묶어서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제2유형은 술받침의 가운데에서 동다회를 구멍보다 크게 묶어서 술받침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3유형은 술받침을 2단으로 끼우는 방법으로 술받침 아래에 작은 술받침을 더 끼워서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제4유형은 술받침을 2단으로 하되 첫 번째 술받침에 망을 씌우는 기법이다. 제5유형은 술받침의 겉을 명주나 색지로 덧바르는 방식이다.
- 1800년대 중순경부터는 목각틀이 나타난다. 이 당시는 술기둥이 없어진 시기로 술머리 아래에 술이 부착되는 형식으로 제작되던 때이다. 그러므로 목각틀은 방울머리와 술받침의 형태로만 깎았다. 나무를 깎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위에 붉은색으로 칠한 것도 있다.<그림 9>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lt;그림 9&gt; 한지들 종류

### (5) 목각틀

- 어보의 영자에 목각틀이 사용된 것은 1800년대 중순경의 유물에서 조사할 수 있었다. 이 당시는 술기둥이 없어진 시기로 술머리 아래에 술이 부착되는 형식으로 제작되던 때이다. 그러므로 목각틀은 방울머리와 술받침의 형태로만 깎았다. 나무로 깎은 방울머리 위에는 금전지를 붙이고 그 위에 망을 씌웠고, 술받침은 백골 상태 그대로를 사용하거나(제6유형) 혹은 붉은색의 안료를 칠하기도 했다.(제7유형)



제6유형



제7유형

&lt;그림 10&gt; 목각틀 종류

- 이상과 같이 어보 영자는 시대에 따라 세부 형태에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왕과 왕비, 왕세자 등의 신분에는 차등이 없이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는 보물 지정을 위해 실물 조사한 10점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lt;표 2&gt; 어보 영자의 특성

연번	명칭	유물번호	제작년대	사진		
				전체	망울·술 부분	속틀
1	세종 상시호 금보	종묘13559	1450			
2	세조비 정희왕후 상준호 옥보	종묘13565	1457			

연번	명칭	유물번호	제작년대	사진		
				전체	망울·술 부분	속들
3	선조 가상존호 옥보	종묘13587	1604			
4	선조비 의인왕후 상휘호 옥보	종묘13593	1610			
5	현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보	고대2214	1676			
6	숙종 상시호 금보	종묘13618	1720			
7	정조비 효의왕후 봉왕세손빈 은인	종묘13726	1762			
8	영조 가상존호 옥보	종묘13662	1772			
9	문조 상시호 옥인	종묘13760	1830			
10	순조 추상존호 금보	종묘13741	1862			

#### 4) 문화재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선시대의 어보는 왕권과 왕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장으로 손잡이에 아름다운 영자를 장식하여 화려함과 장엄함을 극대화하였다.
- 어보의 영자는 어보와 함께 제작되므로 제작 시기가 분명한 유물이며 대체로 제작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어보의 영자는 시대에 따라 세부적인 형태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어보 손잡이에 영자를 다는 구조는 대부분 일치했으며, 왕이나 왕비, 왕세자 등의 신분에는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 어보 영자와 같은 장식은 어보뿐만 아니라 조대(組帶)와 초상화의 유소, 호패(號牌), 각종 함(函)의 열쇠 장식 등 다양한 품목에 사용된 장식물이었다. 그러므로 어보 영자의 시대별 특성변화는 조선시대의 유사 품목의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편년 자료가 될 수 있다.
- 어보 영자는 매우 정교하게 만든 전통 공예품으로 우리나라를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식품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 등에 유사한 장식품은 있으나 조선시대 어보 영자의 세밀함과 뛰어난 조형미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재이다.

## □ 참고문헌

- 『金寶改造都監儀軌』, 1705.
- 『선조의인왕후인목왕후존숭도감의궤』, 1604.
- 『순종순명황후가례도감의궤』, 1882.
-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 1759.
- 『인목왕후존숭의궤』, 1624.
- 『희빈중궁전책례도감의궤』, 1690.
- 『國朝五禮儀』, 1474.
- 『大韓禮典』.
- 『世宗實錄五禮儀』.
- 오창명, 「의궤」에 나타나는 借字 표기 연구(1)」, 『한국복식』 15, 1997.

## 2. 어책의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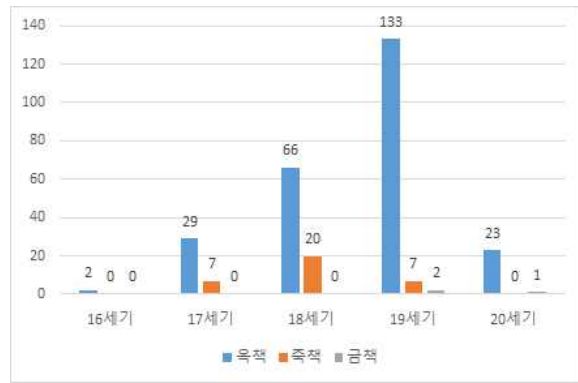
### 1) 어책의 구조 및 상황

- 조선시대의 어책(御冊)은 받는 대상에 따라 옥책(玉冊), 죽책(竹冊), 금책(金冊)으로 구분된다. 옥책(玉冊)은 왕비를 책봉하거나 왕과 왕비 등에게 존호(尊號), 시호(諡號), 휘호(徽號)를 올릴 때 그 내용을 옥간에 새겨 첩(帖)으로 만든 것으로 대개 주인공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죽책은 왕세자(王世子)와 왕세자빈(王世子嬪)을 책봉하거나 존호(尊號)나 시호 등을 수여할 때에 그에 관한 글을 죽간에 새겨 첩으로 엮었으며, 금책은 황후나 황태자, 황태자비 등을 책봉할 때 금동판에 내용을 새겼다.
- 지정 대상이 되는 어책은 총 290책으로 옥책 253책과 죽책 34책, 1897년 이후 대한제국기의 금책 3책이다(표 1, 그림 1). 옥책은 1545년(명종 원년) 인종 상시호 옥책과 옥책편이 전해지며, 이후 시대가 내려올수록 많이 제작되어 19세기

에는 133책이나 제작하였다. 20세기의 경우 1908년까지 23책이 제작되었으므로 이전보다 더 많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전해지는 죽책 유물은 가장 이른 시기가 1649년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이고 하한선이 1882년 순종비 순명효황후 왕세자빈책봉 죽책이므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제작된 죽책이 남아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18세기에 만들어졌다. 금책은 1897년 고종이 대한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신분이 격상되어 옥책 대신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옥책	죽책	금책	합계
16세기	2	-	-	2
17세기	29	7	-	36
18세기	66	20	-	86
19세기	133	7	2	142
20세기	23	-	1	24
총수량	253	34	3	290

<표 1> 세기별 어책의 종류와 수량



<그림 1> 세기별 어책 종류의 추이

- 어책은 왕실의례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옥책, 죽책, 금책 모두 아름다운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다. 1681년(숙종 7) 『정종시호도감도청의궤』에는 왕의 10첩 옥책과 왕비의 8첩 옥책을 만드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남양청옥으로 만든 옥간 5간(簡)을 모아 진홍색 비단실[紅眞絲]로 한 첩으로 묶고, 위와 아래 끝부분을 다홍색 금선단[多紅錦線段]으로 꾸민 후 도금한 구리를 가장자리에 두르고 둥근 고리로 첩을 연결하여 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첫 번째 첩과 마지막 첩의 바깥 면에도 다홍색 금선단[多紅錦線段]을 입혔다.<sup>153)</sup>
- 옥책 또는 죽책 유물의 구조(그림 2)를 보면 의궤의 기록과 일치하며, 직물은 크게 두 군데에 사용되었다. 첫째는 옥간이나 죽간을 하나의 첩으로 연결하기 위해 상하로 변철을 고정할 때 변철의 안쪽에 직물을 먼저 감싸준 회粧(繪粧, 回粧) 부분이고(그림 3), 둘째는 어책의 첫 번째 첩과 마지막 첩의 바깥쪽 겉면 전체를 직물로 씌운 의(衣) 부분이다(그림 4, 그림 5). 이렇게 장황을 함으로써 어책을 접어서 보관할 때 위아래면과 앞뒷면이 모두 비단으로 마감되었다. 또한 첩과 첩 사이에는 격유보[隔襦褌]를 끼워서 어책을 소중하게 보관하였다.

153) 『定宗諡號都監都廳儀軌』 甘結秩. “大王玉冊十貼一件 王后玉冊八貼一件 … 以五簡爲一貼 … 以紅眞絲 結貼 上下頭粧 以多紅錦線段 以銅鍍金爲編鐵兩頭邊 皆有圓環連貼成冊 初貼終貼外面以多紅錦線段衣之”



<그림 2> 옥책의 각 부분 명칭 : 유지은, 2012, p.27.



<그림 3> 위와 아래의 회장(繪粧,回粧)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 1649년, 종묘13481



<그림 4> 겉면의 의(衣)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



<그림 5> 어책의 상황  
『진중추존시의궤』, 1908년

## 2) 어책 장황 직물의 특성과 시대적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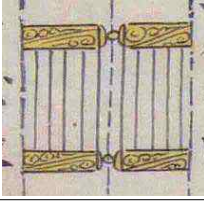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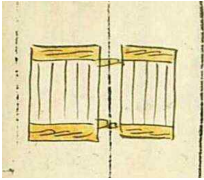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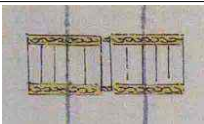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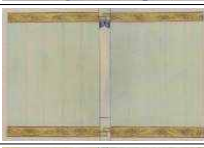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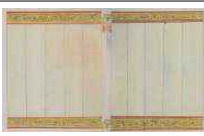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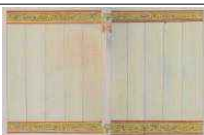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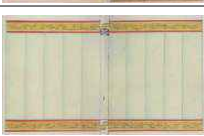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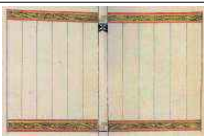

### (1) 의궤에 기록된 장황 직물의 종류와 변천

- 어책의 장황에 사용된 직물을 의궤(儀軌)로부터 확인해보면 다홍금선(多紅錦線), 대홍금선(大紅錦線), 홍금선(紅錦線), 다홍금선단(多紅錦線段), 홍금선단(紅錦線段), 홍금단(紅錦段), 다홍운문단(多紅雲紋緞), 다홍운문대단(多紅雲紋大緞), 진홍운문단(眞紅雲紋緞), 홍도류단(紅桃柳緞), 홍운문단(紅雲紋緞), 진홍공단(眞紅貢緞), 홍공단(紅貢緞), 홍성화단(紅盛禾緞), 홍영초단(紅寧綃緞), 홍한단(紅漢緞), 홍광직(紅廣織), 홍광직장(紅廣織粧), 홍수주(紅水紬), 홍숙초(紅熟綃)까지 약 20종이 기록되어 있다.<sup>154)</sup> 색은 홍색이 가장 많으며, 다홍, 대홍, 진홍 역시 홍색 계열로 명도와 채도의 차이는 다소 있다하더라도 붉은색 비단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단의 종류로는 금선 혹은 금선단, 단, 대단, 공단, 화단, 한단, 광직, 광직장단, 수주, 숙초 등이 쓰여 있다.
- 보다 구체적으로 장황 직물을 살펴보기 위해 시호나 존호를 올릴 때 제작한 옥책에 사용한 직물을 비교해보았다. <표 2>를 보면 17세기와 18세기 전반까지의 의궤에서는 다홍색 바탕에 금실을 넣어서 화려하게 무늬를 표현한 금선단을 사용하였고, 색상은 여전히 홍색 계열이지만 1755년(영조 31) 『숙종존숭도감의궤』부터는 금실 없이 구름무늬를 넣은 운문단, 혹은 무늬마저 없는 공단, 광적으로 바뀌었다. 옥책에 금선단을 사용한 시기인 18세기 전반까지는 옥책의 장황에 사용된 직물이 동일하고 옥책 사이에 끼워 넣은 격유보는 덜 화려한 직물을 사용하였다. 즉 옥책의 위와 아래 끝부분[上下頭]과 시작과 끝 첩의 겉면[外面]에는 금선단을 사용하고 격유보에는 금실 없이 무늬만 있는 단[有紋緞]을 사용하였다. 이후 18세기 중엽부터는 소박한 직물이 사용되면서 눈에 보이는 겉면과 격유보에 구름무늬가 있는 운문단을 쓰고 변철로 인해 노출이 덜 되는 위와 아래부분은 무늬가 없는 공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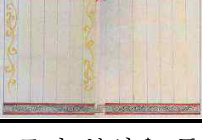
<표 2> 의궤에 기록된 옥책의 위치별 직물의 종류

의궤명	제작시기	도설	위와 아래 [上下頭]	겉면 [外面]	격유보 (隔襦袂)
정종시호 도감도청의궤	1681년		上下頭粧 以多紅錦線段	初貼終貼外面 以多紅錦線段 衣之	一玉冊隔襦袂十六件 每件多紅有紋段

154) 국립고궁박물관(2017), 『조선왕조의 옥책 5』, p. 247.

의궤명	제작시기	도설	위와 아래 [上下頭]	겉면 [外面]	격유보 (隔襦袂)
숙종초존승 도감의궤	1713년		上下頭粧 以多紅錦線	初終貼外面 皆以多紅錦線 衣之	隔襦袂三十八件內 ... 每件多紅雲紋大段
효종가상시호 도감의궤	1740년		上下頭粧 以多紅錦線	初終貼外面 以多紅錦線 衣之	一玉冊隔襦袂十六 件每件多紅有紋段
숙종존승 도감의궤	1755년		上下頭 以多紅雲紋大緞 粧	初終貼外面 以多紅雲紋大緞 衣之	隔襦袂三件 每件所入 多紅廣的從實入次
헌종상호 도감의궤	1853년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初終貼外面 以紅雲紋緞爲衣	隔襦袂五十七件 內外俱用紅雲紋緞 槩入去核錦花 長廣從貼
순조추상존호 도감의궤	1857년		上下 以紅廣的纏頭	初終貼外面 以紅廣的爲衣	隔襦袂十一件 內外俱用紅廣的 入去核綿花 長廣從貼
순조추상존호 도감의궤	1858년		上下 以紅貢緞纏頭	初終貼外面 以紅雲紋緞爲衣	隔襦袂二十六件 內外俱用紅雲紋緞 槩入去核綿花 長廣從貼
순조추상존호 도감의궤	1862년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初終貼外面 以紅雲紋緞爲衣	隔襦袂二十六件 內外俱用紅雲紋緞
철종상존호 도감의궤	1863년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初終貼外面 以紅雲紋緞爲衣	隔襦袂二十六件 內外俱用紅雲紋緞 槩入去核錦花 長廣從貼
문조상존호 도감의궤	1875년	-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初終貼外面 以紅貢緞爲衣	隔襦袂十八件 內外俱用紅方紗紬 槩入去核錦花 長廣從貼
영조묘호 도감의궤	1890년		上下 以紅廣的纏頭	初終貼外面 以紅廣的爲衣	隔襦袂九件 內外俱用紅廣的 槩入去核錦花 長廣從貼
영조묘호 도감의궤	1890년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初終貼外面 以紅雲紋緞爲衣	隔襦袂二十七件 內外俱用紅方紗紬 槩入去核錦花 長廣從貼



의궤명	제작시기	도설	위와 아래 [上下頭]	겉면 [外面]	격유보 (隔襦袂)
문조상호 도감의궤	1892년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初終貼外面 以紅貢緞爲衣	隔襦袂四十九件 內外俱用紅方紗紬 槩入去核綿花 長廣從貼
인조상호 도감의궤	1900년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初終貼外面 以紅貢緞爲衣	隔襦袂三十六件 內外俱用紅紗紬 槩入去核綿花 長廣從貼
효종상호 도감의궤	1900년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初終貼外面 以紅貢緞爲衣	隔襦袂三十六件 內外俱用紅紗紬 槩入去核綿花 長廣從貼
고종상호 도감의궤	1900년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初終貼外面 以紅貢緞爲衣	隔襦袂三十六件 內外俱用紅紗紬 槩入去核綿花 長廣從貼
문조상호 도감의궤	1902년		上下 以眞紅雲紋緞 纏頭	初終貼外面 以眞紅雲紋緞 爲衣	隔襦袂三十四件 內外俱用眞紅雲紋緞 槩入去核綿花 長廣從貼
진종추춘시 의궤	1908년		上下 以眞紅雲紋緞 纏頭	初終貼外面 以眞紅雲紋緞 爲衣	隔襦袂二十一件 內外俱用眞紅雲紋緞 槩入去核錦花 長廣從貼

출처: 유지은, 「옥책의 보존과 분석을 통한 시대별 제작 기법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10~24를 바탕으로 재구성 및 추가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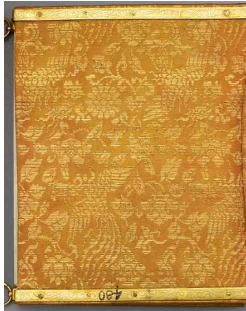


## (2) 유물로 확인되는 장황 직물의 종류와 변천

- 어책 유물에 사용된 장황 직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물을 색, 조직, 무늬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색을 보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옥책, 죽책, 금책 유물의 장황 직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붉은색이었다. 일부 유물은 황색이나 갈색 기운을 띠지만 이 역시 본래는 홍색 직물로 꾸몄다가 변색과 탈색현상에 의해 색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옥책 가운데 58책은 겉면의 장황 직물이 손실되어 있으나 다행히 상단과 하단에는 직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장황직물의 종류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다.
- 장황의 위치와 방식은 의궤 기록과 일치하였으며, 옥책과 죽책의 상단과 하단, 가장 앞과 뒤의 바깥 표면을 직물로 감쌌는데 금선단(錦線段), 문단(紋緞), 무문단(無紋緞), 문능(紋綾), 주(紬)와 견(絹) 등 다양한 직물이 사용되었다. 어책을 장황한 여러 직물들을 조직에 따라 대표 유물을 뽑아보면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중 의궤에서 금선단 혹은 금선이라고 기록된 직물은 금실을 넣어

구름, 용, 봉황 등의 무늬를 표현한 최고급 직물이었으며, 이처럼 추가로 금실을 넣어서 직조하는 방법을 직금(織金)이라고 한다. 이때 사용한 금실은 대부분 종이에 접착제를 바르고 금박을 올린 뒤 가늘게 잘라서 실로 사용한 편금사(片金絲)였다. 조선시대 사역원에서 만든 어학서인 『역어유해(譯語類解)』에는 ‘織金段子’라 쓰고 ‘금선비단’으로 언해하고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에는 ‘片金’으로 쓰고 ‘금선단’으로 언해하였으며<sup>155)</sup>,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비롯한 각 문헌에는 ‘금선(錦線)’<sup>156)</sup>, 혹은 ‘직금(織金)’<sup>157)</sup>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 의궤에서는 동일하게 금선단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바탕직물을 짜는 방법에 따라 직금단과 직금능으로 구분된다. <표 3>의 첫 번째 직물인 직금단은 바탕직물을 수자직으로 짠 단(緞)인데 추가로 금실을 넣어서 짠 직금기법이 결합된 것이고, 두 번째 직물인 직금능은 바탕직물을 능직으로 짠 능(綾)인데 금실을 넣어서 짠 직금기법이 결합된 것이다. 바탕직물을 단(緞)으로 짜면서 무늬가 없으면 세 번째 직물인 무문단(無紋緞)이고, 무늬가 있으면 네 번째 직물인 문단(紋緞)이다. 바탕조직이 능(綾)이라면 무문능, 문능이다. 여기에 직물에 넣은 무늬에 따라 용이 있으면 용(龍), 봉황이 있으면 봉(鳳), 꽃이 있으면 화(花), 구름이 있으면 운(雲), 각종 보배가 있으면 보(寶)를 직물명에 넣으며, 여러 가지 무늬가 결합되면 직물명칭도 화봉문, 운보문, 운용봉보문과 같이 무늬를 나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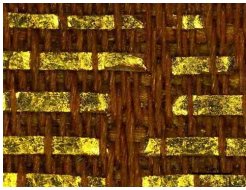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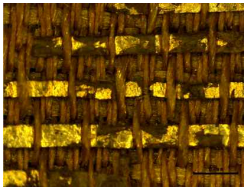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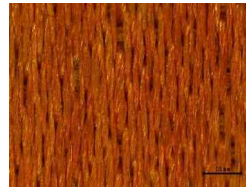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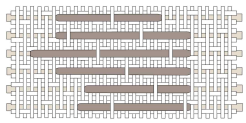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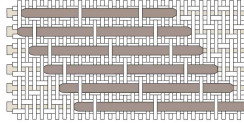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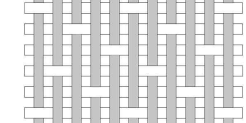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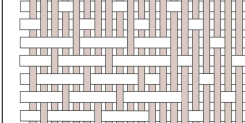
<표 3> 어책 장황 직물의 종류

직물종류	화봉문직금단 (花鳳紋織金緞)	화봉문직금능 (花鳳紋織金綾)	무문단 (無紋緞)	운보문단 (雲寶紋緞)
유물명칭	인조비 인열왕후 왕비 책봉 옥책	효종비 인선왕후 왕비 책봉 옥책	영조비 정성왕후 상존호 옥책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제작년도	1623 (인조즉위년)	1651 (효종2년)	1740 (영조16년)	1747 (영조23년)
어책의 장황 직물				

155) 서울대학교규장각, 『譯語類解 譯語類解補』 (서울: 다해미디어, 2009), p.148·335.

156) 『조선왕조실록』 태종6년. “是日朝, 黃儼使其副韓帖木兒, 詣闕獻茄藍香間珊瑚帽珠一部、建康弓二張、綵段錦線各一匹、金剛子三貫、椰瓢八顆及諸菓實”

157) 『조선왕조실록』 단종2년. “文武官員常服胸背方花樣, 已有定式, 用雜色紵絲綾羅紗繡, 或織金, 各照品級穿着”

확대사진				
직물무늬	화봉문	화봉문	(없음)	운보문
직물조직	직금단	직금능	무문단	문단
조직도				

- <표 4>를 보면 유물 역시 18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장황 직물의 종류가 크게 변화하며, 이는 의궤에서 보이는 경향과 일치한다. 18세기 전반까지 옥책과 죽책은 직금단 혹은 직금능의 화려하고 값비싼 금선단으로 장황을 하다가 18세기 중엽 이후로는 점차 문단, 문능, 또는 무문단 등 금선단에 비해 소박하고 가격이 낮은 직물로 바뀌었다.
- 18세기 전반까지의 옥책 유물은 해당 의궤에서 금선(錦線), 금선단(錦線段)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색상은 다홍색이나 홍색으로 명시하고 있다. 옥책의 장황 직물은 바탕직물을 수자직으로 짜고 금실로 무늬를 넣은 직금단이 주를 이루는데, 1651년에 제작된 인조계비 장렬왕후 옥책과 효종비 인선왕후 봉왕비 옥책에서만 직금능이 사용되었다(표 4-5, 4-6). 그런데 직금능으로 장황한 두 옥책의 해당 의궤에는 ‘홍금선단(紅錦線段)’으로 기록되어 있어<sup>158)</sup> 실제 장황에 사용된 직물과 의궤의 내용이 다르다. 이것은 당시 직금단과 직금능이라는 바탕조직에 의해 구분하는 전문적인 직물명 대신 직금, 직금단, 혹은 금선, 금선단이 일반적인 명칭으로 통용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
- 옥책의 장황 직물에는 다양한 길상무늬가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용과 봉황, 구름을 주제로 한 무늬가 많다. 1623년에 제작된 <표 4-1>의 인조비 인렬왕후 왕비책봉 옥책에는 연꽃, 모란, 국화, 동백 등의 꽃 사이를 봉황이 날고 있는 화봉문(花鳳紋) 직금단이 사용되었다. <표 4-6>의 현종 상시호 옥책의 겉면 직물은 구름과 용, 그리고 보상화가 어우러져있는 운용화문(雲龍花紋)의 직금단이다. 구름은 사합여의 형태이며 운두에서 나온 꼬리가 서로 이어지는 사이에 여의주를 향해 날고 있는 용과 보상화가 배치되어 있다. 1676년에 제작된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표 4-8)을 비롯한 현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책(표 4-9)과 숙종비 인경왕후 왕비책봉 옥책의 직물 무늬도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현종 상존시묘호 옥책(표 4-6)과 비교해보면 운두에 작은 꼬리 2개가

158) 『장렬왕후존숭도감의궤』. “...上下頭粧以紅錦線段且以銅鍍金爲編鐵...”  
『인선왕후책례도감의궤』. “...上下頭粧以多紅錦線段且以銅鍍黃金爲邊鐵...”

더 달려있는 형태이다. 효종비 인선왕후 상시호 옥책(표 4-7)의 직물은 구름이 꼬리가 좀 더 마름모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운데에는 용과 봉황이 하늘을 날고 있으며 여백에는 조그마한 보문(寶紋)으로 메워져있는 운용봉보문(雲龍鳳寶紋)의 직금단이다. 보문은 불교, 도교 등의 상징물을 비롯하여 갖가지 보배로운 유형, 무형의 기물을 무늬로 나타낸 것으로 <표 4-7>에 시문된 보문은 전보(錢寶), 서보(書寶), 방승(方勝), 卍, 매화 등의 잡보문이다. 이 운용봉보문직금단은 현전하는 조선시대의 직물 가운데 드문 무늬의 직물이다.

-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표 4-9)은 1661년 장렬왕후에게 ‘공신(恭愼)’이라는 존호를 올린 옥책이었으나 화재로 손상되어 1687년(숙종 13)에 다시 제작하였다. 직물은 직금단으로 장황하였으나 편금사가 거의 손실되어 무늬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으며 황색으로 변색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구름과 연꽃, 그리고 용무늬가 시문되어 있는데 구름의 형태는 卍자형의 구름꼬리가 달린 사합여의 형태의 구름이며 측면형의 연꽃과 한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보며 둥글게 틀고 있는 원용문(圓龍紋)이 배치되어 있는 원용화운문(圓龍花雲紋)의 직금단이다. 이 직물은 숙종계비 인현왕후 상시호 옥책(1701년)과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시호 옥책(표 4-10)에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무늬의 직금단을 벽암대사의 가사와 화순옹주의 원삼에서 찾아볼 수 있어, 어책의 장황 외에 복식 재료로도 사용되었던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벽암대사의 가사는 현재 화엄사에 소장되어 있는데 편은사(片銀絲)로 무늬를 시문한 직은단(織銀緞)이며 인조로부터 하사받았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 있는 유물<sup>159)</sup>이다. 화순옹주(1720~1758)는 영조의 서장녀로 옹주가 착용했던 초록색 원삼의 한삼에 편금사(片金絲)로 시문한 유사한 직물<sup>160)</sup>이 사용되었다. 이 유물들은 모두 왕실과 관련이 있어 당시 원용화운문직금단이 왕실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1740년(영조 16)에 제작된 효종 추상존호 옥책(표 4-11)은 붉은 색 바탕에 금실로 화려한 연꽃무늬를 나타낸 직금단이 사용되었고 해당 의궤<sup>161)</sup>에는 ‘다홍금선(多紅錦線)’으로 명시되어 있어 의궤의 내용과 실제 옥책의 직물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시기에 제작된 영조 상존호 옥책이나 영조비 정성왕후 상존호 옥책(표 4-12)은 붉은 색 무문단으로 장황되어 있는데 의궤에는 ‘다홍금선(多紅

159) 화엄사에는 벽암대사의 가사와 관련해서 교지와 벽암대사비가 소장되어 있다. 교지에는 1626년(인조4)에 ‘보은천교 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의 칭호와 의발을 하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강선정은 「조선중기 이후 가사(袈裟)의 유형과 변천」에서 현재 화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직은가사(織銀袈裟)가 교지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당시의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선정, 「조선중기 이후 가사(袈裟)의 유형과 변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p.83, 104~106.

국립중앙박물관, 『화엄사의 불교미술』 (서울: 디자인 나눔, 2010), pp.196~197.

160) 국립문화재연구소, 『우리나라 전통무늬 1 직물』 (서울: 놀와, 2006), pp.258~259.

161) 『孝宗加上諡號都監儀軌』 票目秩, “粧以多紅錦線”

錦線)’으로 명시되어 있다.<sup>162)</sup> 즉, 1740년의 의궤에는 다홍금선단으로 겹면을 짜서 장황하도록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는 그에 맞게 직금단, 즉 금선단을 사용하였으나 의궤의 기록과는 달리 무문단으로 제작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장황 직물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1750년대에 들어서면 이전 시기에 비해 문단(紋緞), 무문단(無紋緞), 주(紬) 등의 비교적 소박한 직물로 장황되었다. 무늬가 없는 직물을 먼저 살펴보면, 1757년에 제작된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시호 옥책과 영조비 정성왕후 상시호 옥책은 모두 홍색 무문단으로 꾸며져 있다. 아무 무늬가 없이 수자직으로 단순하게 제작된 무문단을 사용하여 만든 옥책은 해당 의궤를 찾아보면 ‘홍광직(紅廣織)’<sup>163)</sup>, ‘홍광적(紅廣的)’<sup>164)</sup>, ‘진홍공단(眞紅貢緞)’<sup>165)</sup>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실제 장황에 사용된 직물과는 다른 것도 있다. 광직과 광적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직물들인데 광직에 대해서 영조대에 “빈전에 홍광직으로 두른 휘장을 붉은 주(紬)로 대신하고”라고 하여 주보다는 가격이 비싼 직물이었다고 짐작된다.<sup>166)</sup>
- 수자직 바탕에 무늬가 들어간 문단(紋緞)도 자주 사용되었으며, 특히 구름 사이에 보배가 배치된 운보문단(雲寶紋緞)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다만 의궤에서는 이 직물을 운문단으로 기록하고 있다. 구름무늬의 운문단은 조선시대에 가장 애용하던 직물 가운데 하나로 복식뿐만 아니라 침구류, 장식용 등 다용도로 사용되었다. 옥책의 장황에도 상당수가 사용되어 있는데 옥책은 제작년도가 분명하므로 구름무늬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직물의 구름무늬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오직 구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단독운문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둘째, 구름 주변에 여러 가지의 무늬와 함께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대개 길상무늬가 함께 표현되어 있다. 옥책에는 단독운문보다는 팔보, 잡보 등의 보배무늬가 결합된 운보문(雲寶紋)이 사용되었는데 운보문이 옥책 장황에 사용된 것은 1747년부터이다.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표 4-13, 1747년)의 운보문단은 운두를 중심으로 구름꼬리가 사선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백에는 서각, 서보, 여의, 산호, 전보, 방승, 여의보주, 보(黼)의 8가지 보문(寶紋, 보배무늬)이 시문되어 있다. 1772년에 제작된 영조 가상존호 옥책(표 4-15)도 이와 유사한 문양이나 구름머리가 작고 양옆에 달린 작은 구름꼬리가 길게 뻗어나가고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구름사이에 배치된 보문의 크기가 약간 커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순조 상존호 옥책(표 4-20, 1827년)의 운보문단에서는 구름머리가 수직방향으로 길어진 형태가 확인되며,

162)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2冊, “初貼終貼外面以多紅錦線衣之”  
 163) 『인원왕후숙빈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各樣物件造作秩 “初終貼外面以紅廣織粧”  
 『정성왕후국장도감의궤』, 各樣物件造作秩 “初終貼外面以紅廣織粧”  
 164) 『영조국장도감의궤』, 各樣物件造作秩 “初終貼外面以紅廣的粧”  
 165) 『영조정성왕후진종효순왕후부묘도감의궤』, “初終貼外面以眞紅貢緞衣”  
 166) 『조선왕조실록』 영조28년. “後廢殿紅廣織帳, 代以紅紬…”

태조 추상존호 옥책(표 4-27, 1899년)에는 구름의 꼬리가 분리되었으며 여의보주, 근자, 방승, 횡적(橫笛), 보검(寶劍), 음양판(陰陽板) 등의 잡보와 도교의 보문이 혼용되어 있다. 철종 상존호 옥책(표 4-23, 1863년)부터는 구름이 마치 실과 같은 가는 사운(絲雲)의 형태에 꽃이나 나비가 혼재된 구조의 문단이 사용되었다.

- 운보문 외에도 옥책 장황에 쓰인 문직물로는 도류단, 영초단 등이 있으며, 19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도류문은 복숭아[桃], 석류[榴], 그리고 불수감[佛手]이 어우러져 표현된 무늬로 도류불수문(桃榴佛手紋)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수자직으로 직조되었고 의궤를 비롯한 각 문헌에는 주로 도류단으로 기록되어 있다. 헌종 상시호 옥책(표 4-21, 1849년)과 고종비 명성왕후 왕비책봉 옥책(표 4-2, 1866년)에 도류단이 사용되었는데, 고종비 명성왕후 왕비책봉 옥책의 도류단은 복숭아, 석류, 불수감과 더불어 박쥐가 함께 있는 무늬가 표현되어 있다.
- 영초단(永綃緞, 寧綃緞)은 「조선향염직물명칭류회(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에 “보통 영초(永綃)라고도 하는데 바탕직물은 평직으로, 무늬부분은 수자직으로 짠 직물로 도톰한 수직물(手織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sup>167)</sup> 순조비 순원왕후 상시호 옥책(표 4-22, 1857년)의 장황에 사용된 영초단은 ‘별문영초단(別紋寧綃緞)’이라고도 하는데 바탕직물도 능직으로 짜고 커다란 원용문(圓龍紋) 역시 능직으로 짠 직물이다. 수자직으로 짠 것이 아니라 능직으로 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緞)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지만 조선후기에는 이런 직물을 영초단이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시대가 내려올수록 운보문단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하던 여러 무늬의 직물이 옥책의 장황에도 사용되었다.
- <표 4>에서 죽책만 별도로 정리해보면, 현존하는 죽책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649년 현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하면서 만든 현종 봉왕세손 죽책(표 4-3)으로 바깥쪽을 감싼 직물은 운용문직금단이다. 사합여의 형태의 구름머리에 꼬리가 사선형으로 이어지며 그 사이에는 여의주를 향해 날고 있는 용이 배치되어 있다. 이 운용문직금단은 옥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직물로 옥책뿐만 아니라 복식에서도 현재까지 전하여지는 것이 거의 드문 유형의 직물이다. 중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도안의 직금단이 명대에 사용되었으며 홍색, 남색 바탕에 편금사로 직조한 것이 있다.<sup>168)</sup> 1736년까지의 죽책은 직금단으로 장황을 했는데 운용문, 화문 등 옥책에 사용된 문양의 직금단과 비슷한 직물들이다. 반면 18세기 후반의 죽책부터는 장황 직물이 금선단 대신 운보문단이나 무문단으로 바뀐다. 1776년 장조 상시호 죽책(표 4-17)은 운보문단으로, 1800년 순조 왕세자책봉 죽책(표 4-18)을 비롯한 4책의 장황에는 무늬없이 평직으로 직조된 홍색의 주(紬)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죽책도 옥책과 마찬가지로 후기로 갈수록 화려



167) 吉永彦太郎, 「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 『朝鮮彙報』(1915), p.148.

168) 黃能馥·陳娟娟 書, 이희영 譯, 『중국의 비단역사 칠천 년』(과주: 한국학술정보, 2016), pp.257·259.

하지 않은 직물로 장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금책 역시 시대적인 경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금책은 황후와 황태자, 황태자비 등을 책봉할 때 명문을 금동판에 새겨 책으로 엮은 것으로 대한제국시대에 제작되었다. 금책은 옥책의 옥간, 죽책의 죽간이 여러 조각 모여서 하나의 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판이 곧 하나의 첩이므로, 직물을 감싸거나 위와 아래에 변철을 고정시킬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겉면에만 직물을 붙여주었다. 금책은 현재 3점이 전해지고 있는데 2점은 1897년에 제작되었고 나머지 1점은 1907년에 제작된 것이다. 1897년에 만들어진 고종비 명성황후 황후책봉 금책(표 4-25)은 홍색 운문단으로 장식되어 있고, 같은 해 제작된 순종 황태자책봉 금책(표 4-26)은 무문단으로 겉면을 꾸몄다. 황후와 황태자를 책봉하는 어책에도 화려하고 값비싼 직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옥책, 죽책, 금책의 장황 직물을 비교해보면 직물의 종류나 변화 양상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어책의 수급대상이 다르더라도 장황에는 차별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간혹 이러한 시대별 변화와는 다른 옥책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금선단이 주로 쓰였던 시기인 1545년에 제작된 인종 상시호 옥책(표 4-14)은 무문단으로 장황되어 있다. 이 옥책은 1636년 병자호란의 발발로 종묘에 매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757년(영조 33) 종묘에서 영조의 원비(元妃)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우주(虞主)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후 다시 제작되어 종묘의 태실(太室)에 봉안되었다고 한다.<sup>169)</sup> 그러므로 최초로 제작되었을 때에는 금선단으로 장황하였는데 오랜 기간 매립되어 있으면서 유기질인 직물은 손상되어 새로운 무문단으로 보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4> 어책 장황 직물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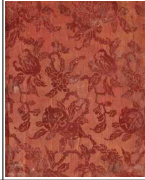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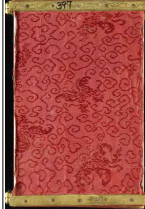



연번	종류	유물명	유물번호	제작년도	직물	무늬	조직
1	옥책	인조비 인렬왕후 왕비책봉 옥책	종묘13245	1623 (인조즉위년)		화봉문	직금단
2	옥책	인조비 인렬왕후 상시호 옥책	종묘13247	1636 (인조14)		용봉 화문	직금단

16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조선 왕실 어책(御冊) 조사 학술연구』 (2012), p.52.

연번	종류	유물명	유물번호	제작년도	직물	무늬	조직
3	죽책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	종묘13481	1649 (인조27년)		운용문	직금단
4	옥책	인조계비 장렬왕후 상존호 옥책	종묘13251	1651 (효종2년)		화봉문	직금능
5	옥책	효종비 인선왕후 왕비책봉 옥책	종묘13260	1651 (효종2년)		화봉문	직금능
6	옥책	현종 상시호 옥책	종묘13264	1674 (숙종즉위년)		운용 화문	직금단
7	옥책	효종비 인선왕후 상시호 옥책	종묘13262	1674 (숙종즉위년)		운용 봉보문	직금단
8	옥책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종묘13252	1687 (숙종13년)		운용 화문	직금단
9	옥책	현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책	종묘13267	1676 (숙종2년)		운용 화문	직금단
10	옥책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시호 옥책	종묘13308	1730 (영조6년)		원용 화운문	직금단
11	옥책	효종 추상존호 옥책	종묘13258	1740 (영조16년)		화문	직금단



연번	종류	유물명	유물번호	제작년도	직물	무늬	조각
12	옥책	영조비 정성왕후 상존호 옥책	종묘13319	1740 (영조16년)		-	무문단
13	옥책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종묘13295	1747 (영조23년)		운보문	문단
14	옥책	인종 상시호 옥책	종묘13239	1757 (영조33년) 재제작		-	무문단
15	옥책	영조 가상존호 옥책	종묘13312	1772 (영조48년)		운보문	문단
16	옥책	숙종 추상존호 옥책	종묘13273	1776 (정조즉위년)		운보문	문단
17	죽책	장조 상시호 죽책	종묘13499	1776 (정조즉위년)		운보문	단
18	죽책	순조 왕세자책봉 죽책	종묘13508	1800 (정조24년)		-	주
19	옥책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옥책	종묘13374	1824 (순조24년)		운보문	문단

연번	종류	유물명	유물번호	제작년도	직물	무늬	조직
20	옥책	순조 상존호 옥책	종묘13362	1827 (순조27년)		운보문	문단
21	옥책	헌종 상시호 옥책	종묘13428	1849 (철종즉위년)		도류 불수문	문단
22	옥책	순조비 순원왕후 상시호 옥책	종묘13382	1857 (철종8년)		영초문	문단
23	옥책	철종 상존호 옥책	종묘13451	1863 (고종즉위년)		운보문	문단
24	옥책	고종비 명성왕후 왕비책봉 옥책	종묘13468	1866 (고종3년)		도류 불수문	문단
25	금책	고종비 명성황후 황후책봉 금책	종묘13544	1897 (대한제국, 광무1년)		운보문	문단
26	금책	순종 황태자책봉 금책	신수9237	1897 (대한제국, 광무1년)		-	무문단

연번	종류	유물명	유물번호	제작년도	직물	무늬	조직
27	옥책	태조 추상존호 옥책	종묘13226	1899 (대한제국, 광무3년)		운보문	문단

### 3) 문화재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어책은 조선시대 최고의 왕실 의례 품목으로 왕권의 상징이며, 50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작되면서 왕조의 정통성과 권위를 계승한 매개체로서 가치가 매우 높은 기록문화 유산이다. 어책에는 대상에 따라 옥책, 죽책, 금책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역사적으로 발급자와 수급자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 조형적으로도 아름다운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고 부속품 역시 다양한 섬유류로 구성되어 있다.
- 옥책과 죽책의 상단과 하단, 첫 번째 첩과 마지막 첩의 바깥쪽 겉면은 직물로 장황을 하였는데 문헌기록에 금선단(錦線段)이라고 쓰여진 직금단과 직금능 뿐 아니라, 문단(紋緞), 무문단(無紋緞), 문능(紋綾), 주(紬)와 견(絹) 등 다양한 직물이 사용되었다. 이중 금선단은 편금사(片金絲)로 무늬를 시문한 최고급의 직물이었으며 구름, 용, 봉황 등의 길상무늬를 매우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다. 18세기 전반까지 옥책과 죽책은 직금단이나 직금능과 같은 화려하고 값비싼 금선단으로 장황을 하다가 18세기 중엽부터 점차 문단, 문능, 또는 무문단 등 금선단에 비해 가격이 낮고 소박한 직물로 바뀌었다. 이는 절용(節用)을 중시하고 실천하는 조선후기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이념을 표출한 것이다.
- 궁중에서 제작되었던 만큼 화려하고 다양한 직물로 장황하였으며 일부는 직물 부분이 손실되거나 변색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제작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작연대가 확실하여 조선시대 직물사 연구에 있어 절대적인 편년의 기준이 된다. 또한 의례나 등록 등 문헌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시대별 직물명칭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며, 무늬의 종류와 배치로부터 연대별 특징을 파악하여 초상화, 복식 등 다른 유물의 연대까지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고유한 색상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어 전통 염색 및 색상 연구에 있어서도 사료적 가치가 높다.
- 이상으로부터 조선왕조 어책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로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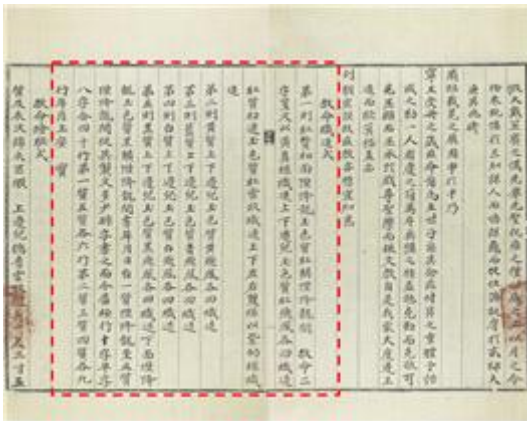
##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
- 『영조국장도감의궤』 .
- 『영조정성왕후진종효순왕후부묘도감의궤』 .
- 『인선왕후책례도감의궤』 .
-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
-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
- 『장렬왕후존숭도감의궤』 .
- 『정성왕후국장도감의궤』 .
- 『정종시호도감도청의궤』 .
- 『효종가상시호도감의궤』 .
- 국립고궁박물관 편,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08).
- 국립고궁박물관 편, 『조선 왕조 어책 : 교명·죽책·금책』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7).
- 국립고궁박물관 편, 『조선왕조의 옥책 5』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7).
- 국립문화재연구소, 『우리나라 전통무늬 1 직물』 (서울: 놀와, 2006).
- 국립중앙박물관, 『화엄사의 불교미술』 (서울: 디자인 나눔, 2010).
- 吉永彦太郎, 「朝鮮尙染織物名稱類彙」, 『朝鮮彙報』 (1915).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조선 왕실 어책(御冊) 조사 학술연구』 (2012).
- 서울대학교규장각, 『譯語類解 譯語類解補』 (서울: 다해미디어, 2009).
- 黃能馥·陳娟娟 書, 이희영 譯, 『중국의 비단역사 칠천 년』 (과주: 한국학술정보, 2016).
- 강선정, 「조선중기 이후 가사(袿裳)의 유형과 변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1).
- 유지은, 「옥책의 보존과 분석을 통한 시대별 제작 기법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2).
- 이은주, 「외규장각 의궤 책의 문양을 통한 운보문 편년 설정 방법」, 『문화재52(4)』, pp.18~37, 2019.

### 3. 교명의 직물

#### 1) 교명의 구조

- 교명(敎命)은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王世弟)·왕세제빈·왕세손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이다.
- 교명은 왕실문서의 하나로 두루마리인 권자본(卷子本)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전면과 후면을 모두 각종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황하였다. 교명에서 가장 중요한 교명문이 적히는 부분을 비롯하여 앞면의 양옆, 위아래, 그리고 후면부분에도 직물로 배접하는데 그중 두루마리를 말았을 때에 가장 바깥에 보이는 부분에는 금단(錦緞)이나 후수단(後綬緞)과 같은 화려한 직물을 사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색으로 직조한 오색대자(끈의 일종)를 달아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 교명은 총 29점으로 시기별로는 17세기의 교명이 8점, 18세기는 14점, 그리고 19세기는 7점이다.
- 의궤에는 교명의 제작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데 직물과 관련된 항목은 ‘교명직조식(敎命織造式)’과 ‘교명회장식(敎命繪粧式)’이다. 교명직조식<그림 1>에는 교명문을 적는 부분과 그 사방테두리를 장식하는 비단에 대한 구성과 직조에 내용을 담고 있다. 교명회장식<그림 2>은 교명의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각 부분의 회장에 사용하는 직물과 첨자(籤子)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그림 1> 교명직조식

- 출처: 『순조관례책저도감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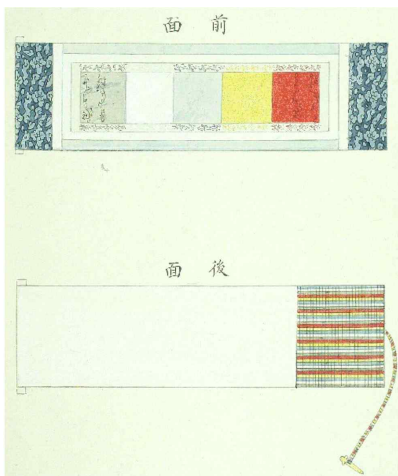


<그림 2> 교명회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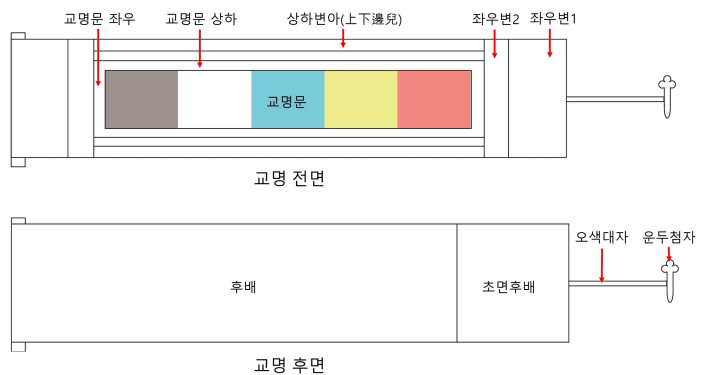
- 출처: 『순조관례책저도감의궤』

- 의궤 중에는 도설(圖說)로 교명을 나타낸 것도 있는데 후대로 갈수록 실물과 유사하게 채색하여 표현하였으며 주로 앞면을 보여주고 있다. 순종 왕세자책례도감 의궤(1875)의 도설<그림 3>에는 교명의 앞과 뒤를 세밀하게 그려서 표현하였는데 전면(前面)과 후면(後面)으로 구분하고 있다.

- 교명 29점은 부분별 크기와 색상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양식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명의 상황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의궤에 따라 각 부분을 지칭하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교명문을 적는 앞면을 전면(前面), 초면(初面) 혹은 내면(內面)이라고도 하며, 앞면의 가장 오른쪽을 상변아(上邊兒), 초면(初面), 내면초변측(內面初邊則) 등으로 부르고, 반대편인 왼쪽을 하변아(下邊兒), 하면(下面)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교명의 위·아래의 가장자리는 상하변아(上下邊兒), 상하회장(上下繪粧)이라고 하며, 교명의 뒷면 전체는 후면(後面) 또는 외면(外面)으로 구분하는 등 일괄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직물을 용이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교명의 각 부분을 가능한 의궤 기록에 근거하여 명칭을 제시<그림 4>하고자 한다. <표 1>은 7책의 의궤에 나타난 교명의 각 부분을 표로 작성한 것으로 다양한 용어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책저도감의궤의 교명 도설



<그림 4> 교명의 구조

<표 1> 의궤에 기록된 교명의 부분별 명칭

의궤명	제작 년도	교명 앞						교명 뒤		오색 대자	운두 첨자
		교명문	교명문 상하	교명문 좌우	상하 변아	좌우변1	좌우변2	초면후배	후배		
인조장열왕후 가례도감의궤	1638	第參軸 ~第柒軸	-	-	-	第壹軸裏	第貳軸	第壹軸	-	五色 纓子	籤子
경종왕세자 책례도감의궤	1690	第一則 ~五則	左右邊	上下	-	第一內面 則	第二內面 則	第一衣	-	五色 眞絲 帶子	籤子
경종선의왕후 가례도감의궤	1719	第三軸 ~第七軸	上下邊	左右邊	-	第一軸	第二軸	後襟	-	五色 纓子 (五色 唐帶 子)	籤子

의례명	제작 년도	교명 앞						교명 뒤		오색 대자	운두 첨자
		교명문	교명문 상하	교명문 좌우	상하 변아	좌우변1	좌우변2	초면후배	후배		
사도세자 책례도감의례	1736	第一則 ~第五則	五質上下	初邊	上下 邊兒	內面則	內面則次	第一外 面衣則	後襟	五色 唐帶子	籤子
정조효의왕후 가례청의례	1762	第一質 ~五質	各質上下	-	上下 邊兒	前面, 下前面次	前面次, 下前面	上面後襟	-	五色 帶子	雲頭 籤子
효의왕후 책례도감의례	1778	第一質 ~五質	-	-	上下 邊兒	前面, 下面次	前面次, 下面	初面後襟	初面後 襟次	五色 帶子	雲頭 籤子
순조관례 책저도감의례	1800	第一則 ~第五則	-	-	上下 繪粧	-	-	初面後襟	-	五色 多繪	籤子

## 2) 교명 직물의 특성과 시대적 변천

### (1) 교명문

- 교명의 핵심인 교명문이 작성되는 부분으로 의례에 ‘교명직조식(敎命織造式)’에서 언급되는 부분이다. 의례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나 순조관례책저도감의례(170)와 같이 비교적 자세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측의 바탕은 홍색이다. 초면은 승강용(陞降龍) 모양, 옥색 바탕에 붉은 비늘 문양이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용 모양 사이에 ‘교명(敎命)’ 2자 전문(箋文)을 황진사로 직조한다. 위아래 테두리는 옥색 바탕에 홍색으로 날아가는 봉새(鳳凰) 각 4개를 짠다. 홍색 바탕에 첫 테두리는 옥색바탕, 홍색으로 구름문양[雲紋]을 짠다. 위아래와 좌우의 쌍사(雙絲)는 자적사(紫的絲)로 짠다.

제2측의 바탕은 황색이고, 위아래 테두리는 옥색 바탕에 황색으로 날아가는 봉새를 각 4개를 짠다.

제3측의 바탕은 남색이고, 위아래 테두리는 옥색 바탕에 청색으로 날아가는 봉새를 각 4개를 짠다.

제4측의 바탕은 백색이고, 위아래 테두리는 옥색 바탕에 백색으로 날아가는 봉새를 각 4개를 짠다.

제5측의 바탕은 흑색이고, 위아래 테두리는 옥색 바탕에 흑색으로 날아가는 봉새를 각 4개를 짠다. 하면의 올라가고 내려가는 용은 옥색 바탕에 검은 비늘 문양이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용 사이에 연월일(年月日)을 쓴다. 첫째 바탕의 ‘승강용’부터 다섯째 바탕의 ‘승강용’ 사이에 제문(製文)의 다소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여 쓰는데, 이번에는 극항은 10자, 평항은 8자, 모두 40항으로 한다. 제1바탕과 제5바탕은 각각 6항, 제2바탕과 제3바탕, 제4바탕은 각각 9항을 하고 년월(年月) 위에 보인(寶印)을 찍는다.

170) 『純祖冠禮冊儲都監儀軌』, 一房儀軌, 一房所掌, “敎命織造式 第一則紅質初面陞降龍玉色質紅鱗陞降龍間敎命二字箋文以黃眞絲織造上下邊兒玉色質紅飛鳳各四織造紅質初邊玉色質紅雲紋織造上下左右雙絲以紫的絲織造 第二則黃質上下邊兒玉色質黃飛鳳各四織造 第三則藍質上下邊兒玉色質青飛鳳各四織造 第四則白質上下邊兒玉色質白飛鳳各四織造 第五則黑質上下邊兒玉色質黑飛鳳各四織造下面陞降 龍玉色質黑鱗陞降龍間書年月日自一質陞降龍至五質陞降龍間從其製文多少排字書之而今番極行十字平字八字合四十行第一質五質各六行第二質三質四質各九行年月上安寶”

- 순조관례책저도감의례는 1800년(正祖24) 2월에 元子(純祖)를 왕세자로 책봉한 과정을 기록한 의례이다. 이때 제작한 순조 왕세자책봉 교명의 교명문 부분<그림 5>을 보면 의례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물 조사한 교명은 크기나 색상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의례에서 명시한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제작되었다.
- 교명문의 바탕직물은 한 장의 직물로 직조되었다. 교명에 따라 바탕조직은 다른데 교명문이 시작되는 홍색부분부터 직조를 시작하며 紅·黃·藍·白·黑의 5색의 순서로 직조하며, 각 구획마다 양쪽에 각각 4마리씩 총 40마리의 봉황을 구획과 동일한 색으로 짠다. ‘敎命’ 2자는 황색의 색사로 직조하는데 글자 부분만 직조하는 봉취직(縫取織)의 기법으로 짰다.



<그림 5> 교명 제1, 2축

## (2) 좌우변

- 교명의 좌우변1은 교명을 펼치면 처음 드러나는 부분으로 남색이나 아청색, 또는 침향색(沈香色)의 문직물이 사용되었다. 좌우변1은 주로 운문(雲紋)이 사용되었으나 17세기의 인조계비 장렬왕후 왕비책봉 교명(1638)과 효종비 인선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1645), 그리고 숙종계비 인현왕후 왕비복원 교명(1694)의 3점에만 화문능(花紋綾)이 사용되었다. 운문의 경우 이후 18세기 초기까지는 단독운문이 사용되다 이후에는 구름 사이의 여백에 보문(寶紋)이 배치되어 있는 운보문단(雲寶紋緞)으로 변화한다.
- 좌우변2는 좌우변1 옆에 꾸며지는 부분으로 백색 혹은 소색(素色) 비단을 사용하였다. 17세기 전반부터 수자직으로 직조한 각종 무늬의 문단(紋緞)이 사용되었는데 17세기~18세기 초까지는 주로 화문단이 사용되다 이후에는 운보문단이



주를 이룬다. 19세기 후반에는 운보문단과 함께 도류불수(桃榴佛手) 무늬의 도류단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 (3) 상하변아

- 교명문의 위아래 가장자리에 청색으로 장황한 부분이다. 의궤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 의궤도 있고 ‘상하변아(上下邊兒)’, ‘상하회장(上下繪粧)’ 등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 구름무늬의 운문단이나 운보문단이 사용되었다.

### (4) 초면후배

- 초면후배(初面後褙)는 교명의 뒤에 배접하는 부분이나 두루마리를 말았을 때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교명에서 가장 장식적으로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화려한 직물로 장식하여 교명의 위엄을 나타낸다.
- 18세기 중반까지는 다채롭고 화려한 금직물이 사용되다 이후에는 후수단(後綬緞)으로 변화했다.
- 1651년에 제작된 현종 왕세자책봉 교명(종묘13518)은 등롱문을 표현한 직금장화단(織金粧花緞)으로 초면후배를 꾸몄다. 등롱(燈籠)은 처마 밑이나 기둥 외부에 거는 등기구(燈器具)의 일종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알리고 축하하는 의미를 사용되었는데, 등롱의 네 모서리에 달린 술 장식은 일반적으로 벼이삭 모양이고, 옆에는 꿀벌로 장식하여 오곡풍등(五穀豐登)의 의미를 담고 있다.<sup>171)</sup> 5매수자직의 바탕조직에 편금사와 여러 가지 색사를 추가로 더 넣으며 문양을 짠 중조직의 직물이다.
- 1671년도의 교명에서부터는 금문(錦紋)이 표현된 금문금(錦紋錦)이 나타난다. 금문은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의 다양한 도형이 연이어지도록 배열하고 그 안에 여의문, 화문 등의 각종 무늬로 다채롭게 표현한 무늬이다. 중국 송·원대에 유행했던 팔답운(八答暈)에서 유래한 것으로 팔달운(八達暈), 팔화운(八花暈)이라고도 했다. 바탕조직의 지경사(地經絲) 외에 별도의 경사가 더 있고 위사에도 지위사와 무늬를 짜는 문위사가 따로 있는 구조의 직물로 Lampas 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송식금(宋式錦) 혹은 송금(宋錦)이라고 하는데 송대(宋代) 비단의 특징을 모방한 견직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직물 구조에 따라 ‘특결금(特結錦)’이라고도 한다.<sup>172)</sup>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바닥조직에 따라 지경사와 지위사가 평직이나 능직으로 짜여졌으면 ‘금(錦)’이라 하고 수자직으로 짜여졌으면 ‘금단(錦緞)’으로 분류하기도 한다.<sup>173)</sup>

171) 黃能馥·陳娟娟 書, 이희영 譯, 『중국의 비단역사 칠천년』 (한국학술정보, 2016) p.328.

172) 趙豐(主編), 앞의 책(2005), p.534.

-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1671),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1690) 등의 초면후배에는 금문(錦紋)이 시문된 금직물로 장황되어 있다. 금문은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의 다양한 도형이 연이어지도록 배열하고 그 안에 여의문, 화문 등의 각종 무늬로 다채롭게 표현한 무늬이다. 중국 송·원대에 유행했던 팔답운(八答暈)에서 유래한 것으로 팔달운(八達暈), 팔화운(八花暈)이라고도 하였으며,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하여 천화금(天華錦), 첨화금(添花錦)이라고도 했다.<sup>174)</sup>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1671)은 3매 능직으로 바탕조직을 짜고 문위사(紋緯絲)인 편금사는 특별경사에 의해 능직으로 조직되어 시문되었다. 문위사 중 색사는 청,황,초록과 청,남,황색의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위사의 색상을 교체하면서 직조하고 편금사로는 壽와 무늬의 윤곽선을 표현하였다. 해당 의례인 숙종비 인경왕후 교명의 의례에는 ‘오색선단(五色線段)’<sup>175)</sup>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조직의 경종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1718)의 의례에는 ‘오색장단(五色壯段)’<sup>176)</sup>으로 적혀있다. 장단은 봉취직으로 문위사가 직조되는 구조의 직물을 뜻하므로 의례의 내용이 초면후배의 직물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1700년대 중반부터 사용된 후수단은 후수에 사용하던 옷감을 뜻하는데 4~5가지 색상이 세로 방향의 줄무늬로 나타나는 직물이며 의례에는 ‘오색후수단(五色後垂緞, 五色後綬緞)’<sup>177)</sup>, 또는 ‘후수단(後綬緞)’<sup>178)</sup>으로 기록되어 있다. 모두 5색 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흑→백→초록→홍→청색의 색상 배열순서는 조선말기 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각 색상의 너비는 점차 줄어들었는데 1875년에 제작한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1875)은 1cm 정도이다.

## (5) 후배

- 후배(後襟)는 교명 뒷면의 초면후배 옆 부분을 뜻한다.
- 교명을 말았을 때에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주로 평직의 백색 직물을 사용하는데 의례에는 ‘백숙초(白熟綃)’, ‘백초(白綃)’, 그리고 ‘백견(白絹)’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 (6) 오색대자

- 대자는 끈목의 일종으로 주로 단면이 납작한 허리띠 종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sup>179)</sup> 오색대자는 운두침자에 끼워 고정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173) 심연옥, 앞의 책(2002), pp.222~223.

174) 周汎·高春明, 『中國衣冠服飾大辭典』(上海辭典出版社, 1996), p.509.

175)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1671). “敎命第一軸衣五色線段”

176) 『경종선의왕후가례도감의궤』(1719). “敎命一部所入 尙房織造本方繪粧 五色壯段長一尺五寸廣八寸五分”

177)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1784). “…初面後襟五色後垂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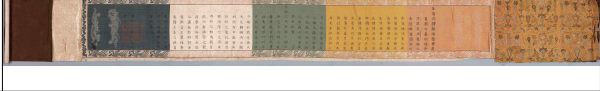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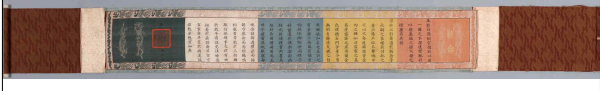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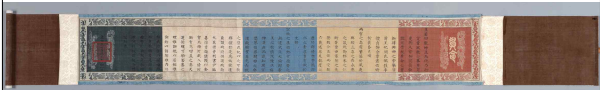

『정조효의왕후가례청의궤』(1762). “…上面後襟用五色後綬緞廣二尺三寸五分…”

178) 『순조관례책지도감의궤』(1800). “…初面後襟後綬緞廣二尺五寸繪粧…”

기능도 하여 표지비단과 함께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 교명 대자는 각색 색사로 짜기 때문에 의궤에 ‘오색교직영자(五色交織纓子)’<sup>180</sup>, ‘오색영자(五色纓子)’<sup>181</sup>, 그리고 ‘오색대자(五色帶子)’<sup>182</sup>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 오색대자는 숙종비 인경왕후 교명(1671) 1점만 이중직으로 직조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평직으로 직조하였으며 여러 색사를 섞어 줄무늬를 표현하고 있다.
- 오색대자의 너비는 1.2~7.0cm, 길이는 65~176.5cm로 대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시대에 따라 특정 크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조비 장렬왕후 왕비책봉 교명(1638)의 대자는 너비 1.3cm, 길이 79.5cm로 너비가 가장 좁으며 정조 왕세손 책봉 교명(1759)은 너비 7.0cm, 길이 176.5cm로 대자 가운데 가장 크기가 크다.

<표 2> 보물지정대상 교명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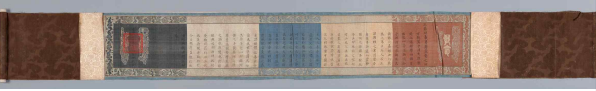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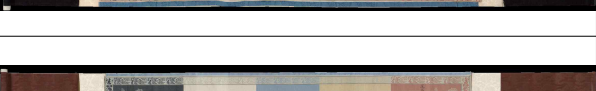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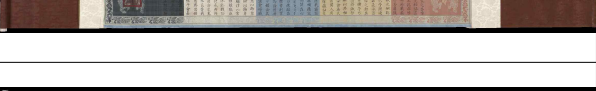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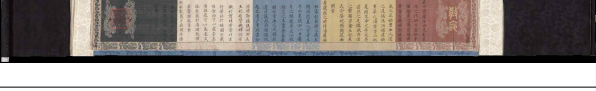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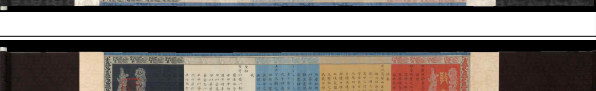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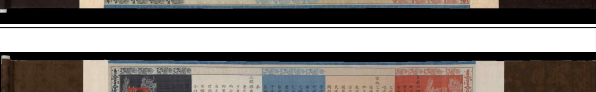
번호	유물명칭	유물번호	제작시기	책봉대상	사진
1	인조계비 장렬왕후 왕비책봉 교명	종묘13516	1638	왕비	
2	효종비 인선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종묘13517	1645	왕세자빈	
3	현종 왕세자책봉 교명	종묘13518	1651	왕세자	
4	현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종묘13519	1651	왕세자빈	
5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종묘13520	1671	왕세자빈	
6	숙종계비 인현왕후 왕비복위 교명	종묘13521	1694	왕비 복위	
7	숙종계비 인원왕후 왕비책봉 교명	종묘13522	1702	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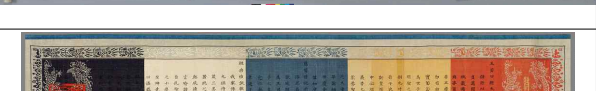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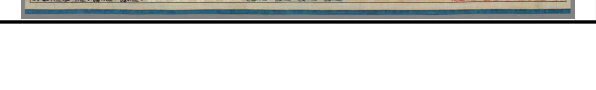
179) 이훈중, 『민족생활어사전』 (서울: 한길사, 1992), p.317.

180)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1638). “五色交織纓子長壹尺參寸廣參分 鍍金籤子具繪粧鋪陳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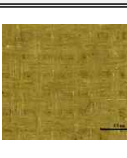






181) 『현종비 명성왕후 가례도감의궤』 (1652). “五色眞絲多繪纓子長一尺六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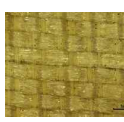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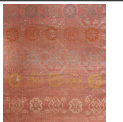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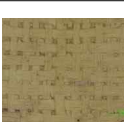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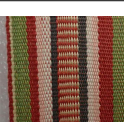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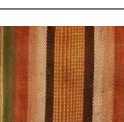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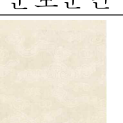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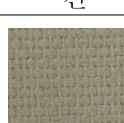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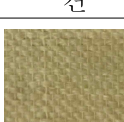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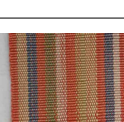
182) 『효명세자책례도감의궤』 (1812). “五色帶子長三尺五寸廣分一寸二分”

번호	유물명칭	유물번호	제작시기	책봉대상	사진
8	경종 왕세자 책봉 교명	종묘13523	1690	왕세자	
9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종묘13524	1696	왕세자빈	
10	경종비 단의왕후 왕비 추봉 교명	종묘13525	1722	왕비 추봉	
11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종묘13526	1718	왕세자빈	
12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 책봉 교명	종묘13527	1722	왕비	
13	영조 왕세제 책봉 교명	종묘13528	1721	왕세제	
14	영조비 정성왕후 왕비 책봉 교명	종묘13529	1726	왕비	
15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 책봉 교명	종묘13530	1759	왕비	
16	진종 왕세자 책봉 교명	종묘13531	1725	왕세자	
17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종묘13532	1727	왕세자빈	
18	장조 왕세자 책봉 교명	종묘13533	1736	왕세자	
19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종묘13534	1744	왕세자빈	
20	정조 왕세손 책봉 교명	종묘13535	1759	왕세손	

번호	유물명칭	유물번호	제작시기	책봉대상	사진
21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 책봉 교명	종묘13536	1762	왕세손빈	
22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 책봉 교명	종묘13537	1778	왕비	
23	순조 왕세자 책봉 교명	종묘13538	1800	왕세자	
24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 책봉 교명	종묘13539	1802	왕비	
25	문조 왕세자 책봉 교명	종묘13540	1812	왕세자	
26	헌종 왕세손 책봉 교명	종묘13541	1830	왕세손	
27	헌종비 효현왕후 왕비 책봉 교명	종묘13542	1837	왕비	
28	고종비 명성황후 왕비 책봉 교명	종묘13543	1866	왕비	
29	순종 왕세자 책봉 교명	신수9239	1875	왕세자	

<표 3> 의궤 부분별 장황직물

유물명칭	유물번호	제작년도	좌우변1	좌우변2	초면후배	후배	오색대자
인조계비 장열왕후 왕비 책봉 교명	종묘13516	1638	 화문능	 운학문단	 화봉문금	 초	
헌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종묘13519	1651	 운문단	 만자화문단	 등룡문직금장 화단	 건	

유물명칭	유물번호	제작년도	좌우변1	좌우변2	초면후배	후배	오색대자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종묘13520	1671	 운문단	 만자화문단	 금문금	 견	
경종 왕세자 책봉 교명	종묘13523	1690	 운문단	 화문능	 금문금	 견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종묘13526	1718	 운문단	 화문능	 금문금	 견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종묘13534	1744	 운보문단	 운보문단	 후수단	 견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 책봉 교명	종묘13536	1762	 운보문단	 운보문단	 후수단	 견	
순종 왕세자 책봉 교명	신수9239	1875	 운보문단	 운보문단	 후수단	 견	

### 3) 문화재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교명은 총 29점으로 현재 28점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중 4점에 대해 실물조사하였다. 교명은 다채로운 색사로 화려하게 직조한 고급직물을 사용해 왕실의 권위를 극대화하였다. 교명에서 가장 중요한 교명문이 적히는 부분을 비롯하여 앞면의 양옆, 위아래, 그리고 후면부분에도 직물로 배접하는데 그중 두루마리를 말았을 때에 가장 바깥에 보이는 부분인 초면후배에는 금단, 직금장화단, 후수단과 같은 화려한 직물을 사용하였다. 또한 여러 색으로 직조한 오색대자를 달아 화려함과 함께 왕실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 교명의 각 부분에 장식된 직물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데 초면후배는 1638년에 제작된 인조계비 장렬왕후 왕비책봉 교명부터 1725년의 진종왕세자책봉 교명까지는 금단, 직금장화단과 같은 최고급의 직물을 사용하였고, 18세기 중반부터는 직금단에 비해 가격이 낮은 후수단을

사용하였다. 오색대자는 시대에 따라 특정 크기나 색상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교명은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전체적인 구조는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궁중의 상방에서 직조한 직물을 사용한다는 의궤의 기록에 따라 당시 조선의 직조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또한 시대에 따라 사용하는 직물이 달라 직물사에 있어 편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V. 보문과 책문

### 1. 보문의 서체

인장을 새기는 행위, 또는 새겨진 인장을 전각(篆刻)이라 하듯이 여기에 쓰이는 서체는 전서(篆書)가 주종을 이루며, 이는 이미 동아시아의 오랜 전통이 되었다. 전서는 한자체의 하나로 예서 이전의 서체를 포괄한다. 주로 진시황의 문자통일을 분기로 대전(大篆)과 소전(小篆)으로 나뉘며, 상주(商周)의 갑골문(甲骨文)·금문(金文), 춘추전국시대의 육국문자(六國文字), 진(秦)의 소전(小篆), 그리고 무전(繆篆), 첩전(疊篆) 등 각 시대와 국가, 용도에 따라 무수히 많은 서체가 생성·소멸하였다.

전서는 해서나 행서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체는 아니었고 어보나 어진, 금석문의 두전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한 특수한 서체였다. 그중에서도 왕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어보이다. 어보의 보문은 반드시 임금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선조(宣祖)의 옥보에는 글자 수가 매우 많은데 어떤 전자(篆字)로 써서 새길 것인가? 자체를 상세히 써서 들이라.”고 한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어보에 사용한 서체는 대부분 구첩전(九疊篆)이다. 구첩전은 첩전, 혹은 상방대전(上方大篆: 尙方大篆)이라고도 한다. 인전(印篆)의 한 형태로 필획을 중첩하고 쌓아올려 인면을 가득 메우는 서체이다. 필획이 많이 중첩된 경우 10첩(疊) 이상인 경우도 있다. 첩전은 어보를 포함한 관인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중원의 경우 송대(宋代)로부터 시작하여 원대(元代) 이후에 성행하였으며 대부분 주문(朱文)이다.

조선에서는 어보에 쓰이는 서체를 ‘구첩전’이나 ‘첩전’이라 쓴 사례는 보이지 않고, 이칭인 ‘상방대전(上方大篆)’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상방대전의 발생 배경에 대하여 김진흥(金振興, 1621~?)의 『전대학(篆大學)』에서는 ‘정막(程邈)이 이사(李斯)를 수식하여 법을 내었다(程邈飾李斯出法)’고 기록하였다. 이사는 진시황을 도

와 통일시대 진나라의 정국을 담당한 실력자로, ‘소전’이란 서체를 개발한 사람이며, 정막은 진대(秦代) 사람으로 예서를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상방대전에 대한 중국의 문헌을 살펴보자. 당대(唐代) 위속(韋續)은 『묵수(墨藪)』에서 “상방대전(尙方大篆)은 정막이 짓고, 후대인이 수식하여 법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청대(清代) 요안(姚晏)은 『재속삼십오거(再續三十五舉)』에서 “후세의 관인은 9첩, 8첩, 7첩이 있는데, 모두 주문사인(朱文私印)이다. 간혹 9첩이 있는데, ‘상방대전(上方大篆)’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위속의 기록에서는 이 서체에 대해 ‘상방(尙方)’이란 용어를 썼고, 김진흥의 기록에서 ‘정막이 이사의 서체를 수식했다’는 말과 달리 정막이 짓고, 후대인이 수식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요안은 ‘상방(上方)’이란 용어를 쓰고 구첩전의 이칭으로 설명하였다. 이들 기록을 종합하면 이 서체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구첩전(九疊篆)=상방대전(上方大篆)=상방대전(尙方大篆)의 등식은 성립한다.

그러면 인장에서 구첩전을 사용하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명대인(明代人)은 “우리나라의 모든 인장은 매 글자마다 전서의 굴곡이 아홉 획이며 이는 바로 ‘건원용구(乾元用九)’<sup>183</sup>의 뜻”이라 하였다.<sup>184</sup> 또한 중국 현대의 인학가(印學家)는 새보(璽寶)와 관인(官印)에서 ‘건원용구’의 의미를 차용함에 대해 ‘건원(乾元)은 천(天)의 덕(德)이며 9는 양(陽)의 수로 하늘의 덕이니, 곧 하늘의 덕을 사용함, 즉 인장을 통해 하늘의 덕을 실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조선의 국새와 어보에서 구첩전을 사용한 이유 또한 서체에 포함된 ‘건원용구’의 의미를 인장에 함축하였다 하겠다. 이는 고궁의 건축물과 꽃담 등에 남은 길상문(吉祥文)의 서체가 대부분 구첩전인 점과 상통하는 현상이다.

그러면 상방(上方·尙方)의 뜻은 무엇일까? ‘상방(尙方)’은 한대(漢代)의 관서명으로 제왕과 황궁에 필요한 도검(刀劍) 및 일용완호(日用玩好)를 공급하는 관서이다. 이후 명대(明代)까지도 상방은 이러한 역할 외에도 궁중에 음식이나 의약품을 공급하던 관서였다. 조선에서도 ‘상방(尙方)’은 궁중의 의복과 일용품, 보물 따위의 관리를 맡아보던 ‘상의원(尙衣院)’의 이칭이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구첩전의 이칭으로서 상방대전은 궁중의 소용품을 제공하던 관서의 명칭과 연관이 높아 보인다. 상방대전은 인장에 쓰이는 서체로 특히 국새와 어보에 부여되었으므로, 국왕을 포함한 왕실의 소요물품을 진상하는 ‘상방’이란 용어를 서체명에 차용하였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구첩전은 시각적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공간의 분포가 정연하며, 공간적 긴밀함을 보인다. 구첩전을 서예나 전각의 관점, 또는 개성을 추구하는 사인(私印)의

183) ‘乾元用九’는 周易 乾卦의 ‘乾元用九 天下治也’에서 따온 말이다. 傳에서는 ‘用九之道는 天與聖人同하니 得其用이면 則天下治也’라 설명했다(成百曉 譯註, 『周易全義』, 傳統文化研究會, 2004).

184) 徐官, 『古今印史』(『歷代印學論文選』, 西泠印社, 1999. p.49).



관점으로 바라보긴 어려우며, 예술적 감상의 대상도 아니다. 어보는 왕실의 권위와 영속성을 담아내는 의물이므로, 근엄, 장중, 신성함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어보에 담긴 구첩전 역시 왕실의 권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형으로 이해해야 한다.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사용하였던 상방대전은 대한제국기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를 보였다. 즉 기존의 상방대전을 거의 쓰지 않고 대부분 간명한 ‘소전’으로 바꾸었다. 소전은 전서의 일종으로 발생국의 명칭을 따 진전(秦篆)이라고도 하며 대전(大篆)과는 상대개념이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승상 이사(李斯)로 하여금 만들게 하였다고 전한다.<sup>185)</sup> 당시 진나라의 문자를 중심으로 여기에 합치되지 않는 다른 나라들의 문자를 모두 폐지하였다. 소전은 이전의 문자에 비해 균일하며 좌우 대칭의 정제된 형태로 나타나 제왕의 냉엄한 권위를 대하는 듯하다. 따라서 최초로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와 시황제의 자긍심이 담긴 서체로 인식된다. 이후 한대(漢代)로 넘어와 예서(隸書)의 시대에도 전서는 인장과 비액(碑額)에 쓰이는 공식적 서체로 남았고, 이러한 전통은 후대에도 변함이 없었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또한 최초로 중원을 통일하고 황제의 지위에 오른 진시황의 권위와 상징성이 담긴 서체를 대한제국의 국새와 어보에 차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중원의 여러 국가에서 대대로 새보에 사용한 서체 또한 소전이었으므로, 대한제국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용하여 온 구첩전에서 탈피하여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소전에 담아 국새와 어보의 서체에도 반영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에 현존하는 어보 가운데 90% 이상이 구첩전이며, 나머지 10% 이하가 소전으로 제작하였다.

## 2. 보문의 서사

어보의 보문은 승문원이나 교서관의 전자관(篆字官)이 쓰기도 하였으나 도감의 전문서사관(篆文書寫官)이 쓴 사례가 많다. 전문서사관은 당대에 전서에 능숙한 고위직을 채용하였으며 이들은 당시 전서의 대표적 명필이기도 하였다. 의례가 시작되고 선정되는 전문서사관들은 일반 사자관과는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조선 왕실 어보 제작에 참여했던 전문서사관들은 의례가 전해지는 17세기부터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참여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문은 광산김씨, 안동김씨, 여흥민씨, 전주이씨, 풍산조씨, 풍산홍씨 등이다. 전문서사관은 다양한 가문의 문신들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승정원 도승지, 홍문관 부제학, 홍문관 교리 등 문한을 담당할 관직 이외에도 공조판서, 병조판서, 이조참판, 의정부 영의정 등 고위 관직

185) 고대 중국의 문헌에서는 대전과 소전의 발생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大篆은 周宣王 때에 史籀가 처음 만든 것이다. 平王이 동쪽으로 천도할 때 문자가 어그러지고 뒤섞였는데, 秦의 李斯와 胡毋敬이 籀書를 고쳐 小篆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大篆과 小篆이 있게 된 것이다(大篆出於周宣之時 史籀創著 平王東遷 文字乖錯 秦之李斯及胡毋敬有改籀書 謂之小篆 故有大篆小篆焉)”(北魏 酈道元, 『水經注』卷7, 「穀水」.)

에 제작하고 있는 인물들이 선정되었다. 또한 종친이나 왕실의 척신들이 주로 참여한 사례도 있는데, 왕의 장인으로는 김만기, 김문근, 조만영, 홍봉한, 홍재룡 등을 들 수 있다. 의례를 일괄해 보면 전문서사관의 대표적 인물로 광해군 대의 허함(許涵), 효종 대의 이익엽(李益燁), 여이징(呂爾徵), 현종 대의 김수항(金壽恒), 영조 대의 조현명(趙顯命), 유척기(兪拓基), 철종 대의 김도희(金道喜), 박회수(朴晦壽), 흥재룡(洪在龍), 고종 대의 김문근(金汶根) 등이 보인다.

전문서사관은 보문(寶文)의 정본 1장과 부분 2장을 써서 근봉하여 올리면 이를 임금이 보고 정본과 부분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선택 방법은 입계 시 전문 본에 왕이 점을 찍어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1645년 효종의 왕세자 책례시 왕세자인과 세자빈인의 전문 3종을 준비하여 1, 2, 3으로 갖추어 낙점해달라고 감계하니 임금이 1로 결정했다. 의례에 따라 왕세자가 먼저 예람하고, 이후에 임금이 마지막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화원들에 의한 북칠, 보획, 전각, 주조 등의 과정을 거쳐 어보의 보면(寶面)을 완성하였다.

### 3. 책문의 서체

국왕이 책봉(冊封)할 때 어책(御冊, 玉冊이나 竹冊)·어보(御寶, 玉寶나 玉印)·교명(敎命) 세 가지 의물(儀物)을 건네주는데, 여기에서는 어보를 제외한 어책·교명을 살펴보겠다. 어책은 옥책(玉冊)·죽책(竹冊)·금책(金冊) 세 가지가 있다.

옥책(玉冊)은 왕실에서 책봉하는 것으로 왕과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 왕비 이상의 존호·시호·휘호를 올리거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옥간(玉簡)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이다. 내용에 따라 존호책(尊號冊)·시책(諡冊)·휘호책(徽號冊)·애책(哀冊)·축책(祝冊)이 있는데, 옥색에 따라 흑옥책(黑玉冊)·백옥책(白玉冊)·청옥책(靑玉冊)으로 구분되는데, 청옥책이 가장 일반적이다. 제작은 제술(製述)→서사(書寫)→회장(回粧)의 과정을 거쳐 원환(圓環)과 돌쩌귀(玃迪耳)의 연접방식(連貼方式)을 취한다. 제술과 서사는 제술관과 서사관이 담당하고, 특히 옥책문은 사륙변려문(四六駢儷文)으로 작성됨에 품계가 높은 관원에서 대제학(大提學)이 차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회장은 북칠(北漆)→각자(刻字)→전자(填字)→작첩(作貼)의 각 과정을 전문 공장(工匠)이 담당하였다.

옥책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한 왕조가 예와 효라는 유교 덕목을 실천하면서 행한 왕실 의례(儀禮)의 산물이고, 왕실 최고 계층의 신분이나 명예를 직접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이기도 하다. 또 당대 문장가와 명필, 최고 수준의 전문 장인이 협업으로 제작한 화려한 왕실 공예품이기도 하다. 현전하는 옥책은 258점이며, 이 중에서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253점이고 조사대상은 5점이다.

죽책(竹冊)은 옥책과 성격이 같으나 재질이 다르고 왕세자(王世子)·왕세자빈(王世子嬪)·왕세제(王世弟)·왕세제빈(王世弟嬪)·왕세손(王世孫)·왕세손빈(王世孫嬪)을

책봉할 때와 존호 및 시호를 수여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후궁의 시호를 수여할 때에도 죽책을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제작과정 또한 옥책과 같으며, 내용은 대개 착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며 경계하는 ‘포미권계(褒美勸戒)’이다. 현전하는 죽책은 43점이며, 이 중에서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34점이고 조사 대상은 2점이다.

금책(金冊)은 황실에서 책봉할 때 금편(金片)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로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왕실을 황실로 격상시킨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한 책문이다. 조선이 옥책과 죽책이었다면, 금책은 대한제국이 자주권 확보를 위해 천자국의 예를 행한 상징적인 의물(儀物)이다. 책봉의 신분에 따라 금책 문양이 구분되는데, 초룡(草龍)은 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 쌍적(雙翟)은 황귀비(皇貴妃), 반이(蟠螭)는 왕(親王)과 왕비(親王妃)에게 수여할 때 새겼다. 금책은 그 양식이 갖는 상징성이 무엇보다 큰 책문이라 하겠다. 현전하는 금책은 7점이며, 이 중에서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3점이고 조사대상은 2점이다.

교명(敎命)은 원래 국왕의 교시(敎示)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였지만, 책봉할 때 교시를 일정한 형식과 형태로 제작한 문서를 가리키기도 한다. 실제로 임진왜란 이후에는 주로 책례(冊禮)와 관련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대비(大妃)·왕비(王妃)·왕세자(王世子)·왕세제(王世弟)·왕세손(王世孫)·왕세자빈(王世子嬪)·왕세제빈(王世弟嬪)·왕세손빈(王世孫嬪)·후궁(後宮) 등의 책봉은 국왕이 명하는 책봉 전교를 선포함으로써 시행된다. 책례를 거행할 때 교명을 교명궤(敎命櫃)에 담아 전(殿)의 뜰로 옮겨 와서 교명주홍배안상(敎命朱紅排案床) 위에 올려놓고 대기하여 두었다가 의식이 진행되면 교명을 궤에서 꺼내 상으로 옮긴 후에 의식을 진행하였다.

교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오색(紅色·黃色·藍色·白色·黑色) 비단으로 교명문이 작성된 부분과 사방 테두리를 봉황무늬나 구름무늬로 장식한 부분이다. 둘은 교명문이 있는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회장(回粧) 부분이다. 셋은 두루마리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옥축(玉軸)·변죽(邊竹)·영자(纓子, 흑帶子)·거물정(巨物丁)·운두침자(雲頭籤子)가 있는 부분이다. 교명문은 시작 부분의 홍색 비단 위에는 용 두 마리가 오르내리는 승강룡(昇降龍) 사이에 ‘敎命’이라는 전서체 글자를 황진사(黃眞絲)로 직조하였고, 마지막 흑색 비단 위에는 승강룡을 직조한 사이에 연호와 연월일을 쓰고 그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조선왕보(朝鮮王寶)’를 날인(捺印)하였다. 서식은 기두(起頭)가 ‘왕약왈(王若曰)’로 시작하여 마지막 결사(結辭)는 ‘고자교시(故茲敎示) 상의지실(想宜知悉)’로 마무리된다. 내용은 앞부분에서 책봉 사유와 경위를 적고, 뒷부분에는 책봉 이후 행해야 할 의무와 당부를 적었다.

교명은 초기에 교지(敎旨)와 같은 짤막한 내용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격식을

갖추어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는 핵심 의물(儀物)로 조선 왕실을 상징하였다. 현전하는 교명은 32점이며, 이 중에서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29점이고 조사대상은 4점이다.

어책과 교명의 제술과 서사는 제술관과 서사관이 담당한다. 제술(製述)은 문장을 찬술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제술관(製述官)이라 한다. 책문 짓는 것을 담당할 관원을 ‘책문제술관(冊文製述官)’이라 하고, 종류에 따라 죽책문은 ‘죽책문제술관(竹冊文製述官)’, 옥책문은 ‘옥책문제술관(玉冊文製述官)’, 금책문은 ‘금책문제술관(金冊文製述官)’이라 칭한다. 제술관은 높은 품계를 가지면서도 문재(文才)를 갖춘 사람으로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정1품부터 정3품까지 차출되었고, ‘금책문제술관’ 역시 홍문관대학사(弘文館大學士)·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규장각대학사(奎章閣大學士) 등이 대다수이다.

서사(書寫)는 글을 베껴 쓰는 것이고 이를 담당하는 관원을 서사관(書寫官)이라 하며, 책문 종류에 따라 ‘죽책문서사관(竹冊文書寫官)·옥책문서사관(玉冊文書寫官)·금책문서사관(金冊文書寫官)’이라 칭한다. 그러나 서사 과정에 따라 ‘책문서사관(冊文書寫官)’과 ‘책문초도서서사관(冊文草圖書書寫官)’으로 달리 칭하였다. ‘책문초도서서사’는 책문의 초도서를 서사하는 관원이란 의미로 초도서를 서사하는 단계에서만 특별히 사용된 명칭이다. 이에 반해 정본(正本)을 서사할 때는 ‘책문정본서사관(冊文正本書寫官)’이란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서사관의 품계는 정6품에서 종1품까지 분포되었으나 오익(吳翊, 정5품)과 오정위(吳挺緯, 정6품) 두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정3품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사자관(寫字官)은 특별히 ‘책문사자관(冊文寫字官)’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자관은 승문원(承文院)·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되어 사대교린문서(事大交鄰文書)와 자문(咨文)·어첩(御牒)·어제(御製)·어람(御覽) 등의 문서를 정서(正書)하던 관원이다. 정원은 규장각에 8인, 승문원에 40인이 있었고, 이들은 외국 사행(使行)에도 수행하였다. 이들은 매년 1·4·7·10월 승문원의 제조(提調)가 행하는 시험에 우수한 자는 점차 녹관(祿官)에 임명하였다. 특히 승문원은 사대교린문서를 관장하며 사대문서(事大文書) 부분(副本)은 선사자(善寫者)가 서사(書寫)하여야 했으므로 당상관이나 문신이 아니더라도 사자(寫字)에 특이한 재능이 있는 자에게 서사하도록 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4품 이상 품계로 승천(陞遷)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개국 초기에는 사자관이 없었고, 이후 문신으로서 글씨 잘 쓰는 자에게 군직(軍職)의 직함을 주고 매일 근무하게 하였는데, 이해룡(李海龍, 생물 미상)·한호(韓濩, 1543~1605)가 곧 그 시작이었다. 이를 보면, 제술관과 서사관은 다른 관직을 갖고 책문 제작에 차출한 관원이고, 사자관은 승문원·규장각에 소속되어 문서를 정서(正書)하던 관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책문서사관’의 글씨는 사자관의 글씨에 비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자기의 성정을 나타내었다는 차별성이 있다.

## 1) 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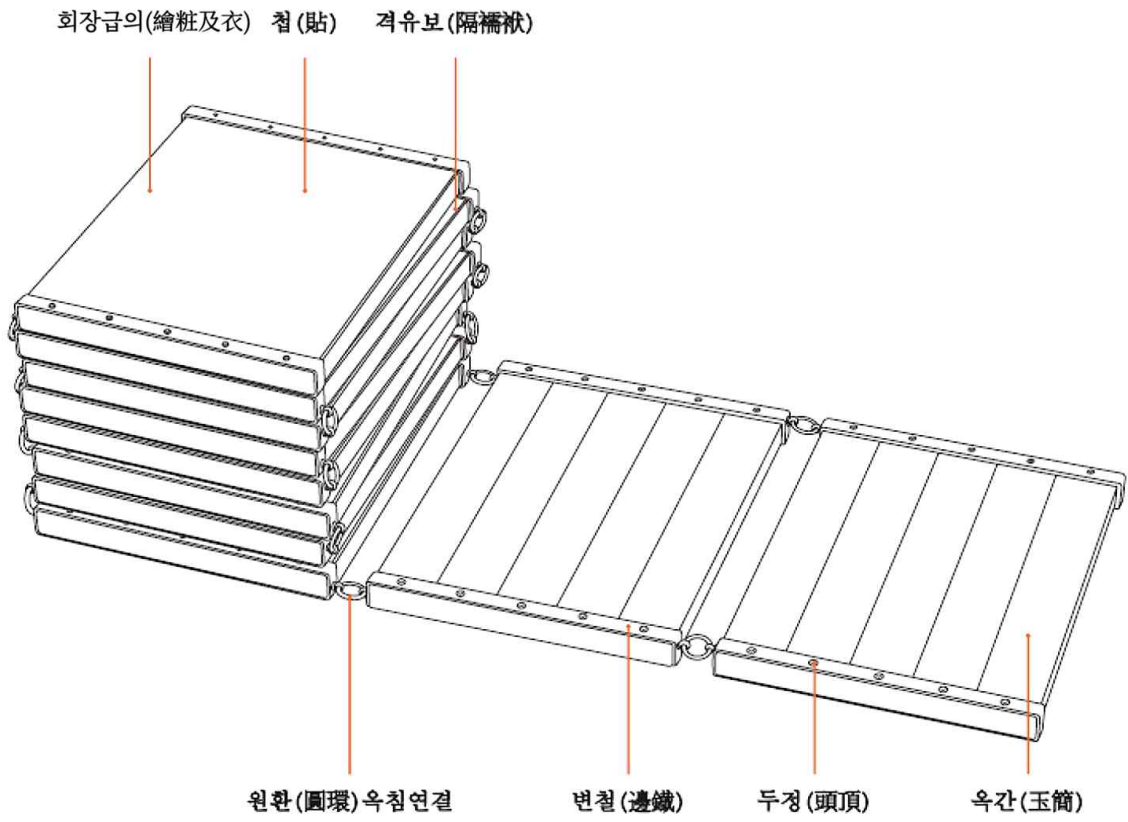
### (1) 옥책

#### 가. 옥책 개요

옥책(玉冊)은 유교와 성리학에 토대를 둔 왕실의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규범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옥책이 조선왕조 500여 년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은 조선왕조의 역사적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옥책은 왕비를 책봉(冊封)하거나, 왕과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 덕을 높이 기리는 뜻으로 올리는 칭호), 시호(諡號, 죽은 뒤에 행적에 따라 올리는 칭호), 휘호(徽號, 왕비에게 시호와 함께 올리는 칭호) 등을 올릴 때 옥간(玉簡)에 그 내용을 새겨 첩(貼)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책봉은 ‘책명(冊命)’과 ‘봉작(封爵)’의 합성어로서 책명은 ‘책(冊)으로 명(命)한다.’는 뜻이고, 봉작은 ‘봉토(封土)하고 수작(授爵)한다.’는 뜻이다. 현전하는 옥책은 고려 1146년(의종 원년)에 인종의 시호를 올리며 지은 글을 새긴 시책(諡冊)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어서 고려 때에 옥책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조선은 중국 명나라와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았다. 조선은 중국과 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중국에서 내리는 시호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의 왕과 신료들이 상의하여 결정된 존호와 시호를 어책과 어보에 새기는 것으로 조선의 주체성을 표출하였다.

내용은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왕비 책봉의 배경과 자질, 그리고 효성과 우애, 예의와 법도 등의 덕목을 훈계하는 내용을 수록하였고, 존호 및 시호·휘호는 수여하는 칭호의 뜻과 배경·의미 등을 수록하였다. 당시 어책은 어보와 함께 수여되었는데, 왕과 왕비의 책봉 명칭, 추봉 명칭, 존호·시호·휘호 등을 인장에 새긴 것이 어보이고, 이러한 내용의 사연과 의미 등을 풀이해 새겨 엮어 만든 것이 어책이다. 어책은 신분과 재질에 따라 옥책·죽책·금책으로 구분한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옥책은 1392년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시점을 비로소 시작으로 삼고 존호와 시호를 올릴 때 사용하였으며, 대상은 왕·왕비·왕대비·대왕대비 등이다. 제작은 책봉·국혼(國婚) 등의 가례(嘉禮)에는 책봉 및 존호 옥책, 국상(國喪)이나 국장(國葬)에 관한 흉례(凶禮)에는 묘호·시호·휘호 옥책이 만들어진다.

옥책은 옥을 조각내어 5~7개의 옥간을 1폭으로 하고 짝수 폭으로 엮어 만들며, 옥간 5~7쪽을 엮어 만든 것을 1첩(貼)이라 한다. 재질은 대부분 남양옥(南陽玉)을 사용하였다. 옥책은 모두 왕이 발급하였고, 왕이 발급하지 않는 경우는 세손이나 세자 그리고 황태자 등이 올릴 수 있으며, 또 다른 경우는 신하들이 올리는 경우이다. 옥책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은 왕과 왕비이고, 세자와 세자빈은 옥책 대신 죽책을 받는다.



<옥책의 각부 명칭>



<연첩방식(連貼方式): 원환(圓環)과 돌쩌귀(玃迪耳)>

옥책의 첩과 첩 사이를 연결하는 연첩(連貼) 방식은 원환(圓環)과 돌쩌귀(玃迪耳)가 있다. 원환은 둥근 고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이고, 돌쩌귀는 양쪽 첩과 첩 사이의 배목에 목 형태의 둥근 쇠를 넣어 고정하는 방식이다. 옥책 255책 중 원환은 67책이고, 돌쩌귀는 188책이다. 초창기부터 1757(영조 33)까지의 옥책은 모두 원환 방식이고, 그 이후부터는 돌쩌귀 방식이다.

옥책 제술관(製述官)은 조선 시대 승문원(承文院)에 속한 벼슬로 글을 짓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며, 전례문(典禮文)을 전담하여 짓게 하거나 외국에 사신을 파견할 때 동행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관리이다. 그러나 옥책문 제술관은 왕과 왕비의 옥책문의 문장을 짓는 사람이다. 특별한 자격 요건은 미리 정해진 바는 없지만, 옥책 문장을 짓는 요건인 변려문(駢麗文)의 문장력을 갖춘 고위 관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상례이다.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되고 신분과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했다. 대체로 당상관 이상의 품계를 지닌 문장력이 뛰어난 고위 관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서사관(書寫官)은 초도서(草圖書)와 정본(正本)을 서사하는 관원이다. 초도서는 임금이 어람하는 문서이고, 정본은 옥에 직접 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서사관 또한 제술관과 같이 중요한 관직과 명망을 갖춘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서사관에 대해서는 실록이나 의궤에서는 자격 요건을 기술한 것은 없다. 하지만 왕과 왕비의 옥책을 제작하기 위해 글자를 쓰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서사관 또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정치적인 상황과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이 골고루 갖추어진 정3품 이상의 품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옥책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모두 253점이고, 이 중에서 조사대상은 인종 상시호 옥책(1545), 인종 상시호 옥책(1757),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1687),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옥책(1824), 철종비 철인왕후 추상존호 옥책(1908) 등 5점이다. 이것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옥책 1점을 선택하여 내용과 서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 나. 옥책의 현상

No.	신 번호	명칭	發給	제작시기	제술관	재질	크기(cm)	字數
		분류	受給	수여시기	서사관			
1	종묘 13238	인종 상시호 옥책	명종	1545년	崔演	玉 銅	세로: 27.3 가로: 3.5 두께: 2.7 폭 : 3.5 편폭: 3.5	1첩 1편  1행 13자
		상시호 (獻文懿武 章肅欽孝) 및 묘호(仁宗)	인종	乙巳 九月 辛酉朔 十二日 壬申	李文樾			
1면 : 聖亦造於天縱 肆克紹夫前烈 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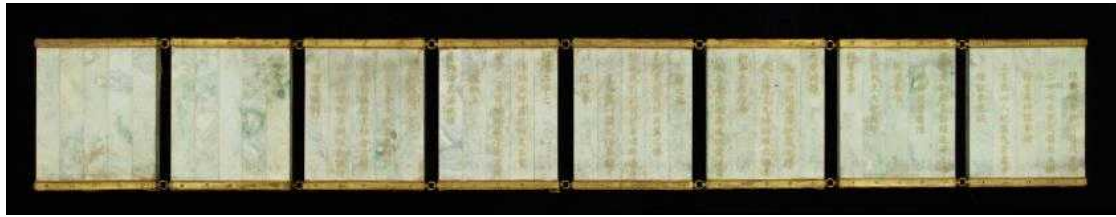
종묘 13239	인종 상시호 옥책	명종	1757년	崔演	靑玉 黃銅 비단	세로: 26.4 가로: 165.7 두께: 1.8 폭: 20.1 편폭: 3.3 돌쩌귀 (弓迪耳)	48첩 6편  48행 433자
	상시호 (獻文懿武 章肅欽孝) 및 묘호(仁宗)	인종	乙巳 九月 辛酉朔 十二日 壬申	영조 어필			
2	<p>1면 : 維嘉靖二十四年歲次乙巳九月辛酉朔壬申 孤弟嗣王臣峴 謹再拜稽首上言 竊以孝莫大於繼序 方切永慕之懷 禮尤重於易名 爰舉追崇之典</p> <p>2면 : 斯乃古今之彝法 固非臣子之私情 恭惟皇兄大王 堯欽舜文禹勤湯敬 久正儲貳之位德允協於元良 恒加精一之功 聖亦造於天縱 肆克紹夫</p> <p>3면 : 前烈 乃丕承乎洪圖惟知儉以慎厥身 寔能孝以仁若考 先收謹獨於屋漏 效既著乎修齊 未有命戒於亮陰 道固具乎恭默試以存神過化之妙 敷此博施濟</p> <p>4면 : 衆之仁 五百年興王之符 將復見乎昭代 三十二喪予之慟 奈又減乎夢齡 何天意之難謀 閔蒼生之無祿 豈料瘳疾之漸進 而致几席之重仍 審訓纔及於</p> <p>5면 : 元臣 末命俄遺於眇幼 恩無所怙 義無所從 徒銜恤於飭終 願揚休於節惠 摹天地畫日月 雖盛德難於形容 垂竹帛勒瑤珉庶微稱傳諸悠久 諷吉</p> <p>6면 : 辰以獻號 陳寶冊而備儀 謹上諡曰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 廟號曰仁宗 伏冀明靈俯鑑殷禮 不顯亦世 默贊燕翼於苞</p> <p>7면 : 桑 無疆惟休 益鞏鴻基於盤石 貞聖后虞主埋安時 得諡冊一片玉於太廟後塔 節當室祝式釐正日也 事非偶然 追慕</p> <p>8면 : 深功 敢將原本盥手以寫 重判粧緘奉安室右所得玉片 並奉穢中 皇明崇禎紀元後三 丁丑季冬 孝曾孫嗣王臣吟拜手敬書</p>						



종묘 13252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현종	1687년	尹順之	靑玉 黃銅 비단	세로: 24.8 가로: 172.6 두께: 1.6 폭: 20 편폭: 3.9 원환(圓環)	8첩 5편  31행 235자
	가상존호 (恭愍)	인조계비 장렬왕후	辛丑 七月 戊申朔 二十七日 甲戌	李德成 吳竣			
3	<p>1면 : 維歲次辛丑七月戊申朔二十七日甲戌 國王臣柵 稽首再拜謹奉冊上言 恭以人紀莫先崇孝 方殫報本之誠</p>						



2면 : 聖德宜加顯名 詎緩進冊之舉 肆揚殷禮 庸陳縟儀 恭惟慈懿大王大妃殿下 淑質柔嘉  
 3면 : 天資淵靜篤生世闕 丕膺沙麓之祥 夙正坤元 允協關雎之詠 逮勛華之繼 陟尚任嬭之尊 臨南國風謠 曾播葛  
 4면 : 覃之化 東朝慈訓 式昭燕翼之謀 懿範既彰於家邦 善頌斯遍於中外 致一國之隆養顧不足於奉  
 5면 : 親 增二字之休稱 庶可盡於歸美 茲實祖宗之成憲 非徒臣子之至情 謹加上尊號曰恭愍 伏惟  
 6면 : 茂衍洪圖 誕受景命 千秋萬歲 綿壽祺而無疆 玉檢金泥 耀徽音以不朽 臣欄誠歡誠忭 稽首再拜  
 7면 : 上言  
 8면 : 글자 없음




종묘 13374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 책봉 옥책	순조	1824년	李晩秀	絹, 銅, 玉, 木	세로: 26.7 가로: 172.9 두께: 1.5 폭 : 21 편폭: 3.2 돌쩌귀 (玆迪耳)	8첩 6편  41행 358자
	곤전 책봉 (왕비)	순조비 순원왕후	壬戌 十月 己亥朔 十三日 辛亥	徐邁修			

1면 : 維歲次壬戌十月己亥朔十三日辛亥 王若曰 周梁之吉日已卜 六禮咸宜 漢殿之寶冊初宣 百祿鼎至 載是琬琰 諧我琴鐘 蓋聞天地交泰而萬品  
 2면 : 亨 日月儷明而四序順 王化必資內助 家人爲治平之基 邦典最重大婚 關雎居風雅之首 咨爾金氏 淑質坤厚 懿範天成 奕世忠貞 篤生塗莘之德 大家詩  
 3면 : 禮 早襲蘋蘩之儀 雖彤管之含章 令聞夙著 嬭黃裳之元吉 景命維新 猗歟 寧考之簡心 悅若溫音之在耳 珩珮合度 想昔日喜動  
 4면 : 天顏 龜筮定祥 幸小子遙追先志 太母之明命祇奉 中壺之縟禮誕陳 承聖祖積慶之庥 佳氣集龍潛之邸 用戴經備物之義  
 5면 : 是月告績之功 茲遣使臣議政府左議政李時秀 漢城府判尹李敬一 持節備禮冊 命爲王妃 朱鴈玄端 賁儀文於迎相 玉簡金篆 晉位號於配尊 彝章式  
 6면 : 遵 象服是稱 於戲 孝敬卽我家法 勤儉如古后妃 齊風第一篇 炯壺戒於簪珥 女則三十卷 廣陰教於紘緼 愉愉婉容 奉  
 7면 : 殿宮萬年之樂 振振嘉頌 衍本支百世之休 克贊宸極之治 永緜宗祧之慶 故茲教示想宜知悉  
 8면 : 글자 없음



5	신수 9235	철종비 철인왕후 추상존호 옥책	순종	1908년	金允植	靑玉 黃銅 비단	세로: 26 가로: 71 두께: 1.1 폭 : 17.4 片幅: 2.3 돌쩌귀 (玆迪耳)	4첩 7편  18행 135자
		추상존호 (章皇后)	철종비 철인왕후	戊申 七月 甲申朔 初三日	洪承穆			

			丙戌(양7.30)				
1면	： 維隆熙二年歲次戊申七月甲申朔初三日丙戌 皇帝臣垢稽首頓首上言 明純徽聖正元粹寧敬 獻莊穆哲人王后金氏 伏以至哉陰功 寔贊						
2면	： 聖人 洋洋其頌 肫肫其仁 粵在己亥 受命維新 上崇祖禰 配天明禋禮有未遑 若待今辰 屬 值祿將 爰及僉詢 咸曰邦禮 統序是遵 肆於						
3면	： 三宗追隆之日 謹上尊號曰章皇后伏惟明靈 光膺寶典 俯答忱恂 謹言						
4면	： 글자 없음						
							

이 중에서 ‘인종 상시호 옥책(仁宗 上諡號 玉冊)’을 대표로 선택하여 살펴보겠다. 이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명종 즉위년(1545) 인종(1515~1545)에게 ‘헌문의무 장숙흠효(獻文懿武章肅欽孝)’라는 시호와 ‘인종(仁宗)’이라는 묘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옥책이다. 시호에서 총명예지(聰明睿智)를 ‘헌(獻)’이라 하고, 도덕박문(道德博問)을 ‘문(文)’이라 하고, 체화거중(體和居中)을 ‘의(懿)’라 하고, 강강직리(剛強直里)를 ‘무(武)’라 하며, 경신고명(敬愼高明)을 ‘장(章)’이라 하고, 집심결단(執心決斷)을 ‘숙(肅)’이라 하고, 위의를비(威儀悉備)를 ‘흠(欽)’이라 하고, 병덕불회(秉德不回)를 ‘효(孝)’라 한다는 뜻이다. 이 옥책 편은 1편만 남아 있는데, 『영조실록(英祖實錄)』권90 영조 33년 12월 10일 무진일에 “우주(虞祭 때 사용하는 神主)를 매안할 때에 한 조각 옥을 태묘의 후계에서 얻었는데, 16자의 각문이 완연히 보였으므로 삼가 열성지장을 상고하여 보니, 바로 인종의 시책이었습니다[虞主埋安時, 得一片玉於太廟後階, 十六字刻文宛然可見, 故謹考列聖誌狀, 則是仁宗諡冊也].”는 기사가 보인다. 인조 14년(1636) 12월 병자호란의 발발로 종묘에 매립되었다가, 영조 33년(1757) 종묘에 영조의 원비(元妃)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우주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옥책 편은 동으로 사각형의 틀을 만들어 넣었는데, 안은 청색이고 밖은 붉은색인 비단으로 갑(匣)을 만들고, 나무로 함을 만들어 넣었다. 봉안장소는 종묘 영녕전 제10실이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옥책은 명종이 발급(發給)하고 인종이 수급(受給)하였으며, 제작은 1545년(명종 즉위년, 乙巳)이고 수여는 을사 구월 신유삭 십이일 임신(乙巳 九月 辛酉朔 十二日 壬申)이다. 제술관은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최연(崔演, 1503~1549)<sup>186)</sup>

186) 최연(崔演, 1503~1549)은 본관이 강릉(江陵)이고 자는 연지(演之)이며, 호는 간재(艮齋)이고 부친은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 최세건(崔世健, 1484~1541)이다. 1519년(중종 14) 사마시를 거쳐 1525년(중종 20)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이 되고, 이어 저작에 올랐다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설서·사서를 거쳐 1531년(중종 26) 김안로(金安老)의 전횡을 고변하고 홍문관수찬에 올랐다. 이후 병조좌랑·원접사(遠接使)·충청도어사·부제학·대사간·동

이고, 서사관은 승정원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 이문건(李文楗, 1494~1567)<sup>187)</sup>이다. 재질은 옥(玉)·동(銅)이고, 크기는 세로 27.3cm, 가로 3.5cm, 두께 2.7cm, 폭 3.5cm, 편폭(片幅) 3.5cm이며, 무게는 0.3kg이다. 1첩 1편이고 1행 13자이며, 서체는 해서이다. 내용은 ‘성스러움 또한 하늘로부터 타고나서 능히 이전의 공렬을 잇고[聖亦造於天縱 肆克紹夫前烈 乃]’이다.

다른 하나는 1545년(명종 즉위년, 乙巳) 제작한 것이 병자호란 발발로 매립되었으나 영조 33년(1757) 종묘에 영조의 원비(元妃)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우주(虞主)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니, 다시 제작된 후 종묘 영녕전 제10실에 봉안하였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옥책은 명종이 발급(發給)하고 인종이 수급(受給)하였으며, 제작은 1757년(영조 33)이고 수여는 을사 구월 신유삭 십이일 임신(乙巳 九月 辛酉朔 十二日 壬申)이다. 제술관은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최연(崔演)이고, 서사관은 영조 어필이다. 재질은 청옥(靑玉)·동(銅)·비단이고, 크기는 세로 26.4cm, 가로 165.7cm, 두께 1.8cm, 폭 20.1cm, 편폭(片幅) 3.3cm이며, 무게는 17.8kg이다. 8첩 6편이고 48행 433자이며, 서체는 해서이고 연첩 방식은 돌쩌귀(玆迪耳)이다. 내용은 인종의 뛰어난 자질을 찬양하고, 그의 요절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말미에는 영조가 직접 작성한 옥책의 발견 및 중수(重修)의 경위를 기록하였다.

#### 다. 옥책의 내용

을사년(1545, 명종 즉위) 9월(초하루 신유일) 12일(임신) 고제(孤弟, 선왕 인종의 혼령에 대해 자신을 指稱)인 사왕(嗣王) 신 환(峘, 명종의 이름)은 삼가 재배하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올립니다.

생각컨대, 효는 대를 잇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바야흐로 영원히 추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예(禮)는 역명(易名, 이름을 바꿈)에 있어 더욱 중요하므로 이에 추숭(追崇)하는 전례(典禮)를 거행합니다. 이것은 고금의 떳떳한 법이니 진실로 신하의 사사로운 정리(情理)가 아닙니다.

부승지·좌승지를 역임하고 1545년(명종 즉위년) 도승지에 올랐으며,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에 책록되고 동원군(東原君)에 봉해졌다. 1548년(명종 3) 지중추부사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거쳐 이듬해 동지사로 명나라에 가던 중 평양에서 병사하였다. 좌찬성 겸 대제학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양(文襄)이다. 시문에 능해 국가에서 주관하는 교서·책문을 주로 담당했고, 어제시(御製詩)에 항상 수석 또는 차석을 차지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다. 저서는 『간재집(艮齋集)』이 있다.

187)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은 본관이 성주(星州)이고 자는 자발(子發)이며, 호는 묵재(默齋)·휴수(休叟)이고 부친은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 이운탁(李允濯, 1462~1501)이다. 조광조(趙光祖) 문하에서 학업을 닦고 1513년(중종 8)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1521년(중종 16) 안처겸(安處謙)의 옥사에 연루되어 낙안(樂安)에 유배되었다. 1527년(중종 22) 사면되어 이듬해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정원주서에 발탁되어 승문원박사·정언·이조좌랑·승문원판교를 지냈다. 명종이 즉위하고 윤원형(尹元衡) 등에 의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죽친 이휘(李輝)가 화를 입었고, 이에 연루되어 성주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성품이 근후했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23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경사(經史)에 탐닉하고 시문에 힘썼다. 이후 이황(李滉)·조식(曹植)·성수침(成守琛)·이이(李珥) 등이 그의 시문을 즐겨 읊었다고 한다. 괴산의 화엄서원(花嚴書院)에 제향되었고, 부친을 위해 1536년(중종 31)에 쓴 <서울 이운탁 한글영비(서울 李允濯 한글靈碑)>(보물)는 우리나라 비문으로서의 한글로 쓴 최초의 묘비문이어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삼가 생각하건대, 황형대왕(皇兄大王)께서는 요임금처럼 삼가고 순임금처럼 빛나며, 우임금처럼 부지런하고 탕임금처럼 공경스러워서 오랫동안 저이(儲貳)의 자리에 바르게 계시었으며, 덕은 진실로 원량(元良)에 부합되었습니다. 항상 정일(精一)한 공(功)을 더하여 성스러움은 또한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에 도달하였으니 비로소 지난날의 공적을 이어 홍도(洪圖)를 크게 계승하였습니다. 오직 검소함을 알아 그 몸을 삼가고 참으로 효도를 잘하여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먼저 옥루(屋漏, 방 안의 서북쪽 모퉁이)에서 근독(謹獨, 즉 愼獨)을 닦아 그 효과가 수신(修身)과 제가(齊家)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양음(亮陰, 임금이 喪中에 있음) 중에는 훈계와 명령이 없으니 도리가 참으로 공손함과 과묵함을 갖추게 되었고, 존신과화(存神過化, 머무는 곳은 신성하게 되고 지나가는 곳은 감화되는 것)하는 묘(妙)로써 시험하여 널리 베풀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인(仁)을 펼쳤습니다. 5백 년마다 왕자(王者)가 나는 상서(祥瑞)를 밝은 세대에 다시 보려 하였는데, 슬프게도 32세에 나를 버리시니 어찌하여 또 몽령(夢齡, 제왕의 수명)을 줄이신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처럼 하늘의 뜻은 믿기가 어렵습니까? 백성들의 복없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어찌 병이 점점 더 심해져서 궤석(几席, 神主를 모시는 곳)이 거둬 설치됨에 이르게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상세한 가르침이 원신(元臣)에게 이르고, 말명(末命, 임금이 죽을 때에 남긴 마지막 명령)이 갑자기 어리고 작은 저에게 남겨지니 은혜는 의지할 곳이 없고, 의리는 따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식종(飾終, 飭과 飾은 통하니 죽은 이에 대해 마지막 예를 꾸미는 것)함에 슬픔을 머금고 절혜(節惠)에 아름다움을 찬양하기를 바랄 뿐인데, 하늘과 땅을 베끼고 해와 달을 그려서 비록 성대한 덕을 표현하기 어렵더라도 죽백에 전하고 요민(瑤珉)에 새기면 아름다운 칭호가 영원히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길일을 가려 칭호를 바치는데, 보책(寶冊)을 드리고 의례(儀禮)를 갖추며, 삼가 시호(諡號)를 올리어 ‘헌문의무 장숙흠효 대왕(獻文懿武 章肅欽孝 大王)’이라 하고, 묘호(廟號)는 ‘인종(仁宗)’이라 합니다. 명령(明靈, 모든 것을 밝게 널리 살피는 영혼)은 성대한 예를 굽어 살피시어 드러나지 않고 대대로 포상(苞桑, 苞桑之計로 근본을 먼저 굳건히 하는 계책)에 연익(燕翼, 조상이 자손을 도와 편안하게 하는 계책)함을 말없이 도우시고, 한없이 아름답게 반석(盤石)에 왕업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우주(虞主, 虞祭 때 사용하는 神主)를 묻어서 안치할 때에 태묘(太廟) 뒷 계단에서 시책(諡冊)의 옥 한 조각을 얻었습니다. 때가 종묘의 축식(祝式)을 바로잡아 고치는 날이고 일이 우연스럽지 않아서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었습니다. 감히 원본(原本)을 관수(盥手,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손을 깨끗이 씻는 절차)하고 베껴서, 다시 만들어 단장해 태실(太室) 오른쪽에 봉안(奉安)하고 얻은 옥 조각도 상자 안에 모셨습니다.

명나라 송정(崇禎, 1628~1644) 기원(紀元) 후 세 번째 정축년(1757) 12월에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 금(吟, 영조의 이름)이 두 손 모아 절하고 삼가 글을 썼습니다.

維嘉靖二十四年歲次乙巳九月辛酉朔壬申 孤弟嗣王臣峴 謹再拜稽首上言 竊以孝莫大於繼序 方切永慕之懷 禮尤重於易名 爰舉追崇之典 斯乃古今之彝法 固非臣子之私情 恭惟皇兄大王 堯欽舜文禹勤湯敬 久正儲貳之位 德允協於元良 恒加精一之功 聖亦造於天縱 肆克紹夫前烈 乃丕承乎洪圖 惟知儉以慎厥身 寔能孝以仁若考 先收謹獨於屋漏 效既著乎修齊 未有命戒於亮陰 道固具乎恭默 試以存神過化之妙 敷此博施濟衆之仁 五百年興王之符 將復見乎昭代 三十二喪予之慟 奈又減乎夢齡 何天意之難諶 閔蒼生之無祿 豈料熒疚之漸進 而致几席之重仍 審訓纔及於元臣 末命俄遺於眇幼 恩無所怙 義無所從 徒銜恤於飭終 願揚休於節惠 摹天地畫日月 雖盛德難於形容 垂竹帛勒瑤珉 庶徽稱傳諸悠久 諷吉辰以獻號 陳寶冊而備儀 謹上諡曰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 廟號曰仁宗 伏冀明靈 俯鑑殷禮 不顯亦世 默贊燕翼於苞桑 無疆惟休 益鞏鴻基於盤石 貞聖后虞主埋安時 得諡冊一片玉於太廟後堦 節當室祝式釐正日也 事非偶然 追慕烝功 敢將原本盥手以寫 重判粧緘奉安室右 所得玉片 並奉櫝中 皇明崇禎紀元後三丁丑季冬 孝曾孫嗣王臣吟拜手敬書

#### 라. 옥책의 옥책의 서체

‘인종 상시호 옥책(1545년)’의 ‘聖亦造於天縱肆克紹夫前烈乃’는 ‘인종 상시호 옥책(1757년)’ 제2면 6행의 ‘聖亦造於天縱肆克紹夫’, 제3면의 1행 ‘前烈乃’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전자와 후자의 제술관은 모두 최연(崔演)이지만, 서사관은 전자가 이문건(李文楗)이고 후자는 영조(英祖, 1694~1776) 어필이어서 글씨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제작 시기에 의하면, 이문건은 51세이고 영조는 63세에 썼다.

<인종 상시호 옥책>

<서울 李允濯 한글靈碑>



영조어필, 1757년



이문건, 1545년



이문건

이문건은 중종 때의 명필로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4권 「문예전고(文藝典故)」에서 글씨에 능하고 병풍과 족자를 잘 꾸몄다고 하였으며, 『해동호보(海東號譜)』에는 그림에도 능했다고 하였다.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서는 송시열이 지은 행장을 인용하여 이르길, “널리 여러 글씨에 통달하고 필법이 한 시대에 뛰어나서 당시의 같은 또래들이 그를 추대하여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 글씨를 칭하는 자가 있으면 초서나 해서를 가리지 않고 당장 휘둘러 써 주었다.”라고 하였다. 저서는 『묵재집(默齋集)』·『묵휴창수(默休唱酬)』·『묵재일기(默齋日記)』가 있다. 『묵재일기』는 1535년에서 1567년까지 쓴 방대한 분량의 일기를 초서로

썼다. 『목휴창수』는 교유하던 유림 제현의 화답시를 묶은 친필본이다. 또 부친을 위해 1536년(중종 31)에 쓴 <서울 이윤탁 한글영비(서울 李允濯 한글靈碑)>(보물)는 우리나라 비문으로서는 한글로 쓴 최초의 묘비문이어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영조 또한 서화가로 부왕 숙종의 영향을 받아 글씨 쓰기를 좋아해 독자적 서풍을 나타내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서예작품이 전한다. 전반기는 송설체 이외에 왕희지체를 구사하였는데, 자신이 이해한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왕희지체에 비해 가늘고 긴 필획이 많은 것을 주요 특징으로 삼았다. 후반기, 특히 1760년 무렵에는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 세로획 혹은 날획 등을 부분적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한편 일부 필획은 짧게 처리하며, 이전보다 약간 기괴하고 자유분방하며 속도감이 있는 운필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전문적 서예가보다는 군왕으로서 모범적 서체를 갖추기 위해 서예작품에 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아하면서 방정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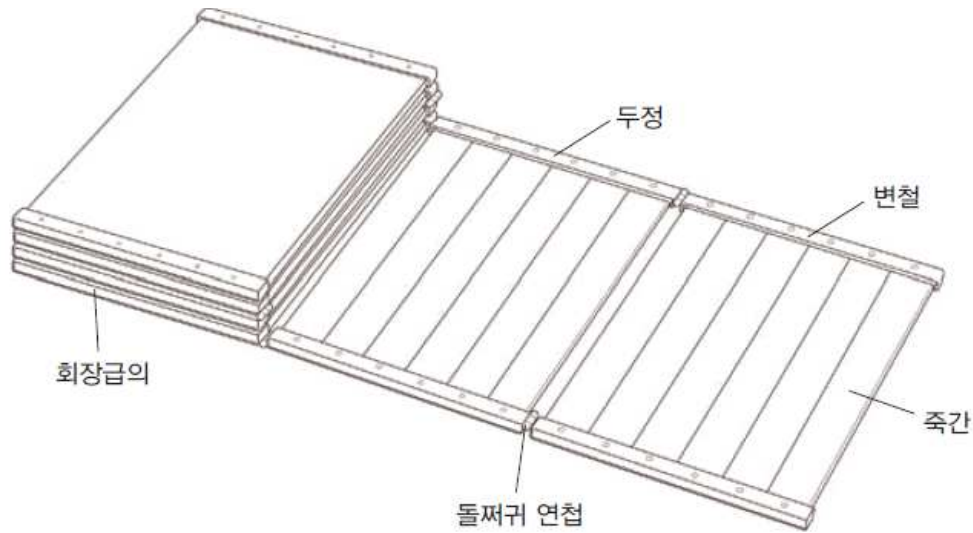
이문건과 영조가 쓴 글씨는 내용이 같고 같은 해서이지만, 용필·결구·서풍은 같지 않다. 용필에서 가장 다른 점은 가로획의 가로와 날획의 각도이다. 예를 들면, ‘聖·亦·天·克·夫’자 등의 가로획에서 이문건을 길게 처리하고 영조는 짧게 처리하였으며, ‘於’자의 오른쪽 ‘人’에서 오른쪽 필획은 이문건은 짧게 처리하였고 영조는 길게 처리하였다. 또 ‘造·縱·夫’자에서 마지막 날획에서 이문건은 45~55° 정도로 곧게 처리하였고, 영조는 글씨를 감싸거나 35° 정도로 처리하여 횡으로 벌어지면서 조금 들린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용필은 결구에도 영향을 주어 이문건의 결구는 긴밀하고 장방형을 이루면서 종세의 필세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영조는 성글고 정방형 내지는 편방형을 이루면서 횡세의 필세를 나타내었다. 서풍은 세련되고 원숙하며 안온함을 나타낸 이문건에 비해 영조는 너그럽고 전아하며 방정한 느낌을 나타내었다. 이는 전문 서예가와 군왕으로서 모범적 서체를 갖춘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 (2) 죽책

### 가. 죽책의 개요

죽책(竹冊)은 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을 책봉할 때와 존호 및 시호를 수여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후궁의 시호를 수여할 때에도 죽책을 사용한다.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敎命)과 책인(冊印)을 수여한다. 죽책의 형태는 죽간(竹簡) 5~6조각을 한 폭으로 변철(邊鐵)로 엮어 4~10첩으로 연결하였고, 처음과 마지막 첩은 비단으로 장식하였다. 글자는 해서로 써서 새기고 니금(泥金)을 하며, 연첩(連貼) 방식은 변철로 고정하고 둥근 고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원환(圓環)과 양쪽 첩과 첩 사이의 배목(排目)에 못 형태의 둥근 쇠를 넣어 고정하는 돌쩌귀(扞迪耳) 두 가지가 있다. 1649년(효종 원년)부터 1736년(영조

12년)까지는 원환 방식이고, 1744년(영조 20)에 제작된 ‘장조비 헌경왕후 봉왕세자빈 죽책’은 돌쩌귀 방식인데, 1752년(영조 28)에 제작된 ‘진종비 효순왕후 상시호 죽책’은 다시 원환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후에는 모두 돌쩌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죽책의 앞뒷면에는 비단으로 회장하여 장식한다. 죽책문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지만, 문장은 사육변려문(四六駢儷文)을 쓴 것이 다르다. 내용은 대개 착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며 경계하는 ‘포미권계(褒美勸戒)’이다.



<죽책 돌쩌귀(鬲迪耳) 연첩방식(連貼方式) 각부 명칭>

죽책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 건국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인 1910년까지이고, 봉안 장소는 종묘 신실(神室)과 사묘(祠廟)이다. 종묘는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례를 올리는 곳으로 신실에는 신주와 함께 어보(御寶)·어책(御冊)·국조보감(國朝寶鑑) 등을 봉안해 둔다. 사묘는 종묘 신실에 봉안되지 못한 의소세손(懿昭世孫)이나 문효세자(文孝世子) 같은 분들과 후궁들의 신주, 그리고 어보와 어책을 봉안한 곳이다. 죽책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은 왕세자·왕세자빈·후궁 등이다. 왕세자·왕세자빈을 책봉할 때는 현재 왕이 발급하여 수여한다. 후궁일 경우에는 시호를 받을 때만 죽책을 사용하는데, 역시 왕이 발급하여 후궁에게 수여한다. 그런데 당대의 왕은 발급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고, 대체로 후대 왕비가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죽책문(竹冊文) 형식은 대두(擡頭)를 사용하고, 글자를 배정할 때 극항(極行, 글줄의 최상단)은 12글자, 중항(中行, 글줄의 중간)은 11글자, 평항(平行, 글줄이 같은 높이)은 10글자인데, 행수(行數)는 지은 글의 다소에 따른다. 문장은 사육변려문(四六駢儷文)이고, 기두(起頭)는 ‘왕약왈(王若曰)’로 시작하여 마지막 결사(結辭)는 ‘고자교시(故茲敎示) 상의지실(想宜知悉)’로 마무리된다. 죽책에는 수여한 날짜를 기록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으로 ‘간지(년)+모월+모일’이고, 다른 하나는 ‘청나라 연호(順治, 康熙)+모년+모월+모일’이다.





죽책 제작은 제술(製述)→출초본서사(出草本書寫)→품정(稟定)→초도서서사(草圖書書寫)→정본서사(正本書寫)→북칠(北漆)→전금(填金)→작첩(作貼)의 과정을 거쳐 완성한다. ‘제술’은 죽책에 새길 글을 짓는 것이고, 제술관은 이를 완성하여 예문관에 제출하면 서사 형식을 가정하여 초도서서사관(草圖書書寫官)을 확정하는데 이를 ‘품정’이라 한다. 초도서서사관은 이를 해서로 쓰는데, 이를 ‘초도서서사’라 한다. ‘정본’은 죽책문을 죽간에 새기기 위해 서사관이 단정하게 쓴 것이고, ‘정본’을 죽간에 붙이는 것을 ‘북칠’이라 한다. 그런 다음 각수(刻手)가 글자를 새기고, 새긴 곳에는 니금(泥金)이라 하여 금가루로 메워 칠하는데 이를 ‘전금’이라 한다. 전금이 끝나면 죽간을 연결하여 첩(貼)의 형태로 만들어 완성한다. 이 과정에 참여한 장인들은 평균 40~50명으로 전문성에 따라 분화된 당시 수공업 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죽책문은 제술관(製述官)이 작성한다. 제술관은 조선 시대 승문원(承文院)에 속한 벼슬로 글을 짓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며, 전례문(典禮文)을 전담하여 짓는 관리이다. 제술관의 특별한 자격 요건은 미리 정해진 바는 없지만, 죽책문을 짓는 요건인 변려문(駢儷文)의 문장력을 갖춘 고위 직위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상례이다.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되고 신분과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당상관 이상의 품계를 지니고 문장력이 뛰어난 고급 관원이 맡았다. 서사관(書寫官)은 초도서(草圖書)와 정본(正本)을 서사하는 관원이다. 초도서는 임금이 어람하는 문서이고, 정본은 비단과 대나무에 직접 글을 쓰거나 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서사관 또한 제술관과 같이 중요한 관직과 명망을 갖추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서사관에 대해서도 실록이나 의궤에서는 자격 요건을 기술한 것은 없다. 죽책을 제작하기 위해 글자를 쓰는 것을 고려할 때 서사관 또한 일정한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정치적인 상황과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이 골고루 갖추어진 정3품 이상의 품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현전하는 죽책은 43점이며, 이 중에서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34점이고 조사대상은 2점이다.

## 나. 죽책의 현상

죽책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모두 34점이고, 이 중에서 조사대상은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1649), 장조 추상시호 죽책(1776) 2점이다.

No.	신 번호	명칭	發給	제작시기	제술관	재질	크기(cm)	字數
		분류	受給	수여시기	서사관			
1	종묘 13481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	인조	1649년	趙綱	竹 銅 絹	세로: 25.5 가로: 73.5 두께: 0.54	4첩 6편  23행

	저위책봉 (왕세자)	현종	기축(1649) 2월 18일	吳竣 俞掄		폭 : 16.7 편폭: 2.7 원환(圓環)	220자
<p>1면 : 維順治六年歲次己丑二月庚寅朔越十八日丁未, 王若曰: 君子抱孫, 禮經所載; 大統正嫡, 宗法所先. 此義通於古今, 介福關於家國. 粵予涼德以承緒, 恒懼天命</p> <p>2면 : 之靡常, 幸賴列聖之垂庥, 乃有元良之錫羨. 咨爾元孫欄, 神氣外朗, 胚胎前光, 教讓之年已盈, 成德之期何遠. 傾耳拭目, 可見百姓之心; 定號命名, 宜</p> <p>3면 : 副羣工之請. 是用, 命爾爲王世孫. 爾其幼志是屏, 玩好是防. 敬恭父母之傍, 說繹忠正之訓. 鷄鳴衣服學問, 寢於龍樓; 蠹簡縱橫傲親, 師於鶴禁. 孝悌而已, 習</p> <p>4면 : 慣自然. 於戲, 豐水歌詩, 詒厥之謀由祖; 赤爵呈瑞, 興周之慶在昌. 誕敷彝章, 備書簡冊. 故茲教示, 想宜知悉.</p>							
							
종묘 13499	장조 추상시호 죽책	정조	1776년	黃景源	竹 銅 絹	세로: 25 가로: 178.3 두께: 0.5 폭 : 16.7 편폭: 2.7 돌쩌귀(軋迪耳)	10첩 6편
	상시호 (莊獻)	장조	병신(1776) 8월 17일	徐命善		51행 341자	
2	<p>1면 : 維歲次丙申八月丙子朔十七日丙辰, 從子國王祚, 謹稽首再拜上冊. 竊以, 秩祀以廣祇敬, 是有國之常經; 顯美以答</p> <p>2면 : 劬勞, 乃亘古之徽則. 誠禮兩盡, 感喜交深. 伏惟皇叔父思悼世子, 凝重之儀, 淵懿爲性. 綦綦翼翼, 允矣肅廟之有神孫; 瑜珮將將, 猗歟</p> <p>3면 : 英考之冊元子. 睿明遂攝於庶政; 溫文架著於重暉. 開賓對而詢廊廟之謨, 聲教克廣; 代宸聽而理國家之事, 獄訟悉歸. 垂</p> <p>4면 : 十四年, 臨玄端視朝之位; 佇千萬世, 基朱芾凝命之祥. 念茲眇躬之受同, 實由春邸之毓祉. 冊展纘</p> <p>5면 : 九章之服, 煢煢銜哀; 青盖想七旒之光, 戚戚增疚. 欽遵繼體之明命, 既盡尊宗之誠; 緬思</p> <p>6면 : 撫首之至恩, 詎無報本之道. 爰稽儀節, 聿建宮園. 侑以雅樂三成, 中呂. 姑洗之并奏; 殺於清廟一等, 大武. 柔毛之具陳. 茲將</p> <p>7면 : 闡徽之忱, 誕舉進冊之禮. 莊然後, 剛德克就, 如覲粹容. 獻也者, 智質有釐, 庶合懿行. 謹奉竹冊, 加上</p> <p>8면 : 諡號曰莊獻. 伏惟冀回明鑑, 俯格微衷, 金篆昭休, 並星辰而齊耀; 竹冊揚</p> <p>9면 : 烈, 與天壤而久存. 祚稽首再拜上冊.</p> <p>10면 : 글자 없음</p>						
							

이 중에서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顯宗 王世孫冊封 竹冊)’을 대표로 선택하여 내용과 서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 죽책은 1649년(인조 27)에 현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하면서 제작한 것이다. 현종(1641~1674)은 효종의 맏아들이며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의 소생으로, 이름은 연(欄), 자(字)는 경직(景直)이다. 효종이 심양(瀋陽)에 볼모로 있을 때 그곳에서 태어났으며, 1649년(인조 27) 왕세손에 책봉되고 1651년(효종 2) 세자에 책봉되었다. 1659년에 등극하여 15년 3개월 동안 재위하였고 창덕궁에서 승하하였다.

이 죽책은 인조가 발급(發給)하고 현종이 수급(受給)하였으며, 제작은 1649년(인조 27)이고 수여는 기축년(1649) 2월 18일이다. 제술관은 대제학(大提學) 조경(趙綱, 1586~1669)<sup>188)</sup>이고, 서사관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오준(吳竣, 1587~1666)<sup>189)</sup>과 공조참의(工曹參議) 유험(兪掄, 1599~1655)<sup>190)</sup>이다. 재질은 대나무[竹]·동(銅)·견(絹)이고, 크기는 세로 25.5cm, 가로 73.5cm, 두께 0.54cm, 폭 16.7cm, 편폭(片幅) 2.7cm이며, 무게는 1,032g이다. 4첩 6편이고 23행 220자이며, 극항(極行)은 12글자이고 평항(平行)은 10글자이다. 연첩방식(連貼方式)은 변철(邊鐵)로 고정하고 둥근 고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원환(圓環)이다. 내용은 왕통을 이어갈 적자(嫡子)를 세우는 것이 국가의 명운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세손(世孫)을 세운다고 한 뒤에, 세손은 타고난 천성이 어질고 자질이 뛰어난을 칭찬하며,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면서 효성과 우애, 신중과 공경, 학문에의 매진 등을 훈계하였다. 봉안장소는 종묘 정전 제10실이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188) 조경(趙綱, 1586~1669)은 본관이 한양(漢陽)이고 자는 일장(日章)이며, 호는 용주(龍洲)·주봉(柱峯)이고 부친은 봉사(奉事) 조익남(趙翼男, 생몰 미상)이며 윤근수(尹根壽, 1537~1616)의 문인이다. 1612년(광해군 4)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했으나 광해군의 난정(亂政)으로 대과를 단념하고 거창에 은거하였다. 1626년(인조 4)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정언·교리·헌납 등을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이어 이조좌랑·이조정랑을 거쳐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시간으로 칩화(抄化)를 주장하였고, 1643년 통신부사로 일본에 다녀와서 기행문을 저술하였다. 이어 형조참의·대사간·대제학, 이조·형조의 판서 등을 거쳐 1653년 회양부사를 지내고 포천에 은퇴하였으며, 1658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661년 관중추부사로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상소를 변호하다가 대간의 논박을 받고 파직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고, 저서는 『용주집(龍洲集)』 23권과 『동사록(東槎錄)』이 있다.

189) 오준(吳竣, 1587~1666)은 본관이 동북(同福)이고 자는 여완(汝完)이며, 호는 죽남(竹南)이고 부친은 이조참판 오백령(吳百齡, 1560~1633)이다. 1618년(광해군 10)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주서(注書)를 거쳐 지평·장령·필선·수찬 등을 지냈다. 1639년(인조 17) 한성부판윤으로 주청부사(奏請副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는데, 같은 해 삼전도비문(三田渡碑文)을 보내라는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비문을 써서 보냈다. 1643년 등극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1650년(효종 1) 예조판서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한 뒤 형조판서·대사헌·우빈객·좌참찬을 거쳐 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써서 국가적인 행사의 서사를 도맡았고, 왕가의 길흉책문(吉凶冊文)과 수많은 공사(公私)의 비명을 썼다. 특히 왕희지체를 따라 단아한 모양의 해서(海西)를 잘 썼다. 저서는 『죽남당집(竹南堂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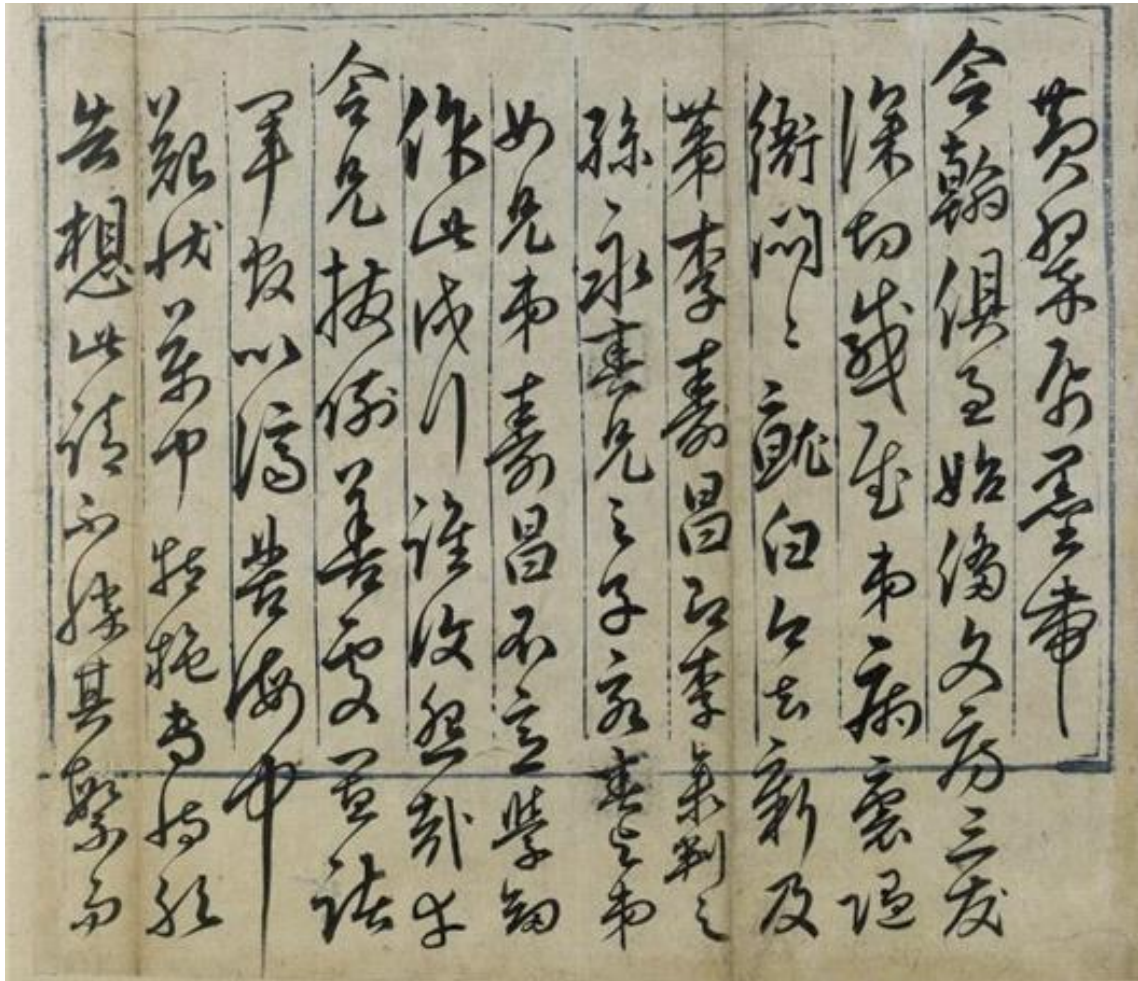
190) 유험(兪掄, 1599~1655)은 본관이 기계(杞溪)이고 자는 전숙(典叔)이며, 호는 봉주(鳳洲)이고 부친은 관찰사 유성증(兪省曾, 1576~1649)이고 이정구(李廷龜, 1564~1635)의 문인이다. 1624년(인조 2) 사마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입학했고, 금오랑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633년 상운찰방(祥雲察訪)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괴원(槐院, 承文院의 다른 이름)에 배속되어 검열·대교·봉교를 거쳐 전직에 올랐다가 병조좌랑을 거쳐 지평에 보임되었다. 이후 헌납·이조참의 겸 시강원문학을 거쳐 병조참의·부승지 등을 역임하고 1648년 전라도관찰사로 나갔다가 다시 승지로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공조참의에 임명되었다. 철저한 배척승명과 노선을 걸었고, 호란이 끝난 뒤에서 참상을 잊지 말 것을 역설하였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 다. 죽책의 내용

순치(順治) 6년 기축년(1649, 인조 27) 2월[초하루 경인일] 18일(정미)에 임금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군자가 손자를 가슴에 품는 것은 『예경禮經』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 제왕의 지위를 이어갈 때 적자(嫡子)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종법(宗法)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의리는 옛날이나 지금에 통용되는 것이고, 큰 복록은 가국(家國)에 관련된 중요한 일이다. 덕이 부족한 내가 왕통을 계승하여 천명이 일정하게 한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두려워하였다. 다행히 선대의 여러 성왕께서 드리워주신 홀륭함에 의지하였기에 신명(神明)이 복을 내려주어 원량(元良, 世子の 代稱인데, 여기에서는 世孫을 이룸)을 두었다. 아, 너 원손(元孫) 연(欄)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밖으로 밝게 드러나고 선조의 공덕을 품고 있다. 교양(教讓, 사양함을 가르침)의 나이인 8세가 이미 꼭 찼으니, 덕을 이룰 시기가 어찌 멀겠는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닦고 보면 백성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 호를 정하고 이름을 지어 모든 관원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이 때문에 너를 왕세손으로 명한다. 너는 마땅히 어린 아이의 마음을 숨기고 노리개를 멀리해야 할 것이다. 부모의 곁에서 삼가 공손하며, 진실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좋아하면서 그 의미를 잘 찾아내야 한다. 새벽답이 울면 의복을 정제하고 학문에 매진하다가 용루(龍樓, 세손의 거처)에서 잠들며, 좀이 슨 옛 책을 종횡으로 가까이 하여 학금(鶴禁, 세손의 거처)에서 배우라. 오직 효성과 공손일 뿐이니, 습관을 들이면 저절로 천성처럼 된다. 아, 풍수(豐水)를 노래한 시가 있으니(『詩經·大雅·文王有聲』) 후손에게 좋은 계책을 내려주는 것은 그 조상으로 말미암고, 붉은 새가 상서로움을 드러내니 주(周)나라를 일으킨 경사는 창(昌, 文王의 이름)에게 있었다. 몇몇한 법도를 널리 반포하여 간책(簡冊)에 글을 갖추어 쓴다. 이상의 이유로 이렇게 교시하니 아마 나의 뜻을 잘 알 것이다.

維順治六年歲次己丑二月庚寅朔越十八日丁未，王若曰：“君子抱孫，禮經所載；大統正嫡，宗法所先。此義通於古今，介福關於家國。粵予涼德以承緒，恒懼天命之靡常，幸賴列聖之垂庥，乃有元良之錫羨。咨爾元孫欄，神氣外朗，胚胎前光，教讓之年已盈，成德之期何遠。傾耳拭目，可見百姓之心；定號命名，宜副羣工之請。是用，命爾爲王世孫。爾其幼志是屏，玩好是防。敬恭父母之傍，說繹忠正之訓。鷄鳴衣服學問，寢於龍樓；蠹簡縱橫傲親，師於鶴禁。孝悌而已，習慣自然。於戲，豐水歌詩，詒厥之謀由祖；赤爵呈瑞，興周之慶在昌。誕敷彝章，備書簡冊。故茲教示，想宜知悉。”

라. 죽책의 서체



<오준의 간찰, 28×24cm, 『근묵(權墨)』>

서사관은 비록 오준(吳竣)과 유험(俞掄) 두 사람이지만, 유험는 서예의 명성이 높지 않고 오준은 당시 글씨를 잘 써서 국가적인 행사의 서사를 도맡았음을 고려하면 이 죽책은 그가 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 오준은 1639년 주청부사(奏請副使)를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 중국을 다녀와 견문을 넓혔고, 그가 다양한 서화를 소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관계가 있다. 서예는 한호(韓濩, 1543~1605)에게 배운 뒤 왕희지체를 깊이 연찬하였다. 그의 필적은 한호의 해서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흡사하고 필획이 정교하면서 법도가 있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차출되며, 단정하고 전형적인 글씨를 많이 남겼다. 따라서 청나라 사신이 와서 명필의 글씨를 요구할 때마다 그의 필적을 얻어갔다는 기록이 『실록』에 여러 차례 보인다. 구례의 <화엄사벽암대사비(華嚴寺碧巖大師碑)>(1663)를 포함한 비갈 글씨가 여러 점 전하는데, 대부분 한호의 소해서 서풍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근묵(權墨)』에 그의 간찰을 수록하였는데, 한호에 비해 필획이 좀 거칠고 비후(肥厚)한 경향을 보인다.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의 서체>

이 죽책의 서체는 해서이고 필법이 정교하며 단정한 서풍이 돋보인다. 필획은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곧으며, 간격은 고르면서 넓어 균색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가로획의 기필은 모난 방필(方筆)로 필봉을 드러내어 조금 길게 처리하였고, 수필은 회봉(回鋒)을 하면서 굵게 눌러 누에머리의 잠두(蠶頭)를 형성하였다. 세로획은 곧으며, 가로획과 세로획을 연결하여 전환하는 전절(轉折) 부분은 부드러우면서 안쪽으로 향해 세련된 결구를 이루었다. ‘ㄷ’는 행서 필의로 연결하였고, 점은 ‘ㄱ’ 형태를 이루었다. 2~3개 단독자를 합친 합체자 ‘縱·橫·傲’자 등은 서로 피하거나 양보하는 피양(避讓)과 암수가 짝을 이루는 빈모(牝牡) 등의 수법을 운용하여 성글거나 긴밀하지 않으면서 원만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와 동시에 좌우의 빠침이나 날획을 길게 처리하여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느낌마저 나타내었다. ‘屏’자에서 왼쪽 빠침의 약획(掠畫)을 밖으로 향해 길게 빼쳐서 가운데 공간을 너그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可’자의 마지막 필획은 일반적으로 갈고리의 적획(趯畫)으로 처리하지만, 여기에서는 아래로 향해 조금 빼쳐서 오히려 시원하고 넓은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之’자의 날획은 일파삼절(一波三折)과 제비 꼬리의 연미(燕尾)가 아니라 길게 늘어지게 하여 송설체(松雪體) 필의를 본받았다. 이상의 용필(用筆)은 굳세고 강한 서풍보다는 부드럽고 연미한 서풍을 나타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결구는 글자에 따라 장방형·정방형·편방형을 자유자재로 섞어 작은 변화를 나타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조화와 통일을 이루었다. 특히 필획·자간·행

간이 고르고, 필획이 많은 글자는 너그럽게 하며, 필획이 적은 글자는 중궁(中宮)을 향해 모이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口’는 위는 넓고 아래는 좁게 하여 가운데로 모이도록 하였으며, ‘六’에서 윗부분은 중궁을 향해 모이고 아랫부분은 밖으로 향해 펼쳤다. 서풍은 석봉체(石峯體)·왕희지체(王羲之體)·송설체(松雪體) 필의를 본받아 전아하고 단정하며 안온하여 죽책의 필요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겠다.

### (3) 금책

#### 가. 금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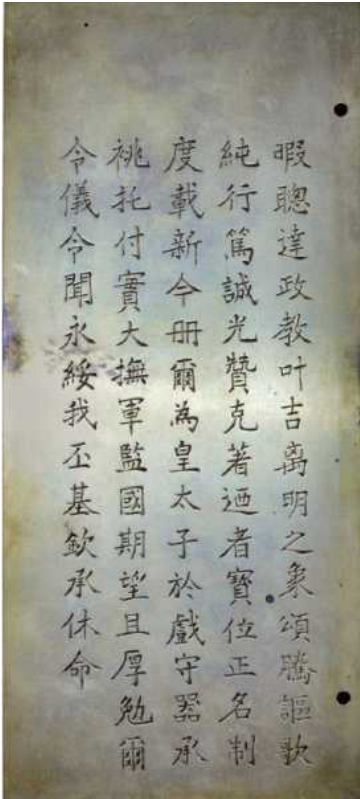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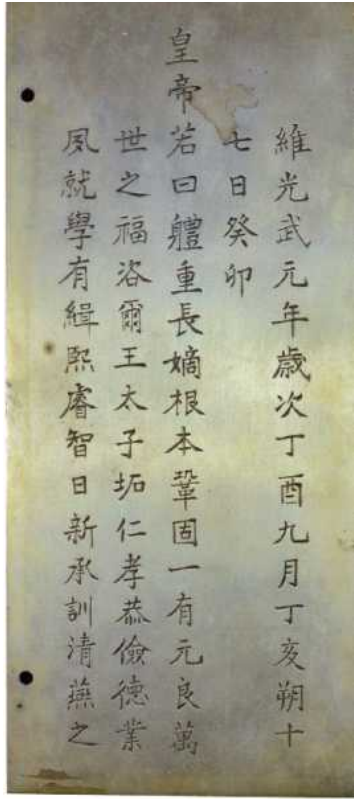
금책(金冊)은 황실에서 책봉 때 금편(金片)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이다. 이는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왕실을 황실로 격상시킨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한 책문이다. 조선이 옥책과 죽책이었다면, 금책은 대한제국이 자주권 확보를 위해 천자국의 예를 행한 상징적인 의물(儀物)이다. 금책은 1897년에서 1910년 7월 24일에 이르기까지 16건이 제작되었고, 용도는 책봉으로 제한하였다. 발급(發給)은 황제이며, 수급(受給)은 승통에 속하는 황후·황태자·황태자비는 물론이고 친왕·친왕비와 황제의 후궁인 귀비와 황귀비 등이다. 이들 신분에 따라 금책 문양이 구분되는데, 초룡(草龍)은 황후·황태자·황태자비, 쌍翟(雙翟)은 황귀비, 반이(蟠螭)는 왕(親王)과 왕비(親王妃)에 새겼다. 제작된 16건의 금책 가운데 현재 소장처가 파악되는 금책은 7건으로 국립고궁박물관(3건)·국립중앙박물관(1건)·서울역사박물관(3건)에서 소장하고 있다.

금책의 내용은 책봉의 배경, 인물의 인적 사항과 평가(칭송), 책봉 선언문, 당부 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금책은 두 개의 금편에 글을 새기고, 붉은색 끈으로 엮어 책처럼 접었다 펴는 형태이다. 금책 역시 옥책이나 죽책과 마찬가지로 제술(製述)→서사(書寫)→회장(回粧)으로 이루어지며, 제술과 서사는 금책문 제술관과 서사관이 담당하였다. 회장은 북칠(北漆)→각자(刻字)→전자(填字)→작첩(作貼)의 각 과정을 전문 공장(工匠)이 담당하였다. 금책의 규모는 문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2개 금편으로만 제작되었는데, 1개 금편의 행수는 4~7행, 1행의 글자 수는 11~19자이다. 금책은 글자 면에 붉은색 안료인 당주홍(唐朱紅)을 채웠다. 또 뒷면을 붉은색 비단으로 배접하고, 상하좌우 4변의 가장자리에 문양을 새겼다. 금책문제술관(金冊文製述官)은 홍문관대학사(弘文館大學士, 3명 8건)·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 3명 4건)·규장각대학사(奎章閣大學士, 1명 3건)·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 1명 1건)이다.

현전하는 금책 7점에서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모두 3점으로 ‘고종비(高宗妃) 명성황후(明成皇后) 황후책봉(皇后冊封) 금책(金冊, 1897), 순종(純宗) 황태자책봉(皇太子冊封) 금책(金冊, 1897), 순종비(純宗妃)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황후추봉

(皇后追封) 금책(金冊, 1907)’ 등이다. 이 중에서 조사대상은 ‘순종 황태자책봉 금책과 순종비 순정효황후 황후추봉 금책’ 2점이다. 이것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금책 1점을 선택하여 내용과 서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 나. 금책의 현상

No.	신 번호	명칭	發給	제작시기	제술관	재질	크기(cm)	字數
		분류	受給	수여시기	서사관			
1	신수 9237	순종 황태자책봉 금책	고종	1897년	金永壽	金銅	세로: 23.5 가로: 20.0 두께: 0.6 편폭: 10.0	2첩 2편  10행 139자
		저위책봉 (왕세자)	순종	정유(1897) 9월 17일	閔丙奭			
<p>1면 : 維光武元年歲次丁酉九月丁亥朔十七日癸卯, 皇帝若曰: 體重長嫡, 根本鞏固, 一有元良, 萬世之福. 咨爾王太子, 仁孝恭儉, 德業夙就, 學有緝熙, 睿知日新. 承訓清燕之暇, 聰達政教; 叶吉離明之象, 頌騰謳歌. 純行篤誠, 光贊克著. 迺者寶位正名, 制度載新, 今冊爾爲皇太子. 於戲守器承祧, 托付實大; 撫軍監國, 期望且厚. 勉爾令儀令聞, 永綏我不基, 欽承休命.</p> <p>2면 : 暇, 聰達政教; 叶吉離明之象, 頌騰謳歌. 純行篤誠, 光贊克著. 迺者寶位正名, 制度載新, 今冊爾爲皇太子. 於戲守器承祧, 托付實大; 撫軍監國, 期望且厚. 勉爾令儀令聞, 永綏我不基, 欽承休命.</p>								
								
2	창덕 25349	순종비 순정효황후 황후추봉	순종	1907년	金鶴鎭	金銅	세로: 22.6 가로: 21 두께: 0.7	2첩 2편  14행



	금책					
	황후 추봉	순정효 황후	정미(1907) 7월 19일 8.27(양)	申箕善	편폭: 10.45	257자
<p>1면 : 維隆熙元年歲次, 丁未七月庚寅朔十九日戊申, 皇帝若曰, 帝王之道, 齊其家而國治; 風教之端, 型于寡而邦御. 惟其德齊, 是以尊同. 供奉天地, 祇承宗廟; 母臨四海, 嗣續百世. 故塗山翼夏, 有莘興殷, 內治之責, 不其重歟? 咨妃尹氏, 忠藎華胄, 幽閑令姿. 動容周旋, 中於規, 自合女則; 仁孝勤儉, 本於性, 無煩姆教. 雖含章而在中, 亦隨時而</p> <p>2면 : 發外. 佐玉齋而嚴禮, 至尊所嘉; 偕銅闈而儆箴, 亦朕攸敬. 六宮之所以敘, 九族之所以親. 朕茲當受命嗣服, 妃亦宜從正位號. 今遣正使完順君李載完, 副使弘文館大學士金鶴鎮, 持節冊, 命妃爲皇后. 欽哉, 夫惟孝敬, 可以奉上; 夫惟寬裕, 可以御下. 泰而能約, 罔有失; 動而思慎, 罔有愆. 懋乃后德, 昭乃母儀. 克念有終, 永綏無疆. 曷不遑哉.</p>						
						

이 중에서 ‘순종(純宗) 황태자 책봉(皇太子冊封) 금책(金冊)’을 대표로 선택하여 살펴 보겠다.

이 금책은 1897년에 고종이 순종을 황태자로 책봉하면서 내린 금책이다. 순종은 이후 1907년 고종에 이어 황위에 올랐다. 대한제국 선포 후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옥책 대신 금책으로 바꾸어 올린 것이다. 이 금책은 명성황후에게 금책을 올릴 때 같이 제작하여 올린 것이다. 순종은 1874년 음력 2월 8일에 창덕궁

관물헌에서 태어났다. 휘는 척(拓), 자는 군방(君邦), 호는 정헌(正軒)이다. 이 호는 고종이 내려준 아호이다. 순종은 2세 때인 1875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1895년에 흥범 14조 반포와 동시에 왕태자로 올랐고,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황태자로 격상되었다. 대한제국이 멸망된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이왕(李王)으로 불렸다. 『고종실록(高宗實錄)』 34년(1897) 10월 12일(양력)에 왕후 민씨(閔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고, 왕태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하였다. 심순택이 백관을 거느리고 국궁(鞠躬), 삼무도(三舞蹈), 삼고두(三叩頭), 산호만세(山呼萬世), 재산호만세(再山呼萬世)를 창하였다고 전한다.

이 금책은 고종이 발급(發給)하고 순종이 수급(受給)하였으며, 제작은 광무 원년(1897)이고 수여는 정유년(1897) 9월 17일이다. 제술관은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김영수(金永壽, 1829~1899)이고, 서사관은 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이다. 재질은 금동(金銅)이고, 크기는 세로 23.5cm, 길이 20.0cm, 두께 0.6cm, 편폭 10.0cm이며, 무게는 3,800g이다. 2첩 2편이고 10행 139자이며, 극향(極行)은 17글자이고 평향(平行)은 15글자이다. 봉안장소는 종묘 봉황태자 금보(분실)이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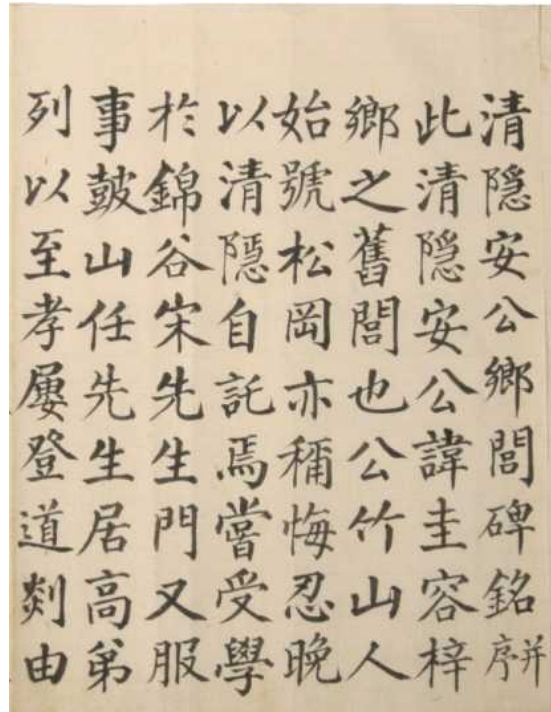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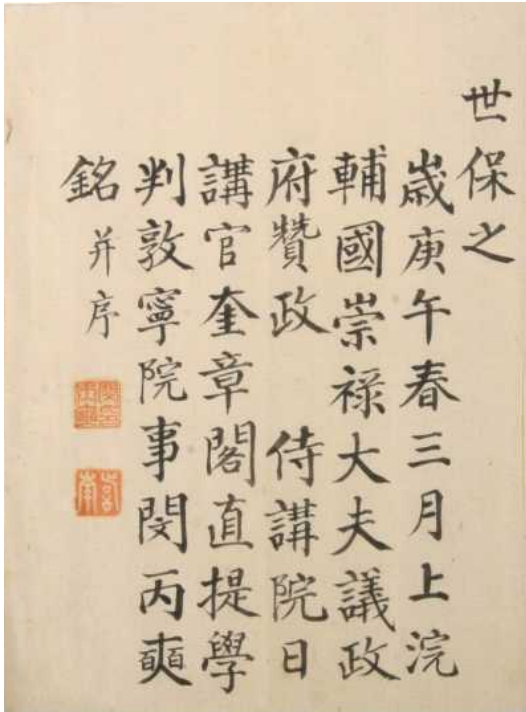
#### 다. 금책의 내용

광무 원년(1897, 丁酉) 9월[초하루 丁亥日] 17일(癸卯) 황제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체통상 만아들을 중요시하면 근본이 공고해지는 법이니, 먼저 원량(元良)을 둔 것은 만세의 복록이다. 아, 너 왕태자 척(拓)은 어질고 효성스러우면서 공손하고 검소하여 덕업을 일찍 성취하며, 학문을 끊임없이 밝혀 예지가 나날이 새로워졌다. 교훈을 받들고 한가롭게 쉬는 여가에는 충명하게 정치와 교육에 통달하고, 이명(離明, 세자를 뜻함)에 길함이 들어맞는 형상으로 칭송이 노래로 비등하다. 순일하게 행동하고 독실하게 정성을 다하니 빛나는 보필이 제대로 드러났다. 일전에 보위(寶位)가 바르게 명명되고 제도가 일신되었으니, 지금 너를 황태자로 책봉한다. 아, 종묘의 제기를 지키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야 하니 맡긴 일이 실로 거대하고, 군대를 위무하고 국가 정무를 살펴야 하니, 기대와 바람이 또한 크다. 너는 훌륭한 거동과 아름다운 명성에 힘써 영원히 우리 왕가의 큰 기업을 안정시키고 삼가 아름다운 천명을 받들라.

維光武元年歲次丁酉九月丁亥朔十七日癸卯，皇帝若曰：體重長嫡，根本鞏固，一有元良，萬世之福。咨爾王太子拓，仁孝恭儉，德業夙就，學有緝熙，睿知日新。承訓清燕之暇，聰達政教；叶吉離明之象，頌騰謳歌。純行篤誠，光贊克著。迺者寶位正名，制度載新，今冊爾爲皇太子。於戲守器承祧，托付實大；撫軍監國，期望且厚。勉爾令儀令聞，永綏我丕基，欽承休命。

라. 금책의 서체

이 금책의 제술관은 김영수(金永壽)이고<sup>191)</sup>, 서사관은 민병석(閔丙奭)<sup>192)</su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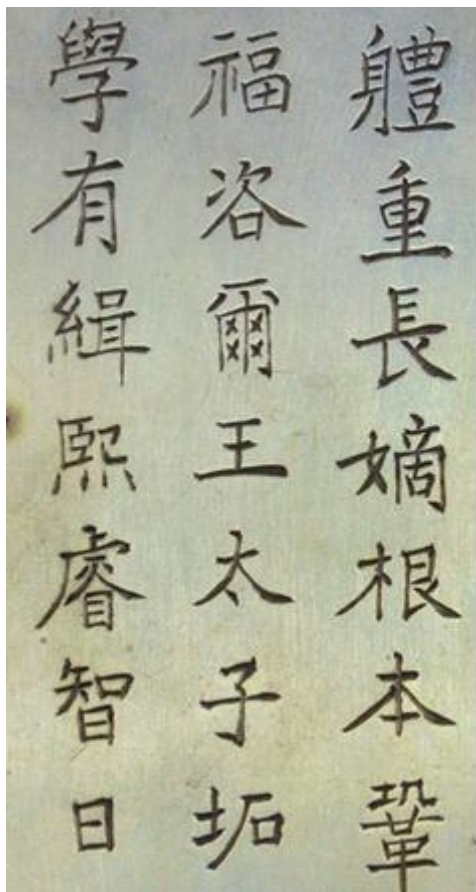
<민병석, 안규용비명(安圭容碑銘), 楮紙, 34.0×144.0cm(부분),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민병석은 비록 행서로 유명하지만, 해서도 잘 써서 현재 광화문 기념비전(紀念碑殿) 안에 있는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서울 高宗 御極 四十年 稱慶紀念碑)>(사적)를 썼다. 이 금책을 쓴 서풍은 위에서 제시한 <안규용비명(安圭容碑銘)>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친필과 이를 단단한 금동(金洞)에 새긴 것은 모필과 도필(刀筆), 종이와 금속에서 나타나는 먹색의 번짐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비록 아무리 잘 새겼더라도 부드러움과 모남의 미묘한 차이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191) 김영수(金永壽, 1829~1899)는 본관이 광산(光山)이고 자는 복여(福汝)이며, 호는 하정(荷亭)이고 부친은 김우현(金字鉉, 1790~1840)이다. 1870년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성균관대사성·이조참의·강화부유수·이조참판·경상도관찰사·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하고, 1890년까지 예조·이조·호조·병조·공조의 판서 등을 두루 지냈다. 이후 한성부판윤·홍문관대제학·궁내부특진관·의정부찬정·장례원경·홍문관대학사·의정부참정 등을 지냈다. 특히 문재(文才)에 뛰어나 고종의 총애를 받았다.

192)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은 본관이 여흥(驪興)이고 자는 경소(景昭)이며, 호는 시남(詩南)이고 부친은 민경식(閔敬植, 1822~?)이다. 1879년(고종 16)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검열·승지·대사성·강화부유수·평안도관찰사·호위대총관·헌병대사령관 등을 역임하였다. 1898년 농상공부대신이 되어 1905년 7월 왕명으로 일본을 시찰하고, 이토히로부미를 왕실 최고 고문으로 초빙하려 했다.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이토히로부미 저격 사건이 일어나자 궁내부대신으로 이토히로부미 장례식에 참석하였고, 이후 한일합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자 윤덕영(尹惠榮, 1873~1940)과 함께 이를 무마하는 데 힘썼다. 한일합병과 함께 훈1등 자작이 되고 은사금 10만 엔을 받았다. 1937년 애국금채회의 발기인이 되어 일본의 침략전쟁을 후원했으며, 조선사편수회 고문, 국민정신총동원 고문 등을 역임한 뒤 1939년 중추원 부의장이 되었다가 1940년 8월 6일 일본 도쿄의 병원에서 죽었다. 서화에 능하였고, 특히 행서를 잘 썼다.

이 금책문의 글씨는 도필로 새긴 것이어서 필획은 전체적으로 곡선보다는 직선이지만, 필획의 각도 변화를 통해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순종 황태자책봉 금책의 서체>

용필에서 가로획은 대체로 평평하지만, 아랫부분은 평평하고 윗부분은 기필보다 수필이 굽어서 위로 향한 느낌이 든다. 세로획은 곧게 내려갔지만, 미묘하게 왼쪽으로 향하거나 오른쪽으로 향하며 변화를 나타내었다. 긴 세로획은 마치 가로획을 세운 것처럼 위아래는 조금 굽고 가운데는 곧으며, 필획 안쪽은 곧고 바깥쪽은 약간 호형(弧形)을 이루는 내엽법(內擲法)을 운용하였다. 이는 가로획에서 세로획으로 전환하는 전절(轉折)에서 말미암은 바가 크지만, 방법은 모나게 꺾는 방절(方折)과 둥글게 전환하는 원전(圓轉) 두 가지를 운용하였다. 왼쪽 긴 빼침의 약획(掠畫)은 그냥 45°로 길게 빼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위에서 약간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빠치며 전체적으로 활 모양의 호형을 이루어 둥글면서도 탄성이 풍부한 느낌이 든다. 갈고리의 적획은 뾰족하고 강하게 처리하였고, 날획에 해당하는 과임은  $\frac{2}{3}$ 는 45°로 곧게 빠치다가 끝의  $\frac{1}{3}$ 은 굽으면서 옆으로 향해 길게 빼며 송설체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용필의 변화는 도필로 직선에서 부드러운 필의를 나타내는 것이 관건이다.

결구는 세로가 긴 장방형이 위주이고, 자간보다 행간이 넓어 종세(縱勢)의 필세가 두드러진다. 필획 사이의 간격은 고르고 너그러우니 성글거나 균색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비록 정방형 위주에서 나타나는 전아(典雅)하고 단정하며 안온한 느낌이 부족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유롭고 생동하며 활발한 기식을 나타내었다. 종합하여 말하면, 행서를 잘 썼던 금책문서사관(金冊文書寫官) 민병석은 해서를 쓸 때도 행서와 북위서(北魏書) 필의를 가미하여 굳세고 아리따운 자태를 나타내며 일반 어책(御冊)과는 차별성을 이루었다.

## 2) 교명

### (1) 교명 개요

교명(敎命)은 왕의 전선(傳禪, 임금이 살아계실 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는 것으로 內禪·禪讓·傳授·受禪·傳位라고도 함)이나 왕세자 관례(冠禮),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王世弟)·왕세제빈·왕세손(王世孫)·왕세손빈·후궁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이다.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보(冊寶, 玉冊과 金寶)를 수여하고,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冊印, 竹冊과 玉印)을 수여한다. 교명은 옥축(玉軸)에 비단으로 감싸서 만든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홍색·황색·남색·백색·흑색 등 오색 비단에 먹으로 해서체를 필사한 것이다. 교명의 시작 부분에는 용 두 마리가 오르내리는 승강룡(昇降龍) 사이에 ‘敎命’이라는 전서체 글자를 황진사(黃眞絲)로 직조하여 넣는다. 서식은 교서(敎書)와 비슷하나 교명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국새를 날인(捺印)하는데, ‘조선왕보(朝鮮王寶)’를 찍은 것도 있다.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것이다. 교명과 죽책은 형태적으로 볼 때는 확연히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여 명확한 구분을 짓기는 어렵다.



<시명지보(施命之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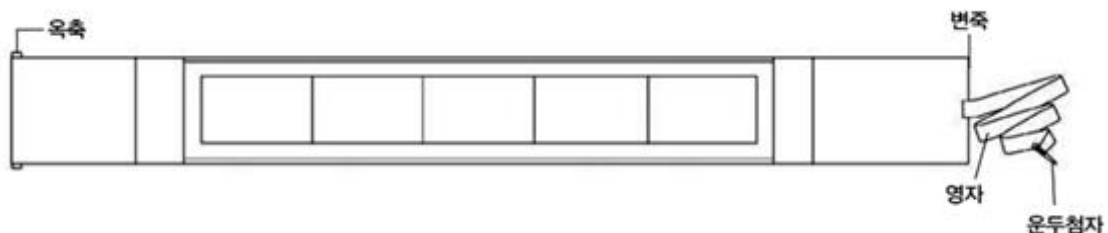


<조선왕보(朝鮮王寶)>

교명의 제작 형태는 모두 같고, 내용은 수여하는 대상과 의례별로 구분할 수 있다. 수여하는 대상은 왕비·왕세자·왕세제·왕세손·왕세자빈·왕세제빈·왕세손빈·후궁 등이다. 의례는 전선(傳禪), 저위 관례(儲位 冠禮, 왕세자의 관례), 곤전 책봉(壺殿 冊封, 왕비 책봉), 저위 책봉(儲位 冊封, 王世子·王世弟·王世孫 책봉), 빈궁 책봉(嬪宮 冊封, 王世子嬪·王世弟嬪·王世孫嬪 책봉), 후궁 봉빈(後宮 封嬪, 후궁을 빈으로 책봉) 등이다.

현전하는 교명은 32점으로 국립고궁박물관에 28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2점, 국립중앙박물관에 2점 등이 소장되어 있다. 교명은 왕비·왕세자·왕세자빈·후궁 등을 책봉 및 봉빈할 때 왕이 발급한다. 왕비의 경우는 대체로 왕으로 등극한 지 2년 후에 왕비를 책봉하면서 교명을 발급해 수여하는데, 왕이 발급(發給)하고 왕비가 수급(受給)한다. 왕세제·왕세제빈은 형이 발급하고 동생이 수급한다. 현재의 왕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교명을 발급하여 수여할 때는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되는 것이다. 선대 즉 할아버지께서 발급하여 수여할 때는 왕세손과 왕세손빈이 된다. 후궁일 경우에는 왕이 발급하고 후궁이 수급한다.

교명은 대두(擡頭)를 사용하여 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 등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를 높여 경의를 표하기 위해 줄을 바꾸어 다른 줄 맨 위로 올려 적거나 글의 중간을 띄어 쓰는 형식을 사용한다. 글자를 배정할 때 극항(極行, 글줄의 최상단)은 10글자, 중항(中行, 글줄의 중간)은 9글자, 평항(平行, 글줄이 같은 높이)은 8글자이고, 행수(行數)는 지은 글의 다소에 따른다. 교명의 서식은 교서(敎書)와 비슷하고 문장은 사륙변려문(四六駢儷文)이며,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훈유서(訓諭書)·선포문(宣布文)의 성격을 가진다. 서식은 기두(起頭)가 ‘왕약왈(王若曰)’로 시작하여 마지막 결사(結辭)는 ‘고자교시(故茲敎示) 상의지실(想宜知悉)’로 마무리된다. 교명은 의례를 행하면서 수여한 날짜를 기록하는데, 본문의 맨 마지막 폭인 검은 바탕의 승강룡 사이에 쓰고 일반적으로 연호를 쓰지 않으며 연월일만 쓴다. 날인(捺印)은 본문이 끝나는 다섯 번째 흑색 폭에 국새인 ‘시명지보(施命之寶)’를 날인한다.



<교명의 각부 명칭>

운두첨자(雲頭籤子)는 메뚜기라고도 하는데, 연황동(鍊黃銅)으로 만들며 도금을 한다. 형태는 비녀와 비슷하며 한쪽 끝은 뾰족하고 다른 한쪽 끝은 구름 모양이다.

영자(纓子)의 끝에 달려 두루마리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영자는 대자(帶子)라고도 하는데, 두루마리 형태의 교명을 감아서 고정하는 띠로 한쪽 끝은 변죽(邊竹)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 끝은 운두침자를 단다. 변죽은 명칭과 달리 대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산유자(山柚子)·오동나무·추목(楸木) 등의 나무를 사용한다. 변죽은 옥축(玉軸)과 달리 반원 모양의 형태인데, 반원의 평평한 면은 교명의 안쪽이고 반원 형태는 밖으로 이곳에 거물정(巨物釘)으로 영자를 부착한다. 거물정은 ‘거물못’이라고도 하며, 변죽과 영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변죽에 ㄷ자 모양의 거물정을 박고, 영자를 거물정에 걸어 연결한다.

교명문(敎命文)은 제술관(製述官)이 작성한다. 제술관은 조선 시대 승문원(承文院)에 속한 벼슬로 글을 짓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며, 전례문(典禮文)을 전달하여 짓는 관리이다. 제술관의 특별한 자격 요건은 미리 정해진 바는 없지만, 교명문을 짓는 요건인 변려문(駢儷文)의 문장력을 갖춘 고위 직위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상례이다.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되고 신분과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당상관 이상의 품계를 지닌 문장력이 뛰어난 고급 관원이 맡았다. 서사관(書寫官)은 초도서(草圖書)와 정본(正本)을 서사하는 관원이다. 초도서는 임금이 어람하는 문서이고, 정본은 비단에 직접 글을 쓰는 것인데, 서사관에 대해서는 실록이나 의궤에서도 자격 요건을 기술한 것이 없지만, 일정한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정치적인 상황과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이 골고루 갖추어진 정3품 이상의 품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교명은 초기에 교지(敎旨)와 같은 짤막한 내용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격식을 갖추어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는 핵심 의물(儀物)로 조선 왕실을 상징하였다. 현전하는 교명은 32점이며, 이 중에서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29점이고 조사대상은 4점이다.


## (2) 교명의 현상

교명(敎命)은 1398년 ‘정종 수선 교명’부터 1882년 ‘순명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까지 총 77점이 제작되었다. 현전하는 교명은 국립고궁박물관에 28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2점, 국립중앙박물관에 2점 등 모두 32점이다. 이 중에서 조사대상은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景宗 王世子冊封 敎命, 1690년)·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景宗繼妃 宣懿王后 王世子嬪冊封 敎命, 1718년)·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책봉 교명(正祖妃 孝懿王后 王世孫嬪冊封 敎命, 1762년)·순종 왕세자책봉 교명(純宗 王世子冊封 敎命, 1875년) 등 4점이다.

No.	신 번호	명칭 분류	發給 受給	제작시기 수여시기	제술관 서사관	재질	크기(cm)	字數
	1	종묘 13523	경종 왕세자 책봉 교명 저위 책봉 (왕세자)	숙종	1690년			
<p>1면 : 敎命</p> <p>2면 : 王若曰: “義易著蒙養之功, 方軫翼子; 漢史徵豫建之議, 肆舉冊儲. 言出敷心, 喜深撫頂. 念予鴻祚之忝御, 久欠燕禩之嘉祥. 廿八鼎</p> <p>3면 : 盛之年, 未爲人父; 三百傳授之業, 恐墜吾身. 後事孤危, 入宮鈔提孩之樂; 國本捏抐, 率土佇延頸之望. 何幸上天之垂休, 果致</p> <p>4면 : 前星之有慶. 咨爾元子昀, 體貌甚偉, 性質不凡. 明珠掌中, 儼若天人之表; 膝下, 藹然父子之情. 令聞已著於懸弧, 德器允</p> <p>5면 : 叶於主鬯. 元子之號初定, 固是重本之圖; 副君之位久虛, 寧稽正名之典. 臣齊籲, 盖倣周家之舊儀; 幼年行封, 亦有明朝之</p> <p>6면 : 遺軌. 故當免懷之歲, 爰陞繼體之尊. 茲命爾爲王世子. 爾其毋失赤子之心, 阿保之手. 設春坊之僚屬, 宣爲親賢; 膺夏啓</p> <p>7면 : 之謳歌, 庶懋成德. 瞻繼照於明兩, 付托何憂; 勤問寢於日三, 長成是待. 提耳既切於今日, 服膺益勉於他時. 故茲敎示, 想宜知悉.</p> <p>8면 : 康熙二十九年六月十六日. 施命之寶 날인</p>								
								
2	종묘 13526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빈궁 책봉 (왕세자빈)	숙종	1718년	宋相琦 李夏坤 閔鎮厚	絹, 銅, 玉, 木	세로: 34.2, 가로(전체): 314.5 봉: 길이(37.6), 지름(3.4) 끈: 폭(2.8) 길이(111)	40행 313자
<p>1면 : 敎命</p> <p>2면 : 王若曰: 予惟國家之本, 唯在冢儲. 其克相協左右, 以肇基王化, 亦唯在賢配. 典冊所載, 厥義可稽. 肆予丕庸, 致愼于茲. 粵我元嗣, 聰</p> <p>3면 : 明仁孝. 迺代予理, 迺懋厥政, 大器是承, 負荷尤重. 內治之助, 其曷可一日有曠. 予乃歷選名閥, 思得淑哲, 以配我元嗣, 以共相</p> <p>4면 : 我宗事. 咨爾魚氏, 自爾先迺有聞人, 奕世載德, 儲祥毓祉. 爰有碩媛, 以應我寤寐之求. 婉嫵柔順, 德容具備, 予用特簡在心.</p> <p>5면 : 迺稽于龜筮, 迺詢于卿士, 咸云其吉, 罔或有違. 茲遣正使臨昌君焜副使禮曹判書閔鎮遠, 持節備禮, 冊爾爲王世子嬪. 爾其</p> <p>6면 : 宜爾象服, 謹爾婦職. 敬以事上, 惠以御衆; 勤以持志, 儉以飭身. 毋作逸豫驕侈, 以害于義悖于禮. 惟艱厥位, 乃罔不休. 於戲, 陰</p> <p>7면 : 陽和而萬化成, 內外正而百度貞. 爾式克欽承, 輔我元良, 贊我壺政, 罔俾思齊思媚, 專美有周. 惟予爾嘉, 爾亦將有無窮之福.</p> <p>8면 : 尙忱念茲, 毋忝予訓辭. 故茲敎示, 想宜知悉.</p>								



9면 : 戊戌九月十三日. 施命之寶 날인								
								
종묘 13536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 책봉 교명	영조	1762년	鄭翬良	絹, 銅, 玉, 木	세로: 34.3, 가로(전체): 307.4 봉: 길이(38.5), 지름(3.2) 끈: 폭(6) 길이(145)	43행 337자	
	빈궁책봉 (왕세손빈)	정조비 효의왕후	임오(1762) 정월 초8일	洪樂性				
3	<p>1면 : 敎命</p> <p>2면 : 王若曰. 萬世繼體之圖, 已托於冢嫡; 三古擇配之義, 爰稽於彝章. 弗…祿斯基, 風化所自, 念文孫德性之夙就, 伊罔域顛望之日深. 導</p> <p>3면 : 正養蒙, 謨則遠於貽厥; 筮賓齒冑, 責已備於成人. 蓋邦教必本於正家, 故予心益急於選耦. 迺眷名德之族, 孰膺窈窕之求. 咨</p> <p>4면 : 爾金氏, 恭慎存心, 貞靜成性, 襲賢相種德之後, 閨範克彰; 鍾聖后毓慶之餘, 天意可見. 衆美之具, 特簡所符, 卜協而卿士率從,</p> <p>5면 : 祥定而宮闈胥賀. 茲遣臣, 行吏曹判書韓翼壽, 戶曹參判洪麟漢, 持節備禮, 冊爾爲王世孫嬪. 爾其寵命是服, 婦道益虔, 龍樓</p> <p>6면 : 展歡, 祇承長秋之陰教; 鶴禁致敬, 式遵貳壺之芳猷. 幸我有子而有孫, 以娛晚境; 勗爾宜家而宜室, 永鞏丕基. 秉柔則而儆戒</p> <p>7면 : 相成, 體訓辭而謙約自度. 是知則百之運, 寔自今休, 豈料望七之齡, 親當斯慶? 矧痘疹次第湔復, 乃宗廟</p> <p>8면 : 陟降所臨. 於戲! 吉揀可徵於嗣徽, 至情愈切於錫福. 思齊思媚, 播令聞於珩璜; 克儉克勤, 昭懿德於綈練. 故茲敎示, 想宜知悉.</p> <p>9면 : 壬午正月初八日. 施命之寶 날인</p>							
								
4	신수 9239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	고종	1875년	金炳學	絹, 銅, 玉, 木	세로: 37.3, 가로(전체): 294 봉: 길이(39.5), 지름(3.0) 끈(폭): 2.7	44행 350자
		저위책봉 (왕세자)	순종	을해(1875) 2월 18일	李敦宇 金炳學			
4	<p>1면 : 敎命</p> <p>2면 : 王若曰: 繼大人照四方, 建儲所以固本; 有元良貞萬國, 立嫡所以守祧. 載稽禮彝, 庸賁寶典. 咨爾元子坻, 冑胤居正, 睿表應祥. 后稷</p> <p>3면 : 卽有邠家, 已兆於誕實匍匐之狀; 文王之爲世子, 蓋本乎生而明聖之姿. 中某律吹銅, 允叶青史氏記; 問若干衣尺, 喜見朱芾</p> <p>4면 : 斯皇. 周成在襁褓之中, 必須師保正事; 庖羲著匕鬯之象, 賈由蒙養聖功. 肆惟三代之久安, 莫如貳邨之早諫. 緬九迴繞樞之</p> <p>5면 : 甲, 慶會適符於今年; 值初度懸弧之辰, 慈情倍悅於是月. 既舉沐浴正名之禮, 爰答謳歌延頸之忱. 茲</p>							

<p>命爾爲王世子，爾其保赤  6면 : 子之良知，履青宮之定位。無違父母，惟仁孝通乎神明；當法祖宗，惟誠敬嚴若天命。勸我家傳授之訓，四勿九經；待端士輔翼之  7면 : 箴，三善一物。屏衣服器玩之侈，習與長化與成；遠便僻邪佞之言，喻諸德歸諸道。先自孔聖之孝經朱子之小學，名言在茲；以  8면 : 至神堯曰文思大舜曰溫恭，有爲若是。於戲，乾元得少陽之副，嚮五福於範疇；前星扶太極之尊，奠萬歲於磐泰。故茲教示，想  9면 : 宜知悉。乙亥二月十八日。施命之寶 날인</p>	
--	--

이 중에서 ‘순종 왕세자 책봉 교명(純宗 王世子冊封 敎命)’을 대표로 선택하여 내용과 서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 교명은 1875(고종 12) 2월 18일 고종이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면서 제작한 교명이다. 순종은 고종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는 명성황후이며, 1874년 음력 2월 8일에 창덕궁 관물헌(觀物軒)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척(拓), 자는 군방(君邦), 호는 정헌(正軒)이다. 순종은 1882년 9세의 나이로 순명 효황후(純明 孝皇后)와 가례를 올리고, 1897년 24세에 황태자에 책봉되며, 1907년 황위에 올랐다. 왕세자 책봉식은 1875년 2월 18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고종은 인정전에 나가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하였으며, 이튿날 신하들의 하례를 받고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행사가 끝난 직후 고종은 『국조어첩(國朝御牒)』과 『선원보략(璿源譜略)』에 세자의 책봉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시명지보(施命之寶)를 날인(捺印)하고 종묘 정전 제 19실에 봉안하였는데, 현재 이 교명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이 교명은 고종(高宗)이 발급(發給)하고 순종(純宗)이 수급(受給)하였으며, 제작은 1875년(고종 12)이고 수여는 을해년(1875) 2월 18일이다. 제술관(製述官)은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학(金炳學, 1821~1879)이고, 서사관(書寫官)은 봉조하(奉朝賀) 이돈우(李敦宇, 1801~1884)가 교명의 전문(篆文)을 썼으며, 본문은 좌의정(左議政) 이최응(李最應, 1815~1882)이 해서로 썼다. 재질은 견(絹)·동(銅)·옥(玉)·나무[木]이다. 크기는 세로 37.3cm이고 가로(전체) 294cm이며, 봉의 길이는 39.5cm이고 지름은 3.0cm이며, 끈의 폭은 2.7cm이고 무게는 975g이다. 글자 수는 44행에 350자를 썼는데, 대두(擡頭)를 사용한 것은 10자이고, 나머지는 행마다 8자씩 썼다.

### (3) 교명의 내용

교명.

임금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대인을 계승하여 사방을 비추니 왕세자를 세우는 것은 근본을 공고히 하는 것이고, 원량(元良)을 두어 만국을 바르게 하니 적장자를 세우는 것은 조상의 제사를 지키는 바이다. 이에 몇몇한 예전(禮典)을 상고하여 보배로운 전례를 빛나게 한다. 아, 원자인 너 척(烝, 순종의 이름)은 만아들로서 바른 자리에 있으며, 왕세자 모습이 상서로움에 응한다. 후직(后稷)이 태(邵)나라에 봉함을 받았으니 이는 이미 크게 튼튼하여 힘차게 기어가는 모습에서 조짐이 나타났고, 문왕(文王)이 세자가 되었으니 이는 태생적으로 총명하고 성스러운 자태에 근본 한 것이다. 율관을 붙였을 때 아무개 음률에 맞으니 역사가의 기록에 진실로 부합하고, 약간 의복의 치수를 물어보니 붉은 슬잡이 빛나는 것을 기쁘게 본다.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포대기 속에 있을 때도 반드시 바른 일로 가르치는 스승을 필요로 하였고, 복희(庖羲)가 비창(匕鬯, 匕는 宗廟 祭器의 일종이고, 鬯은 종묘의 제사에 쓰는 鬱鬯酒로 종묘의 제사를 뜻함)의 형상을 드러낸 것은 실로 어릴 때부터 성왕의 공부로 수양했기 때문이다. 하·은·주(夏·殷·周) 삼대가 오래도록 평안했던 것은 일찍부터 세자를 교육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아홉 번 북두성이 회전한 시절이 이어지니 경사스러운 연회가 마침 올해에 들어맞고, 첫돌에 문 앞에 활을 건 때를 만나니 자애로운 감정으로 이달에 기쁨이 배가 된다. 이미 목욕재계하고 명분을 바로잡는 예식을 거행했으니, 신민들이 칭송하고 기다리는 정성에 부합하려 한다. 이에 너를 왕세자로 명하니, 너는 적자(赤子)의 양지(良知)를 보존하고, 청궁(靑宮)의 확정된 자리를 밟으라. 부모에게 어김이 없어야 하니 오직 인효(仁孝)만이 신명에게 통하고, 역대 선대왕을 본받아야 하니 오직 성경(誠敬)만이 천명처럼 엄한 것이다. 우리 왕가에서 전수해온 교훈에 힘써야 하니 그것은 바로 사물(四勿, 즉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과 구경(九經, 신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큰 법으로 修身·尊賢·親親·敬大臣·體羣臣·子庶民·來百工·柔遠人·懷諸侯)이고, 단정한 선비가 보좌하는 경계를 기다려야 하니 그것은 바로 삼선(三善, 세 가지 착한 일로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며, 어린이가 어른을 섬기는 일)과 일물(一物)이다. 의복이나 기물의 사치스러움을 물리쳐야 하니 이는 습관이 심해져서 변화하여 본성처럼 되기 때문이고, 편벽되고 아첨하는 말을 멀리해야 하니, 이는 덕에 밝고 도에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공자의 『효경(孝經)』과 주자의 『소학(小學)』에 격언이 실려 있고, 요(堯)임금의 문사(文思)와 순(舜)임금의 온공(溫恭)은 큰일을 하면 이와 같은 것이다. 아, 건원(乾元, 임금을 비유함)은 소양(少陽)의 도움을 얻으니 홍범구주(洪範九疇)에서 제시한 오복을 누리고, 전성(前星, 세자를 비유함)이 태극(太極)의 존귀함을 도우니 만세토록 태산반석(泰山盤石)처럼 공고히 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교시하니 아마도 나의

뜻을 잘 알 것이다. 을해년(1875, 고종 12) 2월 18일.

敎命.

王若曰：“繼大人照四方，建儲所以固本；有元良貞萬國，立嫡所以守祧。稽禮彝，庸賁寶典。咨爾元子垢，胄胤居正，睿表應祥。后稷卽有郃家，兆於誕實匍匐之狀；文王之爲世子，蓋本乎生而明聖之姿。中某律吹銅，允叶青史氏記；問若干衣尺，喜見朱芾斯皇。周成在襁褓之中，必須師保正事；庖羲著匕鬯之象，亶由蒙養聖功。肆惟三代之久安，莫如貳邱之早諭。緬九廻繞樞之甲，慶會適符於今年；值初度懸弧之辰，慈情倍悅於是月。旣舉沐浴正名之禮，爰答謳歌延頸之忱。茲命爾爲王世子，爾其保赤子之良知，履青宮之定位。無違父母，惟仁孝通乎神明；當法祖宗，惟誠敬嚴若天命。勸我家傳授之訓，四勿九經；待端士輔翼之箴，三善一物。屏衣服器玩之侈，習與長化與成；遠便僻邪佞之言，喻諸德歸諸道。先自孔聖之孝經朱子之小學，名言在茲；以至神堯曰文思大舜曰溫恭，有爲若是。於戲，乾元得少陽之副，嚮五福於範疇；前星扶太極之尊，奠萬歲於磐泰。故茲敎示，想宜知悉。”乙亥二月十八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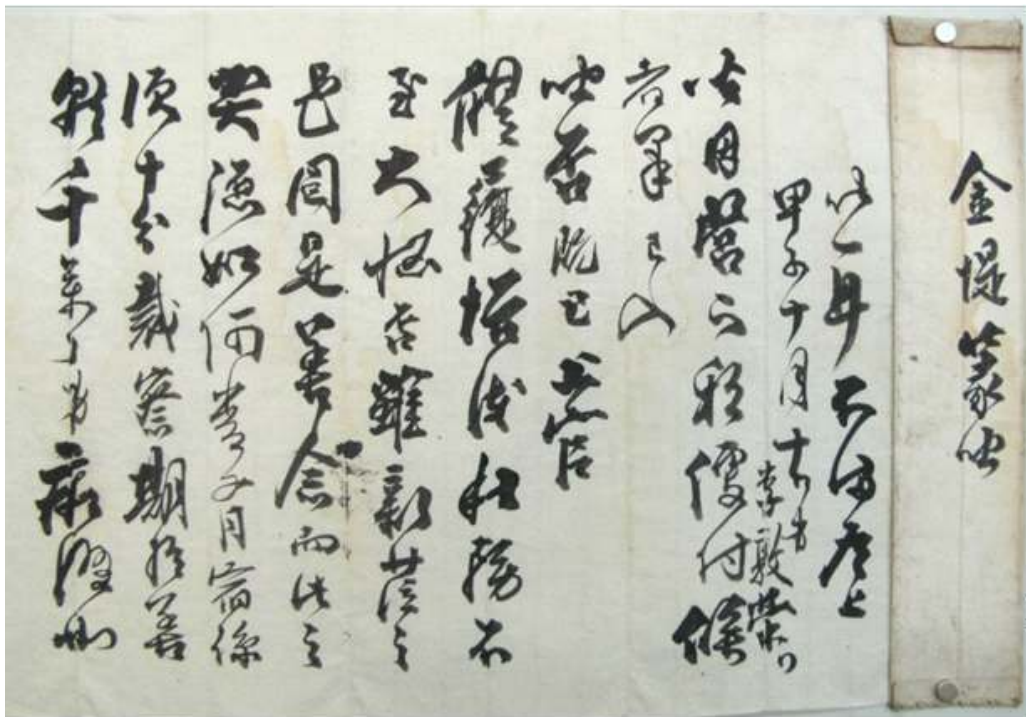
#### (4) 교명의 서체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純宗 王世子冊封 敎命)’의 제술관은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학(金炳學)<sup>193</sup>이고, 서사관은 봉조하(奉朝賀) 이돈우(李敦宇)<sup>194</sup>가 전문(篆文)을 썼으며 좌의정(左議政) 이최응(李最應, 1815~1882)<sup>195</sup>이 본문을 썼다.

193) 김병학(金炳學, 1821~1879)은 본관이 안동(安東)이고 자는 경교(景敎)이며, 호는 영초(穎樵)이고 부친은 이조판서(吏曹判書) 김수근(金洙根, 1798~1854)인데, 백부 김준근(金浚根, 생몰 미상)에게 입양되었다. 1853년(철종 4) 현감으로 정시 문과의 병과로 급제하고 장령·사간·대사헌을 거치며,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를 제거하거나 고종 즉위에 은밀히 노력한 공로와 딸을 며느리로 줄 것을 약속한 평소의 친분 때문에 1864년(고종 1)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공조판서가 되었다가 좌찬성을 거쳐 좌의정에 오르며 실록총재관으로 『철종실록』을 편찬하고 『대전회통(大典會通)』을 완성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천주교 탄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영의정을 거쳐 1875년 영돈녕부사가 된 뒤 조일수호조약(朝日修好條約) 체결을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194) 이돈우(李敦宇, 1801~1884)는 본관이 전주(全州)이고, 처음 이름은 이돈영(李敦榮)이다. 자는 윤약(允若)·윤공(允恭)이고 호는 신계(莘憩)이며, 효령대군의 15대손이고 부친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이상두(李相斗, 1769~1843)인데, 이상형(李相衡, 생몰 미상)에게 입양되었다. 1827년(순조 27) 증광 별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록·도첨·이조참판·전라도관찰사·대사헌·형조판서·한성부판윤·공조판서·판의금부사·예조판서·병조판서·광주부유수·이조판서·호조판서를 지내고 실록찬수당상으로 『철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874년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으로 세자를 보필하였고, 이듬해 좌찬성으로 전문서사관(篆文書寫官)의 임무를 수행한 뒤 봉조하가 되었으며, 1882년 대제학이 되어 회권(會圈)에 참여하였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비록 일생을 관직에서 보냈지만, 청백한 것을 좋아해 연꽃을 사랑한다는 ‘연설보(蓮說補)’를 지어 자기의 뜻을 펼쳤고, 저서는 『갑고(甲藁)』 6권이 있다.

195) 이최응(李最應, 1815~1882)은 본관이 전주(全州)이고 호는 산향(山響)이며, 흥선대원군의 형으로 흥인군(興寅君)에 봉해졌다. 1863년(고종 즉위) 종척집사(宗戚執事)가 된 뒤 좌찬성·영건도감제조(營建都監提調)·판의금부사·호위대장 등을 역임했다. 흥선대원군 정권하에서는 사이가 좋지 않아 요직에 등용되지 못했으나 서예의 재능을 발휘해 옥보전문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존호옥책문서사관(尊號玉冊文書寫官) 등을 지냈다. 1873년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정권이 수립되자 호위대장·좌의정·영의정을 지냈다. 1881년 통리기무아문의 총리대신이 되었고, 1882년 광주부유수를 거쳐 다시 영돈녕부사가 되었으나 임오군란 때 난민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효헌(孝憲)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가 1884년 충익(忠翼), 1905년 문충(文忠)으로 다시 내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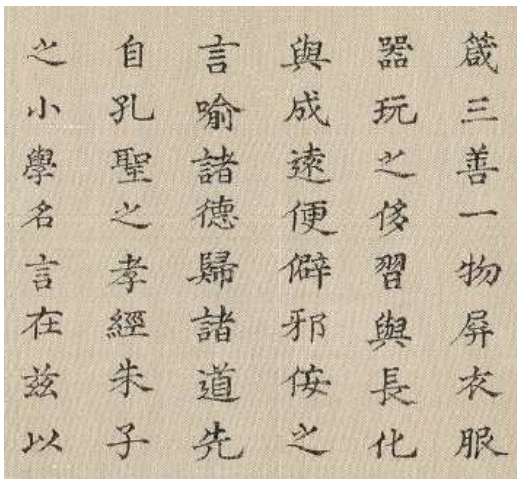
<이돈우 간찰, 지본, 31.3×44.8cm, 원주역사박물관 소장>



<이취응 필 간찰, 지본, 35.0×51.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敎命’은 이돈우가 전서로 쓴 문자를 제1면 홍색 바탕에 황금색으로 직조하였다. 이는 전서에서 소전(小篆)에 속하는데, 이는 중국 진나라 이사(李斯, 기원전 284 후 280~기원전 208)가 창조한 것이어서 진전(秦篆)이라고도 한다. 소전의 가장

큰 특징은 용필에서 기필과 수필은 모두 원필(圓筆)과 중봉(中鋒)을 운용하여 필획이 둥글고 굽기가 고르며, 필획을 전환하는 전절(轉折)은 호형(弧形)의 완곡한 원전(圓轉)을 운용하여 모나지 않는 둥글음을 나타내었다. 좌우의 대칭을 이루면서 자형은 세로와 가로의 비율이 대략 3 : 2를 이루는 장방형이고, 별획·날획이 없다. 필세는 종세(縱勢)를 이루면서 변화가 없으며, 서풍은 엄정하고 장엄하며 단정한 가운데 굳세고 아름다운 자태가 보인다. 그러나 이돈우가 쓴 필획은 호형이 없고 가로획과 세로획만 있을 뿐이며, 자형은 세로가 지나치게 길어서 엄정하거나 장엄한 아름다운 자태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전문 서예가가 아닌 이돈우의 한계라 하겠다.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의 서체>

위에서 제시한 이돈우와 이최응의 간찰을 보면, 이돈우는 질박한 장점은 있으나 자연스럽거나 세련된 필치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이에 비해 이최응은 강약이나 대소의 변화가 자연스럽고, 한 기운으로 전체를 꿰뚫는 유창한 필세가 돋보인다. 이러한 까닭에 그를 차출하여 ‘옥보진문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존호옥책문서사관(尊號玉冊文書寫官)’ 등을 맡긴 것도 도리가 있다. 그가 쓴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의 본문은 글자마다 수놓는 것처럼 정성을 들여 쓴 모습이 역력하다. 가로획은 수필에서 잠두(蠶頭)의 형상이 분명하고, 기울기는 거의 평평하여 안정감을 나타내었다. 세로획은 곧게 내리그어 필획의 분명함을 나타내었고, 전절은 능각(稜角)을 나타내지 않아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갈고리의 적획은 뾰족하고 날카로우며, 날획은 약간 위로 향해 들린 모습을 하였다. 따라서 필획이 비교적 적은 ‘化·言·自·孔·之·朱·自·子·小·以’자 등은 매우 또렷하고 안정된 자형이 돋보인다.

그러나 필획마다 정성을 들이느라 합체자의 결자에서는 부조화를 이루거나 필법에서 어긋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服·與·遠·便·邪·歸·道·聖·學’자

등은 부조화를 이루었고, ‘箴·器’는 세 부분을 조합한 것 같으며, ‘諭’자에는 필법에서 금하는 두 개의 적획이 보인다. 자형은 비록 정방형·장방형·편방형이 있으나 정방형과 편방형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한 자간보다 행간이 넓으나 주체적인 필세의 느낌이 부족하다. 종합하여 말하면, 하나의 필획과 글자마다 수놓는 것처럼 정성을 들이며 아리따운 모습을 나타내어 교명의 실용성에는 부합하지만, 서예의 예술적인 면에서는 완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 4.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어책(御冊)과 교명(敎命)에서 어책은 옥책(玉冊)·죽책(竹冊)·금책(金冊)으로 나뉜다. 조사대상은 옥책이 5점, 죽책이 2점, 금책이 2점, 교명이 4점으로 전수 13점이다. 모두 보전 상태는 양호하고, 국왕이나 황제가 책봉할 때 건네주는 어책(御冊)·어보(御寶)·교명(敎命)의 세 가지 의물(儀物)에 속한다. 이것들은 조선 왕실이나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의물임과 동시에 당시 최고 수준의 제술관·서사관과 전문 장인(匠人)이 협업으로 제작한 공예품이기도 하다. 이미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조선왕실 어보어책’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았다. 따라서 이는 역사적, 서예사적, 공예사적, 민속학적으로 상징성과 희귀성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참고문헌

- 박용만, 『弘齋全書』 편찬과정의 寫字官 성격과 역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21.
- 서준, 「교명과 죽책의 형식과 내용」, 『조선왕조 어책: 교명·죽책·금책』, 국립고궁박물관, 2017.
- 서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책의 내용과 현황」, 『조선왕조 어책: 옥책 5』, 국립고궁박물관, 2017.
- 장을연, 「朝鮮時代 冊文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곽노봉, 『서체』, 다운샘, 2015.

## VI. 과학조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 어보는 모두 331과로 국립고궁박물관 322과, 국립중앙박물관 7과, 고려대학교 박물관 2과를 소장하고 있다. 조선왕조 어보·어책을 대상으로 그동안 국립고궁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연구서를 발간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개년에 걸쳐 박물관 소장 어보 322과(금보 155과, 옥보 167과), 어책(옥책)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옥보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그간 진행된 과학적 분석 결과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 1. 조선왕조 어보의 과학적 분석

#### 1) 금보의 과학적 분석 결과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금보 155과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현미경 관찰을 통해 금보의 형태 특징을 살펴보았다. 17세기 후기부터 18세기 중기까지 제작된 귀뉴형 금보에서만 점각과 조이질로 장식한 귀갑 내부 문양이 나타났다. 또한, 귀갑에 조각된 문양 및 보문 전각에서 끝자국, 금알갱이 뭉침 등과 같은 조각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18세기 후기 이후에 제작된 보뉴와 보신 경계면에서는 뽕흔적, 리벳 등과 같은 접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감마선 조사를 통해 금보 내부의 주물결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조기법으로 금보를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마선 측면 사진에서 관찰되는 보뉴와 보신의 경계면을 통해 금보의 제작기법을 추정하였다. 18세기 후기 이후에 보뉴와 보신의 제작방법이 일체형 주조에서 분리형 주조로 변화되는 경향성이 나타나며, 1924년에 재제작된 금보는 15세기 양식을 반영하여 일체형으로 주조된 것으로 보인다.
- 도금층 성분 분석 결과, 금과 수은 등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수은 아말감 기법으로 도금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도금층 주성분인 금의 산포도와 표준편차를 통해 시기별 도금층 분포양상을 살펴보았는데, 18세기 후기 이후에 제작된 금보의 도금층이 이전에 제작된 금보에 비해 균일하지 못하고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07년과 1924년에 제작된 금보 5과의 도금층 성분 분석 결과, 약 4~17%의 금만 검출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제작된 어보와는 다른 기법으로 도금된 것으로 보인다.
- 바탕금속 성분분석 결과, 구리 합금, 은 합금, 주석 합금으로 분류된다. 금보의 약 93%가 구리 합금이며, 시기별로 아연 함량이 달라진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제작된 금보는 아연 함량이 10% 미만이며,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대부분의



금보는 아연 함량이 10% 이상이다. 은 함금은 총 9과로 5과의 은인과 4과의 금보에서 확인되며, 백철인은 주석, 칼슘 등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주석 함금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옥보의 과학적 분석 결과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옥보 167과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옥보의 최초 제작시기는 1471년이며 16세기에는 제작되지 않다가 1600년부터 다시 제작되어 1928년까지 만들어 졌고, 19세기에 75과(42.9%)로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 옥보의 크기는 보신의 가로와 전체 높이를 통해 무게와 비교해 본 결과, 19세기 후반부터 보신 크기와 무게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작된 경향성을 보인다.
- 보뉴 머리에 글자가 새겨진 옥보는 총 25과로 대부분 ‘王’자이거나 이와 유사하며, 거의 1726년과 1762년 사이에서 나타난다. 흑색 눈동자는 11과의 옥보에 나타나며, 4과는 1726년과 1744년에, 7과는 1908년에서 확인된다.
- 자외선 촬영으로 시기에 따른 특징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표면 코팅물질의 잔존여부, 과거 보존처리 및 이물질, 자외선에 영향을 받는 광물의 밝기를 관찰할 수 있었다.
- 옥보의 재질을 주요 구성원소로 분석한 결과, 크게 사문석 계열, 백운석 계열, 방해석 계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대부분 주요 구성원소는 사문석 계열은 이산화규소,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백운석 계열은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방해석 계열은 산화칼슘으로 확인된다.

## 2. 조선왕조 어보와 어책의 재료 특성

### 1) 옥보의 광물학적 특성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보 167과에 대한 분석 결과, 옥보를 구성하는 암석은 크게 3개의 그룹인 사문암질암, 대리암질암, 백운암질암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사문암(Serpentinite)은 광물인 사문석(Serpentine)이 다량 함유되는 암석을 말한다. 사문석은 일반적으로 감람석, 휘석, 각섬석 등의 Mg가 많은 광물이 열수변질작용을 받아 만들어지는데, 이중에서도 감람석의 변질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가장 흔하다. 사문암은 화성암뿐만 아니라 변성암에서도 발견되며 지역적으로 상당한 양이 산출될 수 있다.
- 대리암(Marble)은 석회암(Limestone)이나 백운석의 변성에 의해 형성된 변성암이다. 백운암(Dolostone)은 주로 백운석(Dolomite)으로 구성된 암석이다. 백

운석은 방해석의 Ca 이온이 Mg 이온에 의해 교대되면서 만들어지는 마름모형의 탄산염 광물이다. 옥보를 구성하는 암석들은 단일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명명을 위해 광물의 조성비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비파괴분석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문암질암, 대리암질암, 백운암질암으로 명명하였다.

- 옥보를 이루는 암석 중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인 것은 사문암질암(116개; 69.5%)이었으며, 그 다음은 대리암질암(29개; 17.4%), 백운암질암(22개; 13.2%)의 순이었다. 각 그룹은 다시 구성광물의 종류에 따라 세부 그룹으로 나뉘는데, 사문암질암은 8개 그룹, 대리암질암은 6개 그룹, 백운암질암은 6개의 세부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 2) 옥책의 재료적 특성

어책 중 옥책 251권에 대한 전체적인 암석학적 조사와 시대에 따른 12책의 세밀한 성분분석을 통하여 옥책의 재료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책은 육안으로 크게 담록색 및 백색계열 암석으로 구분된다. 폐기 옥책편을 대상으로 염산반응 실험, 실체 및 편광현미경 관찰, X-선 회절분석 및 지구화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담록색 계열의 암석은 사문석과 방해석이 주구성광물로, 녹니석과 돌로마이트 등을 수반하는 옥질암으로 판단된다. 또한 백색계열의 암석은 대부분 방해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흑운모를 함유한 대리암질암으로 동정하였다.
- 시대에 따라 12점의 옥책을 선정하여 X-선 형광분석을 실시하였고, 폐기 옥책편을 통해 화학분석을 수행하였다. X-선 형광분석에서는 동종 암석끼리 원소 함량이 비슷하게 나왔으나, 동종 암석 중에서도 품위가 다를 경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화학분석 결과, 옥질암이 대리암질암에 비해 SiO<sub>2</sub>, Fe<sub>2</sub>O<sub>3</sub>, MgO의 함량이 수 십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Fe와 Mg를 양이온으로 하는 규산염광물인 사문석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하였다. CaO의 함량은 방해석이 주구성광물인 대리암질암에서 매우 높게 검출되었지만, 방해석을 함유한 옥질암에서도 높은 함량을 보였다. 또한 옥질암에서 Cr과 Ni가 다량 검출되었는데, 이는 담록색(옥색)의 발색원소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옥책의 개략적인 조사 결과, 전체 251권 중 옥질암은 41.8%(105권), 대리암질암은 38.2%(96권), 혼합암질암 20.0%(50권)으로 조사되었다. 혼합암질암 50권 중 주요 구성암석이 옥질암으로 판정된 것은 전체의 0.8%(2권), 대리암질암은 19.2%(48권)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리암질암 혹은 주구성암석이 대리암인 옥책은 전체의 57.4%(146권)를 차지하였다.
- 옥책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인조, 효종, 현종대에 비해 숙종, 경종, 영조대에서

고품위의 옥질암이 사용되었다. 정조대에서도 주로 옥질암을 사용하였으나 혼합암질암도 나타난다. 이후 암석학적 불균질성으로 인해 품위는 점점 낮아졌다. 순조 연간부터 옥질암과 대리암질암이 한 옥책 내에서 혼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헌종 말기에 처음으로 대리암질암만 사용한 옥책이 제작되었다. 이후 후대로 갈수록 대리암질암의 점유율이 높아지며, 석재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 옥책의 글자 안료와 부속품에 대해 X-선 형광분석을 실시하였다. 어책 076을 제외한 글자 안료는 금(Au)을 사용하였으며, 어책(유물번호 076, 1876년 고종 10)에 사용한 안료는 재료학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철과 두정의 결과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두 재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변철과 두정은 조선 초기에서 후기까지 구리에 금도금을 하여 제작하였으나, 조선 말기로 가면서 Cu에 Zn을 혼합한 Cu-Zn계 황동합금을 사용하였다.

### 3. 조선왕조 어보와 어책의 과학적 고찰

금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18세기 후기를 기점으로 금보의 제작 기법과 재료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보 제작 방법이 일체형 주조에서 분리형 주조로 바뀌었으며, 금보의 도금층도 18세기 후기 이전 제작된 금보에 비해 균일하지 못하고 손상되었다. 또한, 구리 합금으로 제작된 금보는 1739년 이후부터 아연 함량이 10% 중반 이상인 금보가 대다수 제작되었으며, 19세기에는 아연 함량이 20~30%인 금보가 주로 제작되었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제작 기법을 인문학적 자료 및 당시 시대적 상황 등과 비교·연구한다면 어보의 제작기법 변화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금보의 3차원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3D 스캔으로 정밀한 데이터를 구하여 어보 형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향후에 비파괴 분석으로도 도금 두께나 바탕금속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금보에 담긴 제작기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옥보의 제작시기에 따른 주요 구성 원소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지만, 재질에 따른 경향성은 알 수 있다. 보누가 거북이 모양인 귀뉴는 제작시기가 470년으로 그 범위가 넓고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여 시대별 특징을 뚜렷이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누가 용 모양인 용뉴는 1899년부터 1906년까지 약 7년간 22과가 제작되어 상대적으로 쉽게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용뉴로 만들어진 옥보의 색은 백색 계열이며, 보신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약 10.0~10.4cm, 무게는 1.1~1.6kg의 범위에 속한다. 1899년부터 1900년까지는 방해석 계열, 1900년부터 1902년까지는 백운석 계열, 1907년과 1908년은 사문석 계열로 명확히 구분된다.

옥보의 경우는 15~20세기의 전기 간에서 사문암질암이 일관되게 가장 많은 비

을을 보였으며, 대리암질암과 백운암질암은 19세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옥보와 옥책의 이러한 차이는 옥보가 옥책보다 미학적인 관점이 더 중요시 되었고, 또한 다량의 암석이 필요한 옥책에 비해 옥보에는 상대적으로 소량의 암석 덩어리가 사용되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옥보에 더 좋은 품질의 옥을 우선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옥보는 일반적으로 현재 옥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의 경옥(jadeite)과 연옥(nephrite)이 검출되지 않았다. 옥보는 크게 사문석 계열, 백운석 계열, 방해석 계열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당시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옥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현대와 달랐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편경이나 장신구 등 다른 유사 유물과 비교 분석하여 옥의 개념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옥보의 색상을 살펴보면, 사문암질암으로 구성된 것들은 대부분 담녹색·황녹색·회녹색·진녹색을 띠거나 이들의 배색으로 이루어진 특징을 보였으며, 드물게 유백색과 연황색을 띤 것도 존재하였다. 대리암질암으로 구성된 옥보는 대부분 회황색·황갈색을 띠는 가운데 진녹색과 유백색을 가진 것이 나타났다. 백운암질암으로 구성된 옥보 또한 대부분 회황색·황갈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녹갈색·담황색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백운암질암 옥보들은 대리암질암 옥보와 비슷한 색을 띠는 것들도 존재하나, 대체로는 대리암질암의 그것보다 명도가 낮아 진한 색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옥보의 다양한 색상은 과거 조선시대에 옥보를 제작하기 위한 암석선택의 기준이 좁은 색상영역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같은 광물조성을 공유하는 옥보 그룹 내에서도 상이한 색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외관으로 만옥보를 분류할 때 오분류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옥책의 재질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옥책을 옥질암, 대리암질암 및 옥질암과 대리암질암을 혼합 사용한 것으로 분류한 후 16~18세기까지는 혼합사용 옥책 1권을 제외한 모든 옥책이 옥질암으로 제작되었다가 19세기부터는 대리암질암 및 혼합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19세기 철종 이후로는 대부분의 옥책이 대리암질로 제작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여기서 옥책의 옥질암은 본 연구의 사문암질암이며, 옥책의 대리암질암은 본 연구의 대리암질암과 백운암질암을 아울러 통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옥책을 구성하는 옥질암과 대리암질암은 재료학적으로 전형적인 연옥과 경옥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문헌과 선행연구에 의하면 옥은 녹색과 백색의 아름다운 돌을 총칭하므로 옥책의 구성 암석을 전통적인 옥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통적 옥의 재료학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향후에 다양한 비파괴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정밀 전수조사를 수행한다면 옥책의 암석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산지추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지정 대상 목록-유형별】

<어보> : 318과

연번	명칭	제작시기	보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1	목조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1실	종묘13545-1	
2	목조비 효공왕후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1실	종묘13546-1	
3	익조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2실	종묘13547-1	
4	익조비 정숙왕후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2실	종묘13548-1	
5	도조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3실	종묘13549-1	
6	도조비 경순왕후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3실	종묘13550-1	
7	환조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4실	종묘13551-1	
8	환조비 의혜왕후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4실	종묘13552-1	
9	태조 추상시호 금보	1683년	정전	1실	종묘13553-1	
10	태조 추상존호 금보	1872년	정전	1실	종묘13554-1	
11	태조비 신의왕후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실	종묘13555-1	
12	태조계비 신덕왕후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실	종묘13556-1	
13	정종 추상시호 금보	1681년	영녕전	5실	종묘13557-1	
14	정종비 정안왕후 상휘호 금보	1681년	영녕전	5실	종묘13558-1	
15	태종비 원경왕후 상시호 금인	1420년	정전	2실	고대2204	고대
16	세종 상시호 금보	1450년	정전	3실	종묘13559-1	
17	세종비 소헌왕후 상시호 금보	1446년	정전	3실	종묘13560-1	
18	문종 상시호 금보	1452년	영녕전	6실	종묘13561-1	
19	문종비 현덕왕후 상시호 금인	1513년	영녕전	6실	종묘13562-1	
20	문종비 현덕왕후 추상시호 금보	1513년	영녕전	6실	종묘13563-1	
21	문종비 현덕왕후 상휘호 금보	1513년	영녕전	6실	종묘13564-1	
22	단종 상시호 금보	1698년	영녕전	7실	신수212	중박
23	단종비 정순왕후 상시호 금보	1698년	영녕전	7실	신수213	중박
24	세조비 정희왕후 상존호 옥보	1457년	정전	4실	종묘13565-1	
25	세조비 정희왕후 가상존호 옥보	1471년	정전	4실	종묘13566-1	
26	예종 무승안민지보	1457년	영녕전	9실	종묘13567-1	
27	예종비 장순왕후 왕세자빈책봉 백철인	1460년	영녕전	9실	종묘13569-1	
28	예종계비 안순왕후 상존호 옥인	1471년	영녕전	9실	종묘13571-1	
29	성종 상시호 금보	1495년	정전	5실	종묘13573-1	
30	성종비 공혜왕후 상시호 금보	1474년	정전	5실	종묘13574-1	
31	성종비 공혜왕후 상휘호 금인	1497년	정전	5실	고궁1558-1	
32	성종계비 정현왕후 상존호 금인	1497년	정전	5실	종묘13575-1	
33	성종계비 정현왕후 상시호 금보	1530년	정전	5실	종묘13576-1	
34	중종 상시호 금보	1545년	정전	6실	종묘13577-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35	중종비 단경왕후 상휘호 금보	1739년	정전	6실	종묘13578-1	
36	중종계비 장경왕후 상휘호 금보	1546년	정전	6실	종묘13579-1	
37	중종계비 문정왕후 상존호 금보	1554년	정전	6실	고궁2843-1	
38	중종계비 문정왕후 가상존호 금보	1554년	정전	6실	종묘13580-1	
39	중종계비 문정왕후 상시호 금보	1565년	정전	6실	종묘13581-1	
40	인종 상시호 금보	1545년	영녕전	10실	종묘13582-1	
41	인종비 인성왕후 왕세자빈책봉 은인	1554년	영녕전	10실	종묘13583-1	
42	인종비 인성왕후 상존호 금보	1554년	영녕전	10실	종묘13584-1	
43	명종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11실	종묘13585-1	
44	명종비 인순왕후 상존호 금보	1569년	영녕전	11실	종묘13586-1	
45	선조 가상존호 옥보	1604년	정전	7실	종묘13587-1	
46	선조 상시호 금보	1608년	정전	7실	종묘13588-1	
47	선조 추상존호 금보	1892년	정전	7실	종묘13589-1	
48	선조비 의인왕후 상존호 옥보	1600년	정전	7실	종묘13590-1	
49	선조비 의인왕후 상시호 금보	1600년	정전	7실	종묘13591-1	
50	선조비 의인왕후 추상존호 옥보	1604년	정전	7실	종묘13592-1	
51	선조비 의인왕후 상휘호 옥보	1610년	정전	7실	종묘13593-1	
52	선조비 의인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2년	정전	7실	종묘13594-1	
53	선조계비 인목왕후 왕비책봉 금보	1602년	정전	7실	종묘13595-1	
54	선조계비 인목왕후 상존호 옥보	1604년	정전	7실	종묘13596-1	
55	선조계비 인목왕후 가상존호 옥보	1610년	정전	7실	종묘13597-1	
56	선조계비 인목왕후 가상존호 옥보	1624년	정전	7실	종묘13598-1	
57	선조계비 인목왕후 상시호 금보	1632년	정전	7실	종묘13599-1	
58	선조계비 인목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2년	정전	7실	종묘13600-1	
59	원종 상시호 옥보	1634년	영녕전	12실	종묘13601-1	
60	원종비 인현왕후 상휘호 옥보	1632년	영녕전	12실	종묘13602-1	
61	인조 상시호 금보	1649년	정전	8실	종묘13603-1	
62	인조 추상존호 금보	1900년	정전	8실	종묘13604-1	
63	인조비 인열왕후 왕비책봉 금보	1651년	정전	8실	종묘13605-1	
64	인조비 인열왕후 상시호 금보	1651년	정전	8실	종묘13606-1	
65	인조비 인열왕후 추상존호 금보	1900년	정전	8실	종묘13607-1	
66	인조계비 장열왕후 왕비책봉 금보	1687년	정전	8실	종묘13608-1	
67	인조계비 장열왕후 가상존호 옥보	1687년	정전	8실	종묘13609-1	
68	인조계비 장열왕후 가상존호 옥보	1676년	정전	8실	고궁3864	
69	인조계비 장열왕후 가상존호 옥보	1686년	정전	8실	종묘13610-1	
70	인조계비 장열왕후 상시호 금보	1688년	정전	8실	종묘13611-1	
71	인조계비 장열왕후 추상존호 금보	1900년	정전	8실	종묘13612-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72	효종 추상존호 금보	1740년	정전	9실	고궁3668-1	
73	효종 추상존호 금보	1900년	정전	9실	종묘13613-1	
74	효종비 인선왕후 추상존호 금보	1900년	정전	9실	종묘13614-1	
75	현종 왕세자책봉 옥인	1651년	정전	10실	고궁2844-1	
76	현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보	1676년	정전	10실	고대2214	고대
77	현종비 명성왕후 상시호 금보	1684년	정전	10실	종묘13615-1	
78	숙종 왕세자책봉 옥인	1667년	정전	11실	종묘13616-1	
79	숙종 상존호 옥보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617-1	
80	숙종 상시호 금보	1720년	정전	11실	종묘13618-1	
81	숙종 추상존호 금보	1753년	정전	11실	종묘13619-1	
82	숙종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620-1	
83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1671년	정전	11실	종묘13621-1	
84	숙종비 인경왕후 왕비책봉 금보	1676년	정전	11실	종묘13622-1	
85	숙종비 인경왕후 상시호 금보	1681년	정전	11실	종묘13623-1	
86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보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624-1	
87	숙종비 인경왕후 상휘호 옥보	1722년	정전	11실	종묘13625-1	
88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금보	1753년	정전	11실	종묘13626-1	
89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금보	1776년	정전	11실	종묘13627-1	
90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628-1	
91	숙종계비 인현왕후 복위 금보	1694년	정전	11실	종묘13629-1	
92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보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630-1	
93	숙종계비 인현왕후 상휘호 옥보	1722년	정전	11실	종묘13631-1	
94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1776년	정전	11실	종묘13632-1	
95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633-1	
96	숙종계비 인원왕후 왕비책봉 금보	1702년	정전	11실	종묘13634-1	
97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존호 옥보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635-1	
98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22년	정전	11실	종묘13636-1	
99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26년	정전	11실	종묘13637-1	
100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40년	정전	11실	종묘13638-1	
101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40년	정전	11실	종묘13639-1	
102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47년	정전	11실	종묘13640-1	
103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51년	정전	11실	종묘13641-1	
104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52년	정전	11실	종묘13642-1	
105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금보	1753년	정전	11실	종묘13643-1	
106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56년	정전	11실	종묘13644-1	
107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시호 금보	1757년	정전	11실	종묘13645-1	
108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1776년	정전	11실	종묘13646-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109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647-1	
110	경종 왕세자책봉 옥인	1690년	영녕전	13실	종묘13648-1	
111	경종 상시호 금보	1724년	영녕전	13실	종묘13649-1	
112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1696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0-1	
113	경종비 단의왕후 상시호 옥인	1718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1-1	
114	경종비 단의왕후 추봉 금보	1722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2-1	
115	경종비 단의왕후 상휘호 옥보	1726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3-1	
116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1718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4-1	
117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책봉 금보	1722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5-1	
118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존호 옥보	1726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6-1	
119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시호 금보	1730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7-1	
120	영조 왕세제책봉 옥인	1721년	정전	12실	종묘13658-1	
121	영조 상존호 옥보	1740년	정전	12실	종묘13659-1	
122	영조 가상존호 옥보	1752년	정전	12실	종묘13660-1	
123	영조 가상존호 옥보	1756년	정전	12실	종묘13661-1	
124	영조 가상존호 옥보	1772년	정전	12실	종묘13662-1	
125	영조 가상존호 옥보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663-1	
126	영조 상시호 금보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664-1	
127	영조 추상시호 금보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665-1	
128	영조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666-1	
129	영조비 정성왕후 왕세제빈책봉 옥인	1721년	정전	12실	종묘13667-1	
130	영조비 정성왕후 왕비책봉 금보	1726년	정전	12실	종묘13668-1	
131	영조비 정성왕후 상존호 옥보	1740년	정전	12실	종묘13669-1	
132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1752년	정전	12실	종묘13670-1	
133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1756년	정전	12실	종묘13671-1	
134	영조비 정성왕후 상시호 금보	1757년	정전	12실	종묘13672-1	
135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1772년	정전	12실	종묘13673-1	
136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674-1	
137	영조비 정성왕후 상휘호 옥보	1778년	정전	12실	종묘13675-1	
138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1784년	정전	12실	종묘13676-1	
139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677-1	
140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책봉 금보	1759년	정전	12실	종묘13678-1	
141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존호 옥보	1772년	정전	12실	종묘13679-1	
142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680-1	
143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778년	정전	12실	종묘13681-1	
144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783년	정전	12실	종묘13682-1	
145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784년	정전	12실	종묘13683-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146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787년	정전	12실	종묘13684-1	
147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795년	정전	12실	종묘13685-1	
148	영조계비 정순왕후 대왕대비 옥보	1802년	정전	12실	종묘13686-1	
149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804년	정전	12실	종묘13687-1	
150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805년	정전	12실	종묘13688-1	
151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시호 금보	1805년	정전	12실	종묘13689-1	
152	영조계비 정순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690-1	
153	진종 왕세자책봉 옥인	1725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1-1	
154	진종 상시호 옥인	1729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2-1	
155	진종 세자승통 은인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3-1	
156	진종 추상시호 금보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4-1	
157	진종 추상존호 옥보	1908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5-1	
158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1727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6-1	
159	진종비 효순왕후 현빈책봉 옥인	1735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7-1	
160	진종비 효순왕후 상시호 옥인	1752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8-1	
161	진종비 효순왕후 세자빈승통 은인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9-1	
162	진종비 효순왕후 상휘호 금보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700-1	
163	진종비 효순왕후 추상존호 옥보	1908년	영녕전	14실	종묘13701-1	
164	장조 왕세자책봉 옥인	1736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2-1	
165	장조 상시호 옥인	1762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3-1	
166	장조 추상시호 옥인	1776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4-1	
167	장조 추상존호 옥인	1783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5-1	
168	장조 추상존호 옥인	1784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6-1	
169	장조 추상존호 금인	1795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7-1	
170	장조 추상존호 금인	1855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8-1	
171	장조 추상시호 금보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9-1	
172	장조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0-1	
173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1744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1-1	
174	장조비 헌경왕후 혜빈책봉 옥인	1762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2-1	
175	장조비 헌경왕후 상존호 옥인	1778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3-1	
176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인	1783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4-1	
177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인	1784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5-1	
178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인	1795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6-1	
179	장조비 헌경왕후 상시호 금인	1816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7-1	
180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금인	1855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8-1	
181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시호 금보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9-1	
182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720-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보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183	정조 왕세손책봉 옥인	1759년	정전	13실	종묘13721-1	
184	정조 효손 은인	1776년	정전	13실	종묘13722-1	
185	정조 상시호 금보	1800년	정전	13실	종묘13723-1	
186	정조 추상존호 금보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724-1	
187	정조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725-1	
188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책봉 은인	1762년	정전	13실	종묘13726-1	
189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책봉 금보	1778년	정전	13실	종묘13727-1	
190	정조비 효의왕후 상존호 옥보	1802년	정전	13실	종묘13728-1	
191	정조비 효의왕후 상시호 금보	1821년	정전	13실	종묘13729-1	
192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730-1	
193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731-1	
194	순조 왕세자책봉 옥인	1800년	정전	14실	종묘13732-1	
195	순조 상존호 옥보	1827년	정전	14실	종묘13733-1	
196	순조 상시호 금보	1835년	정전	14실	종묘13734-1	
197	순조 추상존호 금보	1848년	정전	14실	종묘13735-1	
198	순조 추상존호 금보	1853년	정전	14실	종묘13736-1	
199	순조 추상시호 금보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737-1	
200	순조 추상존호 금보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738-1	
201	순조 추상존호 금보	1858년	정전	14실	종묘13739-1	
202	순조 추상존호 금보	1861년	정전	14실	종묘13740-1	
203	순조 추상존호 금보	1862년	정전	14실	종묘13741-1	
204	순조 추상존호 금보	1879년	정전	14실	종묘13742-1	
205	순조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4실	종묘13743-1	
206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금보	1802년	정전	14실	종묘13744-1	
207	순조비 순원왕후 상존호 옥보	1827년	정전	14실	종묘13745-1	
208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837년	정전	14실	종묘13746-1	
209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841년	정전	14실	종묘13747-1	
210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848년	정전	14실	종묘13748-1	
211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851년	정전	14실	종묘13749-1	
212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852년	정전	14실	종묘13750-1	
213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853년	정전	14실	종묘13751-1	
214	순조비 순원왕후 상시호 금보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752-1	
215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753-1	
216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1858년	정전	14실	종묘13754-1	
217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1861년	정전	14실	종묘13755-1	
218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1862년	정전	14실	종묘13756-1	
219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1879년	정전	14실	종묘13757-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보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220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4실	종묘13758-1	
221	문조 왕세자책봉 옥인	1812년	정전	15실	종묘13759-1	
222	문조 상시호 옥인	1830년	정전	15실	종묘13760-1	
223	문조 추상시호 금보	1835년	정전	15실	종묘13761-1	
224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48년	정전	15실	종묘13762-1	
225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53년	정전	15실	종묘13763-1	
226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66년	정전	15실	종묘13764-1	
227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67년	정전	15실	종묘13765-1	
228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69년	정전	15실	종묘13766-1	
229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75년	정전	15실	종묘13767-1	
230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77년	정전	15실	종묘13768-1	
231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79년	정전	15실	종묘13769-1	
232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83년	정전	15실	종묘13770-1	
233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87년	정전	15실	종묘13771-1	
234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5실	종묘13772-1	
235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92년	정전	15실	종묘13773-1	
236	문조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5실	종묘13774-1	
237	문조 추상존호 옥보	1902년	정전	15실	종묘13775-1	
238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53년	정전	15실	종묘13776-1	
239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59년	정전	15실	종묘13777-1	
240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3년	정전	15실	종묘13778-1	
241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6년	정전	15실	종묘13779-1	
242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6년	정전	15실	종묘13780-1	
243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7년	정전	15실	종묘13781-1	
244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8년	정전	15실	종묘13782-1	
245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9년	정전	15실	종묘13783-1	
246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73년	정전	15실	종묘13784-1	
247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75년	정전	15실	종묘13785-1	
248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77년	정전	15실	종묘13786-1	
249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78년	정전	15실	종묘13787-1	
250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79년	정전	15실	종묘13788-1	
251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83년	정전	15실	종묘13789-1	
252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86년	정전	15실	종묘13790-1	
253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87년	정전	15실	종묘13791-1	
254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88년	정전	15실	종묘13792-1	
255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88년	정전	15실	종묘13793-1	
256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90년	정전	15실	종묘13794-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257	문조비 신정왕후 상시호 금보	1890년	정전	15실	종묘13795-1	
258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9년	정전	15실	종묘13796-1	
259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9년	정전	15실	종묘13797-1	
260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5실	종묘13798-1	
261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보	1902년	정전	15실	종묘13799-1	
262	헌종 왕세손책봉 옥인	1830년	정전	16실	종묘13800-1	
263	헌종 상시호 금보	1849년	정전	16실	종묘13801-1	
264	헌종 추상존호 금보	1853년	정전	16실	종묘13802-1	
265	헌종 추상존호 금보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803-1	
266	헌종 추상존호 옥보	1908년	정전	16실	종묘13804-1	
267	헌종비 효현왕후 왕비책봉 금보	1837년	정전	16실	종묘13805-1	
268	헌종비 효현왕후 상시호 금보	1843년	정전	16실	종묘13806-1	
269	헌종비 효현왕후 상휘호 옥보	1851년	정전	16실	종묘13807-1	
270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1853년	정전	16실	종묘13808-1	
271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809-1	
272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보	1908년	정전	16실	종묘13810-1	
273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53년	정전	16실	종묘13811-1	
274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59년	정전	16실	종묘13812-1	
275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3년	정전	16실	종묘13813-1	
276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814-1	
277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815-1	
278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73년	정전	16실	종묘13816-1	
279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88년	정전	16실	종묘13817-1	
280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90년	정전	16실	종묘13818-1	
281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90년	정전	16실	종묘13819-1	
282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92년	정전	16실	종묘13820-1	
283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97년	정전	16실	종묘13821-1	
284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900년	정전	16실	종묘13822-1	
285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902년	정전	16실	종묘13823-1	
286	헌종계비 효정왕후 상시호 금보	1904년	정전	16실	종묘13824-1	
287	헌종계비 효정왕후 추상존호 옥보	1908년	정전	16실	종묘13825-1	
288	철종 상존호 옥보	1863년	정전	17실	종묘13826-1	
289	철종 상시호 금보	1864년	정전	17실	종묘13827-1	
290	철종 추상존호 금보	1866년	정전	17실	종묘13828-1	
291	철종 추상존호 옥보	1908년	정전	17실	종묘13829-1	
292	철종비 철인왕후 왕비책봉 금보	1851년	정전	17실	종묘13830-1	
293	철종비 철인왕후 상존호 옥보	1863년	정전	17실	종묘13831-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보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294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6년	정전	17실	종묘13832-1	
295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6년	정전	17실	종묘13833-1	
296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보	1873년	정전	17실	종묘13834-1	
297	철종비 철인왕후 추상존호 옥보	1908년	정전	17실	종묘13835-1	
298	고종 상존호 옥보	1873년	정전	18실	종묘13836-1	
299	고종 가상존호 옥보	1888년	정전	18실	종묘13837-1	
300	고종 가상존호 옥보	1890년	정전	18실	종묘13838-1	
301	고종 가상존호 옥보	1892년	정전	18실	종묘13839-1	
302	고종 가상존호 옥보	1900년	정전	18실	신수9236	중박
303	고종 가상존호 옥보	1902년	정전	18실	신수9240	중박
304	고종 가상존호 옥보	1907년	정전	18실	고궁1993-1	
305	고종비 명성왕후 왕비책봉 금보	1866년	정전	18실	종묘13841-1	
306	고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보	1873년	정전	18실	종묘13842-1	
307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1888년	정전	18실	종묘13843-1	
308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1890년	정전	18실	종묘13844-1	
309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1892년	정전	18실	종묘13845-1	
310	고종비 명성왕후 상시호 옥보	1897년	정전	18실	종묘13846-1	
311	고종비 명성왕후 책봉 금보	1897년	정전	18실	종묘13847-1	
312	고종비 명성왕후 추상존호 옥보	1900년	정전	18실	종묘13848-1	
313	고종비 명성왕후 추상존호 옥보	1900년	정전	18실	종묘13849-1	
314	순종 왕세자책봉 옥인	1875년	정전	19실	종묘13850-1	
315	순종비 순명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1882년	정전	19실	종묘13852-1	
316	순종비 순명왕후 황태자빈책봉 금보	1897년	정전	19실	종묘13853-1	
317	순종비 순명왕후 상시호 옥보	1904년	정전	19실	종묘13854-1	
318	영친왕 황태자책봉 금보	1907년	영녕전	16실	종묘13856-1	

<어책> : 290첩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1	태조 추상시호 옥책	1683년	정전	1실	종묘13224-1	
2	태조 추상존호 옥책	1872년	정전	1실	종묘13225-1	
3	태조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실	종묘13226-1	
4	태조비 신의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실	종묘13227-1	
5	태조계비 신덕왕후 상휘호 옥책	1669년	정전	1실	종묘13228-1	
6	태조계비 신덕왕후 추존 옥책	1899년	정전	1실	종묘13229-1	
7	정종 추상시호 옥책	1681년	영녕전	5실	종묘13230-1	
8	정종비 정안왕후 상휘호 옥책	1681년	영녕전	5실	종묘13231-1	
9	태종 추상시호 옥책	1683년	정전	2실	종묘13232-1	
10	태종 추상존호 옥책	1872년	정전	2실	종묘13233-1	
11	단종 추상시호 옥책	1698년	영녕전	7실	종묘13234-1	
12	단종비 정순왕후 상시호 옥책	1698년	영녕전	7실	종묘13235-1	
13	중종비 단경왕후 상시호 옥책	1739년	정전	6실	종묘13236-1	
14	중종비 단경왕후 상휘호 옥책	1739년	정전	6실	종묘13237-1	
15	인종 상시호 옥책편	1545년	영녕전	10실	종묘13238-1	
16	인종 상시호 옥책	1757년	영녕전	10실	종묘13239-1	
17	선조 추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7실	종묘13240-1	
18	선조비 의인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7실	종묘13241-1	
19	선조계비 인목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7실	종묘13242-1	
20	인조 상시호 옥책	1649년	정전	8실	종묘13243-1	
21	인조 추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8실	종묘13244-1	
22	인조비 인열왕후 왕비책봉 옥책	1623년	정전	8실	종묘13245-1	
23	인조비 인열왕후 상시호 옥책	1636년	정전	8실	종묘13246-1	
24	인조비 인열왕후 상휘호 옥책	1651년	정전	8실	종묘13248-1	
25	인조비 인열왕후 상시호 옥책	1758년	정전	8실	종묘13247-1	
26	인조비 인열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8실	종묘13249-1	
27	인조계비 장렬왕후 왕비책봉 옥책	1638년	정전	8실	종묘13250-1	
28	인조계비 장렬왕후 상존호 옥책	1651년	정전	8실	종묘13251-1	
29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1661년	정전	8실	종묘13252-1	
30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1676년	정전	8실	종묘13253-1	
31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1686년	정전	8실	종묘13254-1	
32	인조계비 장렬왕후 상시호 옥책	1688년	정전	8실	종묘13255-1	
33	인조계비 장렬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8실	종묘13256-1	
34	효종 상시호 옥책	1659년	정전	9실	종묘13257-1	
35	효종 추상존호 옥책	1740년	정전	9실	종묘13258-1	
36	효종 추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9실	종묘13259-1	
37	효종비 인선왕후 왕비책봉 옥책	1651년	정전	9실	종묘13260-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38	효종비 인선왕후 상존호 옥책	1661년	정전	9실	종묘13261-1	
39	효종비 인선왕후 상시호 옥책	1674년	정전	9실	종묘13262-1	
40	효종비 인선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9실	종묘13263-1	
41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	1649년	정전	10실	종묘13481-1	
42	현종 왕세자책봉 죽책	1651년	정전	10실	종묘13482-1	
43	현종 상시호 옥책	1674년	정전	10실	종묘13264-1	
44	현종 추상존호 옥책	1772년	정전	10실	종묘13265-1	
45	현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1651년	정전	10실	종묘13483-1	
46	현종비 명성왕후 왕비책봉 옥책	1661년	정전	10실	종묘13266-1	
47	현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책	1676년	정전	10실	종묘13267-1	
48	현종비 명성왕후 상시호 옥책	1684년	정전	10실	종묘13268-1	
49	현종비 명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1772년	정전	10실	종묘13269-1	
50	숙종 왕세자책봉 죽책	1667년	정전	11실	종묘13484-1	
51	숙종 상존호 옥책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270-1	
52	숙종 상시호 옥책	1720년	정전	11실	종묘13271-1	
53	숙종 추상존호 옥책	1753년	정전	11실	종묘13272-1	
54	숙종 추상존호 옥책	1776년	정전	11실	종묘13273-1	
55	숙종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274-1	
56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1671년	정전	11실	종묘13485-1	
57	숙종비 인경왕후 왕비책봉 옥책	1676년	정전	11실	종묘13275-1	
58	숙종비 인경왕후 상시호 옥책	1681년	정전	11실	종묘13276-1	
59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277-1	
60	숙종비 인경왕후 상휘호 옥책	1722년	정전	11실	종묘13278-1	
61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1753년	정전	11실	종묘13279-1	
62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1776년	정전	11실	종묘13280-1	
63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281-1	
64	숙종계비 인현왕후 왕비복위 옥책	1694년	정전	11실	종묘13282-1	
65	숙종계비 인현왕후 상시호 옥책	1701년	정전	11실	종묘13283-1	
66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284-1	
67	숙종계비 인현왕후 상휘호 옥책	1722년	정전	11실	종묘13285-1	
68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1753년	정전	11실	종묘13286-1	
69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1776년	정전	11실	종묘13287-1	
70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288-1	
71	숙종계비 인원왕후 왕비책봉 옥책	1702년	정전	11실	종묘13289-1	
72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존호 옥책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290-1	
73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22년	정전	11실	종묘13291-1	
74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26년	정전	11실	종묘13292-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75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40년	정전	11실	종묘13293-1	
76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40년	정전	11실	종묘13294-1	
77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47년	정전	11실	종묘13295-1	
78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51년	정전	11실	종묘13296-1	
79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52년	정전	11실	종묘13297-1	
80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53년	정전	11실	종묘13298-1	
81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56년	정전	11실	종묘13299-1	
82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시호 옥책	1757년	정전	11실	종묘13300-1	
83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776년	정전	11실	종묘13301-1	
84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302-1	
85	경종 왕세자책봉 축책	1690년	영녕전	13실	종묘13486-1	
86	경종 상시호 옥책	1724년	영녕전	13실	종묘13303-1	
87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축책	1696년	영녕전	13실	종묘13487-1	
88	경종비 단의왕후 상시호 축책	1718년	영녕전	13실	종묘13488-1	
89	경종비 단의왕후 왕비추봉 옥책	1722년	영녕전	13실	종묘13304-1	
90	경종비 단의왕후 상휘호 옥책	1726년	영녕전	13실	종묘13305-1	
91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축책	1718년	영녕전	13실	종묘13489-1	
92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책봉 옥책	1722년	영녕전	13실	종묘13306-1	
93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존호 옥책	1726년	영녕전	13실	종묘13307-1	
94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시호 옥책	1730년	영녕전	13실	종묘13308-1	
95	영조 왕세제책봉 축책	1721년	정전	12실	종묘13490-1	
96	영조 상존호 옥책	1740년	정전	12실	종묘13309-1	
97	영조 가상존호 옥책	1752년	정전	12실	종묘13310-1	
98	영조 가상존호 옥책	1756년	정전	12실	종묘13311-1	
99	영조 가상존호 옥책	1772년	정전	12실	종묘13312-1	
100	영조 가상존호 옥책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313-1	
101	영조 상시호 옥책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314-1	
102	영조 추상존호 옥책	1784년	정전	12실	종묘13315-1	
103	영조 추상시호 옥책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316-1	
104	영조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317-1	
105	영조비 정성왕후 왕세제빈책봉 축책	1721년	정전	12실	종묘13491-1	
106	영조비 정성왕후 왕비책봉 옥책	1726년	정전	12실	종묘13318-1	
107	영조비 정성왕후 상존호 옥책	1740년	정전	12실	종묘13319-1	
108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1752년	정전	12실	종묘13320-1	
109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1756년	정전	12실	종묘13321-1	
110	영조비 정성왕후 상시호 옥책	1757년	정전	12실	종묘13322-1	
111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1772년	정전	12실	종묘13323-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112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324-1	
113	영조비 정성왕후 상휘호 옥책	1778년	정전	12실	종묘13325-1	
114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1784년	정전	12실	종묘13326-1	
115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327-1	
116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책봉 옥책	1759년	정전	12실	종묘13328-1	
117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존호 옥책	1772년	정전	12실	종묘13329-1	
118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330-1	
119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778년	정전	12실	종묘13331-1	
120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783년	정전	12실	종묘13332-1	
121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784년	정전	12실	종묘13333-1	
122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787년	정전	12실	종묘13334-1	
123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795년	정전	12실	종묘13335-1	
124	영조계비 정순왕후 대왕대비존호 옥책	1802년	정전	12실	종묘13336-1	
125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804년	정전	12실	종묘13337-1	
126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805년	정전	12실	종묘13338-1	
127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시호 옥책	1805년	정전	12실	종묘13339-1	
128	영조계비 정순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340-1	
129	진종 왕세자책봉 죽책	1725년	영녕전	14실	종묘13492-1	
130	진종 상시호 죽책	1729년	영녕전	14실	종묘13493-1	
131	진종 왕세자승통 죽책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494-1	
132	진종 추상시호 옥책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341-1	
133	진종 추상존호 옥책	1908년	영녕전	14실	종묘13342-1	
134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1727년	영녕전	14실	종묘13495-1	
135	진종비 효순왕후 상시호 죽책	1752년	영녕전	14실	종묘13496-1	
136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승통 죽책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497-1	
137	진종비 효순왕후 상휘호 옥책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343-1	
138	진종비 효순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8년	영녕전	14실	종묘13344-1	
139	장조 왕세자책봉 죽책	1736년	영녕전	15실	종묘13498-1	
140	장조 상시호 죽책	1776년	영녕전	15실	종묘13499-1	
141	장조 추상존호 죽책	1783년	영녕전	15실	종묘13500-1	
142	장조 추상존호 죽책	1784년	영녕전	15실	종묘13501-1	
143	장조 추상존호 옥책	1795년	영녕전	15실	종묘13345-1	
144	장조 추상존호 옥책	1855년	영녕전	15실	종묘13346-1	
145	장조 상시호 옥책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347-1	
146	장조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348-1	
147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1744년	영녕전	15실	종묘13502-1	
148	장조비 헌경왕후 상존호 죽책	1778년	영녕전	15실	종묘13503-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149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축책	1783년	영녕전	15실	종묘13504-1	
150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축책	1784년	영녕전	15실	종묘13505-1	
151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책	1795년	영녕전	15실	종묘13349-1	
152	장조비 헌경왕후 상시호 옥책	1816년	영녕전	15실	종묘13350-1	
153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1855년	영녕전	15실	종묘13351-1	
154	장조비 헌경왕후 상휘호 옥책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352-1	
155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353-1	
156	정조 왕세손책봉 축책	1759년	정전	13실	종묘13506-1	
157	정조 상시호 옥책	1800년	정전	13실	종묘13354-1	
158	정조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355-1	
159	정조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356-1	
160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책봉 축책	1762년	정전	13실	종묘13507-1	
161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책봉 옥책	1778년	정전	13실	종묘13357-1	
162	정조비 효의왕후 상존호 옥책	1802년	정전	13실	종묘13358-1	
163	정조비 효의왕후 상시호 옥책	1821년	정전	13실	종묘13359-1	
164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360-1	
165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361-1	
166	순조 왕세자책봉 축책	1800년	정전	14실	종묘13508-1	
167	순조 상존호 옥책	1827년	정전	14실	종묘13362-1	
168	순조 상시호 옥책	1835년	정전	14실	종묘13363-1	
169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48년	정전	14실	종묘13364-1	
170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53년	정전	14실	종묘13365-1	
171	순조 상시호 옥책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366-1	
172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367-1	
173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58년	정전	14실	종묘13368-1	
174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61년	정전	14실	종묘13369-1	
175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62년	정전	14실	종묘13370-1	
176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79년	정전	14실	종묘13371-1	
177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4실	종묘13372-1	
178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옥책	1802년	정전	14실	종묘13373-1	
179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옥책	1802년	정전	14실	종묘13374-1	
180	순조비 순원왕후 상존호 옥책	1827년	정전	14실	종묘13375-1	
181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837년	정전	14실	종묘13376-1	
182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841년	정전	14실	종묘13377-1	
183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848년	정전	14실	종묘13378-1	
184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851년	정전	14실	종묘13379-1	
185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852년	정전	14실	종묘13380-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186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853년	정전	14실	종묘13381-1	
187	순조비 순원왕후 상시호 옥책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382-1	
188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383-1	
189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858년	정전	14실	종묘13384-1	
190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861년	정전	14실	종묘13385-1	
191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862년	정전	14실	종묘13386-1	
192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879년	정전	14실	종묘13387-1	
193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4실	종묘13388-1	
194	문조 왕세자책봉 죽책	1812년	정전	15실	종묘13509-1	
195	문조 상시호 죽책	1830년	정전	15실	종묘13510-1	
196	문조 추상시호 옥책	1835년	정전	15실	종묘13389-1	
197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48년	정전	15실	종묘13390-1	
198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53년	정전	15실	종묘13391-1	
199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5실	종묘13392-1	
200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67년	정전	15실	종묘13393-1	
201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69년	정전	15실	종묘13394-1	
202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75년	정전	15실	종묘13395-1	
203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77년	정전	15실	종묘13396-1	
204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79년	정전	15실	종묘13397-1	
205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83년	정전	15실	종묘13398-1	
206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87년	정전	15실	종묘13399-1	
207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5실	종묘13400-1	
208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15실	종묘13401-1	
209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5실	종묘13402-1	
210	문조 추상존호 옥책	1902년	정전	15실	종묘13403-1	
211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1819년	정전	15실	고궁2899-1	
212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59년	정전	15실	종묘13404-1	
213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3년	정전	15실	종묘13405-1	
214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5실	종묘13406-1	
215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5실	종묘13407-1	
216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7년	정전	15실	종묘13408-1	
217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8년	정전	15실	종묘13409-1	
218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9년	정전	15실	종묘13410-1	
219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73년	정전	15실	종묘13411-1	
220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75년	정전	15실	종묘13412-1	
221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77년	정전	15실	종묘13413-1	
222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78년	정전	15실	종묘13414-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223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79년	정전	15실	종묘13415-1	
224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83년	정전	15실	종묘13416-1	
225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86년	정전	15실	종묘13417-1	
226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87년	정전	15실	종묘13418-1	
227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88년	정전	15실	종묘13419-1	
228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88년	정전	15실	종묘13420-1	
229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5실	종묘13421-1	
230	문조비 신정왕후 상시호 옥책	1890년	정전	15실	종묘13422-1	
231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5실	종묘13423-1	
232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15실	종묘13424-1	
233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5실	종묘13425-1	
234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5실	종묘13426-1	
235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2년	정전	15실	종묘13427-1	
236	헌종 왕세손책봉 죽책	1830년	정전	16실	종묘13511-1	
237	헌종 상시호 옥책	1849년	정전	16실	종묘13428-1	
238	헌종 추상존호 옥책	1853년	정전	16실	종묘13429-1	
239	헌종 추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430-1	
240	헌종 추상존호 옥책	1908년	정전	16실	종묘13431-1	
241	헌종비 효현왕후 왕비책봉 옥책	1837년	정전	16실	종묘13432-1	
242	헌종비 효현왕후 상시호 옥책	1843년	정전	16실	종묘13433-1	
243	헌종비 효현왕후 상휘호 옥책	1851년	정전	16실	종묘13434-1	
244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1853년	정전	16실	종묘13435-1	
245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436-1	
246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8년	정전	16실	종묘13437-1	
247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59년	정전	16실	종묘13438-1	
248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3년	정전	16실	종묘13439-1	
249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440-1	
250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441-1	
251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73년	정전	16실	종묘13442-1	
252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88년	정전	16실	종묘13443-1	
253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6실	종묘13444-1	
254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6실	종묘13445-1	
255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16실	종묘13446-1	
256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16실	종묘13447-1	
257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902년	정전	16실	종묘13448-1	
258	헌종계비 효정왕후 상시호 옥책	1904년	정전	16실	종묘13449-1	
259	헌종계비 효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8년	정전	16실	종묘13450-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보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260	철종 상존호 옥책	1863년	정전	17실	종묘13451-1	
261	철종 상시호 옥책	1864년	정전	17실	종묘13452-1	
262	철종 추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7실	종묘13453-1	
263	철종 추상존호 옥책	1908년	정전	17실	종묘13454-1	
264	철종비 철인왕후 상존호 옥책	1863년	정전	17실	종묘13455-1	
265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7실	종묘13456-1	
266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7실	종묘13457-1	
267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책	1873년	정전	17실	종묘13458-1	
268	철종비 철인왕후 상휘호 옥책	1878년	정전	17실	종묘13459-1	
269	철종비 철인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8년	정전	17실	신수9235	중박
270	고종 상존호 옥책	1873년	정전	18실	종묘13460-1	
271	고종 가상존호 옥책	1888년	정전	18실	종묘13461-1	
272	고종 가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8실	종묘13462-1	
273	고종 가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18실	종묘13463-1	
274	고종 가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18실	종묘13464-1	
275	고종 가상존호 옥책	1902년	정전	18실	종묘13465-1	
276	고종 가상존호 옥책	1907년	정전	18실	종묘13466-1	
277	고종비 명성황후 왕비책봉 옥책	1866년	정전	18실	종묘13468-1	
278	고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책	1873년	정전	18실	종묘13469-1	
279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1888년	정전	18실	종묘13470-1	
280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8실	종묘13471-1	
281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18실	종묘13472-1	
282	고종비 명성황후 황후책봉 금책	1897년	정전	18실	종묘13544	
283	고종비 명성황후 상시호 옥책	1897년	정전	18실	종묘13473-1	
284	고종비 명성황후 추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18실	종묘13474-1	
285	고종비 명성황후 추상존호 옥책	1902년	정전	18실	종묘13475-1	
286	순종 왕세자책봉 죽책	1875년	정전	19실	종묘13512-1	
287	순종 황태자 책봉 금책	1897년	정전	19실	신수9237	중박
288	순종비 순명효황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1882년	정전	19실	종묘13513-1	
289	순종비 순명효황후 상시호 옥책	1904년	정전	19실	종묘13478-1	
290	순종비 순정효황후 황후책봉 금책	1907년	정전	19실	창덕25349	

<교명> : 29축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1	인조계비 장열왕후 왕비책봉 교명	1638년	정전	8실	종묘13516-1	
2	효종비 인선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1645년	정전	9실	종묘13517-1	
3	현종 왕세자책봉 교명	1651년	정전	10실	종묘13518-1	
4	현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1651년	정전	10실	종묘13519-1	
5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1671년	정전	11실	종묘13520-1	
6	숙종계비 인현왕후 왕비복위 교명	1694년	정전	11실	종묘13521-1	
7	숙종계비 인원왕후 왕비책봉 교명	1702년	정전	11실	종묘13522-1	
8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	1690년	영녕전	13실	종묘13523-1	
9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1696년	영녕전	13실	종묘13524-1	
10	경종비 단의왕후 왕비추봉 교명	1722년	영녕전	13실	종묘13525-1	
11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1718년	영녕전	13실	종묘13526-1	
12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책봉 교명	1722년	영녕전	13실	종묘13527-1	
13	영조 왕세제책봉 교명	1721년	정전	12실	종묘13528-1	
14	영조비 정성왕후 왕비책봉 교명	1726년	정전	12실	종묘13529-1	
15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책봉 교명	1759년	정전	12실	종묘13530-1	
16	진종 왕세자책봉 교명	1725년	영녕전	14실	종묘13531-1	
17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1727년	영녕전	14실	종묘13532-1	
18	장조 왕세자책봉 교명	1736년	영녕전	15실	종묘13533-1	
19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1744년	영녕전	15실	종묘13534-1	
20	정조 왕세손책봉 교명	1759년	정전	13실	종묘13535-1	
21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책봉 교명	1762년	정전	13실	종묘13536-1	
22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책봉 교명	1778년	정전	13실	종묘13537-1	
23	순조 왕세자책봉 교명	1800년	정전	14실	종묘13538-1	
24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교명	1802년	정전	14실	종묘13539-1	
25	문조 왕세자책봉 교명	1812년	정전	15실	종묘13540-1	
26	헌종 왕세손책봉 교명	1830년	정전	16실	종묘13541-1	
27	헌종비 효현왕후 왕비책봉 교명	1837년	정전	16실	종묘13542-1	
28	고종비 명성황후 왕비책봉 교명	1866년	정전	18실	종묘13543-1	
29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	1875년	정전	19실	신수9239	중박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지정 대상 목록-소장처별】**

<국립고궁박물관> : 628점

연번	명칭	제작시기	보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1	목조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1실	종묘13545-1	
2	목조비 효공왕후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1실	종묘13546-1	
3	익조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2실	종묘13547-1	
4	익조비 정숙왕후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2실	종묘13548-1	
5	도조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3실	종묘13549-1	
6	도조비 경순왕후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3실	종묘13550-1	
7	환조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4실	종묘13551-1	
8	환조비 의혜왕후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4실	종묘13552-1	
9	태조 추상시호 금보	1683년	정전	1실	종묘13553-1	
10	태조 추상존호 금보	1872년	정전	1실	종묘13554-1	
11	태조비 신의왕후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실	종묘13555-1	
12	태조계비 신덕왕후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실	종묘13556-1	
13	정종 추상시호 금보	1681년	영녕전	5실	종묘13557-1	
14	정종비 정안왕후 상휘호 금보	1681년	영녕전	5실	종묘13558-1	
15	세종 상시호 금보	1450년	정전	3실	종묘13559-1	
16	세종비 소헌왕후 상시호 금보	1446년	정전	3실	종묘13560-1	
17	문종 상시호 금보	1452년	영녕전	6실	종묘13561-1	
18	문종비 현덕왕후 상시호 금인	1513년	영녕전	6실	종묘13562-1	
19	문종비 현덕왕후 추상시호 금보	1513년	영녕전	6실	종묘13563-1	
20	문종비 현덕왕후 상휘호 금보	1513년	영녕전	6실	종묘13564-1	
21	세조비 정희왕후 상존호 옥보	1457년	정전	4실	종묘13565-1	
22	세조비 정희왕후 가상존호 옥보	1471년	정전	4실	종묘13566-1	
23	예종 무승안민지보	1457년	영녕전	9실	종묘13567-1	
24	예종비 장순왕후 왕세자빈책봉 백철인	1460년	영녕전	9실	종묘13569-1	
25	예종계비 안순왕후 상존호 옥인	1471년	영녕전	9실	종묘13571-1	
26	성종 상시호 금보	1495년	정전	5실	종묘13573-1	
27	성종비 공혜왕후 상시호 금보	1474년	정전	5실	종묘13574-1	
28	성종비 공혜왕후 상휘호 금인	1497년	정전	5실	고궁1558-1	
29	성종계비 정현왕후 상존호 금인	1497년	정전	5실	종묘13575-1	
30	성종계비 정현왕후 상시호 금보	1530년	정전	5실	종묘13576-1	
31	중종 상시호 금보	1545년	정전	6실	종묘13577-1	
32	중종비 단경왕후 상휘호 금보	1739년	정전	6실	종묘13578-1	
33	중종계비 장경왕후 상휘호 금보	1546년	정전	6실	종묘13579-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34	중종계비 문정왕후 상존호 금보	1554년	정전	6실	고궁2843-1	
35	중종계비 문정왕후 가상존호 금보	1554년	정전	6실	종묘13580-1	
36	중종계비 문정왕후 상시호 금보	1565년	정전	6실	종묘13581-1	
37	인종 상시호 금보	1545년	영녕전	10실	종묘13582-1	
38	인종비 인성왕후 왕세자빈책봉 은인	1554년	영녕전	10실	종묘13583-1	
39	인종비 인성왕후 상존호 금보	1554년	영녕전	10실	종묘13584-1	
40	명종 상시호 금보	1705년	영녕전	11실	종묘13585-1	
41	명종비 인순왕후 상존호 금보	1569년	영녕전	11실	종묘13586-1	
42	선조 가상존호 옥보	1604년	정전	7실	종묘13587-1	
43	선조 상시호 금보	1608년	정전	7실	종묘13588-1	
44	선조 추상존호 금보	1892년	정전	7실	종묘13589-1	
45	선조비 의인왕후 상존호 옥보	1600년	정전	7실	종묘13590-1	
46	선조비 의인왕후 상시호 금보	1600년	정전	7실	종묘13591-1	
47	선조비 의인왕후 추상존호 옥보	1604년	정전	7실	종묘13592-1	
48	선조비 의인왕후 상휘호 옥보	1610년	정전	7실	종묘13593-1	
49	선조비 의인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2년	정전	7실	종묘13594-1	
50	선조계비 인목왕후 왕비책봉 금보	1602년	정전	7실	종묘13595-1	
51	선조계비 인목왕후 상존호 옥보	1604년	정전	7실	종묘13596-1	
52	선조계비 인목왕후 가상존호 옥보	1610년	정전	7실	종묘13597-1	
53	선조계비 인목왕후 가상존호 옥보	1624년	정전	7실	종묘13598-1	
54	선조계비 인목왕후 상시호 금보	1632년	정전	7실	종묘13599-1	
55	선조계비 인목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2년	정전	7실	종묘13600-1	
56	원종 상시호 옥보	1634년	영녕전	12실	종묘13601-1	
57	원종비 인현왕후 상휘호 옥보	1632년	영녕전	12실	종묘13602-1	
58	인조 상시호 금보	1649년	정전	8실	종묘13603-1	
59	인조 추상존호 금보	1900년	정전	8실	종묘13604-1	
60	인조비 인열왕후 왕비책봉 금보	1651년	정전	8실	종묘13605-1	
61	인조비 인열왕후 상시호 금보	1651년	정전	8실	종묘13606-1	
62	인조비 인열왕후 추상존호 금보	1900년	정전	8실	종묘13607-1	
63	인조계비 장열왕후 왕비책봉 금보	1687년	정전	8실	종묘13608-1	
64	인조계비 장열왕후 가상존호 옥보	1687년	정전	8실	종묘13609-1	
65	인조계비 장열왕후 가상존호 옥보	1676년	정전	8실	고궁3864	
66	인조계비 장열왕후 가상존호 옥보	1686년	정전	8실	종묘13610-1	
67	인조계비 장열왕후 상시호 금보	1688년	정전	8실	종묘13611-1	
68	인조계비 장열왕후 추상존호 금보	1900년	정전	8실	종묘13612-1	
69	효종 추상존호 금보	1740년	정전	9실	고궁3668-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70	효종 추상존호 금보	1900년	정전	9실	종묘13613-1	
71	효종비 인선왕후 추상존호 금보	1900년	정전	9실	종묘13614-1	
72	현종 왕세자책봉 옥인	1651년	정전	10실	고궁2844-1	
73	현종비 명성왕후 상시호 금보	1684년	정전	10실	종묘13615-1	
74	숙종 왕세자책봉 옥인	1667년	정전	11실	종묘13616-1	
75	숙종 상존호 옥보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617-1	
76	숙종 상시호 금보	1720년	정전	11실	종묘13618-1	
77	숙종 추상존호 금보	1753년	정전	11실	종묘13619-1	
78	숙종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620-1	
79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1671년	정전	11실	종묘13621-1	
80	숙종비 인경왕후 왕비책봉 금보	1676년	정전	11실	종묘13622-1	
81	숙종비 인경왕후 상시호 금보	1681년	정전	11실	종묘13623-1	
82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보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624-1	
83	숙종비 인경왕후 상휘호 옥보	1722년	정전	11실	종묘13625-1	
84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금보	1753년	정전	11실	종묘13626-1	
85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금보	1776년	정전	11실	종묘13627-1	
86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628-1	
87	숙종계비 인현왕후 복위 금보	1694년	정전	11실	종묘13629-1	
88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보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630-1	
89	숙종계비 인현왕후 상휘호 옥보	1722년	정전	11실	종묘13631-1	
90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1776년	정전	11실	종묘13632-1	
91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633-1	
92	숙종계비 인원왕후 왕비책봉 금보	1702년	정전	11실	종묘13634-1	
93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존호 옥보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635-1	
94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22년	정전	11실	종묘13636-1	
95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26년	정전	11실	종묘13637-1	
96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40년	정전	11실	종묘13638-1	
97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40년	정전	11실	종묘13639-1	
98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47년	정전	11실	종묘13640-1	
99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51년	정전	11실	종묘13641-1	
100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52년	정전	11실	종묘13642-1	
101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금보	1753년	정전	11실	종묘13643-1	
102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756년	정전	11실	종묘13644-1	
103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시호 금보	1757년	정전	11실	종묘13645-1	
104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1776년	정전	11실	종묘13646-1	
105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647-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106	경종 왕세자책봉 옥인	1690년	영녕전	13실	종묘13648-1	
107	경종 상시호 금보	1724년	영녕전	13실	종묘13649-1	
108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1696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0-1	
109	경종비 단의왕후 상시호 옥인	1718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1-1	
110	경종비 단의왕후 추봉 금보	1722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2-1	
111	경종비 단의왕후 상휘호 옥보	1726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3-1	
112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1718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4-1	
113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책봉 금보	1722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5-1	
114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존호 옥보	1726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6-1	
115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시호 금보	1730년	영녕전	13실	종묘13657-1	
116	영조 왕세제책봉 옥인	1721년	정전	12실	종묘13658-1	
117	영조 상존호 옥보	1740년	정전	12실	종묘13659-1	
118	영조 가상존호 옥보	1752년	정전	12실	종묘13660-1	
119	영조 가상존호 옥보	1756년	정전	12실	종묘13661-1	
120	영조 가상존호 옥보	1772년	정전	12실	종묘13662-1	
121	영조 가상존호 옥보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663-1	
122	영조 상시호 금보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664-1	
123	영조 추상시호 금보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665-1	
124	영조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666-1	
125	영조비 정성왕후 왕세제빈책봉 옥인	1721년	정전	12실	종묘13667-1	
126	영조비 정성왕후 왕비책봉 금보	1726년	정전	12실	종묘13668-1	
127	영조비 정성왕후 상존호 옥보	1740년	정전	12실	종묘13669-1	
128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1752년	정전	12실	종묘13670-1	
129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1756년	정전	12실	종묘13671-1	
130	영조비 정성왕후 상시호 금보	1757년	정전	12실	종묘13672-1	
131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1772년	정전	12실	종묘13673-1	
132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674-1	
133	영조비 정성왕후 상휘호 옥보	1778년	정전	12실	종묘13675-1	
134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1784년	정전	12실	종묘13676-1	
135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677-1	
136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책봉 금보	1759년	정전	12실	종묘13678-1	
137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존호 옥보	1772년	정전	12실	종묘13679-1	
138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680-1	
139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778년	정전	12실	종묘13681-1	
140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783년	정전	12실	종묘13682-1	
141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784년	정전	12실	종묘13683-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142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787년	정전	12실	종묘13684-1	
143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795년	정전	12실	종묘13685-1	
144	영조계비 정순왕후 대왕대비 옥보	1802년	정전	12실	종묘13686-1	
145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804년	정전	12실	종묘13687-1	
146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1805년	정전	12실	종묘13688-1	
147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시호 금보	1805년	정전	12실	종묘13689-1	
148	영조계비 정순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690-1	
149	진종 왕세자책봉 옥인	1725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1-1	
150	진종 상시호 옥인	1729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2-1	
151	진종 세자승통 은인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3-1	
152	진종 추상시호 금보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4-1	
153	진종 추상존호 옥보	1908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5-1	
154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1727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6-1	
155	진종비 효순왕후 현빈책봉 옥인	1735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7-1	
156	진종비 효순왕후 상시호 옥인	1752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8-1	
157	진종비 효순왕후 세자빈승통 은인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699-1	
158	진종비 효순왕후 상휘호 금보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700-1	
159	진종비 효순왕후 추상존호 옥보	1908년	영녕전	14실	종묘13701-1	
160	장조 왕세자책봉 옥인	1736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2-1	
161	장조 상시호 옥인	1762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3-1	
162	장조 추상시호 옥인	1776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4-1	
163	장조 추상존호 옥인	1783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5-1	
164	장조 추상존호 옥인	1784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6-1	
165	장조 추상존호 금인	1795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7-1	
166	장조 추상존호 금인	1855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8-1	
167	장조 추상시호 금보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709-1	
168	장조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0-1	
169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1744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1-1	
170	장조비 헌경왕후 혜빈책봉 옥인	1762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2-1	
171	장조비 헌경왕후 상존호 옥인	1778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3-1	
172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인	1783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4-1	
173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인	1784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5-1	
174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인	1795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6-1	
175	장조비 헌경왕후 상시호 금인	1816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7-1	
176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금인	1855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8-1	
177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시호 금보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719-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178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720-1	
179	정조 왕세손책봉 옥인	1759년	정전	13실	종묘13721-1	
180	정조 효손 은인	1776년	정전	13실	종묘13722-1	
181	정조 상시호 금보	1800년	정전	13실	종묘13723-1	
182	정조 추상존호 금보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724-1	
183	정조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725-1	
184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책봉 은인	1762년	정전	13실	종묘13726-1	
185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책봉 금보	1778년	정전	13실	종묘13727-1	
186	정조비 효의왕후 상존호 옥보	1802년	정전	13실	종묘13728-1	
187	정조비 효의왕후 상시호 금보	1821년	정전	13실	종묘13729-1	
188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730-1	
189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731-1	
190	순조 왕세자책봉 옥인	1800년	정전	14실	종묘13732-1	
191	순조 상존호 옥보	1827년	정전	14실	종묘13733-1	
192	순조 상시호 금보	1835년	정전	14실	종묘13734-1	
193	순조 추상존호 금보	1848년	정전	14실	종묘13735-1	
194	순조 추상존호 금보	1853년	정전	14실	종묘13736-1	
195	순조 추상시호 금보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737-1	
196	순조 추상존호 금보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738-1	
197	순조 추상존호 금보	1858년	정전	14실	종묘13739-1	
198	순조 추상존호 금보	1861년	정전	14실	종묘13740-1	
199	순조 추상존호 금보	1862년	정전	14실	종묘13741-1	
200	순조 추상존호 금보	1879년	정전	14실	종묘13742-1	
201	순조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4실	종묘13743-1	
202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금보	1802년	정전	14실	종묘13744-1	
203	순조비 순원왕후 상존호 옥보	1827년	정전	14실	종묘13745-1	
204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837년	정전	14실	종묘13746-1	
205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841년	정전	14실	종묘13747-1	
206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848년	정전	14실	종묘13748-1	
207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851년	정전	14실	종묘13749-1	
208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852년	정전	14실	종묘13750-1	
209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1853년	정전	14실	종묘13751-1	
210	순조비 순원왕후 상시호 금보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752-1	
211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753-1	
212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1858년	정전	14실	종묘13754-1	
213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1861년	정전	14실	종묘13755-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214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1862년	정전	14실	종묘13756-1	
215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1879년	정전	14실	종묘13757-1	
216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4실	종묘13758-1	
217	문조 왕세자책봉 옥인	1812년	정전	15실	종묘13759-1	
218	문조 상시호 옥인	1830년	정전	15실	종묘13760-1	
219	문조 추상시호 금보	1835년	정전	15실	종묘13761-1	
220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48년	정전	15실	종묘13762-1	
221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53년	정전	15실	종묘13763-1	
222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66년	정전	15실	종묘13764-1	
223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67년	정전	15실	종묘13765-1	
224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69년	정전	15실	종묘13766-1	
225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75년	정전	15실	종묘13767-1	
226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77년	정전	15실	종묘13768-1	
227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79년	정전	15실	종묘13769-1	
228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83년	정전	15실	종묘13770-1	
229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87년	정전	15실	종묘13771-1	
230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90년	정전	15실	종묘13772-1	
231	문조 추상존호 금보	1892년	정전	15실	종묘13773-1	
232	문조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5실	종묘13774-1	
233	문조 추상존호 옥보	1902년	정전	15실	종묘13775-1	
234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53년	정전	15실	종묘13776-1	
235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59년	정전	15실	종묘13777-1	
236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3년	정전	15실	종묘13778-1	
237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6년	정전	15실	종묘13779-1	
238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6년	정전	15실	종묘13780-1	
239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7년	정전	15실	종묘13781-1	
240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8년	정전	15실	종묘13782-1	
241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9년	정전	15실	종묘13783-1	
242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73년	정전	15실	종묘13784-1	
243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75년	정전	15실	종묘13785-1	
244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77년	정전	15실	종묘13786-1	
245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78년	정전	15실	종묘13787-1	
246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79년	정전	15실	종묘13788-1	
247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83년	정전	15실	종묘13789-1	
248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86년	정전	15실	종묘13790-1	
249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87년	정전	15실	종묘13791-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250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88년	정전	15실	종묘13792-1	
251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88년	정전	15실	종묘13793-1	
252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90년	정전	15실	종묘13794-1	
253	문조비 신정왕후 상시호 금보	1890년	정전	15실	종묘13795-1	
254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9년	정전	15실	종묘13796-1	
255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금보	1899년	정전	15실	종묘13797-1	
256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보	1899년	정전	15실	종묘13798-1	
257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보	1902년	정전	15실	종묘13799-1	
258	헌종 왕세손 책봉 옥인	1830년	정전	16실	종묘13800-1	
259	헌종 상시호 금보	1849년	정전	16실	종묘13801-1	
260	헌종 추상존호 금보	1853년	정전	16실	종묘13802-1	
261	헌종 추상존호 금보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803-1	
262	헌종 추상존호 옥보	1908년	정전	16실	종묘13804-1	
263	헌종비 효현왕후 왕비 책봉 금보	1837년	정전	16실	종묘13805-1	
264	헌종비 효현왕후 상시호 금보	1843년	정전	16실	종묘13806-1	
265	헌종비 효현왕후 상휘호 옥보	1851년	정전	16실	종묘13807-1	
266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1853년	정전	16실	종묘13808-1	
267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809-1	
268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보	1908년	정전	16실	종묘13810-1	
269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53년	정전	16실	종묘13811-1	
270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59년	정전	16실	종묘13812-1	
271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3년	정전	16실	종묘13813-1	
272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814-1	
273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815-1	
274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73년	정전	16실	종묘13816-1	
275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88년	정전	16실	종묘13817-1	
276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90년	정전	16실	종묘13818-1	
277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90년	정전	16실	종묘13819-1	
278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92년	정전	16실	종묘13820-1	
279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897년	정전	16실	종묘13821-1	
280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900년	정전	16실	종묘13822-1	
281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1902년	정전	16실	종묘13823-1	
282	헌종계비 효정왕후 상시호 금보	1904년	정전	16실	종묘13824-1	
283	헌종계비 효정왕후 추상존호 옥보	1908년	정전	16실	종묘13825-1	
284	철종 상존호 옥보	1863년	정전	17실	종묘13826-1	
285	철종 상시호 금보	1864년	정전	17실	종묘13827-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286	철종 추상존호 금보	1866년	정전	17실	종묘13828-1	
287	철종 추상존호 옥보	1908년	정전	17실	종묘13829-1	
288	철종비 철인왕후 왕비책봉 금보	1851년	정전	17실	종묘13830-1	
289	철종비 철인왕후 상존호 옥보	1863년	정전	17실	종묘13831-1	
290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6년	정전	17실	종묘13832-1	
291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보	1866년	정전	17실	종묘13833-1	
292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보	1873년	정전	17실	종묘13834-1	
293	철종비 철인왕후 추상존호 옥보	1908년	정전	17실	종묘13835-1	
294	고종 상존호 옥보	1873년	정전	18실	종묘13836-1	
295	고종 가상존호 옥보	1888년	정전	18실	종묘13837-1	
296	고종 가상존호 옥보	1890년	정전	18실	종묘13838-1	
297	고종 가상존호 옥보	1892년	정전	18실	종묘13839-1	
298	고종 가상존호 옥보	1907년	정전	18실	고궁1993-1	
299	고종비 명성왕후 왕비책봉 금보	1866년	정전	18실	종묘13841-1	
300	고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보	1873년	정전	18실	종묘13842-1	
301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1888년	정전	18실	종묘13843-1	
302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1890년	정전	18실	종묘13844-1	
303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1892년	정전	18실	종묘13845-1	
304	고종비 명성왕후 상시호 옥보	1897년	정전	18실	종묘13846-1	
305	고종비 명성왕후 책봉 금보	1897년	정전	18실	종묘13847-1	
306	고종비 명성왕후 추상존호 옥보	1900년	정전	18실	종묘13848-1	
307	고종비 명성왕후 추상존호 옥보	1900년	정전	18실	종묘13849-1	
308	순종 왕세자책봉 옥인	1875년	정전	19실	종묘13850-1	
309	순종비 순명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1882년	정전	19실	종묘13852-1	
310	순종비 순명왕후 황태자빈책봉 금보	1897년	정전	19실	종묘13853-1	
311	순종비 순명왕후 상시호 옥보	1904년	정전	19실	종묘13854-1	
312	영친왕 황태자책봉 금보	1907년	영녕전	16실	종묘13856-1	
313	태조 추상시호 옥책	1683년	정전	1실	종묘13224-1	
314	태조 추상존호 옥책	1872년	정전	1실	종묘13225-1	
315	태조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실	종묘13226-1	
316	태조비 신의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실	종묘13227-1	
317	태조계비 신덕왕후 상휘호 옥책	1669년	정전	1실	종묘13228-1	
318	태조계비 신덕왕후 추존 옥책	1899년	정전	1실	종묘13229-1	
319	정종 추상시호 옥책	1681년	영녕전	5실	종묘13230-1	
320	정종비 정안왕후 상휘호 옥책	1681년	영녕전	5실	종묘13231-1	
321	태종 추상시호 옥책	1683년	정전	2실	종묘13232-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322	태종 추상존호 옥책	1872년	정전	2실	종묘13233-1	
323	단종 추상시호 옥책	1698년	영녕전	7실	종묘13234-1	
324	단종비 정순왕후 상시호 옥책	1698년	영녕전	7실	종묘13235-1	
325	중종비 단경왕후 상시호 옥책	1739년	정전	6실	종묘13236-1	
326	중종비 단경왕후 상휘호 옥책	1739년	정전	6실	종묘13237-1	
327	인종 상시호 옥책편	1545년	영녕전	10실	종묘13238-1	
328	인종 상시호 옥책	1757년	영녕전	10실	종묘13239-1	
329	선조 추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7실	종묘13240-1	
330	선조비 의인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7실	종묘13241-1	
331	선조계비 인목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7실	종묘13242-1	
332	인조 상시호 옥책	1649년	정전	8실	종묘13243-1	
333	인조 추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8실	종묘13244-1	
334	인조비 인열왕후 왕비책봉 옥책	1623년	정전	8실	종묘13245-1	
335	인조비 인열왕후 상시호 옥책	1636년	정전	8실	종묘13246-1	
336	인조비 인열왕후 상휘호 옥책	1651년	정전	8실	종묘13248-1	
337	인조비 인열왕후 상시호 옥책	1758년	정전	8실	종묘13247-1	
338	인조비 인열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8실	종묘13249-1	
339	인조계비 장렬왕후 왕비책봉 옥책	1638년	정전	8실	종묘13250-1	
340	인조계비 장렬왕후 상존호 옥책	1651년	정전	8실	종묘13251-1	
341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1661년	정전	8실	종묘13252-1	
342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1676년	정전	8실	종묘13253-1	
343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1686년	정전	8실	종묘13254-1	
344	인조계비 장렬왕후 상시호 옥책	1688년	정전	8실	종묘13255-1	
345	인조계비 장렬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8실	종묘13256-1	
346	효종 상시호 옥책	1659년	정전	9실	종묘13257-1	
347	효종 추상존호 옥책	1740년	정전	9실	종묘13258-1	
348	효종 추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9실	종묘13259-1	
349	효종비 인선왕후 왕비책봉 옥책	1651년	정전	9실	종묘13260-1	
350	효종비 인선왕후 상존호 옥책	1661년	정전	9실	종묘13261-1	
351	효종비 인선왕후 상시호 옥책	1674년	정전	9실	종묘13262-1	
352	효종비 인선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9실	종묘13263-1	
353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	1649년	정전	10실	종묘13481-1	
354	현종 왕세자책봉 죽책	1651년	정전	10실	종묘13482-1	
355	현종 상시호 옥책	1674년	정전	10실	종묘13264-1	
356	현종 추상존호 옥책	1772년	정전	10실	종묘13265-1	
357	현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1651년	정전	10실	종묘13483-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358	현종비 명성왕후 왕비책봉 옥책	1661년	정전	10실	종묘13266-1	
359	현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책	1676년	정전	10실	종묘13267-1	
360	현종비 명성왕후 상시호 옥책	1684년	정전	10실	종묘13268-1	
361	현종비 명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1772년	정전	10실	종묘13269-1	
362	숙종 왕세자책봉 죽책	1667년	정전	11실	종묘13484-1	
363	숙종 상존호 옥책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270-1	
364	숙종 상시호 옥책	1720년	정전	11실	종묘13271-1	
365	숙종 추상존호 옥책	1753년	정전	11실	종묘13272-1	
366	숙종 추상존호 옥책	1776년	정전	11실	종묘13273-1	
367	숙종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274-1	
368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1671년	정전	11실	종묘13485-1	
369	숙종비 인경왕후 왕비책봉 옥책	1676년	정전	11실	종묘13275-1	
370	숙종비 인경왕후 상시호 옥책	1681년	정전	11실	종묘13276-1	
371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277-1	
372	숙종비 인경왕후 상휘호 옥책	1722년	정전	11실	종묘13278-1	
373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1753년	정전	11실	종묘13279-1	
374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1776년	정전	11실	종묘13280-1	
375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281-1	
376	숙종계비 인현왕후 왕비복위 옥책	1694년	정전	11실	종묘13282-1	
377	숙종계비 인현왕후 상시호 옥책	1701년	정전	11실	종묘13283-1	
378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284-1	
379	숙종계비 인현왕후 상휘호 옥책	1722년	정전	11실	종묘13285-1	
380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1753년	정전	11실	종묘13286-1	
381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1776년	정전	11실	종묘13287-1	
382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288-1	
383	숙종계비 인원왕후 왕비책봉 옥책	1702년	정전	11실	종묘13289-1	
384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존호 옥책	1713년	정전	11실	종묘13290-1	
385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22년	정전	11실	종묘13291-1	
386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26년	정전	11실	종묘13292-1	
387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40년	정전	11실	종묘13293-1	
388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40년	정전	11실	종묘13294-1	
389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47년	정전	11실	종묘13295-1	
390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51년	정전	11실	종묘13296-1	
391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52년	정전	11실	종묘13297-1	
392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53년	정전	11실	종묘13298-1	
393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756년	정전	11실	종묘13299-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394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시호 옥책	1757년	정전	11실	종묘13300-1	
395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776년	정전	11실	종묘13301-1	
396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1실	종묘13302-1	
397	경종 왕세자책봉 죽책	1690년	영녕전	13실	종묘13486-1	
398	경종 상시호 옥책	1724년	영녕전	13실	종묘13303-1	
399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1696년	영녕전	13실	종묘13487-1	
400	경종비 단의왕후 상시호 죽책	1718년	영녕전	13실	종묘13488-1	
401	경종비 단의왕후 왕비추봉 옥책	1722년	영녕전	13실	종묘13304-1	
402	경종비 단의왕후 상휘호 옥책	1726년	영녕전	13실	종묘13305-1	
403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1718년	영녕전	13실	종묘13489-1	
404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책봉 옥책	1722년	영녕전	13실	종묘13306-1	
405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존호 옥책	1726년	영녕전	13실	종묘13307-1	
406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시호 옥책	1730년	영녕전	13실	종묘13308-1	
407	영조 왕세제책봉 죽책	1721년	정전	12실	종묘13490-1	
408	영조 상존호 옥책	1740년	정전	12실	종묘13309-1	
409	영조 가상존호 옥책	1752년	정전	12실	종묘13310-1	
410	영조 가상존호 옥책	1756년	정전	12실	종묘13311-1	
411	영조 가상존호 옥책	1772년	정전	12실	종묘13312-1	
412	영조 가상존호 옥책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313-1	
413	영조 상시호 옥책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314-1	
414	영조 추상존호 옥책	1784년	정전	12실	종묘13315-1	
415	영조 추상시호 옥책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316-1	
416	영조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317-1	
417	영조비 정성왕후 왕세제빈책봉 죽책	1721년	정전	12실	종묘13491-1	
418	영조비 정성왕후 왕비책봉 옥책	1726년	정전	12실	종묘13318-1	
419	영조비 정성왕후 상존호 옥책	1740년	정전	12실	종묘13319-1	
420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1752년	정전	12실	종묘13320-1	
421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1756년	정전	12실	종묘13321-1	
422	영조비 정성왕후 상시호 옥책	1757년	정전	12실	종묘13322-1	
423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1772년	정전	12실	종묘13323-1	
424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324-1	
425	영조비 정성왕후 상휘호 옥책	1778년	정전	12실	종묘13325-1	
426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1784년	정전	12실	종묘13326-1	
427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327-1	
428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책봉 옥책	1759년	정전	12실	종묘13328-1	
429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존호 옥책	1772년	정전	12실	종묘13329-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430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776년	정전	12실	종묘13330-1	
431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778년	정전	12실	종묘13331-1	
432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783년	정전	12실	종묘13332-1	
433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784년	정전	12실	종묘13333-1	
434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787년	정전	12실	종묘13334-1	
435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795년	정전	12실	종묘13335-1	
436	영조계비 정순왕후 대왕대비존호 옥책	1802년	정전	12실	종묘13336-1	
437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804년	정전	12실	종묘13337-1	
438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1805년	정전	12실	종묘13338-1	
439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시호 옥책	1805년	정전	12실	종묘13339-1	
440	영조계비 정순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2실	종묘13340-1	
441	진종 왕세자책봉 죽책	1725년	영녕전	14실	종묘13492-1	
442	진종 상시호 죽책	1729년	영녕전	14실	종묘13493-1	
443	진종 왕세자승통 죽책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494-1	
444	진종 추상시호 옥책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341-1	
445	진종 추상존호 옥책	1908년	영녕전	14실	종묘13342-1	
446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1727년	영녕전	14실	종묘13495-1	
447	진종비 효순왕후 상시호 죽책	1752년	영녕전	14실	종묘13496-1	
448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승통 죽책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497-1	
449	진종비 효순왕후 상휘호 옥책	1776년	영녕전	14실	종묘13343-1	
450	진종비 효순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8년	영녕전	14실	종묘13344-1	
451	장조 왕세자책봉 죽책	1736년	영녕전	15실	종묘13498-1	
452	장조 상시호 죽책	1776년	영녕전	15실	종묘13499-1	
453	장조 추상존호 죽책	1783년	영녕전	15실	종묘13500-1	
454	장조 추상존호 죽책	1784년	영녕전	15실	종묘13501-1	
455	장조 추상존호 옥책	1795년	영녕전	15실	종묘13345-1	
456	장조 추상존호 옥책	1855년	영녕전	15실	종묘13346-1	
457	장조 상시호 옥책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347-1	
458	장조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348-1	
459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1744년	영녕전	15실	종묘13502-1	
460	장조비 헌경왕후 상존호 죽책	1778년	영녕전	15실	종묘13503-1	
461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죽책	1783년	영녕전	15실	종묘13504-1	
462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죽책	1784년	영녕전	15실	종묘13505-1	
463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책	1795년	영녕전	15실	종묘13349-1	
464	장조비 헌경왕후 상시호 옥책	1816년	영녕전	15실	종묘13350-1	
465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1855년	영녕전	15실	종묘13351-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466	장조비 헌경왕후 상휘호 옥책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352-1	
467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영녕전	15실	종묘13353-1	
468	정조 왕세손책봉 축책	1759년	정전	13실	종묘13506-1	
469	정조 상시호 옥책	1800년	정전	13실	종묘13354-1	
470	정조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355-1	
471	정조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356-1	
472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책봉 축책	1762년	정전	13실	종묘13507-1	
473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책봉 옥책	1778년	정전	13실	종묘13357-1	
474	정조비 효의왕후 상존호 옥책	1802년	정전	13실	종묘13358-1	
475	정조비 효의왕후 상시호 옥책	1821년	정전	13실	종묘13359-1	
476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360-1	
477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3실	종묘13361-1	
478	순조 왕세자책봉 축책	1800년	정전	14실	종묘13508-1	
479	순조 상존호 옥책	1827년	정전	14실	종묘13362-1	
480	순조 상시호 옥책	1835년	정전	14실	종묘13363-1	
481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48년	정전	14실	종묘13364-1	
482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53년	정전	14실	종묘13365-1	
483	순조 상시호 옥책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366-1	
484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367-1	
485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58년	정전	14실	종묘13368-1	
486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61년	정전	14실	종묘13369-1	
487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62년	정전	14실	종묘13370-1	
488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79년	정전	14실	종묘13371-1	
489	순조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4실	종묘13372-1	
490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옥책	1802년	정전	14실	종묘13373-1	
491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옥책	1802년	정전	14실	종묘13374-1	
492	순조비 순원왕후 상존호 옥책	1827년	정전	14실	종묘13375-1	
493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837년	정전	14실	종묘13376-1	
494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841년	정전	14실	종묘13377-1	
495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848년	정전	14실	종묘13378-1	
496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851년	정전	14실	종묘13379-1	
497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852년	정전	14실	종묘13380-1	
498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1853년	정전	14실	종묘13381-1	
499	순조비 순원왕후 상시호 옥책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382-1	
500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857년	정전	14실	종묘13383-1	
501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858년	정전	14실	종묘13384-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502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861년	정전	14실	종묘13385-1	
503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862년	정전	14실	종묘13386-1	
504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879년	정전	14실	종묘13387-1	
505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4실	종묘13388-1	
506	문조 왕세자책봉 죽책	1812년	정전	15실	종묘13509-1	
507	문조 상시호 죽책	1830년	정전	15실	종묘13510-1	
508	문조 추상시호 옥책	1835년	정전	15실	종묘13389-1	
509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48년	정전	15실	종묘13390-1	
510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53년	정전	15실	종묘13391-1	
511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5실	종묘13392-1	
512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67년	정전	15실	종묘13393-1	
513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69년	정전	15실	종묘13394-1	
514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75년	정전	15실	종묘13395-1	
515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77년	정전	15실	종묘13396-1	
516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79년	정전	15실	종묘13397-1	
517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83년	정전	15실	종묘13398-1	
518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87년	정전	15실	종묘13399-1	
519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5실	종묘13400-1	
520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15실	종묘13401-1	
521	문조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5실	종묘13402-1	
522	문조 추상존호 옥책	1902년	정전	15실	종묘13403-1	
523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1819년	정전	15실	고궁2899-1	
524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59년	정전	15실	종묘13404-1	
525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3년	정전	15실	종묘13405-1	
526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5실	종묘13406-1	
527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5실	종묘13407-1	
528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7년	정전	15실	종묘13408-1	
529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8년	정전	15실	종묘13409-1	
530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9년	정전	15실	종묘13410-1	
531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73년	정전	15실	종묘13411-1	
532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75년	정전	15실	종묘13412-1	
533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77년	정전	15실	종묘13413-1	
534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78년	정전	15실	종묘13414-1	
535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79년	정전	15실	종묘13415-1	
536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83년	정전	15실	종묘13416-1	
537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86년	정전	15실	종묘13417-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538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87년	정전	15실	종묘13418-1	
539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88년	정전	15실	종묘13419-1	
540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88년	정전	15실	종묘13420-1	
541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5실	종묘13421-1	
542	문조비 신정왕후 상시호 옥책	1890년	정전	15실	종묘13422-1	
543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5실	종묘13423-1	
544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15실	종묘13424-1	
545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5실	종묘13425-1	
546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1899년	정전	15실	종묘13426-1	
547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2년	정전	15실	종묘13427-1	
548	헌종 왕세손책봉 죽책	1830년	정전	16실	종묘13511-1	
549	헌종 상시호 옥책	1849년	정전	16실	종묘13428-1	
550	헌종 추상존호 옥책	1853년	정전	16실	종묘13429-1	
551	헌종 추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430-1	
552	헌종 추상존호 옥책	1908년	정전	16실	종묘13431-1	
553	헌종비 효현왕후 왕비책봉 옥책	1837년	정전	16실	종묘13432-1	
554	헌종비 효현왕후 상시호 옥책	1843년	정전	16실	종묘13433-1	
555	헌종비 효현왕후 상휘호 옥책	1851년	정전	16실	종묘13434-1	
556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1853년	정전	16실	종묘13435-1	
557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436-1	
558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8년	정전	16실	종묘13437-1	
559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59년	정전	16실	종묘13438-1	
560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3년	정전	16실	종묘13439-1	
561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440-1	
562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6실	종묘13441-1	
563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73년	정전	16실	종묘13442-1	
564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88년	정전	16실	종묘13443-1	
565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6실	종묘13444-1	
566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6실	종묘13445-1	
567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16실	종묘13446-1	
568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16실	종묘13447-1	
569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1902년	정전	16실	종묘13448-1	
570	헌종계비 효정왕후 상시호 옥책	1904년	정전	16실	종묘13449-1	
571	헌종계비 효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8년	정전	16실	종묘13450-1	
572	철종 상존호 옥책	1863년	정전	17실	종묘13451-1	
573	철종 상시호 옥책	1864년	정전	17실	종묘13452-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봉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574	철종 추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7실	종묘13453-1	
575	철종 추상존호 옥책	1908년	정전	17실	종묘13454-1	
576	철종비 철인왕후 상존호 옥책	1863년	정전	17실	종묘13455-1	
577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7실	종묘13456-1	
578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책	1866년	정전	17실	종묘13457-1	
579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책	1873년	정전	17실	종묘13458-1	
580	철종비 철인왕후 상휘호 옥책	1878년	정전	17실	종묘13459-1	
581	고종 상존호 옥책	1873년	정전	18실	종묘13460-1	
582	고종 가상존호 옥책	1888년	정전	18실	종묘13461-1	
583	고종 가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8실	종묘13462-1	
584	고종 가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18실	종묘13463-1	
585	고종 가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18실	종묘13464-1	
586	고종 가상존호 옥책	1902년	정전	18실	종묘13465-1	
587	고종 가상존호 옥책	1907년	정전	18실	종묘13466-1	
588	고종비 명성황후 왕비책봉 옥책	1866년	정전	18실	종묘13468-1	
589	고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책	1873년	정전	18실	종묘13469-1	
590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1888년	정전	18실	종묘13470-1	
591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1890년	정전	18실	종묘13471-1	
592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1892년	정전	18실	종묘13472-1	
593	고종비 명성황후 황후책봉 금책	1897년	정전	18실	종묘13544	
594	고종비 명성황후 상시호 옥책	1897년	정전	18실	종묘13473-1	
595	고종비 명성황후 추상존호 옥책	1900년	정전	18실	종묘13474-1	
596	고종비 명성황후 추상존호 옥책	1902년	정전	18실	종묘13475-1	
597	순종 왕세자책봉 죽책	1875년	정전	19실	종묘13512-1	
598	순종비 순명효황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1882년	정전	19실	종묘13513-1	
599	순종비 순명효황후 상시호 옥책	1904년	정전	19실	종묘13478-1	
600	순종비 순정효황후 황후책봉 금책	1907년	정전	19실	창덕25349	
601	인조계비 장열왕후 왕비책봉 교명	1638년	정전	8실	종묘13516-1	
602	효종비 인선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1645년	정전	9실	종묘13517-1	
603	현종 왕세자책봉 교명	1651년	정전	10실	종묘13518-1	
604	현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1651년	정전	10실	종묘13519-1	
605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1671년	정전	11실	종묘13520-1	
606	숙종계비 인현왕후 왕비복위 교명	1694년	정전	11실	종묘13521-1	
607	숙종계비 인원왕후 왕비책봉 교명	1702년	정전	11실	종묘13522-1	
608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	1690년	영녕전	13실	종묘13523-1	
609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1696년	영녕전	13실	종묘13524-1	

연번	명칭	제작시기	불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610	경종비 단의왕후 왕비추봉 교명	1722년	영녕전	13실	종묘13525-1	
611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1718년	영녕전	13실	종묘13526-1	
612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책봉 교명	1722년	영녕전	13실	종묘13527-1	
613	영조 왕세제책봉 교명	1721년	정전	12실	종묘13528-1	
614	영조비 정성왕후 왕비책봉 교명	1726년	정전	12실	종묘13529-1	
615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책봉 교명	1759년	정전	12실	종묘13530-1	
616	진종 왕세자책봉 교명	1725년	영녕전	14실	종묘13531-1	
617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1727년	영녕전	14실	종묘13532-1	
618	장조 왕세자책봉 교명	1736년	영녕전	15실	종묘13533-1	
619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1744년	영녕전	15실	종묘13534-1	
620	정조 왕세손책봉 교명	1759년	정전	13실	종묘13535-1	
621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책봉 교명	1762년	정전	13실	종묘13536-1	
622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책봉 교명	1778년	정전	13실	종묘13537-1	
623	순조 왕세자책봉 교명	1800년	정전	14실	종묘13538-1	
624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교명	1802년	정전	14실	종묘13539-1	
625	문조 왕세자책봉 교명	1812년	정전	15실	종묘13540-1	
626	헌종 왕세손책봉 교명	1830년	정전	16실	종묘13541-1	
627	헌종비 효현왕후 왕비책봉 교명	1837년	정전	16실	종묘13542-1	
628	고종비 명성황후 왕비책봉 교명	1866년	정전	18실	종묘13543-1	

<국립중앙박물관> : 7점

연번	명칭	제작시기	불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1	단종 상시호 금보	1698년	영녕전	7실	신수212	
2	단종비 정순왕후 상시호 금보	1698년	영녕전	7실	신수213	
3	고종 가상존호 옥보	1900년	정전	18실	신수9236	
4	고종 가상존호 옥보	1902년	정전	18실	신수9240	
5	철종비 철인왕후 추상존호 옥책	1908년	정전	17실	신수9235	
6	순종 황태자 책봉 금책	1897년	정전	19실	신수9237	
7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	1875년	정전	19실	신수9239	

<고려대학교박물관> : 2점

연번	명칭	제작시기	불안장소		소장품번호	비고
			전	실		
1	태종비 원경왕후 상시호 금인	1420년	정전	2실	고대2204	
2	현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보	1676년	정전	10실	고대2214	



## 2. 근묵(槿墨)

### 가. 심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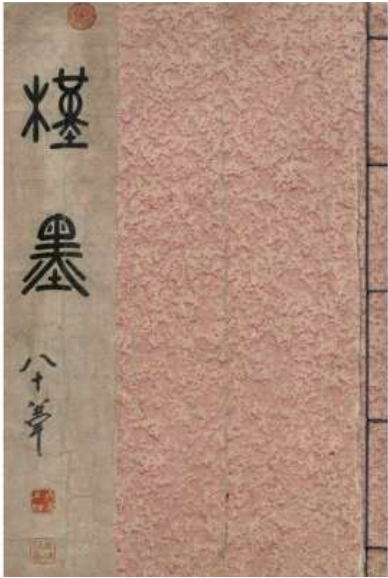
‘근묵’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근묵’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5.7.)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2.1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5.3.~'23.6.2.)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근묵(槿墨)
- 소유자(관리자) : 성균관대학교(성균관대학교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박물관
- 수 량 : 총 35책(서첩 34책, 목록 1책)
- 규 격 : 45.0×30.5cm
- 재 질 : 종이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첩장본(帖裝本)
- 조성연대 : 1943년 성첩(고려 말~근대 필적 수록)



<근목-목록>



<근목-서첩>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근목(樞墨)』은 오세창(吳世昌)이 우리나라 선인 정몽주(鄭夢周, 1337~1392)에서 이도영(李道榮, 1884~1933)까지 근 600여 년에 걸친 1,136명의 필적을 수록한 서첩이고, 구성은 선장본(線裝本) 목록 1책과 첩장본(帖裝本) 본문 34책을 합한 35책이다. 재질은 저지(楮紙)이고 각 책의 표지는 비단으로 장황하였으며, 크기는 세로 30.5cm 가로 45.0cm이고 성첩 연대는 1943년이다. 제1책의 첫 장은 전서로 ‘근목(樞墨)’이라 쓴 표제에 ‘팔십위(八十輩)’이라 쓰고, 오른쪽 가운데에 둥근 와당형 인영 ‘진주암인(眞住庵印)’과 왼쪽 ‘八十輩’ 아래에 방형의 주문인 ‘세창지새(世昌之鈔)’와 백문인 ‘위창한묵(葦蒼翰墨)’의 인영이 있다. 서첩 34책은 필적의 크기에 따라 양면 또는 단면에 1점씩 수록하였고, 오른쪽 첩지(添紙)에는 이를 쓴 인명과 생몰연대 등을 적어 놓았다. 목록 1책에는 이를 쓴 성명(姓名)·자호(字號)·향관(鄉貫)·시대(時代)·직업(職業)·계통(係統) 등을 기록하였다. 보존상태는 양호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첫째로 진위판단, 서명과 필적의 불일치, 서명이 없는 필적의 신빙성, 대필의 필적 등 문제점은 『근목』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에서 보이는 것이어서 전체의 가치에 비하면 옥에 티라 하겠다. 둘째로 성첩이 1943년이라는 문제점은 수록된 필적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동산문화재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셋째로 『근목』은 우리나라 600년간의 서예사·인장사·서지학·생활사·문화사 연구의 자료 가치가 높은 진귀한 서첩이고, 유전경로가 확실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는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근목』은 오세창이 80세 때에 편집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당시에 국내 최고의 서예가요 감식가로서 무려 1,136점의 필사본을 망라하여 35책으로 꾸민 것으로 볼 때, 당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후생으로서의 소명감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었던 일로서 크게 기려져야 마땅하다.

약간의 하자로 지적받고 있는 안작으로 의심되는 몇몇 작품에 대한 문제는 1981년도에 발간된 『근목』 두 권의 해제에서 임창순이 잘 밝혀놓고 있다. 물론 완벽에 비할 수 있으려면 필자 본인도 감정가의 한 사람으로서 상고해 볼 적에, 오세창의 실수가 읽혀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길재·이개·황희 등등의 필적을 소위 ‘전칭작’으로 보았을 개연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안평대군의 것이 위작이기는 하지만 안평대군의 필치를 엿볼 수 있으니 자료적 가치로서의 몫은 하고 있다고 여기는 바이다. 이는 곧은 나무가 주종을 이루지만 굽은 나무, 쓰러진 나무가 어우러져 있어 한 산을 이루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심지어 1,136점에서 논란거리가 수점에 불과하다는 것은 감식가의 한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만 하다고 본다. 옥에 티가 있어도 그 가치가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근목』에서의 하점(瑕玷)도 그 큰 가치를 치명적으로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목』이 해방 이후 한국서예사 연구에 크게 기여했음은 원광대학교를 위시한 5개 서예과에서의 석박사 논문에 녹아 있으며, 일찍이 임창순도 『한국미술전집』, 『한국의 미』 같은 책 중의 서예부분을 집필할 때 다수 『근목』에서 차용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1985년에 예술원에서 출간된 『한국미술사전』에 필자를 비롯하여 김양동, 김세호 등이 참여했는데 이론적 측면은 오세창의 『근역서화집』과 김영윤의 『한국서화인명사서』 등을 주로 활용했지만 도판은 거의가 다 『근목』을 참조했음도 밝혀둔다.

『근목』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임창순을 비롯한 선행연구자들이 밝혀놓았기에 여기서는 언급을 회피한다. 다만 이 연구 결과물들에 대해서 대체로 동감하는 바이며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에 크게 충족된다고 판단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지정신청본인 『근목』은 위창 오세창이 1943년에 완성한 서첩으로 우리나라 서예사, 미술사학 연구에 초석이 된다. 필적 인물의 신분이 다양하고, 수록 시기 역시 600년을 넘는다. 그런 만큼 『근목』은 선인들의 필적을 역사성 있게 편성한 작품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그 가치는 우리나라 서예사, 미술사학뿐 아니라 생활사, 인장학(印章學)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유물이다. 더욱이 내용 중에는 사회상이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이 많아서 당대의 사회, 생활사 연구에도 도움을 준다.

다만 여말선초 필적을 중심으로 일부 오류나 진위의 논란이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방대한 수록 필적에 비하면 일부의 작품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서첩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서첩 『근묵』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근묵(槿墨)》은 현존 역대 서첩 가운데 질과 양면에서 가장 우수한 서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서첩에 수록된 목적의 시대적 분포가 고려 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고, 서사자의 신분 계층 또한 제왕에서 중인에 이르며 수록된 유묵의 문체 또한 한문학 거의 전 장르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조선 전기 이래 역대 명필들의 목적이 빠짐없이 장첩되어 있어 각 시기에 유행하던 서풍 및 그 변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유사 문화재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여향인들과 화가들의 목적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도 서간문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이 서첩은 서사자가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 및 당시의 사회상 생활사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근묵(槿墨)》에 장첩된 목적의 수집자인 오세창이 뛰어난 서화 감식안을 지닌 서예가였기 때문에 장첩된 거의 모든 목적이 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수록된 목적 가운데 안평대군 글씨는 김육이 1636년 명나라로 사신가는 길에 지은 시로 알려져 시기가 맞지 않으며, <松杖贈冲菴>이란 제목으로 수록된 박훈의 시는 김정이가 박수량에게 준 시로 《충암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 임수적과 정언황의 서간은 천초(倩草)이며, 모사작도 극소수 있는 듯 하여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목적을 수집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서 장첩한 오세창과 훗날 탈초와 감수를 담당한 임창순의 빼어난 감식안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적을 이 서첩에 수록한 것은 이를 통해 해당 인물의 서풍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해보거나 당대의 서풍을 확인하고자 하는 등의 의도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묵》은 근대의 저명한 서예가이자 서화 감식가였던 오세창이 여말 이래 명사들의 목적 1,136점을 수집하여 34책으로 장첩한 것으로 질과 양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귀중한 문헌이다. 특히 이 서첩에는 선초 이래 역대명필들의 목적이 대거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빼어난 필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서가들의 목적 및 화가와 여향인들의 목적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서첩은 당대의 학술, 사회제도, 서지 풍습 등의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한국 서예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서첩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權墨』은 위창 오세창이 수집해서 정리한 우리나라 역대 명사의 서첩이다. 성균관 대학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權墨』은 오세창의 또 다른 책 『權域書彙』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서첩으로 평가된다. 『權墨』은 모두 34첩의 서간첩과 1책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려 말 정몽주부터 일제강점기 이도영에 이르기까지 총 1,136명의 행서·초서·해서·전서·예서가 수록된 국내 최대 분량의 서첩이다. 수록된 필적은 한국서예사 연구의 기준작이자 조선시대 글씨 변화의 흐름과 수준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당시의 시대상과 선인들의 일상생활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사 자료로서도 귀중하다. 목록에는 각 서간마다 글씨를 쓴 주요 인물의 이름(명·자·호), 이력(관향·시대·직업) 계통(관련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글씨를 남긴 인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중요하다.

『權墨』이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절대다수가 원본 필적이기 때문에 서사자가 처한 시대적 서풍, 사회문화적인 면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서자의 미의식과 역대의 서풍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지질에 있어서도 고정지·감지·상피지·저지 등 다양하게 이용되었으며, 서예사를 실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이다. 서예에 있어 우리나라 사료를 총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權墨』은 600년의 살아있는 서예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② 선현들이 직접 써서 남긴 필적인 手澤이어서 그 체취조차도 귀하다. 이는 인쇄된 책자나 탁본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다. 본서에는 특히 서간문이 많은데 일부러 공들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運筆한 실용문이지만, 예술성도 있다. 따라서 행초서가 많으며, 그 筆致는 유려하고 暢達하여 보는 이의 마음과 눈을 기쁘게 하는 매력이 있다.
- ③ 신분상 제왕으로부터 고관, 문인, 서화가, 역관, 여향인, 승려는 물론 당파를 막론하고 망라되어 있다. 신분에 따라 서풍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연구할 과제가 될 수 있다. 서예 분야에서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위향문인의 작품도 상당수 수록되어, 이 분야 연구주제의 개척에도 기능할 수 있을 것 이란 점이다.

한편 『權墨』에 수록된 명사의 글씨 중에는 진위판단이 어렵거나,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그대로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한 작품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 ① 署名이 있어도 필법이 후대의 필법이거나 傳稱作이어서 전체 작품이 진작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로 鄭夢周, 鄭道傳, 吉再, 匪懈堂 安平大君 등 고려와 조선 초기 몇몇 작가의 작품 가운데 진적임을 확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창이 安平大君의 작품은 진작이 아니어서 수준은 떨어지지만 안평대군체로 썼다는 의미에서 계통을 밝힐 수 있는 점에서 수용했거나, 靑溟 任昌

淳도 탈초해서 영인본을 간행할 때 제거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王羲之의 진작은 없고 모본으로 전래되고 있지만, 그 시대의 서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본을 중시하고 있는 것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 ② 署名이 없이 전하는 黃喜, 孟思誠, 金守濫의 작품도 그대로 신빙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이것은 “歷代名人의 작품을 集成한다”는 목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이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전하는 작품이 없거나 비교대상본이 없어 진위 판단이 어려운 것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
- ③ 1943년 성첩되었으므로 근대유물로 인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위창의 감식안으로 성첩한 연도가 1943년이지만, 수록된 내용은 여말부터 20세기 초란 점에 주안점을 둔다면 내용은 조선 중기와 말기의 작품이 중심이다. 예로 조선 후기 李寅文(1745~1824 경)의 『江山無盡圖』는 광복 직전 표구된 것인데, 근대문화재가 아닌 조선시대의 그림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權墨』도 내용은 조선시대의 작품이 위주이므로 동산문화재로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1943년에 성첩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국가문화재로서 지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숙고한 결과, 성첩한 연대가 1943년이지 수록된 작품은 여말에서 20세기 초의 작품이므로 성첩한 연도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僞作보다 眞作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서예사의 귀중본이자 역대 최대 분량의 서첩인 본 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가치와 상징성을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연구해서 후세에 바르게 전승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權墨』은 위창 가문 8대의 수집품의 토대 위에 위창이 의도적으로 수집하였으므로 가능했던 것이다. 또 다시 이렇게 망라된 저작이 편찬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權墨』은 600년의 살아있는 서예사라고 할 수 있다. 하여 寶玉에 약간의 티가 있다하여 그 전체 값어치를 무시하지 않는 것과 같이 소수의 티가 있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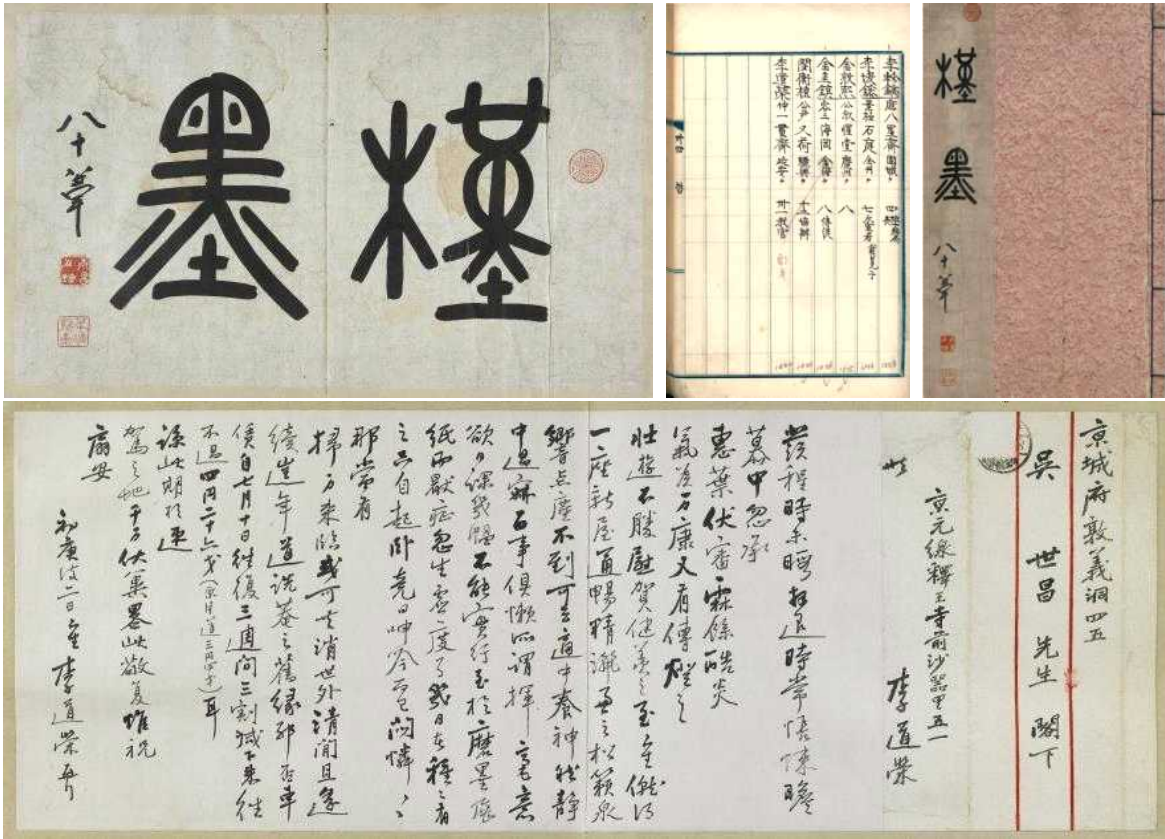
## 조사보고서

□

### ○ 현 상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근묵』은 오세창(吳世昌)<sup>196)</sup>이 우리나라 선인 정몽주(鄭夢周, 1337~1392)에서 이도영(李道榮, 1884~1933)까지 수록하였는데, 근 600여년에 걸친 1,136명의 필적 서첩이다. 선장본(線裝本) 목록 1책과 첩장본(帖裝本) 본문 34책을 합한 35책이다. 재질은 저지(楮紙)이고 크기는 세로 30.5cm 가로 45.0cm이며, 각 책의 표지는 비단으로 장황하였고 성첩(成帖) 연대는 1943년이다. 제1책의 첫 장은 전서로 ‘근묵(槿墨)’이라 쓴 표제에 ‘팔십위(八十輩)’이라 쓰고, 오른쪽 가운데에 둥근 와당형 인영 ‘진주암인(眞住庵印)’과 왼쪽 ‘八十輩’ 아래에 방형의 주문인 ‘세창지새(世昌之鈔)’, 백문인 ‘위창한묵(葦蒼翰墨)’의 인영이 있다. 서첩 34책은 필적의 크기에 따라 양면 또는 단면에 1점씩 수록하였고, 오른쪽 첨지(添紙)에는 이를 쓴 인명과 생몰연대 등을 적어 놓았다. 목록 1책에는 이를 쓴 성명(姓名)·자호(字號)·향관(鄉貫)·시대(時代)·직업(職業)·계통(係統) 등을 기록하였다.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이는 오세창이 1943년에 성첩하였고, 1962년 12월 유족으로부터 구매하여 성균관대학교도서관에서 보관하다가 1964년 6월 22일 박물관이 개관되자 이관되어 현재 성균관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196)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은 본관이 해주(海州)이고 자는 중명(仲銘, 一作 重明)이며, 호는 위창(葦滄) 이외에 백여개를 사용하였다. 서울 중부 이동(梨洞, 지금의 을지로 2가)에서 태어났고, 부친은 오경석(吳慶錫, 1831~1879)으로 8대가 역관을 지낸 중인 집안이다. 그는 근대 서화를 대표하는 예술가·학자·서화감식가·개화사상가·언론인·독립운동가이고, 생애는 관료 생활·개화운동·언론 생활·독립운동·예술활동이 주를 이룬다. 8세인 1871년 가숙(家塾)을 설치하고 부친과 함께 개화를 대표하던 유대치(劉大致, 1814~1884)를 스승으로 모셔 공부한 뒤, 16세인 1879년 역과(譯科)에 합격하여 사역원에 등제(登第)하였다. 이후 사역원 직장(直長, 종7품), 『한성주보』 기자, 도쿄외국어학교의 조선어 교사, 『만세보』 사장, 『대한민보』 사장을 지냈고, 1919년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다. 1921년 서대문형무소에서 가출옥 이후 『시대일보』 사장을 지냈고, 광복 후 우익에 가담하여 반탁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광복 1주년 기념식에서 민족대표로 대한제국 황제의 국새를 되돌려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고서화 명품 가운데 상당수는 그의 감정과 평가를 거쳐 수집하였고, 또 그의 감식안으로 발굴한 문화재들이 그의 집뿐만 아니라 간송미술관이나 조선미술관 등에 구매되며 민족문화의 유산을 지키게 되었다. 부친이 수집한 골동 서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서체를 확립하고, 우리나라 서화에 대해 집필하였다. 대표 저작은 우리나라 금석학을 정리한 『서지정(書之譜)』(1901), 서화가의 인명록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1928), 고려 말에서 대한제국까지 선인들의 필적을 모은 『근역서휘(槿域書彙)』37책(1911)과 『근묵(槿墨)』35책(1943), 역대 명인의 그림을 모은 『근역화회(槿域畫彙)』천(天)·지(地)·인(人) 3첩(帖), 서화가와 학자들이 사용하던 인장을 모은 『근역인수(槿域印數)』4합(函, 1937) 등이 있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 금석학·서예·회화·전각을 연구하는 근간이다.



<근목(權墨)의 목록과 본문>

○ 내용 및 특징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근목(權墨)』은 내용 분석, 문제점, 가치와 의의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을 위해 먼저 1,136점 필적을 도표로 작성해 연대순으로 작가·생물·신분·서체·크기·분류와 내용으로 나눠 살펴보겠다. 또 이를 통해 신분·서체·분류별 통계



와 책마다 수록한 필적 점수를 다음과 같이 살펴 확인하였다.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001	정몽주(鄭夢周)	1337-1392	문신	해행서	23.3×27	편지, 李集에게 보냄
0002	강희백(姜淮伯)	1357-1402	문신	초서	15.5×13.3	편지, 祭文의 초고를 보냄
0003	정도전(鄭道傳)	1342-1398	문신	초서	17.5×13.4	편지, 침상에서 괴로움을 호소
0004	길재(吉再)	1353-1419	학자	해행서	16.5×14.3	편지, 스승에게 안부
0005	맹사성(孟思誠)	1360-1438	문신	행초서	15.3×7	편지, 尊丈에게 보냄
0006	황희(黃喜)	1363-1452	문신	해행서	22×9.5	편지, 몸이 아파 직접 작별 못함
0007	최덕지(崔德之)	1384-1455	문신	해행서	18.3×19.5	시, 天官承命原韻
0008	최흥효(崔興孝)	생몰 미상	문신	초서	34.5×20	시, 杜牧의 念昔游
0009	황수신(黃守身)	1407-1467	문신	행초서	17.5×15	편지, 세 가지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0010	이석형(李石亨)	1415-1477	문신	행초서	30.5×36	시, 次程(칠언율시)
0011	김수온(金守溫)	1409-1481	문신	해서	23×15	鍾銘, 楡岾寺新鍾銘并序
0012	권람(權擘)	1416-1465	문신	행초서	14.5×17	편지, 李遠의 딸에 구혼
0013	신숙주(申叔舟)	1417-1475	문신	초서	15.5×17	편지, 조카의 병문안
0014	성삼문(成三問)	1418-1456	문신	행초서	21.5×21.3	편지, 白筆과 먹 선물에 사례
0015	이용(李瑬)	1418-1453	서예가	해행서	25×52	시, 金堉이 두보의 오언시를 集句
0016	이개(李塏)	1417-1456	문신	해행서	21.2×23	편지, 숙부의 筍子에 답답함
0017	유성원(柳誠源)	?-1456	문신	초서	16.5×13.5	편지, 어제 빈 것을 잊지 못함
0018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문신	해행서	15.4×35.5	시, 칠언고시
0019	권전(權專)	?-1441	문신	해행서	26.8×25.5	편지, 모든 일은 許翰林에게 묻길
0020	김종직(金宗直)	1431-1492	문신	해행서	24×15	편지, 吉 官長께 답장
0021	노사신(盧思愼)	1427-1498	문신	행초서	18.3×25	편지, 현운을 보니 직접 빈듯함
0022	김시습(金時習)	1435-1493	승려	해행서	21.8×23.5	시, 清寒走筆(칠언율시)
0023	홍귀달(洪貴達)	1438-1504	문신	해행서	20.5×11	시, 次興德韻(칠언율시)
0024	성현(成俔)	1439-1504	학자	해행서	25×25	편지, 제사에 참여 못해 망극함
0025	이의무(李宜茂)	1449-1507	문신	해행서	29.5×32.5	시, 送權應教奉使對馬島
0026	김굉필(金宏弼)	1454-1504	문신	해행서	23.5×26.5	시, 宏弼忙草(오언절구)
0027	조지서(趙之瑞)	1454-1504	문신	해행서	27×27.4	시, 칠언율시
0028	송질(宋軼)	1454-1520	문신	해행서	24.5×20.5	시, 칠언율시
0029	이계맹(李繼孟)	1458-1523	문신	해행서	24.5×15.5	시, 칠언절구
0030	강백진(康伯珍)	?-1504	문신	해행서	28×34	記, '無名齋' 記文
0031	성희안(成希顔)	1461-1513	문신	행초서	18.5×16.5	편지, '性理大全'을 부탁하는 글
0032	정광필(鄭光弼)	1462-1538	문신	해행서	15.9×8.5	편지, 시를 지어 인사드립니다
0033	신용개(申用漑)	1463-1519	문신	해행서	19×25.5	편지, 동백즙을 보냄
0034	김일손(金駟孫)	1464-1498	문신	해행서	21.5×20.8	시, 사언고시
0035	지엄(智嚴)	1464-1534	승려	해행서	23.5×43	편지, 說法을 논함
0036	이현보(李賢輔)	1467-1555	문신	해행서	26×29.5	편지, 이황에게 보낸 답장
0037	어득강(魚得江)	1470-1550	문신	해행서	25.5×37.5	시, 칠언고시
0038	남곤(南袞)	1471-1527	문신	해서	24×14	시, 楚辭·九歌·山塊의 일부
0039	박영(朴英)	1471-1540	무신	해행서	22.5×20.7	시, 칠언절구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040	이장곤(李長坤)	1474-1519	문신	해행서	21×28	시, 칠언율시
0041	박상(朴祥)	1474-1530	문신	해서	27×18.4	시, 又和愛日堂韻(칠언율시)
0042	권별(權撥)	1478-1548	문신	초서	22×21	시, 오언율시
0043	김안국(金安國)	1478-1543	문신	해행서	22.5×30.5	편지, 城主께 답장 올림
0044	박은(朴閔)	1479-1504	학자	해행서	23.5×24	편지, 아드님 대접이 소홀함
0045	이자(李耜)	1480-1533	문신	해행서	26.7×16.7	시, 칠언고시
0046	김안로(金安老)	1481-1537	문신	해행서	35.4×34.8	편지, 贈順之還鄉
0047	조광조(趙光祖)	1482-1519	문신	해행서	26×13	편지, 山寺로 가는 길에 답장함
0048	김식(金湜)	1482-1520	문신	해행서	18.6×16	편지, 글을 전하고 답을 받아오길
0049	공서린(孔瑞麟)	1483-1541	문신	해행서	27.7×34.7	賦, 寄呈拙吟以成一笑
0050	이연경(李延慶)	1484-1548	문신	행초서	24.7×28.3	시, 送金令公之任(칠언율시)
0051	정순명(鄭順明)	1484-1548	문신	행초서	28.3×22	편지, 金生員宅께 답장
0052	신광한(申光漢)	1484-1555	문신	초서	22.5×12.5	편지, 보낸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0053	박훈(朴薰)	1484-1540	문신	해행서	20.3×7.5	시, 松杖贈冲菴(오언절구)
0054	소세양(蘇世讓)	1486-1562	문신	초서	20×26.4	편지, 아들 行己를 지도 바람
0055	정옥형(丁玉亨)	1486-1549	문신	해행서	26.5×29	편지, 관찰사 부임을 축하
0056	이성동(李成童)	생몰 미상	문신	초서	20×44	편지, 과거시험 합격을 기원
0057	김구(金球)	1488-1534	문신	초서	26×27.7	편지, 매서운 추위에 문안드립니다
0058	정사룡(鄭士龍)	1491-1570	문신	해행서	26×32.5	시, 칠언율시
0059	기준(奇遵)	1492-1521	문신	초서	23×9.4	편지, 죽지 앓음은 임금의 은혜
0060	이언적(李彦迪)	1491-1553	문신	초서	31.5×7	편지, 바름을 기리는 정성
0061	조성(趙晟)	1492-1555	학자	초서	22.5×18	편지, 이별 후 섭섭함
0062	성수침(成守琛)	1493-1564	학자	해행서	28.5×13.8	시, 贈汪倫(칠언절구)
0063	상진(尙震)	1493-1564	문신	초서	27×41.5	편지, 道案에 대한 말씀
0064	장옥(張玉)	1493-1550	문신	초서	22×27.3	편지, 건강에 대한 안부
0065	심달원(沈達源)	1494-1535	문신	초서	20×32.8	편지, 도를 함께 하나 만나지 못함
0066	송지한(宋之翰)	1494-?	문신	해행서	22.3×39	시, 오언고시
0067	성수종(成守琮)	1495-1533	학자	해해서	33×23.5	편지, 교제가 끊어진 아쉬움
0068	주세붕(周世鵬)	1495-1554	학자	초서	26.2×25.7	편지, 李應教宅 문안
0069	김면(金沔)	1541-1593	의병장	해행서	33.5×16.2	편지, 攻守의 계획 의논
0070	백인걸(白仁傑)	1497-1579	학자	초서	21×17.8	편지, 賻儀에 대한 감사
0071	심봉원(沈逢源)	1497-1574	문신	해행서	24×27	시, 오언고시
0072	조욱(趙昱)	1498-1557	학자	초서	29×17.6	시, 오언율시
0073	이찬(李漵)	1498-1554	문신	해행서	24×22.3	편지, 부채를 보냄
0074	이항(李恒)	1499-1576	문신	초서	32×36	편지, 理氣論을 논함
0075	김홍윤(金弘胤)	1499-1569	문신	해행서	21.6×38.7	제발, 書送梅詩帖後
0076	이준경(李浚慶)	1499-1572	문신	해행서	21.7×17	편지, 小紙에 긴밀한 내용을 보냄
0077	이황(李滉)	1501-1570	문신	해행서	24.7×17.8	시, 칠언율시
0078	조식(曹植)	1501-1572	학자	행초서	24×24	편지, 汝友 侍史께 답장
0079	원혼(元混)	1505-1597	문신	초서	20.2×24	편지, 약을 지어 보냄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080	정렴(鄭濂)	1505-1549	儒醫	해행서	24×9.8	시, 오언절구
0081	원호변(元虎變)	1506-?	문신	초서	24×27.8	편지, 試場은 무사히 지나갔음
0082	박충원(朴忠元)	1507-1581	문신	행초서	23.4×24.3	편지, 도망간 婢 체포 부탁
0083	엄흔(嚴昕)	1508-1543	문신	해행서	38×24.2	시, 送金上舍還宣城(칠언율시)
0084	황기로(黃耆老)	1508-?	서예가	초서	35.1×47.2	시, 칠언절구
0085	윤복(尹復)	1512-1577	문신	해서	24×59×2	시, 送別洪應龍赴倅雲峯
0086	김인후(金麟厚)	1510-1560	학자	해행서	18×30×2	시, 칠언절구
0087	김부인(金富仁)	1512-1584	무신	해행서	26×36.4	편지, 이황의 서원 창건을 부탁
0088	유희춘(柳希春)	1513-1577	문신	해행서	26.2×31.5	편지, 貞夫人께 아뢰
0089	김우굉(金宇宏)	1524-1590	문신	행초서	26.7×20.5	시, 칠언절구
0090	박난영(朴蘭英)	1514-?	문신	해행서	29.5×9.5	詩序
0091	주이(周怡)	1515-1564	문신	해행서	24.2×49.7	시, 奉別洪應龍赴任雲峯
0092	양사준(楊士俊)	1515-?	문신	초서	24×58.2	시, 送別洪應龍(오언고시)
0093	신호(申護)	1515-?	학자	해서	24×57.7	시, 奉送洪先生之任十韻
0094	노수신(盧守愼)	1515-1590	문신	행초서	26.5×21.5	시, 奉贈成健叔令兄
0095	심수경(沈守慶)	1516-1599	문신	해행서	20.5×20.3	시, 遊佛聖寺用頤庵韻題贈
0096	이희검(李希儉)	1516-1579	문신	해행서	24×37.4	시, 奉贈雲峯洪使君先生
0097	송인(宋寅)	1517-1584	학자	해서	23.5×32.5	시, 오언고시
0098	양사언(楊士彦)	1517-1584	서예가	해행서	26×30.7	편지, 崔雲遇에게 보냄
0099	허엽(許曄)	1517-1580	문신	해행서	27×19.5	시, 칠언절구
0100	노진(盧禎)	1518-1578	문신	해행서	23×25	편지, 옥계에 돌아가 회포 풀길
0101	이량(李樑)	1519-1571	문신	행초서	24×57.8	시, 奉別洪應龍之任雲峯
0102	휴정(休靜)	1520-1604	승려	해행서	27.8×34.5	편지, ‘百丈廣錄’의 일부
0103	이숙량(李淑梁)	1519-1592	문신	초서	26×25.5	편지, 趙穆께 답장
0104	김부륜(金富倫)	1531-1598	학자	행초서	30.5×27	편지, 易東 모임에 불참 통보
0105	조목(趙穆)	1524-1606	문신	초서	19.2×40	편지, 易東 모임에 권유
0106	신효중(申孝仲)	1536-?	서예가	해행서	28.2×22.8	시, 別舍弟宗一(칠언율시)
0107	김제갑(金悌甲)	1525-1592	문신	해행서	33.5×11.5	편지, 전란의 어려움 호소
0108	이희득(李希得)	1525-1604	문신	해행서	22.8×37	시, 奉別李判書以奏請使赴京
0109	이양원(李陽元)	1526-1592	문신	행초서	20.3×17.1	편지, 보낸 선물에 감사함
0110	정탁(鄭琢)	1526-1605	문신	행초서	21.5×21	편지, 집안의 우호 결합
0111	구봉령(具鳳齡)	1526-1586	문신	해서	26.5×41.2	편지, 趙穆께 보냄
0112	금응협(琴應夾)	1526-1596	문신	해행서	23.5×19.3	편지, 金富倫께 보냄
0113	기대승(奇大升)	1527-1572	문신	해행서	22.6×17.7	시, 칠언절구와 오언절구
0114	신점(申點)	1527-1601	문신	해행서	26×23	편지, 약재 20첩을 보냄
0115	남몽오(南夢鰲)	1528-1591	학자	해행서	6×12.5	편지, 名楮를 부탁함
0116	김수일(金守一)	1528-1583	학자	행초서	15.5×47.5	편지, 錄名單子를 부탁함
0117	최황(崔滉)	1529-1603	문신	해행서	31×45.7	편지, 陵의 뼈를 확인
0118	금난수(琴蘭秀)	1530-1604	의병장	해행서	27×36.5	편지, 형께 혼사 조치를 부탁
0119	구사맹(具思孟)	1531-1604	문신	해행서	26×43.3	시, 칠언율시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120	이광준(李光俊)	1531-1609	문신	초서	25.7×18	시, 오언율시
0121	김부신(金富信)	1523-?	문신	해행서	21.5×17.3	편지, 逆奴 문제 해결을 부탁
0122	권호문(權好文)	1532-1587	학자	해행서	28×43	시, 贈言權徵君定甫西行
0123	황정옥(黃廷彧)	1532-1607	문신	해서	26.7×33.5	편지, 北兵使行軒께 보냄
0124	최경회(崔慶會)	1532-1593	의병장	해행서	40×26	편지, 관찰사께 정황 보고
0125	고경명(高敬命)	1533-1592	문신	초서	28.8×39	편지, 승진을 축하함
0126	윤두수(尹斗壽)	1533-1601	문신	해행서	26×22.8	편지, 대감의 사직을 만류
0127	이해수(李海壽)	1536-1599	문신	해행서	21.7×26.4	편지, 자연스러움을 강조
0128	정작(鄭瓘)	1533-1603	문신	해서	27.7×10.2	시, 年且樂命(칠언고시)
0129	정유일(鄭惟一)	1533-1576	문신	해행서	27.5×18	편지, 달력을 구해 보냄
0130	배삼익(裵三益)	1534-1588	문신	초서	30.7×35.5	시, 칠언율시
0131	김명원(金命元)	1534-1602	문신	해행서	36×35	편지, 혼례복 한 벌을 보냄
0132	송익필(宋翼弼)	1534-1599	학자	해행서	23.3×6.3	편지, 離騷 1장을 논함
0133	조정기(趙廷機)	1535-1575	문신	해행서	30×23.2	편지, 生鰯을 부탁함
0134	성혼(成渾)	1535-1598	문신	해행서	30×35.3	편지, 보낸 시·仙藥에 감사
0135	심의겸(沈義謙)	1535-1587	문신	초서	31×31.7	시, 次古韻(칠언절구)
0136	김륵(金玊)	1540-1616	문신	초서	21.5×39	편지, 새해 인사
0137	우성전(禹性傳)	1542-1593	의병장	해행서	34.5×19.8	편지, 보낸 위문편지에 답함
0138	이이(李珥)	1536-1584	학자	해행서	25.3×25	시, 칠언절구
0139	정철(鄭澈)	1536-1593	문신	행초서	37.3×29	시, 칠언율시
0140	송응개(宋應漑)	1536-1588	문신	초서	18.5×30	편지, 公移의 중요성 강조
0141	최영경(崔永慶)	1529-1590	학자	행초서	16×27	편지, 朴臺諫의 可否를 고심
0142	정개청(鄭介淸)	1529-1590	학자	해서	22.7×7.2	시, 古體詩
0143	송한필(宋翰弼)	1536-?	학자	초서	25.5×16.2	편지, 崔橫城宅에 보냄
0144	이제신(李濟臣)	1536-1583	문신	초서	29×14.6	편지, 시집간 딸에게 보냄
0145	이일(李鎰)	1538-1601	문신	행초서	22.7×31.7	편지, 삿갓 工人을 보냄
0146	권율(權慄)	1537-1599	문신	해행서	25.5×21.3	편지, 술 취한 실수를 사과함
0147	조종도(趙宗道)	1537-1597	문신	해행서	36.5×22.7	편지, 會試 답안지를 요청
0148	김천일(金千鎰)	1537-1593	문신	해행서	27.5×31	편지, 南致利께 답장 올림
0149	이충원(李忠元)	1537-1605	문신	행초서	28.5×24.7	시, 奉別安直講還朝
0150	김연광(金鍊光)	1524-1592	문신	해행서	29.5×21	편지, 有字와 無字의 해석
0151	백광훈(白光勳)	1537-1582	시인	해행서	31×16.5	시, 劉長卿의 送鄭司直歸上都
0152	홍인건(洪仁健)	1537-?	문신	해행서	30.5×18	시, 慕琴聲靜(칠언절구)
0153	이수봉(李壽鵬)	1537-?	종실	해행서	21×37	편지, 金奉事께 보낸 초대장
0154	윤근수(尹根壽)	1537-1616	문신	해서	28×28.8	시, 칠언율시
0155	김성일(金誠一)	1538-1593	문신	초서	30.5×48.5	편지, 金富倫에게 보낸 답장
0156	최철건(崔鐵堅)	1548-1618	문신	해행서	26×57	시, 칠언고시
0157	이산해(李山海)	1539-1609	문신	초서	18×20.3	편지, 안부를 여쭙
0158	이달(李達)	1539-1612	시인	초서	26.5×26.5	시, 奉送李侍郎燕京之行
0159	최경창(崔慶昌)	1539-1583	시인	초서	24.5×37	편지, 宋翼弼에게 보냄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160	최립(崔昱)	1539-1612	문신	초서	25.5×36.3	편지, 推刷를 요청함
0161	김극일(金克一)	1522-1585	문신	초서	32×39	편지, 金富倫에게 문안함
0162	김취려(金就礪)	1539-?	문신	행초서	22.5×31.5	편지, 李德弘에게 문안함
0163	유운룡(柳雲龍)	1539-1601	문신	해서	27×32	편지, 小祥을 위로함
0164	권춘란(權春蘭)	1539-1617	문신	해서	24.7×26	편지, 忠과 孝 선택을 청함
0165	김홍민(金弘敏)	1540-1594	문신	해서	31.5×20.5	편지, 합천 수령에게 답함
0166	금응훈(琴應薰)	1540-1616	문신	해행서	30.2×32	편지, 金富倫에게 문안함
0167	홍가신(洪可臣)	1541-1615	문신	해서	30.3×44.8	편지, 달력을 보내 답장함
0168	홍진(洪進)	1541-1616	문신	초서	27.5×51.5	시, 奉別李相公赴燕京
0169	김복일(金復一)	1541-1591	문신	해행서	36.5×27.5	편지, 당상관 예복을 부탁함
0170	이덕홍(李德弘)	1541-1596	학자	행초서	28.4×35.5	편지, 추후에 답장을 보냄
0171	이정(李霆)	1541-1622	화가	초서	26.3×21.8	편지, 후일을 기약하는 답장
0172	이우(李瑀)	1542-1609	서화가	초서	33.5×23	시, 黃庭堅의 題歸去來圖
0173	황진(黃璣)	1542-1606	문신	해행서	28×37.5	시, 칠언율시
0174	김현성(金玄成)	1542-1621	서화가	해행서	33×38	시, 送月沙相公以奏請使赴皇朝
0175	유성룡(柳成龍)	1542-1607	문신	초서	22.2×33	편지, 襄三益께 보낸 답장
0176	송언신(宋言愼)	1542-1612	문신	행초서	26.5×36	편지, 奴의 면제를 부탁함
0177	한준(韓準)	1542-1601	문신	해행서	26×18	시, 次韻(오언고시)
0178	한호(韓濩)	1543-1605	서예가	해행서	25×15	편지, 門懸洞에 피난을 권유
0179	정구(鄭述)	1543-1620	문신	해서	30.6×31	편지, 병 증세를 논함
0180	강신(姜紳)	1543-1615	문신	해행서	29×37	시, 贈言(칠언율시)
0181	조헌(趙憲)	1544-1592	문신	해서	21.5×18	편지, 靜養 중 건강을 부탁
0182	이발(李潑)	1544-1589	의병장	초서	39×24.5	편지, 閒丁 처벌 선처를 청함
0183	유정(惟政)	1544-1610	승려	해행서	23×32	시, 오언율시
0184	정윤목(鄭允穆)	1571-1629	학자	초서	25.5×48	賦, 贈金而實老兄
0185	유희경(劉希慶)	1545-1636	시인	해행서	26.6×37	시, 送朴應教之任咸平
0186	김응남(金應南)	1546-1598	문신	행초서	26×33.5	편지, 契貼 제작 비용을 부탁
0187	심대(沈岱)	1546-1592	문신	해행서	28×20.7	편지, 王子 행차를 슬퍼함
0188	이원익(李元翼)	1547-1634	문신	행초서	24.5×20	편지, 愛君憂國을 토로함
0189	김수(金睟)	1537-1615	문신	해서	26×37	시, 奉送奏請使李判書
0190	김기(金圻)	1547-1603	학자	행초서	22×31	시, 詠卽景(칠언절구)
0191	김택룡(金澤龍)	1547-1627	문신	행초서	28×34	편지, 訟山事에 대한 하소연
0192	우복룡(禹伏龍)	1547-1613	문신	초서	24.2×24	편지, 위로에 대한 감사 답장
0193	김여물(金汝唘)	1548-1592	문신	해행서	32×21.4	편지, 형제가 절하고 문안드림
0194	심희수(沈喜壽)	1548-1622	문신	초서	27×28.5	시, 칠언율시
0195	김장생(金長生)	1548-1631	학자	초서	29.8×43	편지, 鄭弘溟께 문안드림
0196	허성(許箴)	1548-1612	문신	예서	32×52	시, 別章(오언율시)
0197	이인기(李麟奇)	1549-1631	문신	해서	31.2×34.5	시, 次入燕大風韻(칠언율시)
0198	홍이상(洪履祥)	1549-1615	문신	초서	24.2×33.5	편지, 예조판서께 건의
0199	유근(柳根)	1549-1627	문신	해행서	27×27	시, 칠언절구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200	한회(韓懷)	1549-1587	문신	해행서	23.5×29.5	시, 奉驢趙壯元賀至之行
0201	임제(林悌)	1550-1621	시인	해행서	28×14	詞, 菩薩蠻
0202	한언침(韓彦忱)	1551-?	문신	행초서	23.4×44	시, 奉別李尙書令行赴京
0203	송상현(宋象賢)	1551-1592	문신	해행서	27.7×27	편지, 용승환 대접에 감사
0204	허봉(許篈)	1551-1588	시인	행초서	26.5×22	편지, 옛 동료 金富倫께 보냄
0205	신식(申湜)	1551-1623	문신	초서	24×16.5	편지, 罷榜 문제 처리를 의논
0206	정광적(鄭光績)	1551-?	문신	해행서	32×14	시, 오언율시
0207	이광정(李光挺)	1552-1627	문신	해행서	29.5×45	시, 오언율시
0208	곽재우(郭再祐)	1552-1617	의병장	초서	30.3×21.5	시, 咏懷(오언절구)
0209	조탁(曹倬)	1552-1621	문신	초서	18.5×20.3	편지, 荒租 7석을 보냄
0210	김덕겸(金德謙)	1552-1633	문신	해행서	27×28.5	시, 奉驢陳奏副使行
0211	권우(權宇)	1552-1590	문신	해행서	22.5×38	시, 齋中偶吟錄奉養伯調右
0212	박홍구(朴弘耆)	1552-1624	문신	행초서	33.5×47.8	시, 奉別月沙令兄赴京
0213	정홍명(鄭弘溟)	1582-1650	학자	행초서	26.6×40	시, 칠언율시
0214	이호민(李好閔)	1553-1634	문신	해행서	22×17	편지, 白紙 1束을 보냄
0215	오덕령(吳德齡)	1553-?	문신	해행서	26×19.3	시, 贈舍弟德耆(칠언절구)
0216	이덕윤(李德胤)	1553-1630	학자	해행서	28×24	편지, 蔡宗吉 장인 喪을 조문
0217	고종후(高從厚)	1554-1593	의병장	해서	22.5×27.5	시, 奉呈陳謝使行軒(칠언율시)
0218	장현광(張顯光)	1554-1637	학자	해서	29.5×39	편지, 金長生께 감사드립니다
0219	김해(金垓)	1555-1593	의병장	초서	23.5×36.2	시, 謹次月川近體韻(칠언율시)
0220	강인(姜綱)	1555-1634	문신	초서	25×29.5	편지, 변방에서의 건강을 바랍
0221	이항복(李恒福)	1556-1618	문신	해행서	25×49.5	시, 칠언율시 2수
0222	차천로(車天輅)	1556-1615	문신	해행서	26×30.2	시, 敬次(칠언율시)
0223	조익(趙翊)	1556-1613	문신	해행서	25×38	시, 和五山韻奉寄朴丈座右
0224	이정면(李廷冕)	1556-?	문신	해행서	29×51.5	시, 칠언율시
0225	허적(許積)	1563-1641	문신	해서	27.5×39	시, 黃謹中에게 쓴 칠언율시
0226	이숙(李瀟)	1556-?	문신	해행서	32×32.5	편지, 보낸 부체에 감사드립니다
0227	이경운(李卿雲)	1556-1619	문신	해행서	28.5×34	시, 權光潤에 보낸 오언율시
0228	송영구(宋英耆)	1556-1620	문신	초서	19.5×30	편지, 혼례 비용을 도와줌
0229	이상길(李尙吉)	1556-1637	문신	해행서	24×35.3	시, 칠언율시
0230	한준겸(韓浚謙)	1557-1627	문신	행초서	25×32.5	시, 奉送陳奏副使月沙李參判之行
0231	이귀(李貴)	1557-1633	문신	해행서	23×26.5	편지, 보낸 紙束에 감사드립니다
0232	홍경신(洪慶臣)	1557-1621	문신	해행서	23.5×24.5	편지, 奴子를 보내 혼례를 도움
0233	서성(徐渚)	1558-1631	문신	행초서	24.5×51.3	시, 奉驢李養源令兄之行
0234	유몽인(柳夢寅)	1559-1623	문신	해서	26×44	편지, 李廷龜에게 節義를 말함
0235	구성(具晟)	1558-1618	문신	해행서	24.8×54	시, 오언고시
0236	김의원(金義元)	1558-?	문신	해행서	27×45	시, 送別陳奏副使赴京
0237	윤광계(尹光啓)	1559-?	문신	해서	26×54.4	시, 奉驢李相公朝京(칠언고시)
0238	오윤겸(吳允謙)	1559-1636	문신	초서	25×19.5	편지, 보낸 甁 4마리에 감사드립니다
0239	성문준(成文濬)	1559-1626	문신	해행서	31×8.5	시, 칠언절구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240	차운로(車雲路)	1559-1637	문신	해행서	26×24	편지, 보낸 冊曆에 감사드립니다
0241	권극중(權克中)	1560-1614	문신	초서	21.5×22.5	시, 奉別月沙令公(칠언율시)
0242	이준(李峻)	1560-1635	문신	해행서	35×42.8	시, 칠언율시
0243	김종남(金終男)	1560-1618	문신	해행서	31×55.8	시, 贈月沙赴京奏事(칠언고시)
0244	이상익(李尙毅)	1560-1624	문신	초서	25.5×23.5	편지, 보낸 해산물에 감사드립니다
0245	오백령(吳百齡)	1560-1633	문신	해행서	24×19	편지, 陸參議宅께 보냄
0246	정효성(鄭孝成)	1560-1637	문신	해행서	21×34	편지, 많은 流民을 가슴 아파함
0247	이덕형(李德馨)	1561-1613	문신	해행서	34×49.5	편지, 왕자와 재상의 계책을 바랍
0248	김상용(金尙容)	1561-1637	문신	행초서	33×51.2	시, 奉送月沙台兄朝京
0249	이각(李覺)	1541-?	문신	해행서	24×19	시, 奉別月沙老翁赴京
0250	김순명(金順命)	1561-1614	문신	해행서	29.5×23.5	시, 李參判陳奏之行
0251	황신(黃愼)	1560-1617	문신	해행서	18×23.5	편지, 官軍의 승리를 기뻐함
0252	김덕함(金德誠)	1562-1636	문신	행초서	20.5×24.8	편지, 李庶尹께 보냄
0253	기자헌(奇自獻)	1562-1624	문신	해행서	35.2×45.5	시, 오언율시
0254	이홍주(李弘胄)	1562-1638	문신	행초서	22.5×37	편지, 노비 乙南(於乙南)을 부탁함
0255	조존세(趙存世)	1562-?	문신	해행서	34×40.5	시, 奉別奏請上使台鑑赴京
0256	윤방(尹昉)	1563-1640	문신	해행서	28.5×48.5	시, 칠언율시와 발문
0257	정엽(鄭曄)	1563-1625	문신	해행서	31.8×44.5	시, 送奏請使月沙相公之行
0258	배대유(裴大維)	1563-1632	문신	행초서	26×56.5	시, 奉別月沙相公朝京
0259	정경세(鄭經世)	1563-1633	문신	행초서	33×41.5	편지, 守令 사직에 감탄함
0260	이수광(李睟光)	1563-1628	학자	해서	30×47	시, 奉送朴學士赴任咸平
0261	이의건(李義健)	1533-1621	학자	해행서	25.5×33	편지, 잣을 구해 보내주길 바랍
0262	김지남(金止男)	1559-1631	문신	해행서	30.5×48.5	시, 奉別朴學士左遷赴咸平
0263	전식(全湜)	1563-?	문신	초서	27×13.5	시, 次沙溪亭韻(칠언절구)
0264	권겸(權幹)	1563-?	문신	해행서	28×22	편지, 海淡 스님을 친거함
0265	성여학(成汝學)	1557-?	시인	해행서	31.4×54	시, 칠언고시의 일부
0266	이정구(李廷龜)	1564-1635	문신	해행서	31×57.2	시, 오언고시,
0267	박동열(朴東說)	1564-1622	문신	초서	22.7×42	편지, 네 자루 부채를 보내드립니다
0268	이유록(李綏祿)	1564-1620	문신	해행서	26.5×55.5	시, 趙書狀栞仲至日朝京之行
0269	민형남(閔馨南)	1564-1659	문신	해행서	35×46	시, 贈別奏請上使月沙台兄之行
0270	황익중(黃益中)	1564-?	문신	해행서	31.5×48	시, 奉別月沙台鑑之燕京
0271	유숙(柳瀟)	1564-1636	문신	해행서	27.3×34.8	시, 奉送月沙相公赴京奏請
0272	백진남(白振南)	1564-1618	서예가	초서	23×26.5	편지, 백련사 눈 구경을 기약함
0273	권반(權盼)	1564-1631	문신	행초서	23.5×15	편지, 仇錄에 대한 말씀을 인정함
0274	남이공(南以恭)	1565-1640	문신	행초서	25.8×37	시, 칠언율시
0275	김수현(金壽賢)	1565-1653	문신	해행서	21×23.7	편지, 인삼을 부쳐주길 바랍
0276	신흠(申欽)	1566-1628	문신	초서	19.8×21.5	편지, 오랑캐의 差人을 불만함
0277	이덕형(李德炯)	1566-1645	문신	해행서	20.5×28.5	편지, 보낸 蘇魚에 감사드립니다
0278	장만(張晩)	1566-1629	문신	초서	25×16	편지, 戰馬 110필을 기르길 바랍
0279	한민정(韓敏政)	1567-1637	서예가	해서	25×20.5	시, 鄭駙馬池臺喜遇鄭廣文同飲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280	이경전(李慶全)	1567-1644	문신	해행서	32×30	시, 醉次主人韻(칠언절구)
0281	강주(姜籀)	1567-1651	문신	해행서	22.5×30	편지, 姜正言께 조문함
0282	유역(柳湊)	1567-1624	문신	해행서	28.5×29.5	시, 칠언율시
0283	이홀(李屹)	1568-1630	문신	해행서	23×49	시, 金燮께 보낸 칠언고시
0284	윤안국(尹安國)	1569-1629	문신	초서	28×24	시, 칠언율시
0285	심열(沈悅)	1569-1646	문신	초서	23×23.5	편지, 보낸 음식에 감사드림
0286	허균(許筠)	1569-1618	문신	해행서	22.2×30	편지, 시를 짓지 않음을 맹세
0287	정온(鄭蘊)	1569-1641	문신	행초서	24.7×40.2	편지, 쌍계사 유람을 미룸
0288	박동량(朴東亮)	1569-1635	문신	해행서	29×52.2	시, 칠언율시
0289	목서흠(睦叙欽)	1572-1652	문신	해행서	23×42	시, 贈別月沙令公以奏請朝京
0290	심집(沈詰)	1569-1644	문신	초서	24×41	편지, 문안과 칠언절구를 보냄
0291	황경중(黃敬中)	1569-1630	문신	초서	26.5×45.2	시, 伏次(칠언절구·오언절구)
0292	권필(權鞞)	1569-1612	시인	행초서	18.7×15.3	편지, 약재 大黃을 부탁함
0293	양형우(梁亨遇)	1570-1623	시인	해행서	32×15	시, 칠언절구
0294	이민성(李民成)	1570-1629	문신	해서	26×45.2	시, 復用前韻以換瓊報
0295	임서(林愔)	1570-1624	문신	해행서	26.5×35.5	시, 奉送奏請上使李相國之行
0296	김상헌(金尙憲)	1570-1652	문신	해행서	26×21.3	편지, 나라의 경사로 위로함
0297	김류(金瑬)	1571-1648	문신	해행서	22×21.5	편지, 보낸 음식에 감사드림
0298	윤황(尹煌)	1571-1639	문신	초서	17.5×47	편지, 새해의 淸福을 바람
0299	이춘원(李春元)	1571-1634	문신	해서	31×53.7	시, 奉送月沙先生奏請行二十韻
0300	양인용(梁仁容)	1571-?	문신	해행서	26×50.5	시, 奉別月沙道人奏請天朝
0301	정홍익(鄭弘翼)	1571-1626	문신	해행서	29.5×20	시, 敬送月沙相公赴燕京
0302	윤휘(尹暉)	1571-1644	문신	행초서	23.5×19	편지, 보낸 건어물에 감사드림
0303	심액(沈恪)	1571-1655	문신	해행서	32.8×40.5	시, 칠언율시
0304	이안눌(李安訥)	1571-1637	문신	초서	26.5×21.5	시, 夜宿西郊餞席口號更別
0305	이목(李槩)	1572-1646	문신	해행서	27×29	시, 送朴學士宰咸平
0306	홍서봉(洪瑞鳳)	1572-1645	문신	해행서	22×40	편지, 家婢 조사를 요청함
0307	조찬한(趙縝韓)	1572-1631	문신	초서	26×29	시, 칠언율시 3수
0308	목장흠(睦長欽)	1572-1641	문신	행초서	28×12.2	시, 칠언절구
0309	김신국(金薰國)	1572-1657	문신	행초서	23.5×14.5	편지, 제사에 熟手를 압송 바람
0310	조정호(趙廷虎)	1572-1647	문신	초서	20.5×23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0311	정호서(丁好恕)	1572-1647	문신	초서	20.5×30	편지, 낙상으로 오른쪽 마비
0312	이시직(李時稷)	1572-1637	문신	초서	26.5×25	편지, 봄에 菴山에서 만남을 기약
0313	홍명원(洪命元)	1573-1623	문신	해행서	26.5×18.5	시, 次贈(칠언율시)
0314	윤훤(尹暄)	1573-1627	문신	해행서	27.5×57.5	시, 奉送朴學士大觀赴咸平
0315	이형욱(李馨郁)	1551-1630	문신	초서	24.5×32	편지, 資憲大夫에 오름을 감사함
0316	이현영(李顯英)	1573-1642	문신	해행서	33×48.5	시, 送大觀赴咸平(칠언율시)
0317	안방준(安邦俊)	1573-1654	학자	초서	25×32.2	편지, 曹生員宅에 보냄
0318	김덕보(金德普)	1571-1627	의병장	초서	21×34	편지, 安邦俊께 보냄
0319	김집(金集)	1574-1656	학자	해행서	23.5×20	편지, 城主 座下史께 보냄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320	남이웅(南以雄)	1575-1648	문신	행초서	20.7×27.5	편지, 徒刑 받음을 위로함
0321	권도(權壽)	1575-1644	학자	해행서	31.5×47	시, 送朴學士大觀赴貶
0322	유희량(柳希亮)	1575-1628	문신	해서	27.5×42.5	시, 칠언율시
0323	이선복(李善復)	1575-1621	문신	해행서	31×42.5	시, 奉送李老爺朝天(오언율시)
0324	조희일(趙希逸)	1575-1638	문신	초서	22×22.5	편지, 奉世長 弟嫂 석방을 부탁
0325	이지완(李志完)	1575-1617	문신	해행서	20×27	편지, 乘率을 마련 후 방문
0326	엄성(嚴惺)	1575-1628	문신	해행서	28×41	시, 奉送權光潤陪樞府大監朝京
0327	양극선(梁克選)	1575-?	문신	행초서	33×48	시, 奉別月灘相公行軒
0328	기윤헌(奇允獻)	1575-1624	문신	해서	26.5×29.5	시, 奉送正使月沙台鑑赴京
0329	신경진(申景禎)	1575-1643	무신	초서	19.8×20	편지, 大斗만한 空石을 부탁
0330	정충신(鄭忠信)	1576-1636	무신	해행서	26.5×20	편지, 네 가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0331	남이흥(南以興)	1576-1627	무신	해행서	27×45.2	시, 贈別裴仲兄朝天(칠언율시)
0332	유성증(兪省曾)	1576-1649	문신	해행서	26.5×53	시, 送咸平兄歸所治(칠언율시)
0333	최연(崔苻)	1576-1651	문신	행초서	33×51.5	시, 贈別朴大觀把麾箕山
0334	임숙영(任叔英)	1576-1623	문신	해행서	20×26	편지, 清心元·蘇合元을 부탁함
0335	정광성(鄭廣成)	1576-1654	문신	해서	26×19	편지, 李秀才께 보냄
0336	신민일(申敏一)	1576-1650	문신	해행서	22.5×17.2	편지, 副提學 行史께 보냄
0337	고용후(高用厚)	1577-1652	문신	초서	27×26	편지, 新曆 2부를 보내드립니다
0338	이경직(李景稷)	1577-1640	문신	행초서	27.8×38.8	시, 칠언절구
0339	김대덕(金大德)	1577-1639	문신	초서	27.5×56	시, 오언율시
0340	신계영(辛啓榮)	1577-1669	문신	해행서	27×39.5	시, 送朴大觀赴咸平(칠언율시)
0341	조박(趙璞)	1577-?	문신	해행서	31.6×27.7	시, 咸平縣監께 드린 칠언율시
0342	홍무적(洪茂績)	1577-1656	문신	해행서	21.7×27	편지, 이조참판 記室에 보냄
0343	고부천(高傅川)	1578-1636	문신	초서	33×44	시, 伏次使相韻(오언절구)
0344	고부립(高傅立)	1577-1637	의병장	해행서	28×18.5	편지, 보낸 祭需에 감사드립니다
0345	김령(金玲)	1577-1641	문신	초서	31×23.5	편지, 죄인 진술을 받아 올림
0346	김영조(金榮祖)	1577-1648	문신	행초서	26×21.7	편지, 金玲의 죽음을 슬퍼함
0347	김시국(金薯國)	1577-1655	문신	해서	29.5×21.5	시, 李明漢 송별의 오언율시
0348	윤계선(尹繼善)	1577-1604	문신	해행서	30×51	시, 趙裴仲 송별의 오언고시
0349	박로(朴簾)	1584-1643	문신	해행서	26.5×27	시, 贈送權光閔之任寧越
0350	이중길(李重吉)	1578-1637	문신	해행서	25.7×23.3	시, 칠언율시
0351	민응형(閔應亨)	1578-1662	문신	해행서	32×41	시, 奉別朴大觀戚兄赴咸平
0352	한필원(韓必遠)	1578-1660	문신	해서	27×32	시, 送別朴大觀赴咸平
0353	조익(趙翼)	1579-1655	문신	해행서	23×32.5	편지, 간절한 그리움을 전함
0354	정기광(鄭基廣)	1579-?	문신	해행서	33×35.5	시, 칠언율시
0355	윤이지(尹履之)	1579-1668	문신	해행서	30×39.5	시, 題黃監司赤壁宅(칠언절구)
0356	서경주(徐景霽)	1579-1643	문신	해행서	18.5×19	편지, 보낸 郭索에 감사드립니다
0357	김확(金矍)	1572-1653	문신	해행서	24.5×28	시, 奉次狀元令監瓊韻呈案下
0358	임광(任統)	1579-1644	문신	해행서	32.3×54	시, 奉贈朴學士赴咸平
0359	이성신(李省身)	1580-1651	문신	초서	28.8×58	시, 送朴學士之咸平(칠언율시)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360	김광욱(金光煜)	1580-1656	문신	해행서	23×34	시, 칠언율시
0361	김육(金瑬)	1580-1658	문신	해서	28.5×49.5	시, 奉別朴學士之任咸平
0362	김응하(金應河)	1580-1619	무신	해행서	32×49.5	편지, 멀리서 그리움을 전함
0363	김시양(金時讓)	1581-1643	문신	해행서	28.5×37	시, 朴大觀 송별의 칠언율시
0364	유림(柳琳)	1581-1643	무신	초서	28.5×25	편지, 새해에 경사를 바람
0365	홍명형(洪命亨)	1581-1636	문신	해행서	26×23.5	시, 칠언율시
0366	이정남(李井男)	1581-?	문신	행초서	21×20.5	편지, 새해의 행복을 바람
0367	윤신지(尹新之)	1582-1657	문신	행초서	24.5×20.5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0368	유진(柳珍)	1582-1635	문신	해행서	23.5×32	편지, 자식 죽음을 위로함
0369	박홍중(朴弘中)	1582-1646	문신	해서	27.5×34	시, 送李榮伯赴北闕幕下
0370	김개(金闔)	1582-1618	문신	해행서	25.5×33.5	시, 칠언고시
0371	유충립(柳忠立)	1572-1620	문신	해행서	30×56.7	시, 奉呈月沙相公行軒
0372	정세규(鄭世規)	1583-1661	문신	초서	23×31.5	편지, 賜恩副使 선물을 말함
0373	윤계(尹槩)	1583-1636	문신	행초서	20×22.5	편지, 잠시 왕림을 부탁함
0374	홍영(洪震)	1584-1645	문신	해행서	19.5×22	편지, 벼슬자리를 주선할 계획
0375	김광현(金光炫)	1584-1647	문신	예서	26.8×25.6	시, 贈別朴使君大觀之咸平
0376	한여직(韓汝潑)	1575-1638	문신	초서	24×23	편지, 임금의 밝은 판단을 바람
0377	이식(李植)	1584-1647	문신	해행서	29×42	시, 送朴學士大觀左任咸平
0378	이성구(李聖求)	1584-1644	문신	해행서	25.3×39.5	시, 黃同知께 보낸 칠언율시
0379	이계선(李繼先)	1584-1645	문신	해행서	29×39	시, 奉別李評事赴北幕
0380	이경여(李敬興)	1585-1657	문신	해행서	31×40.5	시, 奉呈書狀官大人之行
0381	정세구(鄭世矩)	1585-1639	문신	초서	23×30.5	편지, 서울 房子에게 분통함
0382	김지수(金地粹)	1585-1639	문신	해행서	23.5×20.5	시, 新安館與白洲宿別用來韻
0383	조경(趙綱)	1586-1669	문신	행초서	21×13.7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0384	심대부(沈大孚)	1586-1657	문신	초서	21.5×37.5	편지, 기와 장인을 요청함
0385	최명길(崔鳴吉)	1586-1647	문신	초서	21.5×28.5	편지, 編氓으로 살 생각을 함
0386	신유(申濡)	1610-1665	문신	해행서	25×29.5	편지, 상진 아들 불치병을 위로
0387	김상(金尙)	1586-?	문신	해행서	22×30.3	시, 奉次高韻叙別湖中之行
0388	정광경(鄭廣敬)	1586-1644	문신	행초서	24.5×26.2	편지, 아이를 영감 內行에 맡김
0389	홍호(洪鎬)	1586-1646	문신	행초서	21.5×21.5	편지, 遷厝에 대한 걱정
0390	오준(吳竣)	1587-1666	문신	행초서	28×24	편지, 李壽昌의 軍官을 부탁함
0391	한홍일(韓興一)	1587-1651	문신	해행서	24.5×16	편지, 役徒에 대한 걱정
0392	장유(張維)	1587-1638	문신	행초서	21.2×20	편지, 부탁을 거절하는 내용
0393	유백증(兪伯曾)	1587-1646	문신	행초서	30×15	시, 次南九萬三首
0394	김응조(金應祖)	1587-1667	문신	해행서	21×22	편지, 伊山書院 모임의 계획
0395	최유연(崔有淵)	1587-?	문신	초서	31.5×27.5	편지, 恩榮慶席 준비를 부탁함
0396	윤선도(尹善道)	1587-1671	시인	행초서	22.8×33.8	편지, 새해 인사를 올림
0397	조운(趙贊)	1587-?	문신	행초서	17.5×15.5	편지, 아들 趙嗣迪에게 답함
0398	최유해(崔有海)	1588-1641	문신	해서	21.5×17.8	시, 칠언율시의 일부
0399	황일호(黃一皓)	1588-1641	문신	초서	21.5×37.7	편지, 石奴를 비로소 보냄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400	허후(許厚)	1588-1661	문신	해행서	25×29.5	편지, 進賀兼謝恩使를 통탄함
0401	신익성(申翊聖)	1588-1644	문신	초서	23×17	편지, 先人 문집(象村集) 간행
0402	이지정(李志定)	1588-1650	문신	해행서	17.5×25.5	편지, 鄭教官宅에 보냄
0403	이광(李珪)	1589-1645	왕자	해행서	22.7×16.5	편지, 蠅拂을 받고 감사드림
0404	성여관(成汝寬)	1589-1636	문신	해서	23×22	시, 奉別朴學士赴咸平
0405	이민구(李敏求)	1589-1670	문신	해행서	22×36	편지, 선친 묘비석 세움을 부탁
0406	조위한(趙緯韓)	1567-1649	문신	해행서	31×45	시, 奉別月沙閣下朝燕京
0407	임련(林鍊)	1589-1654	문신	해행서	27×41	시, 月灘을 전별한 칠언율시
0408	이지천(李志賤)	1589-?	문신	해행서	26.5×19.5	시, 칠언고시
0409	김반(金槃)	1580-1640	문신	해행서	16×23.5	편지, 아들의 장원급제를 알림
0410	이시백(李時白)	1581-1660	문신	해행서	18×31.5	편지, 연이은 喪을 원망함
0411	김광혁(金光赫)	1590-1643	문신	해서	31×45.5	시, 朴大觀을 송별한 오언고시
0412	윤순지(尹順之)	1591-1666	문신	초서	20×24	편지, 가뭄과 기근을 걱정함
0413	조문수(曹文秀)	1590-1647	문신	초서	24.5×27.5	편지, 巡歷 때 平海에서 만나기
0414	유정량(柳廷亮)	1591-1663	문신	초서	17.5×27.5	편지, 명쾌한 판결로 죄를 다스림
0415	구인기(具仁壘)	1597-1676	문신	해행서	22.3×27.5	편지, 보낸 작은 모자에 감사드림
0416	강대수(姜大遂)	1591-1658	문신	해서	27×52	시, 送朴大觀學士出宰咸平
0417	이해(李漣)	1591-1670	문신	초서	18.5×32.5	편지, 요구에 부응 못함을 사과함
0418	박미(朴瀾)	1592-1645	문신	초서	26.5×58.5	시, 칠언율시
0419	조계원(趙啓遠)	1592-1670	문신	해행서	21×31.5	편지, 보낸 평과 꿀에 감사드림
0420	오숙(吳翮)	1592-1634	문신	초서	33.5×43	시, 別大觀學士知咸平縣
0421	정연(鄭沆)	1592-?	무신	행초서	31×47.4	시, 奉別朴使君赴箕山之行
0422	송민고(宋民古)	1592-?	서화가	초서	25.3×29.3	편지, 부인을 위해 膏雉 알을 부탁
0423	신천익(愼天翊)	1592-1661	문신	해행서	26.7×21.3	편지, 친구들과 月出에서 만날 계획
0424	김세렴(金世濂)	1593-1646	문신	초서	28.3×25.7	편지, 蔡得沂에게 치료받길 부탁함
0425	원두표(元斗杓)	1593-1664	문신	초서	23.8×41.4	편지, 부탁한 약재를 보내드림
0426	유경창(柳慶昌)	1593-1662	문신	초서	23.5×36.4	편지, 빌린 털이불에 감사드림
0427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문신	행초서	26.5×46.4	시, 送大觀兄赴咸平(칠언율시)
0428	기만헌(奇晩獻)	1593-1651	문신	해행서	34.3×16.7	시, 칠언고시
0429	이시방(李時昉)	1594-1660	문신	해행서	21.4×28.2	편지, 新曆을 보내드림
0430	이응서(李應著)	1594-1660	문신	초서	21.8×31.9	편지, 자질이 부족한 벼슬의 낭패
0431	심동구(沈東龜)	1594-1660	문신	초서	25.3×36.5	시, 奉送朴大觀出貶南縣
0432	윤의립(尹毅立)	1568-1643	서화가	행초서	20×33.2	편지, 私通을 써 주시길 부탁함
0433	백상빈(白尙賓)	1594-?	서예가	초서	21.4×10.7	시, 題望京樓(오언절구)
0434	조속(趙涑)	1595-1668	서화가	초서	18.7×27.2	편지, 祭物로 乾魚를 보내드림
0435	강학년(姜鶴年)	1585-1647	문신	초서	24.2×49.6	편지, 낙마로 장사행렬 참석 미지수
0436	이명환(李明漢)	1595-1645	문신	해행서	27.9×40.6	시, 오언고시
0437	김덕승(金德承)	1595-1658	문신	해서	32×51.5	시, 追奉咸平朴使君之行
0438	이기조(李基祚)	1595-1653	문신	해행서	30.1×36.8	시, 送別李評事榮伯赴咸鏡北幕
0439	이경석(李景奭)	1595-1671	문신	행초서	26.7×43.6	편지, 보낸 銀魚에 감사드림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440	허목(許穆)	1595-1682	문신	해행서	29×24.5	편지, 寒花를 감상하며 벗을 기다림
0441	민광훈(閔光勳)	1595-1659	문신	해서	22.5×24.5	편지, 呈告를 허락하기 바람
0442	정유성(鄭維城)	1596-1664	문신	초서	21.5×28.8	편지,  약재를 많이 보내주길 바람
0443	윤순거(尹舜擧)	1596-1668	문신	초서	28.5×26.4	편지,  전한 시를 교정해 주길 바람
0444	김남중(金南重)	1596-1663	문신	해행서	29.8×50	시, 奉贈朴學士大觀咸平之行
0445	조수익(趙壽益)	1596-1674	문신	행초서	31×41.7	편지,  수령자리를 주선해 주길 부탁
0446	홍명구(洪命耆)	1596-1637	문신	초서	26.5×38.6	시, 朴大觀을 송별한 칠언율시
0447	임담(林潭)	1596-1652	문신	해행서	23×35.3	편지,  감사의 말과 칠언절구를 보냄
0448	박정(朴炆)	1596-1632	문신	해행서	20.6×14.5	편지,  시를 지어 보내니 화답 바람
0449	이행진(李行進)	1597-1665	문신	해행서	24.7×24	시, 咸卿赴錦城鎖直不能送
0450	김광찬(金光燦)	1597-1668	문신	해행서	23.9×37.4	편지,  약재를 많이 보내주길 바람
0451	정두경(鄭斗卿)	1597-1673	문신	행초서	26.4×38.7	편지,  보낸 술에 감사드립니다
0452	이후산(李後山)	1597-1675	문신	해행서	21.9×24.5	편지,  보낸 節筵에 감사드립니다
0453	정언황(丁彦璜)	1597-1672	문신	행초서	26.4×21.8	편지,  병으로 피곤하여 倩草(대필)함
0454	박황(朴潢)	1597-1648	문신	해행서	27.5×23	시, 朴大觀을 송별한 칠언율시
0455	윤강(尹絳)	1597-1667	문신	초서	26.2×27.5	편지,  蔡裕後의 죽음에 애통함
0456	송시길(宋時吉)	1597-1656	문신	초서	22×38.1	편지,  도망간 노비 推刷를 부탁
0457	이소환(李昭漢)	1598-1645	문신	초서	27.7×35.6	시, 朴大觀을 송별한 오언고시
0458	이후원(李厚源)	1598-1660	문신	초서	29.7×37	편지,  보낸 새해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0459	박의(朴漪)	1600-1645	문신	초서	24.5×28	편지,  藥料와 인삼을 보내드립니다
0460	홍곽(洪灌)	1597-?	문신	초서	22.8×12	편지,  구휼의 대책을 의논함
0461	김시온(金是榘)	1598-1669	학자	초서	27×40.5	편지,  병 증세를 여쭙
0462	유주(柳澍)	1568-1639	학자	해행서	32.3×33	편지,  늦게 돌려준 天命道에 사과함
0463	민업(閔業)	1605-1671	학자	초서	18×28.5	편지,  병세에 대해 걱정함
0464	신익룡(申翊隆)	1598-1657	문신	해서	26.6×21.6	편지,  慈闈의 부음을 위로함
0465	손필대(孫必大)	1599-?	문신	초서	22.1×35	편지,  보내기로 약속한 蟹胥를 확인
0466	심지명(沈之溟)	1599-1685	문신	초서	20.5×29.7	편지,  제사를 위한 蠶箔과 초를 부탁
0467	채유후(蔡裕後)	1599-1660	문신	초서	24.3×40.5	편지,  소 염통구이에 군침을 흘림
0468	정양(鄭養)	1600-1668	문신	해행서	23×33.3	편지,  병든 딸을 위해 由狀을 올림
0469	이시해(李時楷)	1600-1657	문신	행초서	23×30.3	편지,  오랫동안 변방의 고생을 위로
0470	유명립(柳命立)	1600-1647	문신	초서	27.2×38.8	시, 次秋山韻奉贈李評事榮伯
0471	이진(李軫)	1600-?	문신	초서	23.7×32.7	편지,  登龍의 경사를 축하
0472	이무(李袤)	1600-1684	문신	해행서	18.7×21	편지,  기우제 지내시길 呈狀함
0473	임전(林疇)	1600-?	문신	초서	28.2×23.5	편지,  집사람의 浮脹을 걱정함
0474	홍처후(洪處厚)	1599-1673	문신	행초서	26×23	편지,  보낸 狂尾에 감사드립니다
0475	이상일(李尙逸)	600-1674	문신	해행서	24.5×26	편지,  임금께서 편안하심을 기뻐함
0476	이지안(李志安)	1601-1657	문신	행초서	22.7×23.8	편지,  묘자리와 長杠을 준비함
0477	윤형각(尹衡覺)	1601-1664	문신	해서	28.6×25.3	시, 奉送李評事榮伯赴雉城幕下
0478	박서(朴遜)	1602-1653	문신	초서	25×38	편지,  부탁한 오언율시를 지어 보냄
0479	이완(李浣)	1602-1674	무신	초서	22.8×29.3	편지,  간청한 李滄의 일을 당부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480	김홍욱(金弘郁)	1602-1654	문신	초서	20.2×20.4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0481	정태화(鄭太和)	1602-1673	문신	해행서	28.7×35.3	편지, 장원 이름이 호적에 없음
0482	김소(金素)	1602-?	문신	행초서	24.5×37	편지, 금강산에 들어갈 계획
0483	강백년(姜栢年)	1603-1681	문신	해행서	26×32.3	편지, 관찰사 업무를 축하
0484	이홍연(李弘淵)	1604-1683	문신	행초서	25.5×15.5	편지, 보낸 쟁과 꿀에 감사드림
0485	남노성(南老星)	1603-1667	문신	초서	23.5×23.7	편지, 曹吏 편으로 안부를 물음
0486	이산퇴(李山賚)	1603-?	문신	해행서	21.8×20.9	편지, 退溪集을 써서 드림
0487	유영(柳穎)	1603-1646	문신	초서	21.5×16.4	편지, 安君의 引避를 질책
0488	이계(李桂)	1603-1642	문신	행초서	18.4×18.2	편지, 부정한 下吏를 신문함
0489	홍주일(洪柱一)	1604-1662	문신	초서	15.4×18.3	편지, 症錄을 沈僉正에게 보냄
0490	권시(權認)	1604-1672	학자	해행서	22.4×22.1	편지, 未發之論·取象에 감복
0491	황호(黃阜)	1604-1656	학자	초서	23.4×26	편지, 行狀의 초고를 돌려드림
0492	김득신(金得臣)	1604-1684	시인	행초서	25.2×8.8	편지, 奴子를 보낸 편지에 감사함
0493	임의백(任義伯)	1605-1667	문신	해행서	21.7×20.6	편지, 보낸 賻儀·歲饌에 감사드림
0494	채성구(蔡聖龜)	1605-1647	문신	해서	20.5×19.7	편지, 宜谷의 부음에 통곡함
0495	윤집(尹集)	1606-1637	문신	해행서	21×23.7	편지, 화제의 흑심함에 놀람
0496	이행우(李行遇)	1606-?	문신	행초서	21.6×26.2	편지, 보낸 새해 선물에 감사드림
0497	조형(趙珩)	1606-1679	문신	초서	24.8×25.7	편지, 승정원 발탁에 고민함
0498	홍주원(洪柱元)	1606-1672	문신	초서	23.8×38.7	편지, 琥珀을 보내드려 칭송받음
0499	이희(李禧)	1607-1672	문신	초서	25×42.2	편지, 李名材甫를 잘 부탁함
0500	조석윤(趙錫胤)	1605-1655	문신	해행서	22.2×29.8	편지, 보낸 음식에 감사드림
0501	장차주(張次周)	1606-1651	문신	초서	26.5×39.5	시, 칠언 율시
0502	유철(俞徹)	1606-1671	문신	초서	24.7×34.5	편지, 돌아가는 배를 간곡하게 부탁
0503	윤문거(尹文擧)	1606-1672	학자	해행서	25.8×40.5	편지, 부탁한 글씨를 아직 쓰지 못함
0504	송준길(宋浚吉)	1606-1672	문신	초서	25.6×43	편지, 起居의 반열에 출입함은 운명
0505	송시열(宋時烈)	1607-1689	학자	해서	22.2×35.8	편지, 비문의 다른 양식을 보내드림
0506	홍명하(洪命夏)	1607-1667	문신	행초서	27×34	편지, 답답함을 인편에 써서 보냄
0507	홍처량(洪處亮)	1607-1683	문신	행초서	23.2×31.2	편지, 보낸 先世의 祭需에 감사드림
0508	유계(俞棨)	1607-1664	문신	해행서	22.3×30.6	편지, 金集·金益熙 죽음을 애도함
0509	이유태(李惟泰)	1607-1684	문신	초서	18.7×34	편지, 還上을 더 부탁함
0510	이시술(李時術)	1606-1671	문신	초서	28.8×33.8	편지, 보낸 補元之劑에 감사드림
0511	민응협(閔應協)	1597-1663	문신	해행서	31.8×50.7	시, 送朴學士大觀出宰湖南
0512	허격(許格)	1607-1690	문신	해행서	27×31.8	편지, 二字에 의지해 안부를 알림
0513	신면(申冕)	1607-1651	문신	해행서	20×26.6	시, 李存吾께 보낸 오언율시 2수
0514	조종운(趙從耘)	1607-?	문신	초서	23×26.2	편지, 떡 선물에 감사드림
0515	조한영(曹漢英)	1608-1670	문신	행초서	32.2×38.4	편지, 祠宇를 짓는 재목을 부탁
0516	유심(柳滄)	1608-1667	문신	해행서	27.8×38	편지, 상세한 奴婢巡點의 어려움
0517	정시성(鄭始成)	1608-1686	문신	해서	37×49	편지, 納幣의 의식을 거행함
0518	오달제(吳達濟)	1609-1637	문신	초서	21.8×26.7	편지, 배긴 筍子를 보여주길 바램
0519	정치화(鄭致和)	1609-1677	문신	해서	24×25.6	편지, 부족한 馬草를 보내길 바램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520	조복양(趙復陽)	1609-1671	문신	초서	25.2×36.8	편지, 여러 약물을 부탁함
0521	목행선(睦行善)	1609-1661	문신	초서	24×42.6	편지, 永保亭 모임을 주선
0522	이익한(李翊漢)	1609-1668	문신	초서	22.8×31.5	편지, 혼례에 기름과 꿀을 부탁
0523	남훤(南翺)	1609-1656	문신	초서	24×26	편지, 파벌이 전한 글에 기뻐함
0524	김시번(金始蕃)	1610-1650	문신	행초서	19.8×18	편지, 보낸 簡楮에 감사드림
0525	허적(許積)	1610-1680	문신	해행서	21.3×23.5	편지, 약소한 노자에 한탄함
0526	윤선거(尹宣舉)	1610-1669	학자	해행서	23.3×27.2	편지, 부탁한 輓詞를 지어 보냄
0527	박세모(朴世模)	1610-1667	문신	초서	19.3×32	편지, 造墓軍에 護喪시킬 계획
0528	오정일(吳挺一)	1610-1670	문신	초서	26.3×28.7	편지, 영감과 상봉을 기대함
0529	유석(柳碩)	1595-1655	문신	초서	21×38	편지, 딱한 사정을 사또께 알림
0530	김익희(金益熙)	1610-1656	문신	행초서	33×45.6	편지, 지나친 형적 노출을 탄식
0531	한진기(韓震琦)	1610-1665	문신	초서	28×41	편지, 관찰사 업무가 편안하길 빚
0532	석지형(石之珩)	1610-1699	문신	초서	34×46.2	시, 敬次拜呈栗村老相公案下
0533	권대운(權大運)	1612-1699	문신	초서	22.8×26.2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0534	이정기(李廷夔)	1612-1671	문신	행초서	20.8×25.5	편지, 인편이 없어 소식을 못 전함
0535	이일상(李一相)	1612-1666	문신	해행서	28.8×55.6	小序, 짧은 서문과 오언절구
0536	박장원(朴長遠)	1612-1671	문신	초서	30×41.3	편지, 그림을 빨리 완성하여 보냄
0537	김익렴(金益廉)	1622-1694	문신	해행서	26.2×40.2	시, 李選께 칠언율시로 보답
0538	홍중보(洪重普)	1612-1671	문신	해행서	27.3×43	편지, 生淸과 당귀를 부탁함
0539	최관(崔寬)	1613-1695	문신	초서	31×40	편지, 문서 수정이 까마득하여 걱정
0540	정지화(鄭知和)	1613-1688	문신	초서	23.2×26.5	편지, 沈鯉 선물에 감사드림
0541	오정원(吳挺垣)	1614-1667	문신	초서	22.5×27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0542	이상진(李尙眞)	1614-1690	문신	초서	24×38	편지, 병으로 누워서 안부 여쭙
0543	장선징(張善徵)	1614-1678	문신	행초서	31.1×40.5	편지, 造墓擔軍은 쓰지 말라는 훈계
0544	유창(俞瑒)	1614-1690	문신	초서	26.2×46.5	편지, 營吏를 세 집에 보내길 바람
0545	서필원(徐必遠)	1614-1671	문신	해행서	22.8×23.2	편지, 친지의 농장 폐쇄를 걱정함
0546	민희(閔熙)	1614-1687	문신	해행서	29×26.5	시, 춘부장께 올린 칠언율시 2수
0547	민점(閔點)	1614-1680	문신	해행서	33.5×55.6	시, 奉驢東萊府伯鄭白也行軒
0548	이가상(李嘉相)	1615-1637	호자	행초서	25×28.5	시, '端居'와 '限韻贈黃子'의 일부
0549	조윤석(趙胤錫)	1615-1664	문신	행초서	24.2×22	편지, 趙龜錫의 편지를 보내드림
0550	이정영(李正英)	1616-1686	문신	초서	27.8×43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0551	이태연(李泰淵)	1615-1669	문신	해행서	27.7×34.5	편지, 東平公主의 상을 슬퍼함
0552	조구석(趙龜錫)	1615-1665	문신	행초서	22.6×38	편지, 보낸 선물에 감사드림
0553	조세환(趙世煥)	1615-1683	문신	해서	29.2×33.5	시, 奉別李沃川令公之龜城配所
0554	윤휴(尹鑄)	1617-1680	문신	초서	22.2×34.8	편지, 보낸 꿀에 감사드림
0555	김좌명(金佐明)	1616-1671	문신	초서	25.6×35.3	편지, 讀券官을 지탱하지 못할까 걱정
0556	유혁연(柳赫然)	1616-1680	무신	초서	25.3×32.5	편지, 보낸 두 가지 과일에 감사드림
0557	김우형(金字亨)	1616-1694	문신	해행서	30.5×34	편지, 淮陽 부임을 알림
0558	조중운(趙仲耘)	1616-?	문신	해행서	23×33.7	편지, 大君 행차의 지체를 걱정함
0559	이경휘(李慶徽)	1617-1669	문신	해행서	29×39.6	편지, 狀啓 이외의 곡절을 모름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560	목내선(睦來善)	1617-1704	문신	초서	21.8×31.5	편지, 손님 접대의 계란을 부탁함
0561	이은상(李殷相)	1617-1678	문신	초서	23.5×39.8	편지, 別試를 치르고 還官할 예정
0562	심유(沈攸)	1620-1688	문신	해행서	29.1×41	시, 奉別沃州史君李擇之令公之行
0563	정익(鄭楹)	1617-1683	문신	초서	26.8×37.5	편지, 손님 맞을 禮의 주선을 물음
0564	임규(任奎)	1620-1687	문신	해행서	29×44	시, 李擇之를 송별한 칠언절구
0565	이관징(李觀徵)	1618-1695	문신	초서	30.3×45.2	편지, 보낸 세 종류 진미에 감사드림
0566	김시진(金始振)	1618-1667	문신	초서	27.5×37.5	편지, 趙龜錫의 호남관찰사 부임 소식
0567	임중(任重)	1618-1656	문신	행초서	18×28	편지, 보낸 꿩 두 마리에 감사드림
0568	권대재(權大載)	1620-1689	문신	행초서	20×22.5	편지, 계속되는 아이들의 병 걱정
0569	김우명(金佑明)	1619-1675	문신	해행서	27.8×36	편지, 묘한 제주의 松鶴을 탐냄
0570	이만상(李萬相)	1622-?	문신	해행서	19.8×42	시, 칠언절구
0571	이경억(李慶億)	1620-1673	문신	초서	22.8×31.5	편지, 보낸 꽃감과 건어에 감사드림
0572	신만(申冕)	1620-1669	문신	해서	26.7×15.1	편지, 약 두 침을 지어 보냄
0573	심광사(沈光泗)	1620-?	문신	행초서	21.3×26	편지, 表姪 柳承培를 부탁함
0574	조위봉(趙威鳳)	1621-1675	문신	해행서	24.8×31	시, 次洞石精舍韻(오언율시)
0575	유탁연(柳卓然)	1620-?	문신	초서	21×28.5	편지, 보낸 책 제목 일을 수락
0576	유형원(柳馨遠)	1622-1673	학자	해행서	19.8×23.8	편지, 婢夫 宋英俊 말을 還推
0577	이요(李潛)	1622-1658	종실	해서	29.3×33	편지, 젊은 사위 부고를 위로
0578	홍주국(洪柱國)	1623-1680	문신	행초서	28.3×31.3	시, 李擇之를 송별한 칠언율시
0579	이유상(李有相)	1623-1673	문신	초서	16.3×35.5	편지, 大科가 당겨져 정함
0580	황윤(黃玠)	1623-1688	문신	해행서	23.2×25.3	시, 칠언율시
0581	정창도(丁昌燾)	1623-1687	문신	초서	25×16.2	편지, 약재와 토산품을 보냄
0582	남일성(南一星)	1623-?	문신	행초서	21.3×31.5	편지, 보낸 胎錄의 액수를 결정
0583	조효창(曹孝昌)	1623-1680	문신	행초서	26.5×33.3	편지, 급제로 남쪽 고을을 원함
0584	유담후(柳譚厚)	1623-1686	문신	초서	26.3×28.5	편지, 부채를 구해 보내드리겠음
0585	김수증(金壽增)	1624-1701	문신	행초서	28×38	편지, 아드님 장원급제를 축하함
0586	오두인(吳斗寅)	1624-1689	문신	행초서	27.1×45	편지, 竹漿 한 동이를 보내드림
0587	신혼(申混)	1624-1656	문신	해행서	23.7×42	시, 苦雨臥病呈駱村(칠언고시)
0588	심재(沈梓)	1624-1693	문신	해행서	21.2×24.5	편지, 보낸 節箒에 감사드림
0589	이원정(李元禎)	1622-1680	문신	해행서	24.5×23	편지, 곧 洛社에서 만날 약속
0590	이단하(李端夏)	1625-1689	문신	행초서	22.5×32.5	시, 李端相에 드린 칠언율시
0591	이민적(李敏迪)	1625-1673	문신	해서	22.8×32	편지, 羸博(아들 상)을 조문함
0592	여성제(呂聖齊)	1625-1691	문신	해행서	29×41.3	편지, 虛錄을 법에 따라 처리
0593	남이성(南二星)	1625-1683	문신	해행서	23.8×32.4	편지, 棘人을 특별히 役夫로 題給
0594	정시한(丁時翰)	1625-1707	학자	초서	20×32.6	편지, 여식의 돌림병을 걱정함
0595	이숙(李翻)	1626-1688	문신	행초서	25.7×46.6	편지, 세 가지 선물에 감사드림
0596	김수흥(金壽興)	1626-1690	문신	초서	21.2×27.5	편지, 인편을 통해 안부를 전하길
0597	이명은(李命殷)	1627-?	문신	초서	34×14.8	시, ‘贈李唐山人’의 뒷부분
0598	윤지선(尹趾善)	1627-1704	문신	해행서	28.5×40.2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0599	송광식(宋光弼)	1625-1664	문신	초서	25.5×41.3	편지, 家累를 옮길 말 두 필 부탁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600	민정중(閔鼎重)	1628-1692	문신	행초서	25.3×55	편지, 掌隸院 글을 바빠서 못 봄
0601	이단상(李端相)	1628-1669	문신	초서	25.3×26.5	편지, 氷帖 몇 점을 부탁함
0602	이익상(李翊相)	1625-1691	문신	해행서	29.2×43.2	시, 奉寄陟州使君案下(칠언율시)
0603	남용익(南龍翼)	1628-1692	문신	해행서	34.5×49	시, 李一相을 송별한 칠언율시
0604	이하진(李夏鎭)	1628-1682	문신	초서	23.2×40.3	편지, 해산물과 대자리에 감사드림
0605	신정(申晷)	1628-1687	문신	초서	19.8×24.5	편지, 역대 제왕 시집을 부탁함
0606	이원록(李元祿)	1514-1574	문신	해서	21.6×12	편지, 奴와 말을 보내며 문안 인사
0607	박세당(朴世堂)	1629-1703	문신	해행서	29.6×42.3	편지, 보낸 네 가지 선물에 감사드림
0608	송인명(宋寅明)	1689-1746	문신	초서	25.8×46.1	편지, 말씀을 大僚께 올려 추진함
0609	조경망(趙景望)	1629-1694	학자	해서	26.8×50	시, 贈別鄭善長南歸兼示混原詞契
0610	윤증(尹拯)	1629-1714	학자	해서	27.3×36	편지, 서글픈 소식에 오직 위안함
0611	남구만(南九萬)	1629-1711	문신	행초서	30×37.3	편지, 보낸 갖가지 선물에 감사드림
0612	김수항(金壽恒)	1629-1689	문신	행초서	26.5×35.5	편지, 국상을 당한 슬픔을 전함
0613	민유중(閔維重)	1630-1687	문신	해행서	24.5×45.7	편지, 田政으로 연임 명령을 받음
0614	송규렴(宋奎濂)	1630-1709	문신	초서	29.3×37.5	편지, 진혼의 어려움을 동감함
0615	이세화(李世華)	1630-1701	문신	초서	25.7×36.5	편지, 문안과 선물에 감사드림
0616	서문상(徐文尙)	1630-1677	문신	해행서	26.2×18.5	편지, 내일 퇴직하여 西郊에서 만남
0617	목천성(睦天成)	1630-1687	문신	행초서	29.3×23.3	편지, 내일 辭職單子를 올림
0618	박세채(朴世采)	1631-1695	학자	행초서	25.8×38.3	편지, 보낸 歲儀에 감사드림
0619	최후상(崔後尙)	1631-1680	문신	해행서	25×35.3	시, 奉別擇之令兄之任沃州
0620	홍만용(洪萬容)	1631-1692	문신	행초서	27.2×49.3	시, 李擇之를 송별한 칠언율시
0621	유하익(兪夏益)	1631-1699	문신	초서	29×32.5	편지, 譯學 시신의 운송을 부탁함
0622	조근(趙根)	1631-1690	문신	해행서	25.7×32.5	편지, 令胤의 부음을 위로함
0623	유성삼(柳星三)	1631-1700	문신	행초서	24.5×30.6	편지, 만날 기약이 없는 슬픔을 전함
0624	윤진(尹摺)	1631-1698	문신	행초서	22.3×32.8	편지, 술상 미주하던 때를 생각함
0625	박신규(朴信圭)	1631-1687	문신	해행서	22.5×24.5	편지, 여름마다 보낸 妙筵에 감사드림
0626	오시수(吳始壽)	1632-1681	문신	행초서	19×23.5	편지, 지극한 염려와 의리에 감사드림
0627	민종도(閔宗道)	1633-1693	문신	초서	29.5×55	시, 奉贖萊伯令公之行(칠언율시)
0628	이서우(李瑞雨)	1633-1709	문신	해행서	25.7×44	시, 送別沈君涉湖西伯(칠언율시)
0629	유명천(柳命天)	1633-1705	문신	해행서	27×27.5	편지, 玉潤의 병에 보낸 川芎에 감사
0630	이선(李選)	1632-1692	문신	해행서	30×45.4	편지, 구기자과 복분자에 감사드림
0631	정유악(鄭維岳)	1632-1701	문신	행초서	27.2×37.6	편지, 보낸 꿩과 물고기에 감사드림
0632	정재송(鄭載嵩)	1632-1692	문신	행초서	28.5×39.7	편지, 보낸 꿀에 감사드림
0633	조사석(趙師錫)	1632-1693	문신	해행서	20.8×28.2	편지, 장마 중에 몸이 상해 고생함
0634	송일중(宋日中)	1632-1717	문신	초서	21.6×26.8	편지, 학문 중에 건강하심이 다행
0635	김구만(金龜萬)	1632-1699	문신	행초서	20.2×30.5	편지, 마치지 않은 汰講을 의논
0636	이민서(李敏敘)	1633-1688	문신	해행서	28.3×41.8	편지, 喪行을 보내는 슬픔을 전함
0637	김만기(金萬基)	1633-1687	문신	해행서	29×33.8	편지, 보낸 민어와 조기에 감사드림
0638	권유(權愈)	1633-1704	문신	해행서	26.7×38	편지, 새해 운수를 점쳐 보냄
0639	한영(韓潑)	1633-1689	문신	해행서	23.2×23.2	편지, 禮成祭에 불참해서 심문을 받음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640	민취도(閔就道)	1633-1698	문신	해행서	26.5×28.2	편지, 가까운 날에 회포를 풀고 싶음
0641	유지발(柳之發)	1633-1705	문신	초서	30.5×36	시, 竹西樓에 부친 칠언율시
0642	김필진(金必振)	1635-1691	문신	해행서	30.5×46	시, 咏月樓名(칠언율시)
0643	윤심(尹深)	1633-1692	문신	해행서	27.6×33	편지, 지령이 같은 글씨로 죄송
0644	이인환(李寅煥)	1633-1699	문신	해행서	32.6×44.7	편지, 부탁한 책을 인쇄해 올림
0645	신익상(申翼相)	1634-1697	문신	해행서	27.3×36.6	편지, 소금과 각종 선물을 보냄
0646	서문중(徐文重)	1634-1709	문신	해행서	30×44.3	편지, 새로운 관직에 고민함
0647	이만웅(李萬雄)	1620-1661	문신	초서	29.5×40.5	편지, 還穀 구결 문서에 고민함
0648	신여철(申汝哲)	1634-1701	무신	행초서	28.3×44.5	편지, 物放置簿의 진말을 모름
0649	김석주(金錫胄)	1634-1684	문신	초서	24×23.6	편지, 어려운 때 증임에 고민함
0650	홍석구(洪錫龜)	1621-1679	문신	해행서	20.6×21.5	편지, 흑한에 기력을 염려함
0651	윤지완(尹趾完)	1635-1718	문신	해서	27.3×32.5	시, 敬次奉呈(칠언절구)
0652	박세성(朴世城)	1621-1671	문신	해행서	23×35.3	편지, 보낸 붓에 감사드립니다
0653	김만중(金萬重)	1637-1692	문신	행초서	24×30.8	편지, 슬하의 자식 잃음을 위로
0654	이세백(李世白)	1635-1703	문신	행초서	26×36.5	편지, 누이동생 절박함을 청함
0655	엄집(嚴緝)	1635-1710	문신	초서	26.2×40	편지, 覆試에 회포를 풀어 다행
0656	심단(沈檀)	1645-1730	문신	초서	23×33	편지, 常禮만 고수함에 異意 제기
0657	김주(金澍)	1512-1563	문신	초서	30×34.5	편지, 경솔한 論罪를 아뢰
0658	유상운(柳尙運)	1636-1707	문신	해행서	25.3×31.3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립니다
0659	박태상(朴泰尙)	1636-1696	문신	초서	29.8×38.9	편지, 朴泰輔께 보냄
0660	이우(李俁)	1637-1693	종실	해행서	25.7×38	편지, 圖書가 맞지 않아 한탄함
0661	오시복(吳始復)	1637-1716	문신	해행서	24×36.2	편지, 각종 부채 일곱자루 보냄
0662	임당(任堂)	1638-1710	문신	행초서	20.4×34.5	편지, 보낸 節扇·簡幅에 감사
0663	나양좌(羅良佐)	1638-1710	문신	해행서	33×25	편지, 陳卡을 중지하고 기다림
0664	송광연(宋光淵)	1638-1695	문신	행초서	29.3×18.7	편지, 牌招를 啓請함은 낭패임
0665	임상원(任相元)	1638-1697	문신	행초서	22.7×29	편지, 석방 기약이 아득함을 위로
0666	유이승(柳以升)	1638-?	문신	행초서	25.7×11	시, 錢起의 宿洞口驛
0667	조지겸(趙持謙)	1639-1685	문신	해서	21.6×24.5	편지, 보낸 종이봉투에 감사드립니다
0668	권해(權階)	1639-1704	문신	해행서	29.8×21.2	편지, 보낸 고기에 감사드립니다
0669	조상우(趙相愚)	1640-1718	문신	행초서	27.5×37	편지, 탄핵하는 글에 떠날 결심
0670	조위명(趙威明)	1640-1685	문신	초서	21.2×31.5	편지, 건강한 모습에 축하드립니다
0671	원성유(元聖兪)	1640-1713	문신	초서	26.5×52.5	편지, 食玉炊桂의 어려움을 전함
0672	임방(任墜)	1640-1724	문신	행초서	24.6×29.6	편지, 고을에 은혜를 베풀길 바랍
0673	심익현(沈益顯)	1641-1683	서예가	해행서	27.6×32.2	편지, 至聖保命丹을 구해서 드립니다
0674	권상하(權尙夏)	1641-1721	학자	해행서	27.5×22.7	시, 趙之耘에 보낸 칠언율시
0675	엄정구(嚴鼎耆)	1605-1670	문신	초서	17.5×20	편지, 보낸 부채와 편지지에 감사
0676	이돈(李墩)	1642-1713	문신	초서	24.7×38.5	편지, 만날 길이 없음을 슬퍼함
0677	이세필(李世弼)	1642-1718	학자	해행서	25.5×34.7	편지, 송시열 상소문을 上達함
0678	홍수주(洪受疇)	1642-1704	화가	행초서	25.7×44	편지, 먼 변경에 버려짐이 영광됨
0679	유명현(柳命賢)	1643-1703	문신	초서	32×57	편지, 생명을 보존한 덕에 감사함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680	이인징(李麟徵)	1643-1729	문신	초서	26.6×43.3	편지, 사면 받을 것을 미리 축하
0681	김성적(金盛迪)	1643-1699	문신	해행서	24.5×28.7	편지, 유생들의 말함을 도울 계획
0682	이세구(李世龜)	1646-1700	문신	초서	20.2×21	편지, 장례를 잘 치르길 기원함
0683	박경후(朴慶後)	1644-1706	문신	초서	27.2×37.5	편지, 편지지와 진귀한 과일에 감사
0684	심벌(沈穰)	1645-1711	문신	초서	21.3×34.2	편지, 내일 湖舍에 오시기 바람
0685	오도일(吳道一)	1645-1703	문신	해행서	30×39	편지, 보낸 節箋에 감사드립니다
0686	이유(李濡)	1645-1721	문신	초서	23×47.5	편지, 湖西의 林川으로 이사할 생각
0687	강선(姜銑)	1645-1710	문신	해행서	29.3×37.1	편지, 50여 권 冊衣를 부탁함
0688	임운원(任胤元)	1645-1712	문신	행초서	23.8×34.8	편지, 새 別墅에 참석 못해 서운함
0689	목창명(睦昌明)	1645-1695	문신	초서	24.7×25.5	편지, 보낸 각종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0690	민진주(閔鎭周)	1646-1700	문신	행초서	20.7×25	편지, 안부와 碧魚에 감사드립니다
0691	최석정(崔錫鼎)	1646-1715	문신	해행서	27.3×41.8	시, 李選에게 보낸 칠언율시
0692	한태동(韓泰東)	1646-1687	문신	행초서	31×38.3	편지, 인삼과 녹용을 부탁함
0693	정시운(丁時潤)	1646-1713	문신	초서	24.5×31	편지, 重記에 매어 관직을 못 버림
0694	신완(申琬)	1646-1707	문신	초서	27.5×43	편지, 보낸 먹에 감사드립니다
0695	이진은(李震殷)	1646-1707	문신	해서	26.2×17.6	편지, 병으로 다른 差使員 임명 부탁
0696	신엽(申晷)	1646-1690	문신	해행서	28×18.5	편지, 眞墨·乾民魚·石魚·甘同을 보냄
0697	이현석(李玄錫)	1647-1703	문신	해행서	29.1×42.2	시, 南龍翼에 보낸 칠언율시
0698	정호(鄭濤)	1648-1736	문신	초서	23.2×46	편지, 世道の 윤리와 기강을 밝힌 상소
0699	김창집(金昌集)	1648-1722	문신	초서	26.2×27.4	편지, 家奴 때문에 노자를 부탁
0700	박태유(朴泰維)	1648-1746	문신	해서	18.7×6.5	시, 王勃의 滕王閣序 일부
0701	박태항(朴泰恒)	1647-1737	문신	초서	24.7×45	편지, 흉년에 벼슬 유임을 걱정
0702	김구(金構)	1649-1704	문신	초서	26.7×35.4	편지, 새해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0703	정제두(鄭齊斗)	1649-1736	학자	해서	30.5×39.3	편지, 얼음을 얻어 쓰기를 부탁
0704	김홍복(金洪福)	1649-1698	문신	행초서	27.5×34.3	편지, 草料 한 丈 차용을 부탁
0705	임영(林泳)	1649-1696	문신	행초서	19.5×28	편지, 등봉한 별지를 보시기 바람
0706	이정(李漣)	생몰 미상	종실	해행서	25.3×21	시, 歸洛途中(칠언율시)
0707	최규서(崔奎瑞)	1650-1735	문신	해행서	28×44.5	편지, 子婦의 깊은 병을 걱정함
0708	강현(姜覲)	1650-1733	문신	행초서	25.5×33.3	편지, 먼 길 행차를 걱정함
0709	김시징(金始徵)	1650-?	학자	해행서	28.3×37.3	시, 승려 岬에게 보낸 칠언절구
0710	송주석(宋疇錫)	1650-1692	문신	해행서	25.3×36.3	편지, 正木과 麻布를 납부함
0711	김창협(金昌協)	1651-1708	학자	행초서	26.4×10.5	편지, 10일간 머물다 가면 어떠냐
0712	이대성(李大成)	1651-1718	문신	해행서	25.5×16.4	시, 오언절구
0713	서종태(徐宗泰)	1652-1719	문신	해행서	35×40	편지, 여러 가지 산골 음식에 감사
0714	김창흡(金昌翕)	1653-1722	학자	해행서	25.6×47.2	편지, 시를 읽고 두통이 나오면 좋음
0715	김시걸(金時傑)	1653-1701	문신	초서	30.5×50	편지, 還穀에 숙부 題辭가 필요함
0716	박태순(朴泰淳)	1653-1704	문신	행초서	23.4×31.5	편지, 보낸 節箋에 감사드립니다
0717	신계화(申啓華)	1653-1689	문신	해행서	27.3×37.8	편지, 보낸 먹에 감사드립니다
0718	홍세태(洪世泰)	1653-1725	시인	초서	37×44.5	시, 永昭殿齋舍同李齋郎有吟
0719	유집일(兪集一)	1653-1724	문신	해행서	32.5×45.4	편지, 糶糶과 還米를 즉시 題給함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720	박행의(朴行義)	1653-1718	문신	해행서	23×25.8	편지, 免新禮의 刺紙와 족자를 부탁
0721	권두추(權斗樞)	1632-1670	문신	초서	23.4×27.2	편지, 生雉와 작은 송어를 보냄
0722	최석항(崔錫恒)	1654-1724	문신	초서	30.2×46.3	편지, 서원 유생들에게 책 빌려주기
0723	이희조(李喜朝)	1655-1724	문신	해행서	33.5×45.4	편지, 民事와 蕩殘의 심함을 호소함
0724	박태보(朴泰輔)	1654-1689	문신	해행서	26.3×41.3	편지, 거듭 보낸 珍墨에 감사드림
0725	민창도(閔昌道)	1654-1725	문신	해행서	27.8×37.3	편지, 환곡 처리로 바빠 늦게 도착함
0726	남학명(南鶴鳴)	1654-1722	학자	행초서	28.2×41.6	편지, 正言 형님 쟁론으로 좋지 않음
0727	이덕성(李德成)	1655-1704	문신	초서	27×44	편지, 容齋集을 아직 못해 다시 부탁
0728	정유점(鄭維漸)	1655-1703	학자	초서	25.6×40.7	편지, 가족신 남는 것 있으면 부탁함
0729	이인엽(李寅燁)	1656-1710	문신	행초서	26×38	편지, 請起의 절차를 밟으면 도움
0730	윤지인(尹趾仁)	1656-1718	문신	해서	31.5×48	시, 奉呈眞珠使君仙案(칠언고시)
0731	권상유(權尙游)	1656-1724	학자	행초서	25.4×20	편지, 정기인사에 實職 추천이 어려움
0732	윤덕준(尹德駿)	1658-1717	문신	행초서	26×28	편지, 舍弟와의 약속을 지키기 바람
0733	송상기(宋相琦)	1657-1723	문신	해행서	32.3×43.4	시, 李郎의 슬픔에 쓴 칠언율시
0734	여필중(呂必重)	1657-1718	문신	해행서	35.5×43.5	편지, 진정 생각해주심에 감사드림
0735	이진휴(李震休)	1657-1710	문신	초서	28.2×48	편지, 궁급함을 감당하지 못해 안부함
0736	권중경(權重經)	1658-1728	문신	해행서	31×36.5	편지, 보낸 선물과 먹에 감사드림
0737	이이명(李頤命)	1658-1722	문신	해행서	32.3×36	시, 奏再奚에 화답한 칠언율시
0738	김창엽(金昌業)	1658-1721	화가	해행서	29.5×38	편지, 壯元의 경사가 끝이 없어 축하함
0739	김진규(金鎭圭)	1658-1716	문신	해행서	29.7×52	편지, 輪次科 폐단을 바로 잡자는 의견
0740	이정신(李正臣)	1660-1727	문신	해행서	27×34	편지, 牌召의 啓請을 시행 못하고 여쭙
0741	홍중하(洪重夏)	1658-1716	문신	행초서	26.7×39.5	편지, 인수인계가 늦어 빌 기약이 없음
0742	조태로(趙泰老)	1658-1717	문신	행초서	25×28	편지, 노쇠로 회포를 풀지 못해 산란함
0743	이만성(李晩成)	1659-1722	문신	해행서	27.3×29	편지, 서울에 머물러 번민을 감당 못함
0744	민진후(閔鎭厚)	1659-1720	문신	행초서	27.8×36.5	편지, 홀어머니 위중함에 놀라고 걱정됨
0745	유봉휘(柳鳳輝)	1659-1727	문신	행초서	27.6×38.2	편지, 印冊紙 20권을 보내드림
0746	이제(李濟)	1654-1714	문신	초서	30.7×40.3	편지, 빈자리에 吳命禧를 넣을 계획도모
0747	조태구(趙泰耆)	1660-1723	문신	해행서	33×40	편지, 진흙 문제로 골치 아픔을 고민함
0748	조태채(趙泰采)	1660-1722	문신	행초서	30×48	편지, 온천욕은 병세의 효험이 없었음
0749	이태좌(李台佐)	1660-1739	문신	초서	25.5×44.6	편지, 가친의 사직상소를 부탁함
0750	이해조(李海朝)	1660-1711	학자	해행서	29.5×42	편지, 갓신 手功으로 쌀 한 석을 보냄
0751	이관명(李觀命)	1661-1733	문신	해행서	28×43.3	편지, 여러 날 親鞫으로 정신이 혼미함
0752	김주신(金柱臣)	1661-1721	문신	해행서	24.8×30	편지, 별지는 羅良佐 청이니 특별히 부탁
0753	김시환(金始煥)	1661-1721	문신	해서	33×56	편지, 연경 객관에서 추위에 건강 조심
0754	유광익(柳光翼)	1661-?	학자	행초서	31.2×36.6	편지, 보낸 계절 선물에 감사드림
0755	이수장(李壽長)	1661-1733	서예가	해서	23.4×50	시, 이백 遠別離와 將進酒를 써서 보냄
0756	이서(李澈)	1662-1723	서예가	초서	33×43.5	편지, 아이 冠禮에 君이 없어 섭섭
0757	김창즙(金昌緝)	1662-1713	학자	해행서	23.3×41.3	편지, 几筵 철수 전에 슬픔이 복받침
0758	신심(申鐔)	1662-1715	문신	해행서	27.7×35.1	편지, 증손녀 歸寧에 위로와 기뻐함
0759	이건명(李健明)	1663-1722	문신	행초서	27×34.1	편지, 그리움과 안타까움에 붓을 잠음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760	심수현(沈壽賢)	1663-1736	문신	초서	25×22.5	편지, 양식을 댈 수 없어 부탁함
0761	성한(成儻)	1664-1719	학자	해행서	32×23.5	시, 禮園同苦別何忙(칠언율시)
0762	민진원(閔鎭遠)	1664-1736	문신	해행서	30.5×41.5	편지, 대간의 탄핵으로 괴로움
0763	신입(申鉞)	1639-1725	문신	행초서	33×47.5	편지, 모든 운수가 용납이 어려움
0764	임수간(任守幹)	1665-1721	문신	행초서	23.5×39	편지, 보낸 꼴과 핑에 감사드립니다
0765	조정강(趙正綱)	1666-?	서예가	해서	31.5×20.5	시, 중국 작가 미상의 시
0766	권섭(權燮)	1671-1759	시인	해행서	34.2×21.8	시, 次贈(칠언절구)
0767	정도복(丁道復)	1666-1720	문신	행초서	23.7×36	편지, 만날 길이 없어 걱정이 됨
0768	홍치중(洪致中)	1667-1732	문신	해행서	31.3×43.5	편지, 조정에 돌아갈 날이 가까움
0769	오태주(吳泰周)	1668-1716	부마	해행서	30.5×33.5	편지, 보낸 종이에 감사드립니다
0770	권이진(權以鎭)	1668-1734	문신	해행서	28.3×47.5	편지, 산소를 쓰는 데 방해되지 않음
0771	홍중성(洪重聖)	1668-1735	문신	해행서	31×39	시, 李光佐께 드린 칠언율시
0772	이조(李肇)	1666-1726	문신	행초서	27.5×44	편지, 백지 4-5束을 보내주길 바람
0773	윤두서(尹斗緒)	1668-1715	화가	초서	22.1×37.5	편지, 시력이 흐려져 서화가 어려움
0774	이진유(李眞儒)	1669-1730	문신	초서	34.2×56	시, 醉後敬次江陽鄭明府丈韻
0775	최창대(崔昌大)	1669-1720	문신	해행서	31.2×41.5	편지, 定齋集을 교정후 부치겠음
0776	이의현(李宜顯)	1669-1745	문신	초서	25.4×45	편지, 보낸 각종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0777	채팽운(蔡彭胤)	1669-1731	문신	초서	31.7×38	편지, 朴公 독촉으로 破戒를 못 면함
0778	김춘택(金春澤)	1670-1717	문신	행초서	25.8×44	편지, 子婦의 학질에 약제가 필요함
0779	김유경(金有慶)	1669-1748	문신	해행서	24.3×40.7	편지, 손자의 소상까지 지내길 바람
0780	김고(金槲)	1670-1727	문신	해행서	28×44	편지, 남인들을 용서해 수습해야 함
0781	맹만택(孟萬澤)	1660-1710	문신	초서	29.2×40.5	편지, 진흥정책을 호조판서와 의논
0782	이병연(李秉淵)	1671-1751	시인	해서	26.1×33	시, 送申峻夫之縣(오언율시)
0783	임수적(任守迪)	1671-1744	문신	해행서	25.5×47	편지, 눈병이 심해 대필을 시킴
0784	이진망(李眞望)	1672-1737	문신	초서	24.5×33.5	편지, 관아 사람이 없어 글을 못 보냄
0785	어유봉(魚有鳳)	1672-1744	문신	해행서	24.2×35.2	편지, 의리를 강론하며 이치를 궁구함
0786	조영복(趙榮福)	1672-1728	문신	행초서	4.5×31.6	편지, 보낸 세 가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0787	오명항(吳命恒)	1673-1728	문신	해행서	34×43	편지, 형의 방향을 몰라 개탄함
0788	이덕수(李德壽)	1673-1744	문신	해행서	35×42	편지, 많은 새해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0789	김이만(金履萬)	1683-1758	문신	초서	35.8×50.5	시, 奉別錦城使君投紱之行
0790	이광좌(李光佐)	1674-1740	문신	초서	32.2×44	편지, 獻官員 수가 많아 분배가 어려움
0791	조경명(趙景命)	1674-1726	문신	해행서	28.5×48.5	시, 李眞儉을 위한 칠언율시
0792	심택현(沈宅賢)	1674-1736	문신	해행서	32.6×48.2	편지, 南草 한 봉지를 노자로 바침
0793	조태억(趙泰億)	1675-1728	문신	해행서	32.3×42.3	편지, 모래 生陽館에서 만남을 기대함
0794	어유구(魚有龜)	1675-1740	문신	행초서	27×24	편지, 괴로운 일을 면할 수 있어 다행
0795	이병상(李秉常)	1676-1748	문신	해서	26.8×28.4	편지, 벼슬을 그만두셨을 것 같아 기쁨
0796	이진순(李眞淳)	1679-1738	문신	초서	33.2×41	편지, 眼藥을 다시 보낼 것을 기대함
0797	이하곤(李夏坤)	1677-1724	화가	해서	32.2×45.3	시, 尹最績을 화답한 칠언율시
0798	김동필(金東弼)	1678-1737	문신	행초서	30×41.9	시, 次別席韻贈載方之行
0799	엄경우(嚴慶遇)	1655-?	문신	해행서	29.5×33	편지, 보낸 眞玄(참떡)에 감사드립니다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800	이재(李緯)	1680-1746	문신	해행서	29.3×45.8	편지, 자식의 과거급제를 기뻐함
0801	김제겸(金濟謙)	1680-1722	문신	초서	20×12.2	편지, 龍眼肉을 곧 구해 보내겠음
0802	윤순(尹淳)	1680-1741	서예가	초서	26.5×27.5	편지, 絹本은 그리고 小本은 돌려보냄
0803	조문명(趙文命)	1680-1732	문신	초서	33.5×43.5	편지, 관찰사 조카 뜻이 억지라 생각함
0804	홍계적(洪啓迪)	1680-1722	문신	해행서	19.5×21.2	편지, 兪故에 쓸 氷丁을 부탁함
0805	홍봉조(洪鳳祚)	1680-1760	문신	해행서	28.9×22.3	편지, 아드님 병에 약 3푼을 보내드립니다
0806	서명균(徐命均)	1680-1745	문신	행초서	9.7×44.7	편지, 약재는 과연 보내드리기가 어려움
0807	이익(李潁)	1681-1763	학자	초서	23×43.1	편지, 초고를 완성하지 않으니 울지 않음
0808	조상경(趙尙綱)	1681-1746	문신	초서	26.5×35	편지, 영남 유학자들이 뵈길 바람
0809	신유한(申維翰)	1681-1752	문신	해서	32×45	편지, 新曆에 쓴 세 글자에 감사드립니다
0810	신정하(申靖夏)	1681-1716	문신	해행서	21.4×23.2	편지, 几筵을 철거하여 올 곳이 없음
0811	정내교(鄭來僑)	1681-1757	시인	초서	32×19.3	시, 오연절구
0812	김재로(金在魯)	1682-1759	문신	초서	30.2×39.5	편지, 백 번 모함에도 아직 해직되지 않음
0813	김치후(金致厚)	1692-1742	문신	해행서	33.3×35.7	편지, 보낸 세 가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0814	한원진(韓元震)	1682-1751	학자	초서	23×42.2	편지, 朝紙는 열람 후 市便으로 보냄
0815	황익재(黃翼再)	1682-1747	문신	초서	20.5×32.7	편지, 咳嗽 진찰을 위해 김의원을 초청
0816	윤봉구(尹鳳九)	1681-1767	학자	해행서	31.4×42.5	편지, 禪祭의 거행 여부에 관한 의견
0817	이일제(李日躋)	1683-1757	문신	해서	31.2×49.3	시, 次三清再會聯句韻
0818	채지홍(蔡之洪)	1683-1741	학자	해행서	30.1×25.2	편지, 거취 계획을 내일 이조에 보냄
0819	이의병(李宜炳)	1683-?	문신	해행서	31.4×19	시, 명나라 謝榛의 遠別曲
0820	홍의인(洪義人)	1683-1722	문신	해행서	31.2×34.5	시, 書恩門宴韻呈尹進士案下
0821	임상덕(林象德)	1683-1719	학자	해행서	30×35.8	편지, 부친 병환으로 庄土를 검토 못함
0822	이진수(李眞洙)	1684-1732	문신	초서	30×49	편지, 庶弟가 내일 들러서 모두 진술함
0823	김진상(金鎭商)	1684-1755	문신	초서	32.3×49	편지, 이번 여행은 남의 말을 빌려 탐
0824	이현모(李顯謨)	1685-1731	문신	행초서	26.1×35.6	편지, 영감 손자가 내방하여 기뻐함
0825	이정섭(李廷燮)	1685-1774	문신	해행서	36.1×47	편지, 보낸 생선에 감사드립니다
0826	조영석(趙榮祐)	1686-1761	화가	해행서	31.2×27.5	편지, 우리나라 서화는 진함이 짧음
0827	여선장(呂善長)	1686-1742	문신	해행서	29×45.5	편지, 간관 책임을 메우기가 어려움
0828	조명교(曹命敎)	1687-1753	문신	초서	34×47.4	시, 奉送關西方伯之行(칠연율시)
0829	남유용(南有容)	1698-1773	문신	초서	26.4×46.8	편지, 가족이 모일 수 있음이 그리움
0830	권만(權萬)	1688-1749	문신	초서	21×36.4	편지, 생질녀 혼사를 논함
0831	황정(黃晷)	1689-1753	문신	해행서	32.7×44.3	편지, 軍政과 糶政으로 짬이 없음
0832	유최기(兪最基)	1689-1768	문신	해행서	28.8×29	편지, 외직 지방관에서 진흙을 고민
0833	강박(姜樸)	1690-1742	문신	해행서	29.3×18.8	편지, 陪持가 급히 지나갈 때 보냄
0834	조관빈(趙觀彬)	1691-1757	문신	해행서	31.8×45.5	편지, 조카 壽彬의 첫 벼슬자리를 구함
0835	조지빈(趙趾彬)	1691-1730	문신	해행서	33×53.4	시, 敬呈關西李按使行軒
0836	조현명(趙顯命)	1690-1752	문신	초서	29.8×47	편지, 임금께서 누차 斬點하셔 황공함
0837	유척기(兪拓基)	1691-1767	문신	초서	34.5×44.5	편지, 葬禮 물건을 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838	박문수(朴文秀)	1691-1756	문신	초서	22.1×32	편지, 筵臣의 명백하지 못함을 한탄함
0839	유엄(柳儼)	1692-?	문신	행초서	32.3×41	편지, 微稟은 일의 모양이 좋지 못함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840	이종성(李宗城)	1692-1759	문신	초서	24×40.5	편지, 僱人의 직임을 계속하길 부탁
0841	정우량(鄭羽良)	1692-1754	문신	해행서	28.6×34.8	편지, 마주 앉아 옛일을 말하며 슬퍼함
0842	조구명(趙龜命)	1693-1737	문신	해행서	28.3×41.3	편지, 濟卿의 遺事 부탁에 안타까움
0843	영조(英祖)	1694-1776	왕	해서	35.2×45.1	편지, 賜對를 하지 않음은 왕을 사랑함
0844	민우수(閔遇洙)	1694-1756	문신	해행서	32.9×48	편지, 집 혼사에 사람이 없어 왕립 비람
0845	이태중(李台重)	1694-1756	문신	해행서	31×41.4	편지, 翰林이 되지 못함을 자책함
0846	윤급(尹汲)	1697-1770	문신	초서	23.8×36.6	편지, 왕이 仁壽·仁順 물음에 답이 없음
0847	임정(任珽)	1694-1750	문신	해서	12.5×3.5	편지, 澗川의 梅竹堂에서 공손히 입서함
0848	김광수(金光遂)	1699-1770	화가	해서	21×8.5	시, 更吟一絶求和(칠언절구)
0849	이유경(李儒慶)	1747-1818	문신	초서	33.3×45.2	편지,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책망
0850	남하행(南夏行)	1697-1781	학자	예서	26.6×18.7	회호, 潛翁戲墨
0851	이천보(李天輔)	1698-1761	문신	해행서	30.7×26.5	편지, 昌陵에 封標한 곳은 임금의 뜻임
0852	윤심형(尹心衡)	1698-1754	문신	초서	26.8×36.2	편지, 병자가 있는 곳의 참혹한 광경
0853	김상익(金尙翼)	1699-1771	문신	행초서	34.5×41.5	편지, 영의정과 임시변통하여 의견 제시
0854	오원(吳瑗)	1700-1740	문신	초서	33.6×45.2	편지, 가난한 고을을 돌보는 은혜를 바람
0855	김용겸(金用謙)	1702-1789	학자	행초서	27.4×47.5	편지, 加資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0856	김원행(金元行)	1702-1772	학자	해서	28.2×35.4	편지, 閣中의 계속되는 우환을 걱정함
0857	김양행(金亮行)	1715-1779	학자	행초서	30×45.5	편지, 끝없는 학문 진보에 존경과 경탄
0858	이의철(李宜哲)	1703-1778	문신	초서	30.6×48.7	편지, 관가에서 간성 현감 장례식을 돕길
0859	이광찬(李匡贊)	1702-?	문신	해행서	28.9×44	시, 拜別仲父主西關按節行
0860	조명채(曹命采)	1700-1764	문신	해행서	32.8×52.8	시, 夜占要和(칠언율시)
0861	정하언(鄭夏彦)	1702-1769	문신	해행서	38×30	시, 칠언율시
0862	신만(申晩)	1703-1765	문신	초서	30×44.7	편지, 각종 재해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0863	김상성(金尙星)	1703-1755	문신	행초서	25×45	편지, 경복궁 벽의 불온한 글에 개탄함
0864	이창의(李昌誼)	1704-1772	문신	해행서	35×47.5	편지, 金貴泰 일을 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865	이광사(李匡師)	1705-1777	서예가	해행서	28×27.5	편지, 부친처럼 의지한 맏형 죽음에 슬픔
0866	이수일(李秀逸)	1705-1779	문신	행초서	22.5×28	편지, 혼례는 신랑이 어려 내년으로 미룸
0867	정휘량(鄭翬良)	1706-1762	문신	행초서	30.2×31.2	편지, 시험관 명단에 저를 거론하지 마시길
0868	신회(申晦)	1706-1776	문신	행초서	30×32.9	편지, 대궐 하직을 송별할 수 없어 슬픔
0869	이성중(李成中)	1706-1760	문신	행초서	26.6×28	편지, 과거급제는 도리어 한탄스러움
0870	심사정(沈師正)	1707-1769	화가	해행서	34.2×20.7	회호, 縱觀
0871	윤용(尹榕)	1708-1740	화가	해행서	31.8×16.8	편지, 관심은 달이 뜨고 해가 지는 것 뿐
0872	허필(許泌)	1709-1761	서화가	행초서	34×19.5	시, 칠언대련에서 4글자 탈락
0873	황경원(黃景源)	1709-1787	문신	초서	33.8×38.5	편지, 近列에 오래 있어 근력이 감당 못함
0874	서종급(徐宗汲)	1688-1762	문신	행초서	30.2×45.7	편지, 벼슬을 그만들은 진실로 다행
0875	이인상(李麟祥)	1710-1760	화가	해행서	29×36.4	시, 雲峰 객사에서 지은 오언고시
0876	송문흠(宋文欽)	1710-1752	서예가	전서	25.2×24.5	시, 詩經·衛風·淇輿의 제1장
0877	김시찬(金時燾)	1700-1767	문신	초서	32×40.5	편지, 歸田을 蕩條한다는 하교에 기뻐함
0878	김위재(金偉材)	1710-?	유생	해행서	24.5×21.8	편지, 程朱 학설은 평생 공부해도 모자람
0879	이상정(李象靖)	1710-?	학자	행초서	25.2×23.5	편지, 아드님이 병든 몸으로 돌아가 걱정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880	이광려(李匡呂)	1720-1783	학자	해행서	27×37.1	편지, 박연폭포를 가서 보니 상쾌함
0881	윤동섭(尹東暹)	1710-1795	문신	해행서	25.9×38.6	편지, 延諡의 은전에 영광스럽게 여김
0882	권진응(權震應)	1711-1775	문신	초서	26.7×42	편지, 송시열 遷葬 일이 결정되었음
0883	이맹휴(李孟休)	1713-1750	문신	해행서	34.8×44	편지, 黃連丸 복용 방법을 여쭙
0884	유이복(柳以復)	1653-1704	문신	해행서	26.7×45	편지, 기억하고 보낸 각종 선물에 감사
0885	김근행(金謹行)	1713-?	문신	해서	21.2×12.7	시, 奉和空色道人寄示韻
0886	김상복(金相福)	1714-1782	문신	행초서	29.2×15.6	시, 제목 中內源의 오언율시
0887	강세황(姜世晃)	1713-1791	서화가	해행서	29.7×46.8	시 贈別恩叟赴盛京(오언고시)
0888	서지수(徐志修)	1714-1768	문신	해행서	25×41	편지, 임금 은혜로 벼슬을 그만두어 기쁨
0889	이광정(李光靖)	1714-1789	학자	해행서	24.5×45.4	편지, 멀리 떨어져 합식을 못함어 슬픔
0890	이윤영(李胤永)	1714-1759	화가	해서	21.8×20.2	贊, 昭烈帝贊과 張子房贊
0891	김순택(金純澤)	1714-1787	학자	해서	23×28.8	시, 李胤永 서재에서 오언율시
0892	조운규(趙雲逵)	1714-1774	문신	해행서	33.4×45.4	편지, 按覈使로 獄事를 마치고 복명함
0893	한광회(韓光會)	1715-?	문신	초서	35.1×56	편지, 만머느리 大祥 祭需 마련이 어려움
0894	이양천(李亮天)	1716-1756	문신	해행서	28.4×14.6	시, 오언율시
0895	서명옹(徐命膺)	1716-1787	학자	초서	25.1×25.2	편지, 經筵의 대화를 대략 적어 드림
0896	김치인(金致仁)	1716-1790	문신	초서	29.2×44.8	편지, 夜筵에서 임금의 명령을 알려주길
0897	조봉진(曹鳳振)	1777-1838	문신	해행서	29.5×47	편지, 지금 흉년의 모습을 걱정함
0898	김상숙(金相肅)	1717-1792	문신	행초서	29.5×47	편지, 친척의 정겨운 이야기가 가장 기쁨
0899	오찬(吳瓚)	1717-1751	문신	해행서	23.8×18	시, 칠언율시
0900	이용휴(李用休)	1708-1782	학자	해서	26×16.5	편지, 柳璞의 花木品第는 착오가 없음
0901	송명흠(宋明欽)	1705-1768	학자	해행서	23×39.2	편지, 지방에서 백모님 부고에 슬퍼함
0902	이복원(李福源)	1719-1792	문신	행초서	27.2×39	편지, 단풍으로 종적을 못 보고 돌아옴
0903	채제공(蔡濟恭)	1720-1799	문신	초서	29.8×42.2	시, 雨坐戀明軒次餘窩(칠언율시)
0904	원인손(元仁孫)	1721-1774	문신	행초서	33×48.4	편지, 敎授로 許坪을 적임자로 천거함
0905	김중후(金鍾厚)	1721-1780	문신	해행서	22.6×28.7	편지, 형의 헛걸음에 탄식과 죄송함
0906	정범조(丁範祖)	1723-1801	문신	초서	34.5×17.6	시, 訪樊巖別墅餘窩亦至拈韻共賦
0907	김익(金燧)	1723-1790	문신	해행서	28.3×45.1	편지, 질녀의 근황이 매우 궁급함
0908	정상순(鄭尙淳)	1723-1786	문신	해행서	26.5×42.4	편지, 專城을 이루어 임금 은혜에 감사
0909	홍양호(洪良浩)	1724-1802	문신	초서	32×43.8	편지, 임금 은혜로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
0910	김시구(金耆耆)	1724-1795	문신	해행서	32.7×49.2	편지, 아드님의 요절을 위로함
0911	이성원(李性源)	1725-1790	문신	해행서	32.6×34.6	편지, 임금의 엄한 견책을 받고 변경에 감
0912	이미(李瀾)	1725-1799	문신	행초서	21.5×18	편지, 海民국의 모든 약제가 부족함
0913	조유행(曹允亨)	1725-1799	문신	해행서	24.5×28.4	시, 한유 夜歌와 왕유 鳥鳴澗
0914	서명선(徐命善)	1728-1791	문신	행초서	36.5×37	편지, 보낸 柑糖을 家廟에 올리니 감사함
0915	조경(趙敬)	1727-1789	문신	해서	34.5×43.4	편지, 죄를 용서하는 임금 명령에 황송함
0916	송환기(宋煥箕)	1728-1807	학자	해행서	25×39.9	편지,卒뫼 후에 크고 작은 제사를 지냄
0917	목만중(睦萬中)	1727-?	문신	해행서	33.5×37.5	시, 睦幼選을 송별한 칠언율시
0918	오재순(吳載純)	1727-1792	문신	해행서	27.8×22.5	편지, 선조의 문집을 빌려드림
0919	김화택(金和澤)	1728-?	문신	해서	26.3×23	시, 玄湖에서 지은 칠언율시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920	김종수(金鍾秀)	1728-1799	문신	초서	28×54.6	편지, 국가의 수령 설치는 백성을 위함
0921	윤사국(尹師國)	1728-1809	문신	해행서	32.6×40	편지, 보낸 세 가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0922	이보온(李普溫)	1728-?	문신	해행서	26.2×38	편지, 옛 서원에서 청풍명월을 생각함
0923	신광수(申光洙)	1712-1775	문신	초서	27×36.2	편지, 바쁜 공무와 우환으로 근심함
0924	정재원(丁載遠)	1730-1792	문신	해행서	31.4×43.6	편지, 동쪽 변경을 지키는 수고를 위로
0925	황운조(黃運祚)	1730-1800	서예가	초서	23.5×29.5	題跋, 중국 여러 제발을 옮김
0926	홍대용(洪大容)	1731-1783	학자	해행서	31×36.1	詩序, 寄題雲山書屋詩并小序
0927	나열(羅烈)	1731-1803	문신	해행서	22×51.4	편지, 명나라 杜冀龍의 江南春圖를 소개
0928	성대중(成大中)	1732-1812	학자	행초서	29.7×50.7	편지, 서울로 가신다는 계획을 도움
0929	이한진(李漢鎭)	1732-?	서예가	전서	26.7×56.8	시, 두보의 古栢行을 씀
0930	신대우(申大羽)	1735-1809	문신	해서	14.4×35.8	시, 惡韻을 만난 오언고시
0931	이일운(李日運)	1736-1805	문신	초서	28×46.4	편지, 官庫가 혼란하고 어려움
0932	이조원(李祖源)	1735-1806	문신	초서	31.5×44.5	편지, 아과 누워 형 생각에 문안드립니다
0933	김노진(金魯鎭)	1735-1788	문신	초서	37.9×46	편지, 鄭友의 요절에 애석함
0934	박지원(朴趾源)	1737-1805	학자	행초서	34.8×50.3	편지, 魚景國의 죽음을 애도함
0935	정종로(鄭宗魯)	1738-1816	학자	행초서	19.6×36	편지, 수정한 화답시를 보여주길 바람
0936	이언진(李彦鎭)	1740-1766	시인	해행서	22×9.6	시, 자서시 칠언절구
0937	이영익(李令翊)	1740-?	학자	전서	27.4×15.9	휘호, 四言(坐待禪僧, 眠留醉客)
0938	이덕무(李德懋)	1741-1793	학자	해서	20.4×47.5	편지, 학문의 발전은 헤아릴 수 없음
0939	이가환(李家煥)	1742-1801	학자	해서	29.1×53	묘지명, 李威休墓誌銘
0940	이정운(李鼎運)	1743-?	문신	초서	27×44.3	편지, 齋咨官의 諺札을 보고 평안함
0941	최북(崔北)	1720-1769	화가	해행서	21.2×15.5	휘호, 妙在枝幹
0942	김좌두(金佐斗)	1744-?	서예가	해행서	26.9×15	시, 두보의 秋興八首 중 제5수
0943	이충익(李忠翊)	1744-1816	학자	행초서	28.5×38.7	편지, 糶穀을 받을 때 옷돈이 필요함
0944	이시수(李時秀)	1745-1821	문신	해행서	32.3×36.8	편지, 보낸 다섯 가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0945	김두열(金斗烈)	1746-?	서예가	해행서	26.3×42.7	시, 오언율시
0946	이승운(李升運)	1746-?	문신	초서	21.2×37.4	편지, 한때 소식 막혀 그림고 답답함
0947	이익운(李益運)	1748-1817	문신	초서	27.6×23.2	편지, 하인 6인을 보낼 수 있음
0948	유득공(柳得恭)	1748-1807	학자	해행서	16.4×17.2	편지, 趙處士를 송별한 오언율시
0949	박제가(朴齊家)	1750-1805	학자	해행서	23×31.6	시, 絕句一頁呈敬菴先生文几
0950	홍의영(洪儀泳)	1750-1815	문신	해행서	32.8×49.7	편지, 朱書筭疑를 비로소 대강 마침
0951	정조(正祖)	1752-1800	왕	해행서	34.3×35.3	편지, 풍년에 斗 대신 石으로 보냄
0952	서미수(徐美修)	1752-?	문신	해행서	28×35.7	시, 和呈歸樂窩(칠언율시)
0953	이서구(李書九)	1754-1825	문신	예서	28.6×40.9	편지, 치밀치 않은 글을 지적해줌
0954	김낙서(金洛瑞)	1757-?	여향인	해행서	26.7×18.7	시, 宋聖訥을 송별한 칠언절구
0955	홍의호(洪義浩)	1758-1826	문신	해행서	20.8×29.6	시, 金富弼께 드린 칠언율시
0956	천수경(千壽慶)	1758-1818	여향인	해서	32.4×43.1	편지, 우리 閭巷人은 서로 철차탁마
0957	장혼(張混)	1759-1828	여향인	해서	32.1×42.5	叙, 문학의 사귀은 평생 갈 수 있음
0958	남공철(南公轍)	1760-1840	문신	초서	34×47	편지, 사직상소의 윤희를 얻지 못함
0959	서영보(徐榮輔)	1759-1816	문신	행초서	28.3×26	편지, 祭官으로 차출됨을 걱정함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0960	유한지(兪漢芝)	1760-?	서예가	전서	15.4×9.2	휘호, 淸賞
0961	김홍도(金弘道)	1745-?	화가	해행서	27.1×19	휘호, 畫逐高風向北飛
0962	지덕구(池德龜)	1760-?	여향인	해행서	32.3×48.6	시, 訪王步庚不遇(칠언율시)
0963	정약용(丁若鏞)	1762-1836	학자	해서	26×32.4	시, 樊翁宅讌集見招不赴
0964	조수삼(趙秀三)	1762-1849	여향인	해서	39×52.3	시, 金興根을 송별한 칠언율시
0965	이상황(李相瓚)	1763-1841	문신	행초서	39×52.3	편지, 어려운 관직을 맡아 민망함
0966	서유구(徐有槩)	1764-1845	학자	해행서	30.3×42.2	편지, 재해를 조사하는 일로 근심함
0967	김조순(金祖淳)	1765-1832	문신	해행서	36×47.1	편지, 아들은 해직되어 꾀박받지 않음
0968	김노경(金魯敬)	1766-1837	문신	해행서	24.3×46.8	편지, 며칠 후 筆洞을 갈 때 방문함
0969	이익회(李翊會)	1767-1843	문신	해행서	29.6×37.3	편지, 當歸酒와脯를 보내드림
0970	이복현(李復鉉)	1767-1853	시인	해행서	23×32.2	시, 碧蘆舫에서 읊은 2수
0971	박기수(朴耆壽)	1767-?	문신	해행서	23.2×22.8	시, 2수의 칠언율시
0972	임득명(林得明)	1767-?	여향인	해서	18×10.5	시, 石鼓文의 첫머리
0973	신위(申緯)	1769-1845	서화가	해서	23×21	시, 洪顯周에게 화답한 시
0974	신재식(申在植)	1770-?	문신	해행서	23×27	시, 任百淵에게 보낸 칠언절구
0975	성해응(成海應)	1760-1839	학자	해행서	31.3×45.5	편지, 증손자 과거급제에 기쁨
0976	이양연(李亮淵)	1771-1853	문신	해행서	28×34.6	편지, 인품·학문을 士林이 의지
0977	서기수(徐淇修)	1771-1834	문신	해행서	23×22.5	시, 洪顯周에게 화답한 시
0978	박윤묵(朴允默)	1771-1849	문신	해행서	20.5×27	시, 벽에 붙이고 경계한 시
0979	현재덕(玄在德)	1771-?	서예가	해행서	27.4×37.7	시, 金稚能께 안부를 전한 시
0980	조광진(曹匡振)	1772-1840	서예가	해서	26×13.5	휘호, 由唐入晉集古字
0981	노운적(盧允迪)	1772-?	여향인	해서	31.2×21	叙, 처세는 五倫으로 세움
0982	박종훈(朴宗薰)	1773-1841	문신	행초서	31.8×42.8	편지, 모내기할 비가 내려 기쁨
0983	송상래(宋祥來)	1773-?	화가	해행서	22.3×40	휘호, 烹葵邀上客 看竹到貧家
0984	김계온(金啓溫)	1773-1823	문신	해행서	31×54	序, 泛湖帖序
0985	이노집(李魯集)	1773-?	문신	해서	22.9×26.9	시, 칠언절구
0986	이지화(李至和)	1777-?	서예가	초서	27×18.5	시, 臨溪漫興(칠언절구)
0987	홍석주(洪奭周)	1774-1842	문신	해행서	30.7×49.8	편지, 세 가지 선물에 감사드림
0988	홍경모(洪敬謨)	1774-1851	문신	해행서	37×50.2	편지, 진흙 행정 마무리에 안심
0989	홍직필(洪直弼)	1776-1852	학자	초서	36×47.5	편지, 論語는 학자의 근본 바탕임
0990	이지연(李止淵)	1777-1841	문신	해행서	34×45.7	편지, 行部の 업무로 골치 아픔
0991	이광문(李光文)	1778-1838	문신	행초서	37.5×46.7	편지, 이 글로 객지 수심을 씻길
0992	조인영(趙寅永)	1782-1850	문신	행초서	34.3×37	편지, 보낸 삼과 녹용에 감사드림
0993	권돈인(權敦仁)	1783-1859	서화가	해행서	33.8×51.2	편지, 무더위 국방업무를 위로함
0994	김도희(金道喜)	1783-1860	문신	해행서	31.5×42	편지, 年運이 안 맞아 新卜이 낭패
0995	김유근(金迪根)	1785-1840	문신	행초서	31.3×38.3	편지, 보낸 민어와 조기에 감사드림
0996	김정희(金正熙)	1786-1856	서예가	해행서	29.6×43.7	편지, 紙筆에 곧 그림을 그려 보냄
0997	정학연(丁學淵)	1783-1859	시인	해행서	22.1×43.5	편지, 산속 추위 고생에 마음이 쓰임
0998	윤정현(尹定鉉)	1793-1874	문신	해행서	23.8×36.8	시, 志感用前韻奉呈游觀相公
0999	의순(意恂)	1786-1866	승려	해행서	27.8×25.2	시, 石秋를 위한 오언율시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1000	전승조(全承祖)	1787-?	서화가	예서	15×21.5	歌, 예서로 쓴 醒世歌
1001	김명희(金命喜)	1788-1857	서예가	해행서	24.2×53.5	시, 慈雲居士를 위한 5수 중 2수
1002	홍종응(洪鍾應)	1783-?	문신	해행서	26.2×33	시, 칠언절구
1003	홍재철(洪在喆)	1799-1870	문신	해행서	25.2×33.2	시, 又以一自道語敢供兩閣下博粲
1004	신석희(申錫禧)	1808-1873	문신	해행서	29.2×36.6	편지, 咨草의 바른 가르침을 구함
1005	이시원(李是遠)	1790-1866	문신	행초서	29×37.3	편지, 蠅頭細字를 보니 地行仙임
1006	순조(純祖)	1790-1834	왕	해서	36.1×41	휘호, 孝親忠君愛國
1007	이기복(李基福)	1791-?	여향인	해행서	16.2×21.5	시, 宋吉甫和陶詩의 앞부분
1008	유최진(柳最鎭)	1791-?	서화가	초서	21.5×22.7	시, 청나라 陳浩의 시를 씀
1009	정원용(鄭元容)	1783-1873	문신	행초서	32.5×46.8	편지, 黃岡 樽席에서 어릴 적을 회상
1010	이정신(李鼎臣)	1792-1858	문신	초서	24.5×33.3	편지, 인편이 있어 몇 자로 안부
1011	숙선옹주 (淑善翁主)	1792-1836	정조 둘째딸	해서	13×2	시, 오언절구
1012	홍현주(洪顯周)	1793-1865	부마	해행서	22.5×21.3	시, 칠언율시 2수
1013	김양기(金良驥)	1792-?	화가	해행서	22.8×32	시, 霏瓊의 題翠禽畫 제화시
1014	조계승(趙啓昇)	1794-?	문신	해행서	23×26.7	시, 칠언절구
1015	최헌수(崔憲秀)	1792-?	여향인	예서	23×27	시, 6구절의 오언시
1016	김상희(金相喜)	1794-1861	서예가	해행서	23.8×46.4	시, 慈雲居士를 위한 칠언율시 2수
1017	조두순(趙斗淳)	1796-1870	문신	해행서	32.7×35.5	시, 題游觀相公郊居(칠언율시)
1018	김흥근(金興根)	1796-1870	문신	행초서	34.6×41	편지, 홀로 누각에 기대어 생각함
1019	김좌근(金左根)	1797-1869	문신	해행서	27×41.2	시, 칠언절구 2수
1020	허전(許傳)	1797-1886	문신	초서	29.3×41.2	편지, 世稿를 보내니 조상을 공경함
1021	조희룡(趙熙龍)	1789-1866	화가	해행서	16.2×44	편지, 李基福의 은자 기상을 내가 아내
1022	이정민(李鼎民)	1800-?	문신	해행서	28.7×19.5	시, 율곡이 퇴계를 알현한 獻詩
1023	서홍순(徐弘淳)	1798-1876	서예가	초서	43.5×23.5	시, 王維의 시로 誤字가 있음
1024	이삼만(李三晩)	1770-1845	서예가	해행서	25.5×51.2	휘호, 趾窩
1025	김영면(金永冕)	1800-1829	여향인	해행서	26.5×19	시, 槐陰臺與趙德章共賦
1026	금파(錦波)	1800-?	승려	해행서	23.5×8.5	시, 송별시를 넣었던 봉투
1027	조병구(趙秉龜)	1801-1845	문신	해행서	33.5×43.2	편지, 세 가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1028	김문근(金汶根)	1801-1863	문신	초서	27×31.5	편지, 눈 오는 추위의 국방업무
1029	이종우(李鍾愚)	1801-?	서화가	해행서	17.5×51.7	시, 扇面에 쓴 칠언율시
1030	송주헌(宋柱獻)	1802-?	문신	해행서	25.7×27.4	편지, 남종화의 粉鉛法
1031	임백연(任百淵)	1802-?	문신	해행서	22.2×26.6	시, 칠언고시
1032	이상적(李尙迪)	1804-1865	시인	해서	23.2×37.4	시, 金永爵 회갑을 축하하는 시
1033	조면호(趙冕鎬)	1803-1887	서예가	해행서	21.7×24.5	시, 李寅高 회갑을 축하하는 시
1034	이남식(李南軾)	1803-1878	서화가	예서	21.8×26	시, 이백의 月下獨酌
1035	신응조(申應朝)	1804-1899	문신	초서	22.8×34.5	편지, 지금 글씨는 먹칠만 한 것
1036	신석우(申錫愚)	1805-1865	문신	초서	36.4×52.4	편지, 함부로 벌금을 징수함은 부당
1037	박규수(朴珪壽)	1807-1876	문신	해행서	30.7×47.7	편지, 승정원에 제수되어 황송함
1038	정대림(丁大林)	1807-?	문신	해행서	27.3×47.5	편지, 노친의 甄復 추천을 부탁함
1039	강진(姜潛)	1807-1858	서화가	해행서	23.5×50.3	시, 칠언율시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1040	정지윤(鄭芝潤)	1808-1858	여향인	해행서	30×42.6	시, 칠언율시
1041	신정왕후조씨 (神貞王后趙氏)	1808-1890	익종의 妃	한글 흘림	20.5×29.6	편지, 대전 침수(寢睡)를 태령(泰寧) 하게 하시옵시다
1042	익종(翼宗)	1809-1830	왕	해행서	22×42	편지, 左將 후보자로 許溟을 추천
1043	신명연(申命衍)	1809-?	화가	해행서	23.1×54.5	편지, 법도와 기운이 충만한 聽秋圖
1044	김유연(金有淵)	1819-1887	문신	행초서	25.6×42.7	편지, 곡식 4천 석은 放料로 사용
1045	허련(許鍊)	1809-1892	화가	해행서	20.2×23	시, 칠언율시
1046	조석우(曹錫雨)	1810-?	문신	행초서	21.3×28.5	편지, 여러 가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1047	남계우(南啓宇)	1811-1888	화가	행초서	23×44.5	편지, 아들과 종형제 과거급제를 축하
1048	심동근(沈東瑾)	1810-?	문신	해행서	33.9×44.8	시, 칠언과 오언시
1049	김상현(金尙鉉)	1811-1890	문신	해행서	24.1×37.9	시, 徐承輔의 '遲梅'를 次韻
1050	이유원(李裕元)	1814-1888	문신	해행서	30.3×46.5	편지, 陞資의 은혜와 가친의 還朝
1051	임헌회(任憲晦)	1811-1876	학자	초서	18×22.5	편지, 밤낮으로 아파 죽을까 걱정함
1052	서승보(徐承輔)	1814-1877	문신	예서	35×11	휘호, 賞心樂事
1053	홍순목(洪淳穆)	1816-1884	문신	해행서	25.3×40.8	편지, 처음 맡는 정사에 점차 피곤함
1054	신헌(申櫛)	1810-1884	무신	행초서	23.2×40.2	편지, 군인과 백성이 한가로워 위로됨
1055	서미순(徐眉淳)	1817-?	문신	해행서	23×39.5	시, 3수의 칠언절구
1056	이하응(李晙應)	1820-1898	왕족	해행서	22.6×38	편지, 異樣船 출몰에 환란이 눈에 선함
1057	김익용(金益容)	1820-?	문신	해행서	25.5×51	편지, 金秀敦을 발탁해 여론에 부응
1058	이만용(李晩用)	1792-?	문신	해행서	23×55.5	시, 申緯 시를 차운한 오언고시
1059	신헌구(申獻求)	1823-?	문신	해행서	25.4×44.3	시, 金允植께 드린 칠언율시
1060	소휘면(蘇輝冕)	1814-1889	학자	해행서	26.2×39.8	편지, 시호 시기를 연기함에 개탄함
1061	전기(田琦)	1825-1854	화가	초서	23×13.9	편지, 보낸 빈 대련에 그림을 보냄
1062	조인승(曹寅承)	1842-1896	문신	해서	22×24.6	시, 唐繼武가 보낸 시에 次韻함
1063	헌종(憲宗)	1827-1849	왕	예서	20.1×24.5	標題, 8개의 香蘇山館詩鈔
1064	조병세(趙秉世)	1827-1905	문신	초서	24.7×48.3	편지, 돌아가지 못해 公私로 걱정됨
1065	어재연(魚在淵)	1823-1871	무신	해행서	26×40.2	편지, 伏閣하니 신속한 처리를 바람
1066	홍기주(洪岐周)	1829-?	문신	해행서	27.5×41.3	시, 謹次 戚叔鄭丈甲筵韻
1067	강위(姜瑋)	1820-1884	학자	해행서	31.8×41.4	시, 陳樹棠께 드린 칠언절구
1068	오경석(吳慶錫)	1831-1879	서화가	해행서	25.7×12	편지, 禮器碑로 용필법을 깨달았음
1069	김석준(金奭準)	1831-1915	시인	해행서	27.5×21.8	시, 戲作 칠언절구
1070	서상우(徐相雨)	1831-1903	문신	해행서	25.6×32.8	편지, 火輪船이 인천항에 정박함
1071	정학교(丁學教)	1832-1914	서화가	초서	22.5×42	편지, 배편으로 부칠 옷 농을 보내길
1072	김기수(金綺秀)	1832-?	문신	해행서	16×49	시, 扇面에 쓴 칠언율시
1073	신정희(申正熙)	1833-1895	무신	해행서	22.3×35.5	편지, 보낸 扇竹에 감사드립니다
1074	민태호(閔台鎬)	1834-1884	문신	해행서	23.2×40.5	편지, 邑務의 노고에 도리어 걱정됨
1075	김윤식(金允植)	1835-1922	학자	해행서	22.5×15.5	편지, 작은 고을이 출발점인 셈
1076	오경림(吳慶林)	1835-?	서화가	해서	12.1×9.2	시, 칠언절구
1077	김성근(金聲根)	1835-1919	문신	해행서	30.3×40.2	시, 黃鉞 二十四畫品の 蒼潤
1078	이희수(李喜秀)	1836-1909	서화가	해행서	28×15	시, 오언절구
1079	변원규(卞元圭)	1837-?	문신	해행서	23.8×20	편지, 입궐해 왕실 경사에 기쁨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1080	윤태준(尹泰駿)	1839-1884	문신	행초서	25×44.3	편지, 有司로 재상 명령을 올림
1081	전우(田愚)	1841-1922	학자	초서	24.8×26	편지, 學規를 베껴 실천하기 바람
1082	김홍집(金弘集)	1842-1896	문신	행초서	26×26	편지, 대감 말씀에 公文이 필요하랴
1083	권동수(權東壽)	1842-?	문신	해행서	31.5×43.5	시, 칠언절구
1084	윤근(尹困)	1842-?	서예가	초서	19.2×53	편지, 扇面에 쓴 난정서 논함
1085	이조연(李祖淵)	1843-1884	문신	초서	26×42	편지, 내일 袁世凱와 꽃구경 약속
1086	양기훈(楊基薰)	1843-?	화가	해행서	27.8×7	휘호, 黃花節紫蟹肥
1087	유한익(劉漢翼)	1844-1923	서예가	해서	34.2×23.5	銘, 張繹 좌우명을 베껴 씀
1088	황윤명(黃允明)	1848-?	여향인	해행서	25.1×18.4	편지, 정무를 보시느라 뵐 수 없음
1089	이재면(李載冕)	1845-1912	왕족	해행서	25×24	편지, 日函을 報聘大使가 가져갈 것
1090	조영하(趙寧夏)	1845-1884	문신	해행서	22.5×55.2	편지, 周玉山の 초대로 가지 못함
1091	김가진(金嘉鎭)	1846-1922	문신	행초서	26.1×57.5	편지, 謙齋의 白雲洞圖는 至寶임
1092	정헌시(鄭憲時)	1847- ?	문신	해행서	22.8×18.8	시, 玉芙蓉贊(사언고시)
1093	성기운(成岐運)	1847-?	문신	해행서	25.5×23	편지, 政府에 들어와 무슨 수작
1094	어윤중(魚允中)	1848-1896	문신	해행서	25.7×51.7	편지, 동학이 성하여 갈 수 없음
1095	이도재(李道宰)	1848-1909	문신	행초서	23.7×39.5	편지, 免職의 윤허를 청함
1096	박영교(朴泳敎)	1849-1884	문신	행초서	28.3×44	편지, 順天府에서 남긴 사랑이 큼
1097	김택영(金澤榮)	1850-1927	학자	해행서	24.3×29	편지, 士民必知 서문을 부탁함
1098	김옥균(金玉均)	1851-1894	문신	해행서	26×14.5	시, 부탁한 2수의 칠언절구
1099	신기선(申箕善)	1851-1909	문신	해행서	24×25.8	편지, 洪寢 상량문을 製述함
1100	강진희(姜璉熙)	1851-1919	서화가	예서	24.6×24.5	편지, 청나라 郭毓圻의 수장품
1101	지창한(池昌翰)	1851-1921	서화가	해행서	25.6×39.5	시, 칠언율시
1102	고종(高宗)	1851-1919	왕	해서	22.4×30.4	편지, 큰비의 피해를 자세히 살핌
1103	이건창(李建昌)	1852-1898	문신	행초서	23.5×30.5	편지, 魚軍容帖 임서와 칠언절구
1104	정대유(丁大有)	1852-1927	서화가	예서	32×19	시, 吳世昌계 曹全碑체로 써 줌
1105	장박(張博)	1849-1921	문신	해행서	26.3×18	휘호, 和衷共濟
1106	지운영(池雲英)	1852-1935	화가	해행서	15.5×48	시, 扇面에 四虛浮浮頌을 씀
1107	윤용구(尹用求)	1853-1939	서화가	해행서	34.5×32	臨書, 鄭燮의 墨蘭 題辭를 임서
1108	박태영(朴台榮)	1854-?	문신	해행서	26.5×32	편지, 지금의 형세는 진퇴양난임
1109	홍영식(洪英植)	1855-1884	문신	해행서	24.7×43	편지, 연말 납세 독촉에 걱정됨
1110	김응원(金應元)	1855-1921	서화가	예서	26.3×18	시, 吳世昌계 써 준 칠언율시
1111	조희연(趙羲淵)	1856-1915	문신	해행서	26.3×18	시, 吳世昌계 써 준 오언절구
1112	문유용(文有用)	1856-?	내시	해행서	21.8×27	편지, 보낸 사연에 마음이 탐
1113	이기(李琦)	1856-?	문신	해행서	24.5×24.5	편지, 正局目錄을 보내드림
1114	현채(玄采)	1856-1925	학자	초서	24.2×33.7	편지, 國事가 형에 달렸는가?
1115	유길준(兪吉濬)	1856-1914	문신	해행서	26.3×18	시, 吳世昌계 써 준 오언절구
1116	이완용(李完用)	1858-1926	문신	해행서	25×14	편지, 會同으로 관청에서 기다림
1117	박제순(朴齊純)	1858-1916	문신	해행서	18.3×44.2	편지, 제 문집을 成健齋에 보냄
1118	윤효정(尹孝定)	1858-1939	문신	해행서	24×26.5	편지, 好男兒의 일을 축하드림
1119	서광범(徐光範)	1859-1897	문신	행초서	26.2×20.5	편지, 임금 은혜로 복직을 축하

번호	작가	생몰	신분	서체	크기(cm)	분류, 내용
1120	이준(李儁)	1859-1907	열사	해행서	24.3×34.5	시, 오언절구
1121	이용백(李蓉白)	1859-?	여향인	해행서	25.5×43.5	편지, 고향이 북처럼 커져 통증
1122	민영익(閔泳翊)	1860-1914	문신	해행서	24.6×40.3	편지, 회답에 승산이 없어 걱정
1123	민영환(閔泳煥)	1861-1905	문신	해행서	26×28.8	편지, 袁慰廷에 답하라는 임금 뜻
1124	박영호(朴泳孝)	1861-1939	부마	해행서	25.3×41.5	편지, 보낸 부채와 편지지에 감사
1125	손병희(孫秉熙)	1861-1922	종교가	해서	17×51.2	휘호, 氣化
1126	권동진(權東鎭)	1861-1947	정치가	행초서	26.2×18	시, 두보의 茅屋爲秋風所破歌
1127	안중식(安中植)	1861-1919	화가	해행서	28.4×16.7	시, 西湖途中(칠언율시)
1128	조중응(趙重應)	1860-1919	문신	해행서	26.2×18	휘호, 論語·子罕의 구절
1129	윤치호(尹致昊)	1865-1945	문신	행초서	23.8×24	편지, 1897년 8월 13일은 紀元節
1130	윤희구(尹希求)	1867-1926	학자	해행서	18×33.1	편지, 대마도 종이에 조선 인장
1131	이진호(李軫鎬)	1867-1943	무신	해행서	26.3×18	시, 吳世昌께 써 준 칠언절구
1132	이준용(李埈鎔)	1870-1917	문신	해서	26.4×18	휘호, 일본 房州에서 吳世昌께
1133	김돈희(金敦熙)	1871-1937	서예가	해서	27.2×23.5	記, 東國史를 베껴서 吳世昌께
1134	김규진(金圭鎭)	1868-1933	서화가	초서	34×11.5	휘호, 칠언 대련
1135	민형식(閔衡植)	1875-1947	문신	해행서	31.9×43.5	시, 吳世昌 81壽에 칠언율시
1136	이도영(李道榮)	1884-1933	서화가	해행서	18.5×50.5	편지, 티끌이 없어 수양에 좋음

신분	문신	학자	서예가	서화가	화가	시인	왕실	무신	여향인	기타	총계
	870	99	32	25	23	20	16	15	13	23	1,136
서체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한글	총계
	4	12		101		728		290		1	1136
분류	편지	시	휘호	서	명(銘)	제발	기타	총계			
	741	358	17	6	3	2	9	1136			

『근묵(槿墨)』의 목록 1책과 본문 34책에 수록한 필적과 인물은 다음과 같다.

- 목록 : 성명(姓名)·자호(字號)·향관(鄉貫)·시대(時代)·직업(職業)·계통(係統) 등을 기록함
- 제01책, 36점 : 정몽주(鄭夢周, 1337-1392)에서 이현보(李賢輔, 1467-1555)
- 제02책, 43점 : 어득강(魚得江, 1470-1550)에서 원혼(元混, 1505-1897)
- 제03책, 37점 : 정렴(鄭礪, 1505-1549)에서 김수일(金守一, 1528-1583)
- 제04책, 37점 : 최황(崔滉, 1529-1603)에서 이수봉(李壽鵬, 1537-?)
- 제05책, 32점 : 윤근수(尹根壽, 1537-1616)에서 유희경(劉希慶, 1545-1636)
- 제06책, 35점 : 김응남(金應南, 1546-1598)에서 강인(姜綏, 1555-1634)
- 제07책, 32점 : 이항복(李恒福, 1556-1618)에서 김덕함(金德誠, 1562-1636)
- 제08책, 30점 : 기자헌(奇自獻, 1562-1624)에서 유역(柳湜, 1567-1624)
- 제09책, 39점 : 이홀(李屹, 1568-1630)에서 권도(權濤, 1575-1644)
- 제10책, 39점 : 유희량(柳希亮, 1575-1628)에서 김광욱(金光煜, 1580-1656)

- 제11책, 40점 : 김육(金堉, 1580-1658)에서 허후(許厚, 1588-1661)  
제12책, 38점 : 신익성(申翊聖, 1588-1661)에서 이기조(李基祚, 1595-1653)  
제13책, 40점 : 이경석(李景奭, 1595-1671)에서 박서(朴遂, 1602-1653)  
제14책, 39점 : 이완(李浣, 1602-1674)에서 정시성(鄭始成, 1608-1686)  
제15책, 32점 : 오달제(吳達濟, 1609-1637)에서 조운석(趙胤錫, 1615-1664)  
제16책, 28점 : 이정영(李正英, 1616-1686)에서 이요(李潛, 1622-1658)  
제17책, 32점 : 홍주국(洪柱國, 1623-1680)에서 조경망(趙景望, 1629-1694)  
제18책, 32점 : 윤증(尹拯, 1629-1694)에서 유지발(柳之發, 1633-1705)  
제19책, 32점 : 김필진(金必振, 1635-1705)에서 심익현(沈益顯, 1641-1683)  
제20책, 33점 : 권상하(權尙夏, 1641-1721)에서 이정(李觀, 생물 미상)  
제21책, 30점 : 최규서(崔奎瑞, 1650-1735)에서 권중경(權重經, 1658-1728)  
제22책, 28점 : 이이명(李頤命, 1658-1728)에서 임수간(任守幹, 1665-1721)  
제23책, 28점 : 조정강(趙正綱, 1666-?)에서 심택현(沈宅賢, 1674-1736)  
제24책, 30점 : 조태억(趙泰億, 1675-1728)에서 이진수(李眞洙, 1684-1732)  
제25책, 29점 : 김진상(金鎭商, 1684-1732)에서 이천보(李天輔, 1698-1761)  
제26책, 30점 : 윤심형(尹心衡, 1698-1754)에서 윤동섭(尹東暭, 1710-1795)  
제27책, 29점 : 권진응(權震應, 1711-1775)에서 김시구(金蓍耆, 1724-1795)  
제28책, 24점 : 이성원(李性源, 1725-1790)에서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제29책, 28점 : 정종로(鄭宗魯, 1738-1816)에서 지덕구(池德龜, 1760-?)  
제30책, 27점 :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서 홍직필(洪直弼, 1776-1852)  
제31책, 37점 : 이지연(李止淵, 1777-1841)에서 금파(錦波, 1800-?)  
제32책, 33점 : 조병구(趙秉龜, 1801-1845)에서 신헌구(申獻求, 1823-?)  
제33책, 37점 : 소휘면(蘇輝冕, 1814-1889)에서 박영교(朴泳教, 1849-1884)  
제34책, 40점 : 김택영(金澤榮, 1850-1927)에서 이도영(李道榮, 1884-1933)

이를 보면, 책마다 24~40점씩 34책에 모두 1,136점을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표의 분류에 의하면, 신분은 문신·학자·서예가·서화가·화가·시인·왕실·무신·여향인·기타이고, 이 중에서 문신(77%)·학자(8.7%)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문신은 과거급제한 문관(文官)의 신하이고, 이 중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거나 유학자·성리학자·실학자·양명학자로 더 유명한 분들은 학자로 분류하였다. 왕실(王室)은 왕의 집안으로 왕(4)·종실(4)·부마(3)·왕족(2)·왕후(1)·왕자(1)·옹주(1) 등을 포괄한다. 여향인(閩巷人)은 선조 때부터 시작된 중인(中人)·서얼(庶孽)·서리(胥吏) 출신의 하급관리와 평민의 시인·문인·서화가를 가리킨다. 기타는 의병장(10)·승려(6)·민족대표(독립운동가이면서 종교가·정치가 2)·유의(儒醫, 1)·유생(儒生, 1)·효자(1)·내시(中官, 1)·열사(烈士, 1) 등을 포괄한다.

서체는 행서(64%)·초서(26%)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데, 구분이 어렵다. 행서는 서체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정해진 형체나 일정한 서사 기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서 필의가 많으면 해행서(楷行書)라 일컬으니 왕희지의 <난정서(蘭亭序)>가 대표적이고, 행서에 초서 필의가 많으면 행초서(行草書)라 일컬으니 안진경의 <제질고(祭姪稿)>가 대표적이다. 도표의 분류에서는 이에 따라 행서를 해행서(535)와 행초서(193)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인의 문신이나 학자는 전문 서예가와 달리 편지나 시를 쓸 때 서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행서에서도 해서·행서·초서를 자유롭게 섞었기 때문에 분명한 서체의 구분이 쉽지 않다. 또 행초서와 초서는 객관적 구분이 어려워 주관적 판단에 맡겨 결정하므로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분류는 편지·시·회호·서·명(銘)·제발·기타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편지(65%)·시(31%)가 96%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편지는 짧은 글로 서간(書簡)·서한(書翰)·서찰(書札)·서신(書信)·수찰(手札)·간찰(簡札)·찰한(札翰)·척한(尺翰)이라고도 한다. 시는 평측(平仄)·용운(用韻)·대구(對句) 등에 엄격한 규칙이 있는 절구(絕句)·율시(律詩)의 근체시(近體詩)와, 평측(平仄)이나 구수(句數)의 제한이 없는 고시(古詩, 古體詩)를 포괄한다. 서는 서(序, 2)·서(叙, 2)·소서(小序, 1)·시서(詩序, 1) 등을 포괄한다. 명(銘)은 중명(鍾銘, 1)·좌우명(座右銘, 1)·묘지명(墓誌銘, 1) 등을 포괄한다. 기타는 기(記, 2)·부(賦, 2)·임서(臨書, 1)·사(詞, 1)·가(歌, 1)·표제(標題, 1)·찬(贊, 1) 등을 포괄한다.

이상을 보면, 『근목』에 보이는 우리나라 선인의 문신·학자들은 행서·초서로 대부분 편지·시를 썼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 편지의 역할은 매우 크니, 홍명희(洪命熹, 1888~1968)가 소설 『임격정』에서 “양반은 편지로 살고, 아전은 포핍(逋欠)으로 살고, 기생은 웃음으로 살지마는……”이라고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이처럼 편지는 사대부의 일상생활과 떼어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양반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서성(書聖)이라 일컫는 왕희지의 작품은 거의 편지이고 첩학(帖學)의 종조로 여기며, 이를 법첩(法帖)이라 일컫는다. 이에 관해서는 송나라 구양수(歐陽脩, 1007~1072)가 “이른바 법첩이란 것은 그 일이 대략 모두 조문하고 애도하며, 기후와 병문안을 하고 이별을 서술하며, 소식과 안부를 물으면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보냈으니 불과 몇 줄일 뿐이다. 대개 처음 글씨에 뜻을 두지 않고 날랜 붓으로 남은 흥이 무르익으며 소쇄하게 붓을 갈겨쓰니 혹 곱기도 하고 혹 밋기도 하면서 갖가지 자태가 뜻밖에 생겨난다. 두루마리를 펼치고 편지를 펴면 찬란함이 눈에 들어와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라 까무러치게 함을 본 것 같다. 천천히 이를 보면 그 뜻과 자태가 더욱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후세 이를 얻으면 기이한 완상으로 삼고 그 사람을 생각해본다.”<sup>197)</sup>라고

197) 歐陽脩, 『集古錄跋尾·晉王獻之法帖一』卷五：“所謂法帖者，其事率皆吊哀候病，敘睽離，通訊問，施於家人朋友之間，不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편지는 처음부터 글씨에 뜻을 두지 않고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아서 다양한 자태가 나오고 필의도 무궁하다. 특히 대부분 행초서로 이를 쓰므로 더욱 풍부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이를 보면, 편지가 주를 이루는 『근묵』은 의미가 있는 서첩이라 하겠다.

## 2. 문제점

오세창이 1943년에 성첩한 『근묵(槿墨)』은 1911년에 완성한 『근역서휘(槿域書彙)』와 함께 우리나라 서예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근묵』에 수록된 글씨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진위판단, 서명과 필적의 불일치, 서명이 없는 필적의 신빙성, 대필의 필적, 1943년 성첩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위판단은 주로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국한하니, 정몽주(鄭夢周, 1337~1392)·길재(吉再, 1353~1419)·이개(李塏, 1417~1456) 등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비록 진짜로 보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짜라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성첩한 오세창의 감식안과 수록한 의도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필적은 원본을 본뜨거나 번각(飜刻)한 모본(摹本), 또는 썼다고 전해지는 전칭작(傳稱作)으로 보아야 한다. 현전하는 왕희지의 작품은 진적이 없고 모두 모본으로 전하지만 그 시대의 서풍을 볼 수 있다. 오세창이 이들 명류(名流)의 필적으로 수록한 의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하겠다.

둘째, 서명과 필적의 불일치는 안평대군 이용(李瑢, 1418~1453)이 대표적이다. 그가 썼다는 “城峻隨天壁，連連睥睨侵。浮雲連海岱，世亂戟如林。”과 “方丈三韓外，開帆駕洪濤。篙工密逞巧，利涉想蟠桃。”이라는 2수의 오언절구 시는 김육(金瑬, 1580~1658)이 1636년 성절사(聖節使)로 중국을 다녀오는 길에 당나라 시인 두보의 오언시를 집구(集句)한 것으로 제목은 각각 「산해관(山海關)」·「각화도(覺華島)」이다. 이는 『잠곡선생유고(潛谷先生遺稿)』권3 ‘집두오언절구(集杜五言絕句)’에 실려 있고, 17세기의 시이어서 안평대군 이용의 글씨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학문과 감식안이 높았던 오세창이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이용 필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그의 필의를 닮은 필적을 선택하여 서명하지 않고 ‘비해당유묵(匪懈堂遺墨)’이란 제목 아래에 수록하였다. 이는 비록 이용의 필적이 아니더라도 그의 필의를 참고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수록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서명이 없는 필적으로 맹사성(孟思誠, 1360~1438)·황희(黃喜, 1363~1452)·김수온(金守溫, 1409~1481) 등이 있는데, 이들 필적은 비록 역대 명인(名人)의 필적을 집성(集成)한다는 목적의식에서 수록하였으나 진위판단의 기준작이 없어

---

過數行而已。蓋其初非用意，而逸筆餘興，淋漓揮灑，或妍或醜，百態橫生。披卷發函，爛然在目，使人驟見驚絕。徐而視之，其意態愈無窮盡。故使後世得之，以爲奇玩，而想見其人也。”



신빙할 수 없다. 또한 박은(朴聞, 1479~1504) 필적은 “辛巳二月一日聞”이라 서명이 있지만, 지본(紙本)·필법(筆法)은 후대의 양식이고 그의 생존에 신사(辛巳, 1461·1521)라는 간지가 없어 신빙할 수 없다.

넷째, 대필의 필적으로 정언황(丁彦璜, 1597~1672)과 임수적(任守迪, 1671~1744)이 있다. 이들 필적에 의하면, 정언황은 병으로 피곤하여 천초(倩草, 대필)한다[病困倩草]고 하였으며, 사연으로 볼 때 쓴 날짜는 8월 17일이 아니라 27일인 것이다. 임수적은 눈병이 바야흐로 괴로워 천초한다[眼病方苦倩草]고 하였다. 이를 보면, 이것들은 정언황과 임수적이 직접 쓴 필적이 아니라 대필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1943년에 성첩하였기 때문에 근대유물로 인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금석·서예·회화·전각 방면에서 위대한 업적을 세운 오세창의 성첩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근대문화재로 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록한 필적이 모두 조선 시대의 것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대문화재가 아닌 동산문화재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묵』은 오세창이 수집하여 성첩하였다는 것보다는 여기에 수록된 필적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동산문화재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이외에 문제점은 세로와 가로의 순서, 가로와 세로의 순서가 섞여 있어 수록한 필적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연대순 나열에서 이숙량(李叔樑)·김부륜(金富倫)·이해수(李海壽)·김륜(金玗)·우성전(禹性傳)·최영경(崔永慶)·이일(李鎰)·김연광(金鍊光) 등 맞지 않는 것이 있고, 임제(林悌, 1550~1621)와 한희(韓懷, 1549~1587)는 연대순과 작품이 바뀌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작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편집에서의 문제이므로 『근묵』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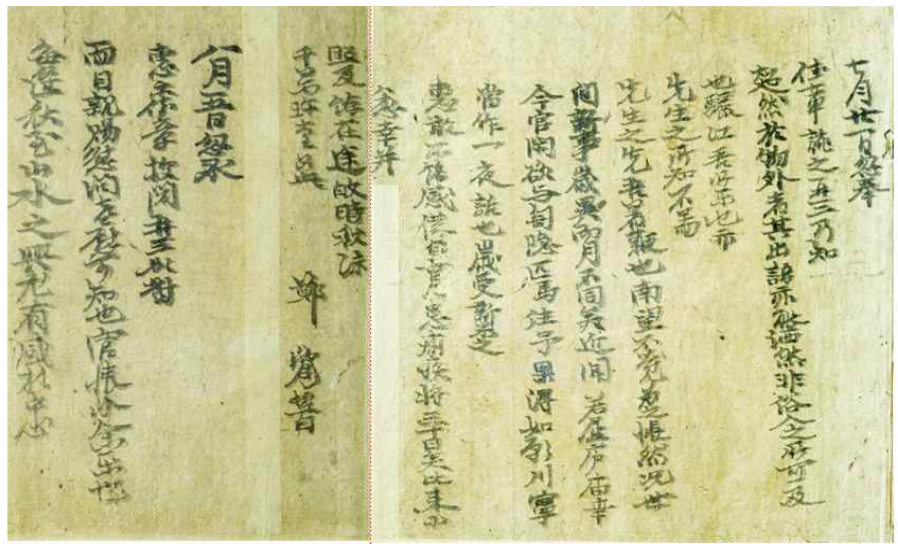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근묵』의 첫머리에 수록한 정몽주의 필적을 살펴보고 이상의 문제점들을 대변하겠다.

정몽주<sup>198)</sup>는 ‘동방 이학의 시조[東方理學之祖]’로 추앙하고, 정치적으로 고려 말기 정승의 자리에 오르며 큰일이 나더라도 사리에 맞게 처결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몽주의 필적은 『근묵(槿墨)』·『선현첩(先賢帖)』(2첩)·『성인록(成仁錄)』·『근역서회(槿域書彙)』 등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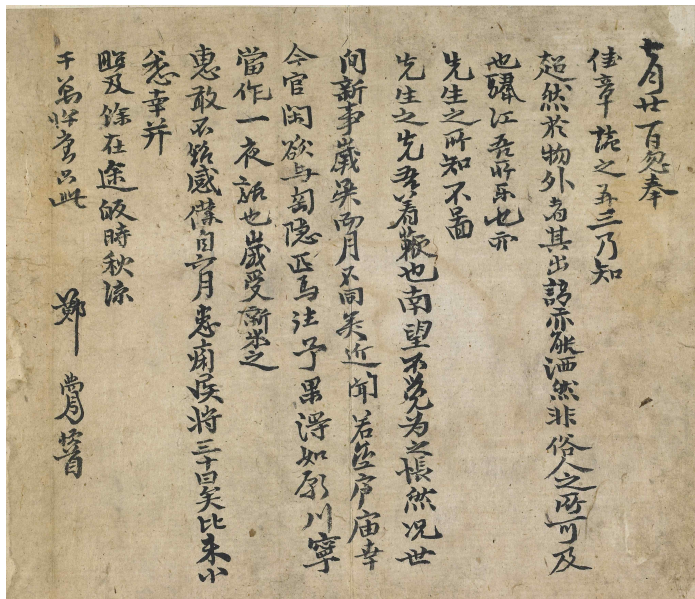
198) 정몽주(鄭夢周, 1337~1392)는 본관이 영일(迎日)이고 처음 이름은 정몽란(鄭夢蘭)·정몽룡(鄭夢龍)이며, 자는 달가(達可)이고 호는 포은(圃隱)이다.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 정습명(鄭襲明, 1095~1151)의 후손으로 부친은 정운관(鄭云權, ?~1355)이다. 1357년(공민왕 6) 감시(監試)에 합격하고 1360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예문관의 검열(檢閱)·수찬(修撰)이 되었다. 이후 낭장(郎將) 겸 함문지후(閤門祇候)·전농시승(典農寺丞)·예조정랑(禮曹正郎)·태상소경(太常少卿)·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예의사(禮儀司)·문하평리(門下評理)를 거쳐 영원군(永原君)에 봉해졌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지내고, 1389년(공양왕 1)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세워 이듬해 문하찬성사 동관도평의사사사 호조상서시사 진현관대제학 지경연춘추관사 겸 성균관대사성 영서운관사(門下贊成事同判都評議使司事戶曹尙瑞寺事進賢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領書雲館事)로 익양군충의군(益陽郡忠義君)에 봉군되고, 순충논도동덕좌명공신(純忠論道同德佐命功臣)의 호를 받았다. 1391년 인물추변도감제고관(人物推辨都監提調官)이 되어 안사공신(安社功臣)의 호를 더하였고, 이듬해 선죽교에서 이방원의 문객 조영규(趙英珪, ?~1395) 등에게 살해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주자집주(朱子集註)』에 대한 강설이 뛰어났다. 송나라 유학자 호병문(胡炳文, 1250~1333)의 『사서통(四書通)』이 전해지면서 내용이 정몽주의 강설과 맞아떨어져서 모두 탄복하였다. 그의 충절을 대변하는 「단심가(丹心歌)」로 유명하고, 문집은 『포은집(圃隱集)』이 있다.



『성인록(成仁錄)』



『선현첩(先賢帖)』



『근묵(槿墨)』



『근역서휘(槿域書彙)』

『근묵』의 해행서 ‘칠월입일첩(七月廿一帖)’은 18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여말선초선현첩(麗末鮮初先賢帖)』(이하 簡稱 『先賢帖』)에 수록한 ‘칠월입일첩(七月廿一帖)’과 ‘팔월오일첩(八月五日帖)’ 중 하나이다. 두 편지의 내용은 정몽주의 『포은집(圃隱集)·습유(拾遺)·답둔촌서(答遁村書)』권3과 이집(李集, 1327~1387)의 『둔촌잡영(遁村雜詠)』에 보인다. 7월 21일 편지에 이집이 여강(驪江)의 천녕(川寧)으로 은퇴한 사연이 나오는데, 이집의 「묘갈문(墓碣文)」에 의하면 1380년의 일이다. 따라서 이 편지는 정몽주가 1380년 7월 21일에 이집의 편지를 받고 쓴 것임을 알 수 있고, 8월 5일 편지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무렵에 썼을 것이다. 윤두수(尹斗壽, 1533~1601)가 1581년(선조 14)에 송나라 충신 문천상(1236~1282)과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네 편지를 모각한 『성인록』 끝에는 “위는 이집(李集, 1327~1387, 호는 遁村)에게 부친 수간이다[右奇遁村手簡].”라고 하였다. 여기에 수록한 네 편지는 ‘칠월입일첩(七月廿一帖)’·‘팔월오일첩(八月五日帖)’·‘별후현갈첩(別後懸渴帖)’ 세 편지와 본문은 없어지고 ‘십일월입사일(十一月廿四日)’이란 월일과 추신만 남은 편지이다. 그리고 『근역서휘』에는 정몽주의 오언고시 「용수편이공봉운(用首篇李供奉韻)」을 비단에 쓴 것이 있는데, 대부분 결락되고 12자만 남은 조각이다. 이는 오세창의 감식을 거친 것이고, 또한 조정의 금보(金寶)·옥책(玉冊)과 사찰·누관(樓觀)의 편액을 많이 썼던 정몽주의 외손 윤사국(尹師國, 1728~1809)도 인정한 것이어서 정몽주의 필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중에서 『근목』에 수록한 ‘칠월입일첩(七月廿一帖)’이 『선현첩』과 『성인록』에 보이는데,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1행	3행	4행	7행	9행	11행	13행
	七月廿	超	也	矣	作	愈	珍
『先賢帖』							
『成仁錄』							
『槿墨』							

<先賢帖·成仁錄·槿墨에 보이는 정몽주의 ‘七月廿一帖’ 서체 비교>

이 중에서 『선현첩』 글씨는 종이에 열은 먹으로 써서 용필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七月’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超’자에서 ‘召’와 ‘走’의 마지막 필획인 날획, ‘也’자에서 위로 향해 갈고리로 처리한 도필(挑筆), ‘矣’자의 먹색 변화와 ‘作’자의 가로획, ‘愈’자의 ‘心’에서 보이는 가는 필획과 무겁게 누른 점, ‘珍’자의 필획 변화 등이다. 이는 원본을 본떠 그리거나 써서 새긴 모각(摹刻)과 원본을 본뜨거나 번각(飜刻)한 글씨의 모본(摹本)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이는 오직 필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어서 『선현첩』 글씨는 손수 쓴 필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성인록』은 모각의 특징이 분명하고, 『근목』은 모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근목』 전체의 글씨를 보면, 미묘한 용필의 특징이 보이지 않고, 농담의 먹색 변화가 없으며, 자연스러운 필세(筆勢)가 나

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손수 쓴 필적을 모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본과 가짜 작품은 구별이 있다. 만약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가짜 작품을 제작한 모본은 위작(僞作) 또는 안작(贗作)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같은 모본이라도 희귀본으로 후세에 길이 전할 목적으로 제작하였다면, 이를 가짜 작품이라 보기 어렵다. 당 태종 이세민이 <난정서>의 모본을 제작한 의도는 후자에 속하니, 후세 이를 가짜 작품이라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를 보면, 정몽주의 필적이 비록 모본에 속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진위판단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감식안이 뛰어났던 오세창이 이를 첫머리에 수록한 진정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진위판단, 서명과 필적의 불일치, 서명이 없는 필적의 신빙성, 대필의 필적 등 문제점은 『근목』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에서 보이는 것이어서 전체의 가치에 비하면 옥에 티라 하겠다. 또 성첩이 1943년이라는 문제점은 수록된 필적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동산문화재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 3. 가치와 의의

『근목』은 정몽주(鄭夢周, 1337~1392)에서 이도영(李道榮, 1884~1933)까지 근 600년에 걸친 우리나라 선인 1,136점을 모은 서첩이다. 이는 서예에서의 가치와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실린 편지 내용은 다른 어떠한 종류보다 다양하고 풍부하여 여러 방면에서 가치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예에서의 가치이다.

『근목』은 1,136명이 한문과 한글을 포함한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한글 등 각종 서체를 망라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예사·서체·서예가 등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의 가치가 있다. 이는 모두 비각(碑刻)이 아니라 묵적(墨蹟)이고, 현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로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600년의 살아있는 서예사이다. 따라서 여기에 수록된 필적은 한국서예사 연구의 기준작이고, 서풍의 변화과정을 살피는 데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서체는 한문의 각종 서체와 한글을 망라하였고, 이를 쓴 사람은 왕에서 승려까지 다양한 계층을 담고 있어 ‘한국역대 서예가사전(韓國歷代書藝家辭典)’에서의 빈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이들이 쓴 글씨는 전문 서예가와 그렇지 않은 신분의 구분으로 말미암아 실용서예와 예술서예가 섞여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서예 분야에서 주목받지 않았던 여항인(閻巷人)의 필적을 상당수 수록하여 이 분야 연구의 개척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둘째, 인장사·수결·시전지(詩箋紙)의 가치이다.

인장을 날인한 인영은 박상(朴祥, 1474~1530)에서 제일 먼저 보인 이후 민형식(閔衡植, 1875~1947)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 중기·후기에는 가문에 따라 인장을 애용한 경우가 많아서 조선 고유의 전통적 낙관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는 청나라 학계와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문신과 학자를 막론하고 인장을 사용한 수준이 높아졌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풍이 들어오면서 인장의 풍격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근목』에 실린 인장은 『근역인수(槿域印藪)』에 거의 실리지 않아 우리나라 인장사에 소중한 자료의 가치가 있다. 인장 이외에 김종직(金宗直, 1431~1492)·소세양(蘇世讓, 1486~1562)·장옥(張玉, 1493~1550)·이숙량(李淑梁, 1519~1592) 등에서 보이는 다양한 수결(手決, 署押·花押)은 필적의 진위를 판정하는 믿을 만한 기준이 되는 데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 편지나 시를 쓰는 종이의 시전지(詩箋紙)가 적지 않게 실려 있다. 지질은 고정지(靛精紙, 黃紙)·감지(紺紙)·상피지(桑皮紙)·저지(楮紙) 등 작가의 취향에 맞게 독특한 문양을 찍어 사용하였는데, 대개 목판을 이용하여 채색을 가미하여 찍었다. 시전지는 조선 시대 채색판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고, 한지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셋째, 생활사 연구의 자료 가치이다.

『근목』에 실린 것 중에 편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600년간에 걸친 우리 선인들의 생활사이기도 하다. 이 중에는 정치·학술·문학에 관한 것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 친구끼리의 증답(贈答)과 가족 간의 문안(問安)이 주를 이룬다. 중요한 청탁은 대체로 별지(別紙)를 사용했는데, 이는 대개 당시에 없애버려서 전하지 않고, 문집에도 ‘서(書)’라는 항목이 있으나 내용이 학술·문학·역사적 의의가 없는 것은 대체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근목』에 실린 편지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당시 경제사·문화사·사회사는 물론이고 일반 생활사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서(序·叙·小序·詩序)·기(記)·제발(題跋) 등도 대부분 문집에 실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화사적으로 참고 자료의 귀중한 가치가 있다.

먼저 편지에 주고받거나 부탁한 물품을 살펴보면, 대략 음식·먹(眞墨·珍墨·眞玄)·붓(白筆)·동백즙·약재·종이(名楮·白紙·紙束·刺紙·印冊紙·簡楮·簡幅·편지지)·부채(節扇·扇竹·節箒·妙箒·紙箒·扇面)·회시답안지·력(冊曆·新曆·曆日)·혼례복·혼례비용·인삼·녹용·갓·평(膏雉·生雉)·책의(冊衣)·해산물(물고기·차조기·송어·乾魚·碧魚·민어·조기)·모자·계·꿀·털이불·호박(琥珀)·재목·차자(筍子)·기름·마초(馬草)·약물·과일·꽃감·토산품·얼음(氷帖·氷丁)·죽장(竹漿)·노(努)·말(馬)·대자리·구기자·복분자·책·소금·고기·초료(草料)·노자·가죽신·쌀·남초(南草)·용안육(龍眼肉)·황연환(黃連丸)·감당(柑糖)·당귀주(當歸酒)·포(脯)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경제생활을 연구하는 데에 참고 자료의 가치가 있다. 이외에 한중외교사와 사사로운 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정구(李廷龜, 1564~1635)는 사신으로 중국에 네 번 갔는데, 모두 정기적이거나 의례적이 아닌 중요한 임무를 띤 특별한 사신이였다. 네 번의 사행을 떠나며

그가 받은 송별시는 40여 수가 『근목』에 실려 있는데, 일괄 자료 중에 가장 많다. 이는 16세기 말기에서 17세기 초기에 이르는 한중외교사, 한중교류사, 조선인의 대중국관 등을 엿보는 데에 좋은 자료이다.

정조(正祖, 1752~1800)의 편지는 친척에게 물품을 하사한 것들이 보인다. 즉 벼 한 석, 담배 두봉, 계장 한 항아리, 밤 한 말인데, 이 중에서 계장을 빼고는 모두 창덕궁에서 재배한 것들이다. 특히 내원(內苑)에서 재배한 담배가 토양이 적합하여 맛이 좋아 평안도 삼등(三登)에서 나는 질 좋은 담배에 못지않다고 자랑하기도 하였다.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편지는 아내를 잃은 사람을 위로하면서 쓴 것이다. 김정희는 일찍이 아내를 잃어 봐서 그 슬픔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해학 겸 위로를 하였다. 아내를 잃었을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 슬픔을 삭이는 데는 “종려나무 싹갓을 쓰고 오동나무 나막신을 신고 산색을 보고 강물 소리를 들으며 방랑하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비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의 용정차(龍井茶)와 대나무 필통을 받고 종이부채에 그림을 그려 돌려보내는 등 내용은 짧으나 매우 재미있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용백(李容白, 1859~?)의 편지는 풍습(風濕)으로 하초(下焦)의 병이 되어 오른쪽 고환이 커지며 걸가죽이 감처럼 붉고 윤기가 난다는 내용이다. 이는 편지가 남에게 말 못할 비밀스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유용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윤치호(尹致昊, 1865~1945)의 편지는 1392년 음력 7월 16일에 개국한 이성계의 조선 건국일을 우리나라 기원절(紀元節)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독립협회가 주체가 되어 1897년 양력 8월 13일에 개국 505회 기원절 기념식을 독립관에서 거행하였다. 이 편지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고, 아울러 독립협회의 성격규명과 정신적 지향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이준(李儁, 1859~1907) 열사가 쓴 오언절구에 오세창은 추도사를 덧붙였는데, 이는 1907년 고종의 특사로 헤이그에 가서 순절한 이준의 거사를 흠모하며 천고에 길이 추앙받을 것이란 찬사를 올린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매국노라 지탄받는 이완용(李完用, 1858~1926)도 글씨로 이름이 있는데, 『근목』에 수록한 것은 특이한 일이라 하겠다.

## ○ 참고문헌

- 곽노봉, 『한국서예사』, 다운샘, 2020.
- 河永輝, 「鄭夢周의 두 편지의 글씨에 관한 일고찰」, 『대동문화연구』98, 2017.
- 『근목』(영인본 5책,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9).
- 『근목』(4책: 상하, 상하부록, 성균관대학교박물관 편, 청문사, 1981).



##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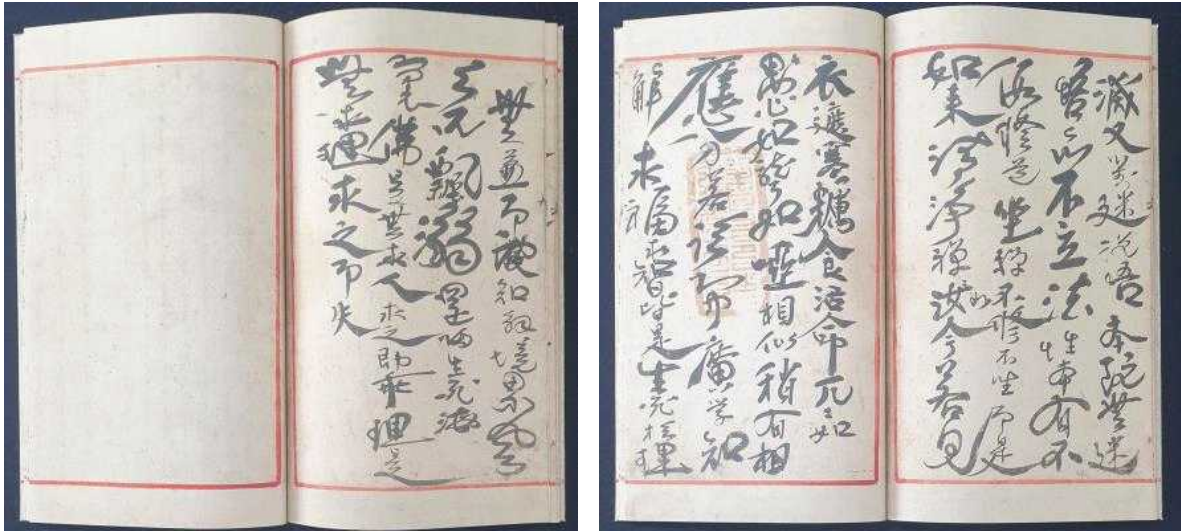
완정함

## ○ 내용 및 특징

『근목』은 고려 말 정몽주로부터 근대 이도영에 이르는 1,136명의 필사본을 연대순으로 한 점씩 편집한 서간 위주의 34첩과 목록집 1책 등 모두 35첩으로 꾸며져 있다. 여기에 각 인물마다의 간개(簡介)를 덧붙여 근 600년 간의 서예인명 사전적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예의 흐름과 예술적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 ○ 기 타

한 가지 덧붙일 것은 2010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대흥사 소장 서산대사의 『정선사가록』을 지정조사한 바 있는데, 모두 14장의 첩장 중에 7, 8, 9장이 산실(散失)되어 큰 하자가 있었지만 결국 지정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중 9째 장이 『근목』에 실려 있음을 대흥사 말사인 미황사의 주지 향문이 필자에게 알려왔으며 나머지 7, 8은 필자한테 내용을 필사케 하여 완정본을 꾸민다고 하였다. 이 두 장의 사진은 대흥사에서 완정본을 만들고자 하는 가본의 책자에서 찍은 것으로서 9째 장을 『근목』에서 취하여 복사해 넣은 것이다. 여기에 7, 8장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지정 후에라도 장물운운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

○ 현 상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근목>

『근목』은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이 고려 말부터 근대기에 이르는 우리나라 역대 명사들의 필적을 모아서 만든 서첩이다. 표지 제첩이나 표제(標題)에 「八十葦」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80세이던 1943년에 이 서첩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엮은 서첩은 『근목』보다 앞선 만든 『근역서휘(槿域書彙)』(1911)가 있는데, 이 서첩은 현재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위창이 남긴 공적은 이러한 서첩의 완성에 그치지 않는다. 곧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인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을 저술함으로써 후일 서예사, 미술사학 등 관련 분야 연구



에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근목』이란 근역(權域)의 목적(墨蹟)으로 이해되며, 모두 1,136명의 글씨를 각각 한 점씩 모아 모두 34첩에 생존 시기 순으로 편성해 놓았다. 첫 번째는 고려 말의 정몽주(鄭夢周, 1337~1392), 마지막은 이도영(李道榮, 1884~1933)의 필적까지 편성한 국내 최대 분량의 서첩이다. 수록된 인물의 신분은 국왕에서 중인 심지어 천인 계층까지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록 1책에 34첩의 편성 순서대로 수록해 놓았는데, 성명, 자, 호, 관향, 시대, 계통 등을 적어 놓았다. 34첩에 수록된 필적 인물은 <표1>의 차례와 같다.

<표1> 34첩에 수록 편성된 필적(인물)

첩	필적(인물)	수
1	정몽주(鄭夢周), 강회백(姜淮伯), 정도전(鄭道傳), 길 재(吉 再), 맹사성(孟思誠), 황 희(黃 喜), 최덕지(崔德之), 최흥호(崔興孝), 황수신(黃守身), 이석형(李石亨), 김수온(金守溫), 권 람(權 擘), 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 이 용(李 瑬), 이 개(李 垕), 유성원(柳誠源), 서거정(徐居正), 권 전(權 專), 김종직(金宗直), 노사신(盧思愼), 김시습(金時習), 홍귀달(洪貴達), 성 현(成 倪), 이의무(李宜茂), 김광필(金宏弼), 조지서(趙之瑞), 송 질(宋 軼), 이계맹(李繼孟), 강백진(康伯珍), 성희안(成希顔), 정광필(鄭光弼), 신용개(申用漑), 김일손(金駟孫), 지 엄(智 嚴), 이현보(李賢輔)	36
2	어득강(魚得江), 남 곤(南 袞), 박 영(朴 英), 이장곤(李長坤), 박 상(朴 祥), 김안국(金安國), 박 은(朴 聞), 이 자(李 耜), 김안로(金安老), 조광조(趙光祖), 김 식(金 湜), 공서린(孔瑞麟), 이연경(李延慶), 정순명(鄭順明), 신광한(申光漢), 박 훈(朴 薰), 소세양(蘇世讓), 정옥형(丁玉亨), 이성동(李成童), 김 구(金 絳), 정사룡(鄭士龍), 기 준(奇 遵), 이연적(李彦迪), 조 성(趙 晟), 성수침(成守琛), 상 진(尙 震), 장 옥(張 玉), 심달원(沈達源), 송지한(宋之翰), 성수종(成守琮), 주세붕(周世鵬), 김 면(金 沔), 백인걸(白仁傑), 심봉원(沈逢源), 조 옥(趙 昱), 이 찬(李 滌), 이 항(李 恒), 김홍윤(金弘胤), 이준경(李浚慶), 이 황(李 滉), 조 식(曹 植), 원 혼(元 混)	43
3	정 량(鄭 礪), 원호변(元虎變), 박충원(朴忠元), 엄 혼(嚴 昕), 황기로(黃耆老), 윤 복(尹 復), 김인후(金麟厚), 김부인(金富仁), 유희춘(柳希春), 김우굉(金宇宏), 박난영(朴蘭英), 주 이(周 怡), 양사준(楊士俊), 신 호(申 護), 노수신(盧守愼), 심수경(沈守慶), 이희검(李希儉), 송 인(宋 寅), 양사언(楊士彦), 허 엽(許 曄), 노 진(盧 禎), 이 량(李 樑), 휴 정(休 靜), 이숙량(李淑梁), 김부륜(金富倫), 조 목(趙 穆), 신호중(申孝仲), 김제갑(金悌甲), 이희득(李希得), 이양원(李陽元), 정 탁(鄭 琢), 구봉령(具鳳齡), 금응협(琴應夾), 기대승(奇大升), 신 점(申 點), 남몽오(南夢鰲), 김수일(金守一)	37
4	최 황(崔 滉), 금난수(琴蘭秀), 구사맹(具思孟), 이광준(李光俊), 김부신(金富信), 권호문(權好文), 황정옥(黃廷彧), 최경회(崔慶會), 고경명(高敬命), 윤두수(尹斗壽), 이해수(李海壽), 정 작(鄭 碓), 정유일(鄭惟一), 배삼익(裴三益), 김명원(金命元), 송익필(宋翼弼), 조정기(趙廷機), 성 혼(成 渾), 심의겸(沈義謙), 김 룩(金 玊), 우성전(禹性傳), 이 이(李 珥), 정 철(鄭 澈), 송응개(宋應漑), 최영경(崔永慶), 정개청(鄭介淸), 송한필(宋翰弼), 이제신(李濟臣), 이 일(李 鎰), 권 울(權 慄), 조종도(趙宗道), 김천일(金千鎰), 이충원(李忠元), 김연광(金鍊光), 백광훈(白光勳), 홍인건(洪仁健), 이수봉(李壽鵬)	37
5	윤근수(尹根壽), 김성일(金誠一), 최철건(崔鐵堅), 이산해(李山海), 이 달(李 達), 최경창(崔慶昌), 최 립(崔 昱), 김극일(金克一), 김취려(金就礪), 유운룡(柳雲龍),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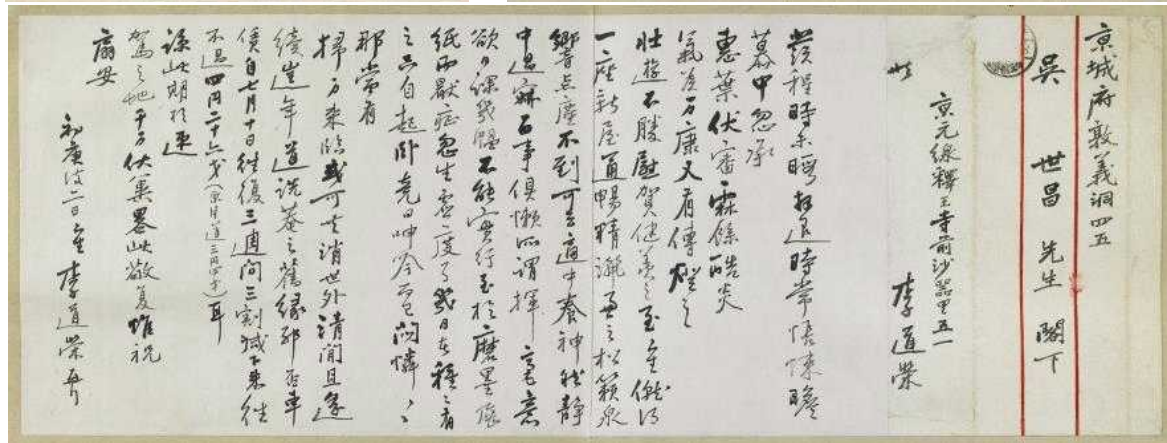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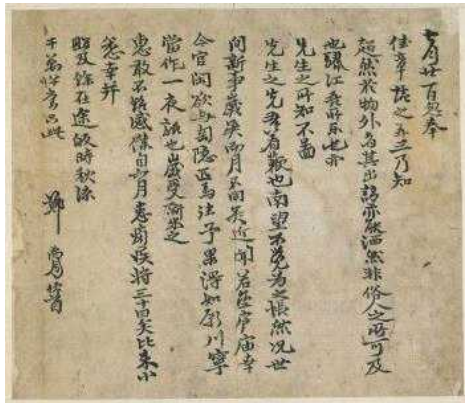
첩	필적(인물)	수
	권춘란(權春蘭), 김홍민(金弘敏), 금응훈(琴應熏), 홍가신(洪可臣), 홍진(洪進), 김복일(金復一), 이덕홍(李德弘), 이정(李霆), 이우(李瑀), 황진(黃璉), 김현성(金玄成), 유성룡(柳成龍), 송언신(宋言愼), 한준(韓準), 한호(韓濩), 정구(鄭述), 강신(姜紳), 조헌(趙憲), 이발(李潑), 유정(惟政), 정윤목(鄭允穆), 유희경(劉希慶)	
6	김응남(金應南), 심대(沈岱), 이원익(李元翼), 김수(金睟), 김기(金圻), 김택룡(金澤龍), 우복룡(禹伏龍), 김여물(金汝物), 심희수(沈喜壽), 김장생(金長生), 허성(許箴), 이인기(李麟奇), 홍이상(洪履祥), 유근(柳根), 임제(林悌), 한회(韓懷), 한언침(韓彦忱), 송상현(宋象賢), 허봉(許篈), 신식(申湜), 정광직(鄭光績), 이광경(李光挺),곽재우(郭再祐), 조탁(曹倬), 김덕겸(金德謙), 권우(權宇), 박홍구(朴弘耆), 정홍명(鄭弘溟), 이호민(李好閔), 오덕령(吳德齡), 이덕윤(李德胤), 고종후(高從厚), 장현광(張顯光), 김해(金垓), 강인(姜綱)	35
7	이항복(李恒福), 차천로(車天輅), 조익(趙翊), 이정면(李廷冕), 허적(許適), 이숙(李漣), 이경운(李卿雲), 송영구(宋英壽), 이상길(李尙吉), 한준겸(韓浚謙), 이귀(李貴), 홍경신(洪慶臣), 서성(徐滂), 유몽인(柳夢寅), 구성(具晟), 김의원(金義元), 윤광계(尹光啓), 오윤겸(吳允謙), 성문준(成文濬), 차운로(車雲輅), 권극중(權克中), 이준(李竣), 김종남(金終男), 이상익(李尙毅), 오백령(吳百齡), 정효성(鄭孝成), 이덕형(李德馨), 김상용(金尙容), 이각(李覺), 김순명(金順命), 황신(黃愼), 김덕함(金德咸)	32
8	기자헌(奇自獻), 이홍주(李弘胄), 조존세(趙存世), 윤방(尹昉), 정엽(鄭曄), 배대유(裵大維), 정경세(鄭經世), 이수광(李睟光), 이의건(李義健), 김지남(金止男), 전식(全湜), 권겸(權謙), 성여학(成汝學), 이정구(李廷龜), 박동열(朴東說), 이유록(李綏祿), 민형남(閔馨南), 황익중(黃益中), 유숙(柳漣), 백진남(白振南), 권반(權昉), 남이공(南以恭), 김수현(金壽賢), 신흙(申欽), 이덕형(李德炯), 장만(張晩), 한민정(韓敏政), 이경전(李慶全), 강주(姜籊), 유역(柳湜)	30
9	이흘(李屹), 윤안국(尹安國), 심열(沈悅), 허균(許筠), 정온(鄭蘊), 박동량(朴東亮), 목서흙(睦叙欽), 심집(沈誥), 황경중(黃敬中), 권필(權鞞), 양형우(梁亨遇), 이민성(李民成), 임서(林愜), 김상헌(金尙憲), 김류(金瑬), 윤황(尹煌), 이춘원(李春元), 양인용(梁仁容), 정홍익(鄭弘翼), 윤휘(尹暉), 심액(沈諤), 이안눌(李安訥), 이목(李栻), 홍서봉(洪瑞鳳), 조찬한(趙纘韓), 목장흙(睦長欽), 김신국(金薰國), 조정호(趙廷虎), 정호서(丁好恕), 이시직(李時稷), 홍명원(洪命元), 윤환(尹暄), 이형욱(李馨郁), 이현영(李顯英), 안방준(安邦俊), 김덕보(金德普), 김집(金集), 남이웅(南以雄), 권도(權濤)	39
10	유희량(柳希亮), 이선복(李善復), 조희일(趙希逸), 이지완(李志完), 엄성(嚴惺), 양극선(梁克選), 기윤헌(奇允獻), 신경진(申景禎), 정충신(鄭忠信), 남이흥(南以興), 유성증(兪省曾), 최연(崔蓀), 임숙영(任叔英), 정광성(鄭廣成), 신민일(申敏一), 고용후(高用厚), 이경직(李景稷), 김대덕(金大德), 신계영(辛啓榮), 조박(趙璞), 홍무직(洪茂績), 고부천(高傅川), 고부립(高傅立), 김령(金垪), 김영조(金榮祖), 김시국(金蓍國), 윤계선(尹繼善), 박로(朴簾), 이중길(李重吉), 민응형(閔應亨), 한필원(韓必遠), 조익(趙翼), 정기광(鄭基廣), 윤이지(尹履之), 서경주(徐景肅), 김확(金燮), 임광(任統), 이성신(李省身), 김광욱(金光煜)	39
11	김욱(金堉), 김응하(金應河), 김시양(金時讓), 유림(柳琳), 홍명형(洪命亨), 이정남(李井男), 윤신지(尹新之), 유진(柳軫), 박홍중(朴弘中), 김개(金闕), 유충립(柳忠立), 정세규(鄭世規), 윤계(尹槩), 홍영(洪甕), 김광현(金光炫), 한여직(韓汝漫), 이식(李立植), 이성구(李聖求), 이계선(李繼先), 이경여(李敬興), 정세구(鄭世矩), 김지수(金地粹), 조경(趙綱), 심대부(沈大孚), 최명길(崔鳴吉), 신유(申濡), 김상(金尙), 정광경(鄭廣敬), 홍호(洪鎬), 오준(吳竣), 한흥일(韓興一), 장유(張維), 유백증(兪伯曾), 김응조(金應祖), 최유연(崔有淵), 윤선도(尹善道), 조빈(趙贇), 최유해(崔有海), 황일호(黃一皓), 허후(許厚)	40

첩	필적(인물)	수
12	신익성(申翊聖), 이지정(李志定), 이 광(李 珖), 성여관(成汝寬), 이민구(李敏求), 조위한(趙緯韓), 임 련(林 棟), 이지천(李志賤), 김 반(金 槃), 이시백(李時白), 김광혁(金光赫), 윤순지(尹順之), 조문수(曹文秀), 유정량(柳廷亮), 구인기(具仁暨), 강대수(姜大逵), 이 해(李 灑), 박 미(朴 瀾), 조계원(趙啓遠), 오 숙(吳 翹), 정 연(鄭 沆), 송민고(宋民古), 신천익(愼天翊), 김세렴(金世濂), 원두표(元斗杓), 유경창(柳慶昌), 심지원(沈之源), 기만현(奇晩獻), 이시방(李時昉), 이응시(李應著), 심동구(沈東龜), 윤의립(尹毅立), 백상빈(白尙賓), 조 숙(趙 涑), 강학년(姜鶴年), 이명한(李明漢), 김덕승(金德承), 이기조(李基祚)	38
13	이경석(李景奭), 허 목(許 穆), 민광훈(閔光勳), 정유성(鄭維城), 윤순거(尹舜舉), 김남중(金南重), 조수익(趙壽益), 홍명구(洪命耆), 임 담(林 潭), 박 정(朴 炆), 이행진(李行進), 김광찬(金光燦), 정두경(鄭斗卿), 이후산(李後山), 정언황(丁彦璜), 박 황(朴 潢), 윤 강(尹 絳), 송시길(宋時吉), 이소한(李昭漢), 이후원(李厚源), 박 의(朴 漪), 홍 탁(洪雨濯), 김시온(金是榘), 유 주(柳 澍), 민 엽(閔 業), 신익룡(申翊隆), 손필대(孫必大), 심지명(沈之溟), 채유후(蔡裕後), 정 양(鄭 養), 이시해(李時楷), 유명립(柳命立), 이 진(李 軫), 이 무(李 袤), 임 전(林山專), 홍처후(洪處厚), 이상일(李尙逸), 이지안(李志安), 윤형각(尹衡覺), 박 서(朴 遂)	40
14	이 완(李 浣), 김홍욱(金弘郁), 정태화(鄭太和), 김 소(金 素), 강백년(姜栢年), 이홍연(李弘淵), 남노성(南老星), 이산퇴(李山賚), 유 영(柳 穎), 이 계(李 桂), 홍주일(洪柱一), 권 시(權 認), 황 호(黃 扈), 김득신(金得臣), 임의백(任義伯), 채성구(蔡聖龜), 윤 집(尹 集), 이행우(李行遇), 조 형(趙 珩), 홍주원(洪柱元), 이 회(李 禴), 조석운(趙錫胤), 장차주(張次周), 유 철(俞 徹), 윤문거(尹文舉), 송준길(宋浚吉), 송시열(宋時烈), 홍명하(洪命夏), 홍처량(洪處亮), 유 계(俞 槩), 이유태(李惟泰), 이시술(李時術), 민응협(閔應協), 허 격(許 格), 신 면(申 冕), 조종운(趙從耘), 조한영(曹漢英), 유 심(柳 滄), 정시성(鄭始成)	39
15	오달제(吳達濟), 정치화(鄭致和), 조복양(趙復陽), 목행선(睦行善), 이익한(李翊漢), 남 환(南 翺), 김시번(金始蕃), 허 적(許 積), 윤선거(尹宣舉), 박세모(朴世模), 오정일(吳挺一), 유 석(柳 碩), 김익희(金益熙), 한진기(韓震琦), 석지형(石之珩), 권대운(權大運), 이정기(李廷夔), 이일상(李一相), 박장원(朴長遠), 김익렴(金益廉), 홍중보(洪重普), 최 관(崔 寬), 정지화(鄭知和), 오정원(吳挺垣), 이상진(李尙眞), 장선징(張善澂), 유 창(俞 瑒), 서필원(徐必遠), 민 희(閔 熙), 민 점(閔 點), 이가상(李嘉相), 조윤석(趙胤錫)	32
16	이정영(李正英), 이태연(李泰淵), 조구석(趙龜錫), 조세환(趙世煥), 윤 휴(尹 鑄), 김좌명(金佐明), 유혁연(柳赫然), 김우형(金宇亨), 조중운(趙仲耘), 이경휘(李慶徽), 목내선(睦來善), 이은상(李殷相), 심 유(沈 攸), 정 익(鄭木益), 임 규(任 奎), 이관징(李觀徵), 김시진(金始振), 임 중(任 重), 권대재(權大載), 김우명(金佑明), 이만상(李萬相), 이경억(李慶億), 신 만(申 冕), 심광사(沈光泗), 조위봉(趙威鳳), 유태연(柳卓然), 유형원(柳馨遠), 이 요(李 漕)	28
17	홍주국(洪柱國), 이유상(李有相), 황 윤(黃 玗), 정창도(丁昌燾), 남일성(南一星), 조효창(曹孝昌), 유담후(柳譚厚), 김수증(金壽增), 오두인(吳斗寅), 신 혼(申 混), 심 재(沈 梓), 이원정(李元禎), 이단하(李端夏), 이민적(李敏迪), 여성제(呂聖齊), 남이성(南二星), 정시한(丁時翰), 이 숙(李 翻), 김수흥(金壽興), 이명은(李命殷), 윤지선(尹趾善), 송광식(宋光枳), 민정중(閔鼎重), 이단상(李端相), 이익상(李翊相), 남용익(南龍翼), 이하진(李夏鎭), 신 정(申 旻), 이원록(李元祿), 박세당(朴世堂), 송인명(宋寅明), 조경망(趙景望)	32
18	윤 증(尹 拯), 남구만(南九萬), 김수항(金壽恒), 민유중(閔維重), 송규렴(宋奎濂), 이세화(李世華), 서문상(徐文尙), 목천성(睦天成), 박세채(朴世采), 최후상(崔後尙), 홍만용(洪萬容), 유하익(俞夏益), 조 근(趙 根), 유성삼(柳星三), 윤 진(尹 搢), 박신규(朴信圭), 오시수(吳始壽), 민종도(閔宗道), 이서우(李瑞雨), 유명천(柳命天), 이 선(李 選), 정유악(鄭維岳), 정재숭(鄭載嵩), 조사석(趙師錫), 송일중(宋日中),	32

첩	필적(인물)	수
	김구만(金龜萬), 이민서(李敏紘), 김만기(金萬基), 권 유(權 愈), 한 영(韓 潑), 민취도(閔就道), 유지발(柳之發)	
19	김필진(金必振), 윤 심(尹 深), 이인환(李寅煥), 신익상(申翼相), 서문중(徐文重), 이만웅(李萬雄), 신여철(申汝哲), 김석주(金錫胄), 홍석구(洪錫龜), 윤지완(尹趾完), 박세성(朴世城), 김만중(金萬重), 이세백(李世白), 엄 집(嚴 緝), 심 단(沈 檀), 김 주(金 澍), 유상운(柳尙運), 박태상(朴泰尙), 이 우(李 侁), 오시복(吳始復), 임 당(任 堂), 나양좌(羅良佐), 송광연(宋光淵), 임상원(任相元), 유이승(柳以升), 조지겸(趙持謙), 권 해(權 階), 조상우(趙相愚), 조위명(趙威明), 원성유(元聖俞), 임 방(任 望), 심익현(沈益顯)	32
20	권상하(權尙夏), 엄정구(嚴鼎耇), 이 돈(李 墩), 이세필(李世弼), 홍수주(洪受疇), 유명현(柳命賢), 이인징(李麟徵), 김성직(金盛迪), 이세구(李世龜), 박경후(朴慶後), 심 별(沈 機), 오도일(吳道一), 이 유(李 濡), 강 선(姜 銑), 임윤원(任胤元), 목창명(睦昌明), 민진주(閔鎭周), 최석정(崔錫鼎), 한태동(韓泰東), 정시윤(丁時潤), 신 완(申 琬), 이진은(李震殷), 신 엽(申 晷), 이현석(李玄錫), 정 호(鄭 滌), 김창집(金昌集), 박태유(朴泰維), 박태항(朴泰恒), 김 구(金 構), 정제두(鄭齊斗), 김홍복(金洪福), 임 영(林 泳), 이 정(李清見)	33
21	최규서(崔奎瑞), 강 현(姜 覲), 김시징(金始徵), 송주석(宋疇錫), 김창협(金昌協), 이대성(李大成), 서종태(徐宗泰), 김창흠(金昌翕), 김시걸(金時傑), 박태순(朴泰淳), 신계화(申啓華), 홍세태(洪世泰), 유집일(兪集一), 박행의(朴行義), 권두추(權斗樞), 최석항(崔錫恒), 이희조(李喜朝), 박태보(朴泰輔), 민창도(閔昌道), 남학명(南鶴鳴), 이덕성(李德成), 정유점(鄭維漸), 이인엽(李寅燁), 윤지인(尹趾仁), 권상유(權尙游), 윤덕준(尹德駿), 송상기(宋相琦), 여필중(呂必重), 이진휴(李震休), 권중경(權重經)	30
22	이이명(李頤命), 김창업(金昌業), 김진규(金鎭圭), 이정신(李正臣), 홍중하(洪重夏), 조태로(趙泰老), 이만성(李晩成), 민진후(閔鎭厚), 유봉휘(柳鳳輝), 이 재(李 濟), 조태구(趙泰耇), 조태채(趙泰采), 이태좌(李台佐), 이해조(李海朝), 이관명(李觀命), 김주신(金柱臣), 김시환(金始煥), 유광익(柳光翼), 이수장(李壽長), 이 서(李 澈), 김창즙(金昌緝), 신 심(申 鐸), 이건명(李健明), 심수현(沈壽賢), 성 한(成 儻), 민진원(閔鎭遠), 신 임(申 鉉), 임수간(任守幹)	28
23	조정강(趙正綱), 권 섭(權 燮), 정도복(丁道復), 홍치중(洪致中), 오태주(吳泰周), 권이진(權以鎭), 홍중성(洪重聖), 이 조(李 肇), 윤두서(尹斗緒), 이진유(李眞儒), 최창대(崔昌大), 이의현(李宜顯), 채팽윤(蔡彭胤), 김춘택(金春澤), 김유경(金有慶), 김 고(金 槲), 맹만택(孟萬澤), 이병연(李秉淵), 임수적(任守迪), 이진망(李眞望), 어유봉(魚有鳳), 조영복(趙榮福), 오명항(吳命恒), 이덕수(李德壽), 김이만(金履萬), 이광좌(李光佐), 조경명(趙景命), 심택현(沈宅賢)	28
24	조태억(趙泰億), 어유구(魚有龜), 이병상(李秉常), 이진순(李眞淳), 이하곤(李夏坤), 김동필(金東弼), 엄경우(嚴慶遇), 이 재(李 緯), 김제겸(金濟謙), 윤 순(尹 淳), 조문명(趙文命), 홍계적(洪啓迪), 홍봉조(洪鳳祚), 서명균(徐命均), 이 익(李 瀆), 조상경(趙尙綱), 신유한(申維翰), 신정하(申靖夏), 정내교(鄭來僑), 김재로(金在魯), 김치후(金致厚), 한원진(韓元震), 황익재(黃翼再), 윤봉구(尹鳳九), 이일제(李日躋), 채지홍(蔡之洪), 이의병(李宜炳), 홍의인(洪義人), 임상덕(林象德), 이진수(李眞洙)	30
25	김진상(金鎭商), 이현모(李顯謨), 이정섭(李廷燮), 조영석(趙榮祐), 여선장(呂善長), 조명교(曹命敎), 남유용(南有容), 권 만(權 萬), 황 정(黃 晷), 유최기(俞最基), 강 박(姜 樸), 조관민(趙觀彬), 조지빈(趙趾彬), 조현명(趙顯命), 유척기(俞拓基), 박문수(朴文秀), 유 엄(柳 儼), 이종성(李宗城), 정우량(鄭羽良), 조구명(趙龜命), 영 조(英 祖), 민우수(閔遇洙), 이태중(李台重), 윤 급(尹 汲), 임 정(任 珽), 김광수(金光遂), 이유경(李儒慶), 남하행(南夏行), 이천보(李天輔)	29
26	윤심형(尹心衡), 김상익(金尙翼), 오 원(吳 瑗), 김용겸(金用謙), 김원행(金元行), 김양행(金亮行), 이의철(李宜哲), 이광찬(李匡贊), 조명채(曹命采), 정하언(鄭夏彦),	30

첩	필적(인물)	수
	신 만(申 晩), 김상성(金尙星), 이창의(李昌誼), 이광사(李匡師), 이수일(李秀逸), 정휘량(鄭翬良), 신 회(申 晦), 이성중(李成中), 심사정(沈師正), 윤 용(尹 惛), 허 필(許 佖), 황경원(黃景源), 서종급(徐宗汲), 이인상(李麟祥), 송문흠(宋文欽), 김시찬(金時燾), 김위재(金偉材), 이상정(李象靖), 이광려(李匡呂), 윤동섭(尹東暹)	
27	권진응(權震應), 이맹휴(李孟休), 유이복(柳以復), 김근행(金謹行), 김상복(金相福), 강세황(姜世晃), 서지수(徐志修), 이광정(李光靖), 이윤영(李胤永), 김순택(金純澤), 조운규(趙雲逵), 한광회(韓光會), 이양천(李亮天), 서명응(徐命膺), 김치인(金致仁), 조봉진(曹鳳振), 김상숙(金相肅), 오 찬(吳 瓚), 이용휴(李用休), 송명흠(宋明欽), 이복원(李福源), 채제공(蔡濟恭), 원인손(元仁孫), 김종후(金鍾厚), 정범조(丁範祖), 김 익(金 燧), 정상순(鄭尙淳), 홍양호(洪良浩), 김시구(金蓍耆)	29
28	이성원(李性源), 이 미(李 瀾), 조운형(曹允亨), 서명선(徐命善), 조 경(趙 璈), 송환기(宋煥箕), 목만중(睦萬中), 오재순(吳載純), 김화택(金和澤), 김중수(金鍾秀), 윤사국(尹師國), 이보온(李普溫), 신광수(申光洙), 정재원(丁載遠), 황운조(黃運祚), 홍대용(洪大容), 나 열(羅 烈), 성대중(成大中), 이한진(李漢鎭), 신대우(申大羽), 이일운(李日運), 이조원(李祖源), 김노진(金魯鎭), 박지원(朴趾源)	24
29	정종로(鄭宗魯), 이언진(李彦瑱), 이영익(李令翊), 이덕무(李德懋), 이가환(李家煥), 이정운(李鼎運), 최 북(崔 北), 김좌두(金佐斗), 이충익(李忠翊), 이시수(李時秀), 김두열(金斗烈), 이승운(李升運), 이익운(李益運), 유득공(柳得恭), 박제가(朴齊家), 홍의영(洪儀泳), 정 조(正 祖), 서미수(徐美修), 이서구(李書九), 김낙서(金洛瑞), 홍의호(洪義浩), 천수경(千壽慶), 장 혼(張 混), 남공철(南公轍), 서영보(徐榮輔), 유한지(俞漢芝), 김홍도(金弘道), 지덕구(池德龜)	28
30	정약용(丁若鏞), 조수삼(趙秀三), 이상황(李相璜), 서유구(徐有渠), 김조순(金祖淳), 김노경(金魯敬), 이익회(李翊會), 이복현(李復鉉), 박기수(朴耆壽), 임득명(林得明), 신 위(申 緯), 신재식(申在植), 성해응(成海應), 이양연(李亮淵), 서기수(徐淇修), 박윤묵(朴允默), 현재덕(玄在德), 조광진(曹匡振), 노운적(盧允迪), 박종훈(朴宗薰), 송상래(宋祥來), 김계온(金啓溫), 이노집(李魯集), 이지화(李至和), 홍석주(洪奭周), 홍경모(洪敬謨), 홍직필(洪直弼)	27
31	이지연(李止淵), 이광문(李光文), 조인영(趙寅永), 권돈인(權敦仁), 김도희(金道喜), 김유근(金迪根), 김정희(金正喜), 정학연(丁學淵), 윤정현(尹定鉉), 의 순(意 恂), 전승조(全承祖), 김명희(金命喜), 홍종영(洪鍾英), 홍재철(洪在喆), 신석희(申錫禧), 이시원(李是遠), 순 조(純 祖), 이기복(李基福), 유최진(柳最鎭), 정원용(鄭元容), 이정신(李鼎臣), 숙선옹주(淑善翁主), 홍현주(洪顯周), 김양기(金良驥), 조계승(趙啓昇), 최헌수(崔憲秀), 김상희(金相喜), 조두순(趙斗淳), 김흥근(金興根), 김좌근(金左根), 허 전(許 傳), 조희룡(趙熙龍), 이정민(李鼎民), 서홍순(徐弘淳), 이삼만(李三晩), 김영면(金永冕), 금 파(錦 波)	37
32	조병구(趙秉龜), 김문근(金汶根), 이종우(李鍾愚), 송주헌(宋柱獻), 임백연(任百淵), 이상적(李尙迪), 조면호(趙冕鎬), 이남식(李南軾), 신응조(申應朝), 신석우(申錫愚), 박규수(朴珪壽), 정대림(丁大林), 강 진(姜 潛), 정지윤(鄭芝潤), 김유연(金有淵), 신정왕후조씨(神貞王后趙氏), 익 종(翼 宗), 신명연(申命衍), 김유연(金有淵), 조석우(曹錫雨), 남계우(南啓宇), 심동근(沈東瑾), 김상현(金尙鉉), 이유원(李裕元), 임헌회(任憲晦), 서승보(徐承輔), 홍순목(洪淳穆), 신 헌(申 櫛), 서미순(徐眉淳), 이하응(李晁應), 김익용(金益容), 이만용(李晩用), 신헌구(申獻求)	33
33	소휘면(蘇輝冕), 전 기(田 琦), 조인승(曹寅承), 헌 중(憲 宗), 조병세(趙秉世), 어재연(魚在淵), 홍기주(洪岐周), 강 위(姜 璋), 오경석(吳慶錫), 김석준(金奭準), 서상우(徐相雨), 정학교(丁學教), 김기수(金綺秀), 신정희(申正熙), 민태호(閔台鎬), 김윤식(金允植), 오경림(吳慶林), 김성근(金聲根), 이희수(李喜秀), 변원규(卞元圭), 윤태준(尹泰駿), 전 우(田 愚), 김홍집(金弘集), 권동수(權東壽), 윤 균(尹 困), 이조연(李祖淵), 양기훈(楊基薰), 유한익(劉漢翼), 황윤명(黃允明), 이재면(李載冕),	37

첩	필적(인물)	수
	조영하(趙寧夏), 김가진(金嘉鎭), 정헌시(鄭憲時), 성기운(成岐運), 어윤중(魚允中), 이도재(李道宰), 박영교(朴泳敎)	
34	김택영(金澤榮), 김옥균(金玉均), 신기선(申箕善), 강진희(姜璉熙), 지창한(池昌翰), 고종(高宗), 이건창(李建昌), 정대유(丁大有), 장박(張博), 지운영(池雲英), 윤용구(尹用求), 박태영(朴台榮), 홍영식(洪英植), 김응원(金應元), 조희연(趙義淵), 문유용(文有用), 이기(李琦), 현채(玄采), 유길준(兪吉濬), 이완용(李完用), 박제순(朴齊純), 윤효정(尹孝定), 서광범(徐光範), 이준(李儔), 이용백(李蓉白), 민영익(閔泳翊), 민영환(閔泳煥), 박영호(朴泳孝), 손병희(孫秉熙), 권동진(權東鎭), 안중식(安中植), 조중응(趙重應), 윤치호(尹致昊), 윤희구(尹希求), 이진호(李軫鎬), 이준용(李竣鎔), 김돈희(金敦熙), 김규진(金圭鎭), 민형식(閔衡植), 이도영(李道榮)	40



<제1책 첫 장의 표제면(우상), 정몽주 필적(좌상), 이도영 필적(하)>

34첩은 모두 첩장(帖裝) 형식이다. 비단으로 된 표지의 제침에는 『樞墨』, 「八十葦」가 쓰여 있고, 「葦蒼翰墨」 등의 인장이 찍혀 있다. 제1첩의 첫 장도 이와 유사하다. 필적은 크기에 따라 양면에 1장 또는 단면에 1장을 수록하였는데, 글씨를 쓴 인명과 생몰년 등 저자 사항을 필적 오른쪽의 첨지(添紙)에 적어 놓았다. 1,136점의 필적은 모두 개인의 필적이기는 하나 내용으로 보면 이 서첩에 수록된 인물 끼리 주고받았던 필적도 있다. 그중에는 중종 7년(1512)에 이현보(李賢輔)가 지은 칠언절구 2수에 대해 이장곤(李長坤), 박상(朴祥), 정사룡(鄭士龍) 등이 차운한 시

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이미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수록된 필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선행 조사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목록(별책)의 표지(우상), 첫 장부터 마지막 장(시계 반대방향)>

문장의 종류는 서간 724점, 시 359점, 제액(題額) 15점, 기(記) 10점, 부(賦) 7점, 서(序) 5점, 화제(畫題) 3점, 증언(證言) 2점, 비명 2점, 발 2점, 찬 1점, 잠언 1점, 법어(法語) 1점, 표제(表題) 1점, 유지(諭旨) 1점, 물목(物目) 1점, 종명(鐘銘) 1점 등이다. 서체는 행서가 595점, 초서가 468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해서 57점, 전서, 예서가 16점이다. 이렇게 근목은 필적의 수록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서예사 연구의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안평대군 이용(李瑢)의 글씨로 소개된 시는 김육(金堉)이 인조 14년(1636)에 지은 시로 그의 문집 『잠곡유고(潛谷遺稿)』에 수록되는 등 진위 논란이 있는 필적이 있다. 이렇게 진위 논란의 대상은 비교 대상의 필적이 없거나 여말선초 인물의 필적에 대한 것이 많다. 그러나 『근목』은 당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여말로부터 구한말 근대기에 이르기까지 필적들을 모아 시대순으로 편성한 역사성을 갖춘 최고 수준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러한 진위논란은 『근목』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에 비한다면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 참고문헌

- 『근목』(영인본 5책,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9).
- 『근목』(4책: 상하, 상하부록, 성균관대학교박물관 편, 청문사, 1981).
- 『근목해제』([https://museum.skku.edu/museum/collection/collection\\_2.do](https://museum.skku.edu/museum/collection/collection_2.do)).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문화재 조사보고서』(서울특별시, 2018).



## ○ 내용 및 특징

《근목》의 내용과 특징을 서사자, 서체, 문체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서첩에는 영조, 정조, 순조, 헌종, 고종 등 역대 임금, 정몽주, 정도전, 황희, 이하응 등 문신, 이황, 조식, 이이, 이익, 정약용 등 학자, 권율, 곽재우, 김천일, 이완 등 무장, 홍세태, 정래교, 이연진, 천수경, 오경석 등 여항인, 승려인 지엄, 휴정, 유정, 초의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조선 초기 이래의 저명 서화가들의 글씨가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대거 수록되어 있다. 즉 최홍효, 김구, 황기로, 양사언, 한호, 허목, 이서, 이광사, 김정희, 김돈희 등 조선 초기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손꼽히는 명필들의 목적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이정, 심사정, 이인상, 최북, 김홍도, 안중식 등 저명 화가들의 글씨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여항인과 서화가들의 글씨가 《근목》에 다수 수록된 것은 글씨를 수집하고 장첩한 오세창이 역관의 후예이자 탁월한 서예가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서첩에 수록된 글씨를 서체 별로 분류하면 행서 595점, 초서 468점, 해서 57점, 예서 12점 등이고 문체별로 보면 서간 724점, 시 359점, 제액 15점, 기 10점, 기타 28점 등이다. 행·초서가 절대 다수인 것은 문체별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서첩에는 실용문에 해당하는 서간이 다수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간문의 경우 서사자가 특별한 예술적 의도를 가지고 집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간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행초서로 쓰여진 서간문에는 서사자의 필력과 개성, 즉 서사자의 서예와 관련된 미의식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 밖에 시고, 제액, 화제 등 서사자의 심미 정서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한 목적에서는 당대의 서풍과 서사자의 미적 감각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며, 정치 학문 문예 서화 통역 등 서사자의 활동 분야에 따른 서풍의 차이를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료가 지닌 중요한 특징이다.

## ○ 참고문헌

- 『근목』(영인본 2책, 부록 1책, 성균관대학교박물관, 1981년) ※탈초 임창순



- 『근묵』(영인본(원본과 동일한 색상과 크기로 영인) 5책,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9년) ※하영휘 국역, 김채식 교열



## ○ 현 상

- 대체로 양호함
- 조사 대상 『權墨』은 위창이 簡類의 소품을 수집하여 엮은 『權域書彙』의 후속작이다. 선조로부터 전승된 유물과 수집한 書簡類의 墨蹟을 엮어 1943년 완성하였다. 포배장 34책의 본체와 선장본 목록 1책을 추가해 35책이다. 수록된 작품의 시기는 고려의 鄭夢周부터 21세기 초의 閔衡植과 李道榮까지 550여 년에 걸친 1,136명의 친필이 수록되어 있다. 작가들의 신분은 국왕에서 천인에까지 이르며, 직업으로는 관료·학자·문학자·예술가·승려 등이 망라되었다. 서체로는 행서 595점, 초서가 468점으로 행초서가 그 대부분이지만 해서 57점, 전예가 16점이어서 篆·隸·楷·行·草의 구색이 모두 갖추어졌다. 문장의 내용도 매우 다양한데, 그 가운데 書簡이 724점, 詩稿가 359점으로 서간과 시문이 대부분이다.
- 서지사항: 權墨, 卷1-35. / 吳世昌 編.  
親筆本. [1943] 30.5×45.0cm.  
35冊. 帖裝.  
內容 : 書帖 34帖, 目錄 1冊.

## ○ 내용 및 특징

### ① 葦滄의 生涯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葦滄 吳世昌(1864~1953)은 언론인, 천도교인, 독립운동가, 민족지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한 인물이다. 자신을 포함하여 8대가 역관을 지낸 전형적인 중인 출신이었다. 1864년(고종 1) 서울 梨洞에서 역관인 亦梅 吳慶錫(1831~1879)과 어머니 김해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海州이다. 오경석도 초기 開化派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오세창의 자는 仲銘, 호는 葦滄이다.

8세부터 한의학자이며 개화사상가인 대치大致 유흥기劉鴻基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 16세인 1879년(고종 16) 역과에 합격하였다. 오세창은 22세에 사역원 직장(종7품)까지 승진했지만, 1886년(고종 23) 12월에 博文局 主事로 차출되어 『한성주보』 기자로 활동하였다. 1895년(고종 32) 농상공부 참서관에 임명되었으며, 농상공부 통신국장도 겸임하였다. 1897년(광무 1) 8월 일본 문부성의 초청으로 일본으로 가 도쿄외국어학교의 조선어 교사를 지냈다. 1899년(광무 3)에 귀국한 후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칩거하였다.

1902년(광무 6) 개화파인 兪吉濬이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청년장교들의 비밀 결사인 일심회와 함께 모의했던 쿠데타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도쿄에서 동학교주 孫秉熙를 만나 천도교에 입교했고 평생 동지가 되었다.

1906년(광무 10) 손병희 등과 귀국하여 천도교 기관지 『萬歲報』를 창간해서 사장에 취임하였다. 1909년에는 『大韓民報』 사장을 지냈다. 1919년에는 33인 민족대표의 한사람으로서 「己未獨立宣言書」에 서명하였다. 이후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4월 10일 서울에서 조선국민대회와 조선자주당연합회 명의로 선포한 조선민국 임시정부(정도령 손병희, 부도령 이승만)의 조각에서 장관급인 殖産務卿으로 이름을 올렸다.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치안 방해 등의 혐의로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21년 12월 가출옥하였다.

1925년 『時代日報』 사장을 지냈다. 이즈음 본격적으로 문화운동에 뛰어들었다. 서화와 골동품이 가득했던 가정환경과 타고난 예술적 소양이 있어 평소 관심이 많았던 서예와 서화 감식에 몰두하였고, 선대부터 갖고 있던 서화작품과 자신이 모은 작품들을 근간으로 한국서화사 연구에 착수하였다.

1945년 광복 후 우익에 가담하여 김성수, 김구, 이승만과 함께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1946년에는 반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광복 1주년 기념식에서 민족대표로서 일본에 빼앗겼던 대한제국 황제의 옥새를 되돌려 받기도 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구로 피난을 갔고, 거기서 1953년 4월 90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② 葦滄의 著作

위창은 한국미술사의 초석을 이룬 편저자·서화가·감식가·미술이론가·전각가·고증학자·금석학자이다. 위창은 왕성한 서화작품 활동을 하면서, 서화의 감식·수장·제작은 물론 여러 수장가를 독려하여 민족문화를 보존하는 데도 공헌을 하였다. 당대의 안목으로 1916년부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역대 서화가의 眞筆을 수집하면서 이들 자료를 토대로 서화사 연구도 진행해 『權域畫彙』·『權域書彙』·『權墨』·『權域印藪』 등을 편찬했고, 역대 서화가 인명사전인 『權域書畫徵』도 편찬하였다. 한 점씩 살펴보기로 한다.

1928년 3권의 『權域書畫徵』을 啓明俱樂部에서 출판하였다. 『權域書畫徵』은 역사나 문집에 실린 글을 발췌한 역대 서화가의 인명록이다. 참고한 문헌은 270종으로 사서·문집·방목·금석서 등이 주류이며, 이외에도 읍지·족보·비명·병풍·서첩·주련까지 인용되어 있다. 이 책에는 신라의 率居부터 이 책이 발간되기 직전에 타계한 羅壽淵(1861~1926)과 丁大有(1852~1927)에 이르기까지 모두 1,117명(서예가 392·화가 576·서화겸비 149)의 서화가가 수록되었다. 기록에 나타난 역대서화가를 신라·고려·조선(상·중·하) 5편으로 나누고, 출생연도순으로 수록한 것이다. 위항인

도 대거 편입시켰으며, 수적으로 적지만 여성도 수록하였다. 성명에 이어 자·호·본관·家世·출생연도·受學·관직·사망연도 등의 대강을 소개한 후, 그의 예술에 대한 기록과 논평을 실고 그 서목을 밝혔으며, 유전되는 작품의 명칭과 소재도 밝힌 것이다. 이 책은 출판된 서적이어서 우수한 도서관에는 소장되어 있다.

위창은 부친을 통해 추사의 금석학을 계승하고, 청대 금석학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금석학자로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금석의 감식, 전각의 연구, 편저서에도 고증학자로서의 안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위창 금석학자로서의 저작은 1901년(광무 5) 편찬한 『書之鯖』이다. 『書之鯖』에는 갑골문, 금문, 석고문, 전폐문, 종정문, 와전문, 전문, 비갈명, 마애각석 등 夏에서 明까지의 중국 금석문 63종과 삼국과 고려까지의 한국 금석문 21종을 雙鉤하고 금석유물의 출토지, 서자, 서체분석, 서평 등을 제발로 쓴 책이다. 이 책은 미정고이지만 위창 금석학 연구의 결정판이라고 한다. 이 책은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秋史의 맥을 잇는 전각가인 위창은 『槿域印藪』 4函과 목록도 1937년 편집하였다. 위창의 전각은 추사의 학맥과 전각관의 토대에서 청대 각 유파들의 刻風을 수용하였다. 역대 한국·중국·일본의 인보를 두루 섭렵하고 독자의 각품을 이룬 것이다. 위창은 창작과 더불어 전각에 관해 깊이 연구하여 조선 초기부터 광복 이전까지 우리나라 서화가와 학자들이 애용하던 인장 856명의 3,912顆를 수집하고 정리해 『槿域印藪』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 실린 인장의 종류는 姓名印·雅號印·別號印·字印·藏書印·詞章印 등 다양하며, 우리나라 전각예술의 진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 책을 편집하기 위하여 위창은 인장자체를 수집한 것은 아니고, 인장의 捺印本을 수집한 것이다. 그 방법은 직접 날인해 구하기도 하고, 혹은 책에 날인된 藏書印 또는 서화작품에서 내려내기도 하였다. 각 印影 밑에 그 위치 그대로 인쇄체 정자를 넣어 印文과 대조할 수 있게 하였다. 또 권두에는 姓氏別字劃順과 號別字母順 목차를 수록하였고, 또 姓氏別 人員數까지 수록해서 印章辭典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게 편집하였다. 1953년 피난지인 대구에서 작고한 후 유족들이 『槿域印藪』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이외에도 自刻한 인장을 모아 『葦滄印譜』(1892년 경) 1冊·『吳氏印集』(1892년 경) 1冊·『梨花室印譜』(1900년) 1冊·『鐵筆殘影』(1910년 경) 1冊·『吳氏丹篆』(1924년)·『葦老印藁』(1928년)·『酬雨丹篆』 3冊·『融扁』·『十二幅瓦屏』 등의 印譜도 편찬하였다. 이들 작품은 장손이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작품은 추사 이후 인보가 흔치 않았던 전각계에 한 획을 긋는 업적이며, 순수한 自刻印으로서의 최초의 인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槿域畫彙』 3첩은 우리나라 역대 명인의 그림을 모아 만든 眞墨圖錄이며, 서울대학교 수장의 『槿域書彙』 37책과 짝이 되도록 편집한 것이다. 『槿域畫彙』는 친일군인이자 거부인 多山 朴榮喆(1879~1939)에게 양도되었다. 박영철의 기증으로 지금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조선시대 화가 67명의 그림

67점이 시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天帖에 25점, 地帖과 人帖에 각기 21점, 도합 67점의 그림이 실려 있다. 시기별로는 조선 초기 1점, 중기 9점, 후기 30점, 말기 이후가 27점이다. 비록 수록된 양은 많지 않지만 조선 초기 安堅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山水圖」, 申師任堂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白鷺圖」, 李澄의 「산수도」 등이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鄭叡, 沈師正, 姜世晷 등 조선시대 주요 화가의 그림도 두루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간송미술관에도 오세창이 편집했다고 전하는 同名의 화첩이 소장되어 있다. 간송미술관 소장품은 전체적으로 소개된 적이 없어 양자 간의 관계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위창은 삼재의 그림을 모아 『三齋畫帖』도 편집하였다. 조선시대에는 ‘三圓’과 ‘三齋’로 불리는 천재 화가들이 있었다. 삼원은 檀園 金弘道·蕙園 申潤福·吾園 張承業을 말하고, 삼재는 謙齋 鄭叡·玄齋 沈師正·恭齋 尹斗緒를 두고 하는 말이다. 후대에 孫在馨(1903~1981)이 『三齋畫帖』을 인수하여 改粧하였다. 孫在馨은 ‘三齋畫帖’이란 방정한 해서의 서명 밑에 특유의 소전체로 “歲在丁丑乞巧節 素筌題之”라고 쓰고, 이어 ‘在馨(白文方印)’, ‘素筌(朱文方印)’ 두 과의 인장을 상하로 나란히 찍인하였다. 乞巧節은 음력 칠월칠석 전날을 가리킨다. 이로써 이 화첩을 1937년 인 35세에 손재형이 입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권두에는 오세창이 무오년인 1918년 붉은 印札紙에 쓴 「三齋畫幅說」이 첨부되어 있다. ‘吳世昌’, ‘葦滄氏’ 두 과의 반각인이 있다. 이 화첩은 위창에서 소전으로 다시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넘어가,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槿域書彙』 37책은 1911년 편찬되었고, 수록된 인물의 총 수는 1,107명이다. 고려 말에서 대한제국말까지 선인들의 필적을 모아 엮은 眞墨圖錄이다. 『槿域書彙』는 1911년 위창이 직접 首冊 및 1~23책을 편찬하였다. 1919년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박영철에게 양도하였다. 박영철은 위창의 도움을 받아 1932년까지 再續 2책, 三續 3책, 四續 2책, 五續 4책과 人名考 2책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쳐 모두 37책이다. 포배장이다. 고려 초기 문신 서희,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 조선 중기 학자 이이 등 우리나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인물 1,107명의 원본필적 1,119점이 담겨있다. 수록된 필적은 거의 600여 년에 걸치는 것으로, 신분상으로 볼 때는 국왕의 어필을 비롯하여 각계 유명인사들의 서간·詩軸·文稿 등으로부터 중인·천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여기에 수록된 필적은 대부분 서간·문고류 등의 소품이지만, 시·서문·기문·발문 등 다양한 한문체의 글도 실려 있어 미술·풍속·사회사 등 역사적 사료로도 가치가 높다. 대작이 적은 우리나라에서의 서예사적 가치는 높으며, 특히 서간류는 선인들의 일상생활을 살필 수 있는 점에서 사회사자료로서도 귀중하다. 또한 진위가 문제시되는 작품의 경우 동일 작가의 작품은 『槿域書彙』과 『槿墨』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박영철 사후 1940년 경성제국대학에 기증되어 현재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③ 『權墨』

위창이 簡類의 소품을 수집하여 엮은 책은 『權域書彙』 외에 『權墨』도 있다. 『權域書彙』가 1부라면, 『權墨』은 2부에 해당된다. 선조로부터 전승된 유물과 수집한 書簡類의 墨蹟을 엮어 같은 형태의 서적을 2부 완성한 것이다. 『權墨』은 1943년에 완성되었다. 포배장 34책의 본체와 선장본 목록 1책을 추가해 35책이다. 제침을 보면 서명에 이어 소자로 “八十葦”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서첩의 제작시기가 그의 나이 80이 되던 1943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용상 연대로 보면 鄭夢周의 출생이 1337년(충숙왕 복위 6)이고, 대한제국말의 閔衡植과 李道榮의 출생이 1884년(고종 21)이니 상하 거의 550 여년에 걸친다. 그들을 신분별로 보면 위로 국왕에서 아래로는 천인에까지 이르며, 직업별로는 관료·학자·문학자·예술가·승려 등이 망라되었다. 서체별은 행서 595점·초서가 468점으로 행초서가 그 대부분이고, 해서 57점·전예가 16점이어서 篆·隸·楷·行·草의 구색이 모두 갖추어졌다. 모두 1,136명의 친필이 수록되어 있다. 그 문장의 내용은 書簡이 724점, 詩稿가 359점, 題額 15점, 記 10점, 賦 7점, 序 5점, 畫題 3점, 證言 2점, 碑銘 2점, 跋 2점, 贊 1점, 箴言 1점, 法語 1점, 表題 1점, 諭旨 1점, 物目 1점, 鐘銘 1점 등이다. 내용면에서 매우 다양하며, 서간과 시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용이 풍부하고 역대인물이 거의 빠짐없이 망라된 簡帖類는 『權墨』과 『權域書彙』에 비견할 것이 현재까지는 없다. 『權墨』은 1962년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유족으로부터 讓受한 것이다. 1981년 任昌淳이 『權墨』을 탈초해서 성균관대학교박물관에서 영인본을 발간한 바 있다. 『權域書彙』와 함께 일찍부터 우리나라 名家 글씨의 기준작으로 인식되어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 참고문헌

- 김상엽, 「朝鮮時代 書畫品評 管見-『權域書畫徵』 所載 眞僞관계 記事」, 『東洋古典研究』20, 2004, pp.139~154.
- 이승연, 『위창 오세창』, 이희문화사, 2000.
- 李昇妍, 「葦滄 吳世昌의 篆刻과 印譜」, 『書誌學研究』41, 2008, pp.397~425.
- 李昇妍, 「葦滄 吳世昌의 金石學과 書之鯖」, 『한국사상과 문화』70, 2013, pp.421~448.
- 河永輝, 「鄭夢周의 두 편지의 글씨에 관한 일고찰」, 『대동문화연구』98, 2017, pp.7~268.

## ○ 기 타

- 1943년 위창 오세창(1864~1953)이 명사 1,136명의 글씨를 성첩함
- 1962년 12월 유족으로부터 34책을 구입하여 성균관대학교도서관에서 보관함
- 1964년 6월 22일 박물관이 개관되자 박물관으로 이관됨

### 3. 아미타여래구존도 (阿彌陀如來九尊圖)

#### 가. 심의사항

‘아미타여래구존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울산광역시로부터 ‘아미타여래구존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4.2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1.12.) 및 과학조사(’23.3.14~3.1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5.3.~’23.6.2.)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아미타여래구존도(阿彌陀如來九尊圖)
- 소유자(관리자) : 울산광역시(울산박물관)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77, 울산박물관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154.0×64.9cm, 화면 67.2×45.8cm
- 재 질 : 삼베 바탕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565년(명종 20)



<아미타여래구존도, 울산박물관 소장, 1565년>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가정 44년(1565)에 삼배 바탕에 그려진 채색불화로 화기를 통해서 조성연대, 존명이 명확하다.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팔대보살이 본존 머리 광배 주변까지 둥글게 둘러싼 구성은 16세기 조성된 아미타여래구존도의 형식과 상통하고 있고, 조성시기가 명확한 채색불화로서 국내에 거의 전하지 않은 조선 전기의 아미타여래구존도로서 시대적 희소성의 가치가 충분하다.

신청 대상인 <아미타여래구존도>는 본존과 머리와 몸을 둘러싼 원형 광배형식, 둥글고 넓적한 육계와 반달형 중간계주 표현, 문양이 생략된 채색 등에서 왕실발원불화와 민간 불화의 특징을 모두 반영한 조선 전기 민간불화 양식을 보여주는



연구자료로 가치가 있다. 현재, 조선 전기 아미타여래구존도가 지정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자료로 삼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1565년이란 제작연대가 정확한 조선전기 불화이다. 이 불화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 지장보살을 비롯한 팔대보살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고려 후기 불화의 요소가 남아 있으며, 여래를 중심으로 보살을 에워싸는 배치, 여래와 보살의 형상과 묘사, 필선의 사용과 문양을 배제한 색 중심의 채색법에서는 조선전기 불화의 새로운 요소, 특히 16세기 불화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 바탕천을 삼베를 사용하였음에도 여래의 묘사와 공간감 있게 팔대보살을 배치하는 방식에서 왕실불화의 영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불화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 박물관에 소장되었고 국내에 현존하는 조선전기 불화 가운데 제작연도가 정확한 아미타여래구존도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고려 후기부터 조선전기 불화의 형식과 양식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화는 1565년에 제작된 16세기 불화이다. 구성은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8위의 보살들이 위계에 맞게 배치된 구존도 형식을 띠고 있다. 정확한 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며 나머지 보살은 뚜렷한 도상적 특징 없이 합장인을 결하고 있어 존명 파악에 한계점이 있으나, 고려시대 <아미타여래구존도>의 전통을 계승하여 제작된 16세기 불화이자 17세기 아미타여래설법도와 목각아미타여래설법도로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므로, 한국불교회화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조선 전기에 그려진 아미타여래구존도 6점 중 기년을 지닌 채색불화라는 점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한편 조선 전기 불화는 대부분 국외에 소재해 있고, 국내에 현존 하는 작품 대부분은 그 사례가 드물어 대부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불화 역시 1565년이라는 제작시기를 간직하고 있어 조선 전기 불화 연구에 절대적 기준자료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국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아미타여래구존도>는 전체 크기 세로 154.0cm, 가로 64.9cm, 화면 크기 세로 67.2×가로 45.8cm로 삼베 바탕에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로 구성된 채색불화 1폭으로 족자 형태이다. 일본식 장황(裝潢)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면 상측 부분 장황은 비레로 볼 때 약간 잘린 듯하며 하측은 원래대로 남아있어 운문이 장식된 녹색 비단을 그림으로 표현한 회장 문양이 남아있다. 장황 경계에 붉은 선과 흰색 테두리를 두었고, 상단 흰색 테두리 위쪽에는 풍패(風佩) 한 쌍을 그려 짝을 이루었다. 그림 표면은 가로 꺾임과 표면 손상이 약간 존재한다.

바탕 직물은 평직(平織)으로 제작된 마직물이며 총 2폭(12+33.1)을 실로 연결하였다. 화면에서 훼손된 삼베 바탕천을 견직물을 사용하여 보강한 부분이 있다.

화면 아래 중앙에 진사로 칠한 붉은 색 화기 칸에 먹으로 조성연대, 시주질 등을 기록하여 제작연대인 1565년(명종 20)이 확인되는 조선 16세기 불화이다. 화기는 4행(行) 32자(字)로 판독이 어려운 글자는 없지만, 오기(誤記)와 다른 불화에서 볼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연호는 명나라 가정(嘉靖) 44년으로 파악되지만, 연호 표기에서 ‘정’자를 ‘晴’으로 잘못 표기하였고, 15~16세기 불화에서 이렇게 용례는 없다. 그러나 정밀 조사 결과 바탕에도 다른 글자의 흔적은 없으므로 원래부터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작 연도는 가정(嘉靖) 44년(1565)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幀誦大施主’ 역시 일반 용례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幀大施主’는 일본 아이치현(愛知縣) 쇼가쿠지(正覺寺) 소장 <아미타여래삼존도>(1565)와 일본 도쿠시마현(德島縣(舊)) 보광사(寶光寺) 소장 <석가설법도>(1569),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縣) 고쿠분지(國分寺) 소장 <지장시왕도>(1586), 일본 오사카시(大阪市) 시텐오지(四天王寺) 소장 <석가설법도>(1587), 일본 효고현(兵庫縣) 야쿠센지(藥仙寺) 소장 <감로왕도>(1589)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편, 마지막 줄의 퀘주(几主) 지준비구(智峻比丘)는 의미상 보통 화주(化主), 대시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용례는 확인되

지 않는다.

이 불화는 일본인 사카모토 고로(神奈川縣)가 소유하다가 서울의 개인 소장자에게 이관되었다가 2019년 6월에 공개 구입하여 울산박물관이 소장하였다.

## ○ 내용 및 특징

울산박물관 소장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1565년(명종 20)에 제작된 불화로 국내에 소장된 조선 전기의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아미타여래구존도이다. 구도는 화면 중앙에 아미타여래가 이중의 원형 두광과 신광을 갖춘 형식으로 아미타구품인을 곁하고 불단 대좌 위에 연화좌대를 받치고 곁가부좌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팔대보살이 아래 각 2위씩 나누어 4존이 배치되고, 위로 원형을 이루며 4존이 아미타여래를 향해 서 있는 군도형식이다.

아미타여래는 극락정토 신앙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극락왕생 후 중생을 화엄세계로 인도하여 구제하는 여래이다. 원래 인도에서는 한량없는 수명을 가졌다는 의미의 무량수(無量壽, Amitayus)와 한량없는 광명을 지닌 무량광(無量光, Amitabha)이라고 표현되었으나 중국에서 아미타불로 음역하였다. 아미타신앙은 중국에서 지침(支籤)의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이 번역된 이후,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으로 불리는 강승개(康僧鎧) 역의 『무량수경(無量壽經)』(252년),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424년), 구마라집(鳩摩羅什) 역의 『아미타경(阿彌陀經)』(5세기 초)이 소개되면서 동아시아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팔대보살은 원래 아미타여래와 관련 없이 믿어지는 보살로서 『팔대보살만다라경(八大菩薩曼荼羅經)』, 『대일경(大日經)』, 『태장도상(胎藏圖像)』, 『별존잡기(別尊雜記)』 등의 경전과 도상집에서 소개되어 있다. 『팔대보살만다라경』 등에서 정의한 팔대보살을 우리나라 팔대보살과 연결하면,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관음보살, 자씨보살(慈氏菩薩)=미륵보살, 보현보살(普賢菩薩), 금강수보살(金剛手菩薩)=금강장보살, 만수실리보살(曼殊室利菩薩)=문수보살, 제장애보살(除蓋障菩薩)=제개장보살, 지장보살(地藏菩薩)이며, 우리나라 불화에서는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 대신 대세지보살로 표현되었다. 이들 보살은 각각 경전에 따라 신체 색, 지물, 자세 등이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팔대보살만다라경』의 도상과 지물을 차용하여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고려시대부터 제작된 도상으로 조선 전기까지 제작된 아미타여래구존도와 아미타불회도는 23점이 알려져 있다. 이중 제작연대가 확실한 작품은 고려시대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1307년), 일본 <마츠오데라(松尾寺) 아미타팔대보살도>(1320년)와 조선 전기의 <일본 엔라쿠지(延曆寺) 아미타팔대보살도>(1532), 일본 <하시데라(長谷寺) 아미타불회도>(1570), 일본 <오오쿠라집고관(大倉集古館) 아미타불회도>(1591), 그리고 울산

박물관 소장의 <아미타여래구존도>(1565)가 알려져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아미타여래구존도 가운데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불화 가운데 제작 연도가 확실한 유일한 작품이다<표 1>.

<표 1> 조선 전기 아미타계 불화 목록

구분	유물명	연대	재질	크기(cm)
1	일본 善妙寺 아미타팔대보살도	15세기	비단	77.3×51.0
2	일본 延曆寺 아미타팔대보살도	1532년	삼베	109.2×55.7
3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565년	삼베	67.1×45.8
4	일본 개인소장 아미타팔대보살도	16세기	비단	77.3×51.0
5	일본 寶珠寺 아미타팔대보살도	16세기	비단	40.8×26
6	일본 長谷寺 소장 아미타불회도	1570년	삼베	128.5×122.7
7	일본 大倉集古館 소장 아미타불회도	1591년	삼베	178.3×126.1
8	일본 金峰寺 아미타팔불회도	16세기	삼베	82,8×55.3
9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아미타불회도	16세기	비단	99×81.3

울산박물관 소장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화면 중앙에 아미타여래가 설법인을 하고 불단형 대좌 위에 연화좌대를 놓고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팔대보살이 둥글게 배치되어 있다. 고려 불화에서 아미타여래구존도 형식은 일본 마츠오데라(松尾寺) 소장의 <아미타팔대보살도>(1320) 등에서 보이는 본존과 보살이 엄격하게 구분된 이단구도를 14세기 후반부터 벗어나면서 본존 주위로 팔대보살이 좌우측에 4존씩 배치되는 설법도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이 형식은 조사대상 불화같이 권속이 둥글게 배치된 일본 <엔라쿠지(延曆寺) 아미타팔대보살도>(1532, 그림 1), 일본 가가와현(香川縣) <이야다니지(彌谷寺) 지장시왕도>(1546), 일본 가가와현(香川縣) <쥬주인(長壽院) 석가설법도>(1553, 그림 2) 등에서 보듯이 조선 전기 불화의 도상 형식으로 계승되었다. 조선 전기에 이러한 군도형식 구도가 정착되어 나타난 초기 작품이 <엔라쿠지 아미타팔대보살도>이다. 이 불화는 진한 붉은색 화면 바탕에 전체적으로 금니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채색한 선묘불화이다. 본존 형식이 둥근 얼굴에 건장한 신체를 한 고려불화에 가까운 형태미를 보이지만, 뾰족한 정상계주는 티베트계 불화양식으로 조선 전기 불화에서 유행하는 양식을 반영하였다.



<그림 1> 일본 延曆寺 아미타여래구존도, 조선 1532, 견본금니 채색, 55.4×78.8cm



<그림 2> 일본 香川縣 長壽院 석가설법도, 조선 1553, 마본 채색, 128.6×137.1cm

그러나 울산박물관 소장의 <아미타여래구존도>의 본존 아미타불의 육계 형식은 둥글고 넓은데 중간계주 부분이 납작한 반달형에 색바림한 모습으로 일본 <쥬주인(長壽院) 석가설법도>(1553, 그림 2), 일본 <쇼주지(正宗寺) 석가설법도>(1561), <지후쿠지(持福寺) 소장 영산회상도> (1563년),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영산회상도>(1562년), 일본 <시텐노지(四天王寺) 영산회상도>(1587년) 등 16세기 불화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본존의 원형 이중광배는 일본 <쥬주인(長壽院) 석가설법도>(1553), 일본 <하시데라(長谷寺) 아미타불회도>(1570), 일본 <장안사(長安寺) 아미타여래오존도>(1586, 그림 3) 등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이와 같이 울산박물관 소장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본존과 권속 구도에서 본존을 중심으로 권속이 감싸듯 어우러진 구도와 광배, 육계 형식 등에서 16세기 조선불화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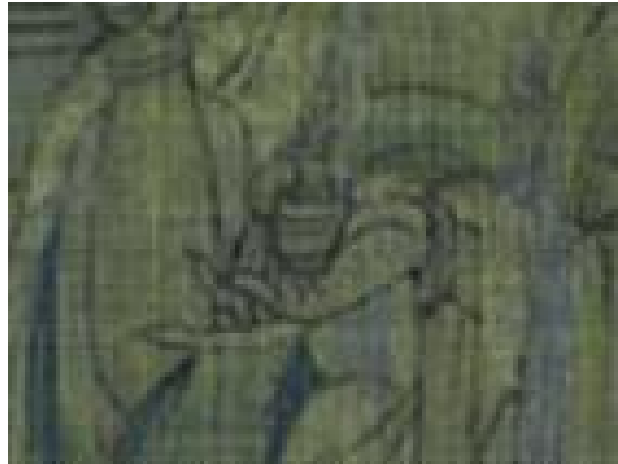
팔대보살은 화면 아래 1단에 각각 좌우로 2존씩 4존을 일렬로 배치하고, 4존의 보살이 신광과 두광 좌우로 둥글게 배치되었는데, 보살 간의 간격이 넓어서 공간감이 깊다. 화면 앞줄의 백의를 입고 정병을 들고 버들가지를 든 보살은 관음보살로 볼 수 있다(그림 4). 따라서 반대편의 보살은 합장하고 있는 모습에 별다른 지물과 보관장식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세지보살일 가능성이 크다. 화면 뒷줄에서 육환장을 들고 민머리형에 가사를 입은 모습으로 지장보살임을 알 수 있고, 그 반대편 보살은 대칭적으로 미륵보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음·지장 보살을 제외한 다른 문수보살·보현보살·제장애보살·금강장보살로 추정되는 육보살은 모두 합장한 자세로 지물 없이 서 있는 자세이므로 정확한 존명을 알기 어렵다.



<아미타불의 상반신>



<그림 3> 일본 佐渡市 長安寺 아미타여래오존도, 조선 1586, 114×2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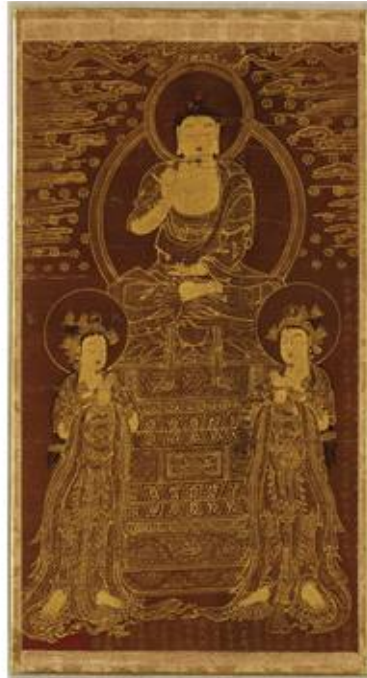


<그림 4> 관음보살의 정병 부분

불화는 크고 작은 화면 결실부를 과거에 보존처리하면서 보견과 배접지 위에 색맞춤을 하였다. 채색 안료는 붉은색[진사], 백색[연백], 황색, 흑색[먹], 녹색[석록], 청색[쪽] 등에서 전통 안료를 사용한 것이 과학조사에서 확인되었다. 화면 중심색조는 본존과 보살의 가사에 칠한 붉은색이고, 그 밖에 위에 언급한 색을 사용하여 채색하였다. 문양을 그리지 않고, 눈 밑 등에 흰색으로 덧칠하였다. 얼굴 이목구비의 표현이 특이한데 눈매를 크게 강조하고, 입술이 도톰하다.

울산박물관 소장품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전체적인 구성과 도상 특징은 조선 16세기의 불화 형식을 잘 보여주는 불화이다. 또한 보견과 보채 등이 조금씩 더해졌지만, 전통 안료를 사용한 불화로 화면 바탕의 출초(出草)는 조선 전기 불화 양식을 잘 보여준다. 이 불화가 제작된 시기는 화기에서 보이는 가정 44년은 억불정책을 실시한 조선에서 불교를 부흥시켰던 명종의 모후였던 문정왕후(1501~1565,

즉위 1517~1565)가 양주 회암사 중창을 기념하고, 아들 문종의 만수무강과 후손 탄생을 기원하여 제작한 금니화(金泥畵) 200폭과 채색화(彩色畵) 200폭을 제작하고 사망한 해이다. 당시 석가·약사·미륵·아미타불의 부처·보살을 소재로 조성한 불화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에 전하고 있는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1565, 그림 5)는 가름한 신체와 작은 이목구비, 뾰족한 원형 정상계주나 연화좌에서 대좌 양쪽으로 늘어진 수식, 세밀한 문양 요소 등에서 왕실발원 불화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있다.



<그림 5>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조선 1565.

반면, 울산박물관 소장품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이중 원형두신광과 원형 군도 형식과 둥글고 납작한 육계와 반달형 중간계주 형태는 16세기 불화 양식이 반영되지만, 문양이 없는 채색, 본존과 권속의 큰 눈과 도톰한 입술, 화기의 오류는 다른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화승 개인의 화풍과 민간불화의 형태를 반영한 작품으로 파악되며, 거의 남아있지 않은 조선 전기 불화에서 조성 시기가 명확한 아미타여래구존도로서 희소성을 지녔다.



<아미타여래구존도, 조선 1565, 삼베 채색, 화면 67.2×45.8cm, 울산박물관>



<가시광 및 적외선 영상 사진,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소, 2023>



<아미타여래구존도> 장황 부분과 화면 삼베 연결 부위





<보관함>



<아미타불의 상반신(초 현상)>



<보살 표현 부분>

### ○ 문헌자료

(화면 하단 가운데 방제 칸을 두어 화기 기록)

嘉晴四十四年乙丑四月日」

願造阿弥陀會圖」

幀誦大施主今之保」

几主 智峻比丘」

화기를 통해서 을축년 4월에 조성된 불화로 확인되며, 명칭이 ‘아미타회도’로 기록되었지만, 이전에 보물로 지정된 불화와 같이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을 그린 도

상이므로 ‘아미타여래구존도’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명칭을 ‘회도’로 기록한 사례는 일본 <엔라쿠지 아미타팔대보살도>(1532)에서 ‘미타회도(彌陀繪圖)’라고 언급한 경우가 있다.

아미타여래구존도가 고려 이후 조선 전기에도 조성되거나 사람들이 도상 구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 나타난다. 『세종실록』 세종 11년(1429) 6월 8일 기록에 “명나라 신하 창성이 아미타불과 팔대보살을 그릴 금(金) 1전 5푼을 요구하고, 윤봉(尹鳳)은 소불(小佛)을 장식할 채색(彩色)을 요구하니,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라는 기록이나, 월산대군이 발원하여 제작한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1489)에서 ‘순금으로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을 제작’하였고,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586)의 발원문에서 ‘정월 18일에 아미타불 1구와 아미타팔대보살 1탱(幀), 아미타양대보살 2탱을 그려 봉암사 선당 향적전에 봉안하고 점안법회를 열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화기 모습>

## ○ 참고문헌

- 울산광역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1.
-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 『아미타여래구존도 조사 결과 보고』, 2023.
- 김형곤, 「조선전기 아미타팔대보살도연구-한국 개인소장 금선묘아미타팔대보살도를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24, 2018.
- 다케다카즈아키·박은경, 「日本 福井縣 鮮妙寺소장 조선초기 <阿彌陀八大菩薩圖>」, 『美術史論壇』3, 1996.
- 박은경, 『조선전기 불화 연구』, 시공사, 2008.
- 박은경, 「일본 소재 조선 전기 석가설법도연구」, 『석당논총』5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 양희정, 「고려시대 아미타팔대보살도 도상 연구」, 『미술사학연구』257, 2008.

- 정우택, 「일본 아이치현(愛知縣) 지역 조선시대 전기 불화의 조사 연구」, 『미술사논단』33, 한국미술연구소, 2011.
- 姜恩實 등, 「朝鮮前期金泥線描仏畫の畫法研究—比叡山延曆寺所藏「阿彌陀八大菩薩像」と京都市立芸術大學芸術資料館所藏「藥師三尊八大菩薩十二神將像」の比較を通して—」, 『研究紀要』63, 京都市立芸術大學美術學部, 2019.
- 구진경, 「고려 아미타팔대보살도 도상의 성립과 특징」, 『동아시아문화와 예술』7, 2009.

□

## ○ 현 상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1565년에 조성된 불화로 주존인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팔대보살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현재 불화의 장황은 당초문 음각 새김이 된 금속제 축두가 있는 상·하축에 금직 화문으로 표장한 일본식 족자로 되어 있다. 동반 유물로 흑칠된 일본식 보관함이 있다.

불화의 전체 크기는 세로 154.0cm에 가로 64.9cm이며 화면 크기는 세로 67.2cm에 가로 45.8cm이다. 화면 바탕천은 울이 굵은 삼베 2매 33.1cm와 12.0cm를 바느질로 연결하여 바탕천을 이루고 있다. 화면 곳곳에서 가로 꺾임이 있으며 가로 꺾임 부분과 바탕천 연결부에서 화면 결실이 확인된다. 장황과 함께 일부 수리가 이루어진 듯 화면에 결실된 부분은 비단으로 보강하고 색 맞춤을 하였다. 또한 현재 화면 좌우의 외곽선과 회장은 확인되지 않으며 화면 상단에 화면을 들렀던 붉은 외곽선과 흰색 회장만이 남아 있고 다행히 하단부에 붉은 외곽선, 흰색 회장만이 아니라 하축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는 흰색과 운문이 있는 녹색 회장이 남아 있다.

## ○ 내용 및 특징

- 1565년에 조성된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화면 크기가 67.2×45.8cm로 조선전기에 조성된 채색 불화 중 가운데 소형 불화에 속한다. 존상 구성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팔대보살이 배치되어 있다. 본존인 아미타불은 설법인을 하고 높은 불단에 놓인 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아미타불의 육체는 낮고 둥글며 크고 납작한 중간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얼굴 표현은 눈, 코, 입의 비율이 적절하여 엄정한 인상을 주며, 왼손을 배 부분에 두고 오른 손을 든 설법인의 표현, 넓은 어깨와 짧은 허리, 무릎 높이의 비율이 비롯해 넓은 앉은 자세 등은 모두 표현이 안정감이 있다. 이와 같은 여래의 형상은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영산회상도>(156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불회도>(156

2년) 등 16세기 불화를 비롯해 불상인 <봉암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1586년)과도 유사하다.

아미타여래에 비해 좌우에 서 있는 팔대보살은 본존에 비해 신체를 길고 가늘게 표현하였다. 보살의 이러한 세장한 신체 표현은 일본 조주인(長壽院)의 <영산회상도>(1553년)와 유사하다.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에서 대부분의 팔대보살은 합장을 하고 있어 보살의 존명을 모두 알 수 없으나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은 도상적 특징을 통해 존명을 파악할 수 있다. 관음보살은 보관에 화불이 표현되지 않았지만 왼손에 정병이 들고 오른손의 엄지와 중지로 버들가지를 들고 있으며 백의의 천의를 걸쳐 입었다. 지장보살은 민머리 형상에 오른손은 주색의 육환장을 들고 왼손에는 흰색의 수정 구슬을 들고 있다(삽도 1).



<삽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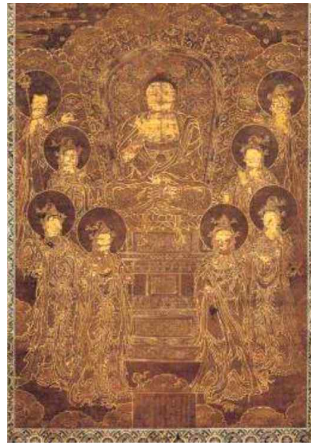
-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존상 구성과 배치에 있어 고려 후기 적 요소와 조선전기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팔대보살을 권속으로 배치하는 구존도 형식은 일본 마쓰오지(松尾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1320)를 포함해 고려 후기부터 지속되어 온 존상 구성이다(삽도 2).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고려 후기 불화처럼 배경 없이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만을 구성하면서도 팔대보살을 여래 아래에 두지 않고 화면 상단까지 올려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배치법은 일본 쯔묘지(善妙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15세기), 일본 엔락쿠지(延歷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등 조선전기 불화에서 볼 수 있는 권속들의 배치법이다.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보살들의 배치를 상하 일렬로 배치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 등글게 배치하여 공간감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감을 부여하는 배치법은 일본 요다테라(與田寺) 소장 <지장육광보살도>(15세기)를 비롯해 왕실 발원 불화인 엔락쿠지 <아미타여래구존도>와 일본 야야테라(彌谷寺) 소장 <지장시왕도>(1546년) 등 수준 높은 조선전기 불화에서 볼 수 있다(삽도 2).

<삽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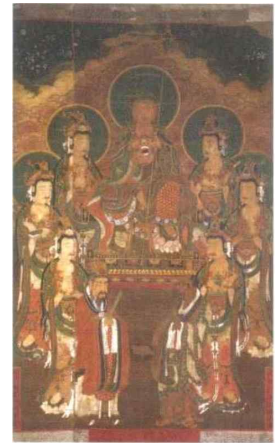
松尾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320년,  
비단,  
117.3×91.2cm



延曆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532년,  
비단,  
180.8×55.7cm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565년,  
삼베  
67.2×45.8cm



與田寺 소장  
지장육광보살도,  
15세기,  
129×77.5cm

- 존상을 표현하는 필선은 안료가 박락되면서 선명하지 않지만 아미타여래의 얼굴을 비롯하여 안료가 박락된 지장보살의 얼굴 묘사에 사용된 섬세한 필선 사용과 얼굴선을 먹선 위에 주색선으로 처리한 방식에서 능숙한 필력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먹선으로 눈꼬리와 눈동자를 강조하면서 아래에 백선을 살짝 넣거나 붉은 입술 중간에 굵은 먹선 양끝을 눌러 표현하는 방식은 이 불화를 그린 작가의 독특한 표현법으로 짐작된다. 얼굴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섬세한 필선은 여래의 육계, 보살의 보관의 형태, 그리고 대의와 천의 등 불보살의 복식을 표현할 때에는 최소화하였다. 또한 문양으로 장식성을 높이지 않고 적색과 녹색, 흰색 등의 색 대비를 통한 각 존상이 화면에서 두드러지게 하였다. 현재 적색과 흰색, 일부 먹색을 제외하고 녹색으로 추정되는 색은 박락되거나 변색되어 원래의 색을 알아 볼 수 없다.

-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재료적인 측면에서 조선전기 왕실이 아닌 민간에서 제작한 불화에서 바탕천으로 삼베를 사용한 마본(麻本)불화이다.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화면이 거칠지만 존상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필선은 유

려하며 현재 안료가 많이 박락되었지만 적색, 흰색 등의 잔여 상태로 보아 제작 당시에는 진채기법으로 채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대좌 아래에는 주색 바탕에 먹으로 쓴 “嘉晴四十四年乙丑四月日 願造阿彌陀會圖 幀誦大施主今之保 凡主 智俊比丘”란 내용의 화기가 적혀 있다. 주색바탕에 먹으로 쓴 화기 또한 마본불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화기에서 “嘉晴”은 嘉靖의 오기로 이 불화의 제작 시기는 가정 40년 을축인 1565년이다.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을 주제로 조선전기 불화는 일본에 소재한 쯤묘지(善妙寺), 엔락쿠지(延曆寺), 하세데라(長谷寺), 호주지(寶珠寺), 긴포지(金峰寺), 오쿠라슈고칸(大倉集古館) 등을 포함해 개인소장품으로 여러 점이 알려져 있다. 이 중 기년명 불화는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1565년) 등을 비롯해 엔락쿠지(延曆寺, 1532년), 하세데라(長谷寺, 1570년), 오쿠라슈고칸(大倉集古館, 1591년) 등에 소장된 아미타여래구존도 4점에 불과하다(삽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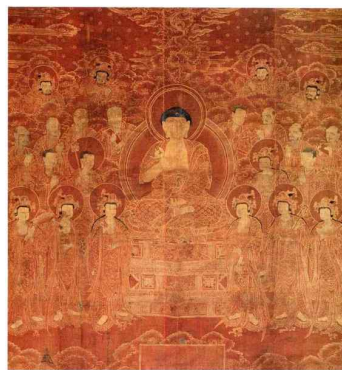
<삽도 3>



延曆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532년,  
비단,  
180.8×55.7cm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565년,  
삼베  
67.2×45.8cm



長谷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570년,  
128.5×122.7cm



大倉集古館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591년

- 앞서 살펴보았듯이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화기에 적힌 불화의 명칭은 阿彌陀佛會圖이다. 아미타불과 팔대보살이 결합된 불화 형식은 조선전기 문헌인 『목은문고』의 「贈休上人序」, 『동문선』의 「五臺山西臺水精菴重創記」(1404년), 『세종실록』44권의 세종 11년(1429) 기사조에서 “新繪彌陀八大菩薩”, “畫西方彌陀八大菩薩”, “畫彌陀八大菩薩” 등이란 내용으로 제작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지장보살본원경』(1489)의 발문에서 “純金彌陀八大菩薩”이란 문구와 <문경 봉암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발원문>(1586)에서 “畫成彌陀八大菩薩一幀”이란 내용을 통해 조선전기에 많은 수가 제작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기록에서 언급되는 “아미타 팔대보살”은 현전하는 조선전기 불화에서 사용된 용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의 “阿彌陀會圖”와 유사 용례로 일본 엔락쿠

지(延曆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1532)의 화기에서 “彌陀會圖”가 알려져 있다. 일본 엔랴쿠지 소장 불화는 화기명만이 아니라 존상 구성에 있어 고려 후기 아미타여래구존도처럼 아미타불과 팔대보살만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와 친연성을 가진다.

-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화면 상단에는 낙영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며 하단에는 필선과 색채가 흐려지고 변했지만 장황에 사용되는 비단을 그림으로 그린 회장 부분이 남아 있다. 불화에 낙영을 그리는 방식은 일본 코묘지(光明寺) 소장 <지장시왕도>(1562년), 일본 약센지(藥仙寺) <감로도>(1589년) 등 조선전기 16세기 불화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낙영과 함께 화면 외곽의 회장을 마치 비단으로 장황한 듯 그림으로 그리는 방식 또한 조선전기 불화에서 확인되는 특징으로 녹색바탕의 운문은 17세기~18세기에 조성된 조선 후기 불화에서 화면 외곽에 둘러지는 회장 문양의 선행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 문헌자료

-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화기

嘉晴四十四年乙丑四月日

願造阿彌陀會圖

幀誦 大施主今之保

几主 智峻比丘

### ○ 참고문헌

- 박은경, 『조선전기 불화 연구』, 시공사, 2008.

- 김형곤, 「조선 전기 아미타팔대보살도연구-한국 개인소장 금선묘아미타팔대보살도를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24, 2018.

- 다케다카즈야키·박은경, 「日本 福井縣 鮮妙寺소장 조선초기 <阿彌陀八大菩薩圖>」, 『美術史論壇』3, 1996.

- 鄭于澤, 「延曆寺 소장 조선전기 金線描 阿彌陀八大菩薩圖의 고찰」, 『동악미술사학』16, 2014.

### ○ 기 타

이 불화는 일본인 사카모토 고로(神奈川縣)씨가 소장하다가 2016년에 명인박물관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명인박물관 소장 당시 동국대학교박물관 특별전인 「서로모아-부처님께 합장」에 출품되면서 공개되었다. 이후 소장자는 최창분씨였으며, 2019년에 울산박물관에서 공개 구입을 통해 현재 박물관 소장품으로 귀속되었다.



### ○ 내용 및 특징

이 불화는 2019년 공개구입을 통해 구입한 불화이다. 원 소장자는 김창분이며, 김창분은 일본 개인 소장자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소장하였다고 한다.

이 그림은 여래와 8위의 보살로 구성된 그림이다. 화면 하단에 마련된 화기에 따르면 제작 시기는 가정 44년 을축, 즉 1565년(명종 20)이며 아미타회도를 그린 것이다. 따라서 이 그림은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8위의 보살을 그린, 이른바 <아미타여래구존도>이다.<sup>199)</sup> 제작에는 탕포대시주 스之와 几主 智峻 등 소략한 인물만이 참여하였다. 几主라는 소임은 생소하지만 퀘주로 참여한 지준은 1557년 歸眞寺에서 간행한 『大方廣佛華嚴經疏注』 난외에 같은 이름의 승명이 확인한다. 활동 시기로 보아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림은 세로 67.2cm, 가로 45.8cm 가량의 소규모 그림이며, 화면은 폭이 12.0cm와 33.4cm 되는 두 폭의 삼베를 바느질로 이어 붙여 화면을 마련하였다. 조선 후기 대형의 후불화와 달리 조선전기 불화는 문정왕후가 발원한 회암사의 400탱(1565년)과 같이 왕실이나 개인의 원찰에 봉안되는 경우가 많아 소형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불화도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한다. 이 불화는 현재 일본식으로 장황으로 되어 있다. 일본으로 반출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반출된 이후 그 나라 상황에 맞게 수보되었음을 말해 준다. 화면 결손부는 보존처리 때 보견 없이 배접지 위에 보채된 부분이 많고, 극히 일부에는 바탕천과 같은 재질로 메움하여 색 맞춤한 곳도 확인된다. 화면의 상하좌우가 잘려 개장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장황형태와 크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 상단에는 붉은색 외곽선과 백색의 변아 부분이 확인되고, 하단에는 붉은색 외곽선과 백색의 변아, 운문의 그려진 녹색의 회장 일부가 확인된다. 아마도 상단도 이와 같은 양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관상자는 옷칠한 일본식 함이다.

화면은 전반적으로 검게 변색되어 있어 어둡고 탁한 느낌을 주는데, 원래는 적색과 녹색과 청색, 백색, 남색 등 명·채도가 높은 색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중간 색조를 조채하여 설채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산뜻한 색채감을 간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 통상 아미타여래와 8위의 보살로 구성된 불화를 통상 학계에서는 <아미타팔대보살도>라고 부르고 있으나, 현재 문 화재청의 지정명칭 선례에 따라 <아미타여래구존도>로 칭하기로 한다.





<도1. 아미타여래구존도 전면, 1565년>



<도2. 아미타여래구존도 배면>

화면은 사각의 높은 수미단 위 연화대좌에 앉은 설법인의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상하에 각각 4위의 보살을 배치한 구존도 형식이다. 아미타여래의 상단에는 연꽃의 보개가 자리 잡았으며 보개를 구름이 감싸 상서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화면의 상단 좌우에는 규형의 낙영이 드리워져 있고 여래의 머리에서 뻗어나간 두 줄기 빛이 천공을 가르고 있다.

고려시대 아미타여래구존도는 여래를 상단에 두고, 8위의 보살을 하단에 배치하는 이른바 엄격한 상하 2단 구도를 택하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여래를 중심으로 8위의 보살이 둥글게 에워싸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이 불화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아미타여래구존도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고려와 다른 조선 전기의 양식이 적용된 것이다.

아미타여래와 8위의 보살로 구성된 이와 같은 불화의 형식을 통상 <아미타팔대보살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미타여래구존도>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여래와 팔대보살의 구성은 8세기 후반 불공이 한역한 『팔대보살만다라경』에 의거하며, 『대일경』, 『태장도상』 등 밀교경전과 도상집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팔대보살만다라경』의 여래는 특정한 여래를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석가여래로 판단되며, 이곳에 등장하는 8대 보살은 관음·금강수·보현·자씨·허공장·지장·제개장·문수보살이다.<sup>200)</sup>

200) 唐代 不空이 譯한 『八大菩薩曼荼羅經』에 의하면, 팔대보살의 구성과 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即曼荼羅中, 想於如來眞金色身三十二相, 坐蓮華臺. 次說觀自在菩薩密言曰. ……即想曼荼羅中聖觀自在赤色身. 左手持蓮花. 右手施願. 頭冠中有無量壽如來. 次說慈氏菩薩密言曰…於觀自在菩薩, 後想慈氏金色身. 左手執軍持. 右手施無畏. 冠中有窈都婆. 半跏坐. 次說虛空藏菩薩眞言曰. ……於佛背後想虛空藏. 左手持寶安於心上, 右手施流出無量寶. 次說普賢菩薩密言曰. ……虛空藏左邊想普賢菩薩. 載五佛冠. 金色身. 右手持劍. 左手施願. 半跏而坐. 次說金剛手菩薩眞言曰. ……於如來左邊想金剛手菩薩. 右執金剛杵. 左手手安於膀. 載五佛冠. 身青色. 半跏而坐. 次說曼殊室利菩薩眞言. ……於金剛手菩薩前想曼殊室利菩薩. 五髻童子形. 左手執青蓮花, 花中有五股金剛杵, 右手作施願. 身金色. 半伽而坐. 次說除蓋障菩薩密言曰. ……於曼殊室利菩薩, 右想除蓋障菩薩, 金色身. 左手執如意幢. 右手施願. 半跏而坐. 次說地藏菩薩密言曰. ……於如來前想地藏菩薩. 頭冠瓔珞. 面貌熙怡, 寂靜愍念一切有情, 左手臍下拓鉢. 右手覆掌, 向下大指捻頭指, 作安慰一切有情想.”

아미타여래 팔대보살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작품은 12세기 후반에 편찬된 『별존잡기』의 <팔대보살만다라도>이다. 이곳에는 분명히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하단 앞쪽부터 지그재그로 관음(좌)과 보현(우), 문수(좌)와 지장(좌), 허공장(좌)과 자씨(우), 금강수(좌)와 제개장(우) 보살을 배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도상이 고려 1307년 작 <노영 필 아미타여래팔대보살도>와 일본 마츠오데라(松尾寺) 소장 <아미타여래 구존도, 1320년>에서 구현되고 있으나, 대개 우리나라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불공의 『팔대보살만다라경』을 토대로 하되, 아미타여래의 정토신앙이 강조되는 측면이 강하여 허공장보살을 대신하여 대세지보살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문명대 교수의 선행연구에서는 1776년 작 보물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와 국보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등에 기입된 8대보살의 존명을 고려불화에 소급 적용하여 허공장보살을 대신하여 대세지보살이 포함되며, 제장애(제개장) 보살이 칼을 든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줄 좌측 보살은 관음, 우측은 대세지, 좌측 가장자리는 금강장, 우측 가장자리는 제개장보살로 보고, 뒷줄의 본존 좌측은 문수, 우측은 보현, 좌측 가장자리는 미륵, 우측 가장자리는 지장보살로 판단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최근 양희정은 기존 칼을 든 제개장보살이 허공장보살이며, 세지보살로 대체되지 않고 일관되게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세지와 제개장이 같은 자리에서 관음과 짝을 이루고 있어서 고려시대에는 『팔대보살만다라경』의 존명을 그대로 따르는 팔대보살도와 제개장(화염보주·보관보주) 대신 세지(경함·보관정병)가 포함된 팔대보살도 공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물론 존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팔대보살도의 존명은 두 가지 설 모두 유효하다.



<도3. 아미타여래구존도 화면>



<도4. 아미타여래구존도 보관상자>

본존은 둥글게 핀 연꽃대좌에 결가부좌하였고, 둥근 신광과 두광을 갖추었다. 광배는 오색영롱한 빛을 형상화 한 듯 여러 겹의 빛의 띠를 둘러 나타내었고, 신광의 표면은 옥빛으로, 두광의 표면은 녹색계통으로 달리 처리하였다. 인물의 묘선은 먹선을 기본으로 하되, 얼굴과 손, 발 등 피부 등 중요부위는 먹선 위에 다시 주색 선을 올려 자연스러운 상호의 모습을 연출하고자 했다.

본존의 머리에는 큼직한 반달모양의 계주가 표현되어 있고 나발은 굵다. 얼굴은 건장한 신체에 비해 작고 둥그랗고 통통하게 살집이 올라 있는 모습이다. 본존불에서 보이는 상호의 표현과 비례감각은 15세기의 균형 감각이 잘 잡힌 비례감에서 양식이 변천하여 동야대학교 영산회상도(1565년)나 국립중앙박물관 사불회도(1562년) 등과 마찬가지로 16세기 중엽경의 조형감각이 반영된 것이며, 경주 왕룡사원 소조석가여래좌상과 약사여래좌상(1578년),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좌상(1578년경), 문경 봉암사 아미타여래좌상(1586년) 등 16세기 후반에 조성된 불상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수인은 엄지와 검지를 닿을 듯 말 듯 처리한 설법인은 긴장감 있게 표현되었으며, 손가락은 길고 섬세한 편이다. 균의 끝단은 彎曲을 이루고 있으며, 복부에는 균의를 묶고 흘러내린 두 가닥의 끈이 표현되어 있다.

화면 좌측 하단 여래의 곁에 서 있는 관음보살은 좌상의 아미타화불이 안치된 보관을 썼으며, 왼손으로 정병을 잡고 오른손은 들어 올렸는데 양류가지를 잡은 듯하다. 화면 우측 상단 가장자리에 배치한 지장보살은 석장을 쥐고 보주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나머지 보살상은 거의 같은 보관과 천의를 걸치고 얼굴은 측면관으로 본존불을 향했으며, 두 손을 모아 합장하였다. 머리에는 두광을 갖추었으며, 가름한 얼굴에 이목구비는 작고 오밀조밀 묘사하였다. 그 중 눈을 크게 강조한 것이 이 불화의 특징이다. 보살의 천의는 적·청색의 보색대비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백의관음처럼 상징성 있는 보살은 상징 색으로 천의를 연출하였다. 귀를 타고 내려온 보발이 어깨 위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조선 전기에 제작된 불화 중 울산박물관 소장본과 같은 형식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1532년 京都 延曆寺本(線描)을 포함해 6점정도 알려져 있는데, 기년을 가진 채색불화로서는 이 작품이 유일하고 국내 유존 작으로서도 유일하다.

<표> 조선 전기 아미타구존도 현황

연번	작품명	시대	재질	크기(cm)
1	일본 善妙寺 아미타여래구존도	15세기	비단	77.3×51.0
2	일본 延曆寺 아미타여래구존도	1532년	삼베	109.2×55.7
3	울산 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565년	삼베	67.1×45.8
4	일본 개인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6세기	비단	77.3×51.0
5	일본 寶珠寺 아미타여래구존도	16세기	비단	40.8×26.0
6	일본 金峰寺 아미타여래구존도	16세기	삼베	82.8×55.3

한편, 화기부분에 대한 초분광, 적외선 촬영 결과 덧쓰거나 수정흔적이 없어 제작 당시에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嘉靖’의 연호를 ‘嘉晴’이라고 쓴 것도 제작 당시 착오로 인한 오기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주도 등장하는 지준의 활동시기를 감안하면 『대방광불화엄경소주』에 나오는 지준과 동일인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불화가 가지고 있는 양식적 특징과 더불어 1565년에 제작된 불화임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 ○ 문헌자료

#### <화기>

嘉晴四十四年乙丑四月日」

願造阿弥陀會圖」

幀誦大施主今之保」

几主智峻比丘」

#### 4.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順天 桐華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 가. 검토사항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장으로부터 문화재청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결과로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12.3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3.1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5.3.~’23.6.2.)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順天 桐華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 ① 불 상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② 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화엄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 ① 불 상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동화사길 208, 동화사  
② 복장유물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화엄사정보박물관
- 수 량 : 불상 3구, 대좌 3점, 발원문 3점, 후령통 3점, 복장진언 1점
- 규 격 : 표 참조
- 재 질 : 표 참조
- 형 식 : 공간적 삼세불
- 조성연대 : 1657년(효종 8)
- 제작자 : 계찬(戒贊), 인계(印戒), 영언(靈彦), 정민(淨敏), 성률(性律), 사민(思敏), 종협(宗洽)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지정 대상 현황>

연번	명칭	재질	크기(cm)
1	목조석가여래좌상	나무에 도금	높이 115.0, 무릎 폭 78.0
2	목조석가여래좌상 대좌	나무에 칠	
3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나무에 도금	높이 99.0, 무릎 폭 70.5
4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대좌	나무에 칠	
5	목조약사여래좌상	나무에 도금	높이 98.0, 무릎 폭 70.1
6	목조약사여래좌상 대좌	나무에 칠	
7	목조석가여래좌상 발원문	종이	20.4×49.8
8	목조석가여래좌상 후령통	철, 비단	지름 최소 2.9~최대 3.5, 높이 9.0 * 황초폭자에, 사방경 4점 포함
9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진언	비단	31.0×3.7 * 붉은색 비단에 범서
10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발원문	종이	20.6×52.0
11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후령통	종이, 비단	전체 길이 17.9, 최대 폭 8.9 * 황초폭자에 포장되어 있음
12	목조약사여래좌상 발원문	종이	20.5×51.0
13	목조약사여래좌상 후령통	종이, 비단	전체 길이 10.5, 최대 폭 4.7 * 황초폭자에 포장되어 있음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삼세불좌상은 세 불상의 복장에서 각각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7년 조각승 계찬이 주도하여 조성되었으며, 제작 당시부터 동화사에 봉안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성발원문 외에 각 불상의 대좌상판에도 대동소이한 조성기가 묵서로 기록되어 있어 조성기 내용과 교차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동화사 삼세불상은 계찬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로는 유일한 것이나, 이와 유사하면서도 조각승이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의 불상들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참고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화사 삼세불상의 발원문은 불상조성에 있어서의 업무 분담의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세분화되어 기록되어 있어서 불상조성 공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계찬에게 영향을 준 스승이나 선배 조각승의 작품보다 다소 간략화되고 단순화된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17세기 중반을 넘어서며 전반적으로 이러한 단순화의 경향은 조선후기 불상양식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흐름으로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전환기의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불상이 지니는 고도의 집중력과 초월성, 생명력을 두루 지니고 있어, 마치 불상으로서의 가장 근원적인 것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털어낸 듯한 단순함이 예술적으로도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작품이다.

이와 함께 동화사 삼세불상은 연화대좌 상판의 묵서명을 통해 대좌까지 온전히 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대응전의 불단 및 단집까지 포함하여 조성 당시의 원형을 완전하게 일괄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바,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보완된다면 이 삼세불상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후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고, 조선후기 불상양식의 중요한 전환기에 위치한 이 삼세불상을 보물로 지정하여 잘 보존하고 연구자료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공간적 삼세불 형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삼세불상 모두 개금의 탈변색 이외 큰 손상 없이 제작 당시 모습(대좌 포함) 대로 원래의 봉안 장소에서 온전히 전해져 오고 있다는 점

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7년이라는 제작시기, 조각승(계찬 등), 봉안사찰(동화사), 불상 제작에 필요한 물목(오금, 황금, 재목, 복장 등)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임진·정유재란 이후 재건·복구 불사를 진두지휘한 벽암각성스님이 불사에 동참하고 있어 동화사 불사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조각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 이 시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수조각승 계찬은 지금까지 확인되는 자료를 토대로 보면 1643년부터 1671년까지 활동한 조각승이며, 수 조각승 응혜와 승일 밑에서 조각적 역량을 키웠다. 그의 조각에서는 이들 중 응혜의 영향이 좀 더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계찬의 독자적인 경향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불상을 통해 17세기 전반기 활동한 1세대 조각승에서 17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2세대 조각승으로 이어지는 위치에 있는 작품으로 조선후기 조각승의 계보와 불상 양식의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데도 유익한 자료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지정 검토대상은 그동안의 조선후기 불상 지정선례에 따라 주색 인본다라니를 제외한 불상 3점, 대좌 3점(연화대좌 포함), 발원문 3점, 후령통 3점(후령통 관련 유물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1657년 수조각승 계찬에 의해 조성된 석가불, 약사불, 아미타불의 삼존불이다. 조각승 계찬은 임진왜란 종전 직후 형성되어 영남 일대와 순천, 여수 등 호남 남동부 지역에서 활동한 현진·청헌파의 청헌-응혜를 이은 주요 조각승이다.

동화사의 이 불상들은 조각승 계찬이 조성한 대표 작품으로, 원래 봉안처인 동화사 대웅전에 그대로 봉안되어 있고, 발원문과 복장물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작품의 예술성·학술성도 뛰어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복장유물, 지정 가치 있음)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복장유물 중 발원문은 연화대좌의 묵서와 함께 동화사 삼세불의 제작시기를 알려주며, 불상 제작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스님과 시주 그리고 화원을 기록하여 동화사 불상의 역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자료라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 조사보고서

□

### ○ 현 상

순천 개운산 동화사는 대각국사 의천이 창건했다고 전하며, 대웅전 앞 뜰의 삼층 석탑의 연대가 고려 초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고려 초기 창건으로 보기도 한다. [도1] 동화사는 정유재란 기간에 파괴되어 1601년(선조 34) 신충(信聰)이 대웅전을 재건하였으며, 1630년(인조 8) 계환(戒環)이 중창하였다고 한다. 1662년(현종 3)에는 희안(熙安)과 범홍(法弘) 등이 호선루 건립과 기와 불사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정조사 대상인 삼세불상은 계환의 1630년대 중창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조성된 것이며, 아마도 처음 중창 후에는 1601년 재건 당시의 불상이 계속 봉안되어 있었으나 1657년에 이르러 비로소 제대로 삼세불을 조성하여 봉안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춰 몇 년 후 기와불사도 새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1. 순천 동화사 대웅전 및 삼층석탑>



<도2. 순천 동화사 대웅전 단집>

현재 삼세불상은 동화사의 주불전인 대웅전의 불단 위에 봉안되어 있으며, 불단 위로는 법식을 잘 갖춘 단집[도2], 그리고 후불후벽의 관세음보살입상 벽화를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후불탱화로서는 석가모니 단독 설법도상의 홍탱을 걸어두었는데 근래의 작품이다.[도3]



<도3.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석가삼세불좌상>



<도4. 중앙 목조석가여래좌상>

삼세불 중에서 우선 중앙의 본존 석가여래상을 살펴보면 그 크기는 양 옆의 아미타·약사여래상보다 큰 크기로 조성되었다.[도4] 오른쪽 어깨를 가사로 살짝 덮은 변형편단우견에 항마촉지인을 결한 전형적인 석가모니의 도상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등변삼각형의 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양손이 신체비례에 있어 큰 편이고, 어깨는 비교적 좁으며, 결가부좌한 무릎이 높게 표현되었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우며, 정수리 부분은 반원형에 가깝게 둥글다. 정상계주와 중간계주를 갖췄는데, 정상계주는 높고 굽은 편이지만, 나발이 역시 높아서 정면에서 볼 때 낮게 솟은 것처럼 보인다.

불두는 전체적으로 정수리에서 턱끝단까지의 1/2 높이에 눈썹을, 다시 눈썹과 턱끝의 1/2 높이에 코끝이 위치하게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도5] 이러한 비율로 보자면 코끝에서 턱 끝단까지의 높이의 1/2 정도에 입술이 위치하면 자연스러운 비례가 될 것으로 보이나, 입술은 이 1/2 높이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중이 다소 짧게 느껴진다. 이러한 안면 비례는 다른 두 불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눈은 가늘며 거의 수평으로 직선에 가깝게 뜨고 있다. 눈썹이 그리는 호선도 완만한 곡선이어서 눈을 지그시 뜨고 있는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코는 뿌리(위)쪽이 콧볼(아래)쪽보다 약간 좁지만 거의 같은 굽기를 지녔으며, 옆에서 볼 때는 이마선이 내려오다 미간 부분에서 밖으로 약간 꺾이면서 솟는 윤곽을 보인다.[도6] 콧망울선이 양쪽에 초승달 모양으로 새겨졌다. 콧볼은 물음표(“?”) 모양의 이륜(耳輪)이 평행한 띠처럼 표현되고, 그 안에 이맥(耳脈)이 낮 모양으로 굽고 간략히 표현된 형식인데, 이맥 끝단에는 이주(耳珠)가 솟아있다. 이주 뒤쪽으로는 콧구멍이 깊게 파여 있다. 이륜과 이주가 만나는 부분 정도가 안면부의 눈높이 정도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턱 아래에는 호선의 홈을 만들어 턱의 양감을 강조하고 있다.



<도5. 석가여래 불두 정면>



<도6. 석가여래 불두 측면>



<도7. 석가여래 상체 세부>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게 표현되었고, 양쪽 어깨를 덮은 가사가 목 양쪽 끝단을 가릴 정도로 넓게 덮고 있어 의도적으로 가슴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한 흔적이 엿보인다. 가슴에는 인체의 굴곡 표현이 전혀 없이 평면적으로 처리되었다. 가슴 아래로 복부를 덮은 옷자락은 마치 혀를 내민 것처럼 U자형으로 처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불상에서 이 부분의 옷주름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다소 구분되는 독특한 표현이다.[도7]

항마촉지인을 결한 두 손은 전체적인 비례로 볼 때 다소 크게 강조되어 있다. [도8] 손톱이 뾰족하지 않고 네모난 형태로 유난히 넓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며, 손등 부분은 평면적이지만, 손바닥 부분의 양감과 손가락 마디마다 음각선을 두어 강조했다. 팔뚝이 노출된 오른팔도 양감이 없이 기둥처럼 밋밋한 편인데, 팔굽 부분이 다소 굽고 손목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가늘어지고 있어 인체의 형태를 기본적으로는 반영하고 있다. 이런 평면적이고 생략적인 조형성은 한편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을 앞으로 뻗고 있는 듯한 자세를 강조해주기도 한다.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형식이며, 손톱과 그 아래 손가락 끝 사이에 깊이 굴곡을 내어 오른손보다 더 정교하게 처리한 느낌이다.[도9]



<도8. 석가여래상 오른손 축지인 세부>



<도9. 석가여래상 좌측 수인 세부>

가부좌한 하체도 전체적인 옷자락은 생략이 많고 다만 교차한 두 다리 사이로 부채꼴 모양의 옷주름이 펼쳐진 것과 종아리 부분의 근육을 암시하는 음각선만 강조되어 있다.[도10] 왼발은 옷자락에 덮여 보이지 않고, 오른발 발바닥만 일부 노출되어 있다. 무릎이 전체 비례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도10. 석가여래상 하체 세부>



<도11. 석가여래상 대좌>

대좌는 상·중·하대를 갖춘 3단 대좌인데, 평면은 8각이지만, 방형에서 모죽임한 팔각으로 볼 수 있다.[도11] 상대에는 하엽 문양이 달린 계자각을 세워 난간을 들렸고, 계자각 사이의 궁판에는 십(十)자형의 안상 구멍이 뚫려있다. 상대의 상판 아래에는 3단의 층급받침을 두었다. 중대는 탕주를 세웠는데, 정면에 3칸, 측면에 2칸, 그리고 간방에 각각 1칸이 구획되었으며, 각 칸마다 안상을 새겼다. 하대는 4단의 층급을 두고, 맨 아래에 안상이 새겨진 다리를 세웠다. 상대의 위에는 불상을 받치기 위해 양련과 복련이 위아래로 결합된 연화대좌를 받쳤는데 평면은 앞이 넓고 뒤가 좁은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불상연화대좌 형식이고, 복엽의 연잎이 그려져 있다.



<도12. 석가여래상 연화대좌 상판 묵서명>

이 연화대좌 위쪽 양련좌의 상판에 묵서가 새겨져 있어 이 불상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묵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順治十四年丁酉二月初日始役四月二十四日畢也

證明 性日 比丘

持殿 熙安 比丘

畫員

戒贊 比丘

印戒 比丘

英彦 比丘

淨敏 比丘

性律 比丘

思敏 比丘

宗洽 比丘

海元 單身

緣化秩

供養主 三彦 比丘

別座 忠敏 比丘

忠宝 比丘

雷彦 比丘

海堅 比丘

大化士 法弘 比丘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도13. 아미타여래좌상>



<도14. 약사여래좌상>

한편 아미타여래좌상과 약사여래좌상은 조각기법이나 양식은 석가여래좌상과 대동소이하나, 다만 두 상 모두 크기가 석가여래상에 비해 조금 작고, 통견착의에 오른손은 손목을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댄 구품인을 결한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복부를 덮고 있는 군의 끝단의 옷주름이 연꽃 모양으로 주름진 점도 석가모니불상의 같은 부분 옷주름과 다른 점이다. 향우측의 약사불은 아마도 왼손에 약함을 들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사라져 아미타불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삼세불의 경우 좌우의 아미타불과 약사불은 손을 대칭되게 반대로 들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서는 동일하게 오른손은 손등이 위로, 왼손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들고 있다. 이처럼 좌우 보처불이 동일하게 손을 들고 있는 사례는 드물지만 예를 들어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세불상 등을 들 수 있다.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이러한 경향은 주로 불화로서 그려질 때의 도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불화에서는 삼세불화의 좌우보처로서 아미타·약사여래의 수인이 좌우 동일하게 나타나고, 불상에서는 좌우 대칭으로 나

타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회화적 도상이 조각에 사용된 것은 불상초 제작에 있어 불화승의 비중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도15. 아미타여래 연화대좌 상판 목서명>



<도16. 약사여래 연화대좌 상판 목서명>

연화대좌 상판에 목서가 쓰여진 것도 석가여래좌상과 동일하고 내용도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이나, 다만 문장의 위치, 작성 방향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도17. 아미타여래좌상 하체 세부>



<도18. 약사여래좌상 하체 세부>

한편 아미타여래좌상은 석가·약사불과 다소간 차이점도 지니고 있다. 불상의 얼굴 안면처리에 있어 턱이 다소 가름한 편이며, 오른쪽 어깨를 덮은 가사자락이 석가·약사여래상은 둥글게 덮고 있는 반면, 아미타여래상은 한번 접히면서 흘러내리고 있고, 아미타여래의 왼팔에서 흘러내린 가사자락이 왼쪽 무릎을 덮으며 앞으로 흘러내리는 표현은 석가·약사여래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기존 발표된 동화사 삼세불상 논문에서는 아미타여래상은 수화승 계찬의 작품이 아니라 함께 참여한 다른 화승의 작품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조각양식이라기 보다는 표현형식상의 차이이고, 계찬이 수화승으로 제작을 주도한 다른 불상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우선적으로는 석가·약사여래상과의 공통점이 지배적으로 많이 보이므로 다른 조각승의 작품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 내용 및 특징

동화사 목조석가삼세불좌상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다음 ‘문헌자료’ 참조)에 의하면 지전(持殿)으로 참여한 희안(熙安) 비구는 이들 불상이 조성된 지 5년 뒤인 1662년에 호선루 건립 및 기와불사를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화사 중창 불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조성발원문 및 대좌 묵서의 내용을 통해 이들 삼세불상이 원래부터 동화사에 봉안되기 위해 조성되었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희안 비구가 동화사에 새로운 불상을 조성하면서 조각을 의뢰한 조각승 계찬은 지금까지 다른 불상조성 발원문에서 종종 그 활동이 확인되었지만, 수화승으로 참여한 것은 현재까지로는 순천 동화사의 이 삼세불이 유일하다. 그는 그간의 행적을 통해 17세기 중반 조각승 승일, 응혜와 주로 함께 작업했으며, 그 조각적 원류는 현진 유파에 속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대략 1610년 이전에 태어나 1630년대부터 불상 제작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하고, 1640년대에는 승일, 응혜, 회장, 성조 등과 불상 제작에 참여하면서 1640년대 후반부터는 부화승이나 차화승으로 그 비중을 점차 늘려갔다.

이번 조사대상인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삼세불좌상은 계찬이 1657년 조성한 불상으로 그가 수화승으로서 주도한 유일한 작품이다. 앞서 살펴본 동화사 삼세불상의 양식적 특징은 승일 및 회장의 영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신만의 특징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 추후 이와 유사한 작품들이 발견되었을 때 다양한 양식적 계보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줄 유용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화사 삼세불상은 발원문과 함께 대좌 상판 묵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 교차 검토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중요성이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불상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업무 분담이 매우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불상조성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점 역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 문헌자료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삼세불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현재 화엄사 정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석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벽암각성은 석가여래상 발원문에만 등장하는데, 이는 1660년 그가 86세로 입적하기 불과 3년 전이어서, 그가 말년에도 이러한 불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그의 행적을 연구하는데 참고가 된다.



<석가여래상 조성발원문>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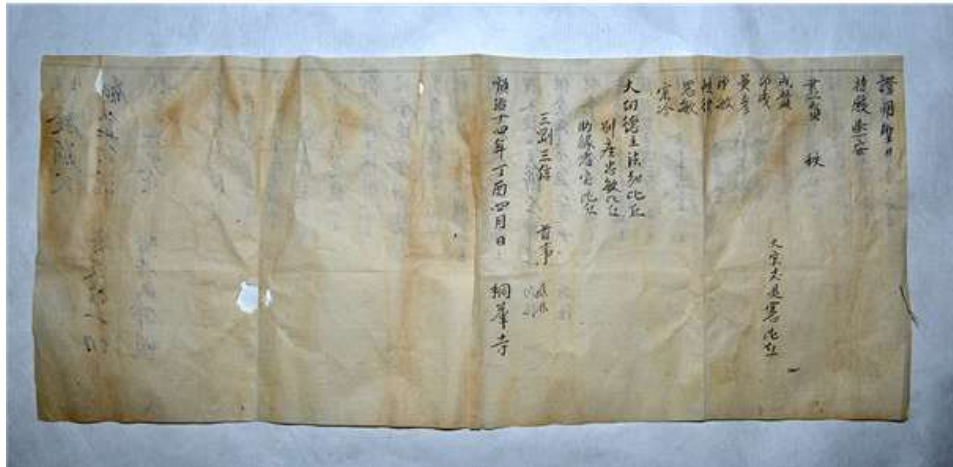
衆生 願我 發願文」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白己守 兩主」左輔處施主朴希日 兩主」右輔處施主朴元同兩主」  
 烏金大施主羅承立兩主」裏布施主安石同 兩主」裏布施主主柳弼信 兩位」  
 裏布施主德熙 比丘」體木施主主簿李舜享 兩位」面金施主裴氏閨花 單身」  
 面金施主裴正日 兩主」烏金施主李闊龍 兩主」泥金施主四花 兩主」  
 座臺施主朴仁金 兩主」座臺尹永千 兩主」座臺施主鄭萬水 兩主」  
 供養施主安羅頭金 保體」步連大施主崔氏先眞 兩主」  
 引燈大施主金莫金 兩主」鐵物施主宣卜 兩主」供養施主許以誠 保體」  
 腹紙施主已去黃泉李斗廷」  
 證明聖日比丘」持殿熙安比丘」供養主三彥比丘」別座忠敏比丘」

[뒷면]

助緣忠寶比丘」雷彥比丘」  
 大功德主法弘比丘」

禪宗大禪師覺性」大禪師敬正玄」宗禪靈憲」  
 山人玉倫」文彥」玉坦」  
 畫員秩」戒贊」印戒」靈彥」淨敏」性律」思敏」宗洽」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桐華寺」首事應林」三剛 三信」

<아미타여래상 조성발원문>



[앞면]

衆生發願文」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白己守兩主」左輔處施主朴希日兩主」右輔處施主朴元同兩主」  
 烏金大施主羅承立兩主」面金施主梁信龍兩主」體金施主陳得禮兩主」  
 泥金施主李閱龍兩主」裏布施主德熙 比丘」腹藏施主石敬龍兩主」  
 腹藏施主金忞世 兩主」體木施主主簿李舜享 兩位」  
 供養施主生員安之尹 兩位」材木施主金大春兩主」五香施主李承淡兩主」  
 鐵物施主宣禮 兩主」鐵物施主李忠會兩主」開眼施主夢眞兩主」  
 面金施主閏花兩主」泥金施主四花 兩主」腹藏施主宋永信兩主」  
 花冠施主鄭萬水兩主」座臺施主尹永千兩主」七寶施主朴氏春伊 兩主」  
 裏綿施主應春 兩主」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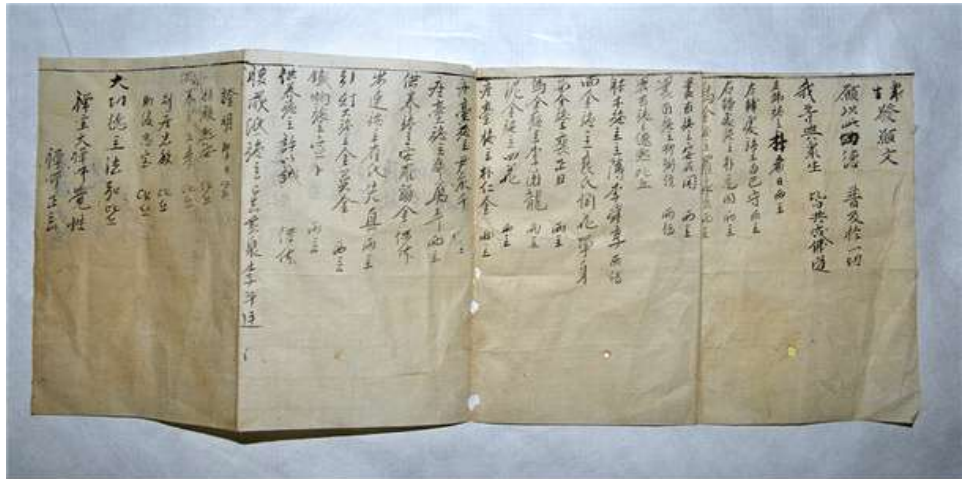
證明聖日」持殿熙安」

畫員 秩」戒贊」印戒」英彥」淨敏」性律」思敏」宗洽」大宗丈靈憲比丘」

大功德主法弘比丘」別座忠敏比丘」助緣忠寶比丘」

三剛三信」首事 應林」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 桐華寺」

<약사여래상 조성발원문>



[앞면]

衆生 發願文」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朴希日兩主」左輔處施主白己守兩主」右輔處施主朴元同兩主」

烏金施主羅承立兩主」裏布施主安石同 兩主」裏布施主柳弼信 兩主」

裏布施主德熙比丘」體木施主主簿李舜享兩位」面金施主裴氏閏花單身」

面金施主裴正日 兩主」烏金施主李闊龍 兩主」泥金施主四花 兩主」

座臺施主朴仁金兩主」座臺施主尹永千兩主」座臺施主鄭萬奇兩主」

供養施主安羅頭金保體」步連施主崔氏先眞兩主」引燈大施主金莫金 兩主」

鐵物施主宣卜 兩主」供養施主許以誠 保體」腹藏紙施主己去黃泉李斗廷」

證明聖日比丘」持殿熙安 比丘」供養主三彥 比丘」別座忠敏 比丘」

助緣忠寶 比丘」大功德主法弘比丘」禪宗大禪師覺性」禪師正玄」

[뒷면]

宗禪靈憲」山人 玉倫」文彦」玉坦」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 桐華寺」

首事應林」三剛 三信」

畫員秩」戒贊」印戒」靈彥」淨敏」性律」思敏」宗洽」

□

### ○ 내용 및 특징

순천 동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찰의 창건은 대각국사 의천의 창건하였다고 하나 이 보다 시기가 앞선 삼층석탑이 사찰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정유재란때 호남의 사찰들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동화사도 피해를 입었으며, 전쟁이 끝나자 1601년(선조 34) 信聰이 대웅전을 건립하였고 1630년(인조 8) 다시 대웅전 쓰러지자 계환이 중창하였다. 1662년(현종 3)에는 熙安과 法弘이 호선루 건립과 기와 불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굴곡을 겪었으나 조선시대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樂安郡邑誌』(1899) 등 주요 문헌 기록상에 폐사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중수와 중창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단절 없이 법등을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1.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전경>



<도2. 본존 석가여래좌상>

삼불좌상은 동화사의 주불전인 대웅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다. 높은 수미단 위에 팔각대좌와 연화대좌를 놓고 그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2013년 삼불상에서 절첩형식으로 접은 조성발원문과 후령통, 주서 다라니 등 복장유물이 확인되었다.

조성발원문 외 불상이 앉은 연화대좌의 윗면에는 조성 묵서와 중수 백서가 동시에 남아 있다. 두 기록을 종합하면 이 불상은 1658년에 2월에 조성된 것이며, 聖日을 증명으로 하여 戒贊이 수조각승을 맡았으며, 보조조각승으로 印戒, 靈彦, 淨敏, 性律, 思敏, 宗洽 등이 참여하였다. 이외 禪宗大禪師 覺性, 大禪師 正玄(능가사 창건주)도 불사에 동참하고 있다. 벽암각성은 부용영관 - 부휴선수의 법맥을 잇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승려로, 임진왜란 이후 팔도도총섭 체제로 개편된 불교계의 승정체제에서 팔도도총섭으로 임명되어 전란으로 황폐해진 사찰 복구에 힘썼는데, 특히 당시 불교계에서 재능 있는 승려 장인들을 발굴, 육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소실된 예배존상을 복구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물론 남한산성 축성 등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 국책 사업에도 승려들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표> 보조조각승 주요 활동

성명	활동연대	활동사항
인계 印戒	1651 ~1714	1651년에 應惠와 경남 진주 은정대 불상을 제작 1653년에 전남 영암 도감사 道誥國師守眉大禪師碑 건립에 시주자로 참여 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 1678년에 應惠와 지리산 小隱蘭若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을 제작(광양 무등암 봉안) 1678년에 智玄과 경남 남해 용문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제작 1689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여수 흥국사 53불좌상을 제작 1707년에 경북 김천 직지사 천불전 창건을 주도 1714년에 경북 김천 직지사 불상 개금에 시주자로 참여(嘉善大夫)
영언 英彦	1657	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
정민 淨敏	1657	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
성률 性律	1633 ~1657	1633년에 전북 고창 禪雲寺 大雄寶殿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조성에 無染과 참여 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
사민 思敏	1657 ~1689	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 1678년에 應惠와 지리산 小隱蘭若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을 제작(광양 무등암 봉안) 1689년에 印戒와 전남 여수 흥국사 53불좌상을 제작
종협 宗洽	1657	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

불상 제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품 시주로는 주불, 좌보처, 우보처 같은 주 예배대상부터 烏金, 面金, 體金, 泥金, 裱布, 腹藏, 體木, 供養, 材木, 五香, 鐵物, 開眼, 花冠, 座臺, 裱綿 등 개금과 복장, 대좌 등 부속유물 제작에 필요한 세부 물목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시주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 17세기 중엽 경 불상 제작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시주자 정만수는 석가여래발원문과 약사여래 발원문에는 좌대, 아미타여래 발원문에는 화관 시주자로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도3. 석가여래좌상 연화대좌 상면 목서>



<도4. 아미타여래 조성발원문, 1657년>

수조각승 계찬은 이 조각 외 여러 작품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 조각은 현재까지 계찬이 만든 첫 수조각승 작품이다. 그는 선배 조각승인 응혜, 승일의 조각현장에서 보조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조각적 역량을 키워나갔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작품에도 두 선배 조각승의 영향이 크게 엿보인다. 특히 응혜의 조각 작품이 그의 조각 작품에도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불상의 발원문이 발견되기 전까지 동화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은 응혜 작품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 수조각승 계찬은 1634년 대구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에서 응혜를, 1646년 구례 천은사 목조아미타불상과 대세지불상에서 勝日을, 1647년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응혜를, 1648년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서 승일을, 1651년 진주 은정대 불상에서는 응혜를, 1671년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살상 1구 제주 심광사)에서 응혜를 보조하였다. 따라서 계찬은 조각승 응혜와 승일에게서 영향을 받은 조각승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의 조각 작품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표> 수조각승 戒贊의 주요 활동

연대	지역	봉안 사찰	작업내용	조각승	비고
1643	대구 달성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조성	書員 應慧 熙莊 善弘 處英 雙修 唯問 戒贊 命弘 道岑 四龍	造成發願文
1646	전남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 조성	匠主 列次 勝日 熙藏 太元 性照 戒贊 天學 寶海	
1647	전북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성	書員 應惠 戒贊 淸眼	
1648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삼세불좌상 조성	書員 勝一 性照 戒贊 智安 敬玉 天學 戒明	
	전남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 좌상	시주자로 참여	
1651	경남 진주	은정대	불상조성	書員 應惠 戒贊 觀澤 雷映 印戒 玄峰	
1657	전남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조성	書員 戒贊 印戒 英彦 淨敏 性律 思敏 宗洽	
1671	전남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성	書員 應慧 戒贊 *제주 심광사에 보살상 1구 봉안	
연대 미상	전북 완주	대원사	불상조성에 시주자로 참여	戒贊	

삼불좌상의 구성은 중앙에 석가여래, 좌측에 약사여래, 우측에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공간적 삼세불로 구성하였다. 삼불상 중 본존인 석가여래를 다른 불상들에 비해 약 16~17cm가량 크게 조성하여 존격 차를 엄두에 두었다. 삼불상의 표현은 모두 고요하게 삼매에 잠겨있는 모습으로 조성되었다. 머리와 육계는 구분이 없으며 중앙에는 작은 반달모양의 중앙계주를, 정상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제작하였다. 양미간에는 백호를 박았다. 귀는 이륜에서 귓볼까지의 잘록하게 처리하지 않고 윤곽선의 변화가 거의 없어 둔중한 편이다. 삼각와의 윤곽도 어렴풋하고 이 갑강의 하단부에 구멍을 뚫어 실재감 있도록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불 중 석가여래만 편단우견을 걸치고 향마촉지인을 걸하였으며, 옷 주름은 억양이 강하지 않는 단순 간결한 선묘를 구사하였다. 오른쪽 어깨에 잡혀 있는 주름은 몇 가닥의 수직주름과 y자 주름을 간단하게 처리하여, 단조롭게 처리된 조선 후기 불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계찬의 특징도 담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무릎 앞으로는 띠 주름을 胡蝶처럼 좌우로 펼쳐내고 그 옆으로 몇 개의 속도감 있는 호선주름을 펼쳐 부채살 모양의 주름을 만든 것은 승일과 응혜의 조각 작품에서도 확인되어 같은 유파 내에서의 작품의 전승 과정을 읽어 낼 수 있다. 삼불 중 본존의 촉지인을 크게 강조한 점도 다른 불상에서 볼 수 없는 이 불상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좌측의 약사불상과 우측의 아미타불상은 수인을 서로 대응되게끔 조각하고, 착의는 석가여래와 달리 상의위에 대의를 변형 편단우견으로 걸친 이중착의법으로 표현되었다. 상호와 옷주름은 본존불과 대동소이하지만, 균의 단을 석가여래는 물결모양으로, 좌우 협시불은 꽃모양으로 주름잡아 조형적 변화를 주었다. 다만, 삼존상이 거의 같은 조형감각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세부에서 미미한 차이점도 간취된다. 즉 석가여래와 약사여래의 상호와 착의법은 매우 흡사한 반면, 아미타불상은 상호와 착의법에서 이들과 어딘 모르게 조금 다른 모습을 띤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아마도 화엄사 대응전 목조삼신불상처럼 조각승들 간의 분업과 협업 과정을 통해 제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대좌는 난간을 가진 부정팔각형이며, 마대와 족대 중대 청판, 상대로 구성되어 있다. 중대 청판에는 구름모양의 안상을 모각하였다. 각 부위로 이어지는 곳에는 3단의 받침대를 두었다. 상대 윗면에는 축을 내고 난간을 설치하였다. 난간 청판에는 ‘十’자형으로 투각하였다. 팔각대좌 위에는 다시 반타원형의 연화좌를 놓았고 그 위에 불상을 안치하였다. 각 연화좌의 윗면에는 조성과 관련된 목서가 남아 있고, 석가여래의 연화좌 상면에는 조성목서와(1657년)과 重修白書(1753)<sup>201)</sup>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 불상의 조성과 중수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1) 백서에는 건륭 17년 癸酉로 되어 있으나, 건륭 17년은 壬申이다. 통상 연호와 간지가 맞지 않을 때 간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삼불상은 1753년에 중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유물

도판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비고
	석가여래 발원문	1657년	종이	20.4×49.8	1	
	석가여래 후령통	1657년	철	지름 최소 2.9~최대 3.5, 높이 9.0	1	*황초폭자, 사방경 4점 포함
	석가여래 복장진언	1657	비단	31.0×3.7	1	*붉은색 비단에 범서
	약사여래 발원문	1657년	종이	20.5×51.0	1	
	약사여래 후령통	1657년	철	전체 길이 10.5, 최대 폭 4.7	1	*황초폭자에 포장되어 있음
	아미타여래 발원문	1657년	종이	20.6×52.0	1	
	아미타여래 후령통	1657년	철	전체 길이 17.9, 최대 폭 8.9	1	*황초폭자에 포장되어 있음

○ 문헌자료

<1-1 석가여래좌상 조성발원문>

(앞면)

1면

衆生 願我 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白己守 兩主」  
左輔處施主朴希日 兩主」  
右輔處施主 朴元同 兩主」

2면

烏金施主 羅承立 兩主」  
褁布施主 安石同 兩主」  
褁布施主 柳弼信 兩位」  
褁布施主 德熙 比丘」  
體木施主簿李舜亨 兩位」  
面金施主 裴氏閏花 單身」  
面金施主 裴正日 兩主」

3면

烏金施主 李淵龍 兩主」  
泥金施主 四花 兩主」  
座臺施主 朴仁金 兩主」  
座臺 尹永千 兩主」  
座臺施主 鄭萬水 兩主」  
供養施主 安羅頭金 保體」  
步連大施主 崔氏先眞 兩主」

4면

引灯大施主 金莫金 兩主」  
鐵物施主 宣卜 兩主」  
供養施主 許以誠 保體」  
腹紙施主己去黃泉李斗廷」  
證明 聖日比丘」  
持殿 熙安比丘」  
供養主 三彦比丘」  
別座 忠民比丘」

(뒷면)

후1면

助緣 忠宝比丘」  
    雷彦比丘」  
大功德主 法弘比丘」  
禪宗大禪師 覺性」

大禪師 敬正 玄」  
宗禪 靈憲」  
山人 玉輪」  
文彦」  
玉坦」

후2면

畫員秩」

戒贊」

印戒」

靈彦」

淨敏」

性律」

思敏」

宗洽」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桐華寺」

首事 應林」

三剛 三信」

### <1-2 석가여래좌상 연화대좌 상면 목서>

順治十四年丁酉二月初日始役四月二十四日畢也

證明 性日<sup>202)</sup> 比丘

持殿 熙安比丘

畫員

戒贊 比丘

印戒 比丘

英彦 比丘

淨敏 比丘

性律 比丘

思敏 比丘

宗洽 比丘

海元<sup>203)</sup> 單身

202) 세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聖日로, 대좌 목서에는 性日로 적혀 있다.

203) 세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대좌 목서에는 모두 적혀 있어 대좌 만들 때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緣化秩

供養主 三彦<sup>204</sup> 比丘

別座 忠敏 比丘

忠宝 比丘

雷彦<sup>205</sup> 比丘

海堅<sup>206</sup> 比丘

大化士 法弘 比丘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백서> 乾隆拾柒」年」癸酉始三月初畢四月」晦」

## <2-1 약사여래좌상 조성발원문>

(앞면)

1면

衆生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重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 朴希日 兩主」

左輔處施主 白己守 兩主」

右輔處施主 朴元同 兩主」

烏金施主 羅承立 兩主」

2면

褰布施主 安石同 兩主」

褰布施主 柳弼信 兩位」

褰布施主 德熙 比丘」

體木施主主簿李舜亨 兩位」

面金施主 裴氏閏花 單身」

面金施主 裴正日 兩主」

204)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205)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206) 세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烏金施主 李淵龍 兩主」

泥金施主 四花兩主

座臺施主 朴仁金 兩主」

3면

座臺施主 尹永千 兩主」

座臺施主 鄭萬壽 兩主」

供養施主 安羅頭金 保体」

步連施主 崔氏先眞 兩主」

鐵物施主 宣卜 兩主」

供養施主 許以誠 保体」

腹藏紙施主 己去黃泉李斗廷

4면

證明 聖日比丘」

持殿 熙安比丘」

供養主 三彦比丘」

別座 忠敏比丘」

助緣 忠宝比丘」

大功德主 法弘比丘」

禪宗大禪師 覺性」

禪師 正玄」

(뒷면)

후1면

宗禪 灵憲」

山人 玉倫」

文彦」

玉坦」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 桐華寺」

三剛 首事 應林」

三信」

후2면

畫員秩」

戒贊」

印戒」

灵彦」

淨敏」

性律」  
思敏」  
宗洽」

<2-2 약사여래좌상 연화대좌 상면 묵서>

順治十四年丁酉三月初日始役四月二十四日畢也」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證明 性日比丘」  
持殿熙安比丘」  
畫員 戒贊比丘」  
    印戒比丘」  
    英彦比丘」  
    淨敏比丘」  
    性律比丘」  
    思敏比丘」  
    宗洽比丘」  
    海元單身」

緣化秩」  
供養主 三彦比丘」  
    別座 忠敏比丘」  
        忠宝比丘」  
        雷彦比丘」  
        海堅比丘」  
大化士 法弘比丘」

<3-1 아미타여래좌상 조성발원문>

(앞면)

전1면

衆生 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 白己守 兩主」

左輔處<sup>207)</sup>施主 朴希日 兩主」

전2면

右輔處<sup>208)</sup>施主 朴元同 兩主」

烏金大施主 羅承立 兩主」

面金施主 梁信龍 兩主」

體金施主 陳得禮 兩主」

泥金施主 李淵龍 兩主」

褁布施主 德熙比丘」

腹藏施主 石敬龍 兩主」

전3면

腹藏施主 金忞世 兩主」

體木施主 主簿 李舜亨 兩位」

供養施主 生員 安之尹 兩位」

材木施主 金大春 兩主」

五香施主 李承淡 兩主」

鐵物施主 宣朴 兩主」

鐵物施主 李忠會 兩主」

전4면

開眼施主 夢眞 兩主」

面金施主 閏花 兩主」

泥金施主 四花 兩主」

腹藏施主 宋永信 兩主」

花冠施主 鄭万水 兩主」

座臺施主 尹永千 兩主」

七宝施主 朴氏春伊 兩主」

褁綿施主 應春 兩主」

(뒷면)

후1면

證明 聖日」

---

207) 補處의 오기이다.

208) 補處의 오기이다.

持殿 熙安」  
畫員秩」  
戒贊」  
印戒 大宗丈 灵憲 比丘」  
英彦」  
淨敏」  
性律」  
후2면  
思敏」  
宗洽」  
大功德主 法弘 比丘」  
別座 忠敏 比丘」  
助緣 忠宝 比丘」  
三剛 三信 首事 應林」  
順治十四年丁酉<sup>209)</sup>四月日 桐華寺」

<3-2 아미타여래좌상 연화대좌 상면 목서>

順治十四年丁酉二月初日始役四月二十四日必也」

상단

證明 性日比丘」  
持殿 熙安比丘」  
畫員 戒贊比丘」  
    印戒比丘」  
    英彦比丘」  
    淨敏比丘」  
    性律比丘」  
    思敏比丘」  
    宗洽比丘」  
    海元單身」

하단

緣化秩」  
供養主 三彦比丘」  
    別座 忠敏比丘」  
    雷彦比丘」

---

209) 順治十四年丁酉는 1657년이다.

海堅比丘」  
大化土 法弘比丘」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 ○ 내용 및 특징

- 중방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방 약사불과 서방 아미타불이 협시하고 있는 삼존불좌상이다.
- 주존 석가불을 비롯한 좌우 협시불에서는 후령통, 경전류, 다라니류 등 복장물이 다량 발견되었으며, 불상 조성에 관한 기록인 조성발원문과 조성기도 세 불상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 이들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조성기에 의하여 세 불상은 수조각승 계찬(戒贊)을 비롯하여 인계(印戒), 영언(靈彦), 정민(淨敏), 성율(性律), 사민(思敏), 종흡(宗洽) 등 7명의 조각승들에 의해 조성되어 1657년 4월 24일에 동화사(桐華寺) 대웅전에 봉안된 아미타불-석가불-약사불의 삼존상임이 밝혀졌다.
- 발원문에 의해 수조각승으로 알려진 계찬은 현진(玄眞, 1600~30년대)-청헌(淸憲, 1620~40년대)-응혜(應惠, 1630~70년대)-계찬(戒贊, 1640~80년대)로 이어진 유파의 조각승이다.
- 계찬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1643년 응혜(應惠)와 함께 달성 용연사 명부전의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조성예 8명 중 7위의 조각승으로 참여한 기록이다.
- 이후에도 1647년 군산 불주사 <목조보살좌상>, 1652년 창녕 관룡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제작에 참여하여 수조각승 응혜를 보조하였다. 한편 계찬은 응혜의 사형으로 추정되는 조각승 승일(勝日, 勝一)의 보조 조각승으로도 활약하였는데, 1646년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1648년 강진 정수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이 그 사례이다.
- 계찬은 1640년대에서 165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의 수련기를 거친 후 수조각승으로 독립하여 1653년 청도 적천사 무차루 <석조아미타불좌상>을 처음 조성하였고 1657년에는 본 보고서의 대상인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을 조성하였다. 이후에도 1686년 취선(就禪)과 함께 구례 화엄사 내 원암(현 부산 금수사 봉안)의 <목조불좌상>을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수조각승으로서 활동하였다. 특이한 점은 본격적인 수조각승 활동기인 1671년에도 스승인 응혜가 주도한 장성 백양산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성 불사에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한 것이다.

- 대웅전의 불상들은 석가불을 주존으로 하고 양 협시로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배치한 ‘삼방불’ 형식인데,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조각승 청헌-승일·응혜·희장으로 이어지는 청헌계 조각승들의 오른손 수인 표현과 같이 오른손을 약간 들어 올린 수인을 하고 있다.
- 얼굴은 턱 선이 둥근 장방형이며 살짝 다문 입술 양옆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갔고 입술이 매우 얇다. 귀는 이륜(耳輪)의 폭이 일정하고 단순하며, 이곽(耳郭)도 ‘물음표(?)’를 닮은 간략한 형태이다. 이륜과 이곽 사이의 삼각와는 거의 표시나지 않게 살짝 눌러 음영만을 나타내었으며, 귓구멍 입구의 이병(耳屏)이 동그랗게 돌출되어 있는 형태가 모두 같다.
- 동화사 약사불상의 옷은 오른쪽 어깨를 가린 대의가 어깨로부터 호선을 그리며 비스듬히 오른쪽 팔꿈치에 이르는 형태인데, 목을 감싼 부분에는 깃처럼 대의 자락이 반전되어 있고 가슴을 타고 내려오면서 마지막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을 나타내어 입체감을 높였다. 어깨 쪽의 옷주름은 모두 3줄의 양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선이 1줄로 내려오다가 2줄로 갈라진 형태이다. 두 다리 사이의 옷주름은 중앙에 곡선으로 이루어진 폭넓은 옷주름 2개가 거의 대칭인 형태이며 그 좌우로 폭 좁은 주름들도 대칭을 이루고 있다. 아미타불상은 왼쪽 다리의 정강이와 무릎 사이로 끝이 뾰족한 대의의 모서리 자락이 흘러내려져 있는 모습이다. 동화사의 세 불상은 얼굴과 체형은 같지만 대의는 각각 다른 형태로 묘사된 특징이 있다.
- 신체, 머리, 얼굴, 복제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스승인 응혜가 1647년에 계찬과 함께 조성한 군산 불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나 1660년에 함께 제작한 담양 호국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매우 비슷하여, 계찬은 스승인 응혜로부터 양식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 문헌자료

- 석가불좌상, 약사불좌상, 아미타불좌상 모두에서 발원문과 함께 대좌의 묵서조성기도 함께 발견되었다. 여기에서는 석가불상의 발원문과 대좌의 조성기만을 소개하도록 한다.

\*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 白紙墨書, 1657년 4월 24일(그레고리력. 6월 5일)  
(앞면)

衆

生 願我 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白己守 兩主

左輔處施主朴希日 兩主

右輔處施主朴元同 兩主

烏金大施主羅承立 兩主

裹布施主安石同 兩主

裹布施主柳弼信 兩位

裹布施主 德熙比丘

體木施主主簿李舜享兩主

面金施主裴氏閏花 單身

面金施主裴正日 兩主

烏金施主李淵龍 兩主

泥金施主四花 兩主

座臺施主朴仁金 兩主

座臺尹永千 兩主

座臺施主鄭萬水 兩主

供養施主鄭羅頭金 保体

步連大施主崔氏先眞 兩主

引燈大施主金莫金 兩主

鐵物施主宣卜 兩主

供養施主許以誠 保体

腹紙施主已去黃泉李斗廷

證明聖日比丘

持殿熙安比丘

供養主三彦比丘

別座忠敏比丘

(뒷면)

助緣忠宝比丘

雷彦比丘

大功德主法弘比丘

禪宗大禪師覺性

大禪師敬玄

正

宗禪虛憲

散人玉倫

文彦

畫員秩 玉坦

戒贊

印戒

靈彦

淨敏

性律

思敏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桐華寺

宗洽 首事應林

三剛 三信

「木造釋迦佛坐像 造成記」臺座上面에 墨書, 1657년 4월 24일(그레고리력. 6월 5일)

順治十四年丁酉二月初日始役四月二十四日畢也

證明性日比丘

持殿熙安比丘

願以此功德

畫員

普及於一切

戒贊 比丘

我等與衆生

印戒 比丘

皆共成佛道

英彦 比丘

淨敏 比丘

性律 比丘

思敏 比丘

宗洽 比丘

海元 單身

緣化秩

供養主三彦比丘

別座 忠敏比丘

忠宝比丘

雷彦比丘  
海堅比丘  
大化士法弘比丘

「木造釋迦佛坐像 重修記」臺座上面에 白書, 1753년4월 30일(그레고리력. 6월 1일)  
乾隆拾柒  
年  
癸酉始三月初畢四月  
晦

□

(복장유물)

### ○ 현 상

동화사 대웅전 내 불상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과 약사불로 이루어진 삼세불(三世佛)이다. 조성발원문은 각각의 불상 내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그 실측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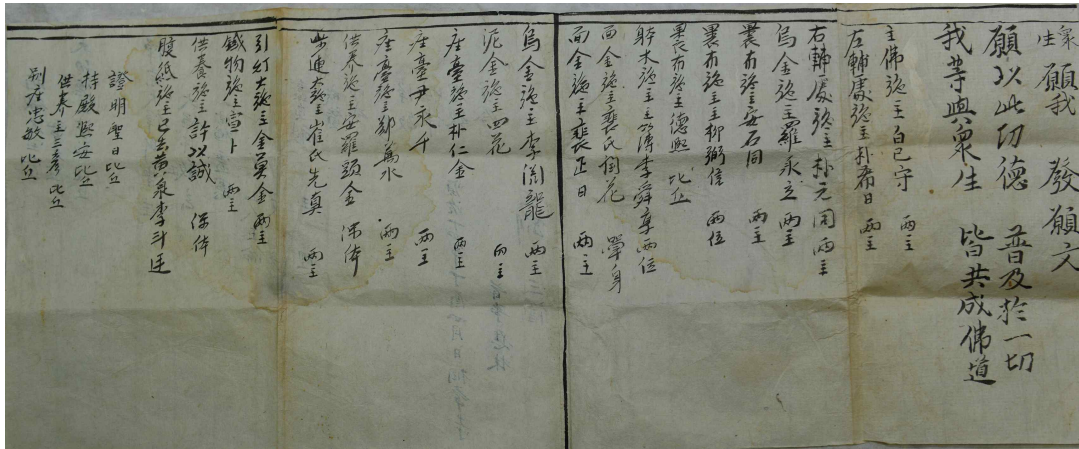
명칭	수량	크기	시기	등록번호
석가모니불좌상 발원문	1점(4절)	20.4×49.8(cm) 2장 연접	1657년	석가모니불좌상 발원문-42
약사불좌상 발원문	1점(4절)	20.5×51.0(cm) 2장 연접	1657년	약사불좌상 발원문-51
아미타불좌상 발원문	1점(4절)	20.6×52.0(cm) 2장 연접	1657년	아미타불좌상 발원문-47

###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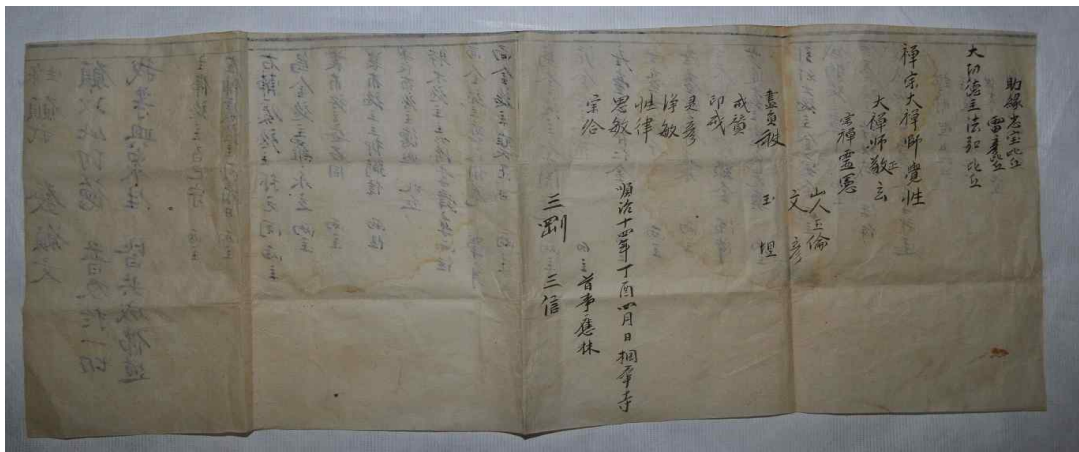
#### 1) 석가모니불좌상 조성발원문

발원문은 약 25.2cm 내외의 종이 두 장을 연접한 상태이다. 발원문은 앞면에 시주질(施主秩)과 함께 증명(證明), 지전(持殿), 공양(供養), 별좌(別座) 스님을 기록하고, 뒷면에는 앞면에 이어 조연(助緣) 忠寶比丘, 대공덕주(大功德主) 法弘比丘 그리고 선종대선사(禪宗大禪師) 각성(覺性) 스님과 함께 화원(畫員)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발원문의 끝에는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이라는 간기를 적어 1657

년이라는 절대연대를 사실을 보여준다.



<석가불 조성발원문(전면)>



<석가불 조성발원문(후면)>

이를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衆生

願我發願文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主佛施主白己守兩主  
 左輔處施主朴希日兩主  
 右輔處施主朴元同兩主  
 烏金施主羅承立兩主  
 裹布施主安石同兩主  
 裹布施主柳弼信兩位  
 裹布施主德熙比丘  
 體木施主簿李舜亨兩位  
 面金施主裴氏閏花單身  
 面金施主裴正日兩主  
 烏金施主李淵龍兩主  
 泥金施主四花兩主  
 座臺施主朴仁金兩主  
 座臺尹永千兩主  
 座臺施主鄭萬水兩主  
 供養施主安羅頭金保體  
 步連大施主崔氏先眞兩主  
 引灯大施主金莫金兩主  
 鐵物施主宣下兩主  
 供養施主許以誠保休  
 腹紙施主己去黃泉李斗廷  
 證明聖日比丘  
 持殿熙安比丘  
 供養主三彥比丘  
 別座忠民比丘

助緣 忠宝比丘

雷彦比丘

大功德主 法弘比丘

禪宗大禪師 覺性

大禪師 敬正 玄

宗禪 靈憲

山人 玉輪

文彦

玉坦

畫員秩

戒贊

印戒

灵彦

淨敏

性律

思敏

宗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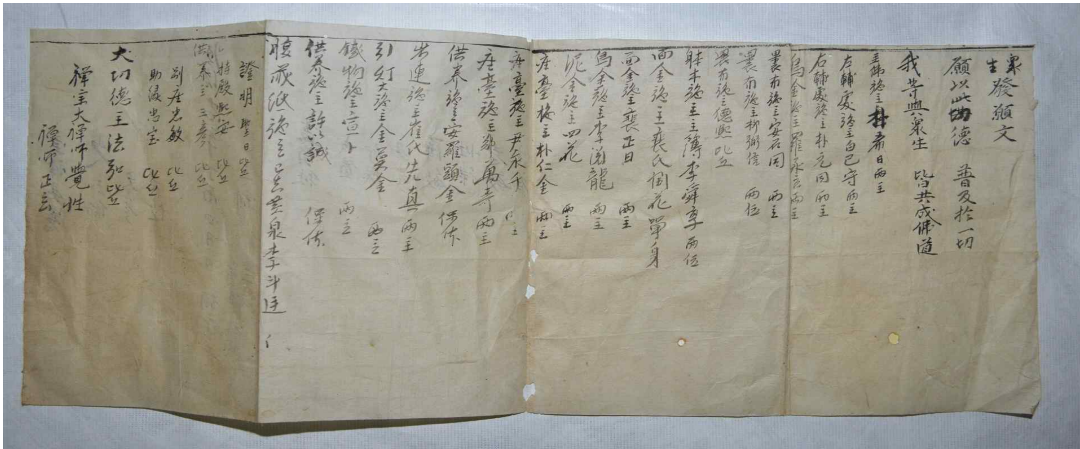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桐華寺

首事 應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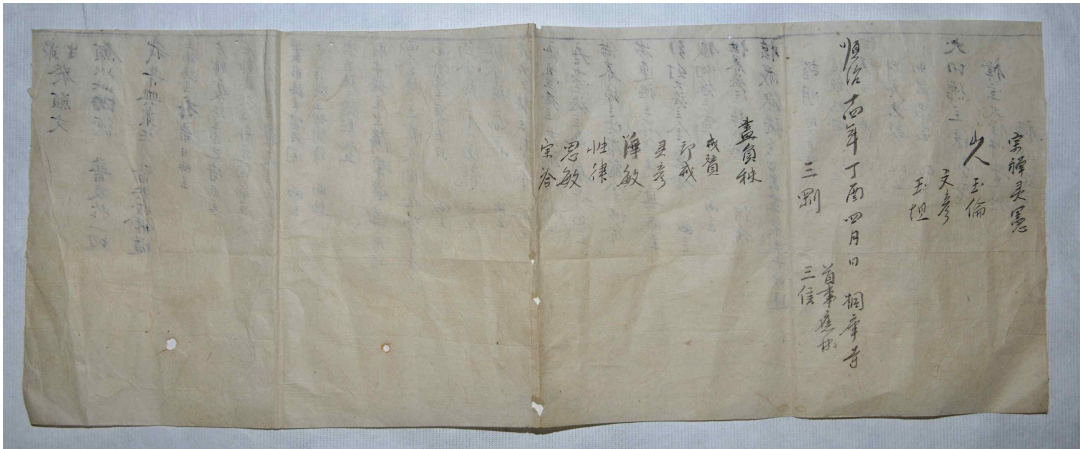
三剛 三信

2) 약사불좌상 조성발원문

발원문은 약 25.7cm 내외의 종이 두 장을 연접한 상태이다. 발원문은 앞면에 시주질(施主秩)과 함께 증명(證明), 지전(持殿), 공양(供養), 별좌(別座) 그리고 대공덕주(大功德主) 法弘比丘와 함께 대선사 각성(覺性) 스님을 기록하였다. 후면에는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이라는 간기를 적고 그 뒤에 석가모니불 조성문과 같은 화원(畫員)의 이름을 적었다.



<약사불 조성발원문(전면)>



<약사불 조성발원문(후면)>

이를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衆生

# 發願文

衆生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 朴希日兩主

左輔處施主 白己守兩主

右輔處施主 朴元同兩主

烏金施主 羅承立兩主

裹布施主 安石同兩主

裹布施主 柳弼信兩位

裹布施主 德熙比丘

體木施主 主簿李舜亨 兩位

面金施主 裴氏閏花 單身

面金施主 裴正日兩主

烏金施主 李淵龍兩主

泥金施主 四花兩主

座臺施主 朴仁金兩主

座臺施主 尹永千兩主

座臺施主 鄭萬壽兩主

供養施主 安羅頭金 保休

步連施主 崔氏先眞兩主

鐵物施主 宣卜兩主

供養施主 許以誠 保休

腹藏紙施主 己去黃泉李斗廷

證明 聖日比丘

持殿 熙安比丘

供養主 三彥比丘

別座 忠敏比丘

助緣 忠宝比丘

大功德主 法弘比丘

禪宗大禪師 覺性

禪師 正玄

宗禪 靈憲

山人 玉倫

文彥

玉坦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 桐華寺

三剛 首事 應林

三信

畫員 秩

戒贊

印戒

靈彥

淨敏

性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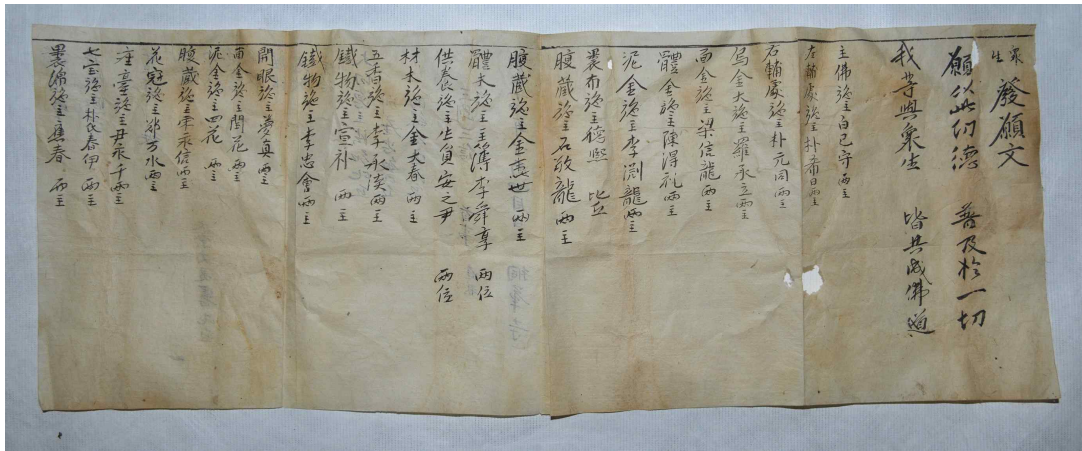
思敏

宗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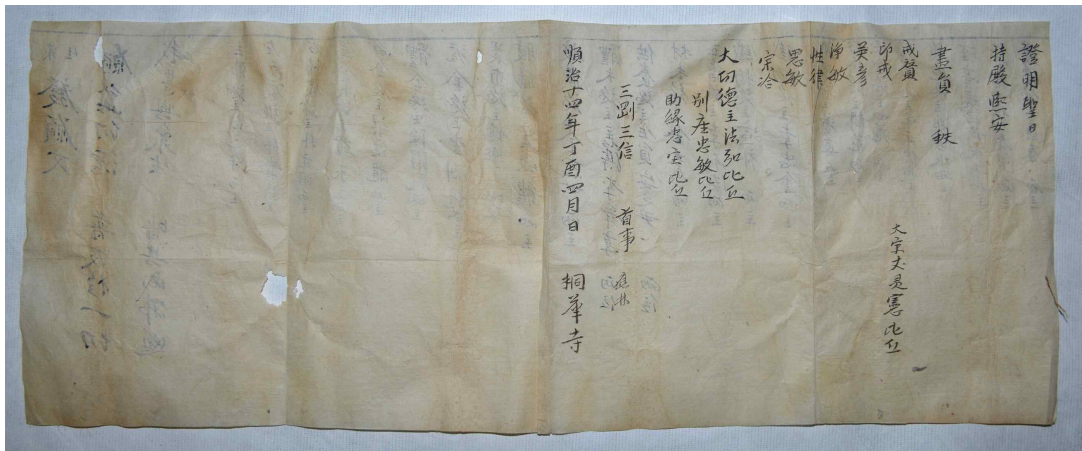
### 3) 아미타불좌상 조성발원문

발원문은 약 26.2cm 내외의 종이 두 장을 연결한 상태이다. 발원문은 앞면에 시주질(施主秩)과 함께 증명(證明), 지전(持殿), 공양(供養), 별좌(別座) 그리고 대공덕주(大功德主) 法弘比丘와 함께 대선사 각성(覺性) 스님을 기록하였다. 후면에는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이라는 간기를 적고 그 뒤에 석가모니불 조성문과 같은 화원(畫員)의 이름을 적었다.





<아미타불 조성발원문(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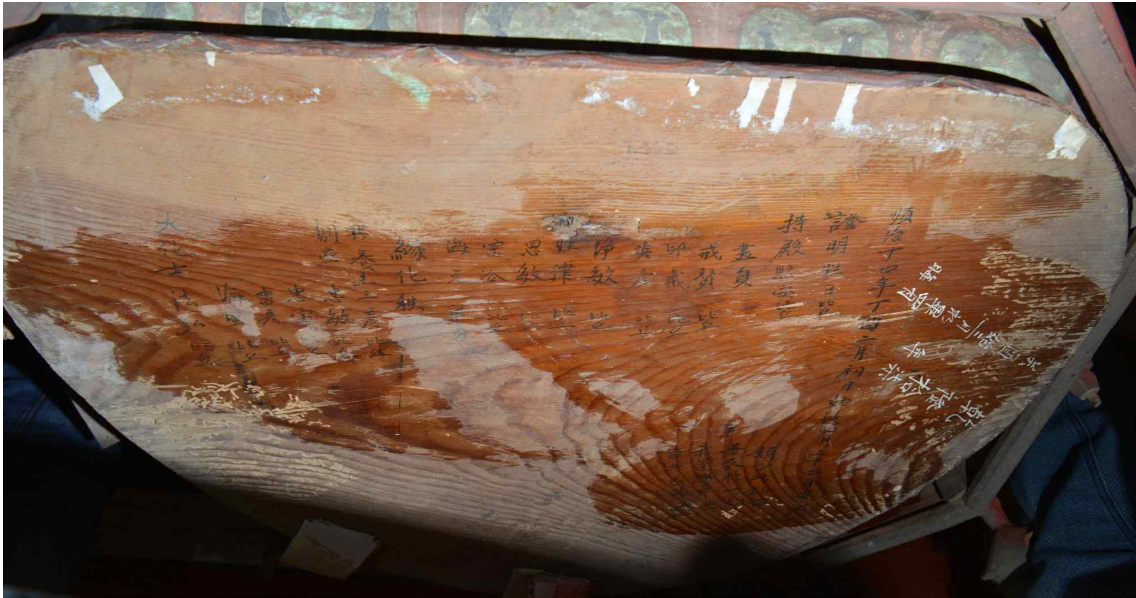


<아미타불 조성발원문(후면)>

이를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衆生 <b>發願文</b>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 白己守 兩主 左輔處施主 朴希日 兩主 右輔處施主 朴元同 兩主 烏金大施主 羅承立 兩主 面金施主 梁信龍 兩主 體金施主 陳得禮 兩主 泥金施主 李淵龍 兩主 裹布施主 德熙 比丘 腹藏施主 石敬龍 兩主 腹藏施主 金恁世 兩主 體木施主 主簿 李舜亨 兩位 供養施主 生員 安之尹 兩位 材木施主 金大春 兩主 五香施主 李承淡 兩主 鐵物施主 宣朴 兩主 鐵物施主 李忠會 兩主 開眼施主 夢眞 兩主 面金施主 閔花 兩主 泥金施主 四花 兩主 腹藏施主 宋永信 兩主 花冠施主 鄭万水 兩主 座臺施主 尹永千 兩主 七宝施主 朴氏春伊 兩主 裹綿施主 應春 兩主
--





<석가불 대좌 목서>

- 
- 211) 세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聖日로, 대좌 목서에는 性日로 적혀 있다.
  - 212)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 213)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 214) 세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 215) 세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대좌 목서에는 모두 적혀 있어 대좌 만들 때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정보 정정

안건번호 등산 2023-03-005

### 5. 보물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지정정보 정정


#### 가. 심의사항

보물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지정정보 정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지정정보 정정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보물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해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23.1.27)를 실시하고 2023년 제1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추가조사 사유로 보류됨
- 이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보완조사(‘23.3.1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정보 정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정보 정정을 예고(‘23.5.3.~’23.6.2.)하고, 지정정보 정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지정현황

문화재명	현황	사진
<p>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光州 紫雲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종목 : 보물</li> <li>○ 지정일자 : '06.12.29.</li> <li>○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자운사 * 복장유물은 송광사성보박물관 보관</li> <li>○ 수 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상 1구</li> <li>- 전적류 10건</li> <li>- 직물류 57점</li> <li>- 금속/기타 1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은제가사장식 1점</li> <li>· 청동방울 1점</li> <li>· 흑칠경갑 1점</li> <li>· 목제후령통 1점</li> <li>· 동방·북방·남방·서방 후령통 각 1점</li> <li>· 종이류 6점</li> </ul> </li> </ul> </li> </ul>	

## 라. 그간의 경과

- '00년 및 '04년 복장유물 수습, 조사
- '04년 복장유물 송광사정보박물관에 보관
- '06년 5~6월, 9월 지정조사(장소 : 송광사정보박물관)
- '06년 12월 보물 지정
- '22년 정기조사 시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후령통 4점과 중복 지정 의견 제기됨
- '23년 1월 27일(금)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3년 2월 9일(목) 2023년 제1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직물이 포함되어 지정되었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추가조사 사유로 보류
- '23년 3월 14일(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1차 조사 의견)

-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이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과 함께 송광사정보박물관에 보관됨. 지정 당시 착오로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지정목록에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후령통 4점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지정목록의 금속후령통 4점은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후령통 4점과 동일한 유물임을 육안조사하였고,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수습에 참여했던 송광사정보박물관장 고경스님의 면담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였음

### (2차 조사 의견)

-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이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과 함께 송광사정보박물관에 보관됨. 지정 당시 착오로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지정목록에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직물 5점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수습 당시의 직물류 유물을 촬영한 사진과 유물을 포장하여 송광사정보박물관으로 보냈던 사진을 현재 직물류 지정목록과 대조하여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복장유물의 직물류를 구분해냈음.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수습 당시 참여하였던 현 주지 일국스님이 입회하여 확인하였음

### (종합 의견)
























-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지정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관리상의 혼선을 바로잡는 것이 타당함









정정 이전	정정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상 1구</li> <li>- 전적류 10건</li> <li>- 식물류 57점 → 52점</li> <li>- 금속/기타 1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은제가사장식 1점</li> <li>· 청동방울 1점</li> <li>· 흑칠경갑 1점</li> <li>· 목제후령통 1점</li> <li><del>· 동방후령통 1점</del></li> <li><del>· 북방후령통 1점</del></li> <li><del>· 남방후령통 1점</del></li> <li><del>· 서방후령통 1점</del></li> <li>· 종이류 6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상 1구</li> <li>- 전적류 10건</li> <li>- 식물류 52점</li> <li>- 금속/기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은제가사장식 1점</li> <li>· 청동방울 1점</li> <li>· 흑칠경갑 1점</li> <li>· 목제후령통 1점</li> <li>· 종이류 6점</li> </ul> </li> </ul>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정보 정정함.

왼쪽: 자운사 인수 시 / 오른쪽: 송광사 정보박물관 인계 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광주 자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직물류 57건> 목록: 노란셀 제외

연번	지정명칭 ※지정조사서 명칭	재질	수량	규격 (cm)	사진
1	백연보녕쿨문단	견	1	31×35	
2	백연보녕쿨문단	견	1	21×16	
3	저포	모시	1	34,7×50	
4	주색면	면	1	37×34	
5	흑자색주	견	1	51×12	
6	청색화봉문능	견	1	-	
7	흑자색주	견	1	40×36	
8	황갈색주	견	1	36×39	









연번	지정명칭 ※지정조사서 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9	벽청 화조운문능	견 (능)	1	17.7×12.5	
		견 (조)		-	
10	저포	모시	1	13×8	
11	초록면주	견	1	38×9	
12	벽청녕쿨화문단	견	1	43×6.5	
13	적갈색무문단	견	1	11×11.5	
14	적갈색무문단	견	1	12×9	
15	저포	모시	1	13.5×7.5	
16	청색주	견	1	35×30.5	

연번	지정명칭 ※지정조사서 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17	저포	모시	1	3×47.5	
18	감색주	견	1	12×51	
19	저포	모시	1	9×48	
20	황색주	견	1	13×17	
21	저포	모시	1	18×44	
22	소색주	견	1	33.5×7	
23	자적주	견	1	20.5×15.5	
24	자적주	견	1	51×36	

연번	지정명칭 ※지정조사서 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25	소색주	견	1	40×37	
26	청색주	견	1	5×108	
27	저포	모시	1	22,5×21,5	
28	흑자색주	견	1	40×36	
29	담청색번	견	1	16×10,5	
30	저포	모시	1	12,5×20	
31	소색주	견	1	20,5×17	
32	담청색번	견	1	17,5×10	

연번	지정명칭 ※지정조사서 명칭	재질	수량	규격 (cm)	사진
33	저포	모시	1	19×29	
34	녹색면주	견	1	11.5×68	
35	저포	모시	1	28×34.5	
36	저포	모시	1	25×21	
37	흑색문단	견	1	조각	
38	청색주	견	1	9.5×73.5	
39	흑자색주	견	1	38×11.5	
40	주황색번	견	1	(19.5×14)×2	

연번	지정명칭 ※지정조사서 명칭	재질	수량	규격 (cm)	사진
41	저포	모시	1	23×14.5	
42	담청색주	견	1	35×48	
43	소색초	견	1	18×15	
44	황색번	면	1	14.5×12.5	
45	흑색번	견	1	13×10	
46	흑색문단	견	1	3.5×5	
47	갈색화문단	견	1	27×17	
48	갈색화문단	견	1	-	

연번	지정명칭 ※지정조사서 명칭	재질	수량	규격 (cm)	사진
49	남운문단	견	1 (일괄)	-	
	황색주	견		-	
50	주황능	견	1	2.5×20	
51	황색주	견	1	53×67.5	
52	소색초	견	1	-	
53	청색화문단	견	1	14.7×16	
54	보라화문능	견	1	27.3×17	
55	주황화문능	견	1	23.5×19.5	
56	注金剛經	견	1	-	



연번	지정명칭 ※지정조사서 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57	妙法蓮華經	견	1	-	
계			57건 57점		

## 6. 보물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 지정정보 정정


### 가. 심의사항

보물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에 대한 지정정보 정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지정수량 정정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보물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23.1.27)를 실시하고 2023년 제1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추가 조사 사유로 보류됨
- 이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보완조사(‘23.3.1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정보 정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정보 정정을 예고(‘23.5.3.~’23.6.2.)하고, 지정정보 정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지정현황

문화재명	현황	사진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 順天 松廣寺 塑造 四天王像 腹藏遺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종목 : 보물</li> <li>○ 지정일자 : '06.04.28.</li> <li>○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li> <li>○ 수 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적류 12종 14책</li> <li>- 인본다라니 383장</li> <li>- 후령통 4점</li> </ul> </li> </ul>	

### 라. 그간의 경과

- '05년 10월 지정조사
- '06년 4월 보물 지정

- '07년 인본다라니 보존처리
- '22년 정기조사 시 수량 불일치 확인: 383장→428장
- '23년 1월 27일(금)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3년 2월 9일(목) 2023년 제1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직물이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에 포함되어 지정되었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추가조사 사유로 보류
- '23년 3월 14일(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1차 조사 의견)

-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인본다라니는 보존 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외부 유물의 혼입도 없었으므로 관리 과정 및 보존 처리 과정에서 수량이 변동된 것으로 추정됨

##### (2차 조사 의견)

-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 지정 시 직물류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음. 별도 지정정보 정정 불필요

##### (종합 의견)

-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지정수량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관리상의 혼선을 바로잡는 것이 타당함

정정 이전	정정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적류 12종 14책</li> <li>- 인본다라니 383장</li> <li>- 후령통 4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적류 12종 14책</li> <li>- 인본다라니 428장</li> <li>- 후령통 4점</li> </ul>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정보 정정함.

# 검 토 사 항



### Ⅲ.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3-03-007

#### 7. 이순신 유물 일괄 (李舜臣 遺物 一括)

##### 가. 검토사항

‘이순신 유물 일괄’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현충사관리소장으로부터 ‘이순신 유물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22.8.29.)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2.12.28./'23.4.20./'23.5.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1963.1.21. 지정)
- 명 칭 : 이순신 유물 일괄(李舜臣 遺物 一括)
- 소유자(관리자) : \*\*\* (현충사관리소)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현충사
- 수 량 : 4종(장검 2병, 옥로 1구, 요대 1구, 도배구대 1쌍)
- 규 격 : 표 참조
- 재 질 : 금속, 나무, 어피, 옥 등
- 형 식 : 일괄 유물
- 조성연대 : 조선시대(장검 1594년)
- 제작자 : 장검-태귀련(太貴連), 이무생(李茂生)



옥로

요대

요대함

도배구대



장검  
<이순신 유물 일괄>

<지정 대상 현황>

연번	명칭	크기(cm)
1	장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검1: 칼몸 196.8cm, 칼날 137.3cm, 칼자루 59.5cm, 무게 4.32kg</li> <li>· 장검2: 칼몸 197.2cm, 칼날 137.8cm, 칼자루 59.4cm, 무게 4.20kg</li> <li>· 검집1: 칼집 길이 144.5cm, 가죽 끈 길이 87.0cm, 무게 1.40kg</li> <li>· 검집2: 칼집 길이 144.5cm, 가죽 끈 길이 92.0cm, 무게 1.24kg</li> </ul>
2	옥로	· 높이 6.2cm, 너비 4.43cm, 하단 금속 지름 5.1cm
3	요대	· 좌우 지름 45.0cm, 전후 지름 42.0cm, 띠 너비 5.5cm
4	요대함	· 최대 지름 48.5cm, 몸체 높이 7.20~7.42cm, 뚜껑 높이 7.73~7.81cm
5	도배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배1: (줄기 있음) 8.45×7.34cm</li> <li>· 도배2: (줄기 결락) 8.52×7.11cm</li> <li>· 구대1: 지름 15.5~15.8cm</li> <li>· 구대2: (보존상태 상 실측 불가)</li> </ul>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장검, 국보 지정 가치 있음 / 나머지는 보물 유지 / 요대함 추가 보물 지정)

<장검>

이순신장검은 칼몸 2점과 칼집 2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칼날에는 이순신

의 직접 지은 ‘三尺誓天山河動色’과 ‘一揮掃蕩血染山河’라는 시구가 금동으로 입사되어 있어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수 있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상징적 유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탁월하다. 더욱이 각각의 칼자루 안쪽 스킴베에는 1594년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라는 장인이 이 칼을 제작했다는 명문까지 새겨져 있어 이것을 제작한 제작시기와 제작장인이 밝혀져 그 역사적 가치 또한 우수하다. 더욱이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기록인 『이충무공전서』(1795)가 현존하며, 이에 의거하면 충무공의 친필 시구를 새긴 장검 한 쌍을 1594년에 제작하여 공이 사용하다가 이후 공의 후손이 보관하였다는 소장이력까지 분명하여 학술적 가치도 뛰어나다.

이렇게 이순신장검은 비록 일본도의 영향을 받은 칼이지만 여러 면에서 조선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이 장검에서 보이는 일본적 요소는 곡선적인 칼끝이나 피홈[혈조], 스킴베와 목정혈, 국화모양 코등이, 칼자루의 X자 끈매기 등인데 이 또한 한중일 모두 선진 일본도의 영향을 받은 시기인 것을 이 유물로 확인할 수 있어 자료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날에 물결문양을 음각하거나 국화꽃잎형 코등이나 덧쇠[절우] 및 호인 등은 조선적 특징이 강하다. 게다가 목재로 만든 칼자루나 칼집을 목재로 만들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피를 싸고 주합철을 하거나 주철을 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철제로 칼자루 뒷마개와 절우, 칼집의 입구장식, 패용장식과 다회고리 및 칼끝마개 등에 파련문이나 거치문 및 당초문을 정교하게 은입사하여 조선적인 미의식을 가미시켜 조형적인 탁월성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이순신장검은 1594년이라는 제작시기와 태귀련과 이언복이 제작하여 제작장인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직접 지은 시구를 새겨 직접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물의 희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충무공이라는 역사적 인물과의 관련성에서도 매우 뛰어나다. 제작 당시에 사용되었던 칼날과 칼자루 속의 스킴베 및 칼집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고스란히 존재하여 조선 도검의 제작기술사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식 장검의 형태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절우나 칼자루 뒷마개 장식이나 칼집입구장식, 다회고리 장식이나 패용장식 및 칼끝마개장식 등을 철제로 마감하면서 베푼 은입사 기법과 파련문이나 당초문 등은 16세기 말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 이후 왕실이나 민간에 까지 영향을 끼쳐 이 장검은 철제 은입사유물 중 가장 앞서는 시기의 것으로서 공예사적으로 선구적인 작품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순신장검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조형적 가치가 매우 커 오히려 지금까지 국보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져 만시지탄이지만 국보로 승격하기에 충분한 크다고 판단한다.

다만 장검의 칼몸 위 혈조에는 원래부터 주철을 감입했는데 세월이 흘러 원래



의 칠이 베껴져 화학안료로 칠해져 있던 것을 과학적 분석결과 제거한 것은 칼의 조형미로나 상징성으로 미루어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 이 시기의 장검으로서 코등이나 어피 등에 잔존하는 주철을 분석하여 모조록 칼몸 위 혈조는 반드시 복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옥로>

옥로는 조선 후기에 높은 벼슬아치나 외국에 가는 사신의 갓 머리에 다는 용도로서 비교적 시기가 내려가는 유물이다. 옥로의 재료인 백옥은 색이 맑고 깨끗한 중국산이고, 넓은 연잎 아래 해오라기 세 마리를 섬세하게 투각하는 기법 또한 조선의 전통 기술은 아니지만 조형적으로는 우수한 편에 속한다. 옥로를 짠 청홍 비단을 누벼 연봉 매듭으로 마감한 옥로집이나 이것들을 함께 넣는 옥로함은 전체적인 형태나 색채 및 바느질의 상태 등으로 미루어볼 때 19세기 이후의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옥로와 옥로집 및 옥로함은 이순신 장군에 직접 관련이 없고 시대가 내려가는 유물이지만, 장군의 유품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순신 일괄 유물로서 보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보로 승격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요대>

이순신 유물 중 요대는 1598년 무술일기에 명나라 유격(遊擊) 왕원주(王元周)가 선물한 금대(金帶)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작시기와 제작지 및 이순신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관련되어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당 유물은 비록 중국제이지만 한국의 무관 품대와 형태나 구조 등이 유사하여 조선 후기에 조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요대 위에 부착되어 있는 띠돈의 종류가 삼태, 남두육성, 타미, 좌보, 우필, 북두칠성 등이 하나의 훼손도 없이 온전하고 띠돈마다 사자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조각기술이나 세부의 묘사 또한 조형적으로 탁월하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점은 품대 뒤쪽 허리 부분에 부착한 덧댐천의 경우 진주에 주둔한 수군이 사용한 장책을 재활용하여 종이 여러 겹을 겹친 다음 쪽빛 염색한 비단으로 감싸는 줌치기법이 사용된 점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비록 중국 명나라에서 전래된 유물이지만 조선의 전통 기법이 적용된 한중 절충형 유물로서 공예사적인 가치 또한 높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이순신 일괄 유물로서 보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 제작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보로 승격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재 해당 유물을 허리띠라는 의미의 요대로 부르고 있는데, 전체 형태나 구조 및 띠돈의 배치 형식 등에서 조선 문무관리의 품대와 유사하여 유물의 명칭을 '품대'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그동안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되지 않은 유물로서 품대를 넣어두던 품대함이 있는데, 도넛 형태의 내함과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레를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 일정 간격으로 칼집을 넣어 세우거나, 판재에 베싸기를 하고 흑칠을 하는 등 그동안 볼 수 없던 전통 기술의 전승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비지정 상태에 있는 품대함은 품대를 보관하기 위해 조선 후기에 조선의 장인들이 조선에서 자생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조선의 품대함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며, 기 지정되어 있는 이순신 유물 일괄에 추가하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도배구대>

복숭아형 잔[도배]와 원형 받침대[구대]는 명나라 파총 진국경이 이순신 장군에게 선물한 목록에 화주배 한 쌍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역사적 인물과 관련되어 보물로서 지정 가치를 지니고 있다. 비록 중국제이지만 복숭아 형태의 잔에 손잡이에 잎사귀 3개가 달린 잔의 형태는 조선 후기에 조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 현재와 같이 이순신 일괄 유물로서 보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보로 승격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 (장검, 국보 지정 가치 있음 / 나머지는 보물 유지 / 요대함 추가 보물 지정)

1963년 1월 21일 보물로 지정되어 현재 충청남도 아산시 현충사에 보관하고 있는 이순신 유물 일괄은 장검, 옥로, 요대, 술잔의 4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장검은 첫째,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이라는 인물의 역사적 중요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칼날에 새겨진 검명은 『이충무공전서』의 기록과 일치하며 당시의 사회상과 기물명 문화를 확인할 수 있고 충무공의 가치관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유물이다. 둘째, 칼자루 속 슴베에 1594년 태귀련, 이무생이 제작했다는 명문이 남아 있어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다. 셋째, 군사사 분야에 있어서도 조선의 전통 제작기법에 일본의 제작기법이 유입되어 적용된 양상을 밝힐 수 있으므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넷째, 칼날의 예리함과 견고함, 칼날에 새긴 검명 및 물결무늬 선각장식의 기술성, 칼자루·칼집의 테와 고리를 장식한 은입사기법, 가죽·금속·칠 등 다양한 전통공예의 조화로운 활용, 세련된 균형미와 조형감각 등 제작기술과 예술성 역시 우수하고 완성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제작연대가 가장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검 2점과 검집 2점 모두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제작 관련 정보가 명확하므로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63년 보물 지정 당시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요대를 보관하는 함은 조선의 전통적인 공예기법과 높은 기술수준으로 제작되어 있고 완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보물로 추가 지정하여 기존의 이순신 유물 일괄과 함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장검, 국보 지정 가치 있음 / 나머지는 보물 유지 / 요대함 추가 보물 지정)

이순신 장검 2점은 명문을 통해 1594년의 제작 시기와 장인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전하는 도검 가운데 가장 크고 고위 무관에 어울리는 의장용 무기로 수준 높은 제작 기술을 보여준다. 조선의 도검 가운데 소유자, 제작 시기와 장인이 명확하고 한 쌍의 구성이면서 완전한 형태로 전하는 예는 매우 희소하다.

장검이 임진왜란(1592~1598)이라는 특정 시기에 제작되어, 시대성이 반영된 점도 중요하다. 전례 없는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기의 변화는 불가피하였고 조선의 법제에 준하는 도검을 제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일본의 특징을 활용하였다. 이는 비록 적국이라도 무기의 장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연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조선 도검의 변화 과정을 증명해 주는 유물로 의의를 지닌다.

장검을 제작한 공예기법에서도 중요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장검에는 글자와 문양을 새겨 넣기 위하여 입사기법을 활용하였다. 입사는 금속공예품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시대에 따라 세부 기술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순신 장검에는 두 종류의 입사기법이 파악된다. 먼저 충무공의 기세와 강개한 심정이 담긴 칼날의 문구는, 글자를 파내고 그 안에 금빛이 감도는 황동을 사용하여 열로 압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반면 칼집과 칼자루의 문양은 쪼음입사기법으로 장식하였다. 이는 철제 바탕에 선으로 요철을 만들고 은사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입사기법의 특징과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재료와 기술의 세부 현황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장검은 조선시대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의 소유품으로 역사성과 시대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제작 시기와 장인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유물이며, 조선 도검의 변화 과정이 투영되었다. 우수한 제작 기술과 역량으로 완성되어, 장검의 제작과 장식기법의 특징을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순신 장검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상당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국보로 지정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옥로, 요대, 도배와 받침은 제작 지역과 시기, 장인 등이 명확하지 않고 아직 본격적인 연구성과도 부족한 상황이다. 여러 측면에서 장검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일괄 유물로 승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요대와 함께 전하는 고리형 칠함은 조선 후기에 국내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

고 허리띠와 일괄품이므로 보물 목록에 추가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장검, 지정 가치 있음)

### <指定 價値>

충무공 이순신 장검(보물 지정명칭: 이순신 유물 일괄-장검)은 칼몸 2점과 칼집 2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칼몸 길이는 최대 197.2cm로 비교적 긴 칼에 속한다. 한 칼날에는 이순신의 친필 글씨로 ‘三尺誓天山河動色(편의상 ‘삼척서천검’으로 호칭)’이, 다른 한 칼날에는 ‘一揮掃蕩血染山河(편의상 ‘일휘소탕검’으로 호칭)’가 각각 음각으로 금동입사(金銅入絲)되어 있다.

2점의 칼몸마다 스페에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이 음각되어 있다. 1594년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 제작한 것이다. 『난중일기』 을미년(1595) 7월 21일 기사에 의하면, 태구련(太九連)과 언복(彦福)이 만든 환도(環刀)를 충청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박종남, 신호)에게 1자루씩을 나누어 보냈다고 했는데, 태구련은 장검의 스페에 새겨진 태귀련(太貴連)과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 『이충무공전서』(1795) 권1에 의하면, 장검 한 쌍이 공의 후손 집에 전해오는데 공의 친필이 칼에 새겨져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임진왜란 때인 1594년 4월에 태귀련(태구련)과 이무생이 만들어 통제사 이순신이 소장하였고, 임진왜란 후에는 이순신의 후손 집에 보관되어 오다가 지금은 현충사 유물관에 소장된 2점의 칼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칼 중에서 제작자, 제작 일자, 소장자가 유일하게 명확하고, 내력이 분명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칼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조선 전기 칼날의 보편적인 직선형이, 조선 후기 칼날의 보편적인 곡선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유일무이한 칼이다. 문헌적으로도 『국조오례서례』 「병기도설」로 대표되는 조선 전기 장검(長劔)과 『용원필비』로 대표되는 조선 후기 환도(環刀)를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살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유물이다. 비록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칼끝 형태와 피홈의 형식, 스페의 형식과 목정혈, 국화모양의 코등이, 칼자루 끈매기 등은 일본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조선시대에 동아시아에서 칼 제조의 선진국은 일본이었고, 조선은 그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하며 일본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히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 수군은 대량의 일본 무기를 노획하였으며, 조선의 장인은 우리 칼의 전통방식에 자연스럽게 일본도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을 맞이하였고,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최초로 발현된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일본도의 장점 요소는 조선 후기의 우리나라 도검문화에 그대로 흡수되어 보편화되었다. 그러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에 일본도 요소가 들

어 있다는 이유로 장검의 가치가 폄하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학술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다 하겠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형태는 전형적인 조선 군용 도검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며, 그 예술적 아름다움과 위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칼날은 단면 6각형의 고난도 기술이 구현되었으며, 그 조형미가 매우 뛰어나고, 제작된 지 429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식 없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나라 장인의 공예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칼날에 음각된 아름다운 물결문양, 전혀 부식되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코등이와 덧쇠(절우) 및 호인, 칼자루 윗마개와 아랫마개 및 칼집 패용장식과 고리에 조선 특유의 문양을 섬세하게 은입사한 기법, 칼자루의 2개 구멍에 돈을새김 문양의 동판을 덧댄 기법, 패용장식에 달린 조선의 독특한 가죽끈 방식, 그리고 칼자루와 칼집의 어피에 주철을 반복하여 시행함으로써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점 등이다. 다만 ‘삼척서천검’의 유소혈 부분 돈을새김 문양의 동판 일부가 탈락된 것이 흠일 수도 있겠으나, 이 흠결이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고고(孤高)한 예술적 가치를 훼손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예술적 가치 측면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백미는 한문시대에서도 시적 의미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三尺誓天山河動色’과 ‘一揮掃蕩血染山河’라는 이순신의 시구가 그것도 이순신의 친필 글씨체로 새겨져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이 장검은 매우 수준 높은 조선시대 군용 환도(環刀)의 양식으로 제작된 실전용 도검이다. 이 장검은 우리 민족의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의 유품으로서 그 문화유산으로서 가치와 상징적 중요성은 조선시대 모든 도검유물 중 단연 으뜸이며, 국보로 지정되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유물이다.

#### <根據 基準>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이 장검은 보물 중에서도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며, 우리 민족의 구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시구가 새겨져 있고, 이순신이 소장했던 칼로 인정되므로 국보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장검, 지정 가치 있음)

#### <指定 價値>

우리나라 칼 중에서 제작자, 제작 일자, 소장자가 유일하게 명확하고, 내력이 분명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칼이다. 전쟁의 무기는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최대의 과학기술이다.

일찍이 유성룡은 왜인의 장기로 조총, 용검, 돌격의 세 가지를 꼽을 정도로 일본군의 도검을 위협적으로 파악하였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다양한 도검문화가 도입되었다. 그 시기 비록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칼끝 형태와 피홈의 형식, 스페의 형식과 목정혈, 국화모양의 코등이, 병부의 교차끈매기 등은 일본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조선시대에 동아시아에서 칼 제조의 선진국은 일본이었고, 조선은 상대의 선진 과학을 도입하려고 애를 썼다. 특히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수군은 대량의 일본 무기를 노획하였으며, 조선의 장인은 우리 칼의 전통방식에 자연스럽게 일본도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을 맞이하였고,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최초로 발현된 그 결과물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고유한 선이나 특징은 없어지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횡각의 각도와 완만한 선, 은입사 문양 등이 그러하다. 중국적 요소 역시 함께 농축되어 있다. 그 시대적 산물로서 충무공의 승전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현존하는 전통도검 중 가장 크다. 그 예술적 아름다움과 위용이 단연 두드러진다. 칼날은 단면 6각도의 고난도 기술이 구현되었으며, 그 조형미가 매우 뛰어나고, 제작된 지 약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부식 없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나라 장인의 공예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 칼날에 음각된 아름다운 물결문, 전혀 부식되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코등이와 덧쇠(절우) 및 호인, 칼자루 윗마개와 아랫마개 및 칼집 패용장식과 고리에 조선 특유의 문양을 섬세하게 은 입사한 기법, 칼자루의 2개 구멍에 돌을새김 문양의 동판을 덧댄 기법, 패용장식에 달린 조선의 독특한 가죽 끈 방식, 그리고 칼자루와 칼집의 어피에 주철을 반복하여 시행함으로써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점 등이다. 다만 제1점의 유소혈 부분 돌을새김 문양의 동판 일부가 탈락된 것과 병부부분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흠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도검을 소지하는 사람들이 자주 갈아서 쓰는 것이다. 마치 오늘날 테니스라켓의 그립을 갈 듯이 소모품인 것이다.

특히 1쌍 2점을 제작하여 충무공의 호방한 친필 맹세 글을 지어 대구에 맞추어 칼에 새긴 것은 예술적 정신적 가치 측면에서 뛰어나다 하겠다. 더 연구할 부분이 많지만 쌍으로 제작하는 의도, 본인의 좌우명 같은 검결이 있는 칼은 그리 많지 않으며 그 검결이 애국의 의지를 품고 있는 것이기에 국보로 지정하는데 이견이 없다.

#### <根據 基準>

우리역사 상 국난을 극복한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맹세글이 새겨져 있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전통무기로서, 그리고 도검의 한 분야에서는 최고의 의미를 가지

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유물 중 가장 큰 칼이며 충무공은 현재 한국인의 70%가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의 1위에 속한다. 세계의 해전사에서 패전이 없었던 비교적 역사성을 거부할 수 없는 전수여력 등을 보아 호국의 의지가 함축된 유품이라는 점, 장군의 옷이나 장신구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유품이다. 일괄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일괄보다는 무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칼 중에서도 단연 우수한 유품이다. 장군은 군인이고 군인에게는 무기가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이 장검은 보물 중에서도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며, 칼에 함축된 국난극복의 정신은 소중한 자료로서 국보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장검, 지정 가치 있음)

### <指定 價値>

-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이순신을 상징하는 기물이다.

충무공 이순신은 두말할 것 없이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며, 국가에 대한 충성과 모친에 대한 효도의 상징으로 국가의 위기나 일제 식민지 시기, 대한민국 건국 후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의 대대적인 선양이 있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이순신의 이미지는 그가 지은 시조인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戍樓)에 홀로 앉아 /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 어디서 일성호가(一聲胡笳)는 남의 애를 끊나니”라는 문학작품으로 투영되었으며, 시조에 등장하는 큰 칼은 실실과 관계없이 실존하는 이순신 장검으로 바로 연상되었다. 따라서 이순신이 제작했고, 검명을 지었으며, 손수 잡아서 체취가 스며있는 이 장검은 바로 국난 극복의 위인 이순신의 상징으로서 적합하므로 이에 걸맞은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어야 한다.

-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명확한 기물이다.

이순신 장검(보물 등록명: 이순신 유물 일괄-장검)은 칼몸 2점과 칼집 2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칼몸 길이는 최대 197.2c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칼이다. 칼날에는 이순신이 지은 검명(劍銘) ‘三尺誓天山河動色 / 一揮掃蕩血染山河’이 나뉘어 각각 음각으로 입사(入絲)되어 있다. 또한 스페마다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이라 음각되어 있다. 칼의 정신이 ‘하늘에 맹세하여 산하를 감동시키고, 칼을 휘둘러 왜적을 소탕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고, 1594년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 제작한 것이라는 제작자와 제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검이다.

- 임진왜란기 조선검의 변화를 반영한 조선 후기 도검 제작의 표준이 되는 기물이다.

이순신 장검은 조선의 전통 방식이지만, 임진왜란 중 일본의 오랜 기간 그리고 수많은 전투 속에서 살상무기로 최적화된 도검의 장점을 과감히 받아들여 제작되었다. 한편 이순신장검은 크기에서 차이는 있지만 임진왜란 중 사용된 다른 도검과 친연성을 가지고 있어 동시대 개량된 무기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순신장검은 임진왜란으로 변화하는 변곡점에서 제작된 것으로 조선 후기 도검 제작과 검술 이론에도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기물이었다.

- 조선 중기의 공예 수준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보존 상태가 뛰어난 기물이다. 이순신장검의 형태는 전형적인 조선 군용 도검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며, 그 예술적 아름다움과 위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칼날에 음각 입사한 검명과 함께 새긴 물결문양, 코등이와 덧쇠(절우) 및 호인, 칼자루 윗마개와 아랫마개 및 칼집 패용장식과 고리에 조선 특유의 문양을 섬세하게 은입사한 기법, 칼자루의 2개 구멍에 돌을새김 문양의 동판을 덧댄 기법, 패용장식에 달린 조선의 독특한 가죽끈 방식, 그리고 칼자루와 칼집의 어피에 반복하여 주철로 마무리하여 내구성을 높인 것에서 임진왜란 중임에도 우리나라의 공예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칼날은 단면 6각형의 단조 기술과 손으로만 만들었음에도 두 자루가 거의 쌍둥이와 같이 똑같으며, 제작된 지 429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식 없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당시 야장(冶匠)의 높은 제작기술과 제련수준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장검은 매우 수준 높은 조선시대 군용 환도(環刀)의 양식으로 제작된 도검이다. 이 장검은 구국의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의 유품으로서 그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로 볼 때 국보로 지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 <根據 基準>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이 장검은 보물 중에서도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며, 구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시구가 새겨져 있고, 그분 스스로 소장했던 칼로 인정되므로 국보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충무공 이순신의 다른 유물도 물론 소중하지만, 장검은 상징성과 함께 중요도로 보아 소중한 문화재로 단독으로 국보로 지정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장검만 국보로 지정 예고함, 나머지는 보물로 유지하되, 요대함은 추가로 보물 지정 예고함.



## 조사보고서

□

### I. 장검

을미일기에 “태귀련이 들어왔다.”거나 “태귀련과 언복이 만든 환도를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에게 각각 한 자루씩 내려보냈다.” 등 태귀련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55년에 녹슨 칼날을 마광할 당시 태씨 문중에 구전되어 온 전승 채록에서 “태귀련과 이무생은 왜구의 노략질에 붙들려 일본 비젠에 끌려가 10년 동안 도검 제작에 노역하고 임란 때 왜병이 두 사람을 안내인 겸 통역으로 조선에 데리고 왔다. 이후 두 사람은 싸움터에서 충무공의 군사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으나 충무공에게 엿드려 빌며 사정을 호소했다. 충무공은 이들의 말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밝혀져 진중에서 칼을 만들도록 했고, 이후 두 사람이 3년간 기량을 다해 장검 두 자루를 바쳤고 이것이 이순신장검이다”라고 했다. 구전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순신장검의 칼날과 칼자루, 칼집>

### ○ 현 상

이충무공유물은 충청남도 아산시 현충사에 전시되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1545~1598년)의 유물이다. 이 유물은 전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장검 2점과 갓머리에 장식으로 달았던 것으로 보이는 옥로 1점, 관복을 입을 때 두르던 각대와 모습이 같은 요대(허리띠) 1점, 복숭아 모양을 한 술잔 1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충무공전서,  
을미일기 7월 14일>



<이충무공전서,  
을미일기 7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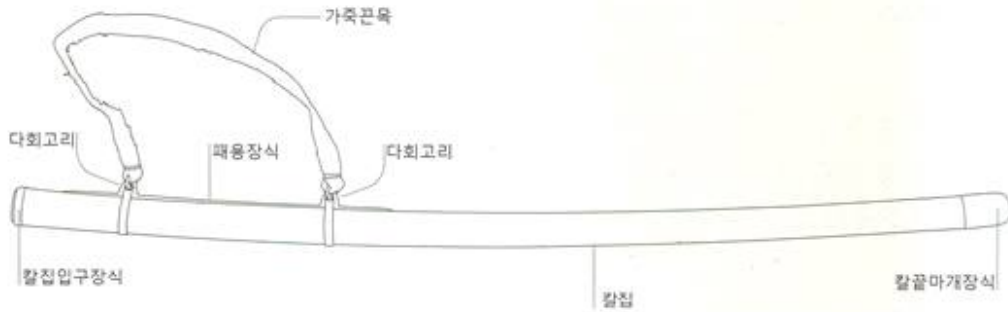
<이충무공전서,  
을미일기 잡저 검명 세주>

이순신 장검은 칼몸[刀身] 2자루와 칼집 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칼몸의 칼날에는 각각 음각의 금동입사로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이고, 다른 하나에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조대인 1795년에 편찬한 『이충무공전서』에 의하면, 을미일기 7월 4일에 “...이상록, 태구련, 공태원 등이 들어왔다...”거나 을미일기 7월 21일 “...식후에 태구련과 언복이 만든 환도를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에게 각각 한 자루씩 나누어 보냈다...”고 한다. 아울러 잡저 검명 세주를 보면 “장검 한 쌍에 나누어 새긴, 즉 공의 친필이다. 지금 공의 후손가에 있다.”고 하여 장검의 제작과 관련하여 유물을 뒷받침할 기록이 있고, 후손이 소장하였던 것까지 명확하게 뒷받침된다.

위 기록을 통해 이순신장검은 1594년에 만들어 충무공이 사용한 유물임을 알 수 있다. 2022년 12월 28일 현지조사를 통해 실측한 바에 의하면 칼몸의 길이는 196.8·197.2cm, 칼날의 길이는 137.3c·137.8m이다. 칼자루의 길이는 59.5·59.4cm이며, 칼집의 길이는 모두 144.5cm이다.



<이순신장검 세부명칭>



<칼자루의 세부명칭>

## ○ 내용 및 특징

### 1. 장검의 제작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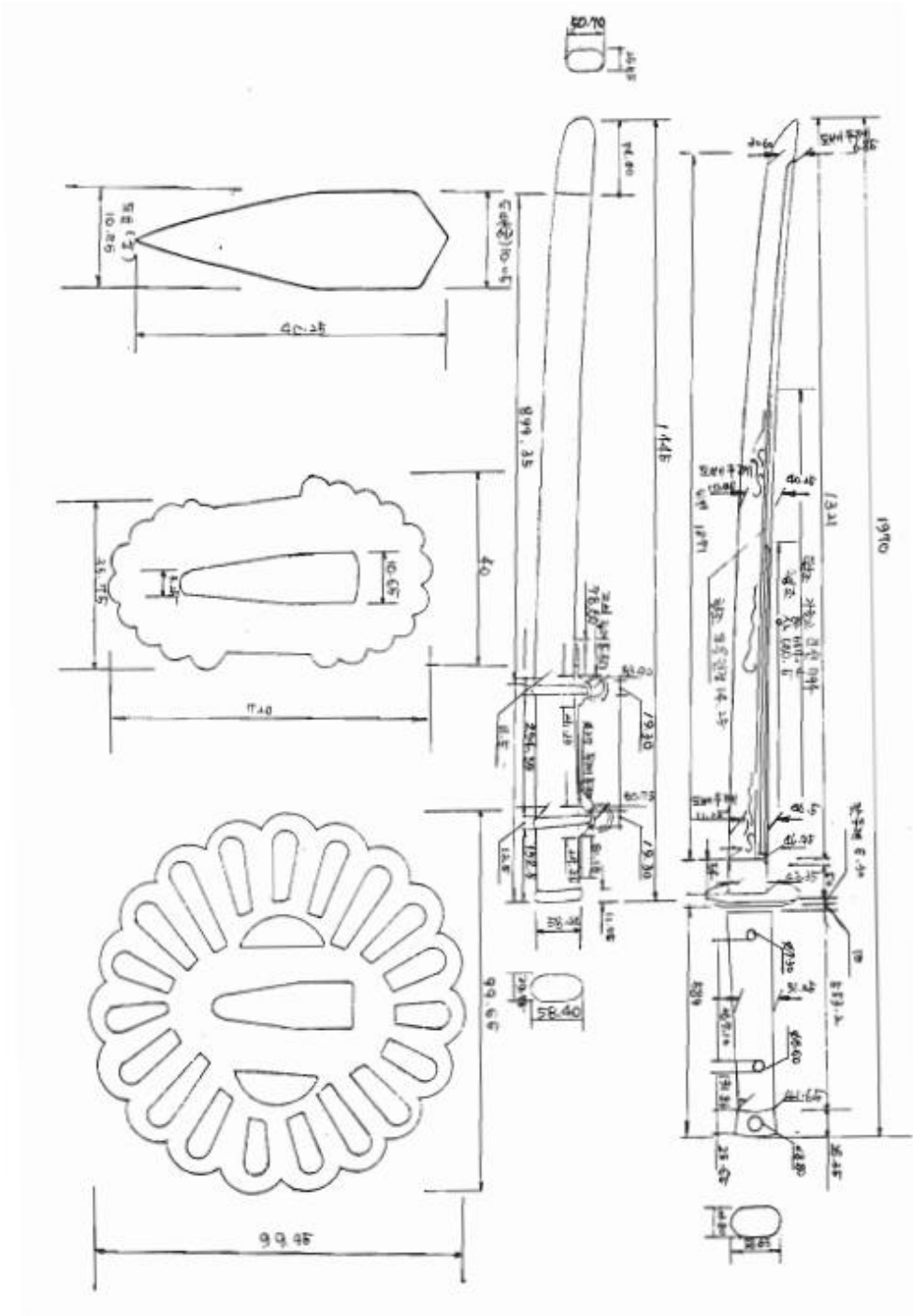
이순신장검을 제작한 시기에 대해 일제강점기인 1928년 조선사편수회에서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는 이순신 종손가에서 확인한 이순신 관련 유물에 관해 적은 보고서 형식의 글인 <이순신의 유보>를 통해 이순신이 소유했던 장검 2자루에 관하여 밝혔다. 이 글에서 “순신이 소지한 명도(銘刀)로서 역사적으로 진귀한 유물일 뿐 아니라, 조선 공예미술사상 더욱 주의할 유물”이라며 그 사료로서의 가치를 홍보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당시 이순신 장검을 해체하여 두 자루의 칼을 분해한 유리원판 사진이 현존하고 있는데, 이 사진에 의하면 이순신장검 두 칼자루 속 슴베에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甲午四月日造太貴蓮李戊生)”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갑오년 4월은 1594년 4월로 전란이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때이며 태귀련(太貴蓮)과 이무생(李戊生)이라는 자가 만들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순신장검의 슴베, 1928년 조선사편수회 유리원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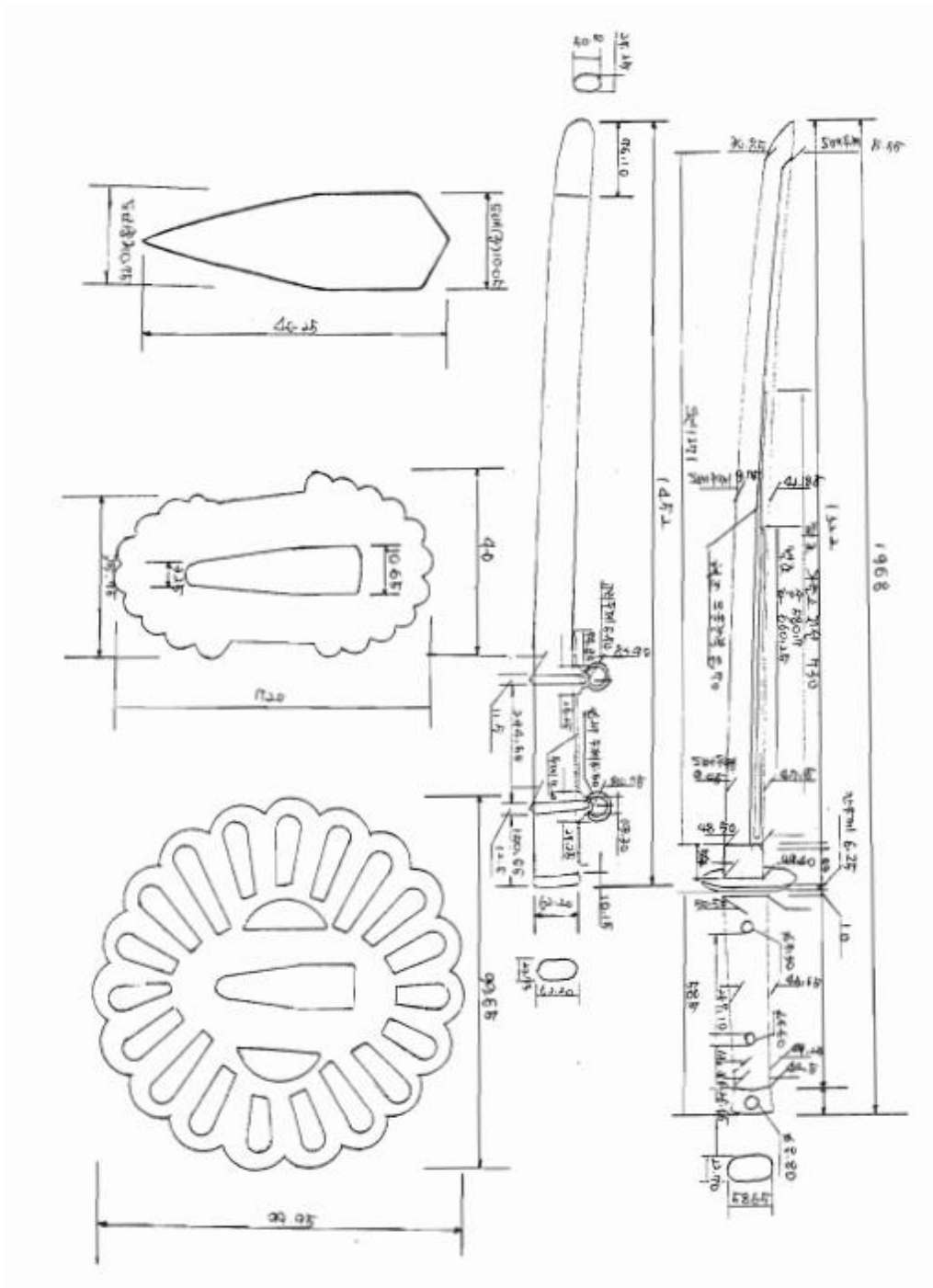
## 2. 장검의 형태와 크기

장검은 2개이며 각각의 칼몸에는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과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두 칼은 칼날[刀身]의 형태, 칼날[刀刃]의 부분, 칼날과 칼자루 사이의 코등이, 덧쇠(切羽), 호인(護刃), 칼자루, 칼집 등이 모두 동일하나 세부 크기가 약간 다른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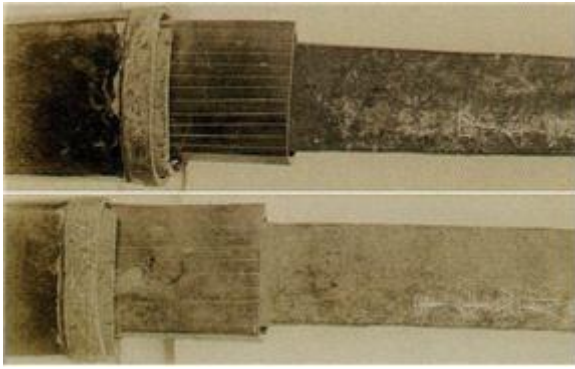
<이순신장검1의 세부 치수>216)

216) 김성혜·김영섭, 「도검의 기능성 연구-육군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학예지』 6, 육군박물관, 1999, p.72.



<이순신장검2의 세부 치수>217)

217) 김성혜·김영섭, 「도검의 기능성 연구-육군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학예지』 6, 육군박물관, 1999, p.73.



<이순신장검의 호인-위:장검1, 아래:장검2> <호인 부분의 훼손 부위 일차-위:장검2, 아래 장검1>

## 2-1)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 명문 검

칼날부분은 단면 6각형의 구조이고, 칼끝은 날카로운 뱀 머리 형상이다. 길이 66.5cm, 너비 9.1mm 되는 피홈(血槽) 1개가 칼날 좌우측(칼자루를 손에 잡고 칼등을 하늘 쪽에 두었을 때 기준) 칼등 가까이에 파여져 있다. 칼날 좌우측에는 물결문양 3개가 따로따로 날 부분 가까이에 음각되어 있다. 명문의 글씨는 가로×세로 규격은 1.1cm이고, 글자 전체 길이는 11.7cm이다.

칼날과 칼자루 사이의 코등이는 지름 9.5cm이고, 꽃잎수는 19개의 국화문양이고 투각되어 있다. 칼날 쪽에 위치하여 코등이를 고정시키는 타원형 덧쇠[切羽]는 꽃잎형이다. 칼날의 날부분과 코등이를 구분짓는 호인(護刃)은 황동으로 만들었으며, 호인은 너비 4.83cm이고, 21개의 줄이 일정 간격으로 음각되어 있다. 이 칼의 스페에는 코등이부터 약 18cm 위치에 1개의 구멍이 있고 여기에는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칼자루는 타원형 단면에 높이 5.5cm, 너비 2.76cm이다. 겉을 어피로 감싸서 주철을 하고, 그 위에 너비 1.9cm 되는 가죽끈을 12번 교차매기로 감았다. 칼자루 아랫마개는 코등이를 고정시키는데, 너비 1cm에 높이 5.5cm의 철제 타원형 고리이고 파련문을 은입사(銀入絲)하였다. 칼자루 윗마개는 길이 2.58cm, 아래폭 5.85cm, 위폭 4.27cm, 밑바닥 폭 3.28cm의 형태이다. 그 표면에는 당초문과 모란꽃 문양을, 바닥에는 격자문을 은입사하였다.

칼자루와 스페는 지름 4.4mm의 목정혈(木釘穴) 1개가 윗마개 끝부터 42.5cm 위치에 있다. 칼자루의 오른쪽 어피 위 목정혈에는 1개의 돈을새김 문양 동판(銅版)을 덧대고 동판에 구멍(목정혈)을 뚫어 목재핀을 스페에 관통시켰으며, 그 위에서 가죽끈을 감았다. 술을 매달 유소혈(流蘇穴) 1개는 칼자루 좌측 어피 위, 윗마개 끝단으로부터 16.5cm 위치에 있다. 여기에는 울룩불룩하게 처리한 동판을 덧대어 구멍을 보강했고 구멍 부위의 동판 일부가 탈락되어 있다.

칼자루의 형태는 가죽으로 교차매기를 하는 등 조선의 군용환도의 전형적 형태

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칼자루에 사용된 재질로 주칠한 어피나 울룩불룩한 돈을 새김문양 동판 및 자루끝의 은입사마구리 등은 이전 것을 재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자루 표면을 교차매기한 모습은 일제강점기에 습베를 확인하기 전 표면의 교차매기가 14번으로 촘촘한 것에 비해 현재는 12번으로 조금 성글어 후대에 가죽을 다시 매고 그 위 표면에 흑칠을 했다고 여겨진다. 또한 1968년 이순신장검을 분실하였다가 되찾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끝 부분이 약간 훼손되어 있던 것이 확인되어 당시 수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일제강점기에 이미 칼자루 하단이 훼손되었고 습베의 글씨를 확인하고자 교차매기한 가죽을 풀면서 딱딱하게 경화된 원래의 교차매기한 가죽 대신 새로운 가죽으로 복원하였고 이후 분실되었다가 다시 찾으려 수리하며 약간 변형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어피나 동판 및 은입사 부속재 등이 온전하기 때문에 원래의 원재료는 대체로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 2-2)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 명문 검

이 칼은 칼날 부분의 피홈(血漕)은 길이 64cm, 너비 9.1mm이다. 우측 칼날의 코등이 가까이에 있는 물결문양과 피홈 사이에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라는 8글자가 금동입사(金銅入絲)되어 있다. 글자 1개의 가로×세로 규격은 1.1cm이고, 글자 전체 길이는 12cm이다.

이 검 또한 호인은 황동 재질이고 너비는 4.55cm이다. 호인의 표면에는 24개의 줄이 일정하게 음각되어 있다.

칼자루의 단면은 타원형이고 높이 5.5cm, 너비 2.91cm이다. 목재 위는 주칠한 어피로 감싸고 너비 2.08cm의 가죽끈으로 11번 교차매기로 감았다.

칼자루 아랫마개는 타원형 고리로 폭 1.2~1.3cm, 높이 5.6cm이며 철제에 파련문을 은입사하였다. 칼자루 윗마개는 깔대기형이고 길이 2.7cm, 하부폭 5.55cm, 상부폭 4.53cm, 밑바닥 타원폭 3.36cm이다. 깔대기 중앙에는 1개의 구멍을 뚫어 칼자루에 목재핀으로 고정하였다. 칼자루의 좌측 어피 위 유소혈에는 울룩불룩한 돈을 새김문양 동판을 덧대고 동판에도 구멍을 뚫어 구멍(旒蘇穴)을 보강하였다.

이처럼 칼자루에 사용된 목재나 주칠 어피, 울룩불룩 동판, 위아래 마개 등은 원래의 것으로 보이나, 가죽으로 교차매기한 부분은 일제 강점기의 것보다 두껍고 숫자도 적어 습베의 음각 명문을 확인한 이후 수리복원된 것으로 여겨진다.

## 2-3) 이충무공전서의 참도와 비교

참도는 전장에서 군령을 집행하는 1쌍의 칼이다. 1795년 『이충무공전서』 「도설」에서 팔사품 중 참도를 설명하면서, 칼집은 나무로 만들며 쇠가죽으로 교차매기하고 주홍칠을 하며 은입사를 올린 쇠로써 장식하고 자루에는 매듭끈의 유소로 장식했

다고 한다(『李忠武公全書』 「圖說」, “斬刀二刃 ... 裹鮫皮朱漆 牛皮條纏 刀環 銅鏤 玲瓏菊花樣 鞘用木 裹牛皮朱漆 飾以鍍鐵 柄貫朱絲綬.”).

이것은 현재 이순신장검과 매우 유사한 것이 확인된다. 참도의 칼집 유물은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쇠가죽을 싸고 주칠한 위에 종이를 감싸고, 끝 부분에는 거명쇠에 모란무늬를 은입사하여 마감했다. 칼집 중간 부분에 85cm의 붉은 삼겹바로 매듭을 맺고 붉은 술을 매달았다. 칼자루 유물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상어피로 감싸고 검은 녹피를 X자로 교차하여 감았다. 칼자루는 나무로 만들고 쇠가죽으로 싸고 주칠을 하고 칼자루 끝 또한 거명쇠에 모란무늬를 은입사하여 마감했다. 칼고리[코등이] 부분은 구리로 잔잔한 국화무늬를 투각하여 새기고 있다.



<이충무공전서의 팔사품 중 참도와 귀도>



<팔사품 중 참도>



2m에 가까운 참도나 이순신장검은 일본도(日本刀)인 노타치(野太刀)와 친연성을 보이는데, 임진왜란 이전부터 중국은 일본도의 우수한 성능을 알아서 한 해에 수만 점의 일본도를 수입하였고 그것과 유사한 도검 20만 자루를 만들 정도였다. 왜구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명말 16세기 척계광(戚繼光)은 일본도를 개량하여 길게 만든 장검을 실전에 사용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임진왜란 당시 명군과 조선군은 길이가 길어 백병전에서 뛰어난 일본도를 노획에 열중하였으며, 조선 의병들 중 일부는 일본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때 개량된 칼은 외형상 일본도와 다름없으며 팔사품의 참도와 유사한 형태는 명대의 『무기도감』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16세기 한·중·일 삼국의 칼은 여러 모로 공통된다. 무엇보다 칼날이 긴 점이다. 다음 손잡이에 쇠가죽으로 교차매기를 하거나, 어피를 사용하거나, 국화문의 코등이나 칼날의 흰 각도 등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명대 칼은 일본도에서 흔히 보이는 칼끝과 칼날을 나누는 요코테(横手)의 흔적이 없고, 유소(流蘇)를 칼 손잡이에 매거나 띠돈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스펀과 칼 손잡이의 목제 부분을 연결하는 목정혈에서도 한중일 삼국 칼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목정혈은 3개이고, 철제못을 박아 고정시킨다. 반면 일본 칼의 목정혈에는 대나무 못을 끼운다. 조선 칼의 목정혈은 한두 개의 구멍에 동제 못이나 동제 파이프를 끼워 고정시키는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많은 의병장들과 휘하의 의병들은 포획한 왜군의 무기를 재활용했다. 이는 전장에서 사용할 무기를 자급자족해야했던 의병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칼에 대해서는 당시 이름을 떨친 의병장들과 일부 무관들의 무기가 그러한 예에 해당했다. 또 다른 경우는 조선의 전통적 도검외장 속에 일본도의 칼날 형태나 규격을 수용하여 만든 칼날을 장착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광재우 장도, 권응수 장검, 정기룡장검, 최진립장검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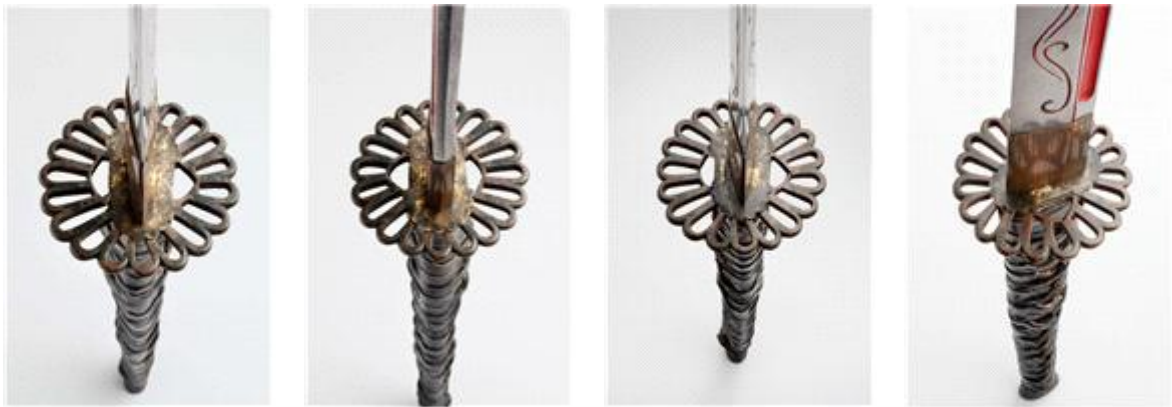
<표. 임진왜란 당시 주요 의병장들이 사용하던 도검과 비교>

도검명	사진	소장	지정
광재우 장도 (1552~1617) 93cm		충익사관리사무소	보물
권응수 장검 (1546~1698) 93cm		국립진주박물관	보물
정기룡 장검 (1562~1622) 107.7cm		경충사	경남 유형문화재
최진립 장검 (1568~1636) 84.8cm		최재량 소장	경북 유형문화재

### 3. 이순신장검에 대한 세부 분석

장검의 칼날은 각각 137.3cm, 137.8cm의 외날 검으로 칼등 쪽을 따라 폭이 넓고 좁은 두 개의 골이 길게 파여 있고 구름문양이 음각되어 있으며 그 혈조 안쪽에 붉은 칠이 되어 있다. 혈조 아래에는 음각의 명문이 새겨져 있고 금색 안료로 채워져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이고, 다른 하나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이다.

三尺誓天山河動色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물이 떨고  
 一揮掃蕩血染山河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장검의 칼날과 호인, 코등이>



<칼등의 중앙부와 단면>

이순신장검은 칼등의 중앙부를 살펴보면 칼날의 단면이 오각형이 아니라 분명한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다.

2개의 장검 칼몸 표면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그 안에는 이러한 금색 안료는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황동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인 입사 방법은 글씨를 파고 그 안에 금속사를 넣고 두드리는 것이나 이 입사는 입사된 표면이 거칠고, 기포가 있어 금속사를 이용한 입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모에 의해 글씨가 희미해진 곳에서도 입사가 관찰된다. 이와 같은 입사의 방법은 일반적인 입사 방법인 황동판, 황동선을 두드리려 넣는 것이 아닌 황동을 음각된 곳에 밀착시킨 후 열을 가해 표면에 밀착시키는 방법에 의한 입사로 보인다. 특히 도검류에 음각을

입사할 때 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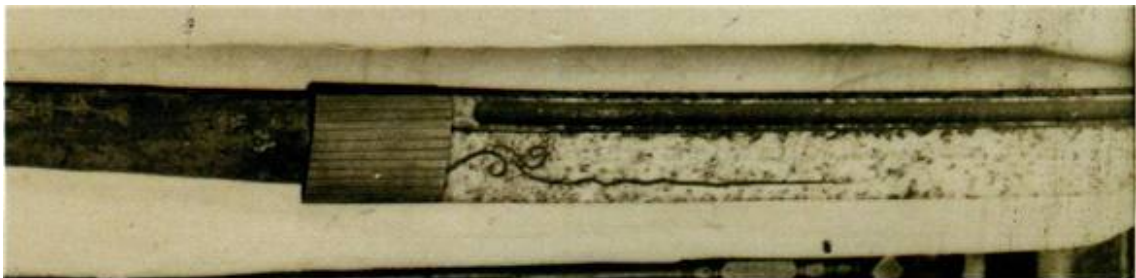


<칼몸의 글씨 '삼천'의 세부>



<글씨 '산하'의 세부>

한편 혈조의 붉은 색 안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1800년대 서양에서 인공적으로 합성된 황연이었다. 이 때문에 적색 안료를 근래 칠했다고 과학적인 성분 결과에 의해 결론을 내리고 현재는 제거된 상태이다. 그러나 과거부터 장검에는 혈조에 붉은색이 칠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코등이 등에 남아 있는 안료 성분에 의해 석간주나 주사 등으로 혈조에 적색을 칠해야 한다고 본다.



<이순신장검의 혈조, 1928년 조선사편수회 유리원판사진>



<장검의 혈조>



<혈조의 화학 안료>

1928년 조선사편수회의 유리원판에는 칼날이 거뭇거뭇하여 녹슨 모습이 보인다. 이후 1955년 마광사 정은조 도검사의 구술 증언에 의하면 칼날을 연마하고 마광 작업을 하고 칼자루를 보수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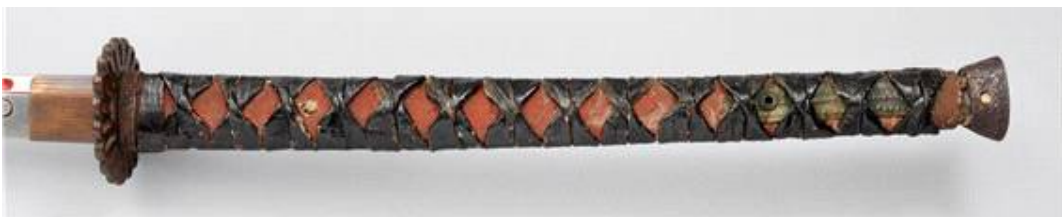


<이순신장검의 혈조 부분>

#### 4. 칼자루

칼자루는 나무에 일부 황동판을 대고 그 위를 붉은 색칠을 한 어피로 감싼 후 옷칠을 한 가죽끈을 X자 모양으로 교차하여 묶었다. 손잡이 끝에는 빗금무늬를, 옆면에는 모란을 은입사 하였다. 또한 칼자루 중간에는 칼날과 칼자루를 결합시키기 위한 슴베구멍이 있고 대나무 못이 끼워져 있다.

##### 4-1) 칼자루의 구성과 분석



<이순신장검1의 손잡이>

이순신장검1의 칼자루 구멍 중 자루 아래의 것은 슴베와 자루를 고정하기 위한 ‘일본식 목정혈’이고, 상부의 구멍은 ‘조선식 유소혈’이 존재하여 조선식과 일본식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순신장검의 칼자루는 X자 교차매기로 줄을 감았다. 이러한 끈매기 방식은 일

본 방식이긴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일반화되어 1813년에 발간된 용원필비(戎垣必備)에 수록되어 있는 환도의 도해에서도 발견된다.



<용원필비의 환도 도해, 1813년>



<군제환도, 경인미술관 소장>

이순신장검은 도신, 절우, 코등이 등은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여러 가지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습베를 나무에 끼우고 그 위에 금속을 덧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 점에서는 습베 부분 전체를 금속으로 감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피와 검은칠 가죽 사이의 금속은 황동이고, 코등이는 청동이었다. 칼날과 칼자루 사이에 끼우는 코등이는 순동에 미량의 불순물이 함유되었다.

칼자루 안쪽의 붉은색 안료는 현미경 관찰 결과 두가지 색으로 구분되었다. 이를 통해 과거에 있던 안료 위에 덧칠을 하였다고 여겨지며, 과학적인 성분 분석 결과 과거의 안료는 석간주( $Fe_2O_3$ , Hematite)이고 이후의 안료는 주사(HgS, Cinnaber)와 연단( $Pb_3O_4$ , Red lead)이 혼합된 안료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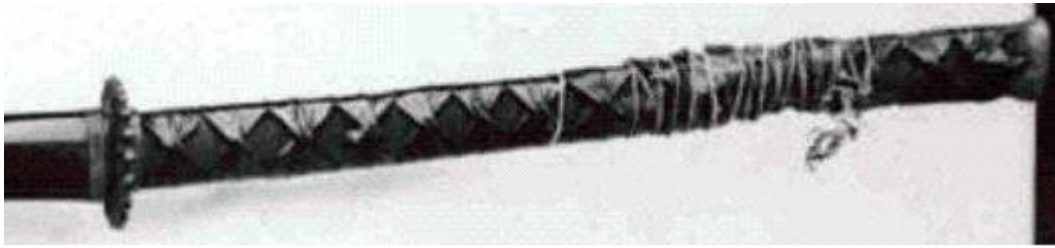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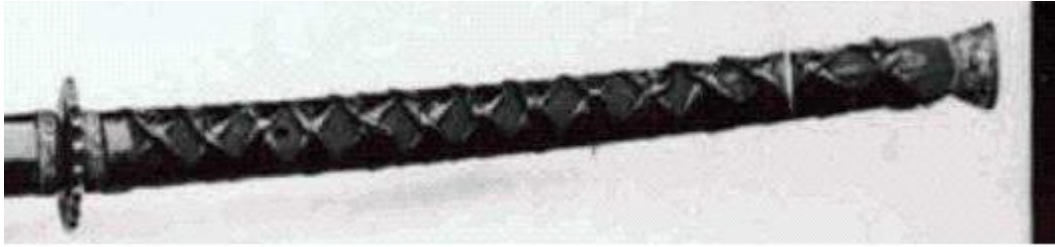
<장검 칼자루의 X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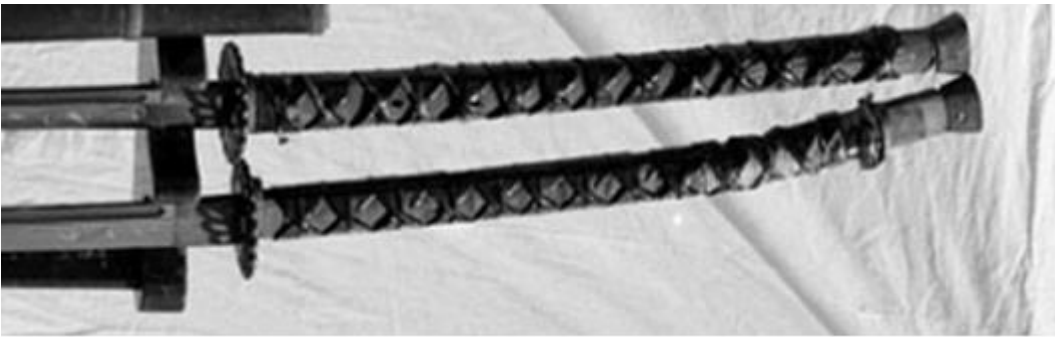
<칼날, 호인, 코등이, 절우, 교차매기>

칼자루의 경우 일체강점기에 이미 칼자루 하단이 훼손되었고 습베의 글씨를 확인하고자 교차매기한 가죽을 풀면서 딱딱하게 경화된 원래의 교차매기한 가죽 대신 새로운 가죽으로 복원하였고 이후 분실되었다가 다시 찾으면서 수리하며 약간 변형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피나 동판 및 은입사 부속재 등이 온전하기 때문에 원래의 원재료는 대체로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 4-2) 칼자루 교차매기의 변화과정



<이순신장검의 교차매기 부분; 1928년 조선편수관에서 촬영한 유리 원판 사진>



<이순신장검의 교차매기 부분; 1969년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흑백사진>



<이순신장검의 교차매기 부분; 현재 모습>



<이순신장검1의 교차매듭, 2023년 현재>



<이순신장검1의 X-ray 사진, 2011년 과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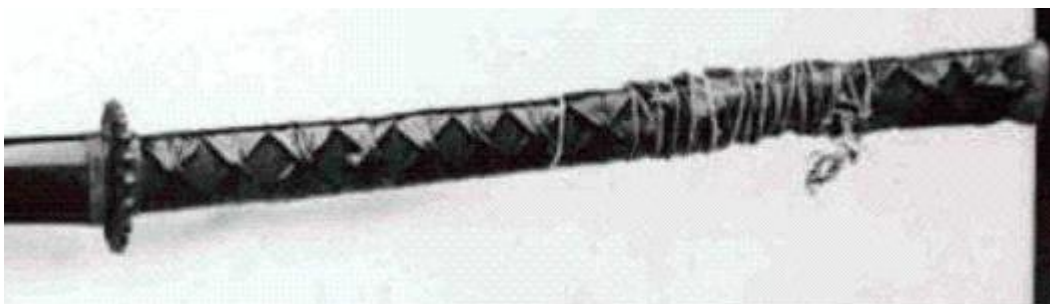
1928년 유리원판에 의하면 이순신장검1의 칼자루에는 한번 一자로 띠를 돌린 후 깔대기형 뒷마개까지 총 14번의 X자 교차매기가 되어 있다. 3번과 4번 X자 사이에 목정혈이 보이고, 12번째 X와 13번째 X 사이를 밝은색의 가는 철사나 실로

묵은 흔적이 확인된다.

1969년 국가기록원 소장 흑백사진을 보면 이순신장검1의 칼자루에 14번의 X자형 교차매기가 되어 있고 3번과 4번 사이의 목정혈이 보이거나 14번의 X자 매기를 한 후 철제 은입사 칼자루 마감장식과의 간격이 차이를 보인다.

2022년과 2023년 유물 현지 실측조사 당시 조사한 이순신장검1의 X자 매듭이 언제 다시 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011년 이순신장검에 대한 과학적 조사에서 X-ray로 투사하여 조사한 결과 장검의 칼자루의 스펀부터 내부의 목재나 목정혈 및 철제은입사 마감장식 등에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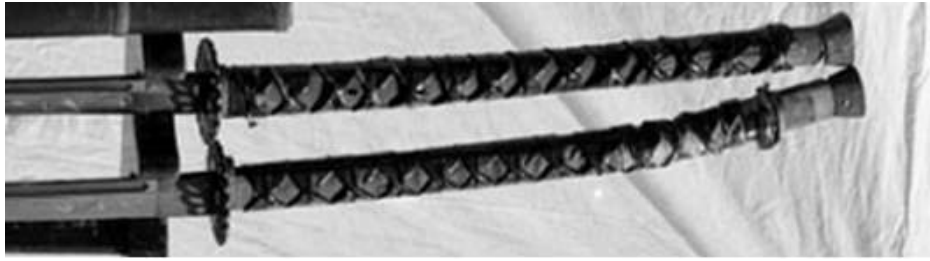
한편 이순신장검2의 경우 1928년 유리원판을 보면 처음의 X자 매기 없이 곧바로 일정한 두께로 14번 X자로 교차매기를 하고 있다. 코등이부터 7번째까지 X자가 보이고, 8번째부터 가죽으로 칭칭 동여맸는데, 10번째 부분에서 나무가 부러졌는지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으면서 11번 부분부터 뒤쪽에는 받침대를 대고 노끈으로 여러 번 동여매어 형태를 만들었고 유소혈을 지나 12번부터 다시 13번과 14번의 X자는 잘 드러난다. 더욱이 14번의 매듭은 철제은제 마감 장식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가죽끈을 넣어 엮은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12번부터 14번까지의 X자 매기장식을 한 가죽 아래로는 대나무 쥘대를 넣어 고정시키고 그 끝이 은제 마감장식까지 튀어나와 있다.



<이순신장검2. 칼자루의 X자 교차 장식, 1928년 조선사편수회 유리원판사진>



<이순신장검2. 10번부터 14번까지의 X자 매기장식 모습, 1928년 조선사편수회 유리원판사진>



<이순신장검2. 1969년 국가기록원 소장 흑백사진>



<이순신장검2. 칼자루 교차매기, 칼자루 윗마개 장식(은입사)>



<이순신장검2의 X-ray 사진, 2011년 과학조사>

1969년 흑백 사진을 보면 이순신장검2의 칼자루가 비정상적으로 굴곡져있다. 10번째 X부터 살짝 휘어 13번 X자로 교차 매듭하고 14번째의 것은 13번과 엉켜 마감되어 있고 철제 마개장식까지 가지 않고 앞쪽에서 마감되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이순신장검2의 X자 매기장식을 하기 위해 가죽을 새 것으로 교체하여 매듭을 한 다음 옷칠을 새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옷칠의 경우 아래쪽 주칠 어피 위에 검은 칠이 오염되어 묻은 것에서 확인된다.

2022년과 2023년 유물 현지 실측조사 당시 조사한 이순신장검2의 X자 매듭이 언제 다시 맨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2011년 이순신장검에 대한 과학적 조사에서 X-ray로 투사하여 조사한 결과 장검2는 장검1과 차이를 보였다. 그것은 장검2는 칼자루의 스페부터 자루를 이루는 목재나 목정혈 등에 일정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지지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장검1은 칼자루의 스페부터 목제 및 철제 은장식 마개, 주칠 어피, 울퉁불퉁한 돈을새김 동판까지 원형을 유지하되 표면의 가죽만 교체하고 흑칠을 했다고 보인다. 장검2 또한 칼자루의 스페부터 목제 및 철제 은장식 마개, 주칠 어피, 울퉁불퉁한 돈을새김 동판까지 원형을 유지하되 목제가 취약하여 내부에 못을 박아 형태를 고정한 다음 표면 가죽만 교체하고 흑칠한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이순신장검의 칼자루는 스페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목재나 목정혈, 주칠 어피, 울퉁불퉁한 돈을새김 동판, 철제은입사 마개장식 등까지 모두 제작 당시인 1594년의 원형을 거의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표면의 가죽은 시간이 오래되어 딱딱하게 경화되고 끊어져 1969년 이후 어느 때인가 다시 교체한 것을 알 수 있다.



### 4-3) 칼자루의 철제 은입사 문양과 기법

이순신장검 두 자루에는 코등이 좌우의 좁은 폭 절우에는 삼각형으로 상하로 은실로 당초문대를 반복하여 시문하고 있다. 칼자루와 칼집이 맞물리는 상하 절우에 새겨진 입사문은 삼각 당초문으로서, 시기적으로는 이암(李巖, 1507~1566)이 그린 <가응도(架鷹圖)>에서 확인된다. 매가 앉아 있는 받침대를 은입사로 장식하였는데, 삼각 당초문의 전형적인 모습을 16세기 중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당초문은 좀더 회화적이고 곡선의 부드러운 처리로 되어 있는 반면 1594년 이순신장검의 절우에 새겨진 당초문은 도안적이고 직선적인 처리여서 약간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이순신장검의 칼날과 칼집 사이의 철제은입사 절우와 코등이>



<이순신장검1과 2의 손잡이 끝 철제 은입사>



<한말 철제 자물통의 은입사 문양>



<이암(李巖, 1507~1566), <架鷹圖> 받침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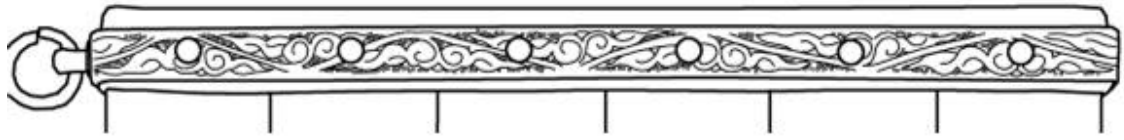
<명성왕후 상존호옥책, 1676>



<인원왕후가상존호옥책, 1751>



<문조추상존호옥책, 1866>



<효종상시호옥책의 변철, 1659>



<영조옥책의 변철, 1756>

1594년 이순신장검의 절우에 보이는 삼각형 당초문양은 이후 조선 왕실 옥책의 상하 변철에 장식되는 문양으로 그 영향을 끼쳤다. 16세기 말 철제 은입사로 제작된 삼각당초문대는 17세기 말 왕실의 옥책 변철에서는 음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선과 유려한 곡선으로 처리되면서 시대의 변천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순신장검에 사용된 철제 은입사 장식은 조선의 대표적인 공예기법이다. 이중 은선을 가늘게 잘라 문양 부분에 끼워넣는 은입사기법이 무기류에 많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선적으로 표현되는 문양은 선을 반복하여 삼각형을 이루거나 당초문양처럼 폭이 좁은 문양대에 가장자리를 장식하기도 한다. 중심 문양이 되는 연꽃의 파련문은 그 주변을 메꾸거나 기물의 빈 부분을 장식한다.

## 5. 칼집

칼집은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붉은 빛의 어피를 씌운 후 주합칠을 하여 검은 듯 보이는 바탕으로 어피가 잘 드러나고, 가죽끈목을 달았다. 칼집에는 여러 부분에 철제를 사용하여 목제를 보강하였는데, 칼집입구장식, 다회를 걸 다회고리, 그 위를 지지하는 패용장식, 칼집의 끝 부분에 해당되는 칼끝마개장식이 그것이다.

### 5-1) 칼집의 구성

칼집은 목제를 만들되 어피로 싸고 주합칠을 한 다음, 철제로 칼집입구장식, 패용장식, 좌우 다회고리, 칼끝마개장식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철제장식은 좁은 부분조차 파련문이나 거치문, 당초문등을 포목상감기법으로 은입사하여 조선식 장검의 특징을 잘 엿볼 수 있다.



<이순신장검의 칼집>



<이순신장검의 칼집과 가죽 손잡이 고리>



<장검의 칼집끝 장식, 철제 은입사>



<어피의 세부>



<은입사 세부>

## 5-2) 칼집 철제장식의 은입사 문양

칼집에는 여러 곳에 철제 장식을 배치하고 있다. 먼저 칼집입구를 거치문으로 장식하였다. 다음 가죽끈목을 매달기 위해 칼집의 좌우에 다회고리를 각각 철제로 걸어 고정시켰는데, 좁은 폭에도 삼각형의 거치문을 은입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칼집의 끝마개장식 또한 골무처럼 철제로 마감하여 칼집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식미를 부가하였는데, 여기에는 특히 조선 후기에 단청이나 공예품의 문양으로 널리 유행하는 파련문이 은입사로 장식되어 있다.



<칼집 끈목 고정장식의 은입사 부분>



<칼집 입구 부분의 당초문 은입사>



<이암(李巖, 1507~1566), <架鷹圖> 받침부분>

특히 골무형으로 마감한 칼끝마개장식의 파련문의 문양은 중국의 도검이나 일본의 도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순신장검만이 갖고 있는 가장 조선적인 특징을 두드러지게 느끼게 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이순신장검의 마개장식에 보이는 16세기 말의 파련문 문양은 조선 전기 연꽃 문양에서 볼 수 있는 선적으로 자유롭고 분방하게 시문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자유로운 곡선적인 연꽃의 문양처리는 18세기 이후 왕실 의례 때 보록 등에 사용된 자물쇠보다는 시기가 올라가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17세기 은입사된 연꽃문양은 1653년 <동화사명 청동은입사 향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앞 시기인 1594년 이순신장검의 연꽃 무늬와 마찬가지로 선적이면서 자유로운 구성 형식을 지니고 있다. 결국 16세기 말 연꽃의 은입사 표현이 17세기 말까지도 여전히 계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순신장검 1,2의 칼끝마개장식의 앞뒤 은입사, 1594년>

반면 시기가 내려가는 18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왕실의 보록이나 인록과 같은 왕실공예품의 자물쇠에 시문된 은입사 문양은 이전시기와 다른 양식적인 특징을 보인다. 곧 전통적인 연화당초문이 자물쇠라는 한정된 공간에 시문되면서 그 문양의 특징을 간결하게 도안적으로 정리하여 패턴화된 모양으로 철제 자물쇠에 은입사한 것이다. 특히 당초 줄기 사이에 시문되어 있는 파련문은 이 시기 단청 문양과도 매우 친연성을 보이는 가장 조선적인 문양이라 할 수 있다. 왕실공예품에서는 파련문을 중심 문양으로 시문하고 당초문양이 연결되어 무늬 구성면에서 균형과 통일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동화사명 청동은입사향완, 1653년>



<진중세자인록 자물쇠, 1725년>



<효순후가례인록 자물쇠, 1727년>



<상시호보록 자물쇠, 1783년>



<추상시호보록 자물쇠, 1804년>

한편 19세기에 들어서면 철제에 은입사를 하는 경향은 왕실에서 뿐 아니라 군사용의 무기류, 더 나아가 양반이나 부유한 상공층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군사용 도구 장식이나 첩퇴 등에 새겨진 파련문은 18세기 이후 장식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첩퇴(鐵槌)는 간략화된 연화문이 전체적으로 입사되어 있으며, 기형 또한 첩퇴의 머리 부분이 커지면서 점차 첩퇴는 실전용에서 의장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제은입사 투구장식, 18~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철퇴, 국립중앙박물관>



<철제은입사투구, 19세기, 높이 31.0cm, 육군박물관>

이로 미루어 1594년 이순신장검의 파련문은 철제에 은입사한 가장 이른 시기의 문양이고, 철제에 은입사한 이른 사례라 여겨져 공예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 문헌자료

『이충무공전서』.

### ○ 참고문헌

- 육군박물관, 『조선시대의 도검』, 2004.
- 육군박물관, 『朝鮮의 刀劍 忠을 베틀다』, 2013.
- 현충사관리소,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2011.
- 현충사관리소,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충무공 장검 제작 7주갑 기념 특별전 도록』, 2014.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 옥책』, 2017.
- 「되찾은 난중일기」, 『대한뉴스』 658, 1968. 1. 19.
- 강성문, 「조선시대의 환도의 기능과 제조」,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봉명, 2000.
- 광낙현, 「조선시대 도검에 관한 연구」, 용인대 석사학위논문, 1998.
-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순신 장검 혈조 내 안료의 규명 및 제거」, 『보존과학학회지』 31-4, 2015.
- 김성혜·김영섭, 「도검의 기능성 연구-육군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학예지』 6, 육군박물관, 1999.
- 김세린, 「조선시대 금속공예 入絲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8.
- 김준배, 「문화통치기 조선사편수회 소속 일본인 연구자의 이순신 서술 :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의 「충무공 이순신의 유보(忠武公李舜臣の遺寶)」(1928)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8, 2020.
- 이석재, 「조선시대 도검에 나타난 문양과 매듭장식에 관한 연구」, 『학예집』 11, 육군사관학교, 2004.
- 이석재, 「조선시대 도검의 유형분석-칼몸의 스페와 자루의 결합구조」, 『학예집』 11, 육군사관학교, 2004.
- 이석재, 「이충무공 장검 분석-성웅의 칼, 그 속설과 실제」,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현충사관리소, 2014.
- 이석재, 「형태와 용도로 본 이충무공 장검의 정체성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선진, 「조선후기 철제입사공예품 연구」, 『동악미술사학』 17, 2015.
- 장경희, 「보물 제440호 통영 충렬사 팔사품(八賜品) 연구」, 『역사민속학』 46,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 정다슬, 「조선 후기 옥책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20.
- 조혁상, 「忠武公 李舜臣의 劔에 대한 小考」, 『이순신연구논총』 10, 2008.
- 최응천, 『한눈에 보는 입사』, 미진사, 2016.

## ○ 기 타

1594년 4월 제작되어 덕수 이씨 종가에 전해내려 오다가 1968년 후반기에 이충무공 장검1의 부러진 칼자루를 수리하였고 1969년 벗겨지고 흐려진 칼날의 혈조 안에 붉은색 전통 도료 대신 현대식 안료로 도색하였다. 1969년 4월 덕수 이씨 14대 종손으로 대여한 후, 덕수 이씨 제15대 종부 최순선이 2009년 2월 현충사에 기탁하였다. 2011년 1~4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긴급 보존처리를 하여 2011년 4월

현충사관리소로 이관되었다. 2015년 1~6월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를 하고 혈조 및 파상문 내의 도료를 제거하고 표면을 코팅처리하였다.

## II. 옥로

### ○ 내용 및 특징

이순신의 유품 중 옥로는 높은 벼슬아치나 외국에 가는 사신의 갓 머리에 다는 장신구로 둥근 금동 받침 위에 연꽃잎에 싸여 있는 3마리의 해오라기를 옥에 투각하였다. 또한 옥로 외에 옥로를 싼 보자기와 나무상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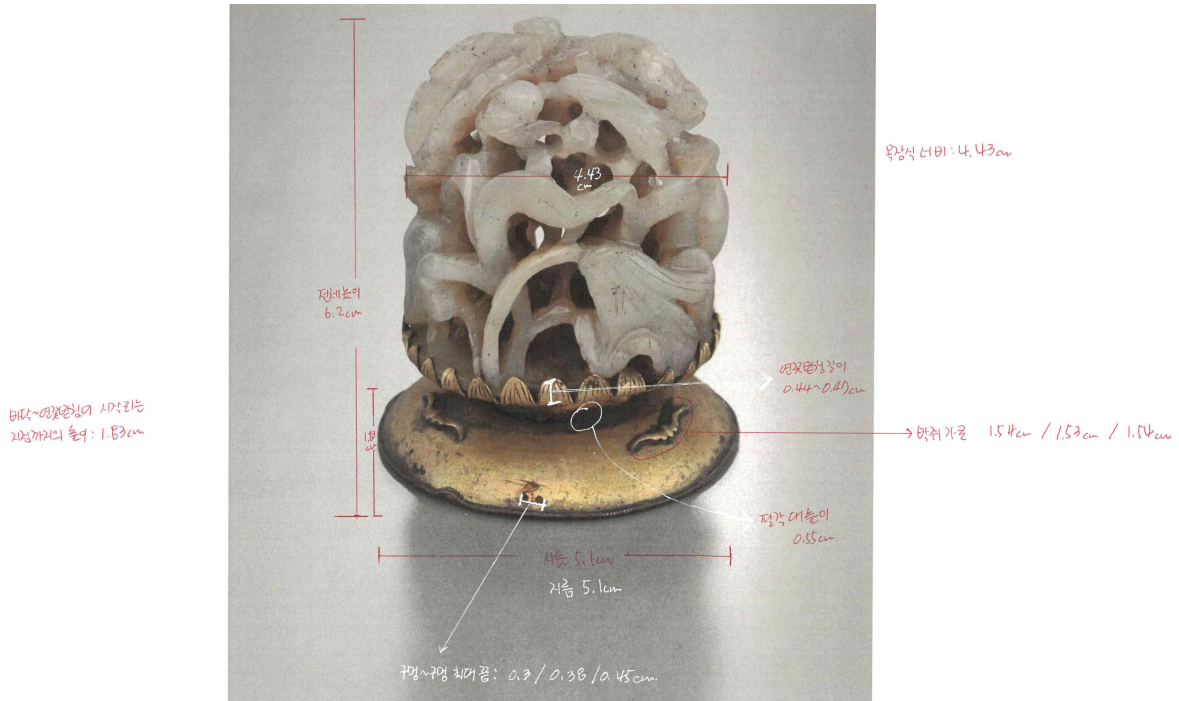


<옥로>



<옥로, 옥로지, 옥로함>





<옥로의 실측 치수>

옥로의 전체 높이는 6.2cm, 지름은 5.1cm, 연잎 아래에 해오라기 3마리가 서있는 옥 장식 부분의 너비는 4.43cm이다. 해오라기를 새긴 옥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이 불가능한데, 색이 맑고 깨끗한 고급 백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옥로의 받침에 사용된 금속의 경우 구리이고, 그 위에 금도금을 한 것이 확인된다.

옥로의 받침은 작지만 구조적이어서 불상의 수미좌단처럼 상중하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은 연꽃을 떠받치는 양연의 연꽃 받침은 0.44~0.40cm이다. 뾰족한 연잎 13개를 둘러고 각각의 연잎에는 4~5줄의 음각선으로 잎맥을 표시하고 있다.

수미좌의 중단에 해당되는 팔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름이 작고 폭이 좁아 높이 0.55cm이다. 하단은 약간 볼록한 원판형이며 세 곳에 날개를 활짝 핀 박쥐문 3개를 배치하였는데 그 크기는 각각 1.50cm, 1.53cm, 1.54cm이다. 이 양각으로 새겨져 납땀으로 붙여놓았다. 박쥐문과 박쥐문 사이에는 각각 2개씩의 구멍이 세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구멍과 구멍 사이의 거리는 0.3cm, 0.38cm, 0.45cm이다. 이와 같은 박쥐문은 정조대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박쥐문을 단순하게 형상화한 것과 친연성이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옥로의 상한 연대는 18세기 말 정조대이며 19세기에 유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옥로>



<옥로와 옥로지집, 옥로함, 1928년 사진>

옥로는 거의 대부분 완형으로 투각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가 파손되어 결실되었으며 조각 사이 사이에는 먼지와 오염물이 고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금동 받침에는 갓머리에 달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이 2개씩 세 곳에 뚫려 있으며 마찬가지로 먼지 등이 쌓여 있다.

옥로지집은 보자기 형으로 걸감은 쪽빛이고 안감은 밝은 핑크색이며 솜을 넣고 짙은 남색실로 일정 간격으로 누볐다. 이것은 네 모서리를 한데 모으고 꼭대기를 연봉매듭으로 만들고 잠글 수 있게 만들었다. 전체적인 형태나 색채 및 바느질의 상태 등으로 미루어볼 때 19세기 이후의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옥로 하단의 연꽃 받침>



<연봉매듭 부분>



<옥로지집의 하단 누비>

옥로의 보관은 누비천으로 만든 옥로지집으로 썬 다음 작은 방형의 나무함에 넣는 구조이다. 나무로 만든 옥로함은 상하로 구분되어 정면 외부에는 옷칠을 한 다음 사각형에 외곽을 궁글린 황동 장식 바탕에 낙목과 자물쇠가 달려 있다. 옥로함

의 경첩은 Cu : Zn = 78 : 22의 황동으로 분석되었고 금도금으로 되어 있다. 옥로 상자의 CT 조사를 통해 상자의 나무 방향, 나무의 결합방법, 경첩 결합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자의 바닥과 내부는 칠이 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의 뚜껑 부분에만 붉은 칠을 하였다. 옥로집과 옥로함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의 사진부터 확인되어 오늘날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



<옥로함의 앞바탕과 낙목, 자물쇠>



<옥로함 안쪽 종이 위 주칠>

### ○ 참고문헌

- 박형박, 「朝鮮時代 筮(黑筮)의 造形性에 關한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윤빛나·홍나영, 「조선시대 호수 입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 34, 2015.
- 윤빛나, 「조선시대 입식(筮飾)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4.

### Ⅲ. 요대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장수들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 중 일부를 이순신이 일기에 메모해 두었는데, 지금까지 종가에 전해 내려오는 이순신의 유품 중 관복의 허리띠(요대)와 복숭아모양 술잔(도배구대)이 그것이다.

#### 1. 요대

##### ○ 내용 및 특징



<요대 정면, 삼태와 남두육성 부분, 허리 부분의 덧댐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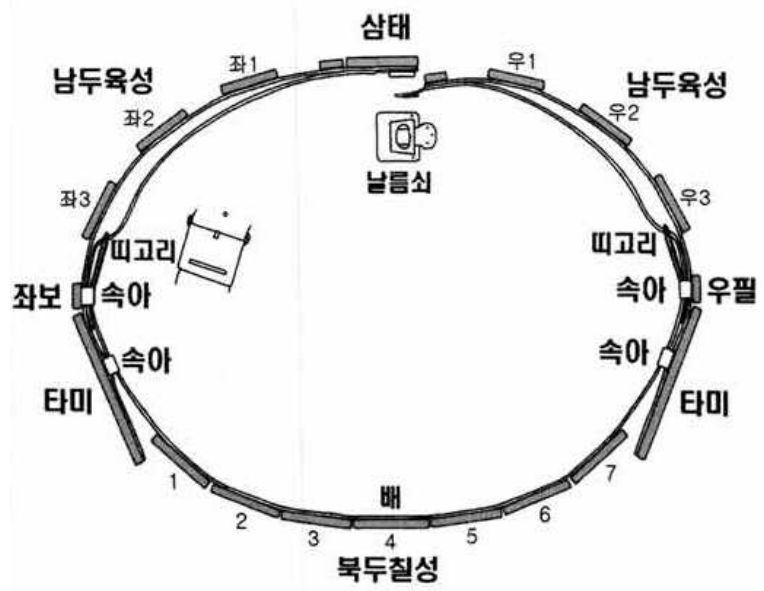


<요대 후면, 띠돈의 북두칠성 부분>

이순신장군이 무술년(1598)에 친필로 적은 초고에는 명나라 장수들의 준 선물 목록이 있는데(戊戌日記) 이 가운데 유격(遊擊) 왕원주(王元周)가 선물한 금대(金帶) 하나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허리띠는 국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중

국 명나라 장수에게 선물로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여 금대를 선물로 준 왕원주의 호는 경남(敬南)으로 소주부(蘇州府) 태창위(太倉衛) 사람이다(李忠武公全書 24, 附錄6, 紀實[下]). 그는 높은 계급의 장수는 아니었고 표하유격(票下游擊)으로서 수병 2천을 이끌고 무술년(1598)에 조선에 와서(亂中雜錄 3, 선조 31년 3월 3일) 고금도(古今島)에 머물다가 기해년(1599) 3월에 돌아갔다(象村集, 象村先生集 제57권; 大東野乘 再造藩邦志 5).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관리들은 관복 위에 허리띠(腰帶)를 착용하는데, 띠 바탕에 부착된 띠돈의 재료로 품계의 높낮이가 구분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허리띠는 부르는 명칭이 다양한데, 관복에 두른다고 관대(官帶), 관리의 품계에 따라 구분할 때는 품대(品帶),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부른다. 품대(品帶)는 1485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에 의하면 1품은 서대(犀帶), 정2품은 삼금대(鎡金帶), 종2품은 소금대(素金帶), 종3품은 삼은대(鎡銀帶), 종3~4품은 소은대(素銀帶), 5품 이하는 흑각대(黑角帶, 烏角帶)로 정해져 있었다. 즉 띠돈의 재료로 물소뿔을 비롯하여 금, 은, 흑각[쇠뿔]의 4종과 띠돈에 조각을 하는 유무[鎡, 素]에 따라 총 6종으로 구분된다.



<품대의 세부명칭>

### 1) 요대의 실측 치수

왕원주가 선물한 이순신장군의 요대는 가죽을 얇고 일정하게 펴서 안쪽으로 반씩 접어 옷칠을 바른 피태칠기 기법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선을 굿고, 띠돈을 붙인 형태이다. 띠돈은 총 20개로 여닫을 수 있는 삼태와 날름쇠가 앞쪽에 있고, 그 좌우로 심엽형 띠돈 6개로 남두육성을, 그 뒤로 띠고리를 각각 좌보 1개와 우필 1개 및 타미 2개를 붙여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만들고, 뒤쪽에 7개의 장방형 띠돈으로 북두칠성을 만들고 안쪽에 허리를 받칠 배(背)로 구성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품대와 구조적으로 일치하는데, 당시 명나라의 품대 형식도 같은 구조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요대, 세부 치수>

이순신유물 중 허리띠의 전체 높이는 5.5cm, 지름은 42.0~43.0cm, 허리띠의 둘레 130cm 정도이다. 허리띠의 가죽은 피태칠기(皮胎漆器) 기법으로 표면을 매끈하게 흑칠을 하였고, 5.5cm 높이의 가죽은 상중하의 세 군데를 빙 둘러 금선으로 띠를 칠하였다. 위쪽에는 1줄, 가운데에는 3줄, 아래쪽에는 1줄을 칠한 것이 확인된다. 타미는 가로폭(테두리 포함) 9.5~11.0cm, 세로폭(테두리 포함) 5.5cm이다. 타미의 좌우에는 6엽 매화문 2엽이 상하로 배치되어 있다. 좌보는 테두리 바깥 3.3cm, 안쪽 2.7cm이다. 남두육성은 테두리 포함 6.2cm, 삼태는 7.0cm이다.

요대의 상하 높이는 5.5cm이고 지름은 42.0~43.0cm 정도여서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요대와 비슷한 크기이다. 앞쪽 삼태의 띠돈은 중앙은 정방형으로 가로 7.0cm, 좌우 옆은 1.7cm이다. 삼태 옆 좌우에는 심엽형 띠돈이 각각 3개씩 총 6개를 붙여 일명 남두육성(南斗六星)이라고 불리는데, 테두리 포함 6.2cm이다. 타미 2개의 경우 가장 긴 길이의 가로폭은 11.0cm이고 직선부분의 가로폭은 9.5cm이다. 타미의 좌우에는 금제 6엽 매화문이 상하로 각각 배치되며 각각의 지름은 2.0cm이다. 타미와 6엽 매화문 옆으로는 좌보와 우필이 배치되는데, 상하로 좁고 긴 장방형이다. 각각의 안쪽 너비는 1.7cm이고 금속제 테두리를 포함한 바깥면은 3.3cm이다. 속아는 총 4개로 좌우의 타미에 각각 1개씩, 좌보와 우필에 각각 1개씩 황동제로 만들어 걸려 있다. 이 속아를 통해 허리띠의 폭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2) 허리띠의 재료와 기능적 구조

허리띠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가죽 위에 부착된 띠돈의 재료는 나무로 되어 있고

그것을 금속제로 감싸는 구조이다.



<삼태의 좌우 날름쇠, 세줄 금선>



<삼태 안쪽의 날름쇠 부분>

요대에 보이는 가죽은 표면은 멀리서 보면 흑칠로 되어 있어 매끈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울룩불룩한 표면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허리띠는 쇠가죽이나 염소가죽 및 사슴가죽 등을 비롯한 길짐승의 가죽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래 이러한 가죽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표면의 질감이나 느낌은 염소가죽이 좀더 경화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흔히 상어가죽으로 알려진 가오리가죽에 가까운 편이다.

이 요대는 실제 허리띠로서 사용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삼태에 위치한 황동제 날름쇠를 통해 잠갔다 열 수 있게 되어 있고, 좌우 타미와 좌보 및 우필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속아를 통해 착용자의 허리둘레에 맞춰 넓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7개의 띠돈이 배치된 북두칠성의 위치에 종이를 여러 겹 싸고 쪽빛으로 염색한 비단을 두르는 줌치 기법에 의해 배(背)를 둘러놓은 것이 확인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순신장군 요대는 비록 1598년 중국 장수가 선물로 준 것이어서 원래는 중국제이지만, 이후 충무공의 유물과 함께 전세되면서 조선 후기에 착용을 위해 조선식의 착용방식이 덧붙여져 한중 허리띠의 절충 형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희귀성이 엿보인다.

### 3) 띠돈의 형식과 제작 기법

요대에는 서각을 금속테두리로 짠 띠돈이 총 20개가 부착되어 있다. 배 앞에 위치하는 삼태 3개, 심엽형 남두육성 6개, 장방형 북두칠성 7개, 좌우 허리에 위치하여 허리의 크기에 따라 조절하는 좌보 1개, 우필 1개 및 타미 2개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금속 기법 중 알물림처럼 사자 조각이 새겨진 서각을 금속 테두리로

감싸고 있다.

20개 띠돈의 형태는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삼태와 타미 및 북두칠성은 가로로 긴 장방형이고, 남두육성은 심엽형이며, 좌보와 우필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다. 띠돈의 형태마다 조각이 달라 삼태와 타미 및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에는 구름 위에 노니는 사자를 섬세하게 조각하였으며, 좌보와 우필에는 영지버섯형 구름이 새겨져 있다.



<삼태의 좌우 날름쇠, 세줄 금선>



<삼태 안쪽의 날름쇠 부분>

띠돈의 경우 요대 띠돈의 금속태 및 띠돈 금도금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금속태의 금도금은 쉽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띠돈에 도금한 것도 확인되어, 칠 위에 금박 도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요대의 장식은 원래 금속태의 꺾쇠로 고정하거나 요대 가죽에 구멍을 뚫어 실로 묶었으나 꺾쇠와 실이 끊어져 분리된 상태이다. 접합은 제거가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고농도의 어교를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원래 있던 구멍에 실로 묶어주었다. 또한 요대 뒷부분 안쪽에 종이를 천으로 감싸 덧댄 부분은 전분풀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심엽형 띠돈 6개의 남두육성에 새겨진 사자들의 다양한 모습>

띠돈 위에 새겨진 구름 위 사자의 조각은 형태의 세부 묘사나 조각적 표현이 매우 섬세하고 깊이감이나 운동감 등도 우수하다. 요대를 여닫는 버클의 역할을 하는 삼태의 좌우에는 심엽형 띠돈 6개가 배치되어 남두육성이라 불린다. 여기에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린 사자들이 이글거리는 구름 위에서 앞으로서 나아가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사자는 근육이 탄탄하고 얼굴 표정까지



세밀하게 부조되어 있고 구름문은 높낮이를 달리하여 투각하는 등 조각적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남두육성의 칠 또한 흑칠 위에 붉은 주칠을 하고 갈기 등에 금색을 올린 것이 확인된다.



<타미에 새겨진 사자 세마리>



<사자문 타미, 육엽매화문, 영지운문 좌보>

특히 타미는 크기는 다른 띠돈보다 커 문양을 새길 면적이 넓기 때문인지 사자 세 마리가 구름 속에서 노니는 모습을 새겼다. 큰 사자 1마리의 좌우에 각각 작은 사자 1마리가 함께 가운데 사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즐겁게 노는 모습이다. 이러한 사자의 몸은 붉은 색이 바탕에 바른 후 그 위에 눈이나 갈기에 입체감을 띄며 금색을 칠한 것을 알 수 있다. 상하로 가늘고 긴 좌보와 우필에는 영지운문이 새겨져 있고, 이 또한 검은 칠 위에 먼저 붉은 색을 바닥에 칠하고 그 위에 금칠을 한 것이 확인된다. 육엽매화문은 중앙의 꽃술은 井자로 가로세로 줄무늬를 촘촘하게 음각하고 가장자리에는 여섯잎 꽃잎이 배치되어 있으며, 둥근 앞사귀 사이 사이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허리띠의 가죽이나 띠돈 전체는 방충 방부 방수에 탁월한 옷칠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물의 보존 상태가 매우 탁월하다. 띠돈의 바탕 전체를 흑칠한 위에 사자의 얼굴이나 갈기 등 몸체에 금으로 도금을 하였으며 입가에는 주칠한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각각 20개의 띠돈은 금속테를 섬세하게 만들고 알물림 기법으로 감쌌다.

이처럼 요대의 경우 삼태와 타미, 좌보와 우필 그리고 남두육성과 북두칠성에 해당되는 띠돈의 경우 모두 서각을 금속 테두리로 알물림하였다. 이러한 알물림 기법은 크게 3부분으로 처리되어 있다. 가장 안쪽 부분은 가는 액자틀 모양이며, 중간 부분은 넓으면서 약간 둥그스름하며, 가장자리는 일정 간격으로 선을 꼭꼭 눌러 용수철처럼 마감되어 있다.



<삼태 우측과 심엽형 남두육성, 가죽과 금선> <북두칠성 안쪽, 종이겹 위의 쪽빛 직물의 背>

현재에는 흑칠한 띠돈 위에 사자의 몸체 등에 바른 금도금이나 주칠 등이 일부 분만 남아 있지만 처음 왕원주가 선물할 때에는 금빛이 찬란하였기 때문에 이순신의 무술일기에는 금대라고 불렀을 것이다. 아울러 띠돈 중 일부는 탈락되어 끈으로 고정된 상태이지만 이로 인해 원래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요대의 뒷부분이며 착장자의 허리에 맞닿는 부분에는 여러 겹의 종이를 쪽으로 염색한 비단천으로 감싸 덧댔는데, 이것은 조선 후기에 요대를 착용해 보면서 만들어 부착했던 것으로 헤지고 일부 들뜬 상태이다. 쪽빛 천의 안쪽에서 읽을 수 있는 글씨는 ‘晉州’, ‘一戰船’, ‘旗牌’ 등이다. 이를 통해 수군에서 사용하고 있던 문서나 장책들을 재활용하여 여러 겹을 붙여 두툼하게 만드는 줍치기법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원래 명나라에서 선물한 요대를 조선 후기에 사용할 수 있게 종이에 천을 덧대어 한중 혼합으로 사용하였다.



<1품관 서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중3품 삼은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 4) 요대 유물의 비교

이순신 요대와 비교되는 유물로 석주선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중 1품관 서대의 경우 삼태나 타미 및 남두육성 등의 형태는 일치하나 가장자리 금속테두리가 단순하고, 서각 내부 조각도 되어 있지 않아 소략한 편이다. 하지만 북두칠성의 안쪽 부분에 종이를 겹쳐 넣고 쪽빛 직물로 배를 두른 부분은 일치한다. 한편 석주선기념박물관소장의 중3품 삼은대의 경우 1500년대의 유물이다. 길이 137cm, 폭 4.7cm이며, 가죽에 흑칠을 한 각대(角帶) 위에 서수(瑞獸)와 만초문(蔓草紋)을 투각한 황장목(黃腸木) 조각에 은으로 장식판의 테두리를 돌렸는데, 교구(鉸具)의

한쪽 부분과 방형장식판 1개가 탈락되어 없다. 허리 띠 안쪽 북두칠성 부분에 천으로 덧댄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없음이 선명하다. 허리의 덧댄부분에서 장식판을 고정하는데 사용한 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타미 옆쪽으로 은매화 4개가 있고 좌보는 탈락되어 있다. 이 삽은대는 가장자리의 금속제 테두리를 순은으로 격식 있게 둘러쳤고, 그 안쪽에는 서수와 만초문을 새겨 넣어 이순신 유물 중 요대 띠돈에 사자와 영지형 구름을 새기고 6엽 매화문을 배치하는 등 전체적인 형태와 문양이 매우 유사하여 15세기 조선과 명나라 유물로서의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순신 유물 중 요대는 유격이 왕원주가 선물로 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산이 아닌 중국 명나라 장인들의 솜씨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순신장군 요대와 관련된 유물 중에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것으로 주목되는 유물은 요대함이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품대를 소중히 여겨 관대함에 넣어 보관하던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

## 2. 요대함

이순신 유물의 요대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물이 요대를 넣어 보관하는 요대함이다. 이것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동안 이 유물의 존재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흑백 사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촬영하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고, 다만 1969년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흑백 사진에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대함은 요대를 넣어 보관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지만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요대함을 비롯한 조선 후기의 유물과 비교한 결과 본 유물은 조선의 재료와 기술 및 솜씨로 제작한 것으로 공예기술적으로 의미 있어 보물로 추가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관대함, 1969년 흑백사진>



<관대함에 관대를 넣은 모습과 뚜껑>

### ○ 내용 및 특징

#### 1) 요대함의 실측 치수

현충사 유물 일괄 중 주목되는 것은 요대를 담은 요대함이다. 요대함은 내함과 뚜

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뚜껑을 닫았을 때 바깥 지름은 48.5cm, 안쪽의 지름은 26.1cm이다. 뚜껑의 높이는 7.73~7.81cm, 뚜껑 판의 두께는 0.94~0.99cm이다. 뚜껑의 바닥 사이의 폭은 11.10~11.22cm이다. 뚜껑판의 두께는 외곽의 것이 0.74~0.85cm, 내곽의 것이 0.64~0.68cm이다. 관대 내함의 아래쪽은 바닥의 높이는 7.20~7.42cm, 바닥판의 두께는 0.65~0.71cm, 바닥 사이의 폭은 8.72~8.54cm이다. 외곽 두께는 0.72~0.77cm이며, 내곽 두께는 0.75~0.83cm이다.

이순신장군 관대함의 경우 둘레의 지름 크기에 의해 살펴보면 크게 4종류이다. 가장 크기가 큰 아름드리는 뚜껑 바깥면이고, 그보다 작은 아름드리는 내함의 바깥면, 다시 뚜껑의 안쪽면, 가장 작은 원둘레는 내함의 안쪽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뚜껑과 요대함의 안팎에 높이와 둘레가 다른 판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탁월한 목공 기술을 엿볼 수 있다.

## 2) 요대함의 형태와 구조

이순신 유물 중 요대를 둥글게 넣어 보관할 수 있도록 아름드리 폭의 소나무를 일정한 두께로 자른 다음, 관대의 지름에 맞춰 넣을 수 있도록 도넛 형태로 만든 것이다. 현존 유물을 관찰한 결과 함은 아래쪽의 내함과 위쪽 뚜껑으로 구성되는데, 둘 다 바깥면과 안쪽면이 결합된 방식이다.



<관대를 넣은 모습>



<관대함 뚜껑>



<뚜껑을 닫은 관대함>



<흑칠 아래 베싸기가 된 부분>

이렇게 도넛과 같은 원형의 기물을 형태적으로 만드는 것은 전통 공예에서 제작이 쉽지 않아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통일신라시대 안압지에서 출토된 구절판의 경우 얇고 가느다란 나무를 여러 겹 붙여 둥근 형태로 만들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중 뚜껑 부분에서는 판재의 가장자리를 일정한 두께로 칼집을 주어 둥글게 돌려 세웠는데, 이러한 기법은 전통 소반을 제작할 때 천판에 초엽대를 빙그르 돌릴 때에 사용되는 기법이 적용되었다. 둥근 판재 중 안쪽의 가장 작은 판재에는 상하 2군데 4개의 못이 박힌 것도 있어 조선 후기의 다양한 목공 기법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도넛형의 뚜껑면과 바닥면에 해당되는 판재는 넓은 면을 구하는 쉽지 않아서인지 판재를 2개를 맞댐하여 붙인 자국이 확인된다.

이순신유물 중 요대함에는 도넛형 내함과 뚜껑을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전통 목공기술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전통 기술 중에는 둥근 소반을 만들 때 칼집을 주는 기법과 함께 조선시대에 전세되어 내려오는 민속 유물 중 마미체 등을 만들 때 첻바퀴를 만든 기술과도 연관된다. 곧 부드럽고 얇은 버드나무를 여러 겹 두르고 소나무 뿌리로 묶었다.

또한 조선 후기 관대함 중에서 얇은 종이를 여러 겹 발라 둥근 도넛 형태로 만들기도 하였고, 그중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품이 있지만 매우 희귀한 편인데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말기 관대함이 최근 전시되면서 그 존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대모집>



<목각대집,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대모집 안쪽,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관대함, 호림박물관 소장>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角帶집은 대개 긴 네모 모양인데 이 遺物처럼 둥근 모양은 드물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角帶함의 길이는 52.8cm, 세로 30cm, 높이 8.3cm이며, 二重構造의 精巧한 것으로 겉은 옷칠, 안은 朱漆을 했다.

### ○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가죽문화재식별분석 공동연구서』, 2020.

- 도보선, 「조선시대 품대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안명숙, 「한국 과대의 역사적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76.
- 이영, 「조선조 함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5.
- 이은주,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복식』 61-10, 2011.

#### IV. 도배구대

#####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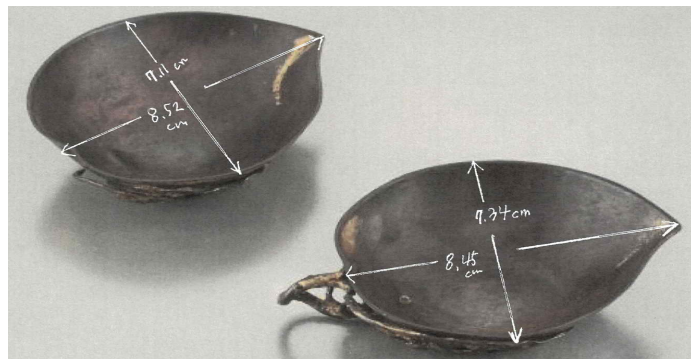


<이순신 유물 중 복숭아형 잔과 받침대>

도배와 구대는 파충 진국경이 선물한 목록에 화주배 한 쌍이 있는데 이 술잔을 그것으로 보고 있다. 복숭아 모양의 술잔과 둥근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얇은 동판으로 제작한 후 금도금을 하였다. 도배 1점의 줄기 1개가 결실되어 있으며 떨어진 부분에는 땀 한 흔적이 남아 있다. 표면의 금도금은 대부분 박락되어 없고 일부만 남아 있다. 구대 2점 모두 원형 테두리 부분이 갈라진 상태이다.

도배와 구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 99%의 순동으로 분석되었고 이 때문에 짙은 구리색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바닥 등에는 여전히 금도금을 확인할 수 있다. 도배 뒷면에서는 땀 흔적이 엿보이며, 주석과 납의 비율을 7:3이었다.

##### 1. 실측 치수



<도배의 실측 치수>

복숭아 형태의 도배 1쌍은 각각 길이 8.52cm, 폭 7.11cm이고, 앞사귀가 온전한 것은 길이 8.45cm, 폭 7.34cm로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



<받침대의 실측 치수>

받침대 2개는 원형에 전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 상태가 좋은 것과 전이 떨어진 것 안쪽 넓은 원형면의 안지름은 12.8cm, 바깥 전의 겹지름은 15.5~15.8cm이다. 청동제의 표면에 도금을 했는데, 뒤집은 면에 도금이 많이 남아 있다.

## 2. 복숭아형 잔과 받침대



<복숭아형 잔 1쌍>



<잔 1쌍과 받침대 1쌍 >

이러한 도배는 복숭아형 표주박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을 제작할 때 사용한 재질은 은, 유기, 목재, 가죽, 종이 등 다양하고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유물로 전하는 숫자도 상당하다.



<표주박>, 은, 높이 4.1cm, 입지름 10.0cm, 국립민속박물관



<표주박>, 유기, 길이 11.5cm, 입지름 9.2cm, 국립민속박물관



<표주박>, 연옥, 높이 4.1cm, 입지름 9.3cm, 국립민속박물관



<표주박>, 나무, 길이 13.6cm, 높이 6.0cm, 국립민속박물관



<표주박>, 너비 9.5cm, 길이 12.5cm, 국립민속박물관



<표주박>, 지승, 높이 4.5cm, 입지름 9.0cm, 국립민속박물관

일반적으로 복숭아의 형태는 중국 신화와 고전에서 선계(仙界)의 신성함을 함의하고 있다. 복숭아에 부여된 신성성에 기반을 둔 변화와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도교와 노·장 사상에서 복숭아는 선인(仙人)의 장생(長生)과 불사(不死)를 약속하는 선과로 그려지며, 다른 사회적 이념과 문화적 배경을 지향하는 시대를 거쳐 오면서도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이루어주는 기복(祈福)의 상징으로 여러 형식과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복숭아형 문화사적 연구는 도교와 신선 사상과 관련된 역사·문학을 포함한 인문학과 무용·음악·미술 등의 예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복숭아형 잔은 중국에서부터 오랫동안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조선 후기에 전해져 관련 기록과 다양한 재질의 재질로 만들어진 잔이 남아 있어 제작이 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명나라 장수가 선물로 준 복숭아잔은 복숭아 모양의 형태에 줄기에 잎사귀 3개가 달린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백자 복숭아 모양 잔은 물레로 둥근 형태의 완을 성형한 후 손으로 한쪽을 눌러 복숭아 모양을 만들고 양각으로 잎과 가지를 장식해 완성하였으며, 백자에 청화로 잎을 채색한 것과 전체에 철유를 시유한 것이 있다.



<백자청화천도형잔>, 19세기,  
높이 4.5cm, 입지름 9.7cm,  
국립중앙박물관



<靑畫白磁鐵繪桃形잔>, 19세기,  
높이 4.8cm, 입지름 8.0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철유도형잔>, 조선 19세기,  
높이 4.7cm, 입지름 9.0cm,  
도쿄국립박물관

## ○ 참고문헌

- 김민정, 「조선후기 복숭아형[桃形] 연적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21.
- 윤희정, 「조선시대의 왕실 주기, 혜호배: 기록과 유물을 통한 실체와 조형의 복원」, 『미술사논단』 47, 한국미술연구소, 2018.
- 김정수, 「桃形杯와 花形杯의 용도에 대한 추론」, 『영남고고학』 90, 2021.

□

## I. 장검

### ○ 현 상

1963년 보물 제326호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은 장검(長劔), 옥로(玉鷲), 요대(腰帶), 도배구대(桃盃具臺)로 구성되어 있다. 장검은 길이가 약 2m에 달하는 매우 긴 검으로,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한 쌍이 각각 검집을 갖추고 있다. 옥로는 관모의 정상에 고정하여 장식하는 입식(笠飾)이며 누비보자기로 싸고 나무함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 허리띠인 요대는 가죽 띠에 사자와 구름무늬의 띠돈[帶錢]을 부착하였으며 나무로 만들고 옷칠한 함에 담아 보관하였다. 복숭아 모양의 술잔인 도배(桃盃)는 한 쌍이 있으며 각각 받침[臺]을 갖추었다.



### 1. 명칭

1790년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는 칼날이 양쪽으로 있는 것은 검(劔, 劍), 칼날이 한쪽에만 있으면 도(刀)라고 하는데 후세에는 검과 도가 서로 혼용되었다고 하였다. 1813년 『용원필비(戎垣必備)』에는 옛날에는 도와 검의 제도와 명칭이 달라서 도는 자루가 길고 칼날과 모철(冒鐵)이 있고 검은 자루가 짧고 날이 길며 칼집이 있는 칼이었으나 당시에는 구분 없이 도라고 부른다 하였다. 따라서 원래는 검과 도의 구분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혼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95년(정조 19), 정조의 왕명으로 편찬, 간행한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에 본 유물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남아 있다. 장검 한 쌍에 충무공의 친필을 나누어 새겼고, 후손의 집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이다.<sup>218)</sup> 장검에

새긴 명문의 글자 역시 기록과 유물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본 유물은 장검(長劔)이라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구조와 제작



### 1) 칼자루

장검 2점은 크기, 형태, 구조, 재료로 보았을 때 거의 일치하며 서로 한 쌍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검1은 전체 칼몸 길이 196.8cm, 칼날 137.3cm, 칼자루 59.5cm, 무게는 4.32kg이고, 장검2는 전체 칼몸 길이 197.2cm, 칼날 137.8cm, 칼자루 59.4cm, 무게는 4.20kg으로 일반적인 도검에 비해 매우 길고 무겁다.

칼자루의 길이는 약 60cm, 두께는 5cm이며, 나무에 어피를 감싸고 붉은 칠을 하였다. 일부분만 직사각형의 황동 금속판을 댄 후 너비 2cm의 가죽끈을 X자로 교차하여 감고 끈 위에 검은 칠을 하였다. 길이 15cm, 너비 3cm의 금속판은 가로세로로 일정 간격마다 돌기를 만들어서 마찰을 크게 만들었고, 칼자루의 한쪽면은 위쪽에, 반대면은 아래쪽에 돌기 금속판을 배치하여 양손으로 칼자루를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 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14회에서 14회 반 정도 X자로 교차하여 매듭을 반복하여 감았는데 이 역시 칼자루를 단단하게 쥘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였다.

칼자루의 위쪽 끝에는 사다리꼴로 조금 더 넓어지는 철제 마개를 씌워서 칼자루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칼자루 끝의 장식부분을 pommel이라고 하며, 장검은 칼자루 윗마개를 철제 은입사로 연꽃넙쿨무늬를 표현하였다.

218) 『이충무공전서』 권1 「잡저(雜著)」, “長劔一雙分鐏 卽公筆也 今在公後孫家”.



<돌기 금속판> <X자형 매듭(정면)> <X자형 매듭(측면)> <칼자루 윗마개 은입사장식>

칼자루와 칼날이 만나는 부분에는 둥글고 납작한 꽃모양의 코등이가 끼워져 있다. 칼 코등이는 고동, 도환(刀環), 검비(劍鼻), sword guard 등으로 불리며, 칼자루를 권 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순동으로 만든 코등이의 지름은 9.5cm, 두께는 0.5cm이고, 꽃잎 수는 2점 모두 똑같이 19개이다.



<꽃모양 원형 코등이>

## 2) 칼날

칼날은 칼등 방향으로 조금 휘어 있고 칼끝은 예리하다. 칼날의 단면은 칼날의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보았을 때 가장 보편적인 육각도(六角刀) 단면을 보이고 있다. 육각도는 대나무 등 딱딱한 대상을 벨 때 유리하다. 호인(護刃, rain-guard, chappe)은 칼날 위를 감싸서 두른 덧쇠로, 칼을 칼자루에 꽂을 때 칼날을 보호하는 동시에 칼날과 칼집의 결합을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구리로 만들어 동호인(銅護刃)이라고도 한다. 장검의 호인 역시 구리로 만들었으며<sup>219)</sup> 길이는 45.5~48.3cm, 두께는 14.7~15.7cm이고 한쪽 면에 10~13개의 선이 새겨져 있다. 혈조(血槽)는 칼날에 홈을 낸 것으로 글자 그대로 피가 흘러나오도록 홈을 만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칼의 무게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장검의 혈조 너비는 0.91cm, 길이는 64.0~66.5cm이다.

장검의 칼날 위쪽 부분에는 글자가 각 8자씩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장검1에는

219) 과학적 분석 결과 주석의 함량이 5%인 구리(Cu : Sn = 95 : 5), 즉 청동으로 확인되었다.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p.62.

“三尺誓天 山河動色”, 장검2에는 “一揮掃蕩 血染山河”라는 명문이 있으며, 한 글자는 가로 세로 1.1cm 크기로 전체 명문 길이는 약 12cm이다. 선각한 글자의 안쪽에는 금빛 물질을 채워 넣었다. 칼날의 위, 중간, 아래의 세 부분에는 넝쿨 혹은 물결무늬가 선각(線刻)으로 장식되어 있다.



<장검의 칼날 각도>



<칼등(칼날의 위쪽)>



<칼날의 아래쪽>



<육각도 단면>



<구리로 만든 호인>



<혈조와 선각무늬>

### 3) 칼집

장검을 쫓는 검집, 즉 칼집은 칼날의 곡률을 맞추어 나무를 깎아 만들었으며 패용할 수 있도록 가죽끈을 매달았다. 검집1과 검집2의 길이는 144.5cm로 동일하나 황토색 가죽끈의 길이는 검집1이 87.0cm, 검집2가 92.0cm로 5cm 가량 차이가 난다. 나무를 깎아 틀을 만든 후 어피를 감싸 씌우고 그 위에 검은 흑칠을 하였다. 어피가 벌어지지 않도록 칼집의 윗부분에는 철테를 두르고 아래에는 길이가 긴 골무형태의 철마개를 씌웠다. 칼집의 위쪽에는 철테 2개가 더 둘러져 있는데, 이는 칼집, 즉 칼을 패용할 끈을 매달기 위한 목적의 철테이다. 칼집의 상단을 따라서 철로 만든 띠가 부착되어 있고 철테를 두른 부분 위쪽으로 구부러져 고리를 만들며, 여기에 다시 둥근 고리를 끼우고, 그 고리에 납작한 끈을 통과시킨 후 바느질로 고정하였다. 끈은 검과 검집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강도가 높아야했으

로 심지, 직물, 끈 등 여러 재료를 겹쳐서 만들었다. 이때 끈의 두께로 인해 일반적인 바느질이 어려우므로 미리 일정 간격으로 칼금을 넣은 후 여러 겹의 실을 사용하여 가죽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박음질인 새들 스티치(saddle stitch)로 튼튼하게 고정시켰다. 칼집의 테와 아랫마개, 칼집을 패용하기 위한 테와 고리에는 모두 은입사기법으로 연꽃과 넝쿨무늬, 줄무늬, 기하무늬를 장식하였다.



<검집(칼집)의 구조>



<검집1의 패용고리와 가죽끈>



<검집2의 패용고리와 가죽끈>



<끈의 연결방식>



<복합재료의 끈과 바느질 상태>



<끈 바느질용 구멍>

## ○ 내용 및 특징

### 1. 칼날에 새겨진 검명(劍銘)

장검의 칼날 위쪽에 각 8자씩 새겨진 명문은 『이충무공전서』(1795)의 검명(劍銘) 기록<sup>220)</sup>과 일치한다. 기록에 의하면, 장검 한 쌍이 충무공의 후손 집안에 전해오는데 공의 친필이 칼에 새겨져 있다고 하였다.

220)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1 「잡저(雜著)」.

“劔銘 [長劔一雙分鐫 卽公筆也 今在公後孫家]

三尺誓天 山河動色 二 一揮掃蕩 血染山河”

(검명-장검 한 쌍에 나누어 새기니 곧 충무공의 친필이다. 지금 충무공의 후손집 안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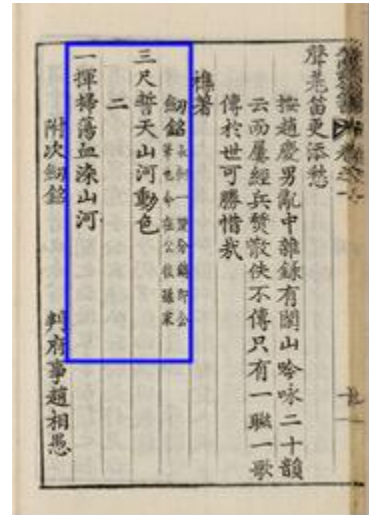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장검1의 명문  
“三尺誓天 山河動色”>



<장검2의 명문  
“一揮掃蕩 血染山河”>



<『이충무공전서』에 기록된  
장검의 명문>

칼에 글자를 새기는 검명은 기물명(器物銘)의 한 종류이다. 기물명은 옛 군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사물에 명(銘)을 붙인 것이며, 이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하는 수신(修身)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원래는 기물에 실제로 글을 새겨 조각하였지만, 훗날에 와서는 반드시 새기는[刻] 과정을 밟지 않고도 일반 문인들의 문필생활 영역으로 흡수되었다. 기물에 직접 글을 새기던 관행이 기물을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sup>221)</sup> 기물명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압도적으로 많이, 지속적으로 제작된 것은 수기적(修己的), 잠언적(箴言的) 성격의 기물명으로,<sup>222)</sup> 검명 역시 이에 해당한다.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은 “내명자경 외단자의”라는 구절을 새긴 큰 칼을 차고 심신을 경계하였다.<sup>223)</sup> 조선 후기 실학자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문집인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에는 고검(古劔)에 대한 검명(劔銘)이 10편이나 실려 있으며<sup>224)</sup>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낸 이복연(李復淵, 1688~1732)이 통제사 재

221) 김동준, 「한국 기물명의 역사와 성격에 관한 소고」, 『진단학보』 97, 2004, pp.89~91.

222) 위 논문, pp.96~103.

223) 위 논문, p.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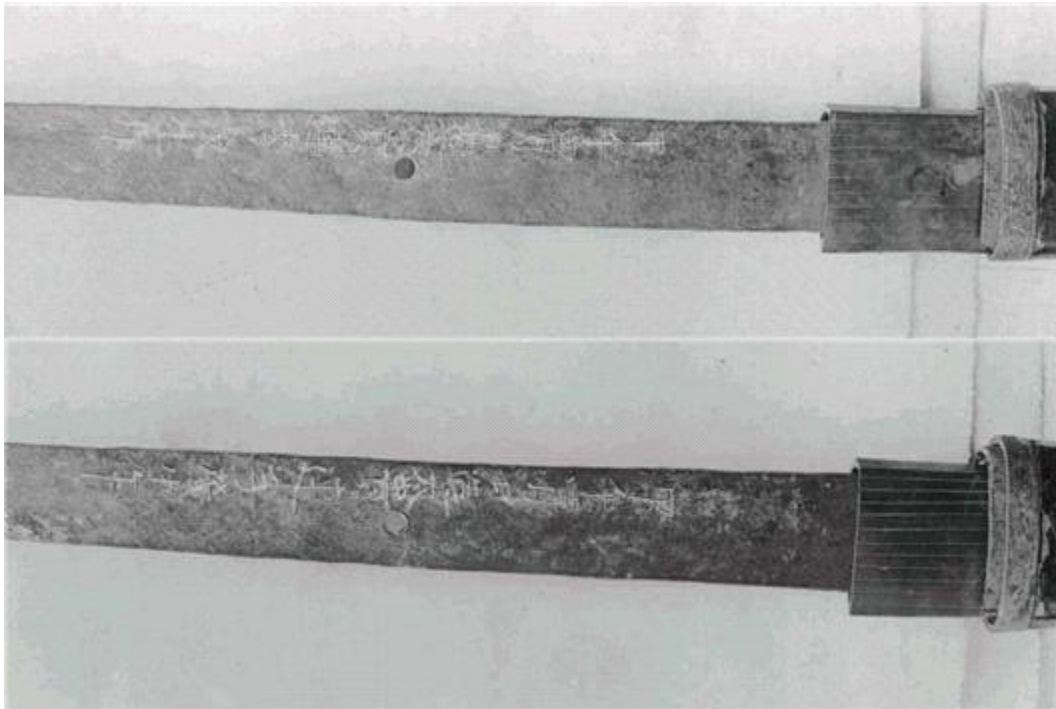
224) 성해응의 검명 10편의 제목은 <家中古劔銘>, <兪揔管劔銘>, <李貞翼劔銘>, <林將軍劔銘>, <崔將軍劔銘>, <南氏

직 시절 이순신 장군을 흠모하여 한 쌍의 장검을 만들어, ‘盟山誓海意, 忠憤古今同’의 구절을 새겼다는 기록이 있다.<sup>225)</sup>

장검 유물에는 충무공의 다짐을 검명으로 새겨 심신을 수련하고 검명을 볼 때 마다 다시 각오를 상기시키는 당시의 문화가 담겨 있다.

## 2. 스페에 새겨진 명문(銘文)

스베란 칼자루 속에 들어박혀 있는 뾰족하고 긴 부분으로, 칼자루와 칼날을 결합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 유리건판 자료를 보면 장검 2점을 조사하면서<sup>226)</sup> 칼자루와 칼날을 해체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페에 새겨진 글자를 발견하였다.



<조선사편수회 유리건판-스베의 명문>

두 자루 모두 스페에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라는 동일한 내용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때 갑오년은 1594

短劍銘>, <李提督劍銘>, <斫石劍銘>, <忠貞劍銘>, <六稜劍銘>이다. 조혁상, 「조선후기의 도검증여(刀劍贈與)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 27, 2014, pp.10~13.

225) 위 논문, p.21.

226)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는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편찬을 담당한 실무자이자 한국사를 연구한 전문가이다. 1928년 이순신 종손가에서 이순신 관련 유물을 확인하고 「충무공 이순신의 유보(忠武公李舜臣の遺寶)-조선역해전사료의 발견」이라는 보고서 형식의 글을 썼다. 여기에서 이순신이 소유했던 장검 2자루에 대해 “순신 소지의 명도(銘刀)로서 역사적으로 진귀한 유물일 뿐 아니라, 조선 공예미술사상 더욱 주의할 유물”이라며 그 자료로서의 가치를 홍보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김준배, 「문화통치기 조선사편수회 소속 일본인 연구자의 이순신 서술 :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의 「충무공 이순신의 유보(忠武公李舜臣の遺寶)」(1928)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8, 2020, pp.149~174.



년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2년 후이다. 장검 2점의 제작자로 새겨진 2인 중 태귀련(太貴連)은 『이충무공전서』의 「난중일기」 중 을미년(1695년)에 환도를 제작하였다고 기록된 태구련(太貴連)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충무공전서』 권7 「난중일기」 3, 1595년 7월 14일(乙酉)

“李祥祿，太九連，孔太元等入來 … ”

(이상록, 태구련, 공태원 등이 들어왔다. … )

『이충무공전서』 권7 「난중일기」 3, 1595년 7월 21일(壬辰)

“食後太九連彦福所造環刀 忠清水使，兩助防將處 各一柄分送”

(식후에 태구련과 언복이 만든 환도를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에게 각각 한 자루씩 나누어 보냈다.)

슴베의 명문으로부터 장검 2점은 1594년(선조 27)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조선과 일본의 양식이 혼용된 도검 제작기법

장검은 조선시대 군용 도검[軍刀] 형식이며 전통적인 조선식 환도에 해당한다. 나무틀 위에 어피를 감고 주철을 한 칼자루,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기를 만들어 칼자루 표면에 부착한 금속판, 은입사기법으로 장식한 전통무늬, 칼날에 새긴 명문과 물결무늬, 칼집의 패용 장식과 가죽끈, 칼집 상단의 테두리와 하단의 마개 등은 조선의 도검에서 보이는 전통적인 양식들이다.

여기에 일본의 요소가 도입되어 적용되었다. 칼자루를 보면 철제 윗마개를 자루에 고정시키려고 나무를 쪼는 구멍을 제외하고, 2개의 구멍이 있다. 이중에서 칼자루의 위쪽, 즉 사진의 오른쪽 구멍은 유소혈(流蘇穴)로서 매듭술장식인 유소를 매달기 위한 구멍이다. 칼자루의 아래쪽, 즉 사진의 왼쪽 구멍은 목정혈(目釘穴)로서 슝베와 칼자루를 결합했을 때 구멍을 맞추고 못을 끼워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다. 유소혈은 조선의 도검에서 자주 발견되는 구멍이고 목정혈은 일본의 도검에서 보이는 구멍인데, 장검은 유소혈과 목정혈이 동시에 공존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칼자루에 X자형으로 교차하여 끈을 매는 방식은 일본식으로, 칼자루가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단단히 쥘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수용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1813년에 간행된 『용원필비(戎垣必備)』의 도설에 그려진 환도의 칼자루에서는 X자형 매듭으로 묶은 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칼날이 휘어진 곡률이나 혈조를 넣는 방식은 일본의 칼날 제작 방식에 가깝다. 그러나 그 칼날 위에 새긴 글자와 무늬는 조선의 양식이다.<sup>227)</sup>



<장검의 구멍 : 목정혈과 유소혈>



<『용원필비』 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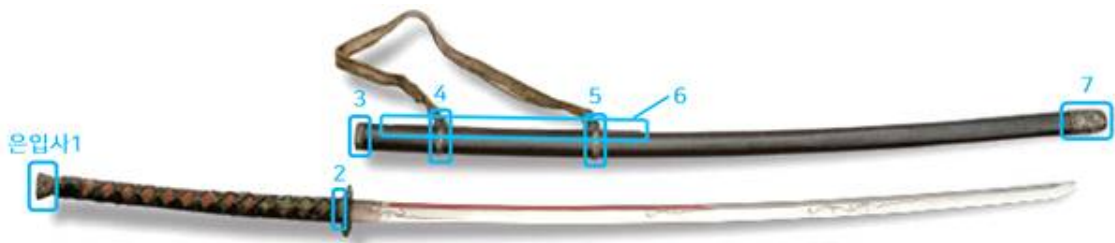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일본의 칼 제조기술은 매우 발달하였고, 전쟁 혹은 교류를 통해 주변국으로부터 무기를 제작하는 재료나 기술을 흡수하고자 하였으므로 일본의 칼 제조법 역시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리라 추정된다.

#### 4. 우수한 은입사 공예기법

장검은 칼자루와 칼집의 여러 부분에 은입사기법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철 표면을 곱게 쪼아질 한 후 은선으로 장식하는 은입사(銀入絲) 기법으로 연꽃과 넝쿨, 각종 기하학적인 무늬를 표현했다. 은입사는 고려시대 불구(佛具)부터 조선시대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금속 장식에 많이 사용되었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크게 발달하였다.

227) 이석재, 「이충무공 장검 분석-성웅의 칼, 그 속설과 실체」,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현충사관리소, 2014, pp.9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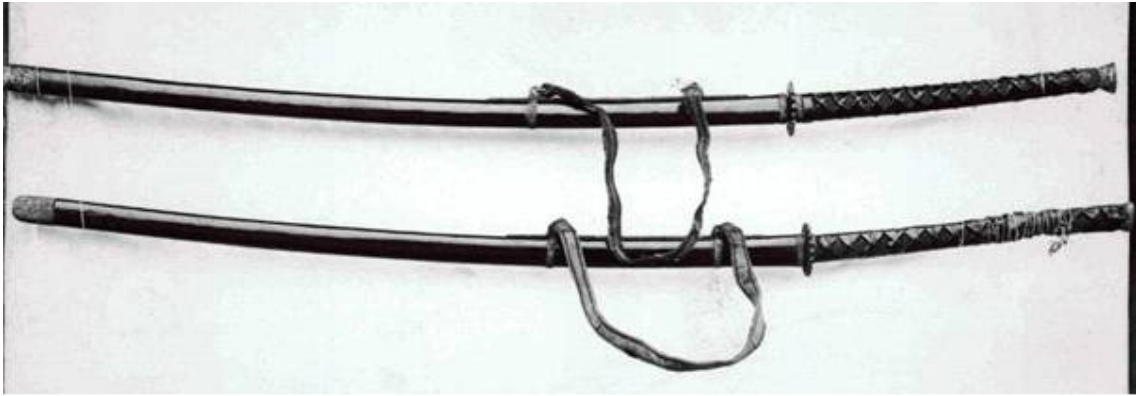
칼자루의 윗마개 측면(1번)에는 연꽃과 넝쿨무늬, 윗마개 상단 정면(1번)에는 X자로 영역을 구분한 후 방향을 바꾸면서 빗금무늬를 반복하였다. 칼자루의 아래쪽(2번)과 칼집의 위쪽(3번) 테두리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두 줄의 선을 두른 후 안쪽에 사선과 소용돌이 물결무늬로 장식하였는데, 이는 코등이를 중심으로 상하에 위치한 부분으로 동일한 무늬를 사용하였다. 칼집에 가죽끈을 달아서 패용하기 위한 고리와 장식 부분(4,5,6번)은 모두 같은 무늬로 통일하였다. 가장자리를 따라 두 줄의 선을 두르고 안쪽에는 지그재그를 한 줄로(6번), 혹은 상하대칭으로 두 줄로(4,5번) 배열하였다. 마지막 칼집 아랫마개(7번)는 연꽃과 넝쿨무늬로 가득 채웠으며, 이로써 칼을 칼집에 꽂았을 때 상단(1번)과 하단(7번)이 같은 무늬로 완성된다. 치밀하게 계획된 문양 배치와 은입사 공예기술의 수준을 보았을 때 장검은 조형적으로도 우수하고 아름답다.



은입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위치	칼자루 윗마개	칼자루 아래	칼집 위	패용 고리1	패용 고리2	칼집 패용 고리와 장식	칼집 아랫마개
사진1							
사진2							

## 5. 보존 상태와 수리 연혁

세부적으로 손상되거나 노후한 부분은 있으나 장검 2점과 검집 2점 모두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특히 칼날은 부식이나 균열 없이 매우 뛰어난 상태를 간직하고 있다.



<조선사편수회 유리건판-장검>

1928년 촬영된 조선사편수회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아래쪽 장검은 칼자루의 X자형 끈이 일정부분 풀어져서 나선형으로 감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전해지는 끈은 다시 새로 감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습배의 명문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은 칼자루로부터 칼날을 해체했었음을 의미한다. 칼날과 칼자루의 목정혈을 맞추어 다시 결합하였고, 칼자루의 X자형 끈도 수리한 것이다.

또한 후대에 혈조, 물결무늬, 검명 등 칼날의 홈과 선각에 붉은 색 안료를 채워 넣었다가 제거한 일도 있었다. 2011년 보존처리를 진행하기 전에 유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칼자루 붉은 색 안료 및 흑칠, 칼날의 붉은 색 안료 등은 근대에 수리를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제작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칼자루의 붉은 색 안료는 석간주(Hematite)이나 후대에 칠한 안료는 주사와 연단이 혼합된 안료였고, 칼날 혈조를 채운 붉은 색 안료는 근대 이후의 합성도료로 여겨지며, 칼날에 새긴 검명에는 황동으로 채워서 금빛을 발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228)</sup> 이후 2014년 FT-IR을 이용하여 혈조의 안료를 바인더 조사한 결과 주철이 아닌 현대 화학안료(합성수지도료)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도료를 제거하고 향후 원래의 안료 및 도포 방법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전통 방식으로 다시 채색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붉은 색 도료를 제거하고 보존처리하였다.<sup>229)</sup>

228)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p.62.

229)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순신 장검 혈조 내 안료의 규명 및 제거」, 『보존과학학회지』 31-4, 2015, pp.499~506.



<장검에 붉은색 안료를 채워넣은 상태>



<장검에 붉은색 안료를 제거한 상태>

## ○ 참고문헌

-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순신 장검 혈조 내 안료의 규명 및 제거」, 『보존과학학회지』 31-4, 2015.
-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 김동준, 「한국 기물명의 역사와 성격에 관한 소고」, 『진단학보』 97, 2004.
- 김준배, 「문화통치기 조선사편수회 소속 일본인 연구자의 이순신 서술 : 나카 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의 「충무공 이순신의 유보(忠武公李舜臣の遺寶)」(1928)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8, 2020.
- 도보선, 「朝鮮時代品帶에 關한 研究」,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은주,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복식』 61-10, 2011.
- 조혁상, 「조선후기의 도검증여(刀劔贈與)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 27, 2014.
- 이석재, 「이충무공 장검 분석-성웅의 칼, 그 속설과 실체」,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현충사관리소, 2014.
- 현충사관리소,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충무공 장검 제작 7주 갑 기념 특별전 도록』, 2014.
- 국립대구박물관 편, 『선비의 멋, 갓』 특별전 도록, 2020.
- 국립민속박물관 편, 『머리에서 발끝까지-모자와 신발』 특별전 도록, 2011.
- 서울역사박물관 편, 『운중가 입전(笠塵), 조선의 갓을 팔다』 특별전 도록, 2020.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2013.
-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편, 『조선시대 帶』 특별전 도록, 2021.
- 국립대구박물관 편, 『한국의 허리띠 - 끈과 띠』 특별전 도록, 2021.

## II. 옥로

### ○ 현 상

옥로(玉鷺)는 옥(玉)을 해오라기[鷺] 모양으로 조각하여 관모의 정상에 장식하던 입식(笠飾)의 한 종류이다. 이순신 유물 일괄 중 한 품목인 옥로는 백옥을 깎아 만들었으며, 연잎과 줄기 사이에 있는 해오라기 3마리를 배치하였다. 3마리는 서로 다른 자세로 서있는데, 한 마리는 목을 움츠리고, 다음은 목을 펴고 앞을 바라보며, 나머지 한 마리는 뒤로 돌아보는 모습이다.

백옥 조각 아래에는 금속 받침이 있다. 구리를 포함한 금속 위에 금도금하여 받침을 만들었으며,<sup>230)</sup> 받침의 윗부분은 불상의 대좌처럼 연꽃 꽃잎 모양으로 만들어서 백옥 조각을 감싸며 잡고 있다. 받침 아래쪽에는 박쥐 세 마리가 양각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박쥐를 한자로 편복(蝙蝠)이라 쓰고 그 발음이 복을 두루 미친다는 편복(遍福)과 같았기 때문이다. 받침대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총 세 군데에 구멍이 각 2개씩 뚫려 있다. 이는 옥로 장식을 관모에 달아서 고정하기 위해, 즉실이 들어가고 나가기 위한 구멍이다.

섬세하게 투조된 옥조각과 아래의 금도금 받침을 포함한 옥로 장식의 전체 높이는 6.2cm, 너비 4.43cm이며, 아래쪽 받침의 높이는 1.83cm, 지름은 5.1cm이다. 받침 윗부분의 연꽃 꽃잎은 갈라진 부분의 길이가 0.44~0.47cm로 꽃잎 한 장마다 5~6줄씩 선을 새겨 정교하게 제작하였다. 관모 고정용 구멍의 간격은 0.3~0.45cm로, 바늘땀 크기에 해당한다.



<옥로와 박쥐의 위치>

<관모 고정용 구멍>

230)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p.72.

옥로는 누비보자기에 싼 후 나무상자에 담아 보관하였다. 누비보자기의 색깔은 연한 청록색, 안감은 진분홍색이고 구조는 버선본집과 유사하다. 사각형으로 만든 누비보자기의 꼭지점을 한 곳에서 만나도록 모은 후, 서로 맞닿는 가장자리 중에서 두 곳은 바느질하여 고정하고 나머지는 편지봉투의 뚜껑처럼 여닫아서 옥로를 담을 수 있게 하였다. 매듭단추와 고리를 달아서 잠글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누비바느질은 재봉틀 바느질로서 근대 이후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28년 촬영된 흑백사진 속에서도 동일한 누비 보자기가 확인되므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재봉틀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바느질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마감처리도 영성하게 되어 있어, 16세기 말이 아니라 후대에 급하게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옥로함은 약 11cm 크기의 직육면체 나무 상자에 흑칠을 한 후 황동으로 경첩, 자물쇠 등을 달았다. 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의 안쪽만 붉은 칠을 하였고, 나머지 상자의 안쪽과 바닥은 칠을 하지 않았다. 한쪽 손잡이는 결락되었고 옷칠도 군데 군데 벗겨져 있다.



<옥로를 보관하기 위한 누비보자기와 나무함>



<조선사편수회 유리건판 - 옥로와 함>

## ○ 내용 및 특징

갓[笠]의 꼭대기에 장식하는 것을 입식(笠飾) 혹은 정자(頂子)라고 하며, 이는 고려 말 공민왕 때 흑립 위에 직포에 따라 재료를 구분하여 장식을 만들어 달도록 한 것에서 유래한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경국대전』과 『대전회통』에 품계별 재료 규정이 있고, 용복(戎服)이나 군복(軍服)을 착용할 때 관모인 립(笠)에 옥로를 장식하였다는 기록도 남아있다.<sup>231)</sup>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김홍

231) 『영조실록』 권75, 영조 28년 1월 8일 경오, “**戎服**動駕時服色, 以無揚黑紗貼裏青帶, 則仍用存, **笠飾**、**玉鷺**對青靛、玉帶之意, 只去羽。”; 『고종실록』 권2, 고종 2년 7월 30일 임진, “原任將臣體貌, 與武宰有所區別。凡於**戎服**、**軍服**之班, 許飾**玉鷺**於紗笠氈笠之上, 似好。”; 『고종실록』 권126, 고종 16년 7월 10일 임오, “一, **玉鷺**之飾、雙轎之乘, 依萊伯例爲之。”

도필평안감사향연도(進金弘道筆平安監司饗宴圖)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철종 어진> 등의 회화에서도 발견된다. 대동강에서 평안감사가 베푼 잔치의 모습을 담은 <평안감사향연도>에서 평안감사는 융복 차림으로 남철릭을 입고 주립을 썼는데 이때 주립의 정상에 흰색 정자를 달았고, <철종 어진>에서 철종은 군복 차림으로 협수와 전복을 입고 대오리로 만든 죽사립(竹絲笠)을 쓰고 정수리 장식으로 백옥으로 만든 정자와 청색 깃털[靑轉羽], 공작새깃털[孔雀尾]을 달았다.



<<평안감사향연도>>의 옥정자



<<평안감사향연도>>의 옥정자

평안감사의 흰색 정자는 크기가 작아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철종 어진>의 백옥 정자는 금도금한 받침 위에 매우 화려하게 조각한 봉황 한 마리가 올려져 있다. 해오라기가 아닌 봉황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회화 외에도 국내와 해외에는 옥으로 만든 정자 장식이 다수 전해진다. 유물들을 비교해보면 조각한 동물의 종류와 수량, 조각의 구성, 받침대의 재료 등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해오라기(백로)와 봉황 같은 조류가 대부분이지만 사슴도 있었다. 그중 제일 많은 유물이 남아있는 것은 옥로, 즉 해오라기이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로 해오라기의 숫자와 배치가 서로 달랐다. 동물의 구성에 따라 옥로의 조각방식이나 크기도 달라졌다. 예를 들어 해오라기나 봉황 한 마리만 있는 경우에는 양각으로 조각하고 받침대를 포함해도 높이가 3~4cm인데 비해 두세 마리로 늘어나면 연꽃과 연잎, 나무 등과 함께 배치되면서 투각으로 뚫어서 새기면서 높이가 약 6~7cm 정도로 커졌다. 옥의 색상은 백색이 가장 많지만 초록색, 붉은색 계통도 있고 적갈색의 자마노[자만옥,紫瑪瑙]로 만든 것도 있다. 옥장식의 받침 재료는 주로 금속이고 가끔 전체를 옥으로 만든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받침에 구멍이 2개씩 쌍을 이루어 3쌍 있는 점은 동일하다. 이는 관모에 고정하기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철종 어진>의 옥정자>

이순신 일괄 유물 중 옥로는 조선시대 옥정자의 전형적인 구조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옥정자 유물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화려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색이 조금 어둡기는 하지만 백옥을 재료로 연꽃, 연잎, 줄기 사이에 세 마리의 해오라기를 투각으로 표현하였고, 금도금한 금속 받침 위에 옥 조각을 올린 후 연꽃 꽃잎 모양으로 만든 받침 상단을 한 잎 한 잎 구부려서 고정시켰다. 흥선대원군의 손자인 이준용(李浚鎔, 永宣君, 1870~1917) 묘 출토 옥로와 크기도 비슷하고 옥의 조각방식도 유사한 것으로 보아 황실에서 사용한 정자 장식만큼 높은 수준으로 제작되었다.

<표1. 옥정자 유물 목록>





사진	소장처	시대	높이(cm)	구성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조선(1800년)	3.8	백로1마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조선(1750년)	4.0 /지름 2.7	백로1마리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말	옥로립 전체높이 16.5	백로1마리
	국립진주박물관	조선	3.5 /가로 2.5	옥부분만 남아있음

사진	소장처	시대	높이(cm)	구성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 민속박물관	조선 19세기 (1902년 구입)	3.5 /지름 2.5	옥만 있음
	경기도박물관	조선	3.0	백로2마리, 연잎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 민속박물관	조선 19세기 (1902년 구입)	4.8 /지름 2.8	백로3마리
	고려대학교박물관	조선 후기	5.7	꽃 위에 백로3마리
	서울역사박물관 (이준용 묘 출토)	19세기 말 ~1917년	6.3	백로5마리, 연잎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6.9	백로, 식물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조선 19세기	7.0	사슴, 식물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조선 19세기	7.5	사슴, 식물

### Ⅲ. 요대, 요대합

#### ○ 현 상

요대(腰帶)는 전체적으로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여러 조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앞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 중앙의 개폐장치인 삼태(三臺)로 여닫고, 뒤쪽은 별도의 띠가 있고 양 끝에 띠고리와 침이 있어서 앞의 속띠에 꽂아서 허리둘레를

조절한다. 앞쪽을 잠근 상태로 측정했을 때 좌우 폭은 45cm, 앞뒤 폭은 42cm이고, 띠의 너비는 5.5cm이다. 가죽에 검은 칠을 하였으며, 이 위에 금분으로 5줄의 선[梁]을 그렸다. 검은 가죽띠, 즉 흑정(黑靛) 위에 직사각형과 행엽형의 띠꾸미개(띠돈, 帶錢)를 붙였고 띠꾸미개의 가장자리에 금도금을 한 금속, 금테를 둘렀다. 나무로 만든 띠꾸미개에는 구름을 배경으로 서있는 사자의 모습을 조각한 후 흑칠과 금칠을 하였다. 현재는 금테의 도금이 벗겨진 곳도 있고 띠꾸미개의 흑칠이 떨어져나가면서 안쪽의 붉은색이 드러난 곳도 있다. 조각 위의 금칠은 대부분 결락되었으나 부분적으로 미세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뒷허리띠의 안쪽에는 종이를 여러 겹 겹친 후 명주로 보이는 평직의 남색 직물로 감싸서 부착하였다. 이는 띠꾸미개를 허리띠에 고정시킬 때 사용한 철사 때문에 옷이나 피부를 손상시킬까봐 철사를 덮어 가리기 위한 장치이다. 착용했을 당시의 마찰과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해 직물 부분이 닳고 헤어져서 현재는 직물 안쪽의 종이가 많이 노출된 상태이다. 종이의 묵서로 보았을 때 사용했던 종이나 서적을 재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순신 요대(앞)>



<이순신 요대(뒤)>



<삼태를 잠근 모습>



<삼태를 풀어서 연 모습>



<띠꾸미개와 도금 테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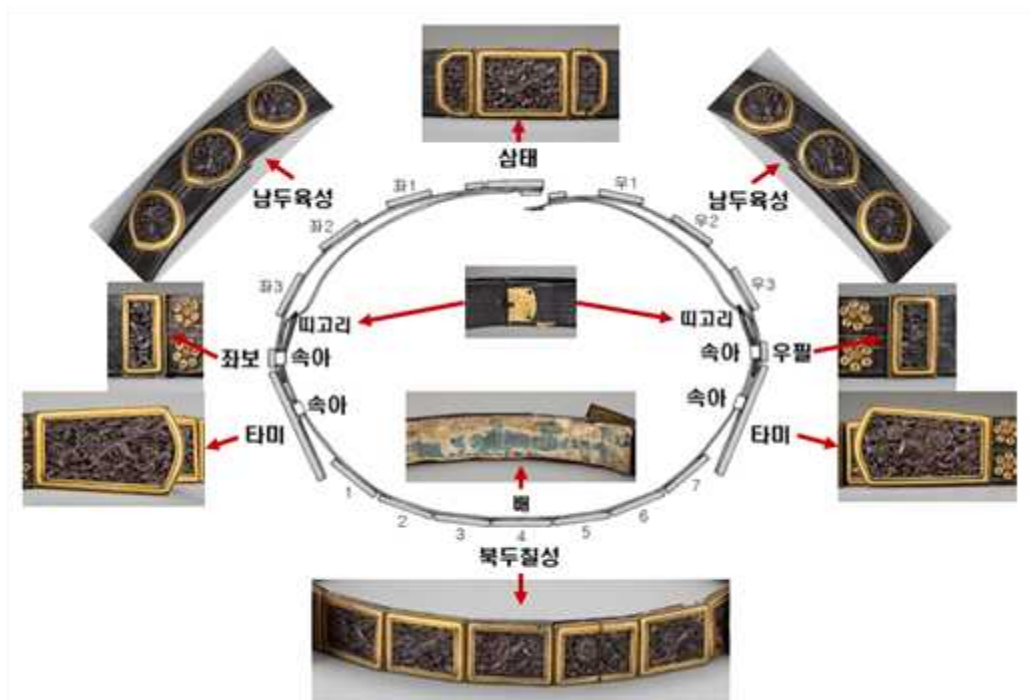
<띠꾸미개의 금칠 흔적>



<허리띠의 배(背): 종이와 남색 직물>

요대 유물은 조선과 명에서 문무백관이 관복에 착용하여 품계를 나타내는 품대(品帶)의 구조와 일치한다. 품대의 각 부위별 세부명칭과 함께 요대 유물의 사진을 배치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띠꾸미개의 이름은 별자리를 따라 불렀는데, 각

위치별 수량을 살펴보면 앞쪽 중앙의 삼태 3개, 남두육성은 왼쪽 3개와 오른쪽 3개, 왼쪽에는 좌보 1개와 타미 1개, 오른쪽에는 우필 1개와 타미 1개, 그리고 뒤쪽으로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7개의 띠꾸미개가 배열되어 있다. 금테를 포함한 띠꾸미개의 크기를 살펴보면 세로길이는 허리띠의 너비와 거의 동일한 5.5cm이고 형태와 가로길이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삼태의 가운데 직사각형 띠꾸미개는 가로 7.0cm, 은행모양[杏葉形]의 남두육성은 6.2cm, 좌보는 3.3cm, 타미는 최대 가로길이 11cm이다. 길이에 따라 문양의 배치가 달라져서 삼태의 가운데·남두육성·북두칠성에는 사자 한 마리, 삼태의 양옆·좌보·우필은 좁아서 구름만 있고, 양쪽 타미는 길이가 길어서 크고 작은 사자 세 마리가 새겨져 있다. 띠꾸미개는 표면의 칠이 마모되거나 결락되고 수리한 흔적은 있으나 총 20개가 모두 남아 있어 요대의 구성품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이순신 요대의 각 부분232>

요대는 원형의 나무로 만든 함(函)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다. 함은 위와 아래의 2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첩이나 별도의 잠금장치는 없이 위함을 아래함 위에 뚜껑처럼 덮는 방식이다. 위함과 아래함 모두 겉은 흑칠, 안은 주칠을 하였다. 흑칠한 면의 위나 아래 부분에는 직물의 경사와 위사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옷칠을 여러 겹 올릴 때 삼베와 같은 직물을 호칠로 붙여서 면을 정리하고 강도를 높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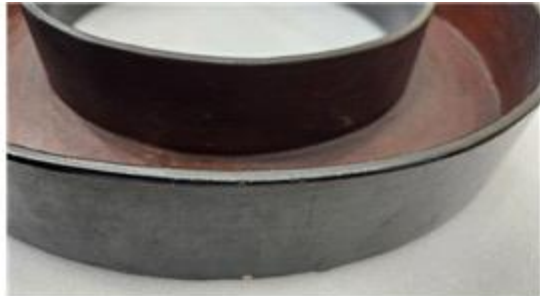
232) 품대의 선묘 도식화 출처: 中國社會科學考古研究所外, 定陵, 北京: 文物出版社, 1990, p.207. ; 이은주, 2011, p.140 재 인용.



<원형의 요대함>



<함 안에 담긴 요대>



<요대함의 세부사진들>

위함을 덮었을 때 바깥쪽 지름[外徑]은 48.5cm이고 안쪽 지름[內徑]은 26.1cm이다. 위함의 높이는 7.7~7.8cm, 아래함의 높이는 7.2~7.4cm로 위함이 0.5cm 정도 크지만, 수평으로 놓인 윗면의 나무판 두께가 약 1cm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1.5cm쯤 떨어져있게 된다.

위함과 아래함은 각각 3면의 나무판으로 구성된다. 바닥과 수평을 이루는 판, 외경을 이루는 판, 내경을 이루는 판이다. 나무판의 두께는 대부분 0.7~0.8cm이며, 각 부분을 수차례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1. 요대함의 세부치수(단위: cm)>

구분	위함(뚜껑)	아래함(본체)
높이	7.73~7.81	7.20~7.42
수평 판 두께	0.94~0.99	0.65~0.71
외경 판 두께	0.74~0.85	0.72~0.77
내경 판 두께	0.64~0.68	0.75~0.83
외경과 내경 사이거리	11.10~11.22	8.72~8.94



<요대함의 구조와 세부치수>

### ○ 내용 및 특징

요대는 허리 요(腰)와 띠 대(帶)가 결합한 단어로 글자 그대로 허리띠라는 의미이다. 조선시대 허리띠는 재료, 장식, 색상, 구조에 따라 옥대(玉帶), 서대(犀帶), 삽금대(鍍金帶), 흑각대(黑角帶), 남전대(藍戰帶), 홍목대(紅木帶), 야자대(也字帶)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웠으나, 요대는 허리에 두르는 띠를 폭넓게 지칭하는 단어였다. 허리띠의 명칭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료로서,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는 혁대(革帶)라고 불렀고 가죽 위에 띠돈을 부착하여 장식과 함께 지위와 품계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문무백관의 혁대는 품대(品帶)라고 불렀다.<sup>233)</sup>

『경국대전』에는 관리들의 복색과 품계에 따른 대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조선 말까지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먼저 조복(朝服)·제복(祭服)·상복(常服)에는 동일한 품대를 착용하였다. 1품이 착용한 서대(犀帶)는 띠꾸미개의 재료를

233) 『인조실록』 권12, 인조 4년 5월 25일 병인, “殿下冕服, 無革帶。所謂革帶, 卽百官朝服所着品帶也。”

무소뿔[犀]로 만들었으며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 수입에 의존해야했으므로 무척 귀했다. 2품은 금테를 두른 금대, 3~4품은 은테를 두른 은대를 사용하였는데, 금대와 은대는 띠꾸미개 판의 재료가 아니라 조각 여부에 따라 다시 세분화되었다. 즉 재료와 상관없이 판에 조각을 하면 새길 삽(鋌)자를 쓰고, 조각 없이 민자의 판을 사용하면 꾸미지 않을 소(素)자를 썼다. 다시 말해서 정2품은 조각이 있고 금테를 두른 삽금대(鍍金帶), 종2품은 조각없이 민자에 금테를 두른 소금대(素金帶), 정3품은 조각이 있고 은테를 두른 삽은대(鍍銀帶), 종3품과 4품은 조각없이 민자에 은테를 두른 소은대(素銀帶)로 규정되어 있었다. 5품 이하 관리들은 검은색 소뿔로 만든 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였다. 공복(公服)을 착용할 때에는 1품 관리의 동일한 재료로 만든 서대를 띠고, 2품에서 정3품까지는 여지무늬가 새겨지고 금테를 두른 여지금대(荔枝金帶)를, 종3품 이하는 흑각대를 착용했다. 이순신 일괄 유물의 요대는 나무에 조각을 하고 금테가 둘러져 있기 때문에 『경국대전』의 규정으로 보면 정2품의 삽금대에 해당한다. 임진왜란 중 한산도해전의 공적으로 1592년 음력 7월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랐기 때문에 삽금대를 착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충무공전서』에 충무공이 명나라 장수들로부터 받은 선물들 중에 유격(遊擊) 왕원주(王元周)로부터 받은 금대(金帶) 기록이 있으므로<sup>234)</sup> 선물 받은 물품일 가능성도 있다.

<표2. 『경국대전』에 기록된 품계별 대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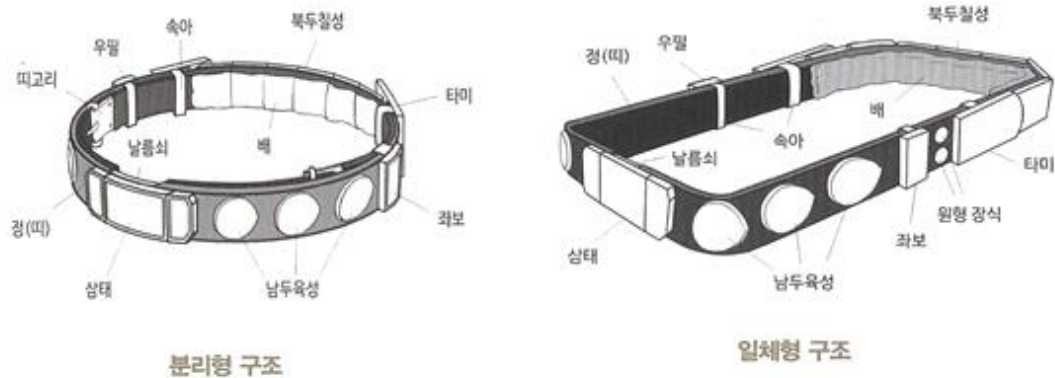
	조복(朝服) · 제복(祭服) · 상복(常服)	공복(公服)
1품	서대(犀帶)	서대(犀帶)
정2품	삽금대(鍍金帶)	여지금대(荔枝金帶)
종2품	소금대(素金帶)	
정3품	삽은대(鍍銀帶)	
종3품	소은대(素銀帶)	흑각대(黑角帶)
4품		
5~9품	흑각대(黑角帶)	

이순신 일괄 유물의 요대 유물은 조선 중기 허리띠의 구조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기 양식의 품대는 대체로 분리형 구조를 지닌 원형을 이루고, 이후 단순한 일체형 구조로 변화되면서 타원형(橢圓形)으로, 다시 방형(方形)으로 변화하였다.<sup>235)</sup> 둥근 원형의 품대 유물은 남아있는 사례가 매우 적다. 1542년 중종(中宗)이 하사한 이현보의 금서대(金犀帶)는 띠꾸미개의 형태와 배열 방식이 달라서 비교가 어렵고, 이를 제외하면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의 서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

234) 『이충무공전서』 권14, 부록6, 기실(하), 이씨유록(李氏遺錄).

235) 이은주,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복식』 61-10, 2011, p.139.

모대(玳瑁帶), 그리고 1820년대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김영(金瑩, 1789~1868)의 품대 유물이 좌우 1쌍의 띠고리가 존재하는 분리형 품대이다.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뒷띠의 양 끝에 있는 띠고리가 없어지면서 일체형 구조로 변화하였다.<sup>236)</sup> 현재 전해지는 대부분의 품대는 앞띠 한 쌍과 뒷띠 1개로 이루어진 방형의 일체형 구조이다.



<품대의 구조 변화><sup>237)</sup>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의 원형 서대>  
(경기도박물관)



<원형의 대모대(玳瑁帶)>  
(석주선기념박물관)

조선시대 품대와 같은 허리띠의 보관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관복함의 뚜껑에 품대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리띠만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었다.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된 요대는 허리띠만 별도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원형 요대함에 담겨 있었다. 다른 요대함 유물들을 비교해 보면 원형과 방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허리띠의 형태에 따른 것으로 품대 구조 변화 양상과 마찬가지로 보관하는 함의 형태 역시 원형에서 방형으로 변화하였다.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원형 요대함은 나무틀에 가죽을 바느질하여 씌운 후 주칠을 한 것으로 금속 자물쇠가 달려 있다. 호림아트센터 소장 원형 요대함은 2개가 있는데, 그중 요대함1은 나무틀에 가죽을 바느질하여 씌운 후 흑칠을 하였으며 앞쪽에는 자물쇠가, 뒤쪽에는 경첩이 달려 있다. 요대함2는 나무 위에 바느질 없

236) 위 논문, p.138.

237) 출처: 국립대구박물관 편, 『한국의 허리띠 - 끈과 띠』 특별전 도록, 2021, p.201.



이 가죽을 함의 바깥쪽에 덮어씌운 채로 풀이나 칠로 붙였다. 칠은 붉은색 기운을 띤다. 자물쇠나 경첩 없이 위함을 아래함 위에 뚜껑처럼 덮는 방식인데, 위함의 내경쪽 벽면이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비교해보면 이순신 유물 요대함은 위함도 아래함도 단면이 ㄷ자인데 비해서 호림아트센터 소장 요대함2는 위함은 ㄱ자, 아래함은 ㄷ자이다. 이렇게 만들면 크기를 정확하게 맞출 필요도 없고 제작도 빠르고 간편하다. 고려대학교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방형 요대함은 위함과 아래함을 덮어 끼우는 방식이다.

요대함의 높이는 대부분 8~9cm으로 비슷하지만, 가로와 세로 크기는 많은 차이가 난다. 같은 원형 요대함이라도 이순신 유물 요대함은 외경 48.5cm, 내경 26.1cm인데 비해 호림아트센터 소장 요대함들은 요대함1(흑칠)의 외경 35.0cm, 내경 21.0cm, 요대함2(주칠)의 외경 36.3cm, 내경 25.7cm이다. 벽면(바닥에 수직인 면)의 두께를 비교해보아도 이순신 유물 요대함은 0.7~0.8cm이고 요대함2(주칠)는 0.36cm이다.

이순신 유물의 요대함은 조선 중기 허리띠의 형태에 맞추어 원형으로 제작되었고, 비슷한 유물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크기가 매우 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들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전통적인 공예기법, 안정적인 조형성, 당시의 관복 및 품대의 보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우수한 유물이라 하겠다.



<이순신 유물 일괄 중 원형 요대함>



<원형 요대함>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원형 요대함1(흑칠)>  
(호림아트센터)



<원형 요대함2(주칠)>  
(호림아트센터)



<방형 요대함>  
(고려대학교박물관)



<방형 요대함>  
(서울역사박물관)

다만 명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통일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옷이나 물건 등을 담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통이므로 함(函)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보고서에서는 요대함(腰帶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품대의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띠집[帶家],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과대를 담은 상자라는 의미로 과대상(銜帶箱)이라는 명칭을 제시한 바 있어 서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통일안이 필요하다. 의복이나 물건을 담아 보관하는 곳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집[家], 함(函), 통(桶), 각(閣), 상(箱), 궤(櫃/甌)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 IV. 도배구대

##### ○ 현 상

복숭아[桃] 모양의 술잔[盃,杯]과 함께 받침을 갖추고 있어[俱臺] 한 세트를 이루기 때문에 보물 지정 당시 도배구대(桃盃俱臺)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술잔과 둥근 받침은 얇은 동판으로 제작한 후 금도금을 하였다.<sup>238)</sup> 술잔의 바깥쪽과 받침의 아래쪽의 금도금은 대부분 박락되어 없고 일부만 남아 있다.

도배 중 1점은 줄기가 결실되어 있으며 떨어진 부분에는 땀을 한 흔적이 남아 있다. 받침 2점은 모두 원형 테두리 부분이 갈라진 상태이며 특히 1점은 균열의 길이가 길다. 줄기가 원래대로 붙어있는 복숭아모양 술잔을 도배1, 줄기가 떨어져 나가고 땀질 흔적이 남은 술잔을 도배2라고 할 때, 도배1의 줄기가 시작되는 끝점에서 뽕족한 꼭지점까지의 길이는 8.45cm, 너비는 7.34cm이다. 도배2의 길이는 8.52cm, 너비는 7.11cm로, 도배 한 쌍은 서로 같은 형태와 비슷한 크기이다. 한편 술잔의 받침은 바깥쪽 지름이 15.5~15.8cm이고 턱이 저서 내려온 안쪽 지름은 12.8cm이다. 가장 바깥쪽에서 약 1cm 들어온 부분에 턱이 있는데 그 선을 따라 균열이 생겼다.

238)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p.66과 p.72.



<도배구대 : 복숭아모양 술잔과 받침>



<도배구대의 금도금 박락>



<도배1 : 줄기 있음>



<도배2 : 줄기 결실>



<받침 테두리 부분의 균열>

## ○ 내용 및 특징

현재는 금도금이 벗겨지고 받침에 균열이 생겼지만, 원래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복숭아 모양의 술잔과 손잡이로 사용되었을 줄기와 잎의 모양과 배치는 매우 우수한 조형성을 보여준다.



<복숭아모양 술잔>



<복숭아모양 술잔>

재료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복숭아 모양으로 만든 은술잔[銀桃杯]은 왕실에서 사용하거나 하사한 기록이 남아 있다.<sup>239)</sup>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표주박은 왕실에서 사용한 술잔 혹은 물잔이다. 복숭아를 반으로 가른 형태의 잔에 한쪽 끝에는

239) 『운양집(雲養集)』 권2, 시(詩) 북산집(北山集). “肅宗壬申. 宜醞玉堂. 因下銀桃盃. 鑄御製銘十六字以賜之. (숙종 임신년(1692)에 옥당(玉堂)에서 술을 배풀면서 은도배(銀桃盃)를 하사했다. 어제(御製) 명문 16글자도 새겨서 하사했다.)” ; 『임하필기(林下筆記)』 권20,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賜銀桃杯各一部于銀臺玉堂. 作銘鏤杯心. 曰酒敢多又. 伐德喪心. 寧逾三爵. 予訓汝欽.”

줄기와 잎사귀를 만들어 붙이고 가지 끝에는 둥근 고리를 달았다. 이순신 유물의 도배는 한 쌍이 거의 같은 크기와 형태인 반면, 은제 표주박은 크기가 다른 것이 쌍을 이루고 있다. 왼쪽의 작은 잔은 높이 3cm, 길이 8.8cm이고, 오른쪽의 큰 잔은 높이 5cm, 길이 13.3cm 이다. 받침이 없다는 점도 이순신 유물과의 큰 차이이다.



<복숭아 모양 잔>  
(국립고궁박물관)



<복숭아 모양 잔의 줄기와 잎사귀>  
(국립고궁박물관)

『이충무공전서』 「이씨유록(李氏遺錄)」에 충무공이 명나라 장수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유격(遊擊) 왕원주(王元周)로부터 받은 금대(金帶)와 진과총, 즉 과총(把揚) 진국경(陳國敬)으로부터 받은 화주배(花酒盃) 한 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sup>240)</sup> 현재 전해지는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

<표1. 충무공이 명나라 장수들로부터 받은 선물 기록(『이충무공전서』 「이씨유록(李氏遺錄)」)>

명나라 장수	선물
來遊擊	靑雲絹一端, 藍雲絹一端, 綾襪一雙, 雲履一雙, 香棋一副, 香牌一副, 浙茗二斤, 香桂二斤, 四靑茶甌十箇, 生雞四隻.
千揚 江鱗躍	春茗一封, 花盆一箇, 藤扇一把, 服履一雙.
千揚 朱守謙	酒盞六箇, 硃箋二張, 小盒一箇, 茶葉一封, 神仙爐一, 寫埃二.
千揚 丁文麟	暑襪一雙, 領絹一方, 兩茶一封, 胡椒一封.
把揚 陳子秀	繡補一副, 詩扇一把, 香線十枝.
陸卿	花幌一條.
許把揚	靑布紅布各一端, 金扇二把, 花幌一條.
遊擊 福日升	靑布一端, 藍布一端, 金扇四把, 杭筋二束, 生雞二首, 醜羊一肘.
遊擊 王元周	金帶一鑲, 嵌圖書匣一, 香盒一, 鏡架一, 金扇二把, 絲線一封, 茶壺一, 蘇梳二事.
千揚 吳惟林	鑲帶一事, 拜帖二十張.

240) 『이충무공전서』 권14, 부록6, 기실(하), 이씨유록(李氏遺錄).

명나라 장수	선물
把揚 陳國敬	花茶一封, 花酒盃一對, 銅茶匙二副, 細茶匙一副, 紅禮帖一箇, 全柬帖五張, 書柬帖十張, 古折柬八張, 硃紅筋十雙.
季永荐	眞金扇一把, 汗巾一方, 蒲扇一把, 粗幌二條.
旗牌 王明	藍布一端, 枕頭花一副, 青絹線一封.
把揚 龔璣	紅紙一副, 浙茶一封, 茶匙六事, 蘇針一包.
中軍 王啓予	藍帶一事, 梳大細二事.

□

## ○ 현 상

이순신 유물 일괄은 지난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장검 2점, 옥로 1점, 요대 1점, 도배와 받침 한 쌍 4점으로 모두 4건 8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검은 칼날 137.3·137.8cm, 칼자루 59.5·59.4cm, 칼집 144.5cm로 두 점이 대략 비슷한 크기로 파악된다. 검과 칼집의 짝이 분명하지 않고 칼집에 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전체 크기를 명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최대 197.2cm로 확인된다.

칼집은 나무로 형태를 만들고 어피로 감싼 후, 여러 차례 옷칠을 올려 마무리하였고 끈목이 달렸다. 끈목을 연결하는 일체형 패용 장식과 고리는 철제로 만들었고 표면은 은입사로 장식하였다. 양쪽 끝부분의 마개도 철 표면에 은입사로 문양을 새겨넣었다. 칼날에는 각각 ‘三尺誓天 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라는 글자가 음각되었다. 칼자루는 어피로 감싸고 주철한 후에, 그 위로 가죽끈을 교차로 매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칼자루의 양쪽 마개 부분도 칼집과 마찬가지로 은입사 장식이 나타난다.

칼자루의 끈매기는 후보되었고 헐거워진 마개나 철제 부분의 녹슨 흔적에서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가 보이지만 선명한 칼날, 덧쇠[護刃], 코등이, 칼자루의 연결, 칼집과 패용 장식 등 전체적으로 양호한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옥로는 연꽃 줄기 사이에 노니는 해오라기를 투각한 윗부분과 금속제 받침으로 이루어졌으며, 직물과 칠함이 함께 전한다. 직물과 칠함은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섬세하게 조각된 옥로는 약간 결실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완형으로 남았으며, 받침에는 갓머리에 연결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 2개씩 3곳에 있다.

요대는 가죽으로 만들어 표면에 옷칠하였다. 띠돈은 나무로 여러 형태의 사각형과 물방울 모양을 만들었으며, 내부에는 동물과 구름을 조각하였다. 그 윗면은 도

금하고 주칠하였다. 띠돈 일부는 탈락되어 고정된 흔적이 보이고 부분적으로 들뜬 상태도 있지만 요대 전체 외형과 장식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요대의 형태에 맞게 고안된 고리형 칠함에 보관되어 전한다.

도배는 받침과 세트를 이루며, 두 쌍이 전한다. 복숭아 모양의 잔과 둥근 받침대로 구성되고 동판으로 제작한 후 표면을 도금하였다. 도배 한 점은 손잡이 역할을 하는 줄기가 결실되었고 받침대의 원형 테두리 부분은 일부가 갈라진 상태이다. 도배와 받침대 모두 뒷면의 금도금이 잘 남아 있다.

## ○ 내용 및 특징

### 1. 장검

#### 1-1) 명문과 장식기법

장검 두 점의 칼날에는 각각 ‘삼척서천(三尺誓天) 산하동색(山河動色)’, ‘일휘소탕(一揮掃蕩) 혈염산하(血染山河)’라는 명문이 있다(도1). ‘석자의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반색하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이네’로 이해된다. 글자를 새긴 부분은 황색이 남아, 끌로 파고 바탕 재료와 다른 물질을 채워 넣는 입사기법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도2). 일반적으로 입사는 장식할 공간을 파내고 금이나 은을 실로 만들어 두드려 넣는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글자를 새기고 구리(85%)와 아연(15%)을 섞은 황동을 밀착해 넣은 다음 표면에 열을 가하여 녹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입사 방식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기술로 보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많지 않아 유용하며, 향후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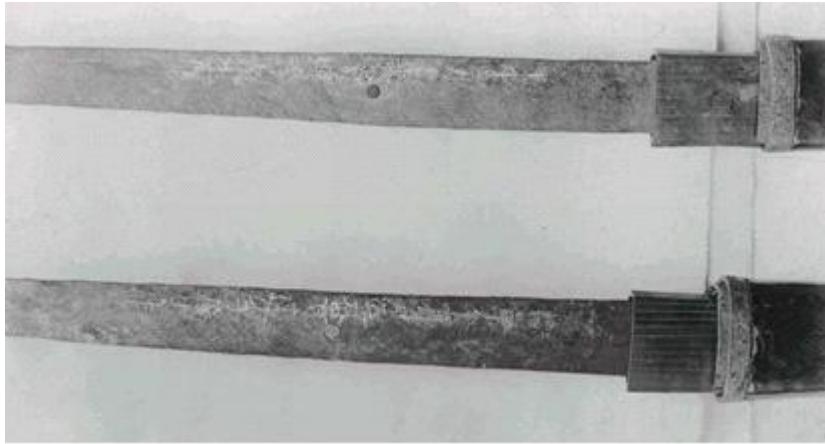


<도1. 장검의 칼날 명문>



<도2. 칼날 명문의 세부(입사기법)>

장검의 습베에도 명문이 있는 것으로 전한다. 현재 직접 확인은 불가하지만 1928년 촬영된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戊生作’의 명문을 볼 수 있다(도3). 이를 통해 갑오년인 1594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난중일기』 1595년 7월 21일 내용에 등장하는 태구련이 습베에 등장하는 태귀련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고 있어, 장검의 제작 장인에 관한 단서를 전해준다.



<도3. 습베의 명문>

장검의 칼날과 습베에 남은 명문은 충무공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시구가 포함되어 있고 제작된 시기와 장인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글자를 새기고 장식한 방식에서, 조선시대 입사 기술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크다.

한편, 칼집에 달린 일체형 패용 장식과 고리, 칼집의 양쪽 끝부분의 마개, 그리고 칼자루의 양쪽 마개 부분 등에도 입사기법이 확인된다(도4). 이 부분은 모두 철제로 만들고 은입사로 장식하였는데, 표면에 나타나는 질감을 통해 쪼음입사의 활용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는 이전 시대부터 유행하던 끼움입사에서 쪼음입사의 제작이 크게 늘어난다.



<도4. 칼집의 세부(입사기법)>

기물의 표면을 선이나 면으로 파내고 그곳에 금은사를 끼워 넣는 방식을 끼움

입사라고 부른다. 반면 장식할 부분에 끝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사선을 반복적으로 새겨서 미세한 홈을 만들고 그 위에 무늬를 박아 넣는 방식을 쪼음입사라고 한다. 철제 기물의 표면에 요철을 만들어 선이나 판을 부착하여 장식하는 기법은 조선시대 널리 유행하였으며, 장검과 같은 철제 무기에도 다수 나타난다.

입사된 문양을 보면, 칼자루 끝부분의 둥근 마개 밑바닥은 직선으로 격자문을 넣었고 칼집에 달린 일체형 패용 장식과 고리에는 직선을 위아래 두르고 사이에는 거치문이나 지그재그문으로 장식하였다. 그 밖에 칼집의 양쪽 마개와 칼자루의 마개 옆부분에는 당초문과 연화문을 화려하게 입사하였다. 철제 바탕이 다소 녹슬어 붉은빛이 감돌고 입사된 무늬가 박락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원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순신 장검은 글자와 문양을 모두 입사기법으로 표현하였지만 재료와 제작 방식의 세부는 차이가 있다. 충무공의 기세와 강개한 심정이 담긴 칼날의 문구는 황금빛이 돌면서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 황동을 사용하여 열로 압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한편 칼집과 칼자루에는 은으로 쪼음입사를 활용하여 장식하였다. 특히 좁은 공간에는 지그재그와 같은 기하문, 마개 밑바닥은 격자문, 띠를 두르는 부분은 당초문, 칼집의 마개는 연화와 모란을 시문하였는데, 이처럼 원형이나 타원형, 띠를 두르거나 고리 등의 공간에 어울리는 문양을 선택하여 적절하게 배치한 점에서 장인의 역량이 돋보인다.

## 1-2) 시대성과 희소성

이순신 장검은 1969년 4월 26일에 덕수 이씨 14대 종손 이용렬이 대여하는 방식으로 현충사에 소장되었으며, 이후 15대 종부 최순선에 의해 2009년 4월 3일 대여에서 기탁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가문의 유보로 전하는 장검은 이순신(1545~1598)의 소유품이 명확하고 습베에 남긴 명문을 통해 1594년의 제작 시기와 태귀련과 이무생이라는 장인의 이름도 파악된다. 조선시대 소유자와 제작 시기, 장인의 이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장검은 매우 희소하다. 또한 전체 길이가 197.2cm로 조선시대 도검 가운데 가장 크고 한 쌍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양쪽 칼날에 새긴 ‘삼척서천(三尺誓天) 산하동색(山河動色)’과 ‘일휘소탕(一揮掃蕩) 혈염산하(血染山河)’는 대구를 이루며, 두 검은 크기와 외형, 장식 등도 거의 비슷하다.

이순신과 연관된 검은 모두 8점이 알려져 있다. 4점은 명의 신종에게 하사받은 귀도(鬼刀)와 참도(斬刀) 각 한 쌍이며, 2점은 쌍룡검으로 실전에서 사용했다고 전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충무공 사후에 중국에서 받은 귀도와 참도, 그리고 소재가 불명한 쌍룡검의 현황과 비교해 보면, 이순신 장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8점 중에서 생전에 소유했던 검이면서, 제작 시기와 장인을 알 수 있고 현재 온전한 모습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검이 제작된 1594년은 임진왜란(1592~1598)의 시기였다. 전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기의 변화가 불가피한 시대였고 이는 도검의 제작에도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순신 장검의 외형과 세부 장식은 조선의 전형을 보이지만 일부에는 일본의 특징이 반영되었다. 특히 칼날의 형식과 날의 끝부분, 스페의 형식과 명문, 국화 모양의 코등이, 칼자루의 끈매기 등은 일본도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조선의 법제에 준하는 도검이면서, 시대의 변화가 적용된 것이다. 비록 적국이라도 무기의 장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를 활용하는 의연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순신 장검은 국난을 수습해야만 했던 절박한 시기, 조선 도검의 변화 과정을 증명해 주는 유물로도 의의가 있다.

## 2. 옥로

옥로는 갓의 윗부분에 올리는 장식인 정자(頂子)로, 입식(笠飾)의 한 종류이다(도 5). 정자에 관한 기록은 1367년(공민왕 16) 『고려사(高麗史)』 卷72, 志 卷第26, 輿服 1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신분에 따라 흑립에 백옥정자(白玉頂子), 청옥정자(靑玉頂子), 수정정자(水精頂子)를 달았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의장(儀章), 관(冠)의 일품(一品) 항목에는 ‘笠飾用銀 大君用金’이라고 명시되었다. 즉 대군은 입식으로 금을 사용하고 정3품 이상은 은으로 장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과 관찰사, 절도사는 옥을 사용하였다. 한편 조선 말기 『대전회통(大典會通)』(1865) 예전(禮典), 의장(儀章)에 ‘時原任大臣將臣, 戎服軍服時笠飾, 玉鷲’라는 내용도 확인된다. 전현직 대신이나 장신이 의식에 입는 용복과 군복에 입식으로 옥로를 하였으며, 외국으로 나가는 사신도 착용하였다.

옥로는 경기도박물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품과 같이 옥으로만 제작된 예도 있지만(도6), 갓에 연결하는 부분을 금속으로 만든 경우도 많다. 옥로는 대부분 해오라기를 형상화하였으며, 실제 새의 수나 자세의 표현은 다양하다. 해오라기는 백로를 뜻하며, 조선시대 청백리를 상징하는 새로 자리하였다. 고위 신분이나 선비들이 사용하는 물품에 장식으로 나타나고 시와 그림에도 자주 등장한다.



<도5. 옥로, 이순신 유물>



<도6. 옥로, 높이 3cm, 경기도박물관>

이순신 유물은 연꽃 줄기 사이에 노니는 세 마리의 해오라기를 조각하였고 금동 받침 위에 꽃잎으로 감싸듯 연결되어 있다. 활짝 핀 연잎을 여러 모양으로 배치하고 줄기 사이로 해오라기 세 마리가 서 있는 모습을 투각하였는데, 이와 거의 유사한 예가 중국 상해박물관에 전하고 있다(도7). 이 유물은 받침대는 없고 높이 5cm, 너비 4.6cm 크기로 제작되었다. 이순신 유물의 받침대를 제외한 크기와 거의 유사하며, 연꽃과 해오라기가 등장하는 구성과 투각된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옥로는 중국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7. 옥로, 중국 원, 높이 5cm, 너비 4.6cm, 上海博物館>

옥로의 받침대는 동으로 만들고 도금하였으며, 세 마리의 박쥐문이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가장자리에는 두 개씩 세 곳에 바늘구멍을 내어 갓머리에 고정할 수 있

게 마무리하였다. 박쥐의 ‘복(蝠)’은 중국에서 ‘복(福)’과 음이 같아 명대 후기부터 길상문으로 선호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청의 영향을 받아 18세기부터 유행한 장식 문양이다. 받침대의 박쥐문은 조선 후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 옥로의 제작 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옥로는 이순신 후손의 유물이거나 받침대가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옥로가 중국에서 유입된 유물이고 이러한 외형은 원대부터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받침대만 후대에 우리나라에서 추가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제시할 수 있다.

### 3. 요대

요대는 가죽으로 만들어 표면에 옷칠하였다(도8). 띠돈은 나무로 여러 형태의 사각형과 물방울 모양을 만들고 그 내부에는 동물과 구름을 조각하였다. 큰 갈기가 있는 상서로운 동물이 한 마리 혹은 세 마리가 구름을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조각의 솜씨가 우수하다. 표면에는 도금하고 주칠한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띠돈의 테두리는 금속으로 마감하였고 버클의 옆 부분에 금속으로 꽃무늬를 표현하였다. 『난중일기』에 명나라 장수인 유격(遊擊) 왕원주(王元周)로부터 받은 선물 목록 가운데 ‘금대 하나(金帶一)’가 언급되었는데, 이 유물의 유래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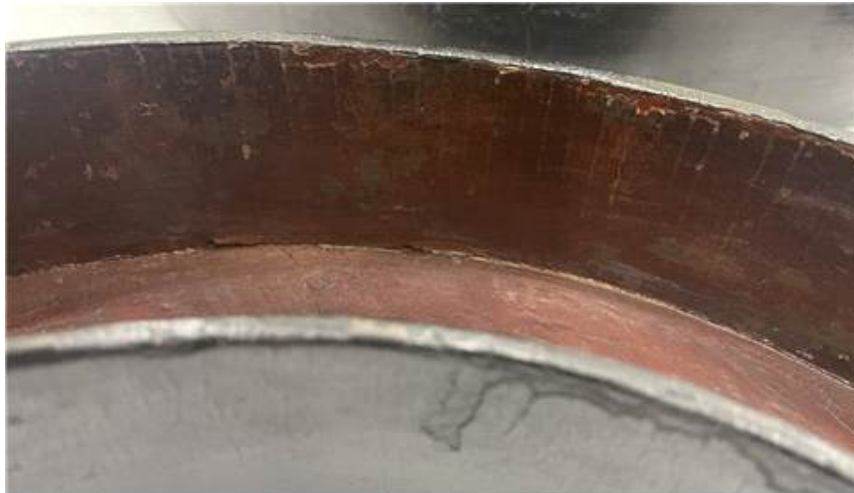
<도8. 요대>

요대는 원형의 칠함과 함께 전하고 있다(도9). 요대를 넣을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로 고리 형태를 지닌다. 나무로 만들고 표면은 흑칠하였다. 지름은 48.5cm에 이르고 요대를 넣는 공간은 11.2cm의 너비를 가진다. 통나무의 원형 테두리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여, 고리 형태의 함을 만드는 제작기법을 엿볼 수 있다. 즉 바닥면은 이음새가 보이지만 원을 이루는 옆면의 판은 통나무의 원형을 잘라서 만든 것으로 파악된다(도10). 이러한 특징을 가진 칠함이 요대와 세트를 이루는 예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요대는 중국에서 선물로 전한 것이지만 보관함인 칠함은 후대에 국내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소장품을 잘 보관하기 위하여, 용도에 맞게 제작한 칠함도 의미가 크다. 요대와 세트를 이루는 구성

품이라는 점에서도 보물로 일괄 지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9. 고리형 철함>



<도10. 철함의 옆면 내부>

#### 4. 도배구대

도배는 받침과 세트를 이루며, 한 쌍이 전한다. 복숭아 모양의 잔과 둥근 받침대로 구성된다. 복숭아를 반으로 자른 듯한 모양을 잔을 만들어 사용한 것은 일찍부터 나타나는데, 원대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였다. 원대 도배 중에는 ‘수(壽)’나 ‘수비선도(壽比仙桃)’와 같은 글귀가 있어,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알 수 있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명나라 장수인 과총(把總) 진국경(陳國敬)에게 받은 선물 목록 가운데 ‘화주배 한 쌍(花酒盃一對)’과 대응하는 유물로 추정된다.

#### ○ 참고문헌

- 『亂中日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武藝圖譜通志』 (디지털 장서각).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조선시대의 도검』, 2004.
- 육군박물관, 『朝鮮의 刀劍, 忠을 베틀다』, 2013.
- 현충사관리소,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2014.
- 엄소연, 「조선후기 박쥐상징 회화와 공예품의 분석」, 『고문화』 69, 2007.
- 조혁상, 「忠武公 李舜臣의 劔에 대한 小考」, 『이순신연구논총』 10, 2008.
-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순신 장검 혈조 내 안료의 규명 및 제거」, 『보존과학학회지』 31-4, 2015.
- 이선진, 「조선후기 철제입사공예품 연구」, 『동악미술사학』 17, 2015.
- 장경희, 「조선과 청대 궁궐 건축에 보이는 박쥐문의 유입과 그 영향-19세기 중반 樂善齋와 恭王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5, 2022.

□ (조사 분야: 장검)

##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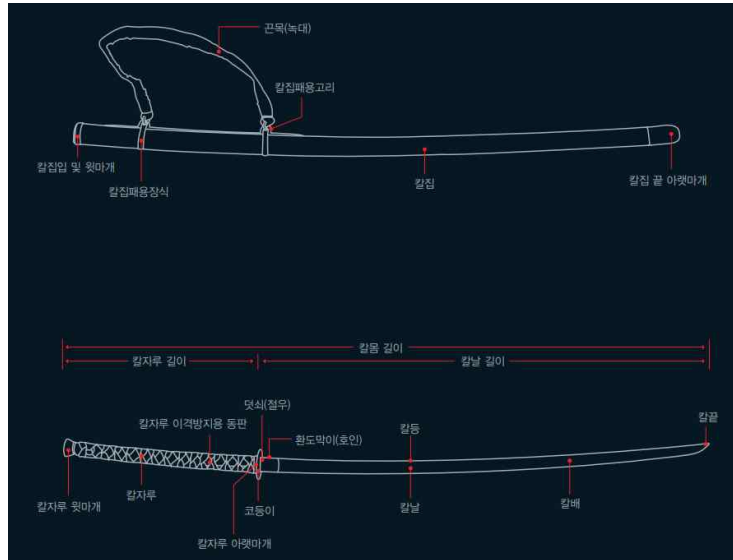
### 1. 유물 개요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칼몸 2자루와 칼집 2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칼몸의 칼날에는 이순신의 친필 글씨로 ‘三尺誓天山河動色(편의상 ‘삼척서천검’으로 호칭)’이, 다른 한 칼몸의 칼날에는 ‘一揮掃蕩血染山河(편의상 ‘일휘소탕검’으로 호칭)’가 각각 음각으로 금동입사(金銅入絲)되어 있다. 2022년 12월 28일에 실측한 ‘삼척서천검’과 ‘일휘소탕검’의 제원은 칼몸 길이 196.8·197.2cm, 칼날 길이 137.3·137.8cm, 칼자루 길이는 59.5·59.4cm이며, ‘삼척서천검’과 ‘일휘소탕검’의 칼집 길이는 모두 144.5cm이다.



<‘삼척서천검’(위 사진의 아래쪽)과 ‘일휘소탕검’(위 사진의 위쪽)>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각부 명칭은 다음과 같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각부 명칭도>

## 2. ‘삼척서천검’과 칼집의 현상

‘삼척서천검’의 칼몸 형태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휘어져 있으며, 제작된 지 429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삼척서천검’의 칼날부분은 단면 6각형의 구조이고, 칼끝은 날카로운 뱀 머리 형상이다. 길이 66.5cm, 너비 9.1mm 되는 피홈(血漕) 1개가 칼날 좌우측(칼자루를 손에 잡고 칼등을 하늘 쪽에 두었을 때 기준) 칼등 가까이에 파여져 있다. 칼날 좌우측에는 물결문양 3개가 따로따로 날부분 가까이에 음각되어 있다. 우측 칼날의 코등이(古銅) 가까이에 있는 물결문양과 피홈 사이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글씨체로 ‘三尺誓天山河動色’ 8자가 음각으로 금동입사되어 있는데, 글자 1개의 가로×세로 규격은 1.1cm이고, 글자 전체 길이는 11.7cm이다.

‘삼척서천검’의 칼날과 칼자루 사이에는 국화문양의 철 재질로 된 지름 9.5cm의 둥근 코등이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화문양의 꽃잎수는 19개이고 꽃잎마다 가운데가 모두 투각되어 있다. 코등이의 칼날쪽에는 코등이를 고정시켜주는 타원형의 얇은 덧쇠(切羽)가 설치되어 있고, 덧쇠는 금동 재질에 테두리가 꽃잎문양으로 되어 있다. 덧쇠와 칼날 사이에는 칼날의 날카로운 날부분과 코등이를 구분지어 주는 황동(黃銅) 재질의 호인(護刃)이 칼날을 빙 둘러 설치되어 있으며, 호인의 너비는 4.83cm이고, 호인의 표면에는 21개의 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칼날방향을 따라 음각되어 있다.

‘삼척서천검’의 스페에는 코등이로부터 약 18cm 거리에 구멍 1개가 있으며,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의 13자가 코등이에서 칼자루 방향으로 음각되어 있다.

이 명문을 통하여 ‘삼척서천검’은 1594년(갑오)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삼척서천검’의 칼자루는 단면이 타원형으로서 높이 5.5cm, 너비 2.76cm이며, 끝을 어피로 감싸서 주칠을 하고, 그 위에 너비 1.9cm 되는 가죽끈을 교차매기 방식으로 감았다. 칼자루 아랫마개는 코등이를 고정시켜주고 있으며, 형태는 타원형 고리로서 너비 1cm, 타원높이 5.5cm의 철 재질이고, 표면에는 전통문양을 은입사(銀入絲)하였다. 칼자루 윗마개는 깔대기형으로서 길이 2.58cm, 깔대기 하부너비 5.85cm, 깔대기 상부너비 4.27cm, 밑바닥 타원너비 3.28cm이며, 깔대기 좌우측(칼자루를 손에 잡고 칼등을 하늘 쪽에 두었을 때 기준) 중앙에 구멍을 뚫어 깔대기를 칼자루에 목재편으로 고정하였고, 깔대기 표면에는 당초문과 모란꽃 문양을, 깔대기 밑바닥에는 격자문을 은입사(銀入絲)하였다. 칼자루와 스페를 고정하기 위한 지름 4.4mm의 목정혈(木釘穴) 1개가 윗마개 끝단으로부터 42.5cm 거리에 있으며, 칼자루의 우측 어피 위 목정혈에는 1개의 돈을새김 문양 동판(銅版)을 덧대고 동판에 구멍(목정혈)을 뚫어 목재편을 스페에 관통시켰으며, 그 위에서 가죽끈을 감았다. 술을 메달기 위한 유소혈(流蘇穴) 1개가 칼자루 좌측 어피 위, 윗마개 끝단으로부터 16.5cm 거리에 있으며, 구멍(유소혈)에는 1개의 돈을새김 문양 동판을 덧대고 동판에도 구멍을 뚫어 구멍의 지지력을 보강하였는데, 구멍 부위의 동판 일부가 탈락되었다. 칼자루의 형태는 조선의 군용환도의 전형적 형태로 제작되었고, 돈을새김 문양 동판이 일부 탈락된 것을 제외하면 최초 제작 당시의 모든 장식과 부속이 온전히 남아 있다.

‘삼척서천검’의 칼집은 목재로 외형을 만든 다음 어피로 감싸서 마감하였다. 어피 위에는 어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칠(朱漆)과 옷칠을 수차례 반복하여 내구성을 높였다. 칼집 윗마개는 철 재질이며, 그 표면에 연화당초문이 은입사되어 있고, 철 재질의 아랫마개에는 모란꽃 문양이 은입사되어 있다. 철 재질의 패용장식과 2환 연결 패용고리는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있고, 패용장식과 패용고리의 표면에는 전통문양이 섬세하게 은입사되어 있다. 패용고리에는 가죽끈이 전통적 방식으로 제작되어 원형 그대로 매여져 있다. 칼집은 조선식 군용도검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최초 제작 당시의 전체 장식과 부속이 거의 온전히 남아 있다.

### 3. ‘일휘소탕검’과 칼집의 현상

‘일휘소탕검’의 칼몸 형태, 칼날부분, 칼날과 칼자루 사이의 코등이, 덧쇠(切羽), 호인(護刃), 스페의 명문, 칼자루, 칼집 등은 모두 ‘삼척서천검’과 동일한 형태와 규격이며,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만 약간 다르다.

‘일휘소탕검’의 칼날부분의 피홈(血漕)은 길이 64cm, 너비 9.1mm이다. 우측 칼날의 코등이 가까이에 있는 물결문양과 피홈 사이에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글씨

체로 ‘一揮掃蕩血染山河’ 8자가 음각으로 금동입사(金銅入絲)되어 있는데, 글자 1개의 가로×세로 규격은 1.1cm이고, 글자 전체 길이는 12cm이다.

‘일휘소탕검’의 황동(黃銅) 재질의 호인 너비는 4.55cm이고, 호인의 표면에는 24개의 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칼날방향을 따라 음각되어 있다.

‘일휘소탕검’의 칼자루는 단면이 타원형으로서 높이 5.5cm, 너비 2.91cm이며, 겉을 어피로 감싸서 주철을 하고 그 위에 너비 2.08cm 되는 가죽끈을 교차매기 방식으로 감았다. 칼자루 아랫마개는 타원형 고리형태로서 너비 1.2~1.3cm, 타원높이 5.6cm의 철 재질이고, 표면에는 전통문양을 은입사(銀入絲)하였다. 칼자루 윗마개는 깔대기형으로서 길이 2.7cm, 깔대기 하부너비 5.55cm, 깔대기 상부너비 4.53cm, 밑바닥 타원너비 3.36cm이며, 깔대기 좌우측(칼자루를 손에 잡고 칼등을 하늘 쪽에 두었을 때 기준) 중앙에 구멍 1개를 뚫어 깔대기를 칼자루에 목재편으로 고정하였다. 칼자루의 좌측 어피 위 유소혈에는 1개의 돈을새김 문양 동판(銅版)을 덧대고 동판에도 구멍을 뚫어 구멍(유소혈)의 지지력을 보강하였는데, 동판은 ‘삼척서천검’이 일부분 탈락된 것과는 달리 ‘일휘소탕검’은 완전한 형태이다. 칼자루의 형태는 조선의 군용환도의 전형적 형태로 제작되었고, 최초 제작 당시의 모든 장식과 부속이 온전히 남아 있다.

## ○ 내용 및 특징

### 1. 이 칼의 ‘장검’ 명칭에 대하여

고대의 동양에서는 칼을 호칭할 때, 일반적으로 날이 한쪽에만 있는 것은 도(刀), 양쪽에 있는 것은 검(劍,劔)이라 하였다(『說文』 刀部, 刃部). 이와 같은 도와 검의 구분이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서로 혼용하여 나타난다. 예컨대 충무공 이순신의 유물인 ‘삼척서천검’과 ‘일휘소탕검’은 날이 한쪽에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장도(長刀)라야 옳지만 『이충무공전서』(1795) 편찬자가 장검(長劔)이라 호칭한 것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날이 한쪽에만 있는 긴 칼을 장검으로 호칭하는 것은 이미 『국조오례서례』 「병기도설」(1474)에 검(劔) 혹은 장검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에는 장검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환도(環刀)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사례는 『용원필비』(1813) 환도조에 잘 나와 있다.

이순신 칼의 명칭과 관련하여 『난중일기』 을미년 7월 21일 기사에는 이순신이 충청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박종남, 신호)에게 칼 1자루씩을 선물하면서 그 이름을 환도(環刀)라 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이순신의 유물로 전해오고 있는 칼 2개도 엄격하게 말하면, 장검이 아니라 환도(環刀) 또는 장도(長刀)라야 옳바르다. 그



러나 이미 오랫동안 장검으로 불려왔으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으로 불려도 문제될 것은 없다.

## 2.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글씨체로 음각된 칼의 명문

‘삼척서천검’의 칼날에는 ‘三尺誓天山河動色(삼척서천산하동색)’이 새겨져 있으며, 그 뜻은 ‘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놀라 반색하네’이다. ‘일회소탕검’의 칼날에는 ‘一揮掃蕩血染山河(일회소탕혈염산하)’가 새겨져 있으며, 그 뜻은 ‘한 번 휘둘러 소탕하니 피가 산하를 물들이네’이다. 명문의 글씨체는 이순신의 친필 일기에 나타나는 글씨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순신의 친필 글씨를 칼에 새긴 것이 확실하다.

시구 자체도 충무공 이순신의 강개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빼어난 시문이며, 더욱이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을 그대로 새겼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깊다.

## 3.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스페 명문

두 칼의 스페에는 해서체로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의 13자가 동일한 규격과 같은 글씨체로 음각되어 있다. 이 명문을 통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1594년(갑오)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난중일기』 을미년(1595) 7월 21일 기사에는 “식후에 태구련(太九連)과 언복(彦福)이 만든 환도(環刀)를 충청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박종남, 신호)에게 각각 1자루씩 나누어 보냈다.”라고 나와 있다. 이 일기에 나오는 태구련은 칼의 스페에 나오는 태귀련과 동일한 인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조선시대에 제작자와 제작시기, 소장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유일한 칼이라 할 수 있다.

## 4.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용도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조선시대 군용도검 중 가장 크고 길이도 197.2cm로 가장 긴 칼이다. 이러한 이유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흔히들 실전용이 아니며, 의장용으로서 장수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하거나, 재앙을 막기 위한 벽사의례용 또는 위인을 기리기 위한 사후 봉납용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들은 큰 체구를 가진 충무공 이순신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주장들이다.

충무공 이순신은 체구가 매우 크고, 8척 장신으로 전해온다. 『백호전서(白湖全書)』 권23, 사실(事實), 「통제사이충무공유사(統制使李忠武公遺事)」에 “공은 큰 체구에 용맹이 뛰어났다(公長軀精勇)”라고 하였다. 「통제사이충무공유사(統制使李忠武公遺事)」의 저자는 윤휴(尹鑄, 1617~1680)이며, 윤휴는 충무공 이순신의 집사

(鈴下), 하인(蒼頭) 및 충무공을 섬긴 사람들을 만나서 충무공의 용모에 대해 물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윤희의 서모(庶母)는 충무공 이순신의 서녀이며, 윤희의 부친 윤희전(尹孝全)의 첩이었다. 그러므로 충무공 이순신의 체구가 컸다는 윤희의 말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다.

한편, 『남파선생문집(南坡先生文集)』 권3, 칠언고시(七言古詩), 「제충민사(題忠愍祠)」에는 통제사 이순신을 “키가 흰칠하여 8척 장신에 원숭이처럼 팔도 기네(頎頎八尺猿臂長).”라고 하였다. 「제충민사(題忠愍祠)」의 저자 홍우원(洪宇遠, 1605~1687)은 충무공 이순신의 사위인 홍비(洪斐)의 장조카였으므로, 그는 숙모(이순신의 딸)나 숙부로부터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가 언급한 8척 장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충무공전서』 권12, 「노량조이통제(露梁弔李統制)」 시에는, “팔척장신공의 몸을 귀신이 보호했네(八尺全軀神鬼護)”라고 하였다. 그 시의 저자는 맹주서(孟胄瑞, 1622~1679)로, 그의 본관은 신창(충청남도 아산시)이었으므로 맹주서도 어떤 경로로든지 이순신의 신체적 정보를 나름대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3가지 사례로서 충무공 이순신은 체구와 키가 보통 사람보다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순신의 조카 이분(李芬, 1566~1619)이 쓴 이순신의 「행록」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즉, 이순신이 무과에 합격한 후 선영의 무덤에 성묘를 하는데, 무덤 앞에 쓰러져 있는 석인(石人)을 하인들 수십 명이 달라붙어 일으켜 세우고자 했으나 결국 일으키지 못한 것을 이순신이 혼자 등으로 밀어 세웠다는 일화에서 이순신은 대단한 용력과 체구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귀련 등은 이순신의 지시를 받아 칼을 만들면서 이순신의 용력과 큰 체구를 고려하여 보통 칼보다 크게 만들었을 것이며, 그 칼은 당연히 이순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실전용 칼이어야만 했을 것이다. 당시 천하에 막강한 왜적과 치열하게 대치 중이면서 장수가 한가하게 의장용 또는 벽사의례용 칼을 만들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의장용이 아닌 실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길이는 197.2cm, 무게는 4.3kg이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1790)의 칼과 비교해 보면, 쌍수도(雙手刀)의 길이와 거의 같다. 다만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무게가 약간 더 무거워서 실전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대단한 용력과 큰 체구를 가진 이순신과 같은 장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 여겨진다.

<표1.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칼과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규격 비교>

검명	전체 길이	칼날 길이	칼자루 길이(柄長)	무게
雙手刀	6자 5치 (197cm)	5자 (151.5cm)	1자 5치 (45.5cm)	2근 8냥 (1.6kg)
月刀	9자 2치 (279cm)	2자 8치 (84.8cm)	6자 4치 (193.9cm)	3근 14냥 (2.5kg)
挾刀	10자 (303cm)	3자 (90.9cm)	7자 (212.1cm)	4근 (2.6kg)
충무공 장검	6자 5치 (197.5cm)	4자 5치 (136.9cm)	2자 (59.5cm)	(4.3kg)

\* 1자=30.3cm(영조척), 1근=641.9g

박홍수, 「李朝 尺度標準에 관한 考察」, 『소암이동식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태학사, 1981 참고.

## 5. 충무공 이순신 장검에 도입된 외래적 요소

칼날의 형태가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은 『국조오례서례』 「병기도설」(1474)의 검(劔)과 장검(長劔)에서 보듯이 조선의 전통 방식이지만, 충무공 장검의 칼끝 형태와 피홈의 형식, 스페의 형식과 스페에 제작자의 이름과 제작시기를 새겨 넣는 방식, 칼자루와 스페의 결합을 위한 목정혈, 국화모양의 코등이, 칼자루 끈매기 등은 일본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동아시아에서 칼 제조의 선진국은 일본이었고, 조선은 그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하며 일본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히 임진왜란 해전을 통해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대량의 일본 무기를 노획하였으며, 일본도도 그중의 하나였다. 조선은 우리 칼의 전통방식에 자연스럽게 일본도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을 맞이하였고,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최초로 발현된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일본도의 장점 요소는 조선 후기의 우리나라 도검문화에 그대로 흡수되어 보편화되었다.

그러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에 일본도 요소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장검의 가치를 폄하할 수는 없다.

## 6. 충무공 이순신 장검에 집약된 당대의 제철기술과 공예기법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칼날은 단면 6각형의 고난도 기술이 구현되었고, 제작된 지 429년이 지난 지금에도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 장인의 뛰어난 제철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에는 당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나라 장인의 공예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칼날에 음각된 아름다운 물결문양, 전혀 부식되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코등이와 덧쇠(절우) 및 호인, 칼자루 윗마개와 아랫마개 및 칼집 패용장식과 고리에 조선 특유의 문양을 섬세하게 은입사한 기법, 칼자루의 2개 구멍에 돌을새김 문양의 동판을 덧댄 기법, 패용장식에 달린 조선의 독특한 가죽끈 방식, 그리고 칼자루와 칼집의 어피에 주철을 반복하여 시행함으로써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점 등이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예술적 백미는 한문세대에서도 시적 의미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三尺誓天山河動色(삼척서천산하동색)’과 ‘一揮掃蕩血染山河(일휘소탕혈염산하)’라는 이순신의 시구가 그것도 우리 민족이 가자 존경하는 위인인 이순신의 친필 글씨체로 새겨져 있다는 점이다.

## ○ 참고문헌

- 『亂中日記』.
- 『李忠武公全書』.
- 『國朝五禮儀序例』.
- 『戎垣必備』.
- 『武藝圖譜通志』.
- 『白湖全書』.
- 『南坡先生文集』.
- 박홍수, 「李朝 尺度標準에 관한 考察」, 『소암이동식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1981.
-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武器發達史』, 1994.
- 육군박물관, 『朝鮮의 刀劍 忠을 베틀다』, 2013.
- 현충사관리소,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2014.
- 河北教育出版社, 『中國古代器物大詞典』, 兵器·刑具,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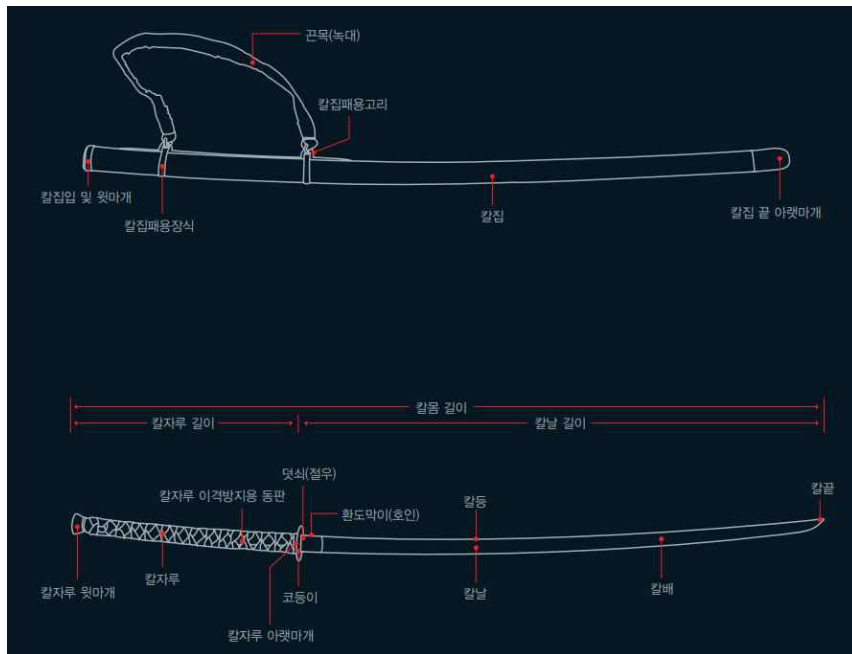
## □ (조사 분야: 장검)

## ○ 현 상

병부는 새롭게 대체한 상태이다.

### 1. 유물 개요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2자루와 칼집 2점으로, 이는 이순신의 친필 글씨로 한 도신에는 ‘三尺誓天山河動色’이, 다른 한 도신에는 ‘一揮掃蕩血染山河’가 각각 음각으로 금입사(金銅入絲)되어 있다. 2022년 12월 28일에 조사 시 실측한 결과 두 자루 칼의 제원은 칼몸 길이 196.8·197.2cm, 칼날 길이 137.3·137.8cm, 칼자루 길이는 59.5·59.4cm이며, 칼집 길이는 모두 144.5cm이다. 칼의 제원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길이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각부 명칭도>

## 2. 칼과 칼집의 현상

제1칼에는 ‘三尺誓天山河同色(삼척서천산하동색)’의 명문이, 제2칼에는 ‘一揮掃蕩血染山河(일휘소탕혈염산하)’의 명문이 칼몸에 山河의 맹세글이 시문되어 있다. 칼몸 형태는 한 날이 있는 刀로써 단조에 의한 부드러운 곡선으로 휨각이 있다,

칼날 횡단면이 6각도이고, 칼끝은 역시 단조에 의해 사두형(巴頭形)이다. 길이 66.5cm, 너비 9.1mm 되는 피홈(血漕) 1개가 칼날 좌우측 칼등 가까이에 파여져 있다. 칼날 좌우측에는 물결문 3개가 따로 따로 날부분에 음각되어 있다. 우측 칼날의 코등이 가까이에 있는 줄기문양과 피홈 사이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해서체 글씨로 금입사되어 있다. 글자 1개의 가로×세로 규격은 1.1cm이고, 글자 전체 길이는 제1칼은 11.7cm이고 제2칼은 12cm로서 조금 크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꼭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칼날과 칼자루 사이에는 국화문양의 철 재질로 된 지름 9.5cm의 둥근 코등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꽃잎 수 19개가 투각 국화문양으로 되어 있다. 코등의 칼날 쪽에는 코등을 고정시켜주는 타원형의 얇은 덧쇠(切羽)가 설치되어 있고, 덧쇠는 동 재질에 테두리가 꽃잎문양으로 되어 있다. 덧쇠와 칼날 사이에는 칼날의 날 카로운 날 부분과 코등을 구분지어 주는 황동(黃銅) 재질 호인(護刃)이 칼날을 잡아주고 있다. 호인의 너비는 4.83cm이고, 호인의 표면에는 21개의 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칼날방향을 따라 얇은 줄무늬가 음각되어 있다.

조선사편수회의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칼의 스페에는 코등이로부터 약 18cm 거리에 구멍 1개가 있으며,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의 13자가 코등이에서 칼자루 방향으로 음각되어 있다. 이 명문을 통하여 이 칼은 1594년(갑오)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칼자루는 단면이 타원형으로서 높이 5.5cm, 너비 2.76cm이며, 겉을 어피로 감싸서 주칠을 하고, 그 위에 너비 1.9cm되는 가죽끈을 교차매기 방식으로 감았다. 칼자루 아랫마개는 코등을 고정시켜주고 있으며, 형태는 타원형 고리로서 너비 1cm, 타원높이 5.5cm의 철 재질이고, 표면에는 조선 중기 전통문양을 은입사(銀入絲)하였다. 칼자루 윗마개는 사다리꼴로 마치 중국인의 모자와 같은 모양이므로 이 부분은 중국식풍으로 보인다. 길이 2.58cm, 하부너비 5.85cm, 상부너비 4.27cm, 밑바닥 타원너비 3.28cm이며, 좌우측 중앙에 구멍을 뚫어 마개를 칼자루에 목재핀으로 고정하였고, 마개 표면에는 당초문과 연꽃 문양을, 병부 마개 밑바닥에는 격자문을 은입사(銀入絲)하였다. 칼자루와 스페를 고정하기 위한 지름 4.4mm의 목정혈(木釘穴) 1개가 윗마개 끝단으로부터 42.5cm 거리에 있으며, 칼자루의 우측 어피 위 목정혈에는 1개의 오돌토돌한 모양 동판(銅版)을 덧대고 동판에 구멍(목정혈)을 뚫어 목재핀을 스페에 관통시켰으며, 그 위에서 가죽끈을 감았다. 술을 메달기 위한 유소혈(流蘇穴) 1개가 칼자루 좌측 어피 위, 윗마개 끝단으로부터 16.5cm 거리에 있으며, 구멍(유소혈)에는 1개의 동판을 덧대고 동판에도 구멍을 뚫어 구멍의 지지력을 보강하였다. 구멍 부위의 동판은 제1점이 일부분 탈락된 것과는 달리 제2점은 완전한 형태이다. 칼자루의 형태는 조선의 훈련도감에서 만든 군용환도의 전형적 형태로 제작되었고, 훈련한 살수병이 사용한 환도나 용원필비에 기재된 칼보다 과장되어 긴 칼이다.

칼집은 목재로 만든 다음 어피로 감쌌고 그 위에는 주칠(朱漆)과 옷칠을 하였다. 칼집 윗마개는 철 재질이며, 그 표면에 연화당초문이 은입사되어 있고, 철 재질의 아랫마개에는 모란꽃 문양이 은입사되어 있다.

패용장식과 패용고리는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있고, 패용장식과 패용고리의 표면에는 전통문양이 섬세하게 은으로 입사되어 있다. 패용고리에는 가죽끈이 전통적 방식으로 제작되어 원형 그대로 매여져 있다. 칼집은 조선식 군용도검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최초 제작 당시의 전체 장식과 부속이 거의 온전히 남아 있다. 다만 지나치게 커서 과장된 모습을 보고 중국풍이다, 실전용이 아닌 의기이다라는 주장이 있다.

## ○ 내용 및 특징

### 1. ‘장검’과 ‘장도’라는 명칭

도와 검의 명칭은 정조 이후 무예도보통지에서 비로소 사용하였는데 예도편에 ‘수인씨가 도를 만들고 치우가 검을 만들어 도와 검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날이 한 쪽에만 있는 것은 도(刀), 양쪽에 있는 것은 검(劍,劔)’이라 하였다(『說文』 刀部, 刃部). 조선시대 전기에는 도와 검의 구분이 서로 혼용되었다. 손잡이가 짧고 휘두르는 원의 포용성을 둔 것은 검이라 하고 손잡이가 길어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것은 도로 통칭되었다.<sup>241)</sup> 『국조오례서례』 「병기도설」(1474)에 검(劔) 혹은 장검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 전기에는 장검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보인다. 조선을 대표하는 칼은 환도라고 부르고 계급이나 사용자가 확실한 칼에 대하여는 검이라고 붙여주었다. 조선 후기에는 『용원필비』(1813) 환도조라 하여 환도로 통칭하였다. 예를 들면 운검, 상방검, 인검, 진검, 칠성검, 보검이라는 이름이 있어 소장자가 의미를 두고 제작하거나 사용한 칼을 검이라 불러주었다.

외형으로 보아서는 장검이 아니라 환도(環刀) 또는 장도(長刀)라야 하나 이미 오랫동안 장검으로 불려왔으며 이순신만의 특별한 칼이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 2. 칼의 명문으로 보는 한 쌍 두 자루

제1칼날에는 ‘三尺誓天山河動色(삼척서천산하동색)’이 새겨져 있으며, 그 뜻은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놀라 진동한다’이다. 제2칼날에는 ‘一揮掃蕩血染山河(일휘소탕혈염산하)’가 새겨져 산하의 글자가 대구로 되어 있으며, 그 뜻은 ‘한번 휘둘러 소탕하니 피가 산하를 적신다’이다. 명문의 글씨체는 해서로서 이순신의 일기에 나타나는 글씨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순신의 친필로 판단된다. 글의 내용도 충무공 이순신의 군인다운 분정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깊다. 호방한 무인의 기개가 잘 나타나 있다.

### 3.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스펀 명문

조선사편수회가 남긴 유리건판을 보면 두 칼의 스펀에는 해서체로 ‘甲午四月日造

241) 김성혜·김영섭, 「도검의 기능성 연구」, 『학예지』 6, 육군박물관, 1999, p.27.

太貴連李茂生作'의 13자가 동일한 규격과 같은 글씨체로 음각되어 있다. 이 명문을 통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1594년(갑오)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 제작자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도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무기제작에는 실명제인 경우가 허다하다. 보물 천자총통에도 그 제작자와 감수관의 이름이 음각되어 있다.

『난중일기』 을미년(1595) 7월 21일 기사에는 ‘식후에 태구련(太九連)과 언복(彦福)이 만든 환도(環刀)를 충청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박종남, 신호)에게 각각 1자루씩 나누어 보냈다.’라고 나와 있다. 이 일기에 나오는 태구련은 칼의 스펀베에 나오는 태귀련과 동일한 인물로 판단된다. 거북귀의 발음을 구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조선시대에 제작자와 제작시기, 소장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유일한 칼이다.

#### 4. 실전용인가 의기인가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조선시대 군용도검 중 가장 크고 길이도 197.2cm로 가장 긴 칼이다. 칼집에서 칼을 뽑 때 누군가는 시중을 들어야한다. 신체 사이즈 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의장용으로서 장수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하거나, 재앙을 막기 위한 벽사의례용 또는 위인을 기리기 위한 사후 봉납용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아무리 큰 체구라 해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실전용이라면 오늘날까지 남아 있기가 어렵다. 충무공 장검 이전의 칼은 월도나 협도처럼 중국 사람의 장기인 창 같은 칼 외에는 큰칼이 없다. 협도나 월도도 칼날은 그리 길지 않다. 충무공의 장검은 외형은 환도 같고 크기는 장도만하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1790)의 쌍수도(雙手刀)의 길이와 비교해 보면, 거의 같다. 다만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무게가 약간 더 무겁다.<sup>242)</sup> 쌍수도는 호인이 길어 호인을 한손에 잡고 한손은 병부를 잡고 사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충무공장검에는 호인이 손으로 잡을 만큼 길지 않다. 혹시 병부가 길어서 호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겠지만 칼의 사용에는 균형이 맞아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 와서 실전은 중요하고 의기는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행위라고 할지 모르나 그 당시에는 모든 전투를 수행하는 장수와 병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배수진의 심정, 죽기를 각오하고

242)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칼과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규격 비교<1자=30.3cm(영조척), 1근=641.9g>

검명	전체길이	칼날 길이(刃長)	칼자루 길이(柄長)	무게
雙手刀	6자 5치 (197cm)	5자 (151.5cm)	1자 5치 (45.5cm)	2근 8냥 (1.6kg)
月刀	9자 2치 (279cm)	2자 8치 (84.8cm)	6자 4치 (193.9cm)	3근 14냥 (2.5kg)
挾刀	10자 (303cm)	3자 (90.9cm)	7자 (212.1cm)	4근 (2.6kg)
충무공 장검	6자 5치 (197.5cm)	4자 5치 (136.9cm)	2자 (59.5cm)	(4.3kg)

\* 박홍수, 「李朝 尺度標準에 관한 考察」, 『소암이동식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태학사, 1981.



난중일기나 실록에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전쟁의 신 치우를 기리는 독제를 출전의 시발로 보았고, 당시의 깃발 역시 점성술에 의존하나 귀신에게 바치는 정성이 극심하였음을 문헌에서 볼 수 있다. 추측하건데 독제나 출전하기 전에 결전의 의지를 굳게 하고 부하들의 마음을 통일시키기 위한 의지의 산물로 볼 수 있겠다.

## 5. 충무공 장검의 외형

조선 전기 조선도검의 세 가지 특징을 들라하면 첫째 ‘직단’, 둘째 ‘일면 평조도’, 셋째 ‘띠돈의 부착’,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sup>243)</sup> 이순신의 장검은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적으로 전통적 조선 칼과 다르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칼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규격화가 되었던 직단이 아니라 휘고 긴, 묵직한 칼 병부의 매기방식이 실전에 편리하게 하였다.

당시 일본도는 최고의 무기였고 일본도 하나를 바치고 귀순하는 사람에게 벼슬까지 주었으니 전쟁도구인 일본도를 흠모해왔던 것은 주지의 일이다. 충무공 장검이 만든 시기가 바로 조선으로서는 당대의 최고선진의 기술인 일본도 제작의 기술을 습득하여 적용한 때이다. 과장되게 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일본의 야태도 노타찌코시라에를 보고<sup>244)</sup>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이후 시대 충무공의 장검을 보고 무예통지의 쌍수도가 나왔다고 보여진다. 충무공의 장검을 사용하기에 무게의 중심이 어려웠으므로 후대에 나온 쌍수도는 중량을 줄이고, 호인을 길게 하여 단점을 보강한 것이다.

장군이 실제의 사용한 칼은 쌍용검이라 전하고 있는데 조선사편수회의 사진에는 이 쌍용검이 역시 한 쌍 두 자루로서 한 자루는 보병전에, 한 자루는 기병전에 사용하였다고 하며 보병전용보다 기병전용이 좀 더 짧고 휘어졌다 한다. 지금은 행방이 묘연하여 찾을 수 없지만 그 시대 사람 학봉 김성일의 ‘쌍용검을 닮으며 원정을 달랜다’는 시에도 언급되고 있다.<sup>245)</sup> 칼 몸이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은 『국조오례서례』 「병기도설」(1474)의 검(劔)과 장검(長劔)에서 보듯이 조선의 전통 방식에도 적용되었지만, 일본도의 휨각은 지나치게 휘어 단조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보아왔다. 충무공의 칼은 지나치게 휘지도 않은 조선의 선이다. 충무공 장검의 칼 끝에 단조에 의해 만들어진 사두(독사머리) 형태와 피홈의 형식, 스펀의 형식과 스펀에 제작자의 이름과 제작시기를 새겨 넣는 방식, 칼자루와 스펀의 결합을 위한 목정혈, 국화모양의 코등이, 칼자루 교차끈매기 등은 일본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작자인 태귀련과 이무생은 일설에 의하면 일본에 잡혀가서 칼 만드는 법을 배우고 다시 임진왜란 때 향도로 돌아왔다가 이순신 휘하에 항복

243) 육군박물관, 『朝鮮의 刀劍 忠을 베틀다』, 2013.

244) 노타찌코시라에는 野太刀로서 일본 기마 무장들이 시종에게 들게 하였다가 필요 시에 건네받아 사용하던 장척, 중량의 전투용칼이다.

245) 육군박물관, 『朝鮮의 刀劍 忠을 베틀다』, 2013.

하여 칼 만드는 장인으로 충성하였다고 한다. 조선은 그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하면서 일본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sup>246)</sup> 특히 임진왜란 해전에서 칼춤을 추며 나체로 달려드는 돌격 접근전에 속수무책 나가떨어지는 불리한 아군을 위해 거북선을 만들었다 한다. 오죽하면 선조 때 오명항에게 내렸던 상방검이 일본도이겠는가?<sup>247)</sup> 일본의 제검방식이 조선에 스며들었다.

중국의 영향도 전반적으로 조선에 무시할 수 없게 이미 녹아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병부 뒷마개의 사다리꼴 모양은 중국인의 모자 같은 형태이다. 특히 과장된 모습을 많이 사용하는 점은 중국풍을 따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입사에 보이는 씨방이 있는 연화문양은 우리의 전통 예술로 보여진다. 따라서 장검에 보이는 외형은 한중일의 기술과 예술의 결정 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 도검문화에 그대로 흡수되었다. 정기룡의 장검이나 곽재우의 칼에도 나타난다. 조선의 도검이 크게 변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임진왜란이고 그 시작과 유행에 충무공의 장검이 선두에 있는 것이다.

## 6. 충무공 장검에 제철기술과 공예기법과 칼에 붙여넣은 정신

장검에는 당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나라 장인의 공예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칼날에 음각된 물결무늬 인문, 전혀 부식되지 않고 기능성을 살린 투각국화문의 코등이와 덧쇠(절우) 및 호인, 칼자루 윗마개와 아랫마개 및 칼집 패용장식과 고리에 조선 특유의 문양을 섬세하게 은입사한 기법, 칼자루의 2개 구멍에 점박이 문양의 동판을 덧댄 기법, 패용장식에 달린 조선의 독특한 가죽끈 방식, 그리고 칼자루와 칼집의 어피에 주철을 반복하여 시행함으로써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점 등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칼날은 단면 6각도의 고난도 기술이 구현되었고, 제작된 지 약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 장인의 뛰어난 제철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60강 100강이라는 단조에 의해 철에 들어있는 탄소를 빠져나가게 한 칼은 잘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녹 쓸지 않고 반짝인다.

칼에 새겨진 명문은 ‘山河’를 대구로 쓴 한문시로 즉, 우리영토를 침범한 적을 괴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충무공의 친필시이다. 이러한 검결은 충무공의 애국정신이 담긴 의지 맹세글로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7. 국보로서 완벽성에 대하여

국보는 수리가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실제 사용한

246) 임진왜란 도중 훈련도감에서 양성하던 살수군의 무기에는 일본도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칼몸이 두꺼워지고 피홈이 생기며 손잡이는 가죽교차끈으로 감았다. 육군박물관의 ‘훈’자명 환도의 예가 있다.

247) 곽낙현, 『조선의 칼과 무예』, 학고방, 2014.

칼의 가장 강조점은 좋은 쇠로 보검을 만드는 정성일 것이다. 니벨룽겐의 설화에 나오는 보검, 뜨겁게 달구어 가장 차가운 물에 넣는 담금질의 반복된 작업이고, 도자기의 온도를 쓸 줄 아는 장인의 불 다루는 기술이 들어 있다. 천년이 지나도 반짝이는 신물처럼 여겨진다. 다만 수련을 해야 할 때 병부는 갈아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현충사 도록의 자료에 나타난 손잡이의 부식은 마땅히 칼 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갈아 끼는 것이 마땅하다. 칼의 생명은 칼몸이고 손잡이와 칼집은 수리할 수 있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序例』.
- 『戎垣必備』.
- 『武藝圖譜通志』.
- 『亂中日記』.
- 『李忠武公全書』.
- 현충사관리소,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2014.
- 육군박물관, 『朝鮮의 刀劍, 忠을 베틀다』, 2013.
- 곽낙현, 『조선의 칼과 무예』, 학고방, 2014.
- 박홍수, 「李朝 尺度標準에 관한 考察」, 『소암이동식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1981.
- 김성혜·김영섭, 「도검의 기능성 연구」, 『학예지』 6, 육군박물관, 1999.
- 김성혜·박선식, 「조선시대 도검의 실측과 분석」, 『학예지』 5, 육군박물관, 1997.
-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武器發達史』, 1994.
- 강성문, 「조선시대의 환도의 기능과 제조」,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2000.

## ○ 기 타

-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 당시 경무대에 전시하였다가 종가로 돌아갔다 한다.
- 최초 대여: 1969. 4. 26. 덕수 이씨 14대 종손 이응렬이 현충사에 대여하여 유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이응렬은 당시 현충사 성역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검을 현충사에 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 기탁 변경: 2009. 4. 3. 대전일보에 이충무공 유물 관련 사항이 보도되어 현황 파악 및 기탁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15대 종부에 의해 대여에서 기탁으로 변경되었다.

□ (조사 분야: 장검)

## ○ 유물 개요

### 1. 전체 길이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2자루와 칼집 2점<sup>248)</sup>으로 2022년 12월 28일에 조사 시 실측한 결과 두 자루의 칼은 그 제원이 칼몸 길이 196.8·197.2cm, 칼날 길이 137.3·137.8cm, 칼자루 길이는 59.5·59.4cm이며, 칼집 길이는 모두 144.5cm이다. 칼날은 그리 크지 않은 곡률을 가진 완만하게 휘 상태로 제원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길이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 2. 칼몸과 칼자루

칼날의 단면은 육각형이며, 칼끝은 사두형(巴頭形)이다. 칼날 위쪽 좌우측 칼등 가까이에는 길이 66.5cm, 너비 9.1mm 되는 피홈(血漕) 1개가 파여 있다. 또한 칼코 등이 쪽의 칼의 날과 가까운 부분 좌우측에는 구름이나 물결을 형상화한 것과 같은 무늬 3개가 선각(線刻)되어 있다. 두점의 칼 모두 칼날의 오른쪽면 코등이 가까이 있는 피홈과 물결무늬 사이에는 금색의 황동<sup>249)</sup>으로 검명(劍銘)이 입사(入絲)되어 있다. 한 도신에는 ‘三尺誓天山河動色(글자 1개의 가로×세로 규격은 1.1cm이고, 검명의 전체 길이는 11.7cm)이, 다른 한 도신에는 ‘一揮掃蕩血染山河(글자 1개의 가로×세로 규격은 1.1cm이고, 검명의 전체 길이는 12cm)’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

칼날과 칼자루 사이에는 국화문양의 순동 재질<sup>250)</sup>로 된 지름 9.5cm의 둥근 코등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화문양의 꽃잎 수는 19개이고 꽃잎은 가운데가 뿔려있는 투각기법이 사용되었다. 코등의 칼날 쪽에는 코등을 고정시켜주는 테두리가 꽃잎문양이 타원형의 얇은 덧쇠(切羽)가 대어져 있고, 덧쇠와 칼날 사이에는 칼날의 날부분과 코등을 구분지어 주는 청동(靑銅) 재질<sup>251)</sup>의 환도막이(護刃)가 칼날을 빙 둘러 설치되어 있는데, 삼척검 환도막이의 너비는 4.83cm이고, 표면에는 21개의 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칼날 방향을 따라 음각되어 있다. 일휘검의 경우 너비는 4.55cm이고, 표면에는 24개의 줄이 칼날 방향을 따라 음각되어 있다.

칼자루는 단면이 타원형이며 삼척검은 길이 5.5cm, 너비 2.76cm, 일휘검은 길이 5.5cm, 너비 2.91cm로, 곁을 어피로 감싸서 주철을 하고, 그 위에 너비 1.9cm 되는 가죽끈을 X자로 교차매기 방식으로 감고 옷칠을 하였다. 일휘검은 1960년대 이전 가죽끈이 훼손되어 이후 수리하였다. 칼자루 아랫마개는 코등을 고정시켜 주고 있으며, 형태는 타원형 고리로서 너비 1cm, 타원높이 5.5cm의 철 재질이고,

248) 편의상 ‘三尺誓天山河動色’이라 새긴 칼을 ‘삼척검’, ‘一揮掃蕩血染山河’라 새긴 칼을 ‘일휘검’이라 한다.

249) 권혁남 등 5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pp.67~68.

250) 윗글, p.67.

251) 위와 같음.

표면에는 전통문양을 은입사(銀入絲)하였다. 칼자루 윗마개는 자루쪽 변이 작은 사다리꼴로, 길이 2.58cm, 하부너비 5.85cm, 상부너비 4.27cm, 밑바닥 타원 너비 3.28cm이다. 좌우측 중앙에 구멍을 뚫어 마개를 칼자루에 목재못으로 고정하였고, 마개 표면에는 당초문을, 마개 밑바닥에는 격자문을 은입사하였다. 칼자루와 스페를 고정하기 위해 지름 4.4mm의 목정혈(木釘穴) 1개가 윗마개 끝단으로부터 42.5cm 거리에 있으며, 칼자루의 우측 어피 위 목정혈에는 1개의 오돌토돌한 모양 동판(銅版)을 덧대고 동판에 구멍(목정혈)을 뚫어 목재못을 스페에 관통시켰으며, 그 위에서 가죽끈을 감았다. 술을 메달기 위한 유소혈(流蘇穴) 1개가 칼자루 좌측 어피 위, 윗마개 끝단으로부터 16.5cm 거리에 있으며, 구멍(유소혈)에는 1개의 동판을 덧대고 동판에도 구멍을 뚫어 구멍의 지지력을 보강하였다. 구멍 부위의 동판은 삼척검이 일부분 탈락된 것과는 달리 일회검은 완전한 형태이다.

### 3. 칼집

칼집 길이는 두 개 검 모두 144.5cm이며, 목재로 칼날을 본떠 만든 다음 어피로 감싸고 어피의 오돌토돌한 무늬가 거의 보이지 않도록 그 위에 주칠(朱漆)과 여러 겹의 옷칠을 하였다. 칼집 윗마개는 철 재질이며, 그 표면에 당초문이 은입사되어 있고, 철 재질의 아랫마개에는 모란꽃 문양이 은입사되어 있다.

패용장식과 두 개의 고리를 연결하는 패용고리는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있고, 이 장식과 패용고리의 표면에는 격자의 전통문양이 섬세하게 은으로 입사되어 있다. 패용고리에는 가죽끈이 전통적 방식으로 제작되어 원형 그대로 매여져 있다.

## ○ 내용 및 특징

### 1. 조선 도검의 발전 과정과 명칭

칼은 사람이나 짐승을 베고 찢어서 살상하거나 물건을 베고 썰고 깎는데 쓰이는 손잡이용 연장이다. 칼은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는 매우 오랜 도구이자 근력무기이다. 동아시아에서 칼은 도(刀)와 검(劍)으로 구분된다. 도는 칼몸이 휘어지고 한쪽에만 날이 있으며, 검은 칼몸이 곧고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을 말한다. 고대에는 검을 선호하고 후대에는 도를 선호했는데 점차 개념상의 도와 검은 서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왔다.<sup>252)</sup>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무기 중 궁시(弓矢)를 특장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도검에 대한 개량이나 활용에 대한 발전을 위한 시도는 크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듯 궁시에 대해서는 부분 부분의 세부까지도 순우리말의 이름이 붙어 있지만, 칼에 대해서는 소략한 편이다.

『무예도보통지』에는 칼의 종류를 대체로 그 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장도(長刀)·

252) 兩刃曰劍 單刃曰刀 後世刀與劍相混(『武藝圖譜通志』 권 2 「銳刀」 案).

예도(銳刀)·왜검(倭樓)·제독검(提督劍)·쌍검(雙劍)·언월도(偃月刀)·협도(挾刀) 등으로 구분하였다.

장도란 명칭 그대로 아주 긴 칼로서 전체 길이 약 2.15m, 칼몸의 길이 1.65m, 자루의 길이 0.5m이고 칼몸이 칼등 쪽으로 휘었다. 예도는 전체 길이 1.42m, 칼몸의 길이 1.09m. 자루의 길이 0.33m인데 칼몸이 약간 칼등 쪽으로 휘었다. 왜검은 기본적으로 예도와 흡사하다. 제독검은 칼몸이 곧은 직도(直刀)로써, 칼몸의 길이 1.12m, 칼몸의 너비 5cm이다. 쌍검은 비교적 짧은 칼로서 전체 길이 약 1m, 칼몸의 길이 0.83m, 자루의 길이 약 0.18m이다.<sup>253)</sup>

조선 칼의 구조는 칼몸·자루·칼집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요한 부위는 칼몸인데 배는 부분을 날[刃]이라 하고 그 반대되는 무딘 부위를 등[背]이라 하며 뾰족하게 찢러지는 부위를 끝[鋒]이라 한다. 칼몸의 자루에 끼워지는 가는 부위는 스페라 하고, 자루와 칼몸이 경계를 이루는 곳은 관(關)이라 한다.<sup>254)</sup> 그러나 이런 명칭은 대략적인 것이며 최근 연구자들이 칼에 대한 부분 명칭을 붙이고 있으나 대체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세부 명칭을 참조하여 우리말로 바꾼 것이어서 통일성이 없다. 최근 간행된 도록에 실려 있는 칼의 명칭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는 무인들 개개인의 단병 기술이나 군사적 훈련을 강조하기보다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유교적인 무인정신이 강조되는 새로운 무인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도검의 장인들은 기능적인 무기 생산에 그치고 전대의 뛰어난 세공기술을 계승받지 못하였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도검은 환도이다. 환도는 군기감 산하의 환도장이 제작하였는데, 1460년(세조 6)에는 군기감(軍器監) 소속하에 환도장의 인원이 33명으로 증원 되고, 5명이 체아직을 받아 경공장의 전속공장이 되었다. 그러나 1485년(성종 16)에 완성된 『경국대전』에는 인원이 12명으로 감소되고, 소속도 상의원(尙衣院)으로 바뀌게 되었다. 경공장 소속의 환도장에 의해서 제조된 환도는 왕족 및 귀족들의 패용을 위한 일종의 복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장용이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의장용은 자연히 은세공과 같은 고급화 내지 사치품화 되는 경향까지도 나타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지방에서 제조된 환도는 병사들의 개인 휴대용 무기였다. 환도는 상공의 품목으로도 선정되었기에, 여러 고을에서 일정량을 제조했다.

문종대에는 환도에 대한 규격의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함길도 도절제사인 이정옥이 실전에 필요한 전투도에 대한 제작 공급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가 제기한 환도의 형태는 모양이 곧고 짧은 직단의 형태였다. 이를 계기로 전투용 환도에 대한 규격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져, 대체로 보병용 환도는 길이 1척 7촌 3푼

253) 김기웅, 『무기와 화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p.190.

254) 정영호 감수,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1, 시공테크, 1999, p.33.

(54.04cm), 너비 7푼(2.19cm), 자루 길이 2권(19.42cm)이었고, 기병용 환도는 길이 1척 6촌(49.98cm), 너비 7푼(2.19cm), 자루 길이 1권 3지(15.54cm)였다. 당시 조선의 기본 전법인 오위진법은 기본적으로 북방민족에 대항하기 위하여 기병을 중심 전력으로 삼고 여기에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었던 화약병기를 결합한 기병 중심의 전술체계였다. 따라서 도검류의 표준화에 있어서도 대 여진전을 통한 기병용의 표준화가 중심이고, 이를 계기로 보병용도 표준화하게 된 것이다.<sup>255)</sup>

한편 조선은 간헐적인 왜구의 침입을 겪으며 실전도로서 일본제 칼에 주목하였다. 조선 전기부터 조정은 왜도에 주목하여 왜구 토벌책을 통해 병기를 포획하거나, 무역을 통해 일본제 도검을 수입하거나, 일본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일본도의 제조기술을 습득하고자 노력했으나 조선의 도검이나 전법을 변화시킬 만큼의 영향력이 강하지는 않았다. 조선이 일본 도검류의 제조법과 사용법 전수에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이었다.<sup>256)</sup> 특히 임진왜란 7년간의 전쟁기 동안 동아시아는 전투를 위해 조선에 파견된 명과 일본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 즈음 사실상 도검류에 있어서는 가장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도의 형식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후금의 침략이 계속된 163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마번을 통한 무기 구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나 점차 도검보다는 화약과 조총류에 주안을 두었고, 1621년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령의 영향으로 점차 밀매의 형태로 변화하였다.<sup>257)</sup>

조선시대 전기에는 손잡이가 짧고 휘두르는 원의 포용성을 둔 것은 검이라 하고 손잡이가 길어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것은 도로 통칭되었다.<sup>258)</sup> 『국조오례의서례』 「병기도설」(1474)에 검(劔) 혹은 장검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 전기에는 장검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보인다. 조선을 대표하는 칼은 환도라고 부르고 계급이나 사용자가 확실한 칼에 대하여는 검이라고 불여주었다. 조선 후기에는 『응원필비』(1813) 환도조라 하여 환도로 통칭하였다. 예를 들면 운검, 상방검, 인검, 진검, 칠성검, 보검이라는 이름이 있어 소장자가 의미를 두고 제작하거나 사용한 칼을 검이라 불려주었다.

이순신 칼의 명칭과 관련하여 『난중일기』 을미년 7월 21일 기사에는 이순신이 충청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박종남, 신호)에게 칼 1자루씩을 선물하면서 그 이름을 환도(環刀)라 하였다거나, 그의 시 ‘한산도야음(閑山島夜吟)’의 절구에 ‘새벽 달은 활과 칼을 비추네(殘月照弓刀)’라고 하여 ‘도’자를 사용한 것, 칼의 외형으로 보아서는 장검이 아니라 환도(環刀) 또는 장도(長刀)라야 하나 이미 오랫동안 장

255) 박재광, 「조선시대의 무기」, 『한국군사사』 13, 육군본부, 2012, p.p.370~374.

256) 宇田川武久, 『東アジア兵器交流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3, pp.76~85.

257) 윤유숙, 「17세기 한일간 일본제 무기류의 교역과 밀매」, 『사총』 67, 역사학연구회, 2008, 참조.

258) 김성혜, 「도검의 기능성 연구」, 『학예지』 6, 육군박물관, 1999, p.27.

검으로 불러왔으며, 이순신과 관련된 특별한 칼이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2. 장검의 명문(銘文)

삼척검의 날에는 ‘三尺誓天山河動色(삼척서천산하동색)’이라 새겨져 있고, 그 뜻은 ‘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감동한다’는 것이다. 일휘검의 날에는 삼척검과 대구(對句)를 이루어 ‘一揮掃蕩血染山河(일휘소탕혈염산하)’라 새겨져 있어, 그 뜻은 ‘한바탕 휘둘러 쓸어버리니 (왜적의) 피가 산하를 적신다’는 것이다. 이 명문은 약간의 기포도 관찰되는데 이는 칼이 완성된 후 글씨를 음각하고 홈에 황동을 밀착시킨 후 열을 가해 완성, 가공한 것이다.<sup>259)</sup> 명문의 글씨체는 해서와 행서로 『이충무공전서』 「잡저」의 ‘검명’의 세주(細註)에는 ‘장검 한 쌍에 나누어 새기니 곧 공의 필적이다. 지금 공의 후손가에 있다’<sup>260)</sup>라고 하고 있으나, 필법이 이순신의 일기 등에 나타난 필체와는 상이하고, 글씨 자체도 졸렬하여 음각과정에서 그대로 필체를 살리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의 필체일 가능성이 크다.<sup>261)</sup> 따라서 장검의 검명은 ‘이순신의 글씨(親筆)’가 아니라 ‘이순신이 지은(所作)’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한쌍의 장검을 위해 충무공 이순신의 군인다운 정서와 기상을 그대로 표현한 검명을 지어 새겨졌다고 점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깊다.

문화재청의 보존처리 과정이나 이번의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조선사편수회가 남긴 유리건판을 보면 두 칼의 스톱베에는 해서체로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의 13자가 동일한 규격과 같은 필체로 음각되어 있다.<sup>262)</sup> 이 명문을 통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1594년(갑오) 4월에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 제작자임을 알 수 있다. 『난중일기』 을미년(1595) 7월 21일 기사에는 ‘식후에 태구련(太九連)과 언복(彦福)이 만든 환도(環刀)를 충청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박종남, 신호)에게 각각 1자루씩 나누어 보냈다.’라고 나와 있다. 조선시대 상민이나 노비의 이름은 한글 발음을 한자로 음차(音借)한 경우가 많고, ‘龜’자는 ‘구’와 ‘귀’ 두 발음으로 모두 쓰기 때문에 일기에 나오는 태구련과 칼의 스톱베에 새긴 태귀련은 동일한 인물로 판단된다. 『난중일기』나 『임진장초』 등에 의하면 태귀련, 이무생, 언복, 정사준 등은 도검이나 정철총통(조총) 등을 제조한 전라좌수군영 휘하의 고급 기술을 소지한 군기제작들이었다. 따라서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조선시대에 제작자와 제작시기, 소장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유일한 칼이다. 향후 X-Ray나 MRI 촬영 등을 통해 재확인과 명확한 근거를 남길 것을 제안한다.

259) 권혁남 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의 과학적 보존」, 『문화재』 44-3, 2011, pp.67~68. 기존 알려진 것과는 달리 금성분은 추출되지 않은 것으로 ‘금입사’의 표현은 지양되어야 한다.

260) ‘長劍一雙分鏹 卽公筆也 今在公後孫家’ 『李忠武公全書』 권1, 「禱著」 劍銘.

261) 『이충무공전서』의 내용은 이 책이 편찬될 때인 정조 연간의 ‘장검’으로 불리는 상황과 일화의 전승을 반영한 것이다.

262) 현충사관리소, 『겨레를 살린 두자루 칼 충무공 장검』, 2014, p.72. 이 글씨와 검명 글씨의 동일성 여부는 특정하기 어렵다.



### 3. 장검의 외형

충무공 이순신의 장검은 전통적 조선도검에 외래적 요소가 결합하고 있으며, 길이에서도 이질적임은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변화한 요소들이 거의 모두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칼날의 형태가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은 『국조오례의서례』 「병기도설」(1474)의 검(劔)과 장검(長劔)에서 보듯이 조선의 전통 방식이지만, 충무공 장검의 칼끝 형태와 피홈의 형식, 스페의 형식과 스페에 제작자의 이름과 제작시기를 새겨 넣는 방식, 칼자루와 스페의 결합을 위한 목정혈, 국화모양의 코등이, 칼자루 끈매기 등은 일본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임진왜란 시기는 일본이 100여 년에 걸친 내란인 전국시대를 끝낸 시점이었으며, 직전은 일본의 왜구가 명과 조선에 자주 출몰하여 왜변을 일으키던 시기였다. 오랜 기간 그리고 수많은 전투 속에서 살상무기로 최적화된 도검은 일본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던 조선, 명 등 동아시아에서 일본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히 임진왜란 중에는 육지와 바다를 가릴 것 없이 일본 무기를 노획하였으며, 일본도도 그중의 하나였다. 조선은 우리 칼의 전통방식에 자연스럽게 일본도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을 맞이하였고,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노획된 일본도는 해체되어 칼날 부분이 재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임진왜란 당시의 도검으로 전해지는 것들로는 이형검(異形劔)을 제외하고라도, 조선 중기 조선 환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동래읍성 남문 출토 도검 20여 점을<sup>263)</sup> 비롯하여 대표적인 것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 전 유성룡검(경상대학교박물관 소장), 권응수장검(국립진주박물관 기탁), 광재우장검(의령 충익사), 이광악보검(독립기념관), 정문부장군검(독립기념관), 정기룡장검(하동 경충사), 이형상장도(개인 소장), 정공청환도(개인 소장), 최진립지휘도(한국학중앙연구원 기탁), 최경회 장검(개인 소장), 박홍춘환도(울산박물관), 이억기칠성검(육군박물관) 등 다수를 꼽을 수 있다.<sup>264)</sup>

현존하는 임진왜란 중 사용된 도검 중 일부는 이충무공장검과 칼의 크기는 다르지만 부분적으로는 유사한 요소를 띠기도 한다. 이중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코등이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칼자루의 윗마개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이순신장검의 투각된 국화모양의 코등이가 유사한 칼로는 의령에서 최초로 기의한 의병장인 홍의장군 광재우의 칼(보물)과, 상주목사와 경상우병사를 지내고 전후에는 삼도수군통제도 역임한 정기룡의 칼을 들 수 있다. 이 두 칼은 크기만 다를 뿐 완만히 휘 칼날이나, 조선 환도의 자루 형식, 칼자루와 칼집의 마감 등

263) 부산박물관, 『임진왜란』, 부산박물관, 2012, 참조.

264) 육군박물관, 『조선시대의 도검』, 2004, 도판 34.

거의 모든 부분에서 유사함을 보인다. 이순신장검도 칼자루의 윗막이와 칼자루의 길이 비율만 다르고 입사 장식을 갖추어 좀 더 화려할 뿐 전반적인 구성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1. 이순신장검과 임진왜란기 도검의 코등이 장식 비교>

문화재명	전체	코등이 부분	길이(cm)
충무공장검			197.2
곽재우장검			88.0
정기룡장검			107.7

다음으로는 칼자루 윗마개 부분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유사한 칼로는 영천의병장으로 영천성을 탈환하고 경상좌병사, 충청방어사에 이른 권응수의 장검(보물)과 울산의병장으로 참전한 박홍춘 환도(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를 들 수 있다. 또한 청나라 형식의 칼과 비교를 위해 강화도에 수장되었던 대한제국기의 칼인 강화고 환도(江華庫環刀)도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sup>265)</sup>

265) 강화전쟁박물관, 『2016년 강화전쟁박물관 특별전시』, 2016. p.37.

<표2. 이순신장검과 임진왜란기 도검, 강화고 환도의 칼자루 윗마개 비교>

문화재명	전체	칼자루 윗마개	길이(cm)
충무공장검			197.2
권응수장검			73.0
박홍춘장검			99.0
강화고 환도			89.0

권응수장검의 칼자루 윗마개는 사실 얇은 철판으로 가공한 것으로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광재우나 정기룡의 칼자루가 둥글게 가공된 것과는 달리 직선으로 가공하여 오히려 이순신장검과 모양은 비슷하다. 이 권응수장검은 일본군 장수 희팔(喜八)으로부터 노획하였다는 유래가 전해져 오며, 슌베에는 ‘대영원년(大永元年)’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해보다 약 70년 정도 앞선 1521년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다. 한편 박홍춘 환도의 칼자루 윗마개는 사다리꼴의 형태로 이순신장검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에 반해 대한제국기 청나라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화고환도는 윗마개의 끝면이 평면이 아닌 곡면을 이루고 있어 서로 이질적인 감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이순신장검의 칼자루 윗마개는 명군으로부터 도입한 중국적 요소라고 전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사 모방했다고 해도 상당히 변형되었거나 생각된다. 시기적으로도 이순신장검이 제작된 1594년은 이순신이 명군과 접촉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정유재란 이후 전쟁이 끝나던 1598년에야 비로소 명의 수군과 연합함대를 이룬 것을 생각하면 중국의 영향이라는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위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칼날의 휨 정도, 코등이, 칼자루 윗마개 등이 이순신장검과 유사한 도검이 임진왜란 중 제작되거나 가공되었으며, 특이하게도 모두 경상도(특히 우도)에 편중된 것으로 보아 지역적 혹은 장인의 인적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의 도검이 크게 변화한 계기가 되었던 임진왜란 중 최고사령관의 한사람인 이순신의 주관으로 제작된 이 장검은 일본도의 장점을 흡수하고 있

으며, 조선 후기 대형 도검 형태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용도와 상징성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조선시대 군용도검 중 가장 크고 길이도 197.2cm로 가장 긴 칼로, 발도의 과정을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누군가는 칼집을 잡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자루가 5kg에 가까우며 한쌍으로 이루어져 있어 혼자서 모두 휴대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의장용으로서 장수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하거나, 재앙을 막기 위한 벽사의례용 또는 위인을 기리기 위한 사후 봉납용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전용이라면 오늘날까지 남아 있기가 어렵다. 충무공 장검 이전의 칼은 월도나 꼬투리처럼 중국 사람의 장기인 창 같은 칼 외에는 큰 칼이 없다. 협도나 월도도 칼날은 그리 길지 않다. 충무공의 장검은 외형은 환도 같고 크기는 장도만하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1790)의 쌍수도(雙手刀)의 길이와 비교해 보면, 거의 같다. 다만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무게가 약간 더 무겁다.<sup>266)</sup> 쌍수도는 호인이 길어 호인을 한 손에 잡고 한 손은 병부를 잡고 사용하므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순신 장검에는 호인이 손으로 잡을 만큼 길지 않다. 혹시 병부가 길어서 호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겠지만 칼의 사용에는 균형이 맞아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쌍수도는 이순신장검이 조선 후기로 전해지면서 이 칼을 실전용으로 상징하여 이에 맞는 검법을 만들려고 했던 산물이 아닌가 한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임진왜란 중 사용된 도검은 80cm 내외의 크기를 보이며 이순신장검 외 가장 큰 장검인 정기룡의 장검도 1m가 조금 넘는다. 일본의 경우도 임진왜란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오오다치(大太刀, 大山祇神社 소장)가 가장 큰 경우에 속하는데 1366년(貞治 5년) 제작된 것으로 칼날의 길이가 135.7cm에 이르지만 실전용 도검이 아닌 천황에게 봉납된 칼이다.<sup>267)</sup> 실제 임진왜란 중 사용된 일본 장수들의 도검은 70~80cm 내외의 크기이다.

서양의 경우 14~17세기 유행한 장검(Langes Schwert)의 경우 길이가 약 100~140cm(날의 길이 85~120), 무게가 약 0.8~1.8kg이었으며, 16세기 독일에서 사용한 실전용 대형검인 츠바이헨더(Zweihänder)는 쌍수검으로 140~180cm 내외에 일반적 무게는 2~3.6kg 정도였다. 최대 213cm, 4kg인 것도 있으나 16세기 후반

266)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칼과 충무공 이순신 장검의 규격 비교<1자=30.3cm(영조척), 1근=641.9g>

검명	전체길이	칼날 길이(刃長)	칼자루 길이(柄長)	무게
雙手刀	6자 5치 (197cm)	5자 (151.5cm)	1자 5치 (45.5cm)	2근 8냥 (1.6kg)
月刀	9자 2치 (279cm)	2자 8치 (84.8cm)	6자 4치 (193.9cm)	3근 14냥 (2.5kg)
挾刀	10자 (303cm)	3자 (90.9cm)	7자 (212.1cm)	4근 (2.6kg)
충무공 장검	6자 5치 (197.5cm)	4자 5치 (136.9cm)	2자 (59.5cm)	(4.3kg)

\* 박홍수, 「李朝 尺度標準에 관한 考察」, 『소암이동석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대학사, 1981.

267) 笹間良彦 감수, 棟方武城 집필, 『すぐわかる日本の甲冑・武具』, 東京美術, 2004, p.75 참조.

에 이르러 의식용으로 사용되었다.<sup>268)</sup> 체격이 큰 서양인도 2m가 넘고 4kg이 넘는 대형검은 실전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의식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이순신 장검은 실전검으로서의 효율성이 낮고, 명문으로 보아 평소 마음을 다잡고, 전투 수행 전 장병들의 각오를 다지는 의식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순신 장군은 출전에 앞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전쟁의 신 치우를 기리는 독제를 지낸 기록이나, 휘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결의를 다지는 문서로 작성한 감결(甘結)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의식용이나 위용을 과시하는 의장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 ○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序例』.
- 『戎垣必備』.
- 『武藝圖譜通志』.
- 『亂中日記』.
- 『李忠武公全書』.
- 김기웅, 『무기와 화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정영호 감수,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1, 시공테크, 1999.
- 육군박물관, 『조선시대의 도검』, 2004.
- 한국군사연구소 편, 『한국군사사』 13, 육군본부, 2012.
- 육군박물관, 『朝鮮의 刀劍 忠을 베티다』, 2013.
- 곽낙현, 『조선의 칼과 무예』, 학고방, 2014.
- 현충사관리소,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충무공 장검』, 2014.
- 강화전쟁박물관, 『2016년 강화전쟁박물관 특별전시』, 2016.
- 宇田川武久, 『東アジア兵器交流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3.
- 笹間良彦 감수, 棟方武城 집필, 『すぐわかる日本の甲冑・武具』, 東京美術, 2004.

---

268) Wikipedia, Zweihänder 및 Langes Schwert 참조.

## 8.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報恩 法住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 가. 검토사항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6.12.3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2.11.22./'22.11.2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2003.2.3. 지정)
- 명 칭 :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報恩 法住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법주사
- 수 량 : 불상 3구, 조성발원문 3점, 중수발원문 1점
- 규 격 : 표 참조
- 재 질 : 나무, 흙, 종이
- 형 식 : 비로자나삼불좌상
- 조성연대 : 1626년(인조 4)
- 제작자 : 현진(玄眞), 청헌(淸憲), 연묵(衍默), 회묵(懷默), 옥정(玉淨), 도형(道澗), 영색(英蹟), 설매(雪梅), 성각(性覺), 설화(雪和), 혜명(惠明), 천호(天浩), 일영(日暎), 태선(太先), 설원(雪源), 성혜(性惠), 신윤(信允)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지정 대상 현황>

연번	명칭	크기(cm)
1	본존불	높이 509cm, 무릎 폭 404cm
2	좌협시불	높이 492cm, 무릎 폭 374cm
3	우협시불	높이 471cm, 무릎 폭 385cm
4	조성발원문(본존불)	57.2×159.8cm
5	조성발원문(좌협시불)	51.1×220.0cm
6	조성발원문(우협시불)	56.8×155.0cm
7	중수발원문(본존불)	49.0×225.0cm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5m가 넘는 크기의 대형 소조대불이다. 2002년 개금불사과정에서 발견된 복장물과 발원문을 통해 1626년 3월에 시작하여 7월에 완

성되었으며 1747년의 중수개금한 사실도 밝혀졌다. 삼불상은 수조각승 현진, 차화승 청헌을 중심으로 총 17명이 협업하여 조성하였다. 발원문의 사내질에는 覺性이 있어 범주사 중창불사를 주도한 벽암각성이 참여하여 그 중요성을 더한다.

조각승 현진은 나무를 주재료로 작업한 조각승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5m가 넘는 3구의 소조대형불상 가운데 두 구는 현진이 만들었으며 한 구는 그 제자인 청헌에 의해 조성되었다. 현진은 1607년 2m가 넘는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제작하면서 소조와 목조를 혼합한 제작기법을 연마한 후 1626년 속리산 범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과 1633년 무량사 극락전의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하였다. 그가 제작한 소조대불은 단 2건에 불과하지만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조각승 현진의 불상은 넓은 어깨와 무릎에서 오는 당당함과 장대함, 넓적한 얼굴과 넓고 각진 턱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거대하지만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또한, 불상과 관련된 기록인 발원문과 중수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제작시기와 조각승은 물론 1630년 중관 해안이 쓴 <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相記>을 통해 <大雄大光明殿>이라는 원래의 전각명칭과 ‘三身’으로 조성되었음도 확인된다. 그리고 1618년에 중창된 대웅보전의 역사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범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소조의 대형불상 및 다양한 기록 문화를 갖춘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인정된다.

그러나, 범주사 대웅보전의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제작기법, 존명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상의 내부에 조각승 또는 스님의 범명으로 추정되는 묵서도 남아 있지만 조사와 정확한 판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비로자나삼불의 도상에 대한 정확한 존명도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즉, 비로자나, 석가, 아미타 또는 비로자나, 석가, 노사나불이라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복장물에 대한 정확한 물목 조사와 납입시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불상에서는 후령통이 여러 건 발견되었으므로 불상 조성과 개금 중수 시 안립된 복장물이 납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분류 등 보완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형 소조불, 삼신불 도상, 조각승 현진과 청헌이 주도한 불상으로 조선 후기 불교조각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불상임은 틀림없지만 아직 조사가 불충분한 현 시점에서의 국보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범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1626년에 조각승 현진·청헌에 의해 조성된 불상으로 이들 유파의 조각적 성향이 잘 반영되어 있는 불상들이다.

도상적 구성을 보면 비로자나불+석가모니불+노사나불로 구성되는 삼신불(三身



佛)과 석가모니+아미타+약사여래로 구성되는 삼세불(三世佛)이 결합되어 비로자나+석가모니+아미타여래의 삼불 구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사례로 기림사(1620년대 중반), 선운사, 귀신사의 삼불 구성을 볼 수 있는데, 비로자나+아미타+약사여래의 3불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들도 모두 대형소조불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법주사 대웅전 삼불상의 경우 중관 해안이 1630년에 쓴 『속리산대법주사대웅대광명전불상기(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相記)』에 의하면 원래 전각의 명칭이 대웅대광보전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웅전과 대광명전이 결합된 명칭임이 확인된다. 즉, 대웅전의 삼세불과 대광명전의 삼신불이 결합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삼신+삼세 구성이 다른 사찰에서의 비로자나+아미타+약사여래의 삼신+삼세 구성과 어떤 사상적 배경의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연구된 바가 없다. 다만 이렇게 다양한 불교사상을 통합하는 성향은 조선시대 불교의 한 특징으로 주목되고 있다.

앞서 예로 든 삼신삼세불상 외에 완주 송광사에도 대형의 소조불상이 완전한 삼세불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기림사를 제외하면 충청·전라 일대에 이러한 대형소조불상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대형불상이 지니는 다소 경직된 인체처리 방식과 함께 매우 정교한 옷자락처리가 어우러진 독특한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삼불구성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삼신+삼세불 구성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례로서의 가치가 입증되어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되었지만, 지정 이후 새롭게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항이나 연구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주사식 삼신+삼세불 구성에 대한 충분한 배경연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국보급으로 승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규모가 5m가 넘는 대형불상임에도 불구하고 발원문에 담겨 있는 정보가 소략하여 불상을 통해 당시 불교계의 동향이라든가 중앙과 지방정부, 나아가 역사적 인물과의 관련성 등을 읽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더불어 삼신불상에 대한 도상해석도 완전하지 않다. 여러 가지 정황상 법신 비로자나, 화신 석가여래, 보신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해 삼화사 철불이나 일본 동대사 청동노사나불과 마찬가지로 여래형의 노사나불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아쉽게도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상과 달리 사적기 등 주요 기록 자료에서 구체적인 존명표기 없이 삼신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어 어떠한 존상으로 삼신불상을 구성했는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음으로 소조불이 갖고 있는 내구성, 즉 보존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조불은 아무래도 목조불이나 금동불에 비해 내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손상과 파손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리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전하는 기록상 법주사 삼신불상은 조성된 이래 한 차례, 그리고 보물로 지정된 이후로도 한 차례 수리가 이루어졌다. 수리 시 원래의 형태를 존중하여 수리가 되었을 것이나 일부 변형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정밀 기록진단이나 보존처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규모가 5m에 달하는 초대형 불상으로, 17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이 분명하지만 도상과 제작 기법, 수리의 연혁, 17세기 대형 소조불상과의 비교고찰, 발견된 복장유물의 종합적 조사와 연구 등 이와 관련된 자료 확보와 추가적인 조사 연구가 더 이루어진 뒤 국보로 승격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법주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1626년에 조성된 대형불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삼존불상임은 틀림없다. 특히 조선시대의 소조불상 중 찾아보기 쉽지 않은 대형 상이며, 17세기 불상 중에서도 조성 시기가 빠르므로 소조불상의 양식적 전개를 살펴보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상이다. 그러나 최근에 국보로 승격된 1635년작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상의 사례와 비교할 때 <법주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현 단계에서는 삼불의 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불명확함이 남아 있다. 또한, 소조라는 재질의 특성상 지속해서 수리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과학적인 조사와 기록화 사업 등을 통해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보수되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복장유물은 향후 불상과 함께 일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하면, 도상의 모호성과 보수 여부의 불명확성 등의 사유로 국보 승격을 보류하고자 하며, 향후 과학적인 조사를 건의하는 바이다.

## 마. 의결사항

### ○ 부 결

## 조사보고서

□

### ○ 내 력

법주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로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하고 있다. 법주사 대웅보전은 1624년 벽암각성이 중창하면서 건립한 것으로 총 120칸에 건평 170평, 높이 61척의 다포식 중층건물이다. 법주사 대웅보전 중창을 주도한 벽암각성(1575~1660)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승군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쌓았으며 사고(史庫)를 보호한 스님으로 부휴선사의 제자이다.

대웅보전에 대해서는 1715년 「朝鮮國忠淸道報恩縣東嶺俗離山大法住寺大光明寶殿四度重修上樑文」에서 1618년 8월 22일에 3번째 중창되고, 1715년 3월 12일에 상량, 중수되었다고 밝혔다(“大明萬曆四十六年戊午三重創八月二十二日上樑 大明崇禎丙子後八十年 歲在 旃蒙協洽暮春之十二日 著雍涖灘 時 大荒落 上樑重修 奉爲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低下壽千秋 國泰民”).

대웅보전의 전각 불단에는 소조로 만든 5m가 넘는 대형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2002년 개금불사 과정에서 일부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 조성발원문과 중수원문이 포함되어 있다. 발견된 이 발원문에 의해 1626년(인조 4) 3월에 시작하여 7월에 완성하였음이 밝혀졌으며, 1747년(영조 23)에 다시 개금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불상은 조각승 현진(玄眞)을 중심으로 청헌(淸憲)을 비롯한 17명이 함께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 ○ 현상 및 특징

대웅보전의 주존불로 모셔져 있는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5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이다(도1). 삼불 모두 장대하고 안정감 있는 신체적 특징을 보이며 본존불이 높이 509cm, 좌·우협시불은 이보다 작은 492cm와 471cm의 크기이다. 본존불의 얼굴은 방형으로 넓적한 형태에 턱은 넓고 거의 각이 지게 표현하였다. 육계는 넓고 낮으며 나발은 작고 촘촘하다. 신체는 장대하지만 편평하고 굴곡이 전혀 없는 평면적인 양감을 보인다. 본존의 편삼은 복부 중앙에서 대의 속으로 삼입되며, 옷주름 폭이 넓고 꺾임이 예리하다. 왼쪽 어깨에 걸쳐진 대의 자락이 형성한 U자 모양의 옷주름과 하단이 동그랗게 말린 모양의 좁고 긴 옷주름이 합쳐진 모습은 1614년 천은사 극락전의 목조보살상이나 1615년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

17세기 전반기의 불상에 많이 보이는 특징이다. 양 협시불은 변형 편단우견식으로 팔목이 노출되었으며, 승각기는 가슴까지 끌어올려 끈으로 묶어 상단부분을 연판형(蓮瓣形)으로 처리하였다.



<도1.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법주사 대웅전의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불로 구성되었다. 본존불인 중앙의 비로자나불상은 변형식 편단우견에 편삼을 입었으며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싼 변형된 지권인을 취하였다. 좌·우협시여래상은 변형편단우견식 대의를 입었으며, 좌협시불은 향마촉지에 왼손은 무릎위에서 엄지와 중지를 결하였다. 우협시불은 왼손을 가슴 높이로 들고 오른손은 무릎에 놓은 상태에서 엄지와 중지를 구부렸다(도2). 따라서, 삼불의 형식으로 보면 중앙은 비로자나불, 좌협시불은 석가불로 판단된다.



석가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또는 노사나불)

<도2.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조선 1626년>

그러나, 우협시불은 수인으로 보면 아미타일 수도 있지만 좌우가 반대이며, 삼신불에 대입하면 노사나불이 된다. 즉, 비로자나불은 오른손으로 왼손을 깎지 낀 지권인을, 향좌측의 석가불은 향마촉지인을, 향우측불은 중품하생인의 아미타수인이지만 왼손을 가슴 높이로 든 역수인이다.

그런데, 1630년 중관 해안(中觀 海眼)이 쓴 <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相記>에는 삼신(三身)이 있다고 쓰여 있으며 전각의 명칭도 대웅대광명전으로 삼신불로 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신불이 조각으로 조각된 사례는 1635년의 화엄사 대웅전의 비로자나삼불좌상이 유일하다. 즉, 화엄사 비로자나삼불상은 비로자

나, 석가불과 보관을 쓰고 양손을 어깨높이로 든 노사나불 형식으로 삼신불이 정확하게 표현되었다. 비로자나삼불상은 고려 후기부터 시작하여 조선 전기까지 조성되었다. 1375년의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물에서 발견된 <성불수구다라니경변상도>에는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삼불 가운데 여래형의 아미타불이 그려져 있다(도3-①). 고봉국사(1350~1428년)의 원불로 전하는 순천 송광사 소장 높이 16cm의 불감은 내부에 비로자나삼불상이 봉안되어 있지만 좌·우협시불의 도상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도3-②). 1348년의 경천사지 10층 석탑탑신 1층에 부조된 <삼세불회>의 비로자나삼불좌상은 중앙의 비로자나불과 좌우에 두 손의 수인이 다른 여래상이 연화좌 위에 앉아 있다. 같은 형식이 1467년 원각사지에도 조각되어 있다. 이외에도 기림사와 귀신사에는 16~17세기에 제작된 비로자나, 아미타, 약사불로 구성된 비로자나삼불상이 남아 있다.



① 성불수구대다라니경, 해인사 원당암, 1375년 ② 전 고봉국사 불감, 순천 송광사, 여말 선초 <도3. 비로자나삼불상 사례>

따라서,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다양한 비로자나삼불상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비로자나삼불상은 비로자나, 석가, 노사나의 삼신불, 비로자나, 아미타, 약사불로 구성된 삼세불 그리고 수인만으로 해석이 어려운 비로자나삼불상이 혼합되어 있어 도상 해석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주사 소조 비로자나삼불좌상의 비로자나와 석가불이 포함된 삼불의 경우 우협시불이 노사나인지 아미타불인지 정확하게 결론짓기 어렵다.

### ○ 복장물과 조각승 현진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높이 5m에 달하는 대형 소조불로 2002년 개금불사 과정에서 다수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당시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본존불의 내부에는 원래 자리에서 이탈 또는 교란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복장물과 천장 및 벽면에서 탈락된 다라니들이 뒤섞인 채 발견되었다(도4). 발원문은 우측 바닥면 북쪽에 놓여있었고, 서남쪽 측면에 연두색 옷, 바닥 중앙에는 녹색 비단 보자기와 청색실, 좌측 바닥에는 명주솜옷 위에 후령통, 후령 등이 발견되었다. 후령통 아래 붉은 비단보자기와 오륜종자가, 보자기 밖에는 유리조각과 향을 썬 한지, 흰 실타래 등이 놓여 있었다.



<도4. 비로자나불좌상 내부>

불상의 내부는 좌·우측 및 후방 벽면에 폭 30cm 내외의 판재가 이어져 타원형으로 둘러져 있으며, 30cm 내외의 선반이 마련되어 그 위에 복장유물이 올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도5). 그리고 淸□ 등 스님의 법명으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남아 있어 불상을 만든 조각승의 법명인지 앞으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양협시불 역시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원래 자리에서 이탈되어 바닥면에 떨어져 있던 것을 수습하였다.



<도5. 비로자나삼불좌상 내부>

불상 대좌의 내부에서는 발원문이 발견되었는데, 1626년의 조성발원문 3건과 1747년의(비로자나불) 개금발원문 1건이다(도6). 먼저, 삼불에서 각기 발견된 3건의 조성발원문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1626년(天啓六年 丙寅) 3월에 불상삼존을 조성하였다는 조성시기와 시주목록 및 시주자 등이 적혀 있으며, 이 불상을 만든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극락국(極樂國)에 함께 태어나고 모두 불도(佛道)를 이루기를 바라는 소박한 바람을 담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불상을 만든 화원 현진, 청현 등 17명이 협업하여 조성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즉, 현진과 청원 다음으로 衍默, 懷默, 玉淨, 道澗, 英頤, 雪梅, 性覺, 雪和, 惠明, 天浩, 日暎, 太先, 靈源, 性惠, 信允 등 15명의 법명을 열기하였다(참고자료).



비로자나불 조성발원문 57.2×159.8cm



석가불 조성발원문 56.8×155cm



아미타불(노사나불) 조성발원문 51.1×220.0cm



개금 중수발원문(부분) 49.0×225.0cm

<도6. 비로자나삼불좌상의 조성원문과 중수원문>

두 번째는 개금발원문이다(참고자료). 개금은 1747년(乾隆丁卯)에 이루어졌는데 이를 담당한 화원은 畫員山人 묘경(妙鏡)과 首畫員山人 세관(世冠)이다. 원문에는

大王大妃殿下萬歲萬歲聖壽萬歲  
 黃金大施主乙卯生  
 世子低下千秋千秋壽千秋 黃金大施主乙卯生  
 洪氏保體壽齊年

등 통상적인 의례어인 주상전하에 대한 문구가 빠져있고, 대왕대비와 세자저하의 중간에 황금대시주 을묘생이 삽입되는 등 일반적인 순서와는 다른 점이 주목된다. 당시의 왕은 영조(1725~1776)인데 영조의 첫째 아들 효장이 죽었고 영빈이씨 소생의 둘째 아들 사도세자만이 있어 내용 중의 세자는 사도세자로 추정된다. 영조는 자신의 정치적인 힘과 사도세자를 시험하는 방법으로 대리청정을 시키게 되는데 이 불상이 개금중수된 1747년의 2년 뒤인 1749년에도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세자 저하 바로 다음에 적은 홍씨는 혜경궁 홍씨를 연상하게 되는데 혜경궁 홍씨(경의왕후, 1735~1805)는 1744년 세자빈에 책봉되므로 홍씨라는 명칭은 다소 어색하지만, 세자저하 다음에 놓은 그 위치나 같은 성씨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상주목사 이협(李峽)과 비구들이 참여하였으며 현재주지인 時주지 통정인기(通政印起)를 비롯하여, 이전의 주지들이 대거 참여한 대불사였다.

법주사 불상을 만든 주요 조각승은 현진과 청헌이다. 먼저, 수조각승 현진은 중

관해안(中觀海眼)이 「속리산대법주사대웅대광명전불상기(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相記)」에서 초나라 도읍 영(郢)에 살던 흠을 잘 다루던 장인 이름을 딴 ‘영장현진(郢匠玄眞)’으로 소개하였다. 그의 초기 작품인 1612년 상련대 관음보살좌상의 복장발원문에도 상원(上員)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에 그의 뛰어난 기량을 증명하였다. 그는 약 40여 년 동안 활동하였는데, 소조와 목조에 능숙한 조각승으로 수량 면에서는 오히려 목조상을 많이 제작하였으며 그가 조성한 대표적인 불상은 11건 정도이다(표1). 그러나 작품 수는 적지만 ‘영장현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흠을 이용한 소조상에서 특히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표1. 조각승 현진의 대표 불상 목록>

연번	작품명	현 소장처	제작연도	크기	조각승	기타
1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진주 불정사	1604년	38.0cm	玄眞 釋峻 圓悟 覺敏	
2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장성 백양사	1607년	208.2cm	玄眞 休逸 文習	보물
3	목조관음보살좌상	함양 상련대 원통보전	1612년	38.0cm	上員 玄眞 造像主 學文, 次員 明隱, 次員 義能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4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진주 월명암	1612년	80.0cm	上員 玄眞, 學文, 明隱, 義能, 太訓	보물
5	목조관음세지보살좌상	구례 천은사 극락전	1614년	관음92.4cm 대세지98.0cm	書士 玄眞 明隱, 蒙能, 彦浩, 思印	
6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자인수양사)	서울 지장암 대웅전	1622년	133.0cm	玄眞, 應元, 守衍, 玉明, 法玲, 明崙, 清虛, 性仁, 晋熙, 印均, 敬玄, 志修, 太鑑, 治匠, 性玉, 勝一, 密衍, 義仁	보물
7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보은 법주사 대웅전	1626년	비로자나불 509.0cm	書員 玄眞, 淸憲, 衍默, 懷默, 玉淨, 道罔, 英頤, 雪梅, 性覺, 雪和, 惠明, 天浩, 日暎, 太先 靈源, 性惠, 信允	보물
8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창녕 관룡사 대웅전	1629년	석가불 155.5cm	書員 玄眞, 勝一, 天敏, 守英, 坦行, 哲義	보물
9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부여 무량사 극락전	1633년	본존불 521.0cm	大書士 玄眞, 次書士 衍默, 懷默	보물
10	목조아미타여래삼불좌상	청도 적천사 대웅전	1636년		大書師 玄眞, 副書師 靈瓚, 熙玄, 哲行, 處暎, 雪雄	
11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영남대학교 박물관	1637년		書員 玄眞, 勝一, 靈瓚, 熙玄, 處暎, 靈湜	



조선 후기 17세기는 대형소조불의 전성기이다. 1626년의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현진과 청헌이 주도한 크기 509cm의 가장 이른 소조대불이다. 이어서, 현진이 주도한 1633년의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521cm, 1641년 조각승 청헌이 만든 완주 송광사의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545cm로 그 전성기라 할 수 있다(도7). 조각승 현진은 1633년 6월 충남 무량사 극락전의 소조아미타삼존불상도 조성하였는데 법주사 불상을 함께 한 차화사 연묵(衍默), 회묵(懷默) 등이 참여하였다. 특히,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과 법주사 삼불좌상은 크기도 비슷하고 조형적인 느낌도 매우 비슷하다.

청헌은 현진이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을 제작할 때 2위의 화원으로 처음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전 현진이나 다른 조각승들과 공동작업을 한 기록이 전혀 없다. 따라서, 현진 밑에서 소조불 기법을 배운 다음 1641년 수화승으로 법령, 혜희 등 14명의 조각승과 함께 완주 송광사의 대형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조성하게 된다. 이외에도 1636년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9년 하동 쌍계사 대웅전의 목조삼불좌상 등 중요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17세기 소조대불은 조각승 현진에 의해 시작되고 그 제자에 의해 계승,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은 법주사  
소조여래좌상, 509cm,  
1626년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521cm,  
1633년



완주 송광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545cm,  
1641년

<도7. 17세기 소조대불>

## ○ 참고자료

### <본존불-조성발원문>

天啓六年丙寅三月日始役於七月二十四日佛像三尊已完點眼安于」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當生極樂國皆共成佛道與各各結願隨喜」施主等」佛像大施主沈休許里兩主」佛像大施主 李石連兩主」佛像大施主 韓俊兩主」供養大施主 一禪□□」供養大施主 朴貴失兩主」供養大施主 金壽兩主」供養大施主 李愛山兩主」供養大施主

申起成兩主」佛像大施主 金甘金兩主」供養大施主 德春兩主」供養布施兼大施主億非 單身」材木大施主 鄭鶴卜兩主」材木大施主 崔仁世兩主」引勸大施主 金千水兩主」布施大施主 春非兩主」布施大施主 李得 兩主」布施大施主 金春玉兩主」供養大施主 徐劉山兩主」布施大施主 朴應年兩主」布施大施主 金黍赤兩主」布施大施主 豐介兩主」布施大施主 李万年兩主」布施大施主 孔文壽兩主」布施大施主 金起兩主」布施大施主 李春鶴兩主」布施大施主趙卜兩主」釘鐵大施主 金剋壽兩主」釘鐵大施主朴勝卜兩主」供養大施主 李希兩主」釘鐵大施主林逸兩主」供養大施主 金万世兩主」腹莊大施主金逸男兩主」腹莊大施主 李文仲兩主」腹莊大施主 文今兩主」喉鈴筒大施主 安 水兩主」腹莊施主 寶老音兩主」腹莊施主 金順希兩主」喉鈴大施主 億春兩主」腹莊施主 金昆兩主」喉鈴大施主 李黍赤兩主」苧布大施主 方愛世兩主」苧布大施主 崔必兩主」苧布大施主 白貴汗兩主」布施大施主 申無應忠兩主」八葉大施主 申九峯兩主」八葉大施主 朴彥神兩主」末醬大施主 金千吉兩主」末醬大施主 崔太壽兩主」末醬大施主金汗年兩主」末醬大施主 張二男兩主」布施主洪戒卜兩主」末醬大施主 鄭希卜兩主」燈燭大施主 安士卜兩主」腹藏施主 金億水兩主」腹藏施主 種叱介兩主」熟頭大施主 吳芑無赤兩主」性賢 比丘」妙淡 比丘」應尙 比丘」靈運 比丘」學靈比丘」戒元 比丘」宗悅 比丘」性淨 比丘」雙彥比丘」 性摠 比丘」武蹟 比丘」

戒浩 比丘」宗敏 比丘」惠明 比丘」玄旭 比丘」香玉 比丘」懷卞 比丘」勝衍 比丘」勝立 單身」證明 甘印 比丘」持殿六行 比丘」畫員 玄眞 比丘」畫員 清憲 比丘」畫員 衍默 比丘」懷默 比丘」玉淨 比丘」道 比丘」英蹟比丘」 雪梅 比丘」性覺 比丘」雪和 比丘」惠明 比丘」天浩 比丘」日暎 比丘」太先 比丘」靈源 比丘」性惠 比丘」信允 比丘」緣化」別座性敏 比丘」供養主道悟 比丘」處雄 比丘」玉只」乾租敬揖 比丘」熟頭天允 比丘」妙齊 比丘」來往竺靈 比丘」印宗 比丘」李連春 單身」海云比丘」性元 比丘」文陪」菜居士 片千玉兩主」姜江阿之兩主」金良郎山兩主」埋炭 妙暉 比丘」李逸男 比丘」云淨 比丘」元倫 比丘」幹善大化士信彥 比丘」法弘 比丘」天敏 比丘」韓仁陪兩主」

### <본존불-중수원문>

…결실…昔辰年火燒沒 丙寅佛像三尊造成 其間年代 則自壬」…결실…辰燒至丙寅年計數則三十七年自丙寅至乾隆丁卯一百二十四年改金三月始役七日初四日畢功」弟子某等發心不爲 自求人天福報緣覺聲聞乃至權乘」諸位菩薩唯依最上乘發菩提心願與法界象生一時同」得 阿 多 羅三 三菩提然則主事料理執勞工匠廚中」供給人等嘉惠嘉功不可泯沒…兮張功業要使後來觀」視興感云爾」當今」大王大妃殿下萬歲萬歲聖壽萬歲」黃金大施主乙卯生」世子邸下千秋千秋壽千秋黃金大施主乙卯生」洪氏保體壽齊年」黃金大施主乙巳生朴氏」黃金大施主丁未生李氏」黃金大施主丙子生李氏」黃金

大施主丁亥生趙氏」黃金大施主己未生朴氏」黃金大施主丙寅生千氏」黃金施主丁亥生徐氏」黃金施主壬戌生尹氏」黃金施主戊寅生池氏」黃金施主乙丑生崔氏」黃金施主戊子生崔氏」黃金施主甲子生宋氏」黃金施主己酉生李氏」黃金施主丙寅生林氏」黃金施主庚辰生姜氏」黃金施主丙寅生李氏」黃金施主乙亥生金氏」黃金施主甲辰生金氏」黃金施主庚辰生金氏」黃金施主己卯生姜氏」黃金施主丁酉生河氏」黃金施主辛丑生朴氏」黃金施主己亥生金氏」黃金施主辛丑生金氏」黃金施主壬寅生尹氏」黃金施主壬寅生沈氏」黃金施主李氏」黃金施主癸卯生李氏」崇祿大夫智內侍府事李景和」黃金大施主兵馬節度使」沈鳳陽兩主 沈鳳德兩主」金德鍾」宋奎徵」池光暉」張時漢」金斗天」朴次□」李百年」

緣化秩」證師嗣祖沙門震基」諷誦山中大德覺澄」畫員山人妙鏡」首畫員山人世冠」尙州牧使李峽」兩位」比丘廣城」比丘性(贊)」比丘宇平」比丘寔演」持殿道人泰均」供養主比丘慧明」比丘海悟」負紫比丘道成」烏金化主比丘法信」本寺秩」時住持通政印起」山中沙門清空敬圓」前住持清學」前住持敏哲」前住持洞俊」前住持嘉善洞哲」山中老德忠輝」老德嘉善思念」山中老德嘉善鵬羽」比丘宗(洽)」比丘守湖」比丘秋仁」比丘智行」比丘快玉」比丘三應」通政月堅」比丘釋稔」比丘自心」比丘楚明」比丘宇琳」比丘贊敬」比丘華連」比丘位湛」比丘位成」比丘月海」比丘曇淳」比丘國眞」比丘宇森」比丘智尙」比丘位謹」比丘世寬」比丘位鑑」比丘就湖」比丘國安」比丘戒還」比丘智玄」國摠」國鑑」比丘有禪」明順」明哲」沙彌範壽」社堂法信」引勸大化主仁伯」種〃助緣 比丘信和」居士玉淳」社堂玉梅」比丘尼勸念」太和」比丘尼休還」大化主比丘尼太行」別座階法岑」

### <우협시불-중수발원문>

天啓六年丙寅三月日始役於七月二十四日佛像三尊已完點眼安于」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當生極樂國皆共成佛道與各各結願隨喜施主等」佛像大施主 沈休許里兩主」佛像大施主李碩連兩主」佛像大施主 韓俊伊兩主」供養大施主 一禪兩主」供養大施主 朴貴失兩主」供養大施主 金壽兩主」供養大施主 李愛山兩主」供養大施主申起成兩主」佛像大施主 金甘金兩主」供養大施主 德春兩主」供養布施兼大施主 億非單身」材木大施主 鄭鶴卜兩主」材木大施主 崔仁世兩主」引勸大施主 金千水兩主」布施大施主春非兩主」布施大施主 李得兩主」布施大施主金春玉兩主」供養大施主 徐劉山兩主」布施大施主 朴應年兩主」布施大施主 金黍致兩主」布施大施主 豐珍兩主 布施大施主 李萬年兩主」布施大施主 孔文壽兩主」布施大施主 金起兩主」布施大施主 李春鶴兩主」布施大施主 趙福兩主」釘鐵大施主 金剋壽兩主」釘鐵大施主 朴承卜兩主」供養大施主 李希兩主」釘鐵大施主 林貴一兩主」供養大施主 金萬世兩主」腹藏大施主金逸男兩主」腹藏大施主 李文仲兩主」腹藏大施主 文今兩主」喉鈴筒大施主 安白壽兩主」腹藏施主 寶老音兩主」腹藏施主 金順希兩主」喉鈴大施

主 金億春兩主」腹藏施主 金昆伊兩主」喉鈴大施主 李恣致兩主」苧布大施主 方愛世兩主」苧布大施主 崔必兩主」苧布大施主 白貴汗兩主」布施大施主 申無應忠兩主」八葉大施主申九峯兩主」八葉大施主 朴彥神兩主」末醬大施主 金千吉兩主」末醬大施主 崔太水兩主」末醬大施主 金汗年兩主」末醬大施主 張二男兩主」布施大施主 洪季卜兩主」末醬大施主 鄭希卜兩主」燈燭大施主 安士卜兩主」腹藏施主 金億壽兩主」腹藏施主 種叱介 單身」熟頭大施主 吳芑赤兩主」施主 性賢 比丘」妙淡比丘」應尙 比丘」靈運 比丘」學靈 比丘」戒元 比丘」宗悅 比丘」性淨 比丘」雙彥比丘」性摠 比丘」武색미구」戒浩 比丘」宗敏 比丘」惠明 比丘」玄旭 比丘」香玉比丘」懷卞 比丘」勝衍 比丘」勝立 保 」證明 鑑印 比丘」持殿 六行 比丘」畫員 玄眞 比丘」畫員 淸憲 比丘」畫員 衍默 比丘」畫員 懷默 比丘」玉淨 比丘」道0미구」英색미구」雪梅 比丘」性覺 比丘」雪和 比丘」惠明 比丘」天浩 比丘」日映比丘」太先 比丘」雪源 比丘」性惠 比丘」信允 比丘」緣化秩」別座 性敏 比丘」供養主 道悟 比丘」處雄 比丘」玉只」熟頭 天允 比丘」妙齊 比丘」來往 竺靈比丘」印宗 比丘」海云 比丘」李年春 單身」性元 比丘」文陪 單身」菜居士 片千玉兩主」姜江阿之兩主」金良郎山兩主」李逸男兩主」埋炭妙暉 比丘」云淨 比丘」元倫 比丘」幹善道人 信彥 比丘」法弘 比丘」天敏 比丘」韓仁陪兩主」

## ○ 참고문헌

- 『법주사 대웅전 실측·수리보고서』 上, 문화재청, 2005.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전국사찰문화재 일제조사-충청북도편』, 2005.
- 이강근, 「17세기 법주사의 재건과 양대 문중의 활동에 관한 연구」, 『講座美術史』 2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 윤종균, 「法住寺 大雄寶殿 三身佛 腹藏調査」, 『東垣學術論文集』 5, 2002.
- 정은우, 「여말선초의 금동불감 연구-순천 송광사 高峰國師 불감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15, 불교미술사학회, 2013.

□

○ 현 상



<도1.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법주사의 중심 전각인 대웅보전 안에 설치된 대형 불단 위에 주불로서 봉안된 대형의 소조삼불상으로 협시보살은 없이 3구의 불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도1] 중앙의 본존은 지권인을 결하고 있어 분명히 비로자나불상임이 확인되고, 우협시불은 향마촉지인을 결한 석가모니불상으로 확인된다. 좌협시불은 아미타불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미타불은 서방극락정토를 상징하며 삼세불 봉안시 우협시불의 위치에 놓이지만, 여기서는 좌협시불로 봉안된 것이 특이하다. 원래 이 자리는 삼세불의 경우 약사불이 모셔지는 자리이지만, 법주사 대웅보전의 존상 구성은 삼세불과는 구별되는 양상이므로 삼세불과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현재는 약함도 들고 있지 않아 약사불로 보기는 어렵다.

1630년 중관 해안(中觀 海眼)이 쓴 <속리산법주사대웅대광명전불상기>에 의하면 현재의 대웅보전의 원래 명칭은 대웅전과 대광명전이 합쳐진 대웅대광명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웅전은 석가삼세불, 즉, 석가모니, 아미타불, 약사불의 삼세불상을 모시는 개념이고, 대광명전은 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 노사나불의 삼신불상을 모시는 개념인데, 이 두 전각이 합쳐진 것은 이 삼세불과 삼신불을 하나로 합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두 삼불상에 공통되는 석가모니를 제외하면 총 5구의 불상이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약사불과 노사나불을 제외하고 아미타불만 남김으로써 비로자나 및 석가모니는 삼신불의 2불, 석가모니, 아미타불은 삼세불의 2불로서 전체를 상징하는 삼불구성으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우협시불은 아미타불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도2. 본존 비로자나불좌상>

본존 비로자나불은 비례적인 측면에서 무릎의 폭이 넓고, 어깨도 넓으며, 상체를 곳곳이 세우고 있어 그 크기 뿐 아니라 자세에 있어서도 당당한 인상을 풍긴다.[도2] 전반적으로 정상계주, 어깨, 무릎을 이어주는 선이 정삼각형의 구도 안에 들어간다고 보일 정도로 안정적인 비례이다. 정상계주와 중간계주가 표현되었는데, 정상계주는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도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함인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일반적인 불상들에 비해 나발로 덮인 부분이 전체 얼굴면적에 비해 다소 좁은 듯이 느껴지고, 불상의 크기에 비해 나발은 작고 촘촘하다. 머리카락으로 덮인 부분이 적어보이는 만큼 불두의 안면이 더 넓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얼굴 표정은 눈을 가늘게 뜨고 불단 앞의 예불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며, 눈·코·앞이 T자형을 이룬다. 방형의 턱에 미소가 사라진 매우 근엄한 표정이 강조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안면부가 넓은 대신 볼과 턱 등의 양감은 강조되지 않아 옆에서 보면 얼굴이 다소 평면적으로 보인다. 귀는 매우 두터워서 정면에서 볼 때도 존재감이 뚜렷하다. 귓구멍 앞의 살이 접히는 부분이 정면에서 분명히 보일 정도로 큼직하게 묘사되었다. 목 아래의 삼도의 표현이나 가슴의 양감 등은 간략하게 처리된 편이다. 지권인을 결한 손은 마치 손가락의 길이가 전부 같은 것처럼 보이며, 더불어 손톱이 매우 크게 강조되었다. 특별히 양감을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정면에서 볼 때 손가락 마디가 접히는 부분에 음각선을 두어 양감을 표현하고 있다.[도3]



<도3. 비로자나불좌상 세부>



<도4. 비로자나불좌상 세부(측면)>

전반적으로 불상이 거대한 대신 얼굴이나 인체의 표현은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처리하고, 대신 선을 굵게 하여 단조로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화된 측면이 조각가의 기량의 한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옷자락 처리에서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단순하고 경직된 듯한 인체 처리와 달리 옷자락은 매우 현란하게 입체적이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다. 특히 지권인을 결한 양팔의 손목에서 아래로 늘어진 옷자락은 다른 불상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범주사 불상의 특징이기도 한데, 일부러 이렇게 옷자락을 흘러내리게 하여 역동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불상 중에서 비로자나불만 통견착의를 하고 있어 더욱 복잡한 옷주름처리가 강조되고 있다. 깊은 옷주름처리를 하면서도 팔뚝 부분은 옷자락이 팽팽하게 당겨져 팔의 양감도 강조하고 있다.[도4] 또한 소매 안쪽으로는 팔뚝 깊숙이까지 표현하여 입체감을 더했다. 무릎 아래의 옷주름은 두 줄의 평행한 옷주름으로 비교적 간단히 처리했지만, 오른발 발바닥을 절반쯤 덮으며 아래로 흘러내리는 옷주름은 아래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도 섬세하게 조각했다.[도5]

대좌는 상련과 복련이 위아래로 바로 붙어있고, 그 아래로 정면은 직선, 뒤쪽으로 삼각형에 가깝게 좁아지는 기단부가 받치고 있는 소위 ‘티베트식’ 불대좌이며 정면에는 세 마리의 사자가 받치고 있는 해학적 조각이 들어가 있다.[도6]



<도5. 비로자나불좌상 하체 및 대좌>



<도6. 비로자나불좌상 대좌 세부>

석가모니불상은 비로자나불과 달리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도7] 입술에서 턱까지의 거리가 다소 긴 편이며, 또한 턱 아래에 움푹 패인 선이 유난히 강조되었다. 편단우견에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있으며, 양손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더 잘 드러나 보이는데, 중앙에 가슴골을 아주 은은하게 표현하여 평판적인 조형성에 변화를 주고 있다. 오른쪽 어깨를 덮은 옷자락의 끝단이 물결치듯이 생동감 있게 표현한 점 등 전반적인 옷주름의 표현은 비로자나불좌상과 유사하다. 다만 얼굴 표현에서 비로자나불과 전혀 다른 인상을 풍기게 함으로써 석가모니불의 존재감을 차별화하려고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7. 우협시불 아미타불좌상>



<도8. 좌협시불 석가모니불좌상>

아미타불좌상은 석가모니불좌상과 대동소이하다.[도8] 아미타불은 보통 통견 착의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석가모니와 같이 편단우견을 하고 있는 것



이 특이한 점이다. 수인은 축지인 대신 왼손은 가슴높이로 들고, 오른손은 배 앞에 들어 각각 엄지와 중지를 맞댄 하품중생인을 결하고 있는 점이 석가모니와 다르다. 또한 석가모니불에 보이는 미소는 아미타불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본존 비로자나불좌상만큼 근엄한 표정은 아니다.

### ○ 내용 및 특징

범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은 대형의 불상이 지닌 다소 경직된 양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옷주름의 표현은 매우 활달하고 입체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세 불상은 수인으로 구분될 뿐 아니라, 얼굴표현에서도 각각 차별화되는 속성을 지녀 개성이 느껴진다.

17세기 전반 무렵 범주사를 비롯하여 김제 귀신사, 완주 송광사, 고창 선운사, 부여 무량사 등 주로 충청·전라 지역에 이와 같은 대형 소조상이 조성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석가모니와 아미타불이 함께 봉안된 매우 특별한 사례가 바로 범주사 대웅보전의 이 삼불상이다. 귀신사[도9] 및 선운사[도10]는 비로자나불과 함께 약사불+아미타불이 3존 구성을 보이고, 송광사는 전형적인 석가삼세불의 도상이다. 귀신사·선운사의 3불 구성은 임란 이전에 조성된 경주 기림사의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에서도 확인되어 삼신불과 삼세불이 결합된 양상이 이미 조선 전기에도 있었음이 확인된다.[도11] 그러나 범주사처럼 비로자나+석가+아미타불의 3불 구성은 드문 사례로서 한국불교, 특히 조선시대불교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불상 복장에서 발견된 연기문에 의하면 1626년(인조 4)에 현진(玄眞), 청헌(淸憲), 연묵(衍默), 양묵(襄默) 등이 조성하였고 1747년(영조 23)에 개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조상들은 현진·청헌과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도9.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



<도10.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



<도11.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

□

### ○ 내용 및 특징

법주사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에 위치한 사찰로, 신라시대 義信스님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체로 8세기 후반 眞表가 속리산에 터를 정하고 제자 永深이 법주사를 세움으로서 사찰의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고 보고 있다. 진표는 신라시대 점찰법회를 주도한 법상종의 승려로, 영심 또한 스승의 종지를 잘 따랐기에 창건 당시 법주사는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법상종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가람의 축은 이루는 대웅보전 팔상전, 사천왕문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미륵불이 봉안된 용화보전을 중심으로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람 축의 변화는 임진왜란 이후 사찰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법주사의 본격적인 중창은 정유재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곧바로 진행되었다. 그 시작은 1602년 시작된 팔상전 공사부터였다. 소조비로자나삼불상이 봉안된 대웅보전은 1715년 작성된 「朝鮮國忠淸道報恩縣東嶺俗離山大法寺大光明寶殿四度重修上樑文」에 1618년 8월 23일에 3번째 중창이 되고, 1715년 3월 12일에 상량 중수되었다고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다. 4번째 중수 당시 지금과 달리 전각명이 ‘大光明寶殿’이었으므로,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하는 화엄신앙에 입각한 전각 명칭이었음을 알 수 있고, 봉안된 불상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간행된 법주사 사적기(1873년 개장)에는 <대웅대광명보전>으로 되어 있어 사적기가 개장된 1873년 이후 어느 시점에 대웅보전으로 개칭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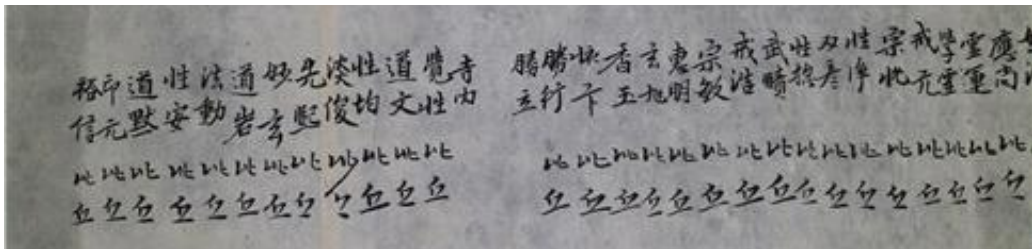


<도1.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현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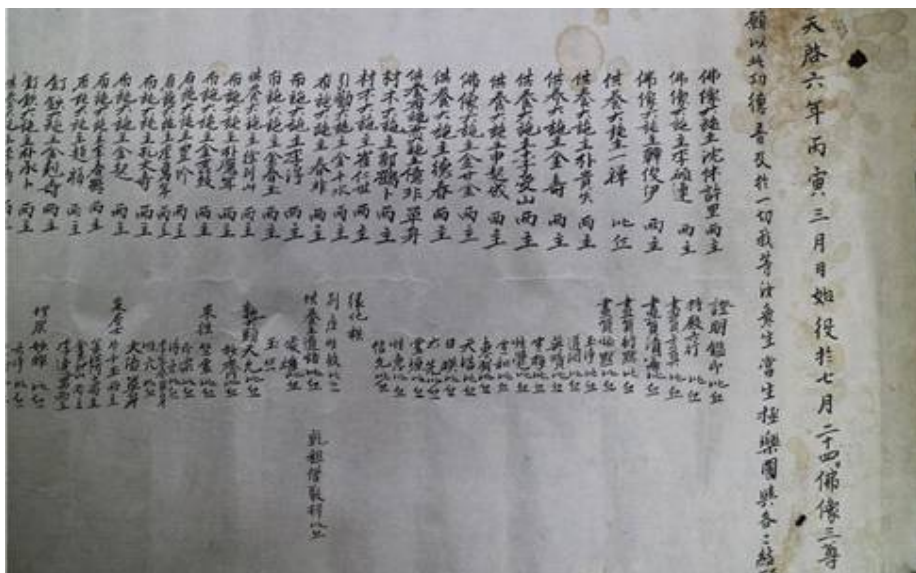
중층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규모의 대웅보전에는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해서 좌우에 아미타여래(또는 노사나불)와 석가여래가 봉안되어 있다(도1). 이들 삼불상은 나무로 불상을 윤곽을 잡은 다음 일정한 두께로 흙을 발라 천으로 배접하고 옷칠과 금을 올려 완성한 木胎塑造佛像으로 판단된다. 삼불상은 5m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이와 같은 대형의 소조불상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재건불사 과정에서 법주사를 비롯하여 논산 쌍계사, 공주 갑사, 부여 무량사, 김제 금산사와 귀신사, 완주 송광사, 고창 선운사 등 충청·전라 지역 주요 사찰에서 주로 제작되었다. 특이하게도 대형 소조불이 제작된 지역은 고려시대 개태사, 관촉사, 대조사, 충주 미륵대원 등 대형불상의 제작 전통이 남아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적 전통이 대형 소조불상 제작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하여 전국토가 폐허화되고 사찰도 그 소용돌이를 피할 수는 없었다.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인 사찰 중건과 재건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재건의 중심에는 팔도도총섭이 있었다. 팔도도총섭 체제는 임진왜란 과정에 재편된 불교 승정체제로 국난과 전시에 대비한 군대직제와 유사한 것이었다. 전란 이후 팔도도총섭을 중심으로 사찰 복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법주사도 그 사례에 해당한다. 팔도도총섭 체제에서 도총섭은 재건불사를 위해 승려 장인들을 육성하였으며, 그 육성된 장인들이 불사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였다. 17세기 전반기 도총섭으로 전국 대단위 불사를 주도했던 스님은 다름 아닌 碧巖覺性(1572~1660)이다. 벽암각성은 법주사 재건작업에 깊이 관여한 인물인데, 대웅보전 비로자나삼불상 제작 당시에도 寺內秩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불상제작에 깊이 관여했을 것이다(도2). 왜냐하면 법주사 불상이 조성되기 4년 전, 광해군비인 장열왕후가 발원하여 제작한 자수사·인수사 11존의 불상은 벽암각성과 사형인 孤閑熙彦(1561~1647)이 증명으로 참여했고, 불상을 제작한 수조각승도 다름 아닌 법주사 불상을

제작한 현진이기에 때문에 현진과 벽암각성은 이미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삼불상은 조선 인조 4년(1626)에 조성되었으며, 그 후로부터 121년이 지난 조선 영조 23년(1747)에 불상에 다시 금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창 작업에 참여한 조각승은 玄眞, 淸憲, 衍默, 懷默, 玉淨, 道澗, 英蹟, 雪梅, 性覺, 雪和, 惠明, 天浩, 日暎, 太先, 雪源, 性惠, 信允이며(도3), 중수개금에 참여한 화원은 妙鏡, 世冠<sup>269)</sup>, 廣城<sup>270)</sup>, 性贊<sup>271)</sup>, 宇平<sup>272)</sup>, 寔演<sup>273)</sup> 등 직지사를 근거로 활약했던 세관과 화승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중수화원들은 18세기 전반기 경북 일원에서 두각을 나타낸 불화승들이며, 18세기 이후 불화승들이 불상의 개금이나 개칠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도2. 조성발원문 寺內에서 보이는 碧巖覺性>



<도3. 조성발원문 중 시주자와 조각승 등 관련자>

- 269) 세관은 1724년 직지사 감로도(개인소장, 3위), 창원 성주사 감로도(1729년, 1위), 남장사 영산회상도(1741년, 1위), 남장사 아미타여래도(1741년, 1위), 남장사 삼장보살도(1741년, 1위), 직지사 삼세불도(1744, 1위), 직지사 시왕도(1744년, 1위)을 제작하였다. 직지사를 근거지로 활동한 18세기 전반기 대표적인 불화승이다.
- 270) 광감은 광덕사 노사나불괘불탱(1749년, 2위), 법주사 괘불탱(1766년, 2위)을 제작한 화승으로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 271) 성찬은 직지사 삼세불도(1744년, 7위), 직지사 시왕도(1744년, 2위), 은양민속박물관 삼장보살도(1755년, 14위), 운문사 삼신불도(1755년, 14위), 은혜사 삼장보살도(1755년, 9위), 대곡사 지장보살도(1764년, 9위), 대곡사 감로도(1764년, 9위) 제작에 참여하였다.
- 272) 우평은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1740년, 3위), 남장사 영산회상도(1741년, 8위), 남장사 아미타여래설법도(1741년, 7위), 직지사 삼세불도(1744년, 10위), 직지사 시왕도(1744년, 5위) 제작에 참여하였다.
- 273) 식연은 직지사 삼세불도(1744년, 14위), 직지사 시왕도(1744년, 3위) 제작에 참여하였다.

초창 조각승 중 현진과 영색은 법주사 삼불상 조성 이전부터 활약했던 조각승이고, 청헌은 법주사 삼불상에 처음 이름을 보인 후 이후 크게 두각을 나타낸 조각승이다. 법주사 삼불상이 5m에 이르는 대작이기 때문에 조각승의 구성은 같은 유파의 조각승으로 구성되었다기 보다 당시 팔도도총섭 체제에서 육성된 재능 있는 여러 조각승들을 소집하여, 현진 같은 대표 조각승 지도 아래 불상 제작에 임하도록 했을 것이다.

조각승 외에도 불사에 참여한 주요 승려로는 청허휴정-사명유정의 범맥을 이은 應祥과 응상의 범을 이은 雙彦이 熟頭施主 이름을 올렸고, 부휴선수의 범을 이은 벽암각성이 寺內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참고로 벽암각성은 속리산 보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법주사는 각성에게는 각별한 사찰이었음에 틀림없다.

수조각승 현진은 1607년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불상 제작을 시작으로, 1614년 구례 천은사, 1617년 공주 갑사(시주), 1622년 장영왕후가 주도한 자수사·인수사 11존 조성에 수화승으로 참여하였고, 뒤이어 보은 법주사(1626), 창녕 관룡사(1629), 대구 동화사(1629), 부여 무량사(1633) 등 1607~1637년 동안 많은 불상을 제작하였다.

특히 1626년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을 주도할 당시 팔상전 내목도리 목서에도 ‘佛像 大化主 ○實比丘, 盡○ 玄眞比丘, 太眞比丘’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sup>274)</sup> 대웅보전 삼불상 외 다른 전각의 불상 제작에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청헌은 1626년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을 시작으로 1634~1636년에는 수조각승으로서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을 제작하였고, 1639년에는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1641년에는 완주 송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1643년에는 진주 응석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제작하였다.

연묵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 외 1633년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 현진) 제작에 참여하였다. 회묵은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상(수 현진) 제작에 참여했고, 1663년 벽암대사비움에도 등장한다. 옥정은 1668년 군위 인각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제작에 동일한 이름이 보이지만 시간 차이가 커 동명이인으로 보인다(나머지 조각승은 표1. 참조).

274) 김동현, 「법주사 팔상전 상량문」, 『미술사학연구』 100, 미술사학연구, 1968, p.497.

<표1.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조각승 활동사항>

조각승	주요 활동	비고
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07년, 1위</li> <li>·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 1612년, 1위, 上員</li> <li>·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세지보살좌상, 1614년, 1위</li> <li>·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 1위</li> <li>· 보은 법주사 소조삼신불좌상, 1626년, 1위</li> <li>· 대구 동화사 금당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29년, 1위</li> <li>·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29년, 1위</li> <li>·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33년, 1위</li> <li>· 적천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6년, 1위</li> <li>· 성주 명적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37년, 1위, 영남대 소장</li> </ul>	
청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26년, 2위(현진)</li>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4~36년, 1위</li> <li>·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9년, 1위</li> <li>·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1년, 1위</li> <li>·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3년, 1위</li> </ul>	
연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3위(현진)</li> <li>·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1633년, 2위(현진)</li> </ul>	
회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4위(현진)</li> <li>·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1633년, 3위(현진)</li> </ul>	
옥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5위(현진)</li> <li>· 군위 인각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1668년, 승호</li> </ul>	
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6위(현진)</li> </ul>	
영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26년, 7위(현진), 영색</li> <li>· 파주 보광사 목조보살입상, 1633년, 1위, 영색</li>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2위(청헌), 영이/영색</li> <li>·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9년, 4위(청헌), 영이</li> <li>·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44년, 2위(청허), 영색</li> <li>·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45년, 2위(청허), 영이</li> <li>·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1649년, 1위, 영색</li> <li>·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영색</li> </ul>	
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1617년, 시주질(행사)</li> <li>·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8위(현진)</li> <li>· 함양 법인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1657년 시주질</li> <li>· 보은 법주사 벽암대사비, 1664년 前住持, 化士</li> <li>· 함양 백운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74년, 6위(성조)</li> </ul>	
성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1617년(행사)</li> <li>·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9위(현진)</li> </ul>	
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 법주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26년, 10위(현진)</li> <li>·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시주질(응매)</li> </ul>	
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 법주사 대웅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11위(현진)</li> <li>· 고흥 금탑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51년, 7위(휴일)</li> <li>·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시주질(영규)</li> </ul>	
천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12위(현진)</li> <li>· 보은 법주사 벽암대사비, 1664년, 壽內大德</li> </ul>	

조각승	주요 활동	비고
일영	·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13위(현진) · 함양 법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시주질(영규)	
태선	·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14위(현진)	
설원	·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15위(현진)	
성혜	·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16위(현진) ·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 1663년, 通政	
신윤	·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17위(현진)	

법주사에 모셔져 있는 이 삼불좌상은 1630년 중관 해안이 지은 『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像記』에 삼신불상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범신-보신-화신으로 구성된 삼신불상임이 분명하다. 통상 구례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상(도4)처럼 비로자나(범신)-노사나(보신)-석가(화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경향대로 법주사 삼신불상을 대입하면 도상적으로 합치하지 않는다. 물론 우측에 봉안된 불상을 조선 후기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양팔을 어깨위로 들어 설법인 결한 노사나불과 달리 삼화사와 일본 동대사와 대불처럼 양 손을 어깨와 무릎 위에 두고 시무외여원인 결한 고식의 노사나불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신불의 경우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여래삼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제다라니경 변상도(1375년)에서 볼 수 있듯이 노사나불을 대신하여 아미타불상이 보신불로 등장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법주사 삼불상의 도상해석은 정확한 존명을 기록한 자료가 추가되지 않는 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도4.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4~1636년, 국보>

한편 이 시기 불상과 불화에 등장하는 삼신불상은 지권인의 비로자나불, 축지인의 석가여래, 보관을 쓰고 두 손을 어깨 위로 들어 설법인을 결한 노사나불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범주사 상이 제작되던 시기의 삼신불상은 화엄사 삼신불상과 같이 화엄불신관에 의거한 정확한 삼신불 도상이 확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두 손을 어깨위로 들어 설법인 결한 노사나불은 북송 1022년 항주 청림동 <노사나불회부조상>에 비로소 등장하고, 이후 1180년 장승온이 그린 <장승온범상도권>과 남송대 대족 보정산의 노사나불좌상을 비롯하여 11세기 이후 유행하는 형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 사경변상도에 등장하며 조각으로는 1628년 수종사 오층석탑의 소형 금동불과 1634~1636년에 조성된 화엄사 삼신불상 등 매우 드물게 확인된다. 조선 후기 불화에서는 1628년의 칠장사 오불회괘불도를 시작으로 1650년 갑사 비로자나삼신불괘불도에서 완전히 정착된 모습이 확인되며, 이때부터 비로자나삼신불도와 단독의 노사나불괘불탱에 이르기까지 크게 유행하게 된다.

본존불인 비로자나불상을 중심으로 왼쪽에 아미타불상(?), 오른쪽에 석가여래상을 배치한 삼불상으로 2008년에 보존처리가 완료되어 상태는 양호하다. 비로자나불상은 네모진 얼굴에 건장하면서 굴곡이 없는 평판적인 몸체와 무릎을 하여 괴량적인 무게감을 준다. 반 주먹 쥔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 쥔 지권인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권인은 자수사·인수사 비로자나불상 등 현진이 주도한 비로자나불상에서 동일하게 등장한다. 아미타불상은 본존불과 거의 동일한 유형의 불상으로 왼손은 가슴에 올리고 오른손은 배에 두었으며 엄지와 중지를 맞댄 손 모양을 하고 있다.

석가여래상은 비로자나불상·아미타불상과 거의 같은 체형, 얼굴 모습 등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착의는 오른쪽 어깨를 대의자락으로 드리운 변형 편단우견식으로 가슴에 노출된 균의 단 처리도 꽃잎모양으로 주름잡아 수인을 제외하고는 아미타불상과 같은 모습이다. 손모양은 성도 당시 취했던 항마축지인이다. 엄지손가락을 약간 벌리고 4개의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땅을 가리키고 있는데, 힘찬 기운을 강조하기 위해 둔중하게 처리하였다. 넓게 자리 잡은 무릎 앞으로는 몇 단의 띠 주름을 중첩시켜 부채살 주름을 형성하였고, 무릎 좌우로는 수평에 가까운 2단 주름으로 간결하게 주름을 잡았다.

한편 아미타불상과 석가여래불상은 손 모양과 불상의 성격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옷 차림법이 마치 판에 박은 듯 똑 같이 연출하였다.

전체적으로 장대한 체구에 비하여 젊은 청년형의 용모를 지녔으며, 일정한 두께와 깊이 감으로 옷 주름을 두텁게 표현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장중하고 기백이 넘치는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형감은 임진·정유재란 이후 불교중흥에 걸맞은 새로운 조형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불교재건에 상징성이 부



가된 기념비적 작품에 적합한 조형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이 제작되기 이전 제작된 대형 소조상으로는,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16세기),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1603년, 본존 179cm),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1605년, 본존 190cm),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1617년, 268.9cm)이 있고, 이후로는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1633년 경),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33년),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1633년),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1641년)이 있다. 규모 면에서(본존 기준) 완주 송광사 소조불상이 545.5cm, 부여 무량사 소조불상이 521cm, 그리고 법주사 소조불상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시기 비로자나불상으로 삼불을 구성하는 경우 몇 가지 도상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구례 화엄사 삼신불상 같이 화엄 불신관에 의한 비로자나, 노사나, 석가로 구성된 완전한 삼신불 형식과 고창 선운사나 김제 귀신사 같이 비로자나불과 약사여래, 아미타여래 구성된 삼신삼세불 형식 두 가지가 동시기에 등장한다. 화엄불신관에 의한 삼신불상의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982년으로 추정되는 금강산 장안사 삼신불상이 알려져 있다.<sup>275)</sup> 삼신삼세불상은 조선 후기 새롭게 등장하는 형식으로 선교 양종의 통합적 불신관과 신앙을 표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주사 상은 이 두 사례와도 정확히 맞지 않아 새로운 삼신불 도상 형식이 적용된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삼신불형식도 전통 도상에서 전승되고 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해인사 월당암에서 발견된 <제다라니경 변상도>(1375년, 도5)는 삼신불상 도상 이해에 시사점을 준다. 이 다라니경 변상도에서는 비로자나불을 법신불로 해서 석가를 화신불, 아미타여래를 보신불로 하여 삼신을 불상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법주사나 화엄사 삼신불상이 제작되기 이전 아미타불상이 보신불로 채용된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법주사 대응보전 삼신불상도 이와 같은 사례를 따랐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75) 『東文選』 제118권 碑銘, 「長安寺中興碑」, ……像設則有毗盧遮那, 左右盧舍那, 釋迦文。巍然當中。萬五千佛, 五十三佛。周匝圍繞。居正殿焉。觀音大士千手千眼。與文殊, 普賢, 彌勒, 地藏。居禪室焉。阿彌陀五十三佛, 法起菩薩, 翊盧舍那。居海藏之宮。皆極其莊嚴…….(……불상의 시설은 비로자나…좌우노사나…석가모니의 불상이 우뚝하게 가운데 봉안되고, 만 5천불 53불이 주위를 겹으로 둘러 正殿에 배치되었다. 觀音大士 千手千眼은 문수·보현·미륵·지장과 더불어 禪에 배치되고, 아미타 53불·법기보살·翊盧舍那是 海藏宮에 배치되었다. 모두 장엄하기가 극치에 이르렀다……).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조전종합db 참조.



<도5.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 제다라니경변상도의 삼신불, 1375년>

## ○ 문헌자료

### <조성발원문(본존), 1626년>

天啓六年丙寅三月日始役於七月二十四日佛像三尊已完點眼安于」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當生極樂國皆共成佛道與各」結願隨喜」  
施主等」

佛像大施主 沈休許里兩主」

佛像大施主 李石連兩主」

佛像大施主 韓俊兩主」

供養大施主 一禪(兩主라 쓰고 지움)」

供養大施主 朴貴失兩主」

供養大施主 金壽兩主」

供養大施主 李愛山兩主」

供養大施主 申起成兩主」

佛像大施主 金甘金兩主」

供養大施主 德春兩主」

供養布施兼大施主 億非 單身」

材木大施主 鄭鶴卜兩主」

材木大施主 崔仁世兩主」

引勸大施主 金千水兩主」

布施大施主 春非兩主」

布施大施主 李得兩主」

布施大施主 金春玉兩主」

供養大施主 徐劉山兩主」

布施大施主 朴應年兩主」  
布施大施主 金忞赤兩主」  
布施大施主 豐介兩主」  
布施大施主 李万年兩主」  
布施大施主 孔文壽兩主」  
布施大施主 金起兩主」  
布施大施主 李春鶴兩主」  
布施大施主 趙卜兩主」  
釘鐵大施主 金剋壽兩主」  
釘鐵大施主 朴勝卜兩主」  
供養大施主 李希兩主」  
釘鐵大施主 林逸兩主」  
供養大施主 金万世兩主」  
腹莊大施主 金逸男兩主」  
腹莊大施主 李文仲兩主」  
腹莊大施主 文今兩主」  
喉鈴筒大施主 安白ㄱ水兩主」  
腹莊施主 寶老音兩主」  
腹莊施主 金順希兩主」  
喉鈴大施主 億春兩主」  
腹莊施主 金昆兩主」  
喉鈴大施主 李忞赤兩主」  
苧布大施主 方愛世兩主」  
苧布大施主 崔必兩主」  
苧布大施主 白貴汗兩主」  
布施大施主 申無應忠兩主」  
八葉大施主 申九峯兩主」  
八葉大施主 朴彥神兩主」  
末醬大施主 金千吉兩主」  
末醬大施主 崔太壽兩主」  
末醬大施主 金汗年兩主」  
末醬大施主 張二男兩主」  
布施主 洪戒卜兩主」  
末醬大施主 鄭希卜兩主」  
燈燭大施主 安士卜兩主」

腹藏施主 金億水兩主」  
腹藏施主 種叱介兩主」  
熟頭大施主 吳丕無赤兩主」

性賢 比丘」  
妙淡 比丘」  
應尙 比丘」  
靈運 比丘」  
學靈 比丘」  
戒元 比丘」  
宗悅 比丘」  
性淨 比丘」  
双彦 比丘」  
性摠 比丘」  
武蹟 比丘」  
戒浩 比丘」  
宗敏 比丘」  
惠明 比丘」  
玄旭 比丘」 276)  
香玉 比丘」  
懷卞 比丘」  
勝衍 比丘」  
勝立 單身」

#### 하단

證明 甘印比丘」  
持殿 六行比丘」  
畫員 玄眞比丘」  
畫員 淸憲比丘」  
畫員 衍默比丘」  
懷默比丘」  
玉淨比丘」  
道罔比丘」  
英蹟比丘」  
雪梅比丘」

276)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45년, 3위(청허) ;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44년, 3위(청허),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47년, 1위 ;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도, 1653년, 3위(명옥) 참여.

性覺比丘」  
雪和比丘」  
惠明比丘」  
天浩比丘」  
日暎比丘」  
太先比丘」  
靈源比丘」  
性惠比丘」  
信允比丘」  
緣化」  
別座 性敏比丘」  
供養主 道悟比丘」  
    處云比丘」  
    玉只」  
乾租 敬揖比丘」  
熟頭 天允比丘」  
    妙齊比丘」  
來往 竺靈比丘」  
    印宗比丘」  
    李連春單身」  
    海云比丘」  
    性元比丘」  
    文陪比丘」  
菜居士 片千玉兩主」  
    姜江阿之兩主」  
    金良郎山兩主」  
    李逸男兩主」  
    埋炭 妙暉比丘」  
    云淨比丘」  
    元倫比丘」  
幹善大化士 信彥比丘」  
    法弘比丘」  
    天敏比丘」  
    韓仁陪兩主」

<조성발원문(좌협시불), 1626년>

天啓六年丙寅三月日始役於七月二十四日佛像○○○」

○○點眼安于」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當生極樂國皆共成佛道」

與各 ” 結願隨喜施主等」

佛像大施主沈休許里兩主」

佛像大施主李石年兩主」

供養大施主一禪比丘」

供養大施主朴貴失兩主」

供養大施主金壽兩主」

供養大施主金愛産兩主」

供養大施主申己成兩主」

佛像大施主金甘金兩主」

供養大施主德春兩主」

供養布施兼大施主億非單身」

材木大施主鄭鶴卜兩主」

材木大施主崔仁世兩主」

引勸大施主金千壽兩主」

布施大施主春非兩主」

布施大施主李得兩主」

布施大施主金春玉兩主」

供養大施主徐劉山兩主」

布施大施主朴應年兩主」

布施大施主金忞致兩主」

布施大施主豐介兩主」

布施大施主李万年兩主」

布施大施主孔文水兩主」

布施大施主金起兩主」

布施大施主李春學兩主」

布施大施主趙卜兩主」

釘鐵大施主金克壽兩主」

釘鐵大施主朴承卜兩主」

供養大施主李希兩主」

釘鐵大施主林逸兩主」

供養大施主金萬世兩主」

腹莊大施主金逸男兩主」  
腹莊大施主李文仲兩主」  
腹莊大施主文今兩主」  
喉鈴筒施主安白 ㄱ 水兩主」  
腹莊施主宝老音兩主」  
腹莊施主金順希兩主」  
喉鈴大施主億春兩主」  
腹莊施主金昆伊兩主」  
喉鈴大施主李忞赤兩主」  
苧布大施主方受愛世兩主」  
苧布大施主崔必兩主」  
苧布大施主白貴汗兩主」  
布施大施主申無應忠兩主」  
八葉大施主申九峯兩主」  
八葉大施主朴彥神兩主」  
末醬大施主金千吉兩主」  
末醬大施主崔太水兩主」  
末醬大施主金汗年兩主」  
末醬大施主張二男兩主」  
布施 〃 主弘季 卜兩主」  
末醬大施主鄭希 卜兩主」  
燈燭大施主安士 卜兩主」  
腹莊施主金億水兩主」  
腹莊施主種叱介」  
孰大施主吳丕無赤兩主」  
性賢比丘」  
妙淡比丘」  
應尙比丘」  
靈運比丘」  
學靈比丘」  
戒元比丘」<sup>277)</sup>  
宗悅比丘」  
性淨比丘」  
性摠比丘」

---

277)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4~1636년, 노사나불 시주질.

無蹟比丘」  
戒浩比丘」  
宗敏比丘<sup>278)</sup>」  
惠明比丘」  
玄旭比丘」  
香玉比丘」  
懷卞比丘」  
勝衍比丘」  
勝立」  
寺內」  
覺性比丘」  
道文比丘」  
性均比丘」  
淡俊比丘」  
先熙比丘」  
妙玄比丘」  
道岩比丘」  
法動比丘」  
性安比丘」  
道默比丘」  
印元比丘」  
裕信比丘」  
하단  
證明甘印比丘」  
持殿六行比丘」  
畫員玄眞比丘」  
畫員淸憲比丘」  
畫員衍默比丘」  
    懷默比丘」  
    玉淨比丘」  
    道澗比丘」  
    英蹟比丘」  
    雪梅比丘」  
    性覺比丘」

---

278)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4~1636년, 노사나불 시주질.



雪和比丘」

惠明比丘」

天浩比丘」

英日比丘」

太先比丘」

雪源比丘」

性惠比丘」

信允比丘」

緣化」

別座 性敏比丘」

供養主 道悟比丘」

處雄比丘」

玉只」

敬揖比丘」

天允比丘」

妙齊比丘」

竺灵比丘」

印宗比丘」

李連春單身」

海云比丘」

性元比丘」

文拜」

片千玉兩主」

姜江阿之兩主」

金良郎山兩主」

妙暉比丘」

李逸男比丘」

云淨比丘」

元倫比丘」

幹善大化士信彥比丘」

法弘比丘」

天敏比丘」

韓仁陪兩主」

<조성발원문(우협시불), 1626년>

天啓六年丙寅三月日始役於七月二十四日佛像三尊已完點眼安于」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當生極樂國皆共成佛道與各 ” 結願隨喜施主等」

佛像大施主 沈休許里兩主」

佛像大施主 李碩連兩主」

佛像大施主 韓俊伊兩主」

供養大施主 一禪比丘」

供養大施主 朴貴失兩主」

供養大施主 金壽兩主」

供養大施主 李愛山兩主」

供養大施主 申起成兩主」

佛像大施主 金甘金兩主」

供養大施主 德春兩主」

供養布施兼大施主 億非單身」

材木大施主 鄭鶴卜兩主」

材木大施主 崔仁世兩主」

引勸大施主 金千水兩主」

布施大施主 春非兩主」

布施大施主 李得兩主」

布施大施主 金春玉兩主」

供養大施主 徐劉山兩主」

布施大施主 朴應年兩主」

布施大施主 金忞致兩主」

布施大施主 豐玠兩主」

布施大施主 李萬年兩主」

布施大施主 孔文壽兩主」

布施大施主 金起兩主」

布施大施主 李春鶴兩主」

布施大施主 趙福兩主」

釘鐵大施主 金剋壽兩主」

釘鐵大施主 朴承卜兩主」

供養大施主 李希兩主」

釘鐵大施主 林貴一兩主」

供養大施主 金萬世兩主」

腹藏大施主 金逸男兩主」

腹藏大施主 李文仲兩主」  
腹藏大施主 文今兩主」  
喉鈴筒大施主 安白ㄅ壽兩主」  
腹藏施主 寶老音兩主」  
腹藏施主 金順希兩主」  
喉鈴大施主 金億春兩主」  
腹藏施主 金昆伊兩主」  
喉鈴大施主 李忞致兩主」  
苧布大施主 方愛世兩主」  
苧布大施主 崔必兩主」  
苧布大施主 白貴汗兩主」  
布施大施主 申無應忠兩主」  
八葉大施主 申九峯兩主」  
八葉大施主 朴彥神兩主」  
末醬大施主 金千吉兩主」  
末醬大施主 崔太水兩主」  
末醬大施主 金汗年兩主」  
末醬大施主 張二男兩主」  
布施大施主 洪季卜兩主」  
末醬大施主 鄭希卜兩主」  
燈燭大施主 安士卜兩主」  
腹藏施主 金億壽兩主」  
腹藏施主 種叱介 單身」  
熟頭大施主 吳丕赤兩主」  
施主 性賢比丘」  
    妙淡比丘」  
    應尙比丘」  
    靈運比丘」  
    學靈比丘」  
    戒元比丘」  
    宗悅 比丘」  
    性淨比丘」  
    雙彥比丘」  
    性摠比丘」  
    武蹟比丘」

戒浩比丘」  
宗敏比丘」  
惠明比丘」  
玄旭比丘」  
香玉比丘」  
懷卞比丘」  
勝衍比丘」  
勝立保体」

하단

證明 鑑印比丘」  
持殿 六行比丘」  
畫員 玄眞比丘」  
畫員 淸憲比丘」  
畫員 衍默比丘」  
畫員 懷默比丘」  
玉淨比丘」  
道澗比丘」  
英蹟比丘」  
雪梅比丘」  
性覺比丘」  
雪和比丘」  
惠明比丘」  
天浩比丘」  
日暎比丘」  
太先比丘」  
雪源比丘」  
性惠比丘」  
信允比丘」

緣化秩」

別座 性敏比丘」  
供養主 道悟比丘」  
處雄比丘」  
玉只」

熟頭 天允比丘」  
妙齊 比丘」

來往 竺靈比丘」  
印宗 比丘」  
海云 比丘」  
李年春單身」  
性元比丘」  
文陪單身」  
菜居士 片千玉兩主」  
    姜江阿之兩主」  
    金良郎山兩主」  
    李逸男兩主」  
埋炭 妙暉比丘」  
    云淨比丘」  
    元倫比丘」  
幹善道人 信彥比丘」  
    法弘比丘」  
    天敏比丘」  
    韓仁陪兩主」

**<중수발원문(본존불), 1747년>**

願文」…결실…壬辰年火燒沒丙寅佛像三尊造成 其間年代則自壬」  
…결실…○燒至丙寅年計數則三十七年自丙寅至乾隆丁卯一百  
…결실…四年改金三月始役七日初四日畢功」  
弟子某等發心不爲 自求人天福報緣覺聲聞乃至權乘」  
諸位菩薩唯依最上乘發菩提心願與法界象生一時同」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然則主事料理執勞工匠廚中」  
供給人等嘉惠嘉功不可泯沒敍次芳名兮張功業要使後來觀」  
視興感云爾」  
當今」  
大王大妃殿下萬歲萬歲聖壽萬歲」  
黃金大施主乙卯生」  
世子邸下千秋千秋壽千秋 黃金大施主乙卯生」  
洪氏保體壽齊年」  
黃金大施主乙巳生朴氏」  
黃金大施主丁未生李氏」  
黃金大施主丙子生李氏」

黃金大施主丁亥生趙氏」  
黃金大施主己未生朴氏」  
黃金大施主丙寅生千氏」  
黃金施主丁亥生徐氏」  
黃金施主壬戌生尹氏」  
黃金施主戊寅生池氏」  
黃金施主乙丑生崔氏」  
黃金施主戊子生崔氏」  
黃金施主甲子生宋氏」  
黃金施主己酉生李氏」  
黃金施主丙寅生林氏」  
黃金施主庚辰生姜氏」  
黃金施主丙寅生李氏」  
黃金施主乙亥生金氏」  
黃金施主甲辰生金氏」  
黃金施主庚辰生金氏」  
黃金施主己卯生姜氏」  
黃金施主丁酉生河氏」  
黃金施主辛丑生朴氏」  
黃金施主己亥生金氏」  
黃金施主辛丑生金氏」  
黃金施主壬寅生尹氏」  
黃金施主壬寅生沈氏」  
黃金施主李氏」  
黃金施主癸卯生李氏」  
崇祿大夫智內侍府事李景和」  
黃金大施主兵馬節度使」  
沈鳳陽兩主 沈鳳德兩主」  
金德鍾」  
宋奎徵」  
池光暉」  
張時漢」  
金斗天」  
朴次興」  
李百年」

緣化秩」  
證師嗣祖沙門震基」  
諷誦山中大德覺澄」  
畫員山人妙鏡」  
首畫員山人世冠」  
比丘廣瑛」  
比丘性贊」  
比丘宇平」  
比丘寔演」  
持殿道人泰均」  
供養主比丘慧明」  
比丘海悟」  
負紫比丘道成」  
烏金化主比丘法信」

尙州牧使李峽兩位」

하단

引勸大化主仁伯」  
種 〃 助緣比丘信和」  
居士玉淳」  
社堂玉梅」  
比丘尼勸念」  
太和」  
比丘尼休還」  
大化主比丘尼太行」  
別座階法岑」

本寺秩」  
時住持通政印起」  
山中沙門清空敬圓」  
前住持清學」  
前住持敏哲」  
前住持澗俊」  
前住持嘉善澗哲」  
山中老德忠輝」  
老德嘉善思念」  
山中老德嘉善鵬羽」  
比丘宗洽」

比丘守湖」  
比丘秋仁」  
比丘智行」  
比丘快玉」  
比丘三應」  
通政月堅」  
比丘釋稔」  
比丘自心」  
比丘楚明」  
比丘宇琳」  
比丘贊敬」  
比丘幸連」  
比丘位湛」  
比丘位成」  
比丘月海」  
比丘曇淳」  
比丘國眞」  
比丘宇森」  
比丘智尙」  
比丘位謙」  
比丘世寬」  
比丘位鑑」  
比丘就湖」  
比丘國安」  
比丘戒還」  
比丘智玄」  
國摠」  
國鑑」  
比丘有禪」  
明順」  
明哲」  
沙彌範壽」  
社堂法信」



## ○ 참고문헌

- 심주완, 「임진왜란 이후의 대형소조불상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23·234, 2002.
- 김창균, 「법주사 대웅보전 봉안 소조삼불좌상에 대한 연구」, 『강좌미술사』 24, 2005.
- 이강근, 「17세기 법주사의 재건과 양대 문중의 활동에 관한 연구」, 『강좌미술사』 26, 2006.
- 문명대, 「17세기 전반기 조각승 현진파의 성립과 지장암 木 비로자나불좌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9, 2007.
- 최도원, 「17세기 법주사 중창불사 연구」,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2.
- 손영문,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의 제작자와 도상적 연원」, 『불교문예연구』 20, 2022.



## ○ 현 상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 대웅보전(1624년 건립)에 주존불로 모셔진 삼존의 불상이다(도1).<sup>279)</sup> 중앙에는 본존불로 지권인을 결한 비로자나여래좌상이 모셔져 있으며, 좌우에 협시불을 둔 삼불상의 형식이다(도2). 세 구의 불상 모두 올림과 내림 연꽃으로 구성된 연화좌에 앉아 있으며, 각 상에 별도의 협시보살상은 없다. 2002년 4월 문화재청에 의해 실시된 복장조사 때에 삼불상 각각에서 「복장발원문(腹藏發願文)」과 「원문(願文)」을 비롯해 불경류, 복식과 직물류, 후령통 등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sup>280)</sup> 수습된 복장유물과 발원문 등은 현재 법주사성보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279) 대웅보전의 건립과 삼존불상의 조성에 대해서는 李康根, 「17세기 法住寺의 再建과 兩大 門衆의 活動에 관한 연구」, 『講座美術史』 26, 2006, pp.449~474; 신상현, 「법주사 대웅보전의 조영계획 연구」, 『불교미술사학』 18, 2014, pp.193~224 참조.

280) 이 자료들의 전문은 다음의 논문에서 최초로 소개되었다. 김창균, 「법주사 대웅보전 봉안 소조삼존불좌상에 대한 연구」, 『강좌미술사』 24, 2005, pp.61~76. 발원문을 비롯한 삼불좌상 복장물의 사진은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충청북도』, 2006, pp.119~125 참조.



<도1. 범주사 대웅보전 유리건판사진  
(20세기 전반)>



<도2. 범주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원문」 중에는 “昔任辰年火燒沒 丙寅佛像三尊造成其間年代 則自壬辰燒至丙寅年 計數則三十七年 自丙寅至乾隆丁卯一百二十四年 改金三月始役 七月初四日畢功... 畫員山人 妙鏡 首畫員山人 世冠 比丘 廣城...”이라는 내용이 있다(도3, 4). 또한, 각 불상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에는 “天啓六年丙寅三月始役於七月二十四日 佛像三尊已完點眼 安于... 畫員 玄眞 比丘 畫員 淸憲 比丘 畫員 衍默比丘...”라는 구절이 대동소이하게 나타난다(도5). 이를 종합해 보면,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임진왜란 시에 전소된 범주사 대웅보전의 주존불을 대체하기 위해 현진(玄眞) 비구가 이끄는 도합 17명의 승장 집단이 제작에 참여하여, 1626년(천계 6; 인조 4)에 완성한 대규모 불사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281)</sup>



<도3. 범주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원문」 서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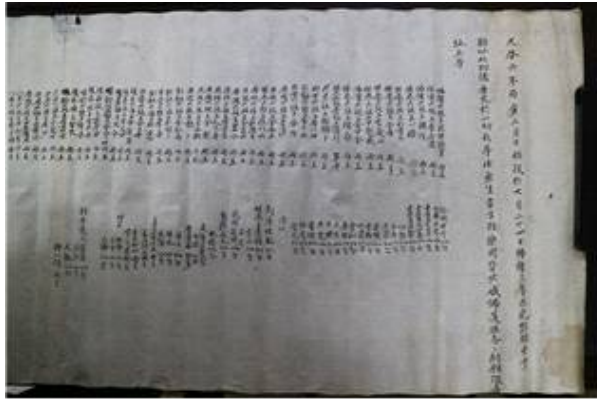


<도4. 범주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원문」 연화질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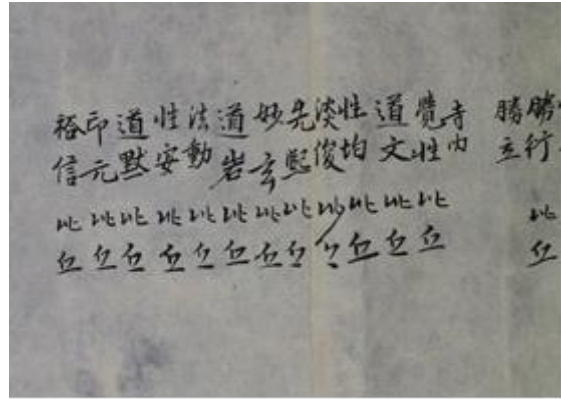
삼불의 복장에 각각 봉안된 발원문에 의하면 현진이 수화승, 청헌(淸憲)이 차화승으로 불사에 참여했으며, 그 외에 연묵(衍默), 의묵(義默), 옥정(玉淨), 도형(道澗), 영색(英蹟), 설매(雪梅), 성각(性覺), 설화(雪和), 혜명(惠明), 천호(天浩), 일영(日暎), 태선(太先), 설원(雪源), 성혜(性惠), 신윤(信允)이 참여하였다. 또한, 우협시

281) 삼불좌상 <복장발원문>의 석문은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17세기 조선의 조각승과 유파』, 사회평론, 2012, pp.390~395를 참조할 것.

여래좌상 「복장발원문」 말미의 사내질(寺內秩)에 각성(覺性)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도6).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은 임진왜란과 정유왜란 때 의승장으로 활약했으며, 전란으로 불탄 사찰들의 재건에 진력을 다 했던 승려로 잘 알려져 있다.



<도5. 보존본 복장발원문>



<도6. 우협시본 복장발원문 사내질 부분>

앞서 언급한 「원문」의 내용을 통해 1747년(건륭 12; 영조 23) 3월에 개금을 시작하여 7월 4일에 맞췄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도3). 즉, 불상 3구의 개금불사에 약 4개월여의 시간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복장발원문」에 보이는 1626년 3월 시작하여 7월 24일 불상 3구를 완성하고 점안 후 봉안하였다는 구절이 주목된다. 즉, 1747년의 개금불사와 1626년의 불사에 거의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법주사 불상의 제작 기간 추정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법주사 삼불좌상이 5미터에 달하는 대형불상이라는 점, 이 불상의 개금불사에 「복장발원문」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바꿔 말하자면, 「복장발원문」에 기록된 4개월이란 시간은 불상 자체의 제작 기간이라기보다는 그 마무리 단계인 불상의 착금 기간일 것이라고 해석한 견해도 있다.<sup>282)</sup>

### ○ 내용 및 특징

<법주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각각 5미터에 육박하는 초대형의 크기로, 이 시기에 조성된 여타의 대형 상들과 마찬가지로 목심 위에 흙을 붙여 만든 소조불이다(도7).<sup>283)</sup> 3구의 불좌상은 손 모양이 서로 다르다. 중앙의 불상은 오른손으로 왼손가락을 모두 감싼 변형된 지권인을 취하고 있어서 비로자나불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인은 오른손으로 왼손 검지를 감싸 쥐는 신라 하대 비로자나불상의 지권인과는 전혀 다르다. 17세기 불상 중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282) 이에 관해서는 신상현, 「법주사 대웅보전의 조영계획 연구」, 『불교미술사학』 18, 2014, pp.195~196.

283) 조선 후기 소조불상의 현황 및 재료와 제작기법에 관해서는 김광희, 「조선시대 소조불상의 제작기법」, 『미술사연구』 39, 2020, pp.61~90 참조.

소장의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년, 보물)과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여래좌상>(1636년, 국보)에서 동일한 수인을 확인할 수 있다(도8).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은 현진이 조성한 것이며,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상은 청헌이 조성한 것이다. 이로 보아 오른손이 왼손 전체를 감싸 권 이와 같은 지권인은 현진·청헌파의 특징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불좌상(1633년, 보물),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소조비로자나여래좌상>(17세기 전반기, 보물)은 양쪽 검지를 서로 맞댄 형식의 지권인을 취하고 있다(도9). 이를 종합할 때, 17세기에는 비로자나불의 표현에 두 종류의 변형된 지권인이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협시 여래좌상



본존불



좌협시 여래좌상

<도7. 법주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구성>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1626)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35)

<도8. 현진·청헌파가 조성한 불상의 지권인 비교>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불좌상(1633, 무염파)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소조비로자나여래좌상(17세기 전반)

<도9. 17세기 비로자나불상에 사용된 변형 지권인>

법주사 대웅보전 우협시 여래좌상은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다. 한편 좌협시 여래좌상은 오른손은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보이게 하여 무릎 위에 둔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있으며, 왼손은 위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댄 시무외인(施無畏印)을 취하고 있다(도10). 선행연구에서는 우협시 여래좌상은 항마촉지인을 근거로 석가모니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고, 좌협시 여래좌상은 중관해안(中觀海眼)이 남긴 「속리산대법주사대웅대광명전불상기(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相記)」에 보이는 “삼신(三身)이 봉안되어 있다.”는 기록에 근거해 노사나불(盧舍那佛)로 추정하였다.<sup>284)</sup> 반면 좌협시와 우협시 여래좌상을 각각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를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sup>285)</sup> 다만 항마촉지인과 아미타인은 조선 후기 불상과 보살상에 보편적으로 채용된 것이기에 수인만으로 두 협시불상의 존명을 밝히기는 부족함이 있다. 각 상의 「조성기」에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모두 “佛像三尊”이라고만 적혀 있는 것도 우협시와 좌협시 여래좌상 각각의 존명을 비정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더한다.

284) 「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相記」, 『韓國佛教全書』 제8책, 조선시대편 2, 1987; 한국불교연구원, 『法住寺』, 일지사, 1975, p.30;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17세기 조선의 조각승과 유파』, 사회평론, 2012, p.43.

285) 김창균, 「법주사 대웅보전 봉안 소조삼존불좌상에 대한 연구」, 『강좌미술사』 24, 2005, p.59.



우협시 여래좌상



좌협시 여래좌상

<도10. 범주사 대웅보전 우협시, 좌협시 여래좌상의 수인 비교>

세 구의 여래좌상은 신체 비례와 자세, 상호와 복식 등이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어깨가 각지며 넓어서 건장한 인상을 주는 반면 신체는 다소 평평하며 굴곡은 거의 표현되지 않았다. 무릎 역시 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상당히 장중한 느낌을 자아낸다(도2). 삼존 모두 양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의 대의를 걸친 모습이나, 세부적인 표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비로자나불좌상은 오른 발바닥 일부를 제외하면 결가부좌한 두 다리는 두꺼운 대의 자락에 거의 다 가려져 있다. 오른 발바닥을 덮은 대의 끝자락은 크게 접히면서 발바닥 아래로 호형을 그리며 접혀 있으며, 양다리 아래에는 길고 직선에 가까운 주름이 양각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의의 표현은 우협시 여래좌상과 좌협시 여래좌상에서도 공통으로 확인된다.

얼굴은 턱이 넓고 거의 직각에 가깝게 각진 형상이다. 머리의 중앙에는 넓적하고 편평한 중간계주가 보이며, 정수리 부분에는 높직한 정상계주가 솟아올라 있다. 나발은 작고 촘촘하게 표현되었다(도11).



우협시 여래상



본존불



좌협시 여래상

<도11. 범주사 대웅보전 삼불좌상 상호 비교>

## ○ 문헌자료

「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相記」

蓋嘗聞道非有象 作易者 必擬諸形容 法本皆空 度世者 躉資於色相 正如指空爲鏡 不若以鏡而喻空 卽樹占風將使識風而忘樹 是以雙林付囑舍利以凡聖而徧分千幅 經行足迹 亘古今而常在 不是炫神通於幻境 實乃開方便於迷津 所謂由目以會心 卽心而卽佛也 信矣 噫噫邈矣哉 山之寺之殿之相之有三身也 絕視聽離方處 千百億化身 一則三 三則一 權輿於羅代法興眞興王時 祖述於高麗忠烈恭愍王朝 以過我本朝世祖大王 巡幸之日祇樹之餘香已盡 回祿之 ((尙+宀)) 燼汴 ((賁-八)) 居僧久失瞻仰 無以貢祝釐之誠 雲水衲信彥法洪等 乃邀郢匠玄眞禪德作甘泉金人之像 肖百濟休屠之儀 自庚寅旃檀像設二千六百二十一年以來依係盡古 髣髴驚新 山王比非大之大身 庶可以色見如來供養恭敬焉 譬之報本追遠之禮 廟則木爲之主 祭則孫爲之尸者也 然欲知佛之爲佛 固不在於色相 而況其似色相者乎 然則禪支僧爲之骨 看經僧爲之髓 粥飯僧爲之皮 行智具足僧爲之眼目手足 合古今寺內之居僧 儼然助法王三尊之身 驅魔王作護法善神 變大地爲眞佛國土自其不變者而觀之 則物與我 皆無盡藏也 時有明崇禎紀元之三上章 敦牂暢月月蘇之二鐵面中觀子記 (밑줄 조사자)

『중관대사유고(中觀大師遺稿)』(ABC, H0158 v8, p.216c06-217a12)

## ○ 참고문헌

- 김광희, 「조선시대 소조불상의 제작기법」, 『미술사연구』 39, 2020, pp.61~90.
- 김창균, 「법주사 대웅보전 봉안 소조삼존불좌상에 대한 연구」, 『강좌미술사』 24, 2005.
-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충청북도』, 2006.
-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17세기 조선의 조각승과 유파』, 사회평론, 2012.
- 신상헌, 「법주사 대웅보전의 조영계획 연구」, 『불교미술사학』 18, 2014.
- 李康根, 「17세기 法住寺의 再建과 兩大 門衆의 活動에 관한 연구」, 『講座美術史』 26, 2006.
- 『韓國佛教全書』 제8책, 조선시대편 2, 1987.
- 한국불교연구원, 『法住寺』, 일지사, 1975.

#### IV.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등산 2023-03-009

### 9.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 (金正喜 筆 不二禪蘭圖)

#### 가. 검토사항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13.8.19.)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4.2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4.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 과학조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3.5월 시행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金正喜 筆 不二禪蘭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 92.9×47.8cm, 화본 55.0×30.6cm
- 재 질 : 지본묵서(紙本墨書)
- 형 식 : 액자
- 조성연대 : 1850년대
- 제작자 : 김정희(金正喜)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김정희 서화 중에서도 수작으로, 서예 필획을 응용한 김정희의 독창적인 난화(蘭畵)에 해당한다. 특히 김정희 예서 특유의 필획에 의한 난화 및 제발 글씨, 자문 자답 식의 제발 내용과 인장 등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종합해볼 때 보물로서의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20세기에 현대식 유리액자로 표구되어 전해져온 것으로 보여 향후 장기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된 <불이선란도>는 김정희의 마지막 회화 작품이다. 난초 표현은 동아시아에서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조형성을 가졌으며, 서화동원(書畵同原)의 조형화를 완벽하게 구현하였다. 즉, 사의(寫意)적인 묵란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회화이다.

제발 글씨는 각체를 혼용해서 쓰며 태세 변화가 심하고 끝기만이 남은 그의 말년 시기 추사체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이 묵란화는 김정희의 과천 시기 삶과 사상, 그리고 예술 경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일부 인위적인 수정 흔적이 있으나 작품의 예술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

### ○ (지정 가치 있음)

-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문인 서화가인 김정희가 평생 추구한 사란(寫蘭)의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그림에 대한 김정희의 자부심은 화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자신이 화제에서 서술했듯이 그림 그리는 법이 아니라 글씨 쓰는 법으로 그린 그림이다. 따라서 <불이선란도>는 그림이 아니라 글씨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화제는 여러 서체를 섞어 썼지만, 마치 그림처럼 화려하기 그지없다. 그림은 글씨처럼 썼고, 화제 글씨는 그림처럼 그린 것이다.
- 이런 형식의 사란(寫蘭)은 김정희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고, 이후에도 등장한 적이 없다. 자신의 표현대로 '유일무이'의 작품이다. 수많은 작가들이 난초를 그렸지만, 김정희는 평생의 노력 끝에 <불이선란도>라는 새로운 경지의 사란(寫蘭)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에게 있는 <불이선란도>는 예술을 넘어 학문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이선란도>는 역사적 가치 또한 높다 할 것이다.
- 그림에 담긴 창작 동기와 자신이 사용한 인장들 또한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인장을 통해 전승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이선란도>의 가치는 크다. 시대를 대표하는 주장가들의 손을 거쳤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기 지정된 김정희의 서화 작품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아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 다만, 지정 이후에 안전한 보존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유리를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지정 가치 있음)

<불이선란도>는 <세한도>와 더불어 추사 김정희를 대표하는 회화 작품이다. <세한도>는 오랜 유배 생활의 처연함을 견디던 추사가 송백(松柏)으로 상징되는 유가적인 정신세계를 담은 그림이다. 반면에 선화(禪畫) 형식을 취한 <불이선란도>는 그가 만년에 도달한 분별과 대립을 넘어서는 유불을 아우른 세계관을 담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그림의 격조는 <세한도>를 넘어서지만 그에 비하면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한 면이 있다.

무관심한 태도로 서예적인 전절을 구사한 <불이선란도>의 난초는 회화에서 형사를 추구하지 않으며 서화동필론에 입각하여 서법으로 난초를 그린다고 하였던 추사의 회화 이론을 실천적으로 보여준다. 화면을 채우고 있는 제발은 회화사상 보기 드문 수준의 높은 격조를 담고 있다. 즉, <불이선란도>는 문인화의 이상을 추구하였던 김정희의 예술적 경지와 일체의 분별심을 벗어나고자 하는 불교적인 정신세계가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이선란도> 19세기

문화사를 상징하는 추사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 세계를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작품으로서 높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이선란도〉는 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전승의 스토리를 지니고 있으며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김정희는 한국사에서 한 시대의 문화를 방향 짓고 후대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다. 유교와 불교를 아우르는 그의 사상과 예술적 지향이 압축적으로 구현된 〈불이선란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 ○ 현 상

화선지에 담묵으로 난화를 그려놓았고, 상단 좌측에서부터 좌측 하단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행서로 쓴 제화시 및 제관이 서사되어 있으며, 15과(顆)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좌측 하단에는 원래 인장 2과가 더 찍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인문을 긁어낸 흔적만 남아 있다.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 내용 및 특징

김정희가 1850년대에 제작한 난화(蘭畵)로, 달준(達俊)이라는 인물에게 그려준 것으로 보인다. 달준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인물이다. 김정희가 20년 만에 우연히 난초를 치고 그에 대한 감회를 제화시와 짧은 문장으로 서사하였다. 첫 번째 제화시는 상단 좌측에서부터 시작하여 우측 상단 중앙까지 좌에서 우로 5행에 걸쳐 써내려갔고, 두 번째 화제는 첫 번째 제화시가 끝나는 부분에 이어 상단 중앙에서 상단 우측으로 4행을 쓴 다음 마지막 5행에 호와 낙관도장을 찍었다. 세 번째 화제는 좌측 중앙에서부터 시작하여 좌에서 우로 2행에 걸쳐 썼으며, 네 번째 화제는 우측 중·상단에서부터 좌로 5행에 걸쳐 서사한 다음 인장을 날인하였다. 마지막 화제는 세 번째 화제가 끝나는 행의 우측에 1행에 걸쳐 쓰고 인장 2과를 날인하였다. 화제의 내용을 서사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不作蘭畵二十年  
偶然寫出性中天  
閉門覓覓尋尋處  
此是維摩不二禪

난을 안 친 지 이십 년, 붓을 들지 못했는데, 우연히 처낸 난초, 진여본성의 경지에 도달했네. 의식의 문을 닫고, 그 이치를 찾고 찾아보니, 이게 바로 유마거사 불이선이란 걸 깨달았네.

若有人強要爲口實又當以毘耶無言謝之. 曼香

만일에 누가 口實을 댈 것을 강요한다면 역시 유마힐의 無言으로써 답하리라.

始爲達俊 放筆, 只可有一, 不可有二. 仙落老人

처음엔 달준에게 (주기)위해서 붓을 편안하게 휘둘렀다. (이렇게 그리는 것은) 단지 한 번은 가능하겠지만 두 번은 불가능할 것이다.

以艸隸奇字之法, 爲之. 世人那得知, 那得好之也. 漚 竟又題.

草隸와 奇字의 법으로 (이 작품을) 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어찌 좋아할 수 있겠는가? 구경이 또 쓰다.

吳小山見, 而豪奪. 可笑.

小山 吳圭一이 보고서 당연하다는 듯이 호기롭게 빼앗으려 드니 참 우습다 .

그림은 김정희가 가장 중시했던 글씨의 예서에 기초하되, 본인도 밝혔듯이 초서와 예서가 섞인 기자(奇字)의 필법으로 과감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화제는 행초서와 예서가 착종되어 있는 김정희 특유의 필체로, 화제마다 글씨의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글씨는 농묵인 편에 반해 그림은 담묵으로 처리함으로써 농담의 변화와 원근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

## ○ 현 상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된 김정희(金正喜)의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는 지본묵서(紙本墨書)이며 액자 형식의 작품이다. 틀을 포함한 전체 크기는 세로 92.9, 가로 47.8, 두께 1.8cm이며, 화본의 크기는 세로 55.0, 가로 30.6cm이다.

종이 재질과 상태는 액자 유리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육안상으로 볼 때, 발촉은 0.1cm 내외이며 한지에 보이는 장섬유가 확인되지 않고 단섬유 조직으로 인한 갈라짐 현상이 보인다. 중국산 화선지일 가능성이 있다. 붓질을 원활하게 하고 색감을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백색 색료가 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화면의 자연스러운 변색이 일어났다.

작품 화면 중앙의 세로로 접힌 흔적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흔적이 세로와 가로 방향으로 있는 점으로 미루어, 상당 기간 액자가 아닌 형식으로 유전되었던 것 같다. 작품에는 1.4~1.6cm 폭의 비단으로 변아(邊兒)를 둘렀다. 비단은 수자직(繻子織) 방식으로 짜졌으며 만자(卍字)와 기하만자문이 삽입된 표주박문이 직조되어 있다. 그리고 변아 외곽에는 0.1cm 이내의 무늬결이 있는 섬유를 이용하여 사면회장(四面回粧)을 처리했다. 변아와 사면회장의 직물로 미루어 일본식으로 판단되며 장황 솜씨는 정교하지 못한 편이다. 액자 상단에는 원환(圓環)이 박혀있으며, 육안상 동물 뼈 재질의 장식이 달려 있다.

작품은 변아와 회장의 재질, 액자 형식 등으로 미루어 20세기 중반 이후에 현재 처럼 장황되고 액자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변아를 만들면서 혹은 그 이후에 화면에 찍힌 [석준사인(奭準私印)]과 [소당(小棠)]이 가려지는 현상을 막고자 해당 부분의 비단을 오렸다. 두 인장에는 세로 흔적이 확인된다. 이 중에 [석준사인]의 세로 흔적은 변아의 안쪽 선과 맞지 않으며 인쇄(印色)이 박락된 부분이 확인된다.<sup>286)</sup> 이는 현 장황이 있기 전에 원 장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86) [석준사인(奭準私印)]은 吳世昌 편, 『權域印數』, 국회도서관, 1968, p.317에 수록되어 있다.

화면에는 인장 등을 지운 부분이 관찰된다. ①과 ②에는 인장 흔적이 확인된다. 그러나 ③과 ④, 그리고 ⑤부분에는 다른 흔적이 보이지 않아, 인장을 지운 것인지는 확증할 수 없으나 위치상으로는 인장을 찍는 곳에 해당한다(도1). 현재 ④과 ⑤부분 각각에는 손재형(孫在馨, 1903~1981)의 인장인 [봉래제일선관(蓬萊第一僊館)]과 [소전감장서화(素荃鑑藏書畫)]가 찍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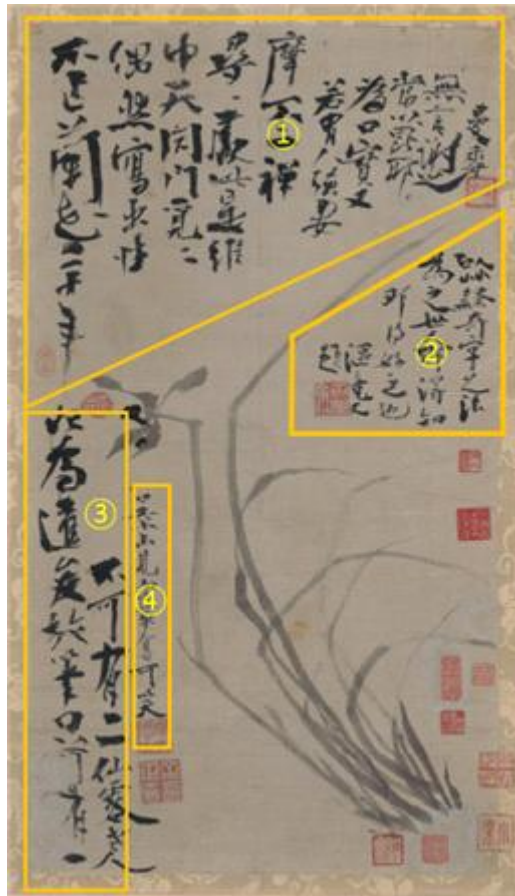


<도1. 인장이 지워진 부분>

### ○ 내용 및 특징

화면에는 난초가 열은 담묵으로 그려져 있다. 심하게 꺾인 잎과 아울러 봉안(鳳眼)과 상안(象眼), 삼전법(三轉法) 등의 기본적인 난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묵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작자인 김정희가 난초를 그릴 때 서예의 필법으로 해야 한다는 자신의 화론을 조형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의도는 난초잎의 필선과 제발의 필법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다는 특징에서도 확인된다.

김정희는 난초의 주변에 대략 네 차례에 걸쳐 제발을 썼는데, 그 순서는 최소한 ①→③→④순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②의 경우는 ① 다음에 썼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③과 ④ 이후에도 썼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도2). 제발 중에 ①과 ③은 좌에서 우로 나아가는 역행법(逆行法)으로 썼다.



<도2. 제발 순서>

제발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판독되고 해석된다.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은 난을 거의 그리지 않은 지 20년 만에 그렸는데 의도하지 않게 난의 참본성을 그렸다고 하며, 이를 『유마경(維摩經)』의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비유하였다. 이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라는 의미이다. 이 제발에 이어지는 보다 작은 글씨로 쓴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해당 묵란의 화법이 무엇인가를 말해달라고 강요한다면 불이법문에 관한 문수보살(文殊菩薩)의 질문에 유마거사(維摩居士)가 무언(無言)하였듯이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②에는 동기창이 “사인이 그림을 그릴 때는 마땅히 초예(草隸)와 기자(奇字)의 법으로 그려야 한다”는 이론을 인용하면서 초기 서예의 필법으로 난초를 그렸으니<sup>287)</sup>,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을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③은 달준(達叟)이 난을 그려주기 위해 작심해야 할만한 인물이 아니기에 김정희는 묵란화법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렸다는 내용으로, ①의 제발 내용에 대한 원인에 해당한다.

④는 오규일(吳圭一)이 이 작품을 보고 가져가겠다고 하는 모습에 재미있다는

287) 董其昌, 『畫眼』, “士人作畫, 當以草隸奇字之法爲之.” 예초는 한(漢) 시기에 예서(隸書)를 빠르게 쓴 글씨이다. 다른 의미로 예서와 초서(草書)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에는 진자의 의미를 따른다. 기자는 진(秦) 이전에 사용한 글씨로, 진서(篆書)의 일종이다.

반응이 담긴 글이다.

①

난을 그리지 않은 지 20년 만에,                   不作蘭畫二十年  
우연히 참본성을 그려냈네.                   偶然寫出性中天  
문 닫고 찾고 또 찾은 곳,                   閉門覓覓尋尋處  
이것이 곧 유마의 불이선(不二禪)이다.           此是維摩不二禪

만일 사람들이 억지로 설명을 강요한다면, 또한 마땅히 비야(毘耶, 유마거사)의 무언(無言)으로 답하리라. 만향  
若有人強要爲口實, 又當以毘耶無言謝之. 曼香.

②

초예(艸隸)와 기자(奇字)의 법으로써 그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으며 어찌 좋아하겠는가? 구경(漚竟)이 또 쓰다.  
以艸隸奇字之法爲之, 世人那得知, 那得好之也. 漚竟又題.

③

처음엔 달준을 위해서 붓을 자유롭게 휘둘렀으니, 오직 한 번은 가능하지 두 번은 불가능할 것이다. 선락노인.  
始爲達叟放筆, 只可有一, 不可有二. 仙落老人<sup>28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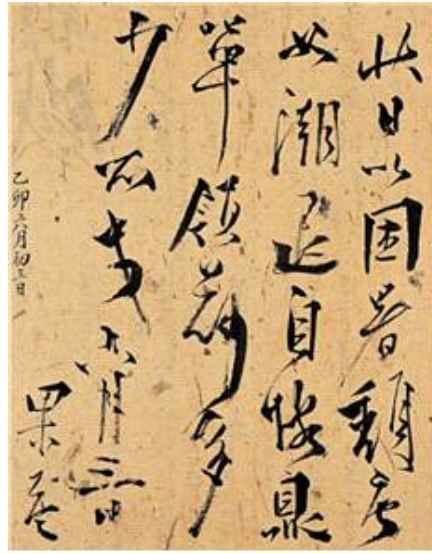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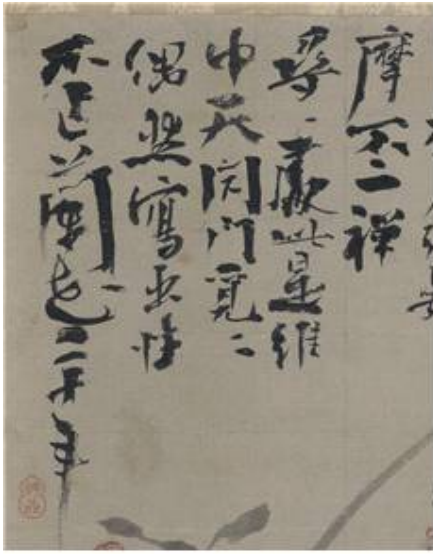
④

소산(吳圭一)이 보고서 호기롭게 빼앗으니 참 우습구나.  
吳小山見而豪奪. 可笑.

제발의 글씨는 예서 등의 각체를 사용하였으며 자형의 대소(大小) 차이가 크다. 서풍은 기본적으로 해서와 행서풍이나 몇몇 글자(之, 嚳 등)에는 초예풍을 사용하여 과임이 강조되기도 했다. 글씨의 획은 전반적으로 날카롭고 살이 빠져 있으며, 태세(太細) 차이가 크다. 그리고 장법(章法)과 결구(結句)가 변화가 심하다. 이러한 서풍은 김정희의 <보담재왕복간(寶覃齋往復簡)>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이선란도>의 제작 시기를 1855년 전후의 과천 시기로 상정할 수 있다.

288) 仙客老人과 仙落老人으로 판독되어 왔다. 후자의 경우는 두 번째 글씨를落的 고자인 嚳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본보 고서에는 후자를 따른다.





김정희,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 제발 부분      김정희, <보담재왕복간(寶覃齋往復簡)> 부분, 1855년, 경기도박물관

<도3. 서풍 비교>

화면에는 15과의 인장이 찍혀 있다(도 4). 김정희의 인장은 5과, 김석준(金奭準, 1831~1915)의 인장은 2과이다. 작품의 소장자였던 장택상(張澤相, 1893~1969)의 인장은 6과이고 손재형의 인장은 2과이다. 이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장의 주인이 확정적이다.

성명	수량	인문(印文)	비고
김정희	5	① [추사(秋史)]	
		② [고연재(古硯齋)]	
		⑬ [낙교천하사(樂交天下士)]	
		⑫ [김정희인(金正喜印)]	
		⑭ [묵장(墨莊)]	?
김석준	2	⑧ [석준사인(奭準私印)]	
		⑨ [소당(少棠)]	
장택상	6	⑮ [신품(神品)]	
		③ [불이선실(不二禪室)]	
		④ [다항서옥서화금석진상(茶航書屋書畫金石珍賞)]	
		⑤ [물락속안(勿落俗眼)]	
		⑦ [소도원선관주인인(小桃源僊館主人印)]	
		⑪ [연경재(研經齋)]	
손재형	2	⑥ [봉래제일선관(蓬萊第一僊館)]	
		⑩ [소전감장서화(素荃鑑藏書畫)]	

<도4. 인장>

## ○ 문헌자료

- 金正喜, 『阮堂全集』.

## ○ 참고문헌

- 강관식, 「추사 그림의 범고창신의 묘경-세한도와 불이선란도를 중심으로」,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 김병기, 「秋史 「不二禪蘭圖」의 詩·書·畫 契合性 연구-제화시·문의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37, 한국동양예술학회, 2017.
- 김현권, 「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 19,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5.



## ○ 현 상

- 본 작품은 현재 유리 액자 속에 들어 있다. 그런데 형태를 보면 가로 세로로 일정하게 접힌 흔적이 남아 있다. 이는 처음에는 별도의 장황이 없이 보존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다시 장황을 했는데, 우측 하단에 합봉인(合縫印)으로 <석준사인(奭準私印)>, <소당(小棠)>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소당(小棠) 김석준(金奭準, 1831~1915)이 장황을 한 뒤 합봉인을 찍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1915년에는 현재의 장황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의 장황은 족자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손재형(孫在馨)에 이르러 현재 모습인 유리 액자 형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손재형의 인장 위치 등으로 추정한 것이다
- 또한 작품 좌측과 우측 하단에는 인장을 지운 흔적이 남아 있다. 우측 하단의 경우엔 손재형의 <소전감장서화(素荃鑑藏書畫)>이 찍혀 있고, 좌측 하단엔 지운 흔적만 있다. 육안으로는 이전의 인장을 확인할 수 없고, 지운 이유도 알 수 없다. 다만, 지운 흔적 위로 손재형이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손재형이 현재의 모습으로 꾸미면서 지웠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를 작품 훼손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 내용 및 특징

- <불이선란도>는 10대 때부터 묵란(墨蘭)을 즐겨 그렸던 김정희가 ‘난(蘭)’이라는 화목(畫目)으로 남긴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김정희는 문인화 중에서도 사란(寫蘭)에 대해 일찍부터 심취하여, 10대 때 현란(玄蘭)이라는 호

를 사용할 정도였다. 이후 그의 사란(寫蘭)에 관한 과심은 <난맹첩(蘭盟帖)>, <시우란(示佑蘭)> 등의 형식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 바로 <불이선란도>이다. 김정희는 <불이선란도>에서 세 번에 걸친 제시(題詩)와 제사(題辭)를 통해 사란(寫蘭)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였다.

- ① 不作蘭花二十年,偶然寫出性中天,閉門覓覓尋尋處,此是維摩不二禪
- ② 若有人強要爲口實,又當以毘耶無言謝之.曼香
- ③ 以草隸奇字之法,爲之,世人那得知,那得好之也.漚竟,又題

먼저 ①에서는 자신이 추구했던 사란(寫蘭)의 최고 경지를 20년 만에 이뤄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그 경지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 ②에서는 누군가 그 경지를 억지로라도 설명해 달라 해도 자신은 유마거사처럼 ‘무언(無言)’으로 거절할 수밖에 없음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끝에는 결국 그 이유를 고백한다. 그것은 ③에서 말한 ‘초례(草隸)’와 ‘기자(奇字)’의 법으로 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림이 아닌 글자를 쓰는 법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의미를 어찌 알 것이며, 어찌 좋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세 부분의 문답식으로 구성된 이 시와 글은 사실은 하나의 글이다.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눠 표현했을 뿐이다. 전무후무한 김정희식 제사(題辭)라 할 수 있는 이것이 이 그림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시작된 제사는 약간의 장난으로 마무리 한다.

- ④ 始爲達叟放筆,只可有一,不可有二.仙露老人

처음부터 달준(達<sup>289</sup>叟)을 위해 그린 것이니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작품임을 강조한 내용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달준(達叟)’은 김정희의 시동(侍童)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희의 위 시는 1867년에 간행된 『담연재시고』 권7에 <제란(題蘭)>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고, 이어서 <희제증달준(戲題贈達峻)>이란 시가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달준(達峻)으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제자인 전각가 오규일이 보고는 빼앗는 장면이 나온다. 김정희는 이를 보고 웃고 있다.

- ⑤ 吳小山見而豪奪,可笑

①~⑤까지의 내용은 김정희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이뤄졌다. 달준의 등장도, 오규일의 등장도 그림을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쓰고 있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을 위한

289) 달(達)자는 ‘토(土)+진(進)’자로 묵서되어 있다.

하나의 설정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는 <세한도>의 그것과 무척이나 닮아 있다.  
 - 다음으로 볼 것은 등장하는 인장들이다. 이 작품에는 모두 15방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인	수량	인문	비고
김정희	4	<秋史>, <古硯齋>, <樂交天下士>, <金正喜印>	
김석준	2	<爽準私印>, <少棠>	
장택상	6	<神品>, <不二禪室>, <茶航書屋書畫金石珍賞>, <勿落俗眼>, <小桃源僊館主人印>, <研經齋>	일부 미확인
손재형	2	<蓬萊第一僊館>, <素荃鑑藏書畫>	
기 타	1	<墨莊>	
합 계	15		

-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김정희 이후 소장자들의 인장이다. 다만, 오규일의 인장이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고연재(古硯齋)>는 오규일의 인장이다. 오규일이 제작한 자신의 인보 『고연재인보(古硯齋印譜)』에는 자신의 성명과 자호 및 ‘고연재’를 새긴 여러 방의 인장이 실려 있는데, 그 중 하나에는 <고연재오씨진장(古硯齋吳氏珍藏)>이 있다. 이는 ‘고연재’가 오규일의 당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를 김정희가 일부러 사용한 것이다. 또 <낙교천하사(樂交天下士)>란 인장은 심희순(沈熙淳)이 보내준 것이다. 따라서 이 그림에 실린 네 방의 인장 중에서 온전히 김정희 인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추사(秋史)>와 <김정희인(金正喜印)> 뿐이다. <묵장(墨莊)>을 김정희 인장으로 보기도 하는데, 인장의 위치, 내용, 각법 등으로 볼 때 김정희의 것이 아니다. 이처럼 하나의 그림에 당대로부터 현대까지 소장자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도 이 그림의 큰 특징이다.

- <불이선란도>에는 김정희의 별호가 만향(曼香), 구경(漚竟), 선락노인(仙霧老人) 등 세 가지나 등장한다. 이처럼 작가가 동일한 그림에 화제를 쓰면서 각기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 또한 이 그림의 특징이다.

### ○ 지정사례

- 김정희 서화 작품은 국보로 지정된 <세한도>를 비롯하여 그의 종가 유물 일괄, 대련 등 서화 7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 참고문헌

- 김현권, 「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 19, 2005.

- 국립중앙박물관, 『추사 김정희-학예일치의 경지』, 2006.
- 김정희, 『담연재시고』, 전사자본, 1867.
- 오규일, 『고연재인보(古硯齋印譜)』, 탁인본.

## ○ 기 타

- 본 작품은 본래 김정희가 시동인 달준(達峻)에게 그려준 것이나, 김정희 제자 오규일(吳圭一)이 빼앗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다시 김석준(金奭準)의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다시 장택상(張澤相, 1893~1969), 손재형(孫在馨, 1903~1981) 등의 손을 거쳐 손세기·손창근 부자(父子)의 소장품이 되었고, 2018년에는 손창근씨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 ○ 현 상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된 〈불이선란도〉의 서화 부분은 종이에 수묵을 사용하여 그려졌으며 평액자 형태로 장황되어 있다. 액자를 포함한 전체 크기는 92.9×47.8cm이며 회화 부분은 55.0×30.6cm이다. 액자는 나무틀을 사용하였고 이면은 종이로 마감하였다. 액자의 상단에는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 벽에 걸도록 되어있는데, 동물의 뿔로 보이는 재질의 장식을 끼워 고리를 보강하였다. 제작 방식과 재질로 미루어 매우 오래된 액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은 미색의 바탕천 위에 부착되었다. 작품의 사변(四邊)과 배첩된 바탕천 사이에는 약 1.5~2cm 안팎의 문양이 있는 비단이 덧대어져 있다. 미색 계열의 이 비단에는 표주박과 넝쿨무늬 등이 직조되어 있다. 사변의 비단은 서로 연결된 한 장의 직물이다. 육안으로 보면 그림과 비단은 가장자리를 맞대고 직접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흔히 사변에 각각 한 장씩 비단 변아(邊兒)를 덧대며 화면 가장자리를 약간 덮어주거나, 화면과 변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는 방식과 다르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결 방식은 육안만으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화면의 좌하단에 종이와 비단에 함께 찍힌 2과의 인장으로 미루어 이 비단은 이전 상황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다. 〈불이선란도〉는 오랫동안 죽자 형태로 전승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새롭게 액자로 표구할 당시 인장이 찍혀 있는 기존 상황의 일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불이선란도 액자의 전면>



<불이선란도 액자의 배면 상태>

<불이선란도>의 중심인 묵란(墨蘭)은 화면을 크게 삼분하며, 삼분된 공간에는 4편에 이르는 추사의 글이 고루 적혀 있다. 난초는 담묵을 사용하였으며 난초 꽃술만 농묵으로 강조하였다. 글씨는 대부분 농묵으로 적었다. 글씨와 그림의 사이에는 15개의 인장이 남겨져 있는데, 인문은 선명한 편이다.

화면 하단의 좌우에는 종이 표면의 마모가 뚜렷하다. 특히 좌측은 제발의 ‘可有’자의 획 일부가 함께 마모되었다. 이 획의 상하에서 2~3과의 인장 흔적이 관찰된다. 박락된 인장들은 매우 희미하며 육안으로는 인문의 판독이 어려울 정도이다. 고의적으로 인장을 지우기 위하여 화면을 마모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에 과학적 조사를 통해 인장을 확인한다면 이 작품의 전승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전체적으로 작품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며 서화를 감상하고 글씨와 인장을 판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화면 전반에 걸쳐 접힌 자국, 미세한 종이의 갈라짐과 표면의 마모, 이물질에 의한 오염 등이 눈에 띄는 편이다.



<좌측 하단의 지워진 인장(2023. 4. 6. 촬영)>



<화면의 오염 및 종이의 손상>

## ○ 내용 및 특징

### 1.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

〈불이선란도〉의 작가인 추사 김정희는 독창적인 추사체를 창안한 서화가이자, 금석학자, 고증학자, 서화 감식가, 비평가로서 19세기 이후 우리나라 문화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문화인이다. 추사의 생애를 결정지은 사건으로 북경 여행 시 청조의 학자들과 맺은 교류 및 만년의 긴 유배 생활을 들 수 있다. 그는 24세에 부친의 자제군관으로 북경을 방문하여 당시 고증학, 금석학의 대학자인 옹방강(翁方綱, 1733~1818), 완원(阮元, 1764~1849) 등의 지우를 얻었다. 조선에 돌아온 후에도 이들과 지속적인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으며 그들을 통하여 청의 학술과 문화를 수용하였다. 청대의 실증적인 학문 방법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경지를 구축한 김정희는 성리학 일변도의 조선의 사상계에 발생한 전환을 가장 분명하게 반영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김정희는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료로서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던 중 정치적 공세에 몰려 1840년 제주도에 위리안치 되었으며 8년 뒤인 1848년이 되어서야 유배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1851년 다시 함경도 북청에 유배되어 이듬해에 해배되어 돌아왔다. 이처럼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낸 후에 그는 과천 초당에 자리 잡고 문예에 전념하였다.

서화 이론 면에서 김정희는 글씨와 그림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서화동원론(書畫同源論)’, ‘서화동필론(書畫同筆論)’, 화가의 학문과 인격적 수

양을 중요시하는 ‘문자향 서권기(文字香 書卷氣)’ 등으로 압축되는 남종문인화의 원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으며 스스로 이를 실천하였다. 그는 활발한 서화 감평과 서화가들의 지도를 통해서 문인화의 원리와 미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창작 원리로서 적용해야 함을 반복해서 역설하였다. 이 때문에 김정희는 19세기 조선 화단에 남종문인화의 저변이 확대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서 평가받고 있다.

## 2. 〈불이선란도〉와 추사의 묵란도

김정희가 남긴 작품의 대다수는 서예이지만 산수화, 묵란, 영모화 등의 작품도 일부 남겼다. 이 때문에 한국미술사 서술에서 때때로 그는 문인화가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묵란도를 제외하면 회화에 전문적인 기량을 지닌 인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즉, 김정희 회화의 중심은 서예의 원리가 적용되는 묵란도라 할 수 있으며 그의 회화 이론 역시 묵란도를 대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김정희는 20대부터 묵란을 의미하는 ‘현란(玄蘭)’이라는 호를 사용할 정도로 묵란화를 좋아하였으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묵란화를 제작하였다. 젊은 시절부터 청조의 지식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던 김정희는 다양한 명청대 화가들의 묵란화를 입수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대 묵란화의 화법을 탐구하였다. 특히 양주화파의 한명인 정섭(鄭燮, 1693~1765)의 경우는 청에 화적과 문집을 직접 요청할 정도로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던 사실이 주목된다. 보물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난맹첩(蘭盟帖)》은 정섭의 묵란을 비롯하여 명청대 화풍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자신의 묵란화로 나아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김정희는 비교적 많은 수량의 뛰어난 묵란도를 남기고 있으나 〈불이선란도〉는 《난맹첩》과 더불어 묵란의 대표작으로 손꼽을 수 있는 작품이다. 〈불이선란도〉는 화면 상에 정확한 제작 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이 그림의 서예적 특징 및 제발의 내용을 종합하여 과천에서 지내던 1853~55년 사이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이선란도〉의 중심은 화면을 가로지르는 한 그루의 묵란(墨蘭)이다. 전체적으로 화면 오른쪽 하단에서 시작하여 왼쪽 상단을 향하여 화면을 가로지르다 중단에서 좌우로 나뉜다. 13~14 줄기의 난초 잎 대부분은 오른쪽을 향하여 나가는 반면에, 꽃대는 왼쪽을 향하며 화면의 균형을 이루었다. 일반적인 묵란화 화법은 붓을 부드럽게 운용하며 잎에 윤을 주는 삼전법(三轉法)을 강조한다. 그러나 〈불이선란도〉의 필법은 이러한 일반적인 방식에서 떨어져 있다. 필선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서 붓을 굴리지 않고 꺾고 있으며, 꽃대는 직선으로만 표현하였다. 이것은 스스로 ‘초예, 기자의 법’이라고 밝혔던 서법으로 그린 결과일 것이다. 난잎에 보이는 거친 갈필과 비백은 이 그림에 조야한 멋과 쓸쓸한 정서를 부여한다.

묵법을 살펴보면 난잎은 모두 담묵을 사용하였으나 화심만 농묵으로 강조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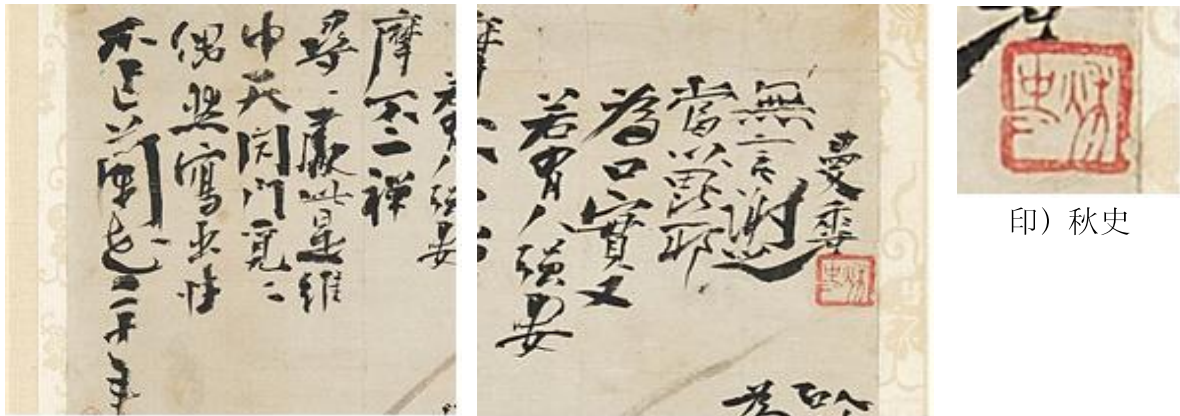


다. 대조적인 묵의 농담은 선종적인 깨달음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다. 화면 곳곳에 산재한 15개 인장의 붉은색은 수묵만을 사용한 서화와 색감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채로운 인장은 조형적 요소일 뿐 아니라 근대기까지 이어지는 이 작품의 전승 내력이 포함된 중요한 기록이기도 하다.

〈불이선란도〉에 대하여 어느 학자는 “거의 극단적인 파격을 추구한 작품”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만년의 김정희가 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예술세계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 3. 작품의 제발 분석

#### 3-1) 상단 제발과 인장



印) 秋史

不作蘭畫二十年 난을 그리지 않은 20년에  
 偶然寫出性中天 우연히 성중천(性中天)을 그려냈네.  
 閉門覓覓尋尋處 문을 걸어 닫고 찾고 또 찾은 곳,  
 此是維摩不二禪 이것이 바로 유마의 불이선이리라.

若有人強要爲口實，又當以毘耶無言謝之。

어떤 사람이 구실을 대라고 강요한다면 비야리성의 유마거사처럼 무언으로 이를 사양하겠다. 만향.

화면 상단의 제화시는 〈불이선란도〉를 그릴 당시의 김정희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글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문장이 연속해서 적혀 있다. 먼저 대자의 추사체로 7언 절구의 시문을 적고, 한단 아래에 글자 크기의 차이를 두어 부연을 곁들였다. 이 중 시문은 『완당전집(阮堂全集)』 권10에 「제란(題蘭)」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첫구에서 김정희는 난을 그리지 않은지 20년이 지났다고 하였다. 현존 작품을 살펴봐도 실제로 1830년대 이후 제작된 묵란도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불이선란도>의 제작 시기를 대략 1853~55년 경으로 비정할 수 있다. 다만 1830년대 이후로도 간혹 난초를 그렸던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절은 글자 그대로 난초를 그리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성중천’의 천은 성리학에서 일컫는 만물에 부여된 본성과 이치를 의미하며, 뒷 구절과 연결하면 이는 난초만이 아니라 화가 자신의 본성을 포함할 것이다. 우연히 난초의 본성을 포착하였다는 이 구절은 형사(形寫)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그려야한다는 문인화론의 원리를 가리키며 추사 문예관의 근간으로 이어진다. 그는 일생 동안 추구하였던 불교의 경지인 불이선과 성중천이 같은 것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유가와 불교의 궁극적인 경지는 다른 것이 아니며 하나로 통한다는 자각을 의미할 것이다.

상단의 글은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 오른쪽으로부터 적지 않고, 역으로 왼쪽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을 행하여 적어나갔다. 이것은 전통적인 선종화의 제발 기입 방식으로서 <불이선란도>가 추사의 불교적인 정신세계를 담은 작품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 3-2) 우측 제발



印) 古硯齋

以艸隸奇字之法爲之，世人那得知，那得好之也！漚竟又題  
초예와 기자의 법으로 이를 그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며 어찌 좋아할 수 있겠는가! 구경이 또 쓰다.

초예(艸隸)는 초서의 기운이 있는 예서를 말하며 기자(奇字)는 전서를 의미한다. 이 구절은 명말의 문인화가이자 이론가인 동기창(董其昌, 1555~1636)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도 하다. 동기창은 선비의 그림은 초예와 기자의 법으로 그려야 속기에 빠지지 않고 선비의 기운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글은 평소 난

초는 예서의 법으로 그려야함을 말하였던 김정희 자신의 문인화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 3-3) 좌측 제발



<좌하단의 첫 번째 제발>



<두 번째 제발>



<墨莊>



<樂交天下士>, <金正喜印>

始爲達參放筆，只可有一，不可有二。仙霧老人

처음에 달준에게 주기 위하여 붓을 편안히 휘둘렀다. 한번은 가능하겠지만 두 번은 불가능할 것이다. 선락노인.

吳小山見而豪奪，可笑

소산이 보고서 호기롭게 빼앗으려드니 우습다.

이 제발에는 제작과 소장 이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그림을 증여받은 ‘달준’은 신원이 분명하지 않지만 과천 시절 김정희를 시봉하던 하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달준이라는 이름은 추사의 작품과 『완당전집』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추사는 이때마다 한자를 조금씩 달리 사용하고 있다. 두 글은 나란히 적혀 있지만 묵색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달준의 그림을 빼앗고자 하였던 ‘오소선’은 오규일(吳圭一)290)이라는 인물이다.

### 3-4) 인장

<불이선란도>에는 모두 15개의 인장이 낙관되어 있다. 이중 제발과 이어지는 5

290) 오규일(?~?)은 호가 소산(小山)으로 내의원 오창렬(吳昌烈)의 아들이다. 관직은 규장각의 잡직인 가각감(假閣監)을 지냈다. 김정희와 권돈인(權敦仁, 1783~1859)의 문하를 드나들었으며 진각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다.

개의 인장은 추사가 당시에 남긴 것이다. 그 외에 이 작품의 전승과 관련된 인물들, 즉 김석준, 손재형, 장택상의 인장이 외편 하단에 집중적으로 보인다. 각각의 인문과 주인공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중 김정희, 김석준(金奭準<sup>291</sup>), 1831~1915), 손재형(孫在馨<sup>292</sup>), 1902~1981)의 인장은 밝혀져 있었으나 그 일부는 명확하게 주인공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황정수 연구가의 근래 연구에 의하면 나머지 6과의 인장은 모두 근대기의 정치인이자 서화 수장가였던 장택상(張澤相<sup>293</sup>), 1893~1969)이 남긴 것이라고 한다.



- 神品
- 不二禪室
- 茶航書屋書畫金石珍賞
- 勿落俗眼
- 蓬萊第一僊觀
- 小桃源僊館主人印
- 素筌鑑藏書畫
- 研經齋
- 奭準私印
- 小棠

수량	김정희	김석준	손재형	장택상
1	秋史	奭準私印	蓬萊第一僊觀	神品
2	墨莊	小棠	素筌鑑藏書畫	不二禪室
3	樂交天下士			茶航書屋書畫金石珍賞
4	金正喜印			勿落俗眼
5	古硯齋			小桃源僊館主人印
6				研經齋

### ○ 문헌자료

- 金正喜, 『阮堂全集』.

### ○ 지정사례

김정희 관련 유물로서 국보·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아래의 10건이 확인된다. 지정 작품은 서예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김정희 필치의 회화로는 <세한도>와 《난맹첩》이 포함되어 있다. 간송미술관 소장의 《난맹첩》은 <불이선란도>와 같은

291) 자는 희보(姬保), 호는 소당(小棠) 등. 역관으로 벼슬이 첨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서예가, 전각가로서 명성이 있었으며 김정희의 말년 측근에서 활약하며 지우를 받았다.

292) 자 명보(明甫), 호 소전(素田, 素荃, 篠顛, 篠田) 등. 근현대의 서예가, 전각가, 정치인, 서화수장가. 일본의 후지쓰카 지카시(藤塚隣, 1879~1948)로부터 <세한도>를 양도받아 조선에 귀환시킨 인물.

293) 자는 치우(致雨), 호는 창랑(滄浪). 근현대의 정치인, 서화 수장가.

묵란화이기 때문에 지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난맹첩》은 여러 점의 글과 그림이 포함된 화첩으로서 상하 양권에 다양한 구도와 형상의 묵란화 16점과 글씨 7점이 수록되었다. 《난맹첩》 역시 김정희의 대표적인 묵란화의 하나이자 후대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 높은 회화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이다. 그러나 작품의 제작 시기와 형식 등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이며 다른 층위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면에서도 작가의 생애에 밀착한 정도, 작품에 담긴 사유, 예술적 의의 등에서 〈불이선란도〉는 별개의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그 외에 묵란도류의 보물 지정 사례로는 17세기 종실 출신의 화가인 이정 필 《삼청첩(三清帖)》에 3점의 금니 난초 그림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연번	지정구분	작품명	소장처
1	국보	김정희 필 <세한도(歲寒圖)>	국립중앙박물관
2	보물	김정희 해서 <묵소거사자찬(默笑居士自讚)>	
3	보물	김정희 종가 유물(金正喜 宗家 遺物)	국립중앙박물관(기탁)
4	보물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金正喜 宗家 遺物 一括)	추사유물전시관
5	보물	김정희 예서대련 <호고연경(好古研經)>	삼성미술관 리움
6	보물	김정희 필 <대팽고회(大烹高會)>	간송미술관
7	보물	김정희 필 <차호호공(且呼好共)>	간송미술관
8	보물	김정희 필 <침계(岑溪)>	간송미술관
9	보물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書員嶠筆訣後)>	간송미술관
10	보물	김정희 필 <난맹첩(蘭盟帖)>	간송미술관

## ○ 참고문헌

- 강관식, 「추사 그림의 범고창신의 묘경-세한도와 불이선란도를 중심으로」,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 고연희, 「19세기에 꽃 핀 花卉의 詩·書: 金正喜와 그 一派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1, 2002.
- 국립중앙박물관, 『歲寒: 한겨울에도 변치 않는 푸르름』, 2020.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청, 『새 보물 납시었네』, 2020.
- 국립중앙박물관, 『추사 김정희 학예 일치의 경지』, 2006.
- 김병기, 「추사 「불이선란도」의 시·서·화 계합성 연구-제화시·문의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37, 2017.
- 김현권, 「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미술사학』 19, 2005.

- 성인근, 「오규일(吳圭一)의 생애와 전각(篆刻) 연구」, 『서예학 연구』 31, 2017.
- 심연옥,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고대직물연구소, 2006.
- 유흥준, 『추사 김정희 산은 높고 바다는 깊네』, 창비, 2018.
- 유흥준, 『완당평전』, 학교재, 2003.
- 이인숙, 「[이인숙의 옛 그림 예찬] 김정희(1786~1856), ‘불이선란’(不二禪蘭)」, 『매일신문』, 2021.6.7..
- 최준호, 『추사, 명호처럼 살다』, 아미재, 2012.
- 황정수, 「황정수의 그림산책-불이선란’의 입장」, 『국제신문』, 2021.9.28..
- 한영규, 「추사파 역관 김석준의 학예 성향」, 『국제어문학회』, 2018.

## ○ 기 타

제발에 나타난 달준과 오규일 외에 인장을 남긴 김석준, 손재형, 장택상이 한때 〈불이선란도〉를 소장한 것으로 보인다. 근대 이후 〈불이선란도〉의 소장자로 알려진 인물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장택상→이한복(李漢福<sup>294</sup>), 1897~1944)→손재형→이근태<sup>295</sup>→손세기·손창근의 순서로 전하여왔으며 손세기·손창근에 의해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었다.

294) 호는 무호(無號), 수재(壽齋), 이복(李福). 근대의 서화가.

295) 손세기와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 10.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機張 古佛寺 靈山會上圖)

### 가. 검토사항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정보문화재 환수 결과로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2.12.2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4.3.) 및 과학조사(’23.5.9.~5.1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機張 古佛寺 靈山會上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28번길 77, 고불사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170.5×227.0cm
- 재 질 : 비단 바탕에 채색(絹本彩色)
- 형 식 : 미상
- 조성연대 : 1736년(영조 12)
- 제작자 : 미상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고불사 소장 영산회상도는 1736년에 조성된 불화이다. 화기에는 비록 제작 화승이 적혀 있지 않으나 후불도 형식과 화풍을 통해 의균의 영향을 받은 팔공산화파 화승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불화는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한 영산회상도이면서도 권속으로 아미타팔대보살에 속하는 지장보살이 표현되어 있다. 지장보살을 권속으로 표현한 영산회상도는 19세기에 경상도 일대와 서울, 경기도에서 후불도의 한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현재 이와 같은 형식의 후불도는 <불영사 영산회상도>(1735년), <대전사 영산회상도>(18세기) 정도가 알려져 있다. 1736년 작 고불사 소장 영산회상도는 18세기 전반에 팔공산화파 화승에 의해 새로운 형식의 후불도가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작품이다.

이처럼 고불사 소장 영산회상도는 18세기 전반부터 영산회상도의 형식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석가 신앙과 아미타 신앙이 융합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조선 후기 불화의 형식과 신앙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 보호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화는 도난으로 절취되어 상·하측과 변아 등 장황과 화기부분의 봉안사찰 부분을 의도적으로 훼손하였다. 더욱이 제작한 화사들의 면면이 화기를 통해 밝혀지지 않아 불화 연구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시기가 분명하고, 도설된 내용과 화기에 기록된 화제가 일치하여 이 시기 영산회상도 도상 연구에 기준이 된다.

제작에 참여한 화사들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존상의 특색 있는 머리모양과 축 처진 가슴근육의 표현, 여래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고 안정적으로 구성된 구도와 배치, 본존의 광배 상단 좌우측에 양 갈래 고수머리 타방불(또는 벽지불)의 배치, 본존 대의의 바람개비문(또는 日輝文), 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의 강한 대비, 먹 선 위주의 선묘 등의 표현 양식은 영천 봉림사, 울진 불영사, 의성 고운사 영산회상도 등 경북지역, 특히 팔공산 일원에서 활약한 화사의 화풍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이 불화 제작에 참여한 몇몇의 승려들 역시 상기의 불화에 화원 또는 시주자로 참여한 활동 상황이 살펴지기 때문에 이 영산회상도 역시 같은 유파의 화원들이 주도하여 그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18세기 전반기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보존성이 열악한 녹색계통 안료층이 바탕재질을 부식시키거나 바탕 재질을 물고 일어나 화면이 전반적으로 불량하고, 일부에서 후대의 보채나 덧칠이 확인되지만 수리의 범위가 크지 않고 조성당시의 화면과 화격을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어 추후 보존처리를 통해 원래의 상황모습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주형 광배를 갖추고 불단 형식 대좌에 결가부좌한 편단우견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권속이 에워싼 군도 형식의 불화이다. 화면은 낮은 채도의 붉은색과 녹색으로 채색되고, 채색과 묘사가 정밀하여 품격 있는 분위기를 보여준다. 안정감이 있는 군도형 구도와 균형 있는 신체 비례의 권속 배치, 그리고 온화한 붉은색과 녹색의 중심 색조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 경상도 지역에서 발전한 영산회상도의 도상 형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도상의 불화는 과거사 영산회상도(1707년), 법림사 영산회상도(1724년), 불영사 영산회상도(1733년) 등에서 볼 수 있는 본존을 권속이 에워싼 구도와 특유의 채도가 낮은 붉은색을 사용한 이 지역 불화 도상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 조사보고서

□

### ○ 현 상

이 불화는 1736년에 조성된 영산회상도이다. 불화의 상태는 상하좌우의 회장이 절취되어 남아 있지 않으나 다행히 화면만은 온전하다. 화면 크기는 세로 170.5cm 가로 227.0cm로 재질은 비단이다. 바탕천은 향 오른쪽부터 54.4+63.0+62.5+22.3cm로 폭을 연접하였다. 화면의 존상 구성은 축지인을 한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8위의 보살과 사천왕, 타방불과 십대제자 등을 좌우로 배치하였다. 화면 하단 중앙에는 삼전하 축원문과 2개의 화기가 있다. 화면 상태는 세로와 가로 꺾임을 비롯하여 안료의 들뜸·터짐·박락과 일부 바탕천 박락 등이 확인된다. 안료 터짐과 박락은 녹색에서 주로 확인되며 박락이 진행된 부분은 개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화면 외곽의 회장이 없고 안료의 개채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불화에서 중요한 요소인 불, 보살, 호법신 등의 얼굴과 신체 표현, 채색 등은 제작 당시의 원형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 ○ 내용 및 특징

- 고불사 소장 불화는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범화경을 설법하는 순간을 표현한 영산회상도이다. 화면 중앙에는 편단우견으로 착의하고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려 축지인을 한 석가모니불이 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여래 좌우에는 8위의 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이 중 맨 앞에 서 있는 협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로 여의와 연꽃 가지를 지물로 들고 있다. 나머지 보살 가운데 민머리에 육환장을 든 지장보살을 제외하고 다른 보살의 존명은 보관과 지물 등의 특정 도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화면 상단 광배 좌우에는 타방불이 있으며 그 옆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가섭과 아난을 중심으로 한 십대제자가 표현되어 있다. 화면 가장자리에는 비파, 검, 용과 여의주, 당과 보탑을 든 사천왕이 좌우로 크게 배치되어 있고 그 위로 사자관을 쓴 아차와 코끼리관을 쓴 건달바, 여의주관을 쓴 용왕과 용뿔과 여의주를 든 용녀가 있다. 화면 상단에는 여래의 정수리에서 발하는 서기가 좌우로 표현되어 있고 그 중앙에는 여래의 신성성을 상징하는 연화형 천개가 표현되어 있다. 주존이 앉아 있는 불단에는 묵서로 주상전하, 왕비전하, 세자저하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축원문이 적혀 있다.

- 화면 하단에 마련된 2개의 화기에는 이 불화가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한 불화임을 밝히는 영산탱(靈山會)이란 화제와 1736년 작이라는 乾隆元年丙辰四月日이란 제작 시기가 적혀 있다. 그러나 봉안 사찰은 지워져 있고 봉안처인 법당(法堂)만 기록되어 있고 시주자만 적혀 있을 뿐 불화 제작을 담당한 화승을 비롯해 제작 불사로 참여한 증사, 지전, 화주 등을 기록한 연화질(緣化秩)은 없다.
- 제작연대를 제외한 제작화승에 대한 기록 부재에도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존상 구성과 표현, 세부 문양 등에 있어 18세기 전반 의균의 영향을 받았던 팔공산화파에 속한 화승이 제작한 불화로 판단된다. 의균은 청도 대비사, 대구 동화사, 대구 파계사, 포항 보경사에서 활동하였으며, 그의 영향을 받은 채민, 석민, 체준, 평원 등은 대구를 거점으로 영천, 청도, 김천, 포항, 경주, 창녕 등 경상도 일대와 강원도 건봉사에서 활동하였다. 현재 의균과 팔공산화파가 조성한 후불도는 <대비사 영산회상도>(1686, 차화승 의균), <파계사 원통암 영산회상도>(1707, 수화승 의균), <법화사 영산전 영산회상도>(1724, 수화승 채민), <정수사 영산회상도>(1731, 수화승 밀기), <불영사 영산회상도>(1735, 수화승 평원), <대전사 영산회상도>(18세기, 밀기) 등이 남아 있다.
- 의균과 팔공산화파 화승들이 조성한 영산회상도의와 관련해 <고불사 영산회상도>에서 주목되는 점은 축지인을 한 석가모니불의 협시로 표현된 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은 아미타불의 팔대보살로 고려 후기부터 아미타불회도에 표현되는 주요 존상이다. 조선 후기 불화 중 지장보살이 표현된 영산회상도는 <불영사 영산회상도>(1735)와 <대전사 영산회상도>(18세기)가 있으며 이후 19세기 초 사불산화파 수화승인 퇴운신겸에 의해 <주월암 영산회상도>(1800), <김룡사 영산회상도>(1803) 등을 포함해 사불산화파 화승들에 의해 전승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서울·경기지역 후불도에서 적용되어 제작되었다. 이처럼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불영사 영산회상도>와 함께 18세기 전반 석가 신앙과 아미타 신앙이 결합한 새로운 후불도 형식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이다(삽도 1, 삽도 2).



대비사 영산회상도, 1686년  
수화승 해웅, 차화승 의균



과계사 영산회상도, 1707년  
수화승 의균



법화사 영산회상도, 1724년  
수화승 채민



불명사 영산회상도, 1735년  
수화승 평원



고불사 영산회상도, 1736년  
수화승 (미상)



대전사 영산회상도, 18세기  
수화승 밀기

<삽도 1. 의균과 팔공산화파 화승 제작 영산회상도>

- <고불사 영산회상도>의 도상과 형식은 <불명사 영산회상도>(1735)와 <대전사 영산회상도>과 유사하나 화면 크기가 작고 형태도 가로축이 길다. 이로 인해 석가불을 중심으로 권속들의 기본 구성과 표현은 두 불화와 같지만 보살들의 배치와 자세가 달라지고 호법신 중 범천과 제석천, 팔부중 등이 생략 혹은 축소되었으며 천공의 표현도 간략화되었다. 그러나 석가불을 비롯한 보살들의 얼굴과 세부 표현과 문양에서는 의균 이후 팔공산화파 화승들에게 의해 전승되면서 자기화한 특징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여래의 붉은 대의를 장식하는 소용돌이원문과 대좌의 소용돌이 문양, 불보살의 복식에 화문 장식에 사용된 금니의 따데기 기법 등은 의균이 참여한 <대비사 영산회상도>, <과계사 영산회상도>부터 그의 영향을 받은 체준, 평원, 밀기 등의 화승들이 계승하여 사용한 주요 문양과 기법이다. 무엇보다 <고불사 영산회상도>에서 불보살의 얼굴과 자세, 세부 표현과 기법을 보면 평원이 제작한 <불명사 영산회상도>과 가장 유사하다. 이로 보아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의균의 영향을 받아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팔공산화파 화승 가운데 평원 혹은 평원과 함께 작업한 화승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296)</sup>



불영사 영산회상도, 1735년  
수화승 평원



고불사 영산회상도, 1736년  
수화승 (미상)



대전사 영산회상도, 18세기  
수화승 밀기

<삽도 2. 영산회상도에 표현된 지장보살도>

- <고불사 영산회상도>은 세필로 각 존상의 얼굴과 신체, 복식의 형태, 문양들을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특히 섬세한 필치로 얼굴의 이목구비를 묘사하는 방식은 의균과 팔공산화파 화승들의 불화에서 공통되게 간취되는 특징이다. <고불사 영산회상도>에서는 불보살의 눈 아래에 흰색을 덧칠하거나 녹색 눈썹에 가는 먹선을 긋고, 사천왕이나 팔부중 역시 눈썹과 수염, 눈매에 흰색을 칠하는 특색 있는 표현이 확인된다. 색채는 조선 후기 불화에서 주조색으로 사용되는 홍색과 녹색을 적절하게 대비되게 사용하였으며, 여래 대의의 소용돌이원문을 비롯해 금니화문장식 등 다양한 문양이 빠짐없이 시문되어 있다.

○ 문헌자료

- ① 王妃殿下壽濟年  
主上殿下壽萬世  
世子邸下壽千秋
- ② 乾隆元年丙辰四月日靈山  
會幘安⊙⊙⊙⊙⊙⊙⊙⊙  
⊙⊙⊙法堂  
婆湯大施主比丘守(澄)  
供養同暢施主等  
比丘碩藏 印已  
比丘尙堅 爾還

296) <불영사 영산회상도>(1735), “雍正拾一年乙卯閏四月初七日 靈山幘 畢功安于蔚珍西嶺 天竺山 天影寺 緣化秩 證明比丘印悟保體 持殿比丘信澄保體 書員比丘安遠保體 比丘明俊保體 比丘淳日保體 比丘湫演保體 比丘秀坦保體 比丘哲眼保體 供養主淨允保體 豈敬保體 別座比丘覺欽保體 大施主張讚世兩主保體 大施主崔成奉兩主保體 大施主嘉善黃已天”.

比丘哲玄 弘信  
比丘竺安 德澄  
比丘彩元 灵信居士  
比丘順旻 海悅  
比丘廣湜 (最)演  
比丘義甘 俊益  
比丘再閑 ○清  
比丘呂清 ○應  
比丘斗玄 德清  
比丘儀湖  
比丘元贊  
比丘太軒  
比丘信淳  
比丘快悅  
比丘最閑  
比丘竺淡  
比丘戒初

③ 大施主秩

鄭守海兩主  
李守英兩主  
鄭晉業兩州  
池甘發兩主  
張貴發兩主  
李夢致兩主  
朴還印兩主  
鄭進業兩主  
金守侃兩主

□

### ○ 내용 및 특징

현재 상·하측과 상하좌우의 회장과 변아 부분은 도난 시 잘려나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화면은 4쪽의 비단을 시침질하여 바탕을 마련하였고, 각 폭(향좌→향우측 방향)은 21.5+63.2+63.5+54.7cm로 추정된다.

화면에 표현된 도상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석가여래와 그 회상에 참여한 권속들을 그린 영산회상도이다. 화면 중앙에 본존인 석가여래를 크고 웅장하게 배치하고, 나머지 권속들은 위계와 역할에 맞게 배치하였다. 화면 하단 두 곳에 장방형의 화기란을 마련하였고, 이곳에 제작시기와 봉안장소, 그리고 그림 제작에 참여한 관계자와 시주자 등을 묵서로 기록해 두었다. 봉안 사찰과 전각은 도난 시 의도적으로 훼손되었고, 그림을 그린 畫員도 원래부터 기록하지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제작 시기는 건륭원년 병진 4월로, 서기 1736년(영조 12) 4월에 해당한다. 불화가 봉안된 4월은 석가탄신일이 있는 달로 석가탄신일을 봉축하면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1>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1736년



<도 2> 좌협시보살과 사천왕

화면의 전체적인 구성은 화면의 중앙에 높은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은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문수·보살을 비롯한 8대보살과 아난·가섭 등 10대제자, 팔부중을 대표해서 사자관을 쓴 건달바와 코끼리 冠을 쓴 야차, 용왕과 용녀를 상단에 배치하고, 화면 하단 네 변에는 사천왕상을 배치하여 불회상 장면을 야무지게 마무리하였다. 화면의 배치와 구도는 좌우대칭과 수직 상승법에 따라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도 1, 2, 3]



<도 3> 본존과 주요 권속

세부적으로 그림을 살펴보면, 석가여래는 방형의 수미단위에 놓인 연꽃대좌에 결가부좌하였다. 연꽃 대좌 위로 내의를 균의를 묶은 하얀 띠 자락이 드리워져 있다. 석가여래는 단엽의 꽃잎모양의 광배를 등졌으며, 꽃잎형의 광배는 여러 겹의 색 띠로 두르고 안팎을 양분하였다. 신광의 내면에는 아무런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단순하게 녹색으로 칠했고, 색 띠에는 영락장식으로 장식하였다. 광배의 바깥면은 활활 타오르는 화염을 상징하였는데, 떡 선으로 화염의 윤곽을 잡은 다음 붉은색으로 칠하였다. 단엽의 꽃잎형 광배는 이중 꽃 잎형(기형) 광배와 더불어 17~18세기 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배이지만, 그 출현은 1699년에 제작된 대구 동화사 아미타회상도(1699년, 首 義均, 보물)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대구 파계사 영산회상도(1707년, 首 義均, 도 4), 안동 봉정사 아미타여래설법도(1713년),



정수사 영산회상도(1731년, 의성 고운사), 범주사 아미타여래설법도(1736년) 등 18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후불도에 많이 등장하는 양식이다.

본존불의 머리에는 육계가 뾰족하게 솟아있고, 정상에는 작고 동그란 정상계주를, 중앙에는 반달모양의 중간계주를 표현하였다. 정상계주에서 발한 빛은 광배의 상단부에서 여의두문 모양으로 매듭을 맺고 다시 두 가닥으로 갈라져 천공으로 퍼져가도록 연출하였다. 단판의 꽃잎광배, 그리고 둥근 중앙계주에서 광명이 흘러나와 천공으로 뻗어가는 모습도 17~18세기 불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불화적인 표현이다.

석가여래의 발제선은 굵은 초록색으로 두텁게 다시 그어 푸른 머리를 강조하였고, 다시 발제선의 중앙부의 머리를 쌍방울처럼 봉긋하게 포인트를 주었고, 그 아래로 ‘八’字모양으로 애교머리 그려 넣었다. 머리의 외곽선을 동글동글 포도송이처럼 처리한 것도 특징이다. 얼굴은 윗면이 넓고 아랫면이 좁은 형태이며, 이마가 넓고 턱이 길고 두툼한 편이다. 눈썹과 눈 사이의 공간을 크게 마련하고 눈·코·입은 넓은 얼굴 면적에 비해 작게 묘사하였고, 콧방울은 이중으로 처리하였고 특히 휘파람을 불 듯 쫓긋 내민 입술이 인상적이다. 코에는 두 가닥의 콧수염을, 턱에는 소용돌이 모양의 수염이 늘어져 蛇行하듯 그려 넣었다. 귀는 폭이 좁은 세장한 형태이며 이룬결절이 표현되어 ‘3’字 모양을 이룬다. 귓불은 밖으로 외반 되었고 물방울 모양의 구멍을 표현하였다. 삼각와와 이갑강 등 요철로 인해 움푹 들어간 곳은 검은색으로 칠해 입체감을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이갑강에는 잔털을 그려 넣어 사실성과 해학성을 더하였다. 목에는 먹 선으로 세 줄의 삼도를 그려 넣었고, 노출된 가슴에는 중년의 늘어진 젓가슴과 살집이 표현되었다. 착의는 붉은색 가사를 偏袒右肩으로 걸쳐 입었으며 옷깃은 짙은 남색계통으로 칠하였다. 가슴을 수평으로 가로지른 군의 단은 녹화문과 녹화견련금문 조합으로 시문하였고, 군의 표면은 금색의 화문으로 꾸몄다. 군의는 백색의 끝으로 묶었고 띠 자락은 대좌아래까지 늘어뜨렸다. 붉은 색 가사에는 역동적인 둥근 바람개비원문이 主 문양으로 채택되었고, 옷깃에는 연화당초문이 白描로 베풀어졌다.

수인은 향마촉지인을 걸하고 있다. 특히 오른쪽 무릎 위에 내린 촉지인은 엄지를 벌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모았는데, 조각의 표현과는 달리 손날을 약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도 4>



<도 5>



<도 6>

대구 파계사 영산회상도, 1707년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1724년 울진 불영사 영산회상도, 1735년

특히 본존불에서 보이는 뽀족한 육계와 포도송이처럼 동글동글하게 처리한 머리모양, 녹색계통으로 발제선을 강조한 점, 둥글고 큰 얼굴에 작게 묘사된 눈·코·입, 두툼한 턱, 늘어진 가슴근육의 표현, 색선을 사용하지 않고 가는 먹 선으로 처리한 피부의 윤곽선 처리, 대의의 주 문양으로 사용된 대의 바탕의 바람개비 원문 등은 1724년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도 5)를 비롯하여, 1731년 정수사 영산회상도(의성 고운사 소장), 1731년 구미 수다사 영산회상도, 1735년 울진 불영사 영산회상도(도 6), 1742년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1744년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 등 18세기 전반기 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불화들과 형태적, 양식적으로 친연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불사 영산회상도 역시 상기 불화들의 제작자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머리모양과 이목구비, 가슴의 살집 표현 등 세부표현에서 동시기에 활약한 의겸이나 임한의 화풍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석가여래의 대좌 하단 좌우측에는 여의를 든 문수보살과 연꽃을 든 보현보살이 자리하였다. 상호의 표현은 여래와 같다. 두 보살은 다른 보살과 달리 흑갑사의 광배를 갖추었으며, 머리에는 보관을 착용하였고, 보발은 길게 닿아 어깨위로 멋스럽게 드리웠다. 착의로는 천의와 군의, 요의, 광다회를 두르거나 걸쳤으며, 귀고리, 팔찌, 영락 등 각종 장신구로 불신을 장엄하여 화려하면서도 세속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양대 보살을 기점으로 지그재그로 상승하면서 3위의 보살이 적정한 공간감을 유지하며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였다. 상단 부처님의 광배 곁에 표현된 2위의 보살만 정면향을 취했고, 나머지는 보살은 측면향을 취하였다.

화면의 상단에는 가섭과 아난을 필두로 10대 제자가 표현되었다. 가섭존자는 지권인과 유사한 특유의 합장인을 결하였다. 나머지 젊은 나한에서 중장년의 제자들 가운데, 인상을 쓰거나 고개를 숙여 귀엣말을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존자, 눈을 감고 깊이 사유에 잠겨 있는 존자 등 불·보살에 비해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읽을 수 있다.

상단의 가장자리 좌우에는 팔부중을 대표하여 사자관을 쓴 건달바와 야차, 그리

고 용왕과 용녀가 상징물을 들고 배치되었다.

사천왕은 화면하단 좌·우측 가장자리에 각각 2위씩 배치하였다. 17세기 이후 제작된 조각과 불화의 사천왕상의 배치법을 따르고 있는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북(비파)-동(보검)-남(용과 여의주)-북(당탑)을 지물로 취하고 있다. 사천왕 보관을 쓰고, 갑주를 착용하였으며 녹색 두광을 갖추고 위엄 있는 표정과 역동적인 자세로 도량을 옹호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사천왕상 중에는 파련화 형태의 삼엽보관을 쓴 북방 다문천왕과 보검을 칼집에서 빼고 있는 동방 지국천왕을 상하에 배치하였다. 파련화 형태의 삼엽 보관은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1724년) 북방천왕의 도상을 이어받은 것이고, 칼집과 칼이 모두 표현된 사례는 한국 불화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작가의 변칙이는 재치가 가미된 것이다. 북방과 서방은 정면향을 동방과 남방은 눈을 부라려 외곽을 경계하고 있다. 일부 갑옷에는 입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분법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석가여래 광배 최상단 좌우에는 뒷머리를 파마를 한 것처럼 양 갈래 고수머리를 한 2위의 보살이 합장하고 마주하였다. 특히 양 갈래 고수머리를 한 타방불은 지극히 경북일원의 제한된 시기에 등장하는 특징으로, 이 불화의 제작자 추정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이 2위의 불상은 마곡사 석가모니불괘불탱에는 辟支佛로 기록되어 있고, 내소사 영산회괘불탱에는 좌측에 다보여래, 우측에 아미타여래로 기록하여 『오종범음집』 법화거불에 등장하는 여래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회상도에서의 타방불(또는 벽지불)은 2위~6위까지 그 수가 탄력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래가 회상에 등장하는지 존명에 대한 기록이 없는 한 정확히 알 수 없다.

불화의 윤곽선은 주로 먹 선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노출된 피부의 윤곽선은 피부와 비슷한 톤을 가진 열은 주색선으로 칠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여기서는 먹 선을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표현방식을 위해 사용되는 색선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색감은 채도가 높지 않은 녹색과 적색을 주색으로 사용하였고, 구도와 색감, 등장인물의 표현은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울진 불영사 영산회상도,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등과 직접적으로 비교된다. 특히 여래의 뒤쪽 좌우에 자리 잡은 2구의 타방불은 뒷머리를 붕긋하게 양 갈래 고수머리로 처리한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의 타방불은 위에서 비교대상으로 언급한 18세기 전반기 경북지역 불화에서 등장하는 표현요소로, 이 불화에 참여한 화원들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그런 가운데 고불사 영산회상도 화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채원, 계초, 준익은 위에서 언급한 불화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어 이 불화의 도상과 양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기는 3곳에서 확인된다. 대좌에는 왕실 삼전하의 축원문이 기록되어 있고, 두 곳 중 한 곳에는 불화의 제작시기와 승려 시주자, 다른 한 곳에는 재가 시주자들

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이곳 화기의 특징으로는 본문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삼전하의 축원문을, 별도의 구획을 마련하여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도(1654년, 보물) 산청 율곡사 괘불탱(1684년, 보물), 부석사괘불(1684년, 국립중앙박물관), 성주 선석사 영산회괘불도(1702년, 보물), 대구 파계사 영산회상도(1707년, 보물),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1742년, 패형식), 용주사 석가여래삼불도(179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정도에서만 확인될 정도로 드물다.

## ○ 문헌자료

### <화기-대좌 하단>

王妃殿下壽濟年  
 主上殿下壽萬歲  
 世子邸下壽千秋

### <화기-우측>

乾隆元年丙辰四月日靈山」  
 會幀安」  
 法堂」  
 婆蕩大施主比丘守澄」  
 供養同暢施主」  
 상단  
 比丘碩藏  
 比丘尙堅  
 比丘哲玄  
 比丘竺安  
 比丘彩元  
 比丘順昊  
 比丘廣湜  
 比丘義甘  
 比丘再閑  
 比丘呂淸  
 比丘斗玄  
 比丘義湖  
 比丘元贊

比丘太軒  
比丘信淳  
比丘快悅  
比丘最閑  
比丘竺淡  
比丘戒初  
하단  
印己  
爾遠  
弘信  
德澄  
灵信居士  
海悅  
○演  
俊益  
幸清  
淡應  
德清

< 화기-좌측 >

大施主秩  
鄭守海兩主  
李守英兩主  
鄭晋業兩主  
池甘發兩主  
張貴發兩主  
李夢致兩主  
朴遠甲兩主  
鄭進業兩主  
金守侃兩主

<표1. 고불사 영산회상도 화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활동사항>

주요 인물	작품명	제작시기	역할	비고
哲玄	여수 흥국사 석가모니후불탱	1693년	시주	보물
	충림사 시왕도	조선 후기	화원	
	감로도	1681		보물
彩元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1724	시주	보물
	영천 은혜사 영산회상도(대전사)	조선 후기	화원	
	불국사 삼장보살도	1739년	화원 2위	보물
	하동 쌍계사 삼세불도	1781년	시주	보물
	하동 쌍계사 삼장보살도	1781년		
	홍익대학교 시왕도(제4오관대왕)		시주	
	영천 은혜사 백홍양 감로도	1792년	화원 9위	
廣湜	해남 대흥사 사천왕도(서·북)	1794년	주지	
	수덕사 노사나불괘불도		1766년 중수 별좌	
信淳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	1728	대시주	
最閑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1769	대덕/淨桶	보물
戒初	청도 운문사 비로자나삼신불도	1755	송주	보물
德澄	용봉사 괘불	1690	시주	보물
	의성 대곡사 삼화상진영	1782	화주	
	의성 대곡사 청허당대사진영	1782	화주	
	의성 대곡사 사명당대사진영	1782	화주	
俊益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1724	본사질	보물
	순천 송광사 영산전 영산회상도	1725	연화질	보물
幸淸	하동 쌍계사 국사암 아미타후불도	1781	시주/도감	
	하동 쌍계사 삼세불도	1781	대시주/도감	보물
	하동 쌍계사 삼장보살도	1781	산중대덕/도감	
	하동 쌍계사 국사암 제석·천룡도	1781	시주	

○ 지정사례

<표2. 영산회상도 지정 현황>

연번	지정명칭	제작시기	크기(cm)	재질	수화승
1	영산회상도(동아대)	1565	227.0×188.5	마본채색	
2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1686	336.5×294.8	마본채색	
3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1688	403.0×275.0	견본채색	天信
4	여수 흥국사 대웅전 후불탱	1693	458.0×407.0	마본채색	天信
5	과계사 영산회상도	1707	340.0×254.0	견본채색	義均
6	영국사 영산회후불탱	1709	289.0×274.5	마본채색	印文
7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및 복장유물	1724	450.0×370.0	견본채색	碩敏
8	해인사 영산회상도	1729	293.5×241.9	견본채색	義謙
9	구미 수다사 영산회상도	1731	319.0×244.0	마본채색	道益
10	통도사 영산회상도	1734	339.0×233.0	견본채색	任閑
11	불영사 영산회상도	1735	402.0×373.0	견본채색	宏遠
12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1749	339.5×283.0	견본채색	海雄
13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 벽화	1769	498.0×447.0	견본채색	有誠

○ 기 타

소장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7년 광진경찰서의 도난문화재 수사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던 권모 관장의 담보물이 서울옥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은 서울옥션과 유출문화재(聖寶) 인수 관련 협의를 진행함
- 그러나 형사소송에 의한 도난문화재 소유권 환부가 어려워짐에 따라 서울옥션이 보유한 도난 정보는 무상 기증하기로 하고, 그 외 권모 관장의 담보물에 대해서는 유상기증 계약을 2017년 9월 20일 체결함
- 대한불교 조계종은 사찰을 알 수 없는 문화재(聖寶)는 봉안할 수 있는 사찰에 이운하기로 함. 단 향후 봉안처가가 확인되면 원봉안처로 이안하기로 함
-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기장 고불사의 요청으로 2017년 11월 16일 종단에 성보 환수 기금을 약정하고 2020년 2월 4일에 기장 고불사로 본 불화를 이안함



## ○ 현 상

건륭 원년(1736)에 제작된 영산회상도 불화인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화면을 비단 바탕에 세로 170.5cm, 가로 227.0cm 크기로 네 폭(향좌→향우측: 22.3+62.5+63+54.4cm)의 얇고 고운 비단을 이어서 제작하였다. 그러나 화면은 변아 부분에서 잘려져서 전체 상황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 화면 양 끝에 하늘색으로 채색하여 최근에 칠한 듯 경계를 표시하였다. 화면 아래 바닥에 2곳에 나뉘어 적은 화기에는 1735년 영산회로 조성하여 법당에 봉안되었다고 기록하였는데, 봉안사찰을 적은 부분은 직물을 부착하여 원 봉안처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와 도상, 그리고 색은 원형을 확인할 수 있지만, 화면은 안료 박락과 들뜸 현상이 매우 심각하며, 표면은 경화가 매우 심하여 펼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현재 등글게 말아서 보관함에 넣어져 있다.

## ○ 내용 및 특징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불이 영축산에서 범화경을 설하신 장면을 그린 회화이다. 본존 석가모니불은 오른손을 아래로 내린 항마촉지인을 하고 두광이 없이 하나의 커다란 주형 광배(舟形光背)를 갖추고 편단우견(偏袒右肩)의 붉은색 대의를 입고 높은 방형 불단 대좌 위 연화좌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본존 머리 위 동그란 정상계주 위에서 뻗어나간 서운(瑞雲)은 화면 위에서 양 갈래로 뻗어나가고, 대좌 아래 화면 바닥에 화기를 적어 화면이 본존을 중앙에 둔 구도로 정확히 양분되어 있다. 하단의 협시보살인 연꽃 가지를 든 보현보살과 여의(如意)를 든 문수보살은 투명한 두광을 갖추고 마주 보며 화면 아래에 크게 강조되어 그려졌다. 그 뒤로 석장(錫杖)을 든 지장보살 등 6보살이 각각 3구씩 배치되어 8대보살을 표현하였다. 화면 위로 제자상과 분신불, 용왕·용녀, 사자와 코끼리 탈을 쓴 천룡팔부중이 자리하였다. 그리고 화면 아래 2구씩 배치된 사천왕은 향우측은 비파와 칼, 향좌측은 용·여의주, 탑을 각각 들고 있다. 이 구도는 석가모니 본존을 중심으로 권속들이 좌우대칭을 이루면서 에워싼 조선 후기 전형적인 군도 형식이다.

색채는 붉은색과 녹색을 중심 색으로 사용하면서 황색, 청색, 금니를 적절히 배치하여 힘찬 붓질과 함께 안정감이 있는 색감을 보여준다. 사천왕상은 섬세한 장식 문양과 함께 기물에는 금박을 사용하여 장엄하였다.





<그림 1> 본존과 협시보살 부분



<그림 2> 비단 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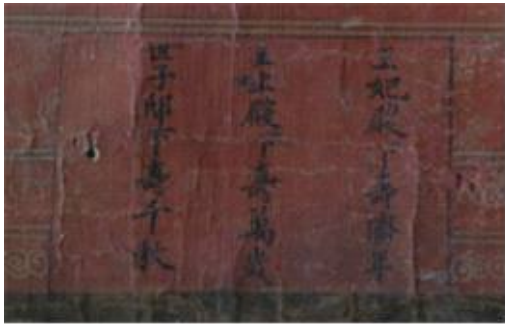
<그림 3> 향 좌측 사천왕상 부분



<그림 4> 향 우측 사천왕상 부분

석가모니의 방형 대좌 가운데에 네모 칸을 두어 묵서로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왼쪽에 ‘왕비전하수제년(王妃殿下壽濟年)’, 오른쪽에 세자저하수천추(世子低下壽千秋)’라는 삼전하 축원문을 적었다.

불화 시주발원 및 제작과 관련된 화기는 보통 화면 변아 부분과 겹쳐서 기록되는데 이 불화는 화면 아래 바닥 면에 방제 칸을 마련하여 두 곳에 기록하였다. 중앙부에는 조성연대와 봉안처, 사중 승려를 중앙 화기란에 적고, 향좌측 화기는 일반인 시주자를 기록하였다. 건륭 원년(1735)에 영산회(靈山會)로 조성되어 법당에 봉안되었는데, 봉안처 기록 부분은 화면에 천을 덧대어 가려놓아서 원래의 봉안처를 확인할 수 없다. 시주는 바탕 대시주 수□(守□)을 비롯하여 30명의 승려가 참여하였고, 일반인 시주는 鄭守海 부부 등 9쌍의 부부가 참여하였다. 그런데 불화 화기에 보통 증명·송주·화승 등 여러 소임을 적은 연화질(緣化秩)이 기록되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인물은 확인할 수 없다.



<그림 5> 화기-불단 삼전하 축원문



<그림 6> 화기-향좌측



<그림 7> 화기-중앙부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를 비롯한 권속들의 둥근 얼굴에 작은 이목구비와 날씬한 신체 비례, 그리고 여러 장식 문양 등에서 18세기 전반 경상도 지역의 영산회상도에서 보이는 차분한 색감으로 표현된 안정된 화면 구도와 같은 화풍을 보여준다. 이러한 화풍은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1686년), 대구 <과계사 원통전 영산회상도>(1707년), 영천 <법림사 영산회상도>(1724년), <불영사 영산회상도>(1733년),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1749년) 등 경상도 지역에서 17세

기 말부터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팔공산 동화사·과계사, 상주 용흥사, 청송 대전사 등에서 활동한 화파의 화풍과 도상적으로 연계되었다.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1688년, 그림 8)는 화기를 통해 수화승 해웅(海雄), 의균(義均), 호선(顯瑄), 상명비구(尙明比丘) 등이 참여하여 제작한 불화이다. 수화승 해웅의 작품이 이 작품만 전하지만, 본존의 주형 광배와 화면 상단으로 뻗어가는 서운, 권속의 배치 형식 등은 이후 팔공산 화풍을 이끈 의균 화파로 연계된다. 대구 <과계사 영산회상도>(1707년, 그림 9)은 의균이 성익(性益), 체환(體環) 등 5명의 화원과 그린 것으로 당시 13세의 연잉군(延昞君, 후일 영조)이 시주하여 제작한 왕실 발원 불화이다.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권속이 에워싼 군도 형식으로 이 지역의 화풍에 충실하지만,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의 많은 권속보다 권속의 수가 간소화되었고, 석가모니불의 착의가 통견의를 하고 있지만, 주형 광배와 넓은 방형 대좌, 화면 아래 협시보살을 크게 강조한 형식은 <고불사 영산회상도>의 구성과 비슷하다.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1724년, 그림 10)는 보현산(普賢山) 법화사(法華寺)에 봉안하기 위하여 1724년에 팔공산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의균의 제자인 쾌민(快旻)과 체준(體俊) 등이 제작한 불화이다. 이 불화는 중앙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많은 권속이 가득 둘러싼 군도 형식으로 8대보살 대신 10대보살을 배치하였다. 방형 불단 대좌와 연화좌 위에 주형 광배를 한 편단우견의 착의를 하고 향마촉지인을 한 형식은 울진 <불영사 영산회상도>(1733년) 등 경상도 지역의 영산회상도에서 볼 수 있는 도상 특징이다.



<그림 8>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1686년



<그림 9>

대구 과계사 영산회상도, 1707년



<그림 10>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1724년

## ○ 문헌자료

### <화기-불단 삼전하(三殿下) 축원문>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濟年  
世子低下壽千秋

### <화기-중앙부>

乾隆元年丙辰四月日靈山」會幘安于□□□□□□□」□□□法堂」婆蕩大施主比丘  
守□」供養同暢施主水」比丘碩藏 印巳」比丘尙堅 爾還」比丘哲玄 弘信」比丘竺安  
德澄」比丘彩元 灵信居士」比丘順旻 海悅」比丘廣湜 □演」比丘義甘 竣益」比丘  
(再)閑 □清」比丘呂清 □應」比丘斗玄 德清」比丘儀湖」比丘元贊」比丘太軒」比  
丘信淳」比丘快悅」比丘最閑」比丘竺淡」比丘戒初」

### <화기-향좌측>

大施主秩」鄭守海兩主」李守英兩主」鄭普業兩主」池甘發兩主」張貴發兩主」李(夢)  
致兩主」朴近印兩主」鄭進業兩主」金守侃兩主」

### ○ 참고문헌

- 이용윤, 「화승 의군의 불화 조성과 사명문중의 불사」, 『불교미술사학』 28, 불  
교미술사학회, 2019.

### ○ 기 타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환수하여 고불사에 소장된 불  
화이다. 고불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있는 조계종 사찰이다. 건  
립연대는 1982년으로 역사가 짧지만, 보물 『예념미타도량참법』(권1-5, 1474년), 부  
산광역시 유형문화재인 <목조여래좌상>(17세기 후반), 『묘법연화경』(1493년), 부  
산광역시 문화재자료인 「권수정혜결사문」(1608년)을 소장, 관리하고 있다.

## 11. 파주 보광사 동종 (坡州 普光寺 銅鍾)

### 가. 검토사항

‘파주 보광사 동종’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파주 보광사 동종’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11.3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4.1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1995.8.7. 지정)
- 명 칭 : 파주 보광사 동종(坡州 普光寺 銅鍾)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474번길 87, 보광사
- 수 량 : 1구
- 규 격 : 전체 높이 94.9cm, 입지름 64.1cm
- 재 질 : 청동
- 형 식 : 쌍룡의 종뉴를 가진 동종(불교의식구)
- 조성연대 : 1634년(인조 12)
- 제작자 : 천보(天寶),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파주 보광사 동종>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파주 보광사 동종은 1634년(인조 12) 7월에 현재의 봉안 사찰인 고령산(高嶺山) 보광사에 사용하기 위해 청동 300근을 사용하여 조성하였다고 하여 조성연대가 명확하게 밝혀진 점, 17세기 전반 승장(僧匠)의 선도적 역할을 한 설봉(雪峯) 천보(天寶)가 조성한 현존하는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 기문(記文) 형식의 주성기(鑄成記)로 정확한 제작연대가 밝혀져 있고, 제작 목적이 확인되는 점, 봉안사찰이나 발원자 및 후원자 및 제작 장인 등이 명문으로 기록된 점에서 불교공예사나 조선 후기 주종장의 계보 및 활동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보광사 동종은 고려말 연복사 종의 형식을 계승한 조선 초기의 종을 이어 받으면서 재래식 범종 형식과 외래적인 중국식 띠장식을 절충 혼합하여 토착화시킨 17세기 종의 양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학술적 가치 또한 지니고 있다.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설봉 천보의 범종은 15세기에 왕실 발원 종의 영향을 받은 1595년 양천목(梁天目)이 제작한 금사사 종의 영향을 받아 이후에 독자적으로 발전한 주종장으로서 그가 제작한 범종들은 이전의 형식과 양식을 기반으로 하되 이전의 제한적이고 일관된 경향과 달리 발전적인 기술력과 창작적인 문양과 장식 및 차별화된 도상을 제작한 것으로 평가되어 예술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천보가

제작한 4기의 범종 중 1634년 보광사 동종은 가장 마지막 시기에 제작한 종이면서 종뉴에는 오고저(五鈷杵)와 ‘王’자형 오조룡의 쌍룡을 배치하고, 종신의 하대에 오조룡문과 수파문 등의 표현은 조형적 가치가 우수하다. 특히 설봉 천보는 동일한 진언이라도 란차문자라는 새로운 범자체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란차문자 범자의 사용은 고려시대 1346년 원나라 장인이 제작한 연복사 범종에서 확인되는데, 우리 조선에서 활동한 주종장 중 란차문자 범자를 구성에 맞게 처음으로 배치하여 사용한 1634년 <보광사 동종>은 설봉 천보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사례로 여겨진다.

이처럼 1634년 설봉 천보가 제작한 보광사 동종은 역사적, 학술적, 공예사적, 조형 예술적 가치 뿐 아니라 독창적인 면에서도 탁월하여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1995년)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과주 보광사 동종>은 종뉴와 종신이 완형을 갖추고 있으며, 종신의 문양과 명문의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전체적인 외형은 안정감이 있고 종뉴의 조각 솜씨는 우수하며, 종신의 장식도 섬세한 표현이 돋보인다. 또한 명문을 통해, 동종의 제작연대와 목적, 봉안 지역과 사찰, 발원자와 후원자, 장인과 재료 등에 관한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승장 천보의 기록은 17세기 동종의 제작과 장인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가 남긴 동종은 보광사 동종을 포함하여 모두 5점이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가평 현등사 동종>과 <거창 고건사 동종>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천보가 제작한 동종은 대체로 음통이 없는 쌍룡의 종뉴를 갖추고 종신은 가운데 세 줄의 횡선을 둘러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였는데, 이는 외래형 범종의 특징으로 조선 후기 승장의 동종 제작과 계통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보광사 동종은 천보의 말년 작품으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 그리고 17세기 후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과주 보광사 동종>은 1634년의 제작 시기, 조성 당시에 봉안된 사찰인 보광사의 유보로 전하는 점, 승장 천보의 작품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7세기 전반, 전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행된 사찰의 증건과 재건, 승장의 계보와 활약, 금속공예 기술의 수준과 특징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동종은 한국 전통 종 양식과 중국 종 양식이 절충된 양식으로 천보가 이보다 앞서 만든 동종 양식을 잘 계승 발전시키고 있어, 전체적으로 중복에 새겨진 문양

의 배치와 표현이 세련되고 조화로우며 종의 형태도 매우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중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에 현존하는 천보의 모든 종들이 어깨 부분과 그 이하 부분을 철붙의 제작방식과 같은 틀을 이어 붙여 주물하는 분할 구조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도, 천보의 제작기법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동종 제작기법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더불어 종의 배 부분에 반듯한 해서체로 적은 주종기를 통해, 당시 종을 만들게 된 배경과 과정, 주관자와 참여자, 제작자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 종은 천보가 제작한 동종 중 가장 늦은 시기의 작이다. 그러나 1595년 금사사 동종을 시작으로 해서, 1619년 가평 현등사 동종, 1630년 거창 고견사 동종, 1633년 안변 석왕사 동종, 1634년 파주 보광사 동종에 이르기까지의 천보 동종의 변천과 제작태도, 동종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연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역사적 의미가 크다. 더욱이 앞선 시기의 동종에서는 설봉 천보가 직접 주종장으로서 제작에 참여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다소 부족한데 반해, 이 종에서는 ‘鑄成畵大匠彌智山雪峯子 天寶(도장까지 새겨 넣음)’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 그가 종의 문양 도안뿐만 아니라 주성까지 주도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보다 앞서 제작한 천보 동종 역시 그가 제작을 주도했음을 이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이 종은 조선 후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종의 양식과 달리 봉선사 동종(1469년)이나 흥천사명 동종, 해인사 동종(1491년) 등 조선 전반기 동종 양식을 강하게 계승하고 있다. 이는 천보의 활동지역이 봉선사를 포함하는 지역이고, 그가 1619년 가평 현등사 동종(원 봉선사 동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1469년에 제작된 봉선사 동종을 범본 삼아 그의 동종 양식을 추구했을 것으로 추정케 한다. 한편 천보의 동종 양식은 1644년 담양 용흥사 동종을 제작한 김용암, 1698년 고흥 능가사 동종을 제작한 김애립 등 17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私匠의 동종 제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17세기 한국 주종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동종이다.

특히 사인비구 동종 8점이 전체가 일괄로 보물로 지정되어 한 주종장의 작품이 통합적으로 보존관리가 되고 있다. 비록 사인비구의 종에 비해 그 수가 적으나, 천보는 사인비구보다 앞서 활동한 경우를 비롯한 사인비구의 주종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선배 주종장일 뿐만 아니라, 그의 종 양식이 조선 전기 동종양식을 강하게 풍기면서도 17세기 새로운 시대 미감도 가미하여 동종 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동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설봉(雪峯) 천보(天寶)가 제작한 <파주 보광사 동종(1634년)>은 원 봉안처를 떠나



이운(利運)의 역사가 많은 다른 범종들과 달리 최초 봉안처에서 온전히 그 기능을 수행하며 잘 보존된 보기 드문 범종이다. 양식사 측면에서는 중국종의 형식을 수용하는 동시에 우리 고유의 미감을 반영하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조선 전기(15~16세기) 범종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특히 그 제작 시기와 천보의 활동기간을 통해 조선 전기와 후기의 접점으로 과도기적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 예술적 성취도 또한 17세기 대표 범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수한 작품이다. 그것은 천보가 제작한 범종으로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현등사종(1619년)>, <고건사종(1630년)>과의 비교 분석에서도 잘 드러난다. 상부 천판과 용뉴의 안정적인 결합, 섬세한 세부 조각 수법, 종신 문양의 적절한 양감과 구성이 기존의 종들에 비해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문양의 상징성을 극대화한 면모 역시 탁월한데 그것은 보살신앙과 직결되는 대표 진언(眞言)을 보살상과 함께 표현한 것에서 충분히 전해진다. 또한 수호의 상징인 용이라는 소재를 다른 범종들에 비해 문양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에서도 이 범종에 담긴 염원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다양한 범종의 세부 장엄 요소들이 전체 종신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복잡함보다는 안정감 있는 범종의 전체 미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파주 보광사 동종>의 예술성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필체가 훌륭한 장문(長文)의 명문(銘文)과 기운생동 하는 용들의 표현은 15세기 왕실 발원의 수준 높은 범종들의 양상과 가깝게 여겨질 만큼 역사적 자료의 가치와 작품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파주 보광사 동종>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주종장인 설봉천보가 장인으로서 완숙의 단계에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기존의 작품들에 비해 그 탁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가치들을 종합해 볼 때 2012년 이미 보물로 지정된 천보의 두 범종의 사례처럼 그 일관된 가치 기준과 의미에 있어 <파주 보광사 동종>은 절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보다 더 우수한 작품이기 때문에 신속히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

○ 현 상



<보광사 동종>



<보광사 동종 정면 실측 치수>

과주 보광사 동종은 1634년(인조 12) 7월 승장 설봉(雪峰) 천보(天寶)가 여러 승장(僧匠)과 함께 조성한 높이 94.9cm, 지름 64.1cm의 비교적 큰 작품이다. 이 범종은 위쪽에 쌍룡의 종뉴가 역동적으로 환조되어 있고, 종신에 굵은 황선으로 문양대를 구획하고 물결문[水波文]이나 구름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용문(龍文)을 표현하고 있으며, 1,300여 자의 긴 명문(銘文)을 돌을새김[陽刻]으로 새기고 있다. 이 범종의 제작기법은 조선시대에 종신과 별도로 천판과 용뉴를 주조하여 종신에 부착하는 특징이 반영되었고, 주물을 마치고 연판문대의 결함이 발견되어 다시 주조하였지만, 범종의 전체적인 형태나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주조기술로 문양을 처리하는 등 우리나라 범종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무엇보다도 이 동종을 주목하는 이유는 종신 중앙을 가득 채워 주성기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조성연대와 보광사

라는 소장처가 밝혀져 있고 조성목적은 새겼으며 발원자와 제작 승장 등이 정확하고 여기에 제작자의 인장까지 확실하게 양각하여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파주 보광사 범종은 전체적인 형태나 문양을 뛰어난 기술과 완숙한 솜씨로 제작하여 조형적으로도 탁월하다.



<보광사 동종 우측면도 실측>

<보광사 동종 배면 실측>



<보광사 동종 평면도 실측>



<보광사 동종 안쪽면 실측>

## ○ 내용 및 특징

### 1. 보광사의 입지적 환경

파주 보광사(普光寺)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고령산에 위치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奉先寺)의 말사이다. 894년 도선국사(道詵國師)가 국가 비보사찰로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창건 이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소략한 편이다.

조선시대에 중창된 보광사의 존재는 대웅보전에 소장되어 있는 1634년 승정칠년명 범종에 새겨져 있는 명문으로 확인된다. 명문에 의하면 보광사는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을 1602년(광해군 14)에 해서(海西)의 승려 설미(雪眉)가 법당을 세우고, 호서(湖西)의 승려 덕인(德仁)이 승당을 세워 사방에서 훌륭한 선사들이 사찰로 운집하였다 한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 이후 보광사가 17세기에 중창되었고, 1667년(현종 8)에는 지간(智侃)과 석련(釋蓮)이 중수하였다.

특히 보광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는 조선 후기 영조대부터이다. 1740년(영조 16) 영조가 자신의 사친인 숙빈 최씨(1670~1718)의 능원인 소령원을 영건하였는데, 이때 보광사가 소령원을 수호하는 원찰로서, 경기도의 사찰 중 왕실 능원 원찰 7곳 중 하나로 기록되면서부터이다. 이때 대웅보전과 광응전(光膺殿), 만세루를 중수하였다. 이후 영조는 1753년 보광사와 관련된 시문을 57절 20수를 지었고, 1759년(영조 35) 3월에는 교서를 내려 ‘보광사는 능원의 수호사찰이며 일찍이 머물러 왔던 곳’이라고 공표하여 국왕 영조가 능행 시 들렀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당시 보광사는 공릉·순릉·영릉의 ‘조포사(造泡寺)’이자, 서삼릉의 ‘능사(陵寺)’로, 소령원의 불사(佛寺)로 기록되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왕릉의 능원사찰로

가능하면서 왕실의 대대적인 후원 아래 관리되고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보광사 경내에는 어실각(御室閣) 즉 왕친(王親)의 위패를 모신 전각이 존재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한다. 이렇듯 영조대 왕실원당이자 주요 사찰로 자리 잡은 보광사는 이후에도 국왕의 행행 시 찾게 되면서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사세를 유지하며 전각의 중창 등이 이뤄졌다.



<과주 보광사 대응보전>

1863년(철종 14)에는 쌍세전(雙世殿), 즉 지금의 명부전과 나한전(羅漢殿), 즉 지금의 응진전, 큰방 만세루·수구암(守口庵)을 건립하고 지장보살과 시왕상(十王像)·석가모니불·약사여래불·아미타삼존불과 미륵보살과 대세지보살상·16나한상 등을 조성하였다. 이후 대원군과 고종과 민비 등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으며 사세를 유지 발전하게 되었다. 1869년(고종 6)에는 만세루를 중수하였는데 1998년 만세루 해체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당시 세도가인 안동김씨 일가 즉, 김병학·김병국·김병기 등이 주요 시주자로 참여하여 왕대비 조씨의 수복과 흥선대원군 이하응,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의 안녕을 기원하며 만세루를 중수한 것이 확인되었다. 1884년(고종 21)에는 관음전과 별당을 지었고, 1893년에는 산신각을 신축하였다. 1896년 상궁 천씨가 중수 불사에 뜻을 두어 인파 영현(仁坡英玄)이 1897년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898년에는 순빈 엄씨와 상궁 홍씨의 시주로 단청불사도 행하여 영산회상도를 비롯하여 삼장보살도, 현왕도, 칠성도, 독성도, 감로도 등 6점의 불화가 조성 봉안되었다.



<과주 보광사 만세루, 1869년>

## 2. 주성기(鑄成記)에 의한 명문 분석

보광사 범종의 주성기는 종신의 중앙 하단부의 띠장식대 밑에 넓게 새겨져 있다.



<과주 보광사 동종의 명문대>

조선 양주땅 고령산 보광사에서 새롭게 주조한 보배로운 종에 새기는 글

듣기에 이 절은 고려 때 도선국사가 국가의 비보로 경영하기 위해 세웠다고 하나, 조선에 들어와 만력 년(1592) 임진병화로 모두 전소되어 사슴의 놀이터가 된 지가 오래이다. 만력 30년 임인(1602)에 해서의 스님 설미와 호서의 스님 덕인이 이 터에 처음으로 들어와 보고 이름난 사찰이 언덕이 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음을 탄식하였다. 설미가 법당을 세우고 덕인은 승당을 세우니 비로소 사방의 훌륭한 선사들이 운집하였다. 온갖 물건들이 한꺼번에 전과 다름없이 갖추어졌으나 종 하나가 빠져 덕인 스님의 애석함은 끝이 없었다. 승정 신미(1631)에 종을 만들려고 노스님 도원을 추대하여 3년 만에 간신히 청동 80근을 모았지만 종을 만들어 사찰에 바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금의 화주 신관은 해서의 승려로 계유(1633) 7월에 도원을 이어 자리에 올랐는데 이는 수승인 학잠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이때 절에 승려 20여 명이 모두 힘을 써 도왔다. 별좌인 지십은 덕인의 제자로 덕인의 염원을 받아 정성을 다하였고 싫어하는 내색이 없었다. 아, 이 사람의 정성으로 이 절에서 만들어져 종에 글을 새길 수 있게 되었다. 옆어져 있는 종은 금속, 돌, 실, 대나무, 바가지, 흙, 가죽, 나무 등 8가지 종류의 소리가 아니다. 크게 치면 그 소리가 크고 작게 치면 그 소리가 작으며 귀신을 경계할 수 있다. 내게 씻물을 붓기를 청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글을 짓는다.

----중간 생략-----

승정칠년월 일 무게 300여 근으로 종을 만들다.

동참질 대공덕주 신은복 양주 이금련 양주 유언홍 신천립 박춘무 원현  
본사조연질 언기 천옥 영옥 덕인 학잠 단식 영호 옥규 쌍일 계육 인전 응성  
설암 신종 선잠 윤명 유혜 초영 유헌 진기 범후 묘정 학정 홍신 신영 범휘 가  
문 학민 지건  
동참질 이장수 여청비 여동령 엄어둔 양용 임종희 윤돌금 박동석 김해룡 김균  
남 김신남 오돌시 박태복  
연화질 경섬 주성비대장미지산설봉자 천보 조역 상륜 선잠 경립  
별좌 지십  
공양주 치경 간선권  
화주 비구신관 평보거사 지인길 조단손 의열 신호 묘신 유석 경학 일주 일환  
법정 응성 성현

명문에 의하면, 보광사는 고려 때 도선국사의 비보사찰(裨補寺刹)이었는데, 임진왜란으로 황폐화되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1602년 해서의 승려[海西僧] 설미(雪眉)와 호서의 승려[湖西僧] 덕인(德仁)이 사찰 회복의 원을 세웠고 이후 사방에서 운집한 현사들과 힘을 합해 대웅전과 승당을 중창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명문에 의하여 이 동종은 승정 7년 갑술(1634) 7월일에 무게 300근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동원된 승려로는 해서의 승려 신관(信寬)이 화주가 되고 주성장인으로는 설봉자(雪峯子) 천보(天寶)와 함께 조역승려로서 상륜(尙倫), 선잠(善岑) 및 경립(敬立)이 함께 제작하여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명문과 함께 마지막에 ‘鑄成圖大匠彌智山雪峯子’라는 명문과 함께 ‘天寶’라는 인장이 양각되어 있다.

그동안 여러 범종 중 승장 천보가 관여한 범종은 명문에 의하면 총 5기가 밝혀졌지만 1점은 망실되었고, 현존하는 것은 4점이다.

<표1. 천보 제작 범종 현황>

연번	범종명	제작연도	명문 장인	원봉안처		현봉안처
				지역	사찰	
1	금사사명 범종	1595년	彌智山雪峯沙門天寶謹撰書…鐵匠 全南靈巖 梁天目	황해도 장연	금사사	평양 조선중앙력사 박물관
2	봉선사명 범종	1619년	天寶謹作書刻…緣化比丘 玄玉 正會 大元 瑩仁	경기도 양주	현등사	경기도 가평 현등사
3	견암사명 범종	1630년	彌智山雪峯沙門天寶述…圖匠彌智山雪峯 沙門天寶 助役 緇竹 得男 得一	경상도 거창	견암사	경상도 거창 고견사
4	석왕사명 범종	1633년	釋 天寶 崇禎六年八月 十七日造	함경도 안변	석왕사	망실
5	보광사명 범종	1634년	鑄成圖大匠彌智山雪峯子 助役 尙倫 善岑 敬立	경기도 양주	보광사	경기도 파주 보광사



<금사사명 범종, 1595년>



<봉선사명 범종, 1619년>



<견암사명 범종, 1630년>



<안변 석왕사 범종, 1633년, 유리건판2626>

이처럼 설봉천보는 1595년부터 1634년까지 현존하는 4기의 범종을 제작했다.



첫 번째 것은 1595년 주물장 양천목이 제작한 금사사 동종이다. 이 종의 명문에 의하면 “有大明朝鮮國黃海道長淵 地洛迦山金沙寺重鑄寶金 鍾名并序 彌智山雪峰沙門天寶”라고 쓰여 있다. 이를 통해 양천목이 제작하고, 종의 찬문[謹撰書]을 천보가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범종은 북한의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두 번째 것은 1619년 봉선사명 범종이다. 이 범종의 명문에 의해 “化主天寶謹作”이라고 적혀 있어 화주가 천보였으며 그와 함께 찬문까지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종은 현재 경기도 가평의 현등사에 소장되어 있다.

세 번째 것은 1630년 견암사의 범종이다. 이 범종의 명문에 의해 “有大明朝鮮國居昌縣牛頭山見岩寺新鑄寶 金鍾銘并序...彌智山雪峯沙門天寶述緣化秩 尙大匠彌智山雪峯沙門天寶”라고 적혀있다. 이를 통해 천보는 찬문을 지었음 뿐 아니라 대장의 우두머리[도대장]로서 범종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고 여겨진다.

네 번째 것은 1634년 과주 보광사의 범종이다. 이 범종의 명문에 의해 “緣化秩敬遲 鑄成尙大匠彌智山雪峯子”라고 양각되어 있어 천보가 직접 제작했음을 알려준다.



더욱이 설봉사 천보가 만든 범종 중 북한에 소장된 1점과 망실된 1점을 제외하고 거창 고견사 범종과 가평 현등사 유물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비해 과주 보광사의 것은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과주 보광사 범종이 비록 설봉 천보의 유물 중 1634년으로 조성 시기가 늦기는 했지만 이것보다 시기가 내려가는 1641년 하동 쌍계사 범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주 보광사

범종 또한 지정가치에 대해 재고가 요구된다.

### 3. 범종의 형식

보광사 동종은 한국종의 특징인 음통이 없고 종뉴에는 중국종의 특징인 쌍룡이 배치되어 있는 조선 후기의 절충형 범종이다. 꼭대기 부분[鍾頂部]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벌어지는 포탄형 종신이 연결되어 있다. 보광사 동종은 종신의 외형선이 불룩하고 꼭대기부터 치마 옆처럼 흘러내려 오다가 중복(鍾腹)에 이르러서 구연부를 향해 다소 벌어지며 하강하는 선형을 보인다.



<금사사명 범종, 북한, 1595년>



<거창 고건사 범종, 1619년>



<파주 보광사 동종, 1634년>

#### 3-1) 종뉴: 오조룡의 쌍룡 용뉴

보광사 동종은 1619년 가평 현등사 범종이나 1630년 거창 고건사 동종과 동일한 형식과 양식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그중 불룩이 솟아오른 천판 위에 하나의 몸체로 이어져 머리를 반대로 돌린 쌍룡의 종뉴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용뉴에 배치된 꼬리를 맞댄 쌍룡은 역동적이고 환미감이 풍부하며 세부 묘사가 생동감이 넘친다. 쌍룡의 얼굴은 용맹한 모습이 잘 형상화하여 눈코입의 세부 하나하나까지 허술함 없이 조각하여 기운을 전달해주고 있다.



<파주 보광사 동종의 쌍룡 용뉴>

쌍룡의 크고 부리부리한 눈은 한올 한올 아래를 향해 덮은 눈썹까지 제각각 묘사하여 힘을 느낄 수 있고, 통방울 같은 코에는 그 좌우에 수염까지 기가 느껴지고, 아래쪽 입에는 상하 양 이빨을 앙다물어 뾰족한 철물을 물고 있는 표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다. 얼굴의 좌우로는 귀가 쫓긋하고 이마에는 ‘王’자가 선명하게 음각되어 있으며 2개의 뿔이 V자 형으로 위로 강인하게 솟구친 모습이다. 쌍룡은 몸체를 용트림하여 꼬여 있으며 얼굴 좌우로는 몸체에서 뻗어 나온 근육질의 발에 있는 발가락 5개는 발톱 끝까지 온 힘껏 기를 모으면 크기도 매우 커 힘껏 종을 움켜쥐어 용이 가진 강력한 힘을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다.



건암사명 고견사종, 1630년



보광사종, 1634년

<용뉴 비교>



견암사명 고견사중, 1630년



보광사중, 1634년

<용머리에 새겨진 王자 비교>

용트림하는 쌍룡은 서로의 몸체를 휘감아 올라가며 여의주를 감싸고 있다. 쌍룡의 용트림치는 몸체의 중간 부분에는 공간을 마련하여 범종을 걸 수 있게 만들었다. 여의주를 다투는 쌍룡은 중앙의 가장 꼭대기 부분에는 금강(金剛) 형상을 모은 오고저(五鈷杵)를 배치하고 있다. 쌍룡의 발 사이에는 주조 시 용탕의 주입구인 약간 도드라진 원형이 남아 있다.



견암사명 고견사중, 1630년



보광사중, 1634년

<오고저 비교>

이렇게 쌍룡은 발톱이 다섯 개인 오조룡(五爪龍)은 조선 왕실에서는 국왕을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국왕에만 해당되는 문양인데, 불교 법왕의 상징성에 걸맞은 표

현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종뉴의 쌍룡 표현이나 세부 묘사 및 조각적 솜씨가 매우 탁월하다.

### 3-2) 종신의 형식과 세부 문양

보광사 범종의 쌍룡 종류 아래 복련대 일부에는 주성 시 형틀이 흔들린 흔적과 함께 상하 형틀의 분리선이 남아 있어 당시의 주조방법을 시사해준다.

범종의 종신 외형선은 불룩하고 꼭대기부터 치마 옆처럼 흘러내려 오다가 종복(鍾腹)에 이르러서 구연부를 향해 다소 벌어지며 하강하는 선형을 보인다. 종신은 몸체 중단에 둘러진 세 줄의 굵은 횡선을 기준으로 상하단으로 구분된다.



<과주 보광사 동종 용뉴 천관 아래 복연관> <과주 보광사 동종 상대의 연곽대와 진언, 불보살상>

구획된 상단에는 중앙에 연꽃 줄기와 봉우리가 길쭉하게 표현된 넓은 연판문, 내부에는 만개한 연꽃좌 중앙에 작은 돌기가 표현된 9개씩의 연뢰를 도톰하게 부조하였다. 연곽대에는 연화당초문, 당초문을 배치한 사다리꼴 연곽, 다양한 형태의 합장형 불보살상, 실담문자로 표기한 ‘과지옥진언’, ‘육자대명왕진언’ 범자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장식문양을 배치하고 있다. 하단에는 상단에 비해 비교적 간략한 구성이지만, 동종의 제작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기재된 주종기를 비롯하여, 수과문, 운룡문, 연화당초문 등을 장식하고 있다.



<과주 보광사 동종 상대의 사다리꼴 연곽대와 범자, ‘과지옥진언’, ‘육자대명왕진언’ 불보살상>

<과주 보광사 동종의 사다리꼴 유곽의 실측 치수>



<과주 보광사 동종의 보살상 실측 치수>

### 3-3) 상단의 범자와 진언 및 문양

쌍룡이 배치된 천관 아래쪽 복련관이 있고, 종신의 세 줄을 중심으로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된다. 상단에는 사다리꼴의 연곽대를 배치하였고, 그 안쪽에는 9개의 연꽃좌 위의 자그마한 연좌 꼭지, 연곽대에는 연화당초문과 당초문을 배치하였다. 연곽과 연곽의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보살상을 중심으로 범자와 실담문자로 표기한 ‘과지옥진언’, ‘육자대명왕진언’을 배치하고 있다. 4구의 보살입상은 원형 두광에 통견의 대의를 걸치고 합장한 모습으로 연화좌 위에 시립한 채 몸을 우측으로 돌린 자세이다.

설봉 천보가 발원한 범종에는 범종의 범자(梵字)가 새겨지는데, 양천목(梁天目)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15세기 왕실 발원 범종에 표현된 실담문자이다. 이러한 범자는 문양판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종신 자체에 고부조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양천목이 1595년 제작한 <금사사 범종>에는 지장보살이 표현되어 있고 육자대명

왕진언인 ‘반메흠’을 시문하였다. 이 점은 육자대명왕진언 신앙이 지장보살의 신앙을 포함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六字 眞言

<금사사 범종, 1595년>

六字 眞言

<견암사 범종, 1630년>

六字 眞言

<보광사 동종, 1634년>

1634년 제작한 보광사 동종은 1630년 견암사 범종의 범자와 위치 및 장방형의 한자진언문의 사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징적인 것은 <보광사 동종>의 연곽의 상부에 위치한 곳에 조선시대 범종 중 처음으로 란차문자 범문을 사용하여 우측 방향으로 육자대명왕진언이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란차문자는 데바나가리문자를 변형시킨 범자체로서 각문이나 서적의 표지 제목 등에 주로 쓰였으며 장식성이 강한 범자체이다. 란차문자 범자 아래에는 실담문자로 된 육자대명왕진언과 과지옥진언의 범자를 2~3자씩 배치하였다. 따라서 설봉 천보는 동일한 진언이라도 란차문자라는 새로운 범자체를 도입하였으며, 란차문자의 구성에 맞게 실담문자 범자를 그 아래에 배치하는 등의 독창성이 돋보인다. 곧 란차문자 범자의 사용은 고려시대 1346년 원나라 장인이 제작한 연복사범종에서 확인되는데, 우리 조선에서 활동한 주종장 중 란차문자 범자를 처음으로 사용한 주종장은 1634년 <보광사 동종>을 제작한 설봉 천보라고 할 수 있다.



<보광사 동종 하단부 정면>



<보광사 동종 하단부 우측면>



<보광사 동종 하단부 배면>



<보광사 동종 하단부 좌측면>

이처럼 범자는 현세구복 및 극락왕생에 대한 염원을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장엄 요소이다. 주종장이 명시된 조선 전기의 범종은 왕실의 진언신앙을 통해 왕실 내 승려가 진언을 독송하는 법회가 열거나 왕이 직접 진언법회를 열 때 범보로 생각 하는 인식에서 확인된다. 특히 17세기에 들어 승장 설봉 천보는 선이 유려한 실담 문자로 육자대명왕진언과 파지옥진언의 범자가 표현되는 공통양상이 보인다. 특히 천보는 왕실발원범종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표현 방식과 제작기법 및 실담문자 범자와 관차문자 범자를 사용하여 이후 그들만의 특징적인 한자진원문의 표현이 확인되어 전통성이 유지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에 배치한 주성과 관련된 銘文帶에 雲龍紋이 표현되었고 下帶에도 雲龍紋과 水波紋이 복합적으로 시문되었다. 이렇게 파주 보광사 범종은 이전까지 왕실 발원의 통제 속에서 새겨지던 형태나 문양에서 자유롭고 개성적인 표현으로 전개 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하단 주종기 아래의 문양을 보면 종신 몸체 중단에 둘러진 3줄의 굵은 횡 선을 기준으로 상하단으로 구분하였다.

종신 하단에는 간략한 구성이지만, 하대와 하대띠장식 사이의 공간에는 오조롱한 마리와 범종의 제작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주성내력을 알려주는 명문이 양각 되어 있다. 기재된 주종기가 배치되어 있고, 그 밖에 수파문(水波文)을 비롯하여,



운룡문, 연화당초문 등을 장식하고 있다. 용기선 횡대 아래의 하단부에는 유려한 모습의 운룡문이 고부조로 장식되었고, 이 운룡문으로 이루어진 문양판 사이로 긴 내용의 양각 명문을 새겼다. 아래 단에는 줄의 용기선을 두르고 하대처럼 표현된 종구의 윗부분에 파도문과 운룡문을 번갈아 가며 뺄뺄이 장식하였다.



<金沙寺鐘, 1595년, 총 높이 97.2cm,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



<奉先寺銘懸燈寺鐘, 1619년, 총 높이 77×59cm,  
보물, 경기 가평 현등사 소장>

### 3-4) 양식 비교

과주 보광사의 동종은 17세기 전반의 범종 가운데 중국종의 양식을 따른 것으로서, 이를 제작한 설봉 천보는 이 시기에 여러 점의 범종을 만든 것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설봉 천보가 주성한 범종 중 현존하는 것은 모두 4점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595년 황해도 장연 금사사 범종이고, 1619년 가평 현등사 범종, 1634년 거창 고견사 범종, 1634년 과주 보광사 승정칠년명 동종 등이다.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1595년 황해도 장연 금사사 범종은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주물공 양천목(梁天目)이 무게 200근으로 이 종을 만들 때 명문의 내용을 작성하는 찬술자로 참여하였다. 이 종은 높이 118cm로 비교적 아담하고 단정하며, 그 형태는 일정한 너비를 가지고 아래로 흘러내리며 아래쪽에서 벌어진 느낌이다. 종의 머리에는 용 두 마리가 용트림하는 모습인데

한 마리의 용머리는 파손되어 있다. 종의 상대에는 연꽃 무늬가 중대에는 보살상과 연꽃이, 하대에는 두 줄의 넝쿨무늬가 있다. 아직 북한에서는 이 유물이 국보나 준국보에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見岩寺銘古見寺鐘, 1630년, 총 높이 97.2cm, 보물, 거창 古見寺 소장>



<과주 보광사 범종, 1634년>

한편 천보는 1619년 <봉선사명 현등사 범종>을 제작하는 데에 화주로서 참여하였다. 봉선사는 효령대군의 농장에 있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천보는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명문에 ‘化主天寶謹作書刻’로 기록되어 있어 명문 작성에 활동하였고 그밖에 玄玉, 正會, 大元, 瑩仁이 동반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천보는 활동 범위를 경상도까지 넓혀 거창군 고견사까지 내려가 緇竹 및 得男과 함께 1630년 <見岩寺銘古見寺鐘>을 제작하였다.

1630년 거창 고견사 소장 범종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설봉 천보의 작품이다. 그는 ‘圖大匠彌智山雪峯沙門天寶’라는 명칭으로 緇竹, 得男, 得一과 함께 1630년에 古見寺鐘을 제작하였다. 雪峯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古見寺鐘으로서 검은 색조에 전체적인 외형은 한국 전통종 보다 중국종 계열을 따른 전형적인 작품이다. 불룩하게 원구형으로 솟아오른 천관 위로는 음통 없이 두 마리의 쌍용으로 구성된 용뉴와 그 바깥의 주위에는 사각으로 된 복판의 연화문을 上帶처럼 둥그렇게 시문하였다. 종 몸체 중단에 둘러진 3줄의 용기선 횡대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나누어 윗 단에는 위로부터 연판문대와 사다리꼴로 이루어진 연곽대, 범자문과 대좌 위에 앉은 佛坐像을 번갈아 가며 시문한 모습이다. 특히 불좌상 옆으로 위패

형의 범자문대를 두고 그 옆에 ‘六字光明眞言’과 ‘破地獄眞言’이란 문구를 도드라지게 새긴 것은 이후 조선 후기 범자 다라니의 선행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종신의 중단 아래로는 역시 3줄의 용기선을 둘러 3구로 구획하였는데 바로 아래에는 蓮唐草文帶를 둘러쌌다. 그리고 그 아래로 종신 전면을 돌아가며 긴 내용의 양각명이 새겨져 있으며, 이 명문구 아래로 다시 1줄의 용기선을 둘러고 鐘口에서 조금 떨어진 상부 쪽으로 파도문과 구름 속에서 꿈틀거리는 격동적인 모습의 용무늬를 번갈아가며 뺄뺄이 시문하였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중엽까지 활약한 설봉 천보가 주성한 범종은 중국종과 전통종의 형식이 혼합되는 혼합형 종의 널리 만들어지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형식적으로 볼 때 혼합형은 첫째 용뉴에 두 마리의 쌍룡으로 장식되고, 종신의 상부에는 상대 없이 梵字文이 둘러지는 예가 많다. 둘째 종신의 중단 쪽으로 내려와 연곽을 배치하고 이 안에 꽃 모양의 연봉오리[蓮蕾]를 장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당좌와 하대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기적으로 17세기 범종의 경우 종구 쪽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하대처럼 문양대를 장식한 예가 많고 18세기 범종은 옥천사종(1776), 신륵사종(1773)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대가 표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용뉴의 형태상 쌍룡을 지닌 선암사종(1700), 청계사종(1701), 명주사종(1704), 도림사종(1706), 옥천사 대웅전종(1708), 천은사종(1715) 등이 이 부류에 속하는 작품이다. 이 가운데 청계사종과 영국사종은 17세기에 제작된 선암사 대각암종(1657)과 능가사종(1698)의 용뉴처럼 정상 천개 위쪽 부분에 두 마리의 쌍룡이 서로 쟁취하는 독특한 모습을 갖춘 예이지만 앞 시기에 비해 그 수가 훨씬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양이나 종신 전체를 빠짐없이 장식하는 모습은 이미 고려 후기의 연복사종(1346)에서부터 보이던 중국종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지만 연판문, 중대의 보상화당초문, 하대의 파도문 등은 조선 전기 해인사 대적광전종(1491)의 문양을 계승하거나 약간 변형시킨 모습이다. 천보는 1634년 보광사종을 제작할 때 조역으로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등의 장인을 이끌고 제작한 점에서 17세기 전반의 승장 사회를 이끌었던 우두머리 장인이다.

무엇보다도 천보가 주성한 현존하는 4기의 범종 중 파주 보광사 범종이 가장 늦은 시기의 것이다. 설봉 천보가 제작한 범종에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쌍룡의 종뉴를 매우 크고 역동적으로 조각하며, 종신에 굵은 횡선을 이용하여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하고 그 내부 공간에 연화당초문, 사다리꼴의 연곽, 불보살입상과 함께 다양한 내용의 범자 그리고 수파나 구름 속에 생동감 넘치게 표현된 용문을 표현하며 긴 내용의 명문을 양각으로 새긴 것이 공통점이다.

이러한 1634년 보광사 범종의 외형적 특징은 조선 전기인 15세기에 제작된 동종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서 1469년 남양주 봉선사 범종, 1491년 해인사 범종 등에

서 그 선행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이후 1644년 담양 용흥사 동종, 1698년 고흥 능가사 동종 등 17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제작되는 종의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이 확인된다.

천보의 작품 가운데 1619년 가평 현등사 동종, 1630년 거창 고견사 동종 두 작품은 이미 국가에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파주 보광사 승정칠년명 동종은 크기 면에서도 고견사 종과 거의 유사하고 문양에서는 오히려 다른 종들보다 훨씬 고부조로 표현된 생동감이 느껴진다.

이처럼 1634년 보광사 동종은 한눈에도 조선 초기 범종양식을 따른 외래형의 종으로서 17세기 전반에 천보라는 뛰어난 승장이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초에 왕실에서 주성한 홍천사종이나 보신각종, 낙산사종, 봉선사종처럼 한국종의 특징인 음통 대신 중국종의 특징인 쌍룡의 종뉴와 종신에 띠장식대를 갖추고 있어 전형적인 외래유형에 속한다. 때문에 17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승장인 천보가 제작한 파주 보광사 동종을 비롯한 양식적 특징은 17세기 후반에 전라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장들인 김용암이 만든 담양 용흥사종이나 선암사종 및 김애립이 만든 고성 운흥사종이나 능가사종으로 계승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범종 연구의 자료적 가치 또한 매우 크다.

## ○ 문헌자료

### <坡州 普光寺 崇禎七年銘 銅鍾銘文>

有 大 明 朝 鮮 國 楊 州 地 高 嶺 山 普 / 光 寺 新 鑄 寶 鐘 銘 序 / 竊 聞 此 寺 高 麗 時 道 詵 國 師 爲 / 國 家  
 碑 補 營 刹 也 及 於 我 朝 大 / 明 萬 曆 二 十 年 壬 辰 兵 燹 蕩 盡 / 爲 摩 鹿 所 居 久 矣 越 三 十 年 壬 / 寅  
 海 西 僧 雪 眉 湖 西 僧 德 仁 始 / 入 茲 墟 吁 然 嘆 息 名 刹 之 爲 丘 / 墟 不 可 不 復 雪 眉 創 法 堂 德 仁 /  
 創 僧 堂 由 是 四 方 賢 師 雲 集 一 / 場 百 事 什 物 無 欠 前 美 而 唯 厥 一 / 鐘 仁 師 痛 念 無 已 崇 禎 辛 未  
 / 意 欲 成 鐘 勸 立 道 元 老 僧 三 / 年 僅 募 艱 得 八 十 斤 青 銅 成 / 之 不 果 獻 寺 以 退 今 化 主 信 寬 /  
 海 西 僧 也 癸 西 七 月 繼 道 元 而 / 立 乃 首 僧 學 岑 之 勸 也 時 寺 / 衆 二 十 員 等 皆 力 助 焉 別 座 /  
 智 什 仁 師 之 弟 子 也 德 仁 師 之 / 念 盡 誠 竭 力 無 厭 色 之 嗚 呼 / 斯 人 之 誠 茲 寺 之 成 可 銘 於 / 鐘 也  
 已 蓋 鐘 者 非 特 金 石 絲 / 竹 匏 土 草 木 八 音 之 類 也 擊 之 / 大 則 其 聲 大 擊 之 小 則 其 聲 / 小 亦 可  
 以 警 幽 鬼 也 請 余 鑄 鐘 / 不 獲 辭 而 銘 云 / 佛 之 尊 德 未 知 何 相 淨 清 寂 滅 / 利 他 爲 常 亦 有 慈 靈  
 所 願 皆 / 應 人 人 崇 佛 欲 得 福 命 毀 補 如 夢 / 達 惑 可 分 眉 仁 寬 輩 三 生 願 種 / 至 此 俱 欠 化 佛 道  
 融 神 與 渡 人 / 請 余 作 鐘 時 時 警 擊 滅 惡 善 / 崇 積 若 成 物 萬 歲 長 雄 / 崇 禎 七 年 甲 戌 七 月 日 鑄  
 重 三 百 / 餘 斤 / 同 參 秩 / 大 功 德 主 申 銀 福 兩 主 / 李 今 連 兩 主 劉 彥 弘 / 辛 天 立 朴 春 茂 元  
 賢 / 本 寺 助 緣 秩 / 彥 機 天 玉 靈 玉 德 仁 / 學 岑 丹 湜 英 湖 玉 圭 / 雙 一 戒 旭 印 全 應  
 成 雪 岩 / 信 宗 善 岑 允 明 惟 惠 / 楚 英 惟 洽 眞 機 法 厚 / 妙 淨 學 淨 弘 信 信 瑛 / 法 輝  
 可 文 學 敏 志 堅 / 同 參 秩 / 李 長 守 / 女 青 非 女 同 玲 嚴 於 屯 / 楊 龍 林 從 希 尹 丕 金 / 朴

同石 金海龍 金均男/ 金信男 吳芑屎 朴太福/ 緣化秩/ 敬暹/ 鑄成曷大匠彌智山雪峯  
子 天寶/ 助役 尙倫 善岑 敬立/ 別座 智什 供養主緇境/ 幹善勸化主比丘信寬/ 步居  
士 智仁吉 趙丹孫/ 義悅 信浩 妙信 惟昔/ 景學 一珠 一還 法淨/ 應性 聖賢

조선 양주땅 고령산 보광사에서 새롭게 주조한 보배로운 종에 새기는 글  
듣기에 이 절은 고려 때 도선국사가 국가의 비보로 경영하기 위해 세웠다고 하나,  
조선에 들어와 만력 년(1592) 임진병화로 모두 전소되어 사슴의 놀이터가 된 지가  
오래이다. 만력 30년 임인(1602)에 해서의 스님 설미와 호서의 스님 덕인이 이 터  
에 처음으로 들어와 보고 이름난 사찰이 언덕이 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음을 탄  
식하였다. 설미가 법당을 세우고 덕인은 승당을 세우니 비로소 사방의 훌륭한 선  
사들이 운집하였다. 온갖 물건들이 한꺼번에 전과 다름없이 갖추어졌으나 종 하나  
가 빠져 덕인 스님의 애석함은 끝이 없었다. 승정 신미(1631)에 종을 만들려고 노  
스님 도원을 추대하여 3년 만에 간신히 청동 80근을 모았지만 종을 만들어 사찰  
에 바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금의 화주 신관은 해서의 승려로 계유(1633) 7월에  
도원을 이어 자리에 올랐는데 이는 수승인 학잠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이때 절에  
승려 20여 명이 모두 힘을 써 도왔다. 별좌인 지십은 덕인의 제자로 덕인의 염원  
을 받아 정성을 다하였고 싫어하는 내색이 없었다. 아, 이 사람의 정성으로 이 절  
에서 만들어져 종에 글을 새길 수 있게 되었다. 엮어져 있는 종은 금속, 돌, 실,  
대나무, 바가지, 흙, 가죽, 나무 등 8가지 종류의 소리가 아니다. 크게 치면 그 소  
리가 크고 작게 치면 그 소리가 작으며 귀신을 경계할 수 있다. 내게 씻물을 붓기  
를 청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글을 짓는다.

부처의 높으신 덕을 어찌 서로가 모르겠는가.  
청정적멸로 항상 남을 이롭게 하신다.  
자비와 영험으로 원하는 모든 것에 감응하시니,  
사람들마다 부처를 섬기고 복을 얻고자 한다.  
헐어졌던 것이 채워져 마치 꿈과 같지만  
달음과 미혹이 구분되어,  
설미, 덕인, 신관의 무리가 삼생의 서원을 심을 수 있었다.  
이에 부족하지만 불법이 어우러졌으니,  
신이 건너와 나에게 종을 만들라 청하였다.  
지나가는 시각 시각마다 쳐서 경계하고 악을 없애 선을 높이니,  
완성품이 쌓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으뜸이 되리라.

승정 년월 일 무게 300여 근으로 종을 만들다.

동참질 대공덕주 신은복 양주 이금련 양주 유언홍 신천립 박춘무 원현  
 본사조연질 언기 천옥 영옥 덕인 학잠 단식 영호 옥규 쌍일 계옥 인전 응성 설암  
 신중 선잠 윤명 유혜 초영 유헌 진기 범후 묘정 학정 홍신 신영 범휘 가문 학민  
 지건  
 동참질 이장수 여청비 여동령 엄어둔 양용 임종희 윤돌금 박동석 김해룡 김근남  
 김신남 오돌시 박태복  
 연화질 경섭 주성비대장미지산설봉자 천보 조역 상륜 선잠 경립 별좌 지십  
 공양주 치경 간선권  
 화주 비구신관 평보거사 지인길 조단손 의열 신호 묘신 유석 경학 일주 일환 범  
 정 응성 성현

### ○ 참고문헌

- 김수현, 「朝鮮後期 梵鍾과 鑄鍾匠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아름, 「1898년 파주 보광사 불사와 불화」, 『마한백제문화』 39, 2022.
- 노정옥, 「한국 梵鍾 龍鈕조형 양식고찰」,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8.
- 박태준, 「파주 보광사 감로탱 내의 중단(감로단) 연구」, 중앙승가대 석사학위 논문, 2022.
- 안귀숙, 「朝鮮後期 梵鍾의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2.
- 정문석, 「朝鮮時代 僧匠系 梵鍾 研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 정문석, 「조선시대 梵鍾을 통해 본 梵字」, 『역사민속학』 36, 2011.
- 최응천, 「조선 후반기 제1기(광해군-경종대) 불교공예의 명문과 양식적 특성 연구」, 『강좌미술사』 38, 1993.
- 최응천, 「普光寺의 佛敎法具」, 『聖寶』 1, 大韓佛敎曹溪宗 聖寶保存委員會, 1998.
- 황인규, 「파주 보광사의 역사와 위상」, 『대각사상』 12, 2009.



### ○ 현 상

<파주 보광사 동종>은 현재 경기도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에 보관되어 있으며, 1995년 8월 7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높이 94.9cm, 입지름 64.1cm의 크기로 종鈕(鐘紐)와 종신(鐘身)이 완형을 이루고 있으며, 종신의 문양과 명문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종신의 명문에 따르면, 임진왜란으로 피해를 입은 보광사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1634년(인조 12) 7월 신관(信寬)이 화주가 되어, 천보(天寶)를 중심으로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등이 청동 3백근을 들여 종을 제작하였다고 전한다. 보광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종은 현재까지 그대로 봉안되어 있어, 유물의 제작에 관한 내역과 소장 경위가 명확하다.

## ○ 내용 및 특징

### <동종의 외형과 양식>

<파주 보광사 동종>의 종뉴는 쌍룡(雙龍)으로 두 마리의 용이 고리를 이루고 음통은 보이지 않는다. 음통은 통일신라 범종부터 나타나는 한국종의 주요한 특징이며, 종뉴도 한 마리 용의 모습으로 만든다. 음통이 없고 쌍룡의 용뉴로 나타나는 범종은 중국종의 형식이며, 고려 후기 원에서 유입된 외래형 범종에서 시작되어 조선 초기에 다수 제작되었다.

보광사 동종의 쌍룡은 두 개의 뿔이 있고 발가락은 다섯 개인 오조룡(五爪龍)이며,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엉켜있는 모습으로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종을 매달 수 있게 하였고 맨 윗부분에는 여의주를 감싸고 있다. 용의 표정과 몸체의 묘사, 생동감 있는 표현 등에서 우수한 조각 솜씨를 볼 수 있다.

종의 몸체는 세 줄로 만든 횡대를 둘러 상단과 하단을 분리하였다. 상단에서 천관의 바로 아래인 어깨 부분에는 복련(覆蓮)의 상대(上帶)가 있다. 상대 일부는 일정하지 않은 문양 표현이 확인되고 형틀이 분리된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당시 주조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상대 아래에는 연곽과 합장보살입상 4구를 번갈아 배치하였다. 연곽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이며, 연화당초문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안에는 만개한 연꽃 9개를 화려하게 꾸며놓았다. 보살상은 원형의 두광에 통견(通肩)의 법의를 걸치고 오른쪽을 향해 서 있으며, 두 손을 모아 합장한 모습이다. 보살상의 좌우에는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과 파괴옥진언(破地獄眞言)이 한 글자씩 크게 자리하고 있다.

하단의 윗부분은 한 마리의 용이 구름을 배경으로 나타나고 조성 내력을 기록한 명문이 양각과 선각으로 표기되었다. 그 아래로 파도문과 용이 교대로 등장하는 하대(下帶)가 있는데, 종의 구연부 조금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단의 위아래로 등장하는 용은 공간에 어울리게 도안되었고 구불구불한 신체의 움직임은 역동적이며, 하대의 파도문은 섬세하게 묘사되었다.

보광사 동종은 음통이 없는 쌍룡의 종뉴와 종의 몸체를 횡대로 구분하는 특징이 대표적인데, 이는 조선 초기에 성행한 외래형 종의 양식과 연결된다. 조선 초기 왕실에서 발원한 <홍천사명 동종>(1462년, 세조 8), <옛 보신각 동종>(1468

년, 세조 14년), <남양주 봉선사 동종>(1469, 예종 1), <낙산사 동종>(1469, 예종 1) 등은 모두 쌍룡의 종뉴와 종신에 횡대가 있는 중국종에서 비롯된 유형이다. 이처럼 외래형 범종이 유행한 이후, 전통형 범종과 외래형 범종, 양쪽의 특징을 공유한 새로운 유형 등 조선시대 동종은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보광사 소장품은 외래형을 계승한 범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동종의 명문 내용과 장인>

<과주 보광사 동종>의 종신 하단에는 주종기(鑄鐘記)가 있어, 범종의 제작에 관한 여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명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有大明朝鮮國楊州地高嶺山普」 光寺新鑄寶鐘銘序」 竊聞此寺高麗時道詵國師爲」 國家碑補營刹也及於我朝大」 明萬曆二十年壬辰兵燹蕩盡」 爲摩鹿所居久矣越三十年壬」 寅海西僧雪眉湖西僧德仁始」 入茲墟吁然嘆息名刹之爲丘」 墟不可不復雪眉創法堂德仁」 創僧堂由是四方賢師雲集一」 場百事什物無欠前美而唯厥一」 鐘仁師痛念無已崇禎辛未」 意欲成鐘勸立道元老僧三」 年僅募艱得八十斤青銅成」 之不果獻寺以退今化主信寬」 海西僧也癸酉七月繼道元而」 立乃首僧學岑之勸也時寺」 衆二十員等皆力助焉別座」 智什仁師之弟子也体仁師之」 念盡誠竭力無厭色之嗚呼」 斯人之誠茲寺之成可銘於」 鐘也已盖鐘者非特金石絲」 竹匏土草木八音之類也擊之」 大則其聲大擊之小則其聲」 小亦可以警幽鬼也請余鑄鐘」 不獲辭而銘云」 佛之尊德未知何相淨清寂滅」 利他爲常亦有慈靈所願皆」 應人人崇佛欲得福命毀補如夢」 達惑可分眉仁寬輩三生願種」 至此俱欠化佛道融神與渡人」 請余作鐘時時警擊滅惡善」 崇積若成物萬歲長雄」 崇禎七年甲戌七月日鑄重三百」 餘斤」 同參秩」 大功德主申銀福兩主」 李今連兩主劉彥弘」 辛天立 朴春茂 元賢」 本寺助緣秩」 彥機 天玉 靈玉 德仁」 學岑 丹湜 英湖 玉圭」 雙一 戒旭 印全 應成 雪岩」 信宗 善岑 允明 惟惠」 楚英 惟洽眞機 法厚」 妙淨 學淨 弘信 信瑛」 法輝 可文 學敏 志堅」 同參秩」 李長守」 女青非 女同玲 嚴於屯」 楊龍 林從希 尹丕金」 朴同石 金海龍 金均男」 金信男 吳丕屎 朴太福」 緣化秩」 敬暹」 鑄成曷大匠彌智山雪峯子 天寶」 助役 尙倫 善岑 敬立」 別座 智什 供養主緇境」 幹善勸化主比丘信寬」 (以上 陽刻)

平步居士 智仁吉 趙丹孫」 義悅 信浩 妙信 惟昔」 景學 一珠 一還 法淨」 應性 聖賢」 (以上 線刻)

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려시대 도선국사의 비보로 고령산 보광사를 세웠다고 하였다. 이후 조선시대 들어 1592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사찰이 모두 전소되어 폐허가 되었다. 시간의 흐르고 사찰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동종의



제작은 늦어졌고 1634년에 이르러 완성하게 되었다. 당시 해서 지역(지금의 황해도)의 승려 신관을 새롭게 화주로 선정하였고 사찰 내 승려 20여 명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승장(僧匠) 천보(天寶)가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등의 보조를 두고 승정 7년 3백근을 들여 종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도 기재되었다. 동종의 제작연대와 목적, 봉안 지역과 사찰, 발원자와 후원자, 장인과 재료 등 중요하고 다양한 내역이 명문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특히 ‘鑄成畱大匠彌智山雪峯子 天寶’를 주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주종장의 직명과 이름이 나타난다. 설봉자 천보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 활약한 승장으로, 다수의 동종을 제작하였다. <황해도 장연 금사사 동종>(1595, 북한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가평 현등사 동종>(1619), <거창 고건사 동종>(1630), <함경도 안변 석왕사 동종>(1633, 현재 소실) 등 보광사 동종(1634)을 포함하여 5점이 알려져 있다. 범종의 봉안처는 대체로 황해도와 경기도에 자리하고 있어, 천보가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을 추정할 수 있다.

천보의 동종은 대체로 음통이 없는 쌍룡의 종뉴를 갖추고 있으며, 종신은 가운데 세 줄의 횡선을 둘러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였다. 또한 불보살상의 외형, 실담 문자로 표기한 육자대명왕진언과 파지옥진언, 화려하게 장식한 운룡문, 연화문, 수과문 등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천보는 외래형 범종의 계통을 잇는 승장이며, 종신을 호화롭게 장엄하기 위하여 역량을 발휘했던 장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광사 동종은 지금까지 알려진 천보의 작품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제작된 유물이다. 종뉴와 종신의 하단에 등장하는 용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면서, 역동적인 조각과 생동감 있는 부조의 표현을 보여준다. 유려한 모습으로서 있는 보살상과 연화문, 당초문, 수과문 등에서도 장인의 재능과 솜씨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천관과 상대 일부에 나타나는 주조의 결함은 유례없는 전란을 복구하는 17세기 전반이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결점은 <가평 현등사 동종>과 <거창 고건사 동종>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으로, 당시의 여건과 사정을 참고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최응천, 『한국의 범종, 천년을 이어온 깨우침의 소리』, 미진사, 2022.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범종』, 1996.
- 정문석, 「朝鮮時代 僧匠系 梵鍾 研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수현, 「朝鮮後期 梵鍾과 鑄鍾匠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최응천, 「普光寺의 佛敎法具」, 『聖寶』 1, 대한불교조계종 정보조보존위원회, 1998.

- 안귀숙, 「朝鮮後期 梵鍾의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2.

□

### ○ 내용 및 특징

과주 보광사는 高嶺山에 자리한 사찰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창건은 신라 진성여왕 8년(894) 왕명에 의해 도선국사가 비보사찰로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1215년에는 원진국사의 중창하였고, 1388년에는 무학대사가 중창하였다. 임진왜란 때 전란의 피해를 크게 입었다. 1622년 雪眉, 德仁 두 스님이 법당과 승당을 복원하고 도솔암을 새롭게 지었으며, 1634년 동종이 제작되었다. 1740년 사찰 인근에 영조의 친모인 숙빈 최씨를 안장한 소령원의 능침사찰로 지정되어 왕실 원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 결과 조선 말까지 흥선대원군과 고종, 명성황후 등 왕실의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도 1. 과주 보광사 동종, 1634년, 천보 작>



<도 2. 가평 현등사 동종, 1619년, 천보 작>

과주 보광사 동종은 1634년 鑄成圖大匠 彌智山 雪峯子(天寶)를 필두로 尙倫, 善峯, 敬立 등의 주종장이 참여하여 제작한 종이다. 주성도대장으로 등장하는 미지산 설봉자는 1595년에 제작된 장연 금사사 동종(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의 종신에 새겨진 명문의 찬자(彌智山雪峯沙門天寶謹撰書)로 처음 등장한다. 현등사 동종 명문에는 ‘化主天寶謹作…’이라고 찬문을 지었고, 거창 고견사 동종에는 ‘彌智山雪峯沙門天寶述…緣化秩 畧大匠彌智山雪峯沙門天寶’라고 적혀 있어 찬문을 짓고 종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천보 이후 등장하는 승려 주종장으로는 남원 대복사 동종(1635년)과 부여 무량사 동종을 제작한 경우와 포항 보경사 서운암 동종(1667

년) 등 8점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 사인비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천보는 17세기 전반기 승려 주종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도 3. 거창 고건사 동종, 1630년, 천보 작, 보물> <도 4. 안변 석왕사 동종, 1633년, 천보 작, 현재 망실>

설봉자 천보의 범명 앞에 수식어로 등장하는 미지산은 양평 용문사가 있는 용문산과 같은 산으로, 그는 미지산을 본거지로 해서 활약했던 승려로 판단된다. 예로부터 미지산 일원에는 보리사(원경대사탑비), 용문사, 사나사(원증국사 석종비), 상원사 등 수 많은 사찰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와 더불어 많은 고승대덕들을 배출되었다.

과주 보광사 동종은 17세기 전반기 승장으로 활동한 설봉 천보의 작품으로 확인된다. 현재까지 설봉천보의 작품은 거창 가평 현등사 동종(1619년), 고건사 동종(1630년) 등 국내에 3점이, 북한 금사사 동종(1595년)<sup>297</sup>, 안변 석왕사 동종(1630년, 현재 망실) 1점을 포함하면 모두 5점이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시기적으로 천보의 마지막 작품에 해당한다.

천보의 종의 특징은 종의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상하와 용뉴를 틀을 이어 붙여 주조하는 분할주조법을 택하고 있다. 아마도 상단부의 복잡하고 섬세한 용뉴부분의 주조 결함을 최소화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결론적으로 완전한 주조 이어지지 못하고 어깨부분에 주조 결함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주조 결함은 극복하지 못하고 그가 제작한 가평 현등사 동종과 거창 고건사 동종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이 종은 천보작으로 알려진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종의 몸통 가운데를 3개의 용기선을 돌려 상하를 나누었다. 천판의 상부는 두 마리 용이 서로 몸통을 꼬아

297) 현재 금사사 종은 1595년 작으로 알려져 있으나(『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조선시대편) II,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367쪽), 종의 양식이 1619년의 현등사 종보다는 거창 고건사 동종이나 보광사 동종에 가까워 명문과 양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으로 종뉴가 만들어졌는데, 천판의 대부분을 여백 없이 용뉴로 채웠다. 종의 상대에는 연판문을 돌려 장엄하였다. 연판문 바로 아래에는 4개의 사다리꼴의 연곽대와 9개의 연뢰, 연곽대와 연곽대 사이의 공간에는 육자대명왕진언(란차문자)와 파지옥진언(실담문자), 그리고 4구의 합장 보살입상을 배치하였다. 종의 배에는 3줄의 용기선대를 돌리고 그 아래 운룡문과 명문을 배치하고 다시 그 아래로는 운룡문과 파도문을 번갈아가며 배치하여 하대를 이루고 있다. 고려 이전의 종과 달리 하대가 종의 입구에 붙어서 마련되지 않고 약간 위쪽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블록하게 솟은 천판의 형태에 용뉴도 상응하고 있는데, 두 마리 용이 서로 몸을 꼬아 용뉴를 형성하고 있다. 뒷발은 하늘을 향해 들어 여의주를 다투고, 앞발은 천판을 힘차게 내던어 종을 들어 올리는 역동적인 모습이이며 오조룡으로 표현되었다. 천판과 연결되는 종의 어깨에는 3점의 내림연판무늬로 장엄하였는데, 가장 안쪽의 연판은 고사리모양의 머리를 맞대어 마무리하고 표면에는 이슬방울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듯 표현한 점이 상큼하다. 이러한 특색 있는 내림연꽃의 표현은 이 작품 외에도 가평 현등사 동종, 거창 고건사 동종 등 천보의 작품에서 널리 응용된 표현방식이다.

연화당초무늬로 꾸며진 사다리꼴의 연곽대는 종의 가슴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는데, 모두 4곳에 배치하였다. 연뢰는 활짝 핀 국화꽃모양의 받침 위에 씨앗을 올려놓은 모양이다. 연곽대 사이에는 란차문자와 실담문자로 새긴 육자대명왕진언과 파지옥진언, 연봉을 받쳐 든 보살입상을 양각하였다. 보살입상은 늘씬한 신체비례를 갖추고 있고, 측면관을 하고 있으며 17세기 보다는 그 이전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의 배 부분에는 해서체로 반듯하게 적은 주종기와 구름 사이를 비행하는 역동적인 용이 새겨져 있다. 용은 몸을 요동치며 여의주를 희롱하며 하늘을 나는 모습이며 사실적인 모델링을 보인다. 하대에는 울동감이 넘쳐나는 파도문과 종복에 새겨진 운룡문과 크기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형태의 용이 비행하고 있다. 문양의 분할된 선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 같은 문양판을 반복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천보가 지은 주종기에는 종을 만들게 되는 배경과 과정, 주관자, 제작자 등에 대해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이 종에서 보이는 특징, 즉 두 마리 용이 서로 몸을 꼬아 여의주를 다투며 용뉴를 야무지게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나, 종의 배 가운데를 3줄의 용기선대로 구획하여 상단에는 연곽대와 보살상, 란차문자와 실담문자로 이루어진 진언을, 하단에는 운룡문과 수파문, 명문대를 배열한 형식은 1462년 흥천사명 동종, 1469년 남양주 봉선사 동종(보물), 1491년 합천 해인사 동종 등 15세기 제작된 동종 양식을 천보가 숙지하고 이를 자신의 종 양식에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그

가 활동 근거지였던 남양주 봉선사에 1469년에 제작된 동종이 유존하고 있었기에 그가 모델로 삼았던 것은 아마도 봉선사 동종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천보가 만든 동종은 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둥근 곡선의 천부에서 종구까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내려와 형태적으로 안감을 준다. 두 마리 교룡이 ‘^’형을 이루는 종뉴에서부터 만곡을 이루는 천판, 상대의 연판대, 上狹下廣 사다리꼴의 연곽대, 국화꽃 받침의 연좌와 꼭지모양의 연뢰, 연곽대 사이의 실담문자의 진언과 불·보살상의 배치, 종복의 세줄의 용기선대, 하대의 명문과 문양 등 시대를 불문하고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좌상 대신 하여 보살입상을 배치한다든가, 진언을 추가한다든가, 운용문 대신 넝쿨문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문양대를 추가한다든가, 세부 문양의 변화를 주든가 하여 제작 시점에 작가의 변화된 제작태도와 감성이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 문헌자료

### <坡州 普光寺 崇禎七年銘 銅鍾 銘文>

有大明朝鮮國楊州地高嶺山普  
光寺新鑄寶鐘銘序」  
竊聞此寺高麗時道詵國師爲」  
國家碑補營刹也及於我朝大」  
明萬曆二十年壬辰(1592)兵燹蕩盡」  
爲摩鹿所居久矣越三十年壬」  
寅(1602)海西僧雪眉湖西僧德仁始」  
入茲墟吁然嘆息名刹之爲丘」  
墟不可不復雪眉創法堂德仁」  
創僧堂由是四方賢師雲集一」  
場百事什物無欠前美而唯厥一」  
鐘仁師痛念無已崇禎辛未(1631)」  
意欲成鐘勸立道元老僧三」  
年僅募艱得八十斤青銅成」  
之不果獻寺以退今化主信寬」  
海西僧也癸酉(1633)七月繼道元而」  
立乃首僧學岑之勸也時寺」  
衆二十員等皆力助焉別座」  
智什仁師之弟子也体仁師之」  
念盡誠竭(渴)力無厭色之嗚呼」

斯人之誠茲寺之成可銘於」  
鐘也已蓋鐘者非特金石絲」  
竹匏土草木八音之類也擊之」  
大則其聲大擊之小則其聲」  
小亦可以警幽鬼也請余鑄鐘」  
不獲辭而銘云」  
佛之尊德未知何相淨清寂滅」  
利他爲常亦有慈靈所願皆  
應人」崇佛欲得福命毀補如夢」  
達惑可分眉仁寬輩三生願種」  
至此俱欠化佛道融神與渡人」  
請余作鐘時」警擊滅惡善」  
崇積若(苦)成物萬歲長雄」  
崇禎七年甲戌(1634)七月日鑄重三百」  
餘斤」  
同緣錄」  
大功德主申銀福兩主」  
李今連兩主 劉彥弘」  
辛天立 朴春茂 元賢」  
本寺助緣秩  
彥機 天玉 靈玉 德仁」  
學岑 丹湜 英湖 玉圭」  
双一 戒旭 印全 應成 雪岩」  
信宗 善岑 允明 惟惠」  
楚英 惟洽 眞機 法厚」  
妙淨 學淨 弘信 信瑛」  
法輝 可文 學敏 志堅」  
同參秩」  
李長守」  
女青非 女同玲 嚴於屯」  
楊龍 林從希 尹芑金」  
朴同石 金海龍 金均男」  
金信男 吳芑屎 朴太福」  
緣化秩」  
敬遲」

鑄成畧大匠彌智山雪峯子 天寶」  
 助役 尙倫 善岑 敬立」  
 別座 智什 供養主 緇境」  
 幹善勸化主比丘信寬」  
 步居士 智仁吉 趙丹孫」  
 義悅 信浩 妙信 惟昔」  
 景學 一珠 一還 法淨」  
 應性 聖賢」

### ○ 참고문헌

- 김수현, 「조선후기 범종과 주종장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안귀숙, 「조선후기 주종장 사인비구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 9, 동국대학교 박물관, 1998.
- 최응천, 「주종장 김애립의 생애와 작품」, 『미술사학지』 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3.
- 최응천, 「보광사 불교법구」, 『성보』 1, 대한불교조계종 성보조보존위원회, 1998.



### ○ 현 상

현재 사찰 대웅전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보광사 동종>은 1995년 8월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제작 후 원 봉안처를 떠나 이운(移運)된 사례가 많았던 다른 범종들과는 달리 애초에 보광사 승려들을 주축으로 발원하여 만들어졌으며 그 상태 그대로 원 봉안처에서 잘 보전된 범종으로 의미가 깊다. 전반적으로 상부의 부분적인 결함을 제외하면 주조의 상태 역시 훌륭하고 오랜 기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타종하며 사용된 범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상부 결함은 제작 당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계획한 문양을 추가로 정성껏 새겨 넣어 주조 시 결함을 보완하고자 했던 의지가 엿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뜨거운 쇠물을 부어 만드는 범종 제작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만큼 완성도 높은 범종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많은 범종들에도 이러한 주조 결함은 다수 확인된다. 힘든 제작 과정과 필수적인 재료의 수급조차 힘들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타종하여 소리를 내는 범종의 고유한 기능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외관상의 부족함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도하게 크게 자리한 상부의 용뉴와 둥글게 솟은 천판으로

인해 육중한 상부가 강조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큰 종신의 외형이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균형으로 종의 전체적인 미감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종신 표면 장엄에서는 유달리 도드라지게 양감을 드러낸 문양이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장엄이 보다 선명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명문의 글자 역시 정확히 판독될 만큼 정성을 들여 주조한 면모가 훌륭하다. 종신의 넓은 공간을 당시 신앙적으로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문양으로 충전하면서도 여백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번잡하고 복잡함보다는 짜임새 있는 구성이 돋보이는 한국미의 특질 역시 겸비하고 있다. 종을 타종하는 당좌(撞座)를 두지 않은 관계로 타종은 종신의 하단부를 치게 되는 방식이며 이를 위해 하단부의 두께를 다른 부위에 비해 두 배 정도 두껍게 주조하여 기능성을 강화한 면 역시 탁월하다.



<도 1. 파주 보광사 동종, 1634년>

### ○ 내용 및 특징

예로부터 한국 범종의 독창성은 통일신라시대 <상원사종(725년)>과 <성덕대왕신종(771년)>에서 간취되는 향아리형 종신과 한 마리의 용뉴, 음통, 여백을 강조한 종신의 아름다운 장엄과 함께 은은하고 멀리 울려 퍼지는 깊은 울림에서 비롯된다. 이후 고려시대는 세련된 장식미가 돋보이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용뉴 및 입상 연판문대(立狀蓮板文帶) 등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면서 한국 범종의 장엄 요소는 더욱 다채로워진다. 조선시대 들어 범종은 15세기 왕실을 주축으로 발원된 <홍천사종(1462년)>, <봉선사종(1469년)> 등 대형의 사찰 범종들이 새롭게 제작되는 과정에서 고려 말 유입된 중국종의 요소를 수용하며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웅장한 두 마리의 용으로 구성된 쌍룡의 용뉴 등장, 음통과 당좌가 사라지는 경향, 밀교적 성격이 짙은 육자진언(六子眞言\_옴마니반메훴)으로 대표되는 범자문(梵字文)의 표현, 바다를 상징하는 파도문 등에서 살필 수 있다. 15세기 왕



실발원 범종의 영향으로 16세기 각 지방 사찰에서 제작된 중소형의 범종 역시 중앙을 지향하는 양식이 전개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곡성 태안사종(1581년)>, <공주 갑사종(1584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과 새로운 양식이 혼용되어 범종 장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용뉴에서 쌍룡과 단룡이 동시에 등장하고, 사라졌던 음통이 다시 표현되며, 고려 후기 범종의 특징인 천판 주변의 입상연판문대를 두르고 있는 점 등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혼용에 있어서도 한국 범종의 고유의 여백과 안정적인 종신 미감에 대한 지향은 변치 않고 유지되며 이전 시대와는 또 다른 조선시대 범종의 조형미를 완성하게 된다.

<과주 보광사 동종(1634년)>은 그 제작 시기와 더불어 주성을 담당한 장인 설봉자(雪峯子) 천보(天寶)의 활동기간(1595~1634)을 고려해보면 15~16세기 정립된 조선 전기 범종을 계승하고 임진왜란(1592년) 이후 조선 후기 범종의 새로운 전개를 보이는 점점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천보가 장인(匠人)으로서 최고 경지에 이른 시기에 제작한 작품으로 그 완숙성까지 겸비한 작품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둥근 천판 위에 크게 자리한 쌍용의 용뉴가 압도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두 마리의 용은 서로 대칭해서 양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입은 천판에 접해있지만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동시에 두 다리를 힘 있게 굽혀 발로는 천판을 짚는 듯한 형상으로 웅크린 모습임에도 응축된 기운이 드러난다. 몸체는 천판의 중심에서 서로 꼬아진 형태로 엮혀 있어 역동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용뉴에서 용의 안면 표현과 역동성은 이전 시기 <갑사종(1584년)>의 용뉴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중국종의 특징인 쌍용의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고려시대 용뉴에서 보이는 세밀하고 역동성 있는 용으로 표현해 위압적이고 든중한 중국의 용과는 차별화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천보가 이 종보다 이전에 만든 <현등사종(1619년)>, <고견사종(1630년)>의 용뉴가 과도하게 몸체가 꺾이거나 종신과의 접합부가 다소 불안했던 것과 달리 한층 세련된 표현으로 전체 종신을 봤을 때 훨씬 안정적인 균형감을 갖추고 있다. 천판과 접한 상부 곡선면은 연속되는 연판문을 두르며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하고 있어 천판 장식이라기보다는 상대의 역할로 종신과 연결되어있다. 그 표현의 디테일은 16세기 범종의 연판 장식보다는 확실히 뛰어나고 오히려 15세기 왕실 발원 범종에서 보이는 수준 높은 세부 표현에 더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완숙하다.



<도 2. 파주 보광사 동종 상부 장엄>



<도 3. 파주 보광사 동종 종신 장엄>

화려하지만 요란하지 않은 상부의 위엄 있는 장엄과 함께 그 아래 연속되는 종신 표면의 구성과 장엄 역시 이 시기의 범종의 대표작이라 할 만큼 예술적 성취도가 높다. 종신에는 중앙에 굵은 3조의 횡대(橫帶)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를 분명히 구분해서 공간을 구성하고 문양을 배치했다. 종신 상부엔 큰 연곽 4개와 연곽과 연곽 사이 보살입상이 주문양으로 하고 그 주변으로 크기가 서로 다른 범자문이 있다. 연곽대 내부를 충전한 넝쿨문, 연곽 안에 배치한 9개의 연뢰 표현 역시 천보의 다른 범종들 장식과 비교해 표현력이 월등히 섬세하다. 이러한 구성은 당시 인근의 왕실 발원 범종인 남양주 <봉선사종(1469년)>의 표현을 그대로 수용한 면모를 알 수 있으며, 연곽대 장식 및 보살상과 범자문의 세부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보이지만 그 구성요소에서 보이는 상호 연관성은 상당히 깊다. 보살입상을 중심으로 배치된 범자문 곁에는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과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이라는 제목을 각각 틀로 새겨서 명확히 진언의 명칭을 알려주고 있다. 이 두 진언은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두터운 신앙층을 형성한 관음(觀音) 및 지장보살(地藏菩薩)의 대표 진언이며, 현실의 안녕과 내세의 평안을 기원하는 보살 신앙에 가장 밀접한 두 진언을 보살상과 함께 범종에 새겨 그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범자문의 표현과 상징성의 강조 역시 15세기 왕실 발원 범종에서부터 정립되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유행한 장엄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파주 보광사 동종>에서 정성을 기울인 범자문과 보살상의 표현을 통해서는 조선 후기 단순한 패턴으로 도식화되어 의미조차 상실해 버리기 이전 한국 범종 표면 장엄이 추구했던 신앙에 대한 수준 높은 표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종신 중앙의 횡대 아래 하부에도 상부 장엄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문의 명문과 구름 사이로 힘차게 날아가는 용을 배치하였다. 결국 수호의 대표적인 상징인 용이 종신을 휘돌며 범종의 제작 경위를 상세히 적은 염원의 글귀와 의지를 견고하게 수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이다. 더불어 그 아래 인접해서는 바다를 상징하는 파도문과 함께 3개의 구름 속 용들이 어울려 있어 천

상과 바다를 아우르는 용들의 위풍당당한 위상을 거듭 강조한 표현이 돋보인다. 이러한 명문과 용들의 표현이 극대화되어 강조되는 표현 역시 천보가 만든 기존의 두 종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성이다. 명문의 내용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제작연도, 제작목적, 봉안처, 발원자 및 후원자, 제작 장인 등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범종에 국한된 내력만이 아닌 큰 전란(戰亂) 이후 보광사 재건을 위한 건축과 의식 범구들을 갖추었던 공덕의 역사, 그 과정에서 많은 승려 및 후원자들의 헌신과 노력 등을 오늘날 눈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풍성한 명문 구성 역시 15세기 왕실 발원 범종의 형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 범종을 주성하면서 깨달음의 소리가 영원하길 기원했듯이 당시 모든 이의 염원에 대한 기록에도 뜨거운 쇳물을 부어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한 선조들의 신심과 정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도 4. 파주 보광사 동종 명문과 정신 장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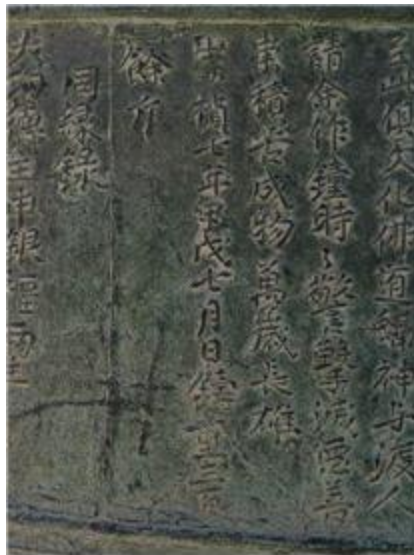
### <형식>

<보광사 동종>은 높이 94.9cm의 중형 종으로 실외 혹은 실내 의식용으로도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원통형의 종신(鍾身)에 상부로 가면서 폭이 좁아지며 최상단의 천판(天板) 역시 반구형(半球形)으로 솟아 있다. 이 천판 위에 종을 거는 역할을 하는 용뉴(龍鈕)가 두 마리인 쌍룡으로 구성되어 큼직하게 자리한다. 종신의 표면 장엄은 다채로운 소재로 공간을 충전하여 나름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다. 종신 중앙의 3선의 횡대를 통해 상부와 하부를 구획한 후 상부엔 상대(上帶), 연곽(蓮廓)과 연뢰(蓮蕾), 보살상(菩薩像), 범자문(梵字文) 등을 배치하고 하부엔 구름과 함께 하늘을 휘도는 역동적인 용과 함께 이 범종의 제작 경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명문(銘文)이 아주 선명한 글씨로 종신 하부 절반 이상을 두르며 새겨져 있다. 그 아래 종신 하단과 이격되어 표현된 하대(下帶) 내부 역시 용과 함께 바다를 상징하는 파도문으로 가득 충전하여 장엄을 극대화하고 있다. 쌍룡의 용뉴, 당당하고 안정적인 원통형의 종신, 경쾌한 표면 장엄,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는 명문의 존재 등으로 중국종의 형식을 수용하여 한국적인 조형 미감으로 새롭게 전개되었던 조선 전기(15~16세기) 범종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17세기 범종의 대표작이다.

### <조성연대>

종신 하부에 새겨진 명문 후반부에 “..崇禎七年甲戌七月日鑄重三百餘斤...”이란 내용을 통해 송정(崇禎) 7년(1634년) 조선(朝鮮) 인조(仁祖) 12년 7월에 주성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는 큰 병화를 딛고 사회 전반에 있어 민족 재건을 위한 동력을 결집할 시기로 불교계 역시 사찰과 승려들을 중심으로 많은 불사(佛事)를 진행했던 정황을 이 범종을 존재와 명문의 내용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도 5. 조성연대 명문부>

## 12.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71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七十一)

### 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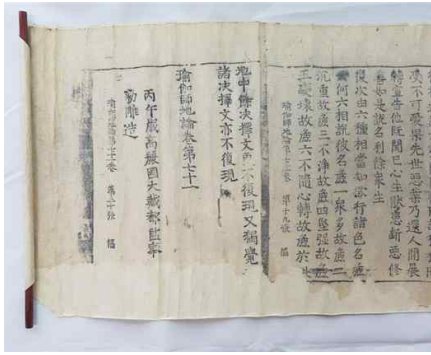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71’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71’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8.27./'23.2.17.)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2.2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71(再雕本 瑜伽師地論 卷七十一)
- 소유자(관리자) : 영천역사박물관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안야사 1길 35, 용화사
- 수 량 : 1권 1축(20장)
- 규 격 : 29.2×1,000.8cm(匡高: 22.2cm)
- 재 질 : 닥종이(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권축장(卷軸裝)
- 조성연대 : 1246년(고종 33) 판각, 후대 인출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71>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조사 대상의 영천역사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71 1축은 해인사대장경관에 편입된 『유가사지론』 전체 100권의 목판 가운데 1246년 고려국대장도감에서 조성된 해당 권차의 목판을 찍은 영본(零本)이다. 주철의 축봉 및 황색 계통의 비단 끈과 함께 표지·표지제목(經題)의 상당 부분에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당 권차의 인출본이 발견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의 영천역사박물관 소장 판본은 표지·표지제목과 제1~5장의 본문 가운데 일부 글자·획이 보사되었으며, 지면의 변화와 함께 먹의 색·광택도 변색·약화된 흔적도 보이는 등 원형의 변형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완전성에서 제한적인 측면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권20·42·55·64의 판본과 비교하여 선본(善本)으로서의 우위적인 가치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듯하다. 더구나 조사 대상의 판본을 찍은 해당 목판이 해인사대장경관에 편제되어 현재까지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므로, 조사 대상의 판본은 자료적인 희소가치에서도 제한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조사 대상의 영천역사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71 1축은 자료적인 희소가치·완전성의 제한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의 지정에 미흡하므로,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 <指定 價値>

지정신청본 『瑜伽師地論』 권71은 瑜伽를 행하는 자의 수행 단계를 자세히 서술하고 唯識學의 중요한 용어와 경전에 나오는 여러 용어를 풀이한 저술이며, 목판본의 권자본 형태로 전체 100권 가운데 권71 내용을 수록한 1권 1축의 零本이다. 권

말의 ‘丙午歲’를 비롯한 전체적인 구성과 체재 등은 고려 고종 33년(1246)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재조대장경 後印본인 듯하다.

지정신청본 『瑜伽師地論』 권71은 고려시대 판각 인쇄술을 비롯해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지정신청본 『瑜伽師地論』 卷71은 일부분 漏濕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은 배접과 보수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표제의 일부와 본문 전반부 1~5장의 일부 훼손된 필획도 補寫를 거친 듯하다. 더욱이 배접과 보수를 거치면서 지면과 墨의 색상이 變色되고 군데군데 補寫한 점은 큰 결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瑜伽師地論』 권71은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에는 미흡하나, 지방유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므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 <根據 基準>

현재 大藏都監版本의 『瑜伽師地論』은 권20(국립한글박물관), 권42(원각사정보박물관), 권55(국립중앙박물관), 권64(국립중앙박물관) 등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 (지정 가치 미흡)

조사본 『瑜伽師地論』 卷71은 전체 100권 가운데 ‘攝決擇分 聲聞地 5’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 경전은 고려 고종 33년(1246)에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조조한 경관에서 인출된 것으로 1卷(20張) 1軸의 零本이다.

조사본은 해인사대장경관에 편입된 『유가사지론』 전체 100권의 목판 가운데 해당 권차의 목판을 찍은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해당 권차의 인출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조사본은 보존되는 과정에 오염과 물리적 손상 등이 상당부분 이루어졌고, 손상 부분에 대한 배접과 보수를 거치며 지면과 墨의 색상이 變色되고 군데군데 補寫되는 등 상당한 결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조사본 『유가사지론』 권71은 해인사대장경관의 원천 자료인 목판이 보존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지정된 자료들과 비교하여 善本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 부 결

## 조사보고서

□

### ○ 현 상

조사 대상의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71 1축은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된 불교경판의 한 종류로, 1246~1247년(고종 34) 고려국대장도감(高麗國大藏都監)에서 조성된 전체 100권의 『유가사지론』 가운데 1246년 판각된 권71의 목판을 후대 인출한 불교기록유산이다. 지봉(전헌진) 스님이 부친 故 영모(永慕: 전용술) 스님에게 물려받아 소장하다가 영천역사박물관에 기증하여 현재 영천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조사 대상의 인출본은 일부의 내용이 마모·훼손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배접·수리된 상태이다. 더구나 후대 배접·수리 과정에서 묵서된 표지제목(經題)과 함께 제1~5장의 본문 가운데 일부의 글자·획이 보사(補寫)되었으며, 지면(紙面)의 변화와 함께 먹의 색·광택도 변색·약화된 흔적도 보이는 등 원형의 변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결장이 없으며, 주칠(朱漆)의 축봉과 황색 계통의 비단 끈 등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 <서지사항>

목판본(木板本: 1246년 고려국대장도감 판각, 후대 인출본)

1권 1축: 상하단변(上下單邊: 사주단변의 흔적) / 광고 22.2cm / 무계(無界) / 전곽 23행14자 내외(제1장 22행14자 내외) / 무어미(無魚尾) / 29.2(세로)×1,000.8(가로) cm / 전체 20장

표지제목: 瑜伽師地論卷第七十一 福(七十一의 부분이 후대 가필·보사)

권 수 제: 瑜伽師地論卷第七十一 福

강설정보: 弥勒菩薩說

한역정보: 三藏法師玄奘奉 詔譯(奉詔譯의 부분이 후대 가필·보사)

판 미 제: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二張 福

권 미 제: 瑜伽師地論卷第七十一

구성체계: 권수제-강설정보(제2행)-한역정보(제3장)-분과·地제목-본문내용-권미제-간행정보(刊記)

간행정보: 丙午歲(1246년: 고종 33년) 高麗國 大藏都監奉  
勅雕造(권71 제20장)

특이사항: 표지는 황색계통이며, 표지제목은 먹으로 표기된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에 묵서



## ○ 내용 및 특징

『광석제경론(廣釋諸經論)』·『십칠지론(十七地論)』·『유가론(瑜伽論)』으로도 부르는 『유가사지론』은 4~5세기 무렵 인도의 미륵보살이 설법한 내용을 무착(無着)이 기록하였다고 하며, 7세기 중엽 당나라의 삼장법사 현장(玄奘)이 한역한 불교기록유산이다. 전체적으로는 100권으로 편제·구성되어 있으며, 대승불교 유가파(瑜伽派: 瑜伽行派·唯識學派)의 기본적인 논서로 법상종(法相宗: 慈恩宗)의 근본 교리서 가운데 한 종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유가사지론』의 목판이 최소 2차례나 조성되었다. 11세기 소위 초조대장경판과 함께 13세기 중엽 해인사대장경판(재조본)의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조사 대상의 『유가사지론』 권71 1축은 1246~1247년(고종 34) 고려국대장도감에서 조성된 전체 100권의 『유가사지론』 가운데 1246년 판각된 권71의 목판을 후대 인출한 영본(零本)이다.

조사 대상의 판본은 광곽이 상하단변의 형태로 사주단변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본문 사이에 계선(界線)이 없는 무계이다. 판제는 해당 개별 장차의 본문이 끝난 다음에 작은 글자로 새겨진 판미제의 형태이며, 제1장에는 판제가 생략되어 있다. 전곽의 행자수는 23행14자 내외이며, 제1장만 22행14자 이내이다. 광고는 22.2cm이다. 제1~20장의 전체 장차는 개별 장차를 연결하여 두루마리 형태의 권축장으로 장정되어 있으며, 표지는 황색 계통으로 염색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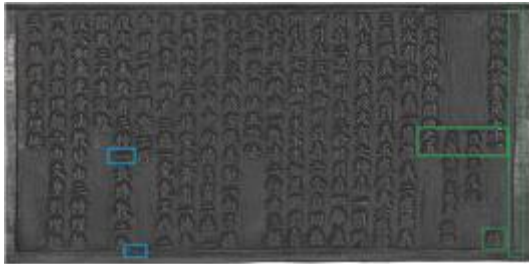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앞표지를 이어 권수제-강설정보(제2행)-한역정보(제3장)-分科·地제목-본문내용-권미제-간행정보의 순서로 구성·배열되어 있다. 앞표지에는 먹으로 표기된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부호의 아래 부분에 유가사지론권제칠십일 복(瑜伽師地論卷第七十一 福)이라는 표지제목(經題)이 묵서되어 있으며, 칠십일(七十一)의 글자·획 일부가 후대 수리과정에서 가필·보사되었다.

권수제·권미제는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이며, 그 아래에는 권제칠십일(卷第七十一)과 같이 권·제·권차가 연결되어 있다. 권수제의 권차 아래에는 복(福)처럼 천자문의 함차가 표기되어 있으나, 권미제에는 함차가 생략되어 있다. 제1장의 권수제 다음에 위치한 제2·3행에는 ‘미륵보살이 설법하였다[彌勒菩薩說]’라는 강설정보와 함께 ‘삼장법사 현장이 황제의 명령으로 한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三藏法師玄奘奉 詔譯]’라는 한역정보가 각각 본문보다 작은 글자로 표기되어 있다. 해당 한역정보 가운데 봉조역(奉詔譯)의 일부 획·글자 부분도 후대 수리과정에서 가필·보사되어 있다. 제1~5장의 본문 가운데 의(義)·이(二) 등의 일부 글자·획도 후대 수리과정에서 가필·보사된 흔적이 보인다.

개별 장차의 본문이 끝난 다음 행에는 본문보다 작은 글자로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이라는 판미제가 표기되어 있으며, 판미제의 아래에는 제칠십일권(第七十一卷) 제이장(第二張) 복(福)과 같이 제·권차·권 및 제·장차·장·함차가 각각 새겨

져 있다. 제20장 권미제의 다음에는 ‘1246년(고종 33) 고려국대장도감이 고종의 명령으로 『유가사지론』 권71의 목판을 새겨 만들었습니다[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간행정보가 두 행에 걸쳐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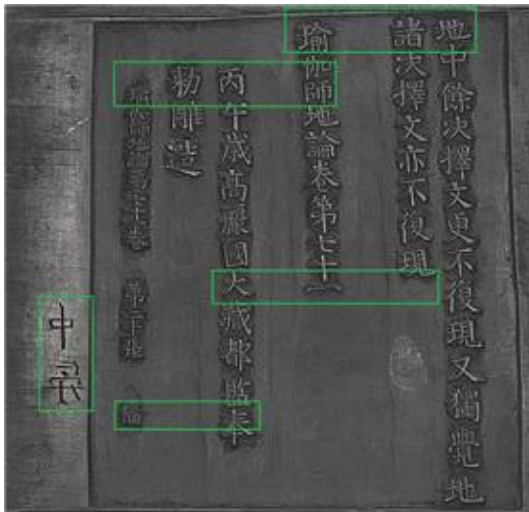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조사 대상 판본의 서지정보와 구성형태 및 간행정보는 현재 해인사의 장경판전에 보존되어 있는 해인사대장경판(재조본) 가운데 편입된 『유가사지론』 권71의 목판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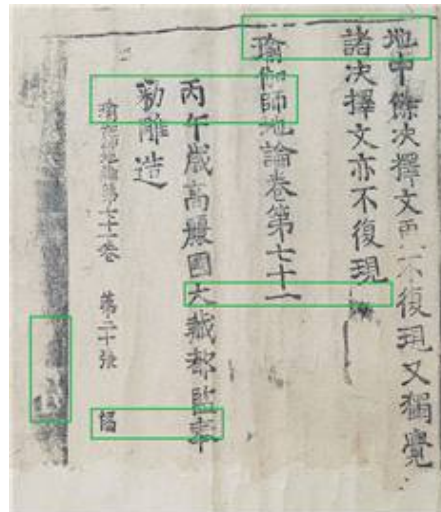
제1장



제1장



제20장



제20장

<해인사대장경판의 『유가사지론』 권71> <영천역사박물관 소장 인출본 『유가사지론』 권71>

조사 대상의 판본은 서체를 비롯하여 제1장 우변의 굴곡 정도와 함께 제1·20장의 글자 위치 등에서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된 『유가사지론』 권71 목판의 해당 장차와 서로 부합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판본의 제20장에는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된 『유가사지론』 권71 제20장의 좌변 밖에 음각된 중(中) 인수(仁守)의 흔적도 남아 있다. 때문에 조사 대상의 판본은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된 『유가사지론』 권71의 목판을 원천텍스트로 인출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 판본은 인출정보가 없으므로, 인출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해당 인출본에는 상·하란(제1장 제17행의 하란 등) 및 글자의 일부(제1장 제18행 제9자 一자 등)에서 마모·훼손된 흔적과 함께 나무결(木理)의 흔적도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목판이 조성된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 인출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표지·  
표지제목·끈



제1장



제20장 및 제19장의 일부

<영천역사박물관 소장 인출본 『유가사지론』 권71>

### ○ 지정사례

조사 대상의 영천역사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71 1축은 1246~1247년(고종 34) 고려국대장도감에서 조성된 전체 100권 가운데 1246년 판각된 권71의 목판을 후대 인출한 영본(零本)이다.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된 해당 목판을 찍은 인출본의 일부는 현재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물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권축장 2016년 01월 지정: 국립한글박물관)

보물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권축장 2010년 08월 지정: 원각사)

보물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55(권축장 1988년 12월 지정: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64(권축장 1988년 12월 지정: 국립중앙박물관)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된 『유가사지론』의 목판으로 찍은 4종류의 인출본이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되어 있다. 권20·42·55·64의 4종류는 모두 두루마리 형태의 권축장이며, 13세기 또는 13~14세기 인출본으로 알려져 있다. 권20은 제1장이 결락되고 제2~3장이 훼손되어 있으나, 석독구결(釋讀口訣)이 필사되어 있으며, 권42는 고려시대 각필로 구결이 표시되어 있다. 더구나 권42·55·64의 경우에는 장정의 원형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조사 대상의 영천역사박물관 소장 권71은 축봉·끈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권차의 인출본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료적인 희소가치를 일정하게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 ○ 전자자료

- 문화재청(<http://www.heritage.go.kr/>) / 국가문화유산포털
- 한국고전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

□

## ○ 현 상

지정신청본 『瑜伽師地論』의 書誌 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 <書誌 記述>

瑜伽師地論. 卷71 / 彌勒菩薩 說 ; 玄奘(602~664, 唐朝) 奉詔譯. -- 木版本. --  
[高麗] : [大藏都監], [高麗 高宗 33(1246) 雕造, 後刷 推定].

1卷1軸(20張): 上下單邊, 每板葉 29.2~50.1cm 內外, 匡高 22.2cm, 無界, 全葉 23行14  
字 內外, 註雙行, 無魚尾 ; 29.2×1,000.8cm. 韓紙. 卷子裝.

表 題: 瑜伽師地論 (墨書).

卷首題: 瑜伽師地論.

版心題: 瑜伽師地論.

卷尾題: 瑜伽師地論.

函 次: '福'.

內 容: -瑜伽師地論 卷71[20張].

刊 記: 丙午(1246, 고려 고종 33)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卷尾).

現 狀: 일부분 漏濕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은 배접과 보수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표제의 일부와 본문 전반부 1~5장의 일부 훼손된 필획도 補寫를 거친 듯하다. 더욱이 배접과 보수를 거치면서 지면과 墨의 색상이 變色되고 군데군데 補寫한 점은 큰 결점이다.

所藏歷: 기증자 지봉 스님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소장하다가 영천역사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라 한다(영천역사박물관 소장 유물 소견서, 유물 기증서, 소장 경위서, 인우 보증서 등 참간).

他藏處: 없음

既指定: 大藏都監版本의 권20(국립한글박물관), 권42(원각사성보박물관), 권55(국립중앙박물관), 권64(국립중앙박물관) 등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現狀>

지정신청본 『瑜伽師地論』 卷71은 일부분 漏濕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은 배접과 보수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표제의 일부와 본문 전반부 1~5장의 일부 훼손된 필

획도 補寫를 거친 듯하다. 더욱이 배첩과 보수를 거치면서 지면과 墨의 색상이 變色되고 군데군데 補寫한 점은 큰 결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 ○ 내용 및 특징

『瑜伽師地論』은 5세기 무렵에 인도의 論師 彌勒이 저술하고 7세기 중엽에 唐朝의 학승인 玄奘(602~664)이 번역한 100卷本이다.

『瑜伽師地論』은 瑜伽行派의 기본 경전으로 ‘瑜伽師’는 신비로운 종교적 명상을 위주로 瑜伽行을 수행하는 사람(瑜伽行者)을 말하므로 ‘瑜伽師地’는 유가행의 수행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은 瑜伽行者의 境·行·果와 唯識瑜伽行派의 근본 교의에 관하여 瑜伽行者로서 관찰하고 믿고 이해하여야 할 對象을 뜻하는 境과 그러한 관찰과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해야 할 修行을 뜻하는 行 및 그러한 수행을 통하여 證得되는 果報를 뜻하는 果에 관하여 자세히 논설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식유가행과의 근본 교의인 阿賴耶識說·三性說·三無性說·唯識說 등에 관하여도 상세히 논설하고 있다.

또한 『瑜伽師地論』은 모든 것을 의식의 산물로 보는 불교 유심론의 관점에서 윤회의 세계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도의 수양, 이러한 수양으로 도달한다는 이상적인 경지로서의 열반 등에 관하여 논설하고 있다.

『瑜伽師地論』은 法相宗의 所依經典으로 玄奘에 의해 번역된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轉入되어 新唯識論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유식학의 사상적 특질 전체를 드러내는 瑜伽系의 거작이며, 유식 불교의 실천 사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전이다.

『瑜伽師地論』의 註釋書로는 唐朝 玄奘(602~664)의 『瑜伽師地論釋』, 당조 窺基(632~682)의 『瑜伽師地論略纂』 및 신라 遁倫(道倫, 650~730)의 『瑜伽論記』, 元曉(617~686)의 『瑜伽師地論疏』, 大賢(?~?)의 『瑜伽論纂要』 등을 비롯하여 數十種이 있다.

『瑜伽師地論』 100권의 내용은 크게 「本地分」(권1~50), 「攝決擇分」(권51~80), 「攝釋分」(권81~82), 「攝異門分」(권83~84), 「攝事分」(권85~100) 등 5개 分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으로부터 제50권에 이르는 「本地分」에서는 『瑜伽師地論』의 기본적인 내용이 개괄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그 나머지의 「攝決擇分」·「攝釋分」·「攝異門分」·「攝事分」 등 4개 분에서는 「本地分」의 17地에 관한 보충적 설명이 부가되어 있다.

「本地分」은 이 논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17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지에서는 사람의 감각을 논설하고 제2지에서는 의식을 논설하고 있으며, 제3~5地에서는 윤회의 세계를 논설하고 제6~12地에서는 불도의 수양에 관한 일반을 논설하고 있다.

제13~15地에서는 聲聞乘·獨覺乘·菩薩乘 등 三乘의 수양에 관하여 논설하고 있으며, 제16~17地에서는 이러한 수양으로 도달하는 이상적인涅槃에 관하여 논설하고 있다.

「本地分」의 체계는 감각과 의식 및 그로부터 과생된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벗어나기 위한 불도 수양과 그에 의하여 도달하는 이상적인 경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계는 불교 唯識論의 윤회 및 열반에 관한 교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표1. 『瑜伽師地論』의 體系와 構成>

卷次	函	目次	經文	張	雕造記
卷01	堂	大唐三藏聖教序[御製] 本地分中五識身相應地第一 本地分中意地第二之一 後序[許敬宗製]	御製 蓋聞二…大綱以爲斯記 云何瑜伽師地…使等業如作用 已說五識身相…從此處最後捨 原夫三才成位…含靈知所歸矣	27	□□歲高麗國大藏都監奉 勅雕造 丙午歲 (1246, 高宗 33)
卷02	堂	本地分中意地第二之二	復次此一切種…教隨逐比度句	25	丙午歲
卷03	堂	本地分中意地第二之三	復次卽前所說…門巧便事爲後	20	丙午歲
卷04	堂	本地分中有尋有伺等三地之一	已說意地云何…有餘匱乏之苦	21	乙巳歲 (1245, 高宗 32)
卷05	堂	本地分中有尋有伺等三地之二	復次於色界中…三受學增上慧	20	丙午歲
卷06	堂	本地分中有尋有伺等三地之三	復次云何不如…當知是常住相	23	丙午歲
卷07	堂	本地分中有尋有伺等三地之四	宿作因論者猶…切種皆不應理	19	丙午歲
卷08	堂	本地分中有尋有伺等三地之五	復次云何雜染…已滅不現前業	21	丙午歲
卷09	堂	本地分中有尋有伺等三地之六	復次業門云何…及彼所生果	24	丙午歲
卷10	堂	本地分中有尋有伺等三地之七	欲愛云何謂欲…現觀究竟現觀	23	丙午歲
卷11	習	本地分中三摩呬多地第六之一	已說有尋有伺…彼時應修習故	29	丙午歲
卷12	習	本地分中三摩呬多地第六之二	復次云何修習…解脫等持等至	27	丙午歲
卷13	習	本地分中三摩呬多地第六之三 本地分中非三摩呬多地第七 本地分中有心無心地第八第九 本地分中間所成地第十之一	復次如世尊言…世苦畢竟不生 已說三摩呬多…潤洽互相隨順 已說非三摩呬多…一義非無心地 已說有心無心…世苦畢竟不生	31	丙午歲
卷14	習	本地分中間所成地第十之二	已說二種佛教…展轉舉罪諍事	30	丙午歲
卷15	習	本地分中間所成地第十之三	已說七種佛教…工業音樂工業	28	丙午歲
卷16	習	本地分中思所成地第十一之一	已說聞所成地…梵行皆得清淨	28	丁未歲 (1247, 高宗 34)
卷17	習	本地分中思所成地第十一之二	應發動精進常…此相讚歎如來	26	丁未歲
卷18	習	本地分中思所成地第十一之三	誰獎勝類生及…是名此中略義	29	丙午歲
卷19	習	本地分中思所成地第十一之四	賢聖常說最善…義論議十四種	29	丙午歲
卷20	習	本地分中修所成地第十二	已說思所成地…說爲修所成地	32	丙午歲
卷21	聽	本地分中聲聞地第十三初瑜伽處種姓地第一 本地分中聲聞地第十三初瑜伽處趣入地第二	如是已說修所…法輪制立學處 如是已說種姓…摠說名趣入地	27	丁未歲

卷次	函	目次	經文	張	雕造記
卷22	聽	本地分中聲聞地第十三初瑜伽處出離地第三之一	如是已說趣入…男子應勤修學	21	丙午歲
卷23	聽	本地分中聲聞地第十三初瑜伽處出離地第三之二	云何根律儀謂…宣說於食知量	23	丙午歲
卷24	聽	本地分中聲聞地第十三初瑜伽處出離地第三之三	復次初夜後夜…摠名正知而住	24	丙午歲
卷25	聽	本地分中聲聞地第十三初瑜伽處出離地第三之四	云何名善友性…沙門莊嚴具義	28	丁未歲
卷26	聽	本地分中聲聞地第十三第二瑜伽處之一	問於如前所學…愼志心得清淨	27	丙午歲
卷27	聽	本地分中聲聞地第十三第二瑜伽處之二	云何緣性緣起…諸相圓滿教授	26	丙午歲
卷28	聽	本地分中聲聞地第十三第二瑜伽處之三	云何爲學謂三…成者通漏無漏	28	丙午歲
卷29	聽	本地分中聲聞地第十三第二瑜伽處之四	如是於四念住…因緣決定有果	28	丙午歲
卷30	聽	本地分中聲聞地第十三第三瑜伽處之一	如是已說補特…所緣毘鉢舍那	24	丙午歲
卷31	禍	本地分中聲聞地第十三第三瑜伽處之二	云何勤修緣起…信解皆能成辦	24	丙午歲
卷32	禍	本地分中聲聞地第十三第三瑜伽處之三	云何初修業者…意者清淨相狀	25	丁未歲
卷33	禍	本地分中聲聞地第十三第四瑜伽處之一	復次此嚙陀南…名爲離欲者相	24	乙巳歲
卷34	禍	本地分中聲聞地第十三第四瑜伽處之二 本地分中獨覺地第十四	如是已辯往世…呪術異論根本 如是已說聲聞…本來一向趣寂	34	丙午歲
卷35	禍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種姓品第一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發心品第二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自他利品第三之一	如是已說獨覺…決定不證菩提 復次菩薩最初…等類衆多勝利 如是菩薩既發…無有若過若增	26	丙午歲
卷36	禍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自他利品第三之餘	云何菩薩因攝…處中第四最勝	31	丁未歲
卷37	禍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威力品第五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成熟品第六	云何諸佛菩薩…漏盡智通威力 云何成熟當知…如是六種成熟	32	丙午歲
卷38	禍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菩提品第七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力種姓品第八	云何菩提謂略…最尊最妙最勝 已說菩薩所應…攝受調伏成熟	28	丙午歲
卷39	禍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施品第九	復次菩薩次第…無上正等菩提	24	丙午歲
卷40	禍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戒品第十之一	云何菩薩戒波…新受亦不新得	23	丁未歲
卷41	因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戒品第十之二	如是菩薩安住…之相應當了知	26	丙午歲
卷42	因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戒品第十之三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忍品第十一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精進品第十二	云何菩薩難行…菩提今於中學 云何菩薩忍波…無上正等菩提 云何菩薩精進…已證當證今證	24	丁未歲
卷43	因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靜慮品第十三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慧品第十四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攝事品第十五	云何菩薩靜慮…已證當證今證 云何菩薩慧波…無上正等菩提 云何菩薩四種…可愛無罪勝果	26	丙午歲
卷44	因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供養親近無量品第十六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菩提分品第十七之一	云何菩薩供養…忍受一切大苦 云何菩薩菩提…名爲善知世間	25	丙午歲
卷45	因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菩提分品第十七之二	云何菩薩修正…修學及圓滿證	22	丁未歲
卷46	因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菩提分品第十七之三	復有四種法嚙…是名真實菩薩	24	丙午歲
卷47	因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第二持隨法瑜伽處菩薩相品第一	云何真實諸菩…義故說名爲住	31	丁未歲
卷48	因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第二持隨法瑜伽處住品第四之二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第三持究竟瑜伽處生品第一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第三持究竟瑜伽處攝受品第二	問增上戒住菩…第十二住亦爾 諸菩薩生略有…無上正等菩提 於一切住菩薩…怯弱自正能免	37	丁未歲
卷49	因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第三持究竟瑜伽處地品第三	如前所說十三…切地能淨修治	27	丙午歲

卷次	函	目次	經文	張	雕造記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第三持究竟瑜伽處行品第四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第三持究竟瑜伽處建立品第五之一	菩薩始從勝解…建立有諸餘行 依如來住及依…門分應知其相		
卷50	因	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第三持究竟瑜伽處建立品第五之二	如是別釋佛十…異門施設安立	31	丙午歲
卷51	惡	攝決擇分中五識身相應地意地之一	如是已說本地…惱者定無有退	25	丙午歲
卷52	惡	攝決擇分中五識身相應地意地之二	復次云何等無…漏界離諸戲論	21	丙午歲
卷53	惡	攝決擇分中五識身相應地意地之三	復次云何表業…相為境隨與等	24	丁未歲
卷54	惡	攝決擇分中五識身相應地意地之四	復次云何識蘊…色蘊互相雜住	28	丙午歲
卷55	惡	攝決擇分中五識身相應地意地之五	如是已思擇色…如來是真覺者	26	丁未歲
卷56	惡	攝決擇分中五識身相應地意地之六	問諸蘊分位有…決擇文不復現	26	丙午歲
卷57	惡	攝決擇分中五識身相應地意地之七	如是已說緣起…擇文更不復現	35	丙午歲
卷58	惡	攝決擇分中有尋有伺等三地之一	如是已說五識…母等及貪瞋等	27	丁未歲
卷59	惡	攝決擇分中有尋有伺等三地之二	問貪等十煩惱…邪見自相應	24	丙午歲
卷60	惡	攝決擇分中有尋有伺等三地之三	復次由五因緣…擇文更不復現	25	丙午歲
卷61	積	攝決擇分中有尋有伺等三地之四	復次如佛世尊…擇文更不復現	28	丙午歲
卷62	積	攝決擇分中三摩呬多地之一	如是已說有尋…住處離惡尋思	17	丙午歲
卷63	積	攝決擇分中三摩呬多地之二	復有五種定相…擇文更不復現	19	丙午歲
卷64	積	攝決擇分中聞所成慧地	如是已說無心…擇文更不復現	26	丙午歲
卷65	積	攝決擇分中思所成慧地之一	如是已說聞所…四聖諦及真如	21	丁未歲
卷66	積	攝決擇分中思所成慧地之二	復次如佛世尊…擇文更不復現	23	丙午歲
卷67	積	攝決擇分中修所成慧地 攝決擇分中聲聞地之一	如是已說思所…擇文更不復現 如是已說修所…所生心諸憂苦	24	丙午歲
卷68	積	攝決擇分中聲聞地之二	問諸行寂滅是…受用名為清淨	21	丙午歲
卷69	積	攝決擇分中聲聞地之三	復次應知毘奈…所識諸法差別	26	丙午歲
卷70	積	攝決擇分中聲聞地之四	復次諸智光明…與四平等平等	25	丙午歲
卷71	福	攝決擇分中聲聞地之五	復次有七種義…擇文亦不復現	20	丙午歲
卷72	福	攝決擇分中菩薩地之一	如是已說聲聞…眾聖神通功德	22	丙午歲
卷73	福	攝決擇分中菩薩地之二	復次嚧陀南曰…道理當知亦爾	22	丙午歲
卷74	福	攝決擇分中菩薩地之三	復次嚧陀南曰…恩報生及神力	27	丙午歲
卷75	福	攝決擇分中菩薩地之四	復次當知菩薩…定愚癡依上慢	29	丙午歲
卷76	福	攝決擇分中菩薩地之五	復次心意識相…薩得無生法忍	24	丁未歲
卷77	福	攝決擇分中菩薩地之六	復次依法假安…廣大瑜伽作意	25	丙午歲
卷78	福	攝決擇分中菩薩地之七	復次依乘假立…圓滿法身證覺	34	丁未歲



卷次	函	目次	經文	張	雕造記
卷79	福	攝決擇分中菩薩地之八	如是已說功德…譬喻所不能及	26	丙午歲
卷80	福	攝決擇分中菩薩地之九	復次云何菩薩…智者餘類應思	31	丙午歲
卷81	緣	攝釋分之上	如是已說攝決…信令生淨信故	22	丙午歲
卷82	緣	攝釋分之下	聽者謂如是說…等類名攝釋分	22	丁未歲
卷83	緣	攝異門分之上	如是已說攝釋…惱事顯無餘斷	28	丙午歲
卷84	緣	攝異門分之下	復次喞陀南曰…異義顯示安立	26	丙午歲
卷85	緣	攝事分中契經事行擇攝第一之一	如是已說攝異…道已而宣說故	26	丁未歲
卷86	緣	攝事分中契經事行擇攝第一之二	復次喞陀南曰…歸滅而般涅槃	30	丙午歲
卷87	緣	攝事分中契經事行擇攝第一之三	復次喞陀南曰…差別四如應當	34	丙午歲
卷88	緣	攝事分中契經事行擇攝第一之四	復次喞陀南曰…不爾是名五相	33	丁未歲
卷89	緣	攝事分中契經事處擇攝第二之一	如是已說行擇…隨眠發生無漏	30	丙午歲
卷90	緣	攝事分中契經事處擇攝第二之二	復次喞陀南曰…住此廣興邪行	29	丁未歲
卷91	善	攝事分中契經事處擇攝第二之三	復次喞陀南曰…等喜應當遍喜	30	丁未歲
卷92	善	攝事分中契經事處擇攝第二之四	復次喞陀南曰…慧者之所歸趣	28	丁未歲
卷93	善	攝事分中契經事緣起食諦界擇攝第三之一	如是已說處擇…正行能盡衆苦	28	丁未歲
卷94	善	攝事分中契經事緣起食諦界擇攝第三之二	復次喞陀南曰…次第所有功德	28	丙午歲
卷95	善	攝事分中契經事緣起食諦界擇攝第三之三	復次喞陀南曰…脫智應知亦爾	27	丁未歲
卷96	善	攝事分中契經事緣起食諦界擇攝第三之四	復次喞陀南曰…義別應知亦爾	30	丁未歲
卷97	善	攝事分中契經事菩提分法擇攝第四之一	如是已說緣起…利故名有大利	32	丁未歲
卷98	善	攝事分中契經事菩提分法擇攝第四之二	復次喞陀南曰…方隅皆當覺了	33	丙午歲
卷99	善	攝事分中調伏事摠擇攝第五之一	如是已說素怛…各各發露除滅	30	丁未歲
卷100	善	攝事分中調伏事摠擇攝第五之二	復次依毘奈耶…尋思應正覺了	27	丙午歲
100卷 10函			2,636張(板): 乙巳(45) 丙午(1,818) 丁未(773)		

『瑜伽師地論』의 권67~71은 ‘뜻을 밝혀 의심을 풀어주는 부분’인 「攝決擇分」 중의 ‘聲聞地’이다. 이에서는 「本地分」의 ‘聲聞地’(권27~34)에서 논한 불도를 깨닫는 種子의 성품에 관한 문제와 聲聞의 종류와 그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根本 敎理와 戒律에 대한 문제, 聲聞이 갖추어야 할 명상에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문제에 관한 보충적인 논설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月喻經』과 『拔陀喻經』 및 『醍醐喻經』 등의 경전을 인용해 가면서 60여 가지의 問答으로 논설하고 있다.

지정신청본 『瑜伽師地論』 권71에 수록된 내용은 “불도를 깨닫는 種子로서의 성품인 種性を 가지지 못한 자는 영원히 열반에 들 수 없다”라는 견해가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율과 名相과 지혜는 불도를 닦는 기본이라 논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활쏘기에 비유하여 활은 계율에 비유하고 화살은 명상에 비유하며 과녁은 지혜에 비유하면서, 활처럼 공고한 계율은 마치 명상의 화살이 지혜의 과녁에 적중하듯이 불도도 그 이치를 배워 습관이 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無學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 논설하고 있다. 또한 불도를 닦는 것은 먼 길을 갈 때 샷갓으로 뜨거운 햇볕을 막듯이 부처의 설교로 외도의 그릇된 견해들을 막고 바른 계율로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배로 강을 건너듯이, 般若의 지혜로 生死와 輪回의 강을 건너 명상으로 온갖 번뇌의 망상을 없앨 것을 논설하고 있다.

더욱이 부처의 지혜로 불도를 명백히 꿰뚫어 보는 思現觀, 信現觀, 戒現觀, 現觀智諦現觀, 現觀邊智諦現觀, 究竟現觀 등의 6가지의 現觀에 관하여 논설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욕계와 색계 및 무색계의 온갖 번뇌를 없애는 과정이 바로 모든 것을 완전히 아는 과정으로서 여기에서는 욕계의 조잡한 번뇌를 없애는 것에서부터 무색계의 가장 섬세한 번뇌마저 모두 없애는 과정들을 논설하고 있다.

또한 『醍醐喻經』의 내용을 들어서 佛經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우선 어떤 불경이 어떤 교리를 어떤 문구와 순서로 누구를 위하여 설교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비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들에 관하여도 논설하고 있다. 예컨대 비구들은 부처가 허용하는 맑고 깨끗한 것을 먹고 마셔야 하는데, 특히 그 분량이 불도를 닦는데 알맞아야 하며 사람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대상에 맞도록 말하거나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논설하고 있다.

한편, 비구들은 신통한 조화로 귀신의 세계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귀들이 전생에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빨리 귀신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설교하여 다시금 인간 세상에 돌아와서 아귀들의 참상과 그 전생의 죄를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악행을 버리고 불도를 닦도록 해야 한다고 논설하고 있다.

이렇듯, 「聲聞地」에는 소승들이 명상을 위주로 수행해야 할 불도의 여러 갈래를 비롯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승교리의 견지에서 논설이 수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瑜伽師地論』 권71은 『瑜伽師地論』 전체 100권 가운데 ‘攝決擇分 聲聞地 5’의 내용으로 高麗 高宗 33(1246)년에 大藏都監에서 雕造한 經板에서 후세에 印出된 1卷(20張) 1軸의 零本이다.

지정신청본 『瑜伽師地論』 권71의 表題를 비롯한 卷首題·版心題·卷尾題 등은 모두 ‘瑜伽師地論’이며, 函次는 ‘福’이다. 권두의 黃染된 표지에는 ‘瑜伽師地論卷第七十一 福’의 墨書가 있고 권두에는 ‘瑜伽師地論卷第七十一’의 經名과 ‘福’의 函次가 있으며, 行을 바꾸어 小字로 ‘彌勒菩薩說’과 ‘三藏法師玄奘奉詔譯’의 勞作者와 譯者가 기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瑜伽師地論』 권71의 版式의 邊欄은 上下單邊이고 每板葉은 29.2~50.1cm 内外이며, 匡高는 22.2cm 内外이고 界線은 없다. 매판 全葉의 行字數는 23행14자 内外이고 註文은 小字雙行이며, 규격은 세로 29.2cm 가로 1,000.8cm이며 紙質은 韓紙이다.

지정신청본 『瑜伽師地論』 권71의 張尾에는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과 張次 및 函次 ‘福’이 있으나, 전체 20장을 연결하면서 卷尾題가 잘려진 부분도 있다. 卷尾에는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의 간기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려 고종 33년(1246)에 大藏都監에서 雕造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版式의 전체적인 구성과 체제 등도 고려 高宗 33년(1246)에 雕造된 再造대장경과 다름이 없다. 卷末에는 上下의 變란을 비스듬히 자른 직경 1.0cm 미만의 朱漆 軸棒이 연결된 상태이다.

## ○ 문헌자료

『瑜伽師地論』 卷71 原文 校勘

所釋 이형 및 이체자 義 훼손 및 첨필자 張 관심 및 장차 地 훼손 및 결락자

- 0710102 瑜伽師地論卷第七十一 福
- 0710103 彌勒菩薩說
- 0710104 三藏法師玄奘奉 詔譯
- 0710105 攝決擇分中聲聞地之五
- 0710106 復次有七種義一應推義二應攝義
- 0710107 三應避義四應引義五應遮義六應持
- 0710108 義七應發義復次有七種喜一聞所
- 0710109 引喜二思所引喜三修所引喜四離盖
- 0710110 所引喜五議論所引喜六念自功德
- 0710111 所引喜七於諸下劣不生知足所引喜
- 0710112 復次有五種法一教法二行法三攝
- 0710113 受法四受用法五證法
- 0710114 復次具三種德方能善射一由弓德
- 0710115 二由箭德三由中的德弓有二德一
- 0710116 其性堅牢二善作究竟箭有一德善
- 0710117 作究竟中的有三德一究竟工巧二
- 0710118 串習工巧三師學工巧
- 0710119 復次如來教有三種一長時教二无

- 0710120 閒教三不重說教
- 0710121 復次如來无量法教皆由三種理趣
- 0710122 一由義差別理趣二由文差別理趣
- 0710123 三由難釋差別理趣
-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二張 福】
- 0710201 復次夫涉道者須五對治一焰光對
- 0710202 治二艱險對治三江河對治四枯竭
- 0710203 對治五身勞對治
- 0710204 復次尸羅有二種相能往善趣一攝
- 0710205 受尸羅二不缺尸羅
- 0710206 復次諸受欲者於現法中有三種義一
- 0710207 追尋財寶二守護財寶三耽著受用
- 0710208 復次壽命變壞有二種一僿變壞二
- 0710209 細變壞變壞分位亦有二種一僿二細
- 0710210 復次智有二德一正行義德二自性
- 0710211 德正行義德者謂速疾正行決定正
- 0710212 行微細正行自性德者謂是定地不
- 0710213 可退轉是出世間已善修習於自所
- 0710214 行无有罣碍勝餘一切自類善根勝
- 0710215 於一切他類善根
- 0710216 復次有三顧戀修四念住能為對治一
- 0710217 顧戀助伴二顧戀利養三顧戀後有
- 0710218 復次加行故現觀故相續故欲貪无
- 0710219 明對治是加行現見安立非安立諦
- 0710220 是現觀已離欲未離欲是相續又依
- 0710221 故地故品故未修定故已修未得得
- 0710222 故所依清淨障故作意清淨障故彼
- 0710223 障對治故
-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二張 福】
- 0710301 復次如說六種現觀謂思現觀乃至
- 0710302 究竟現觀問思現觀有何相答若有
- 0710303 成就思現觀者能決定了諸行無常
- 0710304 一切行苦諸法無我涅槃寂靜住異
- 0710305 生位已能證得如是決定非諸沙門
- 0710306 若婆羅門若天魔梵及餘所能如法
- 0710307 引奪問信現觀有何相答若有成就

0710308 信現觀者或異生或非異生或於  
0710309 現法或於現法及後法中終不妄稱餘是大師  
0710310 餘法善說餘僧正行問戒現觀有何  
0710311 相答若有成就戒現觀者終不復能  
0710312 乃至故心斷傍生命不與而取習欲  
0710313 邪行知而妄語飲米等酒諸放逸處  
0710314 問現觀智諦現觀有何相答若有成  
0710315 就現觀智諦現觀者終不復能依諸  
0710316 妄見而有所作於自所證而有疑惑  
0710317 於諸生處而有貪染現行世相計為  
0710318 清淨誹謗聲聞獨覺大乘作惡趣業  
0710319 何況能造害父母等諸無間業乃至  
0710320 不能生第八有問現觀邊智諦現觀  
0710321 有何相答若有成就現觀邊智諦現  
0710322 觀者終不於彼他所詰問而生怖畏  
0710323 問究竟現觀有何相答若有成就究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三張 福

0710401 竟現觀者終不復能犯於五處亦不  
0710402 復能乃至故斷諸傍生命不與而取  
0710403 行非梵行習姪欲法知而妄語蓄積  
0710404 財寶諸妙欲具而受用之亦不怖畏  
0710405 不可記事亦不妄計所有苦樂自作  
0710406 他作自他俱作非自非他為因而生  
0710407 如是等類當知是名諸現觀相  
0710408 問思現觀何自性答上品思所成慧  
0710409 為自性或此俱行菩提分法為自性  
0710410 問信現觀何自性答緣三寶境上品  
0710411 世間出世間清淨信為自性或此俱  
0710412 行菩提分法為自性問戒現觀何自  
0710413 性答聖所愛身語業為自性或此俱  
0710414 行菩提分法為自性問現觀智諦現  
0710415 觀何自性答緣非安立諦境慧為自  
0710416 性或此俱行菩提分法為自性問現  
0710417 觀邊智諦現觀何自性答緣安立諦  
0710418 境慧為自性或此俱行菩提分法為

0710419 自性問究竟現觀何自性 答盡无生  
 0710420 智等為自性 或此俱行菩提分法為  
 0710421 自性  
 0710422 問此六現觀幾欲界繫乃至幾不繫  
 0710423 答一唯欲界繫一種一分 或欲界繫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四張 福  
 0710501 或色界繫或無色界繫即此一分及  
 0710502 餘三此四是不繫一通繫及不繫  
 0710503 問此六現觀幾依未至依可得幾乃  
 0710504 至依無所有處依可得 答一依非依  
 0710505 可得餘依一切依可得又三依五依  
 0710506 生一種一分亦 亦問若現觀智諦現  
 0710507 觀離衆相故名无分別云何依有尋  
 0710508 有伺依可得 答由彼思惟尋伺等全  
 0710509 分靜慮真如而入於定是故雖依有尋  
 0710510 有伺靜慮可得然是離相無有分別  
 0710511 問此諸現觀幾緣世俗諦幾緣勝義  
 0710512 諦 答一緣世俗諦及一種一分 无  
 0710513 所有緣二緣安立勝義諦及一種一分  
 0710514 一緣非安立勝義諦及一種一分  
 0710515 問此諸現觀幾有相幾无相 答四有  
 0710516 相一無相一亦有相亦無相  
 0710517 問此諸現觀幾有分別幾无分別 答  
 0710518 如有相無相當知有分別無分別亦 亦  
 0710519 問此諸現觀幾喜俱行幾樂俱行幾  
 0710520 捨俱行 答初唯喜俱行餘通喜樂捨  
 0710521 俱行  
 0710522 問此諸現觀幾是壞對治幾是 断對  
 0710523 治幾是持對治幾是 遠分對治 答二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五 福  
 0710601 唯壞對治一通 断持 遠分對治一通  
 0710602 持 遠分對治二非對治  
 0710603 問此諸現觀幾是諸纏制伏對治幾  
 0710604 是隨眠永害對治 答三是諸 纏制伏  
 0710605 對治一俱對治二俱非對治  
 0710606 問此諸現觀幾是地地軟中上品煩

0710607 斷對治答一餘隨順此為此助伴  
0710608 非斷對治  
0710609 問六現觀得九遍知謂欲繫見苦集斷  
0710610 斷煩斷故立初遍知色无色繫見  
0710611 苦集斷斷煩斷故立第二遍知欲  
0710612 繫見滅斷斷煩斷故立第三遍知  
0710613 色无色繫見滅斷斷煩斷故立第  
0710614 四遍知欲繫見道斷斷煩斷故立第  
0710615 五遍知色无色繫見道斷斷煩斷故  
0710616 立第六遍知下分結斷故立第七遍  
0710617 知色貪斷故立第八遍知無色貪斷  
0710618 故立第九遍知此六現觀誰得幾遍  
0710619 知果答一得九遍知果餘不得彼果  
0710620 問此諸現觀能為煩斷對治者為  
0710621 生已作斷對治耶為未生耶答此非  
0710622 未生雖言生已而非後時當知煩斷  
0710623 斷時對治生時平等平等即於尔時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六張 福

0710701 假施設說對治生已諸煩斷問  
0710702 此諸現觀誰得幾果答一得一切四果  
0710703 一得圓滿沙門果時餘是得一助伴  
0710704 是得前行問是諸現觀幾能轉根答  
0710705 除一餘一切  
0710706 問是諸現觀幾能引發諸神通等殊  
0710707 勝功德答除一餘一切  
0710708 問思現觀當言作何業乃至究竟現  
0710709 觀當言作何業答思現觀當言能生  
0710710 正行斷攝清淨品善法為業能生无  
0710711 罪歡喜為業能轉一切斷疑為業能  
0710712 趣入修功德為業能引斷餘現觀為  
0710713 業能往一切善趣為業信現觀由意  
0710714 樂故於三寶中能生不動勝解為業  
0710715 正行清淨為業一分能往善趣為業  
0710716 戒現觀解脫惡趣眾苦為業現觀智  
0710717 諦現觀能得一切沙門果為業能引

0710718 發一切功德清淨為業能引斷餘現  
0710719 觀為業能於善趣助感光淨果及異  
0710720 熟為業現觀邊智諦現觀能於一切  
0710721 安立諦中間答善巧為業速疾通慧  
0710722 為業能引此後現觀為業究竟現觀  
0710723 能引第一現法樂住為業解脫一切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七張 福

0710801 生死大苦為業住持寂後身為業問  
0710802 思現觀有幾種乃至究竟現觀有幾  
0710803 種答思現觀當知有無量種謂契經  
0710804 思應誦思記別思乃至方廣未曾有  
0710805 法論議思苦思集滅道思真如實際  
0710806 法界思蘊界處等思聲聞乘等思大  
0710807 乘思如是等類當知差別有無量思  
0710808 信現觀亦無量種謂正憶念過去無  
0710809 量三藐三佛陀及彼法彼僧如於過  
0710810 去未來現在亦亦又正憶念此世界  
0710811 中及餘十方無量世界所有如來及  
0710812 彼法彼僧隨正憶念有亦所量亦有  
0710813 亦所信現觀體品數差別戒現觀亦  
0710814 無量種謂隨遠離十種不善性罪業  
0710815 道差別多種又隨相續亦有多種謂  
0710816 預流身乃至阿羅漢身獨覺菩薩如  
0710817 來身等無量差別現觀智諦現觀亦  
0710818 無量種謂念住正斷神足根力覺支  
0710819 道支等菩提分法無量差別如現觀  
0710820 智諦現觀當知現觀邊智諦現觀究  
0710821 竟現觀亦亦問此諸現觀由如是名  
0710822 由如是言斷安立故當言是彼自性  
0710823 當言非彼自性耶答世俗說故當言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八張 福

0710901 是彼自性第一義故當言非彼自性  
0710902 何以故一切法義法亦不可說故  
0710903 問思現觀何因何果如是乃至究竟  
0710904 現觀何因何果答思現觀以佛出世  
0710905 親近善士聽聞正法相續成熟如理



0710906 作意為因以<sup>所</sup>作業為果如思現觀  
 0710907 一切現觀當知亦<sup>亦</sup>此中差別者信  
 0710908 現觀亦以餘現觀為因戒現觀亦<sup>亦</sup>  
 0710909 現觀智諦現觀亦以思現觀為因亦  
 0710910 以順決擇分善根為因<sup>亦</sup>以自種姓  
 0710911 為因現觀邊智諦現觀亦以現觀智  
 0710912 諦現觀為因究竟現觀亦<sup>亦</sup>  
 0710913 問六現觀七作意謂了相等為六現  
 0710914 觀攝七作意為七作意攝六現觀耶  
 0710915 <sup>答</sup>二現觀非作意攝一現觀攝樂作  
 0710916 意攝一現觀攝樂作意觀察作意攝  
 0710917 一現觀<sup>遠</sup>離作意攝樂作意加行究  
 0710918 竟作意攝一現觀加行究竟果作意  
 0710919 攝餘作意當知是現觀等流攝非現  
 0710920 觀攝謂了相作意勝解作意  
 0710921 問<sup>无</sup>邊際智及順決擇分善根何現觀  
 0710922 攝<sup>答</sup>非諸現觀攝當知是現觀等流  
 0710923 問諸思現觀亦信現觀耶設信現觀  
 0711001 亦思現觀耶<sup>答</sup>應作四句<sup>或</sup>有思現  
 0711002 觀非信現觀謂除緣寶決定思諸餘  
 0711003 緣決定思<sup>或</sup>有信現觀非思現觀謂  
 0711004 緣寶聞修<sup>所</sup>成信<sup>或</sup>有思現觀亦信  
 0711005 現觀謂緣寶決定思除上<sup>亦</sup><sup>所</sup>相是  
 0711006 第四句由此道理應知<sup>所</sup>餘亦應作  
 0711007 四句復有無量一行順前句順後句  
 0711008 四句等道理依聲聞地決擇道理皆  
 0711009 當了知  
 0711010 復次慳之與垢合名慳垢由八種垢  
 0711011 污心相續能與其慳作安足<sup>處</sup>是故  
 0711012 說彼名為慳垢云何為八一於惠施  
 0711013 先不串習於現法中愛重財食二於  
 0711014 身命極重顧戀不顧後世三與慳者  
 0711015 恒共止住又隨順彼四見<sup>所</sup>施田<sup>无</sup>  
 0711016 勝功<sup>德</sup>及簡擇福田五於慈悲先不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九張 福

0711017 串習及於彼處不見勝德六以諸財  
 0711018 寶難可積集數習彼想故生懶惰及  
 0711019 與懈怠七執取於見及謂惠捨有彼  
 0711020 雜染八希求財寶而行惠施及迴向  
 0711021 於彼  
 0711022 復次有五種行名為調善一感財富  
 0711023 行二感善趣行三感無苦行四感自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十張 福  
 0711101 義行五感他義行感財富行者謂施  
 0711102 性福業事感善趣行者謂戒性福業  
 0711103 事感无苦行者謂修性福業事感自  
 0711104 義行者謂聲聞獨覺道感他義行者  
 0711105 謂菩薩道為得彼故應修五想一於  
 0711106 諸欲中修不淨想二於自身命修速  
 0711107 滅想三於欲界中修有怖想四於諸行  
 0711108 中修無常想五於諸衆生修哀愍想  
 0711109 復次當釋醍醐喻經云何了知契經  
 0711110 乃至論義謂略由五相一了知假名  
 0711111 故二了知攝受故三了知次第故四  
 0711112 了知聖教故五了知依處故云何了  
 0711113 知假名謂能了知差別法門名想施  
 0711114 設云何了知攝受謂能了知名身句  
 0711115 身文身由此宣說差別法門云何了  
 0711116 知次第謂能了知從此法門至彼法  
 0711117 門從此句至彼句所有次第云何了  
 0711118 知聖教謂能了知如是法門如來所  
 0711119 說或弟子說或在家說或出家說云  
 0711120 何了知依處謂能了知如是法門依  
 0711121 自利說如是法門依利他說如是法  
 0711122 門乃至為令天人利益安樂故說如是  
 0711123 名為略由五相了知契經乃至論義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十一張 福  
 0711201 云何了知彼彼語義亦由五相一了  
 0711202 知緣起故二了知句差別故三了知  
 0711203 次第故四了知道理故五了知略義  
 0711204 故云何了知緣起謂能了知一分所

0711205 化應示現義乃至一分**所**化應慶喜  
0711206 義云何了知句差別謂能了知異門  
0711207 異相訓釋言詞品類差別云何了知  
0711208 次第謂能了知解釋次第成立次第  
0711209 圓滿次第云何了知道理謂能了知  
0711210 四種道理一觀待道理二證成道理  
0711211 三作用道理四法**尔**道理云何了知  
0711212 略義謂能了知此是蘊相應語此是  
0711213 界**處**緣起**處**非**處**諦相應語此是念  
0711214 住等相應語乃至此是八聖支道相  
0711215 應語此是業相應語此是煩**惱**相應  
0711216 語此是增上戒等學相應語復次云  
0711217 何知時謂由五相故一通達正現在  
0711218 前雜染故二通達將現在前雜染故  
0711219 三通達不染污位故四等起對治作  
0711220 意故五對治作意故  
0711221 復次云何知量謂於**所**食**所**飲**所**噉  
0711222 乃至廣說當知此中略說二種**斷**隨  
0711223 順性一任持隨順性二精進隨順性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十二而張 福  
0711301 任持隨順性者謂於**所**食**所**飲**所**噉  
0711302 **所**嘗善知其量精進隨順性者謂於  
0711303 若行若住乃至廣說善知其量此中  
0711304 云何於**所**食等善知其量謂於受取  
0711305 及受用中皆善知量於受取中善知  
0711306 量者謂於此時應受**從**此應受此**所**  
0711307 應受齊此應受何時應受謂日初分  
0711308 即於此時為受用故**從**何應受謂除  
0711309 五種非**所**行**處**何**所**應受謂清淨物  
0711310 如**來****所**許除酒肉等**所**不應飲不應  
0711311 食物齊何應受謂知量而受勿令自  
0711312 損**或**損於他於受用中善知量者謂  
0711313 如**所**受於此時中應可受用於何時  
0711314 中應可受用謂如前說日之初分是  
0711315 受用時於何**處****所**應可受用謂於好

0711316 處或居道場或在聚落何所應受用  
0711317 謂如前說清淨物等齊何應受用謂  
0711318 善知量應可受用勿令飢渴勿不順  
0711319 斷勿令諸界起不平等云何於勤精  
0711320 進善知其量謂於此時此處此事齊  
0711321 此應勤精進於何等時應勤精進謂  
0711322 於應行時而行乃至於應解睡眠時  
0711323 而解睡眠於何處所應勤精進謂於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十三張 福

0711401 閑林或在道場或居內院或經行處  
0711402 應修精進於何等事應修精進謂應  
0711403 勤行勤住乃至勤解睡眠勞倦齊何  
0711404 應修所有精進謂善知量而修精進  
0711405 勿因此故太沈太舉  
0711406 復次云何善知剎帝利衆謂善了知  
0711407 剎帝利衆如是名如是種如是姓如  
0711408 是食乃至如是壽量邊際如是乃至  
0711409 善知長者居士等衆云何善知諸沙  
0711410 門衆謂能善知彼如是名此是少年  
0711411 此是長年此是耆年此持經者乃至  
0711412 此是能持論者善知此是瑜伽師等  
0711413 復次云何善知我於是中應當往詣  
0711414 乃至應默謂若略說為此應往乃至  
0711415 應默及如此應往乃至應默何所為  
0711416 故詣在家衆乃至應默謂為乞求資  
0711417 生衆具或復為令未信者信信者增  
0711418 長或為慰問遭重疾病受衆苦者或  
0711419 為開解諸愁憂者或為和好展轉怨  
0711420 對互相違者或為隨順他所作事或  
0711421 復為他之所勸請或為隨從軌範親  
0711422 教同梵行者或為經營僧所作事是  
0711423 故應往乃至應默云何了知應如是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十四張 福

0711501 往謂如聲聞地已說其相云何了知  
0711502 應如是住謂往詣已不應即入至內  
0711503 門側伏慢而住或無疑慮徐入其家

0711504 至相見處從容而住先言慰問含笑  
0711505 開顏遠離嘖蹙方申愛語云何了知  
0711506 應如是坐謂佛開許隨其所有如法  
0711507 之座以正威儀端嚴而坐云何了知  
0711508 應如是語謂善了知如時如理如量  
0711509 寂靜質直而語時有三種一者樂聞  
0711510 非不樂聞不樂聞者謂如有一或飢  
0711511 或渴或身疲倦或風熱等之所逼惱  
0711512 是名初時二者安住如法威儀非非威  
0711513 儀或復有一雖樂欲聞非威儀住非  
0711514 威儀者謂不應立為坐者說除彼重  
0711515 病如別解脫經廣說其相是第二時  
0711516 三者其心无有染惱非染惱心染惱  
0711517 心者謂如有一其心忽遽於彼彼事  
0711518 增上勤劬或荒或乱或復渾濁或他  
0711519 僕使或作業者或復煞者敵者怨者  
0711520 是第三時理有三種謂有求請如法  
0711521 求請如量求請方為宣說如法為說  
0711522 有義利說由三種相當知如量一不  
0711523 乱不雜而有所說二圓滿文句宣說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十五張 福  
0711601 諸法三凡有所宣說言詞不重謂不重  
0711602 說所有言詞若諸語言无用非義尚  
0711603 不少說何況多說當知寂靜亦有三  
0711604 種一威儀寂靜二言音寂靜三其心  
0711605 寂靜威儀寂靜者謂諸根寂靜無有  
0711606 躁擾亦不高舉支節不動而有所說  
0711607 言音寂靜者謂有所說聲不太高亦  
0711608 不太急心寂靜者謂雖觸惱亦不生  
0711609 憤而有所說況不觸惱又无染心而  
0711610 有所說又質直語亦有三種謂如時  
0711611 語時乃至寂靜語時或由宿習方便  
0711612 任性而語或由現法串習加行作意  
0711613 而語或由愛樂學處以思擇力而自  
0711614 制伏方有所說於一切时无有虛誑

0711615 若隱若顯所言无二云何了知應默  
0711616 謂善了知於五時中應當默然一者  
0711617 說者正說語時若彼聽者故作異言  
0711618 現相誼乱尔時說者宜當默然二者  
0711619 說者正說語時若彼聽者撥言且止  
0711620 吾不欲聞尔時說者宜當默然三者  
0711621 說者正說語時若彼聽者於說者所  
0711622 起求過心發違諍言現相乖背尔時  
0711623 說者宜當默然四者施主以衣食等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十六張 福

0711701 來相屈請尔時受者宜當默然而許  
0711702 可之五者若有敵論者來現相較論  
0711703 尔時論者宜當默然聽其言說  
0711704 復次且由三相應自了知己所有信  
0711705 乃至是善男子一由依處故二由自  
0711706 性故三由時分故云何由依處故了  
0711707 知己信謂如實知若事是信之所依  
0711708 處信緣彼生當知彼事決定是我信  
0711709 所依處云何由自性故了知己信謂  
0711710 如實知軟中上品已所有信云何由  
0711711 時分故了知己信謂如實知我於某  
0711712 時已得是信如了知信如是戒等辯  
0711713 等為後皆當了知此中信是趣入支  
0711714 戒是入已奢摩他支聞是毘鉢舍那  
0711715 支捨是奢摩他毘鉢舍那資糧支內  
0711716 思所成慧及他隨順教授教誡是能  
0711717 攝受奢摩他毘鉢舍那支依止此故  
0711718 證奢摩他毘鉢舍那及能證得諸沙  
0711719 門果於自所證諸深細義若有欲加  
0711720 而生疑惑為斷疑故如自所證為彼  
0711721 宣說又為降伏諸敵論者故須有辯  
0711722 於他身語邪行起時須有忍辱柔和  
0711723 所攝善男子性復次由三因緣發生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十七張 福

0711801 不信一由不正知三寶功德故二行外  
0711802 道見故三未遇諸佛及聖弟子三種

0711803 神變隨其一種**所**調伏故  
 0711804 復次由三因緣不能數**往**寂靜園林  
 0711805 一放逸懈怠**所**拘執故二多事業故  
 0711806 三信順人故  
 0711807 復次由三因緣為性不好造詣於他  
 0711808 一性**无**畏故二性**高**慢故三依文字  
 0711809 故由三因緣為性不好親近於他一  
 0711810 性不黠利故二性非福田故三**无**極  
 0711811 欲樂故由三因緣為性不好請問於  
 0711812 他一於法不善故二於義不善故三  
 0711813 於二俱不善故由三因緣不能審聽  
 0711814 一多尋伺故二多物務故三多諸**盖**  
 0711815 纏雜染心故由三因緣為性不能決  
 0711816 定任持一不聽聞故二**惡**聽聞故三  
 0711817 覆慧勝慧故由三因緣為性不能觀  
 0711818 察諸法一樂著戲論故二愛居**憒**  
 0711819 故三不成**就**審察慧故由三因緣  
 0711820 為性不能法隨法行一由顧惜身命  
 0711821 二由即彼增上力故樂著利養三由  
 0711822 樂著恭敬由三因緣不樂修行利他  
 0711823 之行一性是下劣種姓故二悲微薄  
 0711901 故三無勢力故如是白品與上相違  
 0711902 應知其相  
 0711903 復次諸聖弟子非一衆多種種遊觀  
 0711904 其事可得**所**謂河濱遊觀山谷遊觀  
 0711905 鬼趣遊觀如是等類種種遊觀其事  
 0711906 可得問何因緣故諸大聲聞已得神  
 0711907 通乃**往**鬼趣詰問諸鬼自先業報為  
 0711908 為除自疑故為為饒益衆生故若為  
 0711909 除自疑者已得神通不應道理若為  
 0711910 饒益衆生者當說云何饒益衆生**答**  
 0711911 為饒益衆生故謂欲饒益此諸餓鬼  
 0711912 及餘衆生何以故由神通力令諸餓  
 0711913 鬼憶念宿世自說先身**所**作**惡**業深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十八張 福

0711914 生厭悔因為說法便能領悟由此因  
 0711915 緣速離鬼趣如是說名饒益諸鬼已  
 0711916 得神通諸大聲聞聞彼所說種種所惡  
 0711917 受不可愛果先世惡業乃還人間展  
 0711918 轉宣告他既聞已心生厭患斷惡修  
 0711919 善如是說名利餘衆生  
 0711920 復次由六種相當知欲行諸色名僿  
 0711921 云何六相說彼名僿一衆多故僿二  
 0711922 沈重故僿三不淨故僿四堅強故僿  
 0711923 五變壞故僿六不隨心轉故僿於此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十九張 福

0712001 地中餘決擇文更不復現又獨覺地  
 0712002 諸決擇文亦不復現  
 0712003  
 0712004 瑜伽師地論卷第七十一  
 0712005  
 0712006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  
 0712007 勅雕造

瑜伽師地論第七十一卷 第二十張 福

## ○ 지정사례

현재 大藏都監版本의 『瑜伽師地論』은 권20(국립한글박물관), 권42(원각사), 권55(국립중앙박물관), 권64(국립중앙박물관) 등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玄奘 譯, 『瑜伽師地論』 卷71. 木版本. [高麗] : [大藏都監], [高麗 高宗 33(1246) 雕造]. 永川歷史文化博物館所藏本.
- 玄奘 譯, 『瑜伽師地論』 卷20. 木版本. [高麗] : [大藏都監], [高麗 高宗 33(1246) 雕造]. 國立한글博物館所藏本.
- 玄奘 譯, 『瑜伽師地論』 卷42. 木版本. [高麗] : [大藏都監], [高麗 高宗 34(1247) 雕造]. 圓覺寺聖寶博物館所藏本.
- 玄奘 譯, 『瑜伽師地論』 卷55. 木版本. [高麗] : [大藏都監], [高麗 高宗 34(1247) 雕造]. 國立中央博物館所藏本.
- 玄奘 譯, 『瑜伽師地論』 卷64. 木版本. [高麗] : [大藏都監], [高麗 高宗 33(1246) 雕造]. 國立中央博物館所藏本.



- 경상북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상북도, 2023.
- 경상북도지사, 「의견서」, 경상북도, 2020.
- 장인진·리송재, 『유가사지론 권71 조사 보고서』, 2017.
-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 「2020 도문화재위원회 회의결과-동산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심의의결서」, 경상북도, 2020.
- 영천역사박물관, 「영천역사박물관 소장 유물 소견서」, 영천시, 2017.
- 영천역사박물관, 「유물 기증서」, 영천시, 2017.
- 영천역사박물관, 「소장경위서」, 영천시, 2017.
- 영천역사박물관, 「소장경위서」 및 「인우 보증서」, 영천시, 2017.
- 尹炳泰 編, 『韓國古書整理法研究』, 서울시 : 利久出版社, 1983.
-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시 : 汎友社, 1990.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역경원: <http://www.tripitaka.or.kr>
- 원각사정보박물관: <http://www.wongaksa.or.kr/sungbo>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 ○ 현 상

### <書誌 事項>

瑜伽師地論. 卷71 / 彌勒菩薩 說 ; 玄奘(602~664, 唐朝) 奉詔譯. -- 木版本. -- [高麗] : [大藏都監], [高麗 高宗 33(1246) 雕造, 後刷 推定].

1卷1軸(20張) : 上下單邊, 每板葉 29.2~50.1cm 內外, 匡高 22.2cm, 無界, 全葉 23行 14字 內外, 註雙行, 無魚尾 ; 29.2×1000.8cm. 韓紙. 卷子裝.

表 題: 瑜伽師地論. (墨書).

卷首題: 瑜伽師地論.

版心題: 瑜伽師地論.

卷尾題: 瑜伽師地論.

函 次: '福'.

內 容: 瑜伽師地論 卷71[20張].

刊 記: 丙午(1246, 고려 고종 33)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卷尾).

### <現狀>

지정신청본 『瑜伽師地論』 권71은 기증자 지봉 스님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소장하다가 영천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라 전한다.

책은 일부분 누습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은 배접과 보수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표제의 일부와 본문 전반부 1~5장의 일부 훼손된 필획도 보사되었다. 더욱이 배접과 보수를 거치면서 지면과 목의 색상이 변색된 상태이다.



### ○ 내용 및 특징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은 5세기 무렵에 인도의 논사 미륵(彌勒)이 저술하고 7세기 중엽에 당조의 학승인 현장(玄奘, 602~664)이 번역한 100권본이다. 법상종(法相宗)의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서 유식학과 유식 불교의 실천 사상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경전으로 이해되었다.

이 경전은 유가행자(瑜伽行者)로서 관찰하고 믿고 이해하여야 할 대상을 뜻하는 경(境)과 그러한 관찰과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해야 할 수행을 뜻하는 행(行) 및 그러한 수행을 통하여 증득(證得)되는 과보를 뜻하는 과(果)에 관하여 자세히 논설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식유가행과의 근본 교의인 아뢰야식설(阿賴耶識說)·삼성설(三性說)·삼무성설(三無性說)·유식설(唯識說) 등에 관하여도 상세히 논설하고 있다.

또한 불교 유심론(唯心論)의 관점에서 윤회의 세계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도의 수양, 이러한 수양으로 도달한다는 이상적인 경지로서의 열반 등에 관하여도 논설하고 있다.

『유가사지론』 100권의 내용은 크게 「본지분(本地分)」(권1~50), 「섭결택분(攝決擇分)」(권51~80), 「섭택분(攝釋分)」(권81~82), 「섭이문분(攝異門分)」(권83~84), 「섭사분(攝事分)」(권85~100) 등 5개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으로부터 제50권에 이

르는 「본지분」에서는 『유가사지론』의 기본적인 17地를 설명하고 있다. 제1지에서는 사람의 감각을 논설하고 제2지에서는 의식을 논설하고 있으며, 제3~5地에서는 윤회의 세계를 논설하고 제6~12지에서는 불도의 수양에 관한 일반을 논설하고 있다. 제13~15지에서는 성문승(聲聞乘)·독각승(獨覺乘)·보살승(菩薩乘) 등 삼승(三乘)의 수양에 관하여 논설하고 있으며, 제16~17지에서는 이러한 수양으로 도달하는 이상적인 열반(涅槃)에 관하여 논설하고 있다.

『유가사지론』의 주석서로는 현장의 『유가사지론석(瑜伽師地論釋)』, 당 규기(窺基, 632~682)의 『유가사지론약찬(瑜伽師地論略纂)』 및 신라 둔륜(遁倫; 道倫, 650~730)의 『유가론기(瑜伽論記)』, 원효(元曉, 617~686)의 『유가사지론소(瑜伽師地論疏)』, 태현(大賢, ?~?)의 『유가론찬요(瑜伽論纂要)』 등 여러 논소가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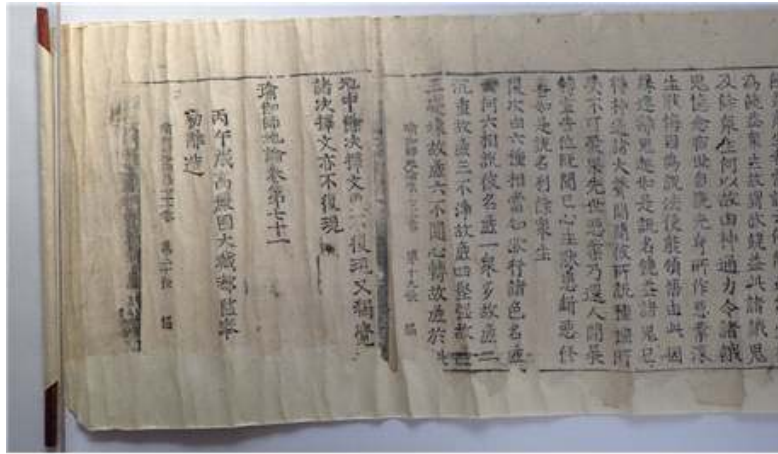
조사본 『유가사지론』 권71은 전체 100권 가운데 ‘攝決擇分 聲聞地 5’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 경전은 고려 고종 33년(1246)에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조조한 경판에서 인출된 것으로 1卷(20張) 1軸의 零本이다.

表題를 비롯한 卷首題·版心題·卷尾題 등은 모두 ‘瑜伽師地論’이며, 函次는 ‘福’이다. 권두의 제1행에는 ‘瑜伽師地論卷第七十一’의 經名과 ‘福’의 函次가 있으며, 제2행과 제3행은 小字로 ‘彌勒菩薩說’과 ‘三藏法師玄奘奉詔譯’라고 하는 설법자와 역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每板葉은 29.2~50.1cm 内外의 크기이며, 上下單邊의 欄高는 22.2cm 内外이다. 1판의 行字數는 23행14자 内外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조사본의 卷尾에는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의 간기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려 고종 33년(1246)에 大藏都監에서 雕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사본은 상·하란(제1장 제17행의 하란 등) 및 글자의 일부(제1장 제18행 제9자 一자 등)에서 마모·훼손된 흔적과 함께 나무결(木理)의 흔적 등이 선명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목판이 조성된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 인출하였다고 판단된다.

#### ○ 지정사례

- 보물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2016.01.07.지정/국립한글박물관)
- 보물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2010.08.25.지정/원각사)
- 보물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55(1988.12.28.지정/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64(1988.12.28.지정/국립중앙박물관)

#### ○ 참고문헌

-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 「2020 도문화재위원회 회의결과-동산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심의의결서」, 경상북도, 2020.
- 영천역사박물관, 「영천역사박물관 소장 유물 소견서」, 영천시, 2017.

### 13. 불조삼경 (佛祖三經)

#### 가. 검토사항

‘불조삼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불조삼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8.3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3.28.)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불조삼경(佛祖三經)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67, 석왕사
- 수 량 : 1책(합철본, 41장)
- 규 격 : 24.9×17.7cm(半郭: 20.0×14.9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361년(공민왕 10)



<불조삼경>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指定 價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圓嶽寺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고려시대 판각 인쇄술을 비롯하여 불교학과 서지학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나아가 이미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구 삼성미술관 리움)과 운흥사의 소장본보다도 인쇄가 선명할 뿐 아니라, 손·훼손의 정도에서도 완전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根據 基準>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圓嶽寺에서 간행된 지정신청본과 동일한 판본인 국립중앙박물관(구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본과 운흥사 소장본의 『佛祖三經』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불조삼경』은 한국에만 전하며, 현재 전해지는 대부분의 『불조삼경』도 몽산본의 계통을 잇고 있다. 국내에서는 1341년에 소백산 정각사에서 개판한 판본이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정신청본 『불조삼경』은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전

주 원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현재 이와 동일한 판본 2종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신청본은 기 지정본보다 내용이 온전하고 보존 상태가 좋은 선본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로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불조삼경』은 元朝의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恭愍王 10년(1361)에 全州의 圓嶺寺에서 간행된 1책 41장의 목판본으로 『불설사십이장경』·『불유교경』·『위산경책』의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구성은 가장 앞부분에 至元 丙戌(1286)년에 몽산 덕이가 지은 「叙」(2장)를 시작으로 『불설사십이장경』(12장), 宋 眞宗의 「대송진종황제주유교경서(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序)」(1장)와 『불유교경』(12장), 장수(張銖)의 「주위산경책서(注瀕山警策序)」(1장)와 『위산경책』 및 간행질(12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지정된 자료는 2건(국립중앙박물관 및 운흥사)이 전한다. 조사본은 기지정본에 비하여 인쇄 상태도 좋고, 보존상태도 우월하다. 또한 조사본에 비하여 시대적으로 늦은 1384년 간행된 판본 역시 3건(국립중앙박물관, 한솔종이박물관, 범어사)이 있다.

따라서 조사본은 고려시대 판각 인쇄술을 비롯하여 불교학과 서지학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 ○ 현 상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書誌 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 <書誌 記述>

佛祖三經 / 迦葉摩騰(後漢), 法蘭(後漢) 同譯 ; 守遂(宋) 註. -- 木版本. -- [高麗] : [全州 圓嶺寺], 恭愍王 10(1361).

1冊(41張) : 四周單邊, 半郭 20.0×14.9cm 內外, 無界, 8行17字 內外, 註雙行, 白口, 上內向黑魚尾 ; 24.9×17.7cm. 韓紙. 線裝(改裝).

標目: 書誌記述法에 따라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을 統一 書名인 ‘佛祖三經’으로 標目함

表題: 佛說四十二章經 (題簽).

卷首題: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

版心題: 四十二章經, 遺經, 滄山.

卷尾題: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

譯註者: 佛說四十二章經(後漢迦葉摩騰竺法蘭同譯 ; 鄖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註), 佛遺教經(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詔譯 ; 鄖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註), 滄山警策(大洪嗣祖沙門守遂註).

內容: 叙(德異, 2張), 佛說四十二章經(13張),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1張), 佛遺教經(12張), 注滄山警策序(1張), 滄山警策, 刊行秩(12張).

口訣: 墨書.

序文: [佛說四十二章經序]; 道無今古人有悟迷是故釋迦老人承」願力示現自鹿野苑至跋提河三百餘」會言無言言開示人天令各悟入佛之知」見惟四十二章經遺教經者是始終教誡」法寶也後漢永平間迦葉摩騰竺法蘭持」前一經東來焚驗有靈立教興宗梁大通」問又得西天二十八世祖達磨大師傳佛心印」前來直指與經符契是我此土人有大乘」根器而有幸也可大師者立雪斷臂求」問妙道言下有悟執侍數載三拜得髓」授受衣盂七傳而至百丈百丈得靈藥運」公滄山祐公大振玄風增輝佛日滄山因」見學者少有放逸遂述法語警其未悟」策其未到文簡語直義博意深叢林中」以四十二章經遺教經滄山警策謂之佛」祖三經能一覽而直前者不歷多生便」可成佛作祖宣和間又得遂禪師直註深」義初學易通妙矣哉自此有志於道者」省力甚多不壞香而見佛祖不動步而登」覺場今靜山慧大師抽衣資鉸梓于吳中」休休庵以廣其傳奇哉以財鉸梓名財施」以經傳法名法施財法二施名大施佛云能行」大施者決澄菩提靜山將來種智圓明十」號俱彰因此勝緣也覽斯經者却宜淨心」如虛空向未開卷以前着眼掀翻窠臼洞」徹玄微挽回眞風大興末運若也見義勇」為將來亦可成器其或循行數墨辜負」佛祖多矣至元丙戌(1286)燈節絕牧叟德異 叙. 【牧叟】 【蒙山】 (佛說四十二章經經』 頭部)

序文: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 夫道非遠人教本無類雖蠢動之形各異而」常樂之性斯同由愛欲之紛綸致輪迴之增」長是以迦維之聖出世而流慈舍衛之區」隨機而演法既含靈而悉度將順俗以歸眞」猶於雙樹之間普告大乘之衆示五根之可」



戒問四諦之所疑期法奧之宣揚俾衆心而」 堅固大悲之念斯謂至乎朕祇嗣慶基  
顧」 慚涼德常遵先訓庶導秘詮因覽此經每」 懷欽奉冀流通而有益因注解以斯  
形雖寡」 昧以難精幸覃研而克就仍俾鏤於方板所」 期貽厥庶邦凡在羣倫勉同  
歸向云爾. (『佛遺教經』 頭部)

序 文: 注瀉山警策序; 左朝奉大夫新廣南東路轉運判官張銖撰」 自六祖而下有五派瀉  
仰居其一惜乎其後」 不得其傳然其法則傳萬世而無弊不以人」 爲存亡瀉山之  
警策是以夫警策之行於世」 尚矣學者每患其辭雖顯而其義則難窮字」 有舛錯  
而久未能辯不有宗師大匠安能發」 揚其義而校正其舛錯乎大洪淨嚴禪師禪」  
學冠世每因暇日游戲筆硯已未安居因學」 者請益遂爲之註解其義坦然明白字  
之舛」 錯者又從而校正之晚學後進有所矜式俾」 瀉山二百年湮沒之迹一旦光  
輝著見因以」 傳無窮而施罔極固不遑歎門人史德賢欲」 鏤板以廣其傳余嘉其  
志輒爲之序而冠于」 篇首紹興九年(1139)十二月旦日謹序. (『瀉山警策』 頭部)

刊行秩: 右三經乃」 吾邊不然對面千里苟力行之則豈」 可以佛前佛後爲難也如或稱佛子  
」 而不依是則惜乎其將何以比之耶」 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  
嶺寺流益永祀者發願比丘 行心 誌」 同願比丘 法空 刊行」 助緣居士 尹善  
圖. (卷末)

刊 記: 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嶺寺流益永祀者.

現 狀: 일부분 부분 배접과 보수를 거친 듯하며, 본문 전체에 걸쳐 閱讀者가 목  
서한 口訣이 있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듯하다.

所藏歷: 석왕사의 회주 영담(임학규) 선사가 은사 고산 혜원 선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함

既指定: 현재 신청본과 동일한 판본 2건(국립중앙박물관, 운흥사)이 국가지정문화  
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보다 늦은 1384년판(국립중앙박물관, 한솔종이박  
물관, 범어사)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現狀>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일부분 배접과 보수를 거친 듯하며, 본문 전체에 걸쳐  
閱讀者가 목서한 口訣이 있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듯하다.

## ○ 내용 및 특징

『佛祖三經』은 중국 元朝의 高僧인 蒙山 德異(1231~1308) 禪師가 釋迦와 祖師가  
說法한 3가지의 경전을 결집한 佛書이다.

『佛說四十二章經』은 석가가 成道한 뒤에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으로 불교가 인도  
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가장 먼저 번역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교를 알고  
자 하는 이들과 불교에 입문하여 체계적으로 교리를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이 먼저

읽어야 하는 경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설사십이장경』의 42章 전체의 내용은 (01)出家證果, (02)斷欲絕求, (03)割愛去貪, (04)善惡並明, (05)轉重令輕, (06)忍惡無瞋, (07)惡還本身, (08)塵唾自汚, (09)返本會道, (10)喜施獲福, (11)施飯轉勝, (12)舉難勸修, (13)問道宿命, (14)請問善大, (15)請問力明, (16)捨愛得道, (17)明來暗謝, (18)念等本空, (19)假眞並觀, (20)推我本空, (21)名聲喪本, (22)財色招苦, (23)妻子甚獄, (24)色欲障道, (25)欲火燒身, (26)天魔嬈佛, (27)無著得道, (28)意馬莫縱, (29)正觀敵色, (30)欲火遠離, (31)心寂欲除, (32)我空怖滅, (33)智明破魔, (34)處中得道, (35)垢淨明存, (36)輾轉獲勝, (37)念戒近道, (38)生卽有滅, (39)教誨無差, (40)行道在心, (41)直心出欲, (42)達世如幻 등이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간명하게 설명하여 예로부터 널리 읽혀 주석서나 연구서도 비교적 많은 편이며, 禪宗에서는 『佛祖三經』의 하나로 여겨 왔다.

『佛遺教經』은 ‘가르침을 남기는 경전’이라는 의미로 釋迦가 成道한지 40여 년 동안의 교화를 마치고 拘尸那城 밖의 娑羅雙樹 사이에서 涅槃에 들러 할 때 제자들을 위하여 남긴 최후의 警戒이자 마지막 說法이다. ‘『佛垂般涅槃教誡經』’, ‘『佛垂涅槃略誡經』’, ‘『佛臨涅槃略誡經』’이라고도 하며, 鳩摩羅什(344~413)이 한역하였다. 내용은 釋迦가 娑羅雙樹 아래에서 入滅할 것임을 밝히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였다. 우선 불교에서 수행자가 지켜야 할 戒律의 모든 조항을 모은 戒本인 波羅提木叉를 스승으로 삼아서 戒를 지키고 色欲·聲欲·香欲·味欲·觸欲 등 五欲을 삼가며, 靜寂을 구하고 定을 닦아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것을 당부하면서 최후의 가르침으로 해탈을 얻어 무명의 암흑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다. 이 경전은 釋迦의 入滅이라는 극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하여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간명하게 설명하여 예로부터 널리 읽혀 주석서나 연구서도 비교적 많은 편이며, 禪宗에서는 『佛祖三經』의 하나로 여겨왔다.

『滄山警策』은 중국 唐朝의 高僧이자 偽仰宗의 開創祖로 알려진 滄山 靈祐(779~853) 祖師의 語錄으로 ‘『滄山大圓禪師警策』’이라고도 하며, 당시 학인들이 점차 나태해지고 헛된 시간을 보내며 威儀를 지키지 않는 등의 弊風이 심해지자 이를 警策하여 수행의 正道를 갈 수 있게 설법한 것이다. 설법은 산문[長行]과 운문[重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결하면서도 간절하여 요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주석서로는 宋朝 守遂의 『滄山警策註』 1권을 비롯하여 明朝 道霈의 『滄山警策指南』 3권 및 開訶의 『滄山警策句釋記』 2권 등이 있다. 『滄山警策』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아울러 警策함으로써 禪宗에서는 『佛祖三經』의 하나로 여겨 왔다.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의 『佛祖三經』에는 불교의浩瀚한 내용이 간명하게 설명되어 있어 불교의 指針書로 널리 활용되었으며, 불교의 경전을 처음 접하는 初學者에게도 불교의 교훈적인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교를 널리 전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원조의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恭愍王 10년(1361)에 全州의 圓嶺寺에서 간행된 1책 41장의 목판본이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의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書誌記述法에 따라 統一 書名인 ‘佛祖三經’으로 標目하였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佛說四十二章經』의 경우 後漢朝의 迦葉摩騰과 竺法蘭이 漢譯한 것이고 『佛遺教經』은 姚秦朝의 鳩摩羅什의 漢역한 것이며 『滄山警策』은 滄山 靈祐(779~853)의 語錄이며, 이들 3종은 모두 宋朝의 守遂가 註釋한 것이다.

책의 구성은 至元 丙戌(1286)년에 蒙山和尚 德異가 지은 「叙」(2장)과 『佛說四十二章經』(12장), 宋 眞宗의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序」(1장)와 『불유교경』(12장), 張銖의 「注滄山警策序」(1장)과 『滄山警策』 및 「刊行秩」(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表題는 題簽에 ‘佛說四十二章經’으로 墨書되어 있고 卷首題와 卷尾題는 각각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이며, 版心題는 ‘四十二章經’·‘遺經’·‘滄山’이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版式의 變란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은 세로 20.0cm 가로 14.9cm 내외이며 계선은 없다. 本文의 行字數는 8行17字 내외이고 註文은 雙行이다. 판심의 版口는 白口이고 魚尾는 上內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24.9cm 가로 17.7cm이다. 지질은 韓紙이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佛說四十二章經』의 頭部에는 “道無今古人有悟迷是故釋迦老人承」 願力示現自鹿野苑至跋提河三百餘」 會言無言言開示人天令各悟入佛之知」 見惟四十二章經遺教經者是始終教誡」 法寶也後漢永平間迦葉摩騰竺法蘭持」 前一經東來焚驗有靈立教興宗梁大通」 間又得西天二十八世祖達磨大師傳佛心印」 前來直指與經符契是我此土人有大乘」 根器而有幸大可大師者立雪斷臂求」 問妙道言下有悟執侍數載三拜得髓」 授受衣盂七傳而至百丈百丈得靈蘂運」 公滄山祐公大振玄風增輝佛日滄山因」 見學者少有放逸遂述法語警其未悟」 策其未到文簡語直義博意深叢林中」 以四十二章經遺教經滄山警策謂之佛」 祖三經能一覽而直前者不歷多生便」 可成佛作祖宣和間又得遂禪師直註深」 義初學易通妙矣哉自此有志於道者」 省力甚多不壞香而見佛祖不動步而登」 覺場今靜山慧大師抽衣資鉞梓于吳中」 休休庵以廣其傳奇哉以財鉞梓名財施」 以經傳法名法施財法二施名大施佛云能行」 大施者決澄菩提靜山將來種智圓明十」 號俱彰因此勝緣也覽斯經者却宜淨心」 如虛空向未開卷以前着眼掀翻窠旧洞」 徹玄微挽回眞風大興末運若也見義勇」 爲將來亦可成器其或循行數墨辜負」 佛祖多矣至元丙戌(1286)燈節絕牧叟德異叙”의 「佛說四十二章經序」가 있고 『佛遺教經』의 頭部에는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 夫道非遠人教本無類雖蠢動之形各異而」 常樂之性斯同由愛欲之紛綸致輪迴之增」 長是以迦維之聖出世而流慈舍衛之區」 隨機而演法既含靈而悉度將順俗以歸眞」 猶於雙樹之間普告大乘之衆示五根之可」 戒問四

諦之所疑期法奧之宣揚俾衆心而」 堅固大悲之念斯謂至乎朕祇嗣慶基顧」 慚涼德常遵先訓庶導秘詮因覽此經每」 懷欽奉冀流通而有益因注解以斯形雖寡」 昧以難精幸覃研而克就仍俾鏤於方板所」 期貽厥庶邦凡在羣倫勉同歸向云爾”가 있으며, 『滄山警策』의 頭部에는 “左朝奉大夫新廣南東路轉運判官張銖撰」 自六祖而下有五派滄仰居其一惜乎其後」 不得其傳然其法則傳萬世而無弊不以人」 爲存亡滄山之警策是以夫警策之行於世」 尚矣學者每患其辭雖顯而其義則難窮字」 有舛錯而久未能辯不有宗師大匠安能發」 揚其義而校正其舛錯乎大洪淨嚴禪師禪」 學冠世每因暇日游戲筆硯已未安居因學」 者請益遂爲之註解其義坦然明白字之舛」 錯者又從而校正之晚學後進有所矜式俾」 滄山二百年湮沒之迹一旦光輝著見因以」 傳無窮而施罔極固不遑歎門人史德賢欲」 鏤板以廣其傳余嘉其志輒爲之序而冠于」 篇首紹興九年(1139)十二月旦日謹序”의 「注滄山警策序」가 있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의 권말에는 “右三經乃」 吾邊不然對面千里苟力行之則豈」 可以佛前佛後爲難也如或稱佛子」 而不依是則惜乎其將何以比之耶」 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 嵩寺流益永祀者發願比丘 行心 誌」 同願比丘 法空 刊行」 助緣居士 尹善 圖”의 「刊行秩」과 이어서 “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嵩寺流益永祀者”의 刊記와 留板處의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하여,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비구 行心이 발원하고 法空이 간행의 책임을 맡아 尹善 등의 도움으로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全州 圓嵩寺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佛祖三經』의 고려시대 판본은 宋·元板을 저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충혜왕 복위 2년(1341)에 小白山 正覺社에서 간행된 판본과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圓嵩寺에서 간행된 판본 및 우왕 10년(1384)에 간행된 판본 등이 있다.

## ○ 지정사례

『佛祖三經』의 고려시대 판본으로 현재 충혜왕 복위 2년(1341)의 正覺社 판본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圓嵩寺에서 간행된 판본 및 우왕 10년(1384)에 간행된 판본은 國家指定文化財 또는 地方의 有形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佛祖三經』의 고려시대 판본으로 공민왕 10년(1361)의 圓嵩寺 판본과 우왕 10년(1384)의 판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版式의 界線과 권말의 「跋文」 수록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佛祖三經』의 圓嵩寺 판본에는 版式에 界線이 없고 권말에 益大의 「跋文」이 없으나, 우왕 10년(1384)의 판본에는 版式에 界線이 있고 권말에 益大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圓嵩寺에서 간행된 판본으

로 이미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구 삼성미술관 리움)과 운흥사의 소장본보다도 인쇄가 선명할 뿐만 아니라, 손·훼손의 정도에서도 완전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표1. 『佛祖三經』의 指定文化財 現況(2023. 5. 31. 기준)>

연번	판본	간행시기	간행처	간행기록	지정현황	소장처	비고
1	목판본	충혜왕 복위 2년 (1341)	正覺社	辛巳(1341)正月日 小白山正覺社開板	비지정	개인	
2	목판본	공민왕 10년 (1361)	圓嶺寺	至正辛丑(1361)六月六日重刊 留全州圓嶺寺流益永祀者	보물	국립중앙 박물관	
					보물	운흥사	
					전남유형	보림사	
					비지정	석왕사	지정신청본
3	목판본	우왕 10년 (1384)	불명	목은 이색 발(1384년)	보물	국립중앙 박물관	
					보물	한솔종이 박물관	
					보물	범어사	
					보물	동학사	
					충북유형	구인사	
					충북유형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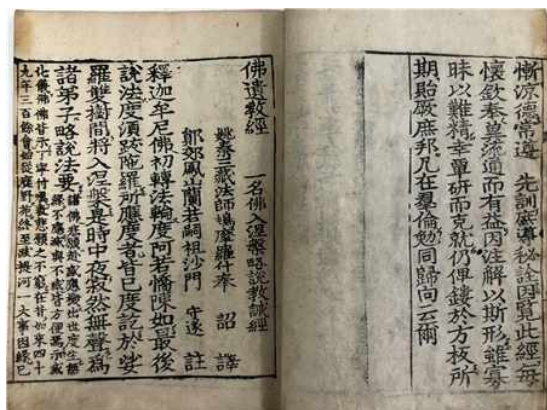
###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 [全州 圓嶺寺], 恭愍王 10(1361). 釋王寺 所藏本.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 [全州 圓嶺寺], 恭愍王 10(1361). 국립중앙박물관 所藏本.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 [全州 圓嶺寺], 恭愍王 10(1361). 雲興寺 所藏本.
- 迦葉摩騰·法蘭 同譯, 守遂 註, 『佛祖三經』. 木版本. [高麗] : [不明], [禩王 10(1384)年, 李穡 跋]. 梵魚寺 所藏本.
- 경기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기도, 2020.
-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유형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경기도, 2020.
- 박상국, 「불조삼경」 소견서, 2020.
- 박광현, 「불조삼경」 소견서, 2020.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dongguk.edu>

- 동국역경원: <http://www.tripitaka.or.kr>
- 원각사정보박물관: <http://www.wongaksa.or.kr/sungbo>
- 人名規範檢索: <https://authority.dila.edu.tw/person>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卷末部>



<刊行秩(1)>



<刊行秩(2)>



## ○ 현 상

대체로 온전함

## ○ 내용 및 특징

佛祖三經. / 守遜 註; 德異 編.

木板本.

全州: 圓嶺寺, 高麗 恭愍王 10(1361).

1冊: 四周單邊 半郭 20.0×14.9cm, 無界, 8行17字 註雙行, 上黑魚尾; 23.5×16.0cm.

[刊記]: 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嶺寺流益永祀者...同願比丘法空刊行.

敍: 至元丙戌(1286)燈節絕牧叟德異敍.

內容: 佛說四十二章經. - 佛遺教經. - 滄山警策.

석왕사 소장의 지정신청본 『불조삼경』은 원나라의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1298)가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 「불유교경(佛遺教經)」, 「위산경책(滄山警策)」을 편집하여 간행한 판본을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원암사(圓嶺寺)에서 번각한 목판본 1책이다.

“불조”는 부처와 조사(祖師), “삼경”은 3종의 경전을 일컫는다. 몽산은 그의 법호이며 덕이는 출가 후에 얻은 법명이다. 몽산은 그 외에도 고균비구(古筠比丘), 전산화상(澗山和尚), 휴휴암(休休庵), 절목수(絶牧叟) 등의 자호도 사용하였다. 수선사 10세인 고려의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은 몽산의 법을 고려에 유통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중국에서는 몽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으나 몽산의 저서인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尚法語略錄)』,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 『제경촬요(諸經撮要)』 등이 국내에서 간행 유통되는 등 그는 한국 불교의 간화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설사십이장경』은 후한시대 가섭마등(加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 등이 처음으로 한역한 경전으로 부처의 짧은 설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유교경』은 일명 『불입열반약설교계경(佛入涅槃略說教誡經)』이라고 하며 『유교경(遺教經)』으로 약칭한다. 내용은 부처가 열반 이전에 한 최후의 가르침이다. 『위산경책』은 위양종(滄仰宗)의 창시자인 위산(滄山) 영우(靈祐, 771~853)가 불도에 정진하는 이들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은 것이다. 앞의 2종은 중국 최초의 불경, 부처가 열반 직전에 남긴 최후의 불경이라는 시종(始終)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여기에 다 위양종의 개조인 위산의 어록을 수록하여 선가(禪家)의 포용성을 수용하고 있

다. 송나라의 수수(守遂, 1072~1147)가 이 3종의 불경에다 주석을 달았고, 원나라의 몽산 덕이가 편집하여 서(序)를 직접 붙인 것이 바로 『불조삼경』이다.

내용의 편성은 몽산 덕이의 서문, 「불설사십이장경」 본문, 「대종진종황제주유교경(太宗眞宗皇帝注遺教經)」, 「불유교경」 본문, 「주위산경책서(注滌山警策序)」, 「위산경책」 본문, 행심(行心)의 지(誌) 등 모두 4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불조삼경』의 「불설사십이장경」>



<지정신청본 『불조삼경』 표지>



<지정신청본 『불조삼경』의 「불유교경」>



<지정신청본 『불조삼경』의 「위산산책」>

권말에는 “1361년 6월에 중간하여 (목판을) 전주의 원암사에 두었으니 널리 유익하고 영원하기를 기원한다(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 留全州圓嶺寺, 流益永祀者).”는 발원자인 행심의 지문이 있다. 이어 동심 발원으로 간행에 참여한 법공(法空), 비용을 지원한 윤선(尹善) 등 간행을 주도한 인물들의 이름이 차례로 있다.

지정신청본의 앞표지에는 『佛說四十二章經』이라는 제침이 있는데, 오래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장책할 때 사용된 책사는 끊어져 없어졌으나 선장 형태의 윤곽은 명백하게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먹색은 진하며, 인쇄상태가 양호한 점으로 보아 판각 직후 또는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의 초기 인본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누습의 흔적이 있으며, 뒤쪽으로 갈수록 심해지나 본문의 손상은 없다.





<지정신청본 『불조삼경』의 권말에 있는 행심의誌>

뒤표지 면지의 내면에는 누가 언제 쓴 것인지 알 수 없는 “佛說一切法 湛然常寂滅 但信佛無言 可稱爲子期(부처님이 설하신 일체법은 湛然하여 항상 적멸하시니 다만 부처님이 말이 없음을 믿으면 가히 種子期<sup>298</sup>)라고 일컬을 수 있다.”라는 주서(朱書)가 있다. 이 내용은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설의(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說誼)』 권하 중에서 비설소설분(非說所說分) 제21의 설의에 있는 글이다.

현재 동일한 판본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유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1981-1)과 전라남도 나주의 운흥사 소장본(2012) 등 2부가 있다. 지정신청본은 기 지정본보다 내용이 온전하고, 보존 상태 역시 좋은 편이다.

○ 참고문헌

- 『불조삼경』(나주 운흥사 소장본)
- 『국가문화재 지정신청서』(경기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상백, 「『불조삼경』의 성립과 저본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35, 2012, pp.155~178.

□

○ 현 상

<書誌 事項>

佛祖三經 / 迦葉摩騰(後漢), 法蘭(後漢) 同譯 ; 守遂(宋) 註. -- 木版本. -- [高麗] : [全州 圓嶺寺], 恭愍王 10(1361).

298) 거문고 소리를 잘 알아듣는 知音者.

1冊(41張) : 四周單邊, 半郭 20.0×14.9cm 內外, 無界, 8行17字 內外, 註雙行, 白口, 上內向黑魚尾 ; 24.9×17.7cm. 韓紙. 線裝(改裝).

表 題: 佛說四十二章經 (題簽).

卷首題: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

版心題: 四十二章經, 遺經, 滄山.

卷尾題: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

譯註者: 佛祖四十二章經(後漢迦葉摩騰竺法蘭同譯 ; 鄖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註), 佛遺教經(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詔譯 ; 鄖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註), 滄山警策(大洪嗣祖沙門守遂註).

內 容: 叙(德異, 2張), 佛說四十二章經(13張),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1張), 佛遺教經(12張), 注滄山警策序(1張), 滄山警策, 刊行秩(12張).

刊 記: 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嶺寺流益永祀者.

### <現狀>

지정신청본 『佛祖三經』은 석왕사의 회주 영담(임학규) 선사가 은사이신 고산 혜원 선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전한다.

책은 기본적인 지류유물에 나타나는 손상은 보이거나 보존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 ○ 내용 및 특징

『불조삼경(佛祖三經)』은 중국 元朝의 고승인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1308) 선사가 석가와 조사가 설법한 3가지의 경전을 결집한 불서이다.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은 석가가 성도한 뒤에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가장 먼저 번역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교를 알고자 하는 이들과 불교에 입문하여 체계적으로 교리를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이 먼저 읽어야 하는 경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전 내용은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01)出家證果, (02)斷欲絕求, (03)割愛去貪, (04)善惡並明, (05)轉重令輕, (06)忍惡無瞋, (07)惡還本身, (08)塵唾自汚, (09)返本會道, (10)喜施獲福, (11)施飯轉勝, (12)舉難勸修, (13)問道宿命, (14)請問善大, (15)請問力明, (16)捨愛得道, (17)明來暗謝, (18)念等本空, (19)假眞並觀, (20)推我本空, (21)名聲喪本, (22)財色招苦, (23)妻子甚獄, (24)色欲障道, (25)欲火燒身, (26)天魔嬈佛, (27)無著得道, (28)意馬莫縱, (29)正觀敵色, (30)欲火遠離, (31)心寂欲除, (32)我空怖滅, (33)智明破魔, (34)處中得道, (35)垢淨明存, (36)輾轉獲勝, (37)念戒近道, (38)生卽有滅, (39)教誨無差, (40)行道在心, (41)直心出欲, (42)達世如幻 등이다.

『불유교경(佛遺教經)』은 ‘가르침을 남기는 경전’이라는 의미로 석가가 성도한지 40여년 동안의 교화를 마치고 열반에 들러 할 때 제자들을 위하여 남긴 최후의 경계(警戒)이자 마지막 설법이다. 이 경전은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한 것으로, 『불수반열반교계경(佛垂般涅槃教誡經)』, 『불수열반약계경(佛垂涅槃略誡經)』, 『불입열반약계경(佛臨涅槃略誡經)』이라고도 한다.

내용은 불교에서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의 모든 조항을 모은 계본(戒本)인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스승으로 삼아서 계를 지키고 色欲·聲欲·香欲·味欲·觸欲 등 五欲을 삼가며, 靜寂을 구하고 定을 닦아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것을 당부하면서 최후의 가르침으로 해탈을 얻어 무명의 암흑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위산경책(滄山警策)』은 중국 唐朝의 고승이자 위양종(僞仰宗)의 개창조로 알려진 위산 영우(滄山靈祐, 771~853) 조사의 어록으로 『위산대원선사경책(滄山大圓禪師警策)』이라고도 하며, 당시 학인들이 점차 나태해지고 헛된 시간을 보내자 이를 경책(警策)하여 수행의 正道를 갈 수 있게 설법한 것이다.

『불설사십이장경』·『불유교경』·『위산경책』의 『불조삼경』은 불교의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었으며, 불교의 경전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에게도 불교의 교훈적인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교를 널리 전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본 『불조삼경』은 元朝의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恭愍王 10(1361)년에 全州의 圓嶺寺에서 간행된 1책 41장의 목판본으로 『불설사십이장경』·『불유교경』·『위산경책』의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구성은 가장 앞부분에 至元 丙戌(1286)년에 몽산 덕이가 지은 「叙」(2장)를 시작으로 『불설사십이장경』(12장), 宋 眞宗의 「대송진종황제주유교경서(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序)」(1장)와 『불유교경』(12장), 장수(張銖)의 「주위산경책서(注滄山警策序)」(1장)와 『위산경책』 및 간행질(12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表題는 題簽에 ‘佛說四十二章經’으로 墨書되어 있고 卷首題와 卷尾題는 각각 ‘佛說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이며, 版心題는 ‘四十二章經’·‘遺經’·‘滄山’이다.

版式의 변란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은 세로 20.0cm 가로 14.9cm 내외이며 계선은

없다. 본문의 行字數는 8行17字 내외이고 註文은 雙行이다. 판심의 版口는 白口이고 魚尾는 上內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24.9cm 가로 17.7cm이다.



책의 본문 가장 앞머리에는 몽산화상 덕이의 서문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道無今古人有悟迷是故釋迦老人承，願力示現自鹿野苑至跋提河三百餘，會言無言言開示人天令各悟入佛之知，見惟四十二章經遺教經者是始終教誡，法寶也後漢永平間迦葉摩騰竺法蘭持，前一經東來焚驗有靈立教興宗梁大通，問又得西天二十八世祖達磨大師傳佛心印，前來直指與經符契是我此土人有大乘，根器而有幸也可大師者立雪斷臂求，問妙道言下有悟執侍數載三拜得髓，授受衣盂七傳而至百丈百丈得靈蘂運，公滌山祐公大振玄風增輝佛日滌山因，見學者少有放逸遂述法語警其未悟，策其未到文簡語直義博意深叢林中，以四十二章經遺教經滌山警策謂之佛，祖三經能一覽而直前者不歷多生便，可成佛作祖宣和間又得遂禪師直註深，義初學易通妙矣哉自此有志於道者，省力甚多不壞香而見佛祖不動步而登，覺場今靜山慧大師抽衣資鉸梓于吳中，休休庵以廣其傳奇哉以財鉸梓名財施，以經傳法名法施財法二施名大施佛云能行，大施者決澄菩提靜山將來種智圓明十，號俱彰因此勝緣也覽斯經者却宜淨心，如虛空向未開卷以前着眼掀翻窠臼洞，徹玄微挽回真風大興未運若也見義勇，爲將來亦可成器其或循行數墨辜負，佛祖多矣至元丙戌(1286)燈節絕牧叟德異叙



조사본 『불조삼경』의 끝부분에는 간행과 관련한 비구 행심(行心)의 발원문과 시주질 등이 수록되어 있다.

右三經乃」吾邊不然對面千里苟力行之則豈」可以佛前佛後爲難也如或稱佛子」而不依是則惜乎其將何以比之耶」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嵩寺流益永祀者發願比丘 行心 誌」同願比丘 法空 刊行」助緣居士 尹善 圖”



이 기록을 통하여 조사본 『불조삼경』은 비구 행심(行心)이 발원하고 법공(法空)이 간행의 책임을 맡아 윤선(尹善) 등의 도움으로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全州) 원암사(圓嵩寺)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본과 같은 고려시대의 판본으로는 현재 3종만이 알려져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자료는 충혜왕 복위 2년(1341)의 정각사(正覺社) 판본으로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 원암사(圓峯寺)에서 간행된 판본 및 우왕 10년(1384)에 간행된 판본이 있다.



<우왕 10년(1384) 판본>



<조사본(1361년)>

원암사 판본과 우왕 10년(1384)의 판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판식의 계선과 권말의 발문 수록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원암사 판본에는 판식에 계선이 없고 권말에 익대(益大)의 발문이 없으나, 우왕 10년(1384)의 판본에는 계선이 있고 권말에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 ○ 지정사례

- 보물 불조삼경(1981.03.18.지정/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불조삼경(2012.02.22.지정/전라남도 나주시 운흥사)
- 보물 불조삼경(1981.03.18.지정/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불조삼경(1995.07.19.지정/강원도 원주시 한솔종이박물관)
- 보물 불조삼경(2007.09.18.지정/부산광역시 범어사)

### ○ 참고문헌

- 경기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기도, 2020.
-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유형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경기도, 2020.